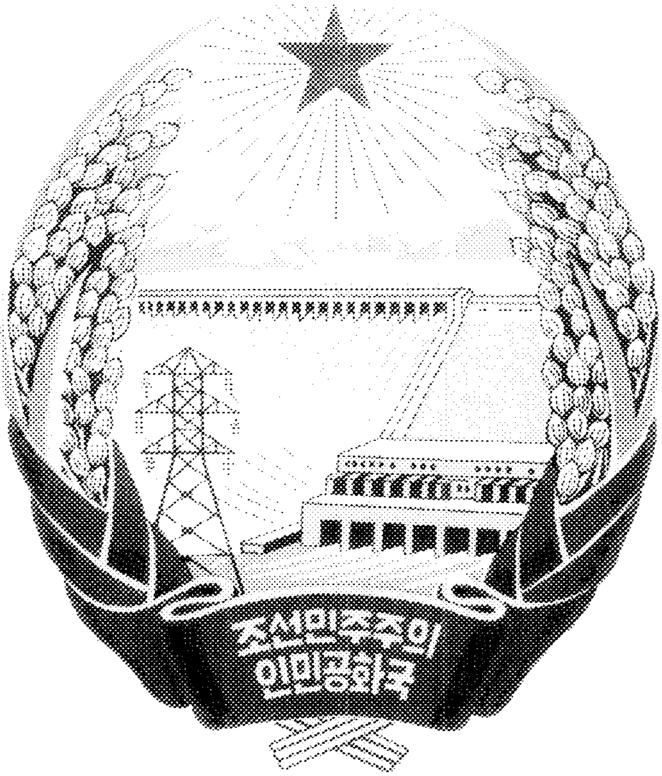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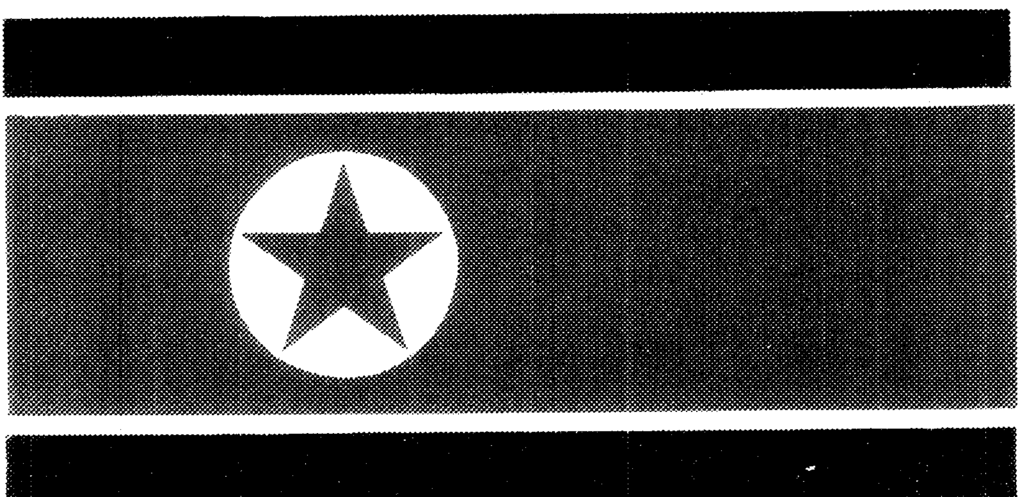
조선중앙년감

197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 1 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1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

제12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 2 장 경 제

第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第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한다.

第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第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第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第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第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물질적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第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第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들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第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로동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第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第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第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第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第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第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第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 3 장 문 화

第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第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第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第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第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第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第41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第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第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第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第45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第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第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第48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 4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第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第5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第51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第52조 만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第53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第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

유를 가진다.

第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第56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第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59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第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第62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第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第64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수 없다.

第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第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第67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第68조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第69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第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第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第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第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第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第7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第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第77条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第78条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반수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第79条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第80条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第81条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第82条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第83条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돕는다.

第84条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 없이 체포할 수 없다.

第85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이다.

第86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第87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현행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第88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 6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第89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第90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第91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第92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第93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 7 장 중앙인민위원회

제10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외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 8 장 정무원

제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 정무원직속기관, 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전원회의는 정무원성원 전원으로 구성하

며 정무원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한다.

第111条 정무원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정무원상무회의는 정무원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第112条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第113条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第114条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제 9 장 지방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第115条 道(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第116条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第117条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第118条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第119条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第120条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반수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第121条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第122条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第123条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第124条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第125条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第126条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第127条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第128条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第129条 지방행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第130条 지방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제 10 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3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3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수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3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 11 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차　　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김일성동지의 로작

신년사　1973년 1월 1일……………………………1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은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25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2월 8일……………………………5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농업부문 3대혁명소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2월 21일……………………………8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강서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73년 3월 14일……………………25

우리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해방지역 방문의 중대한 사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온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그 성과를 열렬히 축하한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4월 14일……40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3년 4월 16일……………………43

우리는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거둔 모든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6월 20일……………………………50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3년 6월 23일……………………………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아프리카와 구라파 여러 나라 방문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열렬히 축하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아프리카 및 구라파방문성과를 축하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7월 21일……………………58

우리는 꽁고인민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사회 건설에서 날로 큰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꽁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1일……………………60

우리는 꽁고인민이 마리엔 느구아비 대통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과 셀린느 느구아비부인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3일……………63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9일 ……65

자기 조국을 완전히 해방할 때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려는 캄보쟈인민의 확고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 부인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12일 ……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9월 9일 ……79

일본 《이와나미》서점 상무취체역 총편집장과 한 담화 1973년 9월 19일 ……82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0월 24일 ……92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0월 28일 ……94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0월 28일 ……99

축 하 문
기양뜨락또르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1973년 4월 29일 ……100

9.25뜨락또르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1973년 4월 29일 ……101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1973년 4월 29일 ……102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단 성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1973년 7월 10일 ……1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결정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하여 ……1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1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08

혁명력사자료

혁명의 요람 만경대 ……109
배움의 천리길 ……11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마흔돐을 기념 ……122
봉화혁명사적관 ……123
혁명적출판물 《새날》신문창간 마흔다섯돐을 기념 ……126
조선혁명박물관창립 스물다섯돐 ……127
마동희동지서거 서른다섯돐 평양시추모회 ……128
우리 나라 지리 ……129
우리 나라 력사 ……131
조선로동당 ……1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8
조선인민군 ……141
근로단체 ……14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기타 정당, 사회단체 ……145

정 치

승리의 해, 영광의 해인 1973년 ……147
민족적경사로 맞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한돐 ……150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평양시 학생소년들이 설맞이모임 ……15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 ……152

각 도(직할시)당대표회 진행……………………153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15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신 극진한 배려……………………156
조선인민군지휘관및정치일군열성자회의 …158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59차 확대회의 ……………………159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근로단체들의 회의 ……………………160
조선소년단 제2차열성자대회……………………161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162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 ……………………1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성대히 기념……………………16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신 첫돐을 성대히 기념……………………170
조선인민군창건스물다섯돐을 기념 ……………………171
김일성군사종합대학창립 스무돐을 기념 ……………………172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을 기념…173
《미제반대투쟁의 날》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시위……………………174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시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174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인 남조선 호전분자들의 조선정전협정 위반행위………175

사회주의경제건설

《속도전》의 진군나팔소리 높이 3대기술혁명을 눈부신 속도로 추진……………………180
《속도전》의 방침따라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의 지름길로 힘차게 나간다……180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유해로동과 고열로동을 빨리 없앤다……………………181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 더욱 접근시킨다……………………182
우리 나라 녀성들은 가정일과 부엌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빨리 해방되고있다……………………18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 진행……………………183
경애하는 수령님의 참석밑에 금성뜨락또르공장 조업……………………184
경애하는 수령님의 참석밑에 평양지하철도개통식 성대히 진행 ……………………185
압록강관개 준공……………………186
전력 공업……………………186
석탄 공업……………………187
광 업……………………187
금속공업 ……………………188
기계공업 ……………………188
선박공업 · ……………………189
화학공업 ……………………189
제약의료기구공업 ……………………190
건재공업 ……………………191
림 업……………………191
방직공업 ……………………192
편직공업 ……………………192
피복공업 ……………………193
신발공업 ……………………193
식료공업 ……………………194
일용품공업 ……………………194
지방공업 ……………………195
어업 ……………………196
양어업 ……………………196
양식업 ……………………197
수산물가공업 ……………………197
농산업 ……………………197
남새업 ……………………198
축산업 ……………………199
가금업 ……………………200
과수업 ……………………200
잠업 ……………………201
《소년단림》, 《사로청림》……………………201
산업건설 ……………………202
지방건설 ……………………202
평양시건설 ……………………203
철도운수 ……………………204
자동차운수 ……………………204
수상운수 ……………………205
체 신……………………205
재 정……………………206
로동행정 ……………………206

사회주의문화건설

문화혁명의 급속한 발전 ………………208

문학예술의 전면적개화…………………209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 …………………210
사범교육 ……………………………………211
대학교육 ……………………………………212
일하며 배우는 교육…………………………213
어린이교육교양 ……………………………213
자연과학 ……………………………………214
사회과학 ……………………………………215
혁명소설 ……………………………………217
혁명가극 ……………………………………217
영화예술 ……………………………………218
음악과 무용…………………………………219
미술작품 ……………………………………220
문학예술의 대중화…………………………221
예술공연 ……………………………………222
예술축전 ……………………………………223
군중문화 ……………………………………224
체 육…………………………………………227
체육경기 ……………………………………230
출판보도 ……………………………………231
《위대한 주체예술은 세계예술사 발전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일대혁명》……………232

인민생활향상

로임과 생활비………………………………242
실질 소득……………………………………243
사회문화시책 ………………………………244
국가사회보험 ………………………………244
상품공급 ……………………………………245
사회급양 및 편의봉사………………………246
도시경영 ……………………………………247
보 건…………………………………………249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충성심과 경모……………………………………252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따라 영원히 살며 싸워나가렵니다………………253

김일성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북반부는 참으로 살기좋은 지상락원이다…………254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내놓으신 방안이야말로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안이다》……………………………………255

남조선인민운동

거세차게 타번진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 ……………………………………………257
청년학생들의 투쟁……………………………257
지식인들의 투쟁………………………………261
종교인들의 투쟁………………………………261
기타 계층들의 투쟁…………………………262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 ……………………………………………262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정치정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264
광란적인 전쟁준비책동………………………266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책동…………269
《반공》 소동…………………………………272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투…274
박정희괴뢰정권의 파멸적위기………………277

경제정세

파산되고있는 민족공업………………………283
흉작만 거듭하는 농업………………………283
파산몰락하는 수산업…………………………284
심각한 재정금융위기…………………………285
식민지노예교육 ………………………………286
짓밟힌 민족문화………………………………288
한심한 보건시책………………………………290
사회적혼란 ……………………………………292
굶주림과 고역속에서 시달리는 로동자들…295
생지옥속에서 헤매는 농민들………………297

청소년학생들의 수학처지……………………298
날로 격화되는 주택난……………………299
더해만가는 억울쌀 고통……………………300
공해에 의한 재난……………………301
악랄해진 《이민》, 《인력수출》책동……………302
매국배족적인 《기생관광》책동……………304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의 강령적지침………306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위대한 승리………308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과 국제적 지지성원, 련대성의 강화……………309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투쟁……………309
남조선인민들의 투쟁……………310
해외동포들의 적극적인 투쟁……………311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의 강화……………312
남북조절위원회사업 및 적십자회담………313
남북 조절위원회사업……………313
남북 적십자회담……………314
합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316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인민들의 반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은 세계를 무한히 격동시킨 위대한 정치적사변……………317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방침을 전세계인민들이 적극지지……………320

재일조선공민

어버이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323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325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불패의 통일단결…326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를 위하여…………327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329
문학예술, 체육 및 출판보도사업…………330
대외 사업……………332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333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100여년간의 침략만행……………334

일제의 조선침략 주요일지……………348

국 제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발은 온 누리에 찬연히 비치고있다……353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360
당 및 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급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36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환하신 축전, 축하편지, 전문……………366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가고있다 (1973년 국제정세)…381

아 세 아

정세 개관……………387

중 국……………389
샹강 (홍콩)……………391
아오먼 (마카오)……………392
몽 골……………392
웰 남……………394
남부웰남……………395
라오스……………397
캄보자……………400
일 본……………402
필리핀……………407
브루네이……………409
인도네시아……………409
떠모르……………411
싱가포르……………411
말레이시아……………413
타 이……………414
비 마……………416
부 탄……………417
시 킴……………418
네 팔……………418
방글라데슈……………420
인 도……………422

파키스탄 ……424
스리랑카 ……426
말디브제도 ……427
아프가니스탄 ……428
이 란……430
이라크 ……432
수리아 ……433
레바논 ……435
요르단 ……437
이스라엘 ……438
사우디 아라비아……440
쿠웨이트 ……440
바레인 ……441
까타르……442
아랍 추장국……443
오 만……443
민주예멘 ……444
예 멘……446
토이기……446
끼쁘로스 ……447

아프리카

정세 개관……450
애 급……452
리비아……453
수 단……455
뜌니지……456
알제리……457
마로끄……459
에스빠냐령 사하라……460
모리따니 ……460
말 리……461
세네갈……462
감비아……463
기네-비싸우……464
베르데갑제도 ……465
기 네……466
시에라 레온……467
리베리아 ……468
상아해안 ……469
상부볼따 ……469
가 나……470
또 고……471
다오메……472
나이제리아 ……473
니제르……474
챠 드……475
까메룬……475
중앙아프리카 ……476
적도기네 ……476
가 봉……478
꽁 고……478
까빈다 ……480
자이르……480
부룬디……481
루안다……482
우간다……482
에티오피아 ……484
소말리아 ……485
프랑스령 소말리아……486
케니아……487
탄자니아 ……487
모잠 비끄……489
말라위……489
잠비아……490
짐바브웨 ……491
앙골라……492
나미 비아……493
보쯔와나 ……494
느그와네 ……495
아자니아 ……495
레소토……496
말가슈……497
까나리아 ……498
쎈트 헬레나……498

산토메 프린시페……498
세이쉘……499
모리셔스……499
레유니옹……500
꼬모르……500

구라파

정세개관……502

쏘련……502
뽈스까……504
체스꼬슬로벤스꼬……506
웽그리아……507
로므니아……509
벌가리아……511
알바니아……512
독일민주주의공화국……513
유고슬라비아……515
핀란드……517
스웨리예……518
노르웨이……520
이슬란드……521
단마르크……523
서부독일……524
오지리……526
희랍……527
스위스……529
리히텐슈타인……530
이딸리아……530
바띠까노……532
싼 마리노……532
말따……533
영국……534
아일랜드……536
화란……537
벨지끄……538
룩셈부르그……539
프랑스……539
모나꼬……542
안도라……543
에스빠냐……543
뽀르뚜갈……544
지브랄타르……545

라틴아메리카

정세개관……546
꾸바……547
메히꼬……549
과떼말라……551
살바도르……551
온두라스……552
영령 온두라스……553
니까라과……553
꼬스따 리까……554
빠나마……555
빠나마 운하지대……557
쟈메이커……557
아이띠……558
도미니까……559
뿌에르또 리꼬……559
트리니대드 토바고……560
그레네이더……561
베네수엘라……562
가이아나……563
수리남……565
프랑스령 가이아나……565
브라질……566
꼴롬비아……567
에꽈도르……568
뻬루……570
볼리비아……572
빠라과이……573
우루과이……574
아르헨띠나……575
칠레……578
바베이도즈……580
앙길라……580
그린랜드……580
버진……581
버무다……581
바하마……582
마르띠니끄……582
서인도제도……583
센트루시아……583
안티구아……583
포클랜드……583
과들루쁘……583
도미니까……584

북미

카나다……585
미국……586

대 양 주

정세 개관 ……591

오스트랄리아 ……591
뉴질랜드 ……592
피 지 ……593
서부사모아 ……594
파푸아 뉴기니아 ……594
누벨 깔레도니아 ……594
나우르 ……595
통 가 ……595
괌 도 ……595
미크로네시아 ……596
솔로몬제도 ……596

량극지방

남 극 권 ……597
북 극 권 ……597

국제 회의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598
유엔총회 제28차회의 ……599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 나라들의 련대성회의 ……600
세계직업련맹 제8차대회 ……601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위원회 제12차회의 ……601
《공산당선언》발표 125돐기념 국제과학토론회 ……601
평화력량들의 세계대회 ……602
캄보쟈에 관한 국제회의 ……602
웰남에 관한 빠리국제회의 ……602
10차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603
제6차아랍국가수뇌자회의 ……603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 ……603
1973년에 새로 나온 국제기구 ……604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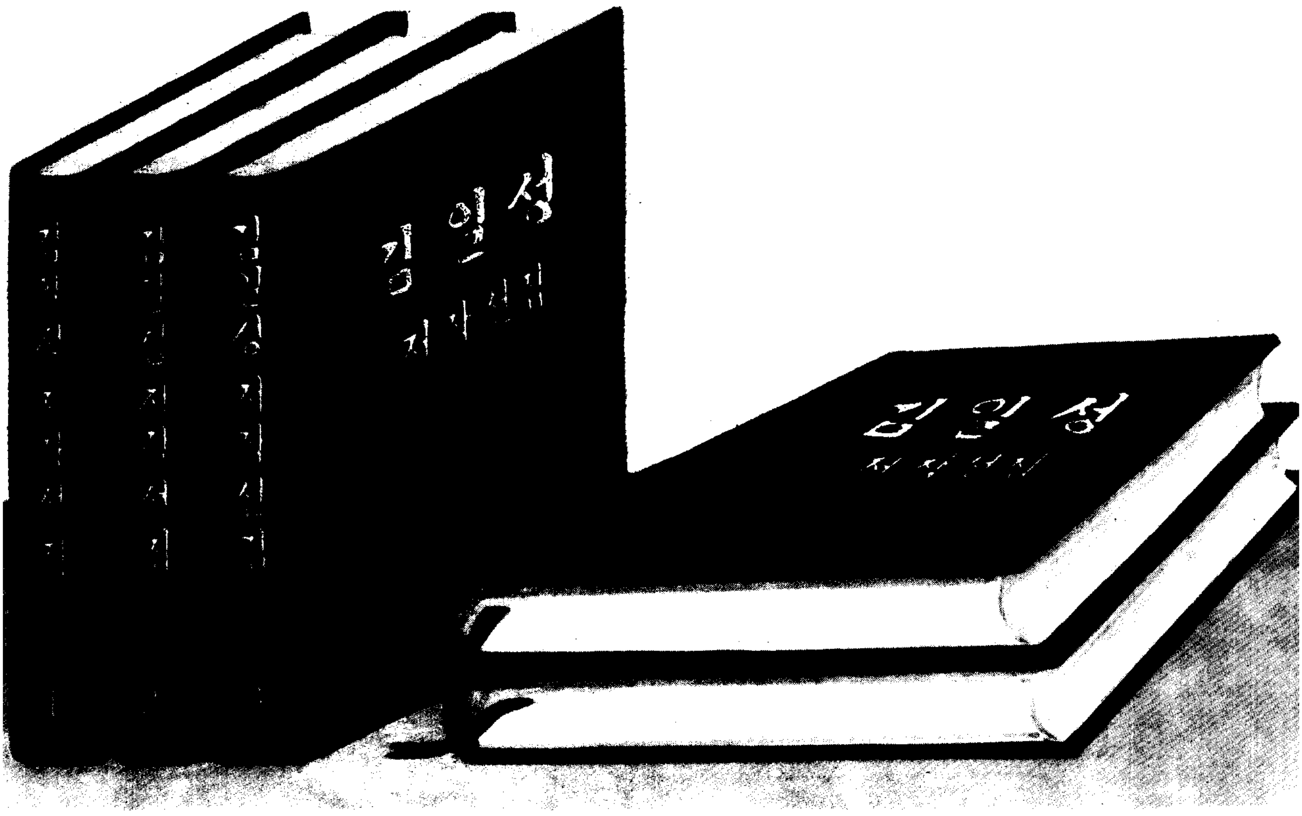
기념비적 동상 및 기념탑 ……605
5대혁명가극 ……609
혁명적 대장편소설 ……612
불멸의 서사시 ……615
국제영화축전 특별상계관작품 ……618
인민상계관 극작품 ……619
인민상계관 영화작품 ……624
우리 나라 명산물, 특산물(2) ……627
우리 나라 기상개관 ……633
우리 나라에서 발표한 편지, 비망록, 호소문, 성명들 ……640
미국국회에 보내는 편지 ……640
세계각국국회와 정부들에 보내는 편지 ……6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642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657

공동성명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60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성명 ……662
성명, 보도, 콤뮤니케일람 ……664
국내주요일지 ……667
남조선주요일지 ……677
재일조선공민주요일지 ……684
국제주요일지 ……689

사진과 삽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초상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국기
화평땅에 모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자료간지)
정치(사진묶음)
경제, 문화 (사진묶음)
남조선, 재일조선공민 (사진묶음)
국제 (사진묶음)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따라 힘차게 달려온 1973년 (앞면지, 그림)
위대한 주체의 해발은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 있다(뒤면지, 그림)
《속도전》앞으로! (국내서술간지)
반제자주의기치밑에 (국제서술간지)
천하절승 금강산(자료간지)



김일성동지의 로작

신 년 사

1973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조국력사에 또하나의 빛나는 해로 기록될 1972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1973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당 제5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전체 인민들의 정치적열의가 전례없이 앙양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선거를 승리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깊은 신뢰를 표시하였으며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온 사회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시위하였습니다.

우리는 며칠전에 진행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으며 혁명발전의 현실에 맞게 국가기관체계를 개편하고 공화국의 새 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나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전체 선거자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 인민의 대표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동지들을 비롯하여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 참가하였던 전체 동지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는 1972년에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장된 투쟁을 벌렸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미 6개년계획말 생산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6개년계획의 3년분 과제를 넘쳐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교육부문에서는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공장대학을 비롯한 각종 대학을 대대적으로 늘여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키워내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가지고 과학원 창립 스무돐을 기념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지난 기간 과학자들이 우리 나라 과학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킨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정력적으로 투쟁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훌륭한 연구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지난해에 영화인들을 비롯한 우리의 붉은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

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생활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으며 우리의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이 쌓아올린 빛나는 업적에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조국보위초소에 튼튼히 서서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였으며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청년근위대원들도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돐기념행사를 통하여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꾸준한 투쟁에 의하여 지난해 7월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으며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였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남북적십자회담도 성과적으로 진척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앞에는 새로운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는것입니다.

지난해에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이 모든 빛나는 성과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결과입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근로인테리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그리고 사회안전원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지난해에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에 재일 조선동포들은 총련의 지도밑에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60만 재일동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지난해에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나는 1973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1973년은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절반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내세운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6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국가계획에 예견된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면서 특히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을것입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탄광들과 광산들에서 갱내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실현하여 생산을 늘이는 한편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여 예비매장량을 넉넉히 확보

하며 새로운 탄광과 광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탄광과 광산들의 기계화를 실현하며 새로운 탄광과 광산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대형기계들과 여러가지 설비, 자재를 충분히 생산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건설부문앞에는 우리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현대적인 대야금기지와 종합적인 대화학공업기지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금 하고있는 김책제철소의 강철직장, 압연직장 건설과 승리화학공장건설을 빨리 끝내며 서부지구에 대규모의 화학공장을 건설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두수발전소와 북창화력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빨리 완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며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올해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중심과업의 하나입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올해에 방직공업과 피복공업, 신발공업, 일용품공업, 식료가공공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인민생활에 필요한 질좋은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6개년계획말 수준을 돌파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교통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수송조직을 개선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철도운수부문에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지난해의 경험은 중간지대농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전적으로 옳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중간지대들에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적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을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중간지대농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협동농장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며 특히 로력조직을 잘하여 로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농업생산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최신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생산에 널리 적용하는것은 인민경제부문들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빨리 늘이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전반적으로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투쟁하는 한편 지난 기간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대담하게 생산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모든 국가기관들에서는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대로 사업체계를 빨리 고치고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세분화되여있던 중앙집행기관들을 일부 통합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없애고 생산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는 국가의 전반적리익보다 자기 기관, 자기 지방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는 그릇된 사상관점이며 사회주의건설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해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모든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은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언제나 전반적국가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리며 자기앞에 맡겨진 협동생산품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 경험은 지도일군들이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고 용감하게 투쟁하는 부문에서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며 그렇지 못한곳에서는 사업이 답보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에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하며 자신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군중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지도일군들은 특히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를 없애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생산현장에 직접 내려가 로동자, 농민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생산자대중의 요구와 아래의 구체적실정을 잘 알고 모든 사업을 지도해야 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할것입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 만족하여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빨리 높아질수록 사상혁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그들을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당의 참된 붉은 전사, 공산주의적혁명가가 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총련조직들과 재일 조선동포들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일조선동포들은 반동들의 온갖 분렬파괴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 총련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총련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싸워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국제혁명력량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더욱더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여나갈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1973년을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결정적인 해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보람차며 우리의 전망은 광활합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은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25돐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2월 8일

동지들!

오늘 우리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25돐을 뜻깊게 기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인민군대에서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할데 대하여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혁명투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직과 단결입니다. 혁명은 결코 혼자서 할수 없습니다. 혁명투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무어진 강력한 혁명조직이 있어야 하며 그 조직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사상의지적인 통일과 단결이 보장되여야 합니다.

혁명조직의 통일과 단결은 조직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상으로 무장하고 서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혁명조직의 통일과 단결은 혁명조직성원들사이의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동지라는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동지라는 말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 다시말하여 사상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을 가리켜 동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동지라는 말은 혁명가들사이에 불리우는 영예롭고 고귀한 칭호이며 혁명전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혁명대오안에 가짜동지도 있을수 있습니다. 가짜동지라는것은 한혁명대오안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딴꿈을 꾸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 부부가 한자리에 누워서 서로 딴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진실한 부부가 아니며 그들사이에는 참다운 부부애가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혁명대오안에 있으면서 딴 사상을 가지고 딴꿈을 꾸는 사람은 진정한 동지가 아니고 가짜동지입니다. 가짜동지들사이에는 참다운 동지애가 있을수 없습니다.

사람들사이의 참다운 동지적관계와 혁명적동지애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혁명투쟁과정에서만 이루어지며 공고화됩니다. 혁명투쟁을 떠나서는 혁명적동지애가 있을수 없습니다. 혁명투쟁이 없다면 혁명동지도 혁명적동지애도 없을것이며 사람들사이에는 다만 벗, 친우, 형제와 같은 친분관계만이 있게 될것입니다. 사람들은 혁명투쟁을 통하여 동지로서 서로 믿고 사랑하게 되며 동지적사랑을 더욱 발전시켜나갑니다.

사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자간의 사랑, 모자간의 사랑도 있으며 형제간의 사랑, 친우들사이의 사랑, 동지들사이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사랑가운데서 가장 값있고 귀중한 사랑이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입니다. 부자간의 사랑이나 모자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 동지적인 사랑과 결합될 때 그것은 더 깊은 사랑으로 될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혁명투쟁에 나선 다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동지들의 사랑이 더 귀중합니다. 혁명하는 사람은 부모와 떨어져서는 살수 있지만 혁명동지들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

다.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생명을 보존하며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게 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의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보다 혁명동지들의 사랑이 더 귀중하다는것을 절실히 체험하였습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보다 동지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은 15살까지 받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지하투쟁과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많은 동지들이 곤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여주었습니다. 동지들은 나의 건강을 념려하여 자기들은 통강냉이를 먹으면서도 나에게는 좁쌀을 구해주느라고 무진 애를 썼으며 온갖 성의를 다하여 나를 보살펴주었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가운데는 적들로부터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동지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항일유격대에는 언제나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이 지배하고있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이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이였으나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적동지애의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싸웠기때문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참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은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으로써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며 일제와 싸워이긴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이였습니다.

만일 항일유격대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보장하지 못하였더라면 강대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15년동안이나 계속할수 없었을것입니다. 혁명군대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될 때 15년이 아니라 20년, 100년이라도 적과 싸울수 있으며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승리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동지애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받았으며 그것을 더욱 빛내이면서 25년동안 강화발전되여왔습니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은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인민군대군인들은 병사와 군관, 장령 할것없이 모두가 혁명을 위하여 총을 들고 싸우는 혁명전사들이며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같이 피를 흘리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들입니다. 인민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을 높이 발양하며 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면 인민군대는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적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병일치, 상하일치의 구호를 내놓았는데 그것도 모든 군인들이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미풍을 높이 발양할 때에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되여야 군관과 병사, 상급과 하급이 진실로 일심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동지들가운데는 우리와 40여년동안 동지적관계를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있고 25년, 20년 또는 15년 동안 동지적관계를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우리와 같이 투쟁한 사람들은 동지적관계가 더 깊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민군대에서 25년, 20년 또는 15년 동안 싸운 사람들도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5년이나 20년이 결코 짧은 시일이 아닙니다. 인민군대에서 15년이상 우리와 함께 투쟁한 사람들도 당앞에서 검열된 혁명동지들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군대를 창건할 때에는 혁명투쟁에서 단련된 혁명적골간이 수천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인민군대를 창건하는 투쟁과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3년동안의 조국해방전쟁과 전후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혁명동지들이 수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민군대가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합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자라났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제국주의침략군대나 식민지고용군대에는 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이 있을수 없습니다. 남조선《국군》을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는 동지적관계가 아니라 순전히 금전관계, 직위에 의한 복종관계가 있을뿐입니다. 그러므로 남조선《국군》안에는 불신임과 갈등, 모순이 가득차 있습니다. 남조선 《국군》내부의 모순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것은 남조선집권자들과 군단장들사이의 관계만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남조선집권자들은 군단장들을 3년이 멀다하게 교체하고있습니다. 남조선집권자들이 그렇게 하는것은 군단장들을 믿을수 없기때문이며 군단장들이 자기 지반을 닦는것을 두려워하기때문입니다. 동지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단결되지 못한 군대는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모든 장병들이 혁명적동지애로 결합되여있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있기때문에 필승불패입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인민군대를 일당백, 일당천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인들속에서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하며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전군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키며 동지적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군인들속에서 혁명적동지애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입니다.

한고향사람이라고 하여 진정한 동지로 되는것이 아니며 동지적단결이 이루어지는것도 아닙니다. 혁명을 하려는 사상의지가 서로 같아야 참다운 혁명동지로 될수 있고 혁명적단결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지적단결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가 하는것은 혁명투쟁을 하려는 사상의지가 같은가 같지 않은가 다시말하여 같은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였는가 무장하지 못하였는가 하는것을 척도로 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군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모든 군인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할 때 혁명적동지애가 높이 발양될수 있고 혁명적단결이 더욱 강화될수 있습니다.

인민군대안에서 혁명적동지애를 발양시키며 동지적단결을 강화한다고 하여 군인들이 잘못한것을 서로 싸고돌거나 비판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동지라고 하여 칭찬만하고 잘못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는것은 결코 동지를 사랑하는것이 아닙니다. 동지의 잘못에 대하여 비판하고 처벌하는것은 혁명동지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가 우리와 함께 혁명사업을 끝까지 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그러므로 동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동지의 잘못에 대하여 비판도 하고 처벌도 하여 잘못을 제때에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참다운 혁명적단결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처벌하기도 합니다. 물론 동지들을 처벌한 다음에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벌받은 동무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들을 직접 만나 사업에서 잘못된것이 무엇이고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주군합니다.

혁명동지를 처벌하는것이 가슴아픈 일이라고 하여 동지가 과오를 범한데 대하여 처벌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동지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비판도 하고 필요할 때에는 처벌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군대에서 잘못을 저지른 군인들을 처벌한다고 하여 영창에 넣는것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됩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군인들을 옳게 교양할수도 없고 부대의 혁명적단결을 강화할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인민군대에서 영창제도를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 규률을 세우기 위해서는 군대에 영창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창이 있어야 규률을 세우고 군인들을 교양할수 있다고 하는것은 혁명적동지애가 없고 군인들을 교양할 능력이 없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민군대에서 영창을 없애면 큰일날것처럼 생각하였지만 영창을 없애고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 결과 인민군대의 규률과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생활은 군인들속에서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인민군대의 위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이라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동무들에게 인민군대안에서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혁명적동지애의 고상한 도덕적품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갈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25돐을 맞이하면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인민군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우리와 40여년동안 함께 싸워온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와 25년, 20년, 15년 동안 함께 싸워온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새로 자라난 간부들과 이 자리에 참가한 전체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농업부문 3대혁명소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2월 21일

동지들!

최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공업부문과 농촌경리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결정에 따라 며칠전에는 공장, 기업소들에 3대혁명소조가 나갔으며 오늘은 협동농장들과 국영농목장들에 3대혁명소조가 나가게 됩니다.

나는 오늘 농촌경리부문에 나가는 3대혁명소조성원들에게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농업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농업협동화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한 다음 계속하여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1964년 2월에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채택하고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당이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은지 10년이 가까와오는데 아직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들이 원만히 실현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기간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들이 원만히 실현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이 격화되고 정세가 더욱 긴장되는데 따라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은 사정과 관련되여있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계속 끌어들이는 한편 남조선반동들을 부추겨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바크보만사건을 날조하여 웰남에서 침략전쟁을 대대적으로 벌리였으며 전쟁을 점차 인도지나 전지역에 확대하였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출것을 절실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로선을 내놓고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국방건설에 돌리였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이 국방건설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돌리다보니 농촌에 큰 힘을 돌리지 못하였으며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기간 농촌기술혁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수리화와 전기화의 과업은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그러나 인민군대의 군사장비들을 현대화하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요새화하는데 많은 강재와 세멘트를 돌리다보니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을 늘이지 못하였으며 농촌에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많이 보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놓은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과업을 아직 완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사업에 많은 인적자원을 돌리다보니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의 과업도 원만히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농촌에 지식이 있고 새것에 민감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하겠는데 정세가 긴장하고 전쟁의 위험이 커감에 따라 농촌에서 많은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나갔으며 특히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농촌청년들이 대부분 인민군대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 농촌에 청년들은 얼마 없고 녀성들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남게 되였으며 따라서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이 지난 기간 정세가 긴장되는데 따라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힘을 돌리다보니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은 우리 당의 방침이 잘못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난 몇해동안의 정세발전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좀 지장을 받으면서도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은 우리 당의 방침이 혁명의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맞는 정당한 방침이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지 않고 농촌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여 거기에만 힘을 돌렸더라면 《푸에블로》호사건때나 《이씨—121》사건때 적들의 침공을 면치 못하였을것입니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놓았기때문에 원쑤들의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실수 있었으며 적들로 하여금 우리앞에 무릎을 꿇게 할수 있었습니다.

세계력사에는 아직 공업화를 하면서 동시에 국방건설을 한 실례가 없습니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 나라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었으며 혁명의 근본리익을 저버릴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난 기간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 주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기간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것은 또한

당,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이 농촌을 잘 도와주지 못한것과도 일정하게 관련되여있습니다.

우에서도 말하였지만 지금 농촌에는 청년들이 얼마 없기때문에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녀성들이 농사도 짓고 협동농장관리사업도 맡아하고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일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지난날 배우지 못한 탓으로 선진적인 과학지식을 잘 모르며 문화수준도 낮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들은 경험주의와 보수주의에 사로잡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나쁘다고 타발할수는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협동농장관리일군으로 일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거의다 토지개혁때부터 일을 잘 해온 당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지난날 그들을 잘 교양하고 도와주었더라면 농촌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을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당,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이 농촌을 잘 도와주지 못하였으며 농민들과 협동농장관리일군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농촌에서 많은 청년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냈을뿐아니라 인민군대에서 제대되는 농촌출신청년들을 농촌에 보내지 않고 거의다 공장,기업소들에 배치한 결과 농촌진지가 약화되였으며 농촌로력이 모자라게 되였습니다. 그런데다 농민들에게 기계는 만들어주지 않고 가마니짜기와 새끼꼬기, 강냉대껍질벗기기, 길닦이와 같은 숱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농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려면 그들에게 시간을 주어 학습도 하고 회의도 하게 해야겠는데 이렇게 많은 부담을 걸머지우니 그들이 언제 학습을 하며 회의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농촌에 로력이 모자라고 농사일이 바쁜 조건에서 당조직들은 마땅히 농민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하겠으나 지난날 당조직들이 농민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대책도 바로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농민들과 협동농장관리일군들에게 학습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주지 않고 그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지 않은 결과 농민들은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게 되였으며 협동농장관리일군들은 경험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농촌에서 이처럼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잘 추진되지 않았는데 왜 몇해전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지 않고 오늘에야 비로소 파견하겠습니까?

물론 몇해전에 농촌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였더라면 농촌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들을 빨리 고치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을것이며 농사도 더 잘 지을수 있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농촌경리부문에 있는 결함들이 오늘과 같이 심각하게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내재하는 결함들이 초기에는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의 변화가 일정한 한계에 이르러야 표면에 나타나는것처럼 사회생활에 내재하는 결함도 일정한 시기에 가서야 표면에 나타납니다. 온도가 섭씨령도에 내려가야 물이 얼고 섭씨100도에 올라가야 물이 끓는것처럼 농촌경리부문에 있는 결함도 일정한 한계에 이르러야 표면에 나타나는것입니다. 더우기 지난날 당조직들과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이 농민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않고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하였기때문에 농촌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었으며 농촌경리부문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들을 제때에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촌경리부문에 내재하는 결함들이 점차 자라나게 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농촌에 직접 나가 협동농장들의 실정을 료해하는 과정에 농촌경리부문에 하루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될 엄중한 결함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농촌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들을 빨리 고치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농촌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촌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기로 한 당의 조치는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조건들도 충분히 마련되여있습니다. 당의 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습니다. 지난날에 비하여 강철생산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국방건설을 하면서도 많은 힘을 농촌에 돌릴수 있게 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당의 방침을 받들고 농촌에 나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 제5차대회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세웠습니다. 당대회가 내세운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과 함께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농업생산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날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적발전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기술수준은 지난날보다 훨씬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자본주의적발전단계를 제대로 거친 나라들보다 뒤떨어져있으며 농민들은 의연히 어렵고 힘든 로동을 하고있습니다. 농촌에 나가 모를 꽂아보고 김을 매본 동무들은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것을 잘 알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지하투쟁을 할 때 농촌에 들어가 사업하면서 농민들과 같이 모도 꽂아보고 김도 매보았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실 논판에 들어가서 하루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모를 꽂는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매는 일도 모내기에 못지 않게 어렵습니다. 농촌지원사업에 동원되였던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무더운 여름에 김을 매려면 땅에서 더운 김이 확확 올라와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합니다. 농촌에 나가는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방침에 따라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농민들을 하루빨리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며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뜨락또르생산을 늘여 농촌에 더 많은 뜨락또르를 보내주며 그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당과 국가에서는 지난해부터 뜨락또르생산에 힘을 집중하고있으며 여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생산하는 뜨락또르를 먼저 알곡이 많이 나는 서부지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경지면적 100정보당 평양시와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의 벌방지대에는 3대, 중간지대에는 2.5대씩 차례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를 이와 같이 늘인다 하여도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그리 많은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그마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 긴장한 투쟁을 벌려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을 따라 앞서야 합니다. 우리가 발전된 나라들의 농촌경리의 기계화수준을 따라 앞서는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며 먼 앞날의 일도 아닙니다. 1976년에 가서는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가 8～9대로 될것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당과 국가에서는 자동차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도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자동차생산이 늘어나는데 따라 국가에서는 가까운 앞날에 농촌에 자동차를 경지면적 200정보당 1대씩 차례지게 할것이며 앞으로는 경지면적 100정보당 1대씩 차례지게 할것입니다.

당과 국가에서는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줌으로써 농민들이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할수 있게 하며 농업로동을 헐한 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아무리 많이 보내주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않는다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습니다. 농촌에 뜨락또르와 자동차가 많이 나가게 되는 조건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농촌경리부문에서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농업부문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농촌에 나가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련결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는것입니다. 농촌에 뜨락또르가 아무리 많아도 련결농기계가 없으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으며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특히 련결차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련결차가 적기때문에 협동농장들에서 뜨락또르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운반작업을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해당부문에서는 련결차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 농촌에서 운반작업을 적극 기계화하도록 하며 농민들을 등짐지는 일에서 결정적으로 해방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내는 기계도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해당부문일군들은 모내는 기계를 빨리 완성하고 많이 만들어 농업생산에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매는 기계도 창안제작하여 농업생산에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민들을 김매는 일에서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김매는 기계를 만들어 김매기를 기계화하는 한편 세벌갈이를 하여 논에 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논갈이를 가을에 한번 하고 이른 봄에 또 한번 한 다음 풀이 뾰족뾰족 돋아나올 때 다시한번 갈아엎고 물써레질을 하여 풀뿌리를 들추어내면 김을 두번 맨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 뜨락또르를 농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많이 쓰면서 세벌갈이를 하지 않기때문에 논에 김이 매우 많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농촌에 나가 뜨락또르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세벌갈이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길닦이와 토지정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지금 농촌에 나가보면 논판에 들어가는 길이 없기때문에 뜨락또르가 마음대로 논에 들어가서 일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논과 밭을 잘 정리하고 길을 잘 닦아 뜨락또르가 논밭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다그치며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농촌에 파견된 로동계급의 선발대입니다. 그러므로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뜨락또르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할수 있으며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도 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군들이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않기때문에 그들이 농촌기술혁명의 전초병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으며 농민들에게 로동계급의 일본새를 잘보여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일부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뜨락또르로 거름을 실어다 논밭가운데 부리지 않고 길가에 부려너성들이 그것을 다시 등짐으로 져나르게 하고있습니다. 또한 어떤 운전수들은 논밭갈이를 질적으로 하지 않고 되는대로 하고있으며 지어 논밭모서리 같은데는 갈지도 않고있습니다.

농업부문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뜨락또르운전수들속에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모든 농사일을 주인답게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뜨락또르를 협동농장 작업반이나 분조에 배속시키는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뜨락또르를 분조나 작업반에 배속시키면 뜨락또르운전수들이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여 농사일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것이며 분조관리제도 더 잘 실시할수 있을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뜨락또르가 분조나 작업반에 배속되여있지 않기때문에 뜨락또르운전수들이 포전에 나가 일을 잘하지 않아도 분조나 작업반에서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또 어떤 분조에서는 뜨락또르를 많이 쓰지만 어떤 분조에서는 얼마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뜨락또르에 의한 작업결과가 분조마다 달라서 분조관리제도 바로 실시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뜨락또르를 분조나 작업반에 배속시키면 이러한 폐단을 없앨수 있으며 농사를 더 잘 할수 있습니다. 평양시 주변협동농장들은 작업반의 규모도 크고 뜨락또르도 많이 가지고있기때문에 뜨락또르를 분조들에 배속시키며 작업반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뜨락또르도 많지 않은 다른 지방 협동농장들에서는 뜨락또르를 작업반에 배속시키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여 논밭갈이, 운반작업, 모내기, 김매기와 같은 농사일을 기계화하는것과 함께 가을걷이와 낟알터는 일을 기계화하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려야 합니다. 특히 협동농장들에 이동식탈곡기를 많이 만들어주어 벼를 베여 직접 논판에서 탈곡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 벼를 베여 논판에 쌓아놓고 그것을 탈곡장에 조금씩 실어 들여다 탈곡하다보니 쥐와 새들이 숱한 낟알을 먹고있으며 많은 낟알이 땅에 떨어지고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잃어버리는 낟알만 하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뜨락또르가 논판에 들어갈수 없기때문에 벼단을 날라들이느라고 여러번 옮겨놓았는데 여기에서 잃어버린 벼만 하여도 10~20%나 된다고 합니다. 탈곡장에 벼를 실어들여다 탈곡하면 많은 낟알을 잃어버릴뿐아니라 필요없는 운반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동식탈곡기를 가지고 벼를 베는족족 탈곡하여 낟알만 실어들이면 알곡손실을 적게 낼수 있으며 벼짚으로는 논판에서 직접 거름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름과 로력도 절약하고 거름문제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함께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는 살초제를 리용하여 농촌에서 가장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하나인 김매는 일을 화학적방법으로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의 세계적추세는 살초제를 리용하여 김을 잡는것입니다. 살초제공장을 빨리 개건확장하여 살초제를 많이 만들어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비료를 되는대로 치기때문에 비료의 랑비가 매우 많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농민들에게 비료치는 방법을 똑똑히 알려주어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알곡수확을 높이려면 논밭에 미량원소비료를 쳐서 농작물에 필요한 원소를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올해에 미량원소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토양의 성분에 맞게 미량원소비료를 바로 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소, 린, 카리 비료를 균형이 맞게 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린비료를 치는데 주의를 적게 돌렸기때문에 농업생산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화학비료를 성분량으로 질소는 120~150키로그람, 린은 100~120키로그람, 카리는 50~60키로

그람씩 꼭 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석회도 3년에 한번씩 정보당 500~700키로그람씩 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비료치는 방법은 토양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토양분석카드에 의거하여 작물별 시비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이미 마련하여놓은 전기화와 수리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입니다.

협동농장들에서 물관리를 잘하여 전기를 랑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논밭에 물을 대려면 숱한 전기를 들여 양수기를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논밭에 대는 물은 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농업부문일군들은 논밭에 대는 물 한정미에 돈이 얼마드는지 생각지도 않고 물을 되는대로 랑비하고있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 전기랑비가 많은것은 불합리한 전기설비를 쓰는것과도 관련되여있습니다. 지금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10키로와트전동기를 놓아도 될곳에 50~100키로와트전동기를 놓아 전기를 많이 랑비하고있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 이렇게 전기를 망탕 랑비하기때문에 경지면적당 전력소비량이 매우 많습니다. 공업이 발전되고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도 농촌에서 경지면적당 전력소비량이 우리 나라처럼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살림살이를 이렇게 되는대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튼튼한 경제토대를 마련하여놓고도 아직 다른 나라 사람들만큼 잘살지 못하는것은 일군들이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지 못하고 랑비를 많이 하기때문입니다.

지금 협동농장들에서 랑비하는 전기만 절약하여도 그것으로 몇십만톤의 강재와 카바이드를 더 생산할수 있으며 천을 비롯한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할수 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농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하여 물을 극력 절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물리용에 관한 과학영화도 보여주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들의 전기설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보고 잘못된것은 바로잡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기랑비를 없애는것과 함께 큰물과 가물 피해로부터 논밭과 농작물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완성하였기때문에 큰물과 가물 피해로부터 논밭과 농작물을 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밭관개를 마저 완성하지 못하여 오래동안 가물면 밭작물이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3대혁명소조는 협동농장들에서 분수식밭관수체계를 계속 늘이는 한편 고랑관수와 뜨락또르에 의한 강우기관수를 널리 실시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큰물피해를 막기위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논밭이 고인물에 잠길 위험성이 있는 지대들에서는 이미 설치한 양수설비들을 검토하여보고 양수능력이 모자라면 그것을 더 보충하며 정비할것은 정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물때에는 물을 논밭에 대고 큰물이 날 때에는 물을 다른데로 빨리 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농작물의 품종을 개량하는것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농작물의 품종을 개량하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농작물의 품종을 개량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어 비바람에 잘 견디며 수확이 높은 품종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앞날에 알곡생산에서 정보당 논벼는 5~6톤, 강냉이는 4~5톤 수준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알곡생산과제를 수행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을 더 잘 먹이고 축산업도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농촌에 나가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함으로써 빠른 기간안에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적극 다그치는것과 함께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물질생활수준을 높이는것만으로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물질적생활조건의 영향을 받는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의 물질적조건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변한다는것은 맑스주의에서 보편적진리로 인정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생활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되는것은 아닙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어떤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높지만 일부 사람들이 반혁명적인 음모를 꾸미고 자본주의를 복구하려고 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 어떤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지 몇십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위조화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사회의 물질적조건의 변화에 따라 저절로 개조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을 잘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는 한편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는 농촌에 나가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민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농민들과 농업부문일군들 속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근로자들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로동을 천시하고 일하기 싫어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사회에 가면 놀고먹어도 되는것처럼 생각하는데 공산주의사회는 결코 놀고먹는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공산주의사회에 가면 로동이 매우 헐하게 될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도 모든 사람이 다 로동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로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며 전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일자리가 없이 거리를 헤매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헐벗다보니 이번 추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얼어죽었다고 합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서울에는 자동차가 많소, 고층건물이 많소 하면서 떠들지만 인민들에게는 그런것이 차례지지 않습니다. 그런것은 오직 돈많고 권세있는 지주, 자본가들에게만 차례지는것입니다. 잘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더 못살게 되는 사회가 바로 남조선사회입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은 마음대로 공부할수도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공부를 하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은 학비를 낼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세상을 저주하며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남조선의 어느 한 가정에서는 학비를 내지 못하여 아들이 학교에서 쫓겨나자 어머니와 아이들이 모두 독약을 먹고 집단적으로 자살하였다고 합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사람도 없으며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도 없고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는 국가가 농민들한테서 쌀 한키로그람에 60전을 주고 사다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8전을 받고 공급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쌀을 거저 주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선진적인 무료교육제도에 의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고있으며 철따라 새 교복을 공급받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일자리에 대한 걱정,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으며 마음껏 공부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만족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그런것만큼 공업부문에서는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여야 하며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기계화와 화학화를 빨리 실현하여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오늘의 생활에 만족하여 일을 잘하지 않으려고 하며 당과 국가에서 돌려주는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대신 놀고먹으려 하고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 현상은 농민들속에도 적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로동자들이 짠 천으로 옷을 해입으며 로동자들이 만든 여러가지 농기계와 비료로 농사를 짓는것만큼 마땅히 쌀과 남새,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여 로동자들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사회주의사회에서 농업생산을 맡은 근로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와 농민은 다 같은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그들의 리해관계는 일치합니다. 다만 분업에 의하여 로동자는 공업생산을 맡아하고 농민은 농업생산을 맡아할뿐입니다. 로동자들은 기계를 만들고 천을 짜서 농민들에게 보내줄 책임이 있고 농민들은 쌀과 남새, 고기를 생산하여 로동자들에게 보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농민들은 리기주의에 사로잡혀 자기나 먹으리만큼 벌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열성적으로 하지 않고있습니다. 농민들이 자기 먹을 쌀만 생산한다면 로동자들은 무엇을 먹으며 그들이 어떻게 천을 짜고 기계와 비료를 생산하겠습니까. 협동농장관리일군들도 일을 잘하지 않고있습니다. 일부 협동농장관리일군들은 바쁜 농사철에 회의요, 강습이요 하면서 한 2~3일씩 군에 가있거나 자재를 구한다는 구실밑에 10여일씩 다른데 가서 돌아다니다 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다 옳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는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은 남의 덕에 살아가는 기생충입니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살아야 하며 당과 국가의 혜택을 받았으면 마땅히 그에 보답할줄 알아야 합니다.

일부 근로자들속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 사상이 나타나게 된것은 지난 기간 사상사업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일을 잘하지 못한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여있습니다. 지난 기간 사상사업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근로자들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으려 하며 당과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에 보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3대혁명소조는 농촌에 나가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국가에서 농촌에 상품을 많이 보내주려고 합니다. 지난 기간 국내외정세로 하여 경공업에 힘을 돌리지 못하다보니 농촌에 상품을 많이 보내주지 못하였습니다. 당에서는 지난해부터 경공업에 힘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지

난해에 국가에서 편직물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여놓았는데 이 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해에 세타나 쟈케트를 한벌씩 공급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하고있는 신발공장을 완공하면 한해동안에 6,000만켤레의 신발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사람당 한해에 3.5~4켤레의 신발이 차례지게 될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해동안에 4억 5,000만~4억 8,000만메터의 천을 짤수 있는 방직능력을 마련하여놓았는데 앞으로 방추수를 몇십만추 더 늘이면 천도 인민들에게 넉넉히 차례지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몇해사이에 경공업을 훨씬 추켜세울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질좋은 소비품을 많이 공급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에도 질좋은 소비품들을 많이 보내주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에 상품을 보내주는것만으로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일수 없으며 그들속에서 놀고먹으려는 사상을 없앨수 없습니다. 농민들속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 사상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는 농촌에 나가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로동의 성격과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원칙을 비롯하여 로동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똑똑히 밝혀져있습니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농민들속에서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학습을 잘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농민들이 헌법의 요구대로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속에서 일하기 싫어하며 놀고먹으려는 사상을 없애고 그들이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이란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것 다시말하여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분배하는것입니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반드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력발전수준이 아직 수요에 따라 분배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고 로동의 차이가 남아있으며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여야만 일하지 않고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낡은 사상을 없애고 근로자들의 생산열의와 기술기능수준을 높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잘 지키지 않고있습니다.

평안남도 대동군에 있는 어떤 협동농장에서는 리사로청위원장이 이천—세포사이의 청년철도건설에 동원되였다고 하여 그에게 300공수의 로력일을 주었으며 그가 집에 돌아온 다음 농장일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또 300공수의 로력일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난한해동안에 무려 600공수의 로력일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가 청년철도건설에 동원되여 어려운 일을 한데 대하여 300공수의 로력일을 준것은 바로 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와서는 탈곡장에 몇번 나가 일한것밖에 없는데 그에게 300공수의 로력일을 더준것은 잘못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분배원칙에 어긋나는것입니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어기고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로력일을 준 협동농장관리일군들도 옳지 않으며 일하지 않고 300공수의 로력일을 받은 리사로청위원장도 옳지 않습니다. 리사로청위원장이라면 마땅히 협동농장에서 로력공수를 더 주어도 받지 말아야 하겠는데 일하지 않고 공짜로 무려 300공수의 로력일을 받았으니 매우 잘못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협동농장들에 나가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민들속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 현상을 없애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속에서 일하기 싫어하며 놀고먹으려는 낡은 사상을 없애고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협동농장의 재정관리정형과 농장원들의 로력일수득정형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협동농장의 재정관리정형과 농장원들의 로력일수득정형을 정기적으로 공개할데 대하여 이미 여러번 강조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그것을 잘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일부 농민들은 자기가 로력일을 얼마 벌었는지 모르며 돈을 얼마나 분배받게 되는지도 모르고있습니다. 지어 어떤 농민들은 자기가 협동농장에서 돈을 얼마 가져다썼다는것도 모르고있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 재정관리정형과 로력일수득정형을 정상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로력일과 협동농장의 자금을 떼먹는것과 같은 협잡행위를 없앨수 없으며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일수 없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작업반단위로 매달 농장원들이 며칠동안 일하여 몇공수의 로력일을 벌었다는것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농장원들이 이달에는 몇공수를 벌었는데 다음달에는 몇공수를 벌어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농장의 재정관리정형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달에 무엇을 얼마 수매시켜 돈을 얼마나 벌었고 은행에서 꾸어온 돈은 얼마라는 식으로 협동농장의 재정수입과 지출 정형에 대하여 다 공개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의 재정관리정형과 농장원들의 로력일수득정형을 정상적으로 공개하는 사업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번 기간에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뒤떨어진 농민들속에서 일하지 않고 놀고먹으려는 낡은 사상과 협잡행위를 철저히 없애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간부들이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은 간부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의논하고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해설하여줌으로써 대중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할것을 요구합니다.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바로 교양하고 각성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잘 해설해주면 대중은 다 우리 당이 내놓는 정책을 지지할것이며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입니다.

간부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민들을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일에서 해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잘 해설해주면 대중은 우리 당이 하자고 결심한 이상 농촌기술혁명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해낼것이라고 하면서 당의 정책을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며칠전에 우리가 만경대구역 룡봉협동농장에 나가 그곳 농민들에게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칠데 대한 당의 방침과 그 전망을 말하여주었더니 그들은 모두다 당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과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농민들속에 들어가 당이 내세운 기술혁명의 전망과 그것을 수행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혁명적열의와 용기를 가지고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서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에게 혁명적락관주의와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때에도 유격대원들에게 고향 만경대에 대한 이야기도 하여주고 하루빨리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고향에 돌아가 지상락원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하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여주면 모든 대원들이 황홀한 꿈에 잠기군하였으며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백배의 용기를 내군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유격대원들앞에서 한 이야기가 오늘은 현실로 되였습니다.

우리 작가들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은 고난의 행군을 내용으로 하여 소설을 쓰면 《철의 흐름》이라는 소설보다 더 좋은 소설이 될것입니다. 우리는 초기혁명활동시기 길림감옥에서 《철의 흐름》이라는 소설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음악무용시극《고난의 행군》을 보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줄거리로 하여 소설을 잘 쓰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농민들속에서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혁명적열의와 용기를 내여 사회주의농촌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농민들에게 잘 해설해주며 테제에서 내세운 목표들이 공상이 아니라 현실로 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농촌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는것입니다. 해방직후에는 우리 당이 학생들을 동원하여 농촌에서 문맹을 퇴치하였다면 지금은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나서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지난날보다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여러가지 화학비료가 많이 공급되고있지만 농민들이 비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있지 못하다보니 화학비료 치는 방법하나 똑똑히 모르고있습니다. 뇨소비료는 질소함유량이 많고 늦게 효과를 나타내는 비료인데 일부 농민들은 뇨소비료도 류안비료처럼 치고있습니다. 뇨소비료를 이렇게 되는대로 치기때문에 곡식이 키만 크고 잘 여물지 않습니다. 알곡수확을 높이려면 토양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3요소비료를 잘 배합하여 쳐야 하겠으나 일부 농민들은 질소비료만 많이 치고있습니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뜨락또르의 리용과 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도 잘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뜨락또르의 수명을 제대로 보장하며 그것을 농사일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뜨락또르를 혹사하지 말고 제때에 수리정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보니 뜨락또르를 농업생산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망탕 동원하여 혹사하며 뜨락또르를 수리할 시간과 조건도 제대로 보장하여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뜨락또르로 논밭갈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농촌형편을 알아보려고 평안북도 운전군 보석리에 나갔을 때 한 뜨락또르운전수가 말하기를 자기는 전국뜨락또르운전수대회에 참가하여 황해남도 재령군에서 일하고있는 뜨락또르운전수의 토론을 듣고 그 동무처럼 세벌갈이를 하려고 하였지만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 겨울동안 계속 운반작업을 하다보니 뜨락또르를 수리정비하지 못한채 봄갈이에 들어섰기때문에 뜨락또르들이 얼마 뛰지 못하고 다이야가 꿰지고 베아링이 마모되여 논 세벌갈이를 할래야 할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봄에 녀자들이 등짐으로 거름을 져나르는것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 뜨락또르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해결하여달라고 여러곳에 제기하였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군당에까지 찾아가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당에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기때문에 있는 거름도 내지 못하였다고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였습니다.

지금 뜨락또르운전수들가운데는 그 동무와 같이 당과 인민을 위하여 애써 일하는 동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이 뜨락또르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그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지 못하고있습니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농작물의 생리적특성도 잘 모르고있습니다. 지

금 일부 농업부문지도일군들과 농민들은 경험주의와 주관주의에 사로잡혀 농사를 과학기술적방법으로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해초에 평양시와 평안남도, 평안북도 일대에 나가 농사형편을 료해하는 과정에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이 지대적특성과 모가 자란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내기를 5월 25일전으로 끝내라고 내려먹였기때문에 논벼생산에 지장을 주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모내기를 5월 25일까지 끝내야 논벼의 정당수확고가 높아진다는것은 황해남도 재령군의 경험입니다. 당에서는 기후조건이 재령군과 같은곳에서 모내기를 5월 25일전으로 끝내라고하였지 모든곳에서 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후조건이 재령군과 같은 곳에서도 모를 5~6잎 되게 잘 키워서 내라고 하였습니다.

재령군의 경험이 다른 지방에 그대로 적용될수는 없는것입니다. 모내기시기는 지대적특성에 따라 지방마다 다르게 정해야 합니다. 평양시 형제산구역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서는 모내기를 5월 15일부터 시작하여 5월 30일까지 끝내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것만큼 농업위원회에서는 지대적특성을 고려하여 모내기를 어느 도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끝내고 어느 도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끝내라는 식으로 도들에 모내기시기를 바로 정해주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농업위원회일군들은 더운 지대이건 추운지대이건 관계없이 5월초만 되면 일률적으로 모내기를 시작하라고 내려먹이였습니다. 지어 일부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은 모내기를 5월 25일까지 끝내라는것은 당의 지시이므로 하늘이 무너져도 이 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하면서 채 자라지도 않은 모를 내라고 내려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동신문》에 어디에서 모내기를 시작하였다는 보도가 나가기만 하면 협동농장들에서 서로 먼저 모내기를 끝내겠다고 하면서 어린 모를 낸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이 당의 방침을 어기고 모내기를 일찍 하라고 내려먹였기때문에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어린 모를 내다보니 얼어죽어서 모를 다시 내였다고 합니다. 우에서 내려먹이는 사람들이나 아래서 우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받아무는 사람들이나 다같이 농작물의 생리적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농업부문지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기술수준이 이와 같이 낮은것은 지난 기간 그들에게 기술교육을 잘 주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기술교육을 제대로 주자면 농촌에 능력있는 기술간부들이 많이 있어야 하겠는데 지금 농촌에 그런 간부들이 얼마 없습니다. 지난 기간 당에서 농업기술간부를 키워내지 않아 농촌에 기술간부가 얼마 없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키워낸 농업대학졸업생은 거의 2만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본데 의하면 농업대학졸업생들가운데서 협동농장들에 나가 일하는 사람은 얼마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부문에 가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해당부문일군들을 비판하고 다른 부문에 가서 일하는 농업대학졸업생들을 협동농장들에 보내도록 대책을 세웠습니다.

지난 기간 농업대학졸업생들을 농촌에 보내지 않고 다른부문에 배치한것도 잘못이지만 다른부문에 가서 일하는 농업대학졸업생들도 혁명적책임감이 없습니다. 우리 당은 농업대학졸업생들에게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할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농업대학졸업생들은 당이 준 혁명임무를 줴버리고 자기의 초소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군인이 전투장에서 리탈한것과 다름없습니다. 농업대학을 졸업했으면 다른부문에 가서 일하라고 해도 당과 국가에서 나를 공부시켜 농업기술간부로 키워주었는데 나는 농사일이 힘들지만 농촌에 나가 일하겠다고 제기하고 다른 부문에 가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혁명적책임감이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날 농업대학졸업생들이 다 농촌에 나갔더라면 이제는 모든 협동농장에 기사가 거의

5명씩 있을것입니다. 그들이 농민들에게 기술교육을 주었더라면 농민들의 기술수준이 지금과 같은 형편에 있지 않을것입니다.

농민들의 기술수준을 빨리 높이지 않고서는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없습니다. 이번에 당에서 농업대학 학생들을 3대혁명소조에 망라시켜 농촌에 파견하는것도 중요하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농업대학 학생들의 기본임무는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농업대학 학생들은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으므로 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농민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에게 뜨락또르에 대한 기술지식을 가르쳐주는것입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농민들에게 뜨락또르의 리용과 관리에 대한 지식도 가르쳐주고 운전기술도 배워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닦이와 포전정리를 잘해야 뜨락또르의 수명을 제대로 보장하고 그 리용률을 높일수 있다는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려면 농민들이 생물학도 알아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농작물의 생리적특성을 알려주며 모는 어떻게 기르고 품종배치는 어떻게 하며 육종체계는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것도 배워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전기에 대한 지식과 물관리에 대한 지식, 비료에 대한 지식, 토양에 대한 지식, 사회주의농업경영에 대한 지식을 비롯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식을 다 가르쳐주어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기술지식을 가르쳐주는 사업을 대학에서 강의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대학에서 하는대로 하려면 강의실을 꾸려야 하고 사람들이 한곳에 자주 모여야 하므로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한사람이 열사람을 배워주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배워주는 방법으로 기술지식을 보급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몇해동안 기술학습을 하면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술지식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3대혁명소조는 농촌에서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농업생산을 높일수 있고 농민들속에서 나라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알뜰히 거두고 사랑하는 기풍을 세울수 있습니다.

생산문화를 세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논밭을 알뜰히 거두는것입니다.

땅은 농업에서 기본생산수단입니다. 땅이 없으면 농업생산이 진행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농민들은 논밭을 되는대로 거두고있습니다. 밭머리에 버들을 심거나 돌을 쌓으면 밭이 패여 내려가는것도 막을수 있고 보기도 한결 좋겠는데 그런것을 하지 않다보니 장마철에 밭머리가 비물에 패여내려가 밭이 못쓰게 되고 볼모양도 없게 됩니다. 지어 일부 협동농장들에서는 길옆에 있는 밭을 파다가 길닦이를 하여 밭을 못쓰게 만들고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논밭을 못쓰게 만드는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는 한편 농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논밭을 잘 정리하고 논두렁과 밭머리를 알뜰하게 거두며 논밭에 풀 한포기 없게 김을 잘 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수원도 알뜰히 거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과수원을 제대로 거두지 않고있습니다. 어떤 과수원에는 사과나무가 죽은것도 있고 넘어진것도 있어 볼모양이 없습니다. 사과가 몇알 열리지 않는 나무는 베여버리고 새 나무를 심어야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이러한 현상들과도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촌에서 산림을 보호하며 나무심기운동을 널리 벌려 산에 나무가 무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문화를 세우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소농기구들을 알뜰히 거두는것입니다.

지금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적지 않은데 협동농장들에서 그것을 잘 거두지 않고있습니다. 어떤 협동농장들에서는 뜨락또르를 쓰다가 논밭에 그냥 세워두고있으며 불도젤도 되는대로 거두고있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농기계들을 쓴 다음에는 그것을 닦아서 지정된 장소에 세워두며 소농기구도 쓴 다음에는 깨끗이 닦고 기름을 쳐서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문화를 세우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적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먼저 집과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농민들에게 아담한 문화주택을 많이 지어주었지만 어떤 집은 장판도 잘하지 않고 도배도 잘하지 않아 문화주택맛이 나지 않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농민들속에서 집을 되는대로 거두는 낡은 습성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벌려 모든 농민들이 집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거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판지, 도배지 같은것을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판지, 도배지 같은것을 농촌에 공급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집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려고 해도 꾸릴수 없습니다.

농촌수도화를 빨리 실현하며 우물도 깨끗이 거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 병원과 진료소들을 잘 꾸리며 위생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옷차림도 단정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회의에 갈 때에도 작업복을 입고가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물론 일을 할 때에는 작업복을 입어야 하겠지만 회의에 갈 때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신발을 신고 가야 합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회의에 갈 때 입을 옷이 없는가 하면 그런것이 아닙니다. 농촌녀성들이 좋은 치마저고리를 몇벌씩 가지고있지만 그것을 입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옷차림을 단정히 하지 않는것은 아직도 그들속에 생활을 되는대로 하는 낡은 생활양식과 버릇이 남아있기때문입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농촌에 나가 농민들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등중학교와 인민학교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학교가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거점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문화혁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3대혁명소조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촌에 있는 모든 력량을 이 사업에 적극 동원하여야 합니다.

농촌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 교원들을 널리 인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교원들은 지식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제강을 만들어주면 농민들속에 들어가 해설선전사업을 잘할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리에 고등중학교와 인민학교가 있으므로 교원이 몇십명씩은 다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동원하여 5호담당제를 널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소조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적극 다그치며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이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신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깊이 연구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기본 원칙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습니다. 그러므로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테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그것을 통달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 제5차대회보고와 농업생산지도에서의 10대과업과 협동농장관리에서의 10대과업을 깊이 연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황해남도,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농업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을 비롯하여 최근에 농업문제에 대하여 한 연설들을 깊이 연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

리 당이 농촌경리부문앞에 내세운 과업들을 협동농장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3대혁명소조성원들의 지도방법과 사업작풍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생활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사업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농민들은 결코 무지몽매한 농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근면하고 순박하며 당에 무한히 충실합니다. 일부 농민들속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선달을 부리는 현상이 좀 나타난것은 지난 기간 당조직들이 농민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고 농촌에 핵심이 적은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알곡생산을 높이려고 애쓰지만 몰라서 농사를 잘 짓지 못합니다. 동무들이 농촌에 나가 농민들을 잘 일깨워주고 도와주면 6개년계획에 예견된 알곡생산과제를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을것입니다.

지난날 농촌에 파견된 지도성원들은 암행어사식으로 돌아다니면서 허물을 들추어 결함만 한보따리 싸가지고 왔지 문제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여 결함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동무들은 절대로 그런 낡은 방법으로 지도사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결함이 있으면 그 원인을 똑똑히 찾고 고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이 협동농장들에 몇사람씩 조를 무어 나가는것만큼 늘 모여서 집체적으로 토론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번에 농촌에 파견되는 대학생들가운데는 사회생활경험이 없는 동무들도 있는데 그런 동무들은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동무들과 널리 토론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혁명을 하러 농촌에 나가는것만큼 혁명가다운 풍모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결백하고 품행이 바르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지난 기간 농촌지도사업에 동원된 동무들가운데는 지도사업을 잘할 대신 관료주의를 부린 사람도 있었고 안일부화한 생활을 한 사람도 있었으며 먹는 타발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절대로 안일부화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생활조건에 대한 타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에 나가 사업하느라면 생활에서 불편한 점도 있을수 있는데 동무들은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까다롭게 놀지 말며 늘 겸손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농민들을 대하는데서나 협동농장 간부들을 대하는데서 언제나 겸손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지난 기간 협동농장 간부들이 사업을 잘하지 못하고 생산로동에 제대로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까박을 붙이거나 욕설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협동농장 간부들을 아량있게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이 자기 사업을 잘하고 농산작업에서 이신작칙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는 농촌핵심을 키우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농촌에 핵심이 많아야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잘할수 있으며 일단 유사시에도 농촌진지를 고수하고 농업생산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지도사업기간에 농촌핵심을 많이 키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자체의 사업총화와 생활총화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로 협동농장에는 당세포를 조직하고 군에는 당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세포에서도 사업총화와 생활총화를 하고 당위원회에서도 사업총화와 생활총화를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총화와 생활총화 회의는 높은 비판적분위기속에서 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에 망라된 사로청원들도 당회의에 방청으로 참가시켜야 할것입니다.

농촌에 대한 지도기간은 다음해 가을걷이가 끝날때까지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이 농촌에 나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합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농촌에 나가 농민들을 교양개조하여 로동계급화, 혁명화하여야 하며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이고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적극 다그치며 농업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이 어렵고 방대한 사업을 몇달사이에 다 할수는 없습니다.

농업생산을 정상화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여도 한두달동안 지도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농업부문은 공업부문과 실정이 다르므로 다음해 가을걷이가 끝날때까지 지도사업을 해야 농업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습니다. 올해 농사를 지어보고 거기에서 일정한 경험을 얻은 다음 그 경험에 기초하여 영농준비를 잘해가지고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한해 더 내밀면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을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저 한 1년동안 나가서 어루만지다가 돌아와서는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농촌에 대한 지도기간을 다음해 가을걷이가 끝날때까지로 하면 대학생들이 공부에 좀 지장을 받을수 있는데 그래도 크게 문제로 될것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농촌에 나가 지도사업을 하는것은 학습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하는 과정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배울수 있고 이미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한 2년동안 농촌에 나가 지도사업을 하는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 농촌을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농업대학 학생들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번에 3대혁명소조에 망라된 농업대학 학생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주체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때에 대학에 들어가 주체철학을 배웠고 주체적립장에서 현대과학기술을 배웠기때문에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을뿐아니라 선진적인 농법과 현대과학기술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중앙위원회는 대학생들에게 당의 근위대, 친위대의 영예로운 칭호를 주어 3대혁명소조에 망라시켜 농촌에 내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3대혁명소조성원들이 당중앙위원회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킬것을 바랍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강서확대
회의에서 한 결론 1973년 3월 14일

동지들!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구호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 당 제5차대회보고를 비롯하여 많은 보고와 연설들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내놓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들이 아직 잘 집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 사상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으며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물질적로대를 쌓는 투쟁만 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은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라고 늘 강조하였으며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것을 당조직들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당조직을 비롯한 적지 않은 당조직들이 당의 이 호소를 형식적으로 대하였으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당조직들은 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도 잘 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 제5차대회에서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았습니다. 3대기술혁명은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이며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기본투쟁구호의 하나입니다. 당의 방침대로 기술혁명을 잘하는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아직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별로 큰 전진이 없습니다. 지금 일부 공장들에서는 당이 내세운 방침대로 기술혁명을 하지 않고 《인해전술》을 쓰는 방법으로 다시말하여 로력자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생산을 높이려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고 로력이 남는 나라라면 몰라도 로력사정이 긴장한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생산을 높이려 해서는 안됩니다.

당조직들이 사상혁명과 기술혁명뿐아니라 문화혁명도 잘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기간 당조직들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지 않은 결과 이미 건설하여놓은 적지 않은 공장들이 제대로 은을 내지 못하고있으며 농업생산에서도 전진속도가 굼뜹니다. 그래서 최근 당중앙위원회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당 제5차대회가 있은 다음 인차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지 않고 올해에 와

서야 파견하게 되였겠습니까? 이 문제도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변증법적으로 고찰하여야 합니다.

지난 기간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잘 진척되지 않고 공업과 농업 부문에 적지 않은 결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과 같이 심각하게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내재하는 결함이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도가 섭씨령도까지 내려가야 물이 얼고 섭씨100도까지 올라가야 물이 끓는것과 같이 사업에 내재하는 결함도 일정한 한계에 이르러야 표면에 나타납니다. 기온이 정상온도일 때에는 사람이 추운감이나 더운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기온이 정상온도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춥거나 더운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업과 농업 부문에 내재하는 결함도 처음에는 잘 알수 없고 그것이 일정한 한계에 이르러야 똑똑히 알수 있는것입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잘 수행되지 않고 공업과 농업 부문에 결함이 많다는것을 우리는 최근에 농촌에 나가 농민들과 담화하는 과정에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몇해동안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였으며 전자관공장, 반도체공장, 소형전동기공장, 계전기공장 같은 약전공장들과 기계공장들을 수많이 건설하였습니다. 이 공장들을 돌리기 위하여서는 많은 로력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녀성로력이 많이 요구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은 기술혁명을 하여 새로 건설한 공장들을 돌리는데 필요한 로력을 얻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농촌에서 녀성로력을 뽑아왔습니다. 농촌에는 남성로력이 얼마 없고 주로 녀성들이 농사를 짓고있는데 농촌에서 녀성로력까지 뽑아오니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농촌에 나갔을 때 농민들이 말하기를 농촌에 뜨락또르도 많지 않고 로력도 모자라는데 녀성로력까지 뽑아가니 농사를 어떻게 짓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추운감을 느꼈습니다. 그후 우리는 농촌에서 녀성로력을 뽑아오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모로 분석하여보았는데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열고 로동행정사업을 검토하였으며 로동행정사업이 잘되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부문에서 로력예비를 동원하기 위하여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에 당중앙위원회 지도소조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중앙위원회 지도소조들이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한달동안 투쟁하였지만 아무러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공장, 기업소에 내려가 보수주의를 마스고 로력예비를 찾아낸것이 아니라 공장에 있는 완고한 보수주의자들의 반격을 받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력예비동원소조들이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조건에서 새로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는 직접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투쟁하기로 결심하고 황해남도에 나가 은률광산의 로동행정사업정형을 료해하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은률광산의 로동행정사업정형을 검토한 중요한 목적은 일군들에게 보수주의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보려는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강물이 깊은가 얕은가 하는것을 알기 위하여 강물에 돌을 던져본것과 같은것입니다. 은률광산의 로동행정사업정형을 따져보니 그 광산에서는 로력을 한 2,000명 랑비하고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로력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은률광산의 로동행정사업정형을 검토하여보고 일군들에게 보수주의가 깊이 박혀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으며 모든 부문에서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당조직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일군들과 지식있는 대학생들을 망라시켜 지도소조를 뭇고 그들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

릴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도소조를 경공업공장들에 파견하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그들이 능히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수 있을뿐아니라 이 투쟁에 지식있는 대학생들을 같이 동원하는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였습니다. 대학생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우리 당의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혁명적새세대들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비록 기술을 깊이는 몰라도 뒤떨어진 기술과 현대적인 기술을 분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것을 좋아하고 낡은것을 대담하게 버리는 혁명성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당핵심들과 함께 지식있는 대학생들을 동원하기로 결정하고 당핵심들과 대학생들로 3대혁명소조를 조직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몇십명씩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들이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 나가 사업한지 거의 한달이 되였습니다. 이 기간 3대혁명소조들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실태를 료해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며칠전에 남포시당전원회의에서 남포지구에서 사업하고있는 3대혁명소조들의 사업보고를 들었으며 오늘은 여기 강서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강서지구에서 사업하는 3대혁명소조들의 사업보고를 들었습니다. 두번에 걸치는 3대혁명소조들의 사업보고를 통하여 우리는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들이 첫전투에서부터 성과를 거두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황해제철소에서는 자진하여 5,000명의 로력을 내놓겠다고 하며 앞으로 더 많은 로력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지난날에는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텔레비존화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텔레비존화를 하겠다고 뛰여다니고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해전술》을 버리고 기술혁명을 하여 생산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업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3대혁명소조들이 설비예비도 많이 찾아내고있습니다. 얼마전에 강선제강소 지배인이 우리에게 화차 100량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철도운수부문에서 화차사정이 긴장하기때문에 우리는 그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왜 강선제강소 같은 큰 공장에서 화차를 자체로 수리하여 쓰지 못하는가, 당신들은 화차를 달라고 할것이 아니라 도리여 화차사정이 긴장한 철도운수부문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강선제강소에 나가있는 3대혁명소조성원들이 지배인과 함께 그 제강소의 화차능력을 따져보았습니다. 그들이 따져본데 의하면 그 제강소에서는 새로 화차 100량을 받지 않고 지금 있는 화차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산을 보장할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3대혁명소조들이 내려가서 투쟁한 결과가 좋습니다. 앞으로 3대혁명소조들의 활동이 심화되면 더 큰 성과가 이룩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3대혁명소조들이 첫전투에서 거둔 성과들은 공업부문과 농촌경리부문에 혁명소조들을 내보내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한 당중앙위원회의 조치가 매우 정당하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습니다.

혁명이란 구호를 웨치거나 결정서를 받고 그 수행방도를 책에 써놓는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혁명은 반드시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만 전진할수 있습니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있을수 없으며 혁명이 없이는 사회가 전진할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것만 혁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것도 하나의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도 반드시 낡고 침체한것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수행될수 있습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아무런 투쟁

도 없이 그저 무난하게 그리고 순조롭게 수행되리라고 믿는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심각한 투쟁입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일부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당에서 내놓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마땅히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좀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라도 각급 당조직들은 당의 방침을 받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상혁명은 결함있는 사람자체를 반대하고 목을 떼는 투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기술혁명은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고 손로동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문화혁명은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입니다. 간단히 말하여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녹을 벗기는 투쟁이며 기술혁명은 기계들에 있는 녹을 벗기는 투쟁이며 문화혁명은 사람들의 생활과 살림집, 공장과 마을에 있는 때를 벗기는 투쟁입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계급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여야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하여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있으며 사상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에서 기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합니다. 혁명과 건설이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사람들의 주인다운 태도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데서뿐아니라 자기 일터에서 주인답게 일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못한 결과 일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말은 많이 하지만 아직도 그 본질을 똑똑히 모르고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있습니다. 3대혁명소조들의 보고를 들어보아도 지금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기본결함이 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가 없는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반드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당원의 자격이 없으며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될수 없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사상을 비롯한 나쁜 사상독소의 침습을 받아 사상적으로 변질됩니다. 쇠를 오래동안 그냥 내버려두면 산소의 작용을 받아 녹이 쓸고 음식물을 그냥 오래 둬두면 나쁜 균의 작용을 받아 썩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상교양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머리에 녹이 쓸며

자본주의병균, 수정주의병균, 사대주의병균, 요령주의병균과 같은 나쁜 균들의 작용을 받아 썩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늘 단련시키고 예방주사를 자주 놓아야 저항력이 강해져 나쁜 균이 들어가도 병에 걸리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늘 사상단련을 시켜야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가장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하는것만큼 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키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그렇지 못하면 모든 사업이 잘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당사업에서 가장 주요한 결함은 사람과의 사업을 행정식방법으로 하는것입니다.

행정식방법 다시말하여 명령하고 지시하는 방법으로써는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할수 없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불러일으킬수 없습니다. 더우기 사람마다 성격과 체질이 다르고 준비정도가 다른것만큼 사람과의 사업을 일률적인 방법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해설과 설복을 위주로 하여 꾸준히 하여야 하며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시키는데는 강연, 담화, 예술공연, 영화상영, 노래보급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이 있는데 당조직들은 이러한 형식과 방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사상교양의 모든 형식과 방법이 다 사람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복종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 조직의 통제속에서 생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할수 있으며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습니다. 조직생활에 참가하여 자기비판도 하고 호상비판도 하며 남이 비판받는것을 옆에서 듣기도 하는 과정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결함이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며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원은 당조직생활에 잘 참가하며 사로청원은 사로청조직생활, 직맹원은 직맹조직생활, 농근맹원은 농근맹조직생활, 녀맹원은 녀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고 대중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머리속에 녹이 쓸어도 그것을 제때에 닦아낼수 없으며 따라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일부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 당비서들을 비롯한 간부들이 때때로 과오를 범하는 리유가 바로 당조직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고 대중의 통제에서 벗어나는데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생활에 참가하기 싫어하는 경향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그들이 당, 근로단체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늘 대중의 통제속에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입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행동의 지침입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조직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급투쟁

은 어떻게 하며 경제사업은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활동방침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든 문제를 사고하고 행동하는데서 출발점으로 되여야 하며 사업에서 옳고그른것을 가르는 자로 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모든 문제를 당정책으로 재여보고 옳고그른것을 가르는 혁명적사업기풍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현상들과 투쟁할수 있습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당을 옹호할수 없고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대오에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사업을 조직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한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사람이 혼자서 생활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여도 별일이 없겠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생활과 조직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제멋대로 행동하여서는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행동규범과 준칙이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행동통일을 실현할수 있고 집단의 규률과 질서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군대에는 내무규정과 위수규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내무규정에는 군인들이 일과생활은 어떻게 하고 방안은 어떻게 정돈하며 상관이 올 때에는 어떤 구령을 치고 어떻게 보고한다는것과 같은 군인들의 일상생활질서가 밝혀져있습니다. 위수규정에는 보초병의 임무와 보초서는 방법, 보초병의 교대질서를 비롯하여 위병들의 행동준칙이 규정되여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모든 군인들이 이러한 군사규정에 따라 움직이기때문에 규률과 질서가 철저히 보장됩니다.

규범과 규정은 군대뿐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할것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정된 규범과 준칙에 따라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사회주의건설위업에 복무하는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사회의 법규범과 규정들은 다 근로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착취계급의 리익과 착취제도를 옹호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에서 자본주의적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들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은 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규범이며 행동준칙입니다. 사회주의헌법에는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국가활동의 원칙들과 국가기관들의 임무,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가 규제되여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헌법에 제정된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규범과 행동준칙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사업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일군들은 사회주의헌법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있으며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학습조차 바로 하지 않고있습니다. 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헌법

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국가경제문화기관들에서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만들며 지금 있는 법규범과 규정들도 새 헌법의 요구에 맞게 고쳐야 하겠습니다.

법규범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닙니다. 혁명이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는것만큼 법규범과 규정들도 그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필요하였던 일부 법규범과 규정들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에 와서는 필요없게 됩니다. 례를 들어 민주주의혁명시기에는 중소상공업자들에게 기업활동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여주었으나 중소상공업자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된 오늘에 와서는 개인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할데 대한 법규는 필요없는것으로 되였습니다. 같은 혁명단계에서도 사업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분조관리제에 대한 규정을 놓고보아도 협동농장들에 뜨락또르가 많지 못하고 농촌경리의 기계화수준이 낮은 때에 만든 규정을 농촌에 뜨락또르와 농기계가 많이 들어간 오늘의 조건에서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분조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사업조건이 달라진것만큼 분조관리제에 대한 규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규범과 규정들이 변화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고쳐지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은 법규범과 규정을 만드는 일군들이 현실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현실생활보다 뒤떨어져있는데 있습니다. 현실의 요구가 옳게 반영되지 못하고 일군들의 주관적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법규범과 규정들은 우리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할수 없으며 도리여 사회주의건설과 인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강서군 삼묘협동농장에 3대혁명소조성원으로 나가 있는 한 대학생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농촌상점들에서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업규정이 잘못된것입니다. 농촌상점들의 판매시간을 도시에 있는 상점들의 판매시간과 같이 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농민들은 아침 일찍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농촌상점의 판매시간을 이렇게 정해놓으니 농민들이 물건을 사려면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작업시간에 상점에 다닐수밖에 없습니다. 상점의 판매시간을 정하는것이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와 같이 구체적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망탕 정해놓으면 인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며 생산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지금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실시되고있는 규정들가운데는 이밖에도 인민들의 리해관계와 실정에 맞지 않는것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대혁명소조들은 지금 있는 법규범과 규정들이 사회주의헌법의 요구와 구체적실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것을 검토하여보고 잘못된 법규범과 규정들을 고치기 위한 좋은 의견들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법규범과 규정들을 완성하는것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양사업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과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은 우리 제도에서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기본원칙이며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우리 나라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사회주의헌법에도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군들은 아직도 사회와 집단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더 앞에 내세우고있습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가운데는 공장과 협동농장에 있는 뻐스나 화물자동차를 개인승용차처럼 타고다니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리기주의의 표현이며 집단주의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또한 일부 협동농장초급일군들가운데는 일을 적게 하고도 로력공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며 로동자, 사무원들 가

운데도 자기가 맡은 일을 다하지 못하고도 로임과 식량을 제대로 다 타먹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사회주의분배원칙에 어긋나는것입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험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이 사상교양 하나만으로는 안되며 거기에 사회주의적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한 법적통제를 옳게 배합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하는것을 사상혁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기술혁명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일군들은 아직도 기술혁명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하며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지 않고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기며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처지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자들은 기술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자본가들이 새 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이 발전하여 생산물이 아무리 많아져도 전반적로동자들의 처지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본가들은 잉여상품을 바다에 처넣으면 넣었지 결코 그것을 로동자들에게 거저 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극소수의 착취자들은 더 부유해지며 그 반면에 절대다수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집니다. 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하나의 법칙으로 되여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물질적부의 생산을 늘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듭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근로자들의 로동이 더 헐하고 능률적인것으로 되며 사람들은 보다 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혁명을 한다고 하여 로력이 남는 일이 없으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늘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현상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을 다바쳐 투쟁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기술혁명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기술개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하여야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특히 당면한 로력의 긴장성을 풀고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업입니다.

기술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로력의 긴장성을 풀수 없으며 한사람당 생산액을 높일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공장들이 끊임없이 일떠서며 새로운 생산부문들이 계속 창설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나라의 로력사정은 매우 긴장합니다. 우리는 로력이 모자라서 이미 건설한 공장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있으며 필요한 새 공장들을 제때에 건설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한 5만명의 로력만 절약하여도 그 로력으로 청년돌격대 같은것을 조직하여 새로운 광산들을 개발하고 필요한 공장들을 더 건설할수 있

으며 간석지도 더 많이 개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부지구에 대규모화학공장을 건설하려고 계획하고있으나 로력이 없어서 건설을 시작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광산도 새로 개발할것이 많지마는 로력이 없어서 개발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동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있는데 로력이 모자라서 많은 동을 땅속에 두고도 그것을 캐내지 못하고있습니다. 합성고무공장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으나 로력이 없어서 건설하지 못하고 해마다 많은 고무를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있습니다.

우리는 큰 규모의 비날론공장과 염화비닐공장을 새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염화비닐공장을 건설하여 염화비닐생산을 훨씬 늘여야 여러가지 일용품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고 알곡생산도 높일수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 알곡생산을 늘이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간석지를 개간하여 새 땅을 얻어내며 거기에 빨리 곡식을 심어 수확을 많이 내는것입니다.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바다물을 막는것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얻어낸 새 땅에서 염분을 빨리 없애는것입니다. 간석지를 개간한 다음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7～8년이 지나야 거기에 곡식을 심을수 있습니다. 간석지에서 염분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거기에 시루식관수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간석지를 개간하고 시루식관수체계를 만들려면 합성수지공장을 더 건설하여 비닐관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늘여야 합니다.

합성수지공장을 더 건설하고 비닐관생산을 늘여 분수식관수체계와 시루식관수체계를 널리 실시하면 밭작물의 정당수확고를 지금보다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 분수식관수체계나 시루식관수체계를 실시하면 밭 한정보에서 강냉이를 4톤씩은 쉽게 낼수 있으며 앞으로 잘하면 5～6톤씩 낼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기계화할수 있는 70만정보의 밭에 관수체계를 다 실시하여 강냉이를 정보당 5톤씩만 낸다고 하면 350만톤의 강냉이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2년 3작을 할수 있는 밭이 한 30만정보 있는데 이 밭들에 2년 3작을 하면 거기에서도 거의 100만톤의 알곡을 더 생산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논면적은 약 65만정보입니다. 논 한정보에서 벼를 평균 5톤씩 내는것으로 보아도 325만톤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고 지금 있는 땅을 잘 리용하면 한해에 거의 1,0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간석지를 개간하여 새 땅을 더 얻어내며 지금 있는 땅을 잘 리용하기 위한 이 모든 일을 하려면 많은 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로력원천이 적으며 나라의 로력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계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할수없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로력사정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있습니다. 군대를 줄이면 나라의 긴장한 로력사정이 좀 풀릴수 있겠지만 지금형편에서 당장 군대를 줄일수는 없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를 철거시키며 남북이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맺으며 군비경쟁을 그만두고 남북의 군대를 줄일데 대하여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여러차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의 위협》을 구실로 우리의 이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있으며 70여만에 이르는 대병력을 계속 유지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군대를 줄이려 하지 않을뿐아니라 다른 나라들로부터 여러가지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결코 우리만 군대를 줄일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긴장한 로력사정을 푸는 유일한 길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 우리가 당 제5차대회에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세운것도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과 함께 나라의 긴장한 로력사정을 풀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기술혁명수행에서 장애로 되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기술혁명도 하나의 혁명인것만큼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와의 투쟁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없습니다. 보수주의,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그것은 주체사상과 절대로 량립할수 없는 나쁜 사상입니다.

오늘 기술혁명을 밀고나가는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되는것은 사대주의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입니다. 일군들의 머리속에 사대주의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많다보니 새로운 기계들을 대담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있습니다. 농업과학원 농기계연구소에 수많은 연구사들이 들어앉아 농기계를 연구한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좋은 농기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일부 과학자,기술자들은 자체로 좋은 농기계를 창안제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것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 생각만 하고있는데 그렇게 하여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좋은 농기계를 만들어낼수 없습니다. 흙이 보드랍고 밭에 돌이 없는 나라에서 쓰는 농기계가 자갈밭과 논이 많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을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농기계를 본딸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머리를 써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농기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농기계를 가져다보는 경우에도 우리 나라와 실정이 비슷한 나라의것을 가져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와 함께 보수주의, 경험주의도 기술발전과 생산발전에 큰 장애로 되고있습니다. 농업부문을 놓고보더라도 지금 이 부문 일군들이 완고한 보수주의와 경험주의에 사로잡혀있다보니 최근 몇해동안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에서는 전진속도가 굼뜨며 농촌기술혁명도 빨리 진척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대담하게 짓부시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적립장에서 연구사업을 다그쳐 기술혁명수행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성능이 좋은 기계들을 많이 창안제작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이동식탈곡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박천군이나 문덕군 같은 벌방지대에 가보면 탈곡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논에서 벼를 베여 뜨락또르로 탈곡장까지 실어들여다 탈곡을 한 다음 북데기를 다시 논으로 실어내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전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벌방지대에 이동식탈곡기를 만들어줄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이동식탈곡기를 만들어주면 가을에 벼단을 탈곡장에 실어들이지 않고 논판에서 직접 탈곡하여 낟알만 실어들이고 벼짚과 북데기는 거름을 만들수 있습니다. 벼짚과 북데기를 논판에 쌓아놓고 소석회와 물을 쳐서 썩이면 좋은 거름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농촌에서 숱한 로력을 절약할수 있으며 뜨락또르를 다른 작업에 돌려 농민들의 힘든 일을 더 많이 덜어줄수 있습니다.

이동식탈곡기뿐아니라 성능이 좋은 모내는기계와 벼베는기계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계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다그쳐 우리 나라 전야에서 널리 쓸수 있는 좋은 농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성능이 좋은 여러가지 기계들을 많이 창안제작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에 근로대중을 널리 참가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기계를 창안제작하며 설비들을 더욱 개선하는것과 같은 기술혁신사업을 몇몇 기술자, 전문가들의 힘만으로는 원만히 할수 없습니다. 광범한 근로대중을 이 사업에 적극 참가시켜야만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수 있으며 기술혁명이 빨리 추진될수 있습니다.

기술혁신운동에 근로대중을 널리 참가시키려면 기술일군들이 로동자들의 창의고안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로동자들속에서 비록 사소하고 미숙한것이라 하더라도 창의고안이 나오면 기술일군들은 그것을 집체적인 협의에 붙이고 구체적으로 토의하여야 하며 거기에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달라붙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로동자들의 창의고안을 완성시키고 생산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로동자들이 신심을 가지고 창의고안을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며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좋은 창의고안이 많이 나올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자, 전문가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로력을 많이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긴장한 로력사정을 풀며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가까운 앞날에 배이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기술혁명수행에서 평안남도가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하겠습니다. 평안남도에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강선제강소를 비롯하여 큰 야금공장들도 있고 승리자동차종합공장, 기양뜨락또르공장 같은 큰 기계공장들도 많습니다. 평안남도에서는 이런 공장들에서 기계화, 자동화 수준을 더욱 높여 생산을 빨리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할것입니다.

강선제강소에서는 전반적생산공정들에 대한 텔레비존화를 빨리 실현하고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기술혁명수행에 요구되는 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기양뜨락또르공장에서는 자동흐름선을 빨리 완성하여 앞으로 1~2년안에 자동차생산은 2배, 뜨락또르생산은 3배이상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하여 나오는 로력을 잘 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중공업부문에서는 기술혁명이 추진되는데 따라 주로 녀성로력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들을 체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일자리가 적당치 않아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축소된 녀성들이 일하지 않고 직장을 그만둔다면 우리가 기술혁명을 한 보람도 적어지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도 잘할수 없게 됩니다. 중공업부문의 큰 공장곁에 자그마한 경공업공장이나 생산협동조합 같은것을 꾸려주어 녀성들이 계속 직장에 나와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3대혁명소조들은 이 세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속에서 기술지식을 널리 보급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도 그렇고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그렇고 근로자들의 기술지식수준을 빨리 높이지 않고서는 생산을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지금 협동농장들에서는 관리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기술지식수준이 낮기때문에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지 못하고 경험주의에 매여달리고있습니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려면 협동농장 관리일군들과 농장원들 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이 모두 토양학, 작물학, 비료학, 농기계학 같은것을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협동농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학습체계를 바로 세우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모든 근로자들이 기술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사람이 열사람을 가르치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가르치며 백사람이 천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기술지식보급사업을 널리 진행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기사, 기수 대렬을 빨리 늘이며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지식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하겠습니다.

생산문화를 바로 세우는것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문화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없습니다. 공장의 생산환경을 깨끗이 하고 생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기계도 좋은것을 생산할수 있고 천과 일용품도 좋은것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문화를 바로 세워야 사람들이 맑은 정신으로 흥겹게 일할수 있습니다. 로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생산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계설비들을 잘 보수정비하고 색칠할데는 깨끗하게 색칠하여 모든 기계설비들을 알른알른하게 만들어놓아야 하며 그것을 늘 알뜰하게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배치된 기계설비들은 생산면적의 리용률을 높이고 생산공정들사이에 반제품의 흐름을 질서있게 보장할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공장건물을 제때에 보수하여 공장의 겉모양을 깨끗하게 만들며 지붕도 바로 이어 비가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안에 흡진장치와 배풍장치도 하고 바닥도 알뜰하게 거두며 청소를 늘 깨끗이 하여 먼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의 조명장치도 잘해놓아야 합니다.

공장구내를 지나간 관들도 땅속에 묻을것은 묻고 밖에 나온 관들은 보온장치를 잘하여 다 보기 좋게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공장구내의 길을 다 포장하여야 합니다. 세멘트가 없으면 석비레를 깔고 단단하게 다져놓아도 좋고 천연스레트나 큰 돌을 깔아도 좋습니다. 공장울타리도 잘 만들고 공장주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공장들에서 공장안을 궁전과 같이 꾸리고 공장 구내와 주변을 공원과 같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생산문화를 세우는데서 제품포장을 잘하고 원료와 제품의 보관관리를 질서있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공장들에서 제품포장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다 규격별로 알뜰하게 포장하며 제품창고와 원료창고를 꼭 만들어 원료와 제품을 모두 창고에 질서있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료창고와 제품창고들에서 물건을 받고 내주는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업에서의 기본생산수단인 토지와 농기계에 대한 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토지정리를 잘하여 포전들을 규모있게 만들며 논두렁과 밭머리를 늘 알뜰히 거두어야 합니다. 비탈진 밭머리에는 돌을 쌓든가 버들을 심어 비물에 땅이 패여내려가지 않도록 하며 물도랑도 규모있게 내고 자주 손질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를 아끼고 사랑하는 운동을 널리 벌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잘 관리하고 소중히 다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나가서 기계설비와 생산시설들을 잘 관리하지 않고 되는대로 다루는 낡은 습관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또 실지행동으로 기계설비와 생산시설들을 문화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생산문화와 함께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지난 기간 도시와 농촌을 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결함이 적지 않습니다. 평안남도의 실정을 놓고보더라도 몇몇 군소재지와 리소재지는 잘 꾸려졌으나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그렇지 못합니다.

도시와 농촌마을을 문화적으로 잘 꾸리기 위하여 문화주택을 새로 더 지어야 할데는 더 지으며 거리를 규모있고 알뜰하게 정리하여야 할데는 빨리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평

안남도에서는 올해에 4만세대의 농촌문화주택을 새로 더 지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주택을 새로 더 짓는것과 함께 모든 집과 마을들을 문화위생적으로 알뜰히 거두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는 운동을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는 운동에서 사로청원들과 소년단원들이 앞장에 서야 하겠습니다. 사로청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사로청조직들은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는것을 사로청과 소년단 조직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모든 사로청원들과 소년단원들을 이 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는 사업에서 가장 알맞는 주인은 고등중학교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다 직장에 다니기때문에 그들에게는 집과 마을을 거두는데 돌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이 사업을 맡아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대체로 12～17살인데 그들에게 집과 마을을 거두는 일을 맡기면 잘할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들에 위생근위대가 조직되여있으나 위생근위대원들은 자기 학교나 거두는데 그치고있습니다. 앞으로 위생근위대원들은 학교를 알뜰히 거둘뿐아니라 자기 집과 마을을 늘 깨끗이 거두며 문화위생적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하겠습니다.

집과 마을들을 깨끗이 거두며 문화적으로 잘 꾸리도록 하려면 그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집을 잘 손질할수 있도록 세멘트와 문창호지, 장판지, 도배지 같은것을 국가에서 팔아주어야 합니다. 세멘트를 몇키로그람씩 종이봉지에 넣어 건재상점과 농촌상점들에 내놓고 팔면 농민들이 그것을 사다 토방과 울타리도 손질하고 구들도 고칠수 있을것입니다. 평안남도에서는 세멘트를 자체로 해마다 몇십만톤씩 생산하는것만큼 그가운데서 몇만톤만 떼여 농민들에게 팔아주어도 좋을것입니다. 농민들에게 파는 세멘트를 군에서 떼내여 다른 일에 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멘트와 함께 회가루, 유리, 유리칼, 못, 문창호지, 장판지, 도배지 같은것도 농민들에게 많이 팔아주어야 합니다. 군들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을 잘 운영하면 이런것들을 얼마든지 자체로 생산하여 농민들에게 팔수 있을것입니다.

농촌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수도화를 빨리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당 제5차대회에서 농촌수도화를 실시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으나 아직 적지 않은 지방들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 다그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농촌녀성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있을뿐아니라 일부 벌방지대의 농민들은 먹는 물때문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방침대로 모든 지방들에서 농촌수도화를 힘있게 다그쳐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로동자들의 합숙과 식당, 휴식터를 잘 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회관을 비롯한 문화시설들과 탁아소, 유치원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잘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생활문화를 세우는데서 근로자들이 옷차림을 문화적으로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자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그리고 거리를 다닐 때 언제나 옷차림을 깨끗이 하며 일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조건과 로동안전규정에 맞게 작업복을 단정하게 입고 일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녀성들과 어린이들,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옷차림을 문화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녀자옷공장을 비롯한 옷

공장을 꾸리는 운동을 널리 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방들에서 자체로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옷을 잘해입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녀자옷과 학령전 어린이 옷을 많이 만들어팔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령전 어린이들의 옷을 전문옷공장들에서도 만들고 상업망에서도 만들어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에게 맵시있는 옷을 입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늙은이들의 옷을 만들어파는것이 얼마 없는데 늙은이들의 옷도 많이 만들어팔아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려야 합니다. 특히 부식물문제를 푸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닭과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기르는 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널리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닭알과 고기를 먹을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집에서 닭을 5마리씩만 길러도 어린이들에게 날마다 닭알을 먹일수 있을것입니다. 협동농장 작업반들에서도 닭을 기를수 있습니다.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 3작업반에서는 몇해째 탈곡장결에서 많은 닭을 기르고있는데 닭 한마리가 한해에 알을 190알씩 낳습니다. 탈곡장결에서 닭을 기르면 모이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로력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나이많거나 몸이 약해서 힘든 일을 하기 곤난한 농장원을 한사람쯤 두어 닭우리나 손질하고 알을 받도록 하면 됩니다. 협동농장 작업반들에서 이런 방법으로 닭을 100마리씩만 기르면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닭알을 날마다 떨구지 않고 먹일수 있을것입니다.

젖소기르는 운동도 벌려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소형뜨락또르를 많이 만들어주어 소달구지대용으로 쓰게 하고 농촌에서 부림소대신 젖소를 많이 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젖소와 함께 염소도 많이 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일상적으로 젖을 먹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식생활을 간편하게 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특히 식료공장을 많이 꾸려야 합니다. 매개 도에 곡산공장을 하나씩 짓고 거기서 강냉이를 가공하여 전분, 물엿, 포도당, 과자, 사탕, 간장, 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과 협동농장관리일군들은 투쟁대상이 될것이 아니라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지도일군들이 무엇보다도 당조직생활을 잘하여야 합니다. 지난 기간 일부 공장들에서 적지 않은 지도일군들이 당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당회의에도 잘 참가하지 않았고 아래사람들로부터 비판도 얼마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학습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도일군들이 출신은 로동계급이지만 간부가 된 다음 관료화되였으며 기술적으로도 뒤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적지 않은 지도일군들은 이미 낡았습니다. 그들이 지난날 일제시대에 고등학교에서 배운 기술은 호랑이 담배피울 때의 기술입니다. 해방된 다음 우리 나라 대학에서 배운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원들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교과서와 교육시설이 불비한 조건에서 배운것이므로 오늘의 현실에 잘 맞지 않습니다. 지도일군들은 학습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당조직의 통제를 받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와 힘을 합쳐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당한 기발을 들고 옳은 로선을 따라 나가기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며 보수주의, 사대주의, 수정주의, 자본주의 사상에 물젖은 사람들은 실패하고맙니다.

공장, 기업소의 작업반장, 직장장들이 생산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작업반장이나 직장장 같은 초급일군들이 생산로동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장, 기업소의 작업반장, 직장장들은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이나 중대장과 같습니다. 군대에서 소대장, 중대장들은 전사들과 같이 싸우면서 전투를 직접 지휘하는 지휘관들입니다. 군대가 돌격전에서 승리하려면 지휘관이 먼저 《나를 따라 앞으로!》하고 대원들의 앞장에 서서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지휘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 서서 대원들을 돌격하라고 내몰아서는 전투에서 승리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언제나 대원들의 앞장에 서서 위험을 맞받아나가면서 전투를 지휘하였으며 숙영할 때에는 대원들을 재우고 직접 보초를 서기도 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기때문에 항일유격대원들은 모두 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가지고 언제나 용기백배하여 적들과 싸웠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작업반장이나 직장장들이 생산로동에서 솔선 모범을 보여야 로동자들의 생산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작업반장들이 생산로동에 참가하여야할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직장장들도 한해에 몇십일동안 로동에 참가하는것이 좋습니다. 협동농장 관리위원장들과 같이 한 80일동안 참가하여도 좋습니다. 어쨌든 직장장들이 일정한 기간 의무적으로 생산로동에 참가하는 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작업반장, 직장장들이 생산로동에서 이신작칙하도록 하려면 작업반장, 직장장들을 젊은 사람들로 꾸려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작업반장, 직장장들 가운데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허약하여 로동에 참가하기 곤난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 바꾸는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작업반장, 직장장들 가운데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고문격으로 일하도록 하면 될것입니다. 어린애가 많은 녀성들과 가정부인들도 작업반장이나 직장장으로서는 적당치 않습니다. 그들은 탁아소에도 자주 다녀야 하고 산전산후휴가도 받게 되는것만큼 생산로동에서 이신작칙할수 없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모내기때나 김매기때 같은 전투기간에 분조장이나 작업반장이 산전산후휴가를 받게 되면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협동농장에서도 그렇고 공장, 기업소에서도 그렇고 생산로동에서 이신작칙하기 곤난한 녀성들은 분조장이나 작업반장, 직장장을 시키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첫전투에서 거둔 초보적인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투쟁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이 아직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대중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3대혁명소조성원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지도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교만해지거나 자고자대하지 말고 행동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하며 생활을 건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당중앙에서 파견되여온 사람들이 다르다, 정말 당중앙의 친위대, 근위대답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의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하겠다고 말할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합니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지도사업기간에 절대로 안일해이하지 말아야 하며 높은 혁명성을 계속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3대혁명소조성원들이 남을 비판할수 있고 지도할수 있습니다.

나는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받고 전국각지에 파견된 당중앙위원회 3대혁명소조성원들과 각급 당조직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당의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해방지역방문의 중대한 사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온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그 성과를 열렬히 축하한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4월 14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이엥 싸리국내특사!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다시 만나 이처럼 형제적친선의 정이 넘치는 가운데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자신과 부인의 이름으로 캄보쟈국가원수이시며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그리고 캄보쟈의 귀한 손님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이 기회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해방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고있는 캄보쟈인민과 민족해방인민무장력 전체 전투원들에게 뜨거운 성원과 형제적인사를 보냅니다.

이번에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서 결정적승리의 서광이 어느때보다도 밝게 비치고있는 때에 한달남짓한 기간 직접 캄보쟈의 광활한 해방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기쁜 소식을 안고 우리 나라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국가원수친왕께서 조국의 해방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에 접하였을 때 그 용감한 행동에 매우 감동되였으며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캄보쟈애국력량이 모든 전선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있는 가운데 국가원수친왕께서 해방지역을 방문한것은 싸우는 캄보쟈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는 수습할수 없는 심대한 타격으로 됩니다. 이것은 캄보쟈민족항쟁운동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국내외에 시위하고 해방투쟁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으로 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없이 반제투쟁의 원칙적립장을 견지하고 캄보쟈민족앞에 지닌 국가원수로서의 책임감에 끝까지 충실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불굴의 투쟁의 빛나는 결실로 됩니다.

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해방지역방문의 중대한 사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온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 성과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아울러 국가원수친왕께서 해방지구방문에서 돌아오자 곧 우리 나라를 찾아준것을 우리에 대한 높은 신임과 굳은 전투적우정의 표시로 인정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캄보쟈인민과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국가적재난에 부닥친 지난 세해동안 유일한 합법적국가원수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령도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두리에 날로 굳게 뭉쳐 온갖 난관을 이겨내면서 미국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인 론 놀, 시리크 마타크, 손 느곡 탄매국도당에게 치명적타격을 가하였으며 이미 나라의 대부분지역을 해방하고 오늘 전국해방의 결정적단계에 들어서고있습니다.

지금 미국당국자들은 패배를 만회하며 론 놀도당을 파멸에서 건져내기 위한 최후발악적인 시도로서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야만적폭격을 날로 강화하며 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흉계를 꾸미고있습니다.

우리는 캄보쟈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계속되는 간섭과 침략 행위를 견결히 규탄하며 만일 그들이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군사적모험의 길에 들어선다면 자신을 더욱 돌이킬수 없는 비참한 파멸에로 이끌어가게 될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캄보쟈에서 당장 물러가야 하며 캄보쟈문제는 오직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1970년 3월 23일 5개 항목 성명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오늘 캄보쟈민족통일전선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는 국내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를 박은 유일한 합법적정부로서 전체 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그의 국제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이 프놈 뻰을 해방하며 나아가서 캄보쟈전국을 완전히 해방할 날이 멀지 않아 오고야말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캄보쟈인민의 승리는 곧 우리 인민의 승리로 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이 온 캄보쟈땅을 해방하고 독립되고 평화롭고 중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이며 번영하는 새 캄보쟈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캄보쟈인민이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그들을 앞으로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오늘 캄보쟈에서 민족해방투쟁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으며 얼마전 웰남과 타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협정들이 체결되고 이미 남부웰남에서 미국침략군의 마지막부대가 철수한것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이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물론 미국침략자들은 아세아에서 쫓겨가면서도 결코 순순히 물러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을 위반하고 남부웰남괴뢰도당을 부추겨 남부웰남에서 전쟁상태를 지속시키며 웰남의 평화적통일을 방해하고있으며 또한 라오스에서 반동세력을 부추겨 평화를 계속 교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계속되는 이러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규탄하며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의 정확한 리행을 보장하고 북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남부에서 평화와 독립,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민족적화목을 이룩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체 웰남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또한 평화롭고 민주주의적이며 중립적이고 통일독립된 번영하는 라오스를 건설하기 위한 라오스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계속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패배를 거듭하고있으며 끊임없이 파산몰락되고있습니다.

미국당국자들은 이러한 신세에서 벗어나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적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조선에서 미제는 이미 오래전에 전쟁을 도발하였다가 패배를 당하였으나 의연히 물러가지 않고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조선사람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것을 가로막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당국자들은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세계의 대세가 이미 저들에 불리하게 기울어진것을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에 널려있는 그의 침략군을 걷어들이며 《닉슨주의》에 따라 자기들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중근동에서는 중근동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것과 같은 부질없는 책동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당국자들이 조선에서 정말로 평화의 유지와 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바란다면 우리와의 군사적대치상태를 이이상 인위적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없을것이며 얼마전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 그리고 미국국회에 보낸 편지들에서 천명한바와 같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오늘 제국주의렬강들이 남의 나라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할수 있었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작은 나라, 큰 나라 할것없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공통된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맺어진 캄보쟈인민과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이번 국가원수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력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기록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전우이시며 형제이시며 가장 친근한 벗이신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 일행을 여기 평양에서 다시 맞이하게 된 오늘의 이 즐거운 시각에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서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 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견결한 반제투사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이엥 싸리국내특사의 건강을 위하여, 캄보쟈의 귀한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 친선방문중 지금 이 자리에 참가하고있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및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대표단 단장 웬 티빙외교부장과 대표단 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3년 4월 16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이엥 싸리국내특사!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 평양시의 각계층 인민들은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우리 나라에 오신 캄보쟈국가원수이시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의 귀한 손님들과 상봉하게 되는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견결한 반제투사이시며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신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그리고 캄보쟈의 손님여러분들을 다시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미국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있는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전체 애국적캄보쟈인민에게 가장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우리 인민은 오늘 캄보쟈에서의 정세가 캄보쟈인민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 때에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 일행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원수친왕께서 캄보쟈인민을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고무한 1개월여에 걸친 해방지역방문후 곧 우리 나라에 찾아오신것은 우리에 대한 두터운 전투적우의와 큰 신임의 표시로 됩니다.

우리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력사적인 캄보쟈해방지역방문성과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가원수친왕과 다정한 담화를 진행하였으며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께서 이엥 싸리국내특사와 함께 캄보쟈의 광활한 해방지역을 방문하는 과정을 생동하게 찍은 훌륭한 영화와 사진들을 매우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전투마당의 여러가지 곤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해방지역에 들어가 키에우 삼판부총리와 후윤, 후님부장 등 국내의 훌륭한 항전운동지도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고 현지에서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내각회의를 가지였으며 성대한 군중대회에 참가하여 전투적인 연설을 하면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데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으며 여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녀성들은 존경하는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께서 국가원수친왕과 함께 캄보쟈의 해방지역을 방문하여 용감한 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높이 찬양하며 그에 커다란 경탄을 표시하고있습니다.

국가원수친왕의 이번 캄보쟈해방지역방문은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체 캄보쟈인민을 전국해방의 결정적승리에로 힘차게 고무하며 반미구국투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확고한 기초를 축성하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습니다.

영화와 사진들이 잘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 방문은 캄보쟈인민들의 높은 존경과 두터운 신뢰를 받고있는 캄보쟈왕국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원수이며 민족항쟁운동의 공인된 지도자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권위를 헐뜯으며 민족통일전선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며 왕국민족련합정부의 존재를 무시해보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온갖 비렬한 책동과 중상비방을 철저히 파탄시켰으며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캄보쟈해방지역방문은 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옳바른 령도밑에 캄보쟈인민이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의 힘있는 시위로 되였으며 싸우는 인도지나인민들과 아세아혁명적인민들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였습니다.

이번에 국가원수친왕께서 승리적인 국내해방지역방문을 끝마친후 곧 웰남과 중국을 방문하고 이 나라 지도자들과 상봉하였으며 뒤이어 우리 나라를 찾아준것은 또한 캄보쟈로부터 라오스, 웰남, 중국, 조선에 이르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반제전선을 강화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오늘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3년전 웰남침략전쟁에서 당하고있는 패배로부터 벗어나보려는 발악적인 책동으로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캄보쟈에서 국가정변을 조작하고 뒤이어 캄보쟈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나 결국 그들은 자신이 심대한 정치, 군사적 패배를 당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캄보쟈에 대한 미국의 전쟁도발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작은 나라들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자이며 남의 나라의 내정에 대한 횡포한 간섭자이며 자기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침략을 감행하는 현대식민주의의 원흉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의 교란자이라는것을 더욱 날날이 드러내놓았습니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이미 80%의 인구를 망라하는 전국 령토의 90%를 해방하였으며 해방지역은 전국해방의 믿음직한 기지로 전변되고있습니다.

오늘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는 광활한 령토와 인민들속에 깊은 뿌리를 내린 행정조직기구와 강력한 군대를 가진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서 전체 캄보쟈인민의 전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있으며 세계의 수십개 나라들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권위있고 존엄있는 확고부동한 존재로 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서 형제적캄보쟈인민이 이룩하고있는 모든 승리와 성과를 자신의 성과와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지금 캄보쟈 인민과 애국적무장력은 캄보쟈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공세를 벌려 새로운 승리를 거두고있으며 프놈 펜을 전면적으로 포위하고 론 놀, 시리크 마타크, 손 느곡 탄 반역도당을 더는 헤여날수 없는 마지막궁지에 몰아넣고있습니다.

미제는 론 놀괴뢰도당을 파멸로부터 구원해보려고 수많은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야만적인 폭격을 강화하며 간섭과 침략전쟁을 확대하려고 책동하던 끝에 드디여 남부웰남괴뢰군을 캄보쟈령내에 침입시켰습니다.

이것은 캄보쟈의 독립과 자주권, 령토완정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엄중한 침해이며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과 빠리국제회의결의에 대한 또하나의 로골적인 위반행위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무모한 군사적모험은 자기의 침략적정체를 스스로 온 세상에 더욱 드러내놓을뿐이며 자신의 수치스러운 패망을 앞당기게 할뿐입니다.

미제는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조국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할 때까지 견결히 싸우려는 캄보쟈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결코 꺾을수 없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금후 전세계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이 매우 강대하며 미제국주의는 그 무엇으로써도 이를 타승할수 없다는것을 확신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전체 캄보쟈인민이 한결같이 일어나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프놈 펜과 캄보쟈의 전령토를 완전히 해방하며 번영하는 새 캄보쟈를 건설하게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미국은 캄보쟈에 대한 침략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캄보쟈문제는 반드시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1970년 3월 23일 5개 항목성명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리라는것을 다시금 내외에 엄숙히 천명합니다.

오늘 미제는 인도지나전역에서 녹아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웰남에서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침략군의 마지막부대들이 남부웰남에서 물러가게 된것은 형제적웰남인민이 오래동안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입니다.

조선인민은 웰남인민의 승리를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하며 북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남부에서 평화와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민족적화목을 이룩하며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웰남인민의 새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의 조인은 반미구국항전에서 이룩한 라오스인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입니다.

우리 인민은 라오스인민의 승리를 다시금 열렬히 축하하며 라오스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민족적화목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라오스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캄보쟈, 웰남, 라오스 인민들의 승리는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가는 인도지나 세 나라 인민들의 불패의 전투적 단결과 련대성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미국은 인도지나전역에서 당하고있는 패배로부터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당국자들은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남부웰남에서 티우도당을 내세워 전쟁상태를 지속시키며 신식민주의정책을 계속 실시하고있을뿐아니라 남부웰남괴뢰군을 또다시 캄보쟈침공에로 내몰고있으며 라오스에서도 반동들을 무력으로 부추겨 평화협정을 파괴하며 라오스의 내정에 간섭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웰남과 라오스에서 평화협정을 위반하며 캄보쟈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음모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그들이 인도지나에서 하루빨리 간섭과 침략의 마수를 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도지나 세 나라 인민들은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은 이 지역 인민들의 완강한 반항에 부딪쳐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으며 그들은 아세아의 여러곳에서 쫓겨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국의 신식민주의적통치지반은 뒤흔들리고있으며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가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침략자들은 여기에서 순순히 물러가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미국은 아세아에서 침략적지반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됨에 따라 더욱더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의 중요거점으로 인정하고 남조선을 《닉슨주의의 시험장》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틀어쥐고있으려고 꾀하고있습니다.

미국당국자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래동안 격페상태에 놓여있었던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도 지금 응당한 전진을 보지 못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는 의연히 지속되고있습니다.

미국은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되는 첫출발부터 이를 방해하여나섰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을 평화와 민족적단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에로 부추겨왔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영원히 가지고있으려는데로부터 또한 《두개조선》을 조작하며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 하고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오늘 조선에서 누가 진짜로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민족을 위하며 누가 진짜로 전쟁과 분렬을 고취하고 매국과 동족상쟁을 꾀하는가 하는것을 남김없이 드러내보여주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 그리고 미국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함이 없이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도 없다는것을 밝히고 조국통일의 이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방침과 요구들이 실현될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며 협조하여줄것을 모든 평화애호 나라들과 인민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조선인민과 나아가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사를 반영한 우리의 이 호소는 국제적으로 새로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선참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왔으며 중국의 광범한 언론, 사회계에서 우리의 정당한 립장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습니다.

쏘련의 광범한 사회계와 많은 출판물들이 또한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발기가 가지는 의의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적극 지지하여나서고있습니다.

그밖의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 세계의 광범한 나라들에서 우리의 호소에 귀중한 지지와 동정을 표시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하여줍니다.

우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국회에도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을 미국국회가 의정에상정시켜 토의하든지 안하든지 또는 우리에게 대답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그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 정부당국과 국회에 한번 더 말하려고 하는것은 미국이 조선의 내정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문제의 해결을 질질 끌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조선을 두개 조선으로 영구히 갈라놓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에 어긋납니다.

조선사람들속에서 분렬을 요구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남조선의 극소수분자들뿐이고 절대다수의 조선인민들은 원래부터 하나의 민족인 우리 민족이 두개로 갈라질 조건이 없으며 반드시 통일되여야 한다고 견결히 주장하고있습니다.

조선의 북과 남의 전체 애국자들은 두개 조선으로 분렬되기를 바라지 않기때문에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허하지 않을것이며 미국뿐아니라 다른 어떤 세력이 《두개 조선》을 만들려는데 대해서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할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조선의 분렬을 오래동안 지속시키고 있었댔자 그들이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입니다. 있다면 자기들의 침략적정체를 더욱 세상에 날날이 드러내놓고 조선인민의 증오와 세계인민의 증오를 더 사는것뿐일것입니다.

인민들의 증오가 커지면 그들의 침략자에 대한 반항과 반대투쟁은 더 앙양될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미국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쫓겨나고말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조선에 대한 침략적의도를 가지고있지 않다면 무엇때문에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방해하겠습니까.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하며 북과 남사이에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것을 거듭 천명했으며 또 그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구체적방도를 제시하고있는것만큼 정말로 미국이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과 극동 및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바란다면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계속 두어두고 그곳에 신형무기와 군사장비를 끌어들여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강화하며 끊임없이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있어서까지 이러한 책동을 계속하고있으며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이른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우리를 가상적적으로 하는 상륙작전과 공격작전 훈련을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경 조선사람끼리 싸움을 하게 하자는것이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자는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에게 쓰고있는 량면전술이 미국당국자들이 《평화》의 간판밑에 쓰고있는 량면전술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인정하고있습니다.

만일 미국당국자들이 취하고있는 부당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일시 완화되였던 긴장상태가 도로 격화되고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에 의하여 싸움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당국자들이 져야 할것이라고 우리는 단호히 경고합니다.

오늘 이 연단을통하여 우리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다시한번 호소하고싶은것은 그들이 7. 4공동성명을 정직하게 지키고 쌍방의 호상 리해를 촉진시키며 특히 남북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시키고 군비경쟁을 그만둠으로써 긴장상태를 풀고 호상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합작과 단결 나아가서는 통일을 하루빨리 촉진시켜나가도록 하자는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의 일부 당국자들은 《대화있는 대결》과 《경쟁》, 《대화있는 공존》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있는데 이것은 아무 의의도 없는것입니다.

본래 공존이란 각이한 사회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들간, 민족들간에 제기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한민족안에서 적용하려고 한다면 결국 분렬을 영구화하는것으로밖에 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이 아니라 대화있는 단결, 대화있는 합작, 대화를 통한 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우리는 북과 남사이에 비록 의견이 맞지 않는것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자기의 신앙과 사상,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않는다면 민족적대단결을 능히 이룩할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일 중요한것은 당면하여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우리가 이미 제기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 등 5개 항목 제안을 하루빨리 실현하며 또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의 각 분야에 걸쳐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나라의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기운은 더욱 높아가고 민주력량은 계속 강화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지만 이 과정에 서로의 주장과 립장이 명백히 되였으며 따라서 앞으로 북과 남이 더 접근할수 있고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조선민족이 자신의 손으로 능히 찾아낼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만일 현재의 대화가 잘 진척되지 않는다면 북과 남의 당국자들사이에서만 시야비야 하는것 보다는 광범한 애국적인 각계각층 인사들이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많은 의견들을 듣고 호상 리해심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통일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재의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에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을 참가시켜 그 폭을 넓히든지 또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은 조절위원회사업대로 진행하고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자는것을 주장합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이 있지만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민족을 분렬시키고 나라를 팔아먹는다면 그것은 천추에 씻지 못할 을사오적의 치욕밖에 남길것이 없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를 물론하고 민족분렬을 견결히 반대하며 민족자주적인 립장에서 우리 민족 내부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후손만대에 길이 남을 좋은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세는 매우 좋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이 잘되여나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나라의 전반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비상히 확대강화되고있으며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우호적국가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에 들어서고있는것은 막을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추세로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온갖 지배와 압력에서 벗어나 자주의 길로 나가는 오늘의 시대적조류를 그대로 반영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질식시키려던 미제국주의자들의 흉계가 종국적으로 파산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성원밑에 앞으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더욱 폭넓게 발전시키도록 하며 쌍방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며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왕국은 언제나 조선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었습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는 반제평화애호적인 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음모책동을 물리치고 오래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

인정하고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매우 귀중한 정치적지원으로서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은 반제공동전선에서 굳게 손잡고 함께 싸워나가는 친근한 전우이며 형제입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의 뉴대는 날을 따라 두터워지고있으며 이 친선은 우리의 반제공동위업을 촉진시키는데서 믿음직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단결을 오늘과 같은 높은 단계로 개화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이번 국가원수친왕께서 다시금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주신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친선을 더욱 활짝 꽃피게 하는 또하나의 획기적사변입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 의하여 시작된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훌륭한 형제적친선관계는 의심할바없이 앞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될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정세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편에 날로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내리막길에 들어선 제국주의는 력사발전을 뒤로 돌려세워보려고 《평화》의 간판밑에 량면술책에 매여달려 계속 각방으로 발악하고있으나 그의 종국적멸망은 불가피합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고상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을 일관한 정책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재생을 반대하는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령해권,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구라파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투쟁할것입니다.

이 공동의 위업에서 조선인민은 영원히 형제적캄보쟈인민과 어깨겯고 함께 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만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만세!

아세아와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단결만세!

우리는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거둔 모든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6월 20일

(연설요지는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구스따브 후싸크동지!

존경하는 루보미르 슈뜨로우갈동지!

존경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의 귀한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오늘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형제적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맞이하여 이처럼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우의의 정 흘러넘치는 이 자리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구스따브 후싸크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체스꼬슬로벤스꼬는 구라파의 중심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의 형제나라입니다.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지금 구스따브 후싸크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당 제14차대회가 내놓은 강령에 따라 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보다 단합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거둔 모든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한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열렬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사회주의의 서방초소를 공고히 하며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조선인민과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오래전부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의 투쟁속에서 두터운 친선의 뉴대를 맺은 계급적형제입니다.

이번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서 또하나의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변으로 됩니다.

손님여러분은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여러가지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벌리고있는 오늘의 투쟁모습들을 직접

보게 될것입니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지난해에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진행되고있으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미국은 《닉슨주의》를 내놓고 량면전술을 쓰면서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그냥 남겨두고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으며 조선을 영원히 두개 조선으로 갈라놓으려고 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손으로 제발목을 묶어놓는것과 같은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조선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정말로 가지고있지 않다면 더 늦기전에 정책전환을 하여야 하며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가도 출로를 찾지 못할것이며 구경은 안팎으로 더욱 고립되여 남조선에서 쫓겨나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을것입니다.

오늘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립장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나라들로부터 날로 커가는 지지성원을 받고있습니다.

형제적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우리 인민을 물심량면으로 성의껏 도와주었으며 오늘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협조하여주고있습니다.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은 또한 조선정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으로서 조선에서 정전을 유지하며 공고히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이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구스따브 후싸끄동지와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조선인민과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이 더욱 확대강화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오늘 먼곳에서 오신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맞이한 이 기쁜 시각에 손님여러분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될것을 바라면서 조선인민과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사이의 불패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구스따브 후싸끄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루보미르 슈뜨로우갈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전체 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3년 6월 23일

존경하는 구스따브 후싸끄동지!

존경하는 루보미르 슈뜨로우갈동지!

존경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평양시의 각계층 인민들은 형제나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오신 친선의 사절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친선의 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체스꼬슬로벤스꼬로부터 가장 높은 급의 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찾아준것을 우리 인민에 대한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의 표시로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굳은 련대성의 표시로서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호상 리해를 더 깊이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새롭게 발전시키는 획기적계기로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이 걸어온 간고하고도 빛나는 투쟁로정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그리고 귀 당과 귀국인민의 앞으로의 투쟁전망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력사적으로 나라들사이의 분쟁이 심하였던 구라파대륙의 한 중심부에서 오래동안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왔습니다. 히틀러파시스트도당에 의하여 나라가 강점되였던 어려운 나날에 체스꼬슬로벤스꼬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반파쑈해방투쟁을 용감히 벌렸습니다.

파쑈독일이 패망하고 나라가 해방된 이후에도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복잡한 투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1948년 2월승리후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자기 나라를 발전된 공업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으며 계급적원쑤들의 거듭되는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습니다.

오늘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구스따브 후싸끄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사회를 더욱 전면적으로 공고발전시킬데 대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4차대회의 강령에 따라 인민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인민생

활을 높이며 제5차5개년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체스꼬슬로벤스꼬는 국제관계분야에서도 활동무대를 날로 넓히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이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모든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민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 인민은 자체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길이 결코 평탄치 않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어려운 조건에서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면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지난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받들고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면서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앞당겨수행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조선과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제2차세계대전후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으나 두 나라에서의 공통된 경험은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독립, 행복과 번영을 보장하여주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회주의의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조선과 체스꼬슬로벤스꼬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고 긴밀히 협조하여왔습니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이 친선은 두 나라 인민들이 전진도상에서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보다 큰 생활력을 나타냈습니다.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물심량면으로 많은 원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오늘도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협조하여주고있습니다.

얼마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련방회의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에 대한 회답에서 우리의 평화통일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지방조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이 우리 인민을 형제적으로 지지협조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구스따브 후싸끄동지와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체스꼬슬로벤스꼬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이 그대로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계속 좋게 발전하고있으며 국제주의적련대성은 강화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단결의 강화는 사회주의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있으며 세계사회주의의 진지가 공고하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더욱 충실히 실행해나갈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국제정세는 계속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력량에는 불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의 장성하는 력량앞에서 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그 처지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로부터 출로를 찾기 위하여 더욱더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리고있습니다.

미국은 《평화》의 간판밑에 세계 여러곳에서 침략과 간섭 책동을 계속하고있으며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나라들을 힘으로 내리눌러 자기의 식민지패권을 유지하려하고있습니다.

조선, 캄보쟈, 웰남, 라오스, 일련의 아랍나라들 그리고 꾸바와 그밖의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감행하고있는 미국의 침략과 간섭 책동은 이것을 잘 말하여줍니다.

미국은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파산몰락되고있는 자기의 식민지지배체계를 수습하기 위한 중요한 지탱점으로서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틀어쥐려 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닉슨주의》에 따라 량면전술을 쓰면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을 부추겨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려는 책동을 버리지 않고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에 발맞추어 남조선당국자들도 역시 량면전술을 쓰고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평화통일》의 간판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면서 분렬의 영구화를 꾀하고있으며 군사력증강에 온갖 힘을 다 돌리고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것으로 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으며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큰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그리하여 한해전에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우리 민족앞에 열리였던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은 도로 흐려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적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새로이 내외에 천명합니다.

1. 오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것은 현시기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호상 리해와 신임을 두터이하며 민족적대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긴절하고도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있는것은 그자체가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야만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와 불신임을 없애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으며 호상 신뢰의 기초우에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습니다. 속에 칼을 품고 평화통일을 하겠다고 하며 대화를 한다는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

다. 속에 품고있는 칼을 내놓지 않고서는 서로 믿음의 분위기를 마련할수 없으며 북과 남사이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크고작은 어떤 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 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긴절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부차적문제들이나 이러저러한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해결하자고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호상 신임을 두터이하고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자는것이 아니며 민족분렬의 쓰라린 상처를 그대로 두고 나라의 분렬을 유지하며 고정화하자는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참말로 평화통일을 바라고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러한 립장을 버리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길로 나와야 합니다.

2.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는 끊어졌던 민족적뉴대를 다시 잇고 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가 실현되여야 북과 남사이에 맺게 될 평화협정도 보다 공고히 할수 있을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서로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자고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남북간의 온갖 장벽을 무너뜨리는것을 두려워하고있으며 남북간의 교류와 합작을 극력 반대하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끼리 합작하는것이 아니라 외세와 결탁하고 외래독점자본을 제한없이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예속경제로 전변시키고있으며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오물단지》로 배척당하고있는 공해산업까지 끌어들여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더럽히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적량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있다면 마땅히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우리 민족에 리롭게 경제를 발전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합작을 실현하는데로 나와야 할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3.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다만 북과 남의 당국자들사이의 범위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북반부의 로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같은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여기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범히 협의하여 해결할것을 제의합니다.

4. 오늘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입니다.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성된 조건에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단결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련방국가의 국호는 우리 나라의 판도우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련방공화국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이것은 남북쌍방에 다같이 접수될수 있는 좋은 국호로 될것입니다.

고려련방공화국의 창설은 나라의 분렬을 막고 북과 남사이의 련계와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5. 우리는 분렬이 고착되여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아야 하며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관계를 발전시키고있지만 이것을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데 리용하려는 온갖 책동을 견결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유엔에도 북과 남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련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엔가입문제와는 달리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상정토의되는 경우에는 응당 우리 공화국대표가 당사자로서 거기에 참가하여 발언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하나의 민족으로서 결코 둘로 갈라져살수 없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이 조국통일방안이 실현된다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공통된 념원에 맞게 평화적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이 새로운 공정한 통일제안에 성의를 가지고 대할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이 급변하는 오늘의 정세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자기의 군대를 철거시키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미국이 큰 나라들과만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갈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른바《반공》의 간판밑에 인민의 버림을 받은 앞잡이들을 부축하여주는것으로써 자기의 식민지지배권을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도리여 세계의 대다수나라 인민들의 항거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파멸과정을 앞당길것입니다.

오늘 유엔은 미국이 유엔의 《결의》에 빙자하여 자기 군대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며

하고있는 책동에 대하여 마땅히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엔은 남조선에 와있는 미국군대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함으로써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맞게 지난 시기 유엔에서 만들어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세계의 대세가 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파산되여가는 내정간섭책동에 의연히 적극적으로 추종하여 앞장에서 날뛰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일본군국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자들 역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하며 틈을 타서 남조선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교활한 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다시금 경고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지지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다지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여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의 엄격한 리행을 보장하며 북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남부에서 평화와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며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웰남인민의 새로운 단계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는 또한 라오스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적화목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라오스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오늘 미국은 캄보쟈에 대하여 매일매시각 수많은 폭탄을 퍼부으면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으나 이것은 자기의 폭탄으로 자기의 위신과 존엄을 파괴하며 자기의 야만성을 더 드러내놓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캄보쟈를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전쟁을 단호히 규탄하며 나라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애국적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합니다.

조선인민은 미제의 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는 모든 아세아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령해권,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인민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구라파인민들은 두차례나 세계대전의 발원지로 되였던 이 대륙에서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래동안 투쟁하여왔습니다.

우리는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이 지역 인

민들이 기울이고있는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으로도 조선과 체스꼬슬로벤스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계속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사이의 불패의 형제적친선단결 만세!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만세!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기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아프리카와 구라파 여러 나라 방문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열렬히 축하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아프리카 및 구라파방문성과를 축하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7월 21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그리고 캄보쟈의 손님여러분들을 이처럼 평양에서 다시 만나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는 력사적인 캄보쟈해방지역방문후 아프리카와 구라파의 여러 나라 방문의 길에 올라 매우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고 이번에 다시 우리 나라에 오시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아프리카와 구라파 여러 나라 방문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국가원수친왕의 아프리카와 구라파 여러 나라 방문은 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국제적권위를 더욱 높이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여러 나라 인민들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또하나의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이번에 국가원수친왕께서 방문한 모든 나라의 정부와 인민들이 친왕을 캄보쟈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원수로서 열렬히 환영하고 정중히 환대하였으며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동정을 표시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범죄적행위를 규탄하였습니다.

이것은 싸우는 캄보쟈인민의 벗들이 세계 어디에나 많다는것을 힘있게 시위한것으로서 우리들모두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이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날로 커가는 지지성원을 받게 되며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이 갈수록 고립배격당하게 되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오늘 캄보쟈의 내외정세는 어느때보다도 캄보쟈애국력량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몇달동안에만 하여도 파산에 직면한 저들의 침략정책을 수습해보려고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야만적폭격을 악랄하게 강화하며 침략전쟁을 확대하여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론 놀매국도당을 파멸에서 전져낼수 없었으며 도리여 저들자신을 더욱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뜨렸습니다.

캄보쟈에서 대세는 이미 결정지어졌으며 국가원수친왕께서 프놈펜에 개선할 날은 다가오고있습니다.

미제는 그 어떤 최후발악적인 음모책동으로써도 이 사태발전을 돌려세울수 없을것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은 이미 당한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캄보쟈와 인도지나 전역에서 간섭의 손을 떼야 하며 캄보쟈문제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5개 항목 성명에 기초하여 캄보쟈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은 애국적캄보쟈인민이 반미구국투쟁에서 날로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을 자신의 성과와 같이 여기며 앞으로도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계속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걷잡을수 없이 전면적으로 무너지고있습니다.

현 사태발전은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여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대가로 자기의 권세욕을 충족시키고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려보려는자들은 례외없이 력사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장개석의 운명이 바로 그러하였고 남부웰남의 반 티우, 캄보쟈의 론 놀도당의 신세가 역시 그렇게 되여가고있습니다.

조선에서 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거역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며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자들도 계속 그 길로 나간다면 구경은 매국노로서의 치욕을 남기는것밖에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입니다.

조선의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은 굳게 단합하여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지성원밑에 원쑤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파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이번 외국방문과정에도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립장과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기회에 국가원수친왕의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하여서와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가 지난 6월 23일 새롭게 내놓은 우리의 5개 항목 조국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국제적벗들의 동정과 지지를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국가원수친왕께서 이번에 외국방문에서 돌아오자 곧 우리 나라를 다시 찾아주신것은 우리에 대한 커다란 신임과 두터운 우정의 표시로 되며 우리 인민에 대한 고무로 됩니다.

나는 국가원수친왕의 방문이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한전선에서 싸우고있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캄보쟈의 손님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될것을 바랍니다.

나는 우리의 형제이시며 전우이시며 가장 친근한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다시 만나게 된 이 기쁜 시각에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서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영원한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캄보쟈의 귀한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콩고인민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사회 건설에서 날로 큰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콩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1일

존경하는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콩고인민공화국의 귀한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콩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콩고인민공화국 대통령인 마리엔 느구아비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콩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맞이하여 이처럼 친선의 정 넘치는 가운데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콩고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과 그 일행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콩고인민의 친선의 사절인 당신들을 뜨거운 형제적우의의 정으로 반가이 맞이하였습니다.

콩고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있으나 두 나라 인민들은 압박받고 착취받던 지난날의 처지의 공통성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굳은 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중부에 자리잡고있는 콩고는 1963년 8월혁명이 승리한 다음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용감한 콩고인민은 1968년의 《7월 31일운동》이후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콩고로동당과 국가리사회의 옳바른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민족민주주의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으며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마사버리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

하며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꽁고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잃어버린 옛 지위를 되찾아보려고 거듭 파괴전복활동을 감행하고있으나 꽁고인민은 그때마다 원쑤들의 범죄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적통일을 공고히 하며 굴함없이 혁명의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꽁고인민이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 사회건설에서 날로 큰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오늘 전진하는 꽁고는 약동하는 아프리카의 일단을 반영하고있습니다.

어제날 식민지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는 오늘 해방과 독립의 광명이 비친 새로운 대륙으로 전변되고있으며 아세아, 라틴아메리카와 더불어 제3세계의 힘있는 존재로 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무너지는 저들의 식민지지배체계를 유지해보려고 계속 발악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적해방과 자주의 길로 나가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를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지 못할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하게 벌리고있는 앙골라, 모잠비끄, 기네(비싸우),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인민들의 투쟁과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모든 아프리카나라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과 론 놀매국도당을 쓸어버리고 전국 령토를 완전히 해방할 때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려는 캄보쟈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웰남과 라오스, 아세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 미국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으며 그것을 자신의 해방위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꽁고의 손님여러분!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에 대한 두터운 신임의 표시로 되며 또한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당신들은 이 방문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미제와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고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모습들을 직접 보게 될것입니다.

조선에서의 현 사태발전은 누가 진짜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힘쓰며 누가 진짜로 전쟁과 분렬을 꾀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고있습니다.

요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공공연히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내놓고있는데 이것은 세계여론을 우롱하며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제국주의의 낡은 식민지통치수법을 유엔의 이름으로 감싸보려는 간악한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개 조선의 유엔가입은 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에 배치되게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는것으로밖에 되지 않을것입니다.

지난날 미국은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과 간섭책동을 유엔의 간판으로 가리우기 위하여

《유엔군》이니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니 하는것들을 만들어 냈다면 그것이 파산의 운명에 빠지게 된 오늘에는 《현실인정》에 기초한 《평화유지》라는 미명으로 두개 조선의 유엔가입이란 새로운 요술을 피움으로써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키고 남조선만이라도 언제까지나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 하고있습니다.

조선과 같은 오랜 력사를 가진 하나의 민족국가를 억지로 두개 국가로 갈라놓는다면 그것은 정세를 안정시키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더욱 조장시키게 되고 결국은 이 지역의 평온과 평화가 아니라 항시적인 긴장과 전쟁의 화근만을 더욱 빚어내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두개 조선의 유엔가입이란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도 전적으로 어긋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오늘 민족분렬을 영구화하게 될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절대다수인민들도 견결히 반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는데 또다시 유엔의 권위를 부당하게 리용하여보려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켜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하며 하루빨리 련방제라도 실시하여 조선의 북과 남을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꽁고로동당과 국가리사회와 꽁고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으며 얼마전에는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각하께서 직접 우리의 새로운 5개항목 조국통일방안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이에 대하여 마리엔 느구아비각하와 꽁고로동당과 국가리사회와 꽁고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과 꽁고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한전선에 서있는 친근한 전우이며 형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이 조선과 꽁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획기적계기로 되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동지들과 벗들!

나는 우리의 친근한 꽁고동지들을 맞이하여 화기에 넘치는 이 자리에서 손님여러분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환대속에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꽁고인민공화국의 번영발전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꽁고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각하와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꽁고의 귀한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꽁고인민이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과 쎌린느 느구아비부인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3일

존경하는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각하와 쎌린느 느구아비부인!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꽁고인민공화국의 귀한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인 마리엔 느구아비각하께서 우리 나라 방문을 끝마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대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또한 우리 나라에 체류중인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여기에서 다시금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꽁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을 보다 활짝 꽃피게 하는 획기적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이 방문을 통하여 우리는 호상 리해와 신의를 더욱 두터이하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단결과 협조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계기를 열어놓을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친형제를 만나는 기쁜 심정으로 당신들을 가는곳마다에서 열렬히 맞이하였으며 당신들은 꽁고인민이 우리 인민에게 보내는 굳은 련대성과 뜨거운 친선의 정을 전하여주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성대한 환영은 꽁고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성원의 표시였으며 대통령각하 당신에 대한 높은 존경과 친근감의 표시였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여준것은 꽁고인민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우리 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있는 믿음직한 전우이며 형제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여기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습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특히 우리들사이에 진행된 회담에서 견해의 일치를 본것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뉴대와 단결의 기초가 매우 공고하다는것을 힘있게 시위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 꽁고인민과 같은 전우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형제적꽁고인민과 굳게 손잡고 싸워나갈것이며 번영하는 새 꽁고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과의 상봉을 통하여 꽁고에서 민주주의적변혁을 이룩하며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하려는 꽁고로동당과 정부와 인민의 고상한 지향과 굳은 결의에 대하여서와 이 길에서 꽁고인민이 이미 거둔 성과들에 대하여 더잘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꽁고인민이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새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이번 꽁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에서 날로 강화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의 위업에도 큰 기여로 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해방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떼래야 뗄수 없이 밀접히 련결되여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아프리카, 아세아의 견결한 반제투사들인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과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 자체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단결을 힘있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 지역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각방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힘쓸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꽁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된데 대하여 큰 만족감을 표명하면서 꽁고인민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조선인민과 꽁고인민사이의 불패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각하와 셀린느 느구아비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꽁고의 귀한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9일

나는 먼저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농업전선에서 몸바쳐투쟁하고있는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농업부문지도일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농촌경리를 지도하는 각급 당조직의 지도일군들과 당의 위임에 의하여 농촌에 나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일군들 특히 대학교원들과 대학생동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 농사가 매우 잘되였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농업생산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올해농사를 잘 지었을뿐아니라 앞으로 1~2년안에 알곡생산에서 650만~700만톤의 높은 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와 정치사상적기초를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중앙위원회의 령도가 정확하였고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각급 당조직들과 전체 농업근로자들, 농촌에 나간 청년인테리들이 정력적으로 투쟁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국의 로동계급, 인민군장병들과 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동원되여 농촌지원사업을 잘한 결과입니다.

나는 이 대회에 참가한 농업부문열성자들과 농촌을 지원하여 몸바쳐투쟁한 로동계급과 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농촌을 지원하여 알곡을 한톤이상씩 생산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농촌지원사업을 잘하였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군사적임무도 충실히 수행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일찌기 올해의 농업부문사업을 총화하고 만세를 부르지 않는가고 생각할수 있는데 결코 그런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태풍피해가 있으면 알곡수확이 좀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피해나 그 어떤 자연재해도 우리가 올해에 농업부문에 마련하여놓은 물질기술적토대와 정치사상적기초는 허물수 없습니다.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쌀독에 쌀이 많이 들어가게 된것도 큰 성과이지만 보다 중요한 성과는 앞으로 더 높은 농업생산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정치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아놓은것입니다. 농업부문에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와 정치사상적기초가 마련되여있으면 우리 나라에서 700만톤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알곡고지도 점령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올해에 농업부문에서 이룩한 승리를 총화하게 됩니다.

올해에 농업부문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린데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농업부문지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특히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이 가지고있던 관료주의, 주관주의적인 사업작풍이 없어졌습니다. 농촌에 나가 농민들과 담화해보면 그들은 일치하게 올해에 농사가 잘된것은 농업지도에서 일군들의 관료주의와 주관주의가 없어진 결과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관료주의, 주관주의는 집권당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해로운 사업작풍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와 주관주의를 반대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으며 특히 올해에 농업부문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농촌경리부문지도일군들속에 남아있던 관료주의와 주관주의가 극복되였으며 모든 일군들이 협동농장원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농촌지도일군들뿐아니라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안일해이한 현상을 반대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주인답게 성실히 일하는 기풍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에 농업부문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된것은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당의 방침을 잘 관철하였기때문입니다.

농촌경리에 투자를 하지 않고 농사가 잘될것을 바라는것은 수정주의적경향이며 허황한 생각입니다.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도 국가적투자를 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만 생산을 높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일부 일군들은 자재와 원료가 없다는 구실밑에 농촌에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많이 만들어주지 않고 린비료와 미량원소비료도 제대로 생산해주지 않았으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릇된 현상을 비판하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국가에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으며 다른 부문들에서 일하던 농업기술자들을 뽑아 농촌에 보내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올해에 농업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한 중요한 담보로 되였습니다.

올해에 농업부문에서 쟁취한 승리는 또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고 모든 힘을 농사일에 집중함으로써 이룩된것입니다.

농촌로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모든 힘을 농사일에 집중할데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미 1960년에 강서군 청산리당총회에서 말하였으며 그후에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농촌경리부문의 일부 일군들은 당의 이 방침을 잘 관철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농촌에서 로력을 분산시키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농사일에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하여 농촌에 있는 농기계와 운수수단들을 농사일에만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에서 모든 힘을 농사일에 집중하도록 한 결과 올해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농업부문에서 이룩한 승리는 거저 얻은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투쟁을 통하여 얻은 승리입니다. 때문에 이 승리는 진실한것이며 공고한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은 앞으로 이 승리에 기초하여 더욱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농업부문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74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지 10돐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에 큰 힘을 넣어 다음해에 테제에서 내놓은 농촌기술혁명의 주요과업들을 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은 모든 사람을 완전히 로동계급화하고 혁명화, 공산주의화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하여야 할 혁명과업이지만 기술혁명은 단계별로 뚜렷한 투쟁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달성할수 있으며 비교적 빠른 기간에 끝을 맺을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 테제에서 내세운 방침에 따라 농촌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이미 오래전에 농촌경리의 수리화가 완성되고 농촌의 전기화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농촌경리의 기계화, 화학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농촌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간다면 다음해에 테제에서 내세운 농촌기술혁명의 주요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농촌기술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빨리 끝내는것입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끝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뜨락또르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더 많은 뜨락또르를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뜨락또르생산을 훨씬 늘여 농촌의 뜨락또르대수를 7만~8만대에 이르게 할데 대한 농촌테제의 과업을 다음해에 완수하며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를 1975년에는 5대, 1976년에는 6~7대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과 국가에서 지난해에 뜨락또르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는데 힘을 집중한 결과 오늘 금성뜨락또르공장은 생산능력이 그전에 비하여 10배로 늘어났으며 해마다 수만대의 뜨락또르를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뜨락또르생산기지로 꾸려졌습니다.

금성뜨락또르공장의 로동계급은 기술기능수준을 빨리 높여 자동화된 기계,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기대마다 만부하를 걸고 공장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뜨락또르를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문일군들은 이 공장에서 2교대작업을 완전히 할수 있도록 모자라는 로력을 빨리 보충해주며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대수를 빨리 늘이며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소형뜨락또르를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농촌실정에 가장 알맞는 뜨락또르는 물론 《천리마》호뜨락또르입니다. 그러나 산간지대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전진》호 같은 소형뜨락또르를 쓰는것이 더 편리합니다. 《전진》호뜨락또르는 벌방지대의 협동농장들에서도 짐을 실어나르는데 매우 좋습니다. 《전진》호뜨락또르 한대가 짐을 실어나르는 일에서 소달구지 10대는 대신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형뜨락또르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면 농촌에서 가까운 몇해안에 소달구지를 다 없앨수 있습니다. 9. 25뜨락또르공장에서는 지금 있는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전진》호뜨락또르의 생산을 훨씬 늘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진》호뜨락또르와 함께 《충성》호뜨락또르를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요즘 지방에서 자체로 창안하여 만든 《충성》호뜨락또르는 구조가 간단하고 다루기도 편리하여 산간지대의 협동농장들에서 쓰기 좋은 뜨락또르입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충성》호뜨락또르를 만드는 공장을 넘겨받아 올해에 기술준비를 완성하고 공장의 생산토대를 튼튼히 꾸려

다음해부터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도들에서 《충성》호뜨락또르를 만든 경험을 받아들여 지방자체로 소형뜨락또르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생산이 늘어나는데 따라 다음해에 벌방지대와 중간지대의 협동농장들에 더 많은 뜨락또르를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알곡을 많이 생산하는 평안북도의 룡천군, 평안남도의 문덕군, 황해북도의 황주군 그리고 함경남도의 함주군, 강원도의 안변군을 비롯한 벌방지대 군들의 700여개 협동농장들에는 경지면적 100정보당 4∼5대의 뜨락또르가 차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곡생산의 예비가 많은 중간지대의 협동농장들에도 뜨락또르를 많이 주어 알곡생산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벌방지대의 협동농장들에는 《풍년》호와 《천리마》호 뜨락또르를 많이 주고 중간지대의 협동농장들에는 《천리마》호와 《전진》호 뜨락또르를 많이 주며 산간지대의 협동농장들에는 《전진》호 같은 소형뜨락또르를 많이 주어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생산기지를 더욱 확장하고 튼튼히 꾸리며 자동차공장들에서 기술혁신을 일으켜 자동차생산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모내는기계, 김매는기계, 이동식탈곡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논농사를 많이 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내는 일을 기계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능이 좋은 모내는기계를 창안하여 많이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975년까지 모내는 일의 기계화를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김매는 일을 적극 기계화하며 낟알터는 일도 기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협동농장들에서 낟알터는 일을 논밭에서 하지 못하고 곡식단을 날라들여다 탈곡장에서 하기때문에 품도 많이 들고 낟알도 적지 않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여러가지 이동식탈곡기를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어 벼탈곡을 포전에서 직접 하도록 하며 낟알터는 일의 기계화를 1975년까지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사일을 기계화하는것과 함께 가마니짜기, 새끼꼬기, 강냉이껍질벗기기 같이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을 다 기계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당이 내놓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과업을 빨리 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이 많이 농촌에 나가는 조건에서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특히 뜨락또르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토지정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지금 농촌에 많은 뜨락또르가 나가있지만 토지정리가 잘되지 않아 뜨락또르의 리용률이 높지 못합니다. 일부 협동농장들에는 아직도 정리하여야 할 다락논과 뙈기밭이 많습니다. 다락논은 뜨락또르가 들어가 일하기도 힘들고 정당수확고도 높지 못합니다. 다락논을 많이 가지고있는 협동농장들에서는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 논배미를 크게 만들수 있는데는 크게 만들고 경사가 심한곳의 다락논은 밭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논과 함께 밭도 규모있게 정리하여 모든 논밭에 뜨락또르가 들어가 제대로 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토지정리를 잘할수 있도록 불도젤과 《풍년》호뜨락또르를 많이 만들어주어야 하겠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천리마》호뜨락또르를 가지고도 토지를

정리하기 위한 투쟁을 널리 벌려야 하겠습니다.

토지정리를 잘하는것과 함께 길을 잘 닦아야 하겠습니다. 길을 잘 닦지 않으면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일수 없으며 그 수명도 보장할수 없습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논밭으로 들어가는 길과 농촌부락의 길을 다 알뜰하게 닦아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를 창안제작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며 특히 모든 도에서 련결차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련결차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부속품생산을 늘이며 뜨락또르의 보수정비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지방마다 뜨락또르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속품을 뜨락또르부속품공장들에서 많이 만들어낼뿐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다른 기계공장들에서도 생산해주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내놓은 방침대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이동수리차를 1～2대씩 두고 협동농장들에서 요구하는 뜨락또르의 소수리를 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동수리차에 선반과 볼반, 용접기 같은것을 갖추어주고 거기에 운전수를 포함하여 2～3명의 수리공을 붙여놓으면 그들이 협동농장들에 나가 뜨락또르를 수리해줄수 있을것입니다. 뜨락또르의 중수리는 군에서 하며 대수리는 도에 뜨락또르수리공장을 1～2개씩 꾸리고 거기에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기술혁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기계화와 함께 화학화를 다그쳐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논밭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을 한톤이상의 수준에 이르게 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여있습니다. 우리가 잘 투쟁하면 다음해에 테제에서 내세운 이 과업을 능히 실행할수 있습니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지금 하고있는 화학비료공장의 생산능력확장공사와 보수보강사업 그리고 새 비료공장 건설을 빨리 끝내고 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3요소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입니다.

질소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화학공업부문일군들과 건설부문일군들은 지금 하고있는 청수화학공장과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아오지화학공장의 확장공사를 다그치며 흥남비료공장의 보수보강사업을 빨리 끝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질소비료공장의 생산능력확장공사에 필요한 질소분리기와 압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해에 150만톤의 질소비료를 어김없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비료생산에서 중요한것은 린비료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질소비료의 량은 적지 않으며 다음해에는 질소비료에 대한 수요를 거의 충족시킬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린비료는 얼마 생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린비료생산에 큰 힘을 넣어 린비료생산을 빨리 늘여야 하겠습니다.

린비료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년간 주요 알곡생산지대의 도들에 린비료공장을 건설하였으며 린회석광산을 많이 개발하여 린비료공장들의 원료기지를 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 린회석생산기지가 없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서는 광업총국과 협력하여 동암지구와 김책지구의 린회석광산을 빨리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린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지금 하고있는 린비료공장확장공사와 새 린비료공장 건설공사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지금 함경북도에 린비료공장이 없는데 함경북도에서도 자체의 린비료공장을 하나 건설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해에 린비료를 100만톤이상 생산하며 6개년계획말에 가서는 그 생산량을 150만톤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비료생산이 빨리 늘어나는데 따라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워 비료의 효과를 최대로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린비료와 카리비료를 적게 주고 질소비료만 많이 주어서는 알곡수확을 높일수 없습니다. 질소비료와 린비료, 카리비료를 옳게 배합하여 주어야 곡식이 잘 자라고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며 여물기도 잘합니다.

다음해에 우리가 질소비료 150만톤, 린비료 100만톤 이상을 생산하게 되는 조건에서 비료를 성분량으로 정보당 논에는 질소 120키로그람, 린 100키로그람, 카리 30키로그람씩 주고 밭에는 질소 100키로그람, 린 70키로그람, 카리 30키로그람씩 주어야 하겠습니다. 카리비료는 이 기준량보다 좀더 주는것이 좋은데 당분간은 그대로 주고 앞으로 비료생산이 늘어나면 좀더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농촌에 공급되는 화학비료를 이러한 시비기준에 따라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바로 주어야 하겠습니다.

3요소비료와 함께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조률이 낮으면 농사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난날 미량원소비료를 주지 않고 3요소비료도 적게 주면서 농사할 때 얻은 낡은 경험입니다. 3요소비료와 함께 미량원소비료를 충분히 주면 일조률에 관계없이 농사가 잘되며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습니다. 미량원소비료생산을 책임진 부문들에서는 국가계획에 예견된대로 경소마그네샤, 붕사, 류산동, 류산망간, 류산아연을 비롯한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효능이 높은 살초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약도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살초제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야 농민들을 가장 힘든 일의 하나인 김매는 일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알곡수확을 높일수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살초제를 많이 요구하고있습니다. 다음해에 지금 있는 살초제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새 살초제공장을 건설하여 살초제생산을 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농촌에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살초제를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문화혁명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농촌문화혁명수행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농촌에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학교를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농촌지도일군들과 각급 당조직들은 학교건설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올해에 새로 학교에 입학해야 할 어린이들을 다 받아 공부시킬수 있도록 교실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범대학들과 교원대학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요구되는 교원들을 많이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학교들에 실습용 자동차와 뜨락또르, 공작기계들을 보내주어 학생들이 자동차, 뜨락또르 운전기술도 배우고 선반, 볼반 같은 공작기계를 돌리는 기술도 배울수 있

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누구나 다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몰줄 알고 공작기계를 다룰줄 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차와 뜨락또르 운전수를 양성하는 학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받고 나온 학생들에게 약 한달동안 운전규정이나 알려주고 필요한 강습을 준 다음 면허증을 주어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몰게 하면 될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키우는것은 녀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촌에 지금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더 잘 꾸리고 새로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을 많이 건설하여 어린이들을 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받아 키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탁아소, 유치원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개선하여 어린이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넉넉히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며 농촌녀성들이 아이들에 대한 근심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놓고 일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농촌문화혁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현대화된 농촌경리를 옳게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농촌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농촌의 일부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농민들을 공부시키는데 관심을 적게 돌리고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앞으로 농촌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농민들속에서 학습을 널리 조직하며 특히 겨울철에 농민들을 집중적으로 공부시켜야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농민들을 공부시키려면 가마니짜는 일, 새끼꼬는 일 같은것을 기계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손으로 가마니를 짜고 새끼를 꼬느라고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겨울철에도 공부를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가마니짜는 일과 새끼꼬는 일을 기계화하면 농민들이 겨울에 학습도 하고 휴식도 할수 있을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가마니짜는 일과 새끼꼬는 일을 기계화할수 있도록 가마니짜는기계와 새끼꼬는기계를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조직사업만 잘하면 모내기철 같은 때에도 농민들에게 기술문화지식을 배워줄수 있습니다.

모내기철에 농촌에 지원나간 대학생들과 대학교원들을 잘 발동시키면 농민들에게 기술문화지식을 얼마든지 배워줄수 있을것입니다. 문제는 농촌지도일군들이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 관심이 적고 조직사업을 잘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농촌지원사업에 동원된 대학생들과 대학교원들을 잘 발동하여 그들이 농민들과 같이 일하면서 농민들에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 필요한 기술지식과 여러가지 문화지식을 배워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서 농업기술간부들과 농업대학졸업생들을 농촌에 보내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에서는 최근에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농업기술자들을 다 농촌에 보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아직 이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고있습니다. 당의 방침대로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농업기술자들을 다 협동농장들에 보내는 한편 앞으로 농업대학을 졸업하는 기술자들을 빠짐없이 농촌에 보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촌기술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릴수 있을뿐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일수 있을것입니다.

농촌에 농업대학을 졸업한 젊은 간부들을 많이 보내는것과 함께 농업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나이가 많은 간부들을 재교양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출판물보급사업과 방송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농촌에 신문, 잡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들을 많이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에 텔레비죤도 많이 보내주며 농촌유선방송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농민들이 보다 문화적으로 생활하며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농촌문화주택건설을 더욱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 제5차대회는 농촌에서 해마다 살림집을 15만～20만세대씩 지을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과 당조직들은 농촌에서 더 많은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대회가 내놓은 과업을 어김없이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살림집건설은 지방들에서 자체로 생산한 자재를 가지고 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산업건설을 비롯하여 많은 건설사업이 진행되고있는것만큼 농촌문화주택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가에서 다 대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목재만 대주고 벽돌,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다른 자재들은 지방들에서 자체로 생산하여 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에 살림집을 많이 짓는것과 함께 농민들이 살림집을 알뜰히 거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 농민들에게 훌륭한 문화주택을 지어주고있는데 일부 농민들은 그것을 알뜰히 거두지 않고있습니다. 농촌 지도일군들과 당조직들은 농민들속에서 집을 되는대로 거두는 낡은 습성을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려 모든 농민들이 살림집을 알뜰히 거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수도화를 빨리 실현하며 세탁소와 목욕탕도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에서는 세탁기와 여러가지 부엌세간을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농촌녀성들이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며 모든 농민들이 위생문화적으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농촌 진료소와 병원들을 더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협동농장마다 진료소나 병원이 있지만 약품이 많지 못하고 의료기구가 모자라 농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원만히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약품과 의료기구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 진료소와 병원들에 보내줌으로써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개선하며 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낡은 생활양식을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현시기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농촌에는 아직도 낡은 생활관습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잔치하는것을 보아도 허례허식이 많고 랑비가 많습니다. 잔치할 때에 음식을 많이 차려 랑비하는데 이것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생활유습입니다. 결혼식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먹는것보다는 음식을 차리는데 쓰는 돈으로 옷장, 이불장을 비롯한 가구들과 부엌세간 같은것을 사놓는것이 더 좋을것입니다.

농촌 당조직들은 농촌에서 낡은 생활관습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낡은 생활양식을 반대한다고 하여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됩니다. 행정적인 명령이나 강제적방법으로는 낡은 생활유습을 뿌리뺄수 없습니다. 농민들속에서 낡은 생활유습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요즘 예술영화촬영소에서 만든 예술영화 《잔치날》은 낡은 생활유습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교양적가치가 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농촌에서 많이 돌리는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생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속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성, 부패성을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적들이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비방중상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농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모든것이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제도이며 자본주의제도는 한줌도 못되는 지주, 자본가들이 로동자, 농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동적인 제도라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본주의제도를 미워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농민들속에서 반제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미워하며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이 변한것으로 생각하고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또 변할수도 없습니다. 승냥이는 언제나 승냥이대로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리고있으며 《평화》의 간판밑에 세계의 여러곳에서 침략과 간섭 책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미제는 지금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면서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반제투쟁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전국을 요새화하면 제국주의자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1968년에 있은《푸에블로》호사건때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근해에 숱한 무력을 끌어다놓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공공연히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우리 나라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되여있다는것을 알았기때문에 감히 덤벼들지 못하였습니다. 경험은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이 매우 정당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제국주의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한편 자위적군사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사상혁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교양사업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인 연설이나 하고 돌아다녀서는 사람들을 제대로 교양할수 없습니다. 농촌지도일군들은 농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일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꾸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상교양사업과 법적통제를 옳게 배합하는것

입니다. 아직 농민들속에는 집단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며 일하기 싫어하는 것과 같은 자본주의적현상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사회주의적법규범과 규정에 의한 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특히 로력일을 옳게 평가하고 사회주의적분배를 정확히 실시하며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모든 농장원들이 협동농장규약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풀베기운동을 널리 벌려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화학비료를 많이 공급하여준다고 하여 거름을 생산하는데 관심을 적게 돌려서는 안됩니다. 논밭에 화학비료를 많이 칠수록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풀과 잡관목을 베여 썩이면 좋은 유기질비료가 됩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풀베기운동을 널리 벌려 질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늦장마가 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인물을 빼기 위한 양수기들을 잘 정비하고 동뚝 같은것을 미리 보수하여 앞으로 큰물이 나도 농작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풍작이룬 곡식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일수 있도록 가을걷이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농사가 잘되였는데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고 탈곡하지 않으면 한해동안 힘들여 생산한 낟알을 많이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수확기,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탈곡장, 건조장들을 잘 보수정비하여 곡식이 여무는족족 거두어들이고 탈곡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탈곡한 낟알을 잘 보관할수 있도록 뒤주창고들도 미리 손질하여야 하겠습니다.

낟알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려면 협동농장들에 이동식탈곡기를 빨리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이동식탈곡기 700대를 가을걷이 이전에 생산하여 먼저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벌방지대의 협동농장들에 1대씩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미소설비들을 점검보수하고 출미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정미소들에서 설비점검보수사업을 잘하지 않아 출미률이 낮기때문에 량곡을 적지 않게 잃어버리고있습니다. 정미소들에서 설비들을 제때에 정비하고 출미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 몇만톤의 알곡을 더 얻어낼수 있습니다. 도당위원회들에서는 정미소설비들을 점검보수하며 출미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기술자들로 지도소조를 조직하여 파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 로력일을 정확히 평가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로력공수를 적게 벌고도 분배를 많이 받으려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지키지 않고 로력일을 적게 번 사람들에게 분배를 많이 주면 농민들속에서 놀고먹으려는 나쁜 사상이 조장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분배를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 결산분배를 할 때 국가지원로력이 번 몫에 대한 계산도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사무원, 학생, 군인들이 협동농장에 나가 번 몫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협동농장들에서 지원로력은 공짜인것으로 생각하고 지원로력을 더 많이 받으려 하며 자체로 할수 있는 일도 지원로력을 받아 하려는 옳지 못한 경향이 생길수 있습니다. 국가지원로력이 번 몫가운데서 일부는 협동농장의 공동축적폰드로 하고 그것으로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대후방가족들 가운데서 로력이 모자라거나 늙어서 제대로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원호하여주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원호하여주는것도 어느 개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며 누구에게 얼마만큼 원호한다는것을 회의에서 결정하고 전체 농장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알곡생산에서 올해에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다음해에 알곡 650만～7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농업부문 지도일군들과 당조직들은 지금부터 다음해에 알곡 650만～7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농사차비를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해에 보다 높은 알곡고지를 점령하려면 무엇보다도 토지개량사업과 토지정리사업을 잘하며 새 땅을 얻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땅을 잘 관리하고 개량하면 나쁜 땅도 좋은 땅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산성화된 땅에는 비료를 아무리 많이 쳐도 효과가 적습니다. 산성화된 땅에 소석회를 쳐서 땅을 중화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랭습한 땅에는 도랑을 째거나 오지관이나 비닐관 같은것을 묻어 랭습기를 없애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석지개간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알곡총생산량을 훨씬 늘이며 전체 인민이 이밥을 먹을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논면적이 70만정보이상 되여야 합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는 간석지개간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6개년계획기간에 3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며 앞으로 10만정보를 개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아놓아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에서 수확을 높이려면 종자가 좋아야 합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좋은 종자를 골라 장만하며 그것을 잘 보관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해에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축산물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농사가 잘된것만큼 다음해에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지금부터 축산토대를 튼튼히 닦고 농가마다 고기 100키로그람, 닭알 1,000개이상, 작업반마다 고기 2톤이상 생산하며 협동농장마다 소 50마리이상 기르는 운동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영목장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음해에 전국적으로 알은 17억개이상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종축장을 잘 꾸리고 좋은 새끼짐승을 매 농가와 협동농장들에 많이 공급하며 먹이를 넉넉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매 농가에 집짐승먹이로 알곡 100키로그람을 보장하여주고 그대신 매 농가에서 고기 100키로그람을 의무적으로 생산하여 국가에 수매시키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농업부문지도일군들은 다른 부문에 있는 축산기술자들을 축산부문에 돌리고 축산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축산업에 대한 기술학습자료들을 많이 출판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외화벌이운동을 널리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높이기 위하여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식료가공공장, 방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려고 합니다.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을 새로 건설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설비들을 일부 사와야 하기때문에 많은 외화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외화벌이운동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

외화벌이에서 중요한것은 누에치기를 잘하는것입니다. 일부 일군들은 누에를 많이 치면 알곡생산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사업을 조직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업조직만 잘하면 누에치기를 잘하면서도 알곡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올해에 종자알을 잘 준비하여놓았다가 다음해에 더 많은 고치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뽕누에와 가둑누에뿐아니라 피마주누에도 많이 치는것이 좋겠습니다.

겨울나이준비를 잘하는것은 농촌경리부문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석탄공업총국과 도당위원회들에서는 농민들이 겨울에 땔 석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석탄은 가루탄으로 공급하지 말고 구멍탄을 만들어 매 농가에 1~2톤씩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농촌집들에서 다음해부터 여름에 석탄을 때지 않고 석유로 밥을 지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이 산림집을 겨울전에 손질할수 있도록 세멘트와 문창호지, 장판지, 유리 같은것을 팔아주어야 하겠습니다.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식량과 고기를 생산하여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마땅히 농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하며 농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제때에 넉넉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다음해 농업생산계획작성방향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다음해에 알곡생산에서 650만~700만톤을 목표로 내세워야 하겠습니다. 다음해에 농업부문에서 잘 투쟁하여 알곡 650만~700만톤을 생산하면 우리가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음해에 알곡 650만~700만톤고지를 점령하는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농촌에 뜨락또르와 화학비료를 더 많이 보내주고 기술지도사업을 잘하면 그만한 알곡을 능히 생산할수 있습니다.

다음해에 알곡생산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강냉이밭면적을 52만~60만정보 확보하여야 하며 강냉이를 한정보에서 평균 4~5톤이상 생산하여야 합니다. 벼는 지금 있는 논 62만정보에서 정보당 5~6톤이상 생산하여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논벼를 정보당 5~6톤씩 생산하려면 벌방지대에서는 한정보에서 6톤이상 내야 하고 자연조건이 좀 나쁜 지대에서는 한정보에서 적어도 4.5톤이상 내야 합니다.

밀보리는 5만정보이상 심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밀보리는 관수체계가 되여있거나 강우기를 쓸수 있는곳에만 심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리는 《두줄보리》만 심으며 밀은 량강도를 제외하고는 다 《평양1호》를 심는것이 좋겠습니다. 관수체계가 되여있고 비료를 넉넉히 공급하는 조건에서 밀보리를 정보당 4톤이상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자밭과 고구마밭 면적은 10만정보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식량으로도 요구되고 특히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조건에서 집짐승먹이로 많이 요구됩니다. 태풍이 자주 불어 강냉이농사가 잘되지 않는 지대에서는 강냉이 대신 고구마를 심는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이번 대회에서 주로 농업생산에서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에 대하여 많이 말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우리 당 제5차대회와 올해초에 있은 농업부문일군협의회에서 제시한 방향과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내놓은 구체적과업들에 근거하여 사업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실천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것을 바랍니다.

전당이 계속 농업을 틀어쥐고 알곡 650만~700만톤고지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기 조국을 완전히 해방할 때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려는 캄보쟈인민의 확고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12일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여러분!

존경하는 앙 낌 코안대사각하와 부인!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 저녁 캄보쟈국가원수이시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이시며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우리 나라에서 휴식을 끝마치고 떠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청하여주시였으며 방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여러가지 감동적인 말씀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국가원수친왕께서 우리를 친형제로 여기고 언제나 우리와 가깝게 지내며 올여름에 다시금 우리 나라를 찾아주신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 아프리카와 구라파 여러 나라 방문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자 인차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주신것은 우리에 대한 두터운 우의와 신임의 표시로 됩니다.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은 그때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을 더욱 굳게 하여줍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 이번에 외국려행에서 거둔 큰 성과와 캄보쟈인민이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승리에 대한 기쁜 소식들을 전하여준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새로운 커다란 고무로 되였습니다.

친왕께서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에도 캄보쟈정세는 더욱더 캄보쟈애국력량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였습니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프놈 뻰에 대한 포위망을 점점 더 좁히면서 미제와 론 놀-국도당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캄보쟈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한 범죄의 장본인인 닉슨은 패배를 만회해보려고 발악하고있으나 그럴수록 그는 국제적으로뿐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날로 더욱 고립배격당하고있습니다.

그 어떠한 힘도 캄보쟈에서의 현 사태발전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미제침략자들이 캄보쟈땅에서 완전히 쫓겨갈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크메르인민과 그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그리고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무기를 잡고 끝까지 즉 미제국주의자들이 완전히 돌이킬수 없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캄보쟈를 떠날 때까지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캄보쟈인민은 자기의 불굴의 영웅적투쟁으로써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을 꺾어버리며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위업을 촉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전쟁확대책동이나 정치적모략책동도 다 짓부시고 자기 조국을 완전히 해방할 때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려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확고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국가원수친왕께서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을 더 방문하며 중요한 국제활동들을 진행할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 친왕께서 새로운 커다란 성과들을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캄보쟈의 손님여러분!

조선과 캄보쟈는 다같이 아세아의 신흥세력에 속하고있습니다.

낡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이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수 있었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민족적해방과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신흥세력의 단합된 힘이 국제관계발전에 날로 커가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이번 방문과정에도 공동의 원쑤 미제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시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국가원수친왕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은 앞으로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에서 전투적친선을 백방으로 더욱 강화할것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원수친왕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 결과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끝으로 우리의 전우이시며 형제이시며 가장 친근한 벗이신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다시 반가운 상봉을 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캄보쟈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서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영원한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캄보쟈의 귀한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앙 낌 코안대사각하와 그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9월 9일

친애하는 동지들!

존경하는 외국의 벗들!

오늘 우리는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우리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나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조선인축하단과 재일동포조국방문단 성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민족적명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의 동지들과 벗들이 많이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뚜렷한 표시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의 동지들과 벗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친선의 사절을 보내준 여러 나라 정부와 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25년동안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조국강토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으며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공화국정권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켰으며 나라의 방위력도 튼튼히 다져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지난 기간 이룩한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에 기초하여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끊임없이 륭성발전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나라와 주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다같이 골고루 잘 살고있으며 마음껏 일하며 배우고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25년동안에 우리 나라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습니다. 사회가 변혁되고 사람들이 개조되였으며 산천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형편은 대단히 좋습니다.

전체 인민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온 사회가 화목하고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습니다.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도 성과적으로 수행되여가고있습니다.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이미 획기적인 전진

이 이룩되였으며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있습니다. 특히 최근년간 우리는 전국이 달라붙어 농촌을 지원하여 농촌경리의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는데 힘을 넣은 결과 윤해에도 높은 알곡수확을 낼수 있는 대풍작을 이룩하여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속도와 기세로 나간다면 6개년계획의 주요지표들을 1975년에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을것입니다.

6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더욱 부강하여질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는 위대한 비약이 이룩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25년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였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공화국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굳게 믿고있으며 공화국의 룡성발전에서 래일의 행복한 생활을 내다보고있습니다.

동지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우리 인민앞에는 새 사회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것입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질것입니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방침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하루빨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계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뜨락또르, 자동차, 굴착기, 차량, 선박, 공작기계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대상설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경험주의를 대담하게 짓부시고 집단적인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3대기술혁명의 높은 봉우리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혁명에 큰 힘을 넣어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며 가까운 앞날에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양성할데 대한 당 제5차대회의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적인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창건된 첫날부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여러번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민족분렬책동과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아직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큰 난관들이 가로 놓여있습니다.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계속 추진시켜야 하며 북과 남사이에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해야 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남북련방제를 실시하여 고려련방공화국을 창설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민족적대단결의 기초우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은 성과적으로 추진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면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것입니다.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매우 높아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와 동정자의 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진보적인민들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에 더욱더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여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것이며 제국주의가 없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세계, 평화롭고 행복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고상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자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을 견결히 지지하며 그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공화국정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지난 25년동안 우리 인민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하여놓았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의연히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혁명투쟁을 계속하여야 하며 빨리 앞으로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보람차며 전망은 휘황찬란합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오늘 뜻깊은 민족적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의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일본 《이와나미》서점 상무취체역 총편집장과 한 담화

1973년 9월 19일

나는 미도리가와 도우루선생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우리와 함께 기념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에 대한 두터운 사랑과 신임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일본친우를 한사람 더 사귀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이와나미>서점이 우호적이며 친선적이며 형제적인 립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성과들을 널리 소개하였으며 우리를 동정하는 립장에 서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여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돌아가면 <이와나미>서점 사장과 서점의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이와나미>서점에서 발간하는 잡지 <세까이>가 <오늘의 한국>이라는 론설을 발표하였는데 나는 그 론설전문을 읽었습니다. 그 론설은 매우 흥미있는 론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참고로 될 자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남조선에 대한 많은 자료를 알고있지만 그 론설에서 당신들이 폭로한 남조선당국자들의 부패상은 우리로 하여금 민족적분개를 느끼게 합니다.

당신들이 필봉을 들어 남조선당국자들의 죄상과 부패상을 폭로비판하는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폭로비판함으로써 일본인민들과 남조선인민들 그리고 전세계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있으며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은 또한 이런 사업을 통하여 진보적사상을 세계에 널리 소개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잡지 《세까이》 편집국성원들과 <이와나미>서점 성원들이 세계의 진보를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당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나의 감상이 어떠한가고 물었는데 마침 우리는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화국이 창건된후 지난 25년동안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총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말하면 당신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주일나마 총화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말하기 곤난하므로 중요한 문제들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공화국이 창건된 이래 우리 당이 실시하여온 로선과 정책들이 매우 정당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실시한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은 최근에 와서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하고 여러모로 다양하게 발전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당이 실시하여온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이 매우 정당하다는것이 실증되였습니다. 우리가 거둔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주체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에 기초하여 이룩된것입니다.

우리 당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한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은 지금에 와서 더욱더 명백히 실증되고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을 걸으려 하고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비단 제3세계의 나라들뿐아니라 이른바 제2세계의 나라들 말하자면 일본, 카나다,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도 자주적인 길을 걸으려 하고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동세력들은 큰 나라에 추종하는정책을 실시하고있지만 세계의 절대다수 인민들과 진보적세력들 그리고 자각성이 높은 사회활동가들은 모두다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린방인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극소수 반동계층들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인민들과 진보적세력들 그리고 대다수의 사회활동가들은 다 자주성을 요구하며 그것을 강조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자주로선은 이와 같이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지향하고있는 때에 나왔으며 현시대의 사조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로선은 조선인민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한것이지만 그것은 세계인민들이 념원하고있는것과 일치하며 따라서 우리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이 지향하고있는것과 같은 길, 세계적사조에 맞는 길을 걷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진보적인민들과 같은 길을 걷고있다는것은 이번에 알제리에서 세계 80여개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을 비롯하여 100여개대표단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우리 나라 대표의 참가없이 진행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는 조선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규탄하였으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며 제28차유엔총회에서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며 조선의 유엔가입은 조선의 완전한 통일이 이룩된 다음이거나 남북련방제가 실시된 다음 단일국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기간에 이러한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 당의 로선이 정당하다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있다는것을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쁠럭불가담국가들만 우리의 자주로선을 지지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일본인민을 비롯한 많은 나라 인민들이 우리의 자주로선을 지지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지와 성원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자기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하며 우리의 투쟁을 고무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대외관계분야에서뿐아니라 국내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여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적경향이 극복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튼튼히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우리 당이 지난날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나라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이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할수 없었을것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공화국이 창건된후 지난 25년동안 우리의 전진도상에 난관도 많았지만 우리 당이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으로 앞길을 개척하여나감으로써 오늘과 같은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는것을 자랑스럽게 총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이 우리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그것을 자기의 피와 살로 접수하였기때문에 오늘과 같은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맡은바 사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온갖 창발성과 열성을 내여 수행하고있습니다. 지난 25년동안 공화국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내여 투쟁한 결과입니다. 다시말하여 전체 인민이 힘과 지혜를 발휘하고 곤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린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한두사람의 힘과 지혜로써는 공화국을 그렇듯 짧은 기간에 오늘과 같이 륭성번영하는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없었으리라는것은 명백합니다.

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한 투쟁에는 로동자, 농민들뿐아니라 지난날 잘살던 집 출신의 인테리들도 자기의 지혜를 다 바쳐 참가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인테리정책에 의하여 혁명대렬에 참가한 오랜 인테리들가운데서 한사람의 락오분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오랜 인테리들가운데는 자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정부가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충실히 싸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단결되여있으며 자기의 주권을 튼튼히 하고 자기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주인답게 일하였기때문에 공화국이 오늘과 같이 륭성발전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화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해방직후 우리는 문맹퇴치사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토론하였습니다. 해방직후에는 우리가 아동교육과 문맹퇴치사업을 위하여 인민위원회에서 연필문제를 토의하였다면 오늘은 모든 근로자들이 중등학교졸업정도이상의 높은 문화지식수준을 가지며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근로인테리로 교양개조하는 한편 새로운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냄으로써 오늘 60만명이상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가까운 앞날에 그 대오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일데 대한 과업을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문화건설분야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공화국이 창건된후 지난 25년동안 우리 당이 실시한 문화정책이 얼마나 정당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문화혁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경제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형제나라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 아니였습니다. 우리 당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주체적력량에 확고히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자기 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앞으로 더욱 빨리 발전할수 있는 기초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어떠한 경제적파동이 일어나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자신만만하게 전진할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켜나가겠는가 하는 문제를 론의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난관이 있다면 빨리 나가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난관이 있을뿐이지 경제가 답보하거나 불경기가 조성되는것과 같은 현상은 없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다 지나간 옛일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공화국이 창건된후 지난 25년동안 사상, 문화,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와 성과를 이룩하였다는것을 높은 긍지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쟁취한 승리를 공고히 하며 보다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할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려면 전체 근로자들이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안일해이함이 없이 계속 분투하는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지 않으면 생활이 풍족해지는데 따라 자만성과 안일성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살게 되는데서 생길수 있는 안일성과 리기주의적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으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생활에서 근심걱정이 없는데로부터 생기는 자만성과 안일성의 요소들과 사상투쟁을 전개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토론하고 자만성과 안일성이 생기지 않도록 투쟁할것을 전당에 호소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나라에서 6개년계획이 어떻게 수행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기세는 매우 높으며 온 나라가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6개년계획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3대기술혁명입니다. 이번에 있은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3대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습니다.

우리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중로동을 경로동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들을 빨리 실현하여야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할수 있습니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그 차이를 훨씬 줄이자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잘 진행되고있으며 이 사업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채굴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일으키는것입니다.

공업부문에서 고열로동을 없애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며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는 자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전자공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하나씩 점차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자체가 많은것을 연구하고 발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많은 힘을 넣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의 기술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은 자력갱생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력갱생한다고 하면 모든것을 다 자기것만 가지고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것이 아닙니다. 자력갱생한다는것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는것을 말합니다. 남이 이미 발명하였고 발전시킨 기술은 우리가 새로이 연구하는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것이 더 좋습니다. 남의 기술을 잘 배우는것도 자력갱생에 속한다

고 볼수 있습니다. 남의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문을 닫아매는것은 나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기술부문을 견학도 하고 그들의 기술을 배우기도 하면 더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6개년계획에 예견된 대부분의 지표들은 1975년에 달성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것은 앞으로 계속 투쟁하여야 할 과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힘을 들여 투쟁하여야 할 부문은 중공업입니다.

중공업부문의 건설대상들을 빨리 완공하면 이 부문의 과업을 빨리 완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을 굼뜨게 하면 중공업부문의 과업수행이 좀 늦어질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공업부문에서도 1975년까지 6개년계획과제를 다 완수하자고 내밀고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업부문의 일부 지표들은 1976년 상반년에 가서야 달성할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지금 경공업부문에서도 일이 잘되고있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다음해에 점령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공업을 두가지 방향에서 발전시키고있습니다. 하나는 중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고 다른하나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입니다. 중앙공업이란 현대적인 대규모의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것이며 지방공업이란 지방들에서 자체의 원료를 가지고 중소규모의 경공업공장들을 운영하는것입니다.

우리는 1975년에 6개년계획에 예견된 경공업부문의 과업들을 완수하게 될것입니다.

지금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기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기세도 좋고 또 우리에게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사회주의나라들과만 무역을 하였는데 지금은 자본주의나라들, 신생독립국가들과도 무역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특히 제3세계의 신생독립국가들과 무역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실현하는것입니다.

다음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은지 열돐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농촌테제발표 열돐을 계기로 테제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완수하자는 목표를 내걸고 투쟁하고있는데 다음해에 농촌테제에서 제시한 과업들가운데서 사상혁명분야를 내놓고 나머지분야의 과업들은 거의다 완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는 농촌테제에서 내놓은 기술혁명의 주요과업들을 다음해에 거의 완수하게 될것으로 내다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농촌경리의 수리화가 완성되였으며 농촌전기화도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지금은 기계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테제에는 농촌의 뜨락또르대수를 7만~8만대(15마력환산으로)에 이르게 할데 대한 과업이 지적되여있습니다. 지금 뜨락또르공장의 로동계급들은 다음해 7월까지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기계로 일할수 있는 경지면적이 150만정보가량 있습니다. 뜨락또르 8만대이면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5~6대씩 돌아가게 됩니다. 농촌에 뜨락또르를 7만~8만대 보내주면 뜨락또르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것으로 됩니다.

6개년계획에는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를 6~7대에 이르게 할것이 예견되여있습니다. 우리는 1975년에 이 목표를 달성할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도 테제에서 내놓은 과업을 다음해에 완수하게 됩니다. 농촌테제에서는 화학비료를 물동량으로 정보당 1톤이상씩 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다음해 상반년이면 달성하게 됩니다. 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이 1톤이면 괜찮습니다. 다음해에

는 여러가지 농약을 생산공급할데 대한 목표도 다 달성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음해에 테제가 제기한 농촌기술혁명의 주요과업들을 완수하게 됩니다.

알곡생산전망도 좋습니다. 우리가 방금 농촌에 나가본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올해농사가 잘되였습니다. 우리가 돌아본 온천군이 지난날에는 가장 뒤떨어진 군의 하나였는데 지금은 알곡생산이 해마다 계속 올라가고있습니다. 지난날 온천군의 알곡최고수확량은 5만 3천톤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7만톤의 알곡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 군의 6개년계획알곡수확목표는 7만 3천톤입니다. 그러니 이 군에서 다음해에 3천톤만 더 생산하면 6개년계획을 완수하는것으로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정보에서 조금씩만 더 내도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농촌일군들이 올해에 거둔 성과에 자만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농업부문일군들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모든 점으로 보아 농업부문에서는 다음해에 6개년계획의 고지를 점령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6개년계획은 잘 수행되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이 투쟁도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있습니다. 특히 녀성들자체가 높은 창발성을 내여 자신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조선녀성들은 몇천년동안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녔으나 지금은 많은 농촌들에서 수도화가 실현되여 녀성들이 물동이를 이지 않게 되였습니다. 농촌할머니들과 담화해보면 지난 기간 몇십년동안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녔는데 로동당시대에 와서 물동이를 이지 않게 되였다고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것은 우리 녀성들에게 큰 부담이였습니다.

수도화를 한 결과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현상이 없어졌을뿐아니라 농촌사람들이 깨끗이 정제한 물을 먹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농민들은 다른것보다도 수도화가 실현된것을 가장 기뻐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녀성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는것과 함께 그들에게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들도 취하고있습니다. 녀성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을 기르는것이 큰 부담입니다. 국가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많이 건설하여 녀성들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있습니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침 한끼는 집에서 먹지만 점심과 간식은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먹습니다. 당과 국가의 이러한 배려에 대하여 우리 녀성들은 감격을 금치 못해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보장되여있기때문에 우리 녀성들은 일을 해도 힘든줄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6개년계획에 대하여서는 다른 동지들과 담화하면 더 구체적인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되리라고 확신하고있습니다. 6개년계획이 끝난 다음에 우리 나라에 다시 오십시오. 차 안에서 당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한해만 지나가도 지난해가 옛날로 된다고 하였는데 6개년계획이 끝나면 우리 나라의 면모는 더욱 달라질것입니다.

당신이 조선의 통일문제와 유엔문제에 대하여 물었는데 조선의 통일문제를 유엔문제와 관련시켜 말하겠습니다.

유엔에 대하여 말한다면 유엔헌장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오늘까지 강대국들의 지배밑에서 그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유엔은 자기의 헌장

대로 일할수 없었습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에서 강권정치를 실시하면서 지휘봉을 휘둘렀기때문에 유엔헌장이 준수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엔에 신생독립국가들을 비롯하여 진보적인 나라들이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우에서도 말하였지만 신생독립국가들은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로부터 오늘 유엔성원국들속에서는 유엔을 매개 나라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기구로 만들자는 기운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유엔이 자기 헌장에 충실하려면 큰 나라작은 나라 할것없이 모든 나라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기구로 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유엔의 존재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유엔에 큰 기대를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유엔이 앞으로도 계속 강대국의 강권정치와 지휘봉의 영향밑에 있으면서 자기 헌장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세계인민들로부터 신용을 잃을것입니다.

오늘 각국인민들이 미제의 침략정책과 신식민주의정책의 본질을 똑똑히 깨닫게 됨에 따라 미제의 위신은 점차 떨어지고있습니다. 유엔에서도 미제국주의자들이 흔드는 지휘봉의 힘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유엔이 자기 헌장대로 행동할것을 요구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신생독립국가들의 각오정도가 얼마나 높아지는가에 따라 유엔의 역할이 좌우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과 미제와 일본정부는 유엔에 《두개 조선》을 동시에 가입시키기 위한 책동을 벌리고있습니다. 그리하여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문제가 올해 유엔총회에서 토의되게 되였습니다.

남북이 협상을 진행하고있으며 아직 남북간에 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지금 그들이 《두개 조선》을 유엔에 동시에 가입시킬데 대한 안을 내놓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은 본래부터 조선의 영구분렬을 꾀하여온 미제와 일본의 일부 반동들의 진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은것입니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그들이 조선에 대하여 품고있는 야심의 진면모를 그대로 나타낸것입니다.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은 또한 유엔총회에서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문제를 토의하는것을 막아보려고 내놓은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기본목적입니다. 그들은 이 안을 내놓고 세계인민들로 하여금 《두개 조선》의 유엔가입문제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이목을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꾀합니다.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문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내놓은 하나의 술책입니다. 다시말하여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은 미국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구실을 더는 찾을수 없게 된 조건에서 그들이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술책으로서 내놓은것입니다. 결국 이 안은 유엔총회에서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문제에 이목을 덜 돌리게 하며 유엔의 간판밑에 미국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키려는 목적에서 내놓은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도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문제가 실현되지 못할것이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 들어가는것을 한쪽에서만 찬성하고 다른쪽에서 찬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둘이 동시에 유엔에 들어갈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제는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제의하여 이 문제에 론쟁을 붙여놓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국군대철거문제는 어물쩍해서 넘겨버리자는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요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만전술은 세계인민들앞에서 오래가

지 못합니다. 요술이라는것은 몇번 보면 속임수를 다 알수 있습니다.

올해 유엔총회에서 혹시 이 문제가 인기를 끌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있습니다.

알제리에서 열렸던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조선이 두개의 조선으로 유엔에 가입해서는 안되며 하나의 조선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 회의에 참가한 나라들이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이 하나의 요술이라는것을 간파하였기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두개 조선》을 유엔에 동시에 가입시키는것은 절대로 조선민족을 위하여 유익한것으로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개 조선》을 절대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동들 그리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문제를 올해 유엔총회에 기어코 들고나오는것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동서독일의 유엔가입문제를 취급하게 되는 기회를 노린것과도 관련되여있습니다. 미제놈들은 음흉한 놈들입니다.

동서독일의 경우와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동서독일은 량측이 다 분렬되는것을 찬성합니다. 지난날 독일은 침략국이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에 둘로 갈라져 하나는 로동자, 농민의 국가로 되고 다른 하나는 독점자본의 국가로 되였습니다. 동부독일에서 로동자, 농민의 국가를 유지하는것은 결국 서부독일독점자본의 힘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독일근방에 있는 구라파나라들은 독일이 통일되여 군국주의적으로 강대해지는것을 바라지 않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독일이 군국주의적으로 강대해지면 다시 침략세력으로 등장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그와 다릅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날 남의 나라를 침략한 나라가 아니며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된 나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남의 나라를 침략할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인민과 쏘련인민도 그렇게 보지 않으며 일본인민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선이 분렬되여 싸움을 하는것보다 통일되는것이 아세아나라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일본인민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으며 중국인민과 쏘련인민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특히 중요한것은 남북조선인민들자신이 나라의 분렬을 바라지 않고있는것입니다. 조선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오래동안 통일국가안에서 살아온 력사를 가지고있기때문에 분렬되는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분렬을 바라는것은 남조선의 소수반동세력과 미국에 추종하는 일본반동세력 그리고 미제국주의뿐입니다. 미제는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기지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선이 분렬되는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절대다수의 나라들이 조선의 통일을 바라고있는데 무엇때문에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야 하겠습니까. 지난 28년동안 분렬되여 살아온것만해도 고통스러웠는데 우리가 무엇때문에 그런 고통을 앞으로도 계속 겪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두개 조선》이 유엔에 들어가는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동정하는 나라들도 그것을 반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고려련방공화국을 어떻게 형성하려 하는가고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련방국가의 국호를 고려련방공화국으로 하자고 제기한것은 지난날 우리 나라의 판도우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가 고려라는 국호를 가지고있었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쌍방이 다 접수할수 있는 좋은 국호입니다. 만일 련방국가의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측의 주장을 다른측에 강요하는것으로 될것입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등한 원칙에서 쌍방이 다 접수할수 있도록 련방국가의 국호를 고려련방공화국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련방제는 당분간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국가를 형성하자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쌍방이 서로 신임하고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광범히 협의하고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민족회의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실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려면 북과 남의 군대를 축소하는것을 비롯하여 우리가 이미 제기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북과 남이 서로 신임하고 민족적화목을 이룩할수 있는 조건이 조성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북과 남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전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지금 북과 남사이에 제도상 차이가 있지만 서로 합작할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북과 남이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과학기술의 연구성과를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그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전면적인 합작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북과 남이 여러 분야에서 전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 쌍방이 서로 리해하고 신임할수 있는 조건이 조성될것이며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 리해가 더욱 깊어질것입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는 과정에 서로 리해가 깊어지면 제도에 대한 인식도 똑바로 가질수 있을것이며 지금 일부 남조선사람들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품고있는 공포심도 없어지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북과 남이 합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떤것이 좋고 어떤것이 나쁜가 하는것을 가려내고 나쁜것은 없애고 좋은것을 발양시킨다면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기때문에 북과 남이 합작하기만 하면 서로 리해가 빨리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있는 일은 다 우리 민족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가운데서 민족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습니다.

우리와는 반대로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데 대하여 참을수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 합작하면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많은 문제를 풀수 있을것입니다. 례를 들면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이 다른 나라에 간호원과 광부들을 비롯하여 로동력을 많이 팔고있는데 우리와 합작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들의 생활문제를 풀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가지 방도를 통하여 쌍방이 서로 잘 리해하고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남북련방제를 실시하자는것입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부정부패행위를 많이 하여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합작하게 되면 저들의 부정부패행위가 폭로될가봐 겁나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과 인민 앞에 저지른 죄과를 솔직히 인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행위를 그만둔다면 지난날의 죄과를 용서해줄수 있다고 여러번 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앞으로 부정부패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난날에 한

부정부패행위도 문제로 삼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면 남조선인민들뿐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고려련방공화국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북과 남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할 문제이기때문에 지금은 이 이상 더 말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질문한 남북조절위원회문제는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중앙경축대회보고에서 정무원 총리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기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기개인의 의견을 말한것이 아니라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립장은 문을 닫지 말고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계속 추진시키자는것입니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겠는지 지내보아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번 말하였지만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문제는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의 국교정상화문제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있습니다. 국교가 정상화된다고 하여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다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평양에 일본대사관이 와있고 도꾜에 우리 나라 대사관이 가있다고 하여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의 관계가 다 해결된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두 나라가 서로 리해를 깊이하는것이며 특히는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는것입니다. 아직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는 리해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두 나라가 서로 리해를 더 잘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신은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의 일본방문이 두 나라 사이의 리해를 깊이하는데 큰 도움으로 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평가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에 일본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 그리고 광범한 인민들이 우리 인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 예술인들을 벗으로서, 친우로서 환대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데 일본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와 일본이 사회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이웃으로서 관계를 좋게 가질수 있으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일본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수대예술단의 일본방문과 같은 래왕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는 더욱 발전할것입니다.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베푼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0월 24일

존경하는 또도르 쥡꼬브동지!

존경하는 벌가리아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형제적벌가리아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맞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쥡꼬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선인민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나가고있는 벌가리아인민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품고있으며 그들과의 친선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도근로자들이 또도르 쥡꼬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열정적으로 환영하고 따뜻이 맞이한것은 형제적벌가리아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이러한 친선의 정의 뚜렷한 표시로 됩니다.

조선인민과 벌가리아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오래동안 간고한 투쟁을 진행하여왔습니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력사를 가지고있는 벌가리아인민은 지난 2차대전의 어려운 시기에 손에 무장을 들고 반파쑈투쟁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국내파쑈군주제도를 전복하고 자기 수중에 주권을 튼튼히 틀어쥐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 된 벌가리아인민은 벌가리아공산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짧은 기간에 지난날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키였습니다.

오늘 벌가리아인민은 벌가리아공산당 제10차대회가 제시한 제6차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벌가리아인민이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거두고있는 성과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창조적로력투쟁에서 앞으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발칸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며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벌가리아 당과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벌가리아인민은 구라파의 발칸지역에서, 조선인민은 아세아의 동방에서 다같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에 따라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오늘 내외정세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방침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시대적요구를 거역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계속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에 《유엔군》이 계속 남아있어야 하며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이 실현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외세의존과 분렬의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저버리는 엄중한 죄행으로서 인민들의 더욱더 큰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킬뿐입니다.

남조선에서는 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안팎으로 얼마나 고립배격당하고있는가 하는것은 우리의 5개항목의 조국통일방안에 대한 국제적반향이 날로 커가고있으며 세계인민들속에서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종식시키고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볼수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밑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적벌가리아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물심량면으로 우리를 적극 도와주었으며 오늘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또도르 쥡꼬브동지와 벌가리아공산당과 정부와 벌가리아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제국주의는 사회주의와 민족해방 력량의 장성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자기들의 처지가 날로 어렵게 되자 평화의 간판밑에 더욱 교활하게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추구하고있습니다.

최근의 중근동사태와 칠레의 군사정변은 미제국주의야말로 다른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도처에서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간섭 책동은 그들자신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뿐이며 이로부터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령토완정을 이룩하고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애급과 수리아 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과 칠레군사파쑈도당을 반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칠레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미제의 앞잡이 론 놀괴뢰도당을 때려부시고 나라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캄보쟈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모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또한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과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

쟁과 혁명투쟁을 계속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과 벌가리아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형제적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속에서 앞으로 더욱 강화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벌가리아벗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나는 벌가리아손님여러분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자기 집에서와 같이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낼것과 아울러 이번 방문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것을 바라면서

조선인민과 벌가리아인민사이의 불패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또도르 쥡꼬브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전체 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0월 28일

존경하는 또도르 쥡꼬브동지!

존경하는 벌가리아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 평양시의 각계층 인민들은 형제적벌가리아인민의 친선의 사절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또도르 쥡꼬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벌가리아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형제적친선의 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며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심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계기로 됩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관계가 날과 더불어 공고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벌가리아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잘되여나가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여 매우 기쁩니다.

벌가리아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이며 견결한 반파쑈투사인 게오르기 지미뜨로브동지의 지도밑에 손에 무장을 들고 히틀러파시스트도당과 국내파쑈군주제도를 반대하여 용감한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벌가리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후 나라의 주인으로 된 벌가리아인민은 벌가리아 공산당의 령도밑에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발전된 공업과 기계화된 농업을 가진 번영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벌가리아인민은 벌가리아공산당 제10차대회가 내놓은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벌가리아인민이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발칸지역 나라들사이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벌가리아 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이 기울이고있는 노력을 지지하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개 사회주의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것이 곧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면서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공업과 농업,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과학과 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받들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면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후 다같이 새 사회 건설의 길을 걸어온 조선과 벌가리아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경험은 오직 사회주의의 길만이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여주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정책과 우리 인민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성과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튼튼한 정치적토대로 되고있습니다.

평화적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지난해에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민족의 영구분렬이냐 아니면 통일이냐 하는 엄중한 난국에 부닥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평화적조국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한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6월 23일에 새로이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을 거역하고 끝내 미일반동들과 함께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유엔에 제기하였습니다.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가자고 하는것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을 이룩하기로 한 7.4남북공동성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것이며 조선을 완전히 두개 조선으로 갈라놓으려는것입니다.

유구한 력사를 두고 하나의 반도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우리 시대에 와서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조선사람치고 누가 나라의 분렬을 바라겠습니까,

조선사람들속에서 분렬을 요구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외래독점자본의 사환군인 남조선의 극소수 매판자본가들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정치적앞잡이들뿐입니다.

나라의 분렬을 꾀하는것은 천추에 씻지 못할 매국행위이며 우리 민족을 다시금 망국의 길로 이끌어가는 배족행위입니다.

남조선의 매국세력은 나라와 민족을 분렬시켜 외래침략자들에게 팔아먹는 대가로 자기의 권세욕을 충족시키며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려보려 하고있습니다.

조선의 분렬을 꾀하는 외부침략세력은 이러한 매국자들, 고용분자들을 리용하여 남조선을 자기들의 손안에 틀어쥐려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일본군국주의의 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려는 음모책동입니다.

원래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여 파벌을 형성하고 분렬을 조장하며 전복음모를 꾸미는것은 현대식민주의의 주되는 침략수법의 하나입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인공적으로 분렬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30년동안 하루와 같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현정세는 평화적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인 매국자들과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현군사파쑈통치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박정권타도》를 부르짖으며 시위투쟁에 떨쳐나선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자기들의 선언문에서 《오늘 전체 국민대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참혹한 현상을 이 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어 자신의 량심의 명령에 따라 분연히 일떠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현 집권자들의 군사파쑈통치와 매국배족행위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리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그들의 투쟁이 온 민족의 사활적리익에 직접 관련되는것만큼 우리는 이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을 같이 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있을것입니다.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60만 재일조선공민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속에서도 거세차게 일어나고있습니다.

민족적량심을 가진 조선사람이라면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질 위험에 처한 오늘 누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또한 국내에 있건 해외에 있건간에 관계없이 정견과 신앙의 차이, 당파와 소속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다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다시한번 정중히 호소합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기의 민족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신성한 임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적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목적도 구경은 남조선이 미일제국주의의 범의 아구리에 들어가는것을 가로막자는데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정의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으며 분렬주의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

민들의 더욱 큰 지지와 성원을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사회주의나라들, 정의를 사랑하고 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제3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조선을 영구분렬시키려는 분렬주의자들에게 단호한 타격을 주며 전체 조선인민의 증오와 배격을 받고있는 현남조선군사파쑈정권이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의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과 인민들을 탄압학살하고있는것을 견결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얼마전에 있은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와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외국군대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거를 요구하고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며 우리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가는 현시대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되였습니다.

올해 유엔총회는 마땅히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배격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유엔이 더 이상 미국의 롱락물이 되여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지난날의 낡은 《결의》대신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새로운 결정들을 채택하여야 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합니다.

조선인민은 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외부적요인들이 제거되기만 한다면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훌륭히 해결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국제관계분야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자면 세계 모든 혁명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완강히 벌려야 합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현시기가 랭전으로부터 긴장완화에로, 대결로부터 평화공존과 협조에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하는 론조가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와 민족해방 력량이 장성강화되고 제국주의가 날로 약화몰락되는 오늘의 환경에서 평화와 평화적협조에로 나가는 시대적조류가 날로 커가고있는것을 응당한 일로 보며 평화적공존의 레닌적원칙이 승리하게 될것을 진심으로 바라고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면서 더욱더 량면전술에 매달리고있으며 《평화》의 간판밑에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전복활동을 교활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은 칠레에서 알옌데대통령을 살해하고 합법적인민통일정부를 전복하는 파쑈적군사정변을 조작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부추겨 애급과 수리아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거듭 감행케 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윁남과 라오스, 캄보쟈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것도 미국입니다.

앙골라,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식민지전쟁을 추동하고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인민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은 언제나 침략과 전복, 전쟁을 일삼습니다.

오늘 조선에서도 우리는 평화적통일을 주장하고있으나 미국은 자기의 앞잡이들로 하여금 7.4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돌아서는 그 길에 그것이 한개 종이장에 불과하다고 찢어버리게 하고 공공연히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데로 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대를 축소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하고있으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도리여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습니다.

대화의 배경에 무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군사력증강에 날뛰고있는 그들이 오늘은 《두개 조선》을 운운하고있지만 래일에 가서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공격의 화살을 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담보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여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회피하고 투항주의로 나가서는 안되며 제국주의와 무원칙한 타협을 통하여 안전을 얻어보자고 해서는 안된다고 인정합니다.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가짜평화에 속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이 평화의 길에 나오지 않을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개 나라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들자신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되도록 하여야 평화적해결의 길을 찾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랍문제도 아랍인민의 해방투쟁에 리롭게 해결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오늘 중근동에서의 정화가 아랍인민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라면 우리도 그를 지지할것이고 아랍인민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반대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애굽과 수리아 인민들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전쟁에 일어났을 때에 선참으로 그들을 지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아랍인민이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계속 투쟁하는 한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캄보쟈문제를 비롯한 인도지나문제도 그 나라 인민들자신의 리익에 맞게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세계반제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단결된 력량으로 나갈 때 세계혁명발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투쟁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우리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단결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 세계 모든 평화애호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 대외정책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투

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벌가리아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속에서 굳은 형제적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벌가리아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물심량면으로 되는 많은 원조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것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벌가리아인민은 오늘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벌가리아인민이 계급적형제로서 우리 인민에게 귀중한 지지와 협조를 주고있는데 대하여 또도르 쉽꼬브동지와 벌가리아공산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과 벌가리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이 앞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공고발전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선인민과 벌가리아인민사이의 불패의 형제적친선단결 만세!

벌가리아공산당과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만세!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기치 만세!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0월 28일

존경하는 또도르 쉽꼬브동지!

존경하는 벌가리아의 손님여러분!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저녁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대하여주었으며 방금 또도르 쉽꼬브동지가 우리에게 따뜻하고 친선적인 말씀을 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 며칠동안 당신들과 함께 매우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민이 이르는곳마다에서 당신들을 친형제와 같이 반가이 맞이하여 열렬히 환영한것은 조선과 벌가리아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우의의 정이 얼마나 두텁고 우리 인민이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근로자들과의 상봉과정에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벌가리아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과 함께 벌가리아인민이 벌가리아공산당의 령도밑에 새 사회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여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또한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의 정

당한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당신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과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사이에는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분위기속에서 회담이 진행되였습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대내외활동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번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조선과 벌가리아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도 큰 기여로 됩니다.

존경하는 벌가리아의 손님여러분!

우리는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이며 우리의 친근한 벗인 또도르 쥡꼬브동지와 그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데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 벌가리아인민이 또도르 쥡꼬브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벌가리아공산당의 령도밑에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벌가리아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이 열렬한 축원과 친선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조선인민과 벌가리아인민사이의 불패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또도르 쥡꼬브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전체 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축 하 문

기양뜨락또르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올해 영농기전으로 농촌에 뜨락또르를 더 많이 보낼데 대하여 당이 준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자기 기한내에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농촌기술혁명에 크게 이바지한 기양뜨락또르공장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협동품생산기업소들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 그리고 기양뜨락또르공장을 지원해나선 건설자들, 중앙방송위원회일군들, 문화예술인들, 적십자병원의료일군들, 공업기술총련맹 주물협회 과학자, 기술자들과 강서읍가두녀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동무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뜨락또르생산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농촌기술혁명의 직접적담당자로서의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동무들이 달성한 성과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며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간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시위한것으로 됩니다.

또한 동무들의 성과는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일떠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훌륭한 모범으로 되였습니다.

동무들은 이미 달성한 성과에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뜨락또르생산에서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함으로써 6개년계획말의 2배에 달하는 뜨락또르생산수준에 빨리 올라서며 가까운 년간에 논밭 100정보당 6~7대의 뜨락또르가 차례지도록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어김없이 실현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우리 당의 붉은 혁명전사가 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의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현함으로써 주체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공장안을 궁전같이, 공장밖을 공원같이 알뜰히 꾸려야 하며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뜨락또르를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며 기업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야 합니다.

나는 기양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끊임없이 혁신하여 뜨락또르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계속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서 힘차게 달려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1973년 4월 29일

축 하 문

9. 25뜨락또르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9. 25뜨락또르공장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지난해보다 2배이상으로 늘어난 올해 1.4분기계획을 보름이나 앞당겨끝내고 영농기전으로 목표한 뜨락또르를 훌륭히 생산보장한데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9.25

뜨락또르공장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동무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임으로써 당앞에 다진 맹세를 빛나게 실천하였습니다.

동무들이 만들어낸 뜨락또르는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동무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가까운 년간에 뜨락또르생산량을 지금보다 3배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하지 말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당의 참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고 반자동화,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는 동시에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워 있는 면적,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뜨락또르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무들은 농촌기술혁명에 기여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각을 가지고 생산에서 기술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한개의 부속품이라도 성의있게 만들어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며 기업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뜨락또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당의 기대와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1973년 4월 29일

축 하 문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앞에 다진 자동차생산목표를 빛나게 수행한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동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생산공정의 반자동화,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고 생산조직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자동차생산수준을 지난해보다 1.8배로 높이는 커다란 혁신을 이룩하였습니다.

동무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전진하는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기개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의 뚜렷한 시위로 됩니다.

동무들은 《투쟁호》와 《건설호》 자동차의 생산준비를 빨리 끝내고 대량생산에로 넘어감으로써 채취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데 크게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달성한 성과에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중량급자동차와 대형자동차 생산을 급속히 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반적생산공정에 흐름선, 자동선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한사람당 자동차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또한 생산문화를 철저히 확립하여 공장안을 궁전과 같이, 공장밖을 공원과 같이 꾸리며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함으로써 있는 면적,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자동차를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며 기업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동무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합니다.

나는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의 믿음직한 로동계급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자동차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1973년 4월 29일

第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단 성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第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대표단 전체 성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에 다시 돌아갈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게 된것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청년학생들의 줄기찬 투쟁에서 얻은 고귀한 결실입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재일본조선청년학생들은 지난 기간 이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받들고 총련의 지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지지옹호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재일 조선청년학생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외의 정세는 우리 당이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파탄시키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방지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재일본조선청년학생들은 변천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조직을 보다 생기발랄한 전투적조직으로 꾸리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를 위한 제반 애국과업수행에서 계속 앞장서나가야 할것입니다.

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이번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조선청년들의 민족적슬기와 고상한 정치도덕적풍모를 발양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된 영예를 빛내이고 총련의 권위를 높이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3년 7월 10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 정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조국통일방침과 그를 변천된 정세에 맞게 구체화한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에 따라 북과 남사이의 력사적인 대화가 진행되고있으며 우리 나라 안팎의 정세가 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더욱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는 환경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정무원 총리 김일동지의 보고가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념원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승인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남북대화를 가로막고있는 근본요인인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적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갈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과 북과 남사이의 이미 마련된 대화를 잘 진행할뿐아니라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사들의 참가하에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남북대화를 폭넓게 진행하며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진지한 노력과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체 조선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것이며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3년 4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 령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교육사업은 새세대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이며 혁명의 앞날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자라나는 후대들을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계속할수 있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사람을 위한것이며 그 성과여부는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교육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시초이며 그 중요한 한 부문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교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주체적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공화국정부는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사업에 언제나 커다란 힘을 넣었으며 나라의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교육사업에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이나 아끼지 않고 모든것을 돌려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

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새세대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우리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산 인재로 키우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교육정책에 의하여 지난 기간 인민교육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배우는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였으며 완전한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다.

공화국정부는 1956년에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고 1958년에는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인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우리의 로력자대렬은 더욱 문명하고 지식있는 새세대들로 끊임없이 보충되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은 더욱 높아졌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 이것은 우리 당 교육정책의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문화혁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이였다.

지난 기간 공화국정부는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해방전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던 이 땅우에 오늘은 140여개의 대학과 500여개의 고등기술학교들이 일떠섰으며 여기에서 수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길러내고있다.

오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60여만명의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이 일하고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가경제기관들과 과학문화기관들,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사회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성인들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중학교와 공장고등기술학교,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배우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교육방침에 의하여 사회주의교육학이 더욱 완성되였으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이 똑바로 섰으며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공화국정부의 주체적인 교육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국가의 혜택으로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되였으며 우리의 교육은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키우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교육으로 되였다.

오늘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앞에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과업을 실현한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력사적임무가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에서 교육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명과 임무를 맡고있다.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문화혁명의 거점인 우리의 교육기관이 새세대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인재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의무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그 내용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완성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기 위한 절박한 과업이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성숙된 요구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이미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6개년계획기간에 10년제의무교육에로 넘어갈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았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72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의무교육을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1차회의에서는 새로 채택한 사회주의헌법에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이 교육발전에서 이룩한 이 빛나는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켰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모든 새세대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워주며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켜주는 가장 혁명적이고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은 만 5살의 어린이들에게 인민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교육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학령전의무교육제도이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우리의 새세대들은 누구나 다 만 5살부터 로동할 나이에 이르는 11년이라는 긴동안 국가의 혜택으로 무료교육을 받게 되였으며 고등중학교까지의 중등일반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사실상 11년제의무교육으로서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의 실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다그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면 우리의 모든 새세대들은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자연과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자라나게 될것이다. 새로운 의무교육의 실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의 실시는 또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교육정책의 위대한 생활력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게 될것이며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자유와 교육의 권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교원 학생들에게 광명한 앞날에 대한 희망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줄것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그들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제시되여있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의 모든 지역에서 1972~1973학년도부터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1)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1972~1973학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1976~1977학년도까지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도시, 로동자구로부터 농촌에로, 농촌에서는 벌방지대로부터 산간지대에로 점차 확대하여나가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학제는 인민학교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하는 4.6제로 한다.

3)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은 만 6살부터 만 16살까지의 모든 청소년들이다.

4)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교육내용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새세대들이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우고 현대과학과 기술의 기초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습득하며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수 있도록 편성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의 모든 지역에서 1972~1973학년도부터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한다.

1)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1972~1973학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1975~1976학년도까지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은 학령전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주며 인민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교육을 주어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안받침한다.

3)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은 만 5살의 모든 어린이들이다.

3.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일부 교종들의 학제를 고친다.

1) 지금까지 중등일반교육을 완성하는 사명을 지니고있던 고등학교학제를 1972~1973학년도부터 없앤다.

2) 고등기술학교는 기술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고치고 기수, 중등전문가 양성의 질을 훨씬 높이며 앞으로 고등전문학교로 개편하여 운영한다.

3) 교원양성체계를 일부 고친다.

   인민학교 교원과 유치원교양원은 교원대학에서 양성한다.

   1972~1973학년도부터 교양원대학을 교원대학으로 개편한다.

   고등중학교 교원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한다.

   고등기술학교와 고등전문학교의 기술과목교원은 기술사범대학과 기술계통대학에서 양성한다.

4) 특수한 교종의 학교학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이 따로 정한다.

4. 이 법령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에 위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과 교육부문일군들이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바침으로써 새세대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는데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3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 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제정함에 대하여

1972년 12월 27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한 뜻깊은 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에서와 우리 나라 혁명발전과 사회정치생활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주체적이며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옹호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철저히 복무하는 우리 국가주권의 강력한 무기이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 원칙들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및 활동원칙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으며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히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그 전반적 체계와 내용에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새로운 독창적인 헌법이며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의 의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적헌법이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사회주의건설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데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다.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으로 우리 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새로운 예리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유력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이 제정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는 새로운 전변들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사회주의헌법의 실시는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재일조선공민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조선동포들을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창조물인 사회주의헌법을 고수하고 그를 전면적으로 구현하는것은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최대의 영예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한 날을 뜻깊게 기념하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해마다 12월 27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국가적명절로 하며 이날에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매가정들에서 공화국 국기를 띄운다.
사회주의헌법절을 공휴일로 한다.

3.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및 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계기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연구사업과 해설선전사업을 강화하며 그것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상적으로 철저히 구현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3년 12월 24일 평양시



화평땅에 모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혁명의 요람 만경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신 만경대는 오늘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일뿐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세계혁명가들의 학교로 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에서 대륙과 대양을 넘어 우리나라에 온 세계 수많은 벗들은 조선혁명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조선혁명의 태양이 높이 솟은 유서깊은 만경대를 먼저 찾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몸바쳐 싸워오신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따라 배우면서 그이들처럼 살며 투쟁할 결의를 다지고있다.

1973년에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대표단과 인사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는데 그들의 방문인상중에서 일부를 뽑아 아래에 소개한다.

만경대는 세계인민들에게 혁명의 새 힘을 안겨준다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신 집이 어떤집인가에 대하여 생동하게 알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였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였으며 혁명일가가 생활하시던 만경대고향집은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킨다. (중국주재 프랑스공화국대사관 무역참사 로베르트 쌍송)

만경대는 경치도 아름다운 력사적인 곳이다. 만경대를 방문한 감정을 무엇이라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만경대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표현할만한 단어를 사전에서는 찾을수 없기때문이다.

바로 이런곳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에 벌써 혁명사상을 키워나가시였다.(아르헨띠나전국정의운동대표단 단장 이싸벨 마르띠네스 데 뻬론)

만경대는 경치가 아름다운데다가 력사적사적들이 많은곳으로 하여 더욱 아름다우며 의의깊은곳이다.

만경대는 아주 교양적인 장소로서 우리들에게 고무적인 힘을 안겨준다. (인도공화국 정부무역대표단 단장 에이. 에쓰. 켈)

만경대는 가장 혁명적인 가정이 살아온곳이며 가장 특출한 혁명가가 탄생하신곳이다.

만경대는 혁명의 뿌리가 생겨나고 혁명의 꽃이 피여난곳이다. (꾸바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 기초공업부장 호엘 도메네츠)

우리는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각하에 대한 뜨거운 존경의 마음으로 여기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야말로 아주 훌륭한곳이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의 조선이 설계되였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네팔왕국국가리사회 친선대표단 단원 카드가만씽)

우리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조선혁명의 뿌리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시였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사랑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벌가리아교육대표단 단장 유보미드 젤랴르꼬브)

아름다운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그이의 일가친척들은 모두다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조국을 사랑하시고 인민을 사랑하시는 정신으로 교양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고 계신다.

아름다운 만경대는 조선인민 특히 청년들이 혁명사상과 애국주의사상을 배우는 학교이다.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군사대표단 단장 이온 게오르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에 직접 와서 보니 느껴지는바가 많다. 만경대는 자라나는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아주 중요한곳으로 된다. 여기에 있는 한개의 돌, 한 그루의 나무, 한폭의 길에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깃들어있다. (파키스탄예술단 단장 지아 모히예딘)

만경대는 민족의 태양이 솟아났으며 조선혁명의 뿌리가 깊이 내린 혁명의 요람이며 마음의 고향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모든 부문, 즉 무장투쟁을 포괄한 모든 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확고하게 구현하시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이를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라고 한다. (일본주재 아프가니스탄왕국대사 세이드 카씸 리시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참관하게 된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무한히 귀중한곳이다. (수리아농민총동맹대표단 단장 메치고 무스타파 알 아이드)

만경대를 방문하려는 소원이 실현되고보니 꿈만 같다. 나는 만경대에 대한 생각을 한번도 잊어본적이 없었다.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정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싸워온 혁명적가정이라는것을 더 똑똑히 알게 되였다.

만경대는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유서깊은곳이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곳이다.

만경대를 방문하는것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는 조선사람들과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응당한 의무로 되는것이다.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및로작연구소조》책임자 에드아르도 호쎄)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인민들에게 혁명의 새 힘을 북돋아주는곳이다. (일본 도꾜도경제우호대표단 단원 사또 다께시로)

만경대는 그 이름과 같이 만가지를 보고 알수 있게 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곳이다.

만경대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대를 이어 나라를 위해 싸워오신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며 어린 시절을 보내신곳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마련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그칠새없이 이곳을 방문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 그이의 일가의 혁명업적을 따라 배우고있는것을 보며 감격을 금치 못하고있는 우리는 앞으로 일본에 돌아가 일조 두 나라간의 관계개선과 우리 량국인민들사이의 보다 긴밀한 친선단결을 위해 더욱 힘있게 싸울 결의를 가다듬게 된다. (일본사회당대표단 단장,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인 국제국장 가와사끼 간지)

만경대에서 조선로동당의 령도자이시며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유년시절을 보내시였으며 증조할아버님과 증조할머님으로부터 할아버님과 할머님, 아버님과 어머님에 이르기까지의 그이의 온 일가가 이곳에서 혁명의 투지를 억세게 키웠으며 원쑤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시였다.

만경대는 새세대들을 혁명가로 교양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다.

진정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면 그들은 새로운 힘과 기쁨을 갖게 될것이다. (꾸바기술공업직맹대표단 단장 로베르또 몰리나 베딴꾸우르뜨)

우리는 조선혁명이 시작된 력사적인 곳을 참관할수 있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참관은 대단히 감동적이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였다.

우리들은 당신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혁명정신을 배울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다오메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 미수길 알라다이에)

만경대에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온 세상 피압박혁명적인민에게 혁명의 빛이 뿌려졌다.

모든 혁명가들이 만경대에 와서 혁명정신을 배워야 한다.

아직 혁명도상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이 혁명정신을 배워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

아름다운 만경대의 혁명사적들은 모든 방문자들에게 혁명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만경대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 결심을 굳게 해준다.

여기에서 추켜올린 횃불이 소말리아땅에도 타도록 우리는 노력하겠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은 위대한 인민들속에서 나온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는 귀국하면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 혁명사적지에 대하여 알려주겠다. (소말리아최고혁명리사회직속 민족정치국대표단 단장 모하메드 모하무드 모하메드)

김일성주석님의 가정은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가정이며 혁명가의 가정의 전형이다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는 조선혁명의 요람이다.

위대하고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수령님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흠모하고있다. 그이의 가정은 혁명적인 가정일뿐아니라 영웅적인 가정이다. 대대로 내려오며 모두가 조선혁명과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싸우시였다.

만경대는 조선사람에게 있어서뿐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혁명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의의깊은 곳이다.

만경대방문은 정말 인상적이며 감동적이였다. 이렇게 력사적내용이 깊은 만경대를 방문할수 있은것을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중국주재 스위스련방공화국대사 알베르 륜이 나뷔랄)

수령님의 가정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매우 훌륭한 애국자들의 가정이다. 이 집은 보기에는 이처럼 평범하지만 조선인민뿐아니라 외국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교양적의의가 큰 위대한 집이다. (꾸바공화국 라지오아바나꾸바방송국 국장 안헬 에드난데스)

우리는 김일성주석동지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을 방문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서 김일성주석동지의 혁명적가정의 혁명력사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조선인민은 대단히 훌륭한 혁명력사를 가지고있다.

만경대혁명일가의 가난한 생활은 곧 당시 조선인민의 비참한 생활처지였으며 그분들의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은 곧 새 조선을 위한 창조적투쟁이였다.

우리는 오늘 조선의 각지에서 만경대를 찾아온 수많은 청년학생들을 보았다.

조선의 젊은 세대들이 만경대의 혁명적모범과 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련방의회대표단 단장 미알꼬 또도로위츠)

만경대는 젊은 세대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장소일뿐아니라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장소이다.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그이의 혁명력사를 더 잘 알수 있게 된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생각한다.

수령님의 가정은 류례없는 가장 훌륭한 혁명가의 가정이다.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외교부 유엔및국제기구 국장 하심 오스만 아흐메드 아브델라힘)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투쟁위업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수령님의 일가친척들은 모두다 혁명가이다. 그이의 가정은 대대로 혁명투쟁을 하여왔다. 이런 혁명적가정은 수령님께 있어서 훌륭한 학교였다.

만경대는 참으로 혁명의 요람이다.

우리는 만경대를 방문하고 영원히 잊을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꾸바공산당대표단 단장 라울 가르시아 뻴라에스)

우리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가정이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혁명가정의 전형인 김일성동지의 가정을 우리는 매우 존경한다. (꾸바혁명수호위원회대표단 단장 오를란도 싼체스)

김일성주석님의 가정은 진실로 혁명가의 가정이다. 주석님께서는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다. (일본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대표단 단장 후꾸시마 마사오)

김일성주석님의 가정은 혁명가의 가정의 전형이며 모범이다. 이런 가정은 오직 만경대에서만 찾아볼수 있다. (일본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대표단 단원 구리끼 야스노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가정은 조부모님으로부터 대를 이어 혁명을 하여온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다.

우리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혁명을 계속 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 잘 알게 되였다.

주석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였으며 정열적으로 학습하시였다. 이런 정신이 오늘의 조선의 기상으로 되였다

(일본사회당 청년활동가대표단 단장 모리야마겐지)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은 증조할아버님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시였다.

우리는 학습터, 씨름터, 군함바위등을 돌아보면서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혁명에 대한 큰 뜻을 키우시였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같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투쟁하여온 혁명적인 가정을 우리는 아직 모르고있다.

바로 오늘과 같이 부강하고 행복한 조선이 마련된것도 수령님의 혁명적가정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과학원대표단 단장 끄리스또훌 씨미오네쓰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진정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투쟁하여오신 위대한 분이시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그이의 혁명투쟁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 승리할수 있었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은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장식하여주었다. (이딸리아 또스까나주친선대표단 엘리오 가부지아니)

대를 이어오며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일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모범적인 훌륭한 가정이라는것을 우리는 만경대를 방문하고 더 잘 알게 되였다.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이 그이를 왜 그처럼 흠모하며 존경하고있는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혁명적가정은 전체 조선인민을 위대한 사회주의건설에로 고무해주고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 (오스트랄리아 사회활동가 작가이며 기자이며 교육학자인 마하라 로퍼)

여기 만경대에서는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시였으며 증조할아버님과 증조할머님, 할아버님과 할머님, 아버님과 어머님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온 일가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시였다.

우리는 이 혁명일가의 투쟁을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투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매우 고무적인 큰힘을 얻었다. (네팔녀성대표단 단장 쁘녀쁘라바둥가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시였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투쟁력사가 시작된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일가와 친척들이 어떻게 혁명투쟁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다.

그이의 가정은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가정이며 위대한 혁명가의 가정의 전형이다.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친선대표단 단장 아부 마헤르)

조선인민과 세계의 진보적벗들과 맑스-레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혁명사적지인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조선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우루과이기자 훌리오블라우디오 또르보)

만경대는 우리들이 조선방문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찾아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곳이다.

왜냐하면 만경대는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려진곳이기때문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훌륭한 곳을 방문할것을 희망하였었다.

오늘 만경대방문은 조선의 혁명력사에 대한 우리들의 불충분한 리해를 풍부히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탄자니아련합공화국 군사대표단 단장 보위및 민족복무부장 에드와드 엠. 소코이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신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의 혁명력사가 어떻게 시작되였는가를 잘 알았다.

김일성주석님의 일가는 모두 혁명가이며 애국자이며 투사들이다. 그들의 념원은 바로 김일성주석각하에 의하여 훌륭히 실현되였다.

조선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는 김일성각하의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며 그것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파키스탄인민은 김일성주석각하에 대하여 깊고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있으며 또한 그이의 령도를 받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 인민에 대하여 깊은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 마수도. 자만)

나는 오늘 만경대를 방문하여 많은것을 느꼈고 크게 감동되였다.

김일성주석동지의 혁명사상이 어떻게 키워지기 시작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그이의 가정은 이곳 주민들, 농민들과 부단한 접촉과 련계를 가지고있었다.

바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수령님의 가정은 혁명적인 가정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혁명적가정에서, 혁명적인 지대에서 탄생하시여 혁명사상을 무르익혀 나가시였다.

그렇기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선혁명의 요람지인,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키워지기 시작한 샘물터를 잘 꾸리는것은 옹당한 일이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한다.

조선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만경대를 방문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배우도록 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

만경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에게도 잘 알려진곳이다. (칠레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 외교부장 끌로도미르 알메이다 매디나)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배우게 된것을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혁명활동에 나서신데 대하여 우리는 감명깊게 들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를 마련하시였다. (감비아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 에이. 디. 카마라)

우리는 만경대를 방문하고 조선인민의 혁명력사의 뿌리를 잘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불타는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을 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의 수령으로 되시여 로동자, 농민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우리는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는것을 더 잘 알게 되였다.

그이의 혁명력사를 배우기 위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만경대를 방문하고있다.

실로 만경대는 혁명가들을 키워내는 훌륭한곳이다.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김일성주석동지의 혁명투쟁은 조선인민의 반제반일투쟁의 상징으로 된다.

김일성주석동지의 가정은 증조할아버님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혁명의 길에 나서서 나라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바쳐온 혁명적가정이다.

김일성주석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의 반제투쟁은 자기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이였을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투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우리는 오늘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옛날의 모습을 새시대에 맞게 개조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고있는데 대하여 더 잘 알수 있었다.

당신들은 자연만 개조한것이 아니라 생활자체를 사회주의사회에 맞게 훌륭히 개조하였다.

특히 당신들은 젊은 세대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며 혁명전통을 더욱 계승발전시켜 나가는것을 매우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조선의 미래를 내다볼수 있다. (오지리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촉진협회》 위원장 메르베르트 슈타인네르)

만경대를 방문한 에꽈도르공산당대표단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적들에서 많은것을 배웠다.

우리는 우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쌓으신 거대한 혁명투쟁업적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만경대에 보존되여있는 사적들은 인민들 특히 청년들을 교양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을뿐아니라 공동의 원쑤 미제의 기반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들에게도 거대한 고무적힘을 주고있다. (에꽈도르공산당대표단 단장 뻬드로 안또니오 싸아드)

김일성주석각하의 혁명투쟁에 대한 력사적인 귀중한 사료들은 후대교육교양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을 혁명투쟁에로 무한히 고무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투쟁의 실천적모범과 귀중한 경험을 대를 이어 옹호해야 하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부윁남공화 림시혁명정부경제대표단 단장 즈엉 타잉롱)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영웅적투쟁전통을 가질수 있었다.

그이의 혁명력사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고무와 새 힘을 안겨준다.

대표단의 이름으로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시하는바이다.

우리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앞으로도 계속 배우겠다.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 단장 누하크 품사반)

만경대는 혁명의 중심지로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나는 우루과이에 돌아가면 우루과이공산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조선인민의 아름다운 투쟁력사를 꼭 전달하겠다. (우루과이공산당대표단 단장 우루과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인 로드네이 아리스멘디 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세계력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만경대방문은 나에게 매우 유익하였다. 그것은 그처럼 위대한 분이신 그이께서 아주 가난하고 소박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되시였다는것을 알게 된것이 나를 크게 감동시켰기때문이다.

나를 특히 감동시킨것은 해방후 김일성주석님께서 한 나라의 수령으로 되시였는데 그이의 할아버님께서는 계속 농사를 지으시였다는것이다.

이것은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적가정에서만 찾아볼수 있는일이다. (애급아랍공화국 《알 아흐바르》신문 부주필 모흐센 모하메드)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용감하고 영웅적인 그이의 혁명적가정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오늘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시다.

우리 알제리인민과 청년들은 혁명과 건설을 진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수령님의 로작을 심오히 따라 배우고있으며 거기서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고있다. (알제리민족해방전선청년대표단 단장 쓰마일 베르쉬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을 위해 싸우시는 참으로 위대하신 인민의 수령이시다.

만경대는 아름다우면서도 깊은 뜻을 지니고있는 혁명적인곳이다.

만경대는 세상사람들을 개조하고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훌륭한 교양장소이다. (꼴롬비아평화리사회 위원장 호아겐 몰라노 참뿌싸노)

만경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신곳으로서 세계혁명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곳이다.

나는 오늘 이곳을 참관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적가정과 그이의 어린 시절의 혁명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

고향집에 귀중히 보관하고있는 소박한 부엌세간들과 농기구들은 우리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여기서 본 모든것은 김일성원수님이시야말로 인민들속에서 탄생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바쳐 싸워오신 위대하신 인민의 수령이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음뿌라 까치 만뜨리)

김일성동지는 위대하고 영명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을 위하여 투쟁하고계신다. 나는 그이께 끝없는 존경을 표시하는바이다.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 대표단 단장 조세프 브란드)

나는 오늘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주석각하의 가정이 진정으로 인민적인 가정이며 그이의 일가가 모두 인민과 같이 살며 투쟁하시였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조선에 와서 우리가 이곳을 방문하지 못했더라면 참으로 유감스러웠을것이다.

조선의 심장인 만경대는 김일성주석각하의 혁명력사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그들에게 새 힘과 새 생활을 안겨주는 곳이다.

김일성주석각하는 전체 조선인민을 행복과 번영의 길로 이끌고계시며 세계 모든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을 위하여 투쟁하고계시는 분이시다.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부인 마리엠 따다호)

김일성주석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다.

증조할아버님, 할아버님, 아버님, 어머님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가정에서는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혁명투쟁을 하시였다.

참으로 훌륭한 가정이다. (일본 나고야 녀성대표단 부단장 가나자끼 구니꼬)

조선혁명이 어떤 뿌리에서 자라났고 어떠한 투쟁로정을 따라 승리하였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곳 방문을 통하여 잘 알수 있었다.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이 중요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그이의 혁명적 가정은 조선혁명수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만경대는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와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특히는 새세대들에게 조선의 오늘과 같은 위대한 현실이 얼마나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를 가르쳐주는데서 대단히 귀중한 곳이다.

우리는 조선에 처음으로 온 끼쁘로스사람들이지만 조선인민이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며 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결의에 충만되여있는 인민이라는것을 똑똑히 느끼였다.

이 투쟁에서 조선인민에게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 (끼쁘로스농민동맹대표단 단장 크리스트스 쿠르텔라리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정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온 혁명적인 가정이다.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은 가장 행복한 인민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이 앞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탄자니아정부대표단 단장 이사크 아브라힘 세페투)

만경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곳이다. 여기 만경대에서 김일성동지의 부모님들께서는 어려신 수령님께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한 애국주의교양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정은 가장 모범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다. 우리는 만경대 방문을 통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진실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있는것은 우리를 더욱 감동시켰다.

만경대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경대를 떠나고싶지 않다. 우리는 만경대를 방문하고 우리가 앞으로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칠레와 조선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으나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긴밀히 련결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선전쟁시기에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왔다.

조선인민은 작은 나라 인민들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발전된 나라들을 능히 따라 잡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것이다. (칠레공화국 대통령 누이동생 라우라 알옌데 고쎈)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가정의 혁명정신은 억압과 착취가 있는 세계의 모든 곳에 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실것과 조선인민에게 앞으로 가일층의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한다.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단 단장 삼 누죠마)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혁명가이시며 혁명의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력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수령이시라는것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어려서부터 혁명가로 자라나시였으며 오랜기간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지금도 수령님께서 조선인민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확신성있게 조직동원하고계신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리라고 확신한다. (시에라 레온 기자대표단 단장 허버트 에이. 존슨)

김일성주석님을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을 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은 참으로 행복하다.

일본인민도 조선인민의 투쟁경험을 배워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인민들의 존경을 받고계시는 김일성주석님과 같은 분이 일본에 없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 오사까부 지사 구로다 료이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은 단시를 지어 만경대에 남기였다.

찬가 읊음

지상의 별
김일성주석님의
영웅적투쟁의
자취 더듬어
여기에 그 감명 새로이 하노라
감탄과 경모의 정 넘쳐흘러
김수령님의 시책 전하는가
지상의 별
김일성주석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그 신망
그토록 두터워라

와서 보는 마음에
진정 놀랍고 위대하고나
진실에 넘치는 그 음성
광휘로 빛발쳐
나 함께 매혹되노라.

우리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방문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

조선인민이 왜 수령님을 그처럼 열렬히 흠모하고 존경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만경대를 방문하고 더 잘 알게 되였다.

만경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혁명사적지로 영원히 전하여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우리는 진심으로 흠모하며 존경하고있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주석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한다.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대표단 단장 안헬 까스뜨르 라 바렐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지원의 사상은 훌륭히 구현되였다.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아버님의 큰 뜻을 이어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신념을 지니신 혁명가로, 수령으로 되시였으며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그이의 부모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시였으며 그이의 일가는 대를 이어 혁명을 하시였다.

부모님들은 참말로 훌륭한 분들이시였다.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부모님들의 숭고한 혁명사상을 이어 받으시였다.

우리는 오늘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의 혁명투쟁로정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전체 조선인민이 그이를 어버이라고 부르는 말의 참뜻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였다.

만경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원지이며 그 발전의 요람지이다.

존경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만년장수하실것을 축원하는 바이다. (일조우호후와이현 대표단 단장 나까가와 헤이다유)

배 움 의 천 리 길

1973년에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사람의 힘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열두살 어리신 몸으로 팔도구에서 만경대까지 머나먼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쉰돐이 되는 력사적인 날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평양에서는 《배움의 천리길》(장편소설)에 대한 문학강연회와 시랑송모임(3월 12일), 수령님의 교시 및 혁명력사에 대한 전국학생소년들의 통달모임(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3월 13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은 그이의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로정이다》라는 제목으로 중앙강연회(3월 15일), 전국학생소년들의 텔레비존방송야회(평양교예극장에서 3월 15일)들이 진행되였다.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쉰돐이 되는 날인 3월 16일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전국학생소년련합단체대회가 진행되였다.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에서와 전국 각지 학교들에서도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 몸소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쉰돐기념모임과 강연회들이 진행되였다.

배움의 천리길에 린접한 각 시, 군들의 학교 학생들은 충성의 기념모임을 가지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의 한페지가 자랑스럽게 펼쳐진 배움의 천리길과 혁명사적지들을 정성들여 꾸리면서 《배움의 천리길》, 《혁명의 새아침》, 《만경대》 등 혁명적문예작품들에 대한 독서감상모임을 활발히 벌리였다.

특히 수령님의 어린 시절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써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이 널리 조직진행되였다.

또한 이해 4월 1일에는 수령님께서 창덕학교에 편입하신 쉰돐을 기념하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소년단련합단체대회가 2중천리마창덕학교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창덕학교에 모셔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 꽃바구니를 삼가 드렸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일념으로 충만된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기념보고에 이어 참가자들의 결의토론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또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학과학습과 사로청 및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2중천리마창덕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구역내 학교의 여러 학급과 분단들에 대한 천리마학급, 모범분단 칭호수여식이 있었으며 소년단입단식도 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은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나오시여 창덕학교에서 1923년봄부터 1925년초까지 열심히 학습하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수령님께서는 《책은 말없는 스승이며 한평생 살아나가는데 다시 없는 길동무이다.》라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시고 학교에서는 물론, 집안일을 도우실때에도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시였으며 한가지를 배우면 열가지, 백가지를 리해하시였고 자그마한 현상을 보시고도 변화되는 나라의 정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창덕학교를 다니시는 기간에 부모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 력사와 지리를 열심히 배우시였으며 조국의 참다운 현실과 신음하는 인민들을 보시면서 민족적 및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같은 증오심과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으려는 애국의 큰 뜻을 힘있게 키우시였다.

수령님의 창덕학교생활을 직접 목격한 한 회상자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창덕학교 5학년에 편입하시여 공부하실 때입니다.

그이의 학습열의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높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학교에 편입되여 얼마안가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높은 학과성적에 오르시였을뿐아니라 뒤떨어진 학생들을 도우셔서 전학급, 전교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이는 뛰여난 조직력을 보여주셨던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이야기할것은 그때 그이의 높은 학과성적이 결코 단순한 공부가 아니였다는 그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이때에 벌써 아버님의 높으신 뜻을 받드시여 글 한자를 배우셔도 애국의 큰 뜻을 키우시는데 힘쓰시였습니다.

실로 수령님의 창덕학교시절은 혁명적진리탐구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식견을 넓히시기 위한 학습이였으며 혁명의 원대한 뜻을 키우는 애국의 길이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일본어교과서 표지에 <국어독본>이라고 되여있는것을 <국>자를 지워버리시고 <일>자를 써넣으신것도 그리고 <이 세상에 남의 등을 긁아먹는 지주, 자본가가 없어야 한다. 왜놈과 지주, 자본가는 한배속이다. 왜놈과 지주, 자본가가 없을 때라야만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잘살수 있다>고 학습장에 적어넣으신것도 다 그 어리신 나이에 벌써 애국의 뜻이 얼마나 높으셨고 민족적 및 계급적원쑤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강하시였는가를 보여주시였을뿐아니라 학생들의 계급적각오를 높여주신 커다란 사변이였습니다.》

창덕학교와 더불어 영원할 이야기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 자연과 사회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과 혁명의 진리를 하나하나 체득하시였을뿐아니라 동무들을 사랑하고 로동을 즐기시며 례절이 바르고 옷차림도 단정하신 등 위대한 혁명가가 지녀야 할 풍모의 생동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우리 청소년학생들은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의 로정, 배움의 천리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그이께서 어리실때 지니셨던 위대한 사상과 고결한 풍모를 따라 배워 지덕체를 겸비한 혁명의 계승자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자라날 불같은 결의를 다시한번 굳게 다지였다.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의 불멸의 자욱 따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1923년 3월 16일(음력 정월 그믐날) 이른 아침에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동생들의 바래움을 받으시며 팔도구를 떠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날 압록강을 건느시여 후창군 포평과 연포리를 거쳐 하산령을 넘으시였다. 그리고 월탄리에서 첫날밤을 주무시였다.

▲ 수령님께서는 천고의 밀림이 우거진 오가산의 준령들을 혼자서 넘으시여 화평땅에 이르시였다.

▲ 수령님께서는 화평땅을 떠나 가산과 동점을 거쳐 직고개를 넘으시고 장강을 지나 4년전에 아버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중강으로 들어가실때 들리셨던 낯익은 고장 강계에 도착하시였다.

▲ 수령님께서는 강계에서 하루밤을 주무시고 그 이튿날 강계 우편국에서 아버님께 《강계무사도착》이라는 여섯자의 전보를 치시였다. 다음날 강계를 떠나신 수령님께서는 그날로 별하에 이르시였다.

▲ 별하를 떠나신 수령님께서는 전천, 고인을 거쳐 개고개를 넘으시여 희천에 도착하시였다.

▲ 수령님께서는 희천을 떠나 청천강줄기를 따라 향산, 구장을 거치시여 저녁녘에 개천에 이르시여 려관집에서 주무시였다. 다음날 아침 개천에서 뻑뻑이차(좁은철길)를 타시고 신안주까지 나오시였다.

▲ 수령님께서는 신안주에서 넓은 철길로 다니는 기차를 갈아타시고 그날로 평양에 도착하시였다.

▲ 수령님께서는 평양에 도착하시자 곧 아버님께 전보를 치시고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 계시는 고향 만경대에 이르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열두살 어리신 몸으로 혼자서 팔도구로부터 만경대까지 1,200여리(482키로메터)가 넘는 두 나라 지경을 13일만에 걸어나오시였다.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대

▲ 수령님께서는 그후 칠골 외가에 가시여 창덕학교에서 2년동안 빼앗긴 조선을 찾기 위한 위대한 탐구의 나날을 보내시였다.

▲ 1925년 2월 수령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받으시고 기어이 아버님의 원쑤를 갚고 조국광복을 이룩하실 굳은 맹세를 다지시면서 팔도구를 향하여 만경대를 떠나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두살 어리신 몸으로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몸소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은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조선혁명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빛나는 로정이였다.

배움의 천리길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계급적원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키우신 애국의 길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오시면서 망국노의 설음안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 어디론가 흘어져가는 겨레들의 눈물겨운 정상을 보셨으며 구원을 부르짖는 조선의 비통한 목소리를 들으시며 어둠이 드리운 조국강산에 광복의 새 아침을 안아오리라 굳게 속다짐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걸음걸음 숫눈길우에 많고 많은 짚신 자욱 남기시며 조국에로 나오신 그 천리길은 강도일제에게 짓밟히고 찢기운 조선의 아픔과 슬픔을 몸소 느끼고 들으시며 조선의 소망을 깊이 아시기 위한 배움의 길이였고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혁명정신을 더욱 굳게 하시는 투쟁의 길이였으며 제힘으로 왜놈과 지주, 자본가 계급이 없는 새 세상을 마련할 애국의 큰 뜻을 키우시는 혁명의 길이였다.

이 길은 오직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탄생하시여 위대한 아버님과 어머님의 높고 넓은 사랑속에서 굳세게 자라나시였으며 위대한 부모님 따라 험난한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나어린 가슴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안으신 앞날의 절세의 애국자만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걸으실수 있었다.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신 그날부터 조선의 새 력사는 시작되였으며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운명을 그 넓고 위대한 품에 안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는 과정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계급적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더욱 키우시였으며 오직 조선사람 자신의 힘으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정신을 굳게 키우시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 수령님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가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움트고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배움의 천리길에서 보고 느끼시며 체험하신 모든것과 그후 혁명실천활동의 경험에 기초하시여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두살때 만경대로 걸어나오신 배움의 천리길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항일무장투쟁과 직접 잇닿은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조국으로 나오시는 길에서, 창덕학교에서 과학과 진리를 탐구하시던 나날에 보고 느끼시며 학습과 자신의 직접 생활체험을 통하여 수난에 몸부림치는 조국과 우리 인민의 절박한 요구와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였으며 일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을 때려부셔야만 나라와 인민을 구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잘사는 세상을 만들수 있다는 신념을 굳게 가지시였다.

1925년 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의 굳은 신념을 안고 만경대를 떠나 여덟살때 부모님을 따라 가시던 길, 배움을 위하여 조국으로 나오시던 그 길로 혁명의 장도에 오르시였다.

기어이 나라를 찾고야 돌아오리라 굳게 맹세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뜻을 이어 그 누구도 걸어본적 없는 폭풍사나운 조선혁명의 새벽길을 몸소 헤쳐나가시며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시여 나라잃은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시면서 반드시 조국을 광복하고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나라를 세우리라 굳게 다짐하신 그 위대한 구상은 해방된 조국땅우에서 빛나게 실현되여 찬란히 꽃피고있다.

수령님께서 50년전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던 그 길우에 오늘은 새 생활창조의 기계소리 우람찬 현대적공장들과 새세대들의 배움의 글소리 랑랑한 학교들,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수없이 일떠서고 해마다 만풍년을 가져오는 협동벌이 가없이 펼쳐졌으며 60청춘, 90환갑에 무병장수하는 행복한 생활의 노래소리가 흘러넘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에 깃들어 있는 불멸의 혁명사적은 또한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참된 혁명가로 준비함에 있어서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창덕학교시절에 주체적인 학습관점을 세우시고 분초를 아껴 과학과 진리를 정력적으로 탐구하시였으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웃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바른 례절, 동무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넓은 포옹력, 비범한 조직력과 전개력 등 고결한 풍모의 생동한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언제나 몸을 튼튼히 단련하심으로써 나라를 찾고 앞날의 조국을 떠메고 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하여 나가시였다.

이 모든것은 수령님께서 벌써 당시에 지덕체교양의 전형을 창조하신것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혁명의 계승자, 재능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 배우고 본받아야 할 훌륭한 귀감으로, 참다운 교과서로 된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며 키워오신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계급적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진리에 대한 정력적인 탐구심과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 부모님에 대한 새형의 효성과 웃어른들과 동무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등 고귀한 모범들을 꾸준히 따라배워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믿음직하게 준비하고있다.

영광스러운 배움의 천리길우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발자취는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가슴속에 깊이 깊이 안겨져있으며 조선의 맑고 푸른 하늘이 영원하듯이 그것은 불멸의 영웅서사시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대와 세대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하며 천대만대 길이길이 별처럼 빛날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배움의 천리길에서 다지신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진리에 대한 정력적인 탐구심과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 부모님에 대한 새형의 효성과 웃어른들과 동무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등 위대한 모범을 따라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할 한마음을 담아 수령님의 위대한 발자취가 스며있는 영광스러운 배움의 천리길을 정성껏 꾸리고있다.

배움의 천리길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물, 현시비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 한다.

화평혁명사적관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는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동상을 정중히 앞에 모신 화평혁명사적관이 자강도 화평군 소재지에 자리잡고있다.

자강도 화평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을 오가실때 쉬여가신 위대한 자욱이 깃들어 있는 영광스러운 혁명사적지이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들은 유서깊은 화평땅에 건평 600평방메터의 혁명사적관을 세우고 1972년 11월 10일에 개관하였다.

혁명사적관에는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위대한 혁명사적이 세개방에 걸쳐 진렬전시되여있고 다음 두개방에는 해방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와 현명한 령도밑에 이곳 화평땅에서 일어난 천지개벽의 위대한 변혁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진렬전시되여있다.

혁명사적관의 총서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떠나시기전에 온가족과 함께 찍으신 사진을 정중하게 모시였다.

제1실에는 수령님께서 여덟살 어리신 나이에 아버님을 따라 온 가족과 함께 혁명의 새벽길에 오르신 이후 중강, 림강, 팔도구에서 아버님으로부터 부단한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면서 아버님의 혁명활동을 돕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을 키워나가신 어린 시절에 대하여 보여주는 자료들이 정중히 진렬전시되여있다.

제2실에는 영광스러운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의 길 차비를 헤아리시는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를 형상한 조각상이 정중히 모서져있다.

《제 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1923년 3월 16일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들의 바래움을 받으시며 배움의 천리길에 오



배움의 천리길을 답사하는 소년단행군대

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나운 눈바람과 생눈길을 헤치시고 험산준령을 넘고 넘으시며 일제의 파쑈통치밑에서 신음하는 조국과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깊이 헤아리시며 원쑤에 대한 적개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더욱 불태우시면서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걸음을 재촉하시여 팔도구를 떠난지 열사흘만에 그리운 고향 만경대에 도착하시였다.

일제의 착취와 고역에 시달리 쓰러져가는 처서관림업로동자들과 동점로동자들의 비애에 찬 모습을 보시면서 일제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으로 가슴을 더욱더 불태우시고 계시는 수령님의 불멸의 영상, 림업로동자들속에 계시는 수령님, 영광스러운 배움의 천리길 전로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록음사판 등 여기에 전시된 사적자료들은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열두살 어리신몸으로 비운에 잠긴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보라 사나운 생눈길을 헤치시고 험산준령을 넘고넘으시며 주체의 불씨를 뿌려가신 불멸의 자욱자욱을 감격적으로 보여준다.

제3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신 위대한 로정에 대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일제를 무찌르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대하여 보여준다.

제4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화평군의 경제와 문화, 인민생활에서의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오늘의 발전면모를 보여준다.

1972년 11월 10일 개관이래 1973년 12월말까지 혁명사적관을 참관한 사람수는 3만 4천 5백여명에 달한다.

이곳 인민들은 해마다 4월이면 혁명사적지에 찾아와 기념식수를 한다. 혁명사적관의 넓은 부지에는 이곳 인민들이 충성의 한마음 담아 심은 천리송 잣나무, 소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나무들이 어리신 나이에 사나운 눈바람을 이겨내시며 천리 험한 길을 오가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비범하고 강의하신 성품을 상징하듯 사철 푸르싱싱 우거지고있으며 여기에는 열두살 어린 신몸으로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이 절절한 충성의 마음 담아 세운 헌시비가 자리잡고있다. 헌시비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배움의 천리길, 혁명의 천리길이여!

일제원쑤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온 강산이 원한에 몸부림치던 천구백이십삼년
조국을 찾자면 먼저 자기 나라를 알아야 한다고
아버님께서 이르신 말씀 가슴에 새기신
김일성원수님!
홀로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눈보라 울부짖는 오가산령을 넘어
만경대에로 발걸음재촉하신 배움의천리길이여!

헐벗고 굶주린 화전민의 긴 한숨에서
나라잃은 겨레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고역에 시달린 벌목부의 모습에서
원쑤에게 짓밟히는 조국을 보시였거니
비좁은 객주집에 머무시는 깊은 밤에도
정처없이 고향떠난 류랑민들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들으시며

원수님께서는 잠못드시였어라!
가난과 학대가 밀려드는 고향집에서
한마음 애국의 뜻을 키워가시던 천구백이십오년
아버님께서 일제에게 체포되시였다는 비보를 받으시고
원쑤를 쳐부실 맹세다지신 원수님!

조국이 독립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또다시 이 길을 걸어 압록강을 건느신
혁명의 길, 광복의 천리길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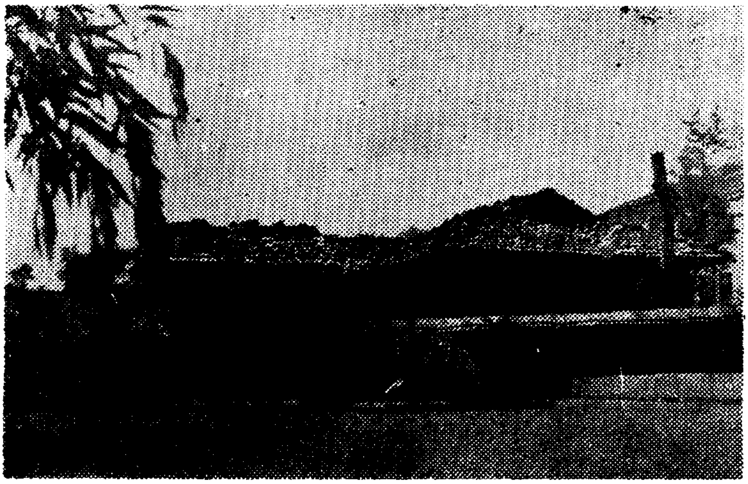
이 길에 이어 혁명의 새벽길을 여시고
그 길에서 항일의 붉은기 휘날리여
조국강산에 새아침 밝았고
오늘의 지상락원 꽃피여 났거니
공산주의 앞날에 잇닿은 불멸의 그자욱
우리들은 따르고 배워가리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충성으로 받들어
그이의 높으신뜻 대를 이어 빛내가리라!

강계 《객주집》과 《우편국》

《객주집》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리신 나이에 영광스러운 배움의 천리길을 오가실 때와 이보다 앞서 여덟살때 아버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중강으로 들어가실때 들리시여 묵어가신 유서깊은 집이다.

강계시에 자리잡고있는 이 유서깊은 《객주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으신 영광스러운 배움의 천리길의 불멸의 력사를 전해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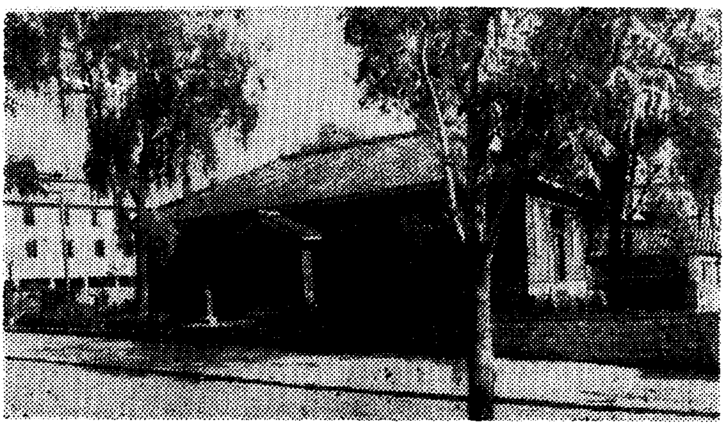


객주집

《우편국》

강계시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고향 만경대로 가실때 이곳 강계에 도착하시여 《객주집》에서 하루밤을 묵으신 다음날 아버님께서 일러주신대로 부모님께 전보를 치신 유서깊은 《우편국》이 당시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여 있다.

《우편국》 접수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팔도구에 계시는 부모님께 《강계무사도착》이라는 여섯글자의 전보를 치시는 불멸의 영상을 모신 유화가 빛나고있다.



우편국

배움의천리길학생소년궁전

력사에 길이 빛날 영광의 길, 배움의 천리길로정의 중요지점인 강계시 독로강기슭 경치 아름다운 곳에 지덕체교양의 종합적인 학교, 배움의 전당인 배움의천리길학생소년궁전이 자리잡고있다.

후대들을 위하여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64년 5월 자강도에 찾아오시여 청소년들이 출연한 집단체조 《독로강반의 새노래》를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과외교양의 전당인 학생소년궁전을 내올데 대하여 배려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강계시에 학생소년궁전을 세워주시고 궁전에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달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궁전은 더욱 확장보충되여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신 쉰돐이 되는 날인 1973년 3월 16일을 계기로 새로 개관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궁전개관을 축하하시여 피아노를 비롯한 귀중한 선물들을 보내주시였다.

넓은 부지에 건평 4,800여평방메터의 3층건물로 웅장하게 세워진 궁전에는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실》, 《배움의 천리길연구실》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체육 등 모두 25개의 소조활동실이 있다.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실》과 《배움의천리길연구실》에서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어린 시절 그리고 배움의 천리길에서 싹트고 키우신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으신 공산주의적덕성, 열렬한 조국애와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비범한 예지와 굳센 의지를 따라 배우고있다.

2층에 현대적설비로 훌륭히 꾸려진 문학실, 무선통신실, 라지오실을 비롯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부문의 연구실들에서 학생들은 사회정치지식과 과학기술을 마음껏 탐구하고있다.

3층에는 무용실, 성악실, 민족악기실, 양악실, 연기실 등 문학예술부문 소조활동실이 있다.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피아노를 비롯하여 군중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수많은 시설들이 구비되여있다.

탁구실을 비롯한 체육활동소조실에는 필요한 모든 체육기재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있다.

궁전에는 또한 현대적인 무대와 600석에 가까운 좌석을 가진 극장이 있다. 학생들은 여기서 자기들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기도 하고 연예공연을 보기도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사랑을 안고 웅장하게 솟은 배움의천리길학생소년궁전에는 년간을 통하여 매일 평균 3,000여명의 학생소년들이 찾아와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후비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가고있다.

배움의천리길개천 혁명사적관

평남도 개천읍 개천역곁에(남쪽) 평양으로 가는 철길을 옆에 끼고 배움의천리길개천혁명사적관이 자리잡고 있다.

개천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오시여 이곳 개천역에서 기차를 타시고 사랑하는 고향 만경대로 가시였으며 1925년초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실 때 이곳 개천에서 기차를 내리시여 하루밤 주무시고 가신 유서깊은 곳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발자취가 스며있는 영광의 땅, 여기 개천에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 높은 공산주의적덕성을 따라 배우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헌시비와 혁명사적관을 세웠다.

1만 1천 4백여평방메터의 부지면적을 차지하고 건평 880여평방메터의 2층건물로 된 혁명사적관과 그 맞은편에 100여평방메터의 혁명사적물진렬관이 개천역곁에 자리잡고 서있다.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물진렬관 사이의 넓은 부지에는 목란꽃나무를 비롯한 가지가지의 꽃나무들과 천리솔 잣나무, 소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나무들이 정성담아 가꾸어져있으며 평양으로 뻗은 철길을 배경으로 총무게 380톤의 헌시비가 세워져있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다.

천리길에 빛나는 땅이여!

두 나라 지경을 넘어 천리길
제나라를 알아야 한다시던
아버님당부를 받들어가신 이 길에서
짚신의 들메끈을 조이시기 몇번이였던가
천구백이십삼년 정월
구름도 힘겨워 쉬여넘는 오가산 령길을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혼자 넘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왜놈들의 칼부림속에서 살길을 잃고 헤매는
겨레의 숨막히는 참상을 지켜보시며
피눈물에 젖은 이 땅의
모진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기어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리라
굳게 마음 다지시며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수령님께서는 천리로정을 회상하시며 말씀하시였다.
…내가 천리길을 걸어나올 때 …개천 군모루에서
비로소 기차를 타고 만경대로 나갔습니다.…
슬기로운 그날의 자욱을 간직한
영광의 땅 개천이여!

조선을 아시고 조선을 위하여 싸우실
혁명의 큰뜻 키우신 수령님께서
불사신처럼 싸우시던 아버님신상에
위험이 닥쳐왔다는 놀라운 기별을 받으시고
다시 평양을 떠나 이곳을 거쳐 북으로 천리
겨레의 절절한 념원과 조국이 바라는
그 모든것을 한몸에 지니시고
원한 맺힌 인민들의 비분을 가시기 위해
왜놈을 쳐부시고 나라를 광복하기전엔
조국땅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 다지시며
걷고 또 걸으신 혁명의 새벽길이여!

그 길에 이어 항일의 혈전 수만리
주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수령님께서 넘으신 산악과 넘으신 강은
몇천 몇만리였던가!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새 아침을 앞당겨 오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시던 그 바쁘신 나날
몸소 기관차를 타시고 구현령에 오르시여
어리실 때 걸으신
력사의 그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조국의 동맥우에 전기화, 내연화의
새 력사를 펼쳐 주시였나니

불멸의 력사를 간직한 이 길
수령님의 사랑이 끝없이 깃들어있는 이길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
우리의 영웅전사들은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시한탄도 안아내고
몸으로 철길을 이어
목숨으로 이 길을 지켰나니

일제통치의 암흑속에 파묻혔던 개천땅은
오늘 조국의 번영속에 천지개벽을 이룩하고
빽빽이차 숨가삐 구을던 그 길우로
주체의 조국—천리마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자랑하며
내연기관차가 힘차게 달린다.

배움의 천리길, 혁명의 새벽길을 이어
오늘에로 뻗어온 영광의 이 길
세대와 세대를 이어 천만년 꽃피울
영광의 천리길!
후손만대 길이 전할 불멸의 이 자욱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뜻 받들어 가는
우리 인민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비를 세우노라!

천구백칠십이년 사월 십오일 세움

배움의천리길개천혁명사적관의 총서관에는 열네살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천리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형상한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총서관을 지나 제1실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혁명적가정과 수령님의 어린 시절에 대

하여 보여준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의 큰 화폭이 제1실의 첫벽면을 차지하고있다. 여기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어린 시절의 사진이 부모님들의 사진과 함께 정중히 모셔져있다. 제1실에 진렬전시된 사진자료들을 통하여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데 대하여,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의 혁명활동에 대하여, 수령님께서 부모님들의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며 조국광복의 큰 뜻을 키워가신데 대하여 생동하게 보여준다.

제2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데 대하여 보여주는 사진과 그림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제2실 첫벽면의 중심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들의 바래움을 받으시며 배움의 천리길을 떠나시는 거룩하신 수령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과 그 밑에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도우시며 비밀통신을 날라오시는 수령님, 아버님의 혁명활동을 도우시며 망을 보시는 수령님의 사진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그리고 팔도구전경사진이 전시되여있다. 이 사진들과 그림의 한편에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사람은 우선 제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 남의것을 배우는것도 제것을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란다. 우리 나라를 잘 알자면 우리 인민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처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다른 한편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팔도구소학교에 다니실 때 친히 지으신 《애국》이라는 제목의 작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발이 빛나고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자면 많은 일을 하게 된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한 일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다. 예로부터 전하는 말이 나라없는 백성은 금수보다도 못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우리들의 영광이며 의무로 된다. 전체 백성들은 단결하여 일어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다음 벽면에는 열두살 어리신 나이로 눈보라 사나운 엄동설한에 단신으로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오시여 개천에서 기차를 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형상한 커다란 그림을 가운데 모시고 한쪽에는 배움의 천리길 로정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나오신 수령님께서 만경대고향집에서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만나시는 감격적장면의 사진과 수령님과 리보익녀사의 대화가 모셔져있다.

《아니, 네가 정말 혼자 왔단 말이냐?! 너의 아버지가 범보다 더한 사람이구나.》(리보익)

《참 할머니도…내 나이 어리다고 두 나라 지경이야 혼자 못다니겠어요.》(김일성)

《…네가 아마 몇해후면 백두산에 걸터앉아 동해바다에다 대고 발을 씻자고 할게다!》(리보익)

제2실의 입구정면 벽면에 창덕학교시절 만경봉기슭에서 학습에 열중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그밑에 그이께서 창덕학교 5학년때 학습장에 쓰신 다음과 같은 글발이 빛나고있다.

《이 세상에 남의 등을 긁어먹는 지주, 자본가가 없어야 한다. 왜놈과 지주, 자본가는 한패속이다.

왜놈과 지주, 자본가가 없을 때라야만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잘살수 있다.》

이 벽면에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덕학교시절에 교원의 물음에 제일먼저 대답하시는 장면, 뒤떨어진 학생들을 가르쳐주시는 장면, 동무들을 데리고 일제를 쳐부시는 군사놀이를 하시는 장면의 사진들과 수령님께서 1923년부터 1925년초까지 다니시던 창덕학교와 창덕학교에 다니실 때 계시던 칠골외가집 그리고 그이께서 공부하시던 칠골독서터와 그이께서 쓰시던 책상과 등피 등의 사진들이 진렬전시되여있다.

혁명사적관의 제3실의 큰벽면 중심에는 광복의 길에 오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천에서 기차를 내리시여 하루밤 주무시고 떠나던 천리길을 걸어 떠나시는 그이를 형상한 커다란 그림이 모셔져있다.

이 그림의 우측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버님이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실 굳은 결의를 다지시는 력사적인 장면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할아버님…할머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라를 찾기전에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인사하시며 혁명의 길에 떠나시는 엄숙한 장면의 사진이 모셔져있고 수령님께서 혁명의 천리길을 주름잡아가신 철길구간도가 진렬전시되여있다.

개천에서 기차를 내리시여 혁명의 천리길을 걸어 떠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큰 그림의 좌측에는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압록강을 건느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모시고 그 밑에 그이께서 그때를 회상하여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금문자로 크게 새겨져있다.

《나는 열네살 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 벽면에는 또한 열네살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을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벌리신 초기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과 출판물자료들이 진렬전시되여있다.

제3실에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일제를 무찌르고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시고 승리의 조국개선을 하신데 대하여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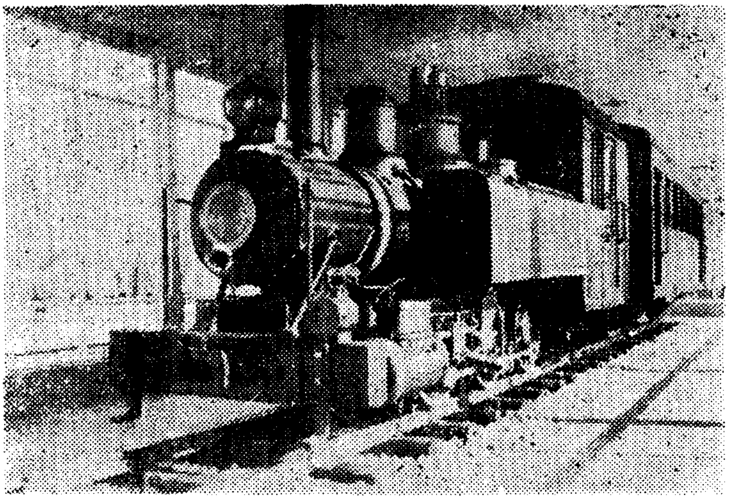
혁명사적관의 2층에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이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천지개벽의 위대한 변혁을 이룩한데 대하여 보여준다.

2층에는 또한 배움의 천리길 종합강의실이 있다. 여기에는 반경화로된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록음사판이 있다.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천리행군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과 붉은 빛으로 표시하는 천리행군로정을 보여주며 음악과 해설을 배합하여 진행되는 강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길을 실감있게 보여주며 수령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진리에 대한 정력적인 탐구심과 불굴의 강의한 의지를 심장속깊이 안겨준다.

혁명사적관의 맞은편에 자리잡고있는 사적물진렬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을 오가실 때 타시였던 그 기관차와 객차가 귀중히 보존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시고 배움의 천리길을 주름잡아 달리시였던



빽빽이차

이 빽빽이차는 당시 개천과 신안주사이의 좁은 철길우로 8개 또는 10개의 객화차를 달고 달리였다.

배움의 천리길 자욱자욱마다 애국의 불씨를 심어가시며 걸으신 수령님께서는 압록강을 건느신 때로부터 열이틀째 되는 날 해질무렵에 이곳 개천에 도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여덟살 나시던 때에 부모님을 따라 어린동생들과 함께 중강으로 들어가실 때 들리셨던 옛기억을 더듬으시며 이곳 려관에 들리시였다.

몇해전만해도 다 쓸어져가는 오막살이 몇채밖에 없던 이곳에 경찰서와 군청, 면사무소와 우편국 그리고 은행, 량곡검사소, 상점, 려관을 비롯하여 일제의 통치기관들과 수많은 착취기관들이 들어 앉아 왜놈들이 살판치는 인간생지옥으로 변화되여있었다.

일제놈들은 개천선철길을 통하여 개천지방의 무진장한 광석과 무연탄, 량곡은 물론 자강도 지방의 얼마되지않는 량곡마저 악착스럽게 빼앗아갔다.

놈들은 이렇게 략탈한 귀중한 금은보화들과 오곡백과들을 신안주역에서 넓은 차에 옮겨 실어 남포와 송림에 가져다가 다시 배에 실어 일본으로 가져갔다.

개천의 변한 모습을 깊이 생각하시며 려관에서 하루밤을 묵으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비좁고 추운 대합실에서 평범한 조선사람들과 한줄에 서시여 차표를 사신후 역구내에 나오시여 기차에 오르시였다.

여기 혁명사적관에 보존되여있는 빽빽이 차는 수령님께서 차판마다 실려가는 조국의 금,은 보화와 식민지노예의 멍에에 시들어가는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운명을 가슴아파하시며 오직 조선사람 자체의 힘으로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고야말 불같은 결심을 더욱더 굳게 다지시는 그이의 불멸의 영상을 그려보게 한다.

나라 잃고 설음많던 어제날 빽빽이차 숨가삐 구을던 이 철길우에 오늘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위용을 자랑하듯 내연기관차가 지축을 흔들며 질풍같이 내달리고 잡초무성하던 피앗골—개천땅이 오늘은 번영하는 사회주의공업농업도시로 전변되였다.

이 위대한 천지개벽의 변혁을 가슴깊이 새기며 참관자들은 수령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우에 심으신 주체의 불씨를 계속 대를 이어 꽃피워 나가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께 충성다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진다.

1972년 9월 개관이래 1973년 12월말까지 배움의천리길개천혁명사적관을 참관한 사람수는 5만 3천 8백여명에 이른다.

(회천에 세운 헌시비 비문)

수령님 걸어가신
불멸의 자욱 따라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으려
가시덤불 헤쳐가시는 부모님 따라
여덟살에 이 길을 걸어가신 김일성원수님!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조국을 아시려
부모님 품을 떠나 혼자오신 천리길을
열네살에 조국광복 큰뜻 안고
또다시 이 길로 가시였어라!

높은령 구비마다 다지신 그 맹세
자욱마다 혁명의 뜻이 맺힌 그길을 이어
항일의 혈전에 강도일제 쳐부시고
이 강산에 해방의 새봄 안고오신 수령님,
전쟁의 포화속도 눈비도 가리지 않으시고
오고가신 길 또한 그 얼마이던가.

우리는 잊지 않으리라
수령님의 높은 신임 수령님께 다진맹세
그이께서 잡아주신 만년대계 터전우에
기계공업 어머니공장 일떠세웠고
그이께서 지펴주신 기술혁신 봉화들고
하늘높이 자립적민족경제의 금자탑을 쌓아올렸거니

아, 력사에 길이 빛날 영광의 길이여
높은산 깊은강 앞을 막아도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리라
수령님의 위대한 뜻 심장으로 받들고
주체공업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며
찬란한 공산주의 령마루 향해
충성의 한마음으로 달려가리라!

일천구백칠십이년 사월 십오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마흔돐을 기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1933년 3월 11일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친솔하시고 온성지구에로의 첫 조국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를 진행하신 마흔돐을 우리 인민은 뜻깊게 기념하였다.

함경북도보고회: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빛나는 한페지가 수놓아진 영광의 땅, 온성에서는 3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왕재산회의 마흔돐기념 함경북도보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이해를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해로 되게할 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온성탄광로동자들과 미산협동농장원들을 비롯한 함경북도안의 여러 곳에서 모여온 각계층 대표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당 및 행정기관, 근로단체 간부들, 항일투사들,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개시이후 변화된 혁명정세와 항일무장투쟁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조국해방의 전략적구상을 실현하며 혁명의 전도를 좌우하는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혁명투쟁을 강력히 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전술적계획을 짜시고 국내혁명조직들에 대한 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를 친솔하시고 두만강연안 량수천자의 숲끝에 이르시여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돌파하기 위한 부대의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하시는 한편 일부 대원들을 온성일대에 파견하시여 지하혁명조직들과 련계밑에 적정을 정찰하신데 기초하여 인민혁명군대원들을 거느리시고 두만강을 건느시여 온성 왕재산에 오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왕재산에서 온성일대의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들과 정치공작원들로부터 국내형편과 지하혁명조직들의 활동정형을 상세히 료해하시고 그들의 로력적성과를 치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개시후 1년간에 이룩된 거대한 성과와 당시 조성된 새로운 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다시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오직 조선인민의 주체적인 혁명무력으로 놈들이 의거하고있는 반혁명무력을 격파함으로써만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치시고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하여 두만강연안의 국경일대에 반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으심과 함께 반유격근거지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회의에서 무장투쟁과 대중운동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길데 대한 방침,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강력히 추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회의를 결속하시면서 온성일대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원들에게 항일유격대가 적의 요충공격에 필요한 적정을 부단히 정찰하며 지난날과 같이 유격대와 유격근거지 인민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조직할데 대한 과업도 상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방침들은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과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실현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은 물론 조선인민에게 혁명의 밝은 앞길을 비치주는 등대로 되였다.

수령님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것이다. 수령님께서 왕재산회의에서 제시해주신 혁명적방침들은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국해방을 위한 승리의 한길로 보무당당히 전진할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혁명승리의 신심과 민족적자부심을 안겨주고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가일층 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하였다.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이후 수령님의 방침에 따라 유격근거지, 해방지구 주변과 온성을 비롯한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 반유격근거지를 창설하는 사업이 급속히 추진되여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에는 형식상으로는 적통치구역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혁명조직들의 지도밑에 움직이는 혁명의 기지, 반유격구가 수많이 창설되였다.

또한 왕재산회의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도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지하혁명조직들과 반일단체들은 적정자료들을 제때에 통보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을뿐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과 근거지인민들에 대한 물질적원호사업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이러한 혁명의 불씨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보루인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되고 국내깊이에로의 대부대진공작전이 가능하였으며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과 조국광복회운동이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전국적판도에서 세차게 일어나고 항일무장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끌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할수 있었다.

이날 보고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데서나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혁명사적지건설착공식: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친솔하시고 그리운 조국에로 진출하시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투쟁의 불씨를 안겨주시고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신 그때로부터 마흔돐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붉은 마음이 뜨겁게 달려오는 영광의 땅 온성에서는 3월 11일 수령님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착공식이 왕재산기슭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건설착공식에는 온성지구 2만여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착공식 보고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자욱마다에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들을 만년대계로 꾸리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보고에는 방대한 규모로 진행되는 건설공사를 기한전에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과업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에 이어 많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절한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의와 신념의 표시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러면서 토론자들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고귀한 업적이 깃든 이곳 혁명사적지를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꾸리며 이 영예롭고 보람찬 건설의 나날을 그이에 대한 뜨거운 충성의 마음으로 수놓아갈것을 결의하였다.

모임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수령님의 초상기를 높이 모시고 항일유격대행진곡을 비롯한 혁명가요에 맞추어 기공첫날 건설작업을 힘있게 진행하였다.

함북도안의 청년학생들의 해불행진과 우등불모임: 함북도안의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마흔돐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3월 11일 유서깊은 혁명의 땅에서 해불행진과 우등불모임을 가졌다.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길이 전하여갈 온성땅에 어둠이 깃들자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든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이곳 지하혁명조직성원들이 일제의 경찰과 악질주구놈들을 습격처단하고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킨 혁명전적지 장덕나루터며 세천, 미산, 풍인 등 여러 지방에서 수천명의 청년학생들이 해불을 들고 혁명가요를 소리높이 부르며 왕재산기슭으로 행진하였다. 우등불모임이 선포되자 《김일성장군의 노래》 우렁찬 합창이 두만강반에 울려퍼졌고 우등불무지들은 영광에 빛나는 혁명사적지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활활 타올랐다. 순간 하늘땅을 진감하는 《김일성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오래도록 계속되였다.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경모와 신뢰, 불같은 충성심이 더욱 세차게 굽이치는 가운데 많은 청년학생들이 련이어 연단에 뛰여올라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대를 이어 더욱 빛내여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우러러 모시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혁명의 길, 승리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갈 충성의 맹세를 피로 맹세다지였다.

전국사회과학토론회: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마흔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가 2월 12일 영광의 땅 온성에서 진행되였다.

과학토론회에는 사회과학원의 원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를 비롯한 사회과학부문일군들과 출판보도부문일군들, 당간부양성기관일군들, 도안의 당, 행정기관, 근로단체, 교육문화기관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확대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에서 천명하신 두만강연안 북부국경일대에 반유격구를 창설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항일혁명전쟁의 전략적기지를 확대강화할수 있게 한 결정적담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왕재산회의에서 천명하신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두만강연안 북부국경일대에 항일혁명전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전략적방침에 기초하여 온성일대를 중심으로 한 북부국경일대에서의 무장투쟁의 확대발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전략전술적방침에 기초한 국내인민들의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의 확대발전》, 《항일혁명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인 왕재산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그 위대한 생활력》 등의 연구제목들이 발표되였다.

봉화혁명사적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의 땅 봉화리에는 새로 정중히 꾸린 봉화혁명사적관이 일떠섰다.

여기 꽃피는 봉화땅에는 한손은 교탁을 짚으시고 다른 한손으로는 책을 펼쳐드시여 《지원》의 큰 뜻을 심어주시던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이 서계시며 조선국민회사업을 지도하시던 혁명의 집과 봉화리 살림집, 짓밟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각지에서 달려온 애국자들과 투쟁방도를 의논하시고 새로운 과업을 주시던 봉화산바위터와 조국의 장래를 걸머지고 나갈 후대들을 《지원》의 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신 유서깊은 명신학교, 학생들의 몸을 튼튼히 하고 투지와 용감성을 키워주신 운동장과 아침운동터 그리고 남편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전우들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우시며 녀성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신 강반석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이 고인 박우물 등 정다운 혁명사적물이 귀중히 보존되여있다.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며 선생님의 높으신 뜻을 이

땅우에 영원히 꽃피워 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충성의 마음 담아 새로 건립한 봉화혁명사적관은 조선국민회 창건 선돐이 되는 뜻깊은 날인 1973년 3월 23일에 개관하였다.

봉화혁명사적관은 총서관을 비롯하여 모두 6개의 관으로 되여있으며 여기에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올리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100여건의 자료들이 진렬전시되여 있다.

총서관에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만경대로부터 이곳 봉화리로 혁명활동의 무대를 옮기신후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신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봉화산바위터에서 조선국민회회원들과 비밀회담을 하시는 김형직선생님의 그림,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사상과 원대한 뜻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지원》의 글발이 빛나고있다. 여기에는 또한 선생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모셔져있다.

《우리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원쑤와 맞서싸워야 한다. 우리의 원쑤는 왜놈뿐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지주, 자본가놈들은 물론 악질관료배들과 밀정놈들도 우리의 원쑤이다.

우리는 원쑤를 타도하고 조국을 광복한후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문명한 새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나라의 독립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착취받고 압박받는 근로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쳐 싸우신 김형직선생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듬어가며 선생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뜨겁게 안겨주는 총서관에 이어 제1관에서는 선생님께서 만경대일대에서 벌리신 혁명활동을 보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일가의 사진을 제1관의 첫부문에 높이 우러러 모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894년 7월 10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만경대(현재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에서 김보현선생님의 맏아드님으로 탄생하시였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선생님께서는 일찌기 학생시절부터 혁명투쟁에 나서시였다.

청년학생들을 반일반미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는 김형직선생님의 사진, 선생님께서 공부하시였고 그후 교편을 잡으시고 혁명활동을 하신 순화학교의 사진, 순화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시는 선생님의 사진들을 모시고 선생님의 혁명활동에 대한 회상자료들이 진렬전시되여있다.

혁명사적자료들은 숭실중학교에서 고학으로 공부하시던 중학시절에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과 《자신》과 《박애》의 탈을 쓰고 침략의 길잡이로 기여들어 숭미사상을 고취하던 미국선교사놈의 숭미반동교육을 반대하여 투쟁하신데 대하여, 학교내외에서 합법, 비합법적조직들을 무으시고 동지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훈련하신데 대하여, 그리고 학비난으로 중학교를 중퇴하신후 선생님께서 순화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청소년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시면서 반일애국력량을 키우시는 빛나는 혁명활동을 벌리신데 대하여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제2관에는 한손에는 책보를 드시고 다른 한손을 고동치는 가슴에 얹으신채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아아한 조국의 산발을 바라보시며 비장한 결의로 맥전나루터에 서신 선생님의 꿋꿋한 모습, 혁명의 새지점, 봉화리로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옮기시는 선생님의 영상이 붉은 기폭에 모셔져있으며 선생님께서 지으신 《정신가》와 《전진가》가 족자형식에 금문자로 수놓아져있다.

당시 혁명활동에 유리한 곳인 봉화리에 오신 선생님께서는 표면상 교원의 직업을 가지시고 《지원》의 사상에 의한 교육문화정치활동을 조직전개하시면서 장차 조선을 떠메고 나갈 인재를 양성하며 반일혁명력량을 묶어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명신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시는 김형직선생님, 교탁을 짚으시고 뜨거운 눈길이 빛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공부를 왜 하는가. …오직 나라를 찾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가슴가슴에 민족자주의식을 심어주시는 선생님, 낮에는 명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주시고 밤에는 야학을 여시고 나라 잃고 돈없어 배우지 못하는 조선청년들, 광범한 농민들에게 우리 나라 글과 력사를 배워주시면서 《지원》의 사상으로 교양하신 선생님의 사진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또한 여기에는 몸이 튼튼해야 원쑤와 싸워 이길수 있다고 하시며 학생들과 함께 몸소 운동장도 닦으시고 철봉대도 세워 그들의 체력단련에 힘쓰신 선생님에 대한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담은 자료들이 진렬전시되여있다.

자료들은 침탈과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키워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선생님의 민족자주정신과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사상을 가슴뜨겁게 보여준다.

전시된 회상자료중 당시 평안남도 교육시학이였던 한 일본사람이 선생님을 방문한 인상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학교의 이름은 기억할수 없으나 평판이 대단히 좋았고 마을사람들은 이 학교의 선생을 매우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문이였습니다. 나는 그렇게도 마을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있는 선생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가, 아마도 훌륭한 턱수염을 자래우고 길다란 담배대를 쥔 로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학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25～26세쯤 되여보이는 름름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침착한 태도, 정열적이고 빛나는 눈매, 자신심이 가득찬 말씨, 어딘가 상대방을 크게 포옹하는 그러한 품성을 가진 이 청년교원에게 나는 초면이였지만 완전히 끌려들어갔으며 마음속 어디선가 무의식중에 그에게 공명하는 그 어떤것을 느끼게 되였다는것을 기억하고있습니다.…썩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청년교원이야말로 위대한 령도자로써 인민의 존경을 받고계시는 김일성주석님의 아버님 김형직선생님이시였습니다.…》

제2관에는 또한 명신학교 운동회날에 독립운동자들을 만나시는 선생님의 사진과 박우물가에서 녀성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는 강반석녀사의 사진이 모셔져있고 강반석어머님의 혁명활동과 관련한 국내출판물자료들이 진렬전시되여있다.

제3관에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고 확대발전시키신데 대하여 보여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수많은 동지들을 획득하며 혁명적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에 기초하시여 1917년 3월 23일 대중적인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였다.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기 전시기 반제적립장이 가장 철저한 혁명적조직이였으며 그 조직규모와 활동범위에 있어서도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조선국민회는 광범한 반일력량을 튼튼히 결속하여 유리한 혁명정세가 다가올때 조선독립을 조선사람 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달성할데 대

한 투쟁파업을 제기하였다.

문이 열려진 방안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시는 김형직선생님을 형상한 그림과 선생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모셔져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반드시 독립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기를 펴고 잘살수 있다. 조선의 독립은 누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싸워서 쟁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망탕 싸워서는 안된다. 투쟁강령과 목표가 뚜렷해야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고 조선이 독립될수 있다.》

조선국민회는 선생님의 지도밑에 오직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국광복의 위업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것을 맹약하는 사람들만을 엄밀히 선발하여 받아들였다. 조선국민회는 동지 호상간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며 규률을 준수하는것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도록 강한 혁명적규률과 엄밀한 활동준칙을 세우고 회원들의 사상적동요와 조직에서의 리탈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선국민회조직분포도》는 선생님의 올바른 지도밑에 조선국민회가 일제의 파쑈폭압과 삼엄한 감시속에서도 자기 조직을 평양과 봉화리를 중심으로 평안도, 황해도, 전라도 등 전국각지는 물론 국외의 여러 지역들에까지 널리 확대해 나간것을 보여준다.

국내와 국외 각지에 파견할 조선국민회성원들에게 임무를 주시는 김형직선생님의 사진을 높이 모시고 선생님의 친필로 된 불망비문과 선생님의 지도밑에 조선국민회의 활동에 관한 사진 및 출판물 자료들 그리고 조선국민회의 영향밑에 반일기세의 앙양에 당황망조한 당시 평남도 경무부장이란놈이 《조선총독》과 일본 《륙군대신》에게 보낸 비밀문건 《조선국민회 활동의 진상》 등 자료들과 특히 비합법적반일비밀결사로서의 조선국민회와 합법 및 비합법적 단체로서의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에 대한 자료들은 합법적 및 비합법적 투쟁을 능숙하게 적용하신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조직적수완과 반일민족해방운동사에 남기신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보여준다.

또한 제3관에는 조선국민회가 창건된후 전국적범위에서 일제의 식민지폭압통치를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 폭동이 거세차게 일어난데 대하여 보여주는 자료들이 진렬전시되여있다.

제4관에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옥중투쟁과 출옥하신후 압록강연안과 중국동북일대에서의 혁명활동전반을 보여준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여가시는 선생님, 옷소매를 부여잡고 울며 매달리는 학생들을 격려하시며 꿋꿋이 걸으시는 선생님의 사진, 조선사람이 제나라를 사랑하고 제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하시며 법정에서 추상같은 목소리로 놈들을 단죄하시는 선생님의 사진, 선생님께서 체포되여 가신뒤 달려든 일제경찰놈들에게 《자 볼테면 봐라.》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옷가지를 찢어 놈들앞에 쥐여뿌리며 항거하시는 강반석어머님의 사진, 평양감옥에서 옥중투쟁을 하고계시는 아버님을 만나보시면서 철천의 원쑤 일제를 쳐부실 굳은 결의를 다지시는 어린 원수님의 사진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이 불멸의 화폭들은 수령님의 혁명일가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슴뜨겁게 보여준다.

또한 제4관에는 백절불굴의 기상을 안고 거연히 솟은 푸른 소나무의 커다란 화폭속에 선생님께서 출옥하신후 조국광복의 열렬한 념원을 담아 부르신 《남산의 푸른 소나무》 시의 글발이 빛나고있다.

선생님께서는 평양감옥에서 출옥하신후 쇠약하신 몸을 돌볼사이도 없이 투쟁무대를 압록강연안에로 옮기시고 맑스-레닌주의를 정력적으로 탐독하시는 한편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공산주의운동과 결합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9년 8월 홍통구에서 력사적인 관전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민족해방운동에 관한 새로운 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여 새로운 길에 들어서야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무산대중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여 투쟁하여야만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비운에찬 조국과 민족을 구원할수 있으며 지주, 자본가 등 인민의 원쑤를 쳐부시고 헐벗고 가난한 인민들이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로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시며 무장투쟁을 준비하시는 등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맑스-레닌주의적기치밑에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선생님의 정력적인 투쟁과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관전회의후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부르죠아민족운동의 약점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하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선생님의 혁명활동에 대한 사진과 출판물자료, 회상자료를 비롯하여 여기에 전시된 귀중한 자료들은 김형직선생님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동깊게 보여준다.

제5관에서는 아버님의 높은 뜻을 이어 받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오늘의 사회주의지상락원을 마련하여주신데 대하여 보여준다.

한 벽면을 장식한 커다란 화폭속에는 아버님께서 쓰시던 붉은 천에 싼 권총을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시며 기어이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할것을 결심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영상이 모셔져있다.

《지원》의 사상과 숭고한 민족자주정신,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높은 덕성 그리고 선생님께서 조국청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경험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김형직선생님께서 그처럼 념원하시던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억년드놀지 않는 력사적뿌리이며 가장 고귀한 혁명적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으며 이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으며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사회주의 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선생님께서 지니신 고결한 혁명정신, 높은 덕성은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 별처럼 빛나고있으며 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속에서도 높은 칭송을 받고있다.

제5판의 다음부분에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을 무한히 존경하며 흠모하면서 선생님을 따라 배우는것을 그대로 반영한 사진들과 신문자료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형직선생》, 전기소설 《불멸의 력사》 등 수많은 책들,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선생님을 흠모하여 쓴 글들과 출판한 책들이 전시되여있다.

1973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구빠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및로작연구소조》책임자 에드아르도 호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봉화혁명사적지를 방문하고 나는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전개하신 혁명활동을 더 잘 알게 되였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김형직선생님은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혁명가이시다. 선생님께서는 조선의 독립은 조선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룩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버님의 이 사상을 구현하시여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시였다.

봉화혁명사적지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투쟁업적으로 하여 영원히 빛날것이다.

나는 봉화혁명사적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또한 소말리아최고혁명리사회직속 민족정치국대표단 단장 모하메드 모하무드 모하메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혁명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하여온데 대하여 특히 김형직선생님의 반일구국투쟁업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또한 우리는 조선인민의 민족의식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야수성에 대하여서도 잘 알게 되였다.

봉화혁명사적지는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지원〉의 사상은 인민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대를 이어 꽃피워왔다.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뜻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계승되였으며 오늘 활짝 꽃피고있다.

비록 선생님께서 일찌기 서거하시였지만 그이께서 뿌리신 혁명의 씨앗은 오늘 조선인민의 심장속에서 열매를 맺었다.》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올리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그이의 《지원》의 높은 뜻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불멸할것이다.

혁명적출판물 《새날》신문 창간 마흔다섯돐을 기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발간지도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출판보도물발생발전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혁명적출판물 《새날》신문 창간 마흔다섯돐기념보고회를 2월 1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1928년 1월에 창간된 신문 《새날》은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광복의 새날을 위하여, 낡은 사회를 짓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새날을 위하여 광범한 청소년들과 근로대중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는것을 기본임무로 하고있었다.

수령님에 의한 신문 《새날》의 창간은 조선혁명의 발전과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적출판보도물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신문 《새날》이 창간됨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정기적인 혁명적출판보도물을 가지려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의 력사적숙원이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군대의 무기와 같이 혁명조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혁명적출판물발간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새날》신문의 원고를 쓰시고 손수 편집하시였으며 밤새워 등사까지하군 하시였다.

신문 《새날》을 발간하시는 수령님의 혁명사업을 직접 가장 적극적으로 도우신 분은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탁월한 녀성활동가이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이시였다.

극심한 생활난과 신병으로 인한 모진 고통속에서도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신 어머님께서는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한푼두푼 모은 돈으로 적들의 눈을 피하여 신문발간에 필요한 원지와 종이, 잉크를 사오시였으며 사정없이 밀려드는 피곤도 무릅쓰시고 수령님과 함께 신문을 찍으시였다. 그리고 찍으신 신문을 무송시안에는 물론 말리허를 비롯한 무송에서 멀리 떨어진 부락들에까지 거의 도맡아 배포하시였다.

수령님의 첫째 동생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김철주동지 역시 《새날》신문의 등사와 배포사업을 정력적으로 도우시였다.

당시 수령님의 일가가 자리잡고있은 무송소남문거리의 력사적인 집은 하나의 비밀출판소였으며 보이지 않는 혁명의 요새였다. 새날소년동맹원들과 백산청년동맹원들을 비롯한 혁명적조직성원들이 이 비밀출판소를 거점으로 하여 눈부신 활동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신문 《새날》은 전문적인 출판일군이나 후방도 없었고 더우기 원수들의 삼엄한 경계속에서도 수많이 발간되여 넓은 지역에 혁명의 씨앗을 뿌려나갔다.

혁명조직들과 혁명군중에 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유일적으로 실현하며 혁명조직과 혁명군중사이에 긴밀한 련계를 맺어주는 믿음직한 인전대로서 신문 《새날》은 처음부터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침투되여 투쟁의 불씨,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고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위력한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그리하여 신문 《새날》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대중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궐기시키는 집단적조직선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신문 《새날》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특히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며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선 새세대의 공산주의핵심을 수많이 교양육성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것이다.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신문 《새날》이 자기 활동의 전과정에 확고히 체현한 주체의 사상체계와 고상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 그가 쌓아올린 불멸의 혁명업적과 생동한 경험은 우리 나라 혁명적출판물발전에서 끝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신문 《새날》로부터 그 첫 발자국을 힘있게 내디디고 조국광복회기관지 《3.1월간》에 의하여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한 우리 나라 혁명적출판물은 오직 수령님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가 계심으로 하여 그이께서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승리에로 이끄시는데 믿음직한 사상적기수로 될수 있었다.

실로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우리 나라 출판물들이 발휘한 무비의 전투적위력은 수령님께서 일찌기 신문 《새날》을 발간하시던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출판보도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출판보도사상을 구현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몸소 창간하시고 지도하신 혁명적출판물들이 확고히 체현한 주체의 사상체계와 그가 쌓아올린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에 있어서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력사적뿌리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깊고 억센 뿌리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제때에 당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을 비롯한 수많은 출판물들과 통신, 방송을 내오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려오시였다.

그러기에 우리 당 출판물들은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오직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으며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할수 있었다.

조선혁명박물관창립 스물다섯돐

조선혁명박물관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스물다섯해전인 1948년 8월 1일 몸소 세워주신 주체사상교양의 전당이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7월 30일 평양에서는 조선혁명박물관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이 박물관 일군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보내는 축하문 전달이 있은후 기념보고가 있었다.

조선혁명박물관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교양의 전당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위력한 거점이 마련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은 창립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대중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크게 이바지하였다. 박물관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그이께서 반세기에 걸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한 경험,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해설선전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있어서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그이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훌륭한 배움의 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은 오늘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충성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지성과 혁명사적일군들의 노력에 의하여 가장 훌륭한 혁명의 보물고로, 주체사상교양의 전당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동상을 앞에 모시고 평양 만수대의 높은 언덕우에 웅장하게 자리잡은 조선혁명박물관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계시며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확고히 령도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박물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평생을 바치시고계시는 위대한 혁명가의 력사이며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공산주의에로의 곧바른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로동계급의 탁월한 령도자의 력사이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시며 그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인민적수령의 력사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인류력사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그이께서 독창적으로 창시하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내놓으시여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우리 혁명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세계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가장 간고하고 장기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우리 인민에게 잃었던 조국과 참다운 삶의 권리와 자유를 찾아주시였으며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고귀한 혁명적재부인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이끄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짧은 기간에 철저히 수행하시고 계속 사회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는 곧바른 길을 개척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전술, 탁월한 령군술로써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미제침략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심대한 정치군사적참패를 안기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시였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고 짧은 력사적기간에 착취없고 압박이 없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으며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이 땅우에 자립적

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시고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 인민생활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길을 몸소 개척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로선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이끄시고계시며 해외동포들에게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지극 옹호하고 지원하여 오셨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계신다.

참으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을뿐아니라 세계혁명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신 영광찬란한 로정이며 인민의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참다운 인민적수령의 가장 감동적인 력사이다.

조선혁명박물관에는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공산주의적덕성, 그이께서 반세기에 걸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이 풍부한 사적물과 력사자료들로써 체계적으로 종합집대성화되여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혁명박물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주체사상교양의 전당으로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혁명적교양의 강위력한 거점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수령님께 끝까지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로 열렬한 공산주의자, 혁명가로 키우는 배움의 전당으로 되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은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사상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가장 훌륭한 배움의 전당이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필요한 리론과 경험, 산 지식을 생동하게 배울수 있는 가장 훌륭한 혁명의 보물고이다.

외국의 수많은 벗들도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고 크게 감동하면서 박물관을 《세계1등급의 박물관》, 《혁명의 대학》, 《공산주의의 학교》라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은 조선인민의 박물관일뿐아니라 전세계 인민들의 박물관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독창적인 혁명리론, 풍부한 투쟁경험과 과학적인 령도예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우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충직한 전사로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것은 우리들의 최대의 영광, 최대의 행복이며 가장 숭고한 의무로 된다.

마동희동지서거 서른다섯돐 평양시추모회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이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인 불굴의 혁명투사 마동희동지의 서거 서른다섯돐 평양시추모회가 1월 8일 있었다.

추모회에는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렬사유가족들,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마동희동지의 어머니인 공화국영웅 장길부녀사가 또한 추모회에 참가하였다.

추모회에서는 수령님의 주체로선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고결한 생애를 바친 마동희동지를 추모하여 잠시 묵상하였으며 추모사가 있었다.

1912년 10월 9일 가난한 화전민의 가정에서 태여난 마동희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로선을 끝없는 감격으로 받아안고 자신과 가정, 대중을 혁명화하면서 보람찬 혁명투쟁의 길에 나섰다.

특히 그는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적인 방침을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대오에 들어선후부터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불굴의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뛰여난 자질을 소유한 세련된 정치공작원으로, 전투원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솔하에 조직전개된 보천보전투와 간삼봉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마동희동지는 많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그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국내혁명력량을 광범히 조직하고 그들과의 련계밑에 백두산근거지를 랑림산맥일대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파견된 별동대성원으로 국내정치공작임무를 담당하여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투쟁하였으며 추악한 배신자의 밀고로 원쑤놈들에게 체포된후 철창속에서도 혁명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놈들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으며 혁명의 사명부를 목숨으로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혀를 깨물면서까지 혁명과 조직의 비밀을 고수하였다.

마동희동지는 일제교형리들에 의하여 1938년 1월 9일 애석하게도 희생되였으나 그의 고결한 생애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조선공산주의자의 숭고한 혁명가적풍모를 보여준 영웅적생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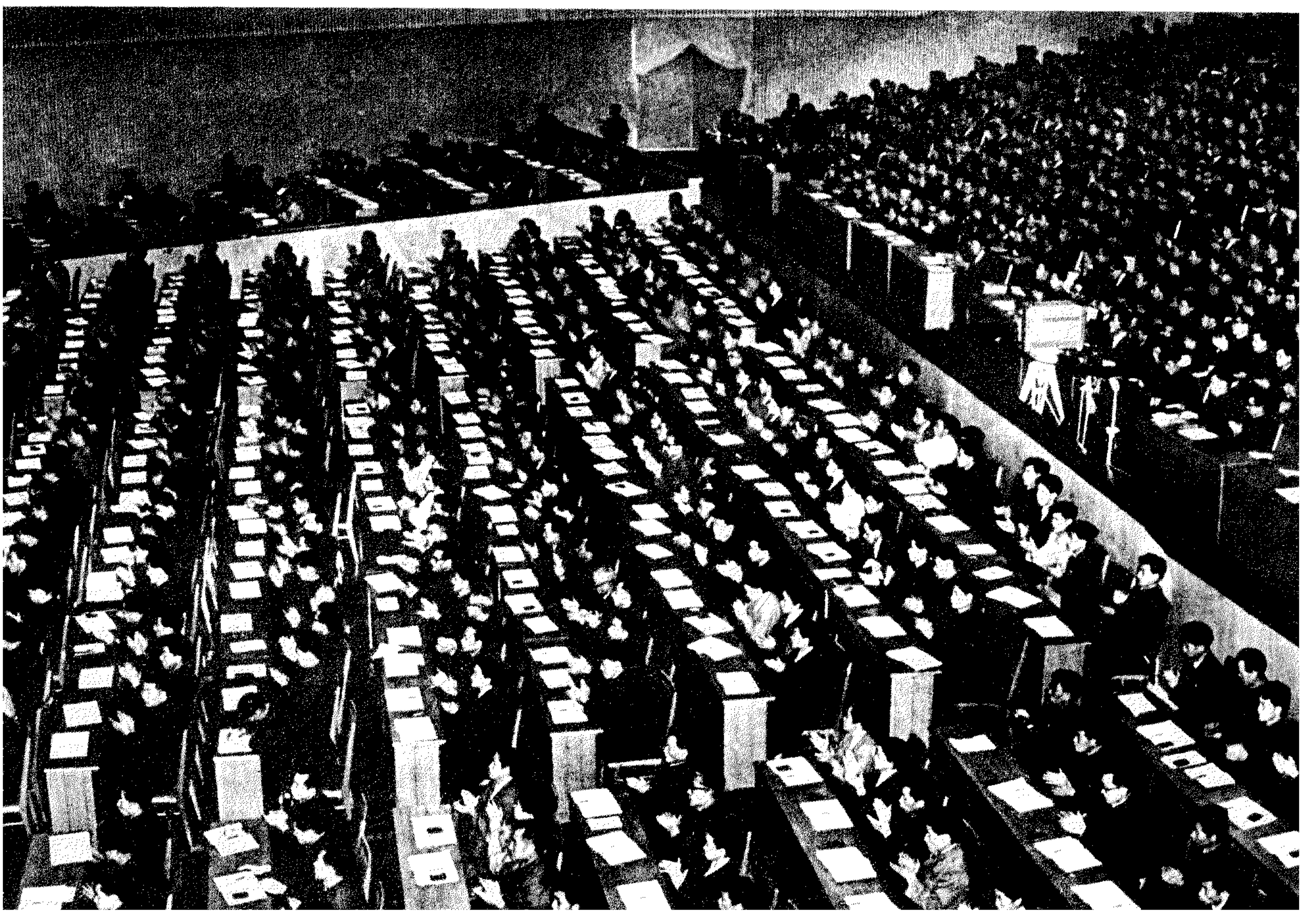
불굴의 혁명투사 마동희동지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생애와 빛나는 위훈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며 언제나 우리의 투쟁을 고무해줄것이다.

이날 추모회참가자들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 주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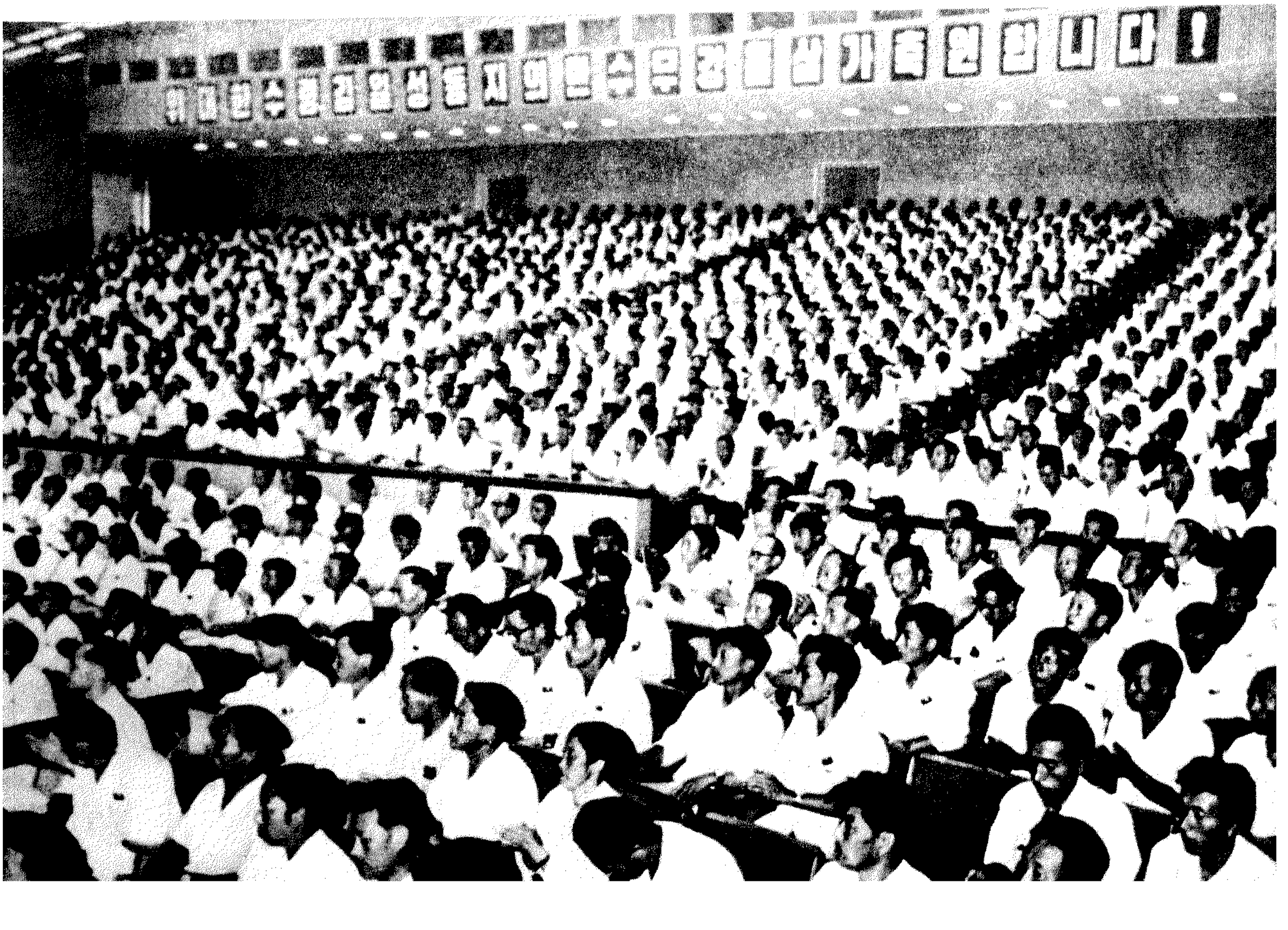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 참가자들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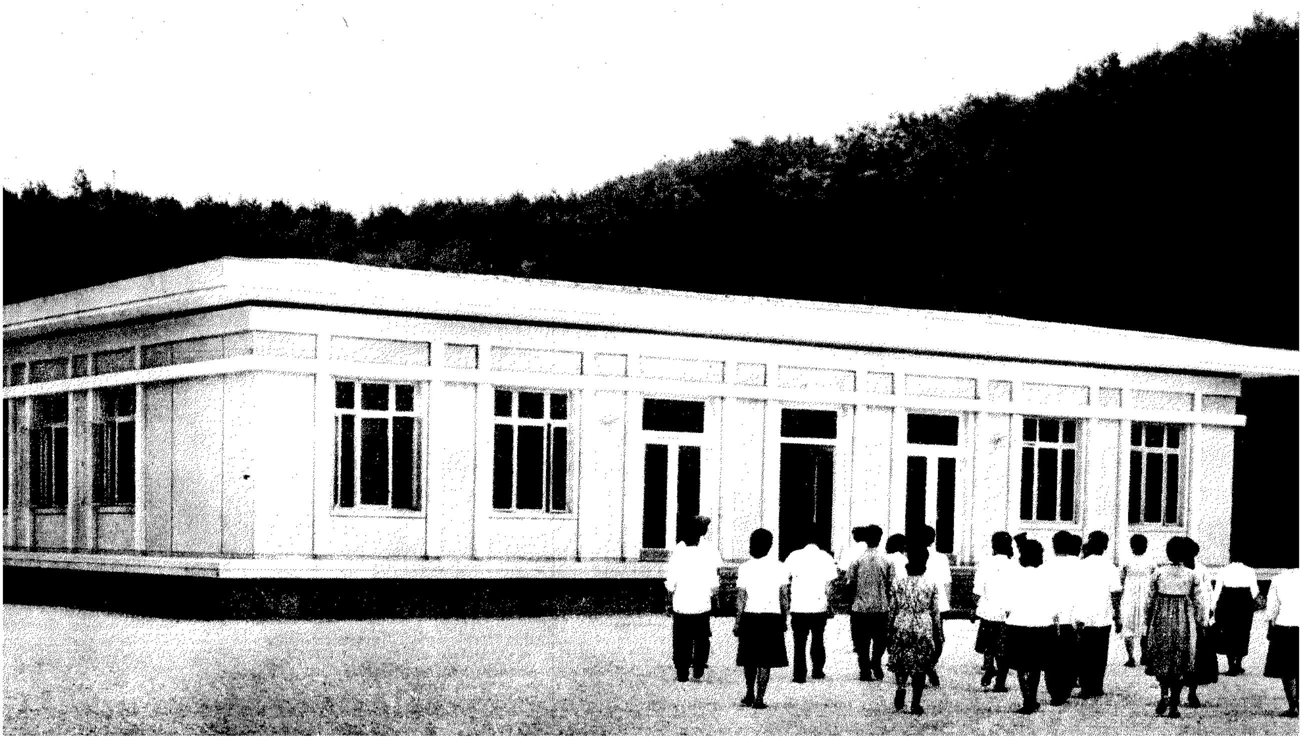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 참가자들





조선국민회회원들의 비밀회의를 지도하시는
조선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 형 직 선생님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생애와 자랑찬 투쟁업적을 보여주는 봉화혁명사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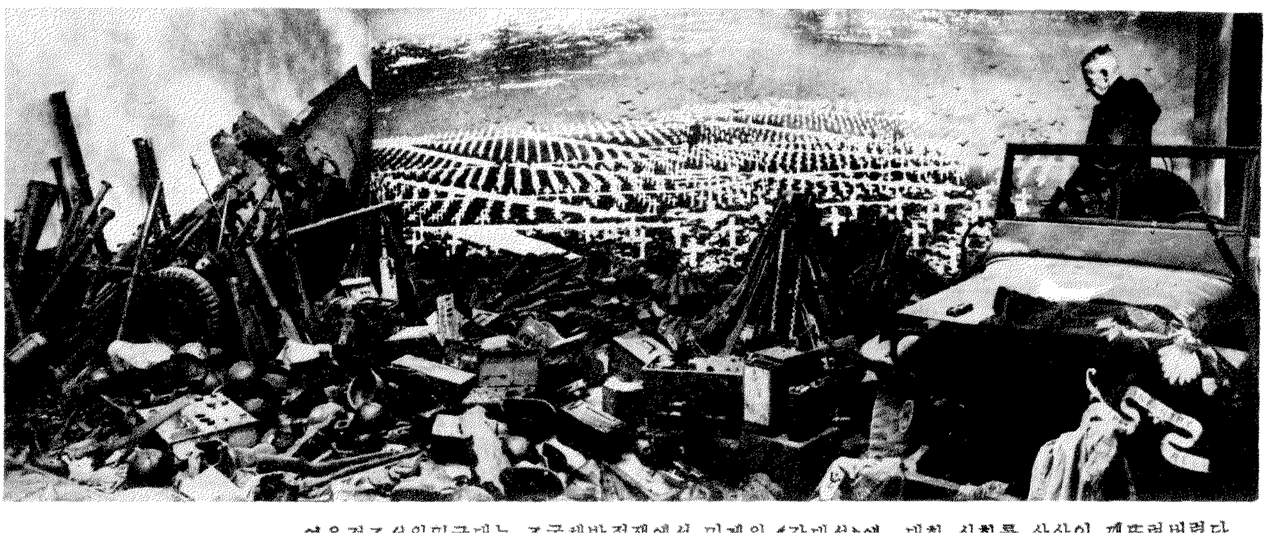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미제침략자들과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준렬히 규탄하는 군중대회장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시위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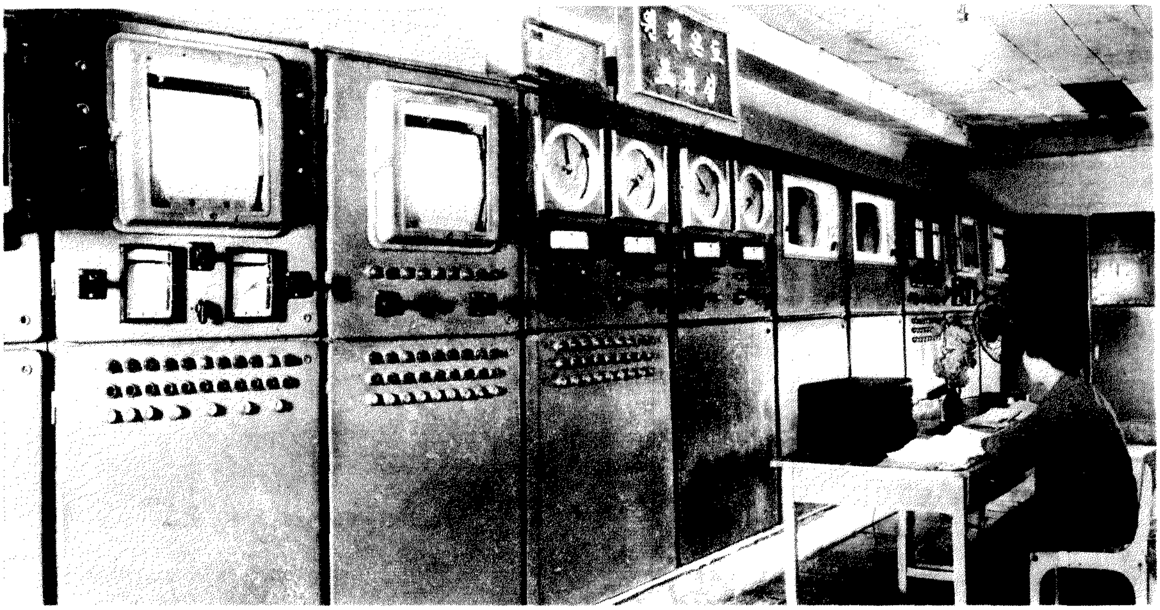
[illegible]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의 《[illegible]》 [illegible] 산산이 깨뜨려버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지하철도의 개통을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기계전람관》, 《기계바다》를 이룬 금성뜨락또르공장의 일부





당중앙의 지도밑에 제철, 제강 작업을 텔레비죤화, 원격화, 자동화한다

어로작업을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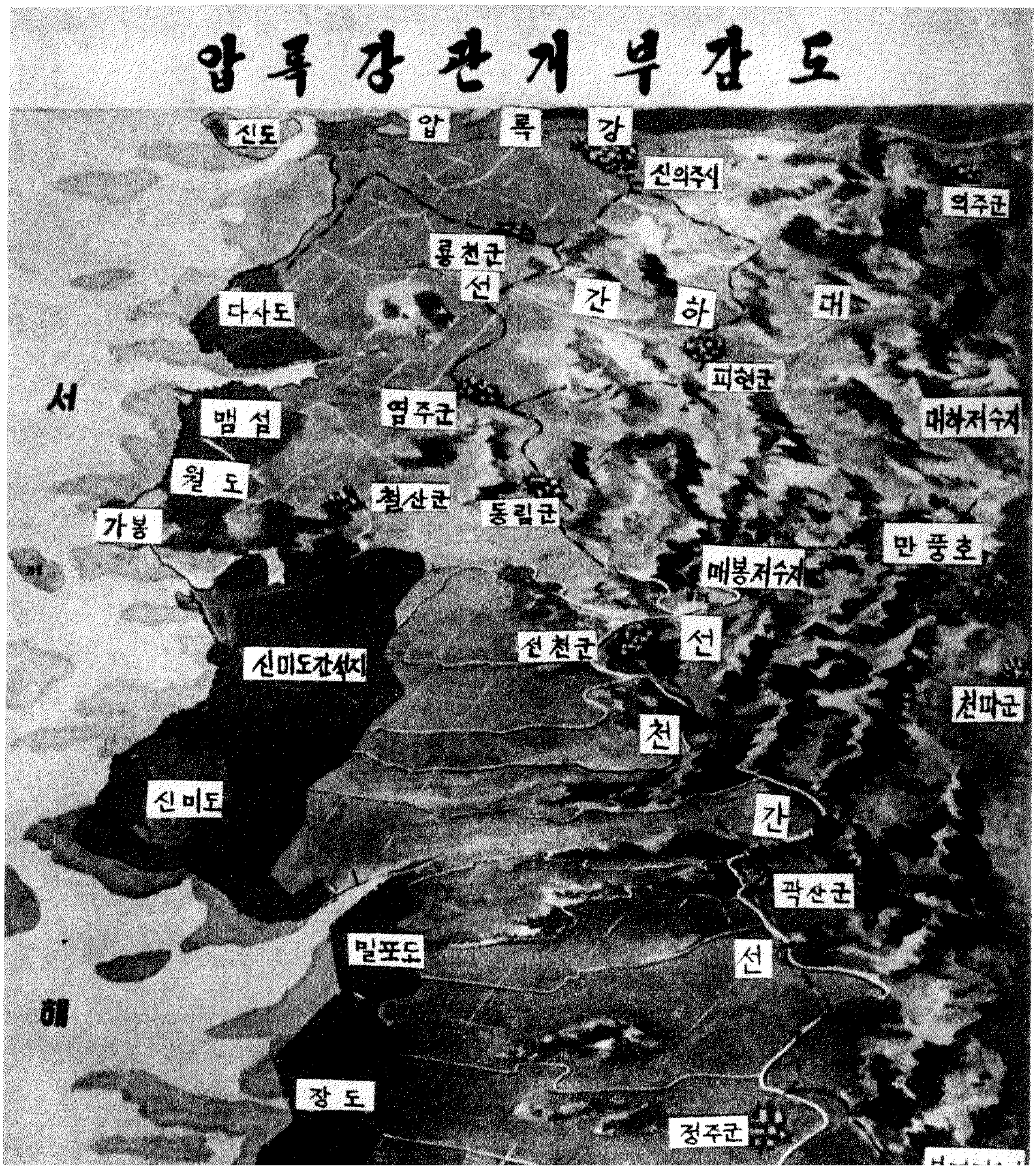


새로 건설된 사리원방직공장의 일부





기계로 농사짓는 우리 나라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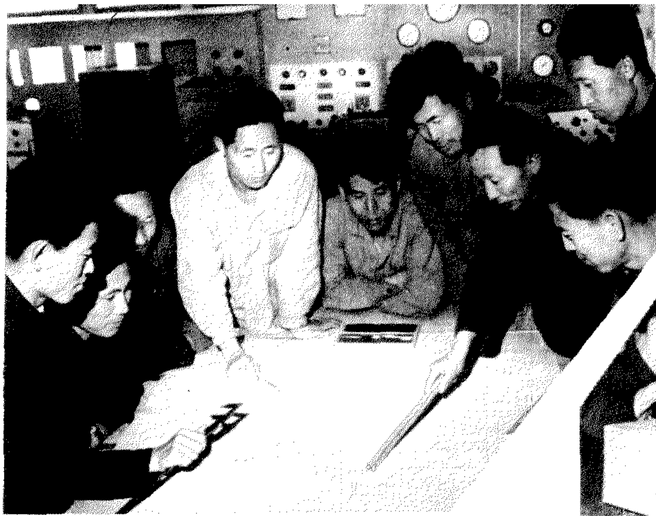
예술인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의 한 장면

예술선동을 활발히 벌려 근로자들의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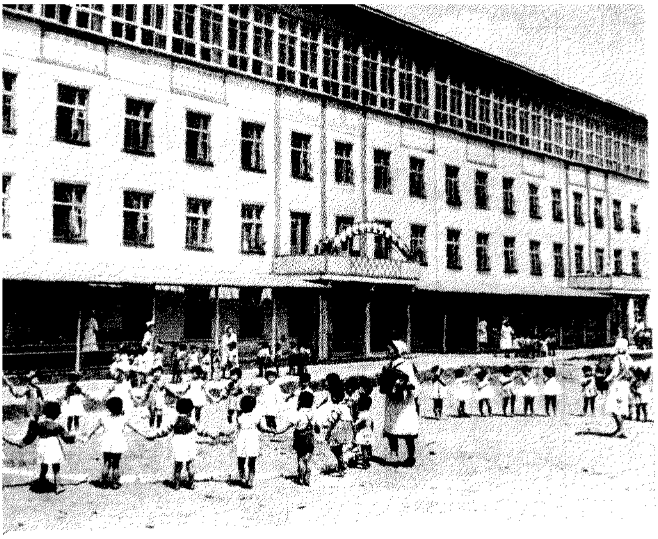
금성뜨락또르공장 자동흐름선
설계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로동자—대학생들

배운 리론을 실험실습을 통하여 익힌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
품속에서 혁명의 새
대로 씩씩하게 자라
김일성종합대학학생



새로 일떠선 송림시애기궁전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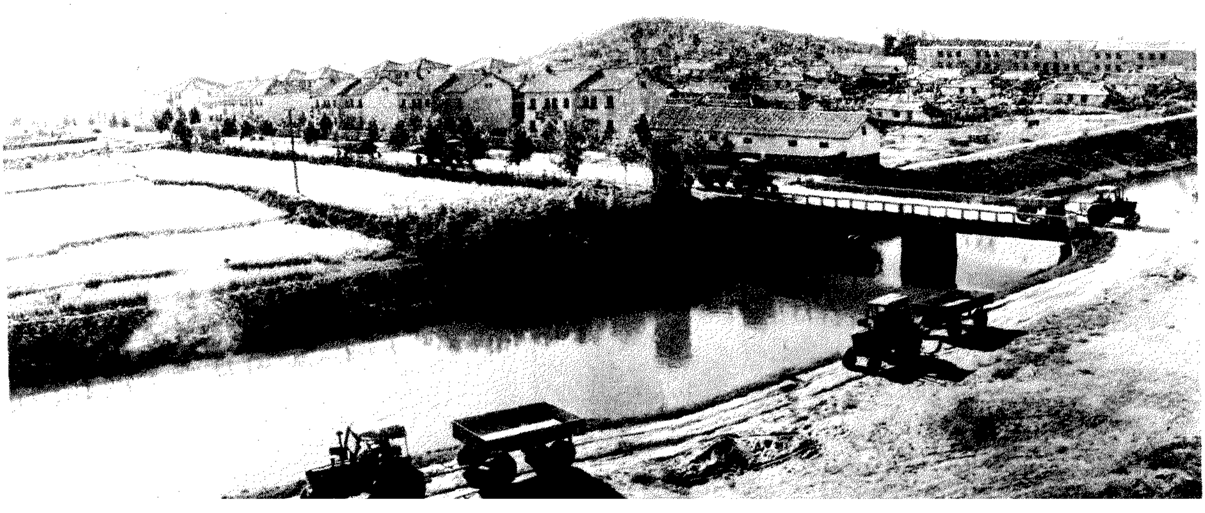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시는 특별한 배려가 돌려지고있다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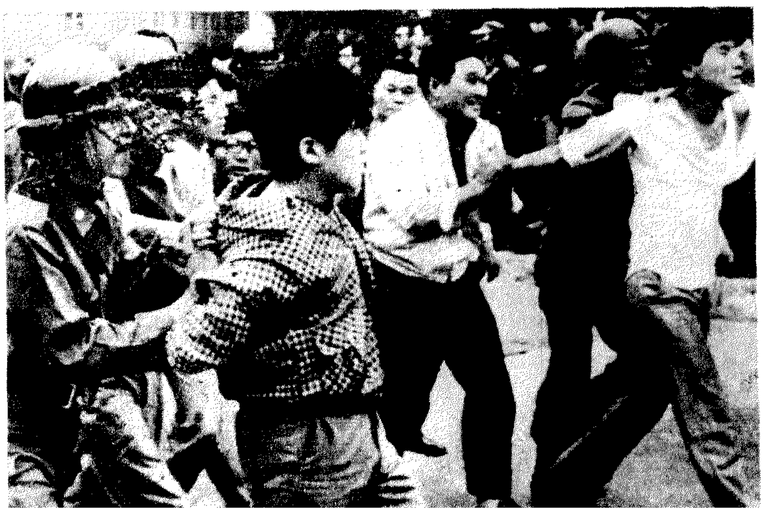
가는곳마다 일떠선 2층농촌문화주택





《10월유신》의 간판밑에 감행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테로통치와 매국죄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소리 높이 웨치며 반《정부》, 반독재, 반외세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 청년학생들





정의의 투쟁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은 박정희악당의 파쑈탄압속에서도 굴하지않고 굿굿이 싸웠다



굶주림과 고역과 학대속에
시달리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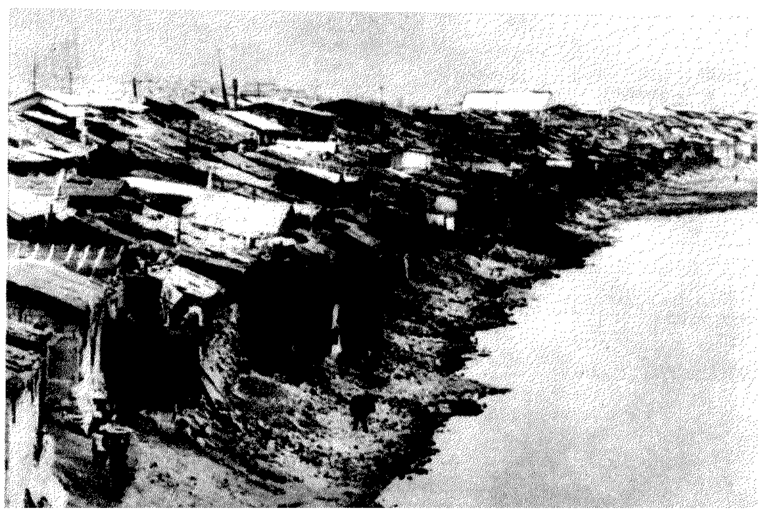
하늘을 지붕삼고 헌 거적때기에
의지하여 살아가고있는 남조선인민
들의 비참한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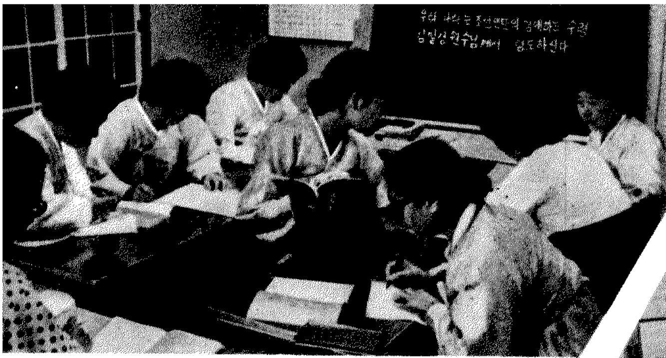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60이
넘은 늙은이도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개천가에서 헌누더기나마 주어야한다

숨막히게 판자집이 빼곡이
들어선 서울 빈민굴의 일부 →





우리 말과 글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있는 재일동포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조선사람찾기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조선》조작책동을 견결히 반대규탄하여 힘찬 시위투쟁에 떨쳐나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영광스러운 공화국국적을 되찾은 재일동포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여 싸우는 재미교포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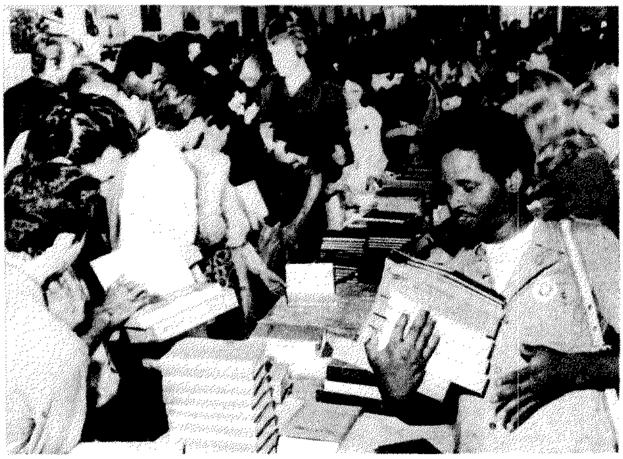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 주석단과 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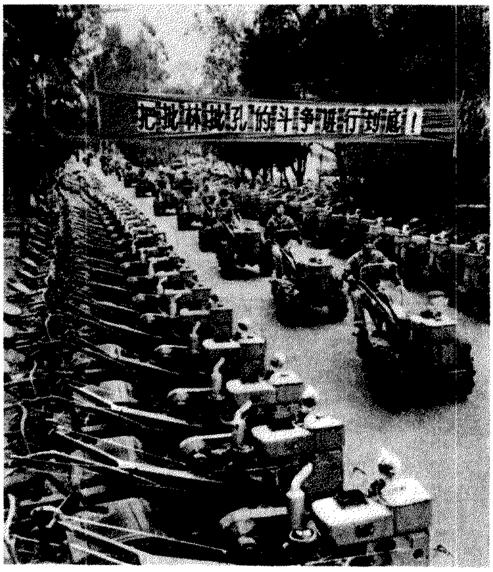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조선문제토의가 승리적으로 끝난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는 여러 나라 대표들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을 앞을 다투어 요구하는 세계 각국 청년학생 대표들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 후아리 부메디엔이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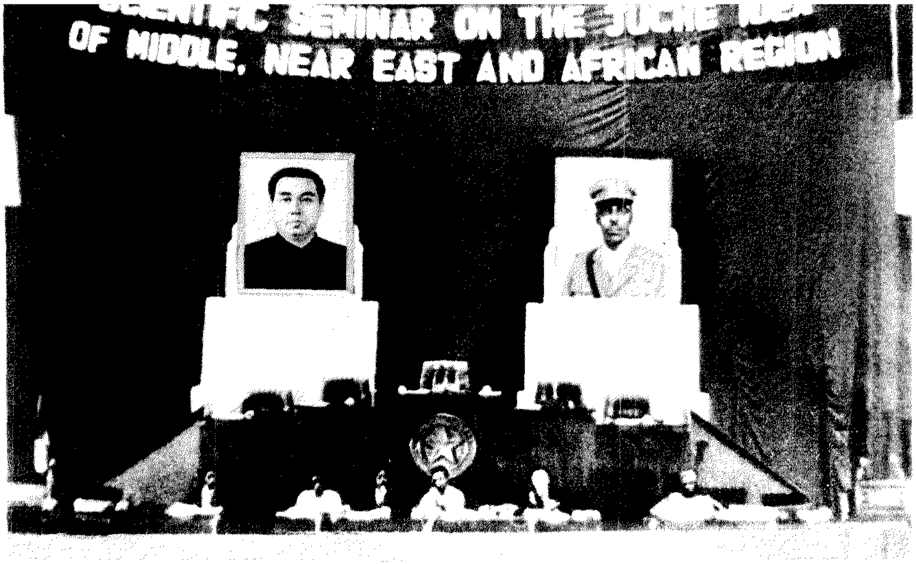
중국에서 손잡이 뜨락또르가 많이 나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또도르 쥡꼬브동지와 함께 함흥에 도착하시였다



꽁고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연도에서 열렬히 환영하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 근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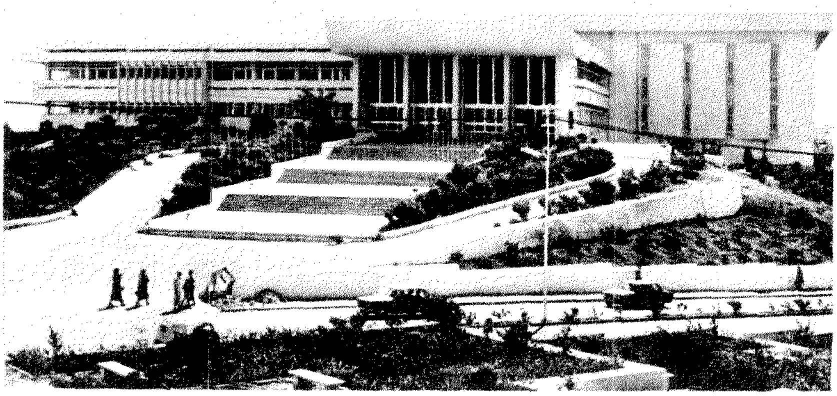
《중근동및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 주석단



↑ 토론을 끝마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주체사상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있는 대표들



《중근동및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 참가자들




속도전

우리 나라 지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조선은 문자그대로 삼천리금수강산이다. 산도 좋고 물도 맑다. 어느곳, 어디서나 좋은 물이 필요되지 않는다. 비옥한 토지에서는 기름진 오곡을 풍성하게 거둘수 있게 하며 동서해안의 무진장한 가지가지의 수산물과 가는곳마다에 매장된 금, 은, 동, 철, 석탄 등 모든 귀중한 자연부원들은 우리 인민들을 모두다 잘 살수 있게 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자리 우리 나라는 아세아대륙의 동쪽 중앙부에서 북남으로 뻗은 조선반도와 그 둘레에 있는 3,3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북쪽끝—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북위43°00′36″)

남쪽끝—제주도 남서쪽바다에 있는 마라도(북위33°06′40″)

서쪽끝—평안북도 룡천군의 마안도(동경124°11′00″)

동쪽끝—울릉도남동쪽에 있는 독도(동경131°52′33″)

우리 나라는 위도상으로 10°사이에 북남으로 길게 놓여있다.

동쪽끝과 서쪽끝의 경도의 차이는 7°41′33″,

시간차이는 약 30분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동경135°자오선 지방표준시를 쓰고있다.

넓이 22만 791Km^2, 그중 섬들의 넓이 5,963Km^2

북남의 가장 긴 거리(섬을 포함하지 않음)825Km(자강도 중강군의 북쪽끝—전라남도 장흥반도의 남쪽끝)

동서의 가장 넓은 거리 354Km(황해남도 장산곶 서쪽끝—남강원도 양양군의 북쪽끝)

북남의 가장 긴거리(섬포함)약 1,100Km, 동서의 가장 넓은 거리(섬포함)약 620Km

경계 조선동해, 조선서해, 조선남해로 둘러싸여있는 해양국이다.

총 둘레의 길이—약 1만Km, 그중 바다경계—8,693Km, 륙지경계—약 1,376Km

땅생김 우리 나라는 북부와 동부가 높고 서해안과 남해안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고있다. 전령토의 75%가 산지이고 벌은 25%이다.

땅생김의 평균높이 482m, 세계 륙지 평균높이 875m의 약 절반이다.

산지; 높은 산지는 북쪽과 동쪽에 치우쳐있다.

북쪽에는 2,000m이상의 산들이 60여개 있다.

산줄기들은 대체로 랑림산줄기와 태백산줄기를 등마루로 하여 여러 산줄기들이 갈라져 나갔다.

랑림산줄기의 동쪽은 넓고 높은 고원을 이루고있으며 고원의 북쪽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2,750m)이 솟아있다.

백두산에서는 백두산줄기가 남동방향으로 뻗어있으며 이 산줄기의 거의 중앙부에서 북동방향으로 함경산줄기, 남서방향으로 부전령산줄기가 뻗어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고 험한 함경산줄기에는 2,000m이상의 산들이 수많이 솟아있으며 그중 가장 높은 관모봉은 2,541m로서 백두산 다음 가는 높은 산이다. 이 함경산줄기와 부전령산줄기의 북서쪽에는 백무고원과 개마고원이 있다.

랑림산줄기 서쪽에는 남서방향으로 강남산줄기, 적유령산줄기가 뻗어있고 그 남쪽에 묘향산줄기, 북대봉산줄기 등이 뻗어있다.

동해안을 따라 북남방향으로 뻗어있는 태백산줄기의 서쪽에는 마식령산줄기, 아호비령산줄기, 광주산줄기, 차령산줄기, 소백산줄기, 경상산줄기들이 뻗어있다.

태백산줄기에는 세계적명승지인 금강산(1,638m)을 비롯하여 설악산(1,708m), 오대산(1,563m), 태백산(1,561m), 1211고지 등 이름난 산들이 솟아있어 아름답고도 장엄한 산악풍치를 이루고있다.

벌; 우리 나라 령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벌은 주로 큰 강들의 중류 및 하류류역과 바다가지대에 펼쳐져있다.

주요한 벌은 조선서해안지대에 룡천벌, 운전벌, 안주벌(열두삼천리벌), 평양언덕벌, 재령벌, 연백벌, 김포벌, 내포벌, 례당벌, 호남벌, 전남벌이 있다.

조선동해기슭에 수성벌, 길주벌, 함흥벌, 영흥벌이 있으며 조선남해기슭에는 진주벌, 김해벌이 있다.

바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이다. 이 바다들은 모두 태평양과 잇닿아있다.

조선동해는 세바다가운데서 가장 크고 깊은 바다이다. 조선동해에는 반도와 만, 섬들이 적다. 비교적 큰것은 호도반도, 경성만, 동조선만, 영일만, 울릉도, 마양도가 있으며 기타 독도 등이 있다.

조선동해에는 북쪽에서 한류인 북조선해류가 흐르며 남쪽에서 난류인 동조선해류가 북쪽으로 흐른다. 밀물과 썰물이 있으나 그 차이는 심하지 않다.

조선서해는 우리 나라 바다가운데서 가장 얕은 바다이다. 여기에는 반도, 만, 섬들이 많다. 주요한 반도, 만, 섬은 철산반도, 옹진반도, 태안반도, 무안반도와 서조선만, 강화만, 신미도, 강화도, 안면도 등이다.

조선서해에는 구로시오에서 갈라져 나온 난류인 서조선해류가 흐른다. 조선서해에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고 얕으므로 넓은 간석지가 펼쳐져있다.

조선남해는 우리 나라 바다가운데서 제일 작은 바다이다. 조선남해에는 해남반도, 제주도, 거제도, 남해도, 진도를 비롯한 큰 반도, 만 등 2,200여개의 섬들이 있어 세계적인 다도해를 이루고있다.

기후 우리 나라는 지리적위치, 태양복사, 대기순환, 바다와 륙지의 영향, 땅생김 등 여러가지 기후형성조건들에 의하여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우리 나라는 기후대상으로 북온대의 남쪽에 있으므로 비교적 따뜻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네철이 바뀌는것이 뚜렷하다. 한해 평균기온이 8~12°C로서 우리 나라 기후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아주 적합하다.

우리 나라 기후는 반도국이지만 바다의 영향보다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덥다.

또한 여름철과 겨울철에 바람방향이 바뀌는 철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름철에는 누기있고 훈훈한 남동풍이 불어와서 자주 구름이 끼여 날씨가 흐리고 무더워지며 겨울에는 차고 마른 북서풍이 불어와서 춥고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봄철과 가을철은 철바람이 바뀌는 때로서 대체로 따뜻하며 개인 날씨가 계속된다. 봄철은 기온이 갑자기 높아

저 증발량이 많아지므로 가장 마른철이며 가을철은 대체로 개인날씨가 계속되고 따뜻한 편이며 날씨가 가장 좋은 철이다.

우리 나라에서 한해평균바람의 속도는 전반적지역에서 약 2~3m/초로서 비교적 약한 편이다.

기온; 우리 나라 기온은 철과 지방에 따라 다르다.

한해평균기온은 10°C이지만(북쪽에서 4°C, 중부에서는 10°C, 남쪽바다가와 바다우의 섬들에서는 14°C) 가장 더운 달인 8월평균기온은 24°C이고 가장 추운 달인 1월평균기온은 −9°C이다.

또한 남쪽바다가의 8월평균기온은 26°C이고 1월 평균기온은 0°C인데 북쪽산지방에서는 8월 평균기온이 16°C이고 1월평균기온은 −22°C나 된다.

바다가지방은 내륙지방보다 기온이 겨울철에는 대체로 4~6°C가량 높고 여름에는 1~2°C가량 낮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은 1939년 7월의 39.8°C(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이며 가장 낮은 기온은 1933년 1월의 −43.6°C(자강도 중강)로 관측되였다.

강수량; 우리 나라의 한해평균강수량은 1,000mm이다. 그의 50~60%는 6~8월 3개월사이에 내린다.

강수량은 지방에 따라 다르다.

한해강수량이 많은 지방은 남쪽바다가지방(1,400~1,500mm), 중부지방의 마식령산줄기와 광주산줄기 사이에 있는 지방(1,000~1,400mm), 북쪽에 있는 저유령산줄기이다.

한해강수량이 적은 지방은 함경북도의 북쪽지방(500mm)과 바다가지방(700mm),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바다가지방 (800mm)이다.

우리 나라에서 강수량이 제일 많은 기록은 1954년 강원도 장전의 3,150.3mm였으며 제일 적은 기록은 1924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의 208.5mm였다.

강 우리 나라의 강은 땅생김의 특성으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흐르는것이 많다.

강은 전체적으로 조선서해비탈면, 조선동해비탈면, 조선남해 비탈면으로 각각 흐르는 강들로 나뉜다.

조선서해비탈면과 조선남해비탈면으로는 땅생김이 동쪽으로부터 서쪽과 남쪽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 락동강 등 큰 강들이 흐르며 조선동해비탈면으로는 산줄기들이 바다가에 급하게 비탈져있어 두만강과 성천강을 내놓고는 모두 짧은 강이 흐르고있다.

우리 나라 10대강으로는 압록강(821Km), 락동강(525Km), 두만강(520Km), 한강(514Km), 대동강(439Km), 금강(401Km), 림진강(254Km), 섬진강(212Km), 청천강(199Km), 례성강(192Km) 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의 강들은 수력발전, 농촌경리의 수리화, 수상운수 등 인민경제발전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호수; 우리 나라에는 천지와 광포, 장연호를 비롯한 수많은 자연호수들과 수풍호, 장진호, 운봉호, 부전호, 독로강호, 연풍호, 서흥호, 장수저수지, 구암저수지, 태성호를 비롯한 많은 인공호들이 있다.

이 많은 호수들은 관개, 수상운수, 물고기기르기, 수력발전 및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온천과 약수; 우리 나라에는 온천과 약수가 매우 많다. 그 가운데서 널리 알려진 온천은 함경북도의 주을온천(경성군), 평안남도의 룡강온천(온천군), 양덕온천(양덕군), 황해남도의 신천온천(신천군), 충청남도의 온양온천(아산군), 경상남도 밀양온천, 부산시 동래와 해운대온천이며 약수로는 강원도의 삼방약수(세포군), 평안남도의 강서약수(강서군), 평안북도의 옥호동약수(선천군), 창성약수, 충청북도 초정약수 등 이외 많은 온천과 약수가 있다.

자연부원 북남으로 길게 놓여있는 우리 나라의 지리적특성은 기후가 다양하고 땅생김과 지질이 복잡한것과 결합되여 우리 나라의 자연계를 더욱 다종다양케하며 또 그것을 풍부케하여주고있다.

지하자원; 우리 나라는 지하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한것으로 세계에 유명하다.

지금까지 알려진것만하여도 300여종이 넘으며 그 가운데서 쓸모있는 광물만하여도 200여종이나 된다. 특히 석탄, 철, 연, 아연, 흑연, 금, 동, 마그네사이트, 월프람 등은 그 량이 많고 질이 좋은것으로 세계에서 손꼽힌다.

산림자원; 우리 나라 산림의 넓이는 전령토의 73%이며 그 가운데서 60%는 북반부에 있다.

우리 나라 산림식물종수는 1,100여종이며 그중 교목만하여도 침엽수가 19종, 활엽수가 136종이나 된다.

산림에는 700여종의 약용식물, 200여종의 산채류, 450여종의 공업용식물 등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유용한 식물이 풍부하다.

섬유 및 제지 식물로서는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황철나무, 닥나무, 노박덩굴, 유지식물로서는 잣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초피나무 등이 있다. 산과실나무로서는 밤나무, 돌배나무, 들쭉나무, 살구나무, 머루, 다래, 산딸기, 매지나무, 물감원료를 얻는 나무로서는 시닥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특수용재를 얻는 나무로는 참대, 오동나무, 황경피나무 등 기타 많은 나무들이다.

수력자원; 우리 나라는 수력자원이 세계적으로 풍부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000만KW이상의 수력자원을 가지고있다. 수력자원이 많은 강들은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그리고 림진강, 한강, 금강, 락동강 수계 등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수력자원이 많은 지역은 압록강류역과 두만강류역이다.

수산자원;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이므로 수산자원이 세계적으로 풍부한 나라의 하나이다.

조선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사귀는 지역이므로 한류성물고기들과 난류성물고기들이 모여오는 세계4대어장의 하나의 일부에 속한다.

우리 나라 수산자원은 물고기만하여도 650여종이나 되며 그 가운데 530여종은 바다에, 120여종은 호수, 저수지, 강 등에 분포되여있다.

대표적인 물고기들을 보면 조선동해에는 명태, 고등어, 청어, 대구, 가재미, 방어 등이며 조선서해에는 조기, 새우, 민어, 도미, 삼치, 칼치, 대합조개, 김, 굴, 미역 등이고 조선남해에서는 도미, 고등어, 칼치, 새우 등이다

동물자원; 우리 나라에는 여러가지 동물들이 많이 살고있다.

척추동물만 하여도 1,000여종이나 되며 그중 100여종은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특산종이다.

대표적인 동물은 사슴, 노루, 산양, 메돼지, 범, 표범, 곰, 늑대, 시라소니, 수달너구리, 오소리, 두더지, 토끼, 족제비, 고슴도치, 다람쥐 등과 새들이 있다.

리로운동물들은 우리에게 좋은 털과 가죽, 고기와 약재를 얻게 하며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리로운 동물을 보호증식하기 위하여 많은 산들에 《자연보호구》를 정해놓고 관리한다.

우리 나라 력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단일민족이며 옛날부터 외래침략자들과 력대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온 용감하고 패기있는 민족이며 인류의 과학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재능있는 민족입니다.》(《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단행본 12~13페지)

고대 및 중세

우리 인민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이 땅에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왔다.

우리 나라 구석기시대의 전기유적으로서 수십만년전의것인 평양시 상원군 검은모루유적과 구석기시대의 중세기에 속하는 굴포문화 제1기층, 후기에 속하는 굴포문화 제2기층의 사료들은 우리 조상들의 시원과 생활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조상들은 기원전 5천년경에 신석기시대로 들어왔으며 사람들은 원시무리의 생활로부터 벗어나 원시공동체생활을 하였다.

기원전 2천년대에는 청동기를 발견하여 썼으며 기원전 천년대에는 철기를 사용하였다.

생산도구의 개선은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와 아울러 원시공동체사회는 붕괴되고 생산력발전의 필연적산물인 노예소유자사회가 생겨났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고대국가는 기원전 8~7세기 이전에 조선반도의 서북지방과 북쪽으로는 료하류역에 이르는 지역에 자리잡았던 고조선이였다. 고조선은 동방에서 강한 국력과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있었다.

고조선보다 몇세기 늦어서 송화강류역의 넓은 평야지대에 형성된 고대국가는 부여이며 부여보다 1~2세기 늦어서 조선반도의 중부이남에 고대국가 진국이 형성되였다.

이 노예소유자국가들은 중앙집권적인 나라들이였으며 농업을 주되는 생업으로 하면서 목축도 하고 철을 녹여 생산도구를 만들어 썼으며 기타 수공업을 하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고대국가들의 종말과 봉건국가들의 성립은 대체로 기원전후시기였다.

기원전 1세기에 압록강의 지류 동가강류역에 자리잡은 5개의 강력한 봉건세력들의 련합으로 고구려가, 기원 1세기경에는 한강류역 즉 오늘의 광주를 중심으로 5개의 봉건세력들의 련합으로 백제가, 2세기경에는 오늘의 경주(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6개의 봉건세력들의 련합으로 봉건국가 신라가 형성되였다. 이 세나라는 7세기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기원전후시기 봉건국가의 형성과정이 진행되였을 때 료하류역으로부터 반도의 남단에 이르기까지에는 수많은 봉건《소국》들이 있었다. 이 세나라도 각각 처음에는 그러한 소국들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발전과정에서 이웃의 《소국》들을 많이 정복통합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사이(오늘의 락동강연안)에 자리잡고있었던 6개의 가야(가락)국들은 6세기전반기까지 존속하였다.

농업을 주되는 생업으로 하면서 목축업도 당시로서는 발전된 수준에 있었던 고구려는 국민들속에서 달리기와 말타기, 활쏘기와 칼쓰기 등 무술을 배우는 일을 장려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였다. 때문에 고구려는 6세기말에 수차에 걸치는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쳤으며 특히 612년 수백만 수나라 침략군의 주력을 청천강에서 격파하고 외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였다.

백제, 신라, 가야 사람들은 활발한 해상활동을 진행하였다.

7세기후반기에 이르러 조선반도에서는 신라가 그 력량이 강화되면서 660년에 백제를 통합하고 668년에 고구려멸망후 그 남쪽지역을 통합하였다.

고구려의 북부지역인 료하, 송화강이남은 한때 당나라 침략군에 의하여 강점되고 있었으나 7세기말에 이르러 고구려귀족들이 침략군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리용하여 발해라는 봉건국가를 세웠다. 발해봉건국가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한때는 광대한 령역과 비교적발전된 봉건문화를 가진 나라로 약 2세기동안 존속하였다.

당시 봉건국가들은 농업을 주되는 생업으로 하였으며 목축도 당시로서는 발전된 수준에 있었다.

고대국가들의 과학, 문화를 이어받은 고구려, 신라, 백제, 발해 등의 나라들이 매우 발전된것으로 자랑한것은 천문학, 건축술, 그림, 공예를 비롯한 문화이다.

특히 오늘까지 남아있는 고구려의 벽화무덤들과 신라의 첨성대는 비록 당시 봉건귀족들에게 복무하기는 하였으나 거기에는 우리 인민들의 과학적 창조력과 슬기로운 예술적재능이 발양되여있다.

9세기말 10세기초에 이르러 지방봉건세력들 서로의 충돌과 대규모의 농민폭동으로 통합신라가 약화되는 기회를 리용하여 개경(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세력이 918년에 중앙집권적인 봉건국가 고려를 세웠다. 935년에 신라왕조를 통합하고 그 이듬해에는 그의 가장 큰 적수였던 후백제를 정복하고 조선반도를 통합하였으며 이 시기 거란에 의하여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고려는 10세기이후 봉건적중앙집권적국가로서 강화되여갔다. 고려인민은 10세기말 11세기초 근 30여년에 걸쳐 거란침략자들이 여러번 침략하여왔을 때마다 적들을 물리쳤으며 특히 그 마지막 침략인 1018—1019년 전쟁에서 놈들에게 호된 징벌을 가하였다. 13세기 봉건몽골침략군과의 싸움에서도 고려인민은 애국심을 발휘하여 나라의 독립을 지켜냈다.

고려인민은 12세기후반기 이후에는 봉건통치계급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대규모의 농민폭동으로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고려시기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고려자기가 유명하였다.

1392년 고려를 교체하여 리조(리씨왕조의 준말, 정식이름《조선》)봉건국가를 세웠다. 정권을 잡은 리조의 통치배들은 중앙집권적봉건국가의 체제를 강화하고 통치질서를 정비해가면서 인민들에 대한 봉건적착취를 강화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억압을 더는 참을수 없게된 농민들은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큰 폭동을 일으켰다. 15세기 후반기에 함경남도를 휩쓴 농민폭동은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리왕조가 성립된 초기에는 봉건문화가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 글자 《훈민정음》이 창제되였으며 세계 최초의 측우기가 발명되였다.

16세기말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나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

은 일본침략자를 반대하여 의병부대들을 조직하여 도처에서 침략자들에게 호된 징벌을 가하였으며 바다우에서는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해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히였다.

1592—1598년 7년간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는 조선인민의 영예를 수호하였으며 동남아세아지역에 대한 일본해적들의 침략을 저지파탄시키는데도 기여하였다.

전쟁에서 파괴는 심하였으나 전후 근면한 우리 인민은 봉건적질곡아래에서도 생산을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갔다.

17세기후반기부터는 상품—화폐관계가 장성하였고 18세기이후에는 광산과 일부 수공업부문들에서 자본주의적생산관계의 요소들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현상을 반영하여 일부 량반 지식분자들속에서 당시에는 선진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학풍—실학이 대두하였다.

18세기 이후 특히 19세기에 들어와서 리조봉건체계는 더욱 부패타락하였다.

고대, 중세의 전기간을 통하여 압제자를 반대하여 투쟁을 멈춘일이 없었던 우리 인민은 부패타락한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1812년 평남도지방에서 대규모의 농민폭동이 벌어졌으며 1862년에는 삼남일대에서 농민폭동을 일으켜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근대 및 현대

조선인민의 근대력사는 19세기 60년대 미제침략자들을 비롯한 구미자본주의렬강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오래동안 우리 나라의 사회발전을 억제하던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반침략반봉건투쟁으로써 시작되였다.

우리 인민은 1866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근방까지 침입한 미제침략자들의 해적선 《샤만호》를 불태워버림으로써 근대사의 첫페지를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이때 인민들의 투쟁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우시여 위훈을 떨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같은해인 1866년 프랑스함대와 1871년 미국함대의 침입도 성과적으로 격퇴하였으며 1875년 일본해적선 《운양호》가 강화도에 침입하여 날강도적인 해적행위를 감행하는것을 성과적으로 격퇴하였다.

1876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리조봉건통치배들을 무력으로 위압하면서 불평등적인《강화도조약》을 강압체결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는 반식민지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강화됨에 따라 일본침략자들과 이에 아부굴종하는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1882년 임오군인폭동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반침략반봉건투쟁이 강화되였다.

1884년 개화파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 부르죠아혁명인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이 부르죠아혁명은 나라의 봉건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새로운 자본주의발전을 지향한 진보적혁명이였고 외래침략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 나라의 자주성을 고수하기 위한 진보적운동이였으나 외래침략자들 및 그와 결탁한 반동적봉건통치배들의 탄압과 운동지도자들의 사회정치적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다.

19세기말 20세기초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적으로 진행되자 조선인민의 반제반봉건투쟁은 대중적성격을 띠고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894년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구호밑에 전라도를 비롯한 조선 남부의 넓은 지역을 휩쓴 대규모적인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다. 이 농민전쟁은 일제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 나라 사회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재정, 군사, 정치적 원조밑에 1894—1895년 중일전쟁에서 이길수 있었고 1904—1905년 로일전쟁당시 미국과의《가쯔라—타프트》협정에서 조선강점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은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1905년 11월에 자기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강압적방법으로 우리 나라 봉건통치배들에게 《을사5조약》을, 1907년에는 《정미7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빼앗았으며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강압체결하여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독점적식민지로 강점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1910년대에는 포악무도한 헌병경찰의 《무단통치》를, 1920년대에는 기만적인 《문화통치》를 실시하였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악랄한 식민지파쑈테로통치를 감행하면서 조선인민의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고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깡그리 략탈해가려고 책동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일제의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굴러떨어지게된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국내외 각지에서 각종형태의 투쟁을 벌리였다.

1910년 망국당시를 전후하여 근 10년동안이나 반일의병운동이 계속되였으며 만주에서는 독립군의 운동으로 일본강도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적의 폭정하에서 비밀결사와 애국문화운동 등으로, 국외에서는 혁명단체들의 조직 또는 반일무장투쟁으로 민족해방운동은 끊임없이 전개되였다.

1919년 전민족적인 3.1인민봉기가 일어났다.

이 모든 각종 형태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조선인민의 애국적투지와 혁명적정력을 시위하고 일제강점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나 부르죠아민족주의의 계급적 및 정치적제약성으로 인하여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동계급이 자라나 투쟁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맑스—레닌주의사상이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더욱 앙양되였다. 이러한 토대에 기초하여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조선공산당의 창건은 로동운동과 농민운동,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파괴책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창건된지 3년만에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일제강점후 1920년에 이르기까지의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이 많은 결함과 부족점을 나타내면서 실패와 곡절을 겪고있을 때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민족을 새 력사의 려명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7년 3월 23일 조선사람 자체의 힘으로 조선독립을 자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철저한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시고 반일운동의 지도적중심에 서시여 혁명활동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시였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3.1운동후 1920년대 중엽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와 위대한 길을 개척하시면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치시였다.

1920년대말 1930년대초에 일제의 파쑈적폭압은 전례없이 심하여졌으며 우

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었다.

일제의 파쑈적폭압으로 로동자,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들은 놈들에게 폭력으로 항거하여나섰다. 그러나 일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수령에 의한 통일적령도가 없는탓으로 선행시기의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자연발생성과 분산성을 면치못하고 일제의 무력적폭압에 의하여 실패하였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며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과학적전략전술을 제시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줄 탁월한 령도자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정세의 요구를 가장 명확하게 통찰하시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로써 확고한 승리에로 우리 인민을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 ㄷ)을 결성하시고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길림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신 초기 혁명활동과정에 조선혁명의 지도리론을 세우시였으며 확고부동한 혁명적원칙성과 불굴의 의지, 능숙한 조직력과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높은 령도예술을 지니신 걸출한 혁명가로, 조선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성장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에 카룬에서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가장 정확한 주체적혁명로선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일대전환을 이루는 새로운 력사적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에 기초하시여 1932년 4월 25일 민족군대의 토대도 없고 국가적인 후방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조선인민의 첫 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광범한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전개하시였다. 바로 이 시기 그이께서는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혁명의 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처음으로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여 혁명의 골간을 하나하나 키우시고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시면서 그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발전시켜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2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주체적혁명로선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1936년 5월에 대중적인 혁명조직으로서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으며 백두산근거지에 새로운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과 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키시였다. 이 시기에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친솔하시고 국내 깊이에 진출하시여 적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벌리시여 보천보전투를 비롯한 무산지구전투를 진행하심으로써 일제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에서 조성된 국내외정세에 대처하여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을 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수많은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적후방 특히 국내깊이에까지 파견하시여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국해방위업의 성취를 위한 반일반전투쟁에로 인민대중을 세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은 력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조국은 근 반세기에 걸친 강도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최고형태의 반제민족해방투쟁으로서 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떨치고 민족의 영예를 고수한 자랑찬 투쟁이였으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이룩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으며 오늘도, 래일도 우리 혁명승리의 힘의 원천으로 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조선인민의 민족적숙망인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시였으며 이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마침내 근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며 조선인민앞에는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조선 건설의 휘황한 앞길이 열려지게 되였습니다.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됨으로써 이제 우리앞에는 새로운 투쟁과업이 나서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성과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켜야 하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단행본, 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 따라 조선인민은 조국의 새 력사창조의 길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어렵고 복잡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공산주의대오를 급속히 정비하고 인민대중을 묶어 세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통일적인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1945년 10월 10일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공산당을 창건하시고 그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시는 한편 당의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을 조직하는 사업과 민주주의정당들과의 행동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하심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한편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1946년 2월 8일 새형의 정권기관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세우심으로써 혁명에서 기본문제인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인민정권을 령도하시여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사법 및 교육의 민주화등 제반 민주주의적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반부에서 제반민주개혁과 민주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하시면서 우리 나라 정치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1946년 8월 공산당을 신민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강력한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시키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해방후 한두해밖에 안되는 동안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승리적으로 완수된 결과 새로운 사회경제적관계가 이루어지고 인민민주주의제도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담보인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혁명의 과업은 완전히 수행되였으며 북반부인민들은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점차적으로 들어서게 되였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48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를 실시하시고 이에 기초하시여 1947년 2월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시였으며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개변을 위한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시고 그를 경제건설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 첫시기 당의 경제정책과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우선 1947년도 및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였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튼튼히 꾸리시는 한편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와 민족,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군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1948년 2월 8일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령도하여 나가시면서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며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당면한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조선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더욱 로골화되는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며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로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시였다.

1948년 8월에 진행된 남북조선 총선거에 기초하여 그해 9월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이것은 자주적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민족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49—1950년 2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에로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여 1950년상반기에 기본적으로 완수하였다. 결과 인민경제는 전반적으로 복구되였으며 일련의 생산부문은 해방전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1948년에 남조선에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강화하였으며 1950년 6월 25일 드디여 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침략무력은 물론 15개 추종국가군대들을 동원하여 방대한 병력으로 일찌기 전쟁력사상 그 례를 볼수없는 야만적인 전쟁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덤벼들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전령토를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공격기지로, 보급기지로 제공하였으며 군사인원과 선박들 특히 악명높은 세균전쟁전문가들까지 조선전선에 동원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이 개시되자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였으며 당과 정부와 군대,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체 조선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며 후방을 공고화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령도하시였으며 전쟁의 매시기, 매계단마다 천재적이며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세우시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장병들은 남반부지역을 해방하는 반공격과 일시적인 전략적후퇴, 재진격과 진지방어의 가렬한 전투의 나날에 언제나 신심 드높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그리하여 적들이 호언장담하던 1950년말의 《크리스마스》공세도, 1951년의 《하기 및 추기공세》도, 1953년의 《신공세》의 기도도 모조리 물리치고 미제에게 만회할수 없는 군사정치적패배를 안기였다.

한편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후방공고화방침을 받들고 후방의 전체 인민들은 전쟁의 전기간 적들의 야만적폭격속에서도 전시생산과 전선원호 사업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는 적후에서 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도처에서 원쑤들을 족쳤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과 인민군은 3년간에 걸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주고 39만7,000여명의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109만 3,800여명의 적을 살상포로하였으며 1만2,200여대의 비행기와 250여척의 각종 함선을 비롯한 막대한 전투기술기재에 손실을 주었다.

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승리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자유독립과 민족적영예를 굳건히 지켜내였으며 미제의 전쟁음모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였다.

또한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림으로써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고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미투쟁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어려운 형편과 우리 혁명의 전망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전후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1권, 401페지)

수령님께서는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쟁전수준을 회복할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1954—1956년)의 수행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들은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줄기찬 투쟁을 벌린 결과 3~4년밖에 안되는 동안에 공업과 농업 생산은 전쟁전수준을 회복하였을뿐아니라 훨씬 넘어서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후경제건설사업과 병행하여 농촌경리의 협동화, 도시수공업과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시였다. 그리하여 3개년계획기간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 특히 농업협동화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복구의 어려운 과업이 승리적으로 완수되여감에 따라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를 소집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완성하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5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1차5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156페지)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선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자재도, 자금도 모든것이 모자랐다. 더우기 이 시기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과 파괴활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당안에서는 반당종파분자들이 우리 혁명을 반대하고 우리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책동을 감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엄숙한 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로 확신성있게 이끄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속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운동이 발단되였으며 더욱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였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혁명을 계속 다그쳐 1958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승리적으로 완성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서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리시였으며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면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심으로써 전사회를 붉은 일색으로 꾸려나가시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문화혁명수행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특히 인민교육분야에서는 1958년에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인 중등의무교육제(7년제)가 실시되고 민족간부들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보건분야에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과학발전에서도 큰 성과가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문학예술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진실로 당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개화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확고히 견지하여 오신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여 당, 국가 및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5개년계획은 공업총생산액적으로는 2년반동안에, 현물지표별로는 4년동안에 넘쳐 수행되였다. 알곡생산도 급격히 장성하였으며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다.

5개년계획이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1961년 9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승리를 총화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한 7개년계획의 전망과업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08페지)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당면하게는 7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조직동원하시면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잘 관철할수 있도록 공업관리에서 새로운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였으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내오시였다. 그리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나라의 생산력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 2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여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우리 농촌을 착취와 억압에서뿐아니라 온갖 세금과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유족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시였다.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기간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여 우리 나라 안팎의 정세는 더욱 긴장하여졌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는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여 우리 혁명과 건설에는 커다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이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인민경제를 개편하는 일련의 대책을 취하시였다. 또한 1966년에는 당대표자회의에서 현시대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변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내리신데 기초하시여 반제반미투쟁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의 전략적방침을 당의 확고

부동한 로선으로 규정하시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방침, 투쟁과업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를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54페지)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전체 인민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강력히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혁명로선을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두전선에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함으로써 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온사회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고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는 자위적인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였다. 1957—1970년에 걸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결과 지난날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14년밖에 안되는 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고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우리의 혁명기지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7개년계획기간에 문화혁명수행에서 더욱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전반적9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기술자, 전문가들의 수는 4.3배나 장성하였으며 과학발전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고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은 찬란히 꽃피여 《세계최고봉의 예술》로 당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여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온 사회가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다.

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온사회를 요새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어떠한 침략자라도 능히 때려눕힐수 있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수립되였으며 국방공업발전에서도 큰 성과가 이루어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는 동시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과 매시기 투쟁과업을 정확히 제시하시고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확고히 인도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1960년 4월 19일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 리승만괴뢰정부를 무너뜨리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남조선에 군사파쑈통치를 수립하고 혁명력량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을 때에도 원쑤들의 온갖 야수적폭압을 박차면서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1965년 미제와의 공모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괴뢰도당과 오래동안 끌어오던 《한일회담》을 서둘러 결속시키고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전면적으로 기여들어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분야에 걸쳐 미제다음가는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이 엄중한 현실앞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다.

그들은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새형의 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을 조직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매국적《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의 3.24—6.3봉기,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년 8월투쟁, 1967년의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 의원《선거》반대투쟁을 벌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놈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계속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고 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3대혁명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리정표로 될 6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으며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내놓으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전진할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에 충만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대회에서 펼쳐주신 휘황한 대로를 따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를 높이 들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더욱 빛내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 나가고있다.

조 선 로 동 당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은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가장 혁명적인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근로자들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선진투사들로써 조직된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 우리 나라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여 투쟁하는 정치적조직으로서 그 투쟁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조직동원하며 이끌어나가는 선봉적부대일뿐 아니라 당원이 당조직에 복종하고 모든 당조직들이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하며 전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드는 유일한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된 부대이며 그이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유일한 규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적부대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시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인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의 사상체계,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직접 이어 받았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하나로 뭉친 사상의지의 유일한 체현자이시며 유일한 중심이시며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심장이시며 지도에서의 최고뇌수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의 사상체계는 우리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당이 로동계급의 선봉대, 조직적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놀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와 부르죠아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것이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수행될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세련되고 로숙해지면서 언제나 청춘의 정열이 솟구치는 혈기왕성한 전투적당으로 그 위력을 높이 발휘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초시기 벌써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일환으로서 당창건에 앞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을 내놓으시고 몸소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피어린 불길속에서 로동자, 농민 출신의 공산주의핵심을 키우시고 그 대렬을 부단히 늘임으로써 앞으로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시였으며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사상을 반대하는 원칙적투쟁을 통하여 유일적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 대오의 완전한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하시였으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여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굳건히 다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이 있고 그이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가 있음으로하여 해방후 안팎의 원수들의 준동이 심하고 엄혹한 난관과 시련이 중첩된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지체없이 견고한 토대우에서 가장 혁명적인 우리 당을 창건할수 있었으며 창건된 첫날부터 당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능숙하고 정확하게 이끌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건한 당을 조선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로서, 우리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강유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조성된 주객관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대중적당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1946년 8월 28일 공산당을 신민당과 합당하여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시키시였다. 공산당이 로동당으로 발전됨으로써 근로대중을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었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1949년 6월 남북로동당을 통합하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심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 그리고 그 대렬안에 끼여든 간첩도당들의 책동에 의하여 파괴에 직면한 남조선당사업을 수습하고 남북로동당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계급적관계, 대중의 준비정도 등을 깊이 헤아리시고 당장성사업에서 좌경관문주의적편향을 제때에 바로 잡아주시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농민, 인테리 등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로 당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도록 하시는 한편 대렬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를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하심으로써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대중적당건설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에 기초하시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이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습니다. 이것이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게 한 기본요인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502~503페지)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히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정력적으로 진행하여왔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곧 위대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한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다. 따라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기초로 된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종파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부르조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를 뿌리빼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조직진행하였다.

오늘 당안에는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차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주체형의 피로만 끓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며 사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그이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의 교시라면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만이 온 당안에 넘쳐흐르고있다.

이리하여 전당의 사상의지의 통일단결은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사업의 기본고리는 사람과의 사업으로 보시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사업을 시종일관 줄기차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고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데 있으며 당건설의 기초도 바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당생활을 강화하여야만 당원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지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515페지)

수령님께서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고 강화하는것을 당사업의 기본고리로, 당건설의 기초로 규정하시고 이에 힘을 집중하게 하심으로써 당원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그를 공고화시켜 주시였다.

그리하여 당원들은 당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불굴의 혁명투사로 조선혁명을 완전히 책임지고 주인다운 립장에서 제힘으로 당당히 수행해나갈수 있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자로 자라나 자기들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여 나가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기본원칙인 키잡이에 관한 창조적사상,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대중지도의 탁월한 사상과 방법인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여 전당에 일반화하도록 하심으로써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온 당을 지배하게 되였다.

우리 당이 이와 같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화발전됨으로써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청춘의 기백과 혁명적전개력으로 생기발랄하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고 패기있게 이끌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에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짐으로써 조선혁명을 주동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놓았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힘으로써 조국의 자유독립과 민족의 영예를 굳건히 지켜냈을뿐아니라 미제의 전쟁확대음모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보위하였으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또한 우리 당은 전후 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또 능숙하게 조직지도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와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하고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다.

당은 사회주의기초건설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자 곧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과업,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7개년인민경제계획실행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였다.

이리하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당 제5차대회는 우리 나라를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길을 따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와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혁신과 기적이 일어나며 로동당시대창조물들이 일떠서 세인을 경탄케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이와 같이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보루로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또한 조선로동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 부대로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할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세계 혁명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짓부시는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제3세계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이지역 인민들의 해방투쟁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건설과 그 발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령도의 전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온 자랑찬 력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가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창건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였고 령도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 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기본혁명과업으로 삼고있다. 또한 우리 국가는 주권의 실제적주인인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위하며 활동하는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내세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공화국은 지난 기간 자랑찬 승리의 로정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25년동안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방후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된 기초우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46년 2월 8일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서의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시켰으며 1946년 8월 10일에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는 등 제반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고 자체의 민족간부대렬을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여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짧은 시일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되고 북반부에서 점차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갈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1947년 2월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시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경제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거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이룩하며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에 조성된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통일정부수립에 모든 힘을 다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1948년 8월에 남북조선 전체 지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승리적으로 실시하고 이 승리에 기초하여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의 구현으로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의 모든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데 대한 1955년 4월 테제에 따라 공화국정부는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958년 8월까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는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을 두고 그토록 념원하여온 착취와 압박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는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불과 14년(1957—1970년)동안에 우리 나라를 자립적인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공산주의건설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길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하였다. 공화국은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들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까지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있다.

오직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3대혁명수행에서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날에날마다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을 떨치고있다.

참으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는 지난 기간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이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해놓았으며 그 토대우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공화국은 지난 기간 이룩한 사회경제변혁에 기초하여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끊임없이 륭성발전하고있다.

이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다.

우리 나라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로서 근로인민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있으며 국가가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가장 인민적인 사회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또한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근로자들 사이의 동지적협조관계가 날로 강화발전하는 가장 공고한 사회제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작성된 사회주의헌법은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과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있으며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규제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은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법적으로 옹호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50페지)

새로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은 지난기간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 투쟁에서 이룩한 정치적승리와 경제분야에서의 세기적변혁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성격과 임무, 활동원칙들과 함께 사회경제발전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을 규제하고있다. 헌법은 또한 문화건설분야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방향과 여기에서 국가가 견지해야 할 원칙들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또한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옹호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주인다운 역할을 높이고 사회적의무를 다할수 있게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규제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헌법은 또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의 력사적경험과 국가기관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발전된 사회주의국가기관체계를 규정하고있다.

새로운 국가기관체계는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주권기관체계(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및 각급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행정기관체계(정무원, 지방각급행정위원회), 재판 및 검찰 기관체계로서 구성되였다.

새로운 국가기관체계의 주요특징은 우선 주석제를 새로이 내오고 전통적인 인민위원회 형태에 의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적인 국가지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활동에서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보장한것이다.

또한 인민위원회와 각급 행정기관을 분리시키고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인민위원회가 행정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인민대중을 국가기관에 널리 참가시키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제1기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8월 25일, 제2기 최고인민회의는 1957년 8월 27일에, 제3기 최고인민회의는 1961년 10월 8일에, 제4기 최고인민회의는 1967년 11월 25일에 선거하였다. 제5기 최고인민회의는 1972년 12월 12일에 선거된 541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되고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옳게 실현되도록 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무기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국가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임기는 4년이다. 공화국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로서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지도하며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공화국주석은 또한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며 국가의 일체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공화국주석은 또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을 공포하며 명령을 낸다. 그리고 특사권을 행사하며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폐기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중앙인민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각급 지방인민회의는 1972년 12월 12일에 선거한 대의원들로 구성하고있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이다.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고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적집행기관

【정무원】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들, 부장들,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하고 있다.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되여있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 및 검찰 기관

【재판소】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

다.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검찰소】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 특별검찰소가 한다.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해임한다.

조 선 인 민 군

조선인민군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8년 2월 8일에 창건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직접적계승자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군대이며 당의 군대, 로동계급의 군대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로서, 로동당이 령도하는 혁명무력으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써 조직된 군대이며 상하가 일치단결되여있고 인민들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61~362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몸소 이룩하신 혁명무력건설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시여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진도를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해방직후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세우시는것과 함께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45년 11월에 평양학원을, 1946년 7월에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비롯한 군사정치간부 양성기지들과 각 군종, 병종부대들을 내오시고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준비한데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는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독창적인 위대한 군사강령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가질데 대한 력사적숙망의 실현이였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군의 반석같은 통일단결,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와 무장대오조직에서의 계급적원칙,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굳은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각적군사규률과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 혁명적동지애와 인민적사업작풍, 주체적인 군사적전략전술과 전법, 혁명적생활질서 등 끝없이 고귀한 혁명무력건설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력한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창건하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지도와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폭풍속에서 그를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조선인민군은 평화적건설시기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빈번한 적대행동과 군사적도발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새 생활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과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보위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용감히 싸움으로써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전당, 전민, 전군을 전쟁승리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으며 전쟁의 매 단계마다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주체적인 전법들을 내놓으시고 인민군대로 하여금 언제나 전투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에게 련속 섬멸적타격을 주게 하시였다.

수령님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인민군 장병들은 그이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면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략전술적방침과 명령, 지시를 무조건 관철하여나갔으며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키는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비롯한 15개 추종국가 무력침공자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주고 놈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고수하고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굳건히 지켜냈을뿐아니라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려버리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세계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우리 인민군대는 전후시기에도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군사파쑈도당들의 군사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해버리고 사회주의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과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동시에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전국가적, 전인민적 힘이 돌려지게 하시였으며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독창적인 자위적군사로선의 성과적관철에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단련된 일당백, 일당천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인민군대안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틀어차고 주체형의 피만이 세차게 흐르고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다바쳐 싸우려는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여 원쑤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는 금성철벽의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직업총동맹을 손수 창립하여주시고 그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당의 외곽단체이며 인전대로서의 광범한 군중의 정치조직인 근로단체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천재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직업동맹이 언제나 자기의 위치에 똑바로 서서 자기의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직업동맹의 총적임무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직맹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동맹사업에 일부 남아있던 행정화의 낡은 틀을 철저히 마스고 완전한 사상교양 단체로 확고히 전환시켜주심으로써 직업동맹의 자립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하여 직업동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혁명적인 민주기지의 창설을 위한 투쟁,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투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 동맹원들을 힘차게 조직동원함으로써 나라를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킴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항상 직업동맹의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와 최근년간에 있은 일련의 중요회의에서 직업동맹이 나아갈 발전방향과 투쟁임무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1971년 12월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친히 대회에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현 력사적단계에서 직업동맹의 성격, 임무, 역할에 대하여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밝히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직업동맹은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계급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학교입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광범한 로동자, 사무원들을 묶어세운 근로단체이며 당과 로동계급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입니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동맹의 기본임무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경리운영에 주인답게

근 로 단 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인전대로서의 근로단체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후비대입니다.》(《직업동맹사업에 대하여》, 65페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방조자로서 당밖에 있는 광범한 군중을 자기 조직에 결속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중속에 해설선전하여 그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상교양단체일뿐아니라 당의 후비대로서 대중을 교양훈련하여 당대렬을 확대강화케 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근로단체들은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선혁명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대중운동의 성격과 임무, 혁명적대중단체의 조직형태와 사업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로동자협회, 농민협회, 부녀회 등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혁명적대중단체들을 직접조직하시고 거기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 세우시였으며 그들을 혁명화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로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녀성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대중단체건설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근로단체들을 조직하시고 우리 혁명의 매 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그를 강화발전시켜 오시였다.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 등 근로단체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으며 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근로단체들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건된 첫날부터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근로단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의 길을 따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와 우리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활동하는 우리 나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혁명적인 대중정치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은 로동계급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학교로서 조선로동당과 우리 나라 로동계급을 련결시키는 강력한 인전대이며 당의 적극적인 방조자이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1945년 11월 30일에 창립되였다. (창건당시는 북조선직업총동맹, 1951년 11월 남조선로동계급의 대중조직인 남조선로동조합전국평의회와 합동하여 조선직업총동맹으로 개칭)

조선직업총동맹은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조직이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로동계급의 대중단체건설의

참가하도록 당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32~133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직업동맹은 동맹원들속에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그들의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직업동맹의 기능과 역할, 그의 자립성과 창발성이 높아진 결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사상정치적풍모에서 커다란전변이 일어나고있다.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고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직하고 오직 그이의 가르치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친위대, 결사대로, 조선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고있다.

직업동맹은 동맹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과 함께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면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은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전, 전격전, 섬멸전을 힘있게 벌려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와 특히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고있으며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직업동맹은 또한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직업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을 높이 받들고 세계직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혁명적조직들과 련계를 맺고 국제로동계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산하에 다음과 같은 산별조직들을 가지고있다.

조선금속기계공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화학공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건설림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운수항만로동자직업동맹
조선광업및동력로동자직업동맹
조선경공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수산로동자직업동맹
조선상업일군직업동맹
조선교육문화보건일군직업동맹
조선공무원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5년 3월 25일에 창립하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은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이 진척되여가는데 따라 점차 로동자화하여가는 우리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으로서 조선로동당과 농업근로자들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농업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사상교양단체이다.

농업근로자동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나라 농민운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농민조직건설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1946년 1월 31일 농민동맹을 친히 창립하여주시고 그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농민동맹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 특히는 토지개혁의 실시와 농업협동화를 수행하는 력사적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개인농때에 빈농이 중심이 되여 지주, 부농을 반대하여 투쟁하던 농민동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업협동화의 완성과 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여 농민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시고 광범한 사회주의적농업근로자들의 정치적조직으로서 농업근로자동맹을 창립하여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이 차지하는 위치와 사명, 동맹의 조직원칙과 기본임무 등을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의 기본임무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농민대중속에서 교양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모든 농민대중을 포괄하는 근로단체로서, 농촌사업을 보장하는 우리 당의 외곽단체로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내놓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면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28페지)

농업근로자동맹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한다.

동맹은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근본원칙으로 삼고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며 그들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를 촉진하는데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또한 농업근로자동맹은 당과 국가의 전면적이며 힘있는 지원밑에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리화와 전기화의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추진하며 그리고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동맹은 농촌문화혁명의 과업도 힘있게 추진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빨리 높임으로써 농촌의 낡은 면모를 일신시키고있으며 생활을 보다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는 사업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고있다.

이리하여 농업근로자동맹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력사적과업수행에서와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수준을 선진적인 공업의 관리운영수준에로 접근시킴에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농업근로자동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를 앞당

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을뿐만아니라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농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세계 모든 나라 농업근로자들, 농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여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6년 1월 17일에 창건하신 조선청년들의 유일한 혁명적대중정치조직단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해방후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맞게 세우신 민주청년동맹을 우리 나라에서 심화발전되여가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1964년 5월 12일 민청 제5차대회에서 개편한것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공산주의적대중단체이며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의 전투적조직으로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적극적인 방조자이다.

사로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우리 나라의 첫 혁명적청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으로부터 시작된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혁명적조직이다.

사로청의 기본임무는 청년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동맹원들속에서 당원의 후비를 키워 당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하며 당 및 국가의 간부후비를 길러내며 청소년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당과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대, 결사대로 키우며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위업에 자각적으로 나서도록 교양하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홰불처럼 밝혀주시였으며 청년운동의 발전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조선청년운동의 풍부한 경험과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 각계각층 청년들의 계급적처지, 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민주주의 기발아래 애국적청년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밑에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반당종파분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의 온갖 분렬책동을 짓부시고 민주청년동맹을 창건하여주시였다.

창건된 민주청년동맹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공산주의청년핵심진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켜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였다.

그리하여 민주청년동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며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공고화하는 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특히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기상을 떨쳐 오직 한마음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지켜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를 친히 소집하여주시고 민주청년동맹을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맞게 청년들의 공산주의적대중단체인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고쳐주시고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대회에서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서 제국주의를 타승할 때까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당신들,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맡겨져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6권, 63페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동맹원들과 청년학생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을 자기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이를 강력히 조직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청년들속에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있다. 모든 청년들은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님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나 동원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이와 함께 그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면서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단련되고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전체 청년들은 우리 나라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제도를 창설하는 투쟁에서뿐아니라 조국을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는 위대한 건설사업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최근년간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은 당 제5차대회가 펼쳐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의 앞장에서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수령님의 참된 근위대, 결사대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으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는 투쟁에서 나라의 방방곡곡에 주체의 시대, 로동당시대를 장식하는 공산주의적기념비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또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으며 나아가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세계청년학생운동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모든 나라 청년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여 그들과 힘을 합쳐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이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위력한 조직으로 자라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꽃피워가며 동맹을 영원히 김일성원수님의 청년동맹으로 빛내여 나가며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영원토록 수령님의 참된 전사로 살며 싸워나갈 일념으로 불타고있다.

조선소년단—조선소년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6년 6월 6일에 세워주시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나라 소년들의 공산주의적대중단체이다.

조선소년단은 소년들을 수령님께 끝

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사로청의 교대자이다.

소년단은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공산주의적소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받았으며 원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범을 따른다.

조선소년단의 기본임무는 소년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그들이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도록 교양하는것이다.

조선소년단은 수백만 우리 나라 소년들을 묶어세운 큰 혁명조직으로 자라났으며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나어린 혁명전사들의 붉은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오늘 우리 나라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새세대로, 혁명하는 시대의 소년답게 투쟁하기 좋아하고 일하기 좋아하며 혁명적조직생활에 충실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풍모를 지닌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고있다.

조선소년단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지도를 받는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5년 11월 18일에 창립하여주신 녀성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조선로동당과 우리 나라 녀성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녀성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상교양단체이며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녀성동맹은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조선녀성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조직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의 기본임무는 동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높이고 아들딸들을 혁명의 후계자로 키우며 가정을 혁명화하도록 하는것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께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녀성운동의 발전방향에 따라 조선로동당의 일상적인 지도밑에 창립후 오늘까지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오르신 첫시기부터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혁명투쟁의 전기간 녀성문제해결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전개하시여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을 해방하여주시였으며 해방후에는 당과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과 함께 조선녀성동맹을 창립하여주시고 남녀평등권법령을 반포하시여 우리 녀성들을 수천년에 걸친 봉건적예속과 질곡에서 영원히 해방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녀성들은 사회생활의 모든분야에서 남자와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게 되였으며 나라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수행을 위한 투쟁,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녀성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사회의 한쪽 수레바퀴를 믿음직하게 떠밀고나가고있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과 녀성동맹사업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계기로 된것은 녀맹제4차대회였다.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는 녀성동맹사업의 발전방향과 투쟁과업, 그 방도를 명백히 밝혀준것으로서 녀성운동발전의 위대한 강령으로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녀성들은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녀성들이 건전하게 발전하는가 발전하지 못하는가, 녀성들이 혁명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113～114페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녀맹원들과 녀성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을 사회에 진출시켜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녀성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부단히 촉진시키고있다.

녀성동맹은 또한 녀맹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높은 정치적의식과 문화수준을 소유한 참된 어머니로 후대들에 대한 훌륭한 공산주의교양자로 되도록 교양육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녀성동맹은 사상혁명뿐아니라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벌리며 사회주의건설의 여러초소에서 녀성들이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담당수행하도록 그들의 자질과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국가와 사회에 더 많은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운동들도 광범히 조직진행하고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에 따라 세계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녀성들과의 단결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고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기타 정당, 사회단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현명한 지도밑에 1946년 7월 22일에 결성되였던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발전적

으로 해산하고 1949년 6월 25일 남북조선의 70여개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하여 결성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는 남북조선의 모든 각계각층 군중을 망라하고 그들을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조직체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그것을 빛나게 구현한 우리 나라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의 창건과 그 확대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통일전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그를 구현하여 쌓으신 고귀한 경험들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심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시킬수 있었으며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행동통일을 강화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전체 인민들을 미제의 분렬책동을 박차고 조국의 통일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남북조선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광범히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1949년 6월 남북에 갈라져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통합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새로 인입된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하여 전국적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전선은 직업, 성별, 신앙, 정당의 차이를 불문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는 모든 계층을 다 망라하고있습니다. 조국전선은 우리 당의 정책을 더욱 광범한 군중속에 침투시키며 모든 애국적력량을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조직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1권, 308～309페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기본임무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단결시키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적극 옹호선전하고 그의 관철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조국전선은 결성된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에 따라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만행을 세계면전에 준렬히 폭로규탄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크게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적극 진행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전후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히 1956년 5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적극 강구 추진하였으며 1961년 1월에는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에 따라 남북간의 협상과 경제문화교류를 시급히 실현할것을 제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하여왔다.

196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함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련석회의를 가지고 또다시 남북간의 협상과 경제문화교류 그리고 서신거래를 시급히 실현할것을 제의하여 남조선 인민들과 정계인사들 및 사회활동가들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을 보낸것을 비롯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다.

특히 1972년 7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3대원칙에 기초하여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8월 19일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다른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남북공동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조국통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남북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가질것을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에 제의하는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이와 같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한 투쟁을 전개해오는 한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자체를 더욱더 강화발전시키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전체 인민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철통같이 묶어세워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달성에 조직동원하는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왔으며 또 하고있다.

기타 정당 및 사회단체

조선민주당
1945년 11월 3일 창립

천도교청우당
1946년 2월 8일 창립

조국평화통일위원회
1961년 5월 13일 창립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1956년 7월 2일 결성

조선적십자회
1946년 10월 18일 창립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
1956년 3월 3일 창립

조선기자동맹
1946년 3월 10일 창립

조선문학예술총동맹
1946년 3월 25일 창립
(산하 부문별동맹)
조선작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사진가동맹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1949년 3월 24일 창립

조선민주법률가협회
1954년 11월 30일 창립

조선민주과학자협회
1956년 4월 10일 결성

조선학생위원회
1960년 5월 20일 조직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1956년 5월 31일 창립

조선공업기술총련맹
1946년 4월 14일 창립

조선건축가동맹
1954년 3월 26일 창립

조선자연보호협회
1959년 6월 25일 창립

조선불교도련맹
1945년 12월 25일 창립

정 치

승리의 해, 영광의 해인 1973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3년은 우리 인민이 당 제 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을 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해로 조국청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73년은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국제국내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된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1974년 《신년사》, 단행본, 2페지)

이해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환희와 감격을 안고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장엄한 진군을 다그침으로써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위대한 기치가 자랑높이 휘날린 한해로 수놓아지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를 6개년계획수행에서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승리의 해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여 그 승리에로 힘있게 이끄심과 함께 조선인민의 민족적숙망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획기적인 구국대책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국내외정세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해 신년사에서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일련의 중요회의들에서 주신 교시들은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전당과 인민이 이미 쌓아놓은 거대한 사상정신적 및 물질적 토대에 기초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 등을 친히 마련하여 주시고 위대한 농업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고귀한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의 새로운 비약의 길을 펼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이해 당핵심들과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새것에 민감한 청년인테리들이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나가 벅찬 현실속에서 산지식을 배우면서 우리의 혁명적로동계급,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이끄시고 세계혁명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보다 큰 행복을 위해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를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벌방지대인 문덕군과 온천군, 중간지대인 녕변군, 개천군 등의 수많은 협동농장들을 찾으시여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일을 의논하시면서 그들의 가슴에 풍년의 씨앗을 심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비단 농촌뿐아니라 기양과 덕천, 남포와 원산, 함흥지구와 신의주지구로 전국방방곡곡에로 이어졌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대담하게 불사르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과업수행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해에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왔습니다.》(우와 같은 책, 2페지)

사상혁명수행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온것은 이해 우리 당과 인민이 거둔 가장 귀중하고도 빛나는 성과이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생활을 강화시키며 그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대한 학습을 완강하게 밀고나감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의 혁명적로동계급과 당핵심들, 청년인테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로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과 함께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사상혁명이 힘있게 진행됨에 따라 전당과 온 사회에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 체계가 더욱 튼튼히 서 주체형의 피만이 끓어번지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고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으로 일관되여 무조건 접수 관철하는 드팀없는 혁명적기풍만이 넘쳐흐르게 되였다.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라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나가는 미더운 혁명전사로 자라났다.

이해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기양의 로동계급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4.25혁명정신〉, 〈기양의 기백〉으로 끊임없이 혁신하자!》는 구호를, 만경대의 협동농민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만경대농장원들의

일본새〉로 전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힘차게 일떠섰으며 이들이 추켜든 투쟁구호는 삽시에 온 나라 근로자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 방침따라 힘차게 일떠선 승리산과 룡성의 기계전사들, 강선과 송림의 강철전사들을 비롯한 온 나라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각기 자기 일터에서 주인답게, 깐지고 알뜰하게 일하면서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히 헤치며 6개년계획과 3대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왕성한 투지로 대담하게 싸웠다. 특히 《피바다》근위대를 무은 안주의 탄부들과 《꽃파는 처녀》근위대를 무은 문덕의 협동농민들은 수령님에 대한 자기들의 고결한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였다.

바로 이러한 우리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적높이는 천만근의 황금에도 비길수 없고 몇백만톤의 쌀더미와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앞으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이해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경제건설을 빨리 다그친 결과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습니다.》(우와같은 책, 5페지)

3대기술혁명에 관한 위대한 사상을 처음으로 내놓으시고 그 승리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 그를 빛나게 관철하는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기술혁명의 불길을 높이 지펴올리시기 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평양, 남포, 강서 및 함흥지구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몸소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3대기술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에로 우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대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당면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뜨락또르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이해 봄갈이전으로 농촌에 더 많은 뜨락또르를 보내줄데 대하여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기양의 로동계급은 왕성한 투지와 정열에 넘쳐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대혁신의 불길을 일으켜 불과 반년사이에 그전의 2년간 생산량과 맞먹는 뜨락또르를 생산하여 농업전선에 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특히 이해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지도밑에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또 하나의 자랑인 농촌기술혁명의 강력한 기지, 그전의 공장의 10배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의 자동화된 금성뜨락또르공장을 건설하여 조업함으로써 뜨락또르생산을 부쩍 늘일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또한 승리산의 자동차생산자들도 그전해 실적보다 훨씬 높이 세운 자동차생산목표를 갱신하면서 힘차게 달려 봄발갈이전으로 보장해야 할 자동차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을뿐아니라 뒤이어 풍년든 농촌에 더많은 자동차를 보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자동차생산의 높은 고지를 빛나게 점령하는 승리의 개가를 올렸다.

그리하여 날마다 꼬리를 물고 사회주의농촌에 줄지어 들어간 그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은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크게 덜게하였다. 이것은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 접근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이다.

또한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더빨리 다그칠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흥남, 순천, 청수 등지의 화학공장들의 정비보강 및 개건확장 공사 그리고 각도마다 일떠서는 린비료공장과 린회석광산개발공사가 온 나라 근로자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해 화학비료와 농약이 전해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이 공급되였으며 특히 토양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미량원소비료를 원만히 공급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놓았다.

이해 또한 수령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없애고 영농사업을 확고한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경리의 기술장비도가 비상히 높아지고 기계화, 화학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에는 공산주의적농법의 새시대가 도래하였으며 힘든 일에서 벗어나 홍겹게 일할것을 그처럼 바라던 우리 농민들의 력사적숙망이 빛나게 실현되여가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기술장비도가 높고 영농사업이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라선 조건과 우리의 협동농민들이 혁명의 주인된 립장에서 영농사업을 제때에 실속있게 깐지게 진행함으로써 이해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이룩하였으며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해 공업부문에서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어 공업이 농업을 적극 지원했을뿐아니라 공업부문자체의 기술적장비를 일층 강화하였다. 영웅적로동계급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는 사업에서 주체시대의 혁명가다운 사상정신적풍모를 높이 발양함으로써 힘든 로동을 훨씬 줄이고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가져왔다.

특히 《천리마의 고향》으로 자랑높은 강선제강소와 황해제철소의 강철전사들은 지령실에 수많은 산업텔레비죤의 수상관을 설치해놓고 강철생산이 진행되는 흐름과 생산보장 조건 등을 손금보듯 날날이 살피면서 유선과 무선으로 생산을 지휘하고있는가하면 남포제련소에서는 천정기중기를 운전공이 공중에서가 아니라 지상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며 소결공정에서 광차와 전차를 원격조종하고있다. 또한 만경대구역 관개관리소에서는 멀리 사방에 널려있는 10여대의 큰 양수기가 원격조종실에 앉은 한명의 녀성운전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등 기술혁명수행에서 기적적 성과들을 볼수 있다.

어느부문보다 힘든 로동이 많은 지심깊은 지하 막장에서도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의 꽃이 활짝 피여났다. 이미 6개년계획의 4년분 과제를 넘쳐끝내고 이해 11월에 수백메터의 굴을 뚫어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킨 안주탄광의 고속도 굴뚫기소대원들은 착암기를 대신하는 종합굴진기를 도입하여 굳은 암반을 주름잡듯 밀어제끼고 그것을 기계의 힘으로 광차에 담아싣는 등 막장작업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여 일은 헐하고 홍겹게 하면서도 높은 생산능률을 내고있다.

이와 같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경제건설이 빨리 진척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적 파동과 위기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는 우리 나라 경제의 자립성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나라의 경제는 매우 안전한 토대우에서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는것이다.

이해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

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의 발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교육사상의 찬연한 승리이며 나라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획기적조치이며 우리 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음을 널리 알리는 자랑찬 선포이다.

이미 1972년부터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여 오던 새 의무교육을 1973년 4월에 법령으로 세상에 선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림으로써 이해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벌써 그것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리고 학교전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적으로 기르는 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있어 350만명이상의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게 되였다.

또한 이해 근로자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기술지식보급사업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훨씬 높였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공장, 기업소들이 깨끗이 꾸려지고 근로자들의 생활양식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동시에 농촌의 수도화와 뻐스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벌려 많은 지방들에서는 이 사업을 이미 완성하였다. 이리하여 도시와 농촌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작가, 예술인들과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은 당의 올바른 지도밑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로동자, 농민들의 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고 혁명위업수행에 철저히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서 아세아와 구라파를 비롯한 온세계에 주체예술의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시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주체의 기치따라 이와 같이 날과 더불어 륭성번영하는 나라, 주체의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며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의 공민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은 더욱 세차게 끓어넘쳤다.

이해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을 민족적경사로 맞이하여 대를 이어 충성 다할 한마음으로 그이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다섯돐과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 뜻깊은 경사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우리의 인민무력을 오늘과 같은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이해에도 영용한 우리의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장병들은 수령님의 자위적군사로선과 그이께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드팀없이 무조건 관철함으로써 부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나라의 방위력은 비할바없이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과 파괴암해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해 혁명과 건설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와 튼튼히 꾸려진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이 분야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서와 함께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에 보내는 편지, 미국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각각 채택하였다. 이 문건들이 세계에 공포되자 수많은 나라 국회와 정부, 인민들, 광범한 사회계와 언론계들에서는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의에 절대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은 당장 물러가라고 소리높이 웨쳤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해 6월 23일에 하신 연설에서 새로이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박정희매국도당이 미일침략자들과 함께 우리 인민의 통일 념원을 거역하고 《두개 조선》조작음모로서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유엔총회에 제기하여 우리 나라를 영구히 분렬하려던 발광적인 책동을 분쇄할수 있었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어용기구이며 내정간섭의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완전히 해체해버릴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다.

이해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하에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놈들의 파쑈적폭압이 그처럼 엄혹한 《비상사태》하에서도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을 용감히 벌려 박정희괴뢰악당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해 또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자주적인 대외활동을 적극 벌림으로써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한층 높아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가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 남조선괴뢰도당의 악랄한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압도적다수의 나라 지지를 받아 국제의회동맹과 세계보건기구에 들어간것과 우리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맺는것이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는사실 등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의 지지자와 동정자들의 대렬이 비할바없이 늘어났다.

특히 이해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미제와 남조선매국도당들의 《두개조선》조작책동을 규탄하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유엔총회 제23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지지하는 한편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조선의 영구분렬책동을 분쇄해버리고 미제의 조선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것을 결정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빛나게 관철하는 길, 그것은 이땅우에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활짝 꽃피워나가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통일위업을 앞당겨오는 투쟁이며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일떠세우는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하나로 단결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보다 큰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민족적경사로 맞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한돐

1973년 4월 15일,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을 민족최대의 뜻깊은 명절로 기념하였다.

뜻깊은 4월의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기에 번영하는 오늘의 조선이 있고 자기들의 끝없는 행복과 영광이 있음을 더욱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그이에 대한 끝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차넘쳤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고있는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의 가슴가슴은 마음의 고향 만경대로 달리였으며 영원토록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새롭게 다지면서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또한 이날을 맞이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한덕수의장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축전과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심은 세계인민들속에서도 높이 표시되였다.

캄보쟈의 해방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기쁜소식을 안고 수령님의 탄생 예순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 부인이 4월 15일 수령님을 축하방문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여 지성어린 꽃바구니와 선물을 그이께 드리였다.

석상에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조선인민과 같은 심정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주석동지께 올리는 캄보쟈인민들의 뜨거운 인사를 전하게됨을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생각한다고 힘주어말하였다.

수령님탄생 예순한돐 중앙강연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4월 14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는 중앙강연회가 있었다.

강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성원들,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성원들을 비롯하여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인민군,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항일혁명투사들이 참가하였다.

강연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였다.

만경대의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영광찬란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투쟁의 반세기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홰불로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의 영재, 걸출한 사상리론가의 력사이며 한없이 자애로운 인민적수령의 력사이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력으로 일제침략자를 때려부시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전인미답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면서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승리에로 이끄시여 락후한 《식민지아세아》로 불리우던 동방의 일각에 20세기의 기적의 나라,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강대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조국청사와 세계혁명운동력사에 찬란한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수령님의 그 모든 혁명업적의 하나하나는 주체사상의 뿌리, 주체사상의 토양, 주체사상의 빛발로 하여 솟아난 위대한 창조물이며 풍만한 결실이다.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존재로 되게 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 력사의 전진운동을 그처럼 힘있게 추동하시여 이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반세기의 투쟁력사를 감회깊게 돌이켜보는 강연회 참가자들은 오늘의 크나큰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신 그이께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충성다할 한마음으로 가슴 불탔으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더욱 촉진시킬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근로단체 조직들에서도 동맹원들속에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강연회를 광범히 조직진행하였다.

근로단체들에서 조직진행한 강연회들에서는 우리 로동자, 농민, 녀성들과 청년학생들을 따뜻이 보살피시고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한 우리 근로자들의 충성의 결의들이 강조되였다.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 특히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한돐을 맞이하여 총련의 각 현본부들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강연모임을 진행하고 경축대회들을 가지였다.

조선소년단 평양시련합단체대회; 혁명의 땅, 만경대에서는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한돐을 맞이하여 조선소년단 평양시련합단체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 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에 이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초상기를 정중히 모신 무개차가 여러대의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면서 조선소년단 평양시련합단체기발을 세운 무개차와 함께 대회장에 들어서자 장내에 정렬한 소년단원들은 일제히 소년단경례를 올리면서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 엄숙한 맹세를 다지였다.

대회에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이 있은 다음 기념보고가 있었다.

기념보고에서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배려속에서 우리 청소년학생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며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학생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학과학습에 열중하고 조직생활에 충실케하여 혁명의 후계자, 참된 공산주의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것을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사스러운 수령님탄생 예순한돐을 맞으면서 새로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평양시어린이들의 입단식이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이어 대회에서는 소년단 및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의 사열행진과 만경대구

역내 학생소년들의 집단체조 《혁명의 태양이 솟은 만경대》가 있었다.

출연자들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시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자기들의 보람찬 생활, 아버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이땅우에 활짝 꽃피우며 대를이어 혁명을 계속하려는 불타는 결의들을 보여주었다.

이날 전국각지에서 소년단련합단체대회들이 있었다.

전국사회과학토론회; 수령님의 탄생 예순한돐을 맞이하여 열린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를 비롯하여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해명하신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의 창조성과 정당성을 론리적으로 해설한 연구론문들과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해설한 연구론문들이 발표되였다.

과학토론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울 굳은 결의를 다졌다.

전국혁명사적지사진전시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을 맞이하여 전국혁명사적지사진전시회가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열리였으며 이 사진전시회는 6월까지 계속되였다.

사진전시회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유서깊은 만경대혁명사적지와 그리고 량강도혁명전적지, 함북도 온성군 왕재산혁명사적지를 비롯하여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와 해방후 오늘에 이르는동안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에 걸쳐 그이의 불멸의 발자취가 스며있고 은혜로운 손길이 닿아있는 많고많은 국내혁명사적지들 중 그 일부를 도별로 보여주었다.

전시품들을 돌아보는 근로자들은 빼앗긴 나라를 다시찾고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간고한 기나긴 세월 넓은 들과 밀림, 눈길과 진펄을 걷고걸으시였으며 해방된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온 나라의 공장과 농촌, 림산마을과 어촌을 몸소 찾으시며 수천수만리길을 걸으시여 이땅우에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대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일편단심 충성다할 붉은 마음 굳게 가다듬었다.

이밖에도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축원하면서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방문, 선서모임, 체육경기, 예술소조공연, 야회 등 여러가지 경축행사가 진행되였다.

평양시내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경모의 정을 안고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를 찾아 뜻깊은 하루를 보내였으며 봉화혁명사적지와 칠골사적지들도 방문하여 위대한 혁명적가정의 높으신 뜻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그리고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 대기념비앞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선서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량강도 혜산시근로자들은 아침 일찍 폐궁정마루에 높이 세운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찾아 충성의 꽃바구니를 드리였으며 5호대지의 농업근로자들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한돐을 맞이하여 청진—라진간전기철도공사를 끝내고 개통식을 가진 철도운수일군들이 충성의 노래모임을 가진것을 비롯하여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예술소조공연과 여러가지 체육경기들을 진행하였다.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모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력사우에 또하나의 년륜을 아로새긴 1973년이 저물어가는 12월 31일 저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평양시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성과와 업적을 쌓아올린 자랑찬 승리의 해, 1973년을 보내고 보다 큰 승리로 수놓아질 희망찬 새해 1974년을 맞이하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은 경축일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여있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궁전에 나오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성이 밤하늘에 높이 울려퍼지였다.

아버지원수님께 귀여운 소년단원들이 새해의 인사를 올렸으며 향기로운 꽃묶음을 드리고 붉은 넥타이를 매여 올렸다.

수령님께서 소년단원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면서 궁전체육관의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학생들과 관람자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수령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의 정이 온 장내에 더욱 뜨겁게 차넘친 가운데 어린이들은 아버지김일성원수님께 향기로운 꽃바구니를 드리고 260만 전체 소년단원들의 충성의 마음을 한데 모아 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여 정중히 세배를 올리였다.

수령님께서는 희망찬 새해를 즐겁게 맞는 어린이들을 축하하여주시고 평양시학생소년들이 출연한 설맞이공연을 보시였다.

학생소년들은 공연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덕체를 다 갖춘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주체가 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나고있는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모습과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지난해에 질풍같이 달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들과 업적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경애하는 아버지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며 통일된 3천리금수강산에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천만년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인민과 학생소년들의 불타는 마음을 그대로 담은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아버지김일성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새해 1974년 설맞이모임을 가진 학생소년들은 오늘의 영광과 감격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편단심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대, 결사대로 더욱 더 준비하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을 우러러 모시려는 철석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가 1973년 9월 4일부터 17일까지 사이에 진행되였다.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기념하는 관계로 회의는 8일부터 10일까지 휴회하였다가 다시 계속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정형에 대하여**
2.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옳게 실시할데 대하여**

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의정 첫째문제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로선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혁명 수행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회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다른 모든 사업에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상혁명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교양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특히 당조직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함으로써 그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모든 사업을 혁명의 주인, 나라의 주인답게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깐지게, 알뜰하게, 이악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사업과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며 생활이 좋아지고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이 없을수록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로동을 사랑하며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군들과 당원들속에서 사상단련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적수양을 높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임무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로하여 모든것을 재여보며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행동하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또한 관료주의와 주관주의, 요령주의와 형식주의 등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낡고 침체한 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생신하고 혁명적인 기풍이 온 사회에 항상 차넘치게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혁신과 앙양이 일어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혁명적인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맞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한 제반 법규와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을 총화하고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에 따라 3대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과업들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대담하게 마스고 근로자들속에서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벌리며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성능이 좋은 여러가지 기계들을 많이 창안제작할데 대하여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함으로써 로동자들의 힘든 로동과 고열로동, 유해로동을 덜어주며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적극 내밀어 농사일을 더욱 헐하게 만들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서 새로운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3대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계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뜨락또르, 자동차, 굴착기, 차량, 선박, 공작기계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대상설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농촌에 현대적인 기계수단들이 대대적으로 생산공급되는데 따라 각 지방들에 련결농기계 및 부속품 생산기지와 농기계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문화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힘씀으로써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과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문화를 더욱 높이는데서 이룩한 혁신적성과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여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기술학습체계를 바로 세우고 기술지식보급사업을 널리 진행하며 공장안을 궁전과 같이, 공장밖을 공원과 같이 알뜰히 꾸리며 합숙, 식당, 휴식터, 문화회관, 목욕탕,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의 물질적토대를 더 잘 갖추고 이를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살림집을 더 많이 짓고 거리와 마을을 알틀히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전원회의는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농촌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농촌수도화를 적극 다그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실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우리 당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더 큰 성과가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회의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하여 6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낼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인민경제 각 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6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워 연료 및 쇠돌을 원만히 생산공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현실적요구에 맞게 탄광설비들을 현대화, 대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탄광작업의 기계화를 다그치며 자재공급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동발나무를 원만히 대주는것과 함께 유압식쇠동발과 철동발을 대대적으로 도입할수 있도록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며 탄차생산기지와 탄광공무동력기지들을 더욱 튼튼히 꾸려줄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석탄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전망탐사, 현행탐사, 작업탐사를 철저히 하여 탄광의 앞길을 믿음직하게 열어주며 기본굴진, 준비굴진, 생산굴진을 앞세울데 대한 당적요구를 엄격히 준수할것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철광석생산과 유색광물생산을 더욱 늘이며 특히 린회석광산개발을 다그쳐 더 많은 린비료원료를 생산공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화학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화학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비날론과 염화비닐 생산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스프 및 인견섬유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새 화학공장들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특히 방직공업부문에서는 현존설비들을 더욱 현대화하여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식료가공공업부문에서는 곡산공장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기본건설에서 집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6개년계획의 중요 고지점령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건설대상들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날로 급격히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전원회의는 철도운수사업을 가일층 개선하며 특히 중요 석탄생산지와 소비지들에 현대적인 상하차시설을 갖춘 석탄화물역을 크게 만들고 석탄을 집중적으로 수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면하여 풍작이룬 낟알을 제때에 허실없이 걷어들이여 올해농사를 잘 결속하고 명년도 농사차비를 잘 하며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고기와 알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들과 수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의정 둘째문제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과 《자재상사사업규정》을 심의하였다.

의정 둘째문제에 대하여 토론한 많은 동지들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상품화폐관계를 옳게 리용하고 독립채산제를 바로 적용하는것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지도밑에 작성된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과 《자재상사사업규정》이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탁월한 경제사상과 리론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고 인정하고 이를 바로 실시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 일치하게 강조한바와 같이 당조직의 전투력을 높이며 당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 끝낼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전원회의는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전원회의는 우리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혁명적수양을 높여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며 3대혁명수행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국가경제기관의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경제리론을 확고히 체현하고 그것을 실천에 정확히 구현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끝까지 옹호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여 회의에서 하신 그이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에서 다시한번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것을 한결같이 결의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각 도(직할시)당대표회 진행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 있으며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는 때인 1973년도말에 조선로동당 각 도(직할시) 당대표회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도(직할시)당대표회들에 앞서 각 시(구역), 군당대표회들이 있었다.

각 도(직할시) 당대표회들에서는 당 제5차대회와 최근 년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 교시를 비롯한 각 지방과 해당부문에 주신 그이의 교시 관철정형에 대하여 총화하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각 도(직할시) 당대표회들에서는 결산기간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도안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결산기간 당조직들은 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기초

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사상혁명을 앞세우며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인민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화하고 그의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당조직들에서는 또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과 혁명,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주인답게 일하는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게 하였다.

도(직할시)당대표회들에서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6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총화하였다.

결산기간 희천과 기양, 승리산의 로동계급이 공작기계와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의 높은 고지를 점령한것을 비롯하여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기지를 더욱 강화하고 그 생산을 높이며 경공업 특히 지방공업의 토대를 튼튼히 꾸려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또한 이 기간에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에 따라 농촌에 현대적인 기계수단들이 대대적으로 들어가고 여러가지 농약과 비료들이 더많이 생산공급되여 농업을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토대우에 더욱 확고히 올려세웠으며 농업에서 전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하였다.

도(직할시)당대표회들에서는 결산기간 문화혁명과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교육, 문화, 보건 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고 일치하게 지적하였다.

당조직들에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과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였으며 주체적인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사업에서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또한 결산기간에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를 경제관리분야에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새 환경에 맞게 계속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당사업에서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도(직할시) 당대표회들에서는 이 모든 성과들은 혁명과 건설을 항상 승리에로 이끄시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의 결과이며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열매이라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도(직할시) 당 대표회들에서는 도(직할시) 당위원회들이 결산기간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사업하는 행정에서 얻은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총화하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전투적과업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511페지)

도(직할시)당대표회들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심중한 주목을 돌리면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는것이 당사업에서 첫째가는 임무라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상혁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을 이룬다고 한결같이 지적하였다.

당조직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주체사상의 본질과 진수를 똑바로 알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실속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과 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사회주의헌법과 그에 기초한 제반 법규범과 규정, 행동준칙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대담하게 짓부시며 로동자와 기술자, 전문가들 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시켜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줄기차게 벌리며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해당 도앞에 나서는 구체적과업들을 토의하였다.

다음으로 대표회들에서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 현시기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과업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 문화, 보건 부문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도(직할시)당대표회들에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하여 새 환경에 맞게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서와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그의 자립성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대로 인민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당적지도를 계속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수령님께서 몸소 발기하신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과 《자재상사사업규정》들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집행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각 도(직할시)당대표회들에서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으며 도(직할시)당위원회 및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조선인민군,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그리고 남북적십자회담을 취재하기 위하여 조국에 와있는 재일조선인기자단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우리나라에 와있는 각국 외교대표들이 회의에 초대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을 토의하였다.

1.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하여

2.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72년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7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회의에서는 첫째의안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하여》 보고가 있은데 이어 많은 대의원들의 토론이 있은후 해당한 결정서와 함께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미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대의원 전원찬성으로 각각 채택하였다.

회의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오랜기간에 걸친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 마련된 남북대화 이후 나라의 조성된 정세를 분석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고있는 근본요인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가 우리 나라 내정에 간섭하면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있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이룩되자면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이 결정적으로 종식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와있는 미국군대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함으로써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맞게 지난 시기 유엔에서 만들어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야 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45페지)

회의는 미제침략군이 지체없이 남조선으로부터 철거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체되여야 한다는것을 주장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 국회와 정부가 미제의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실현을 적극 지지성원해줄것을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리행하기 위한 구체적조치로서 북과 남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각 분야에 걸쳐 폭넓은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와 특히는 쌍방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대의 철거, 군비축소, 외국으로부터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 등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현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5개 항목의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자신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 평화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안이며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이다.

회의에서 심의된 보고와 채택된 편지들에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민족분렬을 지속시키며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기본요인을 제거하고 조선과 아세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가 반영되여있다.

그러기에 회의에서한 보고와 채택된 문건들이 세상에 공포되자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사회계와 언론계들에서 우리를 지지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둘째의안인《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보고와 토론이 있은후 이에 대한 법령을 대의원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관한 법령의 채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교육사상의 찬연한 승리이며 나라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획기적조치이며 커다란 민족적경사이며 우리 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음을 널리 알리는 자랑찬 선포이다.

공화국정부는 1972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의무교육,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새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우리 나라 인민교육발전의 빛나는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켰으며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는 그를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채택된 법령에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1972~1973학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1976~1977학년도까지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만 6살부터 만16살까지의 모든 청소년들을 교육대상으로 규정하였다.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은 1972~1973학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여 1975~1976학년도까지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대상은 만 5살이되는 모든 어린이들로 규정되여있다.

새 의무교육은 교육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학원리를 구현하며 후대들에게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줌으로써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튼튼히 선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폭넓은 일반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기능을 가진 문명하고 발전된 사회성원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의무교육이다.

이는 년한과 교육수준에 있어서 가장 높은 형태의 의무교육이며 가장 평등하고 인민적인 무료교육제도일뿐아니라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간에 교육내용상 정연한 체계성이 보장되여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교육제도로서 특출한 모범으로 된다.

회의에서는 셋째의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2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7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의 보고와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된후 대의원 전원찬성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2년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의 결정과《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3년국가예산에 대하여》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각각 채택하였다.

채택된 결정과 법령에 의하면 1972년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0.8%로 빛나게 수행되여 그 전해에 비하여 116.9%로 늘어났으며 국가예산지출계획은 100.1%로 집행되여 그 전해에 비하여 117.2%로 늘어남으로써 특히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 재정적으로 원만히 보장하고도 재정적예비를 조성하였다고 지적되였다.

이것은 우리 국가예산이 사회주의 경리의 내부축적에 확고히 의거하고있는 공고한 예산이며 전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예산임을 뚜렷이 확증하여 주었다.

또한 1973년도 국가예산이 1972년에 비하여 수입은 115%로, 지출은 116%로 늘어 계속 3대기술혁명수행에 힘을 돌리며 후대교육사업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높이기 위한데 많은 자금지출이 예견되고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 국가예산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는데 복무하는 생산적예산이며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항상 육친의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수령님의 높은 뜻과 덕성을 구현하고있는 참다운 혁명적예산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실로 우리의 국가예산은 6개년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반영하고있는 전투적인 예산이다.

회의의 전과정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 그이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 경제정책의 불패의 생활력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다. 회의과정은 또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해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영웅적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를 시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신 극진한 배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키워주신 은인이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존재로 되게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 력사의 전진운동을 그처럼 힘있게 추동하시여 이 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시였을뿐아니라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잠도 휴식도 잊으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치고 계시는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시기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주시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정확한 투쟁방향과 방도를 가리켜주심으로써 그들을 승리에로 고무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그이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에도 기뻐하시며 높이 치하하시고 평가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73년에 많은 새로운 공훈칭호들과 근로자들의 명절을 제정하여 우리 근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었으며 우리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였음에도 이를 평가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주시고 각종 명예칭호들과 국가표창을 안겨주시는 등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세상에 부러움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1973년에 《김일성훈장》을 받은 공장, 기관, 기업소,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군부대들

△ 4월 13일 정령

천리마황해제철소
무산광산
승리자동차종합공장
안경찬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천리마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남포자동차운수대
함경남도 2중천리마북청고등원예전문학교
평양 9. 15주탁아소
만수대예술단
평양예술극단
조선중앙통신사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학생소년궁전
조선인민군 제694군부대
조선인민군 제894군부대
조선인민군신문사
조선인민군 제251군부대
조선인민군 제887군부대
조선인민경비대 제6601군부대 4대대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직속 제1대대
조선인민군 제130군부대

△ 7월 30일 정령

조선혁명박물관

△ 10월 13일 정령

평양종합방직공장

이외 6명의 개별적일군들에게 《김일성훈장》이 수여되였다.

1973년에 새로 제정된 명예칭호와 훈장 및 상, 근로자절

새로 제정된 명예칭호

공훈방직공칭호(1973. 4. 20 정령)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높이 받들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짜내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방직공업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방직공칭호를 제정하여주시였다.

공훈인쇄공칭호 (1973. 4.20 정령)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당의 출판정책을 높이 받들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출판인쇄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인쇄부문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훈인쇄공칭호를 제정하여 주시였다.

공훈제지공칭호(1973. 5. 25 정령)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당의 경제정책을 높이 받들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질좋은 종이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종이공업부문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제지공칭호를 제정하여주시였다.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칭호(1973. 9. 3 정령)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과학정책을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기관에서 오래동안 일하면서 나라의 인민경제발전에 특출한 공훈을 세운 과학자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 칭호를 제정하여주시였다.

공훈출판물보급원칭호(1973. 9. 19 정령)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당의 출판정책을 높이 받들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당출판물보급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출판물보급원칭호를 제정하여주시였다.

새로 제정된 상, 훈장, 메달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1973. 7. 3 정령)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연구도입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정확히 반영되고 나라의 기술혁명수행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기계설비들을 설계제작한 설계가, 제작자들과 그 기계설비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을 제정하여주시였다.

석탄, 광업복무영예훈장(1973. 9. 3 정령)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경제정책을 높이 받들고 석탄과 광업 부문에 오래동안 복무하면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끊임없이 혁신함으로써 급격히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석탄과 쇠돌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석탄공업과 광업 부문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 광업복무영예훈장을 제정하여주시였다.

《농업공로메달》(1973. 12. 24 정령)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훈이 있은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공로메달을 제정하여주시였다.

새로 제정된 근로자절

《농촌기술혁명 지원의 날》—7월 27일(1973. 7. 26 정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적인 대규모의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조업하면서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위대한 업적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며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줌으로써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해마다 7월 27일을 《농촌기술혁명 지원의 날》로 정하여주시였다.

《방직공업절》—10월 15일(1973. 10. 13 정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방직공업창설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 놓은 뜻깊은 날인 1948년 10월 15일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해마다 10월 15일을 방직공업절로 정하여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12월 27일(1973. 12. 24 정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한 날을 뜻깊게 기념하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해마다 12월 27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로 정하여주시였다.

1973년에 수여한 명예칭호와 국가표창

명예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2명(1973. 1. 11, 4. 24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중로력영웅 1명(1973. 11. 17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력영웅 29명(1973. 2. 27, 5. 26, 6. 22, 8. 8, 8. 28, 9. 23, 9. 25, 11. 17, 11. 27, 12. 15 정령)

인민예술가 1명(1973. 9. 22 정령)

인민기자 2명(1973. 9. 22 정령)

인민체육인 4명(1973. 4. 13, 4. 24 정령)

공훈체육인 39명(1973. 1. 20, 4. 13, 4. 24, 9. 27 정령)

공훈방송원 1명(1973. 3. 12 정령)

공훈방송기계공 2명(1973. 3. 12 정령)

공훈기계제작공 69명(1973. 3. 12, 8. 8 정령)

공훈어부 12명(1973. 3. 21, 8. 6정령)

공훈지질탐사원 11명(1973. 5. 14정령)

공훈기관사 6명(1973. 5. 14정령)

공훈철길원 9명(1973. 5. 14정령)

공훈철도수송원 5명(1973. 5. 14정령)

공훈제지공 5명(1973. 6.5, 6. 20정령)

공훈통신공 14명(1973. 6. 27정령)

공훈우편통신원 5명(1973. 6. 27정령)

공훈설계가 4명(1973. 8. 8정령)

공훈교원 3명(1973. 8. 27, 9. 27정령)

공훈출판물보급원 2명(1973. 9. 19정령)

공훈기자 4명(1973. 9. 22정령)

공훈예술가 6명(1973. 2.16, 9. 22, 9. 27정령)

공훈배우 1명 ((1973. 2. 16정령)

공훈광부 58명(1973. 9. 25정령)

공훈전력공 16명(1973. 9. 25정령)

공훈료리사 19명(1973. 9. 25, 9. 27정령)

공훈판매원 12명 (1973. 9. 25정령)

공훈리발사 11명 (1973. 9. 25정령)

공훈편의수리공 5명(1973. 9. 25정령)

공훈재단사 5명 (1973. 9. 25정령)

공훈재봉공 2명 (1973. 9. 25정령)

공훈접대원 1명 (1973. 9. 25정령)

공훈용해공 13명 (1973. 10.15정령)

공훈벌목공 6명 (1973.10. 15정령)

공훈운재공 8명 (1973. 10. 15정령)

공훈류벌공 9명 (1973. 10. 15정령)

공훈자동차운전사 27명(1973. 12. 12정령)

공훈선원 10명(1973. 12. 12정령)

국가표창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장병들

개성시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건설자들

혜산청년광산 종합원들

텔레비죤방송일군들

신포물고기랭동공장 건설자들

만풍광산 종업원들

평양시 동대원구역 모범적인 교육일군들

청진—라진사이의 철도전기화공사에 참가한 일군들

평양곡산공장 종업원들

장풍군 중방저수지와 1월 11일 양수장 건설공사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

길주팔프공장 일군들

천리마 5월 7일 영예군인통신기계공장 일군들

압록강관개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

신의주팔프공장과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일군들

량강도 갑산군, 자강도 고풍군, 함남도 광천군의 모범적인 교육일군들

조선인민군 방청성동무소속구분대 장병들과 종업원 유가족들

금성뜨락또르공장건설과 설비제작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

조선혁명박물관 일군들

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9. 25 뜨락또르공장 일군들

리정민동무가 일하는 건설사업소 일군들

출판물 보급부문 일군들

신천—은률사이의 철길공사에서 모범을 보인 철도건설자들과 농근맹원들

온천군과 증산군내 농촌건설사업에 동원된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들과 건설자들

공화국 제4차인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

장시형동무가 일하는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

평양의학대학병원

사리원제1, 제2 사범대학, 강계제2사범대학

건설건재대학 모범적인 교직원들

계관군위천리마룡양광산 금산광구 천리마 영예상을 받은 2중천리마 7호 굴착기 소대원들과 그 가족들, 이 광산 광부들

로동자신문사 모범적인 일군들

수매량정부문 일군들

교육도서인쇄공장 모범적인 일군들

1973년 농업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협동농민열성자 및 간부들

조선인민군지휘관및정치일군열성자회의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그를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주고계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조선인민군지휘관및정치일군열성자회의가 10월에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당의 군사로선 관철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있는 인민군지휘관 및 정치일군 2만여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구분대를 일당백, 일당천의 혁명대오로 꾸릴데 대하여》보고가 있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인민군대의 전투준비를 완성하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 일당천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은 한결같이 수령님께 당이 준 군사과업수행에서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를 보고올리게 된 감격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 인민군대를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이끌어주시며 인민군장병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우리나라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토론자들은 백전백승의 자위적군사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한 독창적인 군사로선과 군사정책을 실시하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간부군대로, 그 어떤 원쑤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한결같이 말하였다.

지난 기간 구분대들에서는 군인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모든 군인들이 일편단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영원히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그이의 근위대,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되였다.

토론자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을 관철하여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준비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수령님께 정중히 보고를 올리였다.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이 현대적기술과 결합될 때 그것은 참말로 큰 힘을 나타낼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투훈련을 강화하고 전문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린 결과 오늘 인민군대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전법으로 어떠한 강적도 능히 타승할수 있는 일당백, 일당천의 현대적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군대안에 당사업체계가 확립되고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이 높아졌으며 일군들의 사업작풍과 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한결같이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대화의 막뒤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 남조선파쑈악당들의 책동을 규탄하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그들은 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이며 세포인 중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중대를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며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당원들과 군인들을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하며 사상교양과 함께 당 및 사로청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중대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다짐하였다.

토론자들은 인민군대를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그들이 전사들을 친형제와 같이 보살피고 교양하며 특히 용감성, 강의성, 책임성, 규률성, 조직성, 인내성, 락천성, 친절성과단결성, 혁명성, 충실성의 모범으로 대원들을 교양하고 힘있게 이끌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군사훈련과 신체단련을 강화하여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할줄 모르고 맡겨진 전투임무를 끝까지 완수할수 있는 강의한 사상의지와 튼튼한 체력을 소유하며 군사기술수준을 높이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전법을 끊임없이 완성하여나갈것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그리고 미제와 그 앞잡이인 남조선괴뢰도당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조선인민군 지휘관및정치일군열성자회의는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되고 일당백, 일당천으로 준비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파쑈악당들이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무모한 불장난을 감행한다면 놈들을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하고야말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불같은 결의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 참가한 인민군지휘관 및 정치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59차확대회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며 대민족회의 소집을 조속히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59차 확대회의가 7월 24일에 있었다.

회의에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방청으로 각 정당, 사회단체, 정권기관, 교육, 문화, 예술,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과 조선인민군 모범군무자 및 공장, 기업소의 생산혁신자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보고가 있은데 뒤이어 각 정당, 사회단체 책임간부들이 토론하였다.

회의에서는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로골적으로 벌리고있는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며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이며,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을 휘황히 비쳐주는 불멸의 등대이며, 통일의 날을 일일천추로 갈망하고있는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철저히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국

토 량단과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하나로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세대의 의무를 빛나게 수행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다만 북과 남의 당국자들사이의 범위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북반부의 로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같은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여기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범히 협의하여 해결할것을 제의합니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단행본 9~10페지)

회의에서는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문제토의에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참가시켜 전민족적총의를 모으는것은 근본문제의 하나이라고 하면서 대민족회의의 소집이야말로 현 난국을 타개하고 통일위업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촉진할수 있는 진정한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인사들과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분렬로 인한 고통의 당사자도 인민이며 통일문제에 가장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도 바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인것만큼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는 마땅히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안은 주체사상을 조국통일위업에 구현한것으로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애국적인 통일방안인 이 제안에 외면하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고취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계속하여 만약 남조선당국자들이 미일침략자들에게 계속 매달려 끝끝내 《반공》과 민족분렬을 추구하는 범죄의 길로 나간다면 천추에 씻지 못할 죄악의 무덤속에 영원히 매장되고야 말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 5대강령에서 천명하신대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 문제와 함께 북과 남사이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을 신랄히 규탄하고 통일을 갈망하는 조선사람이라면 조국통일 5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많은 토론자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들이며 오직 공산주의자들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있다고 하면서 사상과 리념,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보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근로단체들의 회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 조직들은 동맹내부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모든 동맹원들을 당의 붉은 전사로, 견결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520페지)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인전대인 근로단체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방조자로서 항상 비당원군중을 잘 교양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왔다.

1973년에도 근로단체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연설과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들을 높이 받들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일련의 동맹전원회의들을 열고 그 과업 실천투쟁에로 각급 동맹조직들과 맹원들을 힘차게 조직동원하였다.

직총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3월 26일부터 3일간)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총제5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 집행정형 중간총화와 사상, 기술, 문화 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으며 제4차전원회의(11월 20일부터 2일간)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의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3월 13일부터 2일간)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제4차전원회의(12월 2일부터 2일간)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농근맹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사로청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3월 20일부터 2일간)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1972년 12월 16일과 1973년 2월 25일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11월 15일부터 3일간)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로청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학생청소년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며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로청조

직들의 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녀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 확대회의(4월 17일부터 20일까지)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녀맹조직들의 전투적과업에 대하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며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결정과 법령을 지지하며 이 사업에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을 적극 조직동원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모든 근로단체들의 전원회의 회의안들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총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들에서는 동맹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동맹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학습을 동맹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과 형식으로 더욱 심도있게 진공적으로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동맹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중요한 투쟁대상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라고 하면서 그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워나가도록 교양하기 위한 구체적과업들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동시에 전원회의들에서는 모든 동맹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이와 같이 전원회의들에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유일한 주체형의 피로 굳어번지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전원회의들에서는 현계단에서 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동맹조직들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생산공정의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전원회의들에서는 기술학습체계를 바로 세우고 기술지식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특히 농근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며 그들의 대렬을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로청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대중적행군을 힘있게 벌려 모든 청년들이 빠른 시일안으로 기수, 기사의 자격을 갖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전원회의는 사로청조직들이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대계의 큰 사업을 맡아 통이 크게 근기있게 수행해나갈데 대하여서와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전원회의들에서는 문화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투쟁을 동맹단체들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모든 동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환하게,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아름답게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동시에 전원회의들에서는 군소재지와 로동자구, 농촌마을을 비롯하여 합숙, 식당, 휴식터, 문화회관, 목욕탕, 탁아소, 유치원 등 문화후생시설들을 더 훌륭히 완비하기 위한 섬멸전을 벌리며 일상 생활에서 낡은 생활습성을 버리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특히 직총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작성된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 《자재상사사업규정》을 동맹원들속에 깊이 해설침투시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사로청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학생소년들속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모두가 우등, 최우등으로 되게하며 지덕체가 겸비된 공산주의지새 인간으로 키울데 대하여 깊은 주의를 돌렸다.

전원회의는 청년학생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공부를 잘 하게하는것과 함께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동무들을 사랑하고 웃어른을 존경하며 항상 외모를 단정히 하고 례절바르게 행동하는 등 높은 공산주의도덕품성의 소유자로 되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사로청조직들이 절반이상의 힘을 학생소년사업지도에 돌려 《배움의 천리길근위대운동》, 천리마학교, 천리마학급, 모범분단 쟁취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녀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제시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최고인민회의법령을 앞당겨 집행하는데서 녀맹조직앞에 나선 과업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모든 전원회의들에서는 해당한 결정서들을 채택하였다.

조선소년단 제2차열성자대회

조선소년단 제2차열성자대회가 10월 3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아버지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치심따라 학습과 소년단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사회와 혁명에 유익한 여러가지 애국적활동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안고 전국각지에서 달려온 소년단열성자들과 소년단지도일군들 1만 5천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사로청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소년단열성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소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해주시고 조선소년단을 몸소 창립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끝없는 사랑과 배려

속에서 조선소년단은 오늘 260만의 소년들을 묶어세운 큰 혁명조직으로 자라났으며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나어린 혁명가들의 붉은 대오로 튼튼히 꾸려졌다.

전체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소년단원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더 많이 배우며 더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신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새세대로, 수령님의 나어린 근위대, 결사대로 준비하며 학습열의를 높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며 조직생활을 강화하면서 여러가지 좋은 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왔다.

소년단원들은 《나어린혁명전사》, 《꼬마건설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 한마음 안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껏 도와 나섰다.

소년단원들은 《꼬마6개년계획》활동을 통하여 이해에만도 250여만마리의 토끼를 기르고 7만여정보의 소년단림을 조성하였으며 피마주와 역삼가꾸기, 밤나무관리, 산열매따기, 약초캐기,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가꾸는 일들을 끈기있게 벌려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소년단원들은 농촌기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심려하시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적은 힘이나마 받들어가려는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꼬마6개년계획》활동으로 마련한 3,054대의 뜨락또르를 아버지원수님께 조선소년단의 이름으로 이 대회를 통하여 드리는 영광을 지니였다.

소년단이 진행한 모든 활동은 소년단원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선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길러내는 힘있는 교양방법이며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당의 교육방침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활동과정이였다.

지난 기간 소년단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소년운동에 관한 사상과 방침의 찬란한 승리이며 수령님께서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불러주시며 세상에서 으뜸가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공산주의투사, 지덕체를 겸비한 새 인간으로 자라도록 소년단원들에게 돌려주시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빛나는 열매이다.

회의에서는 아버지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더 많이 배우며 더 잘 준비할 과업들을 상세히 제기하였다.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혁명력사를 따라배워 모두가 수령님의 근위대, 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충성의 결의를 다지였다. 또한 소년단원들은 학습열의를 더욱 높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최우등, 우등생이 되며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적 세계관이 선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준비할데 대하여서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과 사회주의건설에 더 크게 이바지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조선소년단의 이름으로 드리는 증정서를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조선소년단원의 선서를 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공산주의소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축원하였다. 이어 소년단원들의 사열행진이 있었다.

증 정 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지펴 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오르는 장엄한 투쟁의 시기 《소년단원들은〈꼬마계획〉활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껏 돕는 나어린 사회주의건설자가 되여야 합니다.》라고 하신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전체 소년단원들은 애국적인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충성의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선소년단 제2차열성자대회는 조선소년단을 대를 이어 영원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나어린 근위대, 결사대로 튼튼히 꾸려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면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공화국 260만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국협동농장에 보낼 3,054대의 뜨락또르를 삼가 드리는 영광을 지닙니다.

1973년 10월 3일

조선소년단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4페지)

사람들의 의식명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인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하여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따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년간에만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많은 보고와 연설들에서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칠데 대한 방향과 그 수행

방도를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73년에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정치위원회를 비롯한 중요회의들을 친히 소집하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하시고 이 중요혁명과업수행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진두에 서시여 이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였다.

이해 특히 어버이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공장과 농촌, 탄광과 어촌 등에 실습나간 청년학생들은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켜 배운지식을 공고히하며 로동자, 농민을 도와 공장과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데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해에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왔습니다.》(1974년, 《신년사》, 단행본, 2페지)

우리 당이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기본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견결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서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장 철저히 체득할수 있으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활동을 비상히 높일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우리 당 사상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힘있게 밀고나왔다.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더 잘 꾸리고 여기에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매시기 제시하시는 그이의 강령적교시들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었다.

당조직들은 특히 존귀하신 수령님의 명함을 모신 《김일성동지혁명사상학습반》을 실속있게 운영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 학습반들에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혁명리론,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학습하게 되는 다함없는 영예와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학습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마사버리면서 제시된 학습강령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수령님의 교시학습을 떠나서는 투쟁도 삶도 있을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자각적인 혁명적학습기풍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져 수령님의 로작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다니면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체득하는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하나의 풍조로 되고있다.

또한 당조직들은 매시기 제시하시는 수령님의 교시를 학습반을 통한 교양뿐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집중학습을 시켜 수령님의 교시 진수와 전반사상, 수행방도를 철저히 체득시킨 토대우에서 그 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을 생활화, 제도화하고있으며 수령님의 로작연구토론회, 기념강연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연구발표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주체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여 언제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이를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친위대, 결사대로서 튼튼히 준비되여있다.

우리 당은 또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데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생활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로서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조직생활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조직과 집단생활에 익숙되게 하며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그것이 침습하지 못하게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며 강한 비판속에서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이해 수령님의 현명한 조치와 그이의 교시를 받들어 로동자, 농민속에 들어간 혁명적로동계급과 당핵심들, 청년인테리들은 온갖 낡은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는 한편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였다. 이것은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이였다. 그리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매개 초소의 운전대에 앉아있는 초급간부들이 모든 일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군중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게 되였다.

또한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의 혁명적법규를 완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엄격히 지키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 사회주의적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리론, 방침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그이의 백과전서적이며 강령적문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를 실생활에 구현하도록 힘있게 이끌어나갔다.

헌법을 연구하는것이 헌법의 요구를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첫공정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당원들과 인민대중은 비상히 높은 열의로 헌법학습을 진행하였으며 그들속에서는 헌법통달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그리하여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된지 1년밖에 안되나 헌법은 그 비상한 견인력과 영향력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으면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그것은 사람들의 정치생활과 로동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헌법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인 준칙과 규정들을 작성 또는 완성하고 모두가 그것을 공동으로 지키게 함으로써 어디에나 낡은 사상이 발붙일 틈이 없게 되고 오직 사회주의적준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고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일뿐아니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방법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날로 더욱더 깊이있

게 광범히 벌어짐으로써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여 뒤떨어졌던 사람이 앞서나가는 사람으로,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되여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관철해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자라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 같이 전진하는 공산주의적풍모가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모든 분야에 넘쳐흐르고있다.

오늘 천리마작업반원들은 혁명적열정으로 불타고 지칠줄모르는 힘으로 하루를 열흘 맞잡이로 기적의 힘을 발휘하면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우리 당이 이와 같이 사상혁명을 힘있게 진행함에 따라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튼튼히 섰으며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더욱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심장깊이 새기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으로 수령님의 교시, 당의 요구라면 모두가 이악하게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미더운 혁명전사로 자라났고 그것이 그대로 온 사회의 기풍으로 전환되였다.

이 고상한 정신세계앞에서 낡고 뒤떨어진 사상잔재들인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관료주의와 주관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무책임성과 건달풍들이 더는 배겨낼수 없게 되였으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는 오직 한마음 수령님을 따르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이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불같은 충성심이다.

오늘날 우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속에서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더우기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성은 비상히 높아졌다. 그리하여 가장 선진적인 로동계급은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고 공산주의자로 준비하면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그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본분을 더욱 빛내였다.

온 소대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소대의 아홉명전원이 2중로력영웅칭호 또는 로력영웅칭호를 각각 수여받은 계관근위천리마룡양광산 금산광구 2중천리마 7호굴착기소대원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지난 10년간 자기들이 애써마련한 좋은 채굴장을 여덟번이나 다른 작업반에 넘겨주고 소대의 핵심들을 다른 단위에 보내주면서 뒤떨어진 8개소대를 천리마선구자대렬에 이끌어 올렸으며 소대원들이 사는 6개인민반을 모두 혁명화하였으며 6개년계획을 2년 7개월 동안에 완수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므로 이곳 소대의 사업과 생활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의 정치사상적높이를 넉넉히 알수 있다.

또한 1973년 3월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뜨락또르생산과제를 기일안에 보장하기 위한 기양뜨락또르공장 로동자들의 힘찬 투쟁이 벌어질 때 이미 《최대한계점》에 이른 이곳 용선로에서 종래의 2.5배의 쇠물을 뽑아내야 할 무겁고도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였다. 이때 당원들의 충성의 불타는 심장이 어떻게 높이 뛰였는가는 이곳 당원들의 맹세문 한구절에서 넉넉히 엿볼수 있다.

《당원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철철 끓어넘치는 저 쇠물의 열도는 한계점이 있어도 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에는 한계점이 있을수 없습니다. 만일 용선로의 용적이 모자라면 우리의 심장에라도 쇠물을 녹여 기어이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이렇듯 당원들의 심장은 하나와 같이 고동쳐 돌격대를 무어 결사전을 벌림으로써 수령님의 교시를 기일안에 끝까지 관철하였다.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원칙 이것이 어찌 이곳 당세포의 당원들에게만 있은 일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서 매일 매시각 일어나는 기적과 혁신의 불길은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높이,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열도가 잴수 없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인 농업근로자들도 사상혁명의 세찬 불길속에서 수령님의 가르치심이라면 무조건 기어이 관철하고야마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났으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만경대농장원들의 일본새》로 일하여 이해 농사에서 만풍을 가져오게 하였다.

《꽃파는 처녀》근위대를 뭇고 과학기술농사에 참된 주인이 되여 정보마다 평균 논벼 8.1톤, 최고 13.6톤을 낸 근위 문덕군 룡림협동농장 제4작업반,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이악하게 관철함으로써 땅이 척박하고 랭습지가 많은 산골농사에서 정당 벼는 6톤 50키로그람, 강냉이는 6톤 100키로그람을 낸 장수원협동농장 제3작업반을 비롯한 전국각지농장원들속에서 발현된 높은 공산주의적미풍은 우리 협동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얼마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의 농촌진지가 얼마나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근로인테리들은 자기의 공명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지혜와 재능을 다바쳐 나섰으며 로동자, 농민들과 한대오에 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이와 같이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농업근로자들, 근로인테리 등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혁명임무수행에 충실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빛나게 촉진시켰다.

우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변화, 이것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방침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며 바로 여기에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기적적인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면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당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고 혁명이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 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고 있으며 온 나라에서는 《속도전》의 혁명적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사람마다 비상한 열정과 참신한 일본새, 충천한 기세로 사회주의대건설의 장엄한 진군운동을 기운차게 떠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발기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은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다.

천리마운동은 모든 근로자들을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드는 하나의 공산주의교양운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기 위한 공산주의적전진운동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운동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정확히 령도하시여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구체화하시고 발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집단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적인 대중적대진군운동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5∼46페지)

천리마운동의 심화발전된 형태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서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운동일뿐아니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방법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이다.

천리마운동과 그의 심화발전된 형태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운동이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무엇에 의거하여 어떤방법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심오한 리론실천적해명을 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7년 우리 혁명과 건설이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간고한 시기에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는 구호밑에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적대고조에로 부르시여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수령님의 부르심을 심장으로 받든 강선제강소 강철전사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짓부시고 공칭능력의 배이상 강편을 생산하는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보람찬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강선제강소는 천리마의 고향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강선제강소의 한점의 불꽃은 거대한 힘으로 전국에 파도처럼 퍼져나갔으며 전체 근로자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이겨내면서 천리마의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쳤다. 그리하여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진보와 문명에로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여 지난날 가혹한 착취와 압박, 세기적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주, 자립, 자위하는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강국을 일떠세웠으며 이 행정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불패의 생활력과 정당성이 남김없이 실증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0년 8월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를 소집하시고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라는 연설을 하시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인민경제 모든부문에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주시였으며 1968년 5월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를 소집하시고는 천리마작업반운동발전의 력사적로정을 총화하시면서 이 운동의 혁명적본질과 위대한 생활력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밝히시고 이 운동을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은 첫째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둘째로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셋째로 책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람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사상혁명을 하라는것이며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기술혁명을 하라는것이며 책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곧 문화혁명을 하라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53페지)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일떠선 전국의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상과 도덕, 경제와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전례없는 위대한 변혁과 전환을 일으켜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인민경제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을 포괄하는 전인민적운동으로 확대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 새 힘의 대표자들의 대렬이 급속히 늘어났다.

또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더욱 심화발전하여 2중천리마작업반, 천리마직장, 천리마공장 칭호쟁취를 위한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되였다.

1973년, 이해에 우리의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당 제 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을 더욱 앞당기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였다.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우리 로동계급과 천리마기수들의 념원을 반영하여 혁명의 붉은 대오 《피바다》근위대, 《꽃파는 처녀》근위대를 뭇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4.25혁명정신》, 《기양의 기백》, 《만경대농장원들의 일본새》로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나감으로써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전국의 공장, 기업소 직맹조직들에서는 《천리마작업반의 날》을 정하고 이날에 매주 정상적으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실천토론회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천리마기수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이 땅우에 공산주의의 려명을 앞당기는 시대의 선구자, 당의 붉은 전사들의 대렬이 비상히 늘어나고있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가 더욱 높이 발양되여 생산과 기술발전, 나라살림살이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는 등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의 천리마시대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자랑스러운 사변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1973년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3대혁명의 기치따라 6개년계획수행을 결정적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첫째가는 과업의 하나인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천리마기수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54페지)

천리마기수들과 천리마작업반운동참가자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의 하나인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갔다.

그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우며 낡고 뒤떨어진것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면서 개인의 리익보다 나라와 집단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며 당과 수령,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혁명가적기풍을 키워나갔다.

또한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천리마기수들이 자신을 혁명화하고 자기 작업반을 혁명화할뿐아니라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뒤떨어진 작업반을 도와주고 혁명화하며 그들을 다같이 천리마대진군의 보람찬 대오에 들어서게 하였다. 그리하여 뒤떨어진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 한사람도 없이 모두가 주인다운 태도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며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이악하게 끝까지 관철해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끊임없이 앙양시켜 나갔다.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기본과업의 하나이다.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은 기술혁명의 기본과업인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짓부시면서 도처에서 집단적기술혁신을 일으켜 어렵고 힘든 부분부터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다그쳐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줄이고 로동자들은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나갔다.

집단의 힘, 집단의 지혜를 모으며 련접공장과 련접작업반 기술자들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설비의 기술공정을 적극 개조하고 가능한 모든곳에서 산업텔레비죤화와 산업전화를 도입하며 기술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공업을 더욱 현대화하였다.

또한 모두가 기술의 주인이 되여 기계설비들의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며 기대와 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한사람당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뿐아니라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 접근시키기 위한 투쟁,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천리마기수들과 천리마작업반운동참가자들은 사상, 기술혁명과 함께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기본과업의 하나인 문화생활령역에서 온갖 낡고 부패한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그들은 책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문화기술수준을 전반적으로 훨씬 높이는 동시에 특히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으로부터 도시와 농촌마을에 이르기까지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는데서 일대전변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환하게,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아름답게 꾸리고 설비와 기대들은 알른알른하게 거두며 생산과정으로부터 포장, 보관, 수송에 이르기까지 모든행정에서 원료, 자재, 제품들을 깨끗하게 문화성있게 다루는 기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온갖 낡은 생활습성을 뿌리빼고 뒤떨어진 생활환경을 개조하는 등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문명하고 건전한 생활문화를 세웠다.

오늘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은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인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를 높이 울려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집단의 지혜와 힘을 총집중하여 설정된 공격목표를 진격전으로 점령해나가며 천리마의 진군속도를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고있다.

또한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사대주의, 경험주의, 형식주의, 보수주의, 요령주의, 소극성, 신비주의, 로쇠현상 등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들을 불사르고 약동하는 청춘의 기백으로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서 모든 일을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담차게 달라붙어 패기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속도전》의 요구를 관철하여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여 나가고있다.

1973년도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세찬 불길속에서 소대 전체가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적영웅주의와 공산주의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끊임없이 혁신하며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전형이며 천리마조선의 자랑스러운 기상의 전형으로서 소대장에게는 2중로력영웅칭호, 전체 소대원들에게는 로력영웅칭호가 수여된 계관군위천리마룡양광산금산광구 2중천리마7호굴착기소대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2중천리마작업반이 천리마영예상을 받았으며 많은 기업소와 직장이 천리마공장, 천리마직장 칭호를 받았다.

공업부문에서는 27개의 2중천리마작업반이 천리마영예상칭호를, 11개의 공장이 천리마공장, 120개의 직장이 천리마직장, 610개의 천리마작업반이 2중천리마작업반, 2천200개의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의 칭호를 받았다.

농업부문에서도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작업반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찬 하나의 붉은 집단으로 꾸리며 나라의 주인된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짓부시고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과감히 벌려 농업생산을 장성시켰으며 농업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한 10개의 2중천리미작업반이 천리마영예상, 15개의 농장이 천리마농장, 163개의 천리마작업반이 2중천리마작업반, 694개의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의 칭호를 받았다.

청소년학생들속에서도 공산주의 붉은 집단운동인 천리마학급, 모범분단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행정에서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였으며 당의 교육정책을 높이 받들고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소년단생활과 학습에서 항상

모범이 된 학생소년들이 《김일성소년영예상》, 《김일성청년영예상》을 받았다. 그리고 2개의 대학이 천리마대학, 4개의 천리마학교가 2중천리마학교, 29개의 학교가 천리마학교, 218개의 천리마학급이 2중천리마학급, 2천 803개의 학급이 천리마학급, 443개의 모범분단이 2중모범분단, 5천524개의 분단이 모범분단으로 되였다.

또한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우리 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인민반을 하나의 붉은 집단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진행한 2천875개의 인민반에 천리마인민반, 192개의 천리마인민반이 2중천리마인민반, 17개의 2중천리마인민반이 천리마영예상을 받았다.

이밖에 사무기관, 과학, 문화, 예술부문에서도 천리마기수대렬이 수없이 늘어났다.

이리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1973년말까지 천리마기수들의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 공업부문에서만도 103만 7천여명의 천리마기수들을 망라하는 4만 4천 100여개의 천리마작업반, 3천 6백여개의 2중천리마작업반, 950여개의 직장과 185개의 공장이 각각 천리마직장과 천리마공장칭호를, 7개의 천리마직장이 2중천리마직장칭호를 받고 155개의 2중천리마작업반이 천리마영예상을 받았다.

농업부문에서도 거의 모든 작업반들이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참가하여 1만 4천 964개의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칭호를, 1천 83개의 천리마작업반이 2중천리마작업반칭호를, 64개의 2중천리마작업반이 천리마영예상을 받았으며 135개의 농장, 농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천리마농장, 천리마공장 칭호를 받았다.

학생들속에서도 천리마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과 2중천리마학교인 만경대구역 창덕학교를 비롯하여 7개의 대학이 천리마대학으로, 30개의 천리마학교가 2중천리마학교로, 377개의 학교가 천리마학교칭호를, 1천486개의 천리마학급이 2중천리마학급, 2만 8천 543개의 학급이 천리마학급으로, 5천 60개의 모범분단이 2중모범분단, 5만 4천 909개의 분단이 모범분단으로 되였다. 특히는 4천여명의 학생소년들이 《김일성소년영예상》, 《김일성청년영예상》을 받았다.

또한 1만6천213개의 인민반이 천리마인민반, 1천 162개의 천리마인민반이 2중천리마인민반칭호를 받았으며 72개의 2중천리마인민반이 천리마영예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사무기관, 과학, 문화 예술부문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참가하였으며 그 대부분이 천리마기수대렬에 망라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작업반원들과 인민반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짓부시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와 맡은바 혁명임무수행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으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모범이 된 2중천리마작업반들과 인민반들이 천리마영예상을 받았다.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천리마영예상을 받은 2중천리마작업반, 인민반들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1973. 4. 13결정)

천리마황해제철소 2중천리마 강철직장 2중천리마 2호 평로작업반

김책제철소 천리마 해탄직장 2중천리마 가열작업반

기양뜨락또르공장 천리마기관직장 2중천리마 크랑크축작업반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단조제1직장 2중천리마 450톤프레스작업반

룡양광산 금산직장 2중천리마 7호굴착기작업반

안창호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제9직장 2중천리마 제2작업반

천리마아오지탄광 천리마회암3갱 2중천리마 탄캐기중대

천리마신창탄광 천리마2갱 2중천리마 굴파기 제1소대

혜산청년광산 8.26갱 2중천리마채광소대

백원선동무가 사업하는 종합기업소 천리마건축제2직장 2중천리마 제1작업반

원산수산사업소 트랄선단 2중천리마 171호작업반

천리마려명수림산사업소 소백산작업소 2중천리마 제3작업반

천리마청진객화차대 천리마청진렬차검사중대 2중천리마 제2작업반

평양전력설계사업소 2중천리마 서두수설계실

천리마만경대영예군인공장 2중천리마 금속작업반

강학수동무가 사업하는공장 자동화직장 2중천리마기계화작업반

성진내화물공장 천리마보수직장 2중천리마제관작업반

9월 28일공장 청년조기직장 2중천리마중형 제1작업반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자동화조절기분공장 2중천리마기계화작업반

독로강발전소천리마발전직장 2중천리마운전작업반

화평광산청년갱 2중천리마채준제1작업반

리정민동무가 사업하는 건설사업소 설비조립직장 2중천리마전기제1작업반

천리마근위화학설비조립종합기업소 천리마공무동력직장 2중천리마 제3작업반

함흥시 삼일석료종합상점 2중천리마 삼일분점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운수부 2중천리마수리소

김순모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2중천리마제1작업반

박효신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제3직장 2중천리마가공작업반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협동농장 2중천리마제2작업반

량강도 갑산군 평화협동농장 2중천리마 제1작업반

한병기동무가 사업하는 종합기업소 제4건설사업소 제3직장 2중천리마 청년작업반

함남도 국영단천종축장 2중천리마축산제2작업반

황남도 옹진군농기계작업소 2중천리마 수리작업반

강원도 통천군 미평협동농장 2중천리마종축작업반

평남도 증산군 농기계작업소 2중천리마수리작업반

평북도 태천군 덕흥협동농장 2중천리마종축작업반

함남도 함주군 조양협동농장 2중천리마과수제2작업반

량강도 풍서군협동농장 내포작업반 2중천리마 종축분조

평남도 성천군 천리마성천고등농기계학교 2중천리마 실습장작업반

평남도 강서군 천리마강선고등중학교 2중천리마 생화작업반

함경남도 광천군 천리마 룡대고등중학교 2중천리마 자연분과작업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1973. 4. 17결정)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동 2중천리마 20인민반

평양시 순안구역 남산동 2중천리마 29인민반

평양시 중구역 천리마신암동 2중천리마 6인민반

평양시 대성구역 미산1동 2중천리마 11인민반

평남도 순천군 련포리 2중천리마 57인민반

평북도 신의주시 청송동 2중천리마 25인민반

함남도 신포시 해암2동 2중천리마 25인민반

함북도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1동 2중 천리마61인민반

함북도 무산군 무산읍 2중천리마 100인민반

함북도 연사군 신양로동자구 2중천리마 69인민반

량강도 삼지연군 리명수로동자구 2중천리마13인민반

강원도 평강군 가곡리 2중천리마9인민반

강원도 금강군 금강읍 2중천리마 61인민반

개성시 판문군 판문읍 2중천리마 33인민반

지질총국산하 황해남도 지질탐사경영국 배천지질탐사대 2중붉은기조사중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성대히 기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열의와 로력적앙양으로 들끓고 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한 중앙경축보고대회와 평남도 경축군중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이 전국각지에서 진행되였다.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조선인축하단, 제10차, 제11차, 제12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중국과 쏘련에 상주하고있는 조선공민축하단 성원들이 경축행사들에 참가하였다.

또한 중앙과 평남도 경축행사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28개의 외국대표단들과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경축행사들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과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이 걸어온 지난 25년간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에 휩싸여 그이께 충성다할 일념으로 불탔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불멸의 홰불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히시면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그 깊고 억센 뿌리에 기초하시여 백전백승의 혁명적 당, 조선로동당과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137페지)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직후에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로선에 따라 내외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반석같은 토대우에 새형의 인민정권을 세울수 있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수 있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자기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새생활, 새력사를 창조하게 되였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떳떳이 진출하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자랑찬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걸어왔다.

공화국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이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두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았다.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웠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그리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3대기술혁명을 중심과업으로 하는 6개년계획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고있으며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보지 못한 민족적대번영의 시기에 처하여있으며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는 비상히 높아지고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의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공화국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오직 조국의 자유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투쟁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한결같이 우리를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없이 흠모하고 신뢰하며 그이의 혁명전사로서 살며 투쟁하는것을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중앙경축보고대회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9월 8일 평양체육관에서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중앙경축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수령님의 령도를 따라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된 경축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위한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전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25년동안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부문에 걸쳐 세기적변혁을 이룩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는 또한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지 못한채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맞는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나라를 통일하기 위하여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130여차례나 제기하고 꾸준한 투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미제의 부추김밑에 조국통일의 근본원칙들과 배치되게 행동하고있음을 신랄히 폭로하였다. 그리고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 투쟁할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보고에서는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여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세계 평화를 이룩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에 뒤이어 대회에서는 재일조선인 축하단 단장이 축하연설을 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재일조선인총련합회로부터 보내온 축기를 삼가 올리였다.

보고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우리 인민의 불같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각도 소재지들과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조선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구분대들에서도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경축보고회를 성대히 가지였다.

전국 각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의 본보기이다.》의 제목으로 강연회들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평안남도경축군중대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9월 9일 남포시에서는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기념하는 평안남도경축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군중대회가 진행되는 시경기장에는 남포시와 여러군들에서 모여온 도안의 근로자들로 꽉들어차 있었다.

대회에서는 먼저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로력적위훈을 세운 평안남도안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공동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이어 경축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평안남도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마련하시였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신것을 비롯하여 당의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실 때마다 평남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고 온 나라에 일반화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평남도를 굴지의 기계공업기지와 금속공업기지, 연료동력기지를 가진 강력한 중공업지대로, 억년 가물을 모르고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지어 해마다 만풍년을 맞는 곡창지대로 전변시켜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평남도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높은 령마루에 올라섰다.

군중대회참가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이날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남포시 경기장에서는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평남도안의 5만명의 학생소년들이 대집단체조《은혜로운 해빛아래 꽃피는 평남도》를 진행하였다.

서막과 7장, 종막으로 구성된 집단체조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들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서 사는 도안의 인민들의 끝없는 행복을 노래하면서 혁명발전의 중요한 시기마다 평남도를 찾으시여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를 일반화하심으로써 온 나라 인민들을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대한 서사시적화폭들을 감동적으로 펼쳐보이였다.

집단체조는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에 대한 전인민적찬가로 해와 같이 다하도록 수령님을 따르며 그이께 충성을 다하려는 우리 전체 인민의 열화같은 심장의 노래로 되고있다.

집단체조는 깊고 폭넓은 정치사상적 내용과 높은 예술성,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절찬을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성대한 경축연회를 베푸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다섯돐을 경축하여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연설하시였다.

연회에서는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로 충만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들을 대표하여 로동자대표가 축배사를 하였다.

전체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이 흘러넘치고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우리 인민의 굳은 결의가 넘쳐 흐르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충성의 결의모임과 청년학생들의 야회

경사스러운 민족적 명절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들끓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근로자들의 충성의 결의모임과 청년학생들의 경축야회가 9일밤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과 우렁찬 대합창으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정을 안고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빛내인 로동청년들이 련이어 연단에 뛰여나와 로동계급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감격에 넘쳐 이야기하면서 그이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조선로동계급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에 대하여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그들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이해 인민경제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앞당겨 끝내며 년말까지는 6개년계획말생산수준을 돌파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다지였다.

모임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붉은 마음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광장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고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대합창으로 번져갔다.

군중들은 《조선인민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봉화산기슭》, 《유격대행진곡》등의 주악과 합창에 맞추어 노래부르고 춤추면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오늘의 행복을 긍지높이 자랑하였다.

이날밤 평양체육관 앞광장에서도 외성구역, 평천구역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야회가 있었으며 모란봉청년공원에서는 중구역청소년학생들의 충성의 야회가 있었다.

한편 대동강과 보통강에서는 시내 청년학생들의 꽃배놀이도 있었다.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9월 1일과 2일에 사회과학원의 주최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깊이 연구학습한 론문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다》를 비롯하여 18건을 발표하였다.

과학토론회에서는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대표인 조선대학교 부학장의 토론도 있었다.

과학토론회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관철하며 널리 해석선전하여 이 땅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더욱 활짝 꽃피여나도록 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칠 굳은 결의를 담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9월 3일에는 출판보도부문연구토론회도 진행되였다.

또한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기념하여 사진전람회도 있었다. 여기에 전시된 약 160점의 사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난 스물다섯해동안 혁명과 건설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업적들을 집약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9일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모셔져있는 수령님의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의 묘에 당과 정부 간부들이 화환을 진정하였다. 이날 대성산에 있는 항일혁명렬사들의 묘지에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교육, 문화 기관들에서와 시내 근로자들이 화환과 꽃묶음을, 인민군렬사탑에는 당과 정부간부들과 시내 근로자들이 화환을 각각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신 첫돐을 성대히 기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필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온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해가 지나갔다.

수령님께서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신 첫돐을 뜻깊게 기념하여 12월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중앙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사회주의헌법을 가진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높은 성과를 올린 수많은 근로자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정무원부총리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김일성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공화국국적법발포 열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과 제13차, 제14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 제1차재일동포녀성조국방문단이 참가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필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무기이라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과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국가 기관들의 구성과 의무 및 활동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의 본질과 우월성, 그 불패의 생활력과 거대한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회주의법건설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지금까지 헌법력사에서 찾아볼수 없었던 독창적인 체계와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내용을 가진 새형의 주체헌법을 우리 인민들에게 마련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는 그이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 해방된 조국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울것을 구상하시여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인 법사상과 립법경험이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조건에 맞게 이 전통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에 걸쳐 쌓아올리신 영광찬란한 세계사적업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우리 당의 올바른 로선과 정책,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예술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풍부한 경험을 집대성한 혁명과 건설의 총서이며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과시하고 그것을 후대에 길이 전하는 불멸의 력사적문헌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백과전서적인 대법전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주의 새생활의 위대한 헌장으로서 날이 갈수록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헌법이 실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는 새로운 전변이 일어날것이며 우리 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6권, 357페지)

수령님께서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하여주심으로써 우리 혁명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 우리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더욱더 촉진하게 되였다.

기념보고회에서는 이러한 위대한 헌법을 가지게 된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행복이며 영광이라고 강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한 날을 뜻깊게 기념하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친히 제정하여주시였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베풀어주신 또하나의 커다란 정치적배려이며 우리 국가와 인민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질 일대 경사이며 온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다.

다음으로 보고대회에서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공화국국적법발포 열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이룩한 해외교포운동의 업적과 경험을 법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해외교포운동의 기본원칙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고있으며 해외교포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히고있는 가장 독창적인 헌법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연설을 마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끝난 보고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빛나는 사회주의헌법의 혁명적기치따라 앞으로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우리 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각 도 (직할시), 시 (구역), 군들에서도 성대한 기념보고회들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정하여 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중앙과학연구토론회가 12월 25일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과학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필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최고형태의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원칙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법적담보》등 여러연구제목이 토론되였다.

조선인민군창건스물다섯돐을 기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그를 오늘과 같이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불타는 충성의 열정을 안고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이날을 맞이하여 조선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장병들에게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찾으시여 명절을 맞는 군인들을 축하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2월 8일 이 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면서 대학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학의 교육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지고 주체적인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이 대학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 일당천으로 준비된 무적의 혁명군대로 더욱 강화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날 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을 경축하는 끝없는 영광을 지닌 이 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자신들을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다 바칠줄 아는 참된 근위대, 결사대가 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그들은 특히 이날 수령님께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질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수령님께서 인민군장병들에게 돌려주신 극진한 배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에게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공포하시였다.

정령에 의하면 우리 당의 유일사상

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우리의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 잘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군대로 만들며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서 공훈을 세운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에게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또한 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수호하기 위한 위대한 성전에서 불멸의 영웅적위훈을 세웠으며 조선로동당의 자위의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투준비와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온갖 창조적 적극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고있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있는 비행구분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경비대 각 구분대와 구분대군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받은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군인들은 자신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그이께 영원히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중앙과 지방 예술단들은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군인들을 찾아 축하공연을 활발히 벌리였다.

중앙보고대회 2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렬사유가족들, 조선인민군륙해공군 및 인민경비대 장병들, 영예군인들, 로농적위대원들, 렬사가족과 인민군후방가족들, 시내 근로자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지난 25년간 걸어온 영광에 찬 영웅적투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자위의 혁명적군사사상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군사전략으로써 력사상 가장 포악하고 야수적인 두 제국주의, 일제와 미제를 타승하는 준엄한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자위의 군사로선과 위대한 국방건설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으며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계신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창건후 오늘에 이르는 스물다섯해동안 혁명의 세찬 폭풍우를 헤치고 치렬한 계급투쟁과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조국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왔으며 어떠한 원수들과도 싸워이길수 있는 일당백, 일당천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떠한 적들의 침략도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여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39~340페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안에는 당의 유일사상이 그 어느때보다도 꽉 들어차고 주체형의 피만이 세차게 흐르고있으며 모든 장병들이 그 어떤 풍파와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높은 혁명적각오로 불타고있다.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는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육체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고 로농적위대와 붉은 청년근위대의 전투준비가 완성되였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통일을 계속 방해하며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을 사촉하여 감히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놈들을 단매에 처부시고말것이다.

각 도(직할시) 소재지들에서와 인민무력부,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각 구분대들에서는 기념강연보고회를 진행하였다. 기념강연보고회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였다.

보고대회와 기념강연보고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수령님을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힘을 다바쳐 투쟁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이밖에도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탁월한 군사사상과 군사리론에 대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가 있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항일혁명렬사들의 묘지와 인민군렬사탑에 화환과 꽃묶음을 드렸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창립 스무돐을 기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몸소 세워주신 김일성군사종합대학창립 스무돐기념보고회가 2월 6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된 보고회에서는 먼저 창립스무돐을 맞이하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이 대학 교직원,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발기에 의하여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창립된 대학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보살핌속에서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 그간 쌓아올린 업적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기념보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스무해동안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감회깊이 더듬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혁명무력건설에서 간부양성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카륜과 고유수, 오가자에서 장차 조선혁명을 떠메고 나갈 수많은 혁명간부를 양성하시고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마당거우와 백석탄 밀영의 군정학습에서,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와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혁명의 골간을 아껴 키워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군사교육전통에 기초하시여 조국해방전쟁이 한창 가렬하던 시기에 군사종합대학을 세워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고등군사교육의 전당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당 군사간부양성에서 새로운 획기적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학생 한사람을 천금과도 비길수 없이 귀중한 우리 당의 보배라고 하시면서 대학사업과 학생들의 생활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온갖 극진한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으며 최대의 영광인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을 모신 대학의 영예까지 지니게 해주시였다.

군사종합대학은 수령님께서 다섯차례의 현지교시와 20여차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비롯해서 혁명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군사간부양성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선 수많은 군사간부들을 양성하여 인민군대의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함으로써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전후시기에는 전군을 간부화, 현대화하고 그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대학은 오늘날 세계1등급의 종합적고등군사교육의 기지로, 군사과학의 전당으로 꾸려졌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맹세문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대, 결사대로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을 기념

조선인민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과 싸워이긴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7월 27일)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을 맞는 우리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특히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고도로 자동화된 세계굴지의 현대적뜨락또르공장인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준공하여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선물로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업적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며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가져오기 위하여 해마다 7월 27일을 《농촌기술혁명지원의 날》로 제정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전국각지의 렬사가족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7월 26일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기념중앙보고대회를 성대히 진행하였으며 각 도소재지들과 조선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구분대들에서는 기념보고회들을 진행하였다.

미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지난 스무해전 3년동안의 전쟁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민족의 영예를 고수하느냐 아니면 미제의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엄혹한 시련이였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투쟁에서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한마음한뜻이 되여 결사적으로 싸움으로써 전쟁의 어려운 시련을 영예롭게 이겨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147페지)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자위적군사사상과 천재적군사예술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과 그의 침략무력에 대한 혁명적인민과 혁명군대의 빛나는 승리였다.

조선전쟁에서 제놈들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참혹한 패배를 당한 미제는 교훈을 찾을 대신 계속 전쟁정책을 추구하며 우리 나라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제놈들의 범죄적책동에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적극 끌어들이고있으며 여기에 고무를 받은 남조선당국자들은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을 덮어놓고 반대하면서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 엄숙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영구분렬의 위험을 가시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력사적인 조국통일 5대강령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은 미제와 그를 추종하는 남조선의 매국악당들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남북의 모든 애국력량을 총동원하여 통일위업을 촉진시킬수 있게 하는 민족의 대강령이며 가장 적극적인 구국대책이다.

오직 조선의 분렬을 꾀하는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만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은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반대해나설수 있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이 분렬과 전쟁의 길로 나가 끝끝내 새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때에는 스무해전에 당한 참패보다 몇곱절 더 큰 징벌을 받고 종국적으로 멸망할것이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을 맞이하여 전국사회과학토론회, 미제의 만행을 폭로규탄하는 녀성성토대회, 평양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야회, 전국청년학생들의 우등불모임 등이 있었다.

또한 이날을 맞이하여 인민군렬사탑과 항일혁명렬사들의 묘에 화환을 드리였다.

이와 같은 모든 모임들의 참가자들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의 참을성있는 노력

을 원쑤들이 그 어떤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산하고 감히 우리에게 계급전쟁을 강요한다면 어느때든지 사양하지 않고 혁명전쟁으로 대답할 불같은 투지를 가다듬었다.

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더욱 촉진할데 대하여 말하면서 백전백승의 힘의 원천인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끝까지 관철하는 참된 혁명전사가 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대회에 이어 《미제야 이땅에서 당장 물러가라》의 노래 주악이 힘있게 울려퍼지는 가운데 격노한 20여만군중은 거리로 밀려나가며 장엄한 시위를 벌렸다.

시위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남북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우리 세대에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결의와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에서도 군중대회와 시위가 있었다.

이날 또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에 미제승냥이들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에 의하여 당시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천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분노의 땅 신천에서는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단죄규탄하는 전국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성토모임이 있었으며 신천의 미제학살만행장소들에서는 각 도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복수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들의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원쑤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 말 결의를 다졌다.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민들의 군중대회와 시위

《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는 조선인민은 100여년의 피맺힌 철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6월 25일 김일성광장에서는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평양시 군중대회와 시위가 있었다.

이날 혁명의 수도 평양시안의 근로자들, 일당백의 로농적위대원들, 청년학생들, 가두녀성들이 미제에 대한 불붙는 적개심을 안고 거리에 떨쳐나섬으로써 삽시에 대회장과 그에 잇닿은 연도들에 20여만군중이 꽉들어찼다.

철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력사의 심판에 제소하며 준렬히 단죄규탄하는 군중의 웨침소리는 하늘땅을 진감시켰다.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의 연설이 있은데이어 근로단체 중앙급 책임일군들의 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월 23일 력사적인 연설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이 온 겨레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방침이며 미제와 남조선괴뢰악당들의《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위대한 강령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또한 전쟁이 끝난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미제가《닉슨주의》에 따라 량면전술을 쓰면서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두개 조선》을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고 남조선에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고있는데 대하여 치솟는 격분으로 단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국이 급변하는 오늘의 정세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자기의 군대를 철거시키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44페지)

미제침략자들은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추세에 맞게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며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연설자들이 힘주어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또한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가장 정당한 제의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나라와 민족앞에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될것이며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꾀하면서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범죄적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남북조선인민이 단합된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 불같은 결의를 담은 연설들은 원쑤놈들을 단죄하는 군중의 폭풍같은 절규로 하여 여러번 중단되였었다.

연설자들은 끝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투적 련대성을 시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날인 6월 25일부터 3년간의 전쟁에서 만회할수 없는 패배를 당한 놈들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날인 7월 27일까지의 기간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가 세계적범위에서 광범히 벌어졌다.

이해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을 맞으며 더우기는 수령님께서 6월 23일에 하신《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의 력사적인 연설에서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천명하시여 국제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지지성원을 받고있습니다. »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단행본, 13페지)

이해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기네공화국 대통령,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주석,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이며 팔레스티나혁명군 총사령관, 수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투쟁단체 지도자들, 사회단체 책임자들, 각계각층 군중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전문과 편지들을 보내여왔다.

전문과 편지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조선인민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기의 내부문제를 자신이 해결할수 있도록 미제침략군은 당장 물러가야 한다고 견결히 주장하였다.

제3세계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사회단체들에서도 우리 나라의 해당 단체들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전문과 편지들을 보내는 한편 여러가지 련대성행사들을 광범히 조직진행하였다.

그들은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여 매일과 같이 군중집회와 반미시위를 벌리였으며 친선모임, 강연회, 도서전람회, 사진전시회, 영화상영주간 등 여러가지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월간에 세계직련, 세계민주청년련맹 뷰로, 국제학생동맹 서기국,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설서기국,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세계평화리사회, 아세아아프리카법률가회의 상설서기국, 아랍법률가동맹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국제민주단체들, 각국의 진보적인 사회단체들과 민주인사들은 호소문, 성명, 결의문, 서한, 담화 등을 발표하여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침략행위를 항의규탄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세계직련에서 발표한 서한에서는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릴것을 모든 나라 직맹조직들과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으며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은 호소문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하여 힘찬 투쟁을 벌릴것을 모든 나라 평화애호정부들과 인민들, 국제민주단체들, 각국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혁명가들에게 호소하였다.

또한 세계민주청년련맹 뷰로와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은 성명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요구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련대성운동을 벌릴것을 산하 단체들과 진보적청년학생들에게 호소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조국의 완전한 통일에로 가닿는 지름길을 다시 한번 천명한 위대한 강령이라고 하면서 그를 널리 보도하는 한편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였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널리 진행된 조선인민의 련대성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군중모임들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지지한다!》, 《조선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통일되여야 한다!》, 《조선은 하나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소리높이 웨쳤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세계 각국의 혁명적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가 미제를 남조선에서 내몰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절대지인 지지와 성원은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며 세계혁명운동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의 표시이며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의 표명이다. 그것은 또한 조선인민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의 강력한 시위로 된다.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인 남조선호전분자들의 조선정전협정위반행위

조선정전협정은 스무해전인 1953년 7월 27일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으로 일으킨 조선전쟁에서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하여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함으로써 조인되였다.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문제의 《최후적인 평화적해결》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밖으로부터의 무력증강행위를 비롯한 일체 적대적행위와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과 그에 린접한 해면 및 상공의 존중을 담보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정전협정의 요구대로 남조선에서 물러갈대신에 전조선을 삼켜보려는 침략적기도밑에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기도 바쁘게 그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땅과 바다, 하늘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미친듯이 감행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강도적본성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련일 감행하고있으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습니다.** »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11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지 불과 20분만인 1953년 7월 27일 22시 20분경에 우리측에 기관총사격을 가한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날이가고 해가 바뀔수록 우리측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더욱 악랄하고 대규모적으로 감행하여왔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할 망상밑에 남조선을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전략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남조선에 《나이크헤르큘레스》, 《호크》유도탄, 《오네스트죤》로케트와 같은 여러가지 원자 및 유도 무기와 신형 작전장비들을 끌어들

이며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 비행장, 항만, 전략도로 등 군사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완충지대로 설정된 비무장지대의 남쪽부분 전역에 걸쳐 포진지, 영구화점, 참호, 교통호 등으로 련결된 전투진지들을 설치하고 거기에 각종 중장비와 중무기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그곳을 완전히 전투진지화하였다.

이처럼 미제침략자들은 비무장지대안의 남쪽부분을 전투진지로 전변시켜놓고 자동무기로 무장한 전투부대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악랄하고 대규모적인 총포사격과 무장공격행위를 거의 매일과 같이 감행하여왔다.

미제침략자들은 1967년 7월 16일 170여놈의 미제침략군을 동원하여 수천발의 자동무기사격을 하면서 우리측에 대한 악랄한 무장공격을 여러차례에 걸쳐 감행하였으며 1970년 10월 7일, 8일, 9일에는 수백놈에 달하는 미제침략군을 동원하여 우리측에 무려 10여만발의 중무기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이와 같은 총포사격과 무장공격행위는 정전후 1973년 7월까지 지난 스무해동안 5, 630건에 이르렀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비무장지대와 동서해상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무장간첩들을 끊임없이 침입시켰는바 1971년 한해동안에만도 근 80여차례에 걸쳐 330여놈의 무장간첩들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으나 놈들은 우리측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몽땅 사살 또는 체포되고말았다.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해상에서 우리측 연해에 여러가지 해군함선과 무장선박들을 침입시켜 우리측 해안지대에 함포사격과 우리측 함선과 어선을 공격하며 평화적어민들을 살해, 랍치하는 등 악랄한 도발행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1968년 1월 23일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 나라 령해깊이 침입시켜 날강도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한것을 비롯하여 정전후 지난 20년동안 해상에서 감행한 범죄행위는 1, 110여건에 달하며 우리측 연해에 침입한 적들의 해군함선과 무장선박수는 26, 630여척에 달한다.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공중에서도 공화국북반부지역상공에 여러가지 군용비행기들을 침입시켜 정찰행동을 감행하며 정상적인 순찰비행을 하고있던 우리측 비행기를 공격하는 등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1969년 4월에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을 우리 나라 령공에 침입시켜 적대적정탐행위를 감행한것을 비롯하여 놈들이 감행한 공중침범행위는 정전후 지난 20년동안 무려 880여건에 달한다.

이와 같이 미제침략자들이 정전후 1973년 7월까지 지난 20년동안에 우리측을 반대하여 감행한 각종 군사적도발행위는 우리측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항의규탄한것만하여도 12만 4천 800여건에 달한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은 특히 최근년간에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놈들은 자기의 강도적본성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그것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측이 추궁한 놈들의 군사적도발행위의 건수가 1971년에는 1만 1천 130여건이였다면 1972년에는 1만 5천277건, 1973년에는 1만 5천870여건으로 매년 더욱더 늘어나고있는 사실이 말하여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회담을 위하여 북과 남으로 오가는 길목인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의 남쪽부분에 매일과 같이 자동무기와 전투인원들을 끌어들이며 우리측을 향하여 총부리를 돌려대고있으며 지어는 기관총사격까지 가하고있다. 그리고 놈들은 여러가지 군용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우리측에 대한 공중정찰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으며 동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해군함선들과 무장선박들을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다.

이와 같이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부추김밑에 남조선호전분자들이 감행한 정전협정위반행위는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1973년 7월 25일까지만 하여도 무려 1만5천730여건에 달한다.

이 모든 엄연한 현실은 미제침략자들이 말로는 대화를 《지지》하는척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대화를 반대하며 남조선호전분자들을 군사적대결에로 부추기는 교활한 술책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조선에서 긴장성을 격화시키고 항시적으로 전쟁위험을 조성하고있는 화근으로 되고있으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로 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부추김밑에 있는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이 1973년도에 감행한 새 전쟁준비책동과 군사적인 도발책동에 대하여 우리측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책임을 추궁하고 항의규탄한 자료의 일부만 보아도 다음과 같다.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부추김을 받는 남조선호전분자들이 새 전쟁준비에 더욱 광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은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되는 첫 출발부터 이를 방해하여나섰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을 평화와 민족적단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에로 부추겨왔습니다.》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단행본, 11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침략정책에 따라 남조선호전분자들을 부추겨 새 전쟁 도발준비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전쟁사환군들을 남조선에 연방 파견하는 한편 남조선호전분자들과 외세의존자들을 뻔질나게 불러들여 전쟁밀담을 벌려 새 전쟁 도발준비를 더욱 고취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침략정책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남조선괴뢰악당들에게 《승공통일》과 《힘전태세》를 부르짖게 하는 한편 남조선괴뢰군의 이른바 《현대화계획》을 내걸고 남조선에 여러가지 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72년 12월말 남조선에 이른바 《함대의 주력으로 될 구축함》을 미국으로부터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여 《명명식》놀음까지 벌린것을 비롯해서 1973년에 5인치포와 《롱신레이다》등 《신예장비》를 갖추고 《미해군의 현역함으로 활약》하던 다른 한척의 구축함을 남조선괴뢰군에게 넘겨주는 한편 1개대대규모의 《에프—4팬톰》전투폭격기 수십대와 《코브라》, 《후에이》, 《치누크》 등 신형 직승비행기 수십대를 비롯해서 중장비들을 수많이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이와 같이 대규모적인 군사장비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형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임과 동시에 남조선에서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소동을 련이어 일으키면서 전쟁분위기를 더한층 고취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73년 2월 제놈들의 침략군 제2사단 기갑부대들을

비무장지대 림진강부근에 끌어내다 수많은 땅크들과 장갑차 그리고 군용비행기들과 지상부대들을 참가시켜 이른바《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적인 협동작전훈련을 감행하였으며 서울북쪽의 《１군단구역》에서는 이른바 《적진》을 가정하고 거기에 포와 비행기를 동원하여 총포사격을 가한 후에 미제침략군의 지상부대를 공수하여 《돌격》작전훈련을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침략군은 《유엔군사령부》의 간판밑에 4월초부터 동남해안일대에서 남조선괴뢰군까지 끌어내여 이른바《７３기동훈련》이라는 대규모적인《한미합동상륙훈련》, 전선서부비무장지대 남쪽으로부터 2마일 떨어진 １５０고지에다 미제침략군 보병, 포병, 항공 부대를 동원하여 감행한 《맹습2호》라는 대규모적인 《공중기동훈련》, 제4유도탄사령부소속 제４２야포대를 끌어내여 １개월간에 걸쳐 오네스트죤 로케트를 련일 쏴댄 《유도탄사격훈련》등을 벌렸다.

또한 미제침략자들은 이해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비무장지대에서 １０키로메터 떨어진 지포리와 포천 등지에서 미제침략군 제７２장갑련대, 제３２련대, 제１７기계화보병련대, 제１５야포대구분대들과 １６대의《후에이》라는 신형 직승비행기, 땅크 등 여러가지 중장비들을 동원하여 이른바《작전준비훈련시험》, 《실탄사격훈련》의 미명하에 감행한 태파랄라 레드아이유도탄들과 벌칸포를 마구 쏴댄 대규모의 군사연습 등을 비롯해서《상륙작전훈련》이요, 《합동군사훈련》이요, 《공중기동수송훈련》이요, 《해상사격훈련》이요 하면서 매일과 같이 화약내풍기는 군사소동을 벌리였다.

미제침략군놈들은 다만 지상에서뿐아니라 바다에서도 련일 군사연습소동에 미쳐날뛰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이해 2월 제놈들의 침략군인 미군 제３１야포대를 끌어내여 서해해상에서 《유도탄사격훈련》을 벌린데 이어 3월 8일부터는 서남해상의 넓은 수역에서 또다시《유도탄사격훈련》을, 3월 5일부터는 남조선괴뢰해군을 끌어내여 거제도 남동단 일대 해상에서 《해상사격훈련》을 벌렸다.

이처럼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대가 합동하여《공격작전》훈련을 연거퍼 감행한다는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라는것은 론의할 여지가 없다.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의해서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된 새 전쟁도발을 위한 련병장으로 전변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긴장상태가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놈들의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위험은 날로 커가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앞잡이 남조선군사파쑈악당들의 군사적도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불장난을 거의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있으며 정세를 극도로 첨예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와 령해 그리고 령공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범행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들의 계획적행동의 한 고리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１９７３년판, １１０～１１１페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매국도당은 １９７３년에도 남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더욱 발광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군사분계선선상에서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매일과 같이 각종 군사적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땅에서 미제침략군놈들은 １월 １３일에 １３차에 걸쳐 １３정의 기관총을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안에, １월 １８일에는 2문의 １０６.７미리박격포를 비무장지대안에 비법적으로 끌어들였는가 하면 １월 １２일에는 비무장지대의 남쪽부분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１２.７미리 대구경기관총으로 ９０여발, 엠－１６자동소총으로 수십발, 기관총으로는 ３００여발의 총사격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이에 앞서 １월 ７일과 ９일에도 송현리 무명고지에서 엠－１６ 자동소총과 기관총으로 우리측을 향하여 ３５０여발을 쏴댔다.

비무장지대에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이 감행한 범죄행위는 １월한달동안에 １, １２０여건이나 된다.

3월 7일 남조선괴뢰군은 미제의 사촉밑에 엠－１６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각종 정탐기재들을 휴대한 무장인원들을 군사분계선표식물 제０６５４호북쪽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케 하고는 제놈들의 음흉한 기도가 드러나게 되자 이 일대에 연막탄을 발사하고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그를 엄호하는 한편 이미 배치해놓고있던 １０５미리곡사포와 １０６.７미리박격포로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수천발의 포탄을 마구 쏴댔다. 이 악랄한 도발행위는 5시간동안이나 계속되였다.

적들은 이와 같은 도발행위를 감행한 후에도 그 일대에 매일과 같이 전투폭격기 및 정찰기를 비롯한 각종 군용비행기들을 동원하고 여러가지 중무기와 자동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첨예화시켰다.

또한 미제침략군놈들과 그의 부추김을 받는 남조선괴뢰군놈들은 4월 ３０일 비무장지대에 중땅크를 끌어들인 것을 비롯하여 4월 ２０일부터 6월 ２８일까지 ４６０여차례에 걸쳐 １０６.７미리박격포와 ８１미리박격포, ５７미리무반동포, 대구경기관총, 자동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였다면 5월 ９일과 5월 ３０일에는 우리측 인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조준사격을 감행하였으며 4월 ２２일과 6월 8일에는 우리측을 향하여 각각 ２００여발의 기관총사격을 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놈들은 남조선강점 미8군《첩보대》와 남조선중앙정보부소속 무장간첩놈들을 5월 １일, 3일, ２５일, ３０일, 6월 2일, 7일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다. 그러나 놈들은 경각성높은 우리 인민군초병들에 의하여 몽땅 체포 또는 사살되고말았다.

미제침략자들의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군은 우리측을 반대하는 총포사격을 7월과 8월에도 수십차례나 계속하였으며 ９월 3일에는 비무장지대에 수륙량용땅크까지 끌어들이고 ９월 2일과 3일에 우리측을 향하여 각각 수백발의 총탄을 쏴댔다.

９월 ３０일에도 놈들은 비무장지대안에 장갑차를 비롯한 중장비들과 중무기들을 끌어들여 설치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안에 화점과 전투시설물들을 굴설 또는 설치하는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１０월 4일에는 비무장지대안에서 기관총과 엠－１６자동소총으로 우리측을 향하여 수백발의 총사격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특히 １０월 １８일 １２시 ５０분경부터 １５시 ３５분경까지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을 동원하여 전선중부 비무장지대 남쪽으로부터 불과 4.5키로메터 떨어진 사오리부근에 숱한 무력과 로케트발사대를 끌어내다놓고 여러발의 오네스트죤로케트를 쏴대는 극히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 우리측을 향한 총사격행위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였는바

１１월 ４일부터 １２월 ２１일까지의 사이에도 ４０여건이며 여러가지 중무기를 끌어들인 사건은 ２０여건이나 된다.

바다에서 미제침략군놈들은 ３월 ７일 여러척의 간첩선들을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켰으며 ４월 ２９일과 ５월 １３일，６월 ８일에도 경호함을 비롯한 해군함선들을 우리측 동해와 서해에 침입시켰다. 놈들의 해상침범행위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였다.

놈들은 특히 １０월부터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거의 매일과 같이 여러가지 해군함선들과 무장간첩선 및 선박들을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１１월 ２７일과 ２８일，１２월 １일에는 남조선괴뢰해군의 구축함 ９１호와 ９６호，쾌속부대수송선과 로케트포함 ３１１호를 비롯한 수많은 해군함선들을 서해 우리측 연해인 해주，등산곶，옹진반도 앞바다에 침입시켜 우리측을 반대하는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우리 나라 서쪽항구에 드나드는 수많은 외국상선들의 자유로운 항행을 방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이해 １１개월동안에만도 놈들이 우리측 연해에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한것만 하여도 １００여차례나 된다.

그러므로 １２월 １일에 진행된 군사정전위원회 제３４６차회의에서 우리측은 해상에서 적대쌍방간의 무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들이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있는 제놈들의 통제섬으로 드나들려는 경우에는 우리측에 사전 신청서를 낼것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놈들은 우리측의 요구에 응하지도않았을뿐아니라 우리측 해상에 대한 침범행위를 더욱 격증시켰다. １２월 １일부터 １２월 ２３일까지 불과 ２３일동안에 놈들은 또다시 구축함，고속도로케트함，경호함，중형상륙함，쾌속부대수송선 등 각종 해군함선들을 서해의 우리측 연해인 해주，등산곶，장산곶 앞바다에 １００여차나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부추김밑에 있는 박정희군사깡패놈들이 바다로부터도 얼마나 군사적도발에 날뛰는가 하는것은 １９７４년 ２월 １５일 서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간첩선 《３３수원호》와 《３２수원호》를 비롯하여 １９７３년 １０월부터 １９７４년 ２월 ２０일까지의 기간에 무려 ３５０여차례에 걸쳐 ９００여척의 각종 해군함선들과 무장선박 및 간첩선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악랄한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한데서도 엿볼수 있다.

공중에서 미제침략자들은 １월 １６일 비무장지대에 직승비행기를 침입시킨것과 １７일에 《에프－４디》전투폭격기 ２대를 서해해상으로부터 우리측 룡매도상공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케 한것을 비롯하여 １월중에 놈들은 고공정찰기들과 각종 군용비행기들을 동원하여 동서해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상공을 횡단하면서 무려 １７차에 걸쳐 우리측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또한 ２월 １５일 전선중부 중동리계선 우리측 상공에 군용비행기를 침입시킨것을 전후하여 ２월에 ７차에 걸쳐 우리측 지역과 비무장지대 상공에 군용비행기를 침입시켰는가 하면 ４월 ２１부터 ５월 ２０일까지에는 ９차에 걸쳐 비무장지대안에 직승비행기를 침입시켰다.

놈들은 ６월 ２３일 ２１시 ４０분경 한대의 전투기를 우리측 지역 봉화산과 감수봉 및 철원 상공에，같은날 ２２시 ３２분경에는 한대의 전투기를 우리측 지역 봉화산과 장풍 및 국사봉 상공에 침입시켜 각각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８월 ２９일과 ９월 ６일 또다시 비무장지대 상공에 군용비행기를 침입시키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특히 오끼나와에 기지를 둔《에쓰아르－７１》고속도고공정찰기를 １２월 ４일과 １０일에 ２차례에 걸쳐 고성，평강，연안 일대에 이르는 상공에，또한 같은 날인 １２월 ４일과 １０일 그리고 １８일에 ３차례에 걸쳐 서해 옹진반도상공에，１２월 １９일에는 ４대의 군용비행기를 등산곶 앞 우리측 연해상공에 각각 침입시켜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케하였다.

적들은 또한 비무장지대 상공에서도 우리측을 반대하는 정탐과 적대 행위를 계속 감행하였는바 １１월 ５일부터 １２월 ２１일까지 ６차례에 걸쳐 군용비행기를 침입시켰다.

이와 같이 놈들이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는 새 전쟁 도발행위는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마련할 목적으로 오직 전쟁전야에만 하는 고의적인 침략행위이다.

모든 사실은 오늘 조선에서 긴장성과 전쟁위험이 조성되고있는 근원이 미제침략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에 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부추김밑에 있는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제놈들의 무분별한 전쟁준비책동과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로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할것이다.

오늘 조선에서 평화가 유지되고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노력과 참을성때문이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군사파쑈악당이 우리에게 무력으로 덤벼들어 전쟁을 강요한다면 그에 단호히 맞서 싸울것이며 침략자들이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철저히 소탕할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3년은 우리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자랑찬 업적을 쌓아올린 승리의 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신년사》, 2페지)

수령님께서는 이해에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통찰하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모든 분야에서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쓸어버리며 혁명을 더욱 줄기차게 밀고나갈데 대한 투쟁방침을 새롭게 밝히시면서 이 거창한 투쟁에 혁명적로동계급과 당핵심들, 청년인테리들을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을 더 빨리 실현하도록 이처럼 3대혁명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게 하신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공장, 기업소, 농촌, 항구들을 찾으시고 우리 인민들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농민들은 당중앙의 지도밑에 해와 달이 다하도록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그이께 충성다할 불타는 마음으로 일터마다에서 《피바다》근위대, 《꽃파는 처녀》근위대를 무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와《꽃파는 처녀》를 혁명화의 교과서로, 투쟁의 무기로 삼고 영원히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 공산주의자로 살것을 다짐한《피바다》근위대, 《꽃파는 처녀》근위대원들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대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왔다.

《피바다》근위대, 《꽃파는 처녀》근위대를 선두로 한 각지 근로자들은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4.25혁명정신》, 《기양의 기백》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1973년도 공업생산을 1972년에 비하여 19%나 늘이는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그리하여 1973년에 우리 나라 공업생산은 1970년에 비하여 1.6배로 늘어났으며 이 기간에 매해 평균 17%씩 장성하였다.

우리 공업의 이와 같은 높은 발전속도는 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고 기술을 끊임없이 개조하여 나간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할지라도 경제를 얼마든지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고하신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의 진리를 다시금 힘있게 확증해주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또한 위력한 주체공업을 골간으로 하여 반석같이 다져진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는이상 아무리 사나운 경제적파동이 세계를 휩쓸고 어떠한 연료, 동력 위기가 많은 나라의 경제건설을 뒤흔들어놓아도 끄떡하지 않고 인민경제를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일대 앙양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먼저 3대기술혁명 특히 농촌기술혁명에 힘을 집중하여 1974년에《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뜻깊게 맞이할수 있도록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한것이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들은 농촌기술혁명의 웅대한 강령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불타는 열정을 안고 그전보다 생산능력이 10배나 되며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과 자동흐름선으로 장비된 금성뜨락또르공장을 건설하였고 자동차생산고지도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가 2~2.5대, 벌방지대에서는 3~4대에 이르게 하였으며 자동차대수도 부쩍 늘어나게 하였다.

또한 여러 비료공장들에 수십만톤의 질소비료생산능력을 새로 조성하고 거의 모든 도들에 도합 100만톤능력의 린비료공장들을 일떠세운 결과에 화학비료를 정보당 물동량으로는 1톤이상, 성분량으로는 200키로그람이상씩, 미량원소도 충분히 줄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았다.

그리고 이해에 대자연개조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압록강관개가 완공되였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영농사업에 대한 지도가 개선되였으며 협동농민들이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이해에 일찌기 없었던 풍년이 들었으며 축산, 과수, 잠업 등의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앙양이 일어났으며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졌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다른 중요한 성과는 중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함으로써 힘든 로동을 많이 줄이면서도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가져온것이다.

중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청년인테리들이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수많은 기술적창의고안들을 내놓고 받아들임으로써 중공업부문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장비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특히 당중앙의 지도와 배려에 의하여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강선제강련합기업소, 2.8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 산업텔레비죤과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를 세우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원격조종에로 넘어감으로써 생산지휘의 기동성을 보장하고 생산을 늘였으며 힘든 로동과 고열로동을 없애는데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왔다.

이해에 중공업기지가 더욱 강화되였다.

지금 있는 탄광, 광산들이 대대적으로 개건확장되면서 여러가지 현대적인 채굴설비들이 더 많이 들어갔으며 무산광산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영유광산선광장을 비롯한 수많은 선광장들의 건설이 끝났다.

또한 서부지구에 대규모철광산들과 여러 지구에 유망한 탄광들이 새로 개발되였다.

북창화력발전소와 새로운 화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수십만키로와트의 발전능력이 새로 조성되였으며 서두수발전소 제2계단공사와 대동강발전소 건설공사가 적극 추진되였다.

이해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제1호용광로의 개건확장공사와 환원단광직장건설이 완공되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강철 및 압연직장, 청년화학공장, 세멘트공장, 전동기공장, 대형변압기공장, 전선공장, 베아링공장, 보이라공장, 가성소다공장 등 수많은 현대적인 대규모중공업공장들의 건설공사들이 추진되였다.

기술혁명이 강력히 추진되고 중공업기지가 한층더 확대된 결과 전력과 석탄, 쇠돌, 강철, 압연강재, 유색금속, 화학섬유와 세멘트를 비롯한 전반적인 중공업제품생산이 부쩍 늘어났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거둔 또하나의 자랑찬 성과는 이해에 수송사업에 큰 힘을 넣어 여러가지 새로운 수송능력을 더 조성함에 따라 수송의 긴장성을 풀수 있는 전망이 열려진것이다.

이해부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삼화수송건설지휘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관, 삭도, 벨트콘베아의 삼화수송체계를 세우기 위한 대규모의 건설공사들이 대대적으로, 진공적으로 추진되였다.

또한 220리의 신천—은률사이의 철길공사와 청진—라진사이의 철도전기화가 끝났으며 화차생산이 1972년에 비하여 1.4배로 늘어났다.

이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달성한 다른 중요한 성과는 경공업에 상당한 힘을 넣어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적발전을 더잘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들에게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공급하고 녀성들의 가정일을 훨씬 덜어줄수 있게 된것이다.

국가의 방대한 투자와 이 부문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력투쟁에 의하여 방직공장, 신발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경공업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여 중앙경공업기지가 더욱 확대강화되였다.

또한 매개 도들에 편직물공장과 곡산공장들이 일떠서고 매개 시, 군에 옷공장과 식료가공공장들이 다 꾸려짐으로써 비날론직물, 세타, 쟈케트, 가죽신발, 고기가공품, 과일가공품 등 경공업제품생산이 1.4~1.7배이상씩 각각 늘어났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1973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앞으로 더 높은 단계에로 일대 비약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닦았다.

《속도전》의 진군나팔소리높이 3대기술혁명을 눈부신 속도로 추진

우리 로동계급이 1973년에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의 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온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이며 사회주의적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우리앞에 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41폐지)

3대기술혁명로선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혁명의 방향과 방도를 력사상 처음으로 뚜렷이 밝혀준 위대하고 독창적인 기술혁명의 강령이다.

3대기술혁명과업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으며 여기에는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로동생활에서 보다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며 사람들의 생활을 참말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것으로 만들어주시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근로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있다.

《속도전》의 방침따라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의 지름길로 힘차게 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고리를 기계공업의 발전, 특히 공작기계생산에서 찾으시고 여기에서부터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우리 로동계급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이니만큼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먼저 공작기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7개년계획을 수행하던 1963년 5월 7일에 벌써 3대기술혁명수행의 력사적인 지름길을 밝혀주시려고 희천과 구성의 공작기계공장 일군들을 만나시고 지금은 기계화가 중심과업이지만 멀지않아 자동화가 중심과업으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자동공작기계를 많이 만들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로동계급들은 새로 자동화직장인 5.7직장을 꾸리고 자동공작기계인 유압모사자동선반을 중심으로 대담하게 축가공자동선을 형성함으로써 4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하면서도 15배의 능률을 내게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64년 4월 23일 축가공자동선을 보시면서 부문자동화로부터 완전자동화에로 넘어갈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희천의 로동계급들은 그후 베트가공자동흐름선과 변속함가공자동흐름선을 만들어 공작기계생산의 완전자동화에서 막히였던 중형물가공의 고리를 풀어놓음으로써 방대한 증산의 예비를 조성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6개년계획의 3대기술혁명수행의 첫걸음을 떼던 1971년 벽두에 몸소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에 새 기술혁신의 위대한 봉화를 지펴주시였으며 온 나라 근로자들을 3대기술혁명의 첫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장엄한 전투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지도와 두터운 신임에 끝없이 고무된 희천의 기계전사들은 대중적영웅주의와 창조적지혜를 발휘하여 생산조직을 대담하게 개편하고 생산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공작기계생산을 일약 4배로 늘이는 빛나는 위훈을 세웠으며 희천의 모범을 따라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판을 크게 벌려놓고 공작기계직장, 공작기계작업반을 꾸리면서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일대 전격전을 벌렸다.

이리하여 우리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공작기계 3만대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였으며 공작기계생산에서 6개년계획말 생산수준을 단숨에 돌파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작기계생산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면서 이번에는 3대기술혁명, 특히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대들보와 같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

산에 화력을 집중하도록 우리의 로동계급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당중앙은 경제선동을 힘차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면서 문화예술인들과 출판보도일군들을 보내여 우리 로동계급들을 농촌기술혁명의 웅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는 충성의 전투에로 불러일으켰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건설자들은 무비의 헌신성과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그전보다 생산능력이 10배나 되며 수백대의 흐름선, 조립선으로 장비된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완전히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건설(1973년 7월조업)하는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그 규모에서나 기술장비에서 세계1등급인 금성뜨락또르공장의 조업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위력을 시위하는 포성이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는 투쟁에서 울려온 혁명의 장엄한 북소리이다.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로동자, 기술자들도 중요생산공정을 자동화하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동차생산고지를 빛나게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74년에 1970년에 비하여 뜨락또르생산은 일약 8배로, 자동차생산은 3배로 늘어나게 되며 더욱더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생산해낼수 있는 위력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이처럼 3대기술혁명수행에 필요한 공작기계, 뜨락또르, 자동차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결과에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력사적위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줄이고 유해로동과 고열로동을 없앤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에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는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시였다.

《지난해에 중공업부문에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는 사업에서 일정한 전진을 가져왔으며 힘든 로동을 훨씬 줄이고 많은 로력을 절약하였으며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로동자, 기술자들과 청년인테리들이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새로운 기술적창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신년사》, 4페지)

이 해에 우리의 청년인테리들은 중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수많은 기술적창안들을 내놓음으로써 많은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특히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하루빨리 앞당겨실현하시기 위하여 이 해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까지 친히 부르시고 산업텔레비죤화와 자동화를 다그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고무된 황철의 로동계급들은 당중앙에서 파견한 기술집단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강철직장에 대한 산업텔레비죤화와 이미 수십번의 실패끝에 단념해버렸던 자동전화에 의한 지령체계를 단 한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당중앙에서는 강철직장에 대한 산업텔레비죤화와 자동전화에 의한 지령체계를 세운 황해제철련합기업소들을 모방삼아 강선제강련합기업소, 2.8세멘트공장,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성진제강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산업텔레비죤화, 자동화, 원격조종을 실현하도록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었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생산공정의 산업텔레비죤화, 자동화 원격조종의 실현은 무엇보다먼저 용해공, 소성공, 운탄공들이 하루에도 수십수백번 분석실이나 사명실로 올리내리뛰던 힘겨운 일과 고열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생산지휘에서 과학성과 기동성, 통일성을 확고히 보장해주었다.

또한 산업텔레비죤화, 자동화, 원격조종이 실현된 결과 여기서 절약되는 로력들중에서 청년들을 뽑아 새로 건설되는 11개 대상의 대규모 야금공장, 화학공장, 광산, 철길건설장들에 돌림으로써 새로 늘어나는 긴장한 로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특히 기술혁명이 강력히 추진되여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기지가 한층 더 확대됨으로써 전력과 석탄, 쇠돌, 강철, 압연강재, 유색금속, 화학섬유와 세멘트를 비롯한 전반적인 중공업제품생산이 부쩍 늘어났다.

3대기술혁명부문에서는 이해에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줄이는 투쟁과 함께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애는 투쟁을 강화하여 그 어느부문보다도 어렵고 힘든 작업이 많은 채취공업의 일을 더욱 현대화, 대형화, 고속도화하였다.

탄광, 광산들에서는 대담하게 갱굴격구조를 개선하면서 갱단면도 통이 크게 잡아 뚫고나감으로써 앞으로 망속의 채굴설비들을 얼마든지 현대화, 대형화, 고속도화할수 있는 갱건설을 다그쳤다.

또한 착암기에 비하여 6배의 능률을 내는 천착기, 중형압축기대신 대형압축기, 1~2톤의 광차대신 8~10톤의 광차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채굴설비들을 전반적으로 현대화, 대형화, 고속도화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림업부문에서는 수백대의 뜨락또르와 상하차기중기, 권양기들로 산판의 나무모으기, 나무실고부리는 일을 더 기계화하였다.

단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림업부문에서는 산판에서 나무모으기의 기계화는 그전해에 비하여 16.4%, 나무실고부리는 일의 기계화는 5% 더 실현함으로써 통나무생산량을 높이였을뿐만아니라 산판의 고된 로동을 상당히 덜었다.

공업부문에서는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의 반자동화, 자동화, 송배전조작과 철길운영의 자동화, 원격조종도 번개같이 실현하였다.

특히 전력공업과 철도운수부문들에서는 1971년에 창조된 송배전조작과 철길운영의 자동화, 원격조종의 본보기들을 1972년에 관리국별로 그 일반화경험을 쌓은데 기초하여 1973년에는 각각 200개이상씩의 송배전소들과 역들에 보급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반자동화, 자동화가 널리 실현됨에 따라 그 기초인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였다.

우선 중소규모의 자동화계기기구분공장들을 도처에 건설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전국에 널려있는 생산자원과 내부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전인민적운동으로 이르는곳마다에 자동화계기기구분공장들을 꾸리였다.

또한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새로 일떠선 분공장들에 대한 기술적지원을 강화하면서 능률이 높은 자동 및 반자동설비들과 단능설비들을 많이 만들어 분공장들이 하루빨리 은을 내게 하였다.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자동화기구, 계기들을 표준화, 규격화하고 모든 자동화요소, 계기, 기구들을 경량화하도

록 하였으며 그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에 쓰이는 원자재가 량적으로는 적지만 높은 순도와 정밀도, 다종다양한 품종을 요구하는 특성에 맞게 생산기술적대책을 세워 생산공급체계를 세웠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의 커다란 밑천으로 하여 2~3년내에 여러가지 자동화시범단계와 자동화일반화단계의 경험들이 전국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토대들이 닦아졌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 더욱 접근시킨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82~38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시였다.

지난 기간 당의 올바른 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농촌의 전기화와 수리화가 이미 완성된 조건에서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농촌에 더 많은 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들을 보내주는 문제가 절박하게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시기 일부 일군들이 농촌을 차요시하며 농촌에 응당한 투자를 하지 않은 현상에 대하여 엄하게 비판하시면서 농촌에 대한 국가투자를 대대적으로 늘이도록 배려하여주시였으며 우선 농업생산의 결정적수단인 뜨락또르와 자동차, 화학비료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기양과 9.25뜨락또르공장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그들속에 혁신의 불길을 지피시여 뜨락또르생산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키도록 하시였으며 농촌기계화를 빨리 완성하기 위하여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세계1등급의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불과 1년반 남짓한 기간에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농작물의 소출을 높이고 힘든 일을 덜어줌에 있어서 필요한 3요소비료의 균형적생산공급, 농약과 살초제가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새로 린비료공장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으며 미량원소비료생산기지도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특히 우리 농민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힘들게 김매는것을 보실 때마다 가슴아파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살초제공장을 신설확장하도록 하시는 한편 귀중한 외화를 돌여 많은 량의 살초제를 사오도록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취하여주신 이러한 혁명적조치들과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우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농촌경리의 뜨락또르보유대수를 15마력으로 환산하여 7만~8만대에 이르게 할데 대한 테제의 전망과업도, 경지 1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을 1톤이상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테제의 전망과업도 1974년에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당면하게 이해에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보유대수가 2~2.5대, 그중 벌방에는 3~4대에 이르게 되였으며 1972년에 비하여 223%에 달하는 효능이 높은 갖가지 살초제들이 공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전면적화학화에 복무하여야 할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주시는 한편 많은 품이 드는 씨뿌림,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가마니짜기일을 덜어주는데 힘을 집중하게 하시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농촌기술혁명에 필요한 농기계생산에 힘을 넣어 이해 11개월동안에만도 그전해 같은기간에 비하여 두날식보습은 1.7배, 뜨락또르용 련결차는 4.7배, 벼수확기는 1.3배로 생산하였으며 계획밖에 이동식탈곡기는 1천대, 가마니짜는 기계와 새끼꼬는 기계는 도합 870여대를 생산공급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이미 있던 뜨락또르와 새로 공급받은 뜨락또르들을 잘 리용하여 가을갈이한 논을 이른봄에 다시한번 갈고 풀이 뾰족뾰족 돋아나올 때 다시 물논갈이를 하여 논김을 잡아없애는 새벌갈이체계를 수십만여정보의 논에 실시함으로써 논김을 두번 맨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면서도 김매기의 일손을 덜어주었다.

또한 이해에 총 93만정보의 논밭에 효능이 높은 갖가지 살초제를 쳐서 힘든 김매기를 화학적방법으로 해결하였으며 과수원에 새로 400여대의 고속도분무기를 도입하여 수동식분무기보다 약뿌리기의 능률을 2.5배로 높이면서도 대부분의 로력을 절약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벼수확기와 이동식탈곡기, 자동차와 뜨락또르들을 잘 리용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더욱 현대화한 결과 례년보다 1~2개월 앞당겨 영농사업을 당해년도에 결산짓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것은 가을걷이, 낟알털기, 가을갈이, 운반 등 기본작업들이 단 4개월동안에 진행되는 복잡한 조건에서 기계화작업조직의 높은 수준과 기계화의 높은 장비도를 보여주고있을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만큼 농촌로력을 절약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특히 중요한 농업지대마다 가마니공장들을 꾸려놓고 가마니생산을 현대화, 공업화함으로써 농장원들을 가마니짜는 일로부터 대부분 해방시켰을뿐만아니라 그들을 당정책학습과 영농지식학습에 충분히 참가하게 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이처럼 농촌기술혁명에 종사하는 물질기술적조건이 마련됨에 따라 중요영농작업의 기계화,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농산작업, 과수작업, 집짐승기르기의 종합적기계화와 전면적화학화를 다그쳐댔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가까운 앞날에 정보마다 투하되는 로력을 평균 논에서는 60~80공수, 밭에서는 20~30공수로 낮추어 한사람이 논은 5~6정보, 밭은 8~10정보이상 다루게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본보기들을 꾸려주시였다.

1971년 9월 2모작밭농사에서 종합적기계화와 전면적화학화를 실현하여 9~10톤의 알곡을 생산할데 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은 황주군 룡천협동농장에서는 밭 두벌농사의 36가지 생산공정가운데서 34공정을 완전히 기계화하여 앞뒤그루를 합해 정보마다 적은공수의 로력으로 9.1톤을 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밖에도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 삼석3작업반, 황남도 은률군 장련협동농장 10작업반을 비롯한 모든 종합적기계화포전들에서는 전면적화학화까지 배합하여 1974년부터 농장단위로, 군단위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그리하여 협동농장들에서도 공장, 기업소에서와 같이 점차 ８시간로동제를 실시하며 로동조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훨씬 줄일수 있는 앞날이 더욱 바투 다가왔다.

우리나라 녀성들은 가정일과 부엌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빨리 해방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시켜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혁명과 건설에 마음껏 참가할수 있도록 커다란 사회적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은 경우 ７７일간의 유급산전산후휴가를 받고있으며 세아이어머니의 경우에는 ６시간 로동하고도 ８시간분의 로임을 받으며 아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사회적배려를 받고있는 녀성들이 퇴근한후에도 많은 시간을 가정일과 부엌일에 바쳐야 하는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２중적로력부담을 없애는것을 ３대기술혁명의 중요구성부분으로 보시면서 그 과업해결에로 진당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부엌일과 가정일을 짧은 시간에 쉽게 할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식료품가공공업과 일용품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수도화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 농촌수도화가 완성되면 녀성들이 물동이를 이는 일에서 영원히 해방될것입니다.》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１４페지)

녀성들을 가정일과 부엌일의 ２중적로력부담에서 해방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부식물과 주식물 가공을 공업화, 현대화하여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이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매개 시, 군마다에 있는 빵, 국수, 밥 공장들에 새로 ３５０여대의 익힌국수기계와 효모빵 생산공정을 신설하여 익힌국수와 효모빵을 많이 생산하였으며 과실남새가공공장과 고기, 물고기 가공공장들에 랭동고들을 건설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과실가공품과 고기가공품 생산량을 그 전해에 비하여 각각 １．４배이상씩 높였다.

녀성들을 가정일과 부엌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는데서 나서는 다른 중요한 과업은 옷짓는 일과 빨래하는 일을 사회적으로 조직하여 덜어주는것이다.

피복편직공업부문에서는 남자와 학생들의 옷생산을 공업화한 뒤를 이어 중요 도시마다 녀자와 어린이옷공장 ２０８개를, 각 도마다에 옷차림의 편직화를 실현할수 있는 편직물공장들을 각각 건설하여 우리 나라 녀성들을 옷짓는 부담에서 기본적으로 해방시켰다.

기계, 화학, 일용, 상업 부문들에서는 세탁기와 화학비누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면서 인구수에 따라 모든 시, 군들과 주택거리들마다에 화학빨래집, 빨래집들을 세워 복잡하고 무거운 빨래감들을 기본적으로 처리하고있다.

그중에서 혁명의 수도 평양시만 하여도 １０５평방메터짜리 빨래집들이 단 한해동안에 ９０여개씩이나 건설되였으며 이들은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인민반에 나와 주문빨래를 하고있다.

녀성들을 가정일과 부엌일로부터 해방하는데서 또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농촌녀성들의 물동이의 부담을 하루빨리 없애며 아이기르는 일을 덜어주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촌수도화를 전면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온천군 ６．３협동농장에서 수도화의 본보기를 꾸려주시고 벌방지대의 모든 협동농장들이 따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１９７３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우리 농촌들에서는 １９７１～１９７２년 두해동안에 수도화한것 보다 더많이 실현함으로써 벌방지대농촌녀성들을 물동이부담에서 해방시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녀성들, 특히 농촌녀성들의 아이기르는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만경대협동농장을 찾으시고 아이들을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를수 있는 《애기궁전》—농촌작업반탁아소의 본보기를 꾸려주시고 이 표준설계대로 모든 농촌들에 꾸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벌방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의 자연기후적특성과 마을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와 규모로 지은 ３천여개의 농촌작업반탁아소들이 일떠섰다.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의 해빛이 스며드는 방들에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좋게 널판으로 만든 창상을 깔고 침대를 놓았으며 그들의 정서에 맞게 교양할수 있는 여러가지 놀이감과 기재들도 갖추고 울타리를 두른 마당에는 씨름터, 그네터, 물놀이터 등 여러가지 유희시설과 운동기구들을 충분히 마련하여놓아 농촌작업반탁아소는 말그대로 행복의 보금자리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농촌녀성들도 도시녀성들이 부럽지 않게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꾸려진 탁아소에서 어린이들을 키우고있다.

× × ×

녀성들을 가정일과 부엌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특히 녀성들자체가 높은 창발성을 내여 자신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옷공장, 편직공장, 국수공장, 빵공장, 세탁소 건설과 농촌수도화에서 녀성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만수대의사당에서 ８월 ７일부터 ９일까지의 사이에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그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첫날에 평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황남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문덕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성천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두번째날에는 강원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고산군 성북협동농장관리위원회 위원장, 영흥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운전군 송학협동농장관리위원회 위원장, 만포시 고산리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보고하였다.

보고자들은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자기 지방의 실례를 들어가며 말하였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년초부터 수많은 농촌들을 찾으시고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고 그이의 가르치심따라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

으로 보장한 결과 벌방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할것없이 알곡, 축산, 과수, 잠업, 남새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례년에 없는 대풍작을 이룩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수령님께 보고드리였다.

보고자들은 우리 나라 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일어난 일대 앙양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결과이며 농촌테제의 빛나는 열매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9일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을 분석하시고 새로운 승리를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문헌편 참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뼈와 살로 만들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며 농업생산에서 더욱 큰 앙양을 일으켜 농촌테제와 당5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실행에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결의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농업부문일군들과 전체 농장원들은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이해의 농업생산의 결속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새해에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총진군을 개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참석밑에 금성뜨락또르공장 조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때려눕히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낸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을 맞이하여 기양땅에 새로 건설된 금성뜨락또르공장이 완공되였다.

7월 26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새로 건설된 자동화된 대규모의 금성뜨락또르공장조업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금성뜨락또르공장은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을 맞이하여 우리 로동계급이 어버이수령님께 드린 충성의 선물로서《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기계화를 완성하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매우 짧은 기간에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대적인 대규모공장으로 꾸리고 뜨락또르를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습니다.》
(《신년사》, 3폐지)

이날 아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계바다》, 《기계전람관》을 생각케 하는 대형가공조립직장부터 돌아보시였다.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보여주는 금성뜨락또르공장은 종전의 뜨락또르공장보다 10배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의 자동화된 뜨락또르생산기지이다.

대형가공조립직장만 보더라도《천리마》호 가공구역, 《풍년》호가공구역, 조립구역으로 나뉘여 10여개의 직장들이 들어갔는데 그 규모는 모란봉경기장의 두배에 가까와 몇개의 축구선수단들이 동시에 경기를 할수 있는 정도로 크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6선의 자동선, 57선의 흐름선, 16선의 조립선이 경쾌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면서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앞장서나가고있는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 설계집단이 설계하고 이 공장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천리마호 변속함본체가공자동흐름선앞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39대의 설비들로 구성된 이 흐름선이 전목, 선회검사, 청소, 쇠밥처리 등 모든 작업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고있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 보시다가 이 공장 로동계급이 이룩한 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형가공조립직장의 소재넣는 일로부터 제품을 내보내는 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여 하나의 흐름으로 조직함으로써 뜨락또르를 대량 가공조립할수 있는 능력을 조성한데 대하여, 흐름식대량생산의 복잡한 생산공정을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현대적인 체계를 도입한데 대하여, 용해작업으로부터 조형, 청소, 정리작업에 이르기까지의 전공정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고 하나의 흐름선을 이룸으로써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전환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금성뜨락또르공장은 자력갱생의 위대한 혁명정신이 낳은 주체시대의 또 하나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이기도 하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로 불과 1년반동안에 자력갱생의 공장,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일떠세웠다.

설계사업소와 이들을 지원하여나선 700여명의 설계가, 기술자들은 하나의 흐름선설계방향을 완성한데 뒤이어 불과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설계표준화투쟁을 벌려 총 64건에 438종의 기계설비를 표준화하여 6만 5천 300매의 설계도면을 통일화시킴으로써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에 빛나는 공적을 남기였다.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희천, 구성, 룡성, 락원, 만경대 등 1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일에서 해방시킨다는 높은 계급적자각을 안고 수천대의 자동화된 기계들을 만들어가지고 기양땅에《기계바다》를 펼쳐놓았다.

그리하여 기계마다, 자동선, 흐름선, 조립선마다에는 희천, 구성, 룡성, 락원, 만경대를 비롯한 우리 나라 기계공장들의 명판이 우리 글로 가슴뜨겁게 빛나고있다.

실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35일만에 첫 뜨락또르를 만들어낸때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 뜨락또르공업의 자랑찬 력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조그만한 농기구공장에 불과하던 기양뜨락또르공장은《천리마》와 《풍년》호 뜨락또르를 많이 생산하는 현대적공장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농민들은 소농사로부터 기계농사를 짓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1년 11월 21일 이곳 뜨락또르공장을 찾으시고 뜨락또르공장을 기계공장의 본보기로, 자동화의 모범으로, 자력갱생의 공장으로 건설할데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터전까지 몸소 잡아주시였다.

수령님의 부르심에 충직한 기양의 로동계급과 전국의 기계전사들은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세계에 자랑할만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금성뜨락또르공장은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기본수단인 뜨락또르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우리 농업을 고도로 공업화, 현대화할뿐만아니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함으로써 로동생활령역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차이를 없애는데 기여하게 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신 다음 공장책임일군들, 공장기계설비의 설계가들, 제작자들, 건설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달성한 위대한 성과를 치하하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기술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날 금성뜨락또르공장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현대적인 대규모의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조업하면서 우리 로동계급의 위대한 업적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해마다 7월 27일을 《농촌기술혁명지원의 날》로 맞이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참석밑에 평양지하철도개통식 성대히 진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크나큰 은덕을 길이 전할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평양지하철도가 건설되였다.

9월 5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봉화역입구에 드리운 붉은 테프를 끊으시여 평양지하철도의 개통을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동객차에 오르시여 봉화역에서 떠나 승리역, 통일역, 개선역, 전우역, 붉은별역을 차례로 돌아보시였다.

경쾌한 감을 자아내는 지상역에 들어서면 은하수가 비낀듯한 세줄기의 계단승강기가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은하수》를 타고 무수한 별무리가 내려앉은듯이 불빛이 환한 사경을 내려가 중간복도에 이른다.

중간복도에는 상점과 공중전화소, 신문매대 그리고 지상보다 더 좋은 모든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모든 지하역들은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정교한 건축예술의 극치를 이루고있다. 매 지하역들은 천정의 모양, 내부구조, 조명형식이 서로 달라 새로운 감을 준다.

모든 역의 조명형식은 건축형식과 내부장식에 따라 서로 다르다. 승리역의 조명형식은 승리의 광장우에 축포가 오르며 무수한 꽃보라를 뿌리는듯한 샨데리야이며 통일역의 조명형식은 무지개다리를 이어놓은듯한 수많은 백열등이며 봉화역의 조명형식은 여러가지 형식의 장식 등이다.

바닥과 벽체, 3아치로 된 지하역의 기둥들은 모두 칠색이 영롱한 화강석과 무늬 아롱진 대리석으로 되여있다.

넓은 벽과 기둥들에는 조각과 쪽무이대형벽화와 부각작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여있어 문자 그대로 혁명적예술의 보물고를 이루고있다.

지하역마다에 장식한 조각, 벽화, 부각 작품들은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투쟁력사를 반영한 대화폭들이다.

개선역의 정면에는 1945년 10월 14일,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을 향하여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며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하시는 모습을 형상한 석고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그 좌측벽에는 금수산 , 모란봉이 짙은 연록색수림에 쌓여 우뚝 솟아있고 그 앞으로 명절옷을 떨쳐입은 어린이들과 녀성들이 꽃묶음을 정성담아 두손으로 받쳐들고 대회연단으로 나가는 모습, 어버이수령님을 뵈옵게 된 감격과 기쁨으로 소리없는 울음을 울고있는 환영군중을 형상한 천연색벽화가 있다.

우측벽에는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개선연설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전체 인민이 일제잔재를 숙청하고 혁명을 보위하며 새조국건설에 떨쳐나선 씩씩한 모습을 형상하였다.

어느역에 가나 이와 같이 주체사상이 명확한 조각과 벽화, 부각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위력과 풍요한 사회주의문화농촌, 끝없이 아름다운 3천리금수강산이 잘 형상되여있다.

지하철도는 수도 근로자들에게 온갖 교통상 편리를 다 도모해줄수 있게 되여있다.

여러개의 커다란 손님칸을 이어 단 전동차가 련속 꼬리를 물고 구내에 도착하여 12개의 커다란 문을 열어주기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붐비지 않고 빠른 시간에 차에 오르내릴수 있다.

손님이 다 오르면 틀림이 없는가를 기계장치들이 확인하고 전동차는 처음부터 높은 속도로 달린다.

지하의 조건에서도 언제나 공기가 맑고 습기가 없으며 안전하다.

이 모든 일은 중앙조종실과 전동차의 기계장치들이 자동적으로 한다. 중앙조종실에서는 지하철도의 매 로선에서 움직이는 전동차를 종합적으로 관찰하며 원격조종한다. 이것은 자동화된 신호 및 통신체계에 의하여 진행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지하역구내를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건설이 질적으로 잘 되였으며 모든 시설들이 근로자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훌륭히 갖추어진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로력혁신자들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시면서 그들의 로력적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평양지하철도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언제나 심려하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크나큰 은덕이 깃들어있는 지하궁전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양은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사회주의조국의 서울이며 우리 혁명의 발원지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영웅도시 평양을 더욱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281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땅우에 락원의 도시, 공원의 도시를 일떠세우시고는 조국의 장래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평양에 지하철도를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사의 총방향으로부터 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필요한 기술자와 전문가, 기능공들을 망라하는 건설대를 무어주시고 세심히 보살펴 주시였다.

평양지하철도의 첫 발파소리가 울린 그날부터 무려 17차례에 걸쳐 지하철도건설자들의 전투현장을 찾으시여 따뜻한 지도를 주시였으며 200여차례의 교시를 주시여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인 화려한 지하궁전을 마련해주시였다.

평양지하철도의 개통은 수도시민들의 교통의 원활성과 문화성을 더욱 보장하고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며 인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으로 지하철도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교시를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날 지하철도건설에 참가하여 빛나는 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압록강관개 준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대자연개조사업인 압록강관개공사가 완공되여 그 준공을 세상에 선포하였다.

1973년 6월 22일 만풍호반에서 압록강관개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2천리의 물길을 따라 서북방의 알곡생산기지인 9만여정보에 생명수를 보내는 압록강관개는《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며 서해바다의 간석지를 건설하여 나라의 믿음직한 알곡생산기지로 전변시킴에 있어서 의의가 크다.

압록강관개의 조업으로 압록강앞바다로부터 청천강앞바다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펼쳐진 간석지를 얼마든지 개간할수 있게 되였으며 이미 완성된 수리화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되였다.

만풍호를 중심으로 하고 매봉, 대하, 봉명 저수지를 포괄하는 압록강관개는 평남관개의 연풍호, 기양관개의 태성저수지, 어지돈관개 서흥호를 합친것보다 더 풍부한 물을 잡기때문에 해마다 20여만톤의 쌀을 더 내게 할뿐아니라 1억메터의 천을 짤수 있는 갈과 2만 5천키로와트시의 전기, 2만 3천톤의 물고기를 생산할수 있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부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천지가 마르지 않는한 압록강물이 계속 흐를터이므로 압록강물을 리용하여 몇만정보의 논밭에 물을 댈수 있는 큰 관개공사를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압록강관개의 설계안들을 보아주시면서 단순히 관개수한면만 생각할것이아니라 홍수조절지로, 전력생산기지로, 물고기생산기지로, 문화휴식터로 되게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그 이름을 《압록강관개》라고 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어지돈과 청단 등 관개공사에서 단련된 유능한 일군들과 현대적인 기계설비들로 압록강관개건설종합기업소를 무어주시였고 건설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건설자들은 이 관개공사가 서해안간석지를 건설하여 믿음직한 알곡생산기지로 전변시키는 대자연개조사업이라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이곳 건설자들은 새로운 발파방법과 전기가열법에 의한 련속식동기콩크리트치기 등 수많은 선진적인 시공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31개의 동굴, 1천 500여개의 각종 구조물, 발전소들을 완공하였다.

1973년 6월 22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는 압록강관개건설종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였다.

축하문에서는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서해북부지대에 새로 개발되는 대규모간석지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기하였다.

전력공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기술혁명수행에서 나타나는 온갖 소극적인 경향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06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해에 주신 93차례의 현지교시와 교시들에서 전력공업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였으며 특히 기술혁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의 전력고지를 앞당겨 점령하는 예비를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기술혁명을 강화하는데서 찾고 먼저 수풍발전소에 힘을 넣었다.

수풍발전소에서는 기술혁신의 주공방향을 현존발전설비를 정비보강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두고 기술자들속에서 혁명적당조직생활을 강화하면서 낡은 사상잔재와의 투쟁을 벌렸다.

수풍의 기술자들은 발전소란 뭐니뭐니해도 비가많이 와야 한다, 자동화수준이 높아 공칭능력을 겔수 없다는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깨뜨리고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동을 강화하여 발전기의 공칭능력을 110%로 높였으며 발전기의 대보수기간을 70일로부터 10일로 단축하는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수령님께서는 천리마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이 귀중한 혁명적발기를 전력공업부문에 널리 보급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총국에서는 수풍의 혁명적발기를 방식상학을 통하여 일반화한 후 청춘의 기백으로 패기있게 내밀므로써 40여년간이나 움직일줄 모르던 발전기들의 공칭능력을 대담하게 타파하였다.

발전기의 새 랭각기, 절연내력이 높은 권선, 새형의 풍차들을 만들어 발전기들의 공칭능력을 110%로 높인 결과 총국적으로 국가의 방대한 국가투자도 없이 기술혁신만으로 금강산, 부령 발전소들의 년간생산량과 맞먹는 전력을 증산하였다.

또한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수차생산기지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꾸리고 통이 크게 10만크바수차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수차들을 만들어 낡은것과 바꾸었다.

그리하여 발전기들의 수차효률을 전국적으로 3%이상 더 높였다. 이에서만도 년간 875만 6천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증산하였다.

각지 발전소들에서는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정치적신임과 두터운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보답하려는 불타는 마음으로 수풍의 천리마적인 대보수정신을 따라 대보수기일단축운동을 세차게 벌렸다.

이에 따라 두달 남짓이 걸리던 대보수기일을 허천강발전소에서는 7일, 부령발전소와 장진강발전소에서는 각각 11일 사이에 해제끼때에 평양화력발전소에서는 백날씩 걸리던 대보수를 28일에, 북창화력발전소에서는 30일에 끝내는 또 하나의 기적이 창조되였다.

각지 발전소들에서는 이 기적의 나날에 대보수기일을 줄이는데서만도 7천 200만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증산하였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대보수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전력공업부문의 전력생산량이 발전소조업이래 최고수준으로 올라갔고 6개년계획말 전력고지의 정수리우로 가볍게 육박해갔다.

한편 송배전부문에서는 3대혁명의 기치 드높이 전격적으로 송배전운영의 자동화, 원격조종을 다그쳐 전력공급을 더 원활히 보장하였으며 전력계통망을 튼튼히 꾸렸다.

1972년에 30여개의 변전소들

에 자동화, 원격조종을 실현한 송배전 부문에서는 이해에 그 성과를 급격히 확대하여 203개의 자동화, 원격조종 변전소들을 꾸려놓았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북창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와 중소발전소들에 수십만키로와트의 발전능력을 더 조성하고 전력생산을 시작하였다.

또한 새로운 탄광, 광산, 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일어선 환경에 맞게 새 변전소와 송전선을 건설하여 전력계통망을 더 늘여 나라의 전기화를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6개년계획의 전력고지를 1년이상 앞당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전으로 점령할수 있는 발전능력과 송전능력을 튼튼히 마련하였다.

석탄공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탄광설비를 대형화, 현대화하며 탄광들에서 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신년사》, 11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탄광설비를 대형화, 현대화하며 탐사와 굴진을 결정적으로 앞세울 생산기술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특히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지질, 채탄, 기계, 화학, 갱건설 부문의 유능한 일군들을 탄광마다에 내려보내여 현지에서 갱굴격구조개조공정과 갱건설공정을 일일이 심의하였다.

석탄공업부문의 갱건설위원회에서는 현지에서 대중적으로 토의되고 심의된 개조공정과 갱건설공정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비준하는 제도를 세움으로써 새로 개발하는 탄광, 갱들은 물론 지금 석탄을 캐고있는 탄광, 갱들의 채굴설비들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대형화, 현대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또한 탄광작업의 기계화,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데도 계속 큰 힘을 넣어 굴진작업을 현대화, 대형화하였다.

령대, 신창, 안주, 룡등, 아오지 등 많은 탄광들에서 굴착기막장들에 현대적착암기와 쓸모있는 대차, 종합굴진기와 적재기 등 능률높은 선진기계들을 적극 받아들여 굴착기속도를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이해에 굴진설비들을 현대화하면서 굴착기력량을 강화해준 결과에 그 어느해보다도 석탄물천량을 넉넉히 마련하였으며 탄캐기의 앞장을 열어주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유연탄광들과 탄캐기조건이 좋은 무연탄광 탄캐기막장들에는 그 우월성이 확증된 유압식종합기계동발과 보습식채탄기, 원통식채탄기 등 선진채굴기계들을 적극 받아들여 탄캐기터당 석탄생산량을 석탄공업이 창설된이래 최고수준으로 높였다.

로천탄광들에서는 통이 크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자동차들도 지금 쓰고있는것보다도 더 큰것을 받아들이고 굴착기와 불도젤도 능력이 훨씬 더 큰것을 씀으로써 로천채굴의 규모를 일대 갱신하였다.

모든 로천채굴장들에서 박토를 앞세우기 위하여 대발파와 투척발파를 대담하게 진행하고 계단과 도로도 대형설비를 계속 더많이 받아들일수 있도록 크고 규모있게 건설하였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애써 캐낸 석탄을 제때에 실어보내여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은을 내도록 판을 크게 벌려놓고 전격적으로 내밀었다.

석탄이 집중되여있는 지구들과 큰 탄광들에 현대적인 종합저탄장들을 건설하고 한개 렬차가 들어가 석탄을 한꺼번에 실어내올수 있도록 싣고 부리우는 시설을 기계화, 자동화하였다.

그리고 갱이나 탄광들에서 종합저탄장까지는 자동차나 삭도, 화차 등 합리적인 운반수단들을 쓰게 하고 종합저탄장에서 소비지의 역까지는 전용렬차들을 받아들여 석탄에 대한 집중수송체계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이렇듯 갱건설작업, 채굴작업, 로천채굴, 상하차작업을 현대화, 대형화하면서 대규모탄광과 중소규모탄광을 옳게 병진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확보탄량이 많고 발전전망이 큰 중소규모탄광들에 힘을 넣어 큰 규모의 탄광들로 확대발전시키였으며 석탄생산에서 중소규모탄광이 담당하는 몫을 더욱 늘이였다.

광 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채취공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하며 광석을 다량채굴하고 다량처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광석을 다량채굴하고 다량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부문에서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1～12폐지)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이 방침들은 우리 나라 채취공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며 주체공업의 원료기지를 강화하고 생산과 수송을 긴밀히 련결하여 인민경제전반을 새롭게 추켜세우게 하는 위대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는 무산광산을 채취공업부문에서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의 본보기로, 수송에서 관화, 콘베아화, 삭도화의 본보기로, 생산지휘에서 자동화, 무선화의 본보기로 꾸릴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청진제강소의 원료를 공급하는 무산광산에 산업텔레비존과 자동전화기, 고도로 현대화된 무선기들을 보내주시면서 당중앙에서 이 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수백대의 대형자동차들과 굴착기들이 드넓은 철산봉의 박토와 생산의 대형계단들에서 일하지만 생산지휘에서 자동화, 무선화가 실현된 결과 생산지휘의 과학성과 기동성, 통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수송에서 관화, 콘베아화, 삭도화할데 대한 방침을 하루빨리 실현하시기 위하여 무산광산으로부터 김책제철소에 이르는 대규모의 관수송체계를 도입할데 대한 대담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건설을 몸소 보살펴주고계신다.

광업부문에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세계굴지의 대철광기지 무산광산에 힘을 넣으면서 서부지구철광산들에 자동차, 굴착기들을 집중하여 이 해에 개건확장함으로써 6개년계획말의 철광석생산목표를 우리 당 창건 30돐기념일전으로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광업부문에서는 이 해에 또한 화학공업부문에서 100만톤의 린비료생산능력을 조성한 새로운 요구에 맞게 곡산, 중산, 대대리, 동암, 신풍을 비롯한 많은 린회석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린비료생산을 국내원료에 의거할수 있게 조성하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특히 린회석광산들의 선광장건설에서 이때까지 써오던 중형마광기들이 아니라 대형마광

기들을 설치하여 선광설비를 대형화, 현대화함으로써 린회석선광처리능력을 단번에 4배로 높였다.

광업부문에서는 특히 이 해에 당면한 유색금속수요는 물론 다음번 전망계획년도의 10대경제건설목표들중의 하나인 100만톤의 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원료기지인 검덕광산개발에 당적주의를 돌리였다.

검덕광산개발자들과 광산개발자들은 당중앙이 가르쳐주는대로 판을 크게 벌려놓고 갱굴격구조를 통이 크게 형성한 결과 광산설비들을 얼마든지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나갔다.

이들은 굴진과 채굴에는 착암기대신 6배의 능률을 내는 천착기들과 2배의 능력을 가진 압축기들을, 운반에는 소형레루대신 중량레루를, 2톤~4톤짜리 광차대신 10톤짜리 광차를 쓰는 등으로 광산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였다.

이처럼 광산작업이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되여감에 따라 광업부문의 유색광물생산에는 대발파, 다량탁광, 다량운반, 다량처리하는 흐름식생산체계가 확고히 섰으며 광부들이 어렵고 힘든 작업에서 해방되여갔다.

이해 광업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운반선로의 뽀인트자동화와 광석뽑이문(조구통) 자동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였다.

금속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하루빨리 앞당겨실현하시기 위하여 이 해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일군들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 친히 부르시고 산업텔레비죤화와 자동화를 다그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기술혁명수행에서 황철이 앞장서시오. 모방선전을 하겠습니다. 모방선전이라는것은 황철을 모방삼아 선전하겠다는 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커다란 신임을 표시해주시였다.

또한 불과 싸우는 용해공들을 심려하시여 강철직장 산업텔레비죤화에 필요한 귀중한 설비들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중앙방송위원회 텔레비죤기술집단까지 친히 파견하도록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황철의 자동화초병들은 당중앙에서 파견한 기술집단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강철직장에 대한 산업텔레비죤화와 이미 수십번의 실패끝에 내버렸던 자동전화에 의한 지령체계를 단 한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강철직장에 대한 산업텔레비죤화와 자동전화에 의한 지령체계가 세워진 결과 생산지휘의 과학성과 기동성, 통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여기서 일하던 지령원들과 용해공들을 새로 일어서는 야금공장에 보내고도 생산지휘를 더 잘 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용해공들이 하루에도 150번 이상 분석실로 내려뛰고 사령실로 올리뛰던 힘겨운 일이 완전히 없어지고 화려한 꽃주단을 깔아놓은 궁전같은 사령실에 지령원이 혼자 앉아서 강철생산을 지휘하게 되였다.

당중앙에서는 강철직장에 대한 산업텔레비죤화가 실현되여 고열로동, 고된 로동에서 해방된 로동자들이 기뻐하건만 요란한 소음속에서 소리치며 일하는 지령원들의 남모르는 안타까움까지 헤아려보시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쓰자하던 지령전화기와 무선전화기들까지 보내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고합질로동에서도 해방시켜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시료분석때문에 뛰여다니느라고 잃어버렸던 쇠물도 몽땅 찾아냄으로써 첫 한달동안에만도 1만톤의 강철을 더 생산하였다.

강철직장에 대한 산업텔레비죤화, 무선화를 통하여 《인해전술》의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날려보내고 그대신 기술혁명, 특히 자동화의 진미를 가슴깊이 인식한 황철의 자동화초병들은 사별장의 전반적공정에 대한 전면적자동화, 5.14종합직장에 대한 종합적자동화, 소결로, 용광로, 운수, 내화물직장들의 종합적자동화를 실현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과 당중앙의 지도밑에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이해 황철의 자동화경험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투쟁을 패기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이해에만 하여도 강선제강련합기업소의 강철, 원료 계통의 산업텔레비죤화와 자동화, 성진제강소 강철직장,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원료직장에 대한 산업텔레비죤화와 원격조종들을 실현하였으며 지금 그 성과들을 기업소안의 모든 직장들에 번개같이 확대하고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이미 마련된 주체적야금공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렸다.

이해 12월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환원단광직장이 조업되여 우리 나라원료로 흑색야금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또하나의 토대가 마련되였다.

그리고 로체송풍기를 받아들인 청진제강소의 해면철로와 새로운 기술장비를 도입한 4.13제철소 조강로 생산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해면철과 조강생산량이 110~120%씩 늘어났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용광로와 립철회전로들의 보수기일을 줄이고 만부하를 걸어 립철과 선철생산량을 높이였다.

김철과 황철의 로동계급들은 기술준비, 자재준비를 다 갖추자 전격전을 벌리여 60일간 예견하였던 2호용광로대보수는 40일만에, 70일간 계획하였던 1호용광로대보수는 50일만에 해제낌으로써 각각 20일간씩의 선철생산시간을 더 얻어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선철과 립철 생산을 급속히 높이면서 규격강재와 2차금속강재생산을 정상화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기계공업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이미 3만대의 공작기계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면서 6개년계획말의 생산수준을 단숨에 돌파하였던 혁명적기개를 견지하여 1973년에는 공작기계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공작기계생산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면서 련이어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뜨락또르와 자동차생산에 화력을 집중하도록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인 대규모의 뜨락또르공장도 있고 자동차공장도 있으며 여러 지방에 련결농기계공장과 뜨락또르부속품공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와 련결농기계, 뜨락또르부속품, 다이야 같은것도 다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9페지)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이미 마련된 농기계생산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자동차, 뜨락또르, 련결농기계, 농기

구부속품생산을 앞세우면서 공작기계, 채취설비, 대상설비 생산에 힘을 넣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가까운 앞날에 논밭100정보당 6~7대의 뜨락또르, 1대씩의 자동차를 보내주어야 할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세계1등급의 금성뜨락또르공장, 9.25뜨락또르공장, 《충성》호 뜨락또르를 만드는 공장들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 그리고 뜨락또르, 자동차의 협동생산공장들에 정치사업, 생산지도, 기술지도, 보장사업을 집중하였다.

당중앙에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들에 선전선동그루빠를 파견하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경제선동을 대전격전으로 벌려 그것이 생산에서 당장 은을 내도록 힘차게 이끌어주었다.

당중앙의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피바다가극단의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여 벌린 대경제선전선동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무한히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 돌격대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계기로 되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가 2~2.5대에, 그중 벌방지대에는 3~4대에 이르게 되였으며 자동차생산대수는 그전해에 비하여 123%, 그중《승리-58》형 자동차는 136%, 《자주》호는 138%로 각각 늘어나게 되였다.

또한 10월5일전기공장, 청진련결농기계공장, 홍남련결차공장을 비롯한 농기계전사들은 1974년에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뜻깊게 맞이하려는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11개월동안에만 하여도 두날식보습은 1.7배, 뜨락또르용 련결차는 4.7배, 벼수확기는 1.3배로 그 생산을 높였으며 계획밖에 이동식탈곡기는 1천대, 가마니 짜는 기계는 363대, 새끼꼬는 기계는 504대를 더 생산보장하였다.

특히 농촌기술혁명의 주인은 자기들이라는 높은 혁명적책임성과 혁명적긍지감을 안고 례년에 주의를 덜 돌려온 농기계부속품생산에도 힘을 넣음으로써 그 품종수뿐만아니라 수량상으로 2.4배로 늘어난 갖가지 부속품과 많은 다이야들을 생산공급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탄광들과 광산들의 기계화를 실현하며 새로운 탄광과 광산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대형기계들과 여러가지 기계들을 충분히 생산하였다.

5월10일공장, 3월30일공장, 9월28일공장을 비롯한 채취설비생산을 맡은 기계전사들은 탄광, 광산일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에 필요한 전차생산량을 이해의 11개월동안에만 하여도 114.3%, 축전지차는 165.3%, 파쇄기는 162%로 높인것을 비롯하여 종합굴진기, 채탄기, 적재기사슬컨베아 등 채취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수많이 건설되는 현대적공장들에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공급하였다.

그중에서도 천리마락원기계공장, 천리마룡성기계공장, 천리마대안전기공장, 8월8일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의 전문화와 규격화를 다그침으로써 새로 건설하는 공장들과 능력을 확장하는 공장들에 설치할 대상설비들을 생산보장하였다. 이것은 그전해에 비하여 1.5배의 장성으로 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5만크바발전기와 10만크바변압기, 300마력대형불도젤, 특수공작기계, 자동공작기계와 같은 대형기계, 정밀기계를 비롯하여 경제와 국방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과 기술장비들의 생산을 훨씬 늘이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1974년에 뜨락또르생산을 일약 2.3배, 자동차생산은 1.4배로 늘이며 100톤급자동차, 2만톤급선박을 비롯한 대형기계들을 만들어내며 5개전선의 대상설비를 종합적으로 생산공급할수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확고히 마련하였다.

선박공업

선박공업부문에서는 판을 크게 벌려놓고 통이 크게 전격적으로 일하여 이해에 만톤이상의 큰배도 많이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결정적으로 고기배들을 대형화하여야 합니다.…

고기배들을 대형화하는것과 함께 큰 배를 붙일수 있도록 항구들을 개건확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8~19페지)

선박공업부문에서는 지난 시기에 이미 만든 5천톤급씩의 대형랭장운반선들과 대형려객선, 대형선미트랄선들보다 더 큰 배들을 대대적으로 무어낼수 있는 새 부두들, 새 진수대들, 새 조립장들과 여기에 필요한 자동 및 반자동 설비들을 만드는데 힘을 넣었다.

그중에서 박시형동무가 일하는 조선소에서는 먼저 10만톤능력의 립철녹따기자동흐름선과 소재기지, 화학제품생산기지, 선박의장품생산기지들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완성한 뒤를 이어 대규모의 현대적가공기지와 완성조립기지를 꾸림으로써 대형선박건조능력을 단번에 그전의 6배로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밖에도 동해안의 두개의 조선소들에서 새로운 진수대들을, 서해안의 한 조선소에서는 현대적인 선대와 계선장을완성함으로써 현대화, 대형화, 만능화된 선박들을 대대적으로 무어낼수 있는 토대를 꾸리였다.

선박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여러가지 큰 배를 많이 건조해야 될 전망적요구에 맞게 예견성있게 대형선박기관, 기술선박기관 생산토대도 튼튼히 닦았다.

8월8일공장 기계전사들은 대형고속디젤기관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은 영예를 안고 이미 만들던 1천마력디젤기관생산로대를 정비강화하면서 새로 2천 500마력디젤기관을 대대적으로 뽑아낼 장비와 이에 따르는 수백종의 공구지구들을 갖추었다.

또한 항만건설, 강하천건설, 간석지개간, 해양탐사에 요구되는 준설선, 기중기선, 시추선, 수사식말뚝선과 같은 여러가지 기술선박의 기관생산준비도 다그쳤다.

선박공업부문에서는 1974년부터 무어낼 만톤급이상의 가공모선과 화물선의 설계도 대담하게 내밀었다.

선박공업부문의 천리마설계사업소 기술집단은 이미 대형준설선, 대형랭장운반선, 대형선미트랄선, 대형려객선들을 설계한 경험에 기초하여 1만4천톤급의 대형화물선설계에 들어갔다.

1만 4천톤급의 선박설계집단은 선각부문설계, 완성부문설계에서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집체적지혜를 모아 전조에 설계를 앞세웠다.

이해에 3천 750톤급 선미트랄선《정방산》호, 대동강려객선 《모란봉》호, 1천톤급 연안화물선등 많은 배들도 무어냈다.

화학공업

화학공업부문에서도 1973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신년사에서 화학공업부문의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비료공장을 꾸리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화학비료를 정보당 필동량으로는 1톤이상, 성분량으로는 200키로그람이상씩 줄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특히 린회석광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린비료를 국내원료에 의거하여 넉넉히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토양과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미량원소비료를 원만히 공급할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신년사》, 3~4페지)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화학비료생산을 늘이는 문제가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결정적담보의 하나이라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6개년계획의 화학비료고지를 한해 앞당겨 점령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면서 청춘의 기백으로 비료생산설비들을 정비하고 확장하고 신설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생산을 완전히 정상화시켰으며 청수화학공장과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들에 새로운 질소비료생산토대를 각각 꾸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알곡증산의 중요한 예비를 린비료에서 찾으시고 우리 나라 린회석을 개발하여 린비료를 대대적으로 생산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각 도마다에서 린회석광산을 개발하고 린비료공장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살고있는 우리의 로동계급과 각지 인민들은 풍년, 곡산, 대대리, 동암, 신풍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린회석광산들을 개발하여 린비료생산의 믿음직한 국내원료기지들을 튼튼히 마련하였다.

또한 해주, 남포, 문평 지구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도들에 린비료공장들을 일떠세움으로써 불과 한두해사이에 무려 100만톤의 린비료생산능력을 조성하는 혁명의 북소리를 울렸다.

특히 중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1972년 12월 5일부터 1973년 4월 15일까지기간에 판을 크게 벌려놓고 전격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 토양과 농작물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미량원소생산토대를 번개같이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화학비료를 정보당 필동량으로는 1톤이상, 성분량으로는 200키로그람이상씩 줄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닦았을 뿐만아니라 린, 카리비료의 비중이 높아진 3요소비료, 2.2배로 장성한 살초제와 농약, 15배에 달하는 미량원소비료들을 생산공급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우리 나라의 주체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감과 여러가지 소비품을 넉넉히 마련해주시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경공업의 원료기지들을 더욱 확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서부지구에 아닐론, 데트론, 폴리에틸렌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생산할 대규모의 청년화학공장과 염화비닐, 비날론생산의 새로운 기지인 남포화학공장 건설을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적극 추진하시면서 염화비닐과 비날론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함흥지구의 로동계급과 건설자들은 대중적영웅주의와 창조적지혜를 발휘하여 우리 나라 주체공업의 자랑인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종전의 2~3배나 되는 각각 5만톤의 비날론과 염화비닐 생산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대화학공장으로 개건확장함으로써 비날론과 염화비닐 생산에서 6개년계획의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해에 청진화학섬유공장의 스프와 인견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며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확장하는 사업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우리 산업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이해에 수백만톤의 원유처리능력을 가진 승리화학공장제1계단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화학공장들과 직장들이 수많이 건설됨으로써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다방면적인 발전이 보장되고 우리 공업의 원료기지가 더욱 강화되였다.

제약의료기구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을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여있으며 따라서 일군들이 조직사업만 잘하면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페지)

제약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무상치료제도의 우월성을 더잘 보여주기 위하여 이 해에도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총국에서는 수령님의 교시대로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요령주의적사상잔재를 뿌리빼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면서 조직사업을 잘하는데서 의약품과 의료기구 증산의 예비를 찾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무엇보다도 먼저 값높은 새로운 약품만 만들려는 낡은 사상잔재와의 《사상전》을 나날이 강화하면서 무상치료에 많이 쓰이는 대중의약품생산에 앞심을 들였다.

제약일군들속에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혁명정신과 청춘의 기백이 높이 발양됨에 따라 평신환, 청심환을 비롯한 19종의 대중의약품생산체계가 더욱 튼튼히 섰으며 그 생산이 약품의 수요에 따라 2~5배씩 부쩍부쩍 올라갔다.

제약부문에서는 이처럼 대중적수요가 높은 대중의약품들을 대규모의 중앙제약공장들에서 대대적으로 생산하면서 수요는 많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들도 중소규모의 제약공장들에서 만들도록 도와주었다.

이 해에 중소규모의 의약품공장들에서는 새로 119종의 약품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무상치료의 혜택이 더 넓은 범위에서 더 깊이 들어갈수 있게 하였다.

제약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일군들속에서 경험주의와도 한데 엉킨 요령주의사상잔재와 줄기차게 투쟁하면서 의료기구의 생산과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였다.

특히 각지 의료기구공장들에서는 평양의료기구공장의 모범을 따라 림상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새로운 의료기구들을 품종별로, 지표별로 어김없이 생산하기 위해 애썼다.

그리하여 새로운 품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나가면서 지표별계획수행률을 그 전해에 비하여 20%이상 더 높였는데 이것들은 주로 새로운 품종에 해당하는것이다.

제약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이 해에 3대기술혁명의 기치높이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였다.

흥남제약공장의 이소니찌드생산공정에 받아들인 공기산화법, 슬파디아졸생산에 도입한 하이포법, 순천제약공

장의 주사약생산공정의 기계화, 남포어린이약공장의 약품포장의 기계화는 우수한것들이다.

그중 흥남제약공장과 순천제약공장에서 창안한 새로운 기술공정과 방법들은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바꾸었을뿐아니라 막대한 원료자재들을 절약하면서 생산능률을 비할바 없이 높이게 하였다.

생약부문에서는 국영전문재배와 산간지대 협동농장 분조재배를 옳게 배합하여 쓸모있는 약초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면서 또한 많이 캐들이였다.

이 해에 따들인 약초량은 1972년에 비하여 113%로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우리 인민의 건강장수에 많이 쓰이는 국영인삼농장들의 인삼생산량과 사슴목장들에서의 록용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치료함에 있어서 화학약재보다 치료폭과 작용범위가 더 큰 초약생산량이 어느해보다도 많이 늘어났다.

건재공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재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매우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32페지)

건재공업부문에서는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질좋은 건재수요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세멘트공업부문에서는 유해로동과 고열로동을 없애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이 중심과업으로 나섰다.

특히 당중앙의 지도와 배려에 의하여 2.8세멘트공장에서는 산업텔레비존과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를 세우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원격조종을 실현하였다.

산업텔레비존과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가 서고 원격조종이 실현된 결과 생산지휘의 기동성이 보장되면서 생산이 늘어났을뿐만아니라 소성공들이 힘든 로동과 고열로동에서 해방되였다.

2.8세멘트공장에서는 사대주의와 기술신비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하면서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동을 더욱 긴밀히 맺어 그전의 기계제진기보다 먼지잡이률이 20%나 더 높아 97%에 달하는 전기제진기를 새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한단위에서 본보기를 꾸린 세멘트공업부문에서는 수많은 계기들과 선들이 들어가는 산업텔레비존과 무선통신, 400여종에 걸쳐 10만여개의 부속품으로 만들어진 전기제진기의 정밀성을 고려하여 한개공장씩 집중하여 꾸려줄 결의밑에 승호리세멘트공장에 대한 일대 섬멸전, 전격전을 조직하였다.

대규모 중앙건재공장들과 함께 중소규모 지방건재공장들에서도 집단적기술혁신의 불길속에서 유해로동, 고열로동이 사라지고있다.

대성, 강남을 비롯한 7개의 벽돌공장들에서는 굴식(턴넬식)소성로체계를 세운 보람이 있어 마른 벽돌을 가마에 쌓거나 꺼낼 때 피치 못하던 고열로동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이 해에 또한 기본건설속도가 높아지고 인민들의 생활이 나날이 윤택해지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주체적인 생산기술공정을 세우는 방향에서 기술혁명을 전격적으로 벌렸다.

남포유리공장에서는 로동자, 기술자들과 과학자, 청년인테리들과의 폭넓은 련합작전을 거듭하여 국가의 큰 투자없이도 전처리로건설과 같은 주체적인 생산공정을 세워 현존설비의 유리물용해능력을 1.6배로 높였는가 하면 인상기를 개조하여 인상속도를 1.3배로 올리였다.

그리하여 남포유리공장같은데서는 주체적인 공정을 세운데서만도 년간에 300만~400만평방메터씩의 판유리를 더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벽돌공장같은데서도 여러가지 색갈의 타일식유액벽돌을 마음대로 뽑아낼수 있게 되였다.

이 해에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열돐을 맞이하여 농촌문화주택건설이 광범하게 벌어지는데 맞게 지방건재기지를 더욱 보강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어디에 가나 풍부한 석회석과 모래를 가지고 강도가 센 블로크와 기와, 구들돌을 만드는 탄산화법에 의한 건재생산방식을 이미 있던 지방건재공장들에 각도별로 2~3개 공장씩 차려줌으로써 농촌문화주택건설수요를 보장하였다.

지방건재부문에서는 또한 위생자기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들을 새로 건설한 결과 지방건재의 품종을 많이 늘였으며 그 생산량을 훨씬 높였다.

림 업

림업부문앞에 나선 1973년도 중심과업은 새로운 림산지구들을 적극 개발하면서 림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더욱 높여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통나무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것이다.

각지 림업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마련하여주신 순환식채벌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근기있게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들앞에 부과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림업에서 순환식채벌방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순환식채벌방법을 받아들이면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577페지)

무엇보다 먼저 산림자원이 풍부한 림산후보지들에 로력, 설비, 자재를 집중하여 작업구와 로동자구 건설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통나무생산을 계통적으로 높일수 있는 토대가 닦아졌다.

새로 탐사한 림산지구들에서는 순환식채벌설계도에 따라 살림집, 학교, 병원, 영화관, 상점을 비롯한 로동자구건설과 림철, 수로, 로장, 도로를 포함한 작업구건설을 동시에 내밀었다.

그중에서 갑산지구, 풍산지구, 풍서지구, 성과지구, 위원지구들에 있는 새로운 림산작업소들이 개발됨으로써 이미있던 순환지구들의 생산량을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통나무생산의 지역적균형이 보장되면서도 그 생산량이 1972년에 비하여 훨씬 늘어나게 되였다.

림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순환식채벌방법에 따라 생산이 집중되고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3대기술혁명을 힘차게 다그쳤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해에 산정에서 일하는 벌목공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시려고 410여대의 뜨락또르와 수많은 기계설비들을 보내주시였다.

이 부문에서는 림산작업에서 약한 고리로 남아있는 산판작업의 웃단계에 뜨락또르와 기계설비들을 집중하여 산판대기의 나무모으기의 기계화에 힘을 넣었다.

림업기계공장들과 림산사업소의 공무수리직장들에서는 복통권양기와 복통수집기를 비롯한 이 공정의 기계설비들을 생산하여 적극 도와주었다.

또한 산판대기 까지 기계설비를

을 올려 갈수 있도록 겨울철림지들에 대한 길닦이를 잘하고 이 공정의 기계화를 힘차게 추진함으로써 나무모으기 기계화비중이 1972년에 비하여 16.4% 더 높아졌다.

그외에도 나무싣는 작업의 기계화비중은 6.2%, 부리는 작업의 기계화비중은 3.7%씩 각각 더 올라갔다.

림업부문에서는 순환식채벌구역에서 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 많은 통나무들을 베여 내면서 뒤따라 나무심기운동을 벌려 3만 8천여정보의 산림자원을 새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1973년말 현재로 6개년계획의 5년분 나무심기과제를 수행하였는데 그의 70%는 빨리 자라는 이깔나무숲이다.

림업부문에서는 통나무생산이 늘어나는데 따라 규격재생산을 다그쳐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목재를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도 강화하였다.

규격재의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리용할 목적으로 룡림림산사업소에 1천립방메터짜리 목삭판생산능력을 ' 위연제재공장에 6천립방메터짜리 목삭판생산계렬을 더 조성하였다.

결과 이해에 목재일용품과 함께 목재화학제품, 목질건재품 생산이 더욱 늘어났다.

방직공업

이해 방직공업부문앞에는 질기고 멋시있는 옷감을 더 많이 생산해냄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언제나 더잘 입히시려고 심혀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뜻을 기어이 관철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방직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짜내는것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한 중요한 과업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384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9월 3일, 9월 6일 교시들에서 방직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정방기의 가락회전수를 더욱 높여 보다 많은 실을 뽑아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각지 방직공장들에서는 정방기의 가락회전수를 더 높인다면 여기에서만도 1억~1억 2천만메터의 천을 짤수 있는 실을 더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방적설비의 고속도화방침을 실현하는 투쟁에 적극 나섰다.

평양, 신의주, 구성, 9월을 비롯한 각지 방직공장들에서는 모범정방공단위들에서 정방기의 가락회전수를 분당 1만~1만 2천회로부터 1만 3천~1만 5천회로 높인 시범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투쟁을 벌리였다.

특히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면서 일부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주의,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와의 사상투쟁을 옳게 배합하여 고속도정방을 그들자신의것으로 확고히 만들었다.

또한 정방기의 가락회전수가 높아지는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기능학습체계를 혁명적인 당생활총화체계처럼 전투적으로 개편하면서 기술기능제고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혁명과업도 전격적으로 내밀었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신의주방직기계공장에 방적설비의 현대화, 고속도화에 필요한 고속방추의 생산토대를 섬멸전의 방법으로 꾸리면서 정결도와 정밀성이 높은 고속방추들을 각지 방직공장들에 일식으로 생산보장하는 사업도 힘차게 추진하였다.

이처럼 방직공업부문에서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본보기일반화와 기술기능학습을 전투적으로 조직하면서 고속방추를 일식으로 도입함으로써 모든 방직공장들에서 고속도정방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정방기의 분당 가락회전수를 높이기 시작한 이해 첫 4개월동안에만 하여도 그전 같은 시기보다 100만별의 옷감을 더 생산함으로써 고속도방적의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이해에 모자라는 앞뒤 공정을 보충하여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동시에 천의 완성가공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우선 사리원방직공장과 청진직물공장들에 현대적인 염색직장들을 건설하여 방직공업의 내부구조를 더욱 완비하였을뿐만아니라 나라의 서남부와 동북부에 완성가공의 지역별처리능력을 새로 조성한 결과 장거리수송을 하지 않고도 가까운데서 천을 가공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이미 꾸린 방직공장의 후처리가공능력을 리용하여 색갈과 문양이 아름다운 천을 많이 생산하였으며 천의 질과 용도에 따라 수지가공, 방수가공, 외세탁가공, 풀먹임, 털깎기를 하여 천의 완성품비중을 더욱 높였다.

그리하여 방직공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근로자들의 옷차림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아름다운 천들을 기본적으로 보장하였다. 특히 이해에 질좋은 비날론천의 생산량이 그전해에 비하여 1.7배로 늘어났다.

편직공업

편직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매개 도마다 편직공장들을 일떠세우고 이미 있던 편직공장들을 현대화하여 세타와 쟈케트 생산을 각각 1.5배이상씩 높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빨래하기 쉬운데다가 다림질하지 않아도 좋으며 생산성이 높고 활동상 편리한 편직물의 유리성을 헤아리시고 옷차림을 완전히 편직화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털세타와 쟈케트를 많이 만들며 특히 녀자와 어린이용 편직물을 대대적으로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1976년말에 내의는 1.4배, 양말은 1.8, 세타와 쟈케트는 2.1배씩 늘일데 대한 6개년계획말의 생산능력보다 2배도 훨씬 넘는 편직물생산능력을 조성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각지 편직전사들은 수령님의 정치적 신임과 두터운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신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면서 1972년에는 현대적인 편직공장들을 지었고 1973년에는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 투쟁을 벌렸다.

그리하여 본넬, 나이론, 비날론, 떼트론, 면을 원료로 삼아 여러가지 편직물 수천만매를 짜내는 현대적편직공장들이 각 도마다 생겼을뿐만아니라 처음부터 옷차림의 편직화를 눈부신 속도로 실현해나가고있다.

편직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일부 공정들에 남아있는 손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미 있던 편직공장들의 앞뒤공정을 집중적으로 완비하는 섬멸전을 벌리였다.

이에 앞서 신의주염색기계공장과 사리원방직기계공장들에서는 협동생산의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편직물의 염색설비와 건조설비들을 책임적으로 생산공급하였다.

이미 있던 편직공장들에서는 생산을 계속 강화하면서 전군중적운동으로 해빛과 손로동에 의거하던 생산공정에

공업화된 건조능력과 염색능력을 새로 조성함으로써 건조, 염색, 편직 공정간의 균형을 바로잡았다.

새로 건설된 현대적편직공장들과 앞뒤공정이 완비된 편직공장들에서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의 어린이들과 학생들, 녀성들의 편직물 생산에 중심을 두고 이해 하반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갔다.

편직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날로 향상되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요에 맞게 성별, 년령, 직업별로 되는 여러가지 가지수의 편직물을 생산하기 위해 힘썼다.

이해에 새로 나온 편직물의 가지수들중에서도 새로운 형의 나이론양말바지와 녀자여름용 반소매세타, 원피스, 양복치마, 남자여름용 반소매, 반터친세타들이 수요가 높았다.

해방전에는 인구 1인당 14센치메터의 천쪼박과 한켤레가 아닌 반짝의 양말마저 차례지지 않던 우리 인민들에게는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멀지 않아 해마다 겉옷편직물만해도 4～5매씩 돌아가게 된다.

피복공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피복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의복을 많이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선집》, 4권, 484페지)

이 강령적교시에 따라 1973년에 이미 있는 옷공장들을 현대화하면서 모든 시, 군과 로동자구들에 새로 건설하여 날로 늘어나는 여러가지 옷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투쟁을 벌렸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74년 신년사에서 1973년에 피복공업부문에서 거둔 성과는 매개 시, 군과 로동자구들에 현대적옷공장들을 꾸려 놓은것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각지 피복전사들과 지원자들은 녀성들을 하루빨리 옷짓는 부담에서 해방시키시려는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국가자재와 탐구한 지방자재를 잘 배합하여 옷공장들을 건설하는데 달라붙었다.

매개 시, 군들과 로동자구들에 녀자옷공장, 어린이옷공장들이 솟아나고 평양과 함흥에 큰 규모의 옷공장들이 건설된 결과 단 한해동안에 녀자, 어린이 옷공장들이 2. 5배이상으로 늘어났다.

피복공업부문에서는 또한 생산면적의 합리적리용과 생산공정의 개선에 중심을 두고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높임으로써 이미 있는 옷공장들의 현대화를 빠른 속도로 다그쳤다.

각지 옷공장들에서는 지금 있는 생산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성능이 좋은 재봉기들을 새로 2천 700여대를 더 들여놓으면서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세웠다.

이렇듯 이미 있던 옷공장들이 현대화되고 새로운 옷공장들이 일어선 결과 녀성들을 옷짓는 부담에서 해방시킬수 있는 옷생산능력이 조성되였을뿐만아니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따라 날로 장성하는 옷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피복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새로운 옷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속도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옷형태를 개선하고 옷가지수도 늘여나갔다.

피복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과학자, 기술자 집단은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기호와 시대적요구에 맞게 옷형태를 대담하게 개선하고 가지수를 늘이였다. 남자양복만 하여도 그 형태를 6배로, 그 가지수를 10배이상으로 확대하였다.

각지 옷공장들에서는 새로운 옷형태와 가지수에 따라 모든 설비에 만부하를 걸어 1973년도 옷생산량을 놀라운 속도로 높이였으며 이 과정에 6개년계획을 완수한 옷공장이 13개, 직장은 51개로 늘어났다.

이 부문에서는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꾸릴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이해에 생산문화를 세우는데서도 일정한 전진을 가져왔다.

각지 옷공장들에서는 이미 있는 자재창고들을 정비보충하는 동시에 새로 17개의 자재창고들을 사회적운동으로 지었으며 1만평방메터의 공장구내도로를 포장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이해에 옷공장들에 새로 27개의 탁아소와 20개의 유치원을 더 건설함으로써 새로 들어온 근로녀성들을 아이기르는 부담에서 해방시켰을뿐만아니라 아이들을 공산주의적시책속에서 더 훌륭히 키우게 되였다.

신발공업

신발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신발공장들을 현대화하면서 새로운 신발생산능력을 더 조성하여 해마다 장성하는 신발수요를 이해에 기본적으로 충족시키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이해에 그 전해에 비하여 수백만켤레의 여러가지 신발을 더 생산하였으며 그중에서 가죽구두생산량이 1. 8배로 늘어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신발은 의복, 모자와 함께 사람들의 몸차림에서 아주 중요한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번번한 신발을 신지 못하면 외모가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수령님께서는 1973년 8월 10일, 10월 18일에 6개년계획말에 1억켤레의 신발을 생산할데 대한 전투목표를 제시해주시면서 그 수행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신발공업부문에서는 1단계로서 1974년에 당제5차대회에서 제기한 6개년계획말의 신발생산과업을 수행하며 다음 단계에 새로운 신발생산목표를 점령할 전투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신발생산능력을 더 조성하는데 달라붙었다.

평양, 강서, 청진, 북청, 원산, 개성, 강계 신발공장들에서는 도안의 신발수요는 도자체로 보장하자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 드높이 전격전의 방법으로 새로운 신발생산능력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있는 신발공장의 1. 3배에 해당하는 새로운 신발생산능력을 조성하였으며 이 과정에 300만켤레의 생산능력을 가진 해주염화비닐신발공장도 새로 완공하였다.

신발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새로 신발생산능력을 더 조성하면서 또한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지금 있는 신발공장들의 생산공정들을 기계화, 현대화하는 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평양, 순천, 흥남 구두공장들에서 수백만켤레의 생산공정을 흐름식으로 현대화함으로써 3년전에 비하여 그 생산능력을 4. 5배로 높이였다.

또한 비닐신발공장들에서는 천신발생산공정을, 천신발공장들에서는 비닐신발생산공정을 조성하였던 1972년도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그 생산을 콘베아에 의한 흐름식생산으로 개조하였다.

우선 평양구두공장에 콘베아에 의한 흐름식생산조직의 본보기를 꾸리고 그것을 평양과 신의주에, 그 다음에 많

은 공장들에 일반화하여 신발생산능력을 1.4배로 높였다

생산공정이 현대화된 신발공장들이나 생산능력이 더 조성된 신발공장들이나 할것없이 모두다 신발생산을 공업화한 신의주신발공장의 비닐사출기, 고무사출기들을 도입한 결과에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였다.

평양신발기계공장에서는 종전에 비하여 그 생산능력이 3.5배에 달하는 고무사출기, 비닐사출기들을 많이 만들어 각지 신발공장들에 공급함으로써 신발생산능력을 높이는데 적지않게 기여하였다.

신발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우리 근로자들의 직업별, 계절별, 성별, 년령별의 특성에 따라 그 가지수를 늘이면서 신발의 질을 개선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특히 신의주신발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만든 순비날론천신발이 면신발에 비하여 그 수명이 1.8배에 달하게 함으로써 질긴 신발을 만드는데서 모범을 보이였다.

식료공업

식료공업부문앞에 나선 이해의 중심과업은 식료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녀성들의 부엌일의 부담을 덜어주며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는것이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부식물과 주식물 가공을 현대화, 공업화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면서 당과류와 청량음료를 비롯한 다른 식료품생산을 따라세우는데 힘을 넣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가지 부식물가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식물가공도 널리 조직하여 모든 식료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함으로써 녀성들이 가정에서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7페지)

식료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새, 파실, 고기, 물고기 등의 부식물가공을 공업화, 정상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미 파실남새가공공장과 고기물고기가공공장들을 건설한 각 시, 군들에서는 랭동고건설이 부식물가공의 공업화, 정상화의 기본고리라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전군중적운동으로 소비지랭동고건설을 계속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미 시작한 소비지랭동고들이 이해에 대부분 조업된 결과 생산지랭동체계, 운수망의 랭동체계, 상업망의 랭동체계와 배합하여 완전하고도 전일적인 랭동체계가 더욱 철저히 세워졌다.

이해에 고기가공품과 파일가공품만 보더라도 그 전해에 비하여 각각 1.4배이상씩 늘어났으며 남새가공량도 그 어느해보다도 높아졌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밥, 빵, 떡 등의 주식물생산을 완전히 공업화, 현대화하기 위하여 선교종합식료공장에서 창조한 익힌국수(알과국수)생산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였다.

양덕, 태천, 강계 등의 지방공업기계공장들에서는 처음부터 판을 크게 벌려놓고 전격적으로 익힌국수설비생산을 다그침으로써 이해에 350여대를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모든 시, 군마다에 수요에 따라 익힌국수공장들을 차려놓았다. 또한 주요한 모든 빵공장들에서도 소다빵생산을 효모빵생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물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더 튼튼히 꾸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해에 곡산공장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몸소 건설대상과 그 규모, 생산품종과 건설부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강냉이를 가공하여 물엿을 위주로 하면서 포도당, 알사탕, 과자, 기름과 녹말 등을 만들게 될 곡산공장건설은 주체적인 당과류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평양과 북창, 함흥과 원산, 사리원을 비롯한 전국의 곡산공장건설자들과 지방식료공업의 지원자들은 1974년 상반년내에 완성할 기세로 번개같이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1972년과 1973년에 걸쳐 어린이들의 암가루를 대신하며 위병환자들에게도 좋은 튀기파자생산토대도 단번에 꾸려놓아 어린이들에게 더좋은 영양제를 보장하였다

지방식료기계공장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180여대의 설비를 생산보장함으로써 모든 시, 군마다에 꾸려진 식료공장들에 튀기파자생산공정이 보충되였으며 그 생산을 현대화할수 있게 되였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이해에도 로동자, 기술자들과 청년인테리, 과학자들과의 창조적협동을 강화하여 식료공업을 더욱 현대화하였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강냉이, 마그네사이트, 벼겨(미강포함)를 가공하여 맛내기간장, 시원한 사이다, 기름을 생산하는 기술혁신들이 이해에 공업화되였다.

콩을 쓰지 않고 옥수수, 밀로 간장, 된장을 만들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콩간장보다 더 좋게 만든 맛내기간장은 먼저 동림식료공장에서 생산된 후 시범상학을 통하여 김책, 황주, 태천을 비롯한 모든 식료공장들에 일반화되게 되였다.

또한 마그네사이트에서 탄산가스를 뽑아 사이다를 만든 첫 성과는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 청량음료공장들이 건설되고 그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게 되였다.

이해에 각지 식료공장들에서는 나무버섯, 들버섯,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노란버섯, 싸리버섯들을 인공재배하여 식료공장자체의 원료기지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버섯통졸임의 가지수를 많이 늘였다.

일용품공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은 일용품공업을 빨리 추켜세우는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품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으며 특히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가까운 몇해안에 일용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0～451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73년 3월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강서확대회의에서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여 일용잡화생산과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일용공업부문에서는 이 강령적교시를 일용잡화부문에 주신 지난시기의 교시와 밀접히 결부하여 학습을 집중적으로, 전격적으로 조직함으로써 1973년 1월 8일～9일교시를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자신의 신조로, 신념으로 만들었다.

특히 1973년 1월 8일～9일교시에 대한 집중학습과 더불어 일부 일군들속에 있는 값높은 제품과 손쉬운 일용품만 만들려는 경향, 도시는 물론 농촌수요까지 타산하지 못하는 경향들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와의

《사상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담력을 키워주었다.

당중앙이 제시한《속도전》, 《사상전》을 벌려 담이 더욱 커진 각지 일용진사들은 이해에 수만종의 일용잡화생산을 다그치면서 그 생산공정을 현대화, 자동화하기에 힘썼다.

벽시계부속품생산의 자동화, 판식가구생산의 프레스화, 국사발과 밥사발, 숟가락과 젓가락 생산의 현대화, 머리빈침생산의 자동화, 손거울생산의 종합적기계화 등을 비롯하여 많은 일용잡화 생산공정을 적극 공업화하였다.

총국에서는 일용잡화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드려는 근로자들의 사상적준비와 생산의 물질적준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짐에따라 전격적으로 일용잡화생산전투에 근로자들을 한사람같이 일떠세웠다.

지방공업총국과 각도 지방산업총국들에서는 모든 일용잡화생산을 틀어쥐면서도 전국적수요와 도안의 수요를의 보장하는 150~200종씩의 일용잡화생산에 정치사업, 기술지도사업 자재보장사업을 모가 나게 앞세웠다.

《사상전》, 《전격전》을 벌린 보람이 있어 일용잡화 생산량이 국사발은 2.9배, 밥사발은 5.2배, 숟가락은 6.9배, 젓가락은 7.3배로 뛰여오를때 벽시계, 돗보기, 안전면도, 탁상전등 그 어떤 일용제품생산이건 모두 늘어났다.

그리하여 1973년도 일용공업생산액이 1972년에 비하여 125.3%로 장성하였을뿐만아니라 지표별계획수행률과 일용품의 질이 지방공업이 창설된이래 제일 높은 승리봉에 올랐다.

일용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제일좋은것을 언제나 아이들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탁아소유치원용》일용잡화생산에 알심을 들였다.

늄식기와 수지그릇 하나를 만들어도, 침대와 창상을 한대 무어도 아름답고 쓸모있게 생산함으로써 어린이들을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키우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평남도와 개성시를 비롯한 각도들에서는 한개군의 탁아소, 유치원분씩 집중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모든 가지수의 일용잡화생산과 모든《애기궁전》의 일용잡화수요를 동시에 섬멸전으로 해결하였다.

일용공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일용잡화생산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 세우는 한편 텔레비죤, 랭동기, 세탁기, 자전거 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리는 투쟁을 하였다.

각도의 텔레비죤수상기조립공장, 세탁기공장, 자전거공장 건설자들은 지칠줄 모르는 혁명적열정과 희망찬 래일에 대한.전망을 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헤치고 맞받아 나가면서 공장건물들을 네귀번듯하게 일떠세웠다.

1974년에 설비설치공사가 완공되면 이 공장들에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한대로 1976년에 10만대의 텔레비죤수상기, 11만대의 가정용세탁기, 수많은《제비》자전거들이 생산되여 나온다.

이렇듯 일용공업부문에서는 당중앙이 제시한《속도전》의 방침에 따라《사상전》을 앞세운데 기초하여《전격전》, 《섬멸전》을 힘차게 벌린 결과 일용잡화와 기계일용품생산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활짝 열어제끼였다.

지방공업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이 이해에도 계속 철저히 관철되여 지방공업은 급속히 강화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8년 6월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리용하여 지방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불과 3개월동안에 1천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섰다.

그이께서는 몸소 창성군과 삭주군에서 지방공장들의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1962년 8월에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이를 전국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일일이 조직지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지방산업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중앙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하여 급속히 강화되였고 지방산업공장들의 원료기지도 더욱 확장되였으며 지방공업의 지도관리운영수준도 비약적으로 정규화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 2월에 소집된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더욱 힘차게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결과 1970년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드리는 500여개의 선물공장들을 비롯하여 1천 7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섰으며 매개시, 군마다에 20여개의 중소규모공장들이 돌아가게 되였다.

1973년에 일반기계총국산하 각지 기계공장 생필직장들에서는 지방공업에 대한 기계공업의 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1973년 1월 8일-9일 교시를 받들고 지방공업에서 리용할 탁상선반 및 볼반, 소형압연 및 연신기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공급하였다.

지방공업부문에서는 이 새 설비들로 이미 있던 지방기계공장들과 지방식료기계공장들을 보강하는 한편 새로 지방산업기계공장들과 지방식료기계공장들을 더 조직함으로써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자체의 힘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실제상 지방기계공장들과 지방식료기계공장들에서는 1973년에 350여대의 익힌국수설비와 180여대의 튀기과자설비를 비롯한 많은 설비들과 갖가지 부속품들을 생산공급하여 식료, 일용 공장들의 기술장비를 강화해주었다.

또한 지방공업자체의 원료자재기지를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에 따라 1972년에 시작된 지방공업탄산소다공장, 가성소다공장, 유리병공장 건설이 1973년에도 계속되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5천톤능력의 청수탄산소다공장을 비롯하여 온천, 남포, 신양, 은산, 개천, 덕천, 염주, 강계, 랑림, 만포, 룡천, 이천, 연사 가성소다공장들과 함흥, 회령 유리병 공장들이 조업하였다.

특히 1973년 8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을 받들고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거의 모든 도마다에 텔레비죤수상기조립공장, 세탁기공장, 자전거공장들을 건설하고 설비조립을 다그쳤다.

지방공업부문에서는 1972년에 중앙에 지방공업총국을, 각 도마다에 지방산업총국을 내온 뒤를 이어 1973년에는 전국에 지도기능만 수행하고 기업관리에 대해서 물질적책임을 지지 않던 군의 지방산업관리처를 군단위종합공장체계로 개편하였다.

군내 지방산업공장들을 직장으로 삼은 군단위종합공장에서는 이해부터 예산제가 아니라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였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군단위종합공장지도관리체계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더 잘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

어 업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산부문에서는 원해어업과 근해어업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날로 늘어나는 물고기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였다.

각지 어로공들은 먼 바다와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들을 쉴새없이 잡아낸 결과 1973년도 수산물생산량을 그 전해에 비하여 1.2배로 높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물고기를 잡으며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먼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 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으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쉴새없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42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에 함남도와 강원도 수산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으며 수산부문에 125차례의 교시를 주시면서 어로공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먼바다물고기잡이와 겨울철물고기잡이철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전투목표와 그 수행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면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손수 풀어주시였다.

동해원양어선대들이 해마다 얼음바다를 헤치고 어장에 나가는 사정을 헤아리시고 새로운 배길을 열어주시였으며 이들의 거둔 첫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여 두차례나 축하전보문(3월 21일, 3월 27일)과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당중앙에서는 먼바다고기잡이와 겨울철물고기잡이 때마다 모든 선전선동수단을 동원하여 어로공들속에서 《속도전》의 나래를 힘껏 펼치도록 《사상전》을 벌리였다.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커다란 배려에 고무된 원양어로공들은 3대혁명을 힘차게 벌려 신비주의, 경험주의, 보수주의를 짓부셔 버리면서 공칭능력을 타파하였다.

청진수산사업소 《룡악산》호와《붉은기사로청》호 트랄 056호 어로공들은 8천론과 4천론씩의 공칭능력들을 모두다 두번씩이나 뛰여넘어 각각 1만 8천여론과 1만여론씩의 물고기들을 잡은것을 비롯하여 많은 어로작업선들이 새기록, 새기준을 창조하였다.

대형랭장운반선들은 긴장하다하던 계획보다도 3~4회 더 오가면서 잡은 물고기들을 조국에 날라왔으며 부두마다에서는 운반선들의 머무름시간을 3분의 1로 줄인 결과 어로공들의 물고기잡이시간을 더 많이 보장하였다.

이렇듯 새로운 배길을 따라서 원양어로일수를 두달 가까이 더 얻어냈을뿐만아니라 3대혁명의 기치 드높이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함으로써 먼바다 물고기잡이량을 1972년에 비하여 173.4%로 높였다.

먼바다에서와 함께 가까운 바다에서는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고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멸치, 까나리, 낙지, 청어, 은어, 명태를 많이 잡았다.

특히 명태철을 맞이한 동서해의 어로공들은 수산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 명태떼들이 밀려들 때는 맞받아나가 집단적인 어로전을, 북으로 들어갈 때는 뒤따라가며 추어전을, 마지막에는 분산어로전을 들이대여 련일 충성의 개가, 만선의 개가를 울려였다.

그리하여 이 해에 각지 어로공들은 우리 나라에서 최고풍어년도 1972년에 비하여 3만 8천여론의 명태를 더 잡음으로써 상업망의 랭동고, 소비지의 랭동고, 철도의 랭장렬차, 생산지의 랭동공장마다에 가득 채우고도 남아 동해천리 포구의 덕대마다에 마른 명태와 짝태들을 많이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이해 청진수산사업소와 신포수산사업소에서는 년간 10만론이상의 물고기들을 잡아 계관근위수산사업소의 영예를 지니였다.

양 어 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바다에서만 고기를 잡으려 할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도처에 있는 호수들과 저수지들에서 양어사업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수산물 8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4페지)

양어부문에서는 강, 하천, 호수, 저수지들에서 전인민적운동으로 물고기를 길러 민물고기키우기와 잡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양어총국만 보더라도 수산물생산량이 1972년에 비하여 1973년에 122%로, 강하천, 호수, 저수지에 놓아준 새끼고기수는 119%로 늘어났다.

양어부문에서는 간석지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자연사료들이 풍부하고 새끼고기마련에 유리하며 땅의 비옥도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간석지양어장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앞으로 남포시내 10여개소의 숭어국집에 생선을 공급할 남포숭어간석지양어장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간석지양어장면적이 1972년에 비하여 1.3배 가까이 늘어났다.

양어부문에서는 또한 인공사료를 먹이지 않고 자연먹이로 물고기를 기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국영양어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양어장의 어종구성을 개조하고 자연사료로 키우는 체계를 세웠다.

최근 몇해안에 양어부문일군들은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싸그쟁이를 많이 얻어냄으로써 인공사료를 전혀 먹이지 않고도 물고기들을 길러내는 좋은 경험을 창조하였다.

평남도양어사업소 은산양어장에서는 자연먹이로 한해동안에 물고기 한마리당 무게를 국가기준의 1.3배로 키웠으며 만경대협동농장 양어장에서는 첫해에 정보당 2론이상의 물고기들을 생산함으로써 자연먹이에 의한 양어의 우월성을 증명해주었다.

양어총국에서는 은산양어장과 만경대협동농장 양어장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자연먹이로 숭어, 뱀장어, 잉어, 붕어, 백년어, 화련어를 길러내는 양어체계를 확고히 세워나갔다.

양어부문에서는 이해에도 물이 있는 모든곳에 물고기들이 욱실거리게 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5천 990만마리의 새끼고기들을 깨웠으며 그중 많은 고기들을 강하천과 호수, 저수지에 놓아길렀다.

이 부문에서는 또한 이미 놓아기르던 물고기들을 잡는 사업을 광범히 벌리여 보통 한마리 2키로그람이상, 최고 23키로그람 나가는 물고기들을 1972년에 비하여 116%이상 잡아 인민들에게 공급하였다.

그중 우리 나라 명산물들인 대동강의 숭어, 구장의 칠색송어, 범포호수의 붕어와 함께 백년어, 화련어 비늘이 올라감으로써 인민들의 밥상을 풍족하게 하여주었다.

양 식 업

양식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이미 1971년에 완성한 주체적인 양식방법을 많은 천해양식사업소들에 일반화하여 미역, 곤포를 비롯한 수산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였다.

각지 양식부문일군들은 년간양식계획을 111.2%로 넘쳐하였다. 이것은 1972년에 비하여 118.7%로 늘어난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부문일군들은 양식사업을 널리 조직하며 그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미역, 곤포, 해삼, 조개, 굴, 김 같은것을 더 많이 길러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하여》, 단행본, 28페지)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부포천해양식사업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랭동공장에서 나오는 찬물을 받아 여름곤포모발을 만들고 해마다 추운 겨울에 하던 씨받이와 모내기를 여름에 함으로써 양식공들을 고되고 추운 겨울철 바다우의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면서도 곤포생산을 첫해에 115%로 높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새로운 곤포양식방법이 좋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광범히 일반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양식부문에서는 부포천해양식사업소의 곤포양식방법에 대하여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뒤이어 과학자, 기술자들을 각지 천해양식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들에 내보내여 주체적인 양식방법을 철저히 받아들일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맛있고 영양가 높은 곤포생산에서 새로운 양식방법에 의한 곤포생산비중이 1972년에 비하여 단 한해동안에 40%나 더 높아졌을뿐아니라 모든 양식사업소들에서도 이 새로운 방법을 확고히 파악하게 되였다.

또한 양식부문에서는 과학자들과 양식공들간의 협동으로 곤포양식에서도 농사에서처럼 집약화방법을 받아들여 곤포생산을 높이고 이 방법을 모든 양식장들에 일반화하였다.

각지 천해양식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종전의 그네식방법에 비하여 집약화수준이 높은 날개식양식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여름, 가을에 솎음식으로 곤포를 따들인 결과 매당 곤포생산량을 1.5배이상으로 올렸다.

양식부문에서는 매당 1.5톤의 참미역을 딴 웅진천해양식사업소와 1톤을 생산한 경포천해양식사업소 (동해)의 경험을 살리여 이해에도 미역생산량을 계통적으로 늘이였다.

각지 천해양식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경험주의, 신비주의, 보수주의를 깨뜨리고 양식기술관리사업을 개선함으로써 헐잡아도 매당 200키로그람씩의 참미역을 더 땄다.

양식부문에서는 동해의 참굴과 서해의 민어굴, 동서해의 굴치 (덩굴말)와 조개류 양식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에서도 여러가지 항생균을 기르거나 고급식료품, 고급직물을 만들 때 귀중하게 쓰이는 한천원료— 굴치양식사업을 짜고든 결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한천생산량이 훨씬 높아졌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부문에서는 물고기가공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1973년에 우리 인민들에게 많은 물고기랭동품과 젓갈품, 말린 물고기들을 생산공급하였다.

각지 가공전사들은 물고기랭동품과 젓갈품, 말린 물고기들을 많이 생산하여 1972년에 비하여 121.9%로 늘이는 성과들을 거두었다.

이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물고기가공을 공업화, 현대화할데 대한 수산물가공정책의 정당성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고기가공에서 뒤떨어진 방법을 버리고 랭동, 통졸임 등 현대적가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조리 가공하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9～560페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수산물가공부문에서는 1972년부터 시작하였던 현대적랭동공장건설을 이해안으로 끝낼 목표로 전군중적투쟁을 벌렸다.

그리하여 이미 있던 열풍식랭동공장들에 비하여 규모도 더 크고 기계화수준도 더 높은 판식 현대적랭동공장들이 신포, 양화, 송도원, 경포, 홍원, 삼호, 퇴조, 서호, 룡대, 원산에 일어섰다.

이처럼 우리 근로자들에게 물좋은 고기들을 공급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활짝 꽃핌으로써 하루 1만톤의 급동능력과 22만여톤의 랭장능력을 가진 랭동능력이 더 조성되였다.

새로운 랭동공장들은 조업하는 첫해부터 은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이해에 청어, 가재미, 낙지, 명태를 비롯한 물고기랭동품생산량이 1972년에 비하여 1.5배로 장성하였다.

또한 평양시, 황남도, 평북도, 자강도, 황북도, 량강도 등 6개 방향별로 랭장렬차수송대를 편성하고 매개 소비지마다 2천～5천톤 능력의 랭동고들을 건설함으로써 랭동체계를 더욱 정연하게 완성하였다.

수산물가공부문에서는 물고기랭동품과 더불어 말린 물고기생산량도 부쩍 늘였다.

나무덕대와 세멘트덕대를 배합한 건조시설을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마다 대대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이해에 까나리, 낙지, 명태 등의 말린 물고기를 많이 만들었다.

특히 명태철을 맞이하여 각지 수산물가공공장들과 수산사업소 가공직장들에서는 대가리 자르는 기계, 뻘따는 기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면서 전군중적지원도 받아 말린 명태와 짝태 생산량을 높였다.

또한 가금업과 양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물고기가루를 많이 생산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자숙기, 건조기, 분쇄기들에 만부하를 걸어 많은 물고기가루를 생산하였다.

가공부문에서는 이해에 알젓, 뻘젓, 멸치젓, 조개젓을 비롯한 젓갈품 생산도 그 전해에 비하여 112.2%로 높였는데 그중에서 우리 나라 명산품인 신포알젓, 신포뻘젓을 제일 많이 담그었다.

또한 각지 수산물가공공장들에서는 청어통졸임, 가재미통졸임, 낙지통졸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통졸임들도 많이 생산하였으며 통졸임의 크기와 맛에 따라 통졸임의 품종들도 많이 늘였다.

농산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협동농민들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모든 영농작업을 실속있게 하여 지난해에도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이룩하였으며 6개

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신년사》, 4페지)

1973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알곡생산을 1972년에 비하여 배 또는 배이상으로 높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최고의 기록을 창조하는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다.

농산부문에서 거둔 이 자랑찬 성과는 농업전선의 진두에서 몸소 지휘하시면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그이께서 취해주신 혁명적조치들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이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양시 여러 농촌들을 찾으시고 농사형편을 알아보신데 뒤이어 평남도, 평북도, 황북도, 황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협동농장들에 몸소 나가시여 농사형편을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사업의 현실태를 체계적이며 전면적으로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농업일군협의회들을 소집하시고 농업생산에서 걸려고있는 절박한 모든 문제들을 명철하게 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회의들에서 농촌테제관철을 더욱 심화시키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가져오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시였으며 농촌에 대한 힘있는 지원사업을 친히 조직하여주시였다.

특히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농촌에 더 많은 강력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들어가게 하여주시였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수많은 농업대학출신간부들과 청년인테리들을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들에 파견해주시였다.

사상혁명을 첫자리에 놓고 힘있게 벌릴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모든 농촌들에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강한 사상투쟁이 전개됨으로써 농업의 전진을 방해하던 관료주의, 주관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가 산산히 부셔져나갔다.

지난 기간 농업에 응당한 투자를 하지 않고도 농산물이 저절로 나오기만 바라던 일부 일군들의 허황한 사상경향, 린, 카리 비료와 미량원소비료를 홀시하던 질소만능사상, 자연을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조률타발만 하며 논벼가 넘어져야 소출이 높아진다고 하는 낡은 사상잔재들이 뿌리빠짐으로써 농사문제해결의 열쇠를 사상문제에서 찾는 혁명적관점이 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농촌테제에서 내세운 농촌기술혁명을 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온갖 물질기술적조건을 마련하도록 크나큰 육친적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업생산의 결정적수단인 뜨락또르와 자동차, 화학비료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이러한 혁명적조치들과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기계화, 화학화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선 전국적으로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가 2~2.5대수준에 이르게 되였으며 벌방지대에는 100정보당 3~4대의 뜨락또르들이 차례지고 자동차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수량상으로 2.4배로 늘어난 갖가지 부속품들과 많은 다이야들이 공급되였다.

그리하여 논밭갈이와 써레질,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농사일을 제철에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농민들의 힘든 일을 많이 덜어주었다.

특히 가을갈이한 논을 이른 봄에 다시한번 갈고 풀이 돋아나올 때 다시 물논갈이를 하여 논김을 잡아없애는 세벌갈이체계를 수십만여정보의 논에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김을 두번 맨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왔으며 풍작을 이룩하는데 기여하였다.

수령님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또한 1973년에는 그전해에 비하여 많은 량의 화학비료와 효능이 높은 갖가지 살초제와 많은 농약들이 공급되였다.

특히 3요소비료구성에서 린비료의 비중이 그전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농작물의 성장발육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각종 미량원소비료가 그전해에 비하여 15배나 공급되였다.

농산부문에서는 질소비료에만 매달리지 않고 린비료의 비중을 높이고 미량원소비료를 옳게 씀으로써 정보당 알곡소출을 많이 냈다.

수령님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면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1973년에 기본알곡작물인 벼농사에서 그처럼 대풍작을 이룩하게 된 것은 벼모를 튼튼히 길러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한데 있다.

그이께서는 지난 기간 벼농사에서 《바늘모》를 기른 결함을 찾으시고 년초부터 벼모를 튼튼히 키우는 문제를 직접 틀어쥐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벼종자를 평당 300~350그람씩 붓는 선진적방법을 전국에 지체없이 일반화하실 긴급조치를 취하신데 뒤이어 각 도에 모판씨뿌리기전권대표를 파견하시면서 모판만들기와 씨뿌리기를 보살펴주시였다.

농업생산의 전반을 장악지도하실뿐만아니라 매영농공정의 하나하나를 세심히 보살펴주셨기때문에 벼모기르기에서, 모내기시기보장에서, 다수확품종배치에서, 3요소비료의 치기와 미량원소의 리용에서도 일대 혁신이 일어나 풍작이 마련되였다.

농산부문에서는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사상정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함으로써 1973년에 풍작을 거두었을뿐만아니라 1974년에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공격진지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였다.

이미 차지한 이 공격진지는 1973년의 성과들가운데서 가장 고귀한것이며 이 공격진지에 의거하여 앞으로 위대한 테제의 실현을 더욱 앞당길수 있게 되였다.

남새업

남새부문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남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였다.

1973년에 남새생산량이 해방후 최고수확년도였던 1972년에 비하여 108%, 1968년에 비하여 1.6배로 장성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남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협동농장원들에게는 물론,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과 도시주민들에게 남새를 넉넉히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472페지)

남새부문에서는 이해에 도시 및 로동자구 주변에 튼튼한 남새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남새공급을 훌륭히 보장하였다.

도시와 로동자구 주변협동농장들에서는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적극 받아들여 1972년에 비하여 분수식남새면적

을 122%로 늘였다.

수도평양시의 모범을 따라 전국의도시와 로동자구 주변협동농장들에서는 분수식남새기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남새파종면적을 늘임으로써 남새의 생산과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그리하여 봄철남새만 보더라도 남포시에서는 1.7배, 함흥시에서는 1.6배, 청진시에서는 1.5배, 김책과 신포시에서는 1.3배, 강서와 덕천군에서는 1.2배씩 각각 장성시켰다.

남새부문에서는 또한 남새생산의 계절성을 극복하고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봄남새와 8~9월남새를 많이 생산공급하였다.

각지 협동농장들에서는 온실과 온상재배면적을 1972년에 그전해에 비하여 2.3배, 1.8배씩 각각 늘이였던 혁명적기세를 계속 견지하여 1973년에도 대대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남새생산의 계절성을 기본적으로 극복하였다.

특히 계단식재배에 알맞는 종자들을 받아들이고 밀식재배를 비롯한 여러가지 재배방법들을 리용한 결과 해마다 긴장하던 봄철남새생산계획을 112%로 초과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남새부문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김치를 많이 먹는 식생활의 특성에 맞게 기후조건에는 관계없이 김장용 남새를 어디에서나 충분히 생산하는데 힘을 넣었다.

북부고산지대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방조밑에 남새재배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선진재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인 결과 김장용 남새를 벌방지대에서처럼 완전히 자급자족하고있다.

그중에서 자강도에서는 남새생산량을 1972년에 비하여 191%로, 량강도에서는 128%, 함북도에서는 116%, 평북도에서는 134%로 장성시킴으로써 이제는 벌방에서 끌어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먹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도시와 로동자구 주변에 분수식남새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온실과 온상 재배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면서 벌방지대는 물론 북부고산지대에도 김장용 남새생산기지를 마련함으로써 남새생산량이 계통적으로 높아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기준의 남새를 공급받고있을뿐만아니라 통배추, 양배추와 같은 잎남새, 도마도와 가지를 비롯한 열매남새, 무우와 같은 뿌리남새 등 다종다양하게 먹고있다.

축산업

축산업을 현대화, 집약화하며 전군중적운동으로 축산물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축산물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였다.

축산총국만 보더라도 고기생산이 1972년에 비하여 1.6배, 젖생산이 1.2배, 양털생산이 1.1배, 꿀생산이 3배이상 늘어났다.

1973년에 축산부문에서 거둔 이 자랑찬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우리 당 축산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닦아놓은 축산업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축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이 부문의 락후성을 없애고 축산물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62페지)

우리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히 먹이시려고 언제나 심려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생산이 완전히 공업화된 현대적돼지공장건설에로 우리 근로자들을 부르시였다.

그리하여 중요 도시마다 현대적돼지공장들을 건설할데 대한 당제5차대회의 결정에 따라 산업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그중에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1만톤짜리 평양돼지공장이 조업한 뒤를 이어 5천톤짜리 사리원, 강서, 돼지공장들, 2천톤짜리 위연돼지공장들이 이해부터 완전히 조업되여 축산물생산에 들어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규모돼지공장건설과 함께 이미 있는 축산물생산토대까지 완전히 현대화, 집약화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지금 있는 목장들의 집짐승우리들을 1천평방메터짜리의 현대적집짐승우리들로 개건하는 투쟁에로 부르시였다.

각지 목장, 종축장, 종양장들에서는 국가자재와 탐구한 지방예비를 배합하여 먹이만들기로부터 오물을 씻어내는데 이르기까지 완전히 기계화된 현대적집승우리들을 많이 조업시켰다.

1973년말까지 32동의 현대적돼지우리, 14동의 현대적젖소우리, 8동의 현대적양우리들이 개건됨으로써 이미 있던 축산물생산로대가 상당히 일신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업화된 생산토대를 마련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가금업처럼 완전가배합먹이를 생산공급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현대적인 돼지공장, 목장들마다에 이해에 5만톤짜리, 3만 4천톤짜리 사료분쇄장들이 꾸려짐으로써 먹이생산계통까지 완전히 현대화되였다.

이처럼 현대화, 집약화 수준이 높아진 결과 1973년말에 이르러 1인당 살찌우는 돼지관리마리수가 8배로 늘어났으며 돼지를 100키로그람으로 키우는 기일은 45일간씩이나 짧아졌다.

결국 종업원 1인당 고기생산량이 증가되였는데 현대적돼지공장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이미 있던 목장들중에서 개건된 평양목장만 보더라도 3.3배이상 장성되였다.

축산부문에서는 종자집짐승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성이 높은 돼지, 젖소, 양 생산을 강화하여 종자집짐승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여기서 종자집짐승관리와 쌍붙임을 잘하여 종자돼지생산이 113%, 종자돼지공급이 110%, 돼지새끼공급이 110%, 양새끼공급이 118%로 각각 늘어났다.

종자집짐승새끼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협동농장들과 기관, 기업소 부업목장들에서의 축산물생산이 크게 장성되였다.

특히 평북도 창성군, 평남도 개천군, 자강도 고풍군들에서는 작업반당 고기 2톤이상, 농가 호당 고기 100키로그람이상 생산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였다.

또한 벽동군 송이협동농장 2작업반에서는 고기 24톤, 개천군 구읍협동농장 5작업반에서는 고기 20톤, 은천군 랑담협동농장 11작업반에서는 고기 10톤, 린산군 지택협동농장에서는 5개의 농산작업반마다 모두 6톤이상씩을 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사로청원들의토끼기르기운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 2월 28일에 사로청조직들이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끈기있게 내밀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나무심기, 과수원꾸리기, 토끼기르기와 같은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였다.

사로청중앙위원회에서는 수령님의 1973년 2월교시를 철저히 관철하

기 위하여 고원군내 각급 사로청조직들과 사로청원들의 좋은 경험을 방식상학과 견학을 통하여 일반화하였다.

각지 사로청조직들과 사로청원들은 고원군의 경험을 살리여 1973년에 실로 1972년에 비하여 5배이상에 달하는 542만마리의 토끼를 길러냈다.

이 과정에 10만마리이상의 토끼를 기른 군사로청위원회는 12개 단위, 2천마리이상의 토끼를 친 학교사로청위원회는 143개 단위가 나왔으며 한 사람이 200마리이상 길러온 사로청원이 32명이 나왔다.

평북도 태천군 림천고등중학교에서는 1만 1천 60여마리, 평남도 회창군 회창녀자고등중학교에서는 1만 850여마리의 토끼를 길러냄으로써 전국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가 금 업

가금업부문에서는 1973년에 닭, 오리 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알과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금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이미 건설하여놓은 닭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원가를 낮추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00페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가금업의 생산토대가 튼튼히 마련된 조건에 맞게 주체적인 닭관리육성체계를 세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난방조건에서 키우던 후보닭들을 대담하게 야외닭우리에서 기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대관, 해주 닭공장들에서는 닭의 알낳이능력이 알을 낳는 기간에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성장발육단계에 이루어진다는 가금학의 원리를 깊이 파악하고 야외닭우리를 기본으로 하는 후보닭육성체계를 맨 선참으로 세웠다.

이 공장들에서는 봄, 여름, 가을철에 야외닭우리에서 후보닭들을 기를수 있게 알깨우기를 계단식으로조직하면서 야외에서 자라는 후보닭들에게 단백질먹이와 같은 보충먹이를 공급해줌으로써 영양상태가 좋은 후보닭들을 알낳이닭물로 자래웠을뿐만아니라 그후 닭알생산을 1.7~1.8배씩 올리는 혁신을 일으켰다.

가금총국의 일군들은 현시기 닭알과 닭고기 증산의 예비가 후보닭의 기르기방식을 개선하는데 있다는것을 해설선전하면서 방식상학과 기술지도서를 통하여 해주, 대관 닭공장의 본보기를 일반화하였다.

각지 닭공장과 닭고기공장들에서는 야외닭우리를 기본으로 하는 후보닭육성체계를 세운 결과 여러가지 질병에 저항력이 높은 튼튼한 후보닭들을 키워냈을뿐만아니라 종전에 후보닭우리의 난방에 쓰던 많은 전력과 석탄을 절약하였다.

가금업부문에서는 또한 덕대식나무상자를 받아들여 야외닭우리를 기본으로 하는 닭관리체계를 더욱 완성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다.

대관닭공장에서는 닭관리에서 나무상자를 받아들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덕대식나무상자를 도입한 결과 평방메터당 닭관리마리수를 1.5배로, 알낳이률을 13%이상 더 높이였다.

가금총국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대관닭공장에서 받아들인 덕대식나무상자가 종자닭우리나 야외닭우리처럼 평면으로 리용하던 생산면적들을 립체적으로 사용하는 사육방식이라는것을 해설선전하면서 전국에 널리 보급시켰다.

이처럼 각지 가금공장들에서는 닭, 오리의 생리적특성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주체적인 닭관리육성체계를 세워나감으로써 마리당 닭알생산을 더욱 높이였다.

그중에서도 대관, 해주, 송화, 문천, 장흥, 고원, 길주, 회령 닭공장들에서는 마리당 닭알생산을 1970년 3월에 소집된 전국가금업일군대회에서 다진 목표보다 더 높이는 모범을 보였다.

가금업부문에서는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광포오리공장과 룡성, 평성, 구장 닭공장들에 알깨우기실의 온도, 습도, 환기의 조절을 자동화하는 본보기를, 마람배합사료공장에는 원료사료의 하차수송관의 본보기를 꾸리고 일반화시켰다.

가금업부문에서는 또한 모든 농촌지대들에서 닭을 군중적운동으로 기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협동가금업과 농촌집의 닭치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농촌지대에서의 닭치기에 대한 기술지도사업을 강화하여 닭치기운동을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한세대에서 1천 50개씩의 닭알을 받은 린산군 지택협동농장처럼 1천개이상을 받은 협동농장대렬이 늘어났다.

그리하여 1973년에 전국적으로 알생산이 1972년에 비하여 123%로 장성되였다. 가금총국만 하여도 고기생산이 108.6%이상 늘어났다.

과 수 업

1973년에 과수부문에서는 전국의 모든 야산들을 과일동산으로 전변시켜 나라의 커다란 재부를 마련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과일을 풍족하게 먹이시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웠다.

모든 과수원들에서 앵두, 살구, 복숭아, 양벗 등의 올과일뿐만아니라 사과, 배, 감, 대추, 포도 등의 늦과일도 잘되여 실로 이해에 과일소나기가 쏟아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매우 절박한 과업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55페지)

과수총국에서는 청춘기에 들어선 과일나무의 모양만들기와 가지자르기를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과 과일나무의 종류, 품종별 특성에 맞게 잘 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였다.

총국에서는 주체적인 과일나무의 모양만들기와 북청식가지자르기방법에 대한 전국적실무강습과 방식상학을 조직하면서 북청지방의 유능한 전정사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도와주게 하였다.

모든 과수원들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가르쳐주신대로 가지가 길게 뻗고 새가지들이 많이 돋아나 해빛도 골고루 받고 바람도 잘 통하게 나무모양을 바로잡음으로써 올해뿐만아니라 해마다 과일풍년이 들게 하였다.

과수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북청확대회의 이후 조성한 과수원보호사업을 계속 밀고나갔다.

대부분의 과수원들이 경사지와 산비탈을 따라 누워있는 실정에 맞게 과일밭흙이 비물에 씻겨내려가지 않게 계단만들기와 돌쌓기, 풀떼입히기, 물도랑째기 등 과수원보호사업을 더욱 다그쳤다.

과수원보호사업에서는 경사지과수원을 많이 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2~3년전부터 이일을 시작한 동해안일대의

과수농장들이 모범적이였다.

특히 과수부문에서는 이해에 종합적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비약의 한길로 내달아왔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0년전까지만 하여도 기계화수단들이 불과 수십대밖에 없던 우리 나라 과수농장들에는 이제 과수원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가 평균 3.3대에 이르게 되였으며 과수작업의 기계화범위는 3배, 그 종류는 4배로 늘어나고 과수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대렬이 4.3배로 장성되였다.

이해에 국가에서는 과수업을 기계화, 화학화, 현대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과수부문에 1972년에 공급한것의 3배나 되는 뜨락또르와 자동차, 농기계들과 비료, 농약들을 보내주었다.

각지 과수농장들에서는 이에 맞게 길닦기와 물탕크, 농약탕크 건설을 다그쳐 거름과 과실 운반, 물주기와 농약뿌리기, 나무구멍이파기와 같은 어렵고 힘든 작업을 완전히 기계화하였다.

특히 농약탕크건설을 앞세우면서 새로 400여대의 고속도분무기들을 받아들인 결과 정보당 4명의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2배이상의 능률을 냈으며 결국 파일수확고와 벌레먹지 않은 과일생산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였다.

함경남도 북청군과 덕성군에서는 1972년도 과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이 두개 군에서만도 2만 2천여톤 생산하였다.

과수부문에서는 과수원과 과일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저장고들을 또한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각지 과수농장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과일생산량과 소비지과일수요, 지대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규모의 지상식저장고와 랭동식저장고의 능력을 더 조성하였다.

이 저장고들에 1972년의 2배나 되는 과일들이 저장됨으로써 철이 지나도 인민들에게 사철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1973년 7월 26일에 중산청년과수농장이 새로 생겼다.

잠 업

잠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1973년도 누에고치생산량을 해방후 최고수확년도였던 1972년에 비하여 166%로 장성시켰다.

잠업부문에서 거둔 이 자랑찬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의 결과에 이룩된 열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양잠업은 과거부터 세계에서 유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뽕나무를 많이 심어 양잠업을 발전시켜 견직물을 많이 생산하는것이 퍽 유리할것입니다.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122폐지)

우리 인민들에게 비단옷을 입히시려고 언제나 심려하고계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잠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하여 이해에만도 스물다섯차례나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또한 잠업부문농장들과 누에를 많이 치는 협동농장들에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을 보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눈부시게 발전하고있는 잠업부문에는 이해에 그이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현대적인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 175개의 종란장들이 새로 일떠섰다.

종자고치저장고, 잠실, 현미경검사실, 랭장고를 비롯한 건물들과 누에알생산에 필요한 시설들을 충분히 갖춘 종란장들이 건설됨으로써 잠업은 정연한 누에알공급체계를 가지고 더욱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되였다.

누에치기철을 맞이한 각지 잠업육종장, 잠업농장, 시, 군 종란장들에서는 겨우내 가둑누에, 피마주누에, 뽕나무누에 알받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가 봄철에 본격적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1972년에 비하여 1.7배나 되는 봄누에알을 받은것처럼 가을누에알도 충분히 받아 누에치기에 떨쳐나선 녀맹원들에게 계획적으로 보냈다.

녀맹조직들에서는 농업지도기관과의 련계밑에 누에먹이는 기간을 훨씬 줄이면서도 고치생산을 국가기준보다 2배이상 높인 2.8직동탄광녀성들의 누에치기경험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선진적인 누에치기방법을 방식상학, 경험교환회를 통하여 널리 일반화하였다.

우리의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어나가는 혁명가들답게 뽕나무, 가둑나무의 잎들과 계단식으로 심은 피마주의 잎들이 활짝 피였을 때에 집중적으로 먹여 많은 고치를 땄다.

누에고치생산에서는 636톤을 딴 의주군과 502톤을 수확한 단천군이 모범이였다.

잠업부문에서는 이해에 새로운 뽕나무밭도 많이 조성하였다.

잠업부문일군들과 녀맹원들은 뽕밭을 늘여 누에먹이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이 경공업부문에 더 많은 원료를 보내주며 고급비단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산좋고 물맑은 우리 나라의 산기슭마다에는 북청확대회의때의 과일동산처럼 비단동산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면적이 1972년에 비하여 실로 2.5배에 달한다.

그중에서 강원도 밝을이벌 1천정보의《녀맹뽕나무밭》과 황북도 신계미루등의 대규모의 뽕나무밭, 자강도산촌의 수많은 뽕나무밭들이 가장 큰것들이다.

이해에 각지 협동농장들에서는 벌방지대에는 50정보, 산간지대에서는 100정보씩의 비단동산을 꾸리는 투쟁을 벌림으로써 잠업의 먹이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였다.

《소년단림》, 《사로청림》

산좋고 물맑은 금수강산에 우리 나라 청소년학생들에 의하여 《소년단림》, 《사로청림》을 기본으로 하는 9만 4천여정보의 경제림이 이해에 새로 일어섰다.

그중에는 쳐뚝과 길섶, 철길 옆에 심은 왜싸리나무들과 공장, 기업소, 농장의 과수원, 유지림을 제외하고도 4만정보의《사로청림》과 3만 4천정보의《소년단림》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속에서 나무심는 운동을 널리 벌려 〈소년단림〉과 〈사로청림〉을 많이 조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우자》, 23폐지)

사로청조직들은 1973년 2월 28일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로청원들과 소년단원들 속에서 한그루의 나무를 보시고도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생각하시는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배우는 선전사업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또한 중앙, 도, 기업소 산림부문일군들과의 련계밑에 강습, 방식상학을 통하여 나무심는 방법과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줌으로써 그들자신이 조국의

풍요한 산림조성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였다.

각지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나무모를 공급받기 전에 학교별로, 조직별로 나무구덩이를 깊이 파면서 구덩이마다 나무잎거름까지 듬뿍 마련하였다.

이들은 수령님께서 1947년 4월에 몸소 문수봉에 오르시여 조국의 강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락원으로 꾸릴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면서 산림자원조성의 첫봉화를 지펴주신 식수절을 전후하여 모든 산발을 타고 여러가지 애솔이나무들을 정성껏 심어나갔다.

산간오지대에는 빨리 자라나는 이깔나무 2만 9천여정보, 벌방지대에는 평양포플라나무를, 중간지대이상에는 1만 300여정보의 잣나무, 6천여정보의 뽕나무를 심었다.

각지 소년단원들과 사로청원들은 나무를 심은데 그치지 않고 초급단체별, 소년단분단별로 담당책임제를 실시하면서 김도 잡고 물도 주어 심은 나무의 98%이상을 살려냈다.

이해 각지 청소년학생들은 1974년에 또다시 6만정보의 경제림, 3만정보의 화목림을 비롯하여 10만정보를 심을 목표밑에 이미 6만정보분의 나무구덩이까지 파놓았다. 그중에는 1만정보분의 호두나무구덩이도 있다.

산림부문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이 앞으로 해마다 《소년단림》과 《사로청림》을 많이 조성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이해에 좋은 나무종자들을 받아내는 전군중적인 채종림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웠다.

각지 채종일군들은 창성이깔나무, 방울나무 (루라타나스) 종자를 비롯하여 빨리 자라는 나무종자와 호두, 잣, 쪽가래를 비롯한 기름나무종자들을 더 많이 받았다.

산림부문에서는 또한 나무모밭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여러가지 선진적인 나무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여 1974년도 경제림조성계획에 필요한 나무모기르기를 적극 앞세웠다.

특히 쓸모적은 산림들을 섬유림, 제지림, 유지림과 같이 쓸모있는 경제림으로 개조할데 대한 대자연개조계획을 더욱 완성하고 그에 따라 산림조성계획도 심화시켜나갔다.

산 업 건 설

산업건설부문에서는 기본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건설을 집중화, 공업화, 정규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기본건설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해에 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완공하였다.

이해에 산업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결과 생산적건설에서만도 세계1등급의 금성뜨락또르공장 (184페지참조)을 비롯하여 1만 4천여개의 대상이 완공되여 조업하였으며 수많은 대상들의 건설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의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건설부문앞에는 우리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현대적인 대야금기지와 종합적인 대화학공업기지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신년사》, 8페지)

수령님께서는 이해에 180여차례의 현지교시 및 교시를 통하여 기본건설의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6개의 중요건설대상에 《4. 25청년돌격대》들을 보내주시였다.

또한 145대의 화물자동차와 불도젤을 비롯하여 도합 2천 500여대의 건설기계들과 수많은 기자재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건설자들의 생활에 조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살림집문제, 부식물문제를 푸실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여러가지 악기와 영사기, 텔레비죤수상기, 자외선 등 위생차까지 보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에 고무된 건설자들은 주체적인 시공방법과 전례없는 건설속도를 창조하면서 나라의 대야금기지, 동력기지, 화학공업기지들을 도처에 일떠세웠다.

온몸에 주체형의 붉은 피만이 용솟음치는 건설자들은 우선 사대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고 주체적인 시공방법을 창조해냄으로써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의 요구에 맞는 높은 건설속도를 조국청사에 기록하였다.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승리화학공장건설자들은 제1계단공사에서 확대식조립방법, 립체식조립방법 등 주체적인 시공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임으로써 10년동안 걸려야 한다하던 이 공사를 단 3년동안 해제끼였다.

특히 김책제철소확장공사를 맡은 건설자들은 주체적인 대형구조물침강시공법을 비롯한 독창적인 시공방법을 창조하여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의 건설자들도 2년씩 걸린다고 하던 1호조피기침강공사를 45일만에, 2호조피기침강공사때는 또다시 단축하여 28일만에 끝내는 새로운 건설속도를 보여주었다.

산업건설자들은 또한 당중앙이 제시한《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두수청년발전소를 강계청년발전소때보다 3배의 높은 속도로 건설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받은 북방의 동력기지건설자들은 《속도전》의 전투조직형식을 받아들여 지난날에 비하여 수로공사속도를 3배, 발전기실과 철판로 작업속도를 4배이상 높였다.

그리하여 서두수청년발전소건설자들은 수령님의 친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쟁취하였을 뿐만아니라 쟁취한 영예를 더욱 빛내여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하였다.

산업건설부문에서는 건설을 집중화, 공업화, 정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중공업기지를 더욱 강화하는 건설도, 경공업기지를 현대화하는 건설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이해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 1호용광로의 개건확장공사와 천원단광직장건설 그리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대규모 강철 및 압연직장, 세멘트공장, 전동기공장, 대형변압기공장, 전선공장, 베아링공장, 보이라공장, 가성소다공장 등의 산업건설을 짜고들어 집중화, 공업화, 정규화함으로써 높은 건설속도로 계획한 완전조업과 부분조업을 정확하게 보장하였다.

건설자들은 이해의 건설을 통하여 당에서 새롭게 내놓은 《속도전》이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혁명적이며 위력한 전투조직방법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

지 방 건 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아름다운 강산과 기후조건들을 고려하여 조선사람의 생활양식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락후한것은 개조하며 좋은것들은 살리면서 아름다운 강산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합시다.》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198페지)

수령님께서는 1973년 2월 모든 농민들이 국가에서 지어준 문화주택에서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자 한사람이 1년에 6세대의 문화주택을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해에 건설자 한사람이 6세대씩 맡은 이 문화주택은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줄일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이 구현되여 한세대에 온돌방 두세칸, 부엌,수도, 창고, 수세식위생실까지 갖추어진 1동 2층 2세대 혹은 1동 2층 3세대짜리 새로운 문화주택이였다.

새로운 문화주택건설은 지난시기 건설자 한사람이 2세대를 짓던 단층문화주택건설에 비하여 1동당 로력을 160공수 적게 들이면서도 3배나 더 많은 집을 짓게 하는 혁신으로 된다.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은 온천군, 대동군, 평양시 사동구역들에서는 부재를 현대화하고 건설작업을 적극 기계화하여 40여공수의 로력으로 한세대씩 지었다.

언제나 한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를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 5월 각도, 시, 군 당 책임일군들에게 대동군에 꾸려놓으신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한사람당 6세대운동》을 전국적으로 널리 벌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농촌건설부문에서는 이해에 농촌부락단위로 새로운 형의 문화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 어머니학교, 탁아소, 유치원을 짓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전국적으로 평남도와 황남도, 평북도 그리고 대동군, 온천군, 평원군, 평양시 사동구역, 염주군, 안변군, 재령군, 안악군, 연산군, 홍상군들이 모범적이였다.

모든 농촌건설자들은 농촌의 면모를 완전히 개변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하루빨리 없애며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더 높이 추켜세우려는 불타는 열정을 안고 표준설계에 따라 새로운 문화주택들이 일떠선 부락들에 현대적인 농촌《애기궁전》을 3천여동 지었으며 1971~1972년 두해 사이에 한것의 2배나 되는 농촌수도화도 이해에 실현하였다.

도시건설부문에서는 공업지구건설과 주택지구건설을 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이해에도 공업도시들인 청진, 해주, 강서와 항구문화도시들인 남포, 원산, 라진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다른 도시건설을 따라세웠다.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금성뜨락또르공장건설과 함께 집중적으로 세워진 강서땅은 현대적공업문화도시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시내 높은 언덕우에는《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이 세워졌고 그 앞에는 1천 50석을 가진 군중문화회관과 1만 2천평방메터의 청년공원과 2천여명의 관람석을 가진 실내 체육관이 훌륭하게 꾸려졌다.

18메터 폭과 287메터의 길이를 가진 립체다리를 넘어서면 아름다운 금강산의 1만 2천봉우리처럼 6층, 10층, 13층짜리 고층살림집 30여동이나 여러가지 색갈과 문양의 외벽타일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일떠섰다.

혁명의 붉은 수도 평양의 관문도시인 남포시도 공화국창건 25돐을 맞이한 이해에 보다 웅장한 항구,공업, 문화, 휴양 도시로 건설되였다.

푸른 하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뻗어나간 유리선거리에는 현대적인 건축예술을 자랑하며 우아하게 일떠선 1천 500석짜리 극장, 15층짜리 사범대학기숙사, 10층, 13층의 살림집 등 도합 40여개의 건물들이 줄지어 솟아났다.

남포시에는 또한 온천행갈림길에 이르러 3만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야외경기장, 체육관, 수영관, 고등체육학교, 기숙사 등 부대건물, 보조시설들이 들어앉고있는데 체육촌구역은 그 둘레가 거의 20리에 달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 지방건설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 로동자와 농민간의 생활수준에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평 양 시 건 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양은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사회주의조국의 서울이며 우리 혁명의 발원지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영웅도시 평양을 더욱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281폐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평양시는 1973년에도 《주체조국》의 긍지드높이 조선의 주체적건축술을 세상에 자랑하면서 아름답게 건설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해에 91차례의 현지지도와 교시를 통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많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이해에 세계1등급의 거리 천리마거리가 완성되였고 비파거리와 상원선거리의 면모가 일신되였고 수도의 려객운수망이 더욱 현대적으로 개선되였다.

평양시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날 재난의 강이던 보통강기슭의 천리마거리에 세계적규모의 평양체육관과 인민문화궁전을 일떠세웠다.

1973년 4월 8일에 개관한 평양체육관은 단 1년반동안에 건설된 주체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서 2만여명의 수용능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 체육인들과 인민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담아 지은 체육관은 지금 우리 나라 체육기술발전의 중심지로, 체육기술보급의 보금자리로 리용되고있다.

이 체육궁전과 나란이 3천석의 대회의장을 비롯하여 500여개의 방을 가진 인민문화궁전이 천리마거리의 일각에 솟았다.

세개의 큰 집 (가, 나, 다 동) 들이 하나의 조선식지붕으로 이어진 인민문화궁전은 《가》동의《엄지기러기》를 중심으로 마치 23마리의 기러기떼가 방사식으로 줄지어 일시에 하늘을 향해 나래를 편듯한 우아성과 장엄성을 보여주고있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이 궁전에서는 회의도, 정책강연도, 과학강연도, 기술강연도 하고 도서전람도, 사진전람도 할뿐만아니라 앞으로 국가적인 연회, 수뇌자급의 원탁회의, 종합적인 국제회의들도 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은행나무 (쌍줄가로수) 거리로 소문난 천리마거리와 산보, 배놀이로 유명한 보통강유원지 사이의 넓은 땅에 통이 크게 평양체육관과 인민문화궁전을 일떠세우게 하심으로써 보통강의 정서를 시내 깊이에까지 열어주시였을뿐만아니라 천리마거리의 건축술을 현대건축술보다 한계단 더 높여주시였다.

지금 천리마거리는 한쪽엔 5층, 8층, 15층 살림집들이 솟아올라 금강산의 만이천봉우리처럼, 다른쪽엔 인민문화궁전과 평양체육관이 있어 해금강의 기암이나 총석정처럼 장엄하고 우아하다.

평양시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또한 비파거리와 상원선거리에 탑식, 외랑식의 다층살림집들과 평천식문화주택

풀을 배합하여 지음으로써 거리의 면모를 더욱 개변하였다.

특히 비파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그전해에 비하여 실로 1.4배이상에 달하는 다층살림집들을 지었으며 25떠의 중앙열난방을 늘여 많은 공공건물들과 학교들, 살림집들을 온수로 덥히고있다.

주택망이 계속 늘어나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하루에 수만톤의 수도물을 공급하는 룡산수원지 제1계단공사도 완공되였다.

평양시건설자들은 특히 시내 교통운수망을 더욱 현대화, 고속도화하였다.

이들은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앞두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인 평양지하철도를 개통하여 수도시민들의 교통의 원활성과 문화성을 훌륭히 보장하였다.

봉화, 승리, 통일, 개선, 전우, 붉은별 역마다에는 세줄기의 계단승강기가 쉬임없이 돌아가면서 손님을 기다리고있으며 옥돌과 천연대리석으로 장식된 중간복도마다에는 상점, 공중전화소, 신문매대들이 있으며 지하역마다에는 정교한 미술의 극치를 자랑하는 조각벽화, 부각 작품들이 있어 《지하궁전》을 이루었다.

이해에 13키로메터의 송신—팔동교 사이에 무궤도전차를 놓아 이 구간의 려객수송을 복선화, 다양화함으로써 려객수송의 문화성도, 봉사성도 한층 높였다.

15키로메터의 평양—순안 도로도 더 확장하였다.

평양시건설자들은 혁명의 수도를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빨리 건설하기 위하여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한 결과 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였다.

그중에서도 토공작업의 기계화수준은 1972년에 비하여 1973년에는 11%, 싣고부리는 일은 7%, 물말이기는 일은 4%씩 각각 더 높였다.

철 도 운 수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이해에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세우고 철길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면서 륜전기재의 리용률을 높여 날로 증대되는 철도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철도운수부문에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수송능력과 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신년사》, 9페지)

철도에서는 규률과 질서가 생명이라는 수령님의 교시를 사령지휘체계에 구현하여 철도수송을 마치 시계의 치차가 서로 맞물고 돌아가듯이 치밀하게, 통일적으로 조직할수 있는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세웠다.

무엇보다먼저 관리국단위의 수송계획체계를 철도부의 통일적인 유일사령지휘체계밑에 두면서 사업직능도 만들고 전문수송도 광범히 조직하여 오래동안 중송성과를 저애하던 관리국단위의 본위주의적현상을 짓부셔버렸다.

그리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적 요구에 따라 긴급하게 제기되는 화물수송량과 림시배차가 아니라 정기배차를 기본으로 하는 화물수송량이 례년보다 훨씬 늘어났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또한 유일사령지휘체계에 알맞게 주요화물을 중점적으로 집중수송할수 있게 전문수송, 순환수송 방법들을 이해에 광범히 받아들였다.

시, 군 행정위원회와 인민경제 각 부문과의 광범한 협의밑에 집중수송역들을 선택확정하였으며 려객역으로는 남지만 화물역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100여개역의 상하차설비들을 집중수송역에 조절배치하였으며 집중수송역마다 종합상하차작업반을 조직하였다.

운흥역, 선천역, 황주역을 비롯한 집중수송역의 시, 군들에서는 전군중적운동으로 화물장들을 꾸리면서 이미 있던 설비들에 조절배치받은 설비들과 새로 만든 설비들을 각각 보강하여 짐을 싣고부리는 기계능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철도운수부문의 화차회귀일수를 줄이였을뿐만아니라 자동차운수부문의 자동차실동률을 더욱 높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이처럼 유일사령지휘체계가 서고 집중수송역들이 꾸려진데 기초하여 갈때는 자재를, 올때는 생산물을 나르는 순환수송과 전문수송, 직통수송을 대담하게 조직하였다.

특히 일군들속에서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경험주의와의 《사상전》을 줄기차게 벌리면서 물동량이 많고 멀리 수송하는 목재와 유연탄들을 기술역에 머무르지 않고 직통수송, 고속도수송하는 《전격전》을 벌렸다.

직통수송, 고속도수송의 광범한 조직은 웅기—함흥간, 혜산—평양간, 청진—평양간의 철도수송의 긴장성을 능히 풀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또한 경량레루를 중량레루로, 낡은 침목은 새 침목으로, 본선의 침목은 콩크리트로 바꾸어 철길의 강도, 통과능력을 높이는 투쟁을 하였다.

철도운수부문의 로동계급들은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맡아본다는 혁명적긍지 높이 년초부터 판을 크게 벌려놓고 철길의 강도를 높이는 투쟁을 세파지게 다그쳐댔다.

단 한해동안에 중량레루는 전체 전기화구간의 28%, 새 침목은 례년의 1.5배, 콩크리트침목은 2.6배나 갈아넣은 결과 16개소의 속도제한개소가 없어졌으며 본선구간에서 선별로 수송속도가 15%씩 높아졌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이해에 기술역의 차갈이작업능력을 높이는데 힘을 넣으면서 단천역, 고원역들에 그 본보기를 꾸렸다.

고원, 단천역의 종합작업반 성원들은 기술역의 통과능력을 높이는 기본고리가 기관사, 조차공, 검사공들의 일심단결과 차갈이의 기동성에 있다는 것을 옳게 자각하고 그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차갈이작업량을 2배씩 높였다.

이해에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새로운 차갈이기술지도서를 철저히 파악시키는 투쟁을 통하여 기술역들에 화물차들이 체화되는 현상들을 상당히 극복하였다.

자 동 차 운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운수문제에서 중요한것은 자동차의 리용률을 높이는것입니다. 년간수송계획을 똑똑히 세우고 조직사업을 잘하여 자동차의 리용률을 높인다면 지금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도 운반작업을 능히 보장할수 있을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570페지)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을 잘하고 자동차의 리용률을 높여 려객과 화물 수송실적을 그전해에 비하여 각각 117%이상씩 장성시켰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해에 47차에 걸쳐 자동차운수를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면서 각종 자동차와 공작기계들을 비롯한 많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나라의 수송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면서 물동량이 새로 증가된 지역

들에 자동차사업소들을 더욱 접근시키는 방향에서 새로 내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업소의 수는 종전의 2.2배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공업지구로부터 산간벽촌에 이르는 우리 나라의 모든 시, 군들에 1개이상씩의 자동차사업소들이 들어갔다.

이 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이미 있는 자동차들과 새로 받은 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담당지역의 수송수요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자체의 수리기지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수송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든 결과 자동차실동률이 1972년에 비하여 5.2% 더 높아졌다.

남포, 강계, 신의주 자동차운수대들과 운산, 동림 자동차사업소들에서는 집원천, 도로상태, 운전기술수준에 따라 전문화에 의한 집중수송조직을 잘하여 자동차의 실동률을 85%이상 높임으로써 담당지역의 물동을 모범적으로 날랐다.

평북도, 평남도, 자강도, 황북도, 강원도, 함남도 자동차관리처들에서는 산간군의 물동량이 많은 도안의 실정에 맞게 일군들이 직접 타고나가 현지에서 수송조직을 바로 잡아주는 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화물수송계획을 앞당겨수행하였다.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이해에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절박하게 나서는 농촌의 뻐스화에 힘을 넣어 농촌근로자들의 교통상 불편을 덜어주었다.

각지 자동차수리공장들에서는 상당히 보강된 공작기계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자동차수리용 부속품생산을 앞세우면서 농촌뻐스들을 대량적으로 생산보장하였다.

한편 도로건설대와 각지 농장원들은 전군중적운동으로 군과 리들을 련결하는 길들을 더 넓히면서 닦았으며 정류소들을 쓸모있고 아담하게 꾸려나갔다.

그리하여 자동차운수부문에서는 1973년에 76%의 농촌리들을 뻐스화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련계를 더 밀접히 보장해주었다.

수 상 운 수

수상운수부문에서는 1973년에도 강하천수송, 연해수송, 대외무역수송에 커다란 힘을 넣어 인민경제가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교통운수의 종합적발전을 실현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수상운수발전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배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해 및 강하천 운수망을 더 늘이고 철도와 수상운수의 련대수송을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 배에 의한 대외무역수송을 늘이도록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53페지)

수령님께서는 이해에만도 77차례에 걸쳐 수상운수를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친히 남포항, 해주항, 원산항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무역항들을 현대화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수상운수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항만준설공사를 대대적으로 벌려 배길들을 적극 열어놓고 부두의 상하선능력을 더 조성함으로써 라진항, 해주항들을 현대적인 무역항으로 새로 만들었다.

또한 이미 있는 항들을 현대화할데 대한 교시에 따라 흥남항, 남포항, 청진항들에 기중기시설, 창고시설들을 더 건설하여 무역항의 통과능력을 한층 더 높였다.

그중에서 남포항에는 밀금개식콘베아시설을, 청진항에는 마그네샤크링카상하선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다량적으로 수출입하는 밀과 마그네샤크링카를 싣고부리는 일을 그전보다 더 합리화, 현대화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수상운수부문에서는 1만 2천톤급의《혁신》호를 비롯하여 대외무역선박척수가 1972년에 비하여 1.7배이상 늘어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대외무역수송을 훨씬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배로서 제국주의의 멍에에서 벗어난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관계를 맺고 통상교류를 발전시키는데 그 어느 해보다 적극 이바지하였다.

수상운수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강하천수송과 연해수송이 운반비가 적게 들뿐만아니라 능률이 높은 형태라는것을 옳게 자각하고 철도운수와의 련대수송을 잘하여 인민경제부문간, 지역간의 생산적련계를 더욱 밀접히 하였다.

특히 송림항, 원산항을 비롯한 항들과 청진, 신의주, 남포, 해주 해운사업소들에서는 물동량이 많은 규사와 광석, 갈과 통나무 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인민경제발전을 촉진하였다.

강하천과 연해의 려객수송도 훨씬 개선되였다.

체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시였다.

우리 인민경제가 빨리 발전되고 국가사업이 방대해지는데 따라서 체신부문에서는 통신련락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며 정확신속성을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73년 4월 13일, 새로운 현실에 맞게 산업전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의 교시와 배려를 받은 체신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산업전화를 원만히 보장하는 사업이 국가경제기관들의 지도와 지휘를 더잘 보장하는 일이며 나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면서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일이라는것을 근로자들속에 광범히 해설선전하여 산업전화가설에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각지 통신기계전사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무조건성의 정신, 절대성의 정신을 가졌기에 그때까지만 하여도 수입에 의존하던 12통화로반송전화기와 중계기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만들어내는데 주저없이 달라붙었다.

특히 평양통신기계전사들은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받은 그날로부터 판을 크게 벌려놓고 12통화로반송전화기 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리면서 단석달동안에 불이나케 생산함으로써 평양과 각도간, 총국과 경영국, 총국과 중요 산업기업소간의 산업전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수령님의 교시를 한치도 드팀없이 더 빨리 더잘 수행하려는 일념으로 총돌격전을 벌려 3통화로반송기생산을 그전에 비하여 2.5배이상으로 높이였으며 도와 군간, 군과 군간, 군과 기업소간의 통신다중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다.

체신부문에서는 이해에 또한 기술혁명을 강화하고 방송국들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방송의 출력과 주파수를 계속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장시형동무가 일하는 기업소에서는 생기발랄한 정치사업을 앞세운데 기초하여 이미 있는 방송설비를 대담하게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대외방송출력

을 높이는 특출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정책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기여를 한 장시형동무가 일하는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높이 평가하시여 축하전보문을 보내시였으며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또한 평양텔레비죤방송국에서는 사대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고 우리 당의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능력이 큰 천연색텔레비죤방송기를 만드는 대담한 전투를 벌렸다.

방송국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텔레비죤방송의 주인은 자기자신들이며 가까운 앞날에 천연색텔레비죤을 방송해야 할 당정책적요구를 심장으로 자각하고 출력이 큰 《충성호》를 만들어 냄으로써 텔레비죤방송능력을 5배이상 높였을뿐만아니라 천연색텔레비죤방송토대를 예견성있게 꾸리였다.

우편통신부문에서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출판물의 세대별 전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여러가지 수송수단으로 우편물과 출판물을 신속정확히 날라다주었다.

특히 출판물과 우편물의 송달시간을 훨씬 줄이고 모든 단위, 모든 공정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운 결과 문화성과 봉사성도 더 한층 높아졌다.

재 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국가예산을 옳게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수입원천을 여러 모로 늘일뿐아니라 국가자금을 옳게 지출하고 리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데 대하여》, 24페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4.25혁명정신》, 《기양의 기백》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국가예산도 성과있게 집행하였다.

1973년도 국가예산수입은 100.7%로 넘쳐수행되였으며 그 전해에 비하여 115.7%로 늘어났다.

국가예산수입에서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몫은 98.1%에 이르렀으며 주민으로부터의 세금수입은 다만 1.9%에 불과하였다.

국가예산수입이 빨리 늘어난 결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도 2억 8천540만원에 달하는 지출에 대한 수입초과를 가져왔으며 나라의 자주적재정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이해 국가예산지출은 97.3%로 집행되였으며 그 전해에 비하여 112.5%로 늘어났다.

당과 정부에서는 우선 방대한 자금을 인민경제발전비로 돌렸으며 특히 3대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고 나라의 만년대계의 밑천을 튼튼히 마련하는 기본건설에 1972년의 1.3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기본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결과 생산적건설에서만도 1만 4천여개의 대상이 조업되였으며 수많은 대상들의 건설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또한 농촌기술혁명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이해에 그전해의 1.5배에 달하는 자금을 지출하여 농촌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결과 그전보다 생산능력이 10배나 되는 현대적 금성뜨락또르공장과 9만정보의 관개능력을 가진 압록강관개가 각각 조업개통되였고 100만톤의 린비료생산능력, 물동량으로는 정보당 1톤이상, 성분량으로는 200키로그람이상 줄수 있는 화학비료생산능력이 각각 조성되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중공업기지를 더욱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려 수많은 현대적인 대규모 중공업공장들을 건설하거나 건설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로동자, 기술자들과 청년인테리들이 중심이 되여 수많은 생산공정들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였다.

특히 당중앙의 지도와 배려에 의하여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강선제강련합기업소, 2.8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 산업텔레비죤과 무선통신에 의한 생산지휘체계를 세우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원격조종을 실현함으로써 생산지휘의 기동성을 보장하고 생산을 늘이였으며 힘든 로동과 고열로동을 없애는데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왔다.

경공업을 더욱 현대화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당과 정부에서는 이해에 경공업부문에 1972년의 1.7배나 되는 많은 자금을 돌렸다.

국가의 방대한 투자로 방직공장, 신발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현대적경공업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여 중앙경공업기지가 더욱 확대강화되였을뿐만아니라 매개 도들에 편직물공장들과 곡산공장들이, 매개 시, 군에 옷공장들과 식료가공공장들이 일어서 인민소비품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자금투자를 옳게 진행한 결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더 높은 단계에로 일대 비약할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여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공업을 골간으로 반석같이 다져진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가 있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동과 경제적난국이 휩쓸고있는 때에 1973년도 공업생산이 19%나 늘어났을뿐만아니라 농촌에 일찌기 없었던 풍년이 들었다.

당과 정부에서는 이해에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면서도 정세발전의 요구에 따라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4%에 해당하는 자금을 국방부문에 넣었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의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의 전투준비가 더욱 완성되였다.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고르롭게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국가예산에서는 1972년의 112%에 달하는 사회문화시책비, 114%의 교육비, 115%의 보건사업비를 각각 돌렸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이처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6개년계획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놓았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한해 앞당겨 점령하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로동행정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긴장한 로력문제를 푸는가 못푸는가 하는것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전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379페지)

수령님께서는 1972년 10월 은률광산 현지지도와 1973년 1월 황남도광업부문일군협의회에서 모든 일군들이 로동행정사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 당의 로동행정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일대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수령님의 교시들에 대한 집중학습을 조직하면서 머리수를 불구는 방법으로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려는 경향과 자기 지방, 자기 기업소의 리익만을 생각하고 국가적인 립장에서 로력예비를 동원하지 않으려는 경향과 강한《사상전》을 집중적으로 벌렸다.

이 부문에서는《사상전》을 통하여 적지않은 일군들속에 남아있던《인해전술》의 사상여독을 뿌리뽑고 한 공수의 로력, 한초의 로동시간도 아끼고 효과있게 리용하려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기풍을 세워주었다.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의 개선, 기술혁신의 강화, 군단위 지방산업공장들의 통합사업들을 청춘의 기백으로 전격적으로 추진하여 황남도광업부문일군협의회에서 가르쳐주신대로 나라의 로동대렬을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로동대렬로 튼튼히 꾸리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기치밑에 조직진행된 로동대렬정리사업을 통하여 무엇보다도먼저 제철소, 제강소, 발전소, 화학공장, 세멘트공장을 비롯한 11개대상의 대규모건설장들에 주체형의 피끓는 용솟음치는 청년돌격대들을 파견할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 뜨락또르, 전자관 공장을 비롯한 중앙 공장, 기업소의 주변마다에 자동화계기기구분공장, 부속품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중소공장들을 더 조직운영하였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이해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충성심을 정확히 반영하여 로동정량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수령님과 당중앙의 정치적신임과 두터운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신으로 보답하려는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담아 로동정량수준을 1972년에 비하여 122.4%로 높였다.

이 새로운 로동정량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지난시기에 최고수준으로 올랐던 116%의 로동정량수준을 또다시 뛰여넘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정량이다.

새로운 로동정량의 창조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보여주고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에서 판을 크게 벌려놓고 전격적으로 일하는 조선사람들의 본때를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공업부문의 근로자들은 세계적으로 경제적혼란과 일대 파국이 일어난 이해에 그 전해에 비하여 공업생산을 19%라는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는 혁명의 북소리를 울렸다.

농업부문의 로동행정사업에서도 농촌로력관리사업을 개선하고 농촌에 대한 로력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영농사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농업생산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풍작의 성과를 거두었다.

수령님께서는 농촌로동행정사업전반을 깊이 료해하시고 농촌로력을 다른 부문에 빼돌리는 현상과 로력을 농사일에 집중하지 않은 경향들을 심각히 지적하시면서 로력관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무엇보다도먼저 지난 기간 농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되였던 모든 농촌로력과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서 일하던 농촌연고자와 농업기술자들이 농장에 돌아오고 많은 제대군인들이 농촌에 파견됨으로써 농촌로력자대렬이 질량적으로 튼튼히 꾸려졌다.

또한 협동농장 작업반과 분조를 개편하고 농사일에 힘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부문간 로력배치를 전반적으로 조절하였으며 로력관리사업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고 로력일평가와 공시사업을 정상화하였다.

특히 농촌지도일군들과 농장초급일군들은 작업반과 분조에 배속되여 농장원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농장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켰다.

이 해에 모든 농장관리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은 모내기때에 20일, 김매기때에 40일, 가을걷이때에 20일 합하여 년간 80일이상씩 생산로동에 참가하는 기풍을 세운 결과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 기여하였다.

농촌을 성심성의로 지원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모든 근로자들과 학생, 군인들은 봄에는 모내기를, 여름에는 논밭김매기를 가을에는 낟알걷이와 벼단나르기를 도와주었다.

이해에 농촌로력지원사업에 참가한 연인원수는 1972년에 비하여 153%로 늘어났다.

사회주의문화건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1973년에 철저히 로동계급의 사상과 그의 리해관계를 반영하며 로동계급의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진보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새로운 문화로 급속히 개화발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문화건설분야에서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함으로써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9페지)

우리 당은 무엇보다먼저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기 위한 사업을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중요한 한 부문으로 힘있게 끌고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썩어빠진 부르죠아문화와 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였으며 문화건설분야에서 조그마한 부르죠아적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의거하여 로동계급적선을 똑똑히 세웠으며 온갖 반동적이며 불건전한 요소의 자그마한 발현에 대하여서도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때에 극복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혁명적세계관과 계급적관점을 튼튼히 세우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적인것과 온갖 반동적인것을 명백히 가려볼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문화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킴에 대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관철하였다.

우리 당은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과 낡고 반동적인 것을 정확히 가려내여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당대사회에서 진보적이였고 인민적인것이라 하더라도 오늘의 사회주의현실과 로동계급의 혁명적요구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함으로써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이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빨리 발전하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우리 당은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함으로써 교육부문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옳게 실현하여 후대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훌륭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낼수 있었으며 철저히 조선혁명에 복무하는 주체교육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었다.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중앙의 지도밑에 문학예술분야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이 철저히 극복되고 독창적인 문예리론들과 창작원칙들이 정확히 관철됨으로써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생활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인 우리 말을 지켜내고 현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킬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의 체질과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는 주체적인 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온갖 반동적인 사상독소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일관되고 철저히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로 빨리 발전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혁명의 급속한 발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1973년 신년사 그리고 1972년 3월 14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강서확대회의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3년에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빨리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교육과 과학문화기술의 발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근로자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기술지식보급사업을 널리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을 훨씬 높였습니다.》(1974년《신년사》, 단행본, 6페지)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 4월 9일에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였다.

그리하여 1972~1973학년도부터 실시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1973~1974학년도에 계획보다 3년앞당겨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새로운 의무교육의 실시로 우리의 새세대들은 11년동안 국가의 혜택으로 무료교육을 받게 되였으며 이 과정에 혁명적세계관의 기초를 닦고 완성된 중등지식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기술혁명수행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성능이 좋은 기계들이 많이 창안제작되였으며 기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게 되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현대과학기술을 다방면적으로 배운 우수한 기술인재들, 우리의 대학생들이 천리마대고조가 일어나고있는 공장과 농촌에 나가 벅찬현실속에서 실습을 진행하면서 사상, 기술 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수행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 기술지식보급사업에 앞장서 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모든 협동농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정연한 기술보급체계가 서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특히 농업부문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관리일군들과 농장원들로 하여금 토양학, 작물학, 비료학, 농기계학 같은것을 잘 알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농사에서 전례없는 대풍을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교육과 과학문화기술수준을 급속히 높일데 대한 문화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이 한계단 더 높이 뛰여오르게 되였으며 작업반성원 모두가 기사, 기수로 되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 기계전사들은 공기조종체계에 의한 새로운 스티브자동호름선을 만들어냄으로써 10여대의 만능공작기계와 그에 따르는 로력을 늘이지 않고 1인당 생산능률을 무려 8배로 높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의 어느 공장, 어느 협동농장에 가보아도 찾아볼수 있는 현상이다.

생산문화와 생활문화의 확립; 1973년에 사람들의 생활과 살림집, 공장과 마을에 있는 때를 벗기는 투쟁이 더욱 힘있게 추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 결과 공장, 기업소들이 깨끗이 꾸려지고 도시와 농촌의 면모가 일신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양식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1974년 《신년사》, 단행본, 6페지)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문화적인 생산환경과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공장구내와 주변은 공원과 같이 만들며 거리와 마을, 살림집과 개체생활을 알뜰하고 문화위생적으로 꾸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근로자들을 힘있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생산문화와 생활문화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였다.

생산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1973년에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문화적인 생활환경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리고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반화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룡성기계공장, 해주피복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의 그 어디에서나 생산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때를 벗기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생산과정으로부터 포장, 보관, 수송에 이르는 모든 행정에서 원료, 자재와 제품들을 깨끗하고 문화성있게 다루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생산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세운결과 설비리용과 기술발전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났다.

평양종합방직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솜먼지를 빨아들이는 비면청소기를 창안도입하여 가락이나 베아링에 먼지가 끼지 않게 함으로써 종전에는 1분동안에 8천회 돌던 가락회전속도를 이미 1만 2천회전으로 올리고 부분적으로는 1만 5천~1만 8천회전까지 높이게 하였다.

1973년 5월중순 온천군 석치리를 찾으신 수령님께서 온천군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의 본보기로 꾸릴데 대하여 주신 교시대로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생활문화확립의 본보기를 여기에 꾸리고 그를 전국의 농촌들에 일반화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포전들을 규모있게 만들고 논두렁과 밭머리를 알뜰히 거두며 농기구도 깨끗하게 거두는 기풍이 확고히 서가게 되였으며 거리와 마을, 공장과 협동농장이 더욱 알뜰하게 꾸려지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더욱 철저히 서게 되였다.

또한 농촌의 수도화와 뻐스화가 적극 추진됨으로써 농촌녀성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것과 같은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였으며 우리 농민들은 교통상불편을 느끼지 않고 보다 더 문화적인 생활을 하게 되였다.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적극 진행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낡은 생활관습이 없어지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일하며 생활을 꾸려나가는 기풍이 철저히 서가게 되였다.

문학예술의 전면적개화

우리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1973년에 더욱 빛나게 관철되여 전면적개화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생활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습니다.》 (1974년 《신년사》, 단행본, 6~7페지)

수령님께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에 관한 리론 즉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기초한 전형화문제, 정치성과 인간성, 예술성의 결합에 관한 문제,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과 혁명화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문제, 혁명투쟁 방법과 경험을 보여주며 생활을 다양하고 진실하게 묘사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문학, 가극, 영화, 음악과 무용, 미술 등 문학예술의 각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명하여주시였다.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문학예술창작활동에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당중앙에서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종자를 바로 쥘데 대한 문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문제, 현실을 깊이 연구하고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데 대한 문제, 류사성을 극복하고 독창적인 스찔을 가지며 비반복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종자를 똑바로 쥐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 생긴다음에는 무조건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문제, 창작가들의 자질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 독창적인 리론들과 창작원칙들을 밝혀주시고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지도하여주시였다.

당중앙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와 가극에 옮기는 사업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그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였으며 이 과정에 독창적인 문예리론의 생활력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당중앙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에 옮기는 사업과 1년남짓한 기간에 《피바다》식 가극의 4대명작을 창조해내고 뒤를 이어 40일동안에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창조해내는 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에 종자를 쥐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 생긴 다음에는 높은 속도전을 벌려야 하며 속도전을 벌려야 작품의 질도 높아진다는 진리를 확증해주었다.

주체적문학예술이 나아갈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의 문학예술인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당중앙의 지도를 받는 우리의 문학예술은 《세계최고봉의 혁명적인 예술》로, 세계의 수억만 사람들의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주체적인 《예술의 왕국》으로 되였다. 《참으로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가극예술의 시발점》으로 온 세계가 우러러 찬양하는《피바다》식 가극은 1973년에 중앙예술단에서뿐아니라 지방예술단들에서도 활발히 창조되였으며 우리 문학예술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영화예술은 혁명가의 전형창조에서, 혁명화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을 담은 대작들과 평양지하철도역마다에 장식된 벽화미술작품들을 비롯한 기념비적의의를 가지는 문학예술작품들이 창조되여 우리 문학예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장식하였다.

당중앙의 지도를 받는 우리의 문학예술은 1973년에 또한 인민대중의 생활과 더욱 더 밀접히 결부됨으로써 근로자들을 혁명승리에로 고무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위대한 생활력을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과시하였다.

전국각지의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는 《피바다》근위대, 《꽃파는 처녀》근위대가 앞을 다투어 무어졌고 영화 《압연공들》, 《우리 렬차 판매원》의 주인공들의 불같은 혁명적열정은 수백만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에로 힘있게 떠밀었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싸워가기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은 당중앙의 부름따라 생산현장으로 달려나간 예술인들의 활동으로 하여 더욱 더 세찬 불길로 타올랐다. 《피바다》가극단의 예술인들은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 달려가 이곳 로동자들과 함께 기대를 돌리면서 낮에 밤을 이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전투적이고 기동적인 선전활동을 벌림으로써 대중선전선동사업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이야말로 철두철미 우리 혁명위업에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학예술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전면적개화를 이룩한 우리의 주체예술은 1973년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뿐아니라 자본주의나라들에까지 널리 진출하여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였다.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은 중국과 일본, 말리 영국, 이딸리아 등을 방문하여 이 나라들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폭풍과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주체예술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만세!》의 환호성은 런던과 로마의 하늘높이 울렸고 온 일본땅을 진감하였다.

《주체예술은 인간자체를 피해하고 개조하여 나아가는 본보기교과서》, 《인류예술의 가장 모범적인 기준》이며 《현대예술의 대성좌》등 목소리들은 대륙과 대양을 넘어 세차게 울려퍼졌다.

사람들은 《피바다》식가극의 탄생은 《인류예술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가극혁명의 포성》이며 조선음악은 《갈팡질팡하는 서방음악에 비쳐주는 려명》이라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무대미술도 《세계의 첫째이고, 최고이고 월등한것》이며 조선의 무용도 《인간의 미적창조물에서 최대의 걸작》이라고 아낌없는 찬양을 보내였다.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이 일으킨 이 격정의 파도가 온 일본땅을 진감하고있던 바로 그 무렵 베를린에서는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우리 나라 청년학생예술단의 공연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청년학생들속에서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조선의 예술이야말로 《현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한 예술》이며, 《인류예술의 새 터전우에 높이 솟은 불멸의 등대》이며 《근로인민을 위한 혁명적예술의 새기원》으로 된다는 경탄의 목소리가 베를린거리에 차고넘치였으며 이 한결같은 찬양속에서 우리 청년학생예술단은 축전에서 가장 많은 영예상과 메달을 받았다.

실로 1973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적인 문예사상의 거대한 생활력과 문학예술창작에 대한 당중앙의 지도의 정당성을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시위한 한해였으며 조선의 주체예술의 전례없는 상승기를 장식한 한해였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

우리 나라에서는 가까운기간에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이 세차게 벌어져 1973년에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해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전체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난해에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벌써 그것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1974년《신년사》, 단행본, 5~6페지)

수령님께서는 이미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6개년계획기간에 10년제의무교육에로 넘어갈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또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72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의무교육을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197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우리의 새세대들은 누구나 다 만 5살부터 로동할 나이에 이르는 11년동안 국가의 혜택으로 무료교육을 받게 되였으며 청소년학생들은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튼튼히 서고 고등중학교까지의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킬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사실상 11년제의무교육으로서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수령님께서 1973년에 들어와서도 새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밀고나가도록 사업을 조치하여주시고 힘있게 이끌어주심으로써 1973~1974학년도에 유치원에서 자란 만 6살되는 어린이들의 절반이상이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받게되였으며 전국적으로 22개의 시(구역), 군들에서 새로운 의무교육을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1973~1974학년도부터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전면적으로 실시한 정형

도 별	시(구역), 군수
량 강 도	6
평 양 시	3
평 남 도	3
황 해 북 도	3
평 안 북 도	2
자 강 도	2
개 성 시	2
강 원 도	1

량강도의 갑산군, 보천군, 풍서군,

풍산군, 신파군, 5호지구들에서는 1973년도에 200여개의 교실을 더 짓고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옮게 타산하여 여러곳에 분교를 세웠으며 1만 5천여조의 책상, 걸상을 만들어 공급하였다.

개풍군과 판문군에서는 5개의 학교건물을 새로지었으며 간석지를 개간한 수십정보의 땅과 레성강반에 갈을 심어 종이원료를 해결함으로써 학습장의 군적인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게 하였다.

평양시의 만경대구역, 중구역, 삼석구역, 평북도의 벽동군, 창성군, 자강도의 만포시, 전천군, 황북도의 토산군, 곡산군, 황주군, 평남도의 양덕군, 신양군, 평원군, 강원도의 법동군 들에서는 교구비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량의 책상, 걸상을 만들어 학교들에 공급하였으며 실험실습지들을 잘 꾸려줌으로써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잘 실시할수 있게 하였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교수요강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새세대들이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우고 현대 과학과 기술의 기초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습득하며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학교들에서는《김일성원수혁명활동》, 《김일성원수혁명력사》, 《조선로동당정책》, 《현행당정책》과목교수를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더욱 깊이 배워주며 우리 당 정책에 구현되여있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더욱 깊이 배워주며 우리 당 정책에 구현되여있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심오한 내용과 독창성을 깊이 인식하게 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는 한편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을 비롯한 자연기초과목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체계적으로 습득시켰다.

시, 군들에서는 학생들에게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워주기 위하여 자동차, 뜨락또르 구락부를 꾸려놓고 모든 학생청년들이 자동차와 뜨락또르 운전기술을 배우도록 하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전국의 청소년학생들은 쪽가래, 분지, 동백, 가래 등을 비롯한 유지수종들과 활엽수, 평양포플라, 방울나무 (플라타나스)등 경제적의의가 큰 나무들을 심어 《사로청림》, 《소년단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였으며 밤나무를 잘 관리하며 토끼를 많이 길러 나라의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었다.

모든 학교들에서는 1973년에 기름나무림 1정보를 포함하여 10정보이상씩의 산에 나무를 심을 목표밑에 이해 봄철에만도 근 4만정보의 산림을 새로 조성하고 1만정보의 땅에 역삼을 심었다.

1973년 봄철나무심기에서 1972년에 비해 5.9배나 되는 수십만정보의 《사로청림》, 《소년단림》을 새로 조성하였으며 같은기간에 2배에 달하는 토끼를 길렀고 수많은 산열매를 땄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지펴주신 천리마운동의 불길 드높이 자랑차게 벌려온 천리마학교, 천리마학급, 모범분단 운동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부문 천리마학교 및 학급, 모범분단 장성 정형

천리마 및 모범분단 칭호	1973년에 받은수	1973년말까지의 총수
2중천리마학교	4	26
천리마학교	27	323
2중천리마학급	34	186
천리마학급	1, 635	10,924
2중모범분단	444	5,060
모범분단	5, 524	54,909

학생청소년들은 또한 《답사행군》, 《등산대》, 《수영대》등을 무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도보행군과 스키행군도 하며 여름철에는 수영훈련도 맹렬히 하여 튼튼한 체력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되였다.

학교가 위생문화사업에 앞장서며 학생청소년들이 주인이 되여 자기 마을과 학교, 거리를 언제나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나라의 문화혁명수행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성과적으로 실시되고있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후대교육에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이며 새세대들을 혁명의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그이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사 범 교 육

우리 당의 옳바른 교육정책에 의하여 평양시는 물론 각 도마다에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있어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에 필요한 유능한 교육일군들을 양성하여 수많이 배치함으로써 1973~1974학년도에 교육부문에서 필요한 교원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지들은 우리 혁명의 후계자들을 키워내는데서 〈원종장〉과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교원들을 키워내는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교양하여야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교원이 나올수 있으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교원이 나와야 우리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습니다.》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단행본, 39페지)

수령님께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나서는 교원문제의 해결방도를 밝혀주시면서 사범교육체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고 이 부문 대학들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1973년현재 도마다 2개의 사범대학, 2개의 교원대학을 가지게 되였으며 제1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교 고등반 교원을, 제2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교 중등반 교원을 양성하게 되였다. 그러고 제1, 제2 교원대학들에서는 각각 유치원교양원을 양성하면서 인민학교교원을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이 양성하게 되였다.

이 대학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교원수요에 맞게 양성규모를 크게 늘이고 고등중학교에서 당면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교원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양성하여 보충하였다.

교원양성부문 학교들에서는 혁명의 후계자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보통교육부문 고등중학교 교원들을 양성하는 대학들에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강한 사람들을 입학시키고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자질이 높은 교원들로 양성하는데 힘을 들였다.

교원양성부문 대학들이 많이 신설확장되고 대상교종별 교원양성지표도 적지 않게 달라진 조건에서 그에 맞게 과정안과 교수요강도 일부 개편되였다.

교원대학들은 종전의 교양원대학이 개편되였거나 신설된 조건에서 학교전의무교육을 맡을 교양원과 인민학교교원 양성을 위한 새 과정안과 교수요강에 따라 대학교원들의 교수준비를 새롭게 하였으며 제2사범대학들에서도 종전의 인민학교교원을 양성하던 때와 달리 고등중학교 중등반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강령에 따라 교원들이 교수준비를 하였다.

사범교육부문 대학들에서는 또한 통신교육과 야간교육의 규모도 대대적으로 늘이고 교원들의 재교육사업과 단

기강습조직 등도 맡아 진행함으로써 현직교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데서 더욱 큰 역할을 담당수행하였다. 깨우쳐주는 교육방법을 널리 적용하기 위한 교육방법연구회, 경험교환회, 교수참관 등도 널리 진행하여 교원들의 자질을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실시의 요구에 맞게 한계단 높이였다.

교육간부정치학교들에서도 학교를 모든 면에서 본보기로 꾸리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정치사상교육과 현대과학기술지식 그리고 교육학적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유능한 교육간부들을 수많이 양성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10여만의 당의 믿음직한 교육간부의 대부대가 꾸려졌으며 이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을 튼튼히 키우며 나라의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대 학 교 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교육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의 시초로, 그 중요한 한부문으로 규정하시고 교육사업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의 대학들에서는 1973년에 나라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수많이 양성하였다.

해방전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140여개의 대학이 일떠섰으며 여기에서 60여만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길러내였다.

실로 우리 나라에는 가까운 앞날에 100만명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튼튼히 닦아졌다.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우리의 대학생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충분히 소유함으로써 나라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혁명적세계관확립과 현대과학기술지식습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까지는 대학앞에 공업화단계에 필요한 기술인재들을 키워내야 할 과업이 나섰다면 오늘은 한계단 더 높은 기술혁명을 밀어할수 있는 능력있는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227폐지)

우리 당은 능력있는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하여 이미 도마다 농업대학, 의학대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학을 내오고 자기 지방에 필요한 간부들을 자체로 키워내도록 하였다.

도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를 꾸리고 모든 지방들에 자기 실정에 맞게 필요한 간부들을 키워내도록 한 당의 조치는 이미 첫열매를 맺었으며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대학과 고등기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만 하여도 24만명이 넘는다. 인구비례로 볼때 우리 나라와 같이 학생수가 많은 나라는 없다.

우리의 대학들에서는 더 많은 인재들을 더 질적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는 사업을 대학교육의 중심문제로 틀어쥐고 나갔다. 대학들에서는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김일성동지략전》을 비롯한 그이의 혁명력사 등 사회과학과목 교수의 질을 더욱 높이며 대학생들로 하여금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하였다.

천리마대학의 영예를 지닌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1학년 1반 학생들이 발기한 《배움의 천리길 근위대》운동은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혁명적학습기풍의 위대한 모범을 따라배워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조선혁명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학습을 더욱 실속있게 하려는 학생들의 자각적인 대중적운동으로 여기에서 창조된 경험이 전국의 학생들속에 널리 일반화되여 힘있게 벌어졌다.

대학들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모든 과목교수를 당정책화하여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였다. 과목교수의 체계와 내용을 당의 정책적요구를 관철할수 있도록 현실과 결부하여 구성하였으며 우리 나라 주체과학의 성과와 경험을 교수에 적극 리용하였다.

특히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자동화공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의 발전에 요구되는 기술인재들을 훌륭히 양성할수 있도록 이 부문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여 능력있는 기술인재들이 수많이 양성되였다.

수령님께서 1969년 10월 2일 창립 스무돐을 맞는 천리마김책공업대학을 찾으시고 주신 교시가 있은후 1973년까지 5년간 이 대학에서는 생산현장에서 수집한 1,870여건의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545개의 교수요강을 개작하여 리용하였으며 야금공학과 전자공학을 비롯한 각 분야의 과학연구성과들을 대담하게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무연탄으로 철을 생산하는 연구를 완성하여 주체적인 제철공업을 창설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자동차피스톤을 생산하는데 자동선을 도입하여 자동차피스톤을 흐름식으로 기계가 다 가공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3대기술혁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3년에 김일성방송대학(4월 13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수많은 대학들이 창립되였다.

이해에도 수많은 도간부들과 군책임일군들이 중앙에 있는 김일성고급당학교와 인민경제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군간부들은 도공산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리간부들은 군당학교에 가서 공부하였다.

도와 군책임일군들가운데서 수준이 어린 일군들은 김일성고급당학교와 인민경제대학의 1년반 또는 3년반에 가서 공부하였다.

〔생산실습을 통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추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경공업대학 학생들을 경공업공장들에 파견하시고 대학생들을 가지고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벌릴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시험해보신데 기초하시여 대학생들을 공장과 농촌들에 파견해주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가장 철저히 무장된 혁명적인 새세대들인 우리의 대학생들은 천리마대고조가 일어나고있는 벅찬 현실속에서 실습을 진행하면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데 앞장서나감으로써 혁명적 새세대의 위용을 뗏뗏이 보여주었다.

천리마대학의 영예를 지닌 김일성종합대학과 천리마김책공업대학, 천리마원산농업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에서 공장과 농촌에 실습나간 새세대들은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전환시키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지도하며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지식수준을 더욱 높이는데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바치였다.

평안북도 향산군에 실습나간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먼저 자기들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에는 처녀들과 아주머니들까지 뜨락또르운전을 할수 있도록 배워주었으며 농업과학기술지식을 보

급하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실습나간 이 대학의 화학부학생들은 시약을 만들때 생기는 적은 량의 가스마저 로동자들의 건강에 해롭다는것을 알고 굴뚝으로 나가는 가스를 모조리 잡아 해로운 가스를 완전히 없애게 하였다.

남포제련소에 실습나간 천리마김책공업대학 야금공학부 학생들은 수진실에 원통식자동먼지털개를 도입하여 수진률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조작법을 창안해냄으로써 제련소굴뚝에서 날아나는 먼지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또한 조양탄광에 실습나간 평남석탄공업대학 학생들은 갱과 갱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어 수도놓는문제가 힘들다던 청년갱과 배덕갱을 비롯하여 직장과 주택마을 곳곳에 수도놓는일을 끝냈으며 천내군 삼화협동농장에 실습나간 천리마원산농업대학 학생들은 농장의 뜨락또르를 몽땅 새차처럼 보수정비하였으며 7천립방메터의 흙을 옮겨 12정보의 다락논을 정리하여 높은 수확을 거두게 하였다.

생산현장실습과정에 우리의 대학생들속에서는 천리마김책공업대학 배준형동무와 같이 로력영웅(1973년 11월 27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자라났으며 생산현장에서 《화선》입당한 대학생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이 모든것은 수령님께서 대학생들을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공장과 농촌들에 파견하여주신 조치의 정당성과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 교육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일하며 배우는 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중학교와 공장고등기술학교,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배우고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6권, 347페지)

우리 나라에는 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장장학교와 작업반장학교가 있으며 공장들에는 기능공양성을 위한 학교와 공장대학, 공장고등기술학교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위한 근로자중학교가 공장과 농촌 그 어디에나 설치되여 있다.

모든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여 근로자들은 생산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장교육기관들과 야간, 통신 등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하여 마음껏 배우며 자기의 정치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특히 1973년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공장과 농촌들에 실습나간 우리의 대학생들이 근로자들속에 기술학습체계를 세우고 기술지식을 널리 보급하는 사업을 적극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을 한계단 높이게 하였다.

평양화력발전소 전기직장의 한 작업반에는 24명이 있는데 1973년에 그들은 모두가 기사, 기수로 되였으며 평남도 성천군의 한 협동농장에서는 기술학습을 힘있게 벌려 농장원들 모두가 화학비료, 농약, 살초제에 대한 기초지식을 소유하였으며 65명의 농장원들을 기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십명의 청년들이 뜨락또르운전기술을 배웠다.

작업반, 직장 성원 전체가 기사, 기수로 되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게 농업과학기술지식을 충분히 소유한 실례는 우리 나라의 어느 공장, 어느 협동농장에서나 찾아볼수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들에서는 이해에 기초기술과목과 전문기술과목들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기술자들을 더 많이 키워냈다.

공장대학들에서는 모든 교육내용을 철저히 당정책화하여 교육의 모든 형태들을 적극적으로 생산현실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한편 학생들의 기초지식이 매우 다양한 사정과 관련하여 교육에서 대상별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자학습시간이 제한된 공장대학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교수시간에 교수내용을 완전히 리해시키도록 하는 방향에서 교수요강과 과정안을 작성하여 집행하였다.

어 린 이 교 육 교 양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교교육사업과 함께 학령전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있었습니다. 탁아소와 유치원를 많이 건설하고 그 운영사업을 개선함으로써 350만명이상의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게 되였으며 녀성들이 직장에 나가 마음놓고 일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1974년《신년사》, 단행본, 6페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는 공산주의적시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1년제학교전의무교육〕 1973년 4월 9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법령을 채택하고 만 5살의 모든 어린이들을 1972~1973학년도부터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 실시되게 하였다.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만 5살의 어린이들에게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도록 하며 우리 말을 정확히 하고 인민학교에 입학하여 교수내용을 알아들을수 있는 필요한 어휘를 많이 습득시키며 연필쥐는 법과 글쓰는법을 가르쳐주고 물건들을 정확히 세고 더하기와 덜기를 초보적으로 할수 있게 하였다.

1972~1973학년도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의 새 과정안에는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정치과목에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돌리였다.

유치원 새 과정안에는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이야기》, 《공산주의도덕》등 사상정치과목의 비중을 더욱 높이였으며 어린이들을 지덕체로 교육교양하기 위하여《우리 말》과《노래》, 《춤》 등의 과목에도 많은 시간을 돌리였다.

이밖에 과정안은 《체육》도 배워주게 되여있으며 과외로 《견학관찰》, 《위생》, 《놀이》등도 가르치도록 작성하고 정확히 집행하였다.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목교수를 당정책화하고 깨우쳐주는 교육방법을 정확히 적용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유치원졸업후 인민학교교육을 받을수 있는 준비를 전면적으로 시키였다.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따라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인 사회의 주인으로 더 잘 키울수 있게 하였다.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의 실시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력사에서 미해결문제로 남아있던 학령전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내용과 방도, 학교전교육과 학교교육간의 유기적련계문제가 해결되였을뿐아니라 그것이 사회주의교육제도의 구성부분의 하나로 구체화되였다.

〔탁아소의 어린이교육〕우리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일하는 모든곳에 훌륭한 탁아소가 그쯘히 갖추어져 있으며 1,200여평방메터의 건평을 가지고 1,000여명의 어린이들을 키울수 있는 평양 9.15주탁아소를 비롯하여 주요도시들에는 주탁아소가 설치되여있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3년에 또다시 화려하고 웅장한 송림시 《애기궁전》이 새로 세워졌으며 모든 어린이들에게 비타민과 단백질, 지방질을 넉넉히 공급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탁아소에 충분히 공급해주었다.

1972～1973년 2년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농촌작업반 탁아소는 3,000여개로 늘어났다.

탁아소들에서는 어린이방, 젖먹이는 방, 놀이방을 비롯하여 위생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울수 있는 설비를 훌륭히 갖추어놓고 탁아소시기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는 각이한 형식과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아버지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하도록 보육교양하고있다.

탁아소들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아주 좋은 2층침대를 광범히 적용하였으며 탁아소에 배치되여있는 전문의료일군을 중심으로 모든 보육원들로 하여금 위생학, 보육학, 영양학, 질병예방학을 충분히 소유하고 어린이들을 위생문화적으로 과학적방법으로 키울수 있게 하였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전국가적, 전사회적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전군중적지원사업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의 물질적토대가 더 잘 마련되였다.

국가에서는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옷을 더 많이 해입히기 위하여 1973년에 27개의 탁아소피복공장과 20개의 유치원피복공장을 새로 세웠다.

탁아소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어린이보육교양에 대한 참다운 공산주의적체계를 세워주시고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결과이다.

자 연 과 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여러가지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30페지)

수령님께서 1972년말 과학원창립 스무돐기념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교시와 1973년 신년사에서 하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1973년에 우리 나라 과학을 전반적으로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며 지난 기간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대담하게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나라의 과학발전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공업과 농촌경리, 건설, 운수 등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킬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놓았으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중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기 위한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이 사업에서 일정한 전진을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대적인 대규모공장으로 꾸리고 뜨락또르를 대량적으로 생산하게 하는데서와 린회석광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더욱 다그치며 농업생산에서 일대전변이 일어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생산공정을 더욱 현대화, 자동화 하여 갖가지 이바퀴, 규격품의 가공능력과 주물, 주강, 단조 등 소재들의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며 모든 공장들에서 프레스화 및 형단조의 비중을 훨씬 더 높이고 연신, 압연 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 과학기술적안받침을 주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3대기술혁명의 중요 담보로 되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부문 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우리의 원료와 자재, 설비에 튼튼히 의거하여 자동화공업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전자공학, 라지오공학, 원거리조종학, 초음파, 고주파, 원자파,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깊이하여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원자력과 동위원소, 방사선을 적용하여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하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전망과 관련되는 큰 문제들과 함께 당면하게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옳게 배합하여 풀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공업부문의 현대화와 일용품공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과학원산하 연구소들에서는 수십개의 일용품연구실을 따로 내오고 당면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새로운 제품개발과 함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 등 1천여개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그중 수백가지 제품들은 시제품생산을 끝내고 생산에 받아들이였다.

기계공학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동식재단기, 주름치마기계 등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성능높은 단능기계를 비롯하여 일용품기계, 식료가공기계, 방직기계 제작에서 나서는 일련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과학원 함흥분원산하 연구소에서는 질좋은 접착제와 특히 순간고강도접착제를 비롯하여 각종 도료, 여러가지 화학세척제들과 새로운 원주필잉크 등 일용품공업에 필요한 수많은 화학재료들과 화학제품들을 해결하였으며 전기를 쓰지 않고 수지제품에도 광택이 나게 도금할수 있는 새로운 도금법과 도금약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해 내였다. 또한 금속연구소에서는 얇은 철판용접기와 질좋은 새로운 견척소재생산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생산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공학연구소에서는 비누폐액에

서 비누를 손쉽게 회수하는 장치들과 염색폐액에서 물감을 회수하는 장치, 전분회수장치 등 여러가지 유용한 물질을 간단한 방법으로 회수할수 있는 공정과 장치를 해결하였다.

자동화연구소에서는 밥은 8분이내에 짓고 빵은 2분이내에 할수 있으며 물고기는 60초동안에 구워낼수 있는 새로운 전기밥가마를 해결하였으며 규산염연구소에서는 여러가지 쇠붙이를 마음대로 붙일수 있는 철땜약과 강질유리그릇을 새로 해결하였다.

특히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부엌세간들과 식료공업분야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새로 각종 형태의 석유곤로와 석유난로, 국수기계, 목욕물가열기, 전기고뿌, 빨리 끓는 특수가마 그리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전기밥가마와 전자밥가마들과 간장, 효모, 당 생산에서 새로운 원료의 개발 등 실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있다.

수령님께서는 1973년 4월말 과학원산하 연구소들에서 일용품생산과 관련한 일련의 기술적문제들을 전시해놓은 것을 친히 돌아보시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실로 우리는 새로운 과학분야들을 적극 개척하는것과 함께 지난 기간 과학연구분야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지체없이 생산에 받아들이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수령님께서 1972년말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실 때 자동염도측정기를 기양1단양수장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질및지리학연구소에서는 더 훌륭한 자동염도측정기를 만들어 기양1단양수장에 설치하여 바다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없애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연구소에서는 일용광물자원연구실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 풍부하게 매장되여있는 새 광물을 리용하여 각종 점착제의 접착력을 여러 배로 높이였으며 더우기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들거나 음료수의 질을 높이는데 이 광물을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농촌수도화에 이바지하였을뿐아니라 새로 개발된 이 광물의 물리화학적특성을 옳게 리용하여 김치, 물고기 등 여러가지 부식물이 시거나 변질하지 않게 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식료공업발전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았다.

최신과학기술발전의 모든 성과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산자대중과의 집체적힘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며 그 적용도 그들간의 창조적협조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서로 배우고 배워주면서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동시에 모든 근로자들이 충분한 지식을 소유하도록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더욱 강화한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사 회 과 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의 혁명적개조와 경제, 문화 건설에서 이미 많은 귀중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개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해설선전하여야 하며 당의 혁명전통과 민족문화의 유산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7페지)

사회과학부문에서는 1973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설선전하며 주체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있게 연구하고 그 정당성을 심오하게 론증하는 사업에 모든 힘을 다 바쳤다.

사회과학자들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되여있는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심오히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해설하며 로작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리론의 진수와 전반사상, 그 독창성을 깊이있게 전면적으로 해설하는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 제출된 해설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다》,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 수령님께서 1973년 6월 23일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 대한 전국사회과학자들의 연구발표회에 제출된 해설론문《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6월 23일 연설은 주체사상의 빛발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위대한 강령》 등을 비롯한 수많은 해설론문들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해명하신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의 창조성과 정당성을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론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 제출된 해설론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연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독창적 리론과 경험을 집대성한 위대한 고전적문헌이며 공산주의위업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투쟁의 기치》,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발표 네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 제출된 해설론문《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혁명적사상》 등을 비롯한 수많은 해설론문들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고전적로작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또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전면적으로 해설선전하는 사업도 적극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마흔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에서는 수령님께서 1933년 3월 11일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를 친솔하시고 온성지구에로 진출하시여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를 소집하신데 대하여서와 왕재산회의가 항일무장투쟁의 확대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으로 되는것은 주체사상의 전투적기치밑에 조국광복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 준데 있다는데 대하여 론증하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있게 론증하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과학자들은 1973년에 《조선로동당력사》를 편찬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철학분야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방법론적지

침으로 삼아 변증법적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을 새롭게 체계화하며 경제학분야에서는 군중로선에 기초한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부문을 완성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를 정확히 관리운영하고 빨리 발전시키는데 철저히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력사학분야에서는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연구를 주체적립장에서 더욱 심화시키며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죄행을 력사적으로 낱낱이 폭로단죄함으로써 인민들을 반제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교육학분야에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교육사상과 사회주의교육학을 심오히 연구하여 널리 해석선전하여 후대들을 혁명의 대를 이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문예학분야에서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석선전함으로써 문학예술을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힘있는 수단으로,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드는데 이바지하였다.

언어학분야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을 지켜내며 민족어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과학자들은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더욱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혁명과 건설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였다.

1973년에 진행된 사회과학부문 주요토론회 일람

1월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4년 1월 3일 언어학자들과 하신 담화《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발표 아홉돐기념 사회과학토론회

1월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연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에 대한 전국출판보도부문일군들의 연구토론회

1월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연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2월 5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을 기념하여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탁월한 군사사상과 군사리론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2월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에 대한 전국대학교원들의 과학토론회

2월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발표 네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3월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2년 1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에 대한 전국당간부양성기관일군들의 과학토론회

3월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직맹일군들의 연구발표회

3월 12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은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마흔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3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발표 네돐기념 전국대학생사회과학토론회

4월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4월 17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발표 열돐기념 전국대학교원들의 과학토론회

4월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전국출판보도부문일군들의 과학토론회

4월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4월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8년 4월 29일 전국사법검찰일군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발표 열다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5월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발표 다섯돐기념 근로단체 중앙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과학토론회

6월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8년 6월 14일 함경북도 인테리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발표 다섯돐기념 전국대학교원들의 과학토론회

6월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발표 다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7월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3년 6월 23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에 대한 전국사회과학자들의 연구발표회

7월 26일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기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위적군사사상과 독창적인 군사예술, 탁월한 령군술을 심오히 연구하기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8월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발표 스무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9월 1～2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10월 2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8년 10월 2일 김책공업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하신 연설《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발표 다섯돐기념 전국대학교원들의 과학토론회

10월 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발표 다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11월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1973년 10월 28일 연설에 대한 전국사회과학자들의 연구발표회

11월 1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발표 열다섯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12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중앙과학연구토론회

12월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현시기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회과학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발표 열돐기념 사회과학토론회

혁 명 소 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있는 작품들은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의하여서만 창조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페지)

1973년에 소설문학창작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중앙의 지도밑에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인 문학작품창작에 모든 힘을 다바쳐 투쟁한 결과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소설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소설문학창작부문에서 이룩한 위대한 사변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소설로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한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혁명적폭풍의 시대 수억만인민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소설의 특성을 살려 주인공들의 성격발전의 전모를 그리는 거대한 예술적일반화의 힘을 가지고 밝혀내였다.

이 장편소설들은 1920년대말~1930년대 조선인민의 참담한 운명을 보여주면서 그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손에 무장을 들고 일어나 싸우는 길밖에 없다는 위대한 혁명의 진리를 밝히고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필연성과 그 로선의 정당성을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확증하였으며 혁명하는 시대의 혁명적인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진정한 혁명투사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였다. 장편소설들은 원작들이 제기한 심각한 문제성과 사상성, 진실한 형상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이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혁명적문학예술창작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적대작의 본보기로 되였다.

우리의 작가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심오하게 학습하며 창작실천상 제기되는 제반 요구와 그 구현의 원칙들과 방법의 진수를 실천적으로 체득하게 됨으로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형상한 혁명적대작들을 본격적으로 창작하게 되였다.

우리의 작가들은 높은 계급적자각과 시대적사명, 끓어넘치는 충성심으로부터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구현하여 빛나는 혁명전통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그이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화한 혁명적대작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4.15문학창작단과 소설분과위원회에서는 수많은 혁명적소설들을 내놓았는데 1973년에만 하여도 30여편의 장, 중편 소설들을 창작하였다. 량적으로만 아니라 작품의 사상예술적측면에서도 현저한 전진을 가져왔다.

모든 작품들이 당정책적요구에 맞는 종자를 가지고 심오한 사회적문제성을 제기하고있으며 류사성을 극복하고 독창성, 작가적개성을 살리고있다. 이미 1972년에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1932년》과 《력사의 새벽길》(상), 《배움의 천리길》등 장편소설들을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은 4.15문학창작단에서 1973년에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총서《불멸의 력사》중에서)과 장편소설《만경대》를 완성하여 내놓은것은 우리 문학이 이룩한 또 하나의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에서 1927년초부터 1928년말까지 길림을 중심으로 한 초기혁명활동을 반영하고있는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전편을 통하여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금성동지의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으로 가득찬 당시의 투쟁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그이께서 검은구름이 드리웠던 이땅우에 혁명의 려명을 안아오신데 대하여 형상적으로 그려져있으며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출발점과 불패의 생활력이 예술적으로 확증되였다.

장편소설《만경대》는 4개의 편으로 구성하고 조선혁명의 억센 뿌리가 내린 혁명의 요람 만경대와 봉화리에서 보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불멸의 이야기를 서사시적화폭으로 생동하게 형상되였다.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형상화한 대서사시적인 작품들과 함께 항일혁명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반영한 작품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 등 다양한 주제의 장, 중편 소설들이 왕성하게 창작하였다.

장편소설들인 《태양의 아들》, 《철쇠를 마스라》와 중편소설들인 《영원한 봄》, 《밀림의 아침》 등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심오한 예술적화폭으로 일반화하였으며 장편소설들인 《돌파구》, 《고향사람들》등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형상하였다.

장편소설 《비단섬》과 중편소설들인 《조선공들》, 《해빛찬란한 들》을 비롯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들끓는 투쟁속에서 발휘되는 우리 근로자들의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해가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적미를 밝혀내고있는것으로 하여 주목을 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의 투쟁을 형상한 작품창작이 또한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중편소설들인 《생산지표》, 《뜨거운 일터》, 《꽃피는 대지》가 그러한 작품들이다.

혁명소설창작분야에서 이룩된 이 자랑스러운 성과는 우리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보여주고있으며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당중앙의 지도가 얼마나 정확하였는가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혁 명 가 극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교양에서 가극예술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인민적이고 민족적인, 통속적이고 현대적인 혁명가극을 건설할데 대한 주체적인 가극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작가, 예술인들을 그 실현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사회주의적가극건설문제를 독창적으로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가사를 하나 써도 누구나 다 알아볼수 있는 가사를 쓰며 노래를 하나 지어도 누구나 다 부를수 있는 노래를 짓도록 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혁명가극《피바다》를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극은 아주 통속적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52페지)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중앙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가극

을 대중화, 현대화하는 기본고리를 인민들이 즐기고 리해하기 쉽고 예술적으로 완성된 인민음악의 기본형식인 절가에서 찾았고 방창을 적극 도입하며 무용을 배합하고 무대미술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종합예술로서의 가극을 완성함으로써 300년의 가극력사에서 새로운 혁명가극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옮긴 혁명가극《피바다》를 창조함으로써 《피바다》식가극의 시원이 열려졌고 우리 나라는《피바다》식가극의 조국으로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중앙의 지도밑에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은 종자를 바로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피바다》식 가극인 혁명가극《당의 참된 딸》과 《밀림아 이야기하라》를 련이어 창조함으로써《피바다》식가극의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금 확증하였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를 창조함으로써《피바다》식가극의 전성기를 열어놓았다.

1973년에 우리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을 맞는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당중앙의 지도밑에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40일동안에 또하나의《피바다》식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를 창조하였다.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는 사회주의하에서의 새 생활을 반영한 혁명적대작으로서 현대적주제의 가극창작이 힘들다는 신비주의를 사회주의적 현실주제의 령역에서까지 종국적으로 마사버리고《피바다》식가극예술의 위력을 새로이 과시한 작품이다.

작품은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나라없고 돈없는 《죄》로 생리별을 강요당하였던 황석민일가가 사회주의제도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20여년만에 만나게 된 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여 수령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이땅우에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밝혀내고있다.

이 혁명가극은 현실주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주제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주제사상적내용을 옳게 해명하였을뿐아니라 앞으로 이 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훌륭한 해답을 주었다. 즉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이 그 과제와 반영대상에 따라 갈등의 성격과 형태를 다양하게 처리할수 있으며 작품이 제기하는 주제사상적내용의 특성에 따라 때로는 등장인물들사이에 극적충돌의 형태를 띠는 갈등을 조성하지 않고도 훌륭한 극작품을 창작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은 또한 방창의 설화적기능을 활용하여 회상장면을 극구성에 자연스럽게 물리는 방법으로 대비적형상수법을 잘 구사하였다.

평양청년가극단에서는 1973년에 혁명가극《피바다》를 본받아 혁명가극《청춘과원》을 창조하였다.

이 가극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을 지도하시고 돌아오시던 길에 불동촌언덕에 오르시여 여기에 과수원을 꾸리여 승리한 용사들과 인민들에게 선물할 과일도 마련하고 장차 이곳을 수도의 과일공급기지로 만들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내며 만년대계의 청춘과원을 일며세운 인민군전사의 안해 성녀일가와 평양과수농장 사람들의 슬기로운 투쟁모습과 보람차고 희망에 넘친 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작품은 모든 노래를 누구나 다 쉽게 부를수 있는 통속적이고 인민적인 절가로 만들었으며 잘째인 방창과 주인공들의 노래를 통일속에 끌고나가면서 아름답고 독특한 예술의 여러 형상수단들을 종합적으로 도입하고 그것들을 극의 발전과 주인공의 성격형상에 적극 복무하도록 잘 결합시켰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가극단들에서뿐아니라 지방예술단에서도 가극을 광범히 창작공연하고있다.

1973년에 천리마평남도예술단에서는 가극《연풍호》를 창조공연하였다.

이 가극은 수천년동안 물이 없어 메말랐던 열두삼천리벌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에 와서 비로소 생명수 흘러넘치는 곡창지대로 전변된 과정을 펼쳐보이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수리화구상이 빛나게 실현된 우리 나라 농촌의 새 력사를 가극의 특성에 맞게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가극뿐아니라 음악무용서사시극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무대예술작품들이 훌륭히 창작공연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에 의하여 1973년에 조선인민군 어느한 소속구분대 예술소조원들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인민상계관작품 음악무용서사시극 《고난의 행군》(서장, 전6장, 종장)을 창조하였다.

혁명가극《피바다》식가극 창작원칙에 기초하여 창조한 이 작품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고난의 행군과 무산지구전투의 서사시적인 화폭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몸소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는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이 작품의 훌륭한 예술적형상은 력사적사실을 그대로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이 서사시극이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는 민족음악을 기본 형상수단으로 하고 극예술과 무용, 무대미술, 시, 설화를 그 구성수단으로 하는 하나의 종합적예술의 한 형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이처럼 무대예술분야에서 전례없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작품창작에서 당정책적요구에 맞는 종자를 옳게 쥐고 그것을 풍부한 생활세부로 가꾸고 형상적으로 꽃피우는 창작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였기때문이였다.

영 화 예 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긴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본보기로 하여 우리의 영화예술부문에서는 1973년에 당보의 사설과 같은 거대한 혁명적작용을 할수 있는 영화예술작품창작에 모든 힘을 다한 결과 우리 나라 영화예술은 세계1등급의 혁명적영화예술로 급속히 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에는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상이 강조되여야 하며 위대한 생활은 어떤 한몇의 탁월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한 수백만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맑스-레닌주의적관점이 명백히 나타나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575페지)

수령님께서 우리 영화예술로 하여금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 혁명화과정을 그리는것을 기본과제로 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화예술부문에서는 인민상계관작품들인 《로동가정》과 《꽃피는 마을》이 창작되였고 《압연공들》이 나왔으며 《사과딸 때》, 《포구의 처녀들》, 《우리 렬차 판매원》 등 당정책을 기둥으로 받들고 훌륭히 구현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우리 영화가 사상성과 예술성이 옳게 결합된 건전하고 품위가 높은 현대

적품격을 갖춘 예술로 민족적특성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창작하도록 창작가들을 이끌어주시고 저속하게 직업화되고 상품화된《신파》적인 연기잔재를 철저히 극복하고 생활의 론리와 진실에 맞는 새로운 사실주의적연기체계와 독창적인 계발식연출체계를 세워주셨기때문이였다.

우리 영화가 영화를 상품화하는 경향을 반대하고 당보의 사설과 같은 사명을 노는 혁명적영화로 된것은 바로 당중앙의 지도밑에 당정책적요구에 맞는 종자를 옳게 쥐고 그것을 풍부한 생활적세부로 가꾸고 형상적으로 꽃피우는 창작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였기때문이였다.

1973년에 우리의 영화예술부문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긴 영화들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기록영화들과 《우리 집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영화들 그리고 기록영화《인류해방의 혁명적기치 위대한 주체사상》 등 각이한 주제의 수많은 영화들을 창작하여내놓았다.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서 1973년에 제작한 기록영화《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에서는 혁명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고매한 덕성을 노래하고있으며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혁명의 믿음직한 후계자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새세대들의 행복한 모습을 생동하게 펼쳐보이였다.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서 내놓은 기록영화《인류해방의 혁명적기치 위대한 주체사상》의 화폭에는 1973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신생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에서 성대히 진행된 《중근동및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에 관한 파학토론회》의 자료들이 편집되였다.

1973년에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서는 이밖에도 기록영화《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현대성의 목소리》와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등 수많은 기록영화들을 내놓음으로써 당중앙이 제시한 방침대로 온 사회를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해에 창작된 기록영화들중에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와 다채로운 음악무용작품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평양만수대예술단의 활동을 천연색화면으로 보여주는 기록영화《피로써 맺어진 친선의 길우에 높이 울린 혁명의 노래》도 들어있다.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예술영화《우리 집문제》는 가정혁명화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이다.

영화는 어느한 우편국의 국장으로 일하는 일군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 가정혁명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으로서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가정혁명화를 더 잘 하도록 고무하였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예술영화 《잔치날》은 농촌테제가 빛나게 실현되여 풍요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된 어느한 협동농장에서 살고있는 농장원 봉구일가가 맞이하는 잔치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 농촌에서 낡은 생활유습을 없애고 우리 사회의 본성에 맞게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생동하게 펼쳐보이였다. 이 영화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절실하게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한것으로 하여 교양적의의가 큰 작품이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천연색예술영화 《처녀지배인》도 내놓았다. 이 영화는 어느 산골군 식료공장의 나어린 처녀지배인 은심이가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부 일군들이 무책임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부족한 현상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한편 대중속에 들어가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적극 해설침투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창조적열성을 적극 발양시키여 어렵던 원료문제도 풀고 기술학습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공장의 모든 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군의 주부로서의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나가는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과 함께 1973년에 창작된 조국해방전쟁주제의 작품들로는 2.8예술영화촬영소에서 만든 예술영화 《우리 동무들》이 들어있다.

이 영화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청년학생들이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발휘한 자랑찬 위훈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밖에도 2.8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1972년에 《목란꽃》의 제2부 《목란꽃은 다시 피였다》를 내놓은데 이어 1973년에 《목란꽃》 제3부를 촬영하였으며 광폭예술영화 《억센 날개》와 예술영화 《초병의 눈》, 《검은 장미》 등을 내놓았다.

예술영화 《검은 장미》는 슬기롭고 용감한 사회안전원들이 적간첩파괴암해분자들을 모조리 잡아내기 위하여 그 어떤 난관과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바쳐 투쟁하는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한 작품이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내놓은 예술영화 《한 의학자의 길》에서는 한 의학자가 간고한 로정을 거쳐 공화국의 품에 안기는 과정을 통하여 순수한 의학이란 없으며 진정한 의학과학탐구의 길은 가장 선진적인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또하나의 새로운 예술영화 《경비원의 수기》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이 영화는 언제어디서나 항상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제도와 질서를 세워 있을수 있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 심각한 교훈을 주는 작품이다. 영화는 주인공 정희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 사회주의전취물을 파괴하기 위하여 더욱 미쳐날뛰는 적간첩암해분자들의 준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1973년에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에서는 과학영화 《우리 나라 약수와 온천》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지식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공업, 농업, 운수 등 인민경제 각 부문의 기술지식을 보여주는 각이한 주제의 과학영화들을 수많이 만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농업부문과학영화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데 도움을 줄 과학영화 《논 세벌갈이》, 《미량원소비료》, 《시루식판수》를 비롯한 여러편의 농업과학영화를 만든데 이어 과학영화 《벼종자처리에서 새로운 방법》, 《튼튼한 모기르기》를 내놓았다.

이 영화들은 논벼의 소출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인 벼종자처리와 랭상모기르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편성하였다.

실로 우리 나라 영화예술은 당당히 세계1등급의 영화예술로 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적영화예술발전의 기치로 되였다.

음악과 무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

예사상은 다른 모든 예술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악과 무용 창작분야에도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음악과 무용 역시 1973년에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부면에서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 생활이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선률, 새로운 률동을 창조하여야 하며 우리 인민이 가지고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담을줄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1권, 294페지)

수령님께서는 정론성이 높고 선동력과 호소성이 강하며 형식이 또한 간결하고 부르기 쉬운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군중가요를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서와 아름답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연한 조선민족무용의 률동적특성을 살려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무용예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예술인들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피바다》식 5대혁명가극의 음악이 세계적인 명작으로 창조되였으며 무용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조국의 진달래》, 《눈이 내린다》, 《고난의 행군》, 《사과풍년》 등 무용작품들을 빛나게 창조하였다.

《피바다》식 음악극작술의 원칙적요구를 빛나게 구현하여 1973년에 창조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중의 주제가 《금강산의 노래》와 《금강산에 선녀들이 내린다하지만》 그리고 방창 《달빛밝은 이밤에》, 《세월이 흘러서 눈이 오는가》등은 음악을 민족적이며 인민적인 절가로 일관시키고 방창을 가극음악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 가극에서 약초를 캐는 처녀들이 추는 가무 《경치도 좋치만 살기도 좋아》와 해빛밝은 지상락원을 구가하는 가무 《산이 좋고 물이 맑아 락원이런가》 등 무용들은 실지 인민들속에서 보급되고있으며 사랑받고있는 가무를 비롯한 무용형식들을 도입하여 밝고 락천적이며 아름다운 무용으로 발전시킨 좋은 실례들이다.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군중가요창작에서 류사성을 극복하고 개성화와 독창성을 적극 살릴데 대한 당중앙의 가르치심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1973년에 《수령님 다녀가신 사랑의 길이여》, 《인민들은 주체사상 노래부르네》, 《수령님 사랑은 끝이 없다네》,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렵니다》를 비롯한 수많은 가요들을 창작보급할수 있게 되였다.

이해에 나온 군중가요들중에는 《협동농장관리 10대과업의 노래》와 《사상, 기술, 문화 혁명 힘차게 다그쳐가자》를 비롯하여 당정책의 기본사상과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집약화하여 반영한 가요들도 들어있다.

우리의 민족무용은 아름답고 부드럽고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생활적인 무용가락과 조화와 개별적인 기교가 결합되고 춤과 노래가 밀착된 그야말로 조형성과 률동성이 풍부한 건전한 현대적무용으로 급속히 발전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혁명가극 《피바다》의 3장 2경 물방아간장면의 가무를 무용소품으로 만든 《키춤》은 주제사상적면에서나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는 무용형상의 면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모범으로 된다.

평양만수대예술단에서 창조한 수많은 세계최고봉의 무용작품들과 중앙예술선전대에서 창조한 군무 《남해의 녀인들은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조선인민군창건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준비한 독무 《입대하는날》을 비롯하여 1973년에 창작된 수많은 무용작품들은 모두 우리 인민들의 정서에 맞는 민족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인민적인 무용으로 발전하고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모든 예술분야에서 기량을 한계단 높이는 해로, 창작에서 앙양의 해로, 기술혁신의 해로 할데 대한 당중앙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1973년에 음악무용부문에서는 예술인들의 개인 경연과 무용소품발표회를 가지고 여기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싸워이겼다》, 《인삼관리원의 념원》, 《포화속을 뚫고 떼목은 내린다》를 비롯하여 중앙과 각 도의 예술단체들의 안무가들이 창작한 사상예술적면에서 우수한 무용소품들이 수많이 발표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주체적문예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실로 우리의 음악과 무용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관되고 계급적선이 뚝뚝히 선 당적이고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의 사회주의적인 민족무용으로, 통속화된 음악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였으며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참다운 혁명적인 음악과 무용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미 술 작 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이 미술건설분야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 미술부문에서는 1973년에 새로운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미술의 혁명화가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미술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여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미술이 철저하게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392페지)

수령님께서는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키며 조선화의 전통적화법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살리고 과거 조선화의 제한성을 극복하며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투쟁에 관한 주제를 다양하게 그리도록 우리 창작가들을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조선화는 간결하고 섬세한 채색화로 발전되였으며 혁명과 건설투쟁, 그의 영웅적주인공들을 진실하게 그린 민족적특성과 조형성이 풍부한 혁명적이고 현대적인 미술로 되였고 이것이 우리 미술분야에서 주류를 이루게 되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과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조선화《식료상점을 찾으시여》,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조선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도우시는 강반석녀사》를 비롯한 미술작품들은 우리의 미술이 민족적특성이 풍부한 혁명적미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1973년에 창작된 조선화작품들중에는 사회주의농촌현실을 반영한 미술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화 《간석지의 저녁》, 《모내기협조대》, 《농촌기계화부대가 온다》, 《밤나무골》등이 바로 그러한 작품들이다.

우리의 미술 특히 조각분야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혁명전통교양의 요구에 맞게 기념비적 혁명적대작들을 많이 내놓음으로써 조형예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조형예술의 위력을 집중적으로 과시하며 혁명적미술창작의 기치로 되는 만수대대기념비를 창조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우리 시대 기념비적장식미술의 본보기로 되는 평양지하철도의 벽화와 조각작품들이 1973년에 창작되였다.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열렬히 환영하는 인민들과 조국건설에 일떠선 근로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형상한 평양지하철도 《개선》 역의 두점의 벽화와 《전우》 역의 벽화 《〈민주개혁〉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공화국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형상한 《봉화》역의 벽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이 이루어질 그날을 상징적으로 형상한 《통일》역의 벽화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표현한 《붉은별》역의 벽화를 비롯한 수많은 벽화와 조각작품들은 우리의 장식미술이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미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 지하철도의 미술작품들은 일정한 구조물이나 건축물을 장식하는데 그치고있었던 종래의 장식미술의 낡은 틀을 완전히 마스고 그것을 조형미를 집대성한 대화랑으로, 사상교양의 전당으로 되게 한것으로 하여 기념비적장식미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된다.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조선화의 우수한 특성을 무대미술분야에도 잘 살림으로써 《피바다》식가극무대미술에서의 특출한 성과를 본보기로 하여 1973년에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의 무대미술을 립체적인 움직이는 화폭으로 훌륭히 창조하였다.

태양이 붉게 타오르는 우리 나라 동해바다, 해금강의 해돋이장면 등은 주인공의 운명발전을 보여주는데 힘있게 이바지한 훌륭한 화폭들로서 류동식배경막과 류동환등배경 등 새로운 수법들을 받아들여 립체적이면서도 살아움직이는 무대미술로 창조한 획기적인 성과이다.

산업미술과 출판화 및 공예품 창작분야에서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산업미술분야에서는 3대기술혁명과업수행과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대형공작기계, 대형선박 등 산업미술도안들과 다양한 일용필수품형태도안, 상품포장과 미술도안, 방직도안을 비롯하여 100여점의 우수한 미술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천리마〉호 뜨락또르형태도안》, 《〈만경대〉호 수로굴착기형태도안》, 《상품공급차형태도안》 등 공업미술과 《부엌세간 배치도》, 《목란꽃무늬 이불감도안》, 《어린이 치마감》 등 1973년에 창작된 수많은 산업미술작품들도 화면구성과 색채구사에서 선명하고 간결한 조선화의 화법적특성을 이모저모로 잘 살리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산업부문의 장식미술이 실용성과 함께 예술성을 담보하면서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며 교양적의의를 부여하는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었다.

출판화분야에서도 90여점, 공예분야에서도 150여점의 좋은 미술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산간뻐스》, 《실습나간 대학생의 영예를 안고》, 《천리마거리의 아침》 등의 판화작품을 놓고보면 이전에 흑색을 주로 하던 판화가 작품의 형상성을 더욱 부각해주는 색판화로 발전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판화들과 함께 《거름더미는 쌀더미다, 더 많은 거름을 풍년벌에로!》,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등의 좋은 선전화들도 수많이 창작되였으며 이밖에 수채화, 삽화, 칠공예, 도자기공예, 초물공예, 인형, 자수 등의 공예작품도 조선화를 바탕으로 하여 수많이 나왔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미술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참으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미술로 찬란히 개화발전되였다.

문학예술의 대중화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문학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군본위로 나가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하며 창작사업에서 신비주의를 마스고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폐지)

수령님께서는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이 잘 실행되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화원을 더욱 다양하고 화려하게 하여주시였다.

공장과 농촌 할것없이 우리 나라의 모든 곳에 광범히 조직되여있는 문학예술소조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속에서는 1973년에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발표되였으며 부문별로 조직된 예술소조축전들, 문학예술작품현상모집을 통하여 자기들이 창작한 문학예술작품의 높은 성과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을 맞이하여 영화문학창작사에서 조직한 신인영화문학작품현상모집에는 일하면서 창작하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 군인, 학생들로부터 755편의 영화문학작품들이 들어왔는데 심사결과 30편의 영화문학작품들이 당선되였으며 그중 영화로 제작된 우수한 작품도 적지 않았다.

당선된 작품들중에서 《싸우는 대지》, 《선반공들》, 《봄무지개》, 《새별마을의 보육원》, 《병사의 편지》, 《새로운 품질감독원처녀》, 《우리 은행지도원》을 비롯한 몇편의 영화문학작품만 놓고보아도 근로자들속에서의 영화문학작품창작이 사상예술적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으며 영화문학작품창작일군대렬의 후비가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작가동맹중앙위원회에서 진행한 신인작품현상모집사업을 통하여서도 근로자들속에서 창작된 우수한 문학작품들이 발표되였다. 1973년에 우리 문학신인들의 무대인 잡지 《청년문학》의 부수가 배로 늘어나고 표지와 판형이 우리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교체된후 23명의 소설부문 신인들과 54명의 시부문신인들이 등장하여 우리 신인문단의 화원을 더욱 화려하게 하였다.

우리 문학신인들은 이해에 농업부문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여 단편소설 《해뜰무렵》, 《기양청년》과 서정시 《위대한 사랑의 자욱우에》, 《푸른 벌을 이끌고 온 농장을 이끌고》, 《농장기술학습의 밤》을 비롯한 수많은 소설들과 시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우리 근로자들의 눈부신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도 수많이 내놓았다.

1973년에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조직진행한 신인음악작품현상모집사업에도 1,300여편의 음악작품들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주체의 태양솟은 내나라》, 《강반석어머님께 드리는 혁명군의 맹세》를 비롯하여 우수한 군중가요작품들이 적지 않게 발표되였다.

이 음악작품현상모집사업을 놓고보면 음악신인들속에서 군중가요와 아동가요들과 함께 기악합주곡, 기악중주곡 등 다양한 형식의 음악작품들이 로동자, 농민들은 물론 소년들속에서까지 광범히 창작되여 큰 성과를 거두고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근로자들속에서 창작된 우수한 문학

예술작품들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계층별 또는 부문별 예술축전과 예술종합공연을 통하여 수많이 공연되였다.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전국로동자예술축전에 참가한 수많은 예술작품들과 전국농업근로자예술소조축전에 참가한 3인노래재담《3대혁명 만세》, 3중창과 무용《개마고원에 양떼호르네》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작품들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 참가한《아동단 유희대》,《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말과리》,《원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행복》등 신인들속에서 창작된 수많은 예술작품들은 바로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창작된 문학예술작품들이 그 사상적높이에서뿐아니라 예술적측면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예술축전들과 문학예술현상모집 등을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문학예술활동에서 거둔 성과를 고무해주고있으며 우수한 예술소조원들을 선발하여 전문일군으로 키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3년에 강계예술전문학교가 새로 나왔다.

1972년 10월에 자강도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예술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갈 예술인 후비를 양성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자강도에 예술전문학교를 내오도록 하여주시고 과정안과 교수요강, 학교의 관리운영과 학생선발, 교육교양의 방향과 구체적방도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으며 많은 악기들과 실습기구들을 보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발기에 의하여 세워진 이 예술전문학교에서는 수많은 학생을 예과와 전문부에 받아들여 일반과목과 함께 음악, 무용의 전문과목을 6년간 배워주어 예술전문가로 키우게 된다.

문학예술을 군중적지반우에서 발전시켜 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 의하여 1973년에만 하여도 로동자, 농민들 가운데서 훌륭한 작가, 예술인들이 자라났으며 우리의 문학예술은 더욱 활짝 꽃피고있다.

오늘 세상사람들을 그처럼 경탄시키고있는 평양만수대예술단의 명배우들도 모두가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며 어제날의 로동자, 협동농장원들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고있을뿐아니라 그 수준이 매우 높다는것은 다음의 사실하나만으로서도 잘 알수 있다.

자본주의국가의 어느 한 기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쓴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가 평양 어느 극장에서 한 처녀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큰 인상을 받았는데 그후 방직공장에 구경하러갔을 때 그 처녀명가수가 직포기앞에서 일하고있는것을 보고 그만 놀랐다는것이다.

그 기자는 그와의 담화를 통하여 그가 방직공장의 예술소조에 들어있다는것과 공장예술소조의 수준이 전문예술단체에 못지 않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우리 나라의 문학예술이 오늘과 같이《세계최고봉의 예술》, 참으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예술로 급속히 발전하게 된것은 문예활동에서 전문일군본위로 나가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고 창작에서 신비주의를 마스며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널리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정책이 정당하기때문이였다.

예 술 공 연

〔극장무대공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중앙극장뿐아니라 도(직할시)들에도 예술극장이 꾸려져있으며 전국 각지에 영화관들이 있다.

평양시만 놓고보아도 수도시민 한사람당 극장, 영화관 관람석수와 관람회수에 있어서 세계적수준에 올라있으며 현대적인 공연설비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1960년 8월에 준공된 평양대극장에는 2천 300여석의 관람석, 772평방메터의 기본무대와 3개의 보조무대, 260개의 배우실을 비롯한 각종 무대시설과 기술설비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1964년에 건립된 국립교예극장은 1, 800석의 관람석을 가진 원형극장으로서 그네비행, 공중회전 등 특수종목을 올리기 위한 공중무대와 경교예, 어리광교예 등을 할수 있게 마련된 등근바닥무대와 요술교예, 보통무대를 요구하는 종목을 올리기 위한 자동식 일면무대 등이 갖추어져있다.

이밖에도 평양에는 1946년 5월에 창립된 천리마국립연극극장(창립당시는 중앙예술공작단)과 1946년 봄에 건립된 모란봉극장 그리고 1,300여개의 관람석을 가진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 모란봉청년공원야외극장을 비롯한 수많은 극장들이 있다.

이러한 극장들에서는 1973년에 피바다가극단, 만수대예술단, 만경대창작단, 평양예술단, 평양청년가극단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단들에서 창조한 훌륭한 예술작품들이 매일과 같이 공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대극장에서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한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피바다》공연(6월 21일)과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한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꽃파는 처녀》(10월 25일)그리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평양시 예술인들과 노로돔 시하모니친왕이 출연한 친선공연(8월9일)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1973년에 전국청년학생기동선전대 예술종합공연(2월 23일,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과 학생절 열돐을 기념하여 마련한 평양시대학생들의 예술소조종합공연(10월 23일), 조선인민군예술소조종합공연(10월 19일)그리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파키스탄예술단의 공연(4월 25일, 평양대극장)을 보시고 공연출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궁전창립열돐을 기념하여 준비한 이 궁전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11월 8일)과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한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10월 28일)그리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콩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8월 2일)을 비롯한 많은 예술공연들을 보시였다.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는 이해에 제3차전국청년기동선전대종합공연(5월)과 전국 붉은 청년근위대기동선전대 예술소품종합공연(2월)이 진행되였으며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을 기념하여 평양교예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들과 개성시예술단을 비롯한 지방예술단들이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군인들을 찾아 축하공연을 활발히 벌리였다.

종합공연들에서 평양학생소년궁전예술소조원들은《진달래꽃 피워 원수님께 드리자》,《4월의 명절》,《아버지 원수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를, 평양시대학생예술소조원들은《배움의 천리길근위대여 앞으로!》,《3대혁명의 선구자들》을, 전국청년학생기동선전대예술소조원들은《학습에서 최우등사격에서 명사수들》을, 조선인민군 예

술소조원들은《일당천의 명사수분대 앞으로!》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예술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평양교예단에서는 《삼인도립재주》, 《유쾌한 취사원》, 《바다의 용사들》, 《바줄타기》등 여러종목의 교예작품들을 가지고 공연하였다.

모든 공연작품들에는 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속에서 사상, 기술, 문화 3대혁명의 기치높이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생활이 예술적화폭에 훌륭히 반영되여있었다.

공연작품들에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불같은 충성심이 흘러넘치고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로 더 잘 준비하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일편단심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불같은 충성의 맹세가 작품들마다에 차넘치고있었다.

〔예술선전대활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지도밑에 조직된 각 도 방송위원회 예술선전대와 중앙예술선전대, 영화예술인선전대 그리고 사로청, 직맹, 녀맹, 농근맹 예술선전대는 1973년에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들에 나가 예술선전활동을 맹렬히 벌리였다.

중앙예술선전대는 《수령님의 부름따라 대고조에로》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작품을 가지고 길주팔프공장으로부터 함남도, 함북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을 순회하면서 공연하였으며 영화예술인선전대는 평남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에 나가 군중정치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근로자들의 줄기찬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모내기전투직맹천리마선전대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로 풍년모 어서내자》, 《사회주의협동벌에 풍년모 어서내자》 등의 예술종목을 가지고 모내기전투현장을 돌면서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을 힘있게 고무하였으며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는 풍작의 기쁨속에 마당질을 다그치는 협동농장들을 찾아가 공연하여 협동농민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각 도 방송위원회 예술선전대들에서도《수령님품속에서 붉게 핍니다》, 《만가동, 만부하》, 《증산하자, 절약하자, 혁신하자》등 여러 종목의 예술작품들을 가지고 자기 도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돌면서 전투적인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특히 당중앙에서 무어주신 각 도(직할시)예술선전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에 나가 경제선동깜빠니야를 벌릴데 대하여 주신 1973년 11월 2일 교시를 높이 받들고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속에서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적극 벌려 그들을 생산적앙양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각 도(직할시)예술선전대는 11월 한달기간에 450여명으로 16개편대를 무어 100여편의 작품과 80여건의 선동문을 만들어가지고 200여개의 낟알털기현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의 생산현장에서 연 598회의 예술선전활동을 벌리였다.

황남도예술선전대에서는 신천군을 비롯한 8개군의 23개 협동농장 작업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루에 3~7회의 예술공연을 진행하였으며 황북도예술선전대에서는 40여명으로 2개편대를 무어 은파군을 비롯한 협동농장 작업현장에 들어가 100회의 공연활동을 벌리였다.

강원도예술선전대에서는 농촌예술공연을 하면서 수산부문 어로전사들을 찾아가 전투적인 기동선전을 벌리였으며 황북도, 자강도, 강원도 예술선전대에서는《더많은 자동차를 협동벌로 보내자》, 《승리산용사의 노래》, 《〈자주〉호 자동차운전수의 노래》, 《3대혁명기치따라 앞으로》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종목을 가지고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서 맹렬한 예술공연활동을 벌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73년 11월 2일 교시가 있은후 12월말까지 2개월동안에만 하여도 각 도(직할시)예술선전대들에서는 농촌공연 916회를 포함하여 2천 500여회의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여기에 88만 8천명의 인원이 망라되였다.

예술선전대공연은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였다.

이 모든것은 경제선동깜빠니야를 벌릴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예술선전대 조직과 그 활동에 대한 당중앙의 지도가 얼마나 정확하였는가를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예 술 축 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문학예술의 대중화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떤 특별한 재주나 소질을 가진 사람이나 전문적인 작가, 예술인들만이 작품을 창작하고 문학예술을 즐기는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다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고있다.

도시와 농촌 할것없이 근로자들이 일하고있는 모든곳에 예술소조가 조직되여있으며 로동자, 농민, 청소년학생들은 자기의 희망에 따라 예술소조에 망라되여 예술적재능을 키워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중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해마다 예술축전을 열고 옳게 총화해주며 우수한 경험들을 서로 나눌수 있는 사업들이 년중행사처럼 진행되고 전문예술일군들이 공장과 농촌에 나가 예술소조들을 지도해주도록 하는 체계가 서 있다.

예술축전에서 선발된 우수한 예술소조원들은 전문예술인으로 자라며 그들은 국내적으로 진행되는 예술공연뿐아니라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예술축전에도 참가하고있다.

1973년에도 부문별 국내예술축전이 수많이 진행되였으며 우리 나라 예술단은 국제적으로 진행된 예술축전에 참가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축전〕전국로동자예술축전;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기념하여 1973년 8월 평양음악무용대학 음악당에서 진행된 이 축전에는 11개의 도 및 직할시들에서 선발된 로동자 및 직맹원들이 수많이 참가하여 가무 《금강샘물에 깃든 어버이사랑》을 비롯하여 수십편에 달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축전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우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뜨거운 배려 그리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의 자랑찬 모습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보여준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전국 붉은 청년근위대 예술축전; 1973년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진행된 이 축전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에게 돌려주신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 수령님에 대한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의 끝없는 흠모의 정과 불타는 충성심을 합창, 중창, 기악과 노래, 합창시, 춤 등에 훌륭히 담아 무대에 올렸다.

합창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은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노래와 춤 《원수님께 드리는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의 충성의 맹세》, 노래이야기 《파녁마다 통구멍을 내자》를 비롯하여 축전무대에 오른 많은 작품들은 그 사상예술적수준이 높았다.

전국학생소년축전;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기념하여 1973년 8월에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진행된 이 축전에는 각 시(구역), 군과 각 도(직할시)경연에서 선발된 우수한 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하였다.

합창, 중창, 노래이야기, 무용, 취주악, 관현악 등 다양한 종목들로 엮어진 이들의 공연에서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키워온 혁명적정서와 높은 예술적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축전심사결과 1위는 평양시, 2위는 평남도, 평북도, 3위는 함북도, 자강도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이 차지하였다.

이밖에도 1973년에 전국재정판매일군예술소조경연대회(11월 27일~12월 4일)를 비롯한 직종별 예술공연과 각 도(직할시) 방송예술기동선전대경연을 비롯하여 수많은 예술경연이 진행되였다.

〔국제축전〕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 1973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수도 베를린에서 《반제적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진행된 이 축전은 세계 140개 나라에서 온 2만 5천여명의 청년학생대표들과 많은 명예손님들이 참가한 축전력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축전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275명의 청년학생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그중에는 30명의 재일본조선청소년학생대표단 성원들도 포함되여있었다.

우리 청년학생대표단은 세계 40여개 나라에서 온 800여명의 청년학생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청년학생들과의 련대성집회》를 비롯한 18회의 각종 련대성집회에 참가하여 여섯번에 걸쳐 연설하였으며 토론회, 쎄미나르, 자유연단, 대학생구락부, 예술인구락부, 영화인연단 등 각종 정치행사에도 적극 참가하여 20여회에 걸쳐 보고와 토론을 하였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은 또한 56개 나라의 1천여명의 청년학생들과의 상봉모임을 주동적으로 조직하였다.

우리 청년학생대표단은 축전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벌려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활짝 꽃핀 우리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온 세상에 유감없이 시위하였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예술단은 베를린에서 가장 큰 프리드리히 스타트극장에서의 첫 공연으로 축전의 서막을 장식하였으며 그후 베를린시와 포트부스, 라이프찌히에서의 공연 그리고 축전예술경연을 통하여 축전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예술단은 가야금병창 《사령부를 찾아가는 길에서》를 비롯한 30개의 작품을 가지고 예술경연에 참가하여 29개 작품이 당선되여 44개의 영예상과 메달을 받았으며 이중에는 재일조선청년학생예술단이 출연한 3개 작품도 포함되여있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은 또한 영화축전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인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상영하여 민주독일인민들과 축전참가자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한편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은 국제아동그림전람회와 사진전람회, 국제그라휘크전람회에도 많은 작품들을 내놓아 아동그림에서 15점(그중 조청 6점)이 당선되여 20개의 영예상과 메달을 받았으며 사진에서는 3개(조청 1개)의 영예상과 메달을 받았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예술에서 44개, 아동그림에서 20개, 사진에서 3개의 영예상과 메달을 받아 단연 첫 자리를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은 축전기간 이처럼 모든 정치행사와 축전예술경연에 주동적으로 참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사랑속에서 배우고 살며 일하는 천리마조선청년학생들의 영웅적기상과 슬기를 온 세상에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군 중 문 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인민속에 있는 재능을 찾아내고 발양시켜 로동하는 사람들자신이 가는 곳마다에서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고 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0페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문화회관과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과 기념관을 비롯한 사상문화교양기관들에서는 1973년에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지식수준을 더욱 높이며 문학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조직진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회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각도(직할시), 시(구역), 군 소재지에 문화회관이 있고 공장, 기업소들에는 로동자문화회관, 협동농장들에는 구락부와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실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평양시에만도 중앙문화회관과 극장, 영화관외에 180여개의 공장, 기업소 로동자문화회관이 있다.

1973년에 평양시 보통강반에는 또다시 근로자들의 사상문화교양에 크게 이바지할 총건평 5만 2천여평방메터(대극장의 2배)나 되는 세계1등급의 대인민문화궁전이 일떠서 1974년 4월 12일에 준공되였다.

이 인민문화궁전은 3천석의 대회의장을 비롯하여 원탁회의장, 회담장들과 현대적건축형식에 최신식내부설비를 갖춘 학습실들과 영화관 등 무려 500여개의 크고 작은 방들로 구성되였다.

전국각지의 문화회관들에는 보통 1천명내외의 관람석과 무대를 가지고있으며 도서실을 비롯한 여러개의 예술소조활동실을 가지고있다. 예술소조활동실에는 각종 악기들과 오락시설들이 100여종씩 마련되여있다.

근로자들은 이처럼 모든 시설이 훌륭히 갖추어진 곳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꽃피우며 예술적기량을 높이고있는가하면 다채로운 영화와 예술공연을 감상하고있다.

중앙문화회관에서는 1973년에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문화회관들의 운영에 대한 방법적지도사업, 예술소조책임자 양성사업, 군중가요 및 군중무용 보급사업, 예술소조경연과 종합공연 및 중요행사공연작품의 준비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 문화회관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68년 7월 4일 교시에 따라 광범한 군중을 대상으로 당정책, 혁명전통, 국제국내정세, 위생문화, 과학기술 강연 등을 30~40분씩 하고 그뒤에 예술공연, 영화상영, 명배우출연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벌리였다.

이와 함께 영화감상토론 및 실효투쟁,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 통달모임, 독서발표모임, 노래 및 무용 보급 등 정치문화사업을 활발히 벌리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수행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하였다.

문화회관들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

자 혁명가극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의 노래들을 비롯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가세》와 같은 대중가요를 그리고 혁명적영화들의 주제가를 광범히 보급함으로써 일터가 흥성거리고 전투적기백이 넘치며 근로자들을 로력적위훈에로 고무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회관들에서는 경제선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송야회도 적극 진행하였다.

1973년에 금성뜨락또르공장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예술소조원들은 공장문화회관에서 전국각지의 협동품생산기업소들에서 온 로동계급들과 함께 뜨락또르생산에서 다시한번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련합방송야회를 진행하여 뜨락또르를 더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크게 고무하였다.

문화회관들에서는 관내에서의 영화상영과 함께 이동영화상영을 적극 진행하였다.

평남도에서는 400여개의 이동영사대를, 황북도에서는 450여개의 이동영사대 그리고 각 도들에서는 수백개씩의 이동영사대들을 무어가지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긴 예술영화 《피바다》, 《꽃파는 처녀》와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영화들을 돌리는 한편 로력혁신자축하모임, 막간선전, 현장방송, 직관선전 등을 잘 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협동농장의 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실들에서는 농작물과 토양의 표본, 시비체계와 영농경험 자료 등을 갖추어놓고 토양학, 생물학, 비료와 농기계, 성장촉진제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농업과학기술지식을 적극 보급함으로써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박물관〕 우리 나라에는 조선혁명박물관과 1955년 8월 7일에 창립된 보천보혁명박물관, 1945년 12월 1일에 창립된 조선력사박물관, 1956년 2월 10일에 창립된 조선민속박물관, 1954년 9월 28일에 창립된 조선미술박물관 그리고 1958년 8월에 창립된 신천박물관이 있다.

1948년 8월 1일에 창립된 조선혁명박물관은 평양만수대에 새로 건립(총건평 5만 3천 700여평방메터, 전시품들의 총연장길이 4.5키로메터)되여 1972년 4월 24일에 개관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은 1973년에 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7월 30일 기념보고회를 가지였다.

수령님께서는 창립 스물다섯돐을 맞이한 조선혁명박물관 일군들을 국가표창하시였으며 귀중한 선물을 보내시였다.

주체사상교양의 전당이며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위력한 거점인 조선혁명박물관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친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박물관학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종합집대성하여 국내외에 널리 선전하며 그것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조선혁명박물관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흠모와 충성심, 뜨거운 지성과 사적부문일군들의 불타는 노력에 의하여 가장 훌륭한 혁명의 보물고로 튼튼히 꾸려졌다.

100여간의 진렬호실들과 그 운영을 위한 현대적설비가 갖추어진 이 박물관에는 수령님의 혁명적가정과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빛나는 혁명력사를 포괄하는 귀중한 사적물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조선혁명박물관에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인민군군인들 그리고 외국의 벗들까지 하루평균 4천여명이 찾아오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이 박물관참관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배우며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군 한다.

1973년초에 이 박물관을 참관한 금성뜨락또르공장,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강선제강소의 로동자들은 당창건기념일전으로 1973년도 계획을 어김없이 완수할 굳은 결의를 안고 돌아갔다. 금성뜨락또르공장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다진 그 결의대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기적을 창조하여 종전의 기양뜨락또르공장보다 10배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의 현대적뜨락또르공장을 건설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주체공업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었다.

1973년 4월 조선혁명박물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을 맞이하여 전국혁명사적지 사진전시회를 가지였다.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유서깊은 만경대혁명사적지와 량강도혁명전적지, 함북도 온성군 왕재산혁명사적지를 비롯하여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와 해방후 오늘에 이르는동안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에 걸쳐 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스며있고 은혜로운 손길이 닿아있는 많고많은 국내혁명사적지들중 그 일부를 도별로 보여주는 사진전시회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깊은 관심을 집중시키였다.

전시품들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더욱 가슴깊이 체득하면서 그이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으며 일편단심 충성다할 붉은 마음을 굳게 가다듬었다.

량강도 보천군 보천읍에 있는 보천보혁명박물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내진공작전과 관련된 사적자료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후 조국에 개선하실때까지의 20여년간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로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조선미술박물관에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이 창조해놓은 귀중한 미술작품들과 해방후 우리 미술가들이 창작한 미술작품들이 시기별, 작품종류별로 전시되여있다. 이 박물관에서 1973년에 진행된 전국출판화 및 공예전람회에 출판화 90여점과 공예 150여점을 전시하였다.

황해남도 신천군 신천읍에 있는 신천박물관에는 100여년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미제침략자들의 만행 특히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에 감행한 살인, 략탈만행을 폭로하는 자료들과 증거물들이 진렬되여있다.

조선민속박물관에는 우리 인민의 문화풍습을 력사적으로 보고 리해할수 있도록 과거풍습으로부터 오늘의 사회주의적문화풍습까지를 포괄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박물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생활기풍과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생활관을 새로 꾸리고 1970년에 개관하였다.

생활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부대생활을 어떻게 알뜰하고 깐지게, 문화적으로 하였는가를 여러모로 찾아볼수 있다. 이 생활관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의 한 구성부분인 혁명적생활기풍의 고귀한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인다운 태도로 깐지고 알뜰하게, 이악하게 생활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기념관 및 전람관〕 우리 나라에는 1970년에 개관한 당창건사적관, 1953년 8월에 창립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창립 당시는 조국해방전쟁기념관)그리고 1956년 5월에 창립된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이 있으며 각 도들에도 공업및농업전람관이 있다.

당창건사적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쌓으시던 때로부터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로동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때까지의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과 우리 당의 행로를 보여주는 수백점의 자료들이 7개의 진렬실들에 나뉘여 체계적으로 전시되여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1973년에 평양의 보통강기슭에 웅장하게 새로 세워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1974년 4월 11일 개관되였다.

총건평 5만 2,000평방메터에 이르는 기념관안에 마련되여있는 70여개의 진렬실들에는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우리 인민이 진행한 반제혁명전쟁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적물들과 자료들, 유물들이 집대성되여 전시되여있다.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은 중공업, 경공업, 농업 등 부문별로 진렬관을 따로 설정해놓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실물과 자료들로 생동하게 보여주는 당의 경제선전기관으로, 현대적과학기술지식의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이 전람관을 참관한 많은 외국손님들은 조선인민이 자체의 힘, 자체의 원료, 자체의 기술로 공업국가의 력사적위업을 달성하게 되였다는것을 이 전람관을 통하여 알게 되였다고 일치하게 말하였다.

당창건사적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공업및농업전람관은 우리 인민들에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건설과 경제건설, 국방건설의 모든 부문에 대한 현명한 령도와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실물과 자료들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도서관〕 우리 나라에는 1946년 10월 13일에 창설된 국립중앙도서관과 1970년 10월 20일에 개관한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 그리고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도서관이 있으며 아동도서관과 도서실이 널리 분포되여있다.

이러한 도서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 특히 기술혁명수행에 도움을 주고있다.

1973년에는 협동농장들에 도서실이 많이 꾸려짐으로써 농업근로자들에게 농업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과학부문별, 계층별로 되는 수십개의 열람실을 꾸려놓고 관내에서의 열람사업을 진행하며 통신대출 및 이동문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도서를 대출하며 생산현장에 찾아가 현지열람사업도 조직진행하고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독자들의 출판물리용을 방조하기 위하여 도서전람회, 도서해제, 읽은책 발표모임, 과학발표모임 등도 수시로 조직하고있다.

1973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에 대한 독자모임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에 대한 독자모임에서는 《〈피바다〉에 깃든 이야기》, 《무산자가 갈 길은 오직 혁명의 한길뿐이다》, 《〈피바다〉는 혁명의 훌륭한 교과서이다》라는 제목의 토론들이 있었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 대한 독자모임에서는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법이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 등의 제목을 가지고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세계 4천여개의 도서관계부문기관들과 련계를 가지고 교류사업을 진행하고있다.

1천명이상의 열람자를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은 관내에서의 열람과 함께 참고문헌발행, 독자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충분히 소유한 민족간부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고있다.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도서관들에서는 1973년에 이동문고를 조직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는 생산현장에 찾아가 도서를 보급하고 읽은책 발표모임, 기술토론회들을 적극 조직하였다.

도서관들에서는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을 책임지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매 공장과 직장, 작업반의 기술발전계획과 추진중에 있는 기술혁신안들, 그에 필요한 기술서적들이 어떤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기술서적들을 적극 보장해주는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자기사업을 진행하였다.

〔학생소년궁전〕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1963년 9월 10일에 창립된 평양학생소년궁전과 1961년 6.6절을 계기로 창립된 개성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학생소년궁전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이러한 학생소년궁전들은 청소년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지덕체를 다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종합적인 학교로, 과외교양의 거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은 1973년에 창립 열돐을 맞이하여 9월 28일 기념보고회를 가지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학생소년궁전 창립 열돐에 즈음하여 궁전을 찾으시고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시였으며 궁전의 교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창립된후 지난 10년간 45차의 현지지도와 100여차의 강령적교시를 주시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궁전을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한 공산주의적과외교양의 본보기로, 교육과 생산로동, 리론과 실천, 학습과 사회정치활동을 밀접히 결합하는 혁명적교육방법의 전형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마다 이 궁전에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에 참석하시여 아이들세계에 들어오면 한 10년은 젊어지는것같으시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학생소년들과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속에서 하루에 1만여명의 학생소년들이 현대적과학기술설비들과 실험실습기구들을 다루며 쏠모있는 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수 있는 배움의 전당으로, 누구나 악기를 다루고 여러가지 체육활동을 할수 있는 세계1등급의 소년궁전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지난 10년간 30여만의 소조원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을 소유시켰으며 연 800여만명의 학생소년들이 궁전대중활동에 망라되여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고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자로 자라났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3년 5월 20일 자강도 강계시에

배움의천리길학생소년궁전이 창립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덕체교양의 종합적인 학교, 배움의 전당인 학생소년궁전을 독로강기슭의 가장 경치좋은곳 망미정언덕에 웅장하고 화려하게 세워주시고 배움의천리길학생소년궁전이라고 이름까지 달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궁전을 개관하는날 궁전창립을 축하하여 이 궁전에 귀중한 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1964년 5월 자강도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 《독로강반의 새노래》를 보시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그때에 벌써 자강도에 과외교양의 전당인 학생소년궁전을 내올데 대하여 배려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세워진 배움의천리길학생소년궁전은 4천 700평방메터의 건평을 차지하고있다.

3층으로 된 궁전안에는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연구실과 배움의 천리길 연구실을 비롯하여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체육, 국방 등 모두 22개의 소조활동실과 극장, 도서실이 있다.

궁전소조에는 5천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여기서 여러가지 과외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다지면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덕체를 다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고있다.

〔동식물원〕 평양에는 275정보의 넓이안에 330여종의 동물들을 기르는 중앙동물원이 있으며 그것을 모체로 하여 도처에 동물원이 꾸려졌고 공원과 유원지들에는 새집과 작은 동물사들이 만들어져있다.

또한 1959년 4월 30일에 건설된 2천여종의 우리 나라 식물들로 꽉 들어차있는 중앙식물원이 꾸려져있으며 그 산하에 분원들과 연구소들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기관, 기업소들과 각급 학교들에까지 식물원들과 화초원들이 있다.

이러한 동식물원들은 광범한 근로자들이 우리 나라의 동식물들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학지식보급기지로, 학생들의 현지강의와 실습기지로 되고있다.

동물원과 식물원들은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동식물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 동식물들을 잘 알고 우리 조국의 자연과 향토를 사랑하도록 교육교양하며 동식물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문화휴식에 이바지하는 문화교양장소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체 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건장한 체력은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 건설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널리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체력을 더욱 증진시키며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체육과학과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3폐지)

수령님께서는 1971년 12월 7일 교시와 1972년 9월 6일, 9월 21일 교시에서 체육을 전민화하고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1970년대말에 가서 우리 나라를 《체육의 왕국》으로 만들며 3년안으로 체육사업에서 일대변혁을 가져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1973년 8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또다시 체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체육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1973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1등급의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시설들이 훌륭히 건설되였으며 군중적인 체육기술발전에서 사상전, 투지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3년 4월 8일에 개관한 평양체육관(부지면적 20여정보, 연건평 7만평방메터, 건물의 높이 40여메터, 대경기장의 길이 85메터, 너비 538메터)은 2만여명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롱구, 배구, 송구, 탁구, 레스링, 유술, 예술체조, 기계체조를 비롯한 여러가지 경기를 할수 있는 시설과 17개의 체육훈련실, 9개 나라말을 동시에 번역할수 있는 번역방송실 등 현대적설비들이 훌륭히 갖추어진 체육문화궁전이다.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또한 1973년부터 1974년상반년도까지의 기간에 남포체육촌이 웅장하게 건설되였다. 이 체육촌에는 현대적인 경기장과 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들이 포함되여있는데 3만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경기장만 하여도 관람석이 25계단으로 되여있으며 특히 집단체조창조를 위하여 배경부문은 45계단으로 만들었다. 1천 800여평방메터의 건평을 가진 수영관, 4개의 경기용정구장과 2개의 훈련용정구장, 9천 800평방메터의 야구장 등 체육시설이 남포체육촌에 포함되여있다.

또한 기관차체육관과 강서체육관을 비롯하여 대규모의 체육관만 하여도 이해에 30여개의 시(구역), 군들에 건설됨으로써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체육의 전민화방침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생산체육 및 인민체력검정〕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체육의 전민화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육부문에서는 모든 기관, 기업소, 공장, 농촌들과 직장과 작업반, 합숙, 인민반 단위로 아침체조와 집단달리기로부터 시작하여 업간체조와 직업적 및 지대적 특성에 맞는 각종 체육활동을 생활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터가 전투적이며 명랑한 분위기로 들끓게 하였다.

신포시, 청진시, 원산시를 비롯한 바다를 낀 곳에서는 7,8월해양체육월간에 배타기, 헤엄 등 해양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려여 체육활동의 성과가 생산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특히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독창적인 체육형태인 뜨락또르운전경기, 굴뚫기경기, 미장경기 등 생산체육경기들이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우리의 체육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생산체육을 비롯한 모든 체육활동을 생활화, 제도화하는 한편 인민체력검정사업에 모든 근로자들이 참가하여 100%합격하도록 투쟁목표를 내세우고 경쟁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7~8월인민체력검정월간사업을 성과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각 도(직할시), 시(구역), 군 들에서는 한개단위씩 본보기를 창조하고 방식상학을 조직진행한 기초우에서 인민체력검정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었다.

1973년에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들에서는 인민체력검정방송통신경기대회를 높은 수준으로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 경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결과 평남도, 평북도, 황북도, 함남도, 함북도, 개성시들에서만도 60여개의 시(구역), 군들에서 150여개의 단체(10여만명)가 모범단체로 되였다.

함북도에서는 41개의 단체가 방송통신경기대회에 참가하였는데 특히 명천군 천리마용암고등중학교에서는 7~8월인민체력검정월간기간 방송통신경기대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린 결과 관정에서 1,135명의 학생, 교원들이 전원합격하는

성과를 올리였다.

이러한 실례는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다.

1973년도 인민체력검정월간에 1972년보다 인민체력검정참가자비률은 10% 더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에 인민체력검정합격자비률은 20%나 장성하였다.

〔**학교체육**〕 3년동안에 학교체육사업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체육부문에서는 1973년에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당의 체육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체육과학지식과 체육기초기술동작들을 원만히 습득하여 그들이 적어도 인민학교체육수업을 담당지도할수 있는 수준과 능력을 소유함과 동시에 한두가지의 경기를 심판할수 있는 수준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조직진행하였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년령과 성별에 기초하여 그들의 체력을 체계적으로,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탁구와 키크기운동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교수요강을 작성하고 체육사업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 한편 학생들을 과외체육활동과 종목별체육소조에 적극 망라시켜 맹렬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학교들에서는 전체 학생들이 륙상을 비롯하여 축구, 롱구, 배구, 탁구, 정구, 철봉 같은 여러가지의 체육종목과 중경기와 경경기 종목, 해양 및 동기종목 등 모든 체육종목들을 대담하게 포치하고 그 훈련수준을 한계단 높이었다.

특히 수령님께서 1973년 2월 23일 량강도 풍산군에서 스키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스키훈련을 적극 진행한 결과 풍산군내 전체 학생들이 자체의 힘으로 스키를 갖추었을뿐아니라 스케트와 스키를 탈수 있게 되였으며 전국적인 방식상학을 이곳 풍산군에서 조직하여 스키훈련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였다.

풍산군 청소년학생들속에서는 체육선수후비들이 수많이 자라나 1969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에만도 80여명을 도 및 중앙 체육선수단에 보내였다.

또한 황북도 신계군 대정고등중학교에서는 롱구소조에 망라된 10여명의 녀학생들이 모두가 롱구선수로 자라났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신흥고등중학교에서는 키크기운동을 활발히 벌린 결과 1973년 한해동안에만도 남학생들의 키는 국가기준치수보다 평균 6.6센치메터, 녀학생들의 키는 평균 5.2센치메터나 더 자라났다. 강원도 안변군 안변고등중학교에서는 1973년에 50여명의 학생들이 15센치메터이상씩 키가 컸으며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8~9센치메터씩 키가 컸다.

이러한 실례는 우리 나라의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자라난 유능한 체육선수들은 수많은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높은 성과를 올리였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1973년도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력기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청소년력기선수들은 2개의 종목에서 세계기록을 수립하였으며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2개를 쟁취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1973년도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녀자배구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청소년녀자배구선수들은 1, 2위를 차지하였다.

〔**국방체육**〕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국방체육을 위주로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주체적인 체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체육부문에서는 1973년에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등산, 야영, 행군, 집단달리기 등 대중국방체육을 우리 나라의 지대적특성에 맞게 강화하는 한편 사격, 무선통신, 자동차 및 뜨락또르 운전, 바줄오르내리기, 장애물이겨내기, 수류탄던지기, 강건느기, 산야횡단 등 국방실용체육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였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년령적특성과 지대적조건에 맞게 고지점령과 군사경기 등을 적극 조직진행하였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도처에 조직된 국방체육구락부와 해양구락부에 망라시켜 높은 사격술과 험난한 파도속도 뚫고나갈줄 아는 강한 인내력과 투지를 키워주었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을 기념하여 1973년 2월에 진행된 평양시내 국방체육구락부 무선통신경기대회성적하나만 보아도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국방실용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나라의 신경을 맡아나설수 있는 높은 통신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후비가 많이 자라나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특히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전투정치훈련뿐아니라 군사3종경기와 격검을 비롯한 국방실용체육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누구나 다 산악과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을 이겨내고 어떤 정황에서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능히 담당할수 있는 일당백의 전사로 튼튼히 준비되였다.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기념하여 1973년 6월에 진행된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에서는 사격, 무선통신, 락하산, 활공기 경기 등 국방체육종목의 경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상적으로 련마해온 국방체육훈련의 높은 성과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보천보홰불상》 체육경기대회공기보총사격경기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신기록을 돌파하였으며 이 경기대회의 1천메터 정점강하경기에 참가한 락하산선수들도 일기조건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락하산을 능숙하게 조절하면서 목적지에 정확히 착륙하는 높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국방실용체육의 급속한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체육소조 및 체육인양성**〕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체육의 전민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그들속에서 유능한 체육선수후비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는 학교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마다에 체육소조들이 조직되여있다. 이러한 체육소조는 체육회관과 체육구락부를 거점으로 하여 운영되고있다.

체육회관 및 구락부들에서는 1973년에 체육소조원들에게 종목별 체육리론과 체육생리, 체육기초기술동작, 체육과학기초지식 등 체육에 대한 기본원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년간 500시간이상의 교수훈련을 정확히 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조원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켰으며 《청소년체육명수》와 청소년체육기술등급소유자대렬을 더 늘일수 있게 되였다.

평양시 선교구역 체육회관 및 체육구락부에서는 1973년말현재 850여개의 체육소조를 조직하고 10여개의 새로운 체육종목을 더 포치하여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20여명의 선수후비를 양성하여 각 선수단에 보냈으며 소조원들을 한가지이상의 종목별 경기심판을 할수 있는수준으로 끌어올리였다.

이러한 실례는 우리 나라의 어느 군이나 구역에서도 찾아볼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다.

체육회관과 체육구락부들에서 체육소조활동이 더욱 적극화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초급체육열성자대렬을 1975년말에 가서 20만명으로 늘일수 있는 튼튼한 로대를 닦아놓았다.

뿐아니라 1973년에 체육과학의 전당인 체육대학의 규모가 훨씬 늘어나고 전국 각지에 있는 고등체육전문학교와 체육부속학교 그리고 사범대학 체육학부의 교수훈련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됨으로써 우수한 체육부문일군들과 체육선수들을 키워내게 되였다.

1958년 9월 1일에 창립된 평양체육

대학에서는 1973년까지 15년동안 3천 200여명의 체육부문일군들과 각급학교 체육교원들을 키워내였다.

또한 이 대학에서는 150여종의 체육 교재와 참고서, 700여건에 달하는 체육과학론문을 집필함으로써 전국의 체육부문 학교와 학부들 그리고 체육선수단의 교수훈련에 큰 도움을 주었다.

체육의 원종자들 키워내는 믿음직한 기지로 꾸려진 이 대학에서는 국제국내경기들에서 1천여개의 금, 은, 동 메달을 받았다.

〔체육기술발전〕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체육의 전민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3년안으로 모든 체육종목의 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체육부문에서는 훈련에서 사상전, 투지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조선사람의 강의한 혁명적기질과 특성에 맞는 주체적인 체육훈련과 체육과학기술을 적극 발전시킨 결과 우리 나라 체육은 예술체조, 빙상, 배구, 롱구, 력기, 탁구, 사격을 비롯한 여러 종목에서 이미 세계적수준에 올라섰다.

1973년에 진행된 《일당백상》, 《만경대상》, 《보천보홰불상》 등 국내경기대회들에서 31개종목의 연 47명의 선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인기록들을 새롭게 갱신하였다.

특히 제20차뮨헨올림픽경기대회 소구경보총 엎드려사격경기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쟁취한바있는 인민체육인 리호준선수는 1973년에 《보천보홰불상》경기대회 공기보총사격경기에 출전하여 3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종전의 세계기록을 깨뜨리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지금까지 이 종목에서는 서독선수가 1970년에 387점을 얻어 세계기록을 보유하고있으며 1971년에 쏘련선수들이 두차례나 387점을 얻기는 하였으나 세계기록을 돌파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1973년에 우리 나라 선수가 10메터거리에서 10점목표인 1미리메터 과녁판에 40발을 거의다 명중시키는 높은 사격술을 보여줌으로써 종전의 세계기록을 단꺼번에 4점이나 앞서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1973년에 우리 나라의 다른 사격선수가 규격권총사격에서 세계 신기록을 깨뜨림으로써 세계사격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73년 1월 강계에서 진행된 전국청소년빙상경기대회에서도 11개종목에서 연 37명의 선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소년공인기록들을 새롭게 세웠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높은 체육기술은 우리 나라의 전반적체육기술발전을 튼튼히 뒤받침하고있다.

1973년상반년도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 선수들은 15차의 국제경기대회들에서 9개의 금메달, 28개의 은메달을 비롯하여 58개의 각종 메달과 금컵들을 쟁취하였다. 1973년 2월 쏘련에서 있은 제4차국제유술강자경기대회에서 63키로그람급의 우리 나라 선수가 1973년도 국제경기대회의 첫메달을 획득해온데 이어 4월 로므니아에서 있은 《금허리띠》쟁취를 위한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가 48키로그람급에서 《금허리띠》를 쟁취하였다.

우리 나라 체육기술의 급속한 발전면모는 1973년에 4.25축구선수단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동남아세아나라들에서의 빛나는 승리가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 4.25축구선수단은 싱가포르에서 다섯번의 경기를 하여 26알의 꼴을 넣음으로써 세계를 놀래우는 파문을 일으켰다. 싱가포르 국가종합팀은 4.25팀앞에 3대0으로 무릎을 꿇었다.

4.25축구선수단은 말레이시아에서 이 나라 국가팀과의 첫경기에서 1대0, 두번째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에서 우리 나라 4.25축구선수단은 이 나라 선수권보유팀을 4대0으로, 카라치선발팀을 3대0으로 각각 타승함으로써 이 나라 인민들과 체육계를 경탄케 하였다.

싱가포르축구협회 위원장은 《조선축구팀은 세계최강급의 팀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조선팀은 반드시 세계축구우승팀의 소유자로 될것이다. 현대축구의 본보기인 조선축구를 따라 배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말레이시아국가종합팀 지도원), 《조선의 축구는 아세아를 대표하며 세계축구계를 놀라게 하였다.》(파키스탄축구협회 위원장)라는 경탄의 목소리가 가는곳마다에서 울려나왔다.

〔체육행사〕집단달리기; 우리 나라에서의 체육은 육체적단련뿐아니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전달이어달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집단달리기가 광범히 조직진행됨으로써 정치사상교양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복무하고있다.

혁명전적지에로의 집단달리기대렬에는 해마다 450~500여만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고있으며 그들은 년평균 300여키로메터를 달리고있다.

기관, 기업소, 학교 등 모든 단위들에서는 1973년에 《배움의 천리길 이어달리기》와 《만경대달리기》, 《보천보달리기》, 《백두산달리기》 등 《붉은기》쟁취를 위한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에로의 달리기를 광범히 조직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며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해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붉은기》쟁취를 위한 《혁명전적지달리기》경기는 4월 15일까지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큰 뜻을 키워오신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로, 5월 4일까지는 혁명전적지 보천보에로, 10월 10일까지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로 이르는 거리를 이어 달리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이해에 량강도내 각급 학교들에서는 《배움의 천리길 스키행군》을 조직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학생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켰다.

집단체조; 사회주의적체육의 훌륭한 형태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집단체조는 해마다 중앙과 도, 시, 군, 각급 학교들에서 10여만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적인 행사로 진행되고있다.

인민상계관작품인 집단체조 《천리마조선》과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내놓아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킨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에 또다시 집단체조 《은혜로운 해빛아래 꽃피는 평남도》, 《혁명의 태양이 솟은 만경대》 (수령님의 탄생 예순한돐을 기념하여 평양시 만경대구역내 1만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출연)를 창조하여 내놓음으로써 그 높은 사상성과 놀랄만한 규모, 고도로 조직화되고 세련된 예술성과 체육기교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1973년 9월 9일 남포시경기장에서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평남도내 5만명의 학생청소년들이 출연한 대집단체조 《은혜로운 해빛아래 꽃피는 평남도》 (서막과 7장, 종막으로 구성)에서는 혁명발전의 중요한 시기마다 평남도를 찾으시여 모범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이끄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한 서사시적화폭들을 감동적으로 펼쳐보이였다.

조선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집단체조에 더욱 광범한 청소년학생들을 망라시키기 위하여 1973년 4월초부터 2개월간에 걸쳐 《수령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라는 작품을 가지고 전국고등중학교 집단체조경기대회를 조직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집단체조경기대회에서는 전국의 고등중학교들에서 모두 107만 8천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여 고도로 조직

화되고 세련된 자기들의 높은 체육기교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체 육 경 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나라의 체육기술을 3년안으로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체육부문에서는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따라 《일당백기술혁신운동》을 사상전, 투지전, 기술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 체육기술을 한계단 끌어올리였다.

체육기술의 급속한 발전면모를 1973년에 진행된 수많은 국제, 국내 경기들에서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4.25축구선수단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들과의 경기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당백기술혁신운동》을 발기한 2.8체육선수단 체육인들은 1973년에 수많은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금허리띠, 금메달 7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0개를, 국내경기에서 금메달 238개, 은메달 219개, 동메달 212개를 쟁취하였으며 8명의 력기선수들이 1개종목에서 공화국 새 기록을 수립하였다.

〔국내경기〕 1973년도 전국스키선수권대회(1월 22~28일, 삼지연스키장), 달리기, 스키 사격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진행, 량강도선수단이 1등을 쟁취

△사로청창립 스물일곱돐기념 전국청소년빙상경기대회(1월 20~31일, 강계유원지 빙상경기장), 고등중학교, 고등기술학교, 사범대학, 기술대학 부문으로 나뉘여 속도빙상, 휘거, 호케이 등 경기가 진행, 종합성적에서 자강도(고등중학교부문), 평남도(고등기술학교부문), 강계제1사범대학(사범대학부문), 건설건재대학 (대학부문)이 1등을 쟁취, 10개종목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기념 평양시 국방체육구락부 무선통신경기대회 (2월 4일, 평양 신흥고등중학교), 단체 및 개인 전으로 수자와 문자를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진행, 1위 승호구역국방체육구락부

△제1차전국수산부문체육경기대회(3월 21~23일, 원산시신풍경기장) 달리기, 축구, 수류탄던지기, 무선통신 등 종목을 각 도 대항전의 방법으로 진행, 1위 함남도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일당백상》체육경기대회 (2월 9~25일), 19명의 선수들이 13개종목에서 공화국 새 기록을 수립

△평양시 체육구락부 빙상경기대회(12월 17~18일, 평양시 력포구역 공설빙상장), 1위 평양시 서성구역체육구락부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기념 대학생스키경기대회 (2월 18~23일), 3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조선국민회창건 쉰여섯돐기념 전국 장거리달리기 및 마라손경기대회 (3월 28~30일, 모란봉경기장), 1위 함남도선수단

△《조국통일》마라손경기대회 (4월 1일)압록강체육선수단이 1위를 쟁취하였으며 공화국 새 기록을 수립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기념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4월, 평양), 륙상, 력기 경기에서 3명의 선수들이 공화국 기록을 돌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기념 대학생구기종목경기대회 (4월 29일, 평양), 축구, 배구, 롱구 경기들이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신 쉰돐기념 전국고등중학교 학생 체육경기대회 (4월 25일—5월 4일, 평양), 1위 평양시

△6.1국제아동절 스물세돐기념 평양시 유치원어린이 체육경기대회 (6월 1일, 모란봉경기장), 자전거경기 《천리마달린다》와 국방유희 《우리도 일당백으로 준비되였어요》가 진행

△보천보전투승리 서른여섯돐기념 《보천보홰불상》 체육경기대회(6월 4~16일, 평양), 공기보총사격과 소구경규격권총사격에서 세계 새 기록을 수립

△평양시 체육구락부 인민반학생체육경기대회(6월 17~20일, 모란봉경기장), 시내 22개의 구역, 군 체육구락부 인민반학생들속에서 선발된 1천 3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제2차전국학생청소년탁구경기대회(6월 27~7월 4일, 평양체육관), 1위 평양시

△전국학생소년들의 《청소년체육명수》칭호쟁취를 위한 체육경기대회 (8월 5~13일, 석암, 송도원, 속후 중앙소년단야영소)

△학생절 열한돐기념 전국대학생체육축전 (9월 23~29일, 평양), 1천 7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1위 김일성종합대학(고등교육부문), 평양제1사범대학(사범교육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4차인민체육대회 (10월 6~21일), 240여만명의 체육선수들이 50여종목에 걸쳐 평양과 신의주, 남포, 강서, 사리원, 개성, 청진, 원산 등지에서 진행, 활쏘기 단식과 복식종합, 30메터 단식과 복식, 50메터복식에서 세계기록을 깨뜨림, 규격보총사격경기에서 새로운 세계기록을 돌파, 30명의 선수들이 륙상, 력기, 사격, 활쏘기, 자전거 등 27개종목에서 공화국 새 기록을 수립

〔국제경기〕 제4차세계유술강자대회(2월, 쏘련 뜨빌리씨에서 진행), 우리 나라를 비롯한 11개 나라에서 114명의 선수들이 참가, 우리 나라 선수들이 2, 3위 쟁취, 우승컵을 받음

△제3차국제개인별《금모래》컵쟁탈체조경기대회 (6월 8~10일, 벌가리아의 와르나), 우리 나라를 비롯한 15개 나라에서 62명의 선수들이 참가, 우리 나라 선수는 개인종합성적에서 110.75점으로 1위를 쟁취, 컵과 금메달을 받음

△1973년도 사회주의나라 청소년 친선 국제녀자배구경기대회 (7월 27~8월 2일, 평양),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로므니아, 벌가리아, 뽈스까, 쏘련, 웽그리아, 월남민주공화국, 체스꼬슬로벤스꼬 등 9개 나라 선수들이 참가, 1위 우리 나라 선수단 1조, 2위 우리 나라 선수단 2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탁구친선초청경기대회 (8월 25일—9월 7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 3대륙의 86개의 나라 및 지역 대표선수단들에서 1천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우리 나라 선수들 우승컵과 우승메달을 제일 많이 받음(우승컵 6개, 금메달 4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 우승메달 6개)

△1973년도 사회주의나라 청소년 친선 국제력기경기대회 (11월 9일—13일, 평양), 우리 나라를 비롯한 10개 나라 선수들이 참가, 우리 나라 선수들 2개종목의 세계 새 기록을 수립,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2개를 쟁취

이밖에도 수많은 국제친선경기들이 진행되였다. 경기들을 통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 나라 주체체육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출 판 보 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사업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출판물에서 당성이 완전하게 표현되도록 하며 그 대중성과 인민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광범한 근로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맺음으로써 출판물들의 진실성과 전투성을 더욱 높이는 문제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80페지)

당중앙에서는 종자론과 속도전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새롭게 내놓으시고 종자를 바로잡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가공하자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출판보도사상과 당중앙에서 밝혀주신 종자론과 속도전의 방침은 우리 당 출판보도사업 발전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매해 10월 14일을 방송절로, 11월 1일을 출판절로 제정하여 주시였으며 출판보도물 편집발간사업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 기자들과 출판보도일군들에게 《3.1월간상》, 《인민기자》(1973년 9월 22일, 2명이 됨), 《공훈기자》(1973년 9월 22일, 4명이됨)칭호를, 출판물인쇄부문에서 15년 이상 계속 일하면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군들에게는 공훈인쇄공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출판보도사상의 빛발아래 당중앙의 지도와 배려에 의하여 1973년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들은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히 장성발전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이 수많이 출판보급됨으로써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3대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혁명활동교양자료 출판정형

년도	김일성동지의 로작출판		혁명전통교양자료출판	
	종수	부수	종수	부수
1971년	35	1,402만 6천	81	1,008만 1천
1972년	49	1,816만 8천	85	1,130만 9천

우리 나라에서 발간되는 출판물들은 무려 수천종이나 된다. 신문, 잡지들이 모든 주민세대들에 한부이상씩 차례지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혁명력사교양자료들이 영어, 프랑스어, 로어, 중어, 일본어, 에스빠냐어, 아랍어 등 여러 나라말로 번역되여 출판보급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출판되는 매 출판물들의 인구 1인당부수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당중앙에서 밝혀주신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사상이 우리 당 출판보도의 모든 부문에 빛나게 구현된 결과 출판보도물에서 짧으면서도 중심사상이 명백한 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으며 속도전을 벌리는 과정에 보다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기풍이 확고히 선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관철자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한편 생산현장에 나가 3대혁명과업수행에 떨쳐나선 로동자, 농민들의 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출판에서뿐아니라 보급에 이르기까지 시기성, 기동성, 전투성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새로운 출판물배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며 모든 주민세대들에 신문, 잡지를 신속정확히 배포하기 위하여 1973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원산에서 전국출판물보급부문일군회의가 진행되였다.

〔신문〕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비롯하여 《민주조선》과 근로단체기관지들인《로동자신문》, 《로동청년》, 《근로녀성》그리고 각 도일보들, 인민경제부문별 신문들을 발행한다.

또한 영문과 프랑스문으로 발행되고 있는 《평양타임스》가 있다.

〔방송 및 텔레비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에 직속하는 보도기관으로서 제1방송, 제2방송, 텔레비죤방송, 대외방송을 조직진행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개성텔레비죤방송을 조직진행한다.

조선중앙방송은 1945년 10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조국개선연설을 실황중계한 때로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1946년 11월 26일 국제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기구에 가입하였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분야에서의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맺고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1973년 1월 21일 평양에서 체스꼬슬로벤스꼬텔레비죤방송사이에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지방방송; 우리 나라에는 중앙방송뿐아니라 각 도, 시, 군들에도 방송위원회들이 있으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까지 방송설비가 있어 해당한 시간에 방송을 하고있다.

〔통신〕조선중앙통신사; 1946년 12월 5일에 창립된 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에 직속하는 우리 나라의 유일한 통신보도기관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일간 《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문통신》, 《로문통신》, 《프랑스문통신》, 《에스빠냐문통신》등의 통신들과 《조선중앙년감》을 비롯하여 대내외선전에 필요한 출판물들을 편집발행한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대외통신으로서 로문, 영문, 프문, 에문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방향별 송신을 조직진행한다.

〔잡지〕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를 비롯한 정치리론잡지, 《조선녀성》, 《청년생활》을 비롯한 계층별잡지, 《조선예술》, 《조선문학》, 《영화문학》을 비롯한 문학예술부문잡지, 《천리마》를 비롯한 대중종합잡지, 《새세대》, 《새희망》, 《꽃봉오리》, 《우리 동무》를 비롯한 학생소년잡지, 《오늘의 조선》을 비롯한 대외선전부문잡지 등 수많은 정기간행물들이 발간된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3년부터 잡지《사회과학》과 《대학생》이 새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주체예술은 세계예술사발전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일대 혁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현명한 령도, 당중앙의 지도와 배려에 의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은 《세계최고봉의 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였으며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은 찬란히 꽃피고있습니다.…우리의 문학예술은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30폐지)

실로 우리의 주체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문예사상의 빛발아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높은 예술적형상속에 담음으로써 온 세상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만수대예술단과 피바다가극단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예술단은 1971년 9월부터 1973년 9월까지의 기간에 중국과 쏘련, 로므니아와 알제리, 프랑스와 스위스, 영국과 이딸리아, 파키스탄과 애급 그리고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방문공연하여 우리 나라 주체예술의 위대한 생활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다.

우리 나라 예술단의 외국방문공연

공연기간	공연한 예술단체	공연한 나라	공연한 작품	공연회수 및 관람자수
1971. 9.28—12.9	피바다가극단	중국	혁명가극《피바다》	50여회, 18만명
1972. 1.26—2. 8	피바다가극단	알제리	혁명가극《피바다》	2만 300여명
1972. 2.9 —2.22	피바다가극단	로므니아	혁명가극《피바다》	
1972. 2.23—3.6	피바다가극단	쏘련	혁명가극《피바다》	
1972. 1.27—3주일간	만수대예술단	프랑스	음악무용종합공연	16회
1972. 3.8 —3.11	만수대예술단	스위스	음악무용종합공연	수십회
1972. 9.6 —9.20	평양예술단	파키스탄	음악무용종합공연	14회, 7만 4천 300여명
1972. 9.28—10.8	평양예술단	애급	음악무용종합공연	6천여명
1973. 3.12—4.10	만수대예술단	영국	음악무용종합공연	13회
	만수대예술단	이딸리아	음악무용종합공연	23회
1973. 7.30—9.13	만수대예술단	일본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음악무용종합공연	60회, 20만명 (텔레비감상 수천만명)
1973. 8.12—9.2	평양교예단	스웨리예	종합교예공연	11회 (10만 800여명)
	평양교예단	노르웨이	종합교예공연	2회
	평양교예단	단마르크	종합교예공연	3회
1973. 5월중순—6월말	만수대예술단	중국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음악무용종합공연	37회, 20여만명

이밖에도 조선인민군협주단은 인민상계관작품인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가지고 뽈스까 (1973년 7월)를 방문공연하였으며 만수대예술단은 싱가포르, 버마,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하였다.

또한 평양교예단은 여러 종목의 교예작품들을 가지고 몽골, 벌가리아, 로므니아, 체스꼬슬로벤스꼬, 파키스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여 종합교예공연을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의 중국방문 그리고 일본과 멀리 영국, 이딸리아 방문공연은 이 나라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환희와 감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항구와 역두, 연도와 극장들,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발걸음을 옮기는곳마다는 향기로운 꽃묶음과 공화국기발을 든 수만, 수십만의 환영군중들로 꽉 들어찼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만세!》의 환호성은 런던과 로마의 하늘 높이 울렸고 온 일본땅에 진감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의 조직구성

당중앙에서 무어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의 전신은 1946년에 조직된 평양가무단이다.

예술단은 1969년 9월 27일부터 만수대예술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였다.

만수대예술단은 300여명의 재능있는 예술인들로 구성되여있다. 그 가운데는 공훈남성중창조와 녀성중창조, 독창, 독주가들이 있고 3관편성으로 된 관현악단과 민족관현악단, 50여명의 남녀무용배우들로 구성된 무용단, 우

수한 창작가들과 지휘자들이 있다.

만수대예술단의 주요 공연종목 (1973년)

노래부문

1. 《김일성장군의 노래》
2. 《내나라》
3. 《천리마대진군의 노래》
4. 《빈영하라 조국이여》
5. 《문경고개》
6. 《도라지》
7.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8. 《밭갈이 노래》
9. 《벼가을하러 갈 때》
10. 《내조국 한없이 좋아라》

무용부문

1. 《눈이 내린다》
2. 《조국의 진달래》
3. 《풍년맞이》
4. 《사과풍년》
5. 《부채춤》
6. 《쟁강춤》
7. 《양산도》
8. 《삼인무》
9. 《청춘》
10. 《목동과 처녀》

우리의 주체예술을 찬양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반향자료

우리 나라 예술단의 외국방문공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 폭풍과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상사람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나라 조선은 주체의 조국, 예술의 왕국, 20세기의 리상국이다.》라고 하면서 태양과도 같이 빛을 뿌리는 우리 나라 주체예술에 대한 경탄을 금치못하였다.

여기에서는 1971년 9월부터 1973년 9월까지의 기간에 우리 나라 예술단의 다른 나라 방문공연에서 불러일으킨 수많은 반향자료들 가운데서 그 일부를 사상-내용별로 추려서 편집하였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영광찬란한 주체예술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 주체예술의 탄생, 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찬란히 꽃핀 우리 나라 주체예술은 세계 수억만 사람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으며 흥분과 경탄, 환희로 들끓게 하였다.

중국신문 《문회보》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적문예사상의 빛발아래 조선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은 활짝 꽃피여났다.》

일본의 공무원 이와다 가나메는 《조선예술을 보고 아세아가 환호하고 서구라파가 머리숙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조선은 경치아름다운 금강산이 있어 예술이 꽃피는가. 특별히 재능있는 예술인이 많아 예술이 발전하는가. 결코 그런 리유때문이 아닐것이다.

같은 사회주의제도라고 하여도 예술이 꼭같이 개화하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예술에 대한 지도사상과 령도예술에 달려있다는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 예술공연을 본 세상사람들은 조선예술이 《세계 최고봉의 예술》로 개화발전한것은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라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말하였다.

《예술은 전통과 력사우에 꽃피는것이지만 태양이 없는 토양에서는 꽃을 피울수 없듯이 령도자와 그의 옳은 지도사상이 없이는 개화할수 없다.

령도의 예술가 김일성주석님과 그이의 주체철학의 빛발아래서만 조선예술이 개화발전할수 있었다는것을 오늘의 무대를 통하여 잘 알았다.》 (일본소도꾸고등학교 교장 니시다 사나에) 《우리는 조선예술이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존경하는 김일성원수님의 지도밑에 창조되고 그 뿌리가 굳건히 다져졌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뿌리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도놀지 않으며 풍만한 토양우에 선 나무는 마를줄 모르는 법이다.

조선예술은 그 전통적뿌리와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반우에서 꽃핀다는 현실근거로 하여 영원히 빛나는 모범으로 될것이다.》 (이딸리아공산당 볼로냐주위원회 비서 올리비 마울로) 《김일성각하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20세기의 사람이라 말할수 없으며 조선예술을 모르고서는 참된 예술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이딸리아 볼로냐시에 사는 로동자 알베트)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원 히로가네는 《조선예술은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창조된 가장 뛰여난 미적창조물, 인류가 쌓아올린 예술탑의 정점에서 찬연히 빛나는 황금별이다.

그 빛발 비치는곳에 희망에 넘치는 봄인덕이 펼쳐지고 행복의 열매 주렁진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또한 영국의 한 교원은 《탁월한 령도, 정확한 지도사상은 훌륭한 예술을 낳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예술은 기적을 낳고있으며 세계예술사의 페지에 찬란한 금자탑을 쌓고있다.》고 하면서 가장 높은 찬사를 보내였다.

일본 이바라기대학 교수 기모또 히데오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창조되는 사회주의조선의 민족예술은 참으로 눈부시다.

이것이야말로 대지에 뿌리내린 인민대중의 가슴에 깊이 심어진 인간정신의 약동하는 예술의 모범이다. 이 모든것의 비결은 주체사상에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여, 영생불멸하라!

인류의 앞길에 더욱 찬연히 빛나라!》

이것은 결코 그 혼자만의 심정이 아니였다. 참된 예술의 오늘과 래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오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건전한 발전은 결국 지도사상과 리론에 따라 좌우된다. 조선예술은 오늘뿐만아니라 미래를 대표하는 가장 진보적인 예술이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미래를 앞당겨 오는 사회혁명의 지도사상과 관련되여있는바 그것은

바로 주체사상이다.

가장 혁명적이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예술을 낳은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이딸리아의 평론가 아르바로도)

《만수대예술단의 오늘의 공연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 주체적문예사상의 찬란한 개화, 그의 빛나는 열매를 시위하는것으로 되였다.》(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외장 야스이 가오루) 《조선의 〈주체예술〉,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인민에게 복무하는 예술이다. 현대예술의 대성좌 조선예술의 찬연한 빛발, 그것은 주체의 빛발이다. 영원히 빛날 조선예술의 빛발, 그것도 역시 주체의 빛발이다.

김일성주석, 그이는 온 누리에 희망의 빛발을 뿌리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다.》(일본사회당소속 중의원의원 기다하라 미노루)

일본 나고야시에 있는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성원인 교원 나까무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리론, 지도와 배려밑에서 꽃피여난 주체예술에 대한 열렬한 환호, 그것은 그이에 대한 존경과 흠모를 말하여주는 뜨거운 마음들의 표현인것이다.》

일본 기요미즈데라 교학부장 후구오까 세이도는 《예술을 사회발전에 복종시키고 인민의것으로 되도록 지도하여오신 김일성주석님의 령도가 꽃피여난 화원이 바로 만수대예술단의 무대가 아니겠는가. 나는 공연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넓고도 깊으신 사랑이 기쁨과 행복, 희망으로 꽃피여난 예술이라는 생각에 격해지는 감동을 어찌할수 없었다.》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또한 일본 사이다마현지사 하다 야와라는 《위대하신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력이 조선의 문학예술을 과연 세계1등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이의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참으로 조선의 주체예술은 기존예술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난 독창적인 예술세계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별처럼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최대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영국과 이딸리아, 스위스에서의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은 《일대사변적인 공연》으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이 낳은 천재이시며 대리론가이시며 문예사상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자기 나라를 공업과 농업이 발전한 강국으로 만들었으며 예술도 이처럼 금강석의 예술로 발전시켰다.》(스위스의 한 통신기자)

《김일성주석님의 명함은 태양의 해발처럼 영원히 빛나고 그 해발속에 주체예술은 별처럼 반짝일것이다.》(이딸리아의 한 로동자)

《우주의 태양은 하늘에 빛나고
인류의 령도자는 조선에 계시거니
이제 세기의 흐름은 방향을 바꾼다.
보라, 력사의 방향타를 돌리시는
김일성동지의 영명한 저 가르치심을…》(영국 런던 조선소로동자 해만)

그렇다! 우리 나라의 《주체예술》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음으로 하여 《인류예술사에 찬란한 금자탑을 쌓은 예술》로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의 일본방문공연은 또한 이 나라 인민들속에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나라 조선은 주체의 조국, 예술의 왕국, 20세기 리상국이다. 지금 많은 일본사람들과 세계인민의 이목이 조선에로 집중되는 그 거대한 시대적추세의 중심기저에는 이러한 동경과 열망이 놓여있는것이다.》(일본의 실업가이며 사회당원인 구로두마 다다시)

《전체 인민이 흠모하여마지 않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안고 조선의 예술인들은 세계적인 예술을 창조하였다.

조선인민이 독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예술이 자기 수령의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에 의거하고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조선의 예술은 앞으로도 크게 전진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가나가와대학 학장 미야가와 다께오)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은 인류예술의 미래를 밝혀준 새 력사의 등대이라고 생각한다.》(도꾜 마루이찌상사주식회사 관서지점장의 부인 스즈끼미오)

△ 당의 세련된 지도는 주체예술의 눈부신 발전의 근본담보

우리 나라 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문예사상의 빛발아래 당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세계1등급의 예술》, 《금강석의 예술》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을 본 영국의 한 연극학교교원 가스피 소로로는 《아름다운 무용, 천재적인 연주기교는, 장미꽃을 하루아침에 꽃피울수 없듯이 하루이틀사이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예술에 대한 옳은 방향, 세련된 지도 그리고 풍만한 현실생활의 바탕이 있을 때 인민적재능이 무한히 발휘될수 있다. 조선예술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우리 나라 예술단이 중국방문공연시 중국신문 《인민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의 문예일군들은 김일성주석의 혁명적문예사상을 받들고 당의 로선에 의거하여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고 현실에 침투하며 우수한 민족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함으로써 천리마시대에 맞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 평양만수대예술단은 이러한 투쟁에서 걸출한 공헌을 하였다. 그들이 창작한 음악무용예술은 조선의 사회주의민족예술의 화원에 피여난 가장 아름다운 꽃의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떨치였다.》

우리 나라 예술단의 공연을 본 세상사람들은 《인류예술의 오늘과 미래를 대표하는 조선예술》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한결같이 피력하였다.

《조선의 문학예술을 지도하시는분은 세계가 일찌기 알지 못한 위대하고 천재적이며 가장 다방면적인 스승이시다. 나는 이것을 공연을 통하여 잘 알수 있었다.》(런던의 한 연극극장 무대감독원 파너)

《무용가들, 연주가들, 배우들 모두가 천재적인 예술가들이며 세계적인 명배우들이다. 녀배우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금메달의 〈녀왕〉으로 태여나지는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세계예술의 왕좌에 높이 앉아있다.

조선예술인들의 이 영광은 그들이 행복하게도 탁월하고 위대하고 천재적인 대스승을 모시고있음으로 하여 마련된것이다.

나는 이처럼 훌륭한 세계적예술인들을 키워주시고 조선의 문학예술을 지도하시는분께 충심으로부터의 최대의 영광을 올리는바이다.》(영국의 녀배우 마리아테르)

《노래도, 무용도, 무대배경도 모두가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생활속에서 나온 예술이라도 련마하지 않으면 막돌이나 같아지는 법인데 만수대예술단의 모든 종목은 천재적인 지도에 의하여 빛나게 다듬어진 구슬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운 예술의 신비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예술단을 정신적으로, 예술

기술적으로 지도하여 이끌어주시는 그 위대한 지도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여마지 않는다.》(《아사히신붕》사 청탁사진가 다지마)

2. 주체조선의 예술은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최고봉의 예술이다

△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충성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송가이다. 나는 그처럼 감명을 안겨주는 노래, 이처럼 불타는 혁명적기백과 충성의 열정이 끓어넘치고 강력한 박력으로 안겨오는 합창을 처음 듣는다. 이 노래에는 김일성주석님의 혁명력사와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흠모의 정, 수령과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의 총체가 가장 집약적으로 감명깊이 담겨져있다.》 (일본의 이름있는 시인 오노 도사부로)

런던 우드포드거리에 사는 한 로동자부부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들으면 앞길이 환히 내다보이고 이 노래를 부르면 새 힘이 솟는다.》고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말하였다.

우리 나라 예술단의 공연을 본 세상사람들은 우리 예술인들이 부르는 충성의 혁명송가를 함께 부르기도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여 일치하게 자기들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또리노심장부에서 울린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알프스산맥의 눈보라를 혁명의 봉화로 되게 하여 이딸리아 로동계급의 심장을 영원히 불타오르게 할것이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며 인민의 이딸리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울것이다.》 (이딸리아 《피아트》자동차공장 로동자 뜨라이꼬)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노래이다. 힘이 진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갈 때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는다.

사람들에게 투지를 안겨주고 희망잃은 사람에게 미래를 밝혀주는 이 위대한 혁명송가는 세계혁명가들의 심장마다에서 힘차게 울리고있다.

나는 오사까항에 머무르고있는 구라파에서 온 한 화물선에서도, 아프리카로 가는 려객기안에서도 이 노래를 들었고 팔레스티나항쟁자들의 수기에서도 이 노래 가사를 보았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다.》(일본 오사까의 한 회사에서 일하는 이즈미 겐자이)

《각국의 로동계급은 이 노래를 부르며 전진할 것이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국제로동계급은 최후의 철쇄를 벗어던질것이다.》(일본 오사까조선소 로동자 이이누마 준)

△ 로동계급에게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예술 철저히 로동계급에게 복무하는 참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우리의 주체예술은 높은 사상성과 예술적형상의 완벽성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속에 열광적인 환호와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대중에게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예술, 인민을 위한 음악을 창작하라고 하신 교시를 관철하는길에서 조선의 예술인들은 특출한 성과를 거두었다.》(중국료녕가무단의 한 배우)

《오늘 우리는 당신들의 공연을 보고 로동계급의 예술이란 어떤것이며 사회주의예술이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활짝 꽃핀 조선예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살며 배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있다. 조선예술은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사회주의민족예술로서 〈예술을 위한 예술〉과는 인연이 없다. 조선예술은 그야말로 혁명적교양의 무기이다. 조선예술은 로동계급의 예술, 사회주의예술의 최고봉이다.》(파키스탄 타호르 관자브종합대학 학생 무샤히드)

이딸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제노아시당 제1비서인 안또니오 몬떼페쓰는 《조선예술은 완전무결한 혁명적예술이며 로동계급에게 철저히 복무하는 사회주의사실주의예술이다.》라고하면서 자기의 감탄을 표시하였다.

천리마조선의 주체예술을 칭송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것을 심장으로 느끼며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조선예술은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순결한 감정을 안겨주며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위대한 고무자이다.》(영국 런던에 사는 예비역군인인 어이취 브룸마취)

《조선예술은 예술성은 더 말할것도 없고 사상적내용이 아주 깊어서 가치가 대단히 높다. 당신들의 예술은 참된 인간, 참된 행복, 참된 리상에 대한 철학이다.》(쁠스까 루빈농장의 한 로동자)

《조선예술은 새세대들을 건전하게 교육교양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교과서이다. 우리는 지금 학생들을 극장이나 영화관에 보내기 겁나하고있다. 거기에 가면 대체로 나쁜것을 배워오고있다. 그런데 조선예술은 무용, 음악, 교예 등 모든 종목이 학생들에게 건전한 의식, 용감성, 투지를 길러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이딸리아 또리노시에 사는 한 교원)

또한 일본사회당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는 《조선예술의 고유한 특징은 그 어느 작품에서나 가장 고귀한 조국애가 맥맥히 흐르고있다는것이다.》라고 감탄하여마지 않았다.

조선예술에 매혹된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조선예술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온갖 불건전한 생각을 버리게 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 복무하도록 고무하는 혁명의 무기이다.》(쁠스까 자브제시에 사는 한 로동자)

《나는 오늘저녁 예술의 기적을 보았다. 혁명적내용이 고상한 예술적형상속에 폭포처럼 흘러나와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린다. 그리고 그 폭포의 물결은 우리의 가슴속에서 굽이치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의 길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 〈참된 인간이 되라〉, 〈아름답게 살라〉이렇게 웨치고있다.

나는 조선예술이 안겨준 이 힘찬 웨침을 들으며 영원히 억세게 살아갈것이다.》(민주독일 의약품상사의 한 지도원)

《조선의 예술은 사상적으로 매우 높고 예술적으로 완벽한 결실을 맺은 진실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예술이다.》(민주독일 라이프찌히에 있는 한 전문학교 교원)

△ 주체예술이 솟은 조선은 20세기 사회주의문예부흥의 발원지 동방의 조선에서 솟은 완전무결한 예술;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무대우에 올린 모든 예술작품들은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내용으로 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관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20세기사회주의문예부흥은 동방의 조선, 영웅도시 평양에서 시작되였다.》(이딸리아의 한 대학교수 바르꼰 부루길리오)

《조선예술은 참으로 독특하게 완성되였다. 흠잡을데 없는 그 예술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정신세계를 그려보았다. 자본주의나라는 말할것도 없고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문화예술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있을 때 문화예술의 발전에서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는 조선이며 그 예술은 바로 주체예술이다.》(일조문화교류협회 대표리사 야마네 긴지)

《조선이 해방된지 이제 30년도 채못되는데 예술분야에서도 세계의 기존권위자들의 머리우를 뛰여넘어서 최고봉에 올랐으니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이제 조선예술은 세계예술의 절대적인 최고권위자다. 조선에서 추켜든 지휘봉이 가리키는 곳에 참다운 극치의 예술이 꽃핀다.》(일본의 작곡가이며 지휘자인 도야마 요조)

이딸리아인 기술자 까스빠르는 《조선의 예술이야말로 세계 제1등급의 예술이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예술이다. 푸른 호수처럼 맑고 활짝핀 진달래처럼 아름다운 조선예술에서는 예술의 진미가 금강석처럼 반짝이고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말하였다.

또한 이딸리아의 한 의사 까꼬로우보니케는 《조선예술의 심오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은 인간의 멎은 심장에도 피가 넘치게 할수 있다.》고 하면서 감탄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일본의 후지산이 아무리높다하여도 조선예술의 높이에 비길수 없으며 태평양이 아무리깊다해도 조선예술의 깊이에 비길수는 없다. 조선예술은 태양처럼 빛나고있다. 진정한 예술을 찾으려면 우리는 조선에 가야 한다.》(일본학술회의 이전회장 도모나가 신이찌로)

《조선의 주체예술은 백두산의 숭엄한 기상과 금강산의 신기한 정서와 진달래꽃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결합한 세계최고봉의 예술이다.》(이딸리아의 한 배우)

《조선예술은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예술이다.

조선예술은 해빛보다 밝고 수정보다 맑으며 장미꽃보다 아름다운 1등급의 예술이다.》(영국 런던에 있는 한 소녀)

《조선예술은 가장 뛰여나며 으뜸가는 예술이다. 동방일각에 솟아있는 완전무결한 예술이다.》(파키스탄의 카라치주재 유고슬라비아총령사)

세상사람들은 또한 우리 나라 예술작품들을 《우리 시대 사람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은 걸작》으로 높이 찬양하였다.

스위스의 저명한 사회활동가인 네온 포이싸로드는 《조선의 예술은 맑은 아침과 같이 신선하고 아름답고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이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고 하면서 높은 찬사를 보내였다.

영국 런던에 사는 예술학연구사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세기예술사편에 위대하고 빛나는 조선예술에 대하여 기록하고있지 않은 책들에는 파면선고를 내릴 때가 왔다. 미래는 세계예술사가 조선예술로 수놓아질 영광스러운 시대로 될것이다.》

이것은 그들만의 심정이 아니였다.

세상사람들은 우리의 예술작품들을 《인류가 영원히 보존하여야 할 세계적명작》이라고 일치하게 말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예술은 세계의 예술사발전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일대 혁명으로 된다. 시들어가는 화원에 건전하고 청신한 미로 피여난 붉은 장미와 같이 아름다운 조선예술은 현대예술의 미를 독점하였다.》(규슈대학 교수 세이이찌)

《오직 위대한 령도자를 우러러 하나로 단합된 조선의 모습이 힘있게 안겨오는 무대여,

위대하다! 찬란하다! 천재의 예술, 태양의 예술, 조선의 주체예술이여, 더욱 아름답고 세차게 빛발쳐가라! 하여 지구의 온갖 오물을 깨끗이 쓸어버리라!》(히로시마의 한 관람자)

《조선예술은 안무와 연기에서 최고, 작곡과 연주에서도 최고, 무대미술과 무대안쌈블에서도 최고이다. 세계 최고의 조선예술 만세!》(영국의 바레배우 장드페이안)

독특하고 참신한 주체음악;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이 부른 참신한 음악은 시대의 메아리인양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세차게 울리였으며 한없는 흥분에 휩싸이게 하였다.

애급의 한 예술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싶고 그 심오하고 생신한 노래의 세계속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는 통속적이며 민족적인 선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적미감의 최고경지에 오르고있는 당신네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세계음악발전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고 심장으로 환성을 울렸다.》

일본의 작곡가 기요세 야스지는 《나는 오늘 조선의 주체예술을 보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비로소 똑바로 찾았다. 조선의 음악에는 새 조선의 부흥의 숨결이 있고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혁명에 일떠선 인민의 귀중한 힘이 맥박치고 있다. 하기에 틀에 매여있는 기존음악과는 달리 진정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것이다.》라고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또한 영국의 한 음악가는 《조선음악은 민족적 정서가 그 어느 나라의 음악보다 더욱 뚜렷이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미감에 꽉 맞는 독특하고 참신한 음악이다. 조선음악에서는 폭포의 물살과 같이 힘이 느껴지는가 하면 호수의 잔잔한 물결과 같이 은은한 맛이 안겨오기도 한다. 나는 기쁘고 즐거운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슬프고 고달플 때나 항상 조선음악을 듣고 거기에서 삶의 보람과 생의 희열, 미래에 대한 지향을 느끼고싶다.》고 하면서 감탄을 표시하였다.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을 본 세상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음악은 평범한 음악이라기보다 선녀들의 마술적인 피리소리와도 같이 비상하고 우아하다. 하나 그 음악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선률로 특징지어있기때문에 누구나 쉽게 리해할수 있으며 또한 나처럼 각종 조류나 만지는 사람도 쉽게 따라부를수 있다.》(영국자연력사박물관 조류학자마카넬)

《창조적이고 락천적이며 참신한 조선의 음악은 현대음악예술의 앞길을 밝혀줌으로써 위대한 세기적공헌을 하였다.》(영국 런던대학 교원 루돌프 스키미드)

《조선의 음악은 동서방에서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음악이다. 특히 조선의 민족기악은 구라파에서는 도저히 들어볼수 없는 새로운것이였다. 맑은 음색, 우아한 선률, 훌륭한 연주기교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는 인민적인 민족음악의 본보기이다.》(영국의 한 음악가)

또한 이딸리아의 한 바이올린연주가는 《당신들의 관현악편성은 일찌기 세계음악계에서 들어보지 못한 새롭고 독창적인것이였다. 특히 조선악기는 민족적이면서도 현대사람들의 사상감정을 잘 나타내고있다. 개량된 민족악기라고 하는 해금과 저대는 그 울림의 정서가 풍부하고 음색이 뚜렷하며 여러가지 감정을 나타내고있다.

당신들의 연주를 들으니 나의 훌륭한 바이올린은 권총이나 보총이고 당신들의 해금은 로케트와도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서 우리의 민족악기를 못내 부러워 말하였다.

조선무용은 인간의 삶과 투쟁에 대한 감명깊은 서사시; 우리 예술단의 공연을 본 이딸리아의 바레

무용평론가 비호따니교수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선무용은 우선 내용이 건전하여 좋고 또한 무용언어도 섬세하고 풍부하며 조선인민의 깊은 사상과 감정세계를 정확하게 그려내고있다.》

이딸리아 로마에 사는 한 바레배우는 《우리 구라파무용이 부끄러운 육체예술로 전락되고있다면 조선무용은 고상한 정신예술로 발전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조선무용과 구라파무용이 근본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하였다.

또한 영국의 한 평론가 제이그린메일드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건전한 의지를 잘 반영하고있는 조선무용은 세계의 무용이 어떻게 발전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준 모범이다.》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조선무용은 지금까지 창조된 아세아와 구라파의 모든 무용들을 무색케 하였다.

세계의 모든 무용은 바로 조선무용이 제시하고 조선무용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은 와르샤와에 사는 안무가 구보마르츠까의 말이다.

우리 나라 예술단의 공연을 본 세계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은 조선의 무용이 바로 인간의 산생활과 리상, 로동을 완벽한 예술적화폭으로 반영하고있기에 자기들을 그토록 격동시킨다고 하면서 《눈이 내린다》, 《조국의 진달래》, 《사과풍년》 등 우리 나라 예술단이 무대에 올린 모든 무용작품들에 감탄을 표시하였다.

《혁명적인 무용 〈눈이 내린다〉와 〈조국의 진달래〉는 20세기 반제전선에서 사람들을 혁명에로 부르는 우렁찬 진군나팔이다. 프로레타리아혁명에로 고무하는 영웅전사들의 진군나팔이여, 세계 제국주의아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더욱 힘차게 울려라!》(이딸리아 금속로동자 나가르노마 에디알요)

《무용 〈고난의 행군〉의 나팔소리는 온 세계의 혁명의 메아리로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다.》(민주독일 라히프찌히에 사는 한 기사)

《〈눈이 내린다〉, 〈사과풍년〉과 같은 조선무용은 인간의 삶과 투쟁에 대한 감명깊은 서사시이며 로동의 기쁨과 생의 희열이 용솟음치게 하는 주옥같은 예술이다.》(영국의 설계기사이며 교원인 버크)

3.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가극혁명의 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피바다》식 가극의 탄생은 현대가극발전의 새 기원 《예술의 왕국-조선에서 울린 가극혁명의 포성은 인류예술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이것은 일본전국로동자문학예술조직성원 하시모도의 말이다.

우리 나라의 가극을 본 세상사람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맥맥히 굽이치고있으며 인민의 념원을 완전무결한 예술적형상속에 담고있는 조선의 가극이야말로 현대가극발전의 새 기원을 열어놓았다고 일치하게 말하며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통속적이면서도 철학적심도를 가지는 노래들, 움직이는 무대의 호흡, 비상한 매력을 안고 흐르는 무용, 모든것이 기존개념의 우에 높이 서있는 독창적인 예술의 정수였다.

의심할바 없이 이 가극의 새로우며 완성되고 훌륭한 절가와 방창, 무용, 미술과 같은것은 세계가극발전에 보편적의의를 가지고 조선식가극, 주체가극의 새로운 지배적경향을 산생시킬것이다.》(일본의 작곡가이며 교수인 모리와끼 겐조)

《사상도, 선률도, 색채도, 률동도 모두 아름답고 모두 독창적이며 성공적이다. 조선의 혁명가극은 의심할바없이 그의 사상정신적건전성과 예술적완벽성으로 하여 세계가극발전에 지도적영향을 미칠것이다.》(일본의 영화감독 요시무라 고자부로)

《이 가극은 종래의 모든 낡은것, 좋지 못한것을 말끔히 가셔낸 실로 청신한 새형의 가극이다. 우선 가극은 인민들속에 흔히있는 생활, 오늘도 어디에나 있는 실제적인 생활을 그리면서도 심각한 철학적문제성, 혁명에 대한 근본문제를 제기하고있는데서 기존가극과 구별되는것이다.》(일본의 이름난 녀배우 나까무라 다쯔)

도까이음악무용회의 대표위원인 작곡가 구마가이 겐이찌는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평범한 머슴가정의 작은 이야기를 계급적, 사회적 문제에로까지 확대발전시켜 혁명의 근본문제를 밝혀낸 작품의 높은 형상력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다. 아름다운 다양한 노래가 집대성된 가극, 아름답고도 가슴에 안겨오는 선률, 높은 수준의 노래형상, 진실한 연기, 황홀한 무용 그리고 순간의 방심도 허용치 않는 비상한 견인력을 가진 장면전환, 이 모든것은 우리의 인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것이다.》

일본 나고야에 사는 한 음악연주가는 《조선에서의 새형의 가극창조는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으로 된다.》고 감탄하였으며 일본 오사까부의회 사회당소속의원인 오오다이 다쯔오는 《독창적인 조선의 혁명가극은 우리 아세아사람들의 자랑으로서 세계의 새로운 혁명가극전통을 세우는 첫 주추돌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이러한것은 우리 나라의 혁명가극을 본 수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조선의 예술인들은 가극의 복고적인 전통을 깨뜨린 혁신의 봉화로 온 세상 가극전문가들을 놀래우고 기쁘게 하였다. 조선예술인들은 그 공로로 세계가극사에 새로운 페지를 차지할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뽈스까 브로슬라브시에 사는 크림꼬비치)

《조선의 혁명가극은 인류예술의 모든 성과를 집대성한 최고봉의 가극이다. 조선혁명가극은 시들어가는 구라파가극에 신심을 주고 빛을 주고 희망을 주었다.》(뽈스까 와르샤와의 가수 야심스끼)

《이것은 단순히 가극이라는 예술의 범위를 벗어난 종합예술의 극치를 시위한 천재적인 창작예술이다. 대담한 환상, 적극적인 탐구, 완성된 기교를 갖추고있는 창조집단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였다.》(중국 베이징의 한 극장 미술가)

뽈스까인민군의 한 군관은 《조선의 혁명가극은 모든 나라 가극의 귀감으로 된다. 앞으로 가극은 조선의 혁명가극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가야 성공할수 있다.

조선의 가극은 사상성에서나 예술성에서 현대가극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밝혀준 모범이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일본 오사까시립 히가시 이꾸노중학교 교원 야마구찌 시게루는 《조선혁명가극은 바로 어제날까지 세계가극무대를 지배하던 서양가극의 차원을 깨뜨리고 그에서 완전히 벗어난 전혀 새롭고 높은 차원의 가극으로서 가극발전의 새 기원을 선포한 선명한 기발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혁명가극에 매혹된 수많은 관중들은 일치하게 말하였다.

《우리 시대의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이 그대로 맥박치고있는 혁명가극 〈피바다〉는 세계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혁명적대

걸작이다.》(쏘련에서 공부하고있는 콜롬비아의 한 학생)

《혁명가극 〈피바다〉는 가극예술이 가져야 할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예술성을 완벽하게 구현하고있으며 그것은 종합예술로서의 가극의 본보기로 되며 진실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가극의 시발점으로 된다.》(알제리 신문 《엘 무쟈히드》)

《정녕 조선예술을 보지 못한 사람은 현대의 문명인으로서 예술을 론할 자격이 없고 〈꽃파는 처녀〉를 모르고는 세계가극에 대하여 어떻다고 발언할 권한이 없다. 이제 나는 이렇게 선포할 자격을 가졌다. 〈인류는 새형의 대모범가극발견, 조선은 현대가극발전의 력사적발원지〉라고》(녀공무원 오노야스요)

또한 일본 교도통신사 사회부차장 하시모도 아끼라는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꽃파는 처녀〉는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위대한 가극혁명이며 이 작품이 나옴으로 하여 약 400년의 력사를 가지는 가극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이딸리아에서 귀족들의 취미본위로 시작된 가극이 동양의 싸우는 나라 조선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조선뿐아니라 아세아의 자랑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의 한 지휘관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심심풀이로 보는 예술이 아니라 혁명의 진리를 밝혀주는 불멸의 교과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의 혁명가극을 본 관중들은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의 빛발아래 주체예술의 화원에 핀 또하나의 붉은 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뽈스까 브로슬라브시의 한 시민)

《가극 〈당의 참된 딸〉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반제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이 가극은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불멸의 교과서이며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문예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뽈스까의 와르샤와에 사는 한 배우)

△새로운 가극혁명을 통한 《피바다》식가극극작술의 완성

가극음악의 절가화와 방창의 도입은 현대가극 발전사의 력사적 전환점으로 된 대발견; 세상사람들은 자기들을 그토록 격동시킨 우리 나라의 《세계최고봉의 혁명적주체예술》을 보면서 그 독창성을 가슴 뜨겁게 느끼고 소리높이 칭송하였다.

《조선의 혁명적문예일군들은 가극을 절가화할데 관한 조선로동당의 방침에 따라 대담하게 실천하고 대담하게 창조하여 민요의 절가형식을 목적성있게 적용발전시킴으로써 가극을 조선의 인민대중이 좋아하며 쉽게 배우고 잘 리해할수 있는 민족예술형식으로 되게 하였다.》(중국신문 《문회보》)

《가극의 노래를 절가로 한것이 가극발전에서 하나의 위대한 세계적인 발견이라는것을 알았다.

뽈스까에서는 꼬뻬르니크가 지구운동설을 내놓은것을 자랑하고있는데 가극음악의 기본형식으로 절가를 발견한것은 꼬뻬르니크의 지구운동설을 릉가하는 위대한 발견이다.》(와르샤와에 사는 음악교원 글리지나)

《절가로서 음악을 그토록 고조시킬수 있을줄은 몰랐다.…

이는 조선에서 개척된 절가와 방창이 가극에서 만능의 역할을 훌륭히 발휘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 새 형식의 도입으로 세계의 가극은 비로소 완벽한 무기를 얻었다.》(일본 도꾜이 음악무용회 대표위원인 작곡가 구마가이 겡이찌)

또한 작가 오오까 쇼헤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노래는 매우 평이한 민요조형식을 따고있으면서도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투쟁도 다 표현해내는데 특징이 있다. 이것이 절가화의 비결일것이다. 특히 방창을 도입하여 음악의 색갈을 풍부히 하고있을뿐아니라 생활을 깊이있게 그려내고 거기에 관중까지 이끌어들이는것이 혁명가극의 또하나의 특성일것이다.

바로 절가, 방창 등이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을 구현함으로써 나올수 있었다는데 우리가 연구하며 배워야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절가를 기본음악형식으로 한 혁명가극은 그에 따라 방향도 새롭게 내여놓았는데 이로써 서양가극의 아리아와 대화창은 대중의 심판장에 나서서 검토를 받게 되였다.

조선가극의 주되는 혁신은 바로 가극음악의 철저한 절가화인데 이로부터 련관된 모든 혁신은 우리 일본가극에도 널리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조선가극의 혁신적의의는 서양가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데있다.

우리는 결국 모든면에서 주체의 길로 나아가는 조선의 음악정신, 조선예술인들의 자세에서 철저히 배워야 한다.》

이것은 일본의 작곡가 구마가이가 한 말이다.

가극의 사상예술적내용을 돋우어주는 황홀한 무용과 화려한 무대미술; 알제리방송국 록음기자 쌀리흐는 흥분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극에서 무용은 대단히 황홀하다. 다른 나라 가극들에도 무용이 단편적으로 있기는 하나 그것은 생활의 진실과 떨어져있고 유흥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피바다〉에서는 무용이 작품의 내용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있고 그것을 두드러지게 한다.》

중국철도예술단의 한 배우는 《가극에서 무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달밤 장면이나 꿈장면은 미술과 무용이 결합되지 않고서는 해결할수 없는 심오한 사상을 담고있다. 이야기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춤장면은 작품의 형상세계를 비할바 없이 높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예술단의 공연을 본 수많은 관중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가극무용을 심각한 사상을 안는 예술로 제고시켜놓았다는것이 기쁘고 놀라왔다. 이러한 착상도 대담하지만 그의 높은 형상기교는 더욱 반할만하다.》(일본 나고야에 사는 한 무용가)

《가극에서 독특한 민족적품격을 담은 무용을 창조적으로 리용하였다.… 다채로운 무용은 구사가 기묘하고 기교가 능란하여 가극예술의 꽃이 더욱 활짝 피게 하여주었다.》(중국의 《료녕일보》)

《상상을 초월하는 무대미술이다. 장중한 음악과 화려한 무대미술, 한없이 아름다운 춤으로 꽃분이가 그려보는 해방된 강산을 총력을 다하여 그려내였다. 참으로 감동적이다. 참으로 극적이다.》(일본 아이찌현문화단체회장인 연출가 와까오 마사야)

일본 나고야시민회 조명책임자는 《조선은 무대미술에서도 단연 세계적이다. 아니 세계 첫째이고 최고이고 월등한것이라고 말해야 옳을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뽈스까의 브로슬라브시교통관리처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무대미술의 력사는 동서방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기념비를 다듬어세우지 못했다.

조선인민들은 무대예술의 새 력사를 창조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피력하였다.

4. 시대와 미래를 대표하는 주체예술의 찬란한 빛발아래 인류예술은 아름다운 화원으로 꽃피여날것이다

하늘에 태양이 있어 세상만물이 꽃피듯이 우리의 주체예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문예사상의 빛발아래 활짝 꽃피여 인류예술사에 찬란한 금자탑으로 장식하였다.

하기에 사람들은 우리 예술단의 공연을 보고 감격과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높이 칭송하였다.

《우수한 민족유산과 새 사회를 향하여 전진하는 힘의 결합이 낳은 조선의 주체예술의 탄생, 이는 현시대의 예술이 나아갈 길을 개척하여놓은 위대한 창조적공적으로 된다.》(일본 《너시니홍신붕》사 론설위원 오사꼬 사도루)

《사람들에게 끝없는 용기와 고무를 주는 조선예술은 세계의 선진적예술의 본보기이며 인류문화의 가장 귀중한 재부이다.》(파키스탄 관쟈브종합대학 영어학부 학생 하미드 나제메 알리)

《그리니치천문대가 국제시간의 표준이라면 조선예술은 인류예술의 가장 모범적인 기준으로 된다.》(영국 런던의 저명한 실업가 그라이그)

일본영화감독 기무라 소또지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의 예술은 퇴폐적이고 이그러진 오늘의 예술을 옳은 길로 이끄는 새별이다.

주체예술은 실로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인류예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현시대의 찬란한 예술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일본 우에노시장 오꾸세 헤이시찌로는 《예술의 극치란말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것은 처음이다. 이와 같이 청결하고 소박하며 심장을 울리는 무대를 감상한것은 생전 처음이다.

오늘의 공연—춤과 노래는 바로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예술의 〈원형〉,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 예술인들의 공연을 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리마조선의 예술은 진부한 문화를 폭로비판하고 진정한 예술의 앞길을 밝혀주는 훌륭한 본보기이다.》(프랑스과학실험연구소 교수 모리스 본네)

《조선의 주체예술은 현대인류의 예술을 대표하는 가장 리상적인 예술이다.》(영국의 외교관이며 교원인 엘. 엠. 스와이)

《온 세계에 찬란한 빛을 뿌리며 솟아오른 주체조선의 금강석의 예술은 시대와 미래를 대표하는 불멸의 예술이다.》(홋가이도 삿뽀로시에 사는 한 식당주인)

외국의 한 벗은 《조선예술이야말로 진짜 예술이며 인민의 예술이다. 조선예술은 사회주의예술의 본보기이며 앞으로 우리 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가리켜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플로렌스의 한 사회활동가는 우리의 예술공연을 보고 흥분하여 《조선예술은 갈팡질팡하는 구라파예술계에 옳은 방향타를 쥐어주는 력사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이딸리아예술인들에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창조적인 령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다.

영국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의 한 류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아름다운 주체예술은 썩을대로 썩은 서방예술에 멸망의 선고를 내렸으며 진정한 인민의 예술, 혁명적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하기에 우리는 조선예술이야말로 시대와 미래를 대표하는 불멸의 예술이라고 온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는것이다.》

《조선예술은 자본주의사회의 낡고 썩어빠진 〈예술〉의 멸망을 선고하고 그의 매장을 촉진시키고있으며 인류의 예술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였다.》

이것은 일본의 한 진보적기자의 말이다.

스위스통신사 기자 쎄르게 우미르노는 《조선의 예술은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걷는 나라의 예술에 대한 타격으로 되며 인간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유흥거리로 상품화된 예술에 대한 준엄한 선고로 된다.》고 말하였으며 일본 도꾜도 이다바시구의회의원 이와부찌 쯔요시는 《타민족의 지배를 반대하는 수십년간의 투쟁속에서 키워진 만수대예술단의 모든 공연종목 특히 가극은 오늘 류행하는 황색예술을 밑뿌리로부터 바꾸어나아가는 혁명의 포성으로 된다.》고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피력하였다.

우리 나라의 예술공연을 본 관중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예술단의 공연은 지금 한창 류행되여 인간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며 타락시키고있는 상품화된 예술에 대한 타격으로 된다.》(프랑스 해운회사 사무원 앙드레 미아라)

《일생을 두고 배워도 다 배울수 없는 풍부하고 심오한 사상을 담은 조선예술은 내용에서나 예술기교에서 완성된 하나의 학교이다.》(영국의 한 중학교 녀교원)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앞으로의 문화예술의 방향을 모색하고 갈망하고있는 이때에 조선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예술은 바로 그 방향을 환히 밝혀주는 라침판으로 된다.

진정한 음악예술을 찾고 그를 향유하려면 조선으로 가야 한다.

주체예술이 만발한 조선으로 가야 한다. 나는 세상사람들에게 이렇게 웨치고싶다.》(일본 음악 평론가 야마네 긴지)

일본의 바이올린연주가 가메다 미사꼬는 《모든것이 아름답고 리상적인 나라, 조선에 가보고싶다. 평범한 사람들의 지혜가 천재적인 재능으로 꽃피여나고 생활이 그대로 노래이고 춤인 나라에 가서 나의 예술도 풍부한 미적세계에서 청신하게 더욱 세련시키고 싶다.》고 말하였다.

또한 일본의 음악애호가 고바야시는 《가장 존경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밑에 인류최고봉의 주체예술이 활짝 꽃피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이 한없이 부럽다!》고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피력하였으며 이딸리아 볼로냐종합대학 학생 볼리우로도는 《세계예술계는 조선의 예술성과를 따라 배우기 위해 특별한 연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의 예술공연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며 감격을 금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지도를 받음으로 하여 조선예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예술은 예술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위대한 혁명예술 조선의 주체예술에서 배워야 한다.》(요꼬하마 국립대학 총장인 법학학사 미도베 마사오)

《동방에서 비쳐오는 주체예술의 찬란한 빛발은 인류예술의 앞길을 밝혀주고있다.》(뿔스까 호주브시의 한 철도일군)

《세상만물은 은혜로운 태양의 빛에 의하여 싹트고 꽃피며 열매를 맺는다. 전세계적인 예술발전의 견지에서 볼때 조선예술은 마치 태양과도 같다.

조선예술은 태양과도 같이 세계예술의 개화발전을 위해 빛을 뿌리고있다.

세계예술은 앞으로 이 태양의 빛을 받아 화원마냥 꽃필것이다.》 (파키스

단의 이름있는 한 예술인)

5. 만수대예술단은 정신도덕적으로나 예술기량에서나 단연 1등급의 본보기단위이다

중국신문 《료녕일보》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적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만수대예술단은 위대한 투쟁과 혁명과 건설을 폭넓게 반영하는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림으로써 전국 예술단들의 본보기단위로 불리우게 되였다.》

영국의 연극배우 투르카븐은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키는 세련되고 완성된 기교, 서정성, 락천성 그리고 공연전과정의 다양성과 훌륭한 조화, 이것이 만수대예술단의 새로운 특징인데 예술가로서 내가 알기에는 이 모든면에서 종합적인 성공을 한 예술단은 당신들밖에 없다.》고 하면서 감탄을 표시하였다.

중국 그리고 일본과 영국,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가서 활동한 모든 곳에서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의 그 높은 정신도덕적측면에 대한 감탄의 목소리가 한결같이 울려나왔다.

《만수대예술단은 강력한 예술집단이다. 여러가지 형식의 다양하고 풍부한 노래를 형상해낼수 있는 가수집단, 세련된 관현악단 그리고 비상히 재능있고 아름다운 무용수들, 황홀한 무대미술을 창조해내는 미술가들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이 대혁명가극은 예술단의 창조능력을 충분히 과시하고있다.》 (중국 심양시의 한 문화일군)

《만수대예술단의 정신의 높이, 기량의 높이에서 세계1등급의 예술을 창조하고있다.

예술은 기술만으로 발전시킬수 없다. 정신이 건전하고 지향이 뚜렷하며 의욕이 왕성해야 좋은 예술이 나올수 있다. 만수대예술단의 안쌈블은 확실히 사상정신적높이와 그의 완전한 통일, 이에 안받침된 훌륭한 기술이 있음으로 하여 가능한것이였다.》 (일본의 예술단체인 《신제작좌》에서 일하는 나까무라 고찌기)

《만수대예술단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나 단연 제1등급의 예술로 높은 평가를 받을것이다.》 (영국 런던주재 지지통신사 특파기자)

이딸리아 제노아의 《마르가리따》극장 지배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의 모범으로 하여 우리 극장 사람들은 딴 사람으로 새로 탄생하였다. 당신들은 1천 400리를 기차로 달리고도 쉬지 않고 밤을 새워 무대를 꾸리고 가장 훌륭한 공연을 보장하는데 모두가 달라붙어서 일하니 누가 배우이고 누가 책임일군인지 분간할수 없다. 건전한 정신에서만 아름다운 예술이 꽃핀다는것을 심장으로 느꼈다.》

또한 이딸리아 라스뻬찌야시에 사는 한 로동자는 《춤추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들면 허리가 구불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일을 하면 손이 굳어진다고 하더니 그것이 허황한 거짓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았다.

조선예술인들은 일도 잘하고 공연도 잘하니 이것이 진리이다.

김일성원수님께서 키워주신 예술인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모범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딸리아 베니스시의 한 극장일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무용가들은 어쩌면 그렇게 춤도 잘추고 일도 잘하는가. 젊은 배우들이 합심해서 무거운 무대도구들을 즐겁게 옮기는것을 보면 우리도 성수가 난다. 그뿐인가, 춤추고 나와서 숨돌릴름도 없이 다시 조명기에 붙어서 조명을 정확히 해나가는것을 볼 때 가슴이 뜨거워난다. 이런 예술인들이 조선이 아니고 또 어디에 있겠는가. 김일성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예술인들이기에 이처럼 고상한 품성을 지니고있는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동방문화를 강의하는 한 교수는 《세계는 만수대예술단을 예술의 왕좌에 높이 모시고 영원히 떠받들어야 할것이다.》라고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결코 그 혼자만의 심정이 아니였다. 이것은 참된 예술의 오늘과 래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 × ×

온 세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우리의 《주체예술》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이 높은 찬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과 현명한 령도, 당중앙의 지도와 배려를 떠나서는 상상할수 없다.

우리 예술단의 공연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것을 심장으로 느끼며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어느 분께서 지난날 식민지였던 조선을 오늘의 자립적인 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고 금강석의 예술이 활짝 꽃피게 하셨는가?

그분께서는 바로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이시다.

관중들의 대절찬과 열렬한 찬호는 배우들에게 차례지는 행복인데 그 행복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있음으로 하여 당신들에게 차례지는것이다.》

《김일성원수님의 명함은 태양의 해발처럼 영원히 빛나고 그 해발속에 주체예술은 별처럼 반짝일것이다.》, 《주체예술 만세!》, 《혁명적예술 만세!》

우리의 주체예술을 찬양하는 목소리는 위도와 경도를 지나 대양과 대륙을 넘고넘어 시대의 메아리로 도도히 굽이치고있다.

이 장엄한 메아리를 뜨거운 심장으로 듣는 우리 인민의 가슴은 세계1등급의 예술을 창조한 《주체의 조국》, 《예술의 왕국》에서 사는 영예와 행복으로 끝없이 설레인다.

우리 인민은 이 영예, 이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을 다하며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를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내여가리라.

인민생활향상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국가가 나라 살림살이의 호주로서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전체 인민이 더욱 넉넉하고 끓고루 다 잘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5페지)

수령님께서는 생산을 빨리 발전시켜 국민소득을 늘이고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으면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은 의식주문제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며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 등 여러가지 국가적혜택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국민소득은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빨리 늘어나고있으며 그것을 잘 분배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을 체계적으로 높이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할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며 일한것만큼 분배를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기 위하여 로임을 높일때마다 낮은 로임을 받는 근로자들의 로임을 훨씬 높이고 대중소비품의 값을 대폭 낮추도록 하는 등 인민적시책을 실시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상품가격이 낮아진정형

년도	상품명	낮아진 비률(평균)
1971년	어린이옷과 신발	50%
1972년	어린이옷과 학생복	20~50%
1974년	공업상품	평균30% 최고50%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4년 3월 1일부터 공업상품의 값을 평균 30%, 최고 50%까지 낮추며 그중에서 천류는 20~50%, 편직물류는 30~35%, 신발류는 16~33%, 일용품류는 15~50% 각각 낮추는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이 물가인하조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내놓으신 모든 소비품의 값을 대폭 낮추면서 인민들이 많이 쓰는 대중소비품의 값을 낮추도록 할데 대한 방침을 실현하는 길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전면적으로 한계단 더 높일수 있게 하는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74년 4월 1일부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까지 완전히 페지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은 더욱 늘어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세금을 체계적으로 낮춘정형

년도	세금항목	낮춘비률
1955년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	30%
1955년	농업 현물세 (수확고의 25%)	21.1%
1959년	〃	8.4%
1966년	농업현물세제	완전한페지
1974년	세금제도	완전한페지

세금을 없애고 상품값을 대폭 낮춘 인민적시책으로 1974년에만도 근로자들에게 세대당 월평균 28원의 추가적혜택이 들어가게 되였으며 그 가운데서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데서 6원, 공업상품값을 낮춘데서 22원의 혜택이 차례지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74년에 국가의 추가적 재정적부담만 하여도 무려 9억원에 이르며 1975년에는 그것이 13억원을 넘게 된다.

이렇게 되니 우리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실로 급진적으로 높아지게 되였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적혜택은 직접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돌려지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거저주나 다름없는 눅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해주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남새생산과 고기 및 알 생산이 공업화되고 수산업의 대대적인 발전에 따라 매개 시, 군과 로동자구들에 랭동고들이 건설됨으로써 남새와 고기, 알, 물고기 등이 사철 넉넉히 공급되고있으며 그 값이 매우 눅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을 마련하여주시려고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1973년에도 도시와 농촌에서 살림집건설이 적극 추진되였으며 전해보다 훨씬 더 많은 살림집이 근로자들에게 새로 차례졌다.

또한 1973년에 평양지하철도가 개통되여 수도 시민들에게 교통의 원활성과 문화성을 더 잘 보장할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비파거리와 상원선거리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로동자, 사무원들은 중앙난방시설에 목욕탕까지 달리고 부엌에는 랭동기, 세탁기, 전기밥가마가 놓이게 된 화려한 고층문화주택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무료교육을 받고있으며 철따라 옷과 외투를 국가로부터 공급받고있다.

나라의 모든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철에 따라 공급되는 옷의 가격은 세대당 학생수에 비례하여 루진적으로 눅게 정해짐으로써 자녀들이 많으나 적으나 학생복 공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것으로서도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은 끓고루 더욱 높아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탁아소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한사람당 무려 6천원~1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에 달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애기어머니들에게 77일간의 산전산후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주고있으며 자녀들을 국가적 및 사회적 부담으로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고있다.

이와 함께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은 하루 6시간 일하면서도 8시간 일한 때와 똑같은 로임을 받고있다. 이로부터 우리 녀성들이 받는 국가적혜택만 하여도 상당한 량의 금액이다.

나이가 많거나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혜택으로 안정된 생활을 국가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기 위하여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앨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높이는 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6페지)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큰 국가적혜택을 줄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방침이 실현되여 우리 농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모르는 농민으로 되였으며 국가자금으로 지어준 수십만세대의 문화적인 농촌살림집과 탁아소와 유치원 및 편의봉사시설들이 이르는곳마다에 즐비하게 일떠서 우리 농촌의 면모가 완전히 개변되였으며 우리 농민들은 보다 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벌방, 중간, 산간 지대의 모든 농민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빨리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방침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농촌마을에 가나 알곡생산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은 물론 고기와 알 생산량이 훨씬 늘어나고있으며 과일 또한 풍년이 들고있다.

1973년에 우리 나라에서 협동농장원들의 호당 평균 알곡분배몫은 1963년에 비하여 172%로, 현금분배 몫은 272%로 늘어났다. 천리마만경대협동농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1973년에 호당 평균 5톤 80키로그람의 알곡과 2,000원 이상의 돈을 분배받았다.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농촌의 수도화, 뻐스화, 농촌리 진료소의 병원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1973년말현재 농촌리의 76%에 뻐스가 들어감으로써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교통상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였으며 농촌리진료소를 병원화하는 사업도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에 수도화의 본보기를 창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3년에 온천군 6.3협동농장에 나가시여 벌방지대 농촌수도화의 시범을 꾸리시고 그를 널리 본받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1973년에 우리 농촌에서는 그전 2년동안의 2배나 되는 대상의 수도화가 완성되였다. 특히 농촌수도화가 활기띤 서부지대 도들에서는 2,000여개, 10월 5일현재 전국적으로 2,600여개 대상의 수도화가 완성되였다.

농촌수도화의 성과적실현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우리 농촌녀성들이 머리에 이고다니던 물동이를 영원히 없애버리고 농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여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줄일수 있게 하였다.

뿐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모든 지역에 상업망이 골고루 포치되여 산간농촌에도 도시와 같이 생활필수품이 들어가 국가가 정한 유일한 값으로 판매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어디에서나 우리 근로자들은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눅은 값으로 살수 있게 됨으로써 물질적, 문화적 복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마다 일터와 배움터를 가지고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이 없이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의 크나큰 혜택을 받으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는 로력보수가 비교적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족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로동자와 농민이나 할것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생활조건을 확고히 보장받고있으며 특별히 잘사는 사람도 못사는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살고있다.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전변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 없는 우월성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로임과 생활비

〔로임〕 우리 나라에서는 주권과 생산수단이 근로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기때문에 로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일할 나이가 되면 누구나 다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45페지)

우리 당은 생산장성에 기초하여 국민소득의 체계적인 장성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는 한편 그 분배에서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축적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매시기 최대한의 몫을 당면한 소비에 돌리게 함으로써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있다.

당의 올바른 방침에 의하여 인구가 빨리 늘어나는 조건에서도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이 1970년에는 1946년에 비하여 9.4배이상으로 장성하였고 1973년에 이르러 그것은 더욱 급속히 늘어났다.

국민소득의 많은 부문이 생산확대를 위한 축적에 돌려지면서도 소비에 돌려짐으로써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여나갈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로임을 전후에만 하여도 6차에 걸쳐 대폭 높이였으며 1970년에는 단꺼번에 31.5%나 올리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임지불에서 차별이 없이 녀성로동자들도 남성로동자들과 꼭같은 로임을 받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은 6시간 로동을 하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로임을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로임수준에서의 차이를 줄이고 로임을 체계적으로 고르롭게 높일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낮은 로임을 받던 근로자들의 로임이 해마다 더 많이 올라 로임상 차이는 더욱 더 줄어들고있다.

로동자와 사무원들, 교원들사이의 로임상 차이가 적을뿐아니라 제철, 제강 부문과 탄광, 광산 부문 등 어렵고 힘든 부문의 로동자들의 로임은 사무원들의 로임보다 훨씬 더 높으며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혜택도 더 많이 받고있다.

공장, 기업소 관리일군들과 로동자들간의 로임상차이도 거의 없으며 특히 채취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로동력지출이 다른 부문보다 많은 부문의 로동자들인 경우에는 로임이 관리일군들보다 더 높다.

로임의 차이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은 큰 차이가 없이 다같이 고르롭게 높아지는것이 특징으로 되고있다.

〔생활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가 받은 로임에서 생계비로 지출되는 돈은 사실상 얼마되지 않는다.

우리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와 같은 생계비지출의 주되는 부문을 국가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따라서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은 체계적으로 높아지고있다.

로동자, 사무원들은 식량공급을 통해서도 국가로부터 식구 5명을 가진 로동자, 사무원의 가정에서 년간 5,000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나라로부터 더 받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는 쌀 1키로그람값이 성냥두갑값도 안되고 한달 쌀값이라야 비누 한개값에 지나지 않다보니 쌀값이 얼마인가를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살림집의 사용료도 근로자들의 생활비의 0.3%에 지나지 않으며 여기에 전기, 난방, 수도 사용료를 합쳐도 3%에 불과하다.

그러니 주택리용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만 하여도 상당한 량의 금액이다.

뿐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은 학생들과 어린이옷을 눅은 값으로 공급받는데서만 하여도 국가로부터 1년에 3천여만원의 혜택을 받고있다.

또한 대학과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있으며 무의무탁한 학생들은 학용품으로부터 교복에 이르기까지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국가로부터 완전히 보장받고있다.

우리 농민들의 생활도 역시 그러하다. 벌방지대 협동농장들은 더 말할것이 없고 하늘아래 첫동네라고 불리우는 두메산골 삼수갑산이나 백두산기슭의 그 어디에나 아담한 문화주택이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되여 농민들에게 빠짐없이 차례지게 되니 이로부터 우리 농민들이 받는 국가적혜택만 하여도 상당한 량의 금액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닭알, 고기, 사탕, 과자를 비롯한 식료품들과 일반섬유제품, 어린이용상품 그리고 천, 신발, 모기장, 바느질실, 성냥, 학용품 등 대중소비품의 값은 가치보다 낮게 정해짐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이로부터도 막대한 국가적혜택을 받고있다.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고 상품의 가격이 체계적으로 낮아지니 우리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로임에서 생계비에 지출하는 금액은 실로 얼마안된다.

로임은 체계적으로 높아지고 대중소비품의 값은 매해 대폭 낮아져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이 급진적으로 높아지고있는 여기에 먹고 입고 쓰고살며 자식들을 공부시키는것과 같은 생계비지출에 들어가는 모든것을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여주니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은 날을 따라 더욱 좋아지고있다.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전변은 그 어느 하나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를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실 질 소 득

〔로임외 추가적혜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은 그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아졌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대해서나 아들딸들을 공부시키는데 대하여 근심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296페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어버이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기본로임외에 직종과 근무년한, 로동조건과 근무지역에 따르는 여러가지 가급금과 상금을 받고있으며 식량공급과 주택보장, 연료공급, 물가인하 등 막대한 국가적혜택을 받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근로자들은 의식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자기가 받는 로임을 가지고는 주로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는데 쓰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인민적가격제정방침을 내놓으시고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대중소비품의 값을 보다 더 낮추 정하며 특히 어린이용상품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나마나하게 매우 낮은 가격을 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로임이 계속 올라가고 상품값이 체계적으로 낮아짐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해마다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1974년 3월 1일부터 공업상품의 값을 평균 30%, 최고 50%까지 낮추데 뒤이어 4월 1일부터는 세금까지 완전히 없애게 되니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훨씬 늘어났다.

그리하여 1974년에 우리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1970년에 비하여 로동자, 사무원은 1.5배로 늘어나게 되였다.

실로 우리 근로자들은 로임외 국가로부터 추가적으로 받는 수입이 더 많다.

이러한 혜택은 직접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돌려지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로임의 1%가 되나 마나한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고있으며 국가부담으로 지은 살림집은 생계비지출의 0.3%에 불과한 매우 눅은 사용료로 보장받고있다.

살림집사용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만하여도 한 세대당 평균 년간을 통하여 600~700원에 달한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실로 우리 근로자들은 의식주문제해결에서만 하여도 매집에서 한해동안에 1천 300~1천 500원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있으며 이것은 우리 근로자들이 월평균 100~125원이라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로임외에 더 받고있는것으로 된다.

〔농민들의 실질수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과 함께 농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막대한 국가적혜택을 베풀어줌으로써 그들의 실질수입을 끊임없이 높여주고있다.

국가에서는 국가기본건설투자총액의 막대한 자금을 농촌의 생산적건설과 주택건설에 돌렸으며 현물세제의 폐지, 농산물수매가격의 계통적인 인상, 관개사용료와 농기계작업료의 대폭적인 인하, 막대한 량의 국가대부금반환의 면제, 농기계와 영농자재들의 눅은 값으로의 공급 등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방조를 주었다.

이밖에도 수십만동의 2층 3세대짜리 농촌문화주택, 탁아소와 유치원 및 편의봉사 시설들을 국가가 직접 건설하여 협동농장에 거저 넘겨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었으며 해마다 수천만공수의 로력적지원을 주고있다.

이와 같은 인민적시책을 통하여 우리 농민들이 받는 국가적인 추가적혜택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1973년까지에 이르는 지난 10년동안 농촌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준 재정적지원은 실로 40억 5,100만원에 달한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4년부터 공업상품의 값이 대폭 낮아지고 세금이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1974년에 우리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실로 1970년에 비하여 1.6배로 늘어나게 되였다.

1973년에 우리 농촌들에서는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수입은 더욱 늘어났다.

우리 농민들은 분배받은 량곡가운데서 한해동안에 먹을것을 넉넉히 남겨두고 나머지는 국가에 팔고있다. 국가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공급하는 식량가격보다 7배나 더 비싼 값으로 농민들의 여유량곡을 사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농민들은 협동농장에서 받은 현금수입외에 여유량곡을 국가에 판 돈만해도 수백, 수천원씩을 더 얻게 된다. 여기에 무료교육, 유급휴가 등 각종 국가적시책을 통하여 받는 추

가적혜택까지 합치면 실로 막대한 량의 금액을 국가로부터 더 받는것으로 된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줄일데 대한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농촌수도화와 뻐스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농촌녀성들이 물동이를 이는데서 해방되고 산간벽지에까지 뻐스가 들어가게 되였으며 농촌진료소의 병원화가 빠른속도로 진척된 결과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상방조도 크게 개선되였다.

우리 농민들은 학교와 병원이 서고 뻐스와 수도가 들어간 문화농촌에서 나라에서 지어준 아담하고 현대적인 살림집을 쓰고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으면서 세상에 부럼없는 넉넉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의 이러한 보람찬 생활은 로동계급이 일단 주권을 쥔 다음에는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며 사회주의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뿐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해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호주로 되여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 위대성과 정당성을 사실로써 확증하여주고있다.

사회문화시책

우리 인민들을 남보다 더 넉넉하고 더 잘 살게 하시려고 그 언제나 심려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의식주문제해결에 돌려지는 혜택과 사회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돌려지는 혜택을 옳게 결합시켜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모든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시책에 더 많은 국가투자를 실시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3페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돌려주시는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1973년에 화폐로임총액과 맞먹는 혜택을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 국가부담에 의한 정휴양, 국가비용에 의한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 등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시책을 통하여 받았다.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실로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문화시책비가 체계적으로 장성하였다.

사회문화시책비의 장성정형

년도	대비년도	장성률
1969년	1968년	1.2배
1970년	1956년	10배
1971년	1970년	121%
1972년	1971년	1.3배
1973년	1972년	112%

우리 근로자들이 받는 이러한 사회문화적혜택의 많은 부분이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의 발전에 돌려지고있다.

1973년에 국가에서는 1972년의 114%에 달하는 교육비를 지출하여 후대교육사업의 물질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닦음으로써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게 하였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은 각급 학교에서 무료로 또는 국가장학금(대학과 고등전문학교 학생)을 받으면서 공부하고있으며 어린이들은 국가적 및 사회적으로 운영되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훌륭히 보육교양되고 있다.

모든 학교에서 전반적무료교육을 실시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에 받는 국가적혜택은 실로 학생 한명당 4천 400여원에 달하며 학령전 어린이들이 탁아소, 유치원 기간에 받는 국가적혜택은 어린이 한명당 1천 500여원에 달한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옷의 국가보상금은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3천여만원에 달한다. 이것은 어린이들과 학생이 3명있는 집에서 100원이상의 돈을 국가적혜택으로 화폐로임외에 더 받는것으로 된다.

또한 우리 근로자들은 전반적이며 완전한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국가비용에 의한 무상치료를 받고있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예방치료와 약을 무상으로 보장해주고있으며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를 적극 추진시켜 농촌녀성들에게도 입원해산방조를 주는것은 물론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까지 국가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1년에 14~28일간의 유급휴가와 정휴양, 녀성들을 위한 77일간의 산전산후유급휴가를 통하여서도 상당한 금액의 국가적혜택을 받고있다.

뿐아니라 나라의 도처에 자리잡고있는 군중문화회관과 구락부들, 영화관과 수많은 극장, 체육관, 각종 도서관들이 국가적비용으로 광범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이로부터 우리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국가적혜택만 하여도 상당한 량의 금액이다.

이처럼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극진한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제, 장학금제, 유급휴가제와 정휴양제, 국가와 사회의 비용에 의한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과 같은 가장 인민적인 사회문화적시책들이 취해질수 있었으며 우리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로운 혜택을 받아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를 비롯한 이 모든 사회문화적시책은 오직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있을수 있는 또 하나의 공산주의적시책으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진정으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국가사회보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5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보험**〕 우리 나라에서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손해 및 사망,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국가적으로 물질적혜택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일정한 화폐예비를 조성하고 그것을 리용하는 국가보험제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주고있다.

1973년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의 형태로 국가보험제를 실시하고있다.

공화국정부에서는 공장, 기업소, 사무기관, 학교, 병원, 협동단체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재산보험의 대상으로 등록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개인 소유재산은 자원적으로 재산보험에 가입시키였다.

국가보험예비는 보험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조성리용되였으며 이 기금은 발생한 손해를 국가적

으로 보상해주는 보험금의 지불뿐아니라 자연재해 또는 불상사고로 생기는 재산상손해의 미연방지대책을 세우는데도 리용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국가보험제가 실시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고있다.

〔사회보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에 국가예산지출에서 사회보험비를 더욱 늘이여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추가적인 국가적혜택이 돌려지도록 하였다.

사회보험예산수입은 기관, 기업소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로동자, 사무원들이 로임에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로써 형성되고 년금, 보조금, 의료상방조, 정휴양 및 료양 등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리였다.

공화국정부에서는 1973년에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적인 휴식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이 질병, 부상, 해산 등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었을 때에 그들의 생활안정과 치료를 위하여 사회보험을 통한 국가적혜택을 더 많이 주었다.

특히 녀성들은 산전산후유급휴가를 받으며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들은 하루 6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할 때와 똑같은 로임을 받고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의 가장 선진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고 일할수 없게 되였을 때에 국가로부터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므로 생활상애로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보장을 받고있으며 병원과 료양소에서 치료비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안정된 치료를 충분히 받고있다. 뿐아니라 로동자, 사무원들은 휴양소와 직장정양소들에서 국가적부담으로 문화적인 휴식을 보장받고있다.

사회보험제에 의한 휴양의 혜택은 로동자, 사무원들에게만 돌려지는것이 아니라 협동농장원들에게도 돌려주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보험제에 의하여 직접 일을 하다가 로동능력을 잃었을 경우에는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그 이튿날부터 년금을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고있다. 뿐아니라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도 년금외에 국가로부터 무료의료상방조를 충분히 보장받고있으며 주택조건보장 등 일체 생활조건을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보장받으므로 생활상 아무러한 불편도 느끼지 않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선진적인 사회보험제에 의한 국가적혜택이 더 많아짐으로써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이 늘어나고있으며 근로자들은 보다 더 유족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사회보장〕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년로, 질병, 불구 및 기타 원인으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었거나 제힘으로 생활을 해나갈수 없는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활조건과 병치료를 보장하여주며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물질적혜택을 주고있다.

국가에서는 남자는 만 60살, 녀자는 만 55살이상부터 년로보조금을 주고있으며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보조금을 주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고있다.

이러한 사회보장혜택은 1973년에 이르러 더욱 더 늘어났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정기보조금을 주는 한편 그의 희망에 따라 힘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주고 일한것만큼 로임도 주고있다.

또한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들에게 양로원에서 국가적인 혜택으로 생활을 보장해주고있으며 유가족들과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은 국가적으로 높은 물질적혜택과 사회적원호를 받고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를 통한 국가적혜택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하여 아낌없는 배려를 돌려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질적으로 실현될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상 품 공 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상업기관들은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책임지고있으며 인민들에게 상품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삼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45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인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상업부문에 무려 1,800여차례의 교시를 주시였으며 우리의 상점들을 무려 450여차례나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3년에 우리의 상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적인 상업으로, 녀성들을 부엌일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하루빨리 해방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상업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주문제확립〕 상업류통부문에서는 1973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주문제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생산된 모든 상품들이 가장 짧은 길을 걸쳐 근로자들의 지역별, 계층별, 계절별 수요에 맞게 신속정확히 보다 적은 비용의 지출로 골고루 공급되도록 하였다.

주문된 상품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상업류통부문에서는 주민들의 수요연구체계를 세우고 수요를 구체적으로 장악하며 상품배정을 정확히 하는 동시에 매개 상품들의 품종구성의 다양성, 생산조건과 포장조건, 공급단위수와 공급규모 등을 충분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중량상품으로써 그 공급규모가 크고 품종구성이 단순하여 구색을 맞출 필요가 없는 상품들은 소매상업기업소에까지 직송하는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반대로 품종구성이 복잡하고 규격, 호수, 색갈 등 품종별 구색을 맞추어야 할 상품들과 그 공급량이 적은 상품들은 도매소창고를 거쳐서 짝을 맞추어 상업망에까지 균형적으로 골고루 들어가게 하는 원칙을 관철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도시와 농촌 할것없이 모든 지역 근로자들에게 상품이 골고루 들어가게 하였다.

주문상품공급에서는 대중소비품 특히 어린이용상품과 일용잡화, 겨울용상품들, 알루미니움가마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엌세간들과 갖가지 식료가공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텔레비죤수상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화용품과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는데 도움을 줄 가정용세탁기, 전기밥가마, 랭동기를 비롯한 문화용품과 가정용품들도 전해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근로자들에게 공급되였다.

특히 1973년 1월 9일 수령님께서 수도가 일용잡화생산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라고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평양시 만경대구역에서는 《충성의 인민소비품생산투쟁》을 발기하고 1973년에 그 전해에 비해 6.5배나 되는 1,280여가지의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였다.

충성의 인민소비품생산을 적극 진행한 결과 평양시에서는 1973년상반년기간에만 하여도 500여종의 질좋은 제품을 《평양상품》으로 등록하고 《충성의 인민소비품》상점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였다.

또한 매개 시, 군과 로동자구들에 랭동고들이 건설되고 랭동렬차, 랭장차들이 많이 도입됨으로써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떨구지 않고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렬차상업부문에서는 려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지방특산물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들을 더 잘 공급하기 위하여 《청년봉사 선봉대》를 뭇고 식당차와 매대차, 이동매대와 역영업소들을 더 잘 운영하는 한편 봉사성을 더욱 높이였다.

우리 나라 렬차상업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있는 평양렬차상업관리소에서는 1973년에 려행하는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지수를 12종 더 늘이였으며 그 공급량은 1972년에 비해 2배로 더 늘이였다.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의 공급기지를 잘 꾸리고 농촌상점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가공된 식료품과 여러가지 공업제품을 농촌에 공급하는 사업을 더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7페지)

사회주의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상업부문에서는 1973년에 공급단위를 농장원들의 생활에 더욱 접근시켜 상업망들을 확장정비현대화하였으며 특히 례년에 없는 대풍이 든 우리 나라 농촌에 여러가지 고급옷감들과 겨울옷, 세타, 쟈케트, 신발들과 여러가지 부엌세간들, 일용잡화와 문화용품들을 더 많이 공급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상 차이를 하루빨리 없애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농사를 잘 지어 알곡과 현금 분배몫이 급격히 늘어난 농장원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공급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업기관들에서는 직접 농촌리들에 나가 농업근로자들의 수입과 그들의 요구를 깊이 료해하고 전국적으로 세대별, 개인별 상품공급계획을 면밀히 세웠다.

그리고 경공업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의 인민소비품생산지도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전국 각지 대규모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 생활필수품공장과 직장들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상품들을 제때에 생산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1973년 9월초순부터 일제히 각 도, 시, 군 상업기관들에 내려가 상품확보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1973년 10월부터 1974년 2월까지의 기간에 농촌에 공급된 상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에 달하였으며 그중 황남도와 평북도에서는 1.7~2.2배, 함북도에서는 2.4배로 늘어나게 되였다.

이 기간에 농촌에 공급된 상품은 질이 훨씬 개선되고 그 가지수나 량에 있어서도 1972년 같은시기에 비할바 없이 늘어났는데 그중 어른 고급양복은 8.9배, 세타와 쟈케트는 4.9배, 손목시계는 3.9배, 텔레비죤수상기는 12배, 재봉기는 2.6배, 자전거는 7배, 법랑 및 알루미니움 제품류는 4~12배로 공급이 늘어나게 되였다.

평양시에서는 1973년 7~8월기간에만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3배의 가정용품을 농촌들에 공급하였다.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이 집중적으로 더 잘 진행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주었다.

또한 농촌에 장, 기름, 물고기들을 도시에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으며 손목시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화용품들과 갖가지 부엌세간들, 방안세간 특히 세소잡화들과 농민들의 살림집을 잘 거두는데 필요한 장판종이, 문창호지, 도배종이 등 건재품들의 공급도 잘하여 그들의 생활이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것으로 되게 하였다.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에서는 매개 상품 품종구성의 복잡성, 공급수량과 공급회수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규격, 호수, 색갈 등 품종별구성을 잘 맞추어 모든 세대들에 필요한 상품들이 골고루 들어가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는 물론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사는곳이면 그 어디에나 상점망이 들어가 모든 상품을 국가가 정한 유일한 가격으로 고르롭게 팔아주게 됨으로써 상업류통부문에서는 벌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없어졌다.

〔**상업일군양성**〕 우리 나라에는 상업부문일군양성을 위한 대학과 고등전문학교 또는 강습소들이 도처에 설치되여있으며 여기에서는 해마다 기사, 기수, 고급기능공 등 상업부문일군들을 수많이 양성하고있다.

우리의 상업일군대렬은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녀성일군들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들의 힘에 의하여 상업기관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상업부문일군들은 예술영화 《우리 렬차 판매원》을 보시고 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지침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는 나라의 주부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영화의 주인공 선희처럼 인민의 충복으로 참되게 살며 일하려는 기풍이 더욱 철저히 서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매해 9월 15일을 상업절로 정하였으며 상업류통부문일군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공훈판매원을 비롯한 각종 영예칭호를 제정하였다.

또한 《상업신문》, 잡지《사회주의상업》을 비롯한 상업부문일군들을 위한 혁명적인 교양수단들이 마련되여있어 상업부문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 및 실무수준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회급양 및 편의봉사

〔**사회급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가지 식당을 더 설치하고 사회급양의 질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더 잘 도모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4페지)

사회급양부문에서는 1973년에 사회급양망을 더 늘이고 그의 질적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간편하게 하고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밥공장, 빵공장, 대중식당 등을 늘이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우선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처에 늘인 밥공장과 빵, 국수 가공시설에 자동화, 반자동화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가공된 주식물과 부식물의 공급량을 현저히 늘이였다.

1973년에 전해에 비하여 이 부문에서는 통졸임, 병졸임 등 가공식료품의 공급량이 현저히 늘어났다.

사회급양부문에서는 근로자들의 식생활상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의 주택지구를 단위로 사회급양망을 널리 조직하였는데 그의 질적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식당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고급식당을 적절히 배합하는 방향에서 식당망들을 다양하게 조직하였다.

대중식당조직에서는 그를 간단화, 전문화, 현대화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식당전문화에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

적록색을 가진 음식물들인 국수, 온반, 비빔밥 등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하였으며 특히 명태료리를 전문으로 하는 물고기식당과 국수집을 잘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그 어디에서나 요구하는 음식을 값싸고 간편하게 사먹을수 있게 하였다.

평양시에서만 하여도 1973년에 46개의 현대적인 물고기전문식당이 새로 꾸려졌다.

물고기식당이 늘어난 결과 1973년에 사회급양망을 통한 물고기공급량은 평양시적으로 1972년에 비하여 10배로 높아졌다.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평양시에서는 1973년 9,10월 두달사이에만 하여도 120여개의 밀가루가공공장이 꾸려졌다.

사회급양부문에서는 료리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60여종의 물고기음식에 대한 방식상학과 실무강습, 초청강의 등을 진행하고 표준조작법과 봉사준칙도 새롭게 세워 맛있는 음식으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주택지구에는 물론 혁명전적지, 유원지, 휴양지 등에 사이다, 맥주, 약수, 과일즙 등 청량음료와 군밤, 군고구마 등 기호품의 공급을 잘하였다.

렬차상업부문에서는 하나의 정연한 공급체계를 이루고있는 식당차의 운영을 더욱 개선하여 려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잘 봉사하였다.

〔**편의봉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탁소, 목욕탕, 리발소, 려관 그밖에 다른 편의시설망을 늘이고 문화적으로 꾸리며 근로자들에게 더 잘 봉사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2페지)

편의봉사부문에서는 1973년에 근로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보다 긴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리발소와 미용원, 목욕탕과 빨래집, 옷수리소와 수리수선망들을 우선적으로 늘이고 봉사의 질을 높이는 한편 특히 농촌리단위로 리발소, 목욕탕, 빨래집, 양복점 등 각종 편의봉사망을 조직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더 잘 도모하였다.

평양시에서는 1973년에 새로 일떠선 비파거리와 상원선거리에 일반 편의망을 위주로 하면서 높은 급의 편의망을 옳게 결합하여 편의봉사망을 대대적으로 늘이였다.

또한 비파거리에는 18층의 서평양려관과 15층의 모란봉려관이 1973년에 새로 세워졌다.

두개의 큰 합식건물을 복도로 련결한 모란봉려관은 2,500여명의 손님을 한꺼번에 받아들일수 있으며 매 층마다에는 더운물, 찬물이 나오는 목욕실이 있다. 또한 려관에는 한꺼번에 1천명이 식사를 할수 있는 큰 식당과 리발실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편의봉사시설은 평양시뿐아니라 각도 소재지와 시, 군, 로동자구에 이르기까지 아주 조밀하게 포치되였다.

강서읍에도 1973년에 1,000여명을 받아들일수 있는 려관이 새로 일떠섰다.

평양시에는 1973년 9,10월 두달사이에만 하여도 90여개의 빨래집이 새로 세워졌으며 매개동에 빨래집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1973년에 대체로 105평방메터의 건평으로 205개의 물빨래집과 화학빨래집을 새로 세웠다.

농업근로자들에게 도시에서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온갖 편의봉사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켜주며 농촌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특히 농촌편의망을 혁명적으로 조직하고 그 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하였다. 이렇게 하여 농촌리들이 농업근로자들을 위한 믿음직한 봉사세포로 되게 함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이 자기집 가까이에서 여러가지 생활상봉사를 더 잘 받도록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118차례나 찾으시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하여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신 온천군 하나만 놓고보아도 70여개의 리발소, 목욕탕, 세탁소, 양복점, 수리소 등 갖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이 조밀하게 포치되여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상요구를 충족시키고있다.

이러한 실례는 우리 나라의 어느 산골 농촌마을에가도 찾아볼수 있는 일반적현상이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문화적으로 높여나가고있을뿐아니라 녀성들이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남자와 동등하게 사회생활에 참가하고있다.

도 시 경 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와 전체 인민의 공동재산인 건물들과 시설물들을 제때에 수리하고 관리하는것은 인민위원회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도시경영사업을 잘하여야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할수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46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도시경영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시여 도시경영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의 수행에로 전체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도시경영사업이 더욱 개선강화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적극 도모하였다.

〔**건물관리 및 구획정리**〕 도시경영부문일군들은 1973년에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에 철저히 서서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인 건물과 시설물들을 책임적으로 보호관리하며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도시들을 사회주의 문화도시로 더욱 알뜰하게 꾸리였다.

각급 행정위원회일군들은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 기관, 기업소, 동과 인민반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적인 도시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건물과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분담을 정확히 하여 책임적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더욱 알뜰히 꾸리도록 하였다.

도시경영부문에서는 건물과 시설물들의 실태를 정확히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계획적인 보수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수리하였으며 건물들의 내부구조를 더욱 현대적으로 개조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었다.

그리고 평양시를 비롯한 중요도시들에 랭동기, 세탁기, 전기밥가마, 전기곤로 등을 비롯한 부엌세간들과 옷장, 책장을 비롯한 알뜰하고 쓸모있는 가구제품들을 더 많이 갖추어 주었다.

또한 로동자지구를 비롯한 군소재지들에 봉사리용시설을 더 많이 갖추어 주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주택구획내에 학교, 탁아소, 유치원, 치료기관을 비롯한 문화기관들과 목욕탕, 리발소, 세탁소 등 봉사시설들을 갖추어 주었으며 수영장, 놀이터, 작은 공원 등을 잘 꾸려주어 주택구획이 완전히 생활단위를 이루도록 하였다.

특히 수령님께서 천리마북새동에서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모든 단위들에서 거리와 마을, 일터와 살림집을 알뜰히 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도처에 만들고 주택구획안의 리용시설을 규모있게 배치하여 관리하는 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힘있게 벌리여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건물과 시설물들이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도시경영사업이 정상화, 정규화되도록 하였다.

〔도로정비 및 관리〕 도시시설부문에서는 나라의 문명정도를 규정하는데서 하나의 척도로 되는 도로와 강하천을 잘 정비하고 알뜰히 관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1973년에 이 부문에서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모든 큰 거리들을 천리마거리처럼 환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아스팔트포장을 하며 거리들에 늘어선 건물들을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게 색을 조화시켰으며 조명등시설을 새형으로 바꾸고 가로등을 보다 현대적인 것으로 개조하였다.

그리고 도로관리를 기계화하고 여러곳에 자동차자동세척장을 꾸리두며 구획내 크고 작은 도로와 걸음길들을 여러가지 건재로 포장하여 수도의 거리를 언제나 깨끗하고 화려하게 꾸리였다.

평양시는 물론 전국각지의 도시들의 기본간선도로와 뒤골목길까지 전군중적운동으로 포장하며 특히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조건과 교통운수수단의 대형화에 맞게 도로의 기초와 두터이를 보장하며 이미 있는 도로의 보수정비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언제나 모든 교통운수수단들이 마음대로 다닐수 있게 하였다.

특히 1973년에 도시시설부문에서는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갖가지 운반작업과 눈을 치고 잔디를 깎는 작업 등 품이 많이 드는일과 하수도준첩, 오물반출, 길쓰는작업 등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적은 로력으로 짧은 시간내에 모든 작업을 깨끗이 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군과 리들을 련결하는 길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잘 닦고 돌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방자재원천을 동원하여 포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1973년현재 2천 728개리에 뻐스가 들어가게 되였다.

농촌뻐스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촌근로자들이 교통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였을뿐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련계가 더욱 밀접하여지게 되였다.

도시안의 하천관리사업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호안석축과 하천시설물의 보수공사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강기슭을 잘꾸려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상하수도〕 상하수도부문에서는 1973년에 근로자들에 대한 물공급사업을 더욱 잘하기 위하여 이미 있는 수원지를 정비보강하여 물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는 한편 송배수관을 비롯하여 모든 수도시설에 대한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물의 도중손실을 없애며 농촌수도화를 힘있게 다그쳐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질좋은 물을 풍족히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우리 농촌녀성들이 물동이이는것을 늘 가슴아파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촌수도화공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벌방지대는 1973년 당창건기념일까지, 그밖의 모든 농촌들을 1974년 5.1절전으로 다 끝낼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이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여 오늘 많은 농촌들에 수도화의 혜택을 입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1973년 10월 5일현재 2,600여개대상의 농촌수도화공사를 끝내였다. 그중 서부지대에서는 1,900여개대상을 완공하였는데 이것은 이곳지대에서 지난 2년동안에 진행한 농촌수도화공사의 3배에 달하는 량이다.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수도화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고 직접 맡아서 공사를 해주는 등 농촌수도화를 도와줌으로써 설계, 시공, 조립,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되였다.

농촌수도화공사는 평북, 평남도를 비롯한 서부지대들과 강원도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였다.

각 도들에서는 수원지확인, 측량, 물주머니와 뽐프장, 양수장, 저수탕크, 배관시설 등 도면작성을 적극 앞세우면서 수도화공사를 적극 추진시켰으며 금속, 화학, 건재, 림업, 광업, 기계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에서는 농촌수도화용 자재를 적극 보장하여주었다.

그리하여 1973년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1971～1972년사이에 해낸것의 2배가 넘는 수도화공사를 진행하였다.

농촌수도화의 성과적실현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우리 농촌녀성들이 머리에 이고다니던 물동이를 영원히 없애버리고 농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먹게 하여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줄이게 하였다.

〔열 및 온수 난방〕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6월말에 진행된 전국열관리원대회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열관리원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열설비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규격화, 현대화하며 연료를 극력 절약하고 더 많은 열을 생산하여 3대기술혁명수행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3년에 난방부문에서는 평양시중앙난방공사를 적극 다그쳐 비파거리를 비롯하여 새로 일떠선 거리의 주택들에 대한 난방공사를 적극 다그치는 한편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서성구역, 동평양지구에 열망을 확장하여 더 많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 온수가 공급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난방부문에서는 겨울철열관리사업에 힘을 넣으며 여름철보수기간에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중앙난방면적을 적극 확대하여나갔다.

난방보이라들에 비등식보이라, 절탄기, 공기예열기, 2중화실, 제진장치 등 선진기술을 도입하며 불때기작업에서 힘든 일을 없애고 열효률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밀고나갔다.

1973년에 개성시상하수도난방사업소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보이라불때기작업에서 자동화를 실현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난방부문에서는 개성시난방부문자동화경험을 방식상학을 통하여 널리 일반화하여 모든 보이라부문에서 유해하고 먼지나는 작업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열난방보이라를 규격화하고 현대화하며 우리 나라의 연료조건에 맞게 보이라의 화실구조를 개조하는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적은 석탄으로 더 많은 열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였다.

이리하여 보다 더 많은 가정들에서 탄을 다루지 않고 방을 덥히며 더운물을 쓸수있고 집집이 목욕탕을 갖추어놓고 전기곤로, 석유곤로로 밥을 짓는 보다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있다.

〔원림화〕 수령님께서는 원림화사업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나무한그루, 꽃한포기를 심는데로부터 중소규모의 공원건설과 결합시켜 큰 유원지를 건설하는데 이르기까지 더 좋고 쓸모있고 교양적가치가 높은 문화휴식터를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장굴뚝하나를 세우고 집한채를 지으며 나무한그루를 심는데 있어서도 인민들의 복리와 건강증진을 먼저 생각하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오늘 평양은 원림화의 본보기도시로 되였다.

평양시 인구 한사람당 록지면적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48평방메터로서 이는 5명의 한세대가 평균 240평방메터의 록지를 가지고있는것으로 된다.

평양의 거리들은 만경대로부터 룡악산, 대성산 유원지에 이르기까지, 가깝게는 모란봉공원으로부터 대동강유보도와 보통강유원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공원, 유원지들과 록지들로 둘러싸여있다.

1973년에 원림부문에서는 만경대를 비롯한 혁명사적지들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야생화초들과 나무들을 더 많이 심었으며 대성산, 보통강, 모란봉 유원지 등을 비롯한 시내 공원, 유원지들에 더 많은 꽃과 나무를 심었으며 록지면적을 늘이였다.

평양의 나무들은 전후에 심은것만도 한사람당 10여그루나 된다. 평양의 건축밀도는 불과 20%, 나머지 80%는 모두 공원이나 유원지 등 록지로 꾸려졌다.

원산 송도원유원지와 아동공원에는 1973년에 거의 10만그루의 여러가지 나무들을 더 심었으며 송도원식물원에는 800여종의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과 구획을 늘이는 일을 적극 추진시켰다.

또한 10여개에 1만 3천여평방메터의 록지와 화단을 새로 조성하였다.

학생록화근위대원들은 담당구역내에 꽃씨와 잔디를 심었으며 일터와 가정, 거리와 마을을 더욱 문화적으로 꾸리였다.

이와 함께 동물원과 식물원들을 동식물학연구의 훌륭한 기지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리였다.

실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공해현상이 없이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을 마음껏 들이쉬고 마시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에 왔던 프랑스의 한 기자는 《빠리는 도시안에 공원이 있지만 평양은 공원안에 도시가 있다.》고 하면서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고 신선하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보 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착취와 압박, 기아와 빈궁이 없어지고 전체 인민이 다같이 행복하게 살고있을뿐아니라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시책에 의하여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념원도 점차 실현되여가고있습니다. 인민들은 누구나 다 병이 나면 제때에 무료로 치료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적극적인 예방치료대책에 의하여 여러가지 전염병들과 질병들의 근원도 거의 없어져가고있습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54페지)

수령님의 주체적인 인민보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그이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와 전국보건일군대회에서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가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는 인민들이 무병장수하는 지상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위생방역〕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근로자들이 병이난 다음에 치료하는것보다 병이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것을 보건사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있다.

1973년 중앙과 도, 시, 군들에 있는 위생지도위원회와 위생방역소 그리고 리, 동, 인민반,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위생방역초소들에서는 위생방역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활발히 벌리기 위하여 인민들속에 보건위생지식을 널리 보급하는 한편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문화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적극적인 실현대책을 세웠다.

학생문화위생근위대원들을 공장, 기업소, 인민반들에 내려보내여 위생방역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렸으며 기동선전대를 발동하여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높일데 대한 정치사업을 벌림으로써 낡은 생활습성을 버리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살며 일하도록 하였다.

특히 수령님께서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문화적인 생산환경과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공장안은 궁전같이 공장밖은 공원같이 만들며 거리와 마을, 살림집과 개체생활을 알뜰하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릴데 대하여 주신 교시가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모든 거리와 마을, 일터들이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려지고 병이 생길수 있는 근원이 없어졌다.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일정한 구역을 담당해가지고 위생방역, 검진, 예방치료사업을 하며 인민들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는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은 체계적으로 증진되였으며 지난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코레라, 장티브스, 일본뇌염, 학질, 지스토마 등 고질적인 전염병들이 완전히 없어졌다.

3~4월, 9~10월 위생월간에 《모범위생군》(구역)창조운동을 활발히 벌려 1974년까지 모든 군(구역)을 《2중모범위생군》(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으며 《모범위생가정》, 《모범위생인민반》창조운동도 동시에 벌림으로써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를 건설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 모든 문제해결에서 언제나 인민들의 건강보호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공업을 건설하는데있어서도 인민들에게 해를 주지 않으며 좋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생산력을 예견성있게 분산배치하여왔기때문에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큰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 공해현상을 미리 막을수 있게 되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실로 우리 나라에서는 홍역을 비롯하여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들씌우던 수많은 전염병들을 영원히 매장해버렸으며 보건사업발전의 집약적척도인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일제때보다 30년가까이 늘어나고 모두다 60청춘, 90환갑, 무병장수하는 세상에서 살게 되였다.

〔예방치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 다시말하여 근로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입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5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인민들에게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국가예산에서 방대한 보건사업비를 지출하고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보건사업비의 장성정형

년도	대비년도	장성률
1971년	1970년	119%
1972년	1971년	1.5배
1973년	1972년	115%

이처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1973년에 보건사업비를 더욱 늘여 치료예방기관들을 확장하고 그 시설을 원만히 갖추어줌으로써 인민들은 어느때든지 돈한푼 들이지 않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게 되였다.

인민들의 생명보호에 최대의 배려가 돌려지고있는 우리 나라는 인구 천명당 의사수, 의료시설수, 그 침대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의 대렬에 들어섰다.

도마다 도중앙병원, 군마다 군인민병원, 리, 동마다 진료소 또는 병원이 있으며 공장, 광산에도 산업병원과 진료소가 있다. 이밖에도 도시에는 큰 규모의 여러가지 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도처에 료양소와 보양소가 있어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고있다.

현대적설비로 꾸려진 이 모든 치료예방기관들에서는 치료받을 때에 드는 진찰비, 각종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식비 등 막대한 금액을 국가가 다 부담하여주기때문에 환자는 돈 한푼 물지 않으며 지어 병이 완치된후 건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보약까지 무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문화적으로 뒤떨어졌던 농촌보건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농촌진료소들을 병원화하고 농촌주민들의 의료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1972년 6월말현재로는 전국적으로 1,100여개의 진료소가 내과, 소아과, 산과, 구강과, 약국 등을 갖춘 인민병원으로 꾸려졌으며 1973년말에 이르러서는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은 훨씬 개선되였다.

군병원들이 종합병원으로 꾸려지고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가 적극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보건사업은 한계단 더 높이 발전하게 되였으며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봉사의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였다.

농촌경리의 화학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실에 맞게 농약과 살초제에 대한 보건위생학적평가를 과학적으로 하고 로동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웠으며 농촌수도화를 위한 수질분석사업과 급수원의 선택을 보건위생학적요구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였다.

또한 공장과 작업장들에서 유해로운 곳을 료해장악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로동위생학적대책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로동자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극력 줄이였다.

뿐아니라 광천료양치료를 비롯한 자연기후료법이 더욱 발전되고 온천이나 약수터마다에 훌륭한 시설을 갖춘 료양소들이 설치되여있어 우리 인민들은 병원에서만아니라 국가부담으로 경치좋은 온천, 약수터에 가서도 료양치료를 받고있다.

수령님께서는 1973년봄에 청산리약수터를 찾으시여 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여기에 본보기로 약수가공공장과 료양소, 려관을 건설하며 앞으로 다른 약수터에도 약수가공공장을 지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몸소 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3년에 청산리에는 현대적시설을 갖춘 약수가공공장이 일떠서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전반적무상치료제의 결과 중병에 들어도 약 한첩 써볼수 없었던 지난날 우리 인민의 처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누구나 병치료에 근심을 모르게 되였다.

누구나 다 의료혜택을 받게 된 결과 모든 질병을 제때에 발견하여 철저히 치료함으로써 병을 길러 치명적인 후과를 당하게 되는 불행이 영원히 종식되고 인민들의 건강은 믿음직하게 보호되였다.

〔어린이와 어머니들의 건강보호〕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와 어머니들의 건강보호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 때에도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에게 그 혜택이 우선적으로 미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 때에도 소아과와 산부인과부터 먼저 실시하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중앙과 도, 시, 군, 리 인민병원들에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조직되여있고 도시들에는 산원과 소아과 병원 그리고 아동병동과 어린이약공장, 어린이료양소들이 도처에 창설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에 대한 정연한 의료봉사체계가 확고히 서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독창적인 발기에 의하여 나온 아동병동이 도, 시, 군들과 중요 공장, 기업소에서는 물론 협동농장들에도 조직됨으로써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봉사체계는 더욱 완성되고 그들의 건강은 언제나 보건일군들의 책임적인 관리아래 백방으로 보호되고있다.

특히 도, 시, 군 위생방역소들에는 아동위생의사들을 배치하고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에도 의사, 간호원들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빈틈없이 보살피고있을뿐아니라 어린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각종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실시하고있다.

농촌녀성들까지 포함한 모든 녀성들에게 77일간의 산전산후유급휴가를 보장해주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자녀가 3명이상되는 근로녀성들은 6시간 일하며 체질에 맞는 작업조건과 로동보호대책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음으로써 어머니들의 건강은 철저히 보호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처럼 임신부들에게 무상으로 100% 해산방조를 주는 나라는 없다.

우리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여나기전부터 건강을 보호받을뿐아니라 세상에 태여나 사흘만에 벌써 예방약을 먹으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전문의사들의 지성어린보호밑에 나라의 기둥으로 건강하게 자라고있다.

실로 우리 어린이들은 누구나 태여나자마자 진찰을 받고 결핵예방접종을 받는때로부터 열다섯살이 되기까지 34번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있으며 백날기침, 소아마비, 일본뇌염 등 예방약을 86번 먹거나 맞음으로써 홍역과 백일해, 천연두와 지프테리아도 이제 더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수 없게 되였다.

국가부담에 의한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의 건강보호사업, 이것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또 하나의 공산주의적 시책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로 된다.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의 건강보호에 특별한 배려가 돌려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본 외국의 벗들은 일치하게 《조선은 참으로 어린이와 어머니들을 위한 나라》,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가장 행복한 고향은 바로 조선》, 《조선이야말로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의 지상천국》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보건일군양성 및 의학기술발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1973년에 군병원들이 종합병원으로 꾸려지고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가 적극 추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그에 필요한 보건일군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각 도 의학대학, 고등의학학교 등 정규교육망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의사기술자격검정시험제도를 통하여 의사, 약제사들을 키우는 사업과 함께 보건간부양성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

대의 보건기술자양성체계를 통하여 중등보건일군들과 기능공들을 키우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보건부에서는 이미 1971년말에 각 도(직할시)보건간부양성소를 중등보건일군을 키우기 위한 보건간부학교로 개편하고 그 규모를 늘이는 동시에 각 시(구역), 군에 분교를 내왔다.

1973년현재 전국적으로 10여개의 보건간부학교와 근 200개의 분교가 운영되였는데 여기에서는 간부학교로 개편되기전보다 약 4배나 더 많은 학생을 받아들여 준의, 조제사, 보철사, 조산원들을 키우고있다.

각지 보건간부학교들에서는 과정안에 따라 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회정치리론과목 학습과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등 의학기초기술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를 비롯한 각 전문부문과목에 대한 리론학습 그리고 림상실습을 실속있게 하여 리론적으로나 기술실무적으로 잘 준비되도록 교육교양하였다.

그리하여 해당한 과정안을 마친 수많은 우수한 준의와 조제사들이 각지 인민병원들에 나가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복무하고있다.

뿐아니라 의학과학기술부문의 여러가지 연구소들과 연구집단들이 새로 더 많이 조직됨으로써 우리 나라 의학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높이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25만의 보건일군대부대가 마련됨으로써 보건사업발전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을 자체로 풀어나가고있다.

현대의학의 성과에 기초하여 치료예방사업에 새로운 수단과 방법들을 제때에 도입일반화하고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의 전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의학과학기술연구부문일군들은 우리 나라 의학과학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의학과학기술연구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고열직장에서 유기체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기 위한 연구, 광폭 항비루스제 간섭소의 생산과 적용에 관한 연구, 우리 나라 광천에 대한 분광분석적연구, 탁아소어린이들의 일광욕조직에서 해빛조임량 결정에 대한 연구, 어린이들의 단백질소요량에 대한 연구 등 여러가지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농촌수도의 물원천에 대한 위생보호대책, 물의 질과 지형조건에 따라 물을 받고 소독하는 방법 등 농촌수도화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위생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약용식물개발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우리 나라에 풍부한 식물로 효능이 높은 주사약을 만드는데 성공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직접 리용하고있다.

뿐아니라 우리 나라 각지의 약수와 온천들의 성분분석사업을 진행하여 근 30가지의 새로운 금속원소 특히 많은 미량원소를 찾아냄으로써 광천치료의 과학성과 전문화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보건부문의 모든 기관들에서는 의료설비들과 병원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기계화, 자동화하며 진단과 치료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추진시켜 성과를 거두었다.

의사가 되기전에 공산주의자가 되여야 하며 참다운 인민의 복무자로 되여야 한다는 수령님의 가르침대로 보건부문일군들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인민들에게 모든것을 다 바쳐 복무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성을 다하면 못고칠 병이 없다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의학사상이 창시되였고 보건일군들의 심장속에 언제나 《정성》이라는 가장 높은 인간애가 뜨겁게 불타고있으며 혁명적동지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피와 살, 뼈까지 다 바치는 숭고한 공산주의정신이 활짝 꽃피고있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환자에 대한 끝없는 정성으로 하여 우리의 보건일군들은 소경의 눈을 뜨이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의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치료에 대한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참으로 모든 조건을 다 해결하여주고있는 가장 철저하고 가장 선진적인 무상치료제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1973년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이 더한층 두터워지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따라 조국통일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 그 어느해 보다도 세차게 전개되였다.

이해에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더욱더 깊이 체득하게 됨으로써 그들속에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로 싸워나가려는 지향이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힘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났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남조선혁명가들은 이해에도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들을 뭇고 그 조직을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속에 확대해나가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인민대중속에 보급선전하는 활동을 힘차게 벌리였다. 특히 통일혁명당은 기관지《혁명전신》과 《통일혁명당목소리》방송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적극 소개선전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 속에서 수령님을 무한히 흠모하며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실현에 적극 구현해나가려는 투지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파쑈폭압이 그처럼 엄혹한 《비상사태》하에서도 이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밝혀주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5대강령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미일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이며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외세의존과 민족분렬의 영구화에서 살구멍을 찾고있는 미일침략자들의 충실한 앞잡이인 박정희반역도당은 이해에 남북공동성명을 란폭하게 짓밟고 미일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애걸하고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민족의 백정 박정희괴뢰악당은 한편으로는《유신》의 간판밑에 인민탄압을 위한 파쑈독재, 영구집권을 위한 책동을 강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책동에 발맞추어 《실력배양》책동을 강화하면서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하여 발악하였다. 특히 박정희도당은 걷잡을수 없이 뒤흔들리는 저들의 파쑈통치지반을 수습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그 어느해보다도 《반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민족내부에 반목과 적대관계를 조장격화시키고 통일을 가로막으며 민족의 분렬을 고정화, 영구화하기 위한 악랄한 책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그러나 이해 남조선정세발전은 침략자와 매국노들이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무모하게 책동하면 할수록 그것은 저들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뿐이라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이해 박정희매국도당의《유신체제》와 《두개 조선》조작책동 그리고 예속적인 경제정책 등이 전면적인 붕괴와 파산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박정희군사파쑈악당의 정치, 경제적 위기는 전례없이 심각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충성심과 경모

남조선인민들은 1973년에도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따르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억세게 싸워왔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불타는 충성심은 애국심의 가장 높은 표현으로서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남녀동포들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에게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지상락원을 마련해주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을 높이 칭송하면서 자기들에게도 그처럼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심려하시는 수령님을 우러러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러기에 어버이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배려에 무한히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오직 그이의 품속에서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 신념이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또한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을 수령으로 모시고사는 크나큰 영광과 자부심이 그처럼 높기에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자기들도 공화국 북반부인민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된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남조선에 뒤덮인 비운을 가시고 밝은 빛발을 주는 투쟁의 기치》, 《우리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정신적구심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걸출한 지도사상》이라고 한결같이 높이 칭송하면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체득하기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있으며 혼자서만 학습하지 않고 집체적으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참된 진리를 심장마다에 아로새기고있다.

1973년초에 서울에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가 조직된것을 비롯하여 대구, 안동, 울진 등 남조선 여러

지방들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는 소조들이 수많이 무어졌다.

학습소조의 명칭과 형태들도 《4. 15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김일성주의 연구회》, 《위대한 주체사상연구회》, 《김일성주석님혁명력사연구회》,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 연구소조》등 망라 대상과 수준, 환경에 따라 다양하였다.

이해 소조와 연구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연설, 일본《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롯하여《김일성저작선집》에 담겨진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위대한 주체사상해설서인《김일성주의원리》《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수록되여있는 전기《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학습하였다.

1973년에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속에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를 따라 배우려는 지향과 열의가 그 어느해보다도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따라 영원히 살며 싸워가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의 한길에서 한생을 꽃피워가려는 충성의 맹세를 다지고있다.

《통일혁명의 대하속에 몸을 잠근 우리 혁명가들은 살아도 오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사색하며 죽어도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끝까지 헌신 분투할것이다.》

《파란만장의 시련을 이겨내고 형극과 암초를 뚫고넘으며 오늘의 높은 차원에로 힘차게 달려온 남조선혁명은 오로지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의 향도하에서만 약동하고 전진할것이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심장깊이 뿌리내린 이 신념, 이것은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영원토록 빛내여가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려는 표시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준 불멸의 진리, 허나 이 위대한 진리에 도달하기까지에는 험난한 가시밭길과 쓰라린 피의 교훈을 거쳐야 하였다.

정녕 투쟁이 없이는 살수도, 죽을수도 없는 막다른 갈림길에서 구원의 길, 투쟁의 전략인 위대한 강령이 해발처럼 비쳐왔으니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남조선혁명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필승불패의 기치이다. 그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남조선혁명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명시하고있는데 있다. 》

《혁명에서 어떠한 립장과 방법을 세우는가하는것은 그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바로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 다시말하여 투철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혁명에서 남조선민중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혁명에서 남조선민중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그 승리를 기약하게 하는 기본열쇠이다. 이 기본열쇠를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에게 주고있는것이다. 》

남조선혁명가들이 찾은 이 진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재부이며 백과전서였다.

그런데 남조선혁명은 남녘땅을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세우기 위한 혁명이며 남조선인민을 계급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함으로써 그들이 남조선사회의 주인된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혁명이다.

이 혁명은 남조선인민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람이 하여 줄수 없다는것을 력사가 이미 증명한것만큼 남조선인민들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이 땅에서 기아와 빈궁과 무권리에 신음하는것도 우리 인민이요, 외세의 침략에 몸부림치는것도 우리 인민이요, 국토분단의 비운으로 가슴 쥐여뜯는것도 우리인민이다. 남조선혁명은 우리 인민의 사활적인 문제이며 우리 인민은 혁명없이는 살수 없는 운명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남조선의 혁명문제를 당사자인 우리보다 더 절절하게 해결하려고 애쓸 사람도 없는것이요, 그 혁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 사람도 없는것이다. 인민은 반드시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남조선혁명의 참모부인 통일혁명당을 창건하였다. 혁명적인 당, 불사신의 당—통일혁명당의 창건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결실이였고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추진력이였다.

《주체사상으로의 정신무장!》—이것은 오늘 남조선혁명가들의 첫째가는 구호이며 수령님의 참된 전사가 되려는 그들의 철석같은 신조이다.

《조선의 혁명가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요구는 김일성동지의 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이다. 》

《혁명적세계관을 형성발전시키고 그를 공고화하는 유일한 원천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따라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은 현시대의 혁명가 김일성주의자로 탄생하는 가장 중핵적인 조건으로 되는것이다.》

남조선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참된 혁명의 길에서 혁명적심장과 투지를 키워준 광휘로운 해발이다.

《혁명가는 잠이 모자라서는 살수 있으나 자기 수령의 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지 못하면 영영 죽고 만다.》

이것은 남조선혁명가들이 피의 교훈으로 얻은 진리이며 철학이다.

수령님의 불멸의 로작에 담겨진 혁명의 불씨를 가슴깊이 간직하면서 혁명가들은 남조선 방방곡곡에 태여난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연구회》들에서 탐구와 탐구의 밤을 지새우고 새벽이슬을 밟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현시대의 탁월한 지도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정신무장할 뿐아니라 전체 군중을 주체사상으로 각성시켜 나갈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조건은 간고합니다. 그러나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고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혁명투쟁에 나선 우리들은 그 어떤 난관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민중을 더 빨리 각성시켜 나갈것입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수령님께 다진 맹세대로 공장과 농촌, 대학과 거리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선전하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펼쳐가는 곳마다에서 수천수백의 혁명가들이 혁명조직에 결속되고있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수령님께서 몸소 헤쳐오신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력사가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기에 저같은 로동자도 그 빛발아래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투쟁의 길에 나설수 있었으며 오늘은 통일혁명당 당원이 되여 혁명의 길을 걷고있는것입니다.》

《수년전까지만 하여도 외래침략자와 매국노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근로대중은 빈궁과 무권리에 신음하고 통곡하는 이 모순된 사회를 저주해오던 제가 인류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받들고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게 된것은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저는 이몸이 혁명의 길에서 천백번 쓰러진다해도 수령님께 바쳐진 혁명적 신조만은 영원히 간직할 불같은 충성의 서약을 다지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충성다하며 주체사상으로 살며 싸우려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굳센 의지는 어떤 파쑈적탄압으로써도 막을수 없으며 혁명의 한길을 따라 나아가는 대세의 흐름을 멈춰 세울수 없다.

김일성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 북반부는 참으로 살기좋은 지상락원이다

《빛없고 공기없고 답없는》 암흑세계에서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령도하고계시는 공화국북반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누구나 배우고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지상락원인 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다.

《우리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이북과 같은 세상이다.》

《김일성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북반부는 참으로 살기좋은 지상락원이다.》

《농촌에 가보면 농촌에서 살고싶고 공장에 가보면 공장에서 일하고싶고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서 공부하고싶다 이것은 천사람, 만사람 보아도 일치하게 느끼는 마음일것이다. 륭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이것은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은덕이다.》

김일성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북반부 인민들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자식을 공부시킬 걱정, 병나면 치료받을 걱정등 아무러한 근심걱정 없이 모두다 행복하게 살고있다.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공화국북반부는 세상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지상락원이다.

지상락원인 공화국북반부의 세기적 변혁을 두고 남조선인민들은 그것이 바로 언제나 흠모하고있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사상의 결실이며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결과이라고 부러워하고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공화국북반부를 사회주의공업국으로 만드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북반부는 강력한 공업국이며 기계의 왕국이다.》

《북반부는 정말 선진적인 공업의 나라로 되였다.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된 나라로, 쇠물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고 이르는곳마다에서 큰 기계 작은 기계가 줄지어 나오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다. 북반부는 문자그대로 락원으로 변했다.》

농촌경리도 강력한 주체공업에 토대하여 전기화, 수리화가 완성되고 기계화와 화학화에서도 일대변혁을 가져와 어렵고 힘든 일에서 벗어나려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믿음직하게 풀어주고있다.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사는 조선인민은 참으로 행복하다. 우리 나라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뜨락또르, 자동차를 만들어 내게 되였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오직 김일성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 안겨야만 어떤 왕가물과 큰물에도 끄떡없이 해마다 풍작을 이룩하며 근심걱정없이 살수 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과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동경심은 로동자, 농민뿐만아니라 청소년학생들속에서도 날이 갈수록 두터워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또하나의 크나큰 은덕과 배려에 의하여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의 새 세대들은 사실상 11년제의무교육의 행복을 누리고있다.

《북반부는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지상천국이다. 이남에서는 그 어디서나 껌이나 담배상자를 멘 어린이들이 거리와 골목을 메우고있는데 북반부에서는 그런것을 꿈에도 생각할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공납금, 잡부금이 무엇인지 모르고 배움의 전당과 궁전에서 마음껏 공부하고있다니 얼마나 행복한가.》

《남조선에서는 학생들이 피를 뽑아 팔아서 공부하다가 몸에 병이 나서 죽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그런데 북반부에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학용품을 주고 철따라 옷을 주고 지어 대학생들과 고등기술학교학생들에게는 돈까지 주어 공부시킨다니 어버이수령님은 참 고마운 분이시다.

어서 통일이 되여야 우리도 그이의 품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며 행복을 누릴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 근로자들이 병치료에 대한 아무러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것을 알게 된 서울의 한 주민은 《이남에서는 돈이 없으면 병원문앞에도 갈수 없고 환자들은 약 한첩 써보지 못하고 죽어간다. 돈 한푼 안들이고 병고쳐주는 세상은 아마 이북밖에 없다》고 감탄하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경모와 존경심은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시여 사회주의지상락원을 세워주시였고 지켜주신 백전백승의 군사사상과 령도예술에 대한 무한한 감탄과 신뢰에도 풍부히 담겨져있다.

《특히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평생토록 잊을수 없는 깊은 감명을 준것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에 응당한 징벌을 내리고 침략자들을 통쾌하게 굴복시키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단호한 립

장과 견결한 조치였습니다.

소위 〈핵초대강국〉으로 자처하는 미제가 〈푸에블로〉호의 〈탈환〉이요, 〈보복〉이요 하면서 저들의 륙해공군무력을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에 대량 투입할 때 전세계가 일제히 숨을 죽였고 일부 벗들까지도 손에 땀을 쥐였으며 폭풍전야의 정적속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북쪽하늘만 우러러 주시하였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 후세의 력사가들도 감격과 흥분없이는 붓을 들지 못할《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폭탄선언이 전세계에 메아리쳤습니다.

수령님의 이 추상같은 선언앞에서 그처럼 허장성세를 부리던 〈대아메리카〉가 무릎을 꿇었을 때, 세계가 경탄의 환성을 올렸던 그 력사적 순간에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서 힘차게 파도친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싸우는 무한한 행복이였고 자랑찬 영예감이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되새겨주신 당당한 민족적존엄이였고 드높은 혁명적긍지감이였습니다. 》

《인민군대가 양코배기를 꺾어놓았다. 빈 깡통같은 놈들, 큰소리는 쳐도 인민군대앞에 꼼짝 못한다. 참말 공화국북반부 인민들과 인민군대는 당당하고 떳떳하다.

김일성원수님의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수 있다. 이제 또다시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때에는 제놈들이 지른 불길속에서 영영 타죽고야 말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내놓으신 방안이야말로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 6월 23일의 력사적인 연설에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3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래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고 살며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은《이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환호를 올리면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평양에서 조국통일의 5대방침을 선포하시였다. 이 5대방침은 남북공동성명보다 더 큰 충격, 더큰 감격을 우리들에게 주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이들은 조국통일의 5대방침을 《통일의 길을 환히 밝혀준 등대》, 《조국통일의 대강》, 《민족의 통일념원을 가장 훌륭히 반영한 애국방안이며 민족의 대강령》,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정당한 방안》, 《조국통일에로의 지름길을 밝혀준 홰불》이라고 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에 휩싸였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실 분은 김일성주석님뿐이시다. 우리의 불타는 심정을 헤아리시기에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의 5대방침을 내놓으신것이다. 5대방침은 침침하였던 우리의 가슴을 확 헤쳐주고 우리를 통일에로 힘차게 고무해준다.》

《금번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5대방침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던 남북대화를 촉진시키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유일한 방도이다.》

《이러한 현명한 통일방안은 우리 민족의 구성으로, 태양으로 우러러 존경받고계시는 김일성주석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다. 참으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시기적절한 때에 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광명을 비쳐주시였다.》

이렇듯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면서 조국통일방침을 열렬히 지지하고있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내놓으신 방안이야말로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안이다.》

《고려련방공화국의 창설과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대민족회의소집 등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얼마나 현명한 제안인가!

이 통일강령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로동자대중은 물론 청년학생, 종교인, 민족 자본가를 막론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의 통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접수할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것은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가시고 신뢰를 회복하며 통일론의를 어느 특권층만이 아니라 온민족이다 할수 있게 하며 지혜와 힘을 합쳐 그것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애국적제안이다.

《실로 이 강령은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느냐 아니면 하나의 통일국을 가지느냐하는 엄숙한 갈림길에서 영구분렬의 위기를 막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길을 환히 밝혀준 등대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숙원이며 지상과업인 조국통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천명하신 5대방침에 따라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고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의 분렬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 이 현명한 방침을 하루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궤변으로 통일을 극력 방해하고있는 인간쓰레기들을 반대하여 각계각층 민족들이 다같이 들고일어나 싸울것을 호소하고 싶다.》

《우리 민족은 절대로 두개로 갈라져 살수 없다. 두개의 조선이란 생각만해도 분통이 터질것만 같다. 단일민족의 단일국가, 이것은 온겨레의 열망이며 의지이다.

이제는 통일문제를 어느한 특권층만이 독점해서 빈소리만 하고있을때가 아니다. 우리도 통일론의에 참여해야 한다. 진정 통일에 관심이 있고 리해관계가 있는 각계각층이 모여 대민족회의를 열고 우리 로동자들의 의사도 들어야 한다.

온 민족이 참여하여 통일문제를 론의하여야 한다. 통일에로의 지름길은 이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

아가기 위하여 그이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목숨바쳐 싸워나가겠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온 겨레가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타는 념원은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

남조선인민운동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인류해방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주체조선의 긍지와 천리마조선의 기상을 담은 20세기의 위대한 변혁으로 수놓아진 우리 나라는 오늘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온 세상에 그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주체사상과 세계혁명전략은 5대륙의 더욱더 많은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에 파고들어 도처에서 반제반미투쟁과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유리한 내외정세의 흐름을 타고 영광찬란한 주체의 해발은 암운을 헤가르며 남녘땅에도 더욱 밝게 비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반미 반파쑈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온 세계가 우러러 모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녘동포들을 안아주시고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진략전술이 남반부인민들의 진로를 등대처럼 밝혀주고있기에 남조선인민들은 파쑈광란의 어둠이 뒤덮인 대지우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가슴 불태우면서 멸적의 기세드높이 승리봉을 향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쳐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그들의 투쟁이 온 민족의 사활적리익에 직접 관련되는것만큼 우리는 이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을 같이 지는 립장에 확고히 서있을것입니다.》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단행본, 7~8페지)

수령님께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돌려주시는 이 뜨거운 배려는 미일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들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빛나는 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의 비할바 없는 제고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남조선혁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고한 신심과 무한한 용기와 힘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는 통일혁명당의 출현과 그의 활동은 남조선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와 남조선혁명발전에서 전환점으로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 권리와 리익의 진정한 옹호자,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투쟁의 위대한 기치를 지니게 되였다.

통일혁명당의 활동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비로소 옳바른 궤도우에서 전진하게 되였을뿐아니라 종래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당의 통일적인 향도밑에 하나의 거세찬 혁명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매국적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의 6.3봉기,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의 8월투쟁, 1967년의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 《선거》반대투쟁을 비롯한 수많은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역할을 하고있다.

투쟁과정에서 당은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4.19, 6.3,8월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힘을 쉬임없이 단련하여왔으며 부단히 발전시켰다. 박정희역도의 이른바 《유신체제》의 그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통일혁명당은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 그리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내놓으신 자주적조국통일 강령과 방침들을 해석침투하여 그의 구현을 위한 실천투쟁을 통해 주체적혁명력량을 그 어느해보다 축적하고 키웠으며 남조선혁명의 향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였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197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축하문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당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당을 로동자, 농민을 위시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전투력있고 탄력성있는 전위부대로 성장시키고 당의 향도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투쟁을 보다 높은 차원에로 승화시켜나갈것입니다.》

이른바 《10월유신》후 미친듯이 벌린 련속적인 새 전쟁 도발연습소동, 《반공》공세와 파쑈탄압의 강화 등 박정희역도는 남북분렬을 고착시키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전쟁의 길로 이끌어가려는 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통일혁명당 각 조직들에서는 1월초에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당의 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벌릴것 등 대책적문제들을 세우고 각계각층 군중속에서 힘찬 활동을 벌렸다. 4월 27일에는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급변하는 남조선 정치정세에 대처하여 5월을 민중에 대한 《정치선전특별월간》으로 정하는 동시에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조치를 각급 당조직들에 내려보냈다. 특히 활동방침에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께서 1973년 4월 16일에 하신 연설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를 구체적으로 연구파악한 기초우에서 활동을 벌릴것이 지적되여있다. 6월 5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5월중 《정치선전활동》을 총화하고 금후 각계각층민중에 대한 정치선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리기 위한 방침을 산하 각급 당조직들에 내려보냈다.

6월 25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6월

23일 연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지도부긴급회의를 가지고 6월 23일 연설에 따른 정치선전활동을 광범한 군중들속에서 활발히 벌렸다.

한편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5월 10일 박정희역도가 감행한 5.16 《군사정변》12돐이 되는 날에 《박정희역도의 만고대죄에 관한 백서》를, 5월17일에는 남조선근로대중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싸워서 살길을 찾자》를, 6월 20일에는 6월 25일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 날을 계기로 놈들의 용서못할 범죄와 조선에 대한 변함없는 침략정책을 단죄하여 남조선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고하는 고발장을, 7월 1일에는 《구국통일선언》을 발표하였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 통일혁명당의 이러한 활동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반제반미반박정희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973년에 통일혁명당은 남조선 각계층인민들에 대한 《정치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 이른바 《유신체제》강화라는 박정희역도의 반동적책동을 맞받아 싸우는 과정을 통해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공고화 하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과정에서 더욱 세련시키고 단련시켰다.

거세차게 타번진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파쑈적폭압이 그처럼 엄혹한 <비상사태>하에서도 또다시 구국투쟁에 용감히 일떠섰습니다.》 (1974년 《신년사》, 8페지)

1973년에 남조선인민들은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박정희파쑈악당을 때려엎기 위한 구국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인민들이 벌린 반파쑈민주화투쟁의 불길은 온 남녘땅에 세차게 타번졌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통치지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았다.

청년학생들의 투쟁

1973년에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은 가장 적극적이며 완강한 투쟁을 벌리였다.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생들이 추켜든 반파쑈민주화투쟁의 홰불은 약 3개월간에 58개의 대학과 13개의 고등학교로 번져갔으며 10여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려는 불타는 결의를 안고 《박정권타도》를 부르짖으며 높이 추켜든 청년학생들의 민주의 홰불은 남조선의 암흑천지에 반파쑈민주화의 선풍을 불러일으켰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 300여명은 10월 2일 아침 학교에 나오자 곧 교내 《4.19학생 의거탑》앞에 모여 항쟁의 봉화를 올렸다. 그들은 《누구를 위한 <10월 유신>이냐, 국민의 노예화를 위한것인가》라고 쓴 프랑카드를 내걸고 박정희 파쑈매국도당을 폭로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에서 학생들은 《력사적민주투쟁의 봉화에 불을 지핀다》라고 정의의 항쟁에 일떠선 자기들의 궐기취지를 밝힌 다음 파쑈적인 《비상사태》우에 1972년 10월에 다시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여 1인1당 파쑈독재체제를 수립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분렬의 영구화를 획책하는 박정희 괴뢰도당의 반인민적, 반민족적죄행과 부정부패행위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학생들은 대학생회 이름으로 된 선언문을 소리높이 랑독하고 이어 4개항목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하여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자기들의 불타는 지향을 밝히였다.

학생들이 채택한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보파쑈정치를 즉시 중지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체제를 확립하라 2) 대일 예속화를 즉시 중지하고 경제의 자립을 확립하며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라 3) 정보파쑈정치의 원흉인 《중앙정보부》를 즉시 해체하고 국민의 누구나가 격분하고 있는 김대중사건의 진상을 즉시 명백히 하라 4) 지식인, 정치가, 언론인들의 심각한 반성을 요구한다.

이날 학생들은 《독재를 타도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웨치면서 노도와 같이 교문으로 달려나갔다.

이에 질겁한 남조선괴뢰경찰놈들은 서울대학교의 문리과대학정문을 포위하고 학생들이 거리에 떨쳐 나서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고 발광하였다. 놈들은 학생들을 곤봉으로 마구 때리고 구두발로 차면서 발악적인 체포소동을 일으켜 200여명을 체포하여 서울시내의 4개 경찰서에 가두어넣었다.

10월 2일 서울의 모 대학의 지하학생단체인 《반독재민주수호학우회》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의 반독재민주화를 위한 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그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갈것을 다짐하면서 자기들의 불같은 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들 대학교 《반독재민주수호학우회》는 유신독재의 타도없이는 《한국》이 망하고 정보파쑈정치의 타파없이는 국민이 죽어야 할 력사적순간임을 인정하고 봉화는 불길이 되여야 하고 자유의 타종소리는 민중의 함성이 되여 전국을 휩쓸지 않으면 독재의 광풍에 꺼져버릴 숨가쁜 현실임을 인정하면서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지적하였다.

1) 우리는 반독재민주수호의 전위임을 자각한다 2) 국민의 노예화를 목적한 《10월유신》의 철회를 주장한다 3) 김대중사건의 즉시 해명과 그 조작범인 중앙정보부의 즉각 해체를 요구한다. 4) 학생들에 대한 탄압의 중지, 련행학생들의 즉시 무조건 석방요구 5) 박 《정권》의 학생탄압을 지지하며 성스러운 민주항쟁을 승리에로 종착시키기 위하여 전국의 학우들은 총집결 분기하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이 지펴든 반파쑈 민주화투쟁의 봉화는 세찬투쟁의 불길로 급속히 타번져갔다.

10월 4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 300여명은 《기본자유의 회복》을 요구하여 반정부시위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교문을 가로막은 200여명 경찰놈들의 발악적폭압으로 밖으로 밀고나가지는 못하였으나 운동장에 계속 앉아버티면서 《박정권하의 독재》와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경찰과 정보원들의 감시》를 규탄하는 등의 구호를 웨쳤다. 그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일 두 침략세력을 등에 업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으며 《10월유신》의 야수적테로폭압으로 생존과 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정당한 지향을 억누르기에 발악해온 죄행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면서 《부정의가 폭력수단으로 정의를 지배하였다》라고 락인찍었으며 《독재에 대한 항거를 선포하였다》고 소리높이 웨쳤다.

10월 5일 밤 10시 30분에 5천명이 훨씬 넘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서울시내 한복판의 가장 번화한 거리라는 명동거리에서 대규모적인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기세충천한 학생들은 모두 5~6명씩 굳세게 어깨를 걷고 박정희깡패악당들의 파쑈테로통치와 매국배족적죄행을 폭로규탄하는 구호들을 웨치면서 명동거리 일대를 휩쓸었다. 이리하여 서울시내 한복판은 박정희파쑈매국도당을 반대규탄하는 함성속에 파묻히고 그 일대의 교통은 마비상태에 빠졌다.

이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생들이 다시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학우들이여, 오늘 우리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유린하는 암담한 현실을 좌시할수 없어서 분연히 일떠섰다》라고 시작된 선언문을 소리높이 랑독하고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며 련행하여간 학생들을 즉시 석방하라》, 《정보파쑈정치를 즉시 중지하고 그 원흉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 《대일예속성을 청산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증하는 신생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라》는 4개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투쟁은 더욱 확대되여 10월 6일에는 1만여명의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또다시 거리로 떨쳐나와 대규모적인 반《정부》시위투쟁을 벌리였다. 괴뢰 기동경찰대놈들의 발악적인 탄압을 박차면서 5~6명씩 서로 어깨를 걷고 기세충천하여 달려나온 5천여명의 연세대학교 시위대렬은 을지로쪽으로, 역시 같은 수의 고려대학교의 시위대렬은 청계천쪽으로 각각 빠져나와 《시청》쪽을 향하여 도도히 거리를 누벼나갔다.

10월 6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생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만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6일부터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상과대학 학생들에 뒤이어 서울대학교 문리파대학, 법과대학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계속되여 10월 17일에 파쑈악당들의 야만적폭압만행을 반대하는 건국대학교, 법정대학교 학생들의 대중적투쟁이 벌어졌다.

10월 22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은 이 대학교수를 잔인하게 학살한 박정희파쑈악당들의 흉악한 살인만행에 항의하여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10월 23일 서울대학교 산하 각 대학 학생회의 회장들로 무어진 총학생회는 박정희파쑈도당과 대학교당국에 7개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건 성명서를 살포하였다. 성명서에는 《1)정부는 신변을 구속당한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2) 학원의 자치권을 보장하라 3) 국민앞에 이번 사건이 대학교 법과대학의 최종길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체포구금되여 잔인무도한 고문을 당한끝에 학살된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 4) 민족을 위한 건설적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5) 학교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백지화하라 6) 학교는 정부의 정책 집행의 하수인으로서의 기능을 중지하라 7) 요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적하였다.

10월 26일 박정희 파쑈악당의 탄압을 박차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1천500여명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이렇듯 10월 2일부터 11월초까지는 주로 서울대학교 청년학생들이 투쟁의 기본대오를 이루어오다가 정황에 따라 동맹휴학에 들어간 시기에 시안의 다른 대학의 청년학생들이 항쟁의 마당에 떨쳐나서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의 불길을 계속 올리였다.

11월중순부터는 박정희파쑈정권을 쓸어버릴 항전에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숭전대학교, 서강대학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동아대학교, 외국어대학, 홍익대학, 명지대학, 항공대학 등 서울시안의 거의 모든 대학교와 단과대학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함으로써 투쟁은 보다더 확대되고 격렬해갔다.

이들은 투쟁에 나서자 처음부터 박정희파쑈악당의 폭력에 맞서 치렬한 투석전을 과감히 벌리는 용감한 투쟁모습을 보여주었다.

11월 7일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500여명이 반《정부》성토대회를 갖고 가두시위를 벌렸으며 11월 8일에는 1천 400명의 서울대학교 교양학부 학생들이 박정희 괴뢰도당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10일동안 동맹휴학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날 150여명의 가정대학 녀학생들도 반《정부》성토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9일에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치과대학, 상과대학,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신학대학》, 외국어대학 등 수많은 대학들에서 박정희도당을 반대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리였다. 11월 12일 서울 리화녀자대학교의 4천여명 학생들은 대학총학생회 주최로 진행된 성토대회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민주체제를 확립하라》, 《구속된 학생들을 석방하라》, 《정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정부는 학원의 자유와 교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은 그 본분을 다하라》고 호소하는 등 6개 항목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리화녀자대학교 4천여명 학생들이 성토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체제를 확립하라 •《정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에게 본분을 다할수 있게 하라 •《정부》는 학원의 자유와 교육권을 보장하라. • 구속된 정의의 학생들을 즉시 석방하여 학교에 복귀시키며 대학인들의 정의와 량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 최근 발생한 학원의 움직임들에 대하여 억압과 탄압이 아니라 성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 • 우리들 8천 리화대학인들은 이상 사항들을 관철시킬때까지 왼쪽가슴에 검은 댕기를 달기로 한다.

그들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 진정한 민주사회와 정의를 구현하자》고 한결같이 결의하였다.

이날 그들은 학생들의 손에 들어간 등사된 결의문과 가슴에 달고있는 검은 댕기를 빼앗아 내려는 특무도당들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웠다.

한편 10월 13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단식 롱성투쟁에 들어갔으며 고려대학교 간부들과 단과대학 학생회장 20여명은 대학교 총학생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적이며 파쑈적인 죄행들을 준렬히 규탄하였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등 5개 항목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싸울 굳은 결의를 다지면서 회의실문을 잠그고 15일까지 롱성투쟁에 들어갔다.

11월 15일에도 학생들의 대중적투쟁은 계속 강화되였다. 11월 9일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간 《한국신학대학》학생 90여명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를 반대배격하는 무언의 항의로서 면도칼로 자기들의 머리를 깎아버리는 새로운 형태의 투쟁을 벌리였다. 11월

16일에 다시 대중적시위투쟁에 일떠선 연세대학교 학생 2천여명은 성토대회를 벌리고 박정희반역도당의 죄행을 폭로규탄한 다음 《학술연구활동에 대한 감시와 학교사업에 대한 간섭을 즉시 중지할것》,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성토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반역적 및 파쑈적 죄행을 규탄하는 구호들을 련방 웨치면서 교내에서 기세드높이 시위를 벌리였다. 이윽고 가두 시위를 벌리기 위해 교문으로 달려나간 그들은 학교를 포위하고 있던 300여명의 경찰놈들과 맞다들어 치렬한 싸움을 벌리였다. 또한 이날 반독재민주화를 위한 의로운 투쟁에 서울의 숙명녀자대학교 학생들도 호응하여나섰다. 3천여명의 이 대학 학생들은 대학강당에서 나라의 영구분렬과 장기 집권을 획책하면서 인민들에게 류례없는 야수적폭압을 감행하고있는 박정희파쑈도당의 반인민적죄행을 치솟는 격분으로 규탄하였다. 학생들은 이날 《구속된 우리 동료들을 석방하라》, 《학원의 민주화를 보장하라》, 《사복경찰관을 철수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3개항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날 400여명의 음악대학 학생들도 성토대회를 열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 전횡과 매국배족행위를 치솟는 분노로 단죄하였다. 서울의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17일에도 수업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리였다.

11월 26일 연세대학교의 상경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학생 600여명은 또다시 박정희파쑈도당의 죄행을 규탄하는 성토회의를 가지였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의 어떠한 폭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11월 26일 서울의 숭전대학교 학생 600명은 학교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반역적 및 파쑈적 죄행을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갖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구속된 학생들을 석방하라》, 《대일예속경제를 그만두라》 등 5개항목의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1월 27일 오전 서울의 성균관대학교 학생 1천 200명은 운동장에 모여 비상 총학생회의를 연 다음 박정희도당의 죄행을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가지였다. 이 성토대회에서 학생들은 《자유와 민주체제확립》, 《학원의 자유보장》, 《언론, 자유보장》, 《구속학생석방》, 《일본에 의한 경제식민지화 반대》등의 5개항목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같은날 서울의 새문안교회에 망라되여있는 40여명의 대학생들은 교회앞에서 《구속학생 석방하라》, 《교회사찰을 중지하라》,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 등의 글발이 쓰인 구호판을 들고 모임을 가지였다. 자기들의 투쟁결의를 담은 호소문을 랑독한 그들은 기세드높이 저마다 손에 홰불을 추켜들고 시위에 떨쳐나섰다. 11월말에 들어서면서 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더욱더 치렬해졌다. 11월 28일, 29일에도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한양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 서울의 경희대학, 동국대학, 숙명녀자대학교, 《한국신학대학》, 《수도녀자사범대학》, 건국대학 학생들이 《유신체제반대》, 《강압정치금지》, 《비상사태를 해체하라》, 《한일각료회담 걷어치우라》, 《대일굴욕외교를 즉각 중지하라》, 《정보정치를 즉각 중지하고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라》 등을 주장하면서 성토대회, 시위투쟁, 경찰들과 투석전, 단식롱성투쟁, 강제방학거부, 시위투쟁들을 벌리였다.

11월 29일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학생회의실에 모여 간부회의를 열고 100시간 단식롱성투쟁을 벌리기로 결의하였다. 학생간부들의 투쟁결의에 고무된 이 대학교의 50여명 학생들은 곧 강의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구속학생을 즉시 석방하라》, 《문교부장관은 물러가라》 등 5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리였다. 11월 30일 덕성녀자대학 학생 500여명은 놈들이 앞당겨 강요하는 학기말시험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경찰놈들이 학교주변에 겹겹히 늘여 놓은 폭압망과 학교뒤문앞 철조망을 뚫고 노도와 같이 항쟁의 거리로 밀려나갔다. 그들은 산도등고개까지 나갔다가 경찰놈들과 맞서 세찬 싸움을 벌리였다. 또한 이날 홍익대학 학생들은 최루탄을 쏘아대며 달려드는 기동경찰 10여명과 맞서 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기면서 세찬 공방전을 벌렸다. 《조기방학철페》 등 8개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또다시 항쟁의 거리로 뛰쳐나온 고려대학교 학생 500여명은 만세와 노래를 부르며 경찰들과 용감히 싸웠다.

12월에 들어서 투쟁은 계속되였다. 12월 2일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상과대학 학생들의 단식롱성투쟁,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의 대중적시위, 동덕녀자대학과 상명녀자사범대학 학생들의 투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강의실에 바리케트를 쌓고 벌린 투쟁 등이 진행되였으며 3일에는 명지대학, 국제대학, 카톨릭대학, 항공대학 학생들의 힘찬 투쟁들이 벌어졌다. 녀자대학생들의 투쟁도 강화되여 12월 3일 현재 서울한곳에서만도 리화녀자대학교와 숙명녀자대학교 등 녀자종합대학과 8개의 녀자단과대학의 연인원수 약 3만명의 녀학생들이 반파쑈구국투쟁에 떨쳐나섰다. 여기에서 리화녀자대학교의 4천여명의 학생들이 가슴에 《검은리봉》을, 상명녀자사범대학 250여명의 녀학생들이 《흰리봉》을, 숙명녀자대학교의 2천여명 녀학생들이 《검은 세타》에 《검은바지》의 상복으로 투쟁을 벌린것 등은 박정희군사파쑈독재를 저주배격하며 장사지내는 그들의 강력한 의사표시이기도 하였다.

서울에서 학생들의 투쟁이 더욱 세차게 벌어지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문리파대학 학생들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정보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전역의 대학생들이 궐기할것을 호소하여 《민주대학생들에게 고함》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호소문에서 남조선대학생들이 현 《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족적 성격을 송두리채 뽑아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새로운 민주사회를 위하여 먼저 새로운 민주정권을 수립하자.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세계를 향한 우리의 첫발자욱이 될것이며 력사의 첫장을 장식할것이다.

학우여 궐기하라.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국민은 총궐기하라.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 새로운 민주정권을 세우자.

언론인과 야당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12월 4일에는 남조선의 학생조직의 하나인 《서울민주수호학생회》가 《열혈학도들에게 고함》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청와대의 백색전제군주는 자유와 민주, 구속학생석방을 요구하는 대중적항거의 그 웨침을 분산와해코저 조기방학으로 위장된 정치방학이라는 상투적폭압수법에 매달렸다》고 하면서 《학우들이여! 우리가 과연 사랑하는 형제들이며 전우인 구속학생들을 석방시키지 못하고 방학에 들어갈수 있단 말인가? …구속학생들을 석방시키자, 정의의 투지를 가다듬고 스크람을 짜자! 모두다 강제방학을 반대하고 구속학생을 석방시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서라. 추켜든 자유와 민주의 기발을 내리우지 말자! 학우여! 궐기하라》고 힘주어 지적하였다.

12월 8일 서울대학교 문리파대학 학생 50여명은 이 대학내에서 학장과 교수들, 내외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임을 가지고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모임에 참가한 50여명의 학생들은 그 기간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를 들고 구국투쟁을 벌리다가 체포구금되거나 학교에서 쫓겨났던 학생들로서 여기에는 이 대학 학생대의원회의 성원들이 들어있었다.

대의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선언문에서 그들은 박정희파쑈악당들에게 《현재의 사태에 대해 림시적인 미봉책으로 처리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들이대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학생들은 조직적으로 힘을 집결하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한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학생운동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선언하였다.

이어 다음과 같은 4개항목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 정보파쑈정치의 근원인 《유신헌법》을 페지하고 새로운 민주헌법을 제정하여 국민총선거를 실시하라 2, 언론, 학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라 3, 대일경제예속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4, 사회의 모든 부정의를 청산하라. 기생충적인 정치가는 심각히 반성하라.

서울에서의 대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는 시안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합류하였다.

10월에 서울배성녀자상업전수학교와 남산공업전수학교 학생들이 투쟁에 일떠선 뒤 12월 1일에는 서울의 동덕녀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 00여명이 학교강당에서 박정희파쑈악당의 매국배족적행위를 규탄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그들은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애국투쟁을 가로막기 위한 책동의 하나로 자기들의 학교에 대해서도 방학을 앞당겨 실시할것을 강요해 나선 박정희깡패도당의 죄행을 격분에 넘쳐 규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것을 비롯한 6개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어 시위에 떨쳐나서 앞을 가로막는 경찰놈들과 용감히 싸웠다. 12월 8일 서울 동북부의 교외에 있는 신일고등학교학생 120여명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죄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다음 교문밖에서 경찰악당놈들과 맞서 싸우면서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자기들의 불타는 지향을 시위하였다.

서울대학교의 애국적학생들이 지펴올린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세찬 불길은 남조선의 지방도시들에도 급속히 퍼져갔다. 11월 5일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의 700여명의 애국적학생들은 서울의 형제들의 정의의 항쟁에 호응하여 박정희 군사파쑈정권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와 시위를 벌리였다. 그들은 교내 로타리에서 벌린 성토대회에서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을 랑독하고 5개항목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괴뢰경찰놈들의 폭압망을 뚫고 거리로 달려나온 200여명의 학생들은 《박정희는 물러나라》, 《유신독재타도하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이라고 쓴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독재냐, 유신이냐》, 《탄압이냐, 유신이냐》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성난 파도와 같이 물결쳐 나갔다. 그들은 학교에서 약 1키로메터가량 떨어져 있는 경상북도 《도청》앞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11월 15일현재 경북대학교 학생 2천여명은 박정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시위투쟁을 벌리다가 경찰악당들에게 체포된 4명의 학생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여 서명운동을 벌리였다. 그들은 이 서명문건을 16일 파쑈당국에 들이대였다.

12월 1일에는 마침내 부산대학교 2천여명 학생들이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학생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학교당국에 강요하여 앞당겨 실시하려는 학기말시험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그들은 이날 학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적자유를 말살하고 지어는 학생들의 애국적진출을 가로막기 위하여 학생간부들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박정희 깡패악당놈들의 죄행을 격분에 넘쳐 규탄하였으며 시위현장에 나와 탄압의 미끼를 마련하려고 사진을 찍으며 돌아가는 경찰놈에게서 사진기를 빼앗아 부셔버리는 등 세찬 싸움을 벌리였다. 12월 3일에는 전라남도 전남대학, 리과대학 및 법과대학 학생들이 대중적투쟁을 벌리였다.

12월 4일에는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평남신학대학 학생들이 투쟁대렬에 합류해 나섰다. 이날 80여명의 학생들은 교문을 뛰쳐나와 《구속학생 석방하라》,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종교인들은 자각하라》등 구호를 웨치면서 경찰놈들과 맞서 용감히 투쟁하였다.

지방대학들의 투쟁에는 그곳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이 합류하였다.

12월 5일 전라남도의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생들의 투쟁대렬에 합류하여나섰다.

이날 이 학교 3학년 학생 100여명은 광주 시안에 있는 회관앞에 모여 파쑈악당들의 파쑈적죄행을 규탄하는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은 서로 팔을 끼고 《언론자유수호》, 《조기방학반대》등의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경찰놈들의 탄압을 박차고 《도청》을 향하여 약 2키로메터나 전진하였다.

이해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지난 년간에 있었던 투쟁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박정권을 타도하라》, 《정보파쑈정치의 원흉인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는 강렬한 반《정부》의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박정희파쑈악당을 대상하여 당당한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투쟁은 이른바 《10월 유신체제》수립후 처음으로 있은 투쟁으로서 횡포무도한 《유신체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항거의식의 강렬성을 보여주었다. 더우기 청년학생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절규하고 일어나 극도에 이른 파쑈독재체제하에서 죽음까지도 각오한 투쟁결의를 보이였다. 이것은 박정희 반역집단의 파쑈독재와 매국배족행위를 더는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굳은 결의의 표시였으며 그 삼엄하고 랭혹한 파쑈체제하에서도 남조선인민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놈들을 기어이 족쳐내고야 말 거대한 힘으로 자라고있다는것을 시위한것이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대중적시위투쟁의 형태로부터 적들의 동태와 정황변동에 따라 박정희역지무리의 매국배족적죄행을 단죄하며 야만적인 파쑈폭압책동을 발가놓는 성토대회, 선언문발표를 비롯하여 단식롱성, 앉아버티기 투쟁, 동맹휴학과 수업거부 등 각종 투쟁형태들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혁명정세를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파쑈악당을 공포와 불안속에 몰아넣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겁을 먹은 박정희깡패무리들은 초기의 전면탄압의 이른바 《강경책》으로부터 소위 《전면적인 정부개조》, 부분적인 《구속학생석방》, 강제적인 《조기방학조치》등 강압과 회유, 기만과 투쟁대렬의 분산와해 책동에 매달려 위기를 넘겨보려고 온갖 발악을 다하였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떨쳐나선 청년학생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다. 애국적청년학생들은 《새로운 학생운동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선언하고 정보파쑈정치의 근원인 《유신헌법》의 페지와 민주적인 새 헌법에 기초한 총선거의 실시,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예속정책의 중지와 생존권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박정희역도의 광란적인 파쑈적행패와 매국배족책동을 맞받아싸워 《최후의 한사람까지 행진을 계속할것》을 선포하였다.

3개월간에 걸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4.19봉기를 방불케 하고 국내외적으로 박정희파쑈도당의 멸망의 결정적시각이 다가오고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식인들의 투쟁

학생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언론인, 대학교수 등 지식인들도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초보적권리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요구해 나서는 한편 《국회를 즉시 해산》하고 《10월유신 이후의 정치체제를 전면개편》할것과 남북군대를 축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정당사회단체들의 회의를 시급히 소집하고 남북대화는 《범국민적》 범위에서 진행할것을 요구해 나섰다.

남조선에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 《정부》 반파쑈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가운데 보도활동의 초보적인 자유마저 박탈당한 언론인들이 드디여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정의의 투쟁에 떨쳐나섰다.

남조선의 중앙일간지 9개, 지방지 14개, 경제지 3개, 통신사 6개, 방송 10개, 합쳐서 42개 사의 취재기자들 4천여명이 망라된 《한국기자 협회》는 11월 29일 모임을 가지고 자기들의 투쟁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결의에서 《 1) 우리는 언론의 1차적책임이 객관적사실을 충실히 보도하는데 있음을 통감하고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다짐한다 2) 보도활동에 대한 어떠한 안팎의 부당한 제재도 우리는 배격하며 이러한 도전이 있을 때에는 더욱 분투할것을 결의한다 3) 민주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1971년 5월에 채택한 언론자유수호행동강령을 준수할것을 재확인한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11월 30일 남조선의 일간신문의 하나인 《중앙일보》의 기자전원과 《동양라지오방송》의 방송기자전원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인 언론탄압책동에 항거하여 일제히 파업을 단행하였다. 《중앙일보》와 《동양라지오방송》의 부장과 차장전원 33명은 이 파업에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일제히 사표를 냈다. 파업에 들어간 《중앙일보》와 《동양라지오방송》의 기자들은 모임을 갖고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에서 그들은 《지금 언론에 가해지고있는 외부로부터의 강한 제약에 의하여 이 〈사실보도〉라고 하는 언론으로서의 기본적권리까지 말살되고있다. 우리들은 이제 용기와 의지를 굳히고 언론에 대한 온갖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며 본래의 사명을 수행할것을 서약하는바이다》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1) 진실과 정의와 선의가 충만된 사회를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탄압도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압력에 대해서도 단결하여 싸울것이다 2) 우리는 취재한 모든 내용을 기사로서 보도하며 이를 위해 편집권의 독립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관철하려는 의도의 표시로 우리는 오늘 1일간 보도활동에 참가하지 않는다.》

12월 3일에는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언론계가 투쟁에 떨쳐나섬으로써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의 기운은 더한층 높아졌다.

12월 5일 남조선의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림시회장단회의를 열고 박정희파쑈도당의 정보파쑈통치밑에서 언론의 자유가 여지없이 말살된 남조선 언론의 당면한 문제들을 협의한 끝에 4개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 이 단체는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일떠선 취재기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그들의 투쟁을 뒤받침하며 그들과 함께 편집인들도 견결히 싸울것을 다짐하였다.

1973년에 지식인들도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떨쳐나섰다.

10월 12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장은 지난 10월 2일 문리과대학생들의 반독재민주화를 위한 정의로운 시위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대학구내에 경찰놈들이 쓸어든것을 마치 대학당국의 요청에 의한것인듯이 떠벌이는 파쑈악당들의 기만적 주장을 단호히 부정하였다.

그는 대학측은 학생들의 《시위진압에 기동경찰을 요청한바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11월 14일 《한국신학대학》의 학장을 포함한 교수 9명은 박정희파쑈악당들에 대한 증오와 배격의 표시로 머리를 박박 깎아버리였다.

12월 5일 리화녀자대학교 총장 이하 전체 교수들은 학생들에 대한 파쑈악당들의 탄압행위를 반대하고 체포구금되여있는 모든 학생들을 무조건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하는 이 대학교 교무위원의 이름으로 된 문건을 괴뢰《국회의장》, 《국무총리》놈들에게 들이대였다.

남조선의 언론인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이러한 투쟁은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의 불길을 보다 확대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파쑈독재체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종교인들의 투쟁

1973년에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는 종교인들도 널리 합류하였다.

이전까지만 하여도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 투쟁에 합류한바 없었던 종교인들이 《교회사찰을 반대한다》, 《박정희는 물러가라》는 반 《정부》구호를 들고 시위, 성명서발표, 기도회, 모금운동, 삭발투쟁 등 다양한 형태로 투쟁을 벌리였다.

10월 5일 《전남반독재기독교청년회》는 항쟁의 첩전장에 떨쳐나설것을 굳게 다짐하는 《반독재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에는 《우리들 〈전남반독재기독교청년회〉는 서울 사자들의 의리에 열혈의 성원을 보내면서 벗들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이에 반독재항쟁을 선언한다 1) 박정희에게 국민을 칼로 정복한 력사는 있어도 총칼로 오래 다스린 독재자는 없음을 상기시킨다 2) 김대중씨를 즉각 일본에 돌려보내고 리후락을 십자가에 내세우라 3) 일본의 경제 침략과 식민지종교의 침투를 반대한다 4) 우리는 량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원의 자유를 위하여 전남학도들의 전위대렬을 지울것이며 반독재혈전장에서 순교도 불사할 신앙의 자세를 다짐한다》라고 지적하였다.

11월 27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인권선언문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속에서 교회가 인권의 확립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1월 28일 《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6개의 기독교단체들의 공동주최로 열린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구국투쟁모임에서는 여러 목사들이 박정희파쑈악당의 매국적이며 파쑈적인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는 성토연설을 하였으며 남조선의 광범한 종교인들에게 박정희파쑈정권을 반대하는 의로운 투쟁에 합류하여 나설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랑독하였다.

구국투쟁모임이 끝나자 30여명의 기독교청년학생들은 따로 모임을 가지고 《민주주의 체제확립》, 《구속학생석방》, 《교회사찰중지》 등 5개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 《구금, 구타 두렵지 않다. 우리는 먼저 간 학우들의 뒤를 따르자》고 웨치면서 투쟁구호가 적힌 떠를 어깨에 두르고 시위에 떨쳐

나섰으며 중무장을 갖추고 달려든 경찰놈들과 치렬한 싸움을 벌렸다.

12월 16일에는 천주교신도 400여명이 《민주체제확립하라》, 《대일예속관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위를 벌렸다. 《카톨릭교 련합도 구속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남조선전역에서 모금운동을 벌리였다 .12월 17일에는 남조선의 기독교 여러 교파 지도자들인 20여명의 목사들이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에서 모임을 가지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이며 매국배족적인 죄행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여기에서 《민주체제를 확립할것》,《한일각료회의를 중지하고 대일예속화를 청산할것》, 《일본정부는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경제정책을 중지할것》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12월 21일 서울시안의 각 교파에 망라되여있는 황 아무개를 비롯한 20여명의 목사들은 종로구 충신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제3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종교인들까지 떨쳐나선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정치가 끝장날 날이 더욱더 가까와 오고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되였다.

기타 계층들의 투쟁

1973년에 남조선에서 벌어진 반파쑈민주화투쟁에는 민주세력들과 야당들도 참가하였다.

11월 5일 남조선의 광범한 민주세력의 통일전선조직인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 망라된 각계 각층의 민주인사들은 서울시안에 있는 기독교청년회관에서 박정희군사파쑈정권을 반대하는 모임을 가지고 파쑈독재《정권》을 배격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남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투쟁에 일떠설것을 호소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협의회는 12월 13일 두번째로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시국은 민주주의체제를 근본부터 제도적으로 수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행정, 립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좌지우지하는 박정희파쑈도당의 현파쑈독재체제를 단호히 반대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10월 24일에 30여명의 각계 인사들은 서울에 있는 기독교청년회관에서 모임을 가지고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인 파쑈테로통치를 규탄하며 파쑈적인 《유신헌법》의 철폐와 민주주의적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궐기하였다.

박정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거센 투쟁 흐름에 남조선의 야당들도 기세를 올리였다. 12월 18일 민주통일당 당수를 비롯한 200여명도 《림시전당대회》들에 《박정권을 몰아내자》, 《우리는 유신독재하에서 살수 없다》, 《악독한 일본자본을 몰아내라》는 구호를 부르면서 가두시위를 단행하였다. 또한 신민당의 부당수는 12월 17일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남북사이의 《군사적긴장을 제거하고 호상교류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남북대화를 중앙정보부의 손으로부터 민간인들이 주동적으로 참가하는 체제에로 옮길것》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대화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남북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비상계엄》사태밑에서 조작된 야만적인 《유신헌법의 전면개정》과 《민주체제에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정보정치의 본거지인 중앙정보부》를 폐지할것을 주장하였다.

민주통일당 당수는 박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려다가 《중앙정보부》특무 깡패들에 의해 저지당한후 《현정권은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날 자세를 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성명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며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구속학생들을 조속히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

신민당에서도 박정희파쑈악당의 언론탄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반 《정부》 투쟁을 지지해 나섰다.

이와 같이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는 청년학생들뿐아니라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인사들과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이 참가하였다.

1973년에 남조선에서는 쌓이고 맺힌 울분에 기초한 각계층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세차게 벌어졌으며 이 투쟁은 학생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환되였으며 파쑈독재와 민주세력간의 투쟁에서 대세는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여갔다.

바로 이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반파쑈민주화투쟁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거이다.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고있으며 무엇보다도먼저 절박한 생활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 근본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될것이며 더욱 커질것입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21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1973년에 남조선에서는 반파쑈민주화투쟁의 한고리로서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1973년에 로동자들은 주로 임금인상, 생활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여 파업, 버티기투쟁 등을 벌리였다.

1월 10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토목공사장에서 고역을 치른 50여명의 로동자들은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으며 2월 13일 경상남도 동래군에 있는 시온합성회사의 200여명의 로동자들은 임금을 올리며 시간외 로동에 대한 보수를 지불할것 등 6개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롱성투쟁을 벌리였다.

3월 경기도 인천의 부두로동자들은 기업주놈들에게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리였으며 8월 5일 남조선통치자들이 직접 경영하는 석탄공사에 고용된 1만 1천 200여명의 로동자들은 회사측의 악랄한 착취행위를 규탄함과 함께 그를 비호하고있는 《로동청》을 상대로 대중적임금인상투쟁에 떨쳐나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였다. 8월 19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제기상사세탁소의 서아무개라는 로동자는 품값을 내주지 않는 세탁소주인의 착취행위에 격분하여 세탁소에 불을 질렀다.

8월 18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삼일식료품회사의 1천여명의 로동자들은 임금인상과 근무시간의 단축, 작

업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삐라를 만들어 돌린뒤 기어이 요구조건을 관철할 기세밑에 회사앞에 모여 2시간동안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리였다.

10월 경기도 양주군안의 구리읍 일대에 벌려놓았던 토목공사장에서 30여명의 로동자들은 《군청》에 몰려가 밀린임금을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5시간동안이나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리였으며 남조선의 석탄공사산하의 탄광로동자들은 석탄공사를 경영하는 놈들과의 투쟁을 완강히 벌려 임금을 20% 더 올려받게 되였다.

1973년에 농민들은 농경지의 파괴와 략탈, 각종 명목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8월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농민들은 농사를 망치게 한 《시청》관리놈들의 죄행에 격분하여 피해보상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두달 동안이나 계속된 가물로 숱한 논판이 말라터지고 모들이 말라죽는데는 아랑곳없이 관리들이 왕청같은 공사를 벌려놓고 보잘것없는 물길마저 막아버려 농사를 크게 망치게 한데 대해 신랄히 규탄하였다.

또한 10월 경상북도 경주지방농민들은 다 익어가는 보리밭 6만 2천 130여평을 불도젤로 마구 밀어버리고도 석달이 넘도록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악질기업주놈의 죄행을 규탄하면서 보상금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대전지방농민들도 《시청》관리놈들과 기업주놈이 가을걷이를 눈앞에 둔 논벼를 마구 베여버리고 공사판을 벌려놓은데 항의하여 들고 일어났으며 이 도의 천안시농민들은 비료가 없어 고통받는 기회를 리용하여 자기들에게 쓰지 못할 비료를 비싸게 팔아먹은 악질모리배놈에게 항의를 들이대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한편 경상남도 마산시의 100여명농민들은 농경지를 강제로 빼앗아 공사에 리용하고도 보상해주지 않는데 격분하여 《시청》에 몰려가 살아갈 대책을 세우라고 들이대였다.

10월 남조선강원도 양구군 양구면 죽곡리 농민들 20여명은 남조선괴뢰들이 직접 경영하는 《주택관리소》관리놈들이 땅이 없어 애타하는 이곳 농민들에게 땅을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220만원이나 비싸게 받아먹고는 쓸모없는 땅을 준데 격분하여 집단적으로 항의하였다.

이해 경상남도 삼천포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 2천여명의 어민들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인민적정책으로 조개와 바다풀조차 제대로 따지 못하는데 대해 불만을 품고 어장을 당장 쓸수 있게 하라고 남조선괴뢰 《수산청》과 경상남도 《도청》에 연거퍼 항의문을 들이대고 어로조건의 보장을 견결히 요구하였다.

10월 27일 부산에서 내몰렸던 어업로동자 14명은 《부산항만관리청》에 항의를 들이대고 넉달동안 밀린 품삯을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렸다.

8월 3일 경상북도 대구시 동구 신청동안의 50여명의 주민들은 《시청》에 몰려가 살림집 강제철거책동에 항의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사전대책도 없이 자기들의 살림집을 강제로 헐어버리려는 《시청》 관리놈들의 책동에 단호히 항거하고 삶의 보금자리인 집을 지키기 위해 완강히 버티며 싸웠다.

10월에는 부산시 동구 범일동을 비롯한 여러 지구에 살다가 남조선파쑈당국에 의해 집을 강제로 헐린 주민들이 관리들의 철거만행을 치솟는 격분으로 규탄하였다. 또한 10월 16일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20여명의 주민들도 자기들을 한데에 쫓아낸 《시청》관리들의 만행에 항거하여 완강한 버티기 싸움을 벌렸다.

이해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매국도당이 일본에서 끌어들인 오물단지인 공해산업으로 하여 끼쳐진 공해현상을 제거할것을 요구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1973년에도 박정희파쑈도당은 전쟁준비를 위한 《실력배양》에 피눈이 되여 《공해산업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떠들면서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의 유해로운 공업시설을 마구 끌어들이고 공해기업을 조장함으로써 남조선강토를 유해물질로 어지럽히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새로운 재난을 들씌웠다.

10월 부산의 2천 500여세대 주민들은 괴뢰관리들과 부산주공회사 및 동국제강가스회사에 항의를 들이대고 공해물질을 마구 퍼뜨려 주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있는 기업주들의 죄행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부산시 북산지구와 동래구를 비롯한 여러곳의 주민들도 공장들에서 나오는 오물과 가스 등으로 배앓이, 리질, 피부병에 걸려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락동강 상류의 물고기까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면서 당장 피해방지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시청》에 련방 들이대였다.

2월 16일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주민 10여명은 떼를 지어 부락에 달려들어 주민들을 탄압하며 부녀자들을 희롱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괴뢰 전투경찰대 소속 8명의 경찰놈들에게 집단적으로 돌벼락을 들씌워 4명의 악질경찰놈들을 까눕혔다.

10월 9일 서울의 교통회사에 고용되여있는 110명의 녀차장들은 기업주의 악랄한 횡포와 착취행위를 반대하여 항의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은 로임을 제때에 지불할것과 녀차장들에 대한 몸수색을 하지말것 등 4개항목의 요구조건을 회사측에 들이대고 승차를 거부하였다.

4월 경기도 인천시 중구신흥동에 사는 한 아무개를 비롯한 20여명의 청년학생들이 병역소집에 응하기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안성군 서운면 송사리에 사는 윤 아무개 등 10여명의 청년들과 화성, 광주, 부천 등지의 수많은 청년들은 집단적으로 강제징집을 반대해 나섰다. 이렇듯 남조선인민들이 벌린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반파쑈민주화 투쟁의 한 고리로서 박정희파쑈악당들의 파쑈적, 매국배족적통치체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정치정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후 우리 공화국정부는 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실천에 옮기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대화의 성과적진척을 위하여 할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중단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였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파탄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의 부추김밑에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도 그 성명에 밝혀진 원칙과는 정반대로 더욱더 외세의존정책에 매여달리면서 전쟁준비와 파쑈적폭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에는 이른바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민족분렬을 영구화할데 대한 〈정책〉을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2페지)

원래 북과 남사이의 대화초기에 남조선당국의 대표는 《미국놈의 개질도 하지 않겠다, 일본놈의 개질도 하지 않겠다, 나라를 팔지 않겠다》고 공화국정부앞에 확약했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일침략자들의 개질을 계속하면서 남북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은후에도 량면전술에 매달려 민족반역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놈은 기자들에게 한 이른바 《공동성명에 대한 배경성명》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대화없는 남북대결에서 대화있는 남북대결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뇌까렸다.

박정희괴뢰도당의 《국무총리》란놈은 공동성명이 발표된지 며칠후에 벌써 괴뢰국회에서 《이 몇장의 성명에 우리의 운명을 걸칠수 없으며 또 믿을수도 없다》, 《국민은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말라》고 반역적언동을 하였다.

남북공동성명에는 첫째원칙으로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밝혀져있는데 박정희괴뢰도당은 1972년 7월 6일 괴뢰국회에서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은 외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1972년 9월 2일 박정희역도가 《대미교섭을 전개하여 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데 이어 9월 12일 남조선에 온 미국방차관 클레멘츠에게 괴뢰국무총리란놈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군의 장기주둔을 거듭 애걸하였다.

친미주구일뿐아니라 오랜 친일주구인 박정희반역도당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을 계속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그들과 밀접히 결탁하고있다.

1973년 5월 25일 일본주재 남조선괴뢰대사놈은 일본외교부장 오히라를 찾아가서 《남조선은 일본만을 믿기때문에 잘 부탁한다》고 애걸하였다. 또한 6월 12일 도꾜에서 열린 《한일의원간친회》에 참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국무총리》놈은 《세계의 블럭화경향으로 보아도 일한량국은 단결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있다》고 하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재침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내들고있는 이른바 《일한운명공동체》론을 그대로 되뇌이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에도 동족끼리 합작하는것이 아니라 외세의존정책에 얼마나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가 하는것은 외국자본을 제한없이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예속경제로 전변시키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1973년말현재의 외자도입총액은 43억 8천 533만 1천딸라에 달하고 이에 따르는 리자액 21억 451만 8천딸라를 합치면 그 루계총액은 무려 64억 8천 984만 9천딸라에 이르렀다.

남북공동성명에는 조국통일의 둘째원칙으로서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 밝혀져있는데 박정희괴뢰도당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있다.

놈들은 우리측과의 《대화있는 대결》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력배양》을 계속해야 한다느니, 현대전은 《속전속결》을 요한다느니 하면서 군비경쟁과 전쟁준비에 더욱 열을 올리고 긴장상태를 격화시켰다.

박정희역도는 1973년 7월 20일에 《통일의 길을 넓혀나갈수 있게》하는 기본은 《국방의 강화, 국력의 배양, 총력안보의식의 확립》에 있다고 떠들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이 적극 추진시키고있는 남조선 《국군현대화 5개년계획》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장비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며 군비경쟁과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쳤다.

남북공동성명에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한다고 규정되여있으나 박정희괴뢰도당은 이 원칙도 어기고 도리여 《반공》소동을 강화하며 남북대결의식을 고취하고 남조선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인민들과 야당인사들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1972년 10월에 박정희파쑈도당은 1971년 12월부터 실시한 《비상사태》우에 또다시 《비상계엄령》을 이중으로 선포하고 사실상 제3의 군사파쑈정변인 《10월유신》이란것을 꾸며냈다.

그리하여 박정희괴뢰파쑈악당은 평화통일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른바 《유신체제》라는 군사파쑈독재체제와 제놈들의 일인일당의 장기집권체제를 꾸미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와 대결태세를 강화하여나섰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잡지 《뉴욕타임스 썬데이 마가진》 1973년 5월 20일호의 론설에서도 작년 가을에 《유신》을 단행한 박정희의 구실은 남북대화를 뒤받침한다는것이였지만 그의 진짜 동기는 전혀 딴데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자유로운 토론없이 계엄령하에 진

행된 국민투표를 통해 그는 모든 민주주의제도를 가짜로 되게한 새 헌법을 선포하였다.

…박정희의 쿠데타는 대내외적조건에 의해 전혀 정상화될수 없는것이였다.

그것은 본질상 비난과 반대파를 없애며 박정희의 집권을 무한정 연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박정희파쑈악당은 정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뿐아니라 남조선의 종교인들에 대해서까지도 제놈들의 반민족적 매국행위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마구 체포투옥하고있다.

1973년 7월 3일부터 5일사이에 박정희파쑈악당은 기독교장로회 목사 박형규, 전도사 권호경을 비롯한 15명을 이른바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죄명을 씌워 검거하였으며 9월 18일 이들에게 이른바 《내란예비음모죄》라 하여 징역형을 들씌웠다.

하기에 남조선의 《기독교리사회》 사무총장은 9월 12일에 한 성명에서 《신앙의 자유가 정부당국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데로부터 교회와 남조선 〈정부〉가 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독재하에서 울며 살지 않을수 없다고 하였다.

심지어 1973년 8월 8일 박정희파쑈깡패악당은 남조선 《중앙정보부》 특무들을 동원하여 1971년 4월 남조선 《대통령선거》 립후보자였으며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주장하여 투쟁하다가 일본에 망명중이던 민주인사 김대중을 대낮에 도꾜의 한 려관에서 랍치하여 서울에 끌어다가 감금하는것과 같은 야만적인 국제깡패행위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남북공동성명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이와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측이 제기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합작과 교류에 말로는 다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자고 하면 《지금은 론할 단계가 아니》며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거부하여 나섰다.

북과 남사이의 적십자회담도 그것이 성사되자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이 정말로 마음놓고 자유롭게 서로 만날수 있는 사회적조건이 보장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파쑈악당은 남조선사람들이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한번 접촉하고 말만 하여도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여있는 이른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고있다. 실지로 그들은 회담을 위하여 서울에 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을 남조선인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데 대해서까지 횡포무도하게 탄압을 가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적십자회담에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의 자유로운 래왕, 상봉, 재결합 문제들을 해결할수 없는것이다.

우리측은 만일 현재의 대화가 잘 진척되지 않는다면 북과 남의 당국자들사이에서만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것보다 광범한 애국적인 각계각층 인사들이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호상 리해를 촉진시킴으로써 통일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남북조절위원회사업에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을 참가시켜 그 폭을 넓히든지 또는 조절위원회사업은 조절위원회사업대로 두고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였다.

공화국정부의 이러한 진지한 제의는 남조선정계에서도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1973년 5월 7일 남조선의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당면정책》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을 위하여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교류, 남북조절위원회를 각계각층을 망라한 범국민적인 협의기구로》 전환시킬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남북간의 폭넓은 정치협상회의의 진행도 반대하였다.

완고억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일반동들의 부추김밑에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반대하고 아무런 실제적조치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오던 끝에 1973년 6월 23일 나라의 영구분렬과 《두개 조선》 조작을 내용으로하는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박정희도당은 《특별성명》에서. 《두개 조선》으로 완전히 갈라져야 하며 국제적으로도 《두개 국가》로 영구분렬을 공인받자고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표리부동한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정체상태에 빠지고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로 조선민족앞에 열리였던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이 다시 흐려지게 되였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심화됨에 따라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적지배의 마수가 얼마나 뿌리깊이 뻗쳐있으며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통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얼마나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이 더욱 날날이 드러났다.

미국무부 대변인놈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인 1972년 7월 5일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은 남북대화가 진행된다 하여도 남조선 《국군현대화를 계속 지원하며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그렇게 하여야만 박정희괴뢰도당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접촉에서 힘의 립장과 신심을 가지고 협상할수 있도록》할수 있다고 하면서 놈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을것이며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을 힘의 대결정책에로 추동하고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려하고 있다는것을 드러내놓았다.

1973년 3월 28일 전 미국방장관 리챠드슨놈은 국회에 제출한 년례보고에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계속적인 군사적주둔이 《힘의 립장에서 남조선이 북조선과 협상할수 있게 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계속 불가피할것》이라고 떠벌였다.

특히 미제는 공공연히 남조선을 《닉슨주의의 시험장》이라고 하면서 실제적행동으로 남조선에서의 군비증강과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호전분자 박정희괴뢰도당을 남북대결의 길로 추동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진척을 가로막으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야말로 남조선을 근 30년동안이나 강점하고 조선을 분렬시켜온 장본인이며 조선에서 전쟁위험을 지속시키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방해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주동분자이며 바로 미제의 부추김밑에 동족을 반대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정체상태에 빠뜨린 모든 책임이 있다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두개 조선》조작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민족분렬책동은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의 산물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여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이 실현될수 없게 되자 남조선만이라도 계속 그러쥐고있으려는 음흉한 목적에서 〈두개 조선〉 정책

을 들고나왔습니다.》(《이딸리아 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2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북공동성명을 공공연히 짓밟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사실상 파탄에로 이끈 분렬주의적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놓으면서 이해 6월에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특별성명》이란것을 들고나온것은 다름아닌 미제의 《두개 조선》 정책의 산물이다.

그것은 1973년 7월 20일 미국무장관 로져스란놈이 남조선에 직접 기여들어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는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남북한유엔동시가입을 이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노력을 다할것》이라고 공언하였으며 이해 9월에 열린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내놓은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에 관한 결의안을 발기하는데 있어서도 미제가 앞장에서 날뛴 사실이 확증하여준다.

미제의 《두개조선》 조작책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종하고있는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다.

놈들은 이해 5월과 7월에 있은 미일실무자회의와 각료회의에 뒤이어 7월말과 8월초에 걸쳐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일수뇌자회담에서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모의를 하였다.

일본출판물들은 이때의 미일회담에서 《힘》에 의하여 남조선을 옹호하는것을 전제로 한 《두개 조선》 정책을 추진시킬데 대하여서와 이에 따라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도 공동보조를 취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광범히 보도하였다.

그러기에 일본의 한 잡지가 《〈두개 조선〉정책은 미국의 각본과 감독, 일본의 연출에 의하여 박정희정권이 춤추고있는 연극》이라고 쓴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통일로선과 분렬로선사이의 대립이 극도로 날카로와지고 민족앞에 영구분렬의 새로운 위험이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의 5대강령에서 우선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것을 가장 절박한 구국 대책으로 천명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에 따라 대화과정에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측에 제기하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며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시기상조》라느니, 《아직은 해결할 단계》가 아니라느니 하는 판에 박힌 궤변을 늘어놓았으며 나중에는 그에 대하여 론의하는것조차 거부하여나섰다.

놈들은 오히려 무력을 증강하고 군비를 확장하며 미제침략군의 장기주둔을 애걸하고 수많은 신형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는 등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고 긴장상태를 일층 격화시키는 길로 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5대강령에서 또한 북과 남사이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구국방침을 밝히시였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완강히 반대하면서 계속 《대결》과 《경쟁》로선을 추구하여왔다.

놈들은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것을 《대결방식의 변화》로 묘사하면서 《경쟁》과 《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력배양》에 광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6월 23일 연설에서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할것을 조국통일 5대강령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남조선의 통일혁명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등 각 정당과 각계 인사들속에서도 남북사이의 다각적인 접촉과 정치협상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통일문제론의를 그 어떤 전매품처럼 독점하고 공화국정부의 남북정치협상회의 소집제의를 극력 반대하였을뿐아니라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와 접촉할것을 주장하는것마저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심지어 놈들은 남북조절위원회에 통일을 념원하는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을 참가시킬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제의에 대해서도 《복잡하다》느니, 《당국이 인민을 대표한다》느니 하는 구실밑에 거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를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는 북과 남이 서로 다른 두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는 조건에서 나라의 영구분렬을 방지하고 통일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구국대책이다.

그러나 박정희반역도당은 련방제는 《같은 체제를 가진 다민족국가에서나 실시할수 있는것》이라느니 체제를 서로 달리하고있는 남북사이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것이라느니 뭐니하면서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거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5대강령에서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진출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두개 조선》조작 책동을 《정책화》하고 끝끝내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유엔에 들고가는 용납할수 없는 분렬주의적책동까지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이른바 《문호개방》을 운운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 추파를 던지는것도 서슴지 않고있다.

북과 남의 쌍방이 합의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란폭하게 짓밟고 민족의 위대한 구국강령인 조국통일 5대강령을 반대하면서 오직 미일침략세력에 의존하여 남북의 대결과 민족분렬의 고정화와 동족상쟁만을 추구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온 민족의 평화통일념원을 배반한 악랄한 분렬주의자이다.

광란적인 전쟁준비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닉슨주의〉에 따라 량면전술을 쓰면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을 부추겨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려는 책동을 버리지 않고있습니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단행본, 6페지)

미제는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운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악명높은 《닉슨주의》를 내걸고 더욱더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달리면서 큰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나라들은 힘으로 내리눌러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고있으며 특히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파산몰락되고있는 저들의 식민지지배체계를 수습하기 위한 중요한 지탱점으로서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공공연히 남조선을 《닉슨주의의 시험장》이라고 부르고 량면전술을 쓰면서 겉으로는 남북공동성명과 남북대화를 《지지》하는척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호전분자 박정희괴뢰도당을 부추겨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게 하여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려는 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군사기지강화책동〕 미제는 아세아에서의 중요한 전략적지탱점으로 남조선을 계속 식민지군사기지로 강점하고있으려고 남조선에 의연히 저들의 방대한 침략군대를 주둔시키고 군비를 더욱 강화하였을뿐아니라 70만에 달하는 남조선괴뢰군을 현대적인 살륙무기로 장비시키며 남조선의 군사시설을 더욱 증강하기 위하여 군사《원조》를 강화하였다.

1973년 2월 22일 미국무차관 타르란놈은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가 《극동에서의 우리의 리해관계를 위해 중요한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해 5월 23일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무어러란놈은 남조선에서의 《군사설비와 군사력을 앞으로의 미국의 동북아세아방어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되고있다》고 떠벌였다.

사실 미제는 조선이 자주적으로 통일되면 아세아에서의 저들의 중요한 전략적거점을 잃어버리게 될것을 두려워하고있다.

미국의 한 통신까지도 1973년 8월 19일 미제는 조선에서 《진지한 긴장완화나 또는 재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미군기지들이 남조선에 남아있는것이 허용될것 같지 않》은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썼다.

미제는 아세아전역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곳곳에서 쫓겨나게 됨에 따라 더욱더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의 가장 중요한 지탱점으로 인정하고 《두개 조선》정책과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였다.

미제는 저들의 이러한 침략책동에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적극 끌어들이였다.

1973년 7월말부터 8월초에 걸쳐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일수뇌자회담에서만 하여도 미제는 《극동에서의 닉슨주의의 구체화의 일환》으로서 《한국군의 방위력강화와 근대화를 위하여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떠맡아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정책 수행에서 그 직접적인 공모자, 적극적인 협력자로 더욱더 발벗고나섰으며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제의 군사기지강화책동에 따라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일침략자들의 군사《원조》와 미일독점자본의 도입, 인민들로부터의 가혹한 세금수탈에 의한 군사시설의 확대와 군수산업의 《육성》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놈들은 부산, 인천, 포항, 울산, 마산, 삼천포, 목포, 군산, 장항, 삼척, 묵호, 제주 등 20여개의 항구를 미제침략군의 대형함선과 수송선들이 나들수 있도록 확장하고있으며 려수, 제주도, 울진 비행장을 신형전투폭격기가 뜰수 있도록 확장하고있다.

또한 서울—부산간 고속도로의 종점과 부산항을 련결시키는 항만진입고속도로와 부산—순천—전주간 고속도로의 건설, 서해안으로부터 내륙으로 통하는 도로, 남해안일대를 련결하는 도로 건설을 다그치였다.

이와 함께 놈들은 군수산업건설과 군사적잠재력을 가진 《중화학공업》건설에 집중투자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쳐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미제의 군사적부속물로 전변시키였다.

〔무력증강책동〕 미제는 남조선괴뢰군대의 《현대화 5개년계획》(1971—1975)기간에 예견한 5억딸라의 《정상군사원조》와 10억딸라의 《특별군사원조》도합 15억딸라의 《무상군사원조》를 박정희괴뢰도당에게 계속 줄것이라고 떠벌이면서 남조선에 수만정의 《엠—16》소총과 각종 포, 반땅크무기, 수륙량용전차, 최신형전투폭격기, 고속도포함, 구축함, 로케트무기 등 각종 최신살륙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여 군비확장과 전쟁준비에 날뛰였다.

또한 미제는 일본에 있는 미전술공군까지도 전부 남조선에 이동시키였다.

미공군참모총장 라이언이란놈은 1973년 8월 미국회의 하원 세출위원회의 비밀청문회에서 《한국에 공군부대를 배치할 필요성에서 일본에 있던 미전술공군전부를 한국에 이동시키고 있다》는것을 증언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이해에 타이에서 철수하는 미공군부대들을 일본으로 이동시켰다.

일본에서의 미제침략군의 군사력증강이 곧 조선을 노린것이라는것은 아무 비밀도 아니다.

1973년 8월 1일 일본외교부장은 워싱톤에서 《일본이 미일안보조약아래 일본내의 미국군사기지의 유지를 인정하는것이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셈이 된다》고 하였다.

미국상원외교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이해에 미제는 웰남에서 철수함에 따라 웰남침략전쟁에 동원되였던 각종 최신형 중무기들과 군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넘겨주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 《예산》에서 직접적군사비를 지난 1972년보다 145억원이나 더 늘구었으며 그것으로 무력과 군비증강에 날뛰였다.

놈들은 《총력안보체제의 구축》이니 《보복능력의 제고》니, 《립전태세확립》이니하는 호전적구호밑에 괴뢰군병력을 증강하고 그 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치였을뿐아니라 《향토예비군의 전력화》, 《학도군사훈련의 충실화》를 《당면국방시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날뛰였다. 놈들은 직장 및 지역별로 편성하였던 250여만명의 《향토예비군》을 이해 9월 《동원예비군》과 《일반예비군》으로 다시 편성하였으며 《동원예비군》을 괴뢰군에서 갓 제대된 자들로 꾸리고 항상 《대기태세》에 두었다.

그뿐아니라 놈들은 이른바 《100만학도조직화방침》이라는것을 내걸고 종전까지만하여도 《학도군사훈련》에 고급학년의 대학생들과 일부 도시의 고등학교학생들만 끌어넣던것을 이해에는 고등학교이상 전체 학생들 지어 군사훈련에서 제외하였던 녀학생들까지 《학도군사훈련》에 강제로 끌어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남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전시동원체제에 얽매놓고있다.

놈들은 이해에 《병역법》을 비롯한 《병역관계법》들을 개악조작하여 괴뢰군에 끌어내기 위한 징집대상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즉 《본적지행정기관장》이 매해 병역대상자와 거주지 이동자들을 조사장악하여 해당 《병무청》에 보고하던 체제를 없애고 매해 18살되는 본인과 거주지를 이동한 대상자들이 직접 《병무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남조선청장년들의 병역기피현상을 막아보려고 병역기피자는 물론 그를 고용한 고용주 법인체들도 처벌

하는 제도를 세우고있다.

놈들은 또한 토지, 물자, 시설들을 전쟁준비에 모조리 동원리용할수 있도록 동원체제를 꾸며냈다. 토지, 물자, 시설을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만 징발할수 있게 하였던 종전의 《동원체제》를 폐지하고 이해에는 《군사작전상 필요한 경우》라면 아무때나 임의의 대상을 징발할수 있게 하였으며 《군사시설물을 보호》하고 《효률적인 군사활동을 보장》한다는 구실밑에 괴뢰국방장관놈이 설정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 시설들을 군사적목적에 마음대로 동원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괴뢰군의 통수체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군대의 통수권을 틀어쥐고있는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의 간판을 가진 미군사령관이며 대포와 총칼을 비롯한 각종 전쟁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있는것도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12페지)

미제에 그 통수권이 완전히 장악되여있는 70만에 달하는 남조선괴뢰군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도구로서 인민과 민족을 반대하여 총을 겨눌것을 강요당하고있는 반혁명무력이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며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침략전쟁에 미제놈들의 값싼 《대포밥》으로, 《총알받이》로 끌려다니고 있는 식민지고용군대이다.

남조선괴뢰군의 통수권은 《유엔군사령관》의 간판을 가진 남조선주둔 미제8군사령관놈에게 전적으로 장악되여있다.

미군사령관놈은 3천여명의 남조선주둔 미합동군사고문단을 통하여 괴뢰군의 군사작전지휘, 인사이동, 군수보급전반을 통제하고있으며 《한미고위지휘관회의》를 통해서 명령지시를 내리고 있다.

괴뢰군 중하층장교임면은 미군수석고문의 동의하에, 그리고 괴뢰군 런대장이상은 미군사령관의 승인을 받게 되여있다.

남조선괴뢰군의 각 부대들에는 미제침략군 군사고문놈들이 파견되여 일체 활동을 지휘감독하고있다.

괴뢰군지휘관들은 명색이 지휘관일뿐이고 미제침략군 군사고문놈들의 명령과 동의가 없이는 관하부대들을 움직일수 없으며 한문의 포, 한척의 소함선조차 동원할수 없고 단한알의 탄약도 한그람의 휘발유도 쓸수 없다.

미제는 괴뢰군의 자동차, 땅크, 함선, 비행기에 쓸 기름과 탄약을 2~3일분씩밖에는 공급하지 않으면서 괴뢰군의 일체 활동을 엄격히 지휘통제하고있다.

일본의 한 출판물까지도 《미군은 자기 군대를 무기한으로 주둔시키고 한국군을 미군사령관의 작전지휘하에 두는 권리와 권한을 계속 가지고있다. 한국군은 통수권, 무기, 탄약, 장비등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동의와 지휘없이는 아무런 자주적인 작전행동도 할수 없는 성질의 군대이다》라고 하였다.

〔군사도발책동〕 1973년에 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통일을 가로막으면서 제놈들의 지휘통제하에 있는 남조선괴뢰군과의 합동군사연습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날로 강화하여나섰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인 1972년 7월 5일부터 며칠간에 걸쳐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사령부는 전선중부 일대에서 남조선괴뢰군부대들을 동원하여 《정전후 최대규모》의 공병훈련, 산악훈련, 유격훈련, 수색, 매복작전 등의 군사연습소동을 벌렸다.

남조선통신들에 의하면 1973년 4월초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해병대는 대병력과 장비를 끌어내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대규모적인 《한미합동상륙훈련》을 동남해안 일대에서 벌렸다.

이해 7월 중순 미제침략군은 전선서부비무장지대 남쪽으로부터 불과 2마일 떨어진 150고지에서 이른바 《맹습2호》라는 대규모적인 《공중기동훈련》을 감행하였다.

이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마을사람들은 마치도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났는가고 생각하였을》정도로 완전히 전쟁상태를 방불케 하였다고 미국의 한 신문도 7월 17일호에 썼다.

이해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제침략군 제2사단 병력과 남조선괴뢰군대는 《상륙작전》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대가 합동하여 끊임없이 대규모의 상륙작전훈련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을 벌려놓고있는것은 벌써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것이라는것이 명백하다.

특히 이해 3월 상순에 벌려놓은 《1973 골든드래곤작전》은 놈들이 전쟁준비에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작전》은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대규모의 합동상륙연습으로서 공화국북반부를 가상적 《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습을 위하여 미제침략군은 미제3해병사단의 상륙대대, 미해병 제1항공단소속 30여대의 비행기와 공수보급용 직승기들을 동원하였고 박정희괴뢰도당은 괴뢰해병대를 동원하였다. 놈들은 부산, 목포 지구를 대상지로 설정하고 이 지구에 대한 공중기습과 병력공수를 하는 동시에 해상으로부터의 상륙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그리고 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의 미제침략군 군사기지인 이와구니기지, 후뗀마기지에서는 미해병항공대의 공격기중대와 직승기중대가 부산과 목포로 날아들었고 이른바 《급유체제》의 훈련을 위하여 일본의 요꼬하마, 나하, 사세보항들에서 미제의 급유함, 수송선들이 남조선으로 기여들었다. 이 연습과 동시에 《날아가는 퉁작전계획》에 따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자위대》가 담당한 일본본토로부터 지지시마, 이오시마, 미나미도리시마, 괌, 그리고 미군본토에 이르는 《보급통로》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수함훈련》과 각종 사격연습들이 벌어졌다. 부산에서 멀지않은 쯔시마에서는 일본 《륙상자위대》의 《대유격전투훈련》이 벌어졌다.

실로 미일침략자들과의 공모결탁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광란적으로 벌린 이 전쟁연습소동은 놈들의 침략전쟁준비가 극도에 다달았다는것을 보여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놈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 병력과 군사장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태세를 갖추고 매일과 같이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있으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이해 3월 7일에만 하여도 남조선괴뢰군대는 전선동부에 있는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 행동을 감행하는 한편 무려 5시간에 걸쳐 연막탄을 발사하고 비행기의 엄호아래 105미리포를 비롯한 중무기를 동원하여 수천발의 총포탄을 퍼붓는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이해 10월부터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정부》, 반파쑈민주화 투쟁이 새로이 세차게 일어나게 되자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정당화하며 저들이 처한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을 들고나오면서 이

른바 《서해사건》을 조작하려고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이해 12월에 우리측 연해인 등산곶앞바다에 구축함과 경호함을, 해주, 옹진반도 일대의 연해에 고속로케트함, 중형상륙함, 로케트포함 등 여러가지 해군함선들을 계속 침입시켜 우리측을 반대하는 정탐과 적대 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서해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그 책임을 공화국북반부에 전가시키려고 교활하게 시도하면서 남조선괴뢰군 전반을 《경계태세》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과감한 대응조치》와 《속전태세의 완비》를 고창하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갔다.

그러나 우리측의 인내성있는 조치로 하여 호전분자인 박정희괴뢰도당의 《서해사건》조작 책동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발표후 1973년 9월초까지의 14개월간에 감행한 군사적도발행위와 각종 정전협정위반사건은 비행기침입 82건, 함선침입 8건, 총포사격 246건,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의 비무장지대내에의 반입 5천 562건을 포함하여 총 1만 8천 1백여건에 달하였다.

그리고 놈들이 이해에 우리의 령공과 령해에 정찰기와 각종 함선을 침입시키고 지상으로부터 무장간첩을 침투시키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총포사격을 감행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만도 무려 1만 6천 2백여건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에서의 현실적 전쟁위협이 그 무슨 《남침의 위협》에서가 아니라 바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하는 북침의 위협에서 오고있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전적으로 배치되게 1972년 7월 15일 남조선의 32개의 도시들에서 일제히 전시를 가상한 일반주민들의 《민방공훈련》을 실시한것을 비롯하여 8월 16일에는 33개의 도시들에서 《가상적기가 도시상공을 비행》하는 가운데 도합 800만명의 시민들을 동원하여 《방공훈련》을 벌렸다.

놈들은 이와 같은 대규모의 《방공훈련》을 매월 15일경 정기적으로 쉼없이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다.

1973년 9월 15일에도 《제21차민방공훈련》이 21개 항만을 포함한 남조선전역의 35개도시와 121개 읍소재지에서 일제히 실시되였는데 이 《민방공훈련》에서 놈들은 《남조선전역에 불시 경보발령을 내리고 언제 기습해올지 모르는 적기의 공격에 대비한 국민의 대피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한다.

지금 세계의 그 어디에도 남조선에서처럼 무시로 《불시경보발령》을 내리고 《대피》소동을 벌려놓는곳이란 없다.

이와 같은 행동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에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감행하는 도전행위이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꾸며내는 모략적소동에 지나지 않는다.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으며 평화통일을 요구한다고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과 량심적인 지식인들 지어는 종교계인사들까지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있으며 남조선전역을 살기 어려운 감옥으로 전변시키고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 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10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뒤받침》하기 위한 《총력안보》라는 당치 않은 구실밑에 1972년 《10월유신》소동을 벌려여 이른바 《유신체제》란 동서고금에 류례없는 가장 악랄한 파쑈독재체제를 꾸며냈다.

놈들은 1973년에 《유신체제》를 정비강화하기 위한 각종 파쑈적악법들과 폭압조치들을 련이어 선포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전례없이 강화하였으며 사회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량심적인 지식인들 지어는 종교계인사들까지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학살하면서 남조선전역을 《유신》독재, 정보파쑈통치가 지배하는 살기어린 감옥으로 전변시키였다.

〔**《유신체제》의 강화**〕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1961년 5.16《군사정변》이후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경계령》에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1969년 9월에 《3선개헌》을 야밤중에 강압적으로 날조해내는 《제2의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1971년 4월 《대통령선거》놀음에서 박정희역도는 《이번만 당선시켜주면 다시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하면서 《3선》을 날조해냈다. 여기에서 박정희파쑈도당은 모든 관권과 금력을 동원하고 사기와 협잡, 위협과 공갈을 다 감행하였으나 《찬성표》는 야당립후보자 김대중에 비해 겨우 8%를 더 얻었을뿐이였으며 제놈의 안전을 의탁하고있는 괴뢰군 서울 《경비사령부》관하 부대들에서조차 다수의 반대표가 나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박정희역도는 또다시 설사 《4선개헌》을 감행한다 하여도 직접선거제인 《국민투표》로 1975년 《대통령》선거놀음에서 당선될 전망은 전혀 없게 되였다.

특히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이후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과 반파쑈 민주화투쟁기세가 날로 더욱 높아감에 따라 박정희괴뢰도당의 멸망의 위기는 더욱더 심각화되여갔다.

이로부터 민족의 백정놈이며 극악한 군사파쑈깡패인 박정희괴뢰도당은 상시적인 《비상사태》우에 또다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2중으로 선포하고 땅크와 장갑차 중무장한 괴뢰군부대를 출동시켜 이른바 《10월유신》이란 《제3의 군사정변》을 감행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중지시키며 대학들을 페쇄함으로써 반대세력들을 총칼로 억눌러놓은 살기어린 파쑈적폭압속에서 11월 21일 이른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소위 《유신헌법》이란것을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조작하여 2천 359명의 졸개들을 《대의원》으로 선출한데 이어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역도를 사실상 종신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가장 악랄한 1인파쑈독재체제인 《유신정치체제》를 꾸며내는데 이르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신헌법》을 통하여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으로부터 《립법》, 《행정》, 《사법》의 3권우에 군림하는 이른바 《국가원수》로 내세우고 그에게 모든 권력 수단과 기구를 다 통제할 권한을 비롯하여 《헌법개정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국회해산권》, 《법관임명권》 등을 행사할수 있는 무제한한 권력을

진중시켰다. 이리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가장 악랄한 집행자인 괴뢰대통령 박정희역도가 남조선에서 《총통》의 역할을 할수 있게 꾸며냈다.

또한 박정희역도는 한사람이 세번밖에 《대통령》을 할수 없다는 《3선련임》조항을 없애고 4년임기를 6년으로 늘였으며 괴뢰대통령직접선거제를 제놈의 심복으로 꾸려진 어용거수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성반대토론도 없이 사실상의 기명투표로 진행되는 《간접선거제》로 바꿔놓았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괴뢰국회와 《법원》의 권한을 크게 축소한 반면에 괴뢰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박정희역도는 자신이 《의장》으로 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최고의결권》, 《국회의원의 3분의 1 선출권》을 행사하는 이른바《주권적수임기관》의 지위에 올려놓고 제놈자신이 제멋대로 《법》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고행정권력기구》인 《국무회의》가 《국회》해산에 대한 괴뢰대통령의 제안을 심의하며 《국정감사권》, 《림시국회소집권》 등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국회》우에 올려놓았다. 박정희역도는 제놈이 직접 임명하는 졸개들로 《헌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 《법원》이 행사하던 《법률의 위헌여부심의권》, 《탄핵소추권》, 《정당해산 심판권》 등을 비롯한 중요 권한들을 넘겨놓았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종전에 형식적이나마 표방하였던 《3권분립》을 집어던지고 제놈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1인파쑈독재체제를 파렴치하게 꾸며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유신체제》는 또한 남조선에서 모든 반파쑈, 반독재적 민주세력을 남김없이 탄압하기 위한 극히 반인민적인 반동정치체제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신체제》를 정비강화하기 위하여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하여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헌법위원회법》, 《검찰청법》, 《감사원법》 등 수많은 반인민적인 반동적악법들을 조작개악하였다.

박정희파쑈도당은 《유신》악법들을 통하여 특히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진보적정당들은 두말할것도 없고 혁신을 표방하는 정당, 사회단체들과 지어는 제놈들의 《유신체제》에 순종하려하지 않는 보수정당들까지 《합법적》인 활동을 금지억제하고있다.

지난시기 남조선에서 존속되여온 보수정당들의 정치활동은 주로 괴뢰국회를 통하여 진행되였다. 종전의 경우 《국회》는 정당들이 참가한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형식적이나마 《헌법》을 비롯한 온갖 《법안의 심의권》, 《국정감사권》을 행사하여왔다.

그러나 《유신체제》밑에서는 정당이 참가할수 없는 소위《통일주체국민회의》란것이 《중요립법활동》을 하며 괴뢰대통령과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출하는 이른바 《최고주권기관》으로 됨으로써 《국회》의 지위가 심히 떨어지고 《행정부》가 《국정감사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국회》의 권능은 마비되였다. 그리고 개악된 《국회법》에 의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나 《국회》를 비공개로 할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국회》에서 때로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편승하여 여당과 《행정부》를 공격하던 야당의원들의 활동조차 보잘것없는 존재로 되였을뿐아니라 설사 괴뢰정부에 대한 비난을 한다하여도 그것은 비공개되며 《국회의원》의 발언원고가 사전검열을 받고 발언시간조차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으며 신문기자들이 록음취재마저 할수없기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의 정당은 전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되고있으며 《국회》는 괴뢰정부의 종속물로 전락되였다.

또한 새로 개악된 《국회의원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종래 153개 지역구에서의《1구 1인》선출의《소선거구제》를 73개 지역구에서의 《1구 2인》선출의 《중선거구제》로 개편하였으며 야당들과 무소속의 득세를 막고 관권과 금력을 틀어쥔 박정희도당의 민주공화당소속 후보자들이 사기 협잡으로 우세를 차지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탁금제도》를 새로 내오고 정당소속 후보자는 200만원, 무소속은 300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후보등록》을 할수 있게 했으며 사퇴하거나 당선되지 못하였을때에는 등록금전액이 박정희괴뢰정권의 《국고》에 수탈되도록 꾸며놓았다. 그리고 종전에 주로 정당과 《법원》, 《국회》의 추천으로 조직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성원 9명전원을 괴뢰대통령인 박정희역도가 임명하는 정당소속자가 아닌 놈들로 구성하도록 해놓았으며 산하 각급 《선거위원회》성원들은 상급 《선거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여있다.

그리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은 1973년 2월 27일 파쑈적인 《유신체제》하에서 제9대 《국회의원선거》 놀음을 벌려 《국회의원》 정원 219명중 여당인 민주공화당소속 73명,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역도의 임명에 의하여 《선출》된 이른바 《유신정우회》 소속 73명을 합하여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146명으로 《안정의석수》를 조작해내였다. 야당인 신민당 소속 《의원》은 52명, 민주통일당소속 2명, 무소속19명으로 이들의 활동은 완전히 억제당하지 않을수 없는 박정희역도의 독판치기 《1당독재국회》인 이른바 《유신국회》를 만들어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와같이 1인파쑈독재실현에 장애로 되는 모든 반파쑈, 반독재적 민주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유신국회》까지 조작해냄으로써 가장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유신정치체제》를 완비하게 되였다.

《유신체제》는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대결태세와 전쟁준비를 강화하기 위한것으로서 결국 놈들자신이 줴치고 있는바와 같이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위한 대결체제이며 분렬체제이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에 대한 지지가 날로 높아지고 통일문제해결에 각당 각파가 참가할것을 요구하는 기운이 더욱 높아감에 따라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이 치명적타격을 받고 궁지에 빠진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신헌법》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애국력량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책동을 법적으로 공고화하여 놓았다.

《유신체제》에서 통일문제에 대하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만 《심의결정》하는데 그것도 박정희역적이 제안한것만 토의 《결정》하도록 되여있다.

따라서 통일을 념원하는 남조선의 진보적세력과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은 물론 지어 보수정당 《국회의원》들까지도 통일문제에 대한 론의의 자유를 박탈당하였다.

특히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신과업》을 내들고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매달려 《대결》과 《경쟁》을 떠들며 남북대화를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민족분렬의 고착화, 영구화를 꾀하던 나머지 1973년 6월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미일침략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제놈들의 《정책》으로서 공공연히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결국 《유신체제》란 민족의 백정놈이며 극악한 군사깡패이며 친일친미주구인 박정희역도의 1인파쑈독재로서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고 이른바 《실력을 배양》하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대결태세와 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반민족적이

며 반인민적인 파쑈독재체제이며 대결체제이며 분렬체제이다.

〔**파쑈악법의 개악책동**〕 박정희괴뢰도당은 1972년 이른바 《10월유신》소동을 벌리고 제8대괴뢰국회를 총칼로 해산한후 그 기능을 대신하는 소위 《비상국무회의》라는것을 조작하였다.

박정희역도는 이때로부터 1973년 3월 8일 제9대 《유신국회》개원까지의 기간에 《유신헌법》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반동적인 각종 파쑈적악법들만하여도 무려 271건을 조작개악하였다.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신체제》란 간판밑에 동서고금에 류례없는 가장 악랄한 수법으로 남조선의 사회정치생활전반을 더욱더 파쑈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유린말살하기 위한 각종 악법들을 수많이 조작개악하였다.

우선 언론, 출판, 방송, 무선 시설의 설치와 그 활동, 출판물수입배포 등을 더한층 구속통제하며 모든 언론, 출판, 보도기관들을 완전히 관제화, 어용화하기 위하여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전기통신법》,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등을 개악조작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집회와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로동쟁의조정법》, 《로동조합법》, 《로동위원회법》,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등을 개악하였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을 제놈들의 파쑈적규률과 질서에 완전히 얽어매기 위하여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지어는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까지 개악하였다.

교육, 문화, 보건,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파쑈적인 통제와 검열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법》, 《사립학교법》, 《영화법》, 그리고 《산림법》, 《인장업법》 등 수다한 악법들을 조작개악하였다.

특히 박정희파쑈도당은 남조선혁명가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을 제놈들의 비위에 약간이라도 거슬리기만 하면 마음대로 체포투옥학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형사소송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들을 개악하였으며 행정 및 폭압관리들의 파쑈화를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을 개악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다음으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책동에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며 전시체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각종 악법들을 수많이 조작개악하였다.

우선 놈들은 남조선 청장년들과 인민들의 병역의무범위를 넓혀 그들을 모조리 침략전쟁마당에 끌어내기 위하여 《병역법》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형법》 등을 조작개악하였다.

또한 놈들은 모든 재정예산을 마음대로 조절류용하고 인민들에게 각종 세금부담을 더한층 과중하게 덮씌워 전쟁준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국민은행법》,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소득세법》, 《주민세법》 등을 조작개악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 군수산업과 매판자본의 대기업육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자력법》, 《국방과학연구소법》, 《군복과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외자도입법》 등 수많은 《국방》 군수관계 및 기업관계 《법》들을 조작개악하였다.

그리고 토지, 물자, 량곡을 비롯한 부동산 및 동산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그것들을 전쟁준비에 총동원하기 위하여 《징발법》, 《군사시설보호법》 《량곡관리법》, 《농지의 보전 및 리용에 관한 법률》 등을 개악조작하였다.

이와 함께 박정희괴뢰도당은 모든 체제를 전시체제에 맞게 개편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군사기밀보호법》, 《군법회의법》,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 등을 조작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와 같이 《유신》의 간판밑에 1인파쑈독재의 《법체제》를 강화한데 기초하여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인민탄압의 강화**〕 박정희괴뢰도당은 1973년에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 반파쑈민주화투쟁기운을 억압말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정보특무정치의 주되는 수단이며 인민탄압과 학살의 총본부인 남조선《중앙정보부》를 강화하는데 그 어느때보다도 미쳐날뛰였다.

민족의 백정 박정희역적에게 직속되여있는 비밀정보특무기관으로서의《중앙정보부》의 《임무》는 남조선전역에 거미줄처럼 늘여놓은 정보, 특무망에 의해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세력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동태를 비밀리에 탐지하여 이를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이며 인민들속에 은밀히 침투하여 그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는 한편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일체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제거하는것이다.

《중앙정보부》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남조선 중요 도시들과 지역들에 지부와 《파견관》들을 늘여놓고 있으며 약 1만 5천명의 《기간》성원과 약 40만명의 정치특무인 비밀정보원들을 가지고있으며 매 정보원들은 또한 그 밑에 여러명의 끄나불들을 쥐고있어 실로 그 인원은 헤아릴수조차 없는 방대한 파쑈폭압기구이다.

이리하여 남조선에는 정당, 사회단체들을 비롯하여 모든 민간단체들과 공장, 기업소, 농촌부락, 학교, 교회, 병원, 동, 반 지어 산중의 절간, 먼바다에 외따로 떨어져있는 섬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있는곳이면 그 어디나 다 정보 특무망이 늘여져 있다. 심지어 주민들에게 서로 감시를 붙이는 이른바 《담당제》가 있는가 하면 뻐스와 기차간에도 특무가 박혀있고 려관, 식당, 놀이터, 리발소, 목욕탕에까지 숨어있는 밀정들이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고있다.

특히 박정희파쑈악당은 모든 대학과 중고등학교들에 정보특무조직을 만들어놓고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교원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고있으며 진보적사상과 선진과학탐구의 길을 가로막고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이렇게 썼다. 《중앙정보부가 이 나라의 정치를 완전히 지배하고있다. 누구나 중앙정보부의 비위에 거슬리서는 살아남지못한다. 중앙정보부는 완전히 지금 만능의, 완전히 이 나라의 립법, 행정, 사법—3권의 우에 올라앉아있다》

이와 함께 박정희파쑈악당은 인민탄압의 도구로서 5만여명의 경찰들과 30여만명에 달하는 경찰특무들을 남조선전역에 그물처럼 배치해놓고있으며 《방범대》라는 이름밑에 괴뢰경찰서와 지서및 파출소의 경찰졸개 역할을 하는 20여만명을 헤아리는 《방범대원》들을 널어놓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와 같이 《유신체제》라는 간판밑에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정보, 특무, 경찰, 폭압망을 2중 3중으로 더욱 강화하고 남조선전역을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살기어린 감옥으로 전변시켰다.

이에 대하여 1973년 5월 남조선을 돌아본 서부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르 알게마이네 짜이퉁》의 한 기자까지도 《남조선 감옥간수 박정희》라는 제

목으로 쓴 글에서 《박정희는 남조선사람들이 말하는것보다 실상은 더 심한 독재자이다. 박정희는 남조선사람들에 대한 가장 가혹하고 철저한 감옥간수가 된것같다. 그는 남조선의 최고감옥간수이다》라고 폭로하였다.

실로 민족의 백정 박정희파쑈악당의 《유신독재체제》는 그 횡포성과 야만성, 악랄성과 교활성에 있어서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가장 포악한 파쑈독재체제이다.

이것은 남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탄압책동에서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박정희파쑈악당은 이른바 《10월유신》소동의 일환으로서 1973년 2월 《유신국회》를 조작하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남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던 야당인사들과 정치인들 및 대학 교수들을 악명높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걸어 그들에 대한 살인재판놀음을 벌리는 한편 남조선전역에 파쑈적인 《갑호비상경계령》을 내리여 《투표소》를 비롯하여 거리와 마을들을 온통 경찰과 특무들로 뒤덮고 인민들을 《투표소》로 강제로 내몰았으며 《선거사범》이니 《병역기피범》이니, 《유신풍조위반범》이니 뭐니 하는 죄명을 날조하여 죄없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였다.

또한 놈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를 총칼로 억눌러보려고 1973년 7월 5일 남조선전역에 이른바 《여름철범죄소탕령》이라는 폭압령을 내리고 전경찰들을 인민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에로 내몰았다.

이어 7월 6일에는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날조하고 1973년 4월 서울 남산에서의 《부활절련합례배》때를 계기로 10만군중을 선동하여 반《정부》시위를 단행하였다는 구실밑에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여나선 《기독교장로회서울제1교회》 목사 박형규, 전도사 권호경을 비롯한 15명의 종교인들까지 체포하여 악독하게 처형하려는 탄압만행을 감행하였다.

박정희살인특무악당은 남조선에서 사람잡이를 일삼던 나머지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1973년 8월 8인 대낮에 일본 도꾜의 한복판에 있는 《그란드 팔레스 호텔》에서 랍치하여 군함과 자동차를 동원해서 8월 13일 밤 서울에 끌어다 감금하는것과 같은 야만적인 국제깡패행위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특히 민족의 백정이며 극악한 파쑈교형리인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1973년 10월부터 일떠선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총칼로 억눌러 보려고 류혈적탄압을 가하는데 더욱 발악적으로 미쳐날뛰였다.

박정희파쑈악당은 10월 2일 민주의 홰불을 높이 추켜들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300여명의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투쟁에 떨쳐나서자 500여명의 완전무장한 기동경찰대놈들을 내몰아 대학정문을 2시간동안이나 포위하고 학생들이 거리에 떨쳐나서지 못하도록 최루탄과 총칼을 휘두르며 돌아치다가 대학안으로 승냥이떼처럼 밀려들어가 맨주먹인 학생들을 곤봉으로 마구 때리고 구두발로 차면서 발악적인 체포소동을 일으켜 200여명을 잡아가두어넣은데 이어 이날 대학에 휴교처분을 내렸다.

놈들은 청년학생들의 대중적인 투쟁기세에 벌벌 떨면서 서울시내 각 대학들에 《특별경계태세》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10월 4일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의 시위투쟁에 200여명의 기동경찰대놈들을 내몰아 야수적인 학생탄압을 감행하고 10여명의 애국학생들을 체포하였으며 또한 4일과 5일의 이 대학교 상과대학 학생들의 시위투쟁에 대해서는 100여명의 기동경찰대놈들이 대학정문을 포위하고 다른 100여명의 사복경찰관놈들은 대학안에까지 야만적으로 밀려들어 학생들에게 미친듯이 폭행을 가하였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대규모적인 반파쑈련합작전에 의한 10월 5일의 1만여명의 시위와 6일의 2만여명의 시위투쟁에는 5천명의 완전무장한 기동경찰대놈들과 수많은 사복경찰관놈들이 출동하여 요소요소에서 학생들의 시위투쟁을 가로막으려고 발악하였다.

박정희살인특무악당은 청년학생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지지해나섰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최종길교수를 10월 16일에 체포하여 남조선《중앙정보부》차장 김치렬놈을 비롯한 가장 악랄한 특무놈들이 그에게 《물고문》, 《비행기고문》, 《백열등고문》을 비롯한 가혹한 고문을 가한 끝에 19일 그를 터무니없는 《간첩단》사건에 관련시켜 남조선 《중앙정보부》의 7층에서 창문밖으로 내리뜨려 잔인무도하게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또한 놈들은 체포구금된 애국적인 대학생 3명을 야수적인 고문끝에 악랄하게 학살하였을뿐아니라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호응하여나선 수많은 량심적지식인들과 종교계인사들까지 체포구금하는 파쑈적탄압소동을 벌렸다.

박정희살인파쑈악당들에 대한 증오로 불타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무장경찰놈들과 치렬한 싸움을 거듭하면서 반《정부》,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더욱 거세차게 떨쳐일어났다.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박정희파쑈악당은 궁지에서 헤여나보려고 각 대학들에는 11월 30일부, 각 고등학교들에는 12월 2일부터 강제방학을 실시하는 교육사상 류례없는 파쑈적탄압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기세와 조국통일기운이 날로 높아지자 박정희파쑈악당은 1974년 1월 8일 가장 흉악한 군사파쑈적폭압령인 《긴급조치》까지 선포하고 군사파쑈폭압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갔다.

《반공》소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자기들의 횡포한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온갖 기만책동을 다하고있으며 특히 〈반공〉을 중요한 정치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87페지)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을 군사파쑈통치의 주되는 정치사상적수단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전쟁소동을 정당화하고 제놈들의 매국배족행위와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며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의 영향력이 남조선인민들속에 미치는것을 가로막고 위기에 처한 파쑈통치를 수습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무엇보다먼저 남북대화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1973년 6월 《두개 조선》조작을 《정책화》한 이른바 《특별성명》발표를 앞두고 《반공》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놈들은 5월 한달을 《승공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그 무슨 《자유수호의 달》로 만들어놓고 주민들속에서와 각급 학교들과 괴뢰군부대들에서 련일 《반공웅변대회》, 《승공사상웅변대회》, 《승공통일강연회》등 별의별 《반공》놀음을 벌려놓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에 골몰하였으며 지어 서울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시민들을 닥치는대로 여의도광장에 끌어내여 《종교인》의 탈을 쓴 미제의 악명높은 《전도사》놈의 주관하에

《이북동포해방을 위한 례배》요, 뭐요 하는 《대전도회》라는 《반공》광대놀음까지 벌렸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1973년에 남조선청소년학생들에게 《반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1월초에 1973년봄 입학시험채점에서 《반공도덕의 점수를 최우선》으로 할것을 남조선의 각 고등학교들에 《지시》하였으며 1월 22일에는 남조선의 모든 학교들에서 《공산주의를 이기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교과서와 교육과목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떠들어댔다.

2월에는 이해 새학년도부터 남조선의 모든 국민학교들에 《반공도덕》과목을 《정규교과로 신설》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박정희역도의 이른바 6월 《특별성명》발표후 괴뢰문교부는 7월 26일 남조선학교들의 교과서 내용을 개편하고 《반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반공교육지도지침서》라는것까지 꾸며내여 이를 각급학교들에서 실시하도록 강요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의 대학과 중고등학교는 물론 지어는 순진한 나어린 국민학교의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반공》의식을 불어넣음으로써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의식을 조장시켜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불신감을 더욱 고취하려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흉악한 반역적책동이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정신확립》이 괴뢰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떠들면서 괴뢰군의 《반공화》와 《신자화》책동에 날뛰였다.

박정희군사파쑈악당은 1973년 1월 19일 《야전군정참모회의》라는것을 열고 이미 괴뢰군내에서 벌려오던 《신자화운동》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1973년부터는 병사들에게 《반공》, 《숭미》사상과 노예적굴종사상을 불어넣고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모든 《군정활동》을 병영내의 《교회》와 《법당》을 중심으로 벌리라고 올려댔다.

더우기 박정희반역도당은 3월 30일 《륙군사관학교》 졸업식과 4월 6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이라는데서 남북대화가 진행되고있다고 하여《국방의 필요성도 점차 줄어들고있다는 식의 환상적인 망상을 배격》해야 한다고 짖어대면서《반공의식으로 정신무장》을 하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기 위한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줴쳐댔다.

뿐만아니라 박정희군사파쑈악당은 서울의 괴뢰군부대에서 이해 4월부터 7월까지 이른바 《통일전시관》 놀음을 벌린데 이어 10월 2일에는《승공관》개관식놀음을 벌렸다. 이 놈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비방중상하기 위하여 꾸며낸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이른바 《자료》들을 전시하고 괴뢰군장병들에게 《반공사상을 고취》하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이와 같이 박정희군사파쑈악당은 괴뢰군내에서 《반공》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면서 미일침략자들의 부추김밑에 군사분계선일대에 병력과 군사장비를 계속 늘이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태세를 갖추고 매일과 같이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호전분자 박정희괴뢰도당이 1973년에 우리의 령공과 령해에 정찰기와 각종 함선을 침입시키고 지상으로부터 무장간첩을 침투시키며 총포사격을 감행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는 무려 1만 6천 200여건에 달한다.

이와 함께 박정희괴뢰도당은 어용선전기관들을 동원하여 1972년 11월부터 1973년 5월까지의 사이에만도 무려 1만 6천여회나 공화국북반부를 비방중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놈들은 1973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의 사이에 전선동부인 강원도 고성과 린제지구 비무장지대안에서 방송기로 다섯차례에 걸쳐 공화국북반부를 비방하는 《반공》선전을 불어대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6월 25일 중부지역 비무장지대 두곳에서 각각 20여명으로 되는 무장인원들을 침입시켜 우리측에 대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으며 같은날 직승비행기까지 비무장지대 상공에 띄우는 적대행위를 일으켰다.

박정희군사파쑈악당이 련달아 일으킨 이러한 범죄적인 도발책동들은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을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행위이다. 그것은 또한 1972년 11월초 영광스러운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제2차회의에서 군사분계선상에서의 방송을 그만두며 북과 남이 서로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한 쌍방합의사항을 란폭하게 유린한 용납못할 도전행위이다.

특히 박정희파쑈악당은 무슨 《간첩단사건》이요, 《침투사건》이요 하는것들을 날조하여 악랄한 《반공》소동을 벌리면서 인민들을 위협하여 남북대결과 적대감을 고취하는데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1973년 3월 4일 제주도 동쪽해안에 있는 우도라는 섬에 북으로부터 2~3명의 《무장간첩》이 침입하여 《총격을 가해 경비원 1명을 사살》하였다고 소동을 피우면서 부산과 제주 등지의 무고한 주민들을 체포구금하고 이른바《우도사건》이란것을 날조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선전을 벌리였다.

또한 놈들은 1973년 4월 17일에는 군사분계선에서 《무장인원이 남침하였다》는 이른바 《4.17사건》을, 5월 5일에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금강도에서 《무장인원이 침투하였다》는 소위 《금강도사건》이란것 등 전혀 터무니없는 《사건》들을 허위날조하여 어용신문과 방송들을 동원하여 떠들어댔다.

놈들은 1970년에 일본의 소위 적군파학생들이 빼앗아 탄 려객기를 서울 김포비행장에 착륙시키기 위해 비행장에 공화국기를 내다걸고 인민군복장으로 위장한자들을 줄지어 늘어서게 하는 따위의 모략극을 서슴없이 날조하였다. 1971년에는 인천앞바다 실미도의 괴뢰군병사들이 반《정부》무장폭동을 일으키자 그것을 북반부에서 《남침》해온 《사건》이라고 불어대는것도 서슴지 않았던것이다.

박정희파쑈악당은 바로 이러한 비렬하고 철면피한 상투적인 수법으로 1973년 5월 30일에는 일본을 《거점》으로 공화국북반부와 련계를 가지고 활동했다느니 뭐니 하는 허위적인 《간첩사건》이라는것을 날조하였다. 이와 관련시켜 전혀 터무니없는 무고한 주민 3명을 체포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판》놀음을 벌려놓는 한편 공화국북반부를 비방중상하는 추악한 소동을 벌리였다.

이어 6월 5일에는 서울, 인천, 부산, 포항 등지에서 활동하고있는 기술, 공학계통의 박사학위 등을 소유한 대학교수, 기술일군 등 재일동포들을 포함한 수많은 인사들을 체포하여 이들이 공화국북반부와 그 무슨 《련계》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과 교원, 군중들을 《포섭》하여 《봉기》준비를 시키는 등의 이른바 《간첩》활동을 하였다느니 뭐니 하는 또하나의 모략《사건》을 날조하여 신문, 통신, 방송들을 통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또한 박정희괴뢰악당은 무슨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이라는것을 간악하게 날조해가지고 6월 21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그《관련자》라 하여 11명에 대한 첫《공판》놀음을 벌려놓고 이 《사건》을 공화국북반부와 련결시키면서

내대적인 《반공》소동을 벌리였다. 그런데 놈들이 공화국북반부의 《지령》을 받고 이른바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의 《주모자》로서 활동했다는 김낙중이라는자는 남조선괴뢰도당의 첩보기관에서 체계적인 간첩훈련을 받은 고용간첩으로서 1955년 6월에 림진강중류로 우리측에 기여들어 적대행위와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우리 인민군대에 의하여 체포된 범죄자이다. 그후 이자는 량심적으로 살수 있는 재생의 길이 마련되였으나 반역자의 본성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남조선으로 도망쳐 민족을 배반하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박정희특무집단은 바로 이러한 제놈들의 간첩놈까지 동원하여 황당한 《사건》을 꾸미고 거기에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던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학생 10명까지《관련》시켜 체포하고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속에 허위를 류포시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기에 미쳐날뛰였던것이다.

더우기 놈들은 1973년 10월 2일부터 새로 일어난 반《정부》, 반파쑈민주항쟁에 떨쳐나선 애국적청년학생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바로 이《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다시 들고나와 10월 22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르렀다.

지어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1973년 9월 11일부터 3일간 군사분계선에 린접한 림진강변에 어중이떠중이들을 긁어모아 이른바 《이북5도청》의 무슨 《도지사》라는 감투를 씌우고 추석날 이른바 《망향제》라는 해괴망칙한 굿놀이까지 벌렸다.

이것은 박정희도당의 《승공통일》망상의 산물이며 남북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분렬주의적《반공》광대놀음에 불과한것이다.

남조선에서 식민지파쑈통치가 헤여날수 없는 파국적위기에 처하고 공화국북반부의 정치, 경제적위력과 그 영향력이 커감에 따라 박정희괴뢰도당의 《반공》파쑈화책동은 더욱더 광기를 띠면서 악랄해지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 저들의 운명을 건져보려는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반공》분자치고 《반공》소동을 일으키다가 망하지 않은자가 없다. 지난날 히틀러, 도조가 그러했고 매국역적 리승만괴뢰도당이 그러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나라의 군국화를 적극 다그치면서 〈원조자〉의 탈을 쓰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길에 서슴없이 나서고있습니다.…

특히 일본반동지배층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의 조작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본격화하였으며 경제적침투에 정치, 군사적 침투를 따라세우면서 남조선을 또다시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미쳐날뛰고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39~340페지)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번영》과 《동양평화를 위한다》느니 하는 간판밑에 미제와 공모결탁하여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저주로운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하였다면 오늘 재생된 일본군국주의 세력은 《한국의 안전》을 위한다느니 《공동의 번영》과 아세아의 《안전》을 《보장》한다느니 하는 구실밑에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 침략세력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에 걸쳐 이미 남조선에서 제2의 《주인》행세를 하고있으며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새로운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은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그것을 발판으로 전조선을 지배하며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아세아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삼으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 공모하여 세력권을 나누고 다른 제국주의 렬강들을 밀어내면서 조선을 저들의 독점적식민지로 만들었던 지난날과는 달리 남조선이 미제에 예속되여있는 조건에서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서 지배적지위를 넘겨받으려고 꾀하고있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을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조선침략의 관문을 열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은 《경제원조》를 미끼로 남조선통치배들을 올가미에 걸어넣으면서 침략의 길을 닦아나가는 보다 간악한 방법에 매달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은 그 교활한 책동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우리 인민의 치솟는 민족적증오를 불러일으켰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닥쳤다.

그러나 박정희매국도당은 《일본에 의탁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의 래일은 없다》고 뇌까리며 《제2의 리완용》이 되고 《역적의 소리를 들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고 악을 쓰면서 중무장한 군경들을 출동시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기어이 매국적《한일회담》을 벌렸으며 1965년 6월 22일 드디여 범죄적인 제2의 《을사5조약》, 《한일협정》을 꾸며내였다.

《한일협정》의 조작을 계기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재침은 본격화되였으며 그것은 오늘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정치군사적침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일협정》조작후 지난날 일제의 《통감부》나 《총독부》를 방불케하는 일본《대사관》을 서울에 설치하고 이미 미제와 함께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정권의 대내외정책을 좌지우지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현남조선통치배들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대주어 그들을 틀어쥐고 친일주구들을 길러내여 저들의 세력지반을 꾸려놓았다.

놈들은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으로 하여금 남조선의 친일주구들인 통치배들을 일상적으로 조종하게 하고있을뿐아니라 《한일정기각료회의》, 《한일국회의원간담회》, 《한일협력위원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와 같은 결탁기구들에 의거하여 중요대내외정책에 직접 간섭하면서 방향을 주고 다짐을 받으며 그 집행을 지휘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한일정기각료회의》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사이의 《정부》급의 가장 주요한 침략기구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67년 3월 《한일각료회의》를 조작하고 매년 8월에 정기적으로 열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1967년 8월 《제1차한일정기각료회의》를 벌린데 이어 1968년 8월에 제2차, 1969년 8월에 제3차, 1970년 7월에 제4차, 1971년 8월에 제5차, 1972년 9월에 제6차, 1973년 12월에 제7차의《회담》을 거듭해오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박정희도당과의 결탁을 더욱 강화하고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지배와 예속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책동을 다그쳐왔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박정희파쑈특무집단인 《중앙정보부》에 있는 앞잡이들과 저들이 직접 남조선에 파견

한 특무기관성원들을 통하여 남조선 정계, 사회계의 움직임을 장악하고 남조선통치배들의 정책집행을 감시 통제하고있으며 외래침략과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사회정치세력을 거세말살하는 음모에 직접 가담하고있다.

이해 8월 박정희파쑈특무집단에 의한 남조선민주인사 김대중의 랍치사건에 일본반동당국이 한몫 끼여든 사실은 이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지배와 함께 호전분자이며 군사깡패인 친일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길잡이로 하여 군사적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역할을 일본이 대신해야 한다》느니, 《일본은 남조선의 형이 된 셈치고 남조선을 큼직하게 먹어치워야 한다》느니 하는 폭언을 줴치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서울에 《방위주재관》을 파견하여 일본《자위대》와 남조선《국군》사이의 공동작전체계를 정비완성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미제의 《군사고문단》과 함께 남조선《국군》을 일상적으로 지휘통제케 하고있으며 남조선의 군수공업을 조종감독케 하고있다.

이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일정기각료회의》가 열릴 때마다 《공산주의의 위협》이니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보장과 직결되여있다》느니, 《공동방위》니, 《집단안전》이니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투를 위한 모의를 거듭하였다.

일본외상이란놈은 1970년 7월 《제4차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한국의 안전이 일본자체의 안전을 위하여 긴요》하다느니, 《일본이 남조선에 줄수 있는 협조의 정도는 조선전쟁당시 일본이 유엔군에 준 협조와 거의 같은것》이라느니,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이 규정한 한도내에서 그리고 일본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일본과 오끼나와에 있는 기지들을 미군이 사용할것을 허용할것》이라고 지껄여댔으며 1971년 8월 《제5차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는 《일본도 격동하는 세계정세하에서 국력에 상응한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의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그리하여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군사파쑈도당사이의 군사적결탁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일본《자위대》와 남조선《국군》사이에 반항공조기경보체계, 군사정보교환체계, 군수품보급체계, 군사통신망체계와 같은 통일적인 군사활동체계를 세워놓았다.

이에 기초하여 놈들은 《한일 합동군사훈련》이니 《한, 미, 일 공동작전연습》이니 하는 소동을 빈번히 벌리고있으며 남조선괴뢰군의 비행사와 정비원들을 직접 맡아 훈련시키고 비행기, 땅크, 장갑차를 비롯한 중무기들과 군용자동차 등 군사장비품들을 계속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넘겨주고있다. 뿐만아니라 《호상협력》이라는 간판밑에 남조선괴뢰군의 비행기, 땅크를 비롯한 중무기들을 일본에서 수리해주고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80%를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고 군사력을 보강하는데 돌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자위대》의 우두머리들을 남조선에 뻔질나게 들여보내여 남조선 군부대들을 검열하고 군사분계선일대를 시찰하며 남조선괴뢰군부와의 빈번한 모의를 벌리고 그들에게 군사정책적방향을 주고있다.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무력의 출동의 《필요성》을 력설하고있으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외파병을 금지하고있는 일본헌법을 개악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이와 동시에 놈들은 미제로부터 남조선《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넘겨받을 야망까지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우두머리들은 《일본에 있어서 38선은 전진진지, 경계진지이고 한국은 일본의 생명선으로 된다》고 떠벌이면서 미제가 조선에서 새 침략전쟁을 도발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자위대》의 무력을 배치해놓고 각종 군사훈련을 감행하고있으며 조선전선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하여 《판부련락선》을 비롯하여 일본으로부터 남조선각지의 항구와 비행장들에 이르는 군용긴급수송체계를 세워놓았다.

일본의 출판물들도 《판부련락선은 장차 한국에 병력과 땅크를 수송하는 수송로》이며 《일본 시모노세끼로부터 36톤짜리 대형전차 40대, 1개대대의 〈자위대〉와 그 장비 그리고 그들의 한달분의 식량을 싣고 7시간이면 부산에 닿을수 있고 그것은 다시 부산—서울의 고속도로를 통하여 4시간이면 38선에 도착할수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심지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선제공격》을 운운하면서 우리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군사전략과 구체적인 작전계획까지 짜놓고있다.

이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면서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수행에서 그 직접적인 공모자, 적극적인 협력자로 발벗고나서고있다.

〔경제적침투〕 일본군국주의세력은 경제적침투에 의하여 정치적지배를 뒤받침하는 한편 남조선의 중요 경제명맥을 직접 걷어쥐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범죄적인 《한일협정》 체결후 《경제협력》의 간판밑에 이른바 《청구권자금》과 《차관》이라는 이름으로 8억딸라가 넘는 막대한 자본을 들이미는 한편 합작 및 직접투자 그리고 상품수출과 《기술협조》 등을 통하여 남조선의 재정, 금융, 상업류통부문을 틀어쥐고 지하자원 《개발권》과 《국토개발권》을 빼앗아내고있으며 더 나가서 《중화학공장건설》과 《새마을운동》에 침투하여 공업은 물론 농업과 수산업까지 지배하고 도로, 철도, 항만, 건설 등과 관광업에도 손을 깊이 뻗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외국독점자본가운데서 일본독점자본은 미제 다음인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상품수출과 기술을 통한 침투에서는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특히 1973년에 들어와서 일본독점체들의 남조선에 대한 직접투자는 상반년에만 하여도 놈들이 남조선에 투자를 시작한 1967년부터 1972년까지의 투자실적을 릉가하는 1억 6천여만딸라나 되였다. 1973년에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에 대한 직접투자는 2억 9천만딸라로서 이해의 외국독점자본의 직접투자총액의 93.4%를 차지하였으며 이것은 전해의 3.8배에 달하였다.

그 결과 1973년말 현재 일본은 투자루적액이 4억 3천 800만딸라로서 종래 제1위였던 미제를 따라앞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이해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가 급격히 강화된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10월유신》이후 일본군국주의상전에게 《경제유신의 자금원천의 역할을 감당해줄것》을 애걸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대일예속정책을 적극화한데있다.

박정희매국도당의 이러한 광란적인 대일예속화의 흐름을 타고 밀려든 일본독점자본은 이른바 《유신체제》의 돈주머니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침략의 마수를 더욱 대대적으로 뻗쳐 남조선경제를 제놈들의 완전한 예속물로 만들려고 미쳐날뛰고있다.

그리하여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의 보세가공공업의 100%, 염화비닐공업의 100%, 알루미니움, 판유리생산의 100%, 선박공업의 80%, 화학섬유공업의 80%, 전기기구류생산의 70%,

강철공업의 61%, 세멘트공업의 50%, 화학비료생산의 40%를 장악하고 식민지지배자의 지위를 구축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경제에 대한 이러한 식민지적예속화를 친일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길잡이로 하여 감행하고있다. 박정희역도는 일본군국주의의 《대재벌이 거액의 투자를 하면 그것은 한개 보병사단을 주둔시킨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에 대한 무제한한 침투를 위해 모든 경제적리권과 온갖 특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경제협력》이니, 《공동개발》이니 하는 미명아래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일련의 매국적이며 예속적인 《협정》들을 조작하고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와 략탈을 《합법화》하고있는데서 잘 알수 있다.

박정희매국도당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1966년 3월 4일 《한일무역협정》을 조작하고 《대일지역수입제한철폐》를 선포함으로써 홍수처럼 밀려든 일본상품이 남조선시장을 지배하게 했으며 1968년 12월 《상표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1970년 3월 3일 예속적인 《한일조세협정》을 만들었다. 《한일조세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상품에 부과되던 《2중과세》가 완전히 철폐되였으며 일본독점자본가들이 세제상에 있어서 무제한한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쥐고 저들의 독점자본을 남조선경제에 거침없이 들이밀수 있는 《합법적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또한 1972년 9월 서울에서 진행된 《제6차한일정기각료회의》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박정희괴뢰도당에게 1억 7천만딸라의 재정차관을 주는 대가로 1973년 1월 25일 《공업소유권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일본독점체들은 남조선에서 경영활동상의 특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수 있게 되였으며 남조선경제는 탐욕적인 일본독점자본의 손아귀에 더욱 철저히 얽매이게 되였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강도적요구에 순종하여 1965년에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남조선수역을 본래 60마일선으로부터 그의 5분의 1인 12마일선으로 축소하고 《공동규제수역》이란 이름밑에 제주도연해를 비롯한 남조선연해와 근해의 황금어장을 일본략탈자들에게 팔아넘겼을뿐만아니라 1973년 3월 7일에는 《대륙붕개발협정》까지 체결하여 남조선의 남해안일대의 대륙붕 총《광구》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10만평방키로메터나 되는 바다밑의 석유자원을 비롯한 대륙붕자원개발권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50년 기간으로 넘겨주었다. 이와 같은 각종 《협정》들에 의하여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에 《합법적》으로 무제한하게 침투하여 남조선경제를 제놈들의 완전한 예속물로 만들고있다.

놈들은 1973년 1월 《공업소유권협정》체결 당시에 벌써 무려 933건에 달하는 남조선의 공업소유권을 틀어쥐였다. 또한 남조선에는 이미 2백수십개를 헤아리는 일본독점자본의 상사, 회사, 은행들이 침투하여 이르는곳마다에 둥지를 틀고 《치외법권적특혜》를 누리면서 남조선경제전반을 좌지우지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는 박정희반역도당의 대일경제예속정책의 적극화에 따라 지난시기와는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중소기업을 이식하는 형태로가 아니라 《미쯔비시》, 《미쯔이》 등 대독점자본에 의하여 보다 큰 규모의 기업진출의 형태로 실시되고있으며 경공업과 조립산업 및 보세가공 부문대신 저들의 《파잉자본》과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한편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적인 집중투자가 실시되고있다.

또한 일본독점자본은 미제가 몇개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있는것과는 달리 남조선의 기초산업, 기간적인 《중화학공업》에 중점을 두면서 공업과 농업, 운수, 상업 지어 관광업, 호텔업 등에 이르는 경제의 거의 모든부문, 남조선공업의 70%이상이 집중되여있는 포항이남지역의 공업지대를 비롯한 남조선전지역에 침투함으로써 남조선경제를 일본경제권의 완전한 부속물로 전변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박정희괴뢰도당과 1970년 4월 서울에서 벌려놓은 《제2차한일협력위원회》에서 남조선의 포항이남지역의 공업지대와 일본의 관서경제권을 통합하는 《한일경제협력권》형성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른바 《한일공업협력지구》라는 간판밑에 1970년에 우선 남해안의 마산을 사실상의 식민지적 《조계지》인 《수출자유지역》으로 차지한데 이어 1972년에는 《려수수출자유지역》을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포항이남의 남해안일대의 넓은 지역을 제놈들의 경제권에 끌어넣으려고 날뛰면서 여기에 일본자체에서도 배척을 받고있는 공해산업을 들이밀어 남조선의 값싼 로동력을 무제한하게 착취하고있다.

놈들은 이른바 《일본렬도개조론》까지 내걸고 공해억제대책을 내세운다고 떠들면서 공해가 가장 심한 석유정제를 비롯한 《중화학공업》들을 일본에서 거리가 가깝고 《전략상》가장 안전하다고 타산되는 남조선의 남해안일대의 《공업단지》 또는 특정구역에 옮겨놓거나 새로 건설하고있다.

더우기 박정희매국도당이 《공해같은것쯤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뇌까리면서 공해산업과 로후산업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남조선은 일본독점자본의 공해산업처리장으로 전변되였으며 거기에서 배출되는 유독성물질들은 남조선의 공기와 물, 강과 바다, 하늘을 오염시켜 인민대중의 건강을 해치고 물고기, 농작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있으며 아름다운 조국의 강산을 더럽히고있다.

이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랜 친일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을 길잡이로 하여 남조선을 탐욕적인 일본독점자본의 상품판매시장으로, 자본투하지로, 값싼 원료와 로동력의 공급지로, 일본경제권의 공해산업을 들여미는 부속물로 말그대로 하나의 완전한 경제적식민지로 전변시키고있다.

〔사상문화적침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는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8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정치, 군사, 경제적 침투와 함께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뿌리깊은 반일사상감정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민족문화를 여지없이 짓밟고있으며 남조선에서 왜색문화와 왜풍이 판을 치게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근 반세기동안에 걸쳐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감행하던 시기의 《동조동근》, 《내선일체》론의 변종인 이른바 《일한공동운명체》론의 침략적 교리로써 저들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정당화하면서 친일 매국노 박정희괴뢰도당을 앞잡이로 하여 《친선》이요, 《문화교류》요 하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왔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일제에 대한 《지난날의 감정은 잊어야》한다고 떠벌이면서 1968년 1월 일본군국주의상전들과 이른바 《상호문화교류 및 협조》와 남조선에서의 《대일문화개방》문제를 모의한데 이어 그해 4월에는 《일본문화사절단》이란것을 끌어들여 《한일》간 문화교류 강화를 모의하였다.

또 5월에는 서울에서 《한일방송전문위원회》라는것을 조작하고 이를 통하여 《프로교환》, 《방송요원상호교환훈련》, 《정보 및 인쇄물 교환》등의 명목으로 일본방송을 남조선에 공공연히 침투시켰으며 역시 그해 5월에 《제3차한일무역회담》을 통해 영화배우의 《교환교류》와 영화합작문제까지 론의하면서 왜색문화와 왜풍을 적극 끌어들이기에 미쳐날뛰였다.

그리고 1970년 4월 《제2차한일협력위원회》에서는 《문학작품상호번역보급》과 《문화교류》강화문제 등을 모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1971년초에는 남조선에 《일본문화쎈터》라는것까지 설치하고 일본의 교육, 출판, 문화, 영화 등을 관할하고 널리 류포하게 했으며 1972년 7월에는 일본어를 남조선각 대학과 고등학교들에서의 《제2외국어》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미제의 《양키문화》와 양풍이 지배하고있는 남조선땅에는 또다시 그와 쌍둥인 왜색문화와 왜풍이 홍수처럼 밀어닥치였다.

무엇보다먼저 남조선에서는 일본의 색정적인 소설과 잡지, 《사무라이》전기소설 등 썩어빠진 일본출판물들이 매해 평균 200만부이상씩 물밀듯이 들어와 《일본도서보급회》, 《일본서적전시회》 및 일본도서전문서점 등을 통해 널리 퍼지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들어오는 외국출판물총수의 80%이상에 해당한것이다.

특히 박정희역도는 우리 나라에 대한 첫 침략전쟁(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괴수인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인상이 《키는 작고 몸은 바싹 말랐》는데 제놈도 그와 같은 인상이라고 떠벌이면서 전기소설 《도요도미히데요시》를 비롯한 일본군국주의사상을 고취하는 소설들을 널리 번역출판케 하고있다.

또한 남조선 각지의 국민학교주변들에서 일본만화와 딱지그림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것들은 거의 《게다》를 신은 일본녀자들이거나 일본《사무라이》 등 일본풍속을 우상화한것들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남조선출판물들까지도 《어린이들의 대일관을 비뚤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있다.

그리고 서울,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 각 도시들의 술집과 다방, 《료정》들에서는 탄식과 절망, 애수와 비애를 자아내는 썩어빠진 일본류행가들과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일본《군가》들이 요란스럽게 울려퍼지고있다. 특히는 방송과 텔레비죤들, 극장들에서는 물론 괴뢰군대와 경찰, 학교들에서 왜색노래와 일본《군가》들이 널리 보급되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에서는 왜색노래가 류행되다 못해 조선가사에 일본곡을 섞어지은 노래까지 나와 조선노래인지 일본노래인지 도무지 분간못할 잡탕노래까지 류행되고있다.

또한 남조선의 영화관과 극장들에서는 일본 《사무라이》영화들과 색정적이고 퇴페적인 일본영화들이 그칠새없이 수없이 상영되고있다.

이와 함께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일사상감정과 계급의식을 말살할 목적으로 《지금의 학교 교과서는 무턱대고 반일감정을 고취하고있다》고 뇌까리면서 《일본과의 선린을 중시》하여 《교과서에 친일사상이 반영되게끔 고치라》고 지시하여 친일교육을 적극 강화하고있으며 남조선 각 대학 및 고등학교들에서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서 공공연하게 가르치게 하고있을뿐만아니라 남조선전역에 약 3천개에 달하는 《일어강습소》를 설치케 함으로써 남조선주민들속에 일본말을 합법적으로 주입시키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원래 일제통치시기에 쓰던 일본어휘들이 그대로 사용되여오던데다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으로 말미암아 일본어휘가 더욱 급속히 퍼지는 바람에 일본말과 조선말을 뒤섞어쓰는 현상이 부쩍 늘어나고있다.

또한 서울,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의 도시들과 관광지들에는 일본말로 말하는 안내원들과 기생, 《접대부》들이 있고 일본놈들의 생활취미와 구미에 맞는 음식점, 《료정》들과 호텔들이 꾸려져있으며 일본말로 된 상점간판들과 상품광고, 관광안내서들이 있다.

그러기에 남조선을 드나드는 일본인들과 외국사람들까지도 서울거리가 《일본속의 한국인지, 한국속의 일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일본거리를 방불케 한다고 말하고있다.

1973년에 《시찰단》, 《사절단》, 《관광단》 등 각종 명목으로 김포공항과 부산항 등을 통해 남조선에 기여든 외국인은 하루 평균 2천명을 넘으며 그가운데 80%가 일본인 관광객들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관광을 표방하고 물밀듯이 밀려드는것은 우선 과거 일제의 식민지였던 남조선을 또다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예속시키고 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침략자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앞으로 더욱 든든히 장악지배하기 위한 지반을 닦으려는 강도적목적과 아울러 몇푼의 돈을 던져주는 대가로 남조선 녀성들을 노리개와 같이 제멋대로 롱락하려는 《매춘—기생관광》을 하는데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기생》관광객수는 1972년에 21만 7천여명, 1973년에는 그의 2배가 넘는 45만 2천여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박정희도당을 길잡이로 하여 《천리교》, 《창가학회》 등 일본종교단체들을 널리 침투시켜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반일사상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속에서 친일사상과 일본숭배사상을 공개적으로 설교케 하고있다.

일본《신도》의 한 종파인 《천리교》는 이미 1967년말 현재 남조선각지에 850여개의 《교회》를 설치하고 《일본〈천리교〉를 믿고 숭배하면 만병을 고치고 마음을 깨끗이 해준다》고 설교하여 오늘 수십만의 신도를 규합하고있다.

일본불교 《니찌렌끄》와 정치를 교묘하게 결합시킨 일본의 정치종교단체인 《창가학회》는 오늘 남조선 각지에 1천 846개소의 포교반을 두고 반을 4~7개의 조로 나누어 신도들에게 《남묘호렝겟끄》라는 일본말 주문을 외워대며 《아침저녁으로 일본을 향해 〈동방요배〉를 하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된다》고 설교하고있다.

그의 신도수는 1969년에 3만 5천세대에서 1970년에는 11만세대, 1971년에는 31만세대, 1972년에는 50만세대, 1973년에는 9월까지에만도 64만세대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양풍의 쌍둥이인 왜색문화와 왜풍이 판을 치고 우리의 민족문화와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이 여지없이 짓밟히여 건전한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미국인지, 일본인지, 남조선인지 가려볼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있다.

모든 사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야말로 미제를 등에 업고 박정희괴뢰도당을 앞잡이로 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남조선을 더욱더 예속시켜 남조선인민들을 또다시 저들의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위험한 원쑤이며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있는 중요한 장애물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박정희괴뢰정권의 파멸적위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계속 외세의존정책에 매여달리면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거부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들은 천추에 씻지 못할 매국노의 치욕을 남긴채 파멸당하고말것입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13페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1973년에 남조선에서는 현군사파쑈통치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의 불길이 새로이 거세차게 타번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파국적위기가 급속히 심화되였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는 미일침략자들의 2중주구인 매국역적 박정희괴뢰정권이 직면하고있는 파멸적위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직면하고있는 현위기의 특징은 5.16《군사정변》이후 10여년동안 그 어느때에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심각한 위기이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8.15후 근 30년동안 남조선에서 필사적으로 구축하여 온 식민지군사파쑈통치의 아성이 급속히 무너지고있는 파국적위기라는데 있다.

이 위기는 그것이 어느 한부문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대외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으며 또한 그것이 미일상전들의 엄중한 위기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절망적이며 적들의 소위 《동맹국》들로부터도 고립배격당하여 《국제고아》의 처지로 떨어진 전면적인 위기이다.

〔**정치적위기**〕 박정희괴뢰정권의 심각한 정치적위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괴뢰도당을 반대배격하며 타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과정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광범히 전파됨에 따라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은 인민들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심어졌다. 오늘 남조선에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은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비상히 높아지고있으며 특히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지식인들속에서 급격히 증대되고 열렬히 끓어넘치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도시와 농촌, 이르는곳마다에 《4.15김일성주의연구소조》, 《김일성주의연구회》, 《위대한 주체사상연구회》, 《김일성주석님혁명력사연구회》 등 여러가지 학습소조들을 조직하고 현실과 결부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키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 지식인들 속에서는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높이 칭송하고 열심히 연구체득할뿐만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지향이 막을수없는 시대적추세로 힘있게 자라나고있다.

1973년 9월부터 새로이 대중적인 반파쑈민주화투쟁에 힘차게 일떠선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발표한 선언문들과 구호들, 남조선의 진보적 인테리들이 발표한 일련의 글들은 남조선인민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신조로 삼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받아야 한다. 장군님의 정치는 인민을 위한 정치요, 민족을 위한 정치이다. 하루빨리 이 암담한 처지에서 벗어나 참된 삶을 누리기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야 한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실분은 김일성주석님뿐이시다》, 《우리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5대강령의 길로 하루라도 빨리 나아가야 한다》라는 흠모와 충성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이것은 오늘 남조선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 지향이 인민들의 정치사상동향에서 기본추세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한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공화국북반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인식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를 계기로 북반부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널리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동경과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고있으며 그것을 소개선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특히 대화후 1년동안에 남조선에서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찬양하고 소개선전하며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의거입북하려고하거나 우리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수가 그 전해에 비하여 수배 또는 10배로 늘어나고있다고 박정희괴뢰도당은 아우성쳤다.

남조선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이 널리 보급되고 북반부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소개선전됨으로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공》선전의 허위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인민들속에 부식된 《반공》의식은 무너지고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받아들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북반부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동경이 남조선민심동향에서 기본추세로 됨으로써 인민들속에서 반미, 반일, 반박정희 사상감정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박정희괴뢰정권을 반대배격하고 타도하려는 기운이 전례없이 높아가고있다.

1973년 2월 27일 《유신》파쑈독재하에서 진행된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박정희파쑈악당은 최대한의 정보, 특무, 경찰 폭압력량과 금력을 동원하고 류례없는 사기협잡을 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수의 38.7%의 《지지표》밖에는 긁어모을수 없었다. 이 표안에는 《중앙정보부》의 특무들이 조작해넣은 수백만표에 달하는 협잡표가 들어있다는것을 고려할 때 박정희도당이 인민들속에서 얼마나 고립배격당하고있는가를 능히 짐작할수 있다.

박정희살인특무악당은 1973년 8월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한 수치스러운 국제적깡패행위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규탄과 저주를 받고 더욱 배격당하고있다.

1973년 10월 2일부터 현군사파쑈통치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요구하여 새로이 일어난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 반파쑈, 반외세 투쟁기운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살벌한 《유신》파쑈폭압을 박차고 《박정권을 타도하자》, 《유신독재 타도하자》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보파쑈정치의 즉시 중지》, 《중앙정보부의 해체》, 《정치, 경제의 대일예속성의 즉시 청산》, 《국민의 자유와 생존을 보장하는 새 제도의 수립》, 《신생자립경제체제의 확립》,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론의와 참여의 보장》 등 반파쑈민주화구호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박정희괴뢰정권과 정면으로 대결하여나섰다.

남조선의 각계 민주인사들도 청년학생들의 애국적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

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안팎으로 사상최상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죄행을 규탄하면서 《체제를 근본으로부터 재건》하며 민주,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 전력을 다하여 궐기할것을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야당들도 《박정권은 물러가라》고 반기를 들고일어났으며 광범한 기독교인들까지도 박정희괴뢰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대중적진출에 호응하여 나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 미국을 비롯한 해외교포들속에서도 박정희괴뢰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찌기 찾아볼수 없었던 대중적규모와 적극성을 띠면서 고조되였다.

이 투쟁은 박정희괴뢰도당의 더욱 우심하여진 《유신》파쑈독재와 외세의존의 매국배족정책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의 폭발이며 박정희괴뢰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의 민주화도, 나라의 평화적통일도 이룩할수 없으며 도탄에 빠진 인민들을 구원할수도 없다는 실지체험을 통한 각성의 발현이며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와 매국배족책동을 끝장내려는 확고한 결의의 표시이다.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사상의식령역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박정희괴뢰정권은 그의 사회정치적지반이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있으며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의 공세앞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는 보다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경제적위기〕 박정희괴뢰정권의 심각한 위기는 남조선경제가 파국적위기를 겪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안으로는 경제의 군사화를 위하여 지난 10여년동안 남조선경제를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송두리채 내맡긴 박정희괴뢰도당의 외세의존정책의 직접적산물이며 밖으로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을 휩쓸고있는 인플레와 국제통화위기의 파국적영향과 관련된다.

특히 1973년에 남조선경제는 대외의존과 예속이 극도로 심화되고있는 가운데 심각한 외화위기에 부딪쳤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사대망국적인 외자도입책동으로 말미암아 대외부채는 급격히 늘어나 1973년말 현재로 원금만해도 43억 8천 533만 1천딸라에 이르고있으며 이에 따르는 리자액 21억 451만 8천딸라를 합치면 그 총액은 무려 64억 8천 984만 9천억딸라에 달한다.

이로부터 1974년에 당장 갚아야 할 외국차관의 원리금만도 5억 6천만딸라에 달한다.

따라서 해마다 6억딸라이상의 외자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외국차관의 원금과 리자를 갚아나갈수 없고 경제를 부지할수 없는 형편이며 결국 대외부채는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놈들은 이 막대한 빚을 갚을 길이 없다. 놈들은 대외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외자도입에서 원리금의 상환이 없는 외국독점자본의 직접투자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1973년 한해동안에 박정희괴뢰도당이 끌어들인 외국독점체들의 직접 투자총액은 3억 1천만딸라에 달했는데 그중 94%에 해당한 2억 9천만딸라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직접투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부채로 인한 경제적압박을 해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남조선경제의 예속과 파국을 더욱 촉진시킬 따름이다.

남조선에서는 시설과 원료의 대외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져 공업은 거의 전적으로 외국설비에 의존하고있으며 원료의 80%이상을 수입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외국의 원자재공급이 없이는 단 하루도 움직일수 없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외화위기는 한층 격화되고 《외화망국론》이 널리 퍼지고있다.

한편 무역수지적자는 년평균 10억딸라에 이르고있는데 웰남전쟁의 종결, 미제의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입규제, 일본《엔》과 서독의 《마르크》의 평가인상 등으로 무역을 통한 외화수입전망은 날이 갈수록 암담해지고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경제는 당장 부지해나가기 힘들게 되였으며 외화되거리를 해서 명줄을 부지하는 경우에도 생산된것은 몽땅 외국독점들에게 빼앗기고 빈손만 털고 나앉지 않을수 없으며 결국 남조선경제를 미일독점자본에게 통채로 먹히우게 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또한 인플레현상의 격화로 경제전반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있다.

만성적인플레상태에 있는 남조선화페류통체계는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비팽창에 따르는 지페람발과 미제가 강요한 환률인상 등으로 더욱더 인플레현상을 격화시키고있다. 여기에 자본주의세계의 원자재가격등귀의 여파까지 겹쳐졌다.

남조선에서의 물가의 등귀는 대중소비품을 비롯하여 원자재, 공공료금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포괄하고있다. 원자재가격의 급속한 등귀로 말미암아 남조선기업체총수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체들의 파산을 더욱 촉진시키고있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대기업인 이른바 《차관기업체》들까지도 1973년말현재 3분의 1이나 경영활동에서 제구실을 못하는 기업으로 전락되였다.

남조선에서는 또한 농촌경리의 파탄으로 식량위기가 조성되고있으며 공업과 농업간의 불균형은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지난 10여년동안 박정희괴뢰도당의 농촌수탈이 전례없이 강화된 결과 남조선농촌경리는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경지면적은 20만정보나 줄어들었으며 보잘것없는 관개시설마저 혹심히 파괴되였다. 농업은 공업원료의 보장은 고사하고 해마다 300여만톤, 1973년에는 무려 364만톤의 알곡을 수입하고도 심한 식량난을 빚어내였다.

이리하여 남조선농업은 경제발전을 크게 가로막으며 남조선경제의 전면적인 파탄을 초래할 위험을 조성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에서는 금속 및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의 락후성으로 하여 공업부문 내부구조에서도 심한 불균형이 조성되고있는 등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이 심화되여 경제전반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이와 같이 식민지예속경제의 병페가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는데다가 자본주의 나라들을 휩쓸고있는 경제위기의 외부적영향까지 겹치게 됨으로써 남조선에서는 재생산의 모든 중요한 고리들에서 침체와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생산이 계속 떨어지고있다.

우선 기업체들의 페업, 휴업 현상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기업체들의 페업, 휴업 현상은 생산과 건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기업과 《관영》기업 할것없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일어나고있다.

남조선공업부문 대기업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남조선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차관기업체》의 80%가 경영위기에 봉착하고있으며 50여개가 제구실을 못하여 은행관리로 넘어갔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그 심각성을 짐작할수 있다.

기업체들의 경영위기는 생산의 침체와 저하, 로동자들의 대량적인 해고와 임금체불, 로동조건의 악화를 초래하고있으며 여기에 물가등귀와 식량위기까지 겹쳐 인민생활은 사상최악의 사태에 이르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한채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고있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경제가 파국적위기에 직면하고있으며 박정희괴뢰정권이 의존하고있는 경제적지반이 급속히 허물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외적위기〕 박정희괴뢰정권의 심각한 위기는 대외관계에서 그의 고립이 극도에 이르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로동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전례없이 높아졌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누가 진정으로 민족적대단결과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라며 누가 민족분렬의 영구화와 전쟁과 예속을 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이 세계 인민들앞에 더욱 뚜렷이 드러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적극 지지하며 공화국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국제적추세는 더욱 강화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온갖 방해책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1971년 8월 6일 연설후 불과 2년동안에 우리 공화국은 22개 나라와 새로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국제의회동맹과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에 들어갔다.

또한 1973년 9월 알제리에서 열린 80여개국이 참가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이 구국강령에 기초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높은 국제적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남조선괴뢰도당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배격당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나라들과 중립주의나라들로부터 심히 고립배격당하고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쫓겨나기까지 하였다.

놈들은 지어 《반공》동맹관계를 가지고있던 나라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있다. 미제의 사촉하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앞장서서 조작한 반공군사동맹기구인《아스파크》는 사실상 파산되였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이 또다시 새로운 《반공》동맹을 맺으려는 책동에 누구도 응해주지 않고있다.

특히 박정희괴뢰도당은 1973년 6월 민족분렬의 영구화와 《두개 조선》조작을 정책화한 이른바 《특별성명》으로 하여 매국배족적인 민족분렬주의자, 군사파쑈적호전광으로서의 정체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제3세계나라인민들의 규탄을 받고있으며 이른바 《동맹국》들로부터도 《외교의 실패》, 《궁여지책》으로 《위험한 움직임》이란 비난을 받았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이 큰 기대를 걸어오던 《유엔》의존정책도 파탄에 직면하고있다. 놈들은 저들의《합법성》을 규정한 이른바 《유엔결정》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제침략군에 매달려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면서 저들의 파쑈독재를 유지하려하였으며 유엔을 악용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1973년 가을 유엔총회 제28차회의는 우리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진보적인 세계 많은 나라대표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미제의 어용기구이며 내정간섭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이 추진하여오던 《두개 조선》 유엔가입책동을 여지없이 저지파탄시켰다.

모든 사실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이 급속히 높아가는 반면에 박정희괴뢰도당의 국제적고립이 극도에 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내부알륵의 심화〕 박정희괴뢰정권의 심각한 파멸적위기는 괴뢰통치집단내부의 모순과 알륵이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원래 박정희파쑈악당이 지탱하고있던 《5.16군사깡패세력》은 이미 오래전에 분산약화되였으며 현《유신체제》에까지 남아있는 《심복》이란 불과 몇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놈들마저도 멸망에 직면한 박정희역도의 권력쟁탈을 위하여 서로 암투하고있다. 이 암투는 그것이 남조선괴뢰정권 권력의 중추부에서 그리고 박정희군사파쑈독재를 지탱하고있는 두 기둥인 《중앙정보부》와 괴뢰군의 상층부사이에서 벌어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심각한것이다.

1973년 4월 《서울경비사령관》 윤필용사건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윤필용은 5.16《군사정변》때부터 박정희역도의 오른팔로서 큰 《신임》을 받아왔으며 박정희괴뢰정권의 파쑈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데서 특별한 《솜씨》를 보이였다. 윤필용은 박정희역도의 《신뢰》와 《서울경비사령관》이라는 자기 지위를 리용하여 방대한 자금을 긁어모았을뿐아니라 박정희역도의 권력을 쟁탈할수 있는 비밀조직까지 만들었다.

그리하여 윤필용을 두목으로 하는 괴뢰군상층부는 남조선에서 《중앙정보부장》 리후락놈과 그 일파가 남북대화의 막뒤에서 박정희괴뢰통치집단내에서의 권력과 지위를 더욱 강화하여 나선데 대해서 불만을 품어온끝에 드디여 쿠데타음모를 꾸미는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박정희역도에게 큰 위협이 아닐수 없었다.

이로부터 박정희역도는 제놈의 다른 한 《심복》인 괴뢰군 《륙군보안대사령관》인 강창성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을 《명령》하고 계략을 꾸며 윤필용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대기시켰던 《륙군보안대사령부》깡패들을 시켜 체포케 하였던것이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윤필용은 이놈의 《부사령관》과 함께 15년의 징역판결을 받았다. 그밖에 이 사건의 관계자는 백수십명이나 되며 《륙군사관학교생도대장》을 비롯한 재정계, 학계, 언론계에까지 검거선풍이 휩쓸었다.

그후 1973년 7월에 박정희도당의 다른 심복인 《륙군보안대사령관》인 강창성을 비롯한 수많은 고급장교들이 체포투옥된 이른바 《보안대사령부》사건이 또 터졌다.

박정희역도는 군사파쑈통치에서 제놈의 팔다리처럼 여기던 《최고심복자》란놈들까지도 믿기어렵게 된 파멸적위기에 직면하여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괴뢰군과 괴뢰정부 상층놈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소동을 벌리였다.

괴뢰통치집단내부의 모순과 알륵은 김대중랍치사건에 대한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격화되였다. 박정희역도는 북과 남 사이의 대화의 막뒤에서 제놈의 권력과 지위를 더욱 강화하려하던 리후락일당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괴뢰국무총리 김종필일당과 짜고들어 1973년 12월 3일 이른바 《내각개조》놀음을 통하여 리후락을 《중앙정보부장》자리에서 떼버렸다.

이처럼 박정희역도의 1인파쑈독재를 지탱하고있던 《최고심복자》란놈들과 괴뢰정권의 권력중추를 이루고있는놈들이 1년도 못되는사이에 련속 권력쟁탈을 위한 개싸움을 벌려 떨어져나갔다.

이제 권세욕이 강한 김종필놈이 남았는데 이놈은 1968년에 있었던 《항명파동사건》을 통하여 박정희역도에게 정면으로 도전해나섰던놈으로서 언제까지나 박정희역도의 손아래 《국무총리》나 해먹고 지내리라고 담보할수 없으며 박정희역도 역시 김종필놈을 전적으로 믿고있다고만 볼수는 없다.

하기에 일본의 한 출판물도 박정희역도를 둘러 싼 《실력자》들의 암투는 결국 박정희《정권》을 지탱하고있는 다리를 서로 물어뜯는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였으며 미국신문 《이브닝 스타》까지도 《박정희는 지금 침몰직전에 있다.》고 썼다.

미일반동들의 2중주구인 민족의 백정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런 처지에서 《긴급조치》이니 뭐니 하면서 제아무리 최후발악적인 발버둥을 친다 하여도 수습될리는 만무한것이며 그의 파멸적 위기로부터 벗어날수는 없다.

경 제 정 세

〔더욱 촉진된 경제의 군사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근대화〉의 미명하에 촉진되고있는 경제의 군사화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군사적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공업부문들이 자라나고 통신, 도로, 철도, 항만 시설들이 확장되고 있으며 군사경제적잠재력이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85～386페지)

이해에 들어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방위산업의 육성이 올해 3대 국방시책중의 하나》이라고 요란하게 떠들면서 《유신경제》의 간판밑에 《실력배양》을 위한 경제의 군사화를 미친듯이 벌리였다.

우선 박정희괴뢰도당은 새로 《군수산업법》이라는 경제의 군사화법을 만들어놓고 군수산업에 기여든 매판자본가들에게 경영상의 특별한 《혜택》까지 주었다고한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정신과는 배치되게 박정희매국반역도당은 이처럼 1973년에 들어와《대결》을 고취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침략적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의 군사화를 이른바 《법화》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경제의 군사화를 《법화》하는 범죄적책동을 통하여 군수산업체에 속한 근로자들을 내몰아 10여개의 항들을 신설확장하면서 특히 부산항에 종전에 비하여 2배이상의 군수물자를 처리하는 대형군수부두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부산군항확장공사에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기구들인 《세계은행》과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구걸해들인 7천만딸라가 들어가는데 대형군수부두와 함께 이미 닦아놓은 서울—부산간 군용도로와 련결하는 항만고속도로가 건설된다.

그리하여 부산, 포항, 울산, 군산, 목포, 마산, 제주, 인천, 려수항들이 침략적군항 또는 군수용 항구로 신설확장되고있다.

부산을 중심으로하는 군항건설과 항만고속도로건설은 앞에서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에 찬동해놓고도 뒤에서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과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박정희친미친일매국괴뢰도당의 검은 배심을 철저히 폭로해주고있다.

한편 미제의 군수생산체인 《이스템즈》회사를 끌어들여 남조선에서 군용야전무전기를 만들어내기로 한데 뒤이어 일본으로부터 통신시설과 자재들을 들여다 군용통신시설을 보충확장하고 있다.

군용통신시설공사에는 1973년 1월 24일에 남조선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차관협정》에 따라 2천만딸라가 들어간다고 한다.

남조선에서의 통신시설의 군사화는 사실상 경제의 군사화와 군수경제잠재력이 남반부의 범위를 벗어나 미국,일본과 그것이 하나로 련결되여 일치되고있다는것을 폭로해주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괴뢰군대에 공급할 소총을 비롯한 저격무기와 갖가지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과 무기부속품공장건설에 미쳐돌아쳤으며 일부 민수공장들까지 무기를 생산할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 통합, 개편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박정희친미친일괴뢰도당은 철두철미 외세에 의존하여 평화적통일이 아니라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항만, 도로, 통신, 건설의 군사화를 다그치면서 《공업의 지방분산》소동을 계속하였다.

이놈들은 먼저 서울과 부산과 대구에서 다음에 대전, 전주, 울산, 마산, 제주 등지에서 기업체들을 지방에 옮기고있다고 한다.

또한 괴뢰정부산하기관들까지 지방으로 내보낼것을 지껄이면서 분산대상기관과 그 일정, 지역을 설정하였다고 한다.

놈들이 만들어낸 《공장이전촉진법》에 따라 움직이는 78개 업종의 기업체들과 괴뢰산하 기관들이란 례외없이 군사적목적을 띤것들이다.

《도로공사》, 《준설공사》, 《석유화학계렬회사》, 《령남화학》이요 뭐요하는 것들이 어딘가 나가려고 들썩거렸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만도 56%의 기업체가 나간다고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의 《공업의 지방분산》책동은 《근대화》의 그늘밑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 어리석은자들의 잔꾀에 불과하며 전시환경에 맞게 군수공업을 재배치하고 군수경제적잠재력을 늘이려는 음흉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리윤추구를 생산의 목적으로 삼고있는 남반부의 경제체제하에서 매판자본가들이 《공업의 지방분산》책동에 따르는 공업용수, 도로건설, 동력개발과 같은 방대한 산업건설에 자금을 투자할리 만무하다.

또한 원료생산과 가공공업간의 심한 불균형, 도시와 지방간의 소득수준의 현저한 차이, 이로부터 생겨나는 생산과 소비간의 차이가 심각한 남반부의 체계하에서 매판자본가들이 원료난, 판로난이 심한 지방에 또한 머리를 들이밀리 없다.

따라서 박정희괴뢰도당의 《공업의 지방분산》책동은 강권의 동원으로써도 실현될수 없을뿐아니라 반대로 사회적모순과 불만, 모순만을 더욱 증대시킴으로써 제놈들의 정치경제적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외국자본도입 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것은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입니다. 그것은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며 남조선을 제국주의의 예속에로 더욱더 깊이 밀어넣을뿐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05～406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외국자본을 제한없이 끌어들이는 매국배족적책동을 더한층 강화하였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수많은 각종 《투자요청단》을 끊임없이 해외에 보내여 도처에서 구걸하는 한편 미일침략자들과 그리고 미제가 조작한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등 《국제협력기구》들의 《개발조사단》, 《통상 및 투자조사단》을 련이어 끌어들이며 《외자도입법》을 뜯어고쳐 여러가지 《특혜》와 경제적리권을 외국독점체들에 마구 넘겨주는 등으로 외래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온갖 책동을 다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자주적인 원칙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공공연히 위반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외래독점자본을 제한없이 끌어들인것은 나라의 분렬을 고착시키며 시간을 얻어 전쟁준비를 강화하여 《승공통일》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천추에 용납못할 매국배족행위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외국독점자본도입책동에 더욱 미쳐 날뛴것은 외세에 의존하여 남조선경제를 더욱 군사화하고 무력을 증강하며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동시에 무너져가는 제놈들의 통치지반을 수습하고 장기집권의 더러운 야망을 충족시켜보려는데 있다.

외래독점자본을 제한없이 끌어들이기 위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은 각종 《조약》과 《법》들을 외래독점자본의 침투에 더욱 유리하게 새로 꾸며내거나 개악한데서 나타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72년에 《조세관계법》을 뜯어고치고 1973년 2월에 《외자도입법시행령》을 꾸며내는 등으로 외국자본에 여러가지 조세의 특권을 부여하고 외국자본도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세금제도면에서만 하여도 외국인투자기업체들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중 《직접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등을 투자개시후 5년간 전액 면제하고있으며 그이후 3년간은 50% 면제해주고있다. 또한 《간접세》에 속하는 《관세》와 《물품세》도 외국인투자자본에 대해서는 전혀 부과하지 않고있다.

외국자본도입절차면에서도 기술도입의 경우 계약기간 1년, 지불기간 3년이하의것과 50만딸라미만의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형식적으로나마 적용하는척 해오던 《외자도입심의》마저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이와 함께 박정희괴뢰도당은 외국독점자본으로 하여금 리익금을 무제한 제나라로 송금하거나 남조선에서 재투자할수 있게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지어 외국기업체들에서의 《로동쟁의》를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함으로써 외래독점자본들로 하여금 남조선로동자들을 무제한 략탈할수 있게 해주고있다.

외국독점자본도입책동에 더욱 미쳐 날뛴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은 또한 외국자본구걸을 위한 이른바 《경제외교》를 강화한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우선 외국자본구걸행각을 강화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총회》를 비롯하여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등의 《년차총회》들에 제놈의 졸개우두머리들을 보내여 외자를 구걸하는 등 외국자본구걸책동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요, 《경제기획원장관》이요, 《외무부장관》이요 하는 놈들을 《해외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련이어 미국과 일본, 영국과 서독, 프랑스 등에 보내여 《외자도입교섭》에 날뛰였다.

5월에 있은 괴뢰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놈들의 미국, 일본 및 구라파행각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외자구걸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오게 된다고 떠벌이였다.

이 외자구걸행각을 통하여 놈들은 우리와의 이른바 《힘의 대결》을 위한 《실력배양》을 진행할데 대한 《기본방침》이라는것을 내놓고 이에 《협력》해줄것을 애걸하였다. 놈들은 특히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중화학공업계획》과 그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투자요청안》이라는것을 내놓고 이에 《협력》해줄것을 요청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외국자본구걸행각에 매판자본가들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관민협동경제조사단》이라는것을 꾸며 미국, 중남미, 구라파 지역들에 련이어 파견하여 외국자본도입을 구걸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잡다한 여러가지 《조사단》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도 외래독점자본을 적극 끌어들이려고 책동하였다.

이해에 들어와 남조선에 기여든 큰 《조사단》만 하더라도 6월에 기여든 일본의 《대기업민간조사단》을 들수 있다. 이 《조사단》은 《합작투자의 가능성여부》를 《세밀히 타산》한다는 구실밑에 인천, 려수, 마산, 울산 등지를 싸다녔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물론 서구라파제국주의나라들과의 사이에 《경제협력》기구들을 새로이 발족시키는 방법으로도 보다 많은 외국자본을 구걸하려고 책동하였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은 또한 외국자본을 밀어넣어준 대가로 일련의 《경제적리권》들을 외국독점체들에게 마구 넘겨준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이해 1월에 체결된 《한일공업소유권협정》은 일본독점체들이 남조선에서 기업경영상 특권을 가지고 식민지적략탈을 강화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매국《협정》으로서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제공하는 1억 7천만딸라의 《재정차관》과의 교환조건으로 조작되였다.

박정희매국역도는 또한 《대륙붕개발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차관》을 얻어보려고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대륙붕개발권협정》 체결을 매듭짓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그뿐아니라 5차, 6차 《한일각료회담》에서 합의된 선박차관에 추가된 차관총액 2억딸라를 받는 대가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요구에 굴종하여 《해운협정》을 결속지으려고 책동하였다.

외국자본도입에 더욱 미쳐날뛴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조차 《오물단지》로 배척당하고있는 공해산업까지 마구 끌어들인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중화학공업건설》이요 뭐요 하고 떠벌이면서 공해산업을 마구 끌어들이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에 대하여 일본출판물들조차 박정희괴뢰도당이 《중화학공업개발계획》을 꾸며가지고 《일본의 민간기업들에 의한 투자에 기대》를 걸자 《공해공장의 립지난과 로동력의 부족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일본의 기업》들은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에 매우 《의욕》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고 까밝히였다.

외국자본도입책동에 미쳐 날뛴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은 그밖에도 환자시세를 계속 낮춤으로써 더많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 한데서나 또는 급격히 늘어나는 일본독점체들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외국독점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이상과 같은 매국배족적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외국자본이 마구 밀려들었다.

이해 상반년기간에만도 1971년 한해동안에 들어온 외국자본에 거의 맞먹는 6억6천250만딸라가 밀려들었다.

그리하여 이해 6월말현재 남조선에 침투했거나 침투하기로 확정된 외국자

본은 총액 42억 4천 842만딸라에 이르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외래독점자본을 제한없이 끌어들임으로써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외세에 매여달리게 하였으며 남조선경제를 헤여날수 없는 파탄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숙이 밀어넣었다.

파산되고있는 민족공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민족공업은 더욱더 령세화되여가고있으며 끊임없이 파산몰락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9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이 그처럼 떠들던 《경제성장》과 《물가동결》소동은 이해에 들어와 민족공업의 대대적인 파산을 거듭한 후에 전례없이 물건값을 마구 올리는 조치로 번져나갔다.

민족공업의 대대적인 파산과 물가인상조치는 경제의 군사화를 미친듯이 다그치면서 철저히 식민지예속경제를 추구해온 미일제국주의와 박정희반역도당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경제정책의 산물이다.

오늘 남조선의 공업은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한 해외시장에 원료, 자재를 전적으로 의존하고있으며 그나마도 생산기술공정상 1차원료처리공정이 없는 일부 가공공업에만 치중되고있는 식민지예속경제이다.

그것은 미제와 일제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비중이 64.4%라는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는 생산기술적구조를 가지고있으며 대양건너 미일독점체들이 재채기만 하여도 남조선공업이 앓아쓰러져야 할 형편이라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특히 고철의 90%, 원면의 98%, 팔프의 70%이상을 비롯하여 선철, 강철 기계류는 거의 전량을 미국으로부터, 종이류의 74%, 합성고무의 100%, 합성섬유실의 91%, 인조섬유의 74%, 석유화학제품의 85%, 철강재의 90%, 알루미니움의 75%, 아연의 91%를 일본으로부터 사들이고있다.

그런데 미일제국주의자들은 1973년에 들어서자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자재난으로 말미암아 주요원자재들의 수출량을 대폭 줄이였을뿐아니라 쥐꼬리만큼 수출하는 원자재값도 150~300%까지 올리지 않을수 없었다.

수입한 원자재의 대부분은 또다시 외국독점자본가들의 기업체와 남조선의 예속자본가들이 독차지하다싶이 썼다.

그리하여 박정희매관괴뢰도당의 온갖 중간착취와 각종 제한으로 남조선 제조업체의 97.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이 엄청나게 뛰여오르고 또 구입난 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으로 경영위기를 겪다가 파산선풍에 휘말려 들어갔다.

특히 중소기업의 파산은 세계자본주의경제의 심각한 원료난과 원자재난에 뒤이어 일어난 세계석유파동이후시기에 절정에 달하였다.

실례로 200명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중소기업소들에서는 세계자본주의경제의 심각한 원료난, 원자재난 이후인 1973년 8월부터 원자재도입에만 하여도 그 부담이 33.1%나 늘어나 도저히 수지를 맞출수 없는 판에 1973년 10월의 세계석유파동을 만나 무리파산을 당하였다.

1974년 정이월 두달동안에만도 전라북도에서 137개 기업체, 전라남도에서 74개 기업체, 강원도에서 54개 기업체, 경상남도에서 29개 기업체가 문을 닫았다. 남조선의 중소기업의 90%이상이 폐업, 휴업, 조업, 단축놀음을 벌리고있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러한 경제적위기에서 《솟아》나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 부렸으나 오히려 식민지예속경제하의 파국적위기를 도저히 개선할수 없다는 징조에만 부닥쳤다.

실례로서 1973년 네차례에 걸쳐 국제원유가격이 올랐기때문에 1974년에 1973년과 거의 같은량의 원유를 수입하자고해도 4배에 달하는 외화를 내야하겠는데 돈도 없거니와 빚더미우에 올라앉은 괴뢰주구의 주제여서 미제독점체들도 줄 형편이 못되거니와 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경제의 군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해보려고 《물가억제정책》으로부터 《물가인상정책》으로 그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제도를 없애고 소비품값을 대폭 낮추는 격동적인 시기에 박정희살인괴뢰도당은 년초에 고아대던 《물가동결》소동대신 다음과 같은 일곱차례의 《물가인상》소동을 벌렸다.

1973 12월 4일 각종 석유값을 평균 30%올린것을 비롯하여 10종의 원자재와 공업상품값은 최하 15%에서 최고 42%까지 비싸졌다.

1974년 1월 29일 14종의 석유화학제품을 최하 20%에서 최고43%까지 올렸다.

1974년 2월 1일 각종 석유값을 다시 평균 8% 올리고 철도, 뻐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수료금을 최하 15%에서 최고 109.3%로 올렸다.

1974년 2월 5일 26종의 공업상품과 식료품의 값을 최하 6.8%에서 최고 57%까지 올렸다.

1974년 2월 19일 31종의 공업상품값을 평균 21.5% 올렸다.

1974년 2월 20일 15종의 공업상품값을 21.8% 올렸다.

1974년 2월 25일 밀가루값을 60% 대폭 올리였다.

이러한 연료와 자재난 물가의 등귀로 민족산업은 솟아날길이 막혀 계속 무리로 파산되고있다.

흉작만 거듭하는 농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광범한 농민대중은 의연히 봉건적지주제도밑에서 가혹한 착취를 받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지주들의 략탈과 착취로 말미암아 남조선농업은 몹시 쇠퇴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01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은 10만의 지주가 농경지의 40%이상을 거머쥐고 30만의 머슴군들을 부리며 140만호의 농민들이 소작살이를 하는 락후한 봉건적인 농촌착취제도를 유지해왔다.

반동적인 농촌경리제도와 반인민적인 농업시책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쌀고장으로 유명하던 남조선은 수백만톤의 량곡이 모자라는 만성적기근 지대로 되여 버렸다.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은 1945년에 비하여 20만정보나 줄어든 농경지에서마저 농토를 평당 1천원씩 강탈하여 일본독점체들을 비롯한 외래독점체들에게 공장부지로 5천원씩 팔아넘기는 매국행위를 일삼았다.

그리하여 남반부농민들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등 알곡생산지의 농토만하여도 단번에 3만여정보나 빼앗긴 상태에서 이해 농사를 지었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이 관개시설을 제대로 건설하지 않을뿐더러 이미있던 관개시설마저 돌보지 않아 계속된 가물에 논판이 말라터지고 모가 말라 죽는 등의 재난이 일어나 이해 농사를 망쳤다.

말라터지는 논바닥을 보다못해 낮에도 밤에도 강바닥과 물주머니를 허비는 농민들의 용드레소리 그칠새 없었것만 충청남도에서는 8만여정보, 경상북도에서는 2만 4천여정보, 경상남도에서는 5만여정보, 전라남도에서는 1만여정보의 논이 거북잔등처럼 갈라졌다고 한다.

남조선농촌에 이해에 들이닥친 이러한 가물피해는 범죄적인 전쟁준비에만 미쳐 날뛰면서 관개공사는 고사하고 얼마안되는 관개수리시설마저 닥치는대로 파괴한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의 반역적책동의 응당한 결과이다.

남조선농민들은 심한 가물피해를 입은데다가 비료와 농약을 제대로 치지 못한 논밭에 병충해까지 겹쳐 큰 고통을 당하였다.

물이 없어 논판이 터질때에도 실속있는 대책을 하나 세우지 않은 박정희괴뢰도당은 온전한 농약공장도, 농업기술자들도, 병충해예방체계도 마련해놓지 않았으며 농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놈들이 줄여서 인정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충청남도에서 2천 400여정보, 전라북도에서 4천여정보, 경기도에서 7천여정보에 병충해가 들었다 한다.

박정희괴뢰도당과 매판자본가들이 팔아넘긴 기후풍토에 맞지도 않은 외국의 유독성《농약》을 쳐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석포리의 8명의 농민들이 생명을 잃었다.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유독성《농약》때문에 100여명의 농민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이와 같이 천재아닌 《인재》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농업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있다.

적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 여름곡식만 보더라도 1969년에 비하여 16%나 줄어들었으며 1972년에 비해서도 0.5%나 더 줄었다고 한다.

박정희파쑈무리들은 농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농사를 망쳐놓고는 330만섬의 《매상》목표를 앞세우고 어느해보다도 일찌기 수탈깡패들을 농촌에로 내몰았다.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은 생산비도 안되는 《매상공격》을 들이대여 결국 살아나갈수 없게 된 농민들로 하여금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밀려들게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음흉한 기도밑에 감행한《매상공격》은 험한 흉작이라는 사실앞에서 실패로 끝났다. 남조선의 알곡수입량은 1968년에 149만 5천톤이던것이 1972년에는 316만 7천톤, 1973년에는 무려 364만 6천톤에 이르고있다.

그런데 미제독점체들은 더많은 독점적리윤을 짜낼 목적으로 이때까지의 장기차관으로부터 현금판매제로 그 방향을 바꾸고 1972년에 톤당 130딸라로 팔던 쌀값을 340딸라로 올렸다.

이에 급해맞은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은 이해의 알곡생산량에는 관계없이 《매상》목표를 당초에 예견한것보다 80만섬 더 높이 세웠을뿐아니라 얼마안되는 《매상금》마저 절반만주고 나머지 절반은 《통장》으로 내뜨리면서 세계력사상 전례없는 《통장매상》공세를 벌렸다.

외화부담을 덜어보려는 목적에서 벌린 《통장매상》공세로 말미암아 이해에 남조선에서는 200만호의 절량농가가 생겼다.

200만호의 절량농가—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의 살인적인 농업《시책》의 응당한 결과로서 경제의 군사화에 따라 농토를 외래독점체들에게 팔아넘긴 탓이며 략탈적인 농업 《시책》에 따라 씨앗을 말라죽이고 태워죽인 탓이며 강도적인 《통장매상》책동에 따라 북데기속의 낟알마저 모조리 빼앗은 탓이다.

파산몰락하는 수산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적략탈과 군사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남김없이 파괴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209페지)

이해에도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충실한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정책과 파쑈적탄압이 강화됨에 따라 남조선어민들은 고기떼를 보고도 바다에 나가지 못하였으며 바다에 나가도 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였다.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범죄적인 《한일어업협정》을 통하여 100만 어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황금어장을 공동어로수역으로 팔아치운 탓으로 이해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어장을 독차지하였다.

이해 남조선령해에 들어와 고기잡이하는 일본어선수는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대적인 고기배가 매일 2천 600여척에 달하였다고한다. 그런데 남조선의 고기배들이란 일본고기배들속에 끼워들수 없는 낡은배들이며 어구들이란 일본배들과 경쟁할수도 없는 락후한것이다.

그리하여 남조선어장에서의 왜놈들의 어획고는 《한일어업협정》전에 비해 10배로, 어종에서는 20배로 대폭 늘어난 반면에 남조선의것은 지난날의 그것보다 10~20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황금어장을 빼앗은 일본놈들은 남조선고기배들이 나타나기만해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배를 마사버리거나 그물을 고의적으로 찢어가지고 도망쳤다.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일본놈들의 해적행위로 남조선어민들이 피해본 금액은 무려 1억 1천여만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일제의 손때묻은 오랜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본배의 횡포무도한 해적행위에 눈을 감고있을 뿐아니라 오히려 《잘못》을 남조선어민들에게 들씌우는 매국배족행위를 일삼았다.

3월 1일 제주도 서쪽 바다에서 일본해적선들이 속초어민들의 그물을 1천 500여메터나 고의적으로 찢어버렸을 때에도 남조선어민들은 놈들의 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의 친일사대주의적매국정책에 물든 남조선해양경찰대는 오히려 속초어민들을 죄인취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러한 해양경찰책동은 남조선자원과 어민들의 어로활동을 보호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일제의 재침을 안내하며 비호조작하고 《애걸》하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남조선어민들은 황금어장을 일본놈들에게 빼앗기였을뿐만아니라 박정희괴뢰도당의 날로 강화되는 전쟁정책으로 인하여 이해에 또한 밀려드는 고기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어로저지선》을 계속 남쪽으로 끌어내리는 한편 중요한 물고기의 성어기마다 바다에서 군사연습, 사격연습을 벌려놓고 남조선어민들의 어로활동을 올가미안에 몰아넣었다.

동해안에서는 《어로저지선》이 남쪽으로 내려온 반면에 어로활동을 통제하는 군함들이 늘어난 결과 명태어획고가 절반으로 쭉 떨어졌으며 서해안에서는 조기의 산란장이 《어로저지선》밖에 있는데다가 조기잡이수역이 군사연습장으로 변해 버려 풍어를 알려주는 조기떼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바다

에 나가지 못하였다.

새 전쟁준비에 미쳐 날뛰는 박정희괴뢰도당은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면서 《중화학공업》을 개발한답시고 강하천과 해안에 유독성물질을 뿜는 공장들을 망탕 세운 결과 천해양식장들이 녹아났다.

서해와 남해의 12개의 천해양식장에서는 공해로 말미암아 조개와 김의 씨마저 완전히 죽어버렸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공해를 입지 않은 천해양식장에 대해서는 1972년말에 미국과 맺어진 《조개류위생협정》에 따라 경상남도 거제군과 통영군 앞바다를 포함한 4개수역을 이해에 대미굴수출양식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로써 미제침략자들이 제놈들의 략탈적속심을 채우기 위하여 앗아낸 남조선굴밭의 해역은 8개로 늘어났으며 그 면적은 1천 100여정보를 헤아린다.

미일2중주구 박정희도당은 이처럼 황금어장과 황금양식장을 미제와 일제에게 바치고는 남조선어민들이 고기떼를 보고서도, 바다에 나가서도 잡지 못하게 얽어맸으며 조금 잡아온 수산물마저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심각한 재정 금융위기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재정시책》의 성격은 1973년 《재정예산》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박정희괴뢰반동통치집단은 미제의 조종밑에 1972년 12월 2일 이른바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도 괴뢰 《재정예산》을 조작통과시켰다.

박정희살인특무집단이 꾸며낸 《예산》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최근시기 더욱더 심화되고있는 남조선경제위기를 반영한 《초긴축예산》이라는데 있다.

이해의 《예산》규모는 박정희반동통치배의 《집권》이전인 1960년 괴뢰 《예산》규모 485억원에 비하여 13.6배 팽창한것이지만 1972년 《예산》규모에 비하면 다만 1.9%가 늘어났을뿐이다.

이것은 괴뢰정부《예산》의 팽창률이 지난 시기에 비하여 대폭 낮아진 《초긴축예산》임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물론 1973년 《예산》도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에 철저히 복무하고 있는 점에서는 지난시기의 괴뢰정부의 《팽창예산》과 본질상 아무러한 변함이 없지만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심화됨으로써 《재정예산》 자체를 지난시기와 같은 폭으로 늘일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는 중소기업체뿐아니라 외국의 차관으로 세워진 기업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경영위기, 특히는 자금난에 깊이 빠져 대대적으로 파산몰락하고있다.

원래 인민수탈밖에는 아무런 재정적 토대도 없는 박정희괴뢰도당은 전쟁정책에 따르는 방대한 군사비와 파쑈통치비를 보장하느라고 평장한 빚더미에 빠져 군수공업에 종사하는 매판기업들의 기업운영자금마저 변통할수 없는 신세가 되였다.

남조선의 금융위기—괴뢰도당의 재정위기의 심각성은 박정희살인특무집단으로 하여금 《경제안정》의 기만적인 구호밑에 《예산》편성에서 《초긴축정책》을 쓰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괴뢰정부의 재정을 완전히 자기 손에 틀어쥐고 그 예산을 미국점령군과 방대한 괴뢰군대와 파쑈적통치기구를 유지하는데 전적으로 돌리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23~24페지)

1973년 괴뢰정부《예산》의 특징은 극도의 《초긴축》방침을 취하는 주제에도 군사비와 파쑈통치비용을 대대적으로 늘쿤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재정예산》이라는데 있다.

전쟁준비를 강화하는 직접적군사비—《국방비》만 하여도 세출총액의 28%를 차지한다.

이것은 박정희군사깡패들이《집권》하기전인 1960년에 비하여 무려 2.5배나 늘어난것으로 된다.

직접적군사비증대정형

년도	증가지수
1960	1
1969	6
1970	7
1973	12.5

박정희군사깡패들은 이와 같은 막대한 군사비지출로서 우선 비행기, 땅크, 함선, 자동차, 군사통신기재들을 새로 끌어들여 《국군의 현대화》를 다그치려 하였다.

1973년 《예산》의 군사적성격은 《재정투융자》의 지출내용에서도 드러났다. 박정희반동통치집단은 《세출예산》에서 이른바 《방위산업》 육성에 《재정투융자》의 많은 몫을 처넣었다.

《예산》에서는 괴뢰경찰 및 파쑈기구의 확장과 그 유지비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일반경비》도 대폭 늘이였다.

1973년 《예산》에 반영된 《일반경비》는 세출총액의 45.4%에 달한다.

《일반경비》의 이와같은 규모는 괴뢰 《내무부》, 《법무부》, 《대법원》, 《중앙정보부》등 파쑈폭압기구를 유지강화하며 괴뢰경찰의 《수사비》를 1972년보다 1.5배나 늘이고 괴뢰경찰관을 증원하며 통신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책동과 관련된다.

1973년 괴뢰정부 《예산》의 다른 특징은 새전쟁준비와 파쑈통치체제를 유지강화하는데 필요한 방대한 비용을 인민들로부터 짜내려는 략탈적인 《세입예산》이라는데 있다.

1973년 괴뢰집단의 《예산》에서는 세금강탈을 세입총액의 83.4%를 예견하였다.

이것은 박정희군사깡패무리들이 총칼로써 《집권》한 이전시기인 1960년에 비하여 무려 11.3배에 달한다.

조세증대 정형

년도	증가지수
1960	1
1969	5.5
1970	7.7
1973	11.3

※조세총액에 《전매익금》포함

이해 《예산》에서 조세수탈규모는 남조선인구 한 사람당 2만 2천원, 한세대당 평균 11만원이나 된다.

《개정세법》을 꾸며낸 박정희괴뢰도당은 이 악법을 보다 광범한 령세기업가들에게 적용하여 1972년에 비하여 40%나 더많은 세금을 긁어냈으며 세금을 제기일안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30~40%의 강도적인 세금까지 덧씌워 강탈하였다.

특히 봉건시대에 악명을 떨친 《인두세》의 재판인 《주민세》등을 새로 만들어내고 세률을 올리였으며 세금을 물지못했을 경우에는 90일, 180일에 따라 각각 5%씩 덧붙이는 세금력사상 그 실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랄하고 철면피한 수탈책동까지 벌렸다. 이놈들은 이해에 《주민세》를 통해서만도 256억원을 추가적으로 강탈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세금수탈로써도 부족하여 1973년 7개월동안에만 하여도 70억원의 돈을 마구 찍어냈다.

이로말미암아 통화량이 1972년말에 비하여 22.4%가 늘어났으며 남조선경제는 더욱더 파멸적혼란과 위기에 빠졌다.

사 회 문 화

식민지노예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원은 모리화되고 파쑈화되였으며 청년학생들은 괴뢰군에 끌려나가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의 야수적인 탄압밑에 자기 동포들과 형제자매들을 반대하여 총부리를 겨눌것을 강요당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16페지)

1973년에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말살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온순한 식민지노예로, 값싼 대포밥으로 만들며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흉악한 목적밑에 학원의 《반공화》, 《군사화》에 미쳐 날뛰였다.

〔악랄화된 《반공》교육〕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교육헌장》과 《통일교육시행방안》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반공교육 6개방안》 등을 조작하였으며 1972년에는 교육의 《반공화》를 다그치기 위한 《교육신풍》운동까지 벌려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며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나아가서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전례없는 《반공》교육을 악랄하게 벌리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학생들속에 더욱 교활하게 《승공》사상을 고취하며 저들의 파쑈적인 《유신체제》, 1인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과정안을 뜯어고치고 교수내용과 방법의 《반공화》를 더욱 다그쳤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어리석게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헐뜯고 공산주의자들을 중상모독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청소년학생들의 열렬한 지향과 동경심을 억제하고 그들속에 북과 남사이의 대립감정을 조장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하며 남조선의 반동적인 사회제도와 재놈들의 매국노, 파쑈교형리, 전쟁광신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워보려고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의 중, 고등학교 교과서들인 《국민문고》를 비롯한 사회과목교과서들에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대화없는 대결》로부터 《대화있는 대결》로 묘사하면서 《협의대결》을 공공연히 떠벌였는가 하면 마치 공화국북반부에서 《성의》와 《인내》가 없고 공산주의자들이 《인도주의》와 《동포애》가 없기때문에 대화의 진전을 보지못하고있는듯이 외곡중상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또다시 동족상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책동을 비호하면서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침략》이라는 허위적인 구호밑에 《군비강화》, 《정신무장》을 설교하고있으며 지어는 《자유민주주의하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침략적욕망까지 서술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청년학생들의 의식속에까지 《두개조선》을 고착화하기 위한 반역적인 책동을 악랄하게 벌리였다.

6월 27일 박정희괴뢰도당은 《두개조선》조작음모를 정책화하고 제놈들의 분렬로선을 내외에 공공연히 선포한 이른바 6.23 《특별성명》에 따른 《교육지침》이라는것을 꾸며내여 모든 학교들에서 실시하도록 《긴급시달》하였다. 이에서 놈들은 이른바 《특별성명》을 남조선의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에서 《교육지침》으로 삼고 《반공교육》과 《총력안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국력배양》에 힘쓸것과 저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라고 을러대였다.

또한 7월 26일에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요할 《반공교육지도지침서》라는것을 새로 만들어냈다. 놈들이 조작한 이 《지침서》에 의하면 가소롭게도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두개조선》이 국제기구에 동시에 참가해야 한다는것이 적혀져있다.

이와 같이 박정희괴뢰도당은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조선》조작음모를 합리화한 《특별성명》을 학생들에 대한 정규교육과정안으로 박아넣기까지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 《10월유신》 정신이요, 《새마을정신》이요 하는것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저들의 파쑈적인 1인독재체제를 미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항의식을 마비시키며 저들의 매국배족적인 《정책》에 순종하는 노예사상을 더욱 고취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국민학교들에 《반공도덕》과목을 《정규교과》로 하고 어린이들에게까지 반동적인 《승공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1월 24일 박정희괴뢰도당은 《승공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모든 국민학교들에서 실시할 이른바 《새교육과정》이라는것을 《확정》하고 시달하였다.

박정희반역도당은 이해 《반공》과목 시간을 더욱 늘이였으며 지어 청년학생들의 입학시험 채점에서 《반공》과목의 점수를 《최우선》으로 할것을 결정하였다.

2월 6일 박정희괴뢰도당은 고등학교들의 《입학시험》때 저들의 장기집권을 합리화하고 반인민적행위를 가리우기 위해 조작한《새마을운동》, 《유신헌법》과 《반공도덕》에서 더많은 시험문제를 낼것을 강요하였다. 특히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서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반공도덕》문제의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우선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해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반과목에 대한 교재출판은 극력 줄이면서도 《반공》사상을 설교하는 《반공도덕과목》, 《사회학과목》교재들을 더많이 출판하였다. 결과 남조선의 각급 학교들에는 《반공》서적이 다른 일반과목교재보다 10～20배나 더 많다고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청년학생들속에서 《반공》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책동은 지난해 200개였던 《반공교육시범학교》를 260개로 확정하였을뿐만아니라 이것을 더욱 늘이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한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과외시간에《반공웅변대회》, 《반공쎄미나르》, 《반공전시회》, 《반공영화감상회》, 《반공운동회》 등 잡다한 《반공모임》들을 벌려놓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악의에 찬 중상과 비방을 감행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청소년학생들속에 반동적인 숭미사대주의를 부식함으로써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남조선의 중, 고등학교 사회과목교과서들에서는 《미국은 만민에

게 평등》한 《민주주의상징》이며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리상적인 나라》라고 기만하면서 미제국주의를 극구 찬미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정책을 실시하며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침략을 꿈꾸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평화의 사도》, 《해방의 은인》, 《원조자》로 떠받들면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적 《원조》를 마치 아세아와 남조선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것이라고 설교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미 조선인민앞에 코대를 꺾이고 내리막길에 들어섰으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각을 뜯기우며 허우적거리는 미제국주의를 마치 세계에서 《최대의 강국》이며 현시대의 《힘의 상징》인듯이 기만하면서 청년학생들속에 미제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있다. 또한 놈들은 날로 심해지고있는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과 알륵을 감싸고 미제를 이른바《자유세계》를 《령도》하는 《국가》인듯이 떠벌이면서 미제에 무조건 《순종》할것을 강요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자라나는 청소년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사대사상을 불어넣고 민족의식과 자주성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일본어교육을 더욱 본격적으로 강요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73년 새학기부터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고등학교가 139개나 된다고 한다. 놈들은 저들이 양성한 일본어 담당교사 150명을 해당고등학교에 배치하였으며 4월 17일부터는 해당고등학교용 일본어교과서를 배포하였다 한다.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은 대학입학시험에 일어를 넣도록 하였으며 각급학교에서 일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의 각급학교 교과서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국민성의 단점》이요, 뭐요하면서 우리 인민을 모독하고 우리 나라 력사를 외곡하면서 《민족성의 결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른바《정신개조》, 《국가관확립》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고 요란스럽게 떠들며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민족주체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억누르고 그들을 제놈들의 1인파쑈독재와 민족분렬정책에 무조건 복종하는 노예굴종사상으로 철저히 물젖게 하기 위하여 민족허무주의를 악랄하게 설교하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남조선의 노예교육실태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여 자주성을 상실한 교육, 모방하는 교육》이라고 락인찍고 사회정치생활전반에 걸쳐 《〈노예정신〉에서 〈주인정신〉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였으며 이와 함께 교육분야에서도 《민족 주체성에 배치된 모방교육》을 배격하여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학원의 군사화, 파쑈화**〕 미제의 부추김밑에 《두개조선》조작음모를 《정책》으로까지 공공연히 선포한 박정희괴뢰도당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책동의 한고리로서 이해 학원에 대한 군사화를 더욱더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이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학원의 군사화범위를 넓힐데 대한 악법을 개정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고등학교와 대학들에서 실시하던 군사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악법을 보다 반동적으로 뜯어고쳐 이른바 《학생군사교육실시령개정안》이라는것을 꾸며냈다. 놈들은 이 개정안에서 대학들에서만 실시하던 《예비역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등학교들에도 그것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조선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들에서 군사교육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회과목의 일부로 두었던 군사과목을 떼내여 《독립교과》로 두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대학생들은 물론 고등학교학생들까지 수많이 《예비역무관》으로 길러 침략전쟁을 위한 총알받이로 앞장에 내몰며 병력의 급속한 증강을 기도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란 구실을 날조하여 매일과 같이 광란적인 전쟁준비 소동에 청년학생들을 강제로 마구 끌어들이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리충무공탄신기념식》이요, 뭐요 하면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에 걸쳐 서울에서부터 충청남도 아산까지의 서울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장강행군이라는 군사연습놀음을 벌리였다. 놈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소총과 배낭으로 완전무장시키고 행군도중 《가상적기》의 《침투》니 뭐니 하는 황당한 《정황》을 조작하여 각종 《공습훈련》과 《화생방훈련》 등 군사연습놀음을 벌리였다.

또한 5월 12일에는 제주도내 고등학교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교련실기대회》라는것을 벌려 놓았다. 여기서는 《열병식》과 《총검술》을 비롯한 소란스러운 여러가지 전쟁연습이 벌어졌는데 현장에 나타난 《문교부장관》이라는자는 《학생들은 어떠한 도전이나 시련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반공》과 전쟁의식을 불어넣기에 열을 올렸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 특히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조선전쟁 스물세돐을 맞으며 학생들속에서 전쟁소동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날뛰였다.

6월 23일 남조선강원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완전무장시켜 《6.25를 상기하는 대행군》 놀음을 벌린데 뒤이어 6월 25일 서울시내의 남녀고등학교학생들과 군사 교관 등 1만 2천여명을 강제로 끌어내여 무슨《교련합동사열 및 실기대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교련교육의 실력을 시범공개》한다고 하면서 전쟁연습을 강요한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또한 여름방학때에는 대학생들과 고등학교학생들을 《국군》병영에 강제로 끌고가 《유격훈련》, 《사격훈련》 등 전쟁연습에 내몰았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7월에 서울시내 경기고등학교를 비롯한 36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여름방학을 계기로 군대병영에 강제로 끌고가 《유격훈련》 등을 강요하였으며 8월 24일 덕수 산업고등학교와 청동고등학교 학생 80여명을 군대병영에 끌고가 일주일간 《사격훈련》, 《숙영훈련》 등 여러가지 전쟁훈련을 강요하였다.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에는 《안보의식을 고취》한다느니 뭐니하면서 여름방학동안 600여명의 남조선대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산악, 해상, 공수훈련 등 전쟁《특수훈련》을 강요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지어 남조선대학생들이 범죄적인 군사훈련을 거부한다고 하여 《병역의무를 부과》시켜 강제로 《국군》에 징집하였다.

이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날로 높아간 남조선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커다란 불안을 느끼면서 이를 야수적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학원파쑈화에 미쳐 날뛰였다.

놈들은 남조선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교육법》, 《학생과외활동 규정》등의 파쑈적악법들을 더욱 개악하는 한편 《학원정화운동》이라는 간판밑에 학생들속에 악질특무들을 계속 박아넣었다. 그리고 학원안에 포치한 정보망들을 확대하는 등의 발악적책동을 벌리였다.

또한 학생들속에서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없애치우기 위하여 무장군인들을

계속 늘이밀었으며 학생들의 사소한 조직적인 움직임도 무자비하게 억누르며 학생단체들을 어용화하고 제놈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량심적이며 진보적인 학생들을 《용공분자》니, 《불온학생》이니 하는 등의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워 잡아가두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 10월에 남조선 각 대학의 학장 및 처장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을 가로막고 그들을 저들에게 순종케 하며 학원의 파쑈화와 군사화를 반대하고 진리탐구의 자유를 요구하는 진출을 억누르기 위해 파쑈적인 《학생지도방안》이라는것을 꾸며놓았다. 학원내에서뿐아니라 학원밖에서도 학생들의 동향을 샅샅이 틀어쥐고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탄압조치의 하나로서 7월 12일 여름방학동안 학생들의 《무단려행을 철저히 단속》할것과 《학습검열》 및 《학생생활지도》라는 허울좋은 구실밑에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것을 학교들에 지시하였다.

이해 반《정부》, 반파쑈, 반외세 투쟁에 일떠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각 대학들의 주변은 경찰특무들의 항시적인 감시에 놓여있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의 《휴교령》, 《폐강》, 《조기방학》 등의 파쑈적인 조치로 수많은 학생들이 무데기로 학교에서 쫓겨났다.

〔학원의 모리화〕 박정희괴뢰도당은 침략전쟁준비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청소년학생들에게서까지 막대한 량의 돈을 빼앗아내고있다.

놈들은 《공납금》과 60여종의 《잡부금》의 명목으로 청소년학생들로부터 빼앗아내고있으며 해마다 그 액수를 늘이고있다.

1962년부터 1972년까지 기간에 중,고등학교의 수업료는 해마다 25%, 대학《공납금》은 1966년부터 1972년까지 기간에 년평균 25%씩 올랐다.

총체적으로 남조선학생들의 학비는 1968년에 비하여 1972년에는 3배로 올랐다.

새학년도를 돈벌이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 박정희괴뢰도당은 1973년 입학기에만도 각급 학교들의 등록금과 수업료, 육성회비를 비롯한 《공납금》을 전례없이 올리였다.

서울시내 사립대학들에서 입학기에만도 등록금을 10%나 더 끌어올렸는데 서울시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숙명녀자대학교 같은데서는 신입생들에게 지난해보다 1만여원이나 더 많은 12만 6천원~13만원의 등록금을 비롯하여 책값, 학생회비 등 도합 16~17만원의 엄청난 학비를 학생들에게서 빼앗아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이해 학비를 매학기마다 계속 끌어 올려 남조선출판물도 《학비는 높은줄 모르고 매학기마다 뛰여오르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별의별 구실을 다 붙혀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긁어가기에 피눈이 되여 덤벼쳤다.

놈들은 새학년도를 계기로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공납금》을 중학교에 들어가기 몇달전에 미리 내야 입학시키는 《진학추첨》을 벌려놓고 많은 돈을 빼앗았으며 중학교입학생들에게서 《등록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긁어갔다.

놈들은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일부 면들이 읍으로 《승격》되였다는것까지 구실로 하여 7월 1일부터 수업료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면이 읍으로 《승격》되였다는것을 구실로 수업료를 20~60%나 끌어올렸으며 충청남도에서도 같은 구실로 수업료를 종전의 배로 끌어 올렸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몇차례에 걸쳐 받던 《수업료》를 한꺼번에 받아내고 육성회비를 몇달 앞당겨 빼앗아가는 등 학부형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들씌우는 등 악랄한 수탈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출판물들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 각급 학교들에서 빼앗아내고 있는 《공납금》은 1년간에 국민학교는 기부금까지 포함하여 9만 5천 200원,중학교 5만 5천 650원, 고등학교 6만 9천 370원, 대학은 29만원에 달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학생들에게서 빼앗아내고있는 《잡부금》은 그야말로 형형색색의것으로서 60여종에 달하며 그 액수도 매년 높아가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조선의 국민학교들에서 매주 하루를 이른바 《자유학습의 날》로 정하고 《취미활동》이요 뭐요 하면서 《자유학습의 날 운영비》, 《부교재값》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거두어 들이였으며 《체육진흥회》라는것을 조직해놓고는 학생의 부모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회비》를 거둬들이였다.

놈들은 지어 《연구발표회》를 빙자하여 국민학교 학생들에게서 이른바 《표창금》을 징수하였는가 하면 남조선학생들에게서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1965년부터 이해 6월 30일까지 112억 9천 200만원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1974년부터 1980년까지에 101억 1천 700만원을 더 빼앗아 갈 《목표》를 세우는 등 반인민적이며 흡혈귀적인 온갖 학생수탈책동을 집요하게 벌리였다.

남조선출판물에 의하면 박정희괴뢰도당이 이해 첫 새학기에 남조선학생들에게서 수탈해낼 학비총액이 550억원이였다고 한다. 이것이 남조선 전체 통화량(1973년 1월말현재)의 10분의 1에 이른다고 하니 수탈장으로서의 남조선학교의 현실태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또한 중학교 책값을 30% 지어 국민학교용 책값은 30~93%까지 올려 받아냈다. 책값을 자주 올려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들씌우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학원모리화책동에 대하여 서울시 서대문구의 어느 한 국민학교에서 30여년동안 교편을 잡고 있는 한 교원은 교재판매를 둘러싸고 모리행위가 많이 벌어져 어린이들이 희생물이 되여 왔다고 폭로하면서《교육계의 이러한 부분에 언제인가는 대수술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학부형들속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마저 공부시킬수 없는 이놈의 세상 빨리 뒤집혀라, 돈만 삼키는 교육시책종말을 선고하자》라고 하면서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언론계에서는 《학원의 모리화현상금지》, 《등록금분납제실시》, 《잡부금을 일소하라》고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중산층의 경우에도 박정희괴뢰도당의 학비인상책동에 반발하여 《각종 잡부금 전폐》, 《분납제실시》, 《돈만 아는 교육제도 반대한다》등의 불평불만을 쏟아붓고있다.

남조선출판물도 《학부형들의 부담은 날로 커만가고 학비난으로 학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은 날마다 수없이 늘어나고있으니 남조선의 교육은 장차 어데로 빠져들것인가》라고 개탄하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짓밟힌 민족문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58페지)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합리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켜 그들을 저들에게 순종하는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남조선에 방대한 사상문화침략기구들을 조작하고 교육기관, 출판물, 방송, 영화, 종교, 《인사교류》, 《연구발표회》등의 각종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침략을 강화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 또한 남조선에 대한 친일사상과 왜색문화의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반일기세를 무마하고 저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상문화침략에 광분하고있다.

미일침략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박정희매국도당의 범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양키문화》와 왜색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온갖 사회악과 타락한 생활풍조가 온 남녘땅을 휩쓸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밀물처럼 밀려드는 외래어의 범람속에서 우리 말의 고유한 특성이 점차 없어져가고있으며 인민들의 언어생활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지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한후 《공용어》로 《포고》한 영어는 두말할것도 없고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결정하고 그 교육을 각 대학과 고등학교에까지 강요하고있으며 남조선각지에 《일본어 학원》을 설치해놓고 일본어를 퍼뜨리기에 발광하고있다.

또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신문, 통신, 방송 등 출판보도물과 음악을 비롯한 문예물 등 모든 선전수단들을 통하여 영어와 일본어를 비롯한 외래어들과 속된 《새말》들을 수많이 퍼뜨림으로써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어를 더욱더 변질시키려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괴뢰정부기관들과 공공단체 및 기관들에서는 영어, 일본어, 한자어 등 외국말 어휘를 뒤섞어 쓰는것이 보통현상으로 되고있으며 특히 기업소, 건설장, 부두, 식당, 유흥장, 교통운수, 금융, 증권시장, 상점들에서는 일본말어휘가 더욱 많이 사용되고있다.

남조선거리에 나붙은 상점간판들은 54%이상이 보고도 알수 없는 외래어로 씌여있으며 의약품류는 98%이상이 과자류는 99%가 외국말이름으로 되여있다. 그리고 상품의 설명서에까지 외국어를 쓰고있다.

《다방》과 술집의 이름으로는 흔히 미국지명을 쓰거나 종교적명칭을 쓰고있으며 지어 예술인들의 이름까지 외국이름을 지어부르는 한심한 형편에 있다.

이처럼 거리와 골목, 시장과 가게의 간판들이 영어와 일본어로 씌여져 있기때문에 서울에 오는 외국사람들은 이 거리가 《깽》과 살인으로 이름높은 《미국 시카고의 어느 뒤골목같고》, 《일본의 어느 도시를 려행하고있는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에서 발간되는 한 신문의 매호마다에는 서양말이 평균 830여단어를 넘고있다고 한다.

서울의 어떤 방송에 《영어로 노래합시다》라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방송제목은 40%이상이 외래어를 쓰고있다.

이해 10월 9일 남조선의 한 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대학생들의 말씨가운데 70%이상이 외래어》가 섞여있다 한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외래어를 써야 《유식》하며 《앞으로 일본말을 알아야 출세의 지름길을 달릴수 있다》고 떠벌이면서 일본말 공부에 열을 올리고있다.

지어 사대망국사상에 사로잡힌 박정희매국도당은 외국사람들과 마주 앉으면 마치도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세하고있다.

이해 11월 유엔총회에서 남조선의 《외무부장관》이란놈은 이른바 《연설》이라는것까지도 영어로 씨벌여대는 추태를 부리였으며 김대중사건으로 일본에 간 《국무총리》란자 역시 류창한 일본말을 지껄이며 다나까에게 아첨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망국풍조에 대하여 남조선출판물들까지도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다》고 개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영어투로 흉내를 내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미묘한 억양》으로 《설익은 식민지적인 어릿광대의 말》을 하고있다고 비난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재침야욕에 날뛰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앞잡이인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책동으로 말미암아 거리에서 구두닦이를 하거나 담배를 팔면서 류랑걸식하는 소년들은 물론 처음 말을 배우는 어린이들까지 혀꼬부라진 영어나 일어를 먼저 익히게 되는 한심한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출판물은 《조금 더 자라서 학교에 다니면서 보게 되는 간판들은 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식 발음으로 된 생소한것들이 많고 그와 반대로 바르고 깨끗하고 곱게 씌여진 우리 말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언어생활은 정말 위험한 정도라고 느끼지 않을수 없다》고 쓰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음악예술은 양풍과 왜색이 뒤범벅이 된 《혼혈아 음악》으로, 극도로 퇴폐화된 《음악》으로서 인민들을 부화타락에로 이끌어 그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각성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음악의 《현대화》란 이름밑에 민족음악을 말살하고 음악예술에서 말세기적이며 퇴폐적인 양키음악화를 강요조장하고있다.

놈들은 미제의 재즈음악의 일종인 《챠챠챠》를 민요 《노래가락》과 결합시켜 《노래가락 챠챠챠》로 광란적인 춤과 결합된 《맘보》를 《아리랑맘보》, 《도라지맘보》, 《양산도맘보》로 만들어냈다. 지어 우리 나라 민족 고전춤인 《봉산탈춤》을 재즈음악에 맞춰서 추는 양춤으로 만들어내는 형편에 이르렀다. 민족악기인 가야금이나 장고는 재즈의 반주로, 양키무용의 《반주악기》로 쓰이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한 잡지까지도 《서양악기를 사용하건 민족악기를 사용하건 혼합사용하건 우리의 것은 우리의것답게 표현해야 한다.

…우리 음악의 특징인 선의 특성과 장단의 특징을 살려 우리것답게 나타내면된다.

어째서 우리의것을 찾지않고 서양음악의 화성이나 대위법을 그토록 고집하는지 알수가 없다.》고 쓰고있다.

남조선에는 퇴폐적인 양키음악의 범람우에 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노래》가 홍수같이 쓸어들어와 반동화되여가고있으며 썩고 병든것으로 되여가고 있다.

남조선의 거리에서 일본사회의 부패성을 보여주는 류행가들과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일본군가》들이 공공연히 퍼지고있다. 그리고 왜색풍 《대중가요》가 창작되고있으며 방송과 텔레비존들에서 일본노래를 보급하는데까지 이르렀다.

10월 26일 남조선 한 방송에 의하면 서울시안의 대부분의 《다방》들에서 일본 《가요곡을 연주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불리우는 노래의 90%이상이 왜곡 혹은 그것을 모방한것이라고 하니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가히 짐작할수 있다.

남조선의 한 잡지는 《오늘 우리 음악은 자기것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대중음악은 서양과 일본것이고 우리의것은 없다.

우리의것이 없다는것은 우리의 정신적주체가 없거나 우리의 언어가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대중음악은…송두리채 외국의것이다.

고전음악은 우리 음계를 사용한 작품까지도 사실 그것은 우리 언어가 아니라 꼬부랑말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에서 류행가 재즈를 비롯한 여러가지 퇴폐적인 음악을 강요하여 빚어낸 남조선 음악의 처참한 현실을 놓고 음악은 《래일을 예언할수 없으리만치 퇴폐화되여가고 말세기적증상》을 발광적으로 나타내고있다고 통탄하고있다.

한 잡지는 음악의 식민지상태인 오늘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음악에서 반식민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자》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영화예술은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돕는 수단으로, 돈많고 권세있는 놈들을 위한 치부와 향락의 도구로 굴러 떨어졌다.

남조선에서는 살인과 략탈, 사기와 협잡 등 무시무시한 범죄행위들을 고취할뿐아니라 패륜과 패덕, 생에 대한 비관과 타락을 설교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좀먹고 《반공》과 숭미사대주의사상, 침략과 전쟁을 부추기는 반동적인 영화들을 거리낌없이 내돌리고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까지도 《극장과 영화관들은 모두 깽영화들에 점거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거리들에 늘어선 책방들에서는 양풍과 왜풍에 고유한 색정과 애수, 살인, 강도질을 묘사한 책들이 쌓여있으며 심지어 피묻은 칼을 품고 조선침략의 첫길에 올랐던 일본 《사무라이》 두목들을 형상한 전형적인 군국주의 반동소설까지 번역출판되여 빼젓이 팔고있는 형편이다.

서울에만도 살인, 강도, 폭행, 《반공》을 고취하는 2천 500여종류의 만화들이 공공연히 나돌고있으며 돈을 받고 그것을 보여주는 만화가게가 2천 74군데나 있다. 이 만화가게들은 《대부분 어지럽고 불빛이 어두워 어린이들의 정서뿐만아니라 건강까지 해치고》 있으며 돈받고 보이는 《만화는 거의다 내용이 황당무계한 어린이 랍치, 지긋지긋한 고문, 그리고 어른들과 맞서 싸우거나 사람들을 죽이는것을 묘사하고》있다한다.

충청남도 서천군에는 50여개의 만화가게가 있는데 이곳들에서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화책 한권에 5원씩 받고 내용이 주로 충동적이고 저속한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는 불량만화들》을 감수성이 빠른 어린이들에게 보이고있다한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신문은 《우리의 참다운 고유문화가 그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개탄하면서 짓밟힌 《민족문학예술을 되살리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의 침습으로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는 점차 마비되고 극도로 부화타락하고 추잡한 퇴폐적인 풍조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괴뢰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에 5만 7천여건의 《퇴폐풍조》가 발생되였다고 한다.

말세기적인 퇴폐풍조는 부화방탕한 부르죠아생활양식에 물젖은 부유한 계층의 가정부인들이 《도박》을 하고 지어 《비밀양춤장》에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추잡한 춤과 놀음으로 세월을 보내고있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또한 양풍과 왜풍이 만연된 후과로 10대청소년들속에서 부화타락한 현상이 급격히 증가되고있는데 이들은 도처에 널려져있는 술집과 《양춤장》, 《유흥가》에 몰려다니면서 밤을 새워 음주방탕하고있으며 심지어는 대낮에 벌거벗은채로 뛰여다니는 상상할수 없는 추태까지 벌리고있다.

이것은 《정권》을 가로챈 첫날부터 미국과 일본의 퇴폐적이며 반동적인 출판물들과 각종 연예물들을 마구 끌어들이는 한편 사람들의 외모로부터 말과 행동,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양키화》, 《왜색화》하기에 미쳐날뛴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 행위로하여 빚어진 남조선사회의 말세기적인 풍조를 그대로 알수있는 현상들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출판물은 청소년들속에서 불량행위와 《퇴폐풍조》가 급격히 늘어나는것은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것이 오직 《물질만능과 유흥풍조》뿐인 사회환경자체가 빚어낸 《론리적인 귀결》이라고 개탄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사람들의 몸차림과 옷차림에서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이 점차 없어져가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잡지는 《양풍과 왜풍의 돌개바람에 휘말려 〈육체로출제일주의〉라는 풍조에 빠져있으며 민족의 전통적인 모습을 더럽히고있다》 다른 한 출판물은 《요즘 뜻있는 사람들은 거리를 다니면서 메스꺼움을 금할수 없다고 말한다… 몸의 륜곽을 드러내보이게 만든 해괴한 바지를 거리낌없이 입고다닌다. 또한 얼럭덜럭하게 만든 옷아닌 옷을 몸에 걸치고있다. 고유한 미풍량속을 자랑하는 우리 나라에 이런 말세기적풍조가 휩쓸고있으니 민족의 장래가 념려된다.》라고 개탄하였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사회적환경이 다른 서구에서의 문화가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받아들여야 할 문화라는 말인가? 서양사람들에게 맞는 의상이나 화장법이 왜 우리 녀성들에게 류행되여야 하는가》라고 개탄하면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외래풍조를 씻어내고 주체적인 문화생활을 위한 운동이 시급히 일어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심한 보건실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착취와 억압 밑에서 허덕이고있을뿐아니라 온 사회를 휩쓸고있는 여러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그들은 시시각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병에 걸려도 치료의 혜택은커녕 진찰 한번 변변히 받을수 없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있습니다.》(《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5[illegible] 페지)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이며 반인민적인 보건시책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여러가지 만성적인 질병들과 전염병들이 무섭게 퍼지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도 남조선에는 2천 200여만명의 결핵환자가 있으며 그중에서 당장 긴급치료를 받아야 할 결핵환자수만도 무려 300여만명이며 결핵감염은 전체 인구의 70%이상이나 된다. 이와 함께 830만명 이상에 달하는 폐 및 간지스토마환자, 120만명의 성병환자, 30만명의 문둥병환자, 300만명의 정신병자들이 있다. 그밖에 주민의 95%가 여러가지 기생충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있다.

남조선은 어린이사망률에서도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1973년에 남조선에서는 장티브스, 뇌염, 코레라, 출혈병 등 각종 전염병이 무섭게 퍼져 가난한 주민들이 시시각각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면서도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숨져갔다.

이해 3월초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발생하기 무섭게 순천시내에로 퍼진 장티브스는 전라북도 전주, [illegible]

읍, 고창 일대와 남조선강원도의 원주, 원성, 정선, 경기도의 가평, 전라남도의 해남군 등 남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로 번져 수많은 주민들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

또한 4월 26일부터 28일사이에 남조선 강원도 홍천군안에 백일해가, 전라남도 해남군과 경기도 광주군에 류행성독감이 발생하여 학교문을 닫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였다.

이해 8월초 뇌염환자가 부산에서 발생하여 지난해보다 4배나 더 늘어났으며 이 병으로하여 2천 729명이 사망하였다.

8월말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바쁘게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은 지프테리아는 날로 걷잡을수 없이 퍼져 화산국민학교 같은데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못하는 형편에까지 이르렀었다.

9월말부터는 출혈병이 퍼지기 시작하여 11월중순까지에 남조선강원도 원성, 화천, 횡성과 경기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등 남조선 전지역의 38개지방에로 확아져 출한 주민들이 병에 모대기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각종 전염병과 만성질병들이 더욱더 퍼져가는 이러한 참상은 남조선출판물이 지적한것처럼 《전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으며 인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보건시책》의 필연적결과이다.

미제와 매국역적 박정희도당은 전쟁준비를 위해 해마다 군사비와 파쑈폭압기구의 유지비를 대폭 늘이지만 반대로 《보건비》는 괴뢰정부예산의 0.8~1%도 되나마나하게 배당해놓고 그나마 인민들을 위해서가아니라 착취자들의 더러운 생명을 위해서 돌리고있다.

박정희도당이 이해 정해놓은 《전염병예방비》만 보아도 한사람당 2원도 되지 못하며 《기생충구충비》는 2전씩밖에 안돌아가는 형편이다. 남조선에서 일본뇌염주사를 한번 맞는데도 500원 이상이 드는 형편에서 결국 《보건비》란 인민을 기만하기 위한것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뚜렷이 보여준다.

남조선신문까지도 주민들의 건강에 무관심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죄행을 신랄히 규탄하면서 《각종 전염병, 질병에 대한 예방은 빈구호에만 그치고 있는것이 실정》이라고 비난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일군들이 남조선인구에 비해 형편없이 부족하며 그것마저 도시에 몰려있으며 의사없는 면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의료기관과 의사의 90.2%가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 집중되여있으며 그중 치과의사는 84%, 약제사는 60%, 간호원은 88%가 도시에 몰려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의사가 없는 면과 읍은 860여개에 달하고있다.

이해 4월 27일 남조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서 사는 김아무개라는 녀성이 산후병이 위급해서 병원을 찾아 멀리 원주시내로 가던도중 거리에 쓰러져 숨진 사실은 의사없는 면에 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참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도 《교통수단이 미치지 않는 깊은 산골이나 아니면 외딴섬에서 태여나 한줌의 흙이나 전마선에 목숨을 걸고있는 사람들은 의료는 물론 심지어 병원이나 의사의 이야기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채 숨져가기 마련이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무의촌의 참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고있다》고 통탄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되여있는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치료비가 무한정 올라감으로써 가난한 주민들이 돈이 없어 병원문턱에도 못가보고 억울하게 숨져가고있다.

이해 남조선에서 치료비는 전해에 비하여 150%나 올랐다. 남조선에서 한 환자가 충수염수술로 1주일간만 입원해있으려면 입원자격을 얻기 위한 보증금 1만여원을 내놓고도 보통 로동자의 6개월분 로임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입원치료비를 들여야 한다.

돈벌이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박정희반역무리들은 치료비를 내지 않는다하여 죽어가는 환자들을 쫓아내거나 지어 죽은 환자의 시체까지 《차압》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 출판물은 《치료비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 환자의 병을 일부러 악화시키며 병을 허위로 조작해서 사기치료를 하고 환자를 치료하다가 돈이 없다고 중단해서 생명을 잃게 하는가하면 가족들이 병원측에 시체를 요구하면 치료비를 내지 않는다고 시체인도를 거부하는 사실도 또한 많다》고 쓰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이 전한데 의하면 돈이 없어 서울변두리 령세민들은 거의 《의료혜택》을 못받고 있는바 병원을 리용하는 사람은 겨우 6.8%밖에 안된다고 한다.

4월 30일 당장 긴급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될 한 환자가 5개병원을 찾아 헤매였으나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사실, 8월 1일 부산시 서구 괴정동에 살던 한녀성이 해산을 앞두고 생명이 위태롭게 되여 부산시립병원에 갔으나 돈이 없다고 내쫓아 차디찬 병원복도에서 숨진 사실, 남조선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송정리에 사는 권창수라는 청년이 어머니의 치료비를 도저히 마련할수 없어 자기의 귀중한 눈알을 팔겠다고 호소까지 한 사실 등은 인간생명마저도 돈에 의해 좌우되는 썩을대로 썩은 남조선사회의 부패성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으로서 남조선이 돈없고 가난한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말그대로 지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출판물들이 《돈이 없어 병원문턱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오늘도 래일도 늘어만 간다》고 하면서 돈이 없으면 《인간의 존엄마저 여지없이 짓밟히는 개보다 못한 세상이 남조선사회이다》, 《이 사회가 돈보다 인명이 더 귀중하다는것을 아는 사회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사회적혼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은 참을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갔으며 부패와 사회적무질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졌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37페지)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인민들에 대한 온갖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여 그들을 가난과 죽음의 막다른 지경에 몰아넣고서도 개인의 향락과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사기와 협잡, 모략과 음모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부정축재행위에 괴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민족반역자인 박정희괴뢰도당의 부정부패행위와 매국배족적책동이 우심해짐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여러가지 범죄사건들이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으며 각종 사건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있다.

〔부정부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의 이른바 《정권》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정권〉의 이른바 〈정책〉은 모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안일과 향락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인민들을 략탈하고 착취하는데 돌려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193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은 총칼로 《정권》을 가로채자마자 말끝마다 저들의 《청렴》과 《결백》을 떠벌이고 기회있을때마다 《부정부패》와 《구악》의 《일소》를 떠들어 왔으나 집권한지 12년간 남조선에서 빚어지고있는 부정사건들은 박정희도당이야말로 인민들을 략탈하고 착취하는 날강도의 두목이며 부정축재의 원흉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박정희도당은 집권초기부터 부정축재자들을 숙청하는것처럼 하면서 재벌들을 고급호텔의 뒤고방에 가두어넣고 그들에게 《벌과금》을 마련케한다는 구실밑에 여러가지 《리권》을 나누어 주어 치부케 한 다음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먹는 음흉한 방법, 심복들을 기관기업체의 요직에 들여앉혀놓고 그들을 통해서 돈을 긁어모으는 음모적방법, 매판자본가들을 끼거나 혹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거액의 돈을 받아먹는 방법, 《대지사용증명》이니, 《건축대지증명》이니 하는 갖가지 증명서를 날조하여 《국유지》를 떼주어 《개인소유》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다시 팔아서 나누어먹는 《합법적방법》등 교모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세상에 그 흑막이 드러난것만보아도 박정희도당은 《풍요산업》의 기업주로부터 2억환을 받아먹었고 《금성재벌》에게 여러번에 걸쳐 1억딸라 이상의 리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만금을 가로챘다.

그리고 《장성급》심복들을 20여개의 《국영기업체》와 실업계에 박아넣고 그들을 통하여 엄청난 《정치자금》을 긁어내었다.

한때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격분을 자아냈던 《4대의혹사건》의 경우도 《국고금》으로 《증권파동》을 일으키고 그름을 타서 300억환의 《정치자금》을 뽑아냈고 《워커힐》을 지으면서도 150만딸라를 떼먹었다.

매판자본가들과 짜고 외국에서 밀가루, 사탕가루, 세멘트를 밀수하여다가 10억원의 폭리를 본 《3분 폭리사건》을 비롯하여 《사카린밀수사건》, 《금융특혜사건》 등에서 보는것처럼 박정희악당은 집권초기부터 매판재벌을 끼고 부정행위를 감행하였다.

박정희도당이 《근대화》의 명목으로 외국자본을 들여다 매판재벌에게 나누어주고 《정부자금》으로 지불보증까지 서주는 모든것은 어느 하나도 부정부패가 얽키지 않은것이 없다.

박정희도당의 부정부패행위는 매국적인 《한일협정》후 더욱 심해졌다.

박정희일당은 옛상전인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황금어장을 팔고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그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아먹었다.

황금과 장기집권욕에 가득찬 부정부패의 두목 박정희매국노는 1965년 범죄적《한일협정》에 도장을 찍고 상전으로부터 1억 3천만딸라를 받아 사리사욕을 채웠다.

《신진자동차회사》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 《코로나승용차》를 들여다 폭리를 취하게 한후 그들에게서 숱한 《정치자금》을 받아먹은 《코로나자동차도입사건》도 박정희도당이 저지른 부정부패사건이였다.

이밖에 《장관》, 《국회의원》 등 상층관리들이 관계하여 부정축재한 금액이 250억원에 달했던《국공유지불하사건》, 남조선의 57개역에서 횡령한 금액만도 100억원을 넘었다는 《철도청부정사건》 그리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위조지폐사건》등은 수많은 사건들중의 일부에 불과한것으로서 남조선에서 수없이 빚어진 부정사건들은 어느 하나도 박정희와 련관되지 않은것이 없다.

백수건달로 칼부림을 하던 박정희괴뢰도당이 강권을 발동하여 인민의 재산을 착취략탈하고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국고금》을 가로채서는 《집권》한지 21개월이 되나마나한 기간에 외국은행에 500만딸라나 예금한 사실, 저들의 흉악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돈을 물쓰듯이 내뿌리고있는것, 미국에 있는 《아리랑하우즈》를 비롯하여 여러곳에 기업체까지 차려놓고 방대한 리권을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폭로된 일이다.

일본의 한 출판물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괴뢰상층부에 들어앉아있는 4명의 인물들이 남조선 《중앙은행》화폐발행고의 50%가 넘는 방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의 괴뢰상층부에 들어앉아 있는자들의 부정축재행위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부정축재행위는 이른바《10월유신》이라는 이름밑에 《1인영구집권체제》를 조작해낸 다음에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다.

박정희역적은 이른바 《10월유신》후 《국회의원》 한자리에 200만~300만원에 팔아먹고 《국회》를 제놈의 측근자로 메우기 위하여 《선거구》까지 사고 팔도록 조작하였다.

일본의 한 출판물의 자료에 의하면 1973년에 들어와서만도 박정희도당이 남조선실업계의 요직에 박아넣은 졸개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아먹었다는것이 또 드러났다.

박정희도당은 1972년 9월 《한일정기각료회의》이후 제주도《관광지개발》에 일본 《국제흥업》재벌과 남조선《신한상사》재벌들을 결탁시켜놓고 그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아 사복을 채웠다.

놈들이 인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부정축재자들가운데서 《부정공무원》이란 딱지를 붙인자들만도 이해 630여명에 이른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집권후 12년동안 어느 하루도 부정축재놀음에 눈알이 뒤집혀 돌아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 출판물은 박정희괴뢰도당의 부정부패행위를 놓고 《이 부정과 부패는 너무도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있기때문에 범죄자나 그 관계자 몇사람의 교체나 처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폭로하고있다.

일본의 한 출판물까지도 남조선에서 《통행금지시간》인 밤 12시 이후부터는 강도무리들이 돌아치면서 부정행위를 하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정부》이라고 폭로규탄하고 있다.

피뢰상층부의 특권층들이 저마다 수백만딸라씩 외국은행에 저금해두고 으리으리한 호화주택에서 매일과 같이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물쓰듯하는 돈은 모두다 부정부패와 사기협잡으로 강탈해낸 부정축재금인것이다.

재미교포들의 신문인 《국민의 소리》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부정부패행위에 격분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국민학교 학생 60%가 단돈 몇푼이 없어서 점심을 굶는판에 〈정부고관〉들은 100만딸라 내지 억만딸라의 치부를 하고 하루 기생만찬회의 소비액이 100딸라이상이라니 국민들의 반항심이 왜 일어나지 않겠는가》

〔**각종 범죄**〕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부식시키는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의 후과로 남조선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협박, 공갈 등 흉악한 범죄사건들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출판물자료에 의하면 이해에 여러가지 범죄사건중에 강도사건만해도 서울시에서 1만 3천 800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매일 38건의 강도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된다.

남조선에서는 특히 해마다 청소년범죄가 더욱 늘어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적발된 청소년범죄건수가 1971년에는 9만 4천 278건, 1972년에는 36%이상이나 더 늘어난 12만 8천 480건으로 그 수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의 한 방송은 청소년범죄가 《질적으로 포악화, 집단화되는데다가 평균 년령이 점차 내려가고있어 사회적 문제로 되고있다》고 전하였다.

이해 5월 서울대학교 한 교수는 지난 10년간 청소년범죄를 분석하면서 그 특징을 《나이가 어려지는것, 단독이 아닌 집단형식으로서 조직화되는것 점점 폭력적이며 악질적인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괴뢰도당은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청소년기에 흔히 있을수 있는 충동적이며 자극적이며 도발적인 생리현상》과 《어른들의 무관심속에 자란 결과》때문이라고 터무니없이 꾸며대고있다.

청소년범죄의 근원은 《사대매국사상이 골수에까지 젖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 굴종하면서 인민들에게 숭미사상과 친일사상을 고취하며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 그리고 왜색, 왜풍을 마구 끌어들이고 그것을 더욱 조장한데있으며 청소년들의 배움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에게 굶주림과 천대만을 안겨주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반동적인 남조선사회제도에 있다.

남조선에서는 메스꺼운 라체춤과 쟈즈, 트위스트따위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맑은 동심들을 이지러지게 하고있으며 살인, 강간, 색정, 렵기심을 설교하는 미국놈들과 일본놈들의 깽영화, 소설, 만화들이 범람하여 그들을 범죄의 길로 이끌고 있다.

이해 서울시내에서 《폭력에 의한 등욕》을 보여주는 영화를 상영하였는데 관람석에는 어린 학생들과 소년들이 차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남조선의 한 방송이 《요즘 년소자의 부패가 늘어나는것이 이 〈나라〉의 실정인데 그렇게 되는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폭력과 련정을 뒤섞어 만든》, 박정희괴뢰도당이 퍼뜨리는 《영화때문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단언할수 있겠는가》고 통탄하였다.

서울의 한 국민학교 6학년에 다니던 정병섭이라는 학생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황당한 내용의 만화책을 보고 그것을 실험해본다고 하면서 흉내내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또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에 사는 17살난 김아무개라는 청년은 무시무시한 깽영화에 나오는 그대로 칼을 휘두르며 살인과 강도행위를 일삼고있다.

2월 19일 전라남도 광주시 월산 2동에 사는 김아무개청년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면도칼로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고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혔으며 21일에는 전라북도 김천군 화양면 안포리에 사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형의 재산을 탐내여 몰래 팔아먹은것이 탄로되여 조카에게 식칼로 가슴과 배를 찔러워 그자리에서 숨졌다.

남조선출판물들이 10대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60%이상이 영화나 텔레비죤의 깡패장면을 본딴것이며 그밖에 유해한 오락시설과 퇴폐적인 출판물 사창가, 도박행위, 마약 등이 《유해환경으로 작용하고있다.》고 하면서 《보는것이 부정이요, 듣는것이 불법인 사회에서는 어린 사람들이 바르고 곧게 자랄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이 우연치않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더욱 증대되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협박, 공갈 등 여러가지 범죄사건들은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의 승냥이법칙으로 일관된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에 물젖은 썩은 남조선사회가 빚어낸 사회악이 얼마나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근래에는 어린이들의 범죄가 증가되고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가정과 사회가 병들었다는것의 증거라고 할수 밖에 없다.》

〔**꼬리를 물고 일어난 각종 사고**〕 인민들의 생활과 사회적안정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의 향락과 파쑈폭압, 전쟁준비에만 미쳐날뛰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죄행으로 말미암아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여러가지 사고와 재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주고있다.

이해 남조선에서 판을 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이 군용자동차들을 마구 몰아 길가는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처참하게 깔아눕히는 등 살인적만행이 날로 심해진데다가 박정희괴뢰도당이 도로정비와 교통안전시설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또 낡은 차를 보수하지 않은채 돈만을 걷어들이려는데서 교통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주민들에게 더욱더 막심한 불행과 고통이 들씌워졌다.

2월 6일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에서 손님을 가득 태운 뻐스가 고개길의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 70여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였으며 같은날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서도 달리던 뻐스가 서로 부딪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4월 14일에는 100여명을 태우고가던 뻐스가 서울시내 서대문구 평창동의 내리막길에서 뒤집혀 숱한 사람들이 사상되었으며 5월 16일에는 경상북도 영일군 영일면에서 렬차와 뻐스가 부딪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8월 12일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에서 기름을 실은 렬차가 뒤집혀 역구내는 물론 부근의 살림집들에까지 삽시에 불이 번져 40여명의 주민이 현장에서 불에 타죽거나 심한 상처를 입었으며 그후 남조선방송이 전한바 그대로 사망자가 더욱 늘어나 일대 참상을 이루었다.

8월 14일에는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에서 렬차충돌사고가 일어나 객차 4량이 뒤집혀지고 숱한 사상자를 냈다.

이것은 《교통지옥》으로 불리우는 남조선의 거리들에서 끊임없이 빚어진 교통사고들중의 몇가지 실례에 불과하다.

이해 남조선에서 9월말까지에 일어난 교통사고들로서 알려진것만 하더라도 3만 2천 630여건이나 된다.

서울시안에서만 이해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가 1만 8천 7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침략전쟁준비를 위해 닦아놓은 《고속도로》들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만도 5월말까지에 511건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9월말현재 자전거사고가 670여건이나 일어났다.

괴뢰치안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에 자동차대수당 사고률에 있어서나 도로길이를 단위로 한 사고률에 있어서나 남조선이 가장 높은 비률을 차지하고있다.

그러므로 서울의 한 방송은 남조선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다.

이해 남조선 곳곳에서 또한 큰불이 걷잡을수 없이 계속 일어나 가난한 주민들을 더욱 심한 고통과 재난에 시달리게 하였다.

2월 15일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에서 큰불이 일어나 120여명의 리재민이, 16일에는 경기도 인천시 만석동에서 큰불로 300여명의 리재민들이 났다.

또한 3월 4일에는 경상남도 마산시 부림동 시장에 있는 개인상점들이 한꺼번에 불타버렸으며 이불로 250여명의 리재민이 났다.

3월 25일에는 서울에서만도 12건의 불이 일어났다.

10월 22일에는 경상북도 대구시 동인동에서 불이 일어나 133명이 겨울철을 앞두고 집을 잃고 한데에 나앉는 등 재난을 당하였다.

1972년에 3천 890여건의 화재사고가 일어나 1천 110여명의 주민들이 죽거나 중화상을 입었으며 1973년에는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시에서만도 지난해보다 430여건이나 더많은 1천 840여건의 큰불이 일어나 수많은 살림집들이 불탔다.

남조선에서 8월말까지에 일어난 산불만도 692건이나 된다.

이해 새 전쟁 도발준비에 미쳐날뛰는 미제침략군야수놈들이 남조선도처에서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림으로써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폭발물에 의한 재난을 끊임없이 들씌웠다.

1월 31일 남조선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에서 미제침략군의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이 읍의 부근에 사는 태규철 등 5명의 어린이가 무참히 목숨을 빼앗기고 5명이 심한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진것, 5월 27일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 신흑리에 사는 유경원소년을 비롯한 8명의 어린이들이 미제침략군의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무참히 숨진 사실, 6월 30일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 운수리에서 사는 박연화 소녀를 비롯한 6명의 어린이들이 포탄이 터져 귀중한 목숨을 빼앗긴것은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한편 이해 바다에서의 사고도 더욱 늘어났는바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857건에 사망자만 327명에 달하고있다.

이해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15일동안에만도 바다에서 기관고장 등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매일 평균 1건이상씩 일어나 80여명의 주민이 귀중한 목숨을 빼앗기였다.

이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전쟁준비책동과 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만 바삐 돌아칠뿐 산림을 조성하고 관개공사를 하는것과 같은데는 아예 외면함으로써 극심한 가물피해와 물란리로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헤아릴수 없는 고통속에서 헤매였다.

5월 1일에 내린 비로 전라남도 광주시내에서만도 큰 물이 져 830여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겼으며 한꺼번에 2천 210여명의 주민들이 살림도구하나 제대로 건지지못하고 한데에 나앉았다. 전라북도 순창, 정읍, 장수군들에서는 8월 2일 밤에 내린 비로 500여세대가 물에 잠겨 2천여명의 리재민이 생겨났다.

또한 8월 17일 남해안일대를 휩쓸은 비바람으로 제주도와 전라남도들에서 그리고 8월 28일과 29일 새벽사이에 휩쓴 비바람으로 충청남도, 경기도, 전라북도 등 여러 지방들에서 집들이 많이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났다.

이밖에 가스사고, 익사사고, 전기사고가 더욱 늘어나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남조선에서는 련탄가스중독사고로 매해 5만여명이 피해를 보고있다.

참담한 인민생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약할수 없는 끝없는 불안속에서 살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41페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은 털끝만한 자유와 권리도 가지고있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류례없는 파쑈적폭압과 략탈이 가해지고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만이 강요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해마다 세금을 계속 늘이고 물가도 그냥 끌어올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을 짜냈고 그것으로 침략적인 군사비를 충당하고 개인의 향락과 부귀영화를 누려왔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도시와 농촌에서 긁어간 세금 총액은 1965년에 695억 9천만원이였다면 1968년에 2천 182억원, 1972년에는 5천 436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괴뢰정권을 가로챈 이후 1973년까지 12년동안에 세금수탈은 21배로 엄청나게 늘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 도매물가가 15.1%나 뛰여올랐으며 대중소비품의 값은 평균 30~70%나 올랐다.

봉건적인 횡포성과 자본주의적인 교활성에 식민지적인 잔인성을 결합한 류례없이 가혹하고 악랄한 세금수탈책동과 2중 3중으로 덮씌워지는 착취와 략탈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은 살래야 살아갈수도 없는 최악의 생활고에서 헤매였다.

모진 가난때문에 피를 팔고 눈을 파는 인간 비극이 수없이 빚어졌고 심지어 살길이 막혀 귀여운 자식들에게 극약을 먹이여 죽이는 등 가족집단자살과 같은 생활고의 참극이 련일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굶주림과 고역속에서 시달리는 로동자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일제때보다도 오히려 더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는 고사하고 생명을 보전하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89페지)

이해 박정희괴뢰도당이 《10월유신》의 간판밑에 발광적으로 벌린 류례없는 파쑈적폭압소동과 각종 수탈책동등은 남조선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더한층 악화시켰다.

남조선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는 긴 로동시간과 살인적인 로동강도 가장 위험한 로동조건, 식민지적기아임금, 실업의 증대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로동시간의 증대; 박정희괴뢰도당과 악질기업주놈들은 로동자들에게 인간의 육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하루 12~18시간, 지어 21시간의 긴 로동시간을 강요하고있다.

이해 괴뢰로동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괴뢰들이 형식적으로나마 규정해놓은 이른바 《근로시간》조차 남조선 전체 기업체의 96%가 위반하는 등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이 남조선 기업체마다에서 강요되였다.

녀성로동자와 소년로동자의 경우 11~16시간까지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는데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녀성로동자들은 긴 로동시간때문에 다리는 항상 부어있다고 한다.

특히 외국독점자본의 착취를 받고있는 로동자들의 경우 더 험악하다. 실례로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의 착취와 폭행 밑에서 가슴에 피멍이 들고있는 대다수 10대의 나어린 소년들인 《마산수출자유지역》로동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와 한눈팔시간도 없이 밤늦도록 고역을 치르어야 하며 약간의 실수라도 하면 일자리를 떼우거나 집단구타를 당하기가 일수이다. 놈들은 아직 애티도 가시지 않은 어린 소녀들인 녀성로동자들에게 잠안오는 약까지 먹여가며 고역을 강요하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은 남조선녀성로동자들이 《화장실도 제때에 못가는 고역을 치》른다고 쓰고있다.

악질기업주놈들의 악착같은 착취와 압박 밑에서 로동자들은 작업현장에서 그대로 졸도하여 숨지거나 피를 토하며 쓰러져가고있다.

3월 23일밤 11시경 전라남도 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꼭두새벽부터 밤늦도록 힘겨운 일을 강요당하던 정아무개라는 어린 로동자가 고역에 지쳐 그자리에서 숨진것은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때문에 남조선의 로동자들이 작업장과 공사장들을 《노예고역장》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본 외국사람들도 《로동고문장》이라고 말하고있는데 이것은 로동자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참기 어려운 지긋지긋한 착취와 고역의 마당인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로동조건의 악화;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등을 대고 투자를 적게 들이고 더 많은 리윤추구에만 미쳐날뛰는 악질기업주놈들의 착취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로동자들은 로동보호시설이란 전혀 되여있지 않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몬지와 가스 폭발위험성이 있는 악조건에서 힘든 일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 여러가지 직업병에 걸려 신음하고있다.

작업장마다에서는 안전보호대책이 서지 않아 유기물질로 인한 중독, 유해가스와 몬지로 인한 기관지염, 호흡기질환, 돌가루와 금속성가루를 그대로 마시여 생기는 규폐증 등 직업병에 걸려 신음하는 로동자들이 많다.

남조선화학부문로동자들은 그의 90%이상이 유해물질에 중독되여 간장염 뇌중추신경마비, 전신피부염, 빈혈증 등에 걸려있다 한다. 그리고 광산부문의 84%에 이르는 로동자들이 규폐증에 걸려있으며 서울 영등포지역 제조업체에서만도 81.9%의 로동자들이 유기물질에 의한 중독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다.

괴뢰《로동청수원사무소》가 경기도의 태평방직공장 등 11개의 공장을 대상으로 하여 이른바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초보적인 로동보호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장들에서 일하고 있는 3천여명의 로동자들 모두가 눈이 멀어가고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수많은 로동자들이 눈에 해로운 조명으로 인한 눈병, 소음으로 인한 난청, 진폐, 연중독 등 직업병에 걸려 고통을 겪고있다.

남조선의 신문들까지도 《두말할것도 없이 기업주들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도외시하고있는데 주되는 원인이 있다.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이 인체에 적합치 않는데 이를 그대로 놓아두고있는데 있다》고 하면서 그렇기때문에 로동자들이 앓고있는 질병들은 박정희괴뢰도당과 기업주들에 의해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썼다.

남조선의 《제일모직》을 비롯한 몇개의 공장들을 돌아본 한 외국인은 공장건물 자체가 낡아빠지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데다가 작업장에 조명시설이 제대로 되여있지 않고 기업주놈들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실업자들가운데서 값싼 로동력을 얼마든지 구할수 있는것을 기화로 초보적인 설비와 작업조건조차 갖추어놓지 않고 《인간만을 혹사》하고있는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면서 기업주들속에서 《인간혹사를 심하게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사고방식이 공통적인 현상으로 되고있음을 지적하였다.

늘어난 로동재해; 로동안전대책도 없는 《죽음의 일터》에서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은 무시로 들이닥치는 로동재해로 말미암아 불구자가 되거나 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있다.

4월 29일 제주도 제주시 동광연탄공장에서 한 로동자가 기계에 말려들어 생목숨을 잃었으며 4월 30일 새벽 4시경 남조선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에 있는 명흥상사삼척사업소에서 홍아무개 등 4명의 로동자들이 갑자기 탕크가 폭발하는 통에 중화상을 당한것은 한두가지 실례에 불과하다.

10월 20일 남조선의 한 통신이 괴뢰로동청에서 집계한 극히 축소된 자료를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로동재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로동자들의 수가 1964～1972년의 8년동안에 30배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그 가운데 사망자수만도 2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로동재해는 원시적인 채굴방법에 안전대책이 전혀 없는 남조선의 광산과 탄광의 로동자들속에서 더욱 많이 그리고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남조선의 광업진흥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0월 11일현재 남조선의 광산들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30%나 더 많은 로동자들이 로동재해로 억울하게 생목숨을 빼앗기였다.

남조선출판물들이 《안전보다 생산》이라는 박정희괴뢰도당과 악질 기업주들의 《원시적인 사고방식》이 고역에 시달리는 로동자들에게서 로동재해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겨주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식민지적기아임금;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략탈적이며 반인민적인 임금정책 특히 《10월유신》의 간판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더욱 강화하고 있는 전쟁준비책동으로 하여 말할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에 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최저생계비의 4분의 1에 불과한 《세계적인 기아임금》으로 되고있어 그들은 굶주림만을 강요당하고있다.

괴뢰로동청이 이해 7월말현재 미일독점기업체들에서 혹사당하고있는 9만 1천 700여명의 로동자들의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식료업체, 의류업체, 피혁업체, 완구업체 등 여러부문의 로동자들이 최저생계비의 10분의 1의 기아임금을 받는 형편이였다.

특히 남조선의 녀성로동자들과 소년로동자들은 남성로동자들과 성인로동자들과 꼭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그들의 절반, 지어는 4분의 1밖에 받지 못하고있다.

도꾜에 있는 프랑스의 한 교수는 남조선의 현실을 직접 보고 쓴 《20세기 죄악이 판을 치는 사회》라는 글에서 남조선방직부문 로동자들의 한시간당 임금이 일본로동자의 4분의 1, 미국로동자의 18분의 1에 달한다고 썼다.

박정희괴뢰도당과 악질기업주놈들은 로동자들의 이러한 기아임금마저도 제때에 주지 않고 몇달씩 밀리거나 떼여먹는것을 보통일로 삼고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해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발표한 극히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월 현재 남조선의 60여개의 기업체에서 로동자들에게 주지않은 임금이 3억여원, 9월 4일현재 남조선 강원도에서만 하여도 43개의 기업체에서 2억 7천 551만 4천원, 8월 24일현재 서울의 30개 기업체에서만 하여도 1억여원에 달하였으며 대구시에서는 8월 27일현재 11개 기업체에서 3천 430만원의 임금을 밀리고있었다.

악질기업주놈들은 로동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피땀을 절대로 짜내여 배를 불리면서도 몇푼 안되는 로동자들의 임금마저 영영 잘라먹는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삼부토건회사》기업주놈은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이해 4월부터 군용도로건설장에 400여명의 로동자들을 내몰아 그들에게 고된 로동을 강요하고는 두달분의 임금을 한푼도 주지 않았으며 남조선 강원도 삼척군에 있는 《대림광업소》기업주놈은 로동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탄광을 다른 기업주놈에게 팔아넘기고 자취를 감추고 달아나는 바람에 여기에서 일하던 로동자들이 2천 6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여 700여명의 가족과 함께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

이해 침략과 전쟁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며 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전반적인 물건값을 끊임없이 끌어올린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으로 하여 실질임금은 더욱 떨어졌다.

그러므로 남조선로동자들은 《봉급만이 안오르고 다 올라가는 세상》이라고 남조선사회를 저주규탄하였으며 남조선출판물은 《날이 갈수록 물가는 하늘보다 더 높이 치솟아오르고 일하면 일할수록 땅속보다 더 밑으로 실질임금은 내려간다》고 썼다.

실업의 증대; 이해 박정희괴뢰도당이 침략적인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면서 외래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민족공업의 발전을 극력 억제한 결과 중소기업체들이 끊임없이 파산몰락되고 로동자들이 무리로 실업당하였다. 게다가 박정희악당의 반동적, 반인민적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리농인구가 급속히 불어나 이해 남조선의 거리거리에는 실업자, 반실업자 대군이 휩쓸었다. 남조선은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있어 《실업의 왕국》으로까지 불리우고있다.

일본잡지 《세까이》1973년 9호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32%에 해당하는 세대가 실업세대라고 한다.

남조선의 실업자수는 무려 700여만명을 헤아리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실업자들과 인민들의 증대되는 불만과 거센 반항을 무마하기 위하여 입버릇처럼 《실업구제》요, 《복지사회건설》이요 뭐요하고 떠들어대고있으나 그것은 완전한 기만책동에 불과하다.

남조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일감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문전걸식을 하고있으며 피를 팔기까지 하고있다.

부산시내에 있는 실업자 최아무개청년은 두달동안에 무려 여덟번이나 피를 팔아 끼니를 이었지만 그후에도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또 피를 팔지 않으면 안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였다.

실업자들속에서는 집도 제대로 없어 겨울이 되면 다리밑에서, 거리에서 주린 창자를 움켜쥔채 추위에 떨다가 얼어죽는 참상까지 빚어지고있다.

남조선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륙교에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녀인 또 아사직전의 사람들이 몸에는 누데기, 옆에는 깡통을 놓고 반은 누워서 행인들에게 동전한푼을 구걸하는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삭풍이 살을 저미거나 그리고 불철주야 그러고

있는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참혹하게 굶어죽고 얼어죽고 마는것이다.》

더우기 남조선에서는 일자리가 없고 앞으로 살아나갈길이 암담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상이 련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남조선 사회가 얼마나 사람못살 인간 생지옥인가를 잘 말해준다.

남조선의 한 잡지는 《일자리없이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며 인간다운 생활은 고사하고 존재자체의 위협을 받고있는 근로자들은 얼마나 많은가…근대화의 그늘에서 사람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이어나갈수 없으며 삶의 위협을 받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빈궁속에서 하루하루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 상태—이것이 근로자들의 처지이며 근대화의 결과이다》라고 쓰고있다.

〔생지옥속에서 헤매는 농민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들의 처지는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그들은 더욱 혹심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있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142페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농촌에서는 해마다 말할수 없는 대흉년이 계속되고있는데다가 악착하기 이를데없는 박정희괴뢰도당과 지주놈들의 2중 3중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령락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3년 가을곡식생산량은 대흉년이라고 하던 지난해에 비해 10만톤이상이나 줄어들었으며 놈들의 가을곡식 《생산계획》보다도 324만섬이나 줄었다고 한다.

그런데다가 남조선농민들은 수확고의 50~60%를 소작료로 지주놈에게 빼앗기고있는데 그 량곡만 하여도 매해 400만석이상에 달한다.

남조선농촌에서는 《장리곡》, 《색갈이》, 《벼돈》, 《보리돈》, 《변리》 등 각종 고리대가 성행하는데 남조선농민들은 이 고리대에 의하여 년리 70~120%의 높은 리자률을 곡식으로 지주놈들에게 빼앗기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매상》이라는 간판밑에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으로 농민들로부터 이해 여름곡식 300만섬을 빼앗아냈으며 가을곡식 500만섬을 강제로 빼앗아내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지난해 농산물의 수탈장인 《농업협동조합직매장》을 대대적으로 늘이였으며 도시주변의 여러곳에 《집하장》을 만들어놓고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수탈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특히 이해에는 《새농민예금제》라는것을 꾸며가지고 《수매》대금의 절반을 강제 저금시켜 수탈하였으며 수탈기구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안에 새로《저축추진부》라는것을 조작하고 각도마다에는 《저축전담반》 그리고 군들에는 650여개의 《취급소》를 각각 설치하는 등 남조선농촌에 수탈기구들을 거미줄처럼 늘이였으며 수탈에 필요한 《관리》만도 3천 300여명이나 더 늘이였다.

이해 가증스러운 《새마을운동》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떠벌이고있는 《농가소득》의 증대와 《생활환경의 개선》은 커녕 농민들의 등골을 더욱 허벼만갔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72년에만 하여도 《새마을계획비용》의 73%에 해당하는 84억원을 농민들에게 내리먹였고 이해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농민들에게 부담시켰다.

이름조차 헤아릴수 없는 100여종의 세금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비호를 받고있는 지주, 고리대금업자들의 악착한 착취와 강도적략탈 등 2중 3중으로 덮씌워지는 수탈로 말미암아 남조선농민들은 이른봄부터 땅과 씨름하고있지만 《기근만을》 수확하였으며 추수마당에서부터 절량에 허덕이였다.

농민의 가난과 빈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절량농가는 통례로 춘궁기라고 하는 3월부터 6월사이에 많이 나오나 이해에는 벌써 이른 가을부터 중농들까지 절량에 허덕이였다.

남조선농촌에서 절량은 《춘궁기》한계를 벗어나 년중 항시적이며 지속적인 현상으로 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적지 않은 지역들에서 2월에 벌써 농촌세대의 60%이상이 절량상태에 처하여있었으며 남조선 강원도에서는 3월초에 수십만의 농촌세대가 절량농가로 되였고 그 가운데서 당장 살아갈수 없는 《긴급구호》대상농가만도 근 10만세대에 이르렀다.

절량과 기근속에서 남조선농민들은 시래기와 나무껍질, 밀껍 죽물로 연명해갔으며 낟알을 구하려고 추운 겨울에도 벌판을 헤매면서 이삭주이를 하거나 날품팔이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수해로 집과 논밭을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을만큼 완전히 잃어버린 충청북도 단양군내 300여명의 농민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리재농민들이 먹을것도 없이 주린 창자를 붙안고 겨울을 한데서 지내며 굶어죽고 얼어죽는 등 이루 말할수 없는 참혹한 상태에 빠져있었다.

이해 남조선농민들은 더욱 반동적으로 뜯어고쳐 3월 19일부터 적용한 《산림법》바람에 그나마 식량보탬을 하던 산나물마저도 뜯어먹을길이 막히여 굶주림속에서 허덕이였다. 남조선농민들은 할수 없이 고리채를 얻지 않을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짊어지고있는 빚은 날을 따라 더욱 늘어만 갔다.

남조선 농민들은 호당 평균 4만~5만원의 빚을 짊어지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쌀고장이라고 이름난 호남지방의 경우 83%가 호당 평균 1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있는 형편이다.

극심한 절량과 도저히 갚을길 없는 빚 때문에 막다른 처지에 이른 농민들은 할수 없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떠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내놓은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1965년부터 1972년까지의 사이에 농촌을 떠나간 농민들의 수는 무려 113만명이 넘는다.

1971년부터 1973년에 이르는 3년간에 만도 남조선에서 농가호수가 3만여호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특히 남조선농민들속에서는 한해농사를 지어 놓고 안정된 생활을 하여야 할 가을철에도 절량과 리농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남조선의 한 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이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리농민의 수는 월평균 2천 400명이였으나 가을철인 10월부터 시작하여 1974년 3월에 이르는 6개월 기간에는 그 수가 월평균 무려 5천 900여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출판물은 《가난과 부채의 악순환속에서 무작정 도시로 밀려드는 리농의 대렬이 끝없다》고 지적하고있다.

농촌에서 도시에 몰려든 절대다수 리농민들은 곧 실업자로 전락되여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거리를 헤매다가 굶어죽고, 병들어죽고 얼어죽는 등 비참한 운명에 처하였다.

남조선농민들은 미제와 박정희매국반역도당의 식민지적수탈정책에 의하여 해마다 《피눈물을 뿌려 한숨만을 거두는 헛농사》를 짓고있으며 극심한 절량으로 굶주림속에서 헤매다가 할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생지옥속에서 살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이 떠드는 이른바 《중농정책》을 《죽는정책》으로 비난하면서 《농업을 천하지대본이 아니라 천하지악본》으로 만들었다고 놈들을 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다.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는 어민들〕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악당의 전쟁준비책동과 파쑈적탄압, 가혹한 수탈로

말미암아 어민들의 어로활동은 극도로 억제당하고있으며 그들의 생활은 헤여날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동해안의 속초, 주문진, 포항, 삼척, 울산을 비롯하여 서남해안의 수백개의 중요어항들을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놓고 전쟁연습소동을 빈번히 벌리면서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하는것을 가로막았다.

또한 어민들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의 영향력이 남조선어민들에게 미치는것을 두려워하고있는 박정희파쑈악당은 군사분계선부근의 동서해에 쳐놓은 《어로저지선》 근방에 어민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면서 쩍하면 《해양경찰대》깡패들을 내몰아 《불법어로》, 《수산업법》 위반이니 하면서 가혹한 형벌을 들씌웠다.

박정희괴뢰도당은 3월 한달동안에만 도 《어로저지선》을 넘었다는 리유로 205명을 《반공법》과 《수산업법》에 걸어 체포구금하였다.

7월 5일 경기도 인천 《해양경찰대》는 서해에서 고기잡이하던 17명의 남조선어민들을 잡아 가두었으며 9월 15일 남조선 강원도 속초 《해양 경찰대》는 고기잡이하던 80여명의 어민들을 《어로저지선》을 넘었다는 판에 박은 《죄》명을 씌워 잡아가두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어민들은 매일 물밀듯이 무리를 지어 쓸어들어 남조선의 연안어족들까지 모조리 긁어가고있는 일본해적무리들의 략탈행위로 말미암아 고기잡이도 제대로 못하며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입고있다. 일본해적무리들은 연해 깊숙이 들어와 날치면서 고기배가 낡고 어로설비가 보잘것없는 남조선어민들의 배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거나 쳐놓은 그물을 찢어놓으며 지어 남조선고기배들을 세워놓고 잡은 고기를 강제로 빼앗는 등의 온갖 만행을 매일같이 감행하고있다.

3월 1일에 일본해적선 2척은 제주도해상에서 남조선배들이 쳐놓은 그물 1천 500메터를 고의적으로 찢고 달아나는 만행을 감행한 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일본해적선의 피해를 받고있는 어민수는 전라남도에서 48만명, 경상북도에서 11만명, 경상남도에서 24만명, 제주도에서 9만명으로서 남해안일대에서만 90여만명에 달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몇푼의 군사침략자금을 받고 남조선의 황금어장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기고 수많은 어항들을 군항으로 전변시키는 등 침략적인 전쟁준비에만 미쳐 날뛰면서 어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략탈만을 일삼아온 결과 어민들은 고기배 부족, 어구와 시설의 불비, 어업자금난으로 하여 마음대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어민들은 먼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고싶어도 큰배가 없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어로 장비가 그에 따르지 못하여 한숨만 짓고있다고 남조선의 한 방송은 전하였다.

어민들은 자금과 어구가 없어 고기잡이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생활난에 시달리고있다.

경기도 인천지방의 수많은 어민들은 2월중순경이면 조기잡이를 시작해왔으나 이해에는 그물을 비롯한 어구를 장만할 자금이 없어 바다에 나갈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심한 생활난에 신음하였다.

7월 2일부터 포항을 포함한 영일군 연안에는 오징어떼들이 몰려들었으나 어민들은 고기잡이에 나설 자금이 없어 《어장을 눈앞에 두고도 고기를 잡지 못해 안타까워》하였다.

남조선어민들이 물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막대한 고통을 당하고있는데다가 박정희괴뢰도당은 엄청난 세금까지 들씌워 그들의 처지를 악화시키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어민들에게 《어업세》를 비롯하여 《어업소득세》 《조합세》, 《선박세》 등 수십가지의 가렴잡세를 들씌우고있으며 수다한 악법들을 만들어놓고 각종 이름의 《벌금》을 부과시키고있다.

남조선어민들은 또한 박정희괴뢰도당과 어업자본가놈들의 가혹한 가격공간을 통해서도 피땀을 빨리우고있다.

놈들은 어구와 쌀을 시장가격에 비하여 2배이상이나 올려받으면서도 어민들이 잡아온 물고기는 시장가격의 3분의 2도 안되는 헐값을 주고 빼앗아내고있다. 실례로 놈들은 칼치 한 상자에 시장가격의 2분의 1도 안되게, 고등어는 한마리에 10분의 1의 값을 주고 빼앗아내고있다.

이와 함께 어민들은 선주놈들에 의해서도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있다.

놈들은 총수입의 4분의 3을 자기가 먹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어민들과 나누어먹는 《수익분배제》에 의하여 어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는데 어민들의 수입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사고가 없는 달에조차 겨우 최저생계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단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9월에 돈을 꾸어 겨우 배를 하나 장만한 황아무개 어민은 석달동안 바다를 헤매였으나 어구와 배가 낡아빠져 고기잡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빚을 물고나니 결국 석달동안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5분의 1도 되나마나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배를 가지고있다는 어민들의 생활이 이럴진대 《배한쪽 없는 어민들의 생활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고 하면서 《빚얻으러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어민들로 어촌은 어수선하다》고 썼다.

남조선강원도 고성군내 대진, 거진, 아야진항 어민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엄청난 빚에 얽매여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있는데 빚을 진 2천 400여명의 어민들중 600여명은 무려 100만~500만원씩의 막대한 빚을 걸머지고있다고 한다.

일본의 한 잡지는 《남조선에서는 어민들이 죽도록 고기를 잡아온다고해도 수입이 늘어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기잡이도 제대로 못하고 막대한 빚까지 걸머지고 갚을길 없는 남조선어민들은 항시적인 가난과 굶주림속에서 시달리며 기막힌 생활을 하고있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내 어민들은 이해 3월 먹을것이 없어 파도에 밀려나온 바다풀을 주어 겨우 목숨을 이어갔으며 그것도 차례지지 않아 굶주림에 지쳐 몸을 가눌수 없는 형편이였다.

모진 생활고에 시달린 어민들은 할수 없이 정든 고향과 풍만한 어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고 있다.

남해안의 강진만과 여천만의 어민들은 낮은 수입과 각종 해상사고, 빚단련에 시달리다가 어구와 고기배들을 팔고 도시로 떠났으며 동해안의 고성군에서도 600여세대가 떠났다고 한다.

〔청소년학생들의 수학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은 마음대로 공부할수도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공부를 하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은 학비를 낼수가 없습니다.》(《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단행본, 23폐지)

박정희괴뢰도당은 28년동안 남조선청소년들의 배움의 권리를 여지없이 짓밟아온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저들의 반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교육법》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이요, 《초등의무교육제》요 하는것을 성문화하여 놓고 떠들고있으나 그것은 빈말뿐이고 남조선에서는 한줌

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자녀들에게만 학교문이 열려있고 헐벗고 굶주리는 절대다수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에게는 배움의 길이 막혀있다.

남조선에서는 무거운 학비부담으로 수백만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많은 학비를 댈수 없어 학교에 가볼 생각도 못하는 미취학아동들이 300여만명이나 거리를 헤매고있다.

남조선의 이러한 현실을 목격한 한 외국인은 《아직 10살이 될가말가한 소년들이 거리의 구석마다에서 껌 같은 것을 팔거나 구두닦이를 하고있다. 한창 배워야 할 나이의 어린이들의 이 모습은 보기에도 애처로웠고 불쌍하였다》라고 말하였다.

학교를 겨우 다니는 어린이들조차 가중스러운 《공납금》을 비롯한 학비때문에 어린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시달림을 받으며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조선의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은 학비를 몇푼이라도 보태려고 공부가 시작되기전에 이른 새벽부터 신문배달, 연탄배달을 하고 공부가 끝난 후에도 구두닦이통, 담배상자를 메고 피눈물을 삼키며 거리를 헤매고있다.

그래도 학비를 마저 대지못해 학교에서 쫓겨나고있는데 이해는 《학비난으로 학교에서 중도 퇴학당하는 학생들이 례년에 비하여 더욱더 늘어났》다.

실례로 이해 졸업기를 계기로 부산시내의 중고등학교들에서는 1만 6천여명의 학생들을 《공납금미납자》라고 하여 《졸업장》도 주지않고 학교에서 내쫓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2월 7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나온 박연수 학생은 중앙대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날품팔이 등 갖은 수단으로 10만원의 돈을 장만해가지고 갔지만 지정된 《등록금》보다 3만 5천900원이 모자란다고 거절당한후 다시 간난신고를 하여 돈을 마저 채워가지고 갔으나 이번에는 《등록금납부마감시간보다 5분이 지났다》고 하여 입학을 취소당했다고 한다.

박정희악당의 가혹한 학비수탈책동으로 말미암아 상급학교진학의 길을 빼앗긴 돈없고 권세없는 근로인민의 자제들은 적들이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이해에 65만명이나 된다.

지어 학생들은 학비때문에 혈액은행에 가서 피를 팔고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배우고 싶은 열망을 이룰수 없게 되여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며 자살까지 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학비를 대기 위해 부모들이 눈알을 팔겠다고 호소해나서는 기막힌 참상까지 빚어지고있다.

이해 2월 경기도 수원시 매산동에 사는 김영숙녀성이 중학교에 들어갈 아들에게 1만 5천원의 《등록금》을 대주지 못하여 자신의 귀중한 눈알을 팔겠다고 피눈물로 호소해 나선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남조선에서는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매우 락후한 형편에 있어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있다.

경상남도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학생수의 절반이상이 교실부족으로 배움의 길을 빼앗기고있으며 충청북도에서도 고등학교지망자의 40%이상이 교실난때문에 학교에 가지못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이 전한 경상북도 금릉군의 실태만보아도 이 군의 국민학교들에서는 교실이 엄청나게 모자랄뿐아니라 있다는 교실마저 그 80%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한다.

남조선 강원도의 홍천과 화천, 횡성, 춘성 등지에 있는 국민학교들 가운데는 천정이 뚫어져 비가 새는가 하면 무너져가는 담벽을 나무로 받쳐 세워 겨우 지탱하고있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한다.

남조선 강원도 장성군 장성읍에서는 간신히 지탱해온 국민학교의 낡은 교실지붕이 내려앉는 바람에 학생들이 스산하고도 좁은 창고안에 빽빽이 들어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린제군내 국민학교 어린이들은 지붕이 20여군데나 금이 가고 마루바닥이 썩은 교실에서 비만 오면 자리를 옮겨앉으며 공부를 하고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쪼들리는 생활난때문에 학생들은 끼니도 에우지 못하고 허기진 몸으로 학교에 가고있으며 병에 걸려 신음하고있다.

서울시내 국민학교어린이들 가운데는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점심도 싸오지 못하는 어린이가 2만 200명이 넘으며 충청북도 충주의 어느 국민학교에서는 점심밥을 못가져오는 학생이 65%나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수업도중 쓰러지는 기막힌 참상까지 빚어지고있다.

이해 4월 30일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에 있는 동양공과기술학교의 학생 40여명이 아침체조를 하다가 심한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부족으로 한꺼번에 쓰러지는 가슴아픈 참상이 빚어졌다.

남조선의 한 방송은 《국민학교학생들가운데 결핵에 감염된 어린이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아서 어린이건강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있다》고 하면서 결핵에 걸리는 비률이 높은 원인이 집이 가난하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심한 생활난때문이라고 밝히였다.

남조선의 한 보건단체가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국민학교 학생의 근 40%가 결핵환자라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청년들이 대학을 나오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막심한 고통을 겪고있다.

전라북도에서는 교육대학졸업생의 취직률이 겨우 8.4%밖에 안되는 한심한 형편에 있다.

이해 남조선의 해양대학졸업생들중 84%가 일자리가 없어 취직의 길을 찾아 헤매였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교육시책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학생들은 마음대로 공부할수 없다.

남조선출판물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요란스럽게 떠들기만 한 《의무교육은 빈말뿐이며 시설부족, 육성회비, 다부제수업, 콩나물교실, 교원부족 등으로 그 실현정도는 매우 암담하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학생들은 《과중한 학비와 공납금이라는 떼래야 뗄수 없는 혹을 시급히 수술해버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돈 안들이고 마음껏 공부하는 공화국북반부를 끝없이 동경하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교육제도를 반대하여 분연히 투쟁에 나서고있다.

〔날로 격화되는 주택난〕 남조선인민들의 참혹한 생활처지는 그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주택난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에서 집없는 세대가 총세대수의 31%에 달하는 179만세대가 된다고 한다. 이것은 1966년에 비하여 집없는 세대가 48만호나 늘어난 것이다.

남조선출판물자료에 의하면 집사정은 큰 도시일수록 더 심각한데 서울시의 경우는 집없는 세대가 62.7%나 된다.

그러므로 가난한 남조선인민들은 세방살이 아니면 판자집이나 움막과 같은 집이 아닌 《집》에서 살고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까지도 《집없는 시민들이 득실거리고 사람이 거처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방공호, 판자집에 주민들이 살고있다》라고 쓰고있다.

남조선에서 집사정은 농촌의 경우도 한심한 형편에 있다. 남조선출판물자료에 의하더라도 집없는 세대가 수십만세대가 되며 집이라는것조차도 경상남도의 경우에서와같이 83%는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될 집들이며 그 가운데서도 46%이상은 수리조차 할수 없

는 초가움막들이다.

산간지대화전민들의 집은 《90%이상이 움막과 반토굴이며》 그것은 산중턱이나 비탈에 몇개의 통나무를 포개놓고 그 사이에다 진흙을 발라 벽을 만들고 지붕은 잡초로 덮은 집》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한심한 형편이라고 한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까지도 《농촌의 집들은 게딱지같이 납작 엎디여있고 작대기같은 기둥에 아무렇게나 흙을 바르고있다.

이슬비 가리우는 짚을 이면 다행이고…창문을 꽉 닫으면 영낙없는 달팽이의 의형같이 되고만다》고 쓰고있다.

남조선에서 주택사정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도시미화》니, 《대도시 주변정리》니 하는 구실밑에 주택들을 마구 헐어버리는데다가 각종 재해까지 겹쳐 더욱 악화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72년에 서울에서 7천여채, 부산시에서 3천 640여채의 살림집을 《무허가건물》이라는 구실밑에 마구 헐어버렸으며 1973년에는 8만 5천여채의 주택을 헐어버릴 범죄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른바 《환경순찰대》라는 전문적인 살림집 파괴집단까지 무어 주민들의 집을 마구 헐어없앴다.

이와 같은 강제철거와 함께 1972년에만 하여도 큰물로 파괴된 건물은 5만여채에 달하였다.

1972년 8월 서울시에서만도 1만 3천 531가구에 6만 7천 861명이 집을 잃고 다리밑과 굴간, 제방 등에서 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지내고있었다.

남조선에서 집을 가지고있다는 사람들의 처지도 별로 나은것이 없다. 그들의 대부분은 손바닥만한 방한간에 부엌이라고 달아놓았거나 부엌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출판물은 《단간방에 일곱식구나 겹쳐사는속에서 갓난애기가 압살당했으며…다음날 일나갈 사람만 옆으로 눕히고 나머지 가족은 벽에 기대여 밤을 새우는 형편》이라고 한다.

남조선에서 집없는 사람들은 남의 집 세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집세가 계속 뛰여 오름으로써 그들은 세방조차 얻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집세는 해마다 뛰여오르고있는데 1972년에만도 30%나 올라 전세는 보통 작은방 하나를 얻자면 10만~15만원, 부엌이 달린 작은 방은 20만~25만원을 내야 한다.

당장 입에 풀칠 할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와 같은 막대한 전세금을 낼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집없는 사람들은 세방조차 얻을 길이 없어 한데에서 떠돌아다니거나 세방을 얻는 경우에도 집세를 제때에 내지 못하여 쫓겨나며 또는 막대한 빚을 걸머지고 있는것이 보통현상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출판물들이 《주택난은 심각한 도를 넘어 절망상태》에 빠졌다고 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심각한 주택난으로 인한 인민들의 불평불만이 높아지자 박정희괴뢰도당은 주택난을 없애기 위해 그 무엇을 하는듯이 농촌에서 《주택개량》, 《지붕개량》에 대하여 떠드는 한편 도시에서는 《서민주택건설》이니, 뭐니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에 대한 인민들의 환상을 조성하며 그들의 불평불만을 무마하는 한편 인민들의 주머니를 더 털어 매판자본가놈들의 배를 더욱 불려주자는것이다.

《농촌집개량》에 대하여 보더라도 박정희괴뢰도당은 《자금지원》에 대하여 떠들고있지만 《개량》하는 경우 이른바 《지원금》의 3배나 되는 자재비와 그밖에 여러가지 수속비, 로력비 등으로하여 막대한 부담만을 지게 된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 《주택채권》, 《주택복권》 또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조세수탈에 기초하고있는 《정부재정자금》, 《지방자치단체부담》 등 인민들로부터 털어낸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서민주택이란것을 짓는다고 떠들어댔다.

그런데 집이 다되여 사람이 들자면 신청금, 입주금을 내야 할뿐아니라 집값이 매우 비싸 가난한 남조선의 인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은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은행》이 융자해주는 《주택자금》(리자률 년 14%)을 20년동안에 매달 8천원~1만원씩 갚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남조선의 한 방송이 《월급을 쥐꼬리만치 받고 소득이 쥐꼬리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주택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것은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일》이며 집을 짓는다고 하나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으로》되고 있다고 보도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건설한다고 떠드는 《서민주택》이란 결국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투기업자들의 손에 들어가 《저소득층의 무주택자들에게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어 고리현상을 나타내》거나 《투기리윤까지 붙여 비싸게 팔아넘김》으로써 치부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한 방송까지도 박정희괴뢰도당의 《주택정책은 중산층이상》만을 위한것이지 로동자, 농민이나 도시빈민과 같은 절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백날가야 《주택이 차례질수 없는》극히 불공평하고 허황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더해만가는 먹물를 고통〕 박정희괴뢰도당은 《수도세》니 뭐니 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돈을 빼앗아내면서도 물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있는가하면 있다는 상수도시설과 수원지마저 보수하지 않아 주민들을 갈증과 전염병의 고통속에 밀어넣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인구의 81%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수도물을 쓰지 못하고있으며 서울시 중심지역만 보아도 146만명의 주민들이 수도물을 전혀 먹지 못하거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다.

인천에서 13만 5천여명의 주민들이 수도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다.

서울시안의 서대문구 거의 전부와 영등포구 고척동, 동대문구 숭인동 일대에 사는 가난한 주민들은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 2~3키로메터나 떨어진 다른 구역에까지 가서 헤매다가 간신히 한두초롱씩 물을 길어오는가 하면 까마득하게 늘어서서 물받을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밤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잠을 못자는》 형편에 있다.

부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물동이행렬이 줄을 짓고 밤을 새워 주민들이 물을 받아가는 심한》고통을 겪고 있다.

려수시안의 여러곳에서는 《물한방울 제대로 나오지 않아 밤잠을 이루지 못한채 물을 긷는 아낙네들의 소동이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전라북도 군산시주민들은 몇군데있다는 수도물마저 나오지 않아 먼곳에 가서 우물물을 길어다 먹고 있다. 또한 군산항의 부두로동자들은 고된 로동에 시달리면서도 급수시설이 형편없이 모자라 물 한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있다.

7월 28일 서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에서는 《5일내에 100미리 이상의 급격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원지가 완전히 드러나》주민들의 생활이 위태롭게 될 형편이였다.

충청북도 충주시와 제천읍에서는 몇십년이 지나도록 손질 한번 하지 않아 다 낡은 수도관이 못쓰게 되여 물이 흐르지 않아 주민들이 매일같이 물을 얻느라고 추운 겨울에 사방으로 흩어져 헤매였다.

남조선에서는 먹을 물이 없어 팔고 사는 현상까지 빚어지고있다. 남조선의 이러한 현실을 목격한 한 외국인은 자기의 려행기에서 《도시에 수도가 없다. 사람들은 손수레에 물을 싣고 팔

러 다니는 것이다»라고 썼다.

1천 600여명이 살고있는 경상남도의 한 섬에서는 우물이 몇개밖에 안되여 물한동이에 10원씩 주고 사먹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남조선섬주민들은 《물이라도 한번 마음놓고 마셔보았으면 평생소원이 없겠다»고 말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병균이 섞인 물을 먹는 물로 쓰고있는 한심한 형편에 있다.

남조선의 한 방송이 보도한 전라남도의 실태만 보아도 이 도내 주민의 74%가 병균이 많은 강물이나 우물물을 먹고있다

상수도와 소독된 우물을 쓰고있다는 일부 지역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그 60%이상이 대장균을 비롯한 각종 균들에 오염되여있으며 이런 물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수도물에서 골탄과 기름이 섞여나오는가 하면 제주도내의 어떤 곳들에서는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수도물»을 보내고있어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조선 강원도 양구군에서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58%의 우물에서 암모니아성분 등 유해물질과 대장균을 비롯한 여러가지 병균들이 나왔다고한다.

인천의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도물취수장이 한강하류에 있어 서울 청계천과 안양천 등에서 나오는 오수와 공장폐수때문에 오염도가 높아 주민들이 매우 불안을 느끼고있다 한다.

병균이 섞인 한심한 물을 먹는 물로 쓰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 큰 고통을 겪고있다.

〔공해에 의한 재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끼리 합작하는것이 아니라 외세와 결탁하고 외래독점자본을 제한없이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예속경제로 전변시키고있으며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오물단지>로 배척당하고있는 공해산업까지 끌어들여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더럽히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41페지)

조선의 분렬을 고정화하며 남조선을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새 전쟁 도발준비에 미쳐날뛰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더욱 다그치면서 이른바 《중화학건설»이라는 이름밑에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오물단지»로 내몰리는 공해산업을 남조선에 마구 끌어들이고있다.

결과 공업이라고는 보잘것없는 남조선에서조차 공해가 걷잡을수 없이 심해지고 있어 가난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며 무시로 생명을 앗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심한 공기오염으로 무서운 재난을 당하고있다.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의 공기는 간단한 몬지없애는 장치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유해공장들과 난방시설 교통수단 등에서 쏟아져나오는 연기,가스, 몬지 등으로 꽉 차있다.

6월 24일 남조선의 한 방송은 1972년 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장»이 오염물질연구에서 하루에 서울시내 공장들에서 115톤의 유해가스를 내뿜는다는것을 조사해냈다고 전하였다.

또한 1972년도 서울의 대기오염물질은 1평방키로메터에 673톤이라는 막대한 량으로 늘어났다고 하면서 그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서울의 대기속에 퍼져있는 아황산가스는 안전기준의 4~5배를 넘고있으며 일산화탄소함유량은 허용기준이 1.6피피엠인데 서울에서는 전반적으로 그의 3~4배 또는 10배이상이나 되며 지어 을지로입구와 서울역 근처 등에서는 60~80피피엠으로서 허용기준의 수십배를 넘고있다.

공기가 이처럼 심하게 오염되여있기때문에 서울의 하늘은 늘 가스와 연기 몬지가 뒤섞인 뿌연 구름층으로 뒤덮여있으며 멀지 않은 거리에서도 남산의 릉선을 잘 분간해볼수 없고 개인날 밤에도 하늘의 별을 잘 볼수 없는 형편이다.

번잡한 서울거리에서 구두닦이, 껌팔이를 하는 어린이들은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하루에 100대의 담배를 피우는것과 같은 량의 연기를 들이마시고있다는 사실은 서울의 공기가 연기와 가스로 얼마나 더러워져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심한 공기오염으로 서울시내 가로수의 84.5%가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죽어가고있다 한다.

서울의 공기오염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각종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있으며» 공기오염으로 하여 《서울시민들은 공포의 순간순간을 살고있다»고 쓰고있다.

서울시내인민들은 유해가스와 몬지 등의 자극을 받아 눈, 코, 목의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있으며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폐기종, 진폐염 등 호흡기계통의 질환과 뇌빈혈, 심장관계질환 등 여러가지 병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로 죽어가고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광화문을 기점으로 하여 반경 15키로메터이내의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볼때 고등학교 학생들중 인후질환, 두통, 눈병 등 질병이 있는 남학생들은 66.7%, 녀학생은 71.8%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공기오염이 어느지경에 이르고있는가는 박정희괴뢰도당이 1972년 2월부터 서울시내에서 《교통순경»들에게 《산소공급작전»까지 벌리도록 한 사실에서 잘 알수 있다.

남조선에 있는 한 외국통신은 박정희괴뢰도당은 외국의 한 연구소로부터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공해가 심한 도시라는 창피스러운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서 서울의 공기는 안전계선의 3배에 달하는 일산화탄소로 혹심하게 오염되였으므로 3명의 서울시민들중 1명이 만성호흡기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신음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심한 공기오염으로 임신부들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태아가 발육을 못하여 죽은 아이를 낳거나 기형아, 조산아를 낳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공기오염은 서울뿐아니라 남조선의 전반적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경상남도 울산에서는 미제의 독점자본가가 직접 사장노릇을 하고있는 《영남화학공장»과 일본의 《마루베니» 등 외국독점기업체들이 틀어앉은후 공장들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와 유독성물질로 하여 이 일대 주민들은 건강을 파괴당하고 각종 질병에 신음하고있으며 논밭곡식과 얼마안되는 과수나무마저 말라죽고있다.

부산시 인민들은 미국에서 끌어들인 잉여유류인 방카씨유를 연료로 쓰는 이 일대 공장들의 굴뚝들에서 내뿜는 유독성연기로 말미암아 여름에도 창문을 닫아매야 하고 지어 어린이들이 체육시간에도 운동장에 나갔다가 쫓겨들어오는 등 참을수 없는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8월 9일 경기도 인천에서는 밥일을 하던 10여명의 녀성들이 미원상사 인천공장에서 뿜어대는 탄산가스와 유독성물질에 오염되여 한꺼번에 쓰러졌다고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공장폐수, 도시폐수 광산폐수에 의한 물의 오염으로부터 오는 막심한 생활상 고통을 받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과 매판자본가놈들은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더러워진 물을 빼는 시설은 전혀 하지도 않고 하루에도 수백톤씩 쏟아져 나오는 유해로운 폐수와 오물들을 아무데나 마구 흘러내버리고있어 인민들은 음료수마저 구하기 힘들게 되였다.

서울시민들의 유일한 상수도의 원천인 한강은 수질오염도가 국제기준치를 훨씬 뛰여넘어 상수도원으로는 도저히 쓸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한다.

남조선의 출판물들까지 시내의 온갖 오수와 오물이 쓸어들어 《한강은 이미 강이 아니라 거대한 시궁창으로 되고 말았》으며 그러지 않아도 물소동이 심한 서울에서 인민들은 더욱더 심한 물란리에 시달리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남조선에 있는 한 외국통신은 《형편없는 하수도체계와 오물의 부적절한 처리로 하여 한강이 심히 오염되였기때문에 한강상류로부터 새로운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을 설치》해야 할 형편에 있으나 그렇게 하자면 외국의 차관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전하였다.

마을 한 복판에 흐르는 시내물을 먹고 살아온 경기도 시흥군의 2천여명의 주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끌어들인 공해공장이 이곳에 서자부터 유독성물질이 섞인 더러운 물이 쏟아져나와 그 물을 먹을수 없게 되여 우물을 팠으나 거기에서까지 악취가 풍겨 도저히 먹을수 없어 심한 고통을 겪고있다.

오염된 물을 먹고사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위장병, 수열병, 대장염, 리질 등 여러가지 전염병들과 질병들이 만연되고있으며 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있다.

독성물질로 오염된 내가에서 놀던 아이들은 무서운 피부병과 위장병에 걸려 신음하고있으며 한창 푸르러가던 논밭곡식들까지도 노랗게 죽어버렸다 한다.

남조선출판물은 《여러가지 공장폐수가 흘러들어 수은이나 납, 카드미움, 등 유독성금속류가 포함된 한강수는 아무리 정화한다 해도 시민들의 보건을 크게 위협》하고있으며 《그러한 금속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놈들의 반인민적인 무관심성을 비판하고있다.

폐수에 의한 공해의 피해는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장과 광산의 폐수가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천년기념물인 열목어가 죽어가고 맑은 물에서 뛰놀던 연어, 송어, 은어 등 물고기들이 전멸상태에 빠져버렸다.

경기도 인천시 송도앞바다의 조개류만 보더라도 심한 공해로 하여 이미 씨까지 말라버렸으며 군산만과 아산만에서도 특산물이던 병어가 없어진지 오래고 준치가 바야흐로 멸종의 위기에 처해있는 형편이다.

진해만일대에서도 미역, 김 등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며 다도해를 비롯한 전반적해역들에서 바다물 오염의 위험도가 급격히 커져가고있다고 한다.

공기오염과 물오염이 심한 남조선에서는 또한 소음공해가 심하다.

박정희매국도당이 마구 끌어들인 공해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앉은 거리들에서는 귀가 메일듯이 온갖 번잡하고 아츠러운 소음이 터져나와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하고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공해산업의 집중과 교통수단, 인구의 밀집으로부터 오는 소음과 진동이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심히 악화시키고있다.

서울에 있는 한 외국통신까지도 도시의 소음이 사람들의 신경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안전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전하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렇듯 사태가 더욱더 악화되고있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있다고 일부 론평가들은 쓰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부산시내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들에서는 41.3%에 달하는 학급들이 공장들에서 나오는 요란한 소리로 수업을 변변히 하지 못하고있다.

그리고 나머지 37.4%의 학급들은 교실안으로 마구 날아드는 연기와 먼지, 견딜수 없는 역한 냄새로 무더운 여름철에도 문을 꽉 닫아맨채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다.

적지 않은 학교들에서는 주위에서 나는 연기와 소음이 어찌나 심한지 하루에도 열번이상이나 공부를 중단하는가하면 학생들이 숨을 제대로 쉴수 없어 코를 싸쥐고 돌아가는 등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받고있다.

서울시내의 소음과 진동이 어찌나 심한지 창경원의 동물사에 가져다 놓은 동물들이 너무도 놀라서 인차 죽어버리군한다고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인민들의 생활환경이야 파괴되든 말든, 그들의 건강에야 해가 되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미일침략자들로 하여금 남조선에 《공해산업》을 마음대로 건설하게끔 내맡김으로써 이와 같이 남조선은 《공해강산》으로 완전히 변하였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책동으로 남조선에서는 남조선의 한 출판물이 폭로한바 그대로 《공해방지대책》은 전혀 《무방비상태》에 있다.

〔악랄해진 《이민》, 《인력수출책동》〕

남조선에서는 동족을 팔아먹는 《이민》, 《인력수출》책동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로동정책으로, 수출항목의 하나로서 전문적인 인신매매기구들에 의하여 날을 따라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반역자들은 남조선의 수백만 실업자들을 북조선에 받아들여 취업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고 동족을 구미 각국에 상품과 같이 팔아넘기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93페지)

동족을 팔아먹는데 이골이 난 박정희괴뢰도당은 1973년에 《해외이주법》을 대폭 고치고 이른바 《이민권장책》과 《인력수출개발방침》이라는것을 새로 꾸며놓고 《이민정책의 과감한 추진》이니, 《경험적단계에서 탈피하고 이를 적극 확대심화시켜야 한다》느니 하고 뇌까리면서 더욱더 많은 남조선인민들을 해외에 노예로 팔아먹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2월 6일 《해외이주법》을 반동적으로 뜯어 고치고 《이민》,《인력수출》대상을 대폭 늘이였다.

놈들은 종래의 《해외이주법》에서 《해외이주자》의 《자격기준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종전에 금지되여 있던 질병이 있는 사람과 불구자, 괴뢰군기피자뿐아니라 괴뢰군복무자까지도 제대시켜 가족과 함께 팔아먹을수 있게 인신매매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해외에 팔아넘길 직종범위도 탄부, 간호원, 간호보조원은 물론 간호학생, 료리사, 접대원, 미용사, 청소부까지 인신매매대상에 넣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 인신매매대상지역을 보다 넓히였다.

놈들은 《해외이주법》에 《이민대상국가는 원칙적으로 개방한다》는 조항을 더 첨가하였으며 많은 이민들을 팔아넘기기 위해서는 《인력진출》에 그 어느해보다도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인력수출》대상국도 미주와 동남아세아지역 등 세계 모든 지역으로 넓히며 이른바 《5대인력진출지역권》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인신매매 대상지역을 넓히기 위해 덤벼쳤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 인신매매가 외화벌이에서 《큰몫》을 담당한다고 공공연히 줴치면서 보다 대량적인 인신매매 《계획》을 세우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놈들은 이해부터 《농업이민》, 《기업이민》, 《양잠이민》 등의 이름밑에 《집단적인 이민정책》으로 넘어가 1981년

까지에 100만여명의 남조선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먹을 범죄적인 《목표》까지 짜놓고는 이른바 《사절단》, 《이민담당관》들을 각 나라에 보내여 인신매매 흥정을 벌리는 등 인신매매 수속절차까지 《간소화》하면서 범죄적인 《목표》 달성에 헤덤볐다.

3월에 박정희괴뢰도당이 이해부터 5년동안에 1만여세대 5만여명의 가난한 농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브라질의 농장주들에게 종신노예로 팔아먹을 흉계를 꾸미고 브라질의 각지에서 그곳의 략탈자들과 《이민교섭》을 벌린것, 4월 《국방부차관》이란자를 서부독일에 보내여 남조선의 소위 간호장교들을 팔아먹을 궁궁이를 꾸민데 이어 10월 4일 서부독일국방부행정차관이란자와 서부독일복수주의 군대에 완전히 떠넘긴다는 《행정합의서》에 서명케 한것, 《선원고용증대 10개년계획》이라는 것을 꾸며놓고 이 기간에 3만 5천명의 선원을 외국선주놈들에게 팔아 넘길 궁궁이를 한것 등은 대표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인신매매책동으로 하여 이해에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50여개 나라들에 노예로 팔려갔으며 남조선은 외국략탈자들의 노예시장으로 전변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 석달동안에 남조선의 선원들만도 6천 800명이나 해외략탈자들에게 팔아넘겼다.

박정희매국도당이 발표한 단편적인 자료에 의하면 1962~1973년까지의 12년간 해외로 팔려간 《이민》수는 무려 12만 8천 435명에 달하며 같은 기간 《인력수출》자수는 9만 2천 32명, 도합 22만 467명이 해외에 팔려갔다.

《이민》의 지역적분포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2~1973년까지 12년동안 미국, 카나다 등 북미지역에 10만 4천 404명(81%),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지역에 1만 4천 435명(11%), 구라파지역에 5천 990명(5%), 동남아세아를 비롯한 오스트랄리아지역에 3천 606명(3%)이 팔려갔다.

박정희반역도당이 《이민》이니, 《인력수출》이니 하는 동족매매행위에 날을 따라 더욱 열을 올리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대가로 몇푼의 외화를 벌어 제놈들의 치부욕을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집권》하자는데 있다.

또한 기업의 파산에 의한 실업의 증대, 극심한 생활난으로부터 오는 인민들의 불평불만과 반《정부》투쟁기세를 《무마》시키자는데도 있다.

파렴치한 박정희도당은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감싸보려고 남조선인민들의 《해외진출》이 《민생》을 《구제》하기 위한것이며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것처럼 떠들어대면서 인신매매책동을 더욱 서둘렀다.

《이민》, 《인력수출》로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의 참혹한 처지; 해외에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와 차별대우, 가혹한 육체적고통과 병마에 시달리고있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유해부문의 중로동자, 농장머슴, 문지기, 소제부, 접대부, 간호보조원, 식모 그리고 아이보개, 몸종 등으로서 그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고용되려하지 않는 부문에서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북남미지역으로 팔려간 남조선《이민》들은 착취와 략탈, 혹독한 채찍질에 이골이난 독점자본가놈들과 대농장주놈들의 농장에서 소나 말처럼 혹사당하면서 원한을 품은채 죽어가고 있다.

브라질에 끌려간 《이민》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오래동안 돌려지지 않은곳, 악어와 뱀과 독충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살고있으므로 열병에 걸려 죽고 독충들에 물려 종신불구가 되고있다. 지어 로동에 시달리거나 영양부족으로 죽은 남조선동포들의 시체는 브라질착취자들의 악어잡이미끼로 되고있다.

파라나강변지역으로 끌려간 남조선《이민》들은 새별이 뜨자 밭에 나가면 날이 저물어야 집으로 돌아올수 있다. 그들은 독충들이 득실거리고 고열이 내려쬐는곳에서 하루평균 15시간씩 일하나 먹는것은 농장주놈들의 집을 지키는 개만도 못하다.

브라질에서 온 현지목격자는 이곳 남조선《이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지금 그들은 깊은 수림속에서 원시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있다. 그들의 집이란것은 짐짐승우리와 같다.

비도, 바람도 막지 못하는데서 그들은 밤이면 습기찬 나무떨석우에서 새우잠을 자군한다.

그들은 초보적인 생활상 편의도 받지 못하고있다. 전기불은 물론 없다. 그들이 마시는 물이란 악취가 나는 오염된 강물이며 그들의 옷이란 기저귀나 같다.

그들중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시달리고있다》

브라질의 어느 한 신문은 《…농장주의 빚을 물지 못해 쫓겨나는 남조선〈이민〉들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서울시 영등포에서 살다가 〈제2차이민〉으로 브라질 파라나농장에 팔려온 박순식이라는 주민은 3년동안에 물기로 했던 땅값을 못물어 여기서 쫓겨난 후 세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류랑걸식하다가 온 가족이 다리밑에서 굶어죽었다》고 썼다.

이러한 참변들은 빠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지에 팔려간 남조선《이민》들의 생활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빠라과이에서 출판되는 월간잡지 《아델란떼》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남조선〈이민〉들》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무지와 몽매, 고역과 굶주림, 이것이 그들의 생활의 전부이다. 남조선〈이민〉들은 매일 뼈빠지게 일해도 빠라과이로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3분의 1도 못받는다. 그들은 병이 나도 치료받을수 없으며 어린 자식들에게는 책가방대신 구두닦이통과 담배통을 메워주어야 한다.

과연 이들의 노예생활은 언제까지나 지속될것인가?》

카나다의 토론토시에서만도 6천명가량의 남조선주민들이 《이민》으로 팔려와 부자놈들의 집은 물론 호텔과 공공건물의 변소를 청소하는 등 《가장 최하층의 종》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다.

카나다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는 한 남조선주민은 자기가 체험한 쓰라린 생활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나는 토론토에 옮겨왔다. 그 누가 여기에 와도 그렇겠지만 우선 나를 실망하게 한것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것처럼 집을 구하는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였다. 나는 며칠동안이나 밥과 아빠트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창문에 나붙은 광고를 보면서 거리로 돌아다니며 고심했다. 인종주의자들이 내붙인 일자리에 대한 광고가 그 어디에 나붙어도 남조선이주민들에게는 일자리가 차례지지 않는다. 그리고 남조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가를 모여앉아 말만 하면 카나다 경찰들의 미행을 받는다. 카나다경찰들의 목적은 민족운동을 시도하는 이주민들을 체포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경찰들은 이주민들을 미행하며 완전히 자기들의 희생물이 될때까지 위협하고 복종하도록 강요한다.

카나다는 남조선주민들을 감시하는 장소로 되고있기때문에 남조선주민들은 자기들을 미행하고 박해하는 카나다의 경찰들을 증오하고있다.

남조선주민들은 고향을 멀리 떠나 버림과 천대 그리고 멸시를 받으면서 쓰라린 가슴을 쥐여뜯고 있다.》

다른 한 주민은 《내가 카나다에 온것은 1968년초이다. 그때 나는 이제는 나의 처지가 개선될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은 심히 잘못되였다. 내게 처음 차례진 일자리는 오물청소부였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오물장에서 일하던 나는 1년도 못되여 병에 걸려 눕게 되였다. 그래서 나는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무서운 병마가 나를 죽음에로 몰아넣고있으며 병원이란 생각조차 못하고있다》고 자기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이야기하였다.

남조선부산시에서 살다가 카나다에 팔려온 한 남조선주민은 실생활속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동족매매행위를 알게 된후 울분을 참을수 없어 이렇게 웨쳤다고 한다.

《이 개새끼들, 네놈들의 노예매매행위가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내가 살아돌아가는 날이면 네놈들을 당장 요정낼테이다. 조국의 동포여러분 산사람 세워놓고 간빼먹는 서울의 악당들에게 더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미국 하와이섬에 끌려간 남조선 《이민》들은 거의 모두가 생죽음을 당하였다. 이 섬에 끌려간 수천명의 남조선 《이민》들중 살아남은 사람은 108명밖에 안된다고 한다.

서독에 팔려간 남조선간호원들은 본, 함부르그, 뮌헨 등 300여개의 병원에 고용되여 고된 로동과 민족적모욕을 당하면서 눈물겨운 생활을 하고있다.

서독 함부르그에 간호원으로 팔려간 리영란녀성은 《이국땅에 서린 원한》이라는 제목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입원실에 들어가니 환자들은 저마다 구린내가 나는 발을 나의 앞으로 내밀며 자기 발톱부터 먼저 깎으라고 눈알을 굴리였다. 지어 휘파람을 불며 희롱까지하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심한 모욕과 수치감을 더한층 느꼈다. 나는 더는 참을수 없어 문을 차고 입원실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서독에 팔려간 남조선간호원들은 이외에도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환자가 죽으면 시체를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내고나서 지어 사체실을 지켜야 하는 끔찍하고도 참을수 없는 일까지 강요당하고있다.

런던에서 발간되는 일요신문 《옵써버》는 《지독한 조건하에서 힘겨운 로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남조선녀성들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습관에도 익숙되지 않아 불만과 부정을 호소할수도 없어 억울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는 경우가 많다》고 썼다. 그들은 임금이 낮은데다가 《비행기료금》, 《려비취직알선수수료》등 별의별 이름으로 낮은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손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옵써버》지는 그들이 결국 비행기료금을 물기 위해 일을 하고있는것이라고 전하였다.

《간호원》이라는 이름으로 서독에 팔려간 남조선의 김경연이라는 녀성은 고향에 있는 동무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곳에 팔려간 남조선 광부들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수천메터의 지하막장에 일하러 들어갈 때는 내가 오늘 살아서 내발로 다시 걸어나올수 있겠는가 하는 서글프고 무서운 공포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하게 되고 무사히 나오게 되면 오늘 하루 더 살게 되였다는 안도감에서 〈후유〉하고 한숨을 내쉰다는것이다.

3년이 지나면 이들의 등에는 동전한푼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터지고 찢긴 상처자리뿐이란다. 그들이 서부독일에 광부로 온것을 원망하며 당국자들에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해하는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울었단다. 정말 참을수 없는것이 민족적멸시와 천대뿐이다.

나는 이곳에 와서 그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고있다. 위정자들때문에 이렇게 다른 민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때 정말 원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민족적비극이 더 계속되지 않도록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때가 왔다.》 계속하여 그는 《간절히 부탁하고싶은것은 여기로 절대 오지 말라는것이다. 네 친구들에게도 이 심정을 꼭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쓰면서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죄업에 속아 이역만리 해외로 끌려가지 말것을 호소하였다.

서독에 탄부로 팔려간 남조선 송아무개라는 주민은 자기들을 속여 외국략탈자들의 노예로 팔아 넘긴 박정희괴뢰도당의 죄행에 울분을 참다못해 《동족을 팔아먹는 서울의 개새끼들아 내가 살아 가면 그냥 둘줄 아느냐! 네놈들이 나를 속였다. 또 누구를 꾀여 팔아먹겠느냐? …》고 하면서 울분을 터뜨렸다고 한다.

4월 2일 서울의 한 민간방송은 《간호보조원양성생》의 이름으로 일본에 끌려간 남조선녀성들은 감시가 뒤따르고 혹독한 학대가 감행되는 몸서리치는 환경속에서 《하루에 22시간 혹사》를 당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방송은 오늘에 와서까지 그러한 악독한 짓을 례사로 감행하는 일본반동들을 《돈이면 륜리도 없고 도덕도 필요없다》고 하는 파렴치한자들로만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놈들의 마음속에 《과거 36년간 착취해먹던 버릇》이 그대로 도사리고있는 사실에 경각성을 높일것을 강조하였다.

〔매국배족적인 《기생관광》책동〕 총칼로 《정권》을 가로챈 첫날부터 추악한 인신매매업자로서 그 매국배족의 몰골을 드러낸 박정희괴뢰도당은 《기생관광업》이라는것까지 벌려놓고 외국관광객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수많은 남조선녀성들을 성의 노리개로 팔아넘기는 국제매음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녀성들의 몸을 파는것을 《국가기업》으로 삼으며 그를 합리화하고 장려한다는 험담을 마구 뇌치면서 이해 남조선녀성들을 외국자본가놈들의 노리개로 팔아먹는 추악한 범죄놀음을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박정희역적은 1973년 10월에 남조선에 기여든 이전 남조선주재 일본대사놈앞에서 《기생관광은 자본도, 시설도 원자재도 들지 않는 아주 수지 맞는 외화벌이》임으로 《국가기업》으로 대대적으로 장려할《방침》이라고 뇌까리면서 매춘관광은 경쟁자가 없는 독점기업이라느니, 《장래가 유망한 인기산업》이라고 떠벌였다.

이해 4월 남조선의 이른바 《문교부장관》이란자는 일본 도꾜에 있는 《민단》계 학원에서 한 공식연설에서 남조선녀성들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몸을 팔고있는 기막힌 민족의 수치에 대하여 오히려 《나라를 위해 주야로 분투하고있는 애국지성은 매우 훌륭하다》고 뇌까리였다.

11월에 김대중랍치사건과 관련하여 도꾜에간 괴뢰 《국무총리》란자도 일본자본가놈들에게 웃음을 팔고 몸을 바치도록 강요당하고있는 녀성들을 보고 《조국근대화에 소용되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걸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찬양함으로써 만 사람의 비난을 받았다.

박정희매국역도는 이른바 《관광진흥5개년계획》이라는것을 짜놓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부산, 경주, 인천, 제주 등지에 《라체촌》을 건설하고있으며 1만여개의 관광용 객실을 확보한데 뒤이어 서울 룡산구 한남동에 700여개의 관광객실을 가진 남조선 《최대규모》의 호텔까지 건설하는 등 각지에 기생 《관광호텔》과 유흥장을 건설하기에 덤벼치었다.

또한 남조선을 《10대관광권화》할데 대한 목표밑에 괴뢰정부의 《직영기업》으로 서울에만 하여도 10개의 《관광회사》를 만들어놓았으며 부산항과 김포비행장 그리고 도로망을 확장하였다.

재미교포의 한 신문은 《〈한국정부〉직영기업의 하나로 〈국제관광공사〉라는것이 있는데 그 산하 호텔은 외국손님들에게 〈매춘부〉를 알선케 하였으며 〈국제관광공사〉는 〈관광진흥5개년계획〉의 일환으로서 부산, 경주, 인천, 제주 등의 각지에 외국인 상대의 〈라체촌〉을 건설하여 외화를 벌겠다는것이다.

〈국제관광공사〉는 박정희의 목숨줄이 달려있는 국영기업체인것이다》라고 쓰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폭로규탄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기생관광》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관광호텔학교》라는 이름밑에 전문적으로 기생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까지 세웠다. 《관광호텔학교》는 순진한 남조선의 20대의 처녀들과 10대의 어린녀학생들을 끌어다가 《너희들은 일본사람들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켜주라》고 하면서 일본관광객을 비롯한 외국관광객들에게 무조건 순종할것을 강요하며 《애교술》과 외국어를 가르치고있다.

박정희매국역적은 《기생학교》를 설치하고 남조선녀성들에게 《접객원증》을 발급하는 놀음을 벌리고있으며 그밖에도 수많은 녀성들을 마구 끌어들여 《관광호텔》과 《기생집》에 배치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광객》의 기분을 잡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로골적으로 떠벌이면서 거리를 헤매는 실업자들과 길가의 로점상인들을 닥치는대로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기고 강제추방하는 만행까지 일삼고있다.

박정희매국역도는 관광시설들을 늘이면서 《기생관광객》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박정희도당이 발표한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해 68만여명의 외국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약 2억 7천만딸라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그중 박정희악당이 집권초기인 1961년도에 전체 《관광객》수의 20%를 차지하던 일본 관광객들이 이해에는 81%를 차지하는 50여만명이나 된다.

박정희도당은 일본군국주의두목의 한놈인 기시노부스께란자를 《회장》으로 하는 《한일관광개발공사》란것을 설치해놓고 상전에게 《관광객》수를 늘여줄것을 구걸까지 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73년부터 1976년까지 4년어간에 기생 《관광객접대목표》를 360만명 즉 하루 평균 1만명으로 잡고 그 《목표》달성에 날뛰고있다.

《매음거간군》인 박정희역적의 추악한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20여만명의 녀성들이 외국《관광객》들의 추잡한 성의 노리개로 온갖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고있다.

그것은 일본 《관광려행사》안내관에 《인삼을 먹고 기생파티를 즐겨보고 싶지 않습니까?》라는 광고를 공공연히 내붙이며 남조선에 기여든 일본자본가놈들이 《당신은 얼마면 살수있느냐》고 녀성들의 몸값을 흥정하고있으며 나어린 녀성들을 끌어다 첩살이까지 강요하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알수 있다.

박정희도당이 《기생관광》을 대대적으로 벌리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것은 남조선녀성들의 몸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여 제놈의 부화 방탕한 생활과 장기집권에 리용하려는데 있으며,

《기생관광》의 이름밑에 왜색왜풍과 양키문화를 더욱 로골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반일감정과 반《정부》의식을 무마시키며, 일본독점자본가를 비롯한 외국독점자본가들에게 남조선녀성들을 바치는것으로 환심을 사서 더 많은 경제《원조》와 투자를 얻어쓸것을 노린데 있다.

《기생관광》을 반대하는 내외인민들의 투쟁;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란폭하게 짓밟고 녀성들을 일본을 비롯한 외국《관광객》들의 노리개로 팔아 넘기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추악한 반역행위의 반동적본질은 날이 갈수록 날날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과 일본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의 《기생관광》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날로 고조되여가고있다.

이해 12월 19일 서울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은 김포비행장입구에서 박정희도당의 추악한 배족행위를 규탄하면서 이른바 《관광진흥》이라는 이름밑에 녀성들이 상품화되여가고있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인간 잔악상을 무마할수 없다》고 쓴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매춘관광〉을 반대한다》, 《더이상 매춘으로 외화를 벌려고 하지 말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리였다.

12월 28일에는 남조선의 《녀자기독교청년련합회》, 《교외녀성련합회》, 《어머니회》 등 4개의 녀성단체들이 공동으로 강연모임을 갖고 《당국의 관광정책은 시정되여야 한다》, 《민족의 절개와 내 딸을 지키자》라는 등의 제목을 가지고 박정희매국노들의 추악한 《매춘관광》책동과 반역적죄행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생들은 《기생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인관광객을 현해탄 건너편으로 내쫓으라》라는 구호를 들고 시위를 벌렸으며 10월 5일에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매춘관광》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또한 《한국신학대학》학생들은 집회를 열고 《우리 나라 녀성들은 관광자원이란 이름으로 왜놈에게 몸까지 팔리우고있다. 순국렬사는 통곡해야 할 사태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남조선언론계에서도 《기생관광》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일본인관광객—〈호색동물〉들이 요즘 환성을 올리면서 남조선에 쓸어들고 있을뿐아니라 매춘거간군인 박정희를 적극 찬양하고 있다》, 《이놈들이 마구 돌아치며 녀성들을 롱락하고있는 현실을 보면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순진한 녀성들이 희롱당하는 《이 민족적치욕이 친일친미매국노 박정희, 김종필 일당에 의해 빚어진것임을 생각할때 민족적의분을 금할수 없다.》고 썼다. 계속하여 신문은 《항간에서 박정희〈정권〉을 일러 녀자들을 팔아 돈을 버는 〈매춘정권〉이라 하고 박정희를 〈청와대의 포주〉라고 규탄하고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녀성들이 일본 〈호색동물〉들에게 짓밟히는 이 치욕을 그대로 참을수 없다. 이 현실을 참는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멸망을 가져온다는것을 잊지말자》

끝으로 신문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매국역도들을 반대하는 《반일반독재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전체 남조선인민들에게 절절히 호소하였다.

더우기 일본잡지 《세까이》 (1973년 9호)에 의하면 5월 31일 남조선신문 《한국일보》는 《매춘관광업이 박정희를 비롯한 한국정부의 고관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고있다.》고 썼다가 괴뢰중앙정보부놈들의 언론탄압책동에 의하여 삭제되였다고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더러운 《기생관광》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일본에서도 일어나고있다.

신일본부인회를 비롯한 22개의 일본녀성단체들은 《매춘문제를 취급하는 회》를 무어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리였다. 12월 25일 그들은 일본반동정부에 대표단을 보내여 녀성들을 상품으로 팔아치우는 박정희괴뢰도당의 관광정치에 대한 협력을 즉시 중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도꾜 하네다비행장에서 《기생관광》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리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1973년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자랑찬 승리의 한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조국통일문제해결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온 민족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으며 정세발전의 매 시기마다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과 구국대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73년에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국통일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헤쳐나갈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거듭 천명하심으로써 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1973년 4월 16일 연설에서 남북협상의 폭을 넓힐데 대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시였으며 유명한 1973년 6월 23일 연설에서는 민족의 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의 대강인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1973년 10월 28일 연설에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통일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1973년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의 위대한 승리와 거대한 생활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으며 미제의 조선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력사의 쓰레기통에 쓸어넣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에 단호한 타격을 주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이룩한 이 빛나는 승리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자주적평화통일 실현의 강령적지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방침들을 천명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곧바로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것입니다. 우리의 이 평화통일방안은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198페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의 기본방침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따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조국이 분렬된 첫날부터 무려 130여차례에 걸쳐 자주적평화통일제안을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밑에 우리가 제의한 방안들에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과 그 실현의 구체적방도들이 다 밝혀져있다. 거기에는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근본문제를 비롯하여 남북련방제, 경제, 문화 교류, 군비축소, 사람들의 래왕과 편지거래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들어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후에는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여러차례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5년 8월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것과 함께 남북조선당국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무력행사도 하지 않으며 조국의 통일문제를 오직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 의무를 질데 대하여 조선인민과 전세계인민들앞에 선포할것을 제기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1957년 9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와 그 이후에 있은 여러차례에 걸친 최고인민회의들에서 북과 남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이 철거하는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군대를 대폭 줄일데 대한 제안을 거듭 내놓았다.

1971년 4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는 8개 항목의 조국통일방안을 내놓으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며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며 《한미호상방위조약》과 《한일조약》을 비롯하여 남조선 《정권》이 체결한 모든 매국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을 폐기할것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통하여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사람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새로운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이 획기적인 제의는 마침내 조선에서 오래동안 지속되던 남북사이의 동결상태를 깨뜨리고 대화와 접촉의 문을 여는 결정적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1월에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조선정전협정을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 필요하다고하시면서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킨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무력을 줄일것을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서는 그 이후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첫걸음으

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 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내놓았다.

남북사이의 현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5개 항목의 제안은 남북쌍방의 신임의 실제적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나라에서 전쟁재발의 가능성을 방지하며 긴장된 정세를 완화시킬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도로 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대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하며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방도로 되며 통일문제해결의 대강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앞에 밝은 서광이 비치게 되였습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30~331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앞에 서광을 비쳐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3대원칙은 자기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가고있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리념 그리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고있는 정당한 방침이다.

또한 이 원칙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구체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확한 방도와 투쟁과업 그리고 그 전도를 가르쳐주고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침이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원칙은 조국통일을 위한 대강으로 된다.

특히 3대원칙가운데서 자주성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이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것은 통일문제해결의 열쇠로 된다.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를 통일해야 우리 인민의 의사에 따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민족의 력사적인 숙망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부합되게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민족적대단결은 3대원칙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단결을 이룩해야 포악한 제국주의침략자들과 맞서 성과적으로 싸울수 있으며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우리 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력사발전의 전행정은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어떻게해서든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영구분렬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며 3천리 이땅우에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마련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강령으로 된다.

조국통일의 5대방침은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의 위대한 강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 6월 23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조국통일의 길앞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민족의 분렬을 막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5대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이 조국통일방안이 실현된다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공통된 념원에 맞게 평화적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44폐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5대방침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긴절하고 절박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을 주고있는 애국애족의 강령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있는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 9월 9일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국통일 5대강령의 원칙들을 다시금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5대강령에서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것이 가장 긴절한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도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국통일의 5대강령에서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 방침은 끊어졌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적힘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게 하는 길이며 겨레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긍지를 높여주고 우리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길이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5대강령에서 현 남북대화를 전민족적범위에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침은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나온 가장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조치이며 통일문제의 특성과 그 해결의 원칙에 전적으로 맞는 주체적인 통일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5대강령에서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현할데 대한 공명정대한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련방국가의 국호문제를 우리 나라 판도우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련방공화국이라고 하는것은 남조선측에서도 능히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정한 좋은 국호로 된다.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침은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가장 현명하고 애국적인 방안이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국통일의 5대강령에서 분렬이 고착되여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갈라지는것을 결정적으로 막아야 하며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방침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민족의 영구분렬책동을 막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을 헤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정간섭도구로 복무하여온 이른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로 결정한것이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하게 됨으로써 미제의 어용도구로 간섭해오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행위에 종지부를 찍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을 방해하고 민족적존엄과 권리를 침해하고 모독하던 이 기구의 더러운 《년례보고》놀음도 끝장나게 되였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는 이 침략기구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끝장냈을뿐아니라 그와 하나의 침략적바탕우에 서있는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구실도 없애버리였다.

1973년에 우리 인민이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승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단호히 저지파탄시킨것이다.

미제와 박정희매국도당은 유엔에서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을 가로막고 민족을 영구분렬시키기 위하여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이라는 범죄적인 결의안을 내놓고 그를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주장과 수많은 나라 대표들의 투쟁에 의하여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는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고 여지없이 분쇄되였다.

유엔총회에서 《두개 조선》 조작책동이 저지됨으로써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을 떠들면서 민족의 영구분렬을 정책으로까지 공공연히 선포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른바 《특별성명》은 사실상 백지화되였고 하늘로 날아나게 되였다.

1973년에 우리 인민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또한 유엔총회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조선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것이다.

유엔에서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조선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는 희망을 표시한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이룩한 커다란 승리로 되는 동시에 남북공동성명을 란폭하게 유린해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또 하나의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실로 1973년에 미제의 내정간섭의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체되고 민족의 영구분렬을 피한 남북조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위대한 승리

1973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와 그 위대한 생활력을 온 세계에 과시한 자랑찬 한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었으며 미제의 침략과 내정간섭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입니다.》(1974년 《신년사》, 단행본, 7~8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밑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제1위원회 1973년 11월 21일회의에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시였으며 남북공동성명의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이 환영과 지지를 받고 이 3대원칙에 따라 조선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는 희망이 표시되였을뿐아니라 미제의 조선침략을 위한 어용기구이며 내정간섭의 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가 결정되게 되고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이 내놓았던 《두개 조선》의 조작책동이 저지되였다.

이처럼 유엔총회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서 견지해야 할 유일하게 정당한 원칙으로 인정되게 되였으며 남북공동성명의 제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이 성명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해오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부당한 립장이 더욱더 명백히 까밝혀졌다.

이것은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이다.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결과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의 승리, 자주로선과 민족자결원칙의 승리이며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정책, 외세에 나라와 민족을 파는 제국주의앞잡이들의 사대매국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로 된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북과 남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예견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위업에 부합되게 해결되여야 할 근본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유엔총회는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고 미제의 조선침략과 내

선《유엔동시가입》책동이 저지되였으며 남북공동성명이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게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에는 보다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게 되였다.

유엔총회의 결과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주체적인 힘에 의하여 해결하는것이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일뿐아니라 그 어떤 힘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는것을 여실히 확증하여주었다.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국제적지지성원, 련대성의 강화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3년 6월 23일과 10월 28일 연설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방침과 방안들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한 숭고한 동포애적념원으로부터 출발한 구국강령으로서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전세계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에 맞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에 따라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1973년에도 민족최대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적투쟁이며 민족의 사활적리익에 직접 관련되는 정의의 투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어느때나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것입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13페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내외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1973년 4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는 무엇보다먼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첫째,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둘째, 우리 나라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셋째,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넷째,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며 다섯째,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제기한 우리의 5개항목 제안을 협의하고 하루빨리 해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면 우리의 군대를 자진해서 20만이하로 줄이겠다는것을 회의에서 새로이 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공화국북반부가 통일문제해결을 위하여 결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않을것이며 《남침》할 의도를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을 다시금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 미국 국회에 편지를 보내였다.

또한 1973년 7월 24일에 진행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59차확대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호소문을 보내였다.

1973년 11월 16일 조선로동당,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은 민족앞에 닥쳐온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통일혁명당에 대민족회의를 열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보내였다.

대민족회의를 열데 대한 공화국북반부 제정당들의 제의는 내외에서 한결같은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해주었다.

특히 이 제안은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의 통일에 대한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끝없이 불러일으켰다.

대민족회의를 조속히 열것을 호소한 공화국북반부 제정당들의 제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북과 남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단결시켜 통일위업실현에 참가시킴으로써 하루빨리 조국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구국대책이였으며 애국적인 발기였다.

1973년에 진행된 남북대화의 전과정이 보여준 바와같이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남북 대화와 협상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하루속히 제거하고 대화를 전진시키며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내외여론의 압력밑에 마지못해 대화의 마당에 끌리여나온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을 모조리 거부하면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공공연히 배반하고 자주가 아니라 외세 의존의 길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길로, 민족적대단결이 아니라 북과의 대결과 남조선의 애국력량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때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외교부성명, 사회단체성명 등을 발표하여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감행한 엄중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모험적인 소동을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1973년 3월 8일 외교부대변인은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새 전쟁 준비를 다그치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외교부대변인의 4월 5일부 성명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는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의 1973년 7월 24일부성명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였으며 외교부대변인은 8월 10일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8월 9일에,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8월 27일에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에 머무르고있던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한 남조선파쑈악당들의 만행

을 규탄하며 김대중과 그의 가족들에게 가하고있는 남조선파쑈무리들의 인권유린행위와 인신박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9월 6일 외교부대변인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전쟁모의를 벌린것을 규탄하여 또다시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0월 8일 조선학생위원회성명에서는 민주주의와 평화적통일을 요구하여 구국투쟁에 일떠선 청년학생들에 대한 남조선 박정희파쑈악당의 야만적탄압책동을 규탄하였다.

또한 외교부대변인은 10월 15일부성명에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이 더욱 우심해진것을 규탄하였으며 12월 1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에서 보도활동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기자, 언론인들이 파쑈도당의 류례없는 탄압을 박차고 정의의 투쟁에 단호히 떨쳐나선것과 관련하여 그들의 의로운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을 엄숙히 성명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2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여 박정희파쑈도당이 또하나의 그 무슨《간첩단사건》이라는것을 꾸며내고 남조선 지식인들과 인민들을 체포투옥하고 갖은 박해를 가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폭로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12월 17일과 25일, 28일에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와 그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전쟁소동을 규탄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한일각료회의》를 벌리려는 위험한 범죄적책동을 단죄하였다.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침의 위협》이니 《적화통일》이니 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폭압을 가하는 만행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성의있는 노력과 지지성원은 실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단호한 타격을 주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을 수세와 궁지에 몰아넣게 하였으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게 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에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흠모하며 래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고 살며 싸워온 남조선인민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비롯한 구국방안들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며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용감히 싸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나라의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기운은 더욱 높아가고 민주력량은 계속 강화되고있습니다.》(《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단행본, 17페지)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6월 23일연설에서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제시하시자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안고《이것이다. 이대로만 하면 평화통일이 된다.》고 하면서 수령님이시야 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성이시라고 한결같이 토로하였다.

부산의 한 로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러한 현명한 통일방안은 반세기전부터 우리 민족의 구성으로 태양으로 우러러 존경받고계시는 김일성주석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감히 생각이나 하겠는가. 참으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시기적절한 때에 통일의 앞날에 새로운 광명을 비쳐주시였다.》

실로 남조선인민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을 가장 훌륭히 반영한 민족의 대강령》,《조국통일의 지름길을 밝혀준 해불》,《우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길을 환히 밝혀준 등대》라고 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나라의 통일위업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일떠선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두개조선》조작 책동을 짓부시고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반파쑈민주화의 봉화를 들고 일떠선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반《정부》,반독재, 반외세 투쟁구호와 함께 조국통일구호를 들고 의로운 투쟁의 광장에 떨쳐나섰다.

《우리의 념원은 조국통일!》

《통일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론의와 참여를 보장하라!》

어둡고 침침한 온 남녘땅을 진감시킨 애국적청년학생들의 이 절절한 웨침은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범죄적책동에 매달리고있는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안겨준 폭탄이였으며 각계각층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투쟁의 불씨를 심어주고 그들을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부르는 애국의 호소였다.

부산에 사는 한 애국적주민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민족분렬의 비운에 몸부림치는 우리 민중이 민족의 태양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통일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분연히 궐기하리라고 확신한다.》

평동의 로동자들과 호남의 농민들, 바다가의 어민들과 제주도의 해녀들, 서울과 부산의 애국적지식인들과 종교인들, 평세상인들과 빈민들, 실로 민족분렬을 막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그 누구나없이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의 기치따라 그 실현을 위한 애국적성전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을 위한 학생들의 애국투쟁에 호응하여 합류해나선 남조선의 종교인 단체들과 언론인들을 비롯하여 광범한 사회계와 정계 인사들은 민주주의의 초보적권리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요구해나서는 한편 《국회를 즉시 해산》하고 《10월유신이후의 정치체제를 전면개편》할것과 남북군대를 축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정당, 사회단체들의 회의를 시급히 소집하고 남북대화는 《범국민적》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을 주장해나섰다.

그들은 또한《두개 조선》조작을 반대하고 통일위업을 촉진시켜야 한다는것을 주장해 나섰다.

통일혁명당 성원들과 애국자들은 독재가 없고 민주가 있으며 매국역적들이 없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며 분렬이 가셔지고 통일이 이룩된 조국을 건설하려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현군사파쑈통치하에서는《통일도, 민주주의도, 경제적자립도 그 어떤것도 기대할수 없》음을 자각하고 일떠선 그들의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며 자유와 해방, 나라의 통일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자각한 그들자신

의 의식적인 투쟁이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결의문과 선언문들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실현의 앞길을 가로막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반역적죄행과 그로 인하여 빚어지고있는 모든 참담한 현실을 구원할자는 오직 자기자신들뿐이라는것을 선언하고있다. 이것은 오늘의 남조선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를 체득한 각성된 인민들이란것을 말해주고있다.

실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총검에 의한 삼엄한 《비상사태》의 파쑈폭압속에서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을 위하여 계속 완강히 싸워 박정희괴뢰도당의 《철권통치》에 정면공격을 들이댐으로써 파쑈매국집단을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으며 놈들의 파쑈테로통치지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서울에 와있는 서방기자들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을 위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으로 《남조선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서 《박정권은 몰락하고말것》이라고 전하고 있는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조성된 민족분렬의 엄혹한 사태를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다.

민족분렬의 위기를 막고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1973년에 남조선의 야당정치인들속에서도 그 어느때보다 더욱 높아졌다.

남조선야당정치인들은 통일을 반대하는 박정희매국도당의 분렬주의적책동과 파쑈적폭압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남조선정세에 대처할 자기들의 립장과 주장을 정강정책과 대회선언문, 시위와 결의문,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등에 담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야당인 민주통일당은 림시전당대회를 열고 개정한 정강정책에 《남북조선유엔동시가입안을 반대한다.》고 밝히였으며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박정희파쑈도당의 민족분렬책동과 매국배족행위를 규탄하고《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범국민적 통일협의기구를 지체없이 각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지식인 및 애국인사들로 구성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림시전당대회를 마치고 반《정부》, 반독재, 반외세 투쟁구호를 부르며 가두시위에 떨쳐나섰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책동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다른 한편 남조선의 신민당 부당수 김영삼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책동을 규탄하고나서 《중앙정보부》가 남북대화에 끼여든것을 견결히 반대하면서 대화를 민간인들이 주동하는 체제로 바꾸고 조국통일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 정당, 사회단체들의 회의를 소집하며 남북사이의 군사적긴장을 제거하고 호상교류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화협정을 맺을것을 주장하였다.

남조선야당정치인들은 이렇듯 통일이냐, 분렬이냐하는 갈림길에 서있는 엄숙한 력사적시각에 남북대화와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주장을 토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다른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 투쟁할것을 다짐해나섰다.

남조선의 야당인사들은 인민들의 투쟁에 합세하여 과감히 떨쳐나섰으며 남조선 신민당은 언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5대강령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을 가장 훌륭히 반영한 민족의 대강령》이며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민족의 위대한 해불》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위대한 생활력은 더욱 더 발휘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해외동포들의 적극적인 투쟁

1973년에 해외동포들속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총련일군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놓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며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의 광란적인 파쑈행위를 단죄규탄하는 가두선전과 시위를 줄기차게 벌리였다.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원하며《민단》산하 동포들과의 민족적단합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민족단합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분쇄하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였다.

재일동포들은 조국통일 5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가는것을 반대하며 단일한 국호로 가입할것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널리 벌려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민단》산하 동포들을 포함한 약 25만명의 동포들을 서명에 참가시키였다.

이것은 해방후 벌려온 재일동포들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전례없는 사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은 총련산하 재일동포들은 물론 《민단》계 재일동포들속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 재일동포는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내용을 전달받고나서 《김일성주석님의 연설을 들으니 후련하다. 수령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다.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는 우리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한것으로서 이 이상 좋은 제안은 없다.》고 말하였다.

《민단》의 한 간부는 수령님의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사업에 적극 나설 결의를 다음과 같이 다지였다.

《나는 지금 민단간부를 하고있지만 결코 박정희괴뢰도당을 믿고 그놈들을 따라 가자는것은 아니다. 그 누가 보아도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이 옳으며 주체와 자주의 길만이 우리 민족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길이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국과 일본의 웃소매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민족과 조국 앞에 크나큰 죄과를 저지르고있다. 박정희놈은 제놈의 살구멍을 찾기 위하여 입만 벌리면〈북조선의 남침위협〉을 떠들어대고있지만 그런 기만극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는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박정희매국역도를 반대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당신들과 힘을 합쳐나가겠다.》

그의 이 말과 결의는《민단》산하 압도적다수동포들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준것이다.

총련과《민단》산하 동포들속에서는 서로 힘을 합쳐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군중적인 형태로 발전시켜나가는 기운이 날로 높아갔다.

《민단》산하 각계각층 재일교포들은 1973년에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를 결성하고 일본과 미국, 카나다, 구라파 등 모든 해외교포들속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애국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박정희파쑈독재정권을 타도하며 안팎의 분렬주의

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우리는 한개 조선을 지지하고 〈두개 조선〉을 반대한다!》

《조선을 통일하자, 미제는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이 절절한 구호를 든 재미조선동포들은 뉴욕 유엔본부앞에서 시위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된 벼락을 안기였으며 하나의 통일된 조국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기개를 세계에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1973년 11월에 진행된 대중적인 시위투쟁에는 미국에 있는 조선교포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이전 남조선 《국군》의 《장교》 등 뉴욕과 워싱톤, 포스톤, 시카고 등지에 살고있는 수많은 교포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에 앞서 그들이 가진 집회에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 및 통일을 위한 조선대회》, 《남조선민주화를 위한 련맹》을 비롯한 재미교포단체들과 재미교포들이 발간하는 신문들인 《한민신보》, 《자유공화국》 등의 공동명의로 남조선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박정희도당의 탄압행위를 규탄하는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해외동포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위대한 생활력은 높이 발휘되고있다.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의 강화

1973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이 세계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찬동과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된 의의있는 한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규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습니다.》(1974년 《신년사》, 단행본, 8~9페지)

수령님께서 6월 23일에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선포하시자 5대륙의 진보적인민들은 나라의 통일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이룩할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침과 제안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환영하고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분렬책동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중국, 쏘련, 윁남, 로므니아 등 여러 사회주의나라들과 알제리, 꽁고, 기네, 민주예멘 등 일련의 3세계나라 국가수반들과 당지도자들, 각국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국제기구, 투쟁단체, 개별적인사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과 그이께서 하신 력사적인 10월 23일 연설을 지지환영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수령님께 수많은 축전, 편지, 전문들을 보내왔다.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친선단체들에서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인민들과의 련대성집회를 열고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은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새 력사를 창조해 나가는 획기적인 방안》,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현명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수령님의 력사적인 10월 23일연설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력사적인 연설》, 《세계인민들의 지향이 반영된 문헌》으로 열렬히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미국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자 수많은 나라 국회들과 정부들 그리고 국가지도자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보낸 편지를 적극 지지찬동하여 회답편지와 전문을 보내왔으며 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꾸바상주미국인련맹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각종 단체들은 이 편지를 지지하는 성명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문, 편지를 보내여왔으며 스웨리예공산주의청년동맹 제30차대회와 단마르크공산주의청년동맹 제30차대회는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뿐아니라 《아까하다》, 《아사히신붕》 들과 신화, 따쓰, 지지 등 세계의 수많은 나라 신문, 방송, 통신들이 우리나라 최고인민회의의 편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리하여 1973년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는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였다.

처음으로 공화국대표의 참가밑에 조선문제를 토의한 유엔총회 제28차회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견지해야 할 유일하게 정당한 원칙으로 인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조선의 북과 남이 대화를 계속하며 다방면적인 교류와 합작을 실현할것을 요구하고 미제의 침략도구인 악명높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것을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이 저지되고 우리 인민의 통일을 위한 투쟁도상에 가로놓였던 또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이 제거되였던것이다.

또한 9월 알제리에서 열렸던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한 세계 80여개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을 포함하여 100여개 대표단들은 한결같이 조선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며 조선인민의 자결권을 보장하고 조선인민자신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조선의 유엔가입은 조선의 완전한 통일이 이룩된 다음이거나 남북련방제가 실시된 다음 단일국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의 민족분렬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강력한 지지와 고무를 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제와 박정희매국도당이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과는 배치되게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합리화하며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을 통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책동하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또한 11월 17일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북구라파 70여개 정당, 사회문화단체 대표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에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밖에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140여개 나라의 민족단체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의 참가하에 모스크바에서 진행

된 평화력량들의 세계대회에서는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단마르크, 핀란드, 일본, 메히꼬, 파떼말라, 수리아, 말가슈 대표들과 쏘련, 몽골, 뽈스까,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웽그리아, 꾸바 대표들을 비롯한 많은 대표들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기자신의 힘으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연설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낼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조선의 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5대강령에 기초하여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이룩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조선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벌가리아의 와르나에서 진행된 제8차세계직맹대회에 참가하였던 여러나라 대표들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여러나라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것을 엄숙히 성명하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인민들로부터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자주적조국통일방침 특히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강령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조선인민의 민족적숙원과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애국애족적립장을 반영하고있으며 그리고 현 조건에서 나라의 통일위업을 가장 빨리 이룩할수 있게 하는 구체적 방도를 명시하고있는 매우 정당한 방침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진진도상에서 이룩된 하나의 성과이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앉아서 량면전술을 쓰고있으며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하지않음으로 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큰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다.

남북조절위원회사업 및 적십자회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으며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큰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그리하여 한해전에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우리 민족앞에 열리였던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은 도로 흐려지고있습니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단행본, 6페지)

공화국정부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공동성명에 천명된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자주적평화통일방침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남북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구국대책과 북과 남사이의 폭넓은 협상방안을 제시하여왔으며 남북대화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왔다.

그리하여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북과 남사이에는 접촉과 협상이 거듭 진행되였으며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리행하고 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회의와 남북적십자회담이 평양에서와 그리고 서울과 판문점 등지에서 련이어 진행되였다.

여기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각 분야에 걸쳐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일련의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다.

이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진진도상에서 이룩된 하나의 성과이다.

남북조절위원회사업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1973년 3월 15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스러운 수도 평양에서 있었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조속히 실현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해결하여야할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들을 나누었다.

회의에서는 우리측의 제의에 의하여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우리측은 우리나라에서 남북사이의 현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응당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회의에서 제기하였다.

첫째,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둘것.

둘째,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며 군비를 대폭 축소할것.

셋째,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것.

넷째, 우리 나라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킬것.

다섯째,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것.

이와 함께 남북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쌍방무력의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사인원들을 조절위원회에 망라시키든지 군사분과위원회를 만들든지하여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집행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남조선측의 반대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문제들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회의에서는 조절위원회안에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문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의 각 분야에서 합작을 이룩하는 등 남북조절

위원회앞에 제기된 방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쌍방이 이미 합의한 사항에 따라 조절위원회안에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외교분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 등 5개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다만 경제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만을 설치하자고 제의하였기때문에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회의;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회의가 1973년 6월 12일과 13일 량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이 내놓은 문제들은

첫째로,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단결을 통하여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우리측이 2차회의에서 제기한바 있는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5개항목제안을 계속 진지하게 협의하며

둘째로, 남북대화와 협상을 보다 폭넓게 추진시키기 위하여 조절위원회사업은 계속 추진시키면서 이와는 별도로 시급한 시일내에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며

셋째로,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미 쌍방이 합의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5개 분과위원회를 내오자는것이였다.

그런데 남조선측은 말로는 《완전한 개방》을 주장하면서도 실지로는 경제, 문화 분야에서 제한된 조치들만을 제기하였을뿐이며 조절위원회안에 경제, 사회문화의 2개 분과위원회만 내올것을 고집하면서 현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정치, 군사, 외교 분과위원회를 내오는것도, 북과 남사이의 정치협상회의를 여는것도 모두 거부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무런 제한도 없는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개방을 하자는것이며 남조선측의 주장은 제한된 부분적인 개방을 하자는것이였다.

회의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견해차이는 이미 남북대화의 첫날부터 나타난 단결로선과 대결로선, 합작로선과 경쟁로선, 통일로선과 공존로선간의 로선상차이에 근원을 둔것으로서 통일을 하루빨리 하자는것인가 아니면 분렬을 끝없이 계속하자는것인가 하는 립장상차이와 관련된 문제였다.

× ×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간사회의;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간사회의가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1973년 3월 10일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쌍방공동위원장들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준비와 관련한 절차문제를 협의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간사회의;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간사회의가 판문점 서울측 지역에서 1973년 4월 24일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쌍방공동위원장들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회의 준비와 관련한 절차문제를 협의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 《남북조절위원회 간사회의 운영세칙》 및 《남북조절위원회공동사무국 운영세칙》 초안들을 토의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간사회의;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간사회의가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1973년 5월 23일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쌍방공동위원장들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회의를 1973년 6월 12일부터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실무적 절차문제를 협의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 《남북조절위원회 간사회의 운영세칙》,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사무국 운영세칙》 초안토의를 계속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공동위원장 성명; 리후락을 두목으로 하는 남조선 《중앙정보부》 특무들이 일본 도꾜에서 망명중에 있는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하여 서울로 끌어가는 야만적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1973년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공동위원장은 조절위원회의 사명에 충실하려는 일관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의 리후락을 비롯한 《중앙정보부》의 깡패들을 더는 대화에 참가시킬수 없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성명하였다.

성명에서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공동위원장은 남조선괴뢰도당이 만일 진실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응당 쌍방사이에 합의된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존중하고 《두개 조선》 로선을 취소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김대중을 비롯하여 체포, 투옥한 애국자들을 석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는 응당 전민족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당국자들뿐아니라 여기에 남북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들이 참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적십자회담 제5차회의; 남북적십자회담 제5차회의가 1973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량일간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의 주동적인 발기에 의하여 먼저 회의들에서 합의확정된 의제토의의 기본원칙과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은 제3차 평양회담에서 온 민족의 념원을 하루속히 풀어주려는 애국애족의 립장과 적십자인도주의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기된 의제토의해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체성의 원칙, 민주주의적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민족적화목과 대단결의 원칙, 적십자인도주의원칙, 거족적인 참가와 지원의 원칙 등 5개 원칙과 의제 제1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해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남조선에서의 모든 법률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고 당사자들과 협조자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할데 대한 문제 등 4개항목의 제안들을 내놓았었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 밝혀준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적십자인도주의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공명정대한 제안이며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폭넓게 덜어주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동포애적인 제안이다.

갈라진 겨레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며 그것을 완전히 가시여주기 위하여 시종일관 모든 성의를 다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은 남북적십자회담 제5차회의에서 숭고한 동포애와 적십자인도주의원칙에 립각하여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으며 회담사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의 이러한 성의

있는 노력은 남조선측의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회담에서는 의제 제1항에 대한 아무런 합의에도 도달할수 없었다.

남북적십자회담 제6차회의; 남북적십자회담 제6차회의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량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되였다.

쌍방은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열렸던 제5차회의에 이어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에 대한 토의를 계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은 어떻게하나 의제 제1항토의에서 쌍방의 견해차이를 좁히고 회담사업의 성과를 고대하고있는 온 겨레의 기대에 부합되게 회의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쌍방간에 이미 합의된 원칙에 근거하여 의제 제1항토의와 관련한 구체화된 새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측은 무엇보다먼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과 협조자들 및 이 사업에 참가하는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도주의적사업을 풀어나가는데 장애로 되는 남조선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현행법규들을 철폐하며 전쟁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족적 대립과 반목을 고취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하며 그러한 단체들을 없앨데 대한 문제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적십자료해해설인원을 매개 리(동)에까지 파견하고 그들에게 모든 활동의 자유와 편의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범위를 본인의 호소에 따라 정하며 그 범위에 재일동포들을 포함시킬데 대한 문제, 당사자들이 직접 상대측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찾는것을 기본방도로 하고 그밖에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간접적, 보충적 방법들도 적용할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의 기대와는 달리 남조선측은 이회의에서도 의연히 우리측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미 지난 회의들에서 들고나왔던 이른바 《국제관례》라는 《문서교환방식》 하나만을 계속 고집하면서 현실과는 인연이 먼 공리공담으로 시간을 끌었다.

결국 쌍방사이의 견해상 차이는 주체적이며 애국적인 립장과 그와 상반되는 립장사이의 대립에서 출발한것이였다.

남북적십자회담 제7차회의; 남북적십자회담 제7차회의가 1973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량일간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스러운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에 대한 토의를 계속하였다.

이 회의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은 회담의 전진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고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였다. 특히 우리측은 의제 1항토의에서 주되는 문제인 자유로운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적십자회담 제7차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자는것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공동성명에는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업에서 장애로 되는 제 요인들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첫째로, 사상, 리념, 제도를 달리하는 사람들 및 그들과 접촉, 련계를 가지거나 그들을 고무, 동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며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할것을 규제하고있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현행 《반공》법규들을 철폐하며

둘째로, 사상, 리념, 제도를 달리하는 사람들간의 래왕과 접촉에 장애를 조성하고 민족적 대립과 반목을 고취하는 모든 《반공》 활동을 금지하고 《반공》 단체들을 해체하며

셋째로,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제 정당, 사회단체, 공공기관들이 겨레들의 고통을 풀어주는 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 사업에 참가하는 당사자들과 협조자들 및 관계자들에게 인신과 소지품에 대한 불가침권을 인정하고 언론, 출판, 집회, 통행 등 모든 활동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넷째로,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이 자유롭게 래왕하고 접촉하는데 장애로 되며 평화를 위협하는 현 군사적대치상태와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며

다섯째로, 쌍방은 인도주의적 및 민족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당국으로 하여금 이상 조항들의 실현을 법적 행정적조치로써 확고히 담보하고 그를 내외에 선포하도록 책임진다는 내용들이 담겨져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은 의제 제1항의 토의사업을 한걸음 더 전진시키려는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의 또 하나의 표시이며 북과 남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동포애적인 념원의 뚜렷한 표현이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회의에서 우리측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없이 덮어놓고 거부하여나서면서 그 무슨 《추석성묘방문단》을 교환하자는 이외의 문제를 들고나왔다.

남조선측이 의제 제1항에 대한 토의를 한창 심화시켜나가야 할 시기에 와서 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를 들고나온것은 진실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립장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정된 기본문제의 토의를 외면하고 회담을 딴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립장에서 나온것이였다. 결국 이것은 회담을 지연시키고 문제의 해결을 복잡하게 하며 나아가서 회담사업전반에 혼돈을 조성하게 하였다.

추석에 가족, 친척들이 호상 《성묘》하자는 그 문제자체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물론 해결되여야 할 인도적사업의 하나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측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가족, 친척들이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들은 비단 《성묘》뿐아니라 이밖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쌍방이 합의한 다섯개 의제들에 포함되여 있는것이며 따라서 회담이 잘 진척되여 기본문제들이 풀리면 《성묘》 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문제들이 스스로 원만히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어떻게 하나 상정된 기본문제에 대한 토의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기에 장애로 되는 일은 하지말아야 한다.

회담에서 쌍방은 호상 의견상차이로 하여 기대하였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들의 념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측은 앞으로도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리라는 립장을 다시한번 표명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적십자회담 제8차회의날자를 직통전화 또는 적십자판문점련락대표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쌍방 적십자회 대표단 대표사이의 접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의 주동적인 제의에 의하여 남북적십자단체들의 본회담 대표사이의 접촉이 1973년 11월 28일 판문점에서 있었다.

접촉에서는 남조선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하여 중단상태에 빠진 남북적십

자회담을 하루빨리 열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우리측 대표는 이날 접촉에서 7월 유서깊은 평양에서 제7차남북적십자회담이 있은 이후 벌써 열렸어야 할 제8차회담이 열리지 못하고있으며 회담이 중단상태에 빠지게 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남조선측에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숭고한 적십자인도주의정신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려는 애국애족적립장으로부터 8차회담의 앞길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시급히 제거하고 회담실현의 가능성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들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이 적십자회담을 시급히 열기 위한 당면한 대책으로서 제기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남북적십자회담에 참가하여 이 회담을 방해하고있는 남조선 《중앙정보부》 성원들을 제거할것.

둘째로,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체포구금한 애국자들과 청년학생들을 석방하여 회담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마련할것.

셋째로, 서울에서 회담을 열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서있지 않고있음을 고려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을 평양에서 재개할것.

우리측 대표는 우리측의 이 제안들이 남북대화앞에 가로놓인 엄중한 난관을 타개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적십자회담을 하루빨리 여는데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우리 제안의 취지와 정당성에 대하여 남조선측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이 우리의 새 제안에 대하여 《내부문제》이니, 《정치화》한다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내걸면서 회담을 계속 지연시키며 숭고한 인도주의적회담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종래의 부당한 립장을 고집함으로써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였다.

합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앉아서 량면전술을 쓰고있으며 공동성명에 지적된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하지 않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31페지)

남조선 박정희괴뢰도당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첫날부터 그것을 공공연히 반대하면서 《시기상조》니, 《어렵다》느니, 《선전적》이라느니 뭐니 하고 남북공동성명을 구체화한 우리의 남북합작제의도,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할데 대한 제의도, 남북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할데 대한 제의도 다 반대하고 대화의 전진을 가로막아 나섰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유린하고 대화의 막뒤에서 《대결과 경쟁, 공존》을 부르짖고 《국력배양》을 고창하면서 외세의존과 외자도입에 더욱 더 줄달음치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반공》 소동과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으며 《10월유신》을 벌려 1인 파쑈독재를 강화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전대미문의 파쑈적폭압과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자들과 인민들에게 야만적인 박해와 학살만행을 감행해나섰다.

남북대화의 과정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들로써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당초부터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유린해왔으며 대화를 민족분렬의 고정화와 《두개 조선》 조작, 《승공통일》의 망상실현에 리용한 장본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두개 조선》 조작을 공공연히 선포한 이른바 《특별성명》이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1973년 8월 29일 남조선의 특무두목 리후락은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리고 그 무슨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가소롭게도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공동위원장의 1973년 8월 23일 성명을 시비해나섰으며 제놈들의 추악한 민족반역행위에서 벗어나보려고 헛되이 날뛰면서 남조선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느니, 우리가 《대화의 진행을 기피》한다느니 뭐니 하고 헛나발을 불어댔다.

파쑈교형리 리후락의 이 망동은 추악한 민족반역행위를 일삼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여 민족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른 반역자의 단말마적발악이며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이며 참을수 없는 모독이였다.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공동위원장의 8월 23일부성명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의 또하나의 표시로서 대화의 길우에 조성된 현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조치이며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의 념원과 의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후락은 《성명》에서 마치 우리측이 대화에 성의없고 합의사항을 위반했으며 대화를 기피한듯이 꾸며대면서 대화가 정돈상태에 빠진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켜보려고 헛되이 날뛰였다.

1973년 11월 6일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공동위원장은 남북조절위원회가 자기 사명에 맞게 통일을 위한 민족적 위업을 성실히 리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정책을 철회하고 나라의 통일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주인사들과 애국적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며 그들중 체포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는 동시에 남북조절위원회를 민족의 의사를 대표할수 있도록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할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남조선측 부위원장에게 보내였다.

우리측의 이러한 제의와 의견은 나라의 분렬을 막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진심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대화로 성사시켜나가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적일념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내외공정한 사회여론의 응당한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그러나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첫반응에서부터 매우 온당치 않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였다.

우리측의 편지를 받자 어용나팔수들을 동원하여 또다시 《상투적인 선전에 불과한것》이니 뭐니 하고 터무니없는 비방과 중상부터 퍼부었다.

남북조절위원회구성을 개편할데 대한 우리측의 8월 23일부 성명제안에 대하여 두달반만에 동의한다는 통지를 보내오고서도 우리 립장을 다시 밝힌 편지를 받자 이런 소동을 벌린것은 실로 괴이한 일이였다.

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를 반영한 우리측의 정당한 제안을 남조선괴뢰도당이 비방한것은 그놈들이 보내온 전화통지문이 대화를 재개하는데 목적이 있은것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한것이였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었다.

7월에 평양에서 제7차남북적십자회담이 있은후 서울에서 열리기로 되였던 제8차회담은 초청측인 남조선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하여 년말까지도 열리지 못한채 중단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더우기 남조선측이 회담을 파탄시키

기 위한 책동을 로골화한 조건에서 사태는 더욱 엄중한 국면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우리측은 서울에서 회담을 열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조건에서 평양에서 회담을 재개할데 대한 제안을 남조선측에 제기하였다.

남조선측은 우리측의 정당한 제안에 대하여 접수할 대신 《과거의 비적십자인》이니, 《타고난 적십자인이란 있을 수 없다》느니 뭐니 하는 얼토당토않는 구실을 내걸면서 더러운 깡패들의 신분을 감싸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러한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북과 남의 대화에는 난관이 조성되였으며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우리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지 10년이 지나고 근 30년이 되여오도록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생사를 알길없고 나라의 통일위업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측이 대결과 분렬을 추구하는 립장을 버리고 남북공동성명을 성실히 준수하여 나서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투쟁하면 우리는 어떠한 장애와 난관도 능히 극복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것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인민들의 반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은 세계를 무한히 격동시킨 위대한 정치적사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23일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의 력사적인 연설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으로 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안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한 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방안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이것은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적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전세계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강령이다.

그러기에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은 그것이 세상에 발표되자 세계 5대륙의 광범한 사회계에 류례없는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쏘련, 월남, 로므니아 등 여러 사회주의나라들과 알제리, 꽁고, 기네, 민주예멘 등 일련의 3세계나라 국가수반들과 당 지도자들, 각국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국제기구, 투쟁단체, 개별적인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에 대한 열렬한 환영과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수령님께 수많은 축전, 편지, 전문을 보내여왔다.

뿐만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과 수많은 중립주의나라,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통신들과 방송들, 텔레비죤과 신문들이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이 발표되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빠른 속도로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또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지지하여 국제학생동맹서기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과 친선단체들에서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우리 인민들과의 련대성집회를 열고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특히 1973년 9월 알제리에서 열렸던 세계 80여개 나라들의 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을 포함하여 100여개 대표단들이 참가한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70여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들에서와 수많은 나라들에서 있은 각계각층인민들의 군중모임들에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지지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강력한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사회정치활동가들과 평화애호인사들은 수령님의 5대강령을 적극 지지하는 담화들을 매일과 같이 발표하였다.

전세계 인민들과 정치, 사회계는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통일도상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 《조선문제해결의 리상적이며 실천적인 해결의 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조선인민의 견결한 립장과 위대한 목표》라고 하면서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고려련방공화국의 창설과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은 민족분렬을 가로막고 하나의 조선을 고수할수 있게하는 현명한 제안이라고 하였다.

신문들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성명〉이 나오리라는것을 미리 간파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것같은 김일성주석의 제안을 듣고보니 그이께서 하시는 일이 민첩하실뿐아니라 빈틈이 없으시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김일성주석님의 제안이 남조선에서 〈특별성명〉이 나온 직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빨리 천명된것은 그이께서 남조선측의 움직임을 상당히 빠른 단계에서 정확히 포착하시고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계셨기때문일것이다》, 《선수를 쓰려고 한 남조선에 대하여 북조선은 조국통일구상이란 높은 수로 응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제안으로 남조선측은 충격적인 타격을 받았다》, 《조국통일에 관한 제안은 아세아와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수령님의 탁월

한 전략전술,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은 세계를 무한히 격동시킨 위대한 정치적사변으로서 그에 대한 인민들의 반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가고있다.

《조국통일의 5대강령은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5대강령에 접하여 이 강령이 무엇보다도 나라의 통일을 갈망하고있는 조선인민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환영하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어제 하신 중요한 연설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강력한 념원을 반영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침과 다섯가지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중국정부와 인민은 이 발기를 열렬히 환영하고 그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한다.》(중화인민공화국 총리 주은래)

《나는 전체 조선인민의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당신의 새로운 발기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대한 로므니아인민의 확고한 련대성과 전폭적인 지지를 강조하는바입니다.》(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수반 니꼴라에 챠우쉐스꾸)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은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표시한것으로서 참으로 현명한 방침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할 준비가되여 있다.》(소말리아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

《우리는 남북간의 대결을 없애며 나라의 두부분의 무력을 축소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키며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활동을 종식시킬데 대한 방안들이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에 맞으며 나라의 량부분을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통일하기 위한 현실적기초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고 굳게 믿고있습니다.》(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이번에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히신 새로운 방침은 완전한 통일에로 가닿는 지름길을 다시한번 천명한 위대한 강령이라고 본다.》(일본예술원 회원이며 작가인 이시가와 쥰)

《우리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안들이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우리의 신뢰를 표시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표명합니다》(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구체적이고도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은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매우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이며 그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방안으로서 나는 이를 열렬히 지지한다.

특히 김일성주석님께서 대민족회의를 열고 남북의 두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단일 국호로써 고려련방공화국을 창설하자고 하신 제의는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민족적방안이다.》(일본2원구락부소속 참의원의원 노즈에 가즈히꼬)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두개 조선론〉을 비롯한 온갖 조선분렬 고정화책동을 반대하며 평화통일은 반드시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새로운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내놓으시고 통일도상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이 통일강령은 철저하게 합리적이며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방안이다.》(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 의장 이찌가와 마꼬도)

《당신께서 내놓으신 5대강령은 통일된 하나의 조선에서 다같이 행복하게 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조선인민의 민족적 강령으로 됩니다.…

당신께서 제시하신 통일방안은 거의 30년동안이나 분렬의 검은 구름이 뒤덮여있는 조선의 하늘에 통일의 서광을 안겨주며 아직도 분렬이냐, 통일이냐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는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애국적인 구국방안입니다.》(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 로베르또 비에찌)

《우리들은 주석각하께서 천명하신 5대강령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량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접수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이라고 인정합니다.

특히 남조선당국자들이 〈두개 조선〉의 유엔가입을 주장하는 시기에 주석각하께서 제시하신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에 의한 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을 내용으로하는 새로운 방안은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나라를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념원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일치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일본선박 《제1유세이마루》 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후지야마 마사지)

《주석님께서 새로이 천명하신 이 강령은 조선인민과 청년학생들의 민족적 념원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강령일뿐만아니라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진보적청년학생들의 념원을 반영하고있는 조선의 평화적통일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강령이다.

국제학생동맹서기국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커다란 힘의 시위로 되며 조선의 통일위업과 세계평화위업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한다.》(국제학생동맹서기국성명에서)

《김일성원수님께서 력사적인 6월 23일 연설에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에 관한 제안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제안이다. 이것은 실로 아세아와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로 된다.》(벨가리아통신사 일본특파원 다니엘라 까네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커다란 타격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광범한 사회계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면서 이 방안은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고 한결같이 표명하였다.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함으로써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음모책동을 견결히 규탄합니다.》(민주월남 총리 범문동)

《이 5개항목방침은 지평선우에 높이 솟아오르신 해방의 태양, 유일한 민족적영웅이시며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을 우러러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열정과 희망으로 부풀게》 하고있으며 《조선인민의 원쑤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고있으며 매우 겁나하고있는바 그것은 그들의 부정당하고 비법적이며 호전적인 립장이 완전히 폭로되였으며 세계인민의 압력과 규탄에 더는 견디지 못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남조선의 괴뢰도당이 《〈두개 조선〉을

인정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자 김일성주석께서는 인차 하나의 조선 즉 고려련방공화국이란 구상을 내놓으시였다.… 박정희의 〈성명〉은 나오자마자 된서리를 맞았다.》(일본 《요미우리신붕》에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대단결을 실현하며 그것에 기초하여 고려련방공화국을 창설할데 대한 제안은 실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것이다.

대민족회의를 열어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며 하나의 조선으로서 유엔에 가입할데 대한 주석님의 말씀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의 음모책동에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일본교직원조합 위원장 마끼에다 모도후미)

《김일성주석님께서 6월 23일에 제시하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은 력사의 전환을 소리높이 알리는 환영곡인마냥 우리들의 가슴에 울려퍼진다.…

이 방안은 두개 조선을 만들고 분렬을 고정시키려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에 대한 큰 타격으로 된다.》(일조문화교류협회 리사장 다까기 다께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번 연설에서 7. 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의연히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군사적도발을 강화해온 박정희 〈정권〉의 반애국적인 기도를 폭로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유엔 〈동시가입〉 등의 음모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시였다.》(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김일성주석님께서 새로이 천명하신 5개항목의 방안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낡은정책에 강력한 타격으로 될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평화통일로선의 또하나의 커다란 승리로 됩니다.》(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위원장 교수 트루그베 게스를란드, 서기장 게오르그 요세프)

《이것은 조선의 통일을 위한 옳바른 방침이며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견결한 립장과 위대한 목표를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노력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되며 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실천적대답으로 되는것입니다.》(수리아아랍공화국 인민군사령부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군중집회 참가자일동으로부터 보내여온 편지에서)

《이 제안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명백히 반영하고있으며 통일문제를 인민들과 세계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에 리용하는자들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하여준다. 이 제안들은 남조선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정책을 폭로하며 동시에 인민들에게 박정희를 두목으로 하는 미제의 앞잡이들의 정체를 폭로하고있다.》(범아프리카대회 민족집행위원회 성원인 대외사업부 비서 빅또르. 엘. 마예키쏘가 발표한 성명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은 생떼를 쓰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행동해야 할것이며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히신 새로운 조선통일방안에 당장 호응해나서야 할것이다.》(카나다 기자 대비드 콘드)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들을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세계정세가 또 이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합법적정부라고 인정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말고 이제라도 새 강령에 의한 민족화해의 길로 들어서는것이 좋을것이다.…

미제의 조선내정간섭을 끝장내야 한다. 미제는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하며 유엔은 조선의 통일에 유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꾸바에 있는 뻬루사회활동가 레날도 가르씨아 고메의 담화에서)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조선의 분렬을 고정화하려는 악랄한 책동은 주석님께서 밝히신 력사적인 연설앞에서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다.

조선은 유엔에도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서 가입해야 할것이며 이것을 막아나서려는 음모책동은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견결한 규탄을 받을것이다.》(일본 경제평론가 기무라 기하찌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우리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조선인민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울이시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그이의 령도밑에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정의의 투쟁을 벌리고있는 조선인민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언제나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며 그이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방침들을 지지할것이다.》(수리아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

《남반부인민들이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멍에에서 벗어나 각하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를 받으면서 살아갈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입니다.》(파키스탄 《타미르》신문사 사장 나씸 휴마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영웅적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이며 조선인민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라틴아메리카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에서 보내여온 편지에서)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에는 아직 허다한 장애가 조성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주석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5대강령의 실현을 위하여 힘찬 운동을 벌리고있는 조선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저는 확신하고있습니다.》(일본니이가다시장 와다나베 고따로)

《우리 선원들은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의 통일문제도 바로 조선사람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그 누구도 여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것을 견결히 주장합니다.

우리 선원들은 주석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이 두개로 분렬된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조국통일5대강령을 지지하는 흥남항에 머무르고있는 외국선박선원들의 공동집회 참가자일동으로부터 보내여온 편지에서)

《당신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안전을 생각하시고 인민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시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여 오시였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대화의 막뒤에서 세계평화를 계속 위협하며 조선의 통일위업에 더욱더 어려운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조만간에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시고야말리라고 확신합니다.》(칠레북부종합대학 대표 우고 모레노베탐따)

《5대강령의 정당성은 유엔으로 하여금 조선의 남반부를 강점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게 할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공동성명과 특히 5대강령이 가까운 앞날에 실현될것을 축원합니다.》(알제리에 있는 브라질투쟁단체대표부성원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대표하여 책임자 바아르도 데마띠야바또)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공화국북반부를 지켜낸 영웅적조선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자기의 념원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합니다.》(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혁명리사회 위원장 겸 재정비서 자손 모요)

《세계평화애호인민들,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은 그이께서 내놓으신 모든 새로운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그것이 세계평화위업에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인정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형제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귀중히 여기고있는 우리들, 아프리카의 해방투사들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것이다.》(알제리에 있는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의 부대표인 이나씨오 쎄메도의 담화에서)

이 모든 사실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이 오늘 세계인민들의 심장을 굳게 틀어잡고있으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속에서 반드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방침을 전세계 인민들이 적극 지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 그리고 미국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함이 없이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도 없다는것을 밝히고 조국통일의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방침과 요구들이 실현될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며 협조하여줄것을 모든 평화애호 나라들과 인민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조선인민과 나아가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의사를 반영한 우리의 이 호소는 국제적으로 새로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단행본, 11~12페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념원에 부합되게 성과적으로 촉진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이룩되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내정간섭이 결정적으로 종식되여야 한다는것을 지적하고 미군이 지체없이 남조선으로부터 철거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체되여야 한다는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당면하여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5개항목의 제안과 북과 남사이의 끊어진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고 통일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고 조국의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이 지체없이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조국통일문제를 심의하고 채택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미국국회에 보내는 편지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분렬을 지속시키며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 기본요인을 제거하고 조선인민 자신의 손으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 평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전세계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적극적인 지지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진심으로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편지를 보내여왔으며 중국의 광범한 언론, 사회계에서 우리의 정당한 립장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쏘련의 광범한 사회계와 많은 출판물들이 또한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발기가 가지는 의의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적극 지지하여 나섰다.

이밖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의 많은 나라 국회들과 정부들 그리고 국가지도자들로부터 최고인민회의의 편지에 귀중한 지지와 동정을 표시하여 회답편지들과 전문들을 보내여왔으며 성명들이 발표되였다.

또한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꾸바상주 미국인련맹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각종 단체들은 이 편지를 지지하는 성명과 공동성명, 전문, 편지들을 보내여왔으며 스웨리예공산주의청년동맹 제30차대회와 단마르크공산주의청년동맹 제30차대회는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뿐만아니라 수많은 나라 통신들과 방송, 텔레비죤 등 각종 보도수단들이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의 편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 사회단체, 국제기구 및 진보적인사들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의 편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민족적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대변한》문헌으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리익과 극동에서의 평화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문헌으로 인정하면서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안을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적극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세계의 여러 나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사회계, 언론계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의 조선침략정책을 폭로규탄하고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올해 유엔총회에서는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으로부터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유엔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될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참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회답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통일문제가 오래동안 해결되지못하고있는것은 미국의 간섭및 방해책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자기의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남조선의 군사력을 끊임없이 증강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다.

특히 조선의 남북쌍방이 대화를 진행하고있는 현정세하에서 미국은 더는 자기의 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킬 리유가 없다.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은 일관하게 미국이 응당 자기의 군대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선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지하여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반드시 해체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최고쏘베트와 민족쏘베트에서 보내온 회답편지에는 《우리는 4분의 1세기이상이나 지속되고있는 비정상적인 조선의 분렬의 주되는 원인이 조선인민의 내정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간섭에 있으며 또한 미국이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간섭하고있다는 당신들의 확신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는 쏘련최고쏘베트가 조선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종식시키며 미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며 사실상 제국주의도구로 되고있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자기운명을 자신이 해결할 조선인민의 합법적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전체 조선인민의 정당한 요구를 견결히 지지한다는것을 다시금 성명합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의원으로부터 보내여온 편지에는 《미강점군을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합니다.》라고 강조되였다.

스웨리예공산주의청년동맹 제30차대회에서 채택된 조선에 관한 결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제가 조선인민자신이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국군대를 철거시켜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해체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설서기국이 발표한 성명에는 《금년 유엔총회에서는 남조선에 있는 미국군대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유엔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될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를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국인 학자 대비드 톰프슨은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키고있는 가장 주되는 원인이 미군의 남조선강점에 있다는것은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그 어떤 리유도 있을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도록 하는것은 성숙된 요구로 나서고있다. 미국당국자들은 무엇보다 조국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것을 말로써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일본평론가 아라 마사히또는 《조선은 외세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분렬되고 분렬은 근 30년이나 지속되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해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며 미제의 부추김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끊어버려야 한다.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모든 외세는 조선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사회계는 당면하여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우리가 제기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남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 등을 예견하는 우리의 5개항목제안의 조속한 실현과 북과 남사이의 끊어진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고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고 조국의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각 분야에 걸쳐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이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민족회의 대외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무력증강을 그만두며 호상 군대를 줄이며 외국으로부터 무기와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며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제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국통일을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들과 노력을 시종일관 지지하는 로므니아의 립장을 다시금 천명합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인민회의에서 보내온 편지에서는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인민회의는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군비경쟁을 그만두고 북과 남의 군대를 동시에 축소하며 량측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당신들의 제의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합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뽈스까인민공화국 쎄임으로부터 보내온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들은 뽈스까인민공화국 쎄임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편지에 대한 회답으로 편지에 담겨진 귀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열렬히 지지한다는것을 천명하는바입니다.》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로부터 보내온 편지에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5개항목의 제안은 모든 평화애호나라들의 리해와 지지를 받을만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해결책의 확고한 기초로 되며 세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로 됩니다.》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꾸바상주미국인련맹에서는 《꾸바에 있는 미국인들은 미제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고 하였다.

꾸바에 있는 콜롬비아상주인동맹은 자기성명에서 《조선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내놓은 일련의 제안들은 자기문제는 자기자신이 개척해나갈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한 정당한 방안들이며 북과 남 사이의 통일을 전진시키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현명한 조치이다.》고 강조하였다.

캄보쟈인민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는 《…북과 남사이에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및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을 중지시키고 평화적으로 자결권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랑하는 자기 조국을 통일시킬데 대한 가장 절실한 념원을 이룩하기 위한 형제적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언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열망하는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우리의 호소와 새로운 발기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코 실현하려는 공화국의 진지한 립장의 표시로, 인민들의 지향과 현정세발전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으로 이를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미군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남조선에서 즉시 물러가야한다는것을 한결같이 주장해나서고있다.

우리 인민은 반드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정부,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회답편지들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국회와 정부, 국가지도자들과 정당, 사회단체인사들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호바르 하싼 알 바크르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쉘 미홈베로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 국가 수반 마리엔 느구아비소좌

칠레공화국 대통령 쌀바도르 알옌데

우루파이사회당 총비서 라몬 마르띠네스

아랍법률가동맹 서기장 샤피크 아르쉬디르

라왈핀디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꾸바《보천보도서관》관장 에두아르도 오도노싸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모리따니인민당 전국정치국성원 바 알라싼느

아프리카에서 공부하고있는 서아프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아세아아프리카주택기구 서기장 아브델 하미드 엘 잔딸리

말리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일동

인도 《세계협조및 문화련계련맹》위원장 디. 피. 마해쉬와리

일본선박 《고후꾸마루》의 《김일성주석로작애독회》회원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이즈미 시게요시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행정비서 모세스 엠 가로에브

인도조선국회친선협회위원장 국회의원 에스. 에스. 모하파트라

일본 에이와기선주식회사 선박 《에이메이마루》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요시나가 시노루

짐바브웨 아프리카인민동맹사회공보비서 디. 지 실룬디카

전인도청년련맹 총서기장 씨. 케이 찬드라판, 전인도대학생련맹 총서기장 라나지트 구하

희랍선박 《파나기오리스》호 선원일동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투쟁집행리사회 상무위원 아리스띠데스 뻬레이라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총서기장 국회의원 어머르 나르비디 아럼까르, 서기장 옴프 라카쉬만트리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우떠르 쁘러데쉬주 지부 총서기장 비산 카푸르

전인도조선친선협회 봄베이시지부 위원장 티. 고디왈라

총서기장 엔. 케이. 노리알

꾸바에 있는 아이띠공산주의통일당조직

레바논조선친선협회

이라크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박사 싸아둔 할리파 티크리티

팔레스티나혁명정치위원회

다르 에스 살람 주재 앙골라인민해방운동 대표 앙브로 이떼

다이니찌붓산주식회사대표 취체역 야마구찌 가즈오, 《제38헤이와마루》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야마시다 가네이이찌

레바논 《두스투르》잡지사 사장 겸 주필 알리발루트

인도국회상원의원 하쉬네오 말라비아, 하원 의원인 아르. 케이. 싱하 사시부선

소말리아선박 《골든 크리산세믐》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홍춘기

일본선박 《이마하꾸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후지와라 구마기찌

《조선에 대한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한 월간》에 즈음하여 가진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핀란드 해멘린라시군중집회 참가자 일동

레바논 넛쟈드당 총서기 《쏴우트 오르바》신문편집국장 이브라힘 샴마스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운동

세계민주청년련맹뷰로

일본 가나가와현 지방로동조합 평의회 의장대리 후지이 데루오

유고슬라비아선박 《오피리쟈》호 모든 항해사들과 선원들의 이름으로 선장 스로크 카프 미로

일본전국혁신시장회 회장 아스까다 이찌오

파키스탄 《씨하브》신문사 주필 글자르 아화키

파키스탄 《마싸와트》신문사 업무부장 이나둘 후까지

파키스탄 《에일리 싸야싸트》신문사 주필 아싸드 챠우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상무위원회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알바니아내각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련방회의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뽈스까인민공화국 쎄임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남아프리카민족대회 대표부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지도위원회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 부위원장 존젤데 젤스트로, 서기 칼피구두 문드슨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최고쏘베트 련맹쏘베트 의장 아. 뻬. 쉬찌꼬브, 민족쏘베트 의장 야. 에쓰. 나스리지노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민족회의 의장 슈데판 보이떼끄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인민회의 의장 박사 블라디미르 보에브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의원 의장 게랄트 괴팅

몽골인민공화국 대인민후랄 의장 드제베그미드

웽그리아인민공화국 국가회의 의장 아쁘로 안딸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웬우수

재 일 조 선 공 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익과 우리 민족의 당면 최대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1973년에 총련은 백전백승의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륭성발전을 위한 숭고한 애국애족운동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렸다.

이해 총련은 간부들과 동포대중속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에 기초한 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굳건히 하였으며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영예롭게 지키였다.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60만 재일동포들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으며 일본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층 인사들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진보적인민들과의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발아래 자기의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일관한 애국적활동을 통하여 총련은 이해 60만 재일동포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며 우리 인민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애국적조직으로서 세계해외교포운동력사에 빛나는 주체조선의 권위있는 해외공민단체로서의 그 이름을 더욱 영예롭게 떨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 배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6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일 조선공민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 조선공민들을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해외 조선공민들의 리익과 민족적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것이며 해외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6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민족적애국운동으로서의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지도리론을 제시하여주시였으며 매시기 총련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일군들과 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며 그들에게 온갖 육친적배려를 다 돌려주고계신다.

해외에서 사는 재일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총련사업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1973년에도 재일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을 깊이 심려하시고 총련애국사업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킬수 있도록 온갖 극진한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이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신년사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동지에게 보내신 새해축전을 통하여 총련이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교시를 주신것을 비롯하여 조국을 방문하는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교시들을 그때마다 주심으로써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등대처럼 환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몸소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재일조선동포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더욱 확고히 보장하여주시고 그들의 애국적활동과 민족적권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국가적조치를 거듭 취하여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과 방문의 길을 계속 열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위업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그로록 바쁘신가운데서도 천금보다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이해 조일수출입상사대표단과 동해상사주식회사대표단(2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한 우리측 자문위원과 재일본조선인기자단(3월 19일), 총련결성열여덟돐기념 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5월 26일), 제9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6월 30일), 재일조선상사대표단과 남북적십자회담을 취재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기자단(8월 4일), 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과 조선대학교음악체육소조조국방문단(8월 31일), 공화국창건스물다섯돐재일조선인축하단(9월 8일), 국제기자동맹집행위원회회의에 참가하였다가 조국에 온 재일조선인기자대표단(10월 15일), 제11차, 제12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과 재일조선인과학자협회대표단, 재일조선상공인생산품전시회참가대표단(10월 17일), 제8차 세계직맹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11월 9일), 제2차 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11월 19일), 제1차 재일동포녀성조국방문단(12월 16일), 공화국국적법발포 열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대표단(12월 22일) 등 조국을 방문한 총련의 간부들과 애국적상공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재일동포들을 꽉꽉 만나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실로 이해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국에 온 수많은 총련대표단과 방문단을 일일이 다 만나주시며 참관일정과 잠자리, 건강에 이르기까지 친히 알아보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조국방문동포들의 생일잔치까지 성대히 차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도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시는 어버이심정으로 조국을 누구보다도 그리워하는 재일동포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조국의 수많은 대표단들을 거듭 보내주심으로써 재일동포들이 이국땅에 살면서도 조국의 뜨거운 숨결을 언제나 느끼며 살며 일하도록 하여주시였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해에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을 일본에 보내주시여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 살며 나아가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끓어넘치게 하여주시였다.

재일동포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한해에도 몇번씩 거액의 교육원조비를 보내주시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해에도 2월과 4월, 7월, 8월, 12월 다섯차례에 걸쳐 17억 5천 593만 2천 300원(일본돈으로)이나 되는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그리하여 그이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1957년부터 이해말까지 쉰두번에 걸쳐 146억 4천 807만 8천 533원(일본돈)의 막대한 금액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고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5차회의가 있은때(6월 27일)로부터 제6차회의가 있기까지(11월 15일)기간에만도 680여점에 달하는 민족악기와 교재, 교구들을 보내주신것을 비롯하여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을 위하여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내외원쑤들의 탄압박해책동이 감행될 때마다 그를 규탄케 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도록 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본의 경제형편이 어려워져 재일동포상공인들이 곤난한 처지에 놓이게 된것을 가슴아파하시고 조국에 의거하여 원료와 판로를 해결할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돌려주심으로써 재일동포상공인들에게 기업활동의 새로운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일수출입상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 상사에 1972년과 1973년 상반년도 사업비로서 1억 7천 367만 9천 1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총련사업을 높이 평가하여주시였으며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거듭 국가표창의 영예를 안겨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해 사로청창립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2개의 재일조청조직들과 12명의 조청원들에게 그리고 조선대학교를 졸업하는 12명의 학생들과 8월에 조국을 방문한 조선대학교 5명의 학생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하여 주시였으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상공인들에게 국가수훈의 높은 영예를 안겨주시는 두터운 신임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7월 10일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단성원들에게 축하문과 선물을 보내주신것을 비롯하여 인도 칼커타에서 열린 아세아교원직맹토론회에 참가한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 로므니아의 수도 부꾸레슈띠에서 열린 국제교원직맹제10차대회와 기술교육 및 직업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한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성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는 등 각계층 재일동포들과 청년학생들의 대표단들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제무대에서 마음껏 활동할수 있도록 극진히 보살피주시였다.

참으로 수령님께서는 이해 천리혜안의 탁월한 예지로 총련사업발전의 본질적요구를 통찰하시고 가장 정확한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운 어버이사랑으로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는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땅의 어렵고 복잡한 자본주의적환경에서 생활하며 투쟁하는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그들에게 지칠줄모르는 힘과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였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있고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백전백승의 주체사상과 해외교포운동사상이 비쳐지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사랑의 손길이 잇닿아있기에 자기들에게 오늘의 영광이 있고 래일의 보다 큰 승리가 약속되여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위대하신 수령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정으로 가슴불태우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축원하고 있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앞길에 휘황한 빛을 뿌리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원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깊이 심려하시여 따뜻한 어버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원수님의 은덕을 생각할 때마다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이 부풀어오릅니다.

오늘의 이 기쁨, 이 행복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원수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

총련 가나가와현 한 녀성이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을 새로 보다 정중히 꾸리고나서 한 이 말은 바로 전체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하다.

총련 효고현본부관하 원동포는 지난날 나라없는 백성으로서 일제놈들에게 온갖 학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재일동포들이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 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 드높이 떳떳하게 살며 싸우고있는 오늘의 행복한 처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있는 우리처럼 행복한 해외공민은 이 세상에 더는 없습니다.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이국땅에 살면서도 이처럼 국제적으로 권위있고 존엄있는 총련조직의 지도밑에 학교도 명실하게 일떠세우고 신문도 내며 금융기관도 가지고 체육과 민족예술도 꽃피우면서 민족의 기개와 슬기를 떨칠수 있습니다.

하늘의 높이와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는 수령님의 높은 은덕과 배려에 어떻게 보답하였으면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재일동포들은 오늘의 행복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가장 가슴깊은곳에서 우러나오는 최대의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수령님의 령도를 받으면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갈 드높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 비록 늙었으나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조국통일을 비롯한 총련애국사업에 기꺼이 한몸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수령님을 모시고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아가렵니다.》

《내몸은 비록 민단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쏠리고있습니다.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이야 어찌 낸들 다름수 있겠습니까》

총련 에히메지부관하에 사는 한 《민

단》영향하의 동포의 말이다.

참으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은 모든 재일동포들의 마음속에서 불타고있는 고결한 사상인것이다.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해가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를 더욱 가슴 뜨겁게 간직하고 거기에서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고 승리와 영광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무엇보다도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자기의 모든 조직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총련은 1973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총련의 대오를 일색화하는것을 첫째과업으로 내세우고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모든 재일동포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노력하여왔다.

총련은 이해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모든 조직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주체사상교양, 혁명전통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정치사상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왔다.

총련은 무엇보다도 일군들과 동포들속에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힘썼다.

총련은 이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비롯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 특히 총련사업부문에 주신 교시를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고 총련의 모든 단위에서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도록 수령님의 교시관철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웠다.

그리고 《올해를 학습을 더 많이 하는 해로 하자》라는 구호밑에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서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의 진수와 기본사상, 중심내용을 깊이 파악하기 위한 자체학습과 집체학습, 강의와 토론을 짜고들면서 수령님의 로작원문과 총련사업에 주신 교시들을 통달하는 운동을 벌리였다.

특히 매주 진행되는 토요집체학습과 수요간부강연, 간부들의 정치리론수준제고를 위한 10일간 강습을 실속있게 조직함과 동시에 매일 2시간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였다.

총련은 이해 자기의 모든 조직들과 산하 단체, 사업체, 각급 기관마다에 꾸려놓은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을 보다 더 정중히 꾸리고 이를 거점으로 일군들과 동포들이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활동 전로정을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학습하도록 하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더욱 심화되여감에 따라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속에서는 혁명적학습기풍이 더욱 튼튼히 서게 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속에서는 수령님의 교시가 나오면 먼저 교시가 나오게 된 력사적환경과 그 진수, 기본내용을 완전히 파악할때까지 반복 연구학습하게 되였으며 수행방도를 찾아내고 그에 기초하여 교시를 끝까지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수십번 읽고 전문을 옮겨쓰기, 총련사업에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들을 통달하기 위한 운동이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 교원들과 청년학생들, 나어린 소년단원들을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 속에서 힘있게 벌어진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이해에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각종 단기학습회에 그 전해보다 2배나 더 많은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으며 수령님의 로작을 전문 옮겨쓰며 통달하는 운동에 4천여명의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떨쳐나선것은 총련 효고현에서만 있은 일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100일간운동》 기간 매일 아침 분회사무소에 모여앉아 수령님의 로작과 교시 학습을 꾸준히 한 분회일군들과 동포들이며 온 가족이 모여앉아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학습하고있는 사실들은 총련조직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현상이였다.

총련 사이다마현 남부지부 아오끼분회일군들은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100일간운동》 기간에만 하여도 《김일성저작선집》 1권~5권까지를 전부 연구학습하였으며 수령님께서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원들을 만나시고 하신 교시, 재일동포상공인 조국방문단에게 주신 교시들을 관하 모든 동포들에게 제때에 알려주고 그들이 수령님의 교시대로 생각하고 일하도록 적극 힘썼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줄기찬 학습을 통하여 일군들과 동포들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필승불패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끝없는 영예와 긍지에 휩싸이면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오늘 총련의 모든 사업은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일군들과 동포들의 헌신적노력으로 일관되고있다. 일군들과 동포들은 어떤 사업을 벌리든지 해당 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에 튼튼히 립각하여 사업하며 활동과정에서 부닥치는 문제해결의 방도도 수령님의 교시에서 찾는것을 활동준칙으로 삼고있다.

또한 총련은 이해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조직진행하였다.

이해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서 위대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감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며 총련의 애국사업에 모든 열성을 다 바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더욱 강화하였다.

총련은 이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한돐을 민족 최대의 경사로 맞이하는 사업, 수령님께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신것을 민족적경사로 축하하는 사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전동포적인 사업으로 조직진행함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위대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한없는 영예와 행복감으로 끓어넘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총련은 평양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하여 조국대표단의 환영상봉모임, 환송사업, 공화국창건스물다섯돐재일동포축하단을 비롯한 각종 조국방문단의 귀환보고모임, 귀국선《만경봉》호와 무역선 《만경봉》호 환영환송사업과 견학사업을 조직진행하여 많은 동포들을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끝없는 영예와 민족적자부심으로,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으로 교양하였다.

이해 총련은 조선사람찾기운동을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전동포적인 운동을 힘차게 벌리면서 성인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수많은 동포들을 우리 말과 글을 알게 하고 그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열성자로, 일군으로 키워냈다.

또한 총련은 일본 전국각지에 꾸려놓은 강연구를 통하여 대중강연사업을 제때에 조직진행하고 5호담당제에 의거한 선전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전취사업을 힘있게 벌려 동포들에게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민족자주의식을 안겨주고 그들을 애국운동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총련이 지금까지 출판한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님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 210여만부,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자료 100여만부 등 각종 서적들은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해 전체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우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살며 일할 투쟁결의로 가슴불태우면서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답게 총련애국사업에 더욱 헌신하였다.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불패의 통일단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 조선동포들은 반동들의 온갖 분렬파괴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 총련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총련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싸워나가야 할것입니다.》(1973년 《신년사》 단행본, 14페지)

이해 총련은 일군들과 동포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웠으며 총련의 모든 조직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에 기초한 대렬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굳건히 하였으며 자기 조직을 우리의 민족적위업에 복무하는 해외공민조직으로 더욱 믿음직하게 꾸려놓았다.

이해 주체사상에 기초한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원칙적단결의 보다 공고화는 밖으로는 내외반동들의 탄압과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안으로는 종파분자, 변절자들의 와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총련의 정력적이며 꾸준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힘차게 나아가는 총련을 파괴하기 위하여 미제의 졸개 리영근일파는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지시에 따라 온갖 비렬하고 추잡한 모략소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총련대렬에 기여들어 딴꿈을 꾸면서 분파행동을 일삼다가 쫓겨났으며《두개 조선》을 조작하고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60만 재일동포들을 더욱 가혹하게 박해탄압하려는 내외 반동들의 완전한 앞잡이들이며 변절자들인 김영근, 하수도 등 보잘것없는 몇몇 종파분자들은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문서장까지 여기저기 돌리면서 총련간부들을 비방하고 총련의 성과를 헐뜯으며 그의 정당한 활동방침을 시비하느라고 부산을 피우며 돌아쳤다. 내외반동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리석게도 동포대중사이에 쐐기를 박고 총련을 약화시키며 그의 전진을 가로 막아보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휘황한 빛발아래 총련이 이룩하고 있는 자랑찬 성과를 통하여 총련활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가슴깊이 새기고있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총련조직을 옹호하며 더욱 강화할 자기들의 불같은 결의들을 훌륭히 실천해나갔다.

총련일군들은 위대하신 수령님께 무한히 충성다하며 그이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헌신적인 실천투쟁속에서 서로 단결하는 한편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낡은 사상경향과 대렬의 통일단결을 저애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원칙적인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벌렸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교시를 기준으로 하여 매일 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을 총화하는것을 정상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벌려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기관과 단위들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며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형식적이며 무책임한 현상과는 타협없이 강하게 투쟁하였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일군들속에서는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기풍이 날로 서갔으며 총련애국사업에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혁명가적 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이해 총련의 간부 일군대렬은 수령님께 충직한 일군들로 보다 튼튼히 꾸려졌으며 각급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은 한층 높아졌다.

이해 총련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하여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총련애국사업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총련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누구나 사람과의 사업대상을 가지고 아래에 내려가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걸리고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여 풀어주도록 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천이 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더 많은 동포들을 교양개조하여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일군들속에서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극복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사업하려는 기풍이 훨씬 높아졌다.

총련은 이해 간또지방을 비롯한 5개지방에서 종래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조직진행한 총련분회열성자 제12차대회에서《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100일간운동》을 군중적으로 총화하고 그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분회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하고 분회조직을 보다 튼튼히 꾸려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분회를 늘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튼튼히 꾸리고 5호담당제를 정비강화하며 성인학교와 청년학교사업, 출판물을 통한 교양사업, 문예, 체육 사업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동포들과의 사업을 더 폭넓고 깊이있게 짜고들었다.

조청, 녀맹, 상공회를 비롯한 총련의 산하단체 조직들도 정치사상교양단체로서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전취하는 사업에서 자기의 역할을 한층 높이게 되였다.

총련의 각급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짐으로써 재일동포들은 일편단심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밑에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총련애국사업에 온갖 열성을 다 발휘하였다.

재일동포상공인들 속에서는 자기들을 애국적인 상공인, 진보적인 상공인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조국의 사회주의건설과 총련애국사업에 보다 헌신적으로 나섰다.

총련은 자기 력량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조선사람찾기운동》을 전군중적으로 강력히 벌림으로써 더 많은 동포들을 교양전취하였다.

특히《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100일간운동》기간에 《조선사람찾기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 수많은 동포들에게 영광스러운 주체조선의 민족적자각과 긍지를 안겨주고 그들을 총련조직에 묶어세움으로써 총련대렬을 더욱 확대하였다.

총련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지부 아이오이분회는 산하 미조직동포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총련대렬에 인입하여 이해 대렬확대지표를 200%로, 나라현본부에서는 총련대렬확대지표를 185%로 넘쳐수행하였으며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지부 후루까와분회에서는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한명의 미조직동포도 없는 분회로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기 대렬을 확대강화하고 재일동포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시키기 위한 총련의 투쟁은 집단적애국운동인 모범창조운동을 통하여 더욱 심화발전되였다.

총련의 모범창조운동은 13개의 모범지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2중모범분회와 모범분회, 산하단체와 사업체의 모범집단들을 포함한 대중적애국운동으로 한층 심화되였으며 총련의 제반애국사업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수령님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통일단결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총련의 모든 조직에는 주체의 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총련은 어떠한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믿음직한 조직적력량으로 꾸려졌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를 위하여

이해 총련은 재일조선공민들의 공화국공민권, 기업권과 귀국의 권리를 비롯한 제반 민족적권리를 굳건히 지키고 사회주의조국과 제3국에로의 자유래왕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민주주의적민족교육체계를 더잘 갖추고 후대들을 수령님께 충직한 아들딸로, 지덕체를 갖춘 민족간부로 믿음직하게 교양육성하였다.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은 이해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응당한 자주권과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 민족적권리인 공화국공민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이해 미제의 부추김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과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일환으로서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박해탄압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년간 3~4만명의 남조선방문을 조직하고 《일반영주권신청》과 괴뢰국적 및 《귀화》 강요책동을 벌려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족적분렬과 대립을 조성하고 정치적박해와 《동화》를 강요하려는 악랄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총련은 내외반동들의 《일반영주권신청》놀음과 《귀화》강요책동을 반대하고 공화국공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렸으며 특히 괴뢰국적을 차던지고 영광스러운 공화국국적을 도로 찾는 운동을 전동포적으로 벌렸다. 그리하여 9차전체대회로부터 10차전체대회가(1971.1~1974.2) 있기까지 기간에 도합 1만여명의 동포들이 괴뢰국적을 차던지고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되찾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족분렬을 노리던 내외반동들의 음흉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렸다.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이 민족권리옹호에서 달성한 성과는 또한 일본반동정부의 집요하고 악랄한 《출입국법》조작음모에 치솟는 분격을 안고 이를 짓부시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출입국법》조작책동을 네번에 걸쳐 분쇄한것이다.

일본당국은 현행《출입국관리령》을 방패삼아 1952년부터 1970년까지에만 하여도 무려 2만 4천여명의 조선동포들을 일본에서 남조선으로 강제추방하였으며 수많은 동포들에게 각종 형벌을 가하였으며 총련과 산하단체 및 그 성원들에 대한 파괴모략책동과 가혹한 탄압을 감행하였다.

총련은 현행《출입국관리령》과 본질상 하등의 차이도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더욱 교활하고 음흉하게, 악랄하고 집요하게 총련조직을 탄압하고 재일동포들의 사회활동과 기본인권을 압살하여 대량추방하려는 목적밑에 감행된 류례드문 파쑈적악법인 《출입국법》조작책동을 반대하여 북은 혹가이도로부터 남은 오끼나와에 이르는 동포들이 사는 곳곳에서 집회, 시위, 요청행동항의엽서, 편지보내기, 청원서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광범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년초부터 근 아홉달동안 대중요청과 대회, 시위행진 등 연 8만명의 재일동포들이 《〈출입국법안〉을 철회하라!》, 《재일동포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들고 추운날, 비바람부는날, 삼복더위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악법반대투쟁에 떨쳐나섰다.

이리하여 총련은 《출입국법안》을 네번이나 폐안으로 몰아넣은 자랑찬 성과를 거둠으로써 주체사상에 기초한

총련대렬의 통일단결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였으며 재일동포들의 애국적사회활동의 자유를 굳건히 보장하고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견결히 옹호하였다.

총련은 자기의 조직을 내외반동들의 파괴모략책동으로부터 지키는 투쟁, 동포들과 학생들에 대한 살상, 집단폭행, 체포, 강제추방을 막아내며 인권, 생활권을 지키는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6월 11일 일본고꾸시깡대학 학생들과 이 대학 부속고등학교 학생 약 50명은 신쥬꾸역구내에서 쇠몽둥이 등 흉기를 내저으며 《조선놈들아 가라》, 《때려죽인다》라고 웨치면서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에게 집단적인 폭행을 가하여 5명의 조선학생들이 중상을 입었으며 그외의 학생들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

6월 12일 저녁에도 고꾸시깡대학 및 이 대학 부속고등학교 학생들 20여명은 도꾜 다가다노바바역에서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중 7명에게 심한 상처를 입혔다.

일본당국이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재일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본학생들의 폭행건수는 1971년에 126건, 1972년에 142건에 달하였으며 이해에는 그것이 더욱 늘어났다.

총련은 재일동포자녀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사건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내외반동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동포학생들의 생명과 통학의 안전을 굳건히 보장하였다.

이해 총련은 《조선석재주식회사》를 설립한것을 비롯하여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을 굳건히 지키고 부당한 과세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각종 융자를 알선함으로써 그들의 기업활동을 적극 도와주었다.

동포신용조합은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예금운동을 적극 벌려 2천억원의 이해 예금지표를 3개월 앞당겨 9월말에 2천 85억원으로 초과 달성하는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해 1월 16일 조은에히메신용조합이 새로 창립됨으로써 35개로 불어난 신용조합은 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 122개의 점포(총련결성시 15개)를 꾸려놓고 2천 200억원의 예금액을 가진 재일동포들의 믿음직한 저축융자기관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수장성표

총련결성당시(1955.5.25)—8

총련제7차전체대회진행당시(1964. 5. 25) —22

총련제8차전체대회 진행당시(1967. 5. 24) —28

1973년 —35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예금액장성표

총련결성당시—8억 7천 600만원

총련제7차전체대회진행당시—234억 8천 900만원

총련제8차전체대회진행당시—533억 1천 800원

1973년 —2200억원

이해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11월 7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재일조선상공인생산품전시회에는 1천여종, 9천 200여점의 제품이 출품되였다.

총련은 사회주의조국과 제3국에로의 왕래의 길을 그어느해보다도 더욱 넓혔다.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 공화국국적법 발포 열돐에 즈음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의 재입국허가를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이해에만도 23차례에 걸쳐 1972년의 2배나 넘는 361명의 대표단과 조국방문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이와 함께 3번에 걸쳐 총련의 대표단이 처음으로 제3국을 거쳐 조국에 왔다가 일본으로 가게 된것을 비롯하여 6개대표단 50여명이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재일동포들의 귀국사업을 계속 보장함으로써 귀국사업이 진행된때로부터 이해말까지 69차에 걸쳐 2만 6천 802세대, 9만 1천 600여명의 동포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행복한 새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총련은 재일청소년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기둥감으로 키우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주체적교육사상과 해외교포교육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관철하여 민족교육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총련이 민족교육사업에서 달성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교육일군들속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수령님의 교육사상을 구현해나가는 힘있고 믿음직한 대렬로 꾸림으로써 재일청소년 학생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일군으로 더많이 키워낸것이다.

교육일군들은 이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적교육사상과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에 주신 강령적인 교시학습을 적극 진행하였고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창조적 열의와 적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교원들은 수령님의 1972년 8월 18일 교시를 접수한 이후 교시관철을 위한 집행대책을 건별로 세우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불타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많은 모범을 창조하였다.

교육일군들은 자체를 혁명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였으며 교육학적자질과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켰다.

총련은 이해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교육학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욱 개선하였다.

총련은 재일청소년 학생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김일성원수혁명활동》과목 교수를 비롯한 국어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과목교수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각급 학교내에 교육규률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학과경연대회를 비롯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그들의 실력을 한층 높이였다.

총련은 교수교양사업에 많은 힘을 돌리는 한편 학교내 조청, 소년단 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학생들을 조직생활과 사회실천활동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그들을 나라의 통일과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하는 힘있는 역군으로 더 잘 교육교양하였다.

총련은 조선사람찾기운동을 벌릴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재일 청소년들을 모두 진정한 조선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학교 학생대렬을 늘이는 사업을 적극 벌렸다.

이해 1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학생대렬을 늘이기 위한 50일간 통일행동을 벌린데 이어 11월을 조선사람찾기운동을 벌려 학생대렬을 확대하기 위한 월간으로 정하고 전동포적인 운동으로 광범히 벌렸다. 여름방학기간에만 하여도 일본학교에 다니는 근 1만명에 달하는 조선학생들을 하기학교에 망라하여 교양하는 등 수많은 동포들과 그 자녀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총련의 각급 학교들과 오후야간학교, 각종 성인교육망에 망라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선말과 조선력사도, 자기 나라도 알고 자기 조상도 알게 하였으며 재생의 길을 열어주었다.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과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학생들은 수령님의 교시의 한구절, 한구절을 거듭 깊이있게 학습토론하여 완전히 통달하였으며 일본학교에 다니는 조선아이들을 모두가 분공맡아 조선사람으로 만들어 나

갔다.

하마마쯔조선초급학교에서는 학생대렬을 2배로 늘이였으며 와까야마조선초중급학교에서는 지난해에 학생을 받아들인 수의 3배를 받아들이는 등 총련의 각급 학교들에서 학생대렬확대지표를 넘쳐수행하였다.

총련은 학교망을 확대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동포자녀들이 민족교육을 잘 받을수 있는 조건을 더 잘 지어주었다.

1973년 5월까지에만도 산따마조선제2초중급학교에서 유치반을 새로 내온것을 비롯하여 효고현 다찌바나조선초급학교, 오사까부 센보꾸조선초급학교, 후꾸오까현 지꾸호조선초중급학교, 교또부 마이즈루조선초중급학교, 와까야마조선초중급학교들에서 유치반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총련 가나가와현, 효고현, 교또부, 아이찌현 각 본부들을 비롯한 많은 본부들이 관하 모든 학교들에 유치반을 꾸리게 되였으며 약 70%에 달하는 총련의 학교들에서 유치반을 가지게 되였고 민족교육의 체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켰다.

총련은 이해에 오사까조선고급학교와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에 새교사를 일떠세운것을 비롯하여 12개 학교들에서 새교사와 문화회관, 체육관, 기숙사를 총예산 27억 6천만원으로 새로 건설함으로써 민족교육의 물질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려놓았다.

총련은 홋가이도로부터 규슈에 이르기까지 재일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 조선대학교와 11개의 고급학교,56개의 중급학교, 90개의 초급학교, 도합 158개의 각급 학교 등 정연한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체계를 확립해놓고 재일동포자녀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훌륭히 키우고 있다.

총련은《한 분회에 한 성인학교, 한 반에 한 청년학교》꾸리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면서 성인교육사업을 조선사람찾기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군중적인 운동으로 광범히 벌리였다.

총련은 성인교육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성인교육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한편 더욱더 많은 동포들을 성인학교와 청년학교에 망라시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배우도록 하였다.

이해 제1기 성인학교, 청년학교에 망라된 동포수만도 지난해 제1기의 145%나 되였으며 젊은 동포수는 80%나 차지하였다.

동포들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모두다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더잘 배우자》,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더잘 배워 주체조선의 공민답게 살아가자》, 《모두다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우리 말과 글을 더잘 배우자》라는 구호밑에 성인학교, 청년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배우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따라 힘차게 나아갔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1972년에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 과학자대표단에게 주신 교시를 비롯하여 그이께서 과학연구사업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재일조선인과학자들은 수많은 각종 학술연구발표모임과 론문들을 통하여 동포대중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이바지하였으며 그들을 총련애국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재일조선사회과학자토론회와 재일조선과학자학술보고회, 재일본조선학생 제18차 학과별연구토론회들에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론증하며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이 발표되였다.

9월 11일 진행된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재일조선사회과학자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본질에 대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남북련방제는 조국의 영구분렬을 방지하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과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총련사업에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등의 제목으로 연구발표토론들이 진행되였으며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재일조선과학자학술보고회에서는 사회과학분야에서 32편, 자연과학분야에서 72편, 의학과학분야에서 32편 도합 136편의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이해 도꾜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도시들에 조직되여있는 협회지부와 반들, 협회성원들의 과학연구 사업을 지도하기위하여 지부에 있는 부문위원회들, 부문위원회 산하에 조직된 수십개의 연구회 그리고 협회산하에 있는 전문연구집단들 등 재일본조선인 과학자협회 조직도 더 째이고 강화되였다.

참으로 이해 총련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재일동포들의 제반 민주주의적 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견결히 옹호하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영웅적조선인민의 민족적존엄과 사회주의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의 단합된 애국력량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위업에서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고있습니다.》

이해 총련은 우리 민족의 당면 최대의 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60만 재일동포들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해 총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비롯하여 민족의 영구분렬을 방지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이를 총련 산하 전체 재일동포들은 물론 《민단》산하 동포들에게 깊이 해설침투시키며 그들을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운동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렸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와 수령님의 력사적인 10월 28일 연설을 지지환영하여 발표한 총련중앙

상임위원회 성명을 비롯하여 조국통일 방침을 지지하는 군중대회들과 성명, 담화발표, 동포들이 사는곳마다에서 힘차게 벌어진 동포가정방문운동과 선전대활동 등 모든 사업들은 일본에 사는 조선동포들의 단합된 힘을 통일운동에로 동원하는데 크게 은을 나타냈다.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1972년에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을 지지실현하기 위하여 《민단》산하 동포들과 함께 275개소에서 각종 공동모임, 간담회를 조직한 성과에 토대하여 이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단》산하 동포들과의 단합사업을 벌리였다.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은 내외반동들의 위협공갈과 기만선전의 영향으로 총련산하 동포들과 만나는것조차 꺼려하는 《민단》산하 동포들과의 호상접촉을 우선 강화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깊이있게 해설해주었으며 공통점을 찾아내여 공동행동을 조직진행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고 그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때마다 혈육의 뜨거운 정으로 도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힘썼다. 이러한 과정에 《민단》산하 동포들은 총련일군들을 믿고 따르게 되였으며 민족단합의 분위기는 높아갔다.

총련 후꾸오까현 후꾸오까지부 동남분회를 비롯한 이 지부관하 모든 일군들이 《민단》산하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단합사업의 대렬을 종래의 3배로 늘인것을 비롯하여 이해 재일동포들과 청년학생들 속에서 민족적단합의 기운이 매우 높아졌으며 도꾜, 가나가와를 비롯한 일본각지에서 《민단》동포들과의 공동모임과 다양한 교류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총련과 《민단》의 공동주최로 7.4남북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도꾜도내 동포들의 새해공동모임(1월 25일), 도꾜도내의 다이또지역동포상공인들(1월 17일)과 교또부 본부관하의 마이즈루시 신단지역내 동포상공인들(1월 13일)의 새해 공동모임, 나고야에서 도까이지방동포과학자(1월 13일)들의 새해공동모임을 비롯하여 7.4남북공동성명발표 1주년을 기념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꾜지방동포들의 대회(7월 4일), 오사까청년들의 모임(7월 8일) 등 일본 각지에서 《민단》동포들과의 공동모임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이해 총련은 박정희매국반역의 무리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폭로규탄하는 대중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박정희반역도당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개 조선》유엔동시가입안을 들고나와 조국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하였을때 도처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리고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광범히 벌리였다. 이 서명운동에는 《민단》산하 동포들도 포함한 약 25만명의 각계층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총련은 그 서명부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서한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직접 보냄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열망하는 60만 재일동포들의 확고한 의사를 온 세계에 뚜렷이 과시하였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총련 야마나시현 중앙지부 서부분회 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은 《민단》산하 동포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밤낮을 가리지않고 찾아다니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실현하는 길만이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길이라는것을 거듭 해설해주고 《두개 조선》유엔동시가입안의 반동적본질을 까밝혀줌으로써 《민단》산하동포 100%를 서명운동에 참가시켰다.

후꾸시마현 나까도오리지부산하의 한 《민단》산하 동포는 서명에 참가하고도 시원치 않아 유엔사무총장에게 조선은 하나이며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기전에 유엔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련방제라도 실현된다음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지 결코 둘로 갈라져 들어갈수 없다고 하는 요청전보를 직접 보내였다.

재일동포들은 이러한 취지의 편지와 전보를 무려 수천통이나 보냈다.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은 이해 10월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을 뚫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광범한 인민들이 이에 합류해나섰을때 그들과 함께 투쟁대오에 선 심정으로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냈다.

11월 13일 후가이도로부터 오끼나와에 이르는 일본전국각지에서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 1만 5천여명은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을 반대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가두선전을 벌려 무려 300만장의 삐라를 뿌리였다. 이날 도꾜에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단일단체, 사업체 및 총련 도꾜도본부관하 일군들과 동포들 1천여명이 35개주요정거장들에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삐라 30만장을 뿌리며 힘찬 가두시위를 벌리였다.

60만재일동포들 모두가 《지금 내 눈앞에는 〈독재를 타도하라〉, 〈중앙정보부를 즉각 해체하라〉는 분격의 웨침소리를 높이며 원쑤놈들에게 육탄이 되여 육박해나가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용맹한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다.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전대미문의 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불같은 지향은 실현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사업에 하나같이 참가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박정희군사파쑈악당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10월 13일 2천여명의《민단》산하 동포들도 《박독재정권타도하자》,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라는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구출하며 남조선학생들의 반독재투쟁을 지원하여 주일 남조선괴뢰《대사관》에 몰려가 힘찬 시위행진을 벌렸다.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은 12월 19일 도꾜에서 범죄적인 《한일각료회의》를 그만둘것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가두선전을 벌린것을 비롯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을 단죄 규탄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참으로 이해 총련은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운을 가시고 민족지상의 위업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거족적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서서 자기의 힘을 최대한으로 합쳐왔다.

문학예술, 체육 및 출판보도사업

〔**문학예술**〕 이해 총련의 문학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총련의 애국사업에 활짝 꽃피우기 위한 문예창작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렸다.

총련이 이해까지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성과 현명한 령도, 높은 덕성을 형상한 시 《60만이 드리는 충성의 노래》를 비롯하여 시집 《충성의 노래》, 대형회전동판화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바다를 건너》, 청동조각 《귀국학생을 한품에 안아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 인민상계관작품 음악무용서사시 《조국의 해빛아래》 등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한것이다. 또한 문학예술인들은 총련의 애국적과업을 제때에 반영한 작품들인 시집 《조국하늘을 우러러》, 가곡집 《주체의 기치높이》, 희곡 《념원》, 음악무용극 《은혜로운 해빛아래》 등 많은 성과작들을 창작하였다.

총련은 이해에만도 《조국의 하늘이 바라보이네》를 비롯하여 조국통일을 비롯한 총련의 애국사업에 떨쳐나서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생활을 주제로 한 문학, 음악, 무용, 미술작품 등 주체가 서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744편의 문예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재일조선영화일군들은 총련제5차전체대회를 기록영화로 한 제1호를 세상에 내놓은 1959년부터 1973년 4월까지 《총련시보》100호를 제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련의 예술단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공연활동을 줄기차게 벌려 더욱더 많은 동포들을 총련애국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켰다.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은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의 해빛아래 세계혁명적예술의 본보기로 되고있는 조국의 눈부신 예술성과와 그리고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투쟁을 형상한 무용극 《은혜로운 해빛아래》를 비롯하여 많은 연예종목을 가지고 일본의 49도, 도, 부, 현에서 널리 공연하고 일본텔레비죤방송에도 출연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예술적화폭으로써 내외에 크게 빛내이였다.

재일조선연극단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과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총련의 애국사업에 떨쳐나서고있는 일군들과 동포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을 창작공연함으로써 그들이 총련애국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12개의 총련지방가무단들은 노래이야기 《조선사람찾기운동을 힘차게 벌려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서 공부시키자》, 《민족의 얼을 찾은 일남이》를 비롯하여 매시기의 총련의 애국과업들을 제때에 다양한 형식에 담아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 깊이 들어가 공연함으로써 총련의 기동선전교양대로서 동포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총련의 중앙예술단과 연극단 그리고 지방가무단들은 자기의 조직이 무어진 이래 이해까지 840만명의 내외관객들앞에서 8천 600여회나 공연함으로써 그들을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차넘치게 하였으며 총련애국사업수행에 적극 나서게 하였다.

총련의 예술인들과 청년학생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배려밑에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여 총련의 예술성과를 크게 시위하고 13개의 영예상과 메달을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해 총련은 각종 예술소조에 더많은 군중을 참가시키는 한편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지방예술경연대회와 중앙예술축전, 김끼지방 조선중고급학교와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의 제1차예술교류모임, 문학예술작품현상모집 등 다채로운 사업을 조직하여 문학예술을 군중적토대우에서 더욱 활짝 꽃피웠다.

공화국창건 25돐기념 재일본중앙예술축전에는 7개지역에서 진행된 지방경연대회에서 뽑힌 2천 56명의 예술소조원들이 202개의 연예종목을 가지고 축전무대에 올랐다.

총련은 영화와 음악을 비롯하여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킨 조국의 예술작품들을 그 어느때보다 널리 보급하였다.

이해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은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세계 1등급의 예술》로,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된 조국의 주체예술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예술영화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기록영화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아버지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 《압연공》 등을 동포들이 사는 모든곳에 깊이 들어가 상영하였다.

조국영화는 일본에서 거의 매일과 같이 상영안되는 날이 없을만큼 이해까지 5만여회에 걸쳐 710여만명의 동포들 앞에서 상영되여 재일동포들의 사상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동포들과 청년학생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혁명적대작들인 장편소설 《1932년》(총서《불멸의 력사》중에서)과 《배움의 천리길》, 《력사의 새벽길》 등과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 등이 보급되여 널리 읽혀지고있다.

또한 총련조직이 있고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에서나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 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불타는 충성의 노래, 그이를 모시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 사는 영광과 기쁨의 노래가 360여곡이나 불리워지고있다.

〔체육〕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체육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체육을 총련애국사업수행에 철저히 복무하는 애국적이며 대중적인 체육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수령님께서 체육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주체적인 체육훈련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체육기술을 한계단 높인 총련의 체육일군들과 체육인들은 경기때마다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었다.

재일조선축구단은 4월말부터 한달가까운 기간 조일친선을 위한 지방원정경기대회에서 매번 이기였으며 도꾜에 돌아온 후에도 일본의 이름난 팀들과의 9회에 걸친 경기에서도 역시 매번 승리하였다.

그리하여 이해 조직된 39번의 대외친선경기에서 37번 승리하고 2번 비기였으며 축구단이 무어진 이래 13년간에 393승하는 기록을 남기였다.

총련은 이 한해동안에 239번의 각종 체육경기대회와 체육활동을 통하여 광범한 동포들과 청소년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총련애국사업수행에 적극 불러일으켰다.

이해 총련은 체육을 대중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체육사업을 전동포적인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각급 학교들에서 체육수업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과 함께 정상적인 과외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게 하였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축구, 배구, 롱구, 탁구, 정구, 송구, 야구 등의 구기종목들과 기계체조, 해양체육, 겨울철체육을 널리 일반화하였으며 명절과 계절에 따르는 체육경기대회들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여 누구나 다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총련 본부들과 지부들, 각 단일단체, 사업체들에 이르기까지 조직된 각종 체육소조들에 더많은 동포들을 참가시키고 그 활동을 정상화하였다.

수령님탄생 예순한돐을 맞이하여 진

행된 재일조선인축구대회(4월 21~22일까지), 총련결성열여덟돐기념 재일조선인신용조합일군탁구경기대회(5월5~6일), 보천보전투승리 서른여섯돐기념 재일본조선인롱구유술대회(6월 21~22일까지),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재일본조선중고급학교 축구, 배구선수권대회(10월 22~23일까지) 등 각종 체육경기대회들에는 지난해보다 더많은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으며 일상적인 훈련에서 키운 집단주의 정신과 강의한 투지와 인내성 그리고 능숙한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출판보도사업**〕 총련의 모든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출판보도사상을 높이 받들고 내외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면서 재일동포들의 의사와 리익의 대변자로서, 총련의 집단적인 선전, 교양조직자로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였다.

총련의 모든 출판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선전을 첫자리에 놓고 편집하였으며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자료를 실속있게 편집하여 전체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웠으며 조국통일촉진을 비롯한 총련애국과업수행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총련은 이해까지《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님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 210여만부,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자료들을 100여만부나 출판보급하였다.

총련결성당시 4종밖에 없었던 출판물이 지금은 36종으로 되고 5개나라말로 세계 150여개 나라에 보급되고있다.

총련의 출판보도일군들은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선물로서 출판회관을 지어 7월 31일 준공하였다.

358평의 부지에 연 건평 2천 50여평으로 된 지하 1층, 지상 13층으로 되여있는 출판회관은 일본의 각처에 무수히 서있는 총련의 각급기관, 단체, 사업체, 학교건물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건물이다.

정중히 꾸려진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을 비롯하여 강당, 식당, 사무실들이 있고 랭난방장치 등 최신설비들을 다 갖춘 이 회관에서는 조선통신사 등 8개 사업체들이 업무를 보게 된다.

대 외 사 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국제무대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더욱 빛내이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권위있는 해외공민단체로 되였으며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적극적인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총련은 이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이며 공명정대한 대외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대외활동을 적극 벌림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더욱 빛내이고 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을 높이였으며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그들의 지지와 동정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이해 총련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국제적으로 더욱 빛내이며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일본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총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하여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 등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수많이 출판하여 5대륙 150여개 나라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하였다.

또한 어느때보다도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을 일본의 신문, 잡지, 텔레비죤들을 통하여 크게 수많이 소개선전하였다.

총련 제9차전체대회이후 기간에 도쿄, 오사까, 나고야, 사이다마를 비롯한 일본각지에 일본의 학자, 문화인, 청년학생, 녀성들을 망라한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김일성주석혁명활동연구회》가 새로 수많이 무어진것을 비롯하여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일본각지에서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운동이 광범히 벌어졌으며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론문이 수많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이 그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얼마나 광범한 일본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총련은 이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들을 대외적으로 널리 해설선전하고 국제적환경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는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총련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을 대외적으로 널리 해설선전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제적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총련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하여 미국국회상하원에 편지를 보낸것과 관련하여 이에 긍정적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편지를 미국국회상하원에 보내였으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유엔동시가입책동을 반대하여 유엔에 대한 강력한 요청운동을 벌려 통일된 조선에서 수령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려는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한 서명부를 유엔당국에 직접 넘겨주어 재일동포들의 일치한 의사를 국제적으로 크게 시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의 위대한 생활력과 그 정당성으로 하여 광범한 각계각층 일본인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이해 일본의 언론계는 수령님의 력사적인 6월 23일 연설과 10월 28일 연설 등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들을 그때마다 대서특필하여 크게 보도하였다. 일본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두개 조선》유엔동시가입을 성립시키려고 날뛴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도당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광범히 벌리였다.

총련은 이해 항의 집회와 시위, 선전문배포, 성명, 담화발표, 일본의 신문

통신, 방송 기자들과의 회견 등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을 반대하며 반파쑈민주화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성원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총련은 이해 일본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층 인사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총련은 1월 중순에 총련지방본부들에서 조일 두나라 인민들의 친선을 강화하기 위한 1973년도 새해축하모임을 가지였으며 2월 21일 총련 시마네현본부와 일조우호촉진시마네현의회의원련맹의 공동주최로 시마네현조일우호촉진간담회를 가진것을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일본의 진보적인사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모임들을 진행하였다.

총련은 10월 6일 미제의 사촉밑에 애급아랍공화국과 수리아아랍공화국에 대한 전면적무력침공을 감행한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행위를 항의규탄하였으며 민족해방과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지지성원하였다.

이해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아세아교원직맹토론회와 국제교원직맹제10차정기대회에,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재일본조선인과학자대표단이 세계과학자련맹제10차총회에, 재일조선언론출판인대표들이 국제기자동맹집행위원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세계각국 인민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친선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해외교포운동사상을 소개선전함으로써 총련의 국제적 위신을 한층 높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는 전설적영웅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1955년 5월 25일 결성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양보할수 없는 권익을 대표하는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수 있었으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원칙적인 통일단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로부터 재일동포들은 진정으로 자기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믿음직한 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명확한 투쟁강령과 과학적인 사업방법을 소유하게 되였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환되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생활력 있고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또한 재일동포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참다운 민주주의적민족조직체를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투쟁강령을 뗏뗏이 내세우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사업방법을 구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실로 총련의 결성은 오랜 세월을 두고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되여온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고 우여곡절을 겪어온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주체의 새 시기가 시작되였다는것을 선포한 중요한 사변이였다.

총련은 정견, 신앙 및 사회적지위의 여하를 불문하고 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지지찬동하는 재일동포들의 각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되였다.

총련은 49개의 현본부와 300여개의 지부, 2천여개의 분회, 13개의 단일단체와 14개의 사업체를 가지고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 덕 수

총련과 각 단체, 사업체 조직 및 창립기념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1955년 8월 1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1947년 10월 12일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 1946년 2월 26일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1947년 8월 28일
재일본조선인중앙교육회 1955년 7월 2일
재일본조선인교육자협회 1959년 6월 29일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1959년 6월 7일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1954년 10월 14일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 1953년 11월 23일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1954년 7월 30일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1945년 9월 14일
재일본조선인통일동지회 1948년 10월 25일
재일본조선인불교도련맹 1948년 8월 1일
재일본조선인통신교육협회 1963년 4월 20일
조선신보사 1945년 10월 10일
조선통신사 1948년 10월 1일
구월서방 1954년 4월 1일
학우서방 1949년 5월 5일
조선문제연구소 1952년 10월 15일
시대사 1963년 4월
조선화보사 1962년 4월
재일조선중앙예술단 1955년 6월 6일
재일조선연극단 1965년 1월 15일
재일조선축구단 1961년 8월 25일
조선총련중앙학원 1955년 8월 16일
조일수출입상사 1972년 1월 16일
동해상사주식회사 1961년 8월 7일
조선대학교 1956년 4월 10일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조선에 대한 미제의 100여년간의 침략만행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첫 침략기도에서부터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 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조선인민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191페지)

피를 물고 세상에 태여난 해적의 후예 승냥이 미제는 오늘까지 자기의 세상존재의 근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인 100여년동안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미제국주의는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그 어느 제국주의침략자들보다 먼저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도발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온 침략자들이며 조선인민에게 포악한 일제의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씌운 교활하고 간악한 범죄자이며 오늘도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악랄하게 저해하고있는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또한 미제는 우리 조국의 귀중한 자연부원과 재부를 닥치는대로 략탈하여간 흉악무도한 략탈자이며 우리 조국강토를 모조리 파괴하고 불사르고 무고한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피흘리게 한 인간백정이며 흡혈귀이다.

1830～1850년대

—조선을 삼켜보려는 승냥이 미국놈들의 검은 심보와 그 책동의 시작 략탈적무역을 목적으로 동방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던 미국은 1830년대 초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기 위하여 특별사무관놈을 이 지대에 파견하면서 조선침략을 위한 《가능성》을 탐지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또한 이 임무를 수행한 특별사무관놈은 1834년 5월 13일 국무장관놈에게 조선과의 략탈적무역의 길을 터칠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이 있다고 지껄였다.

1845년 2월 12일 미국회하원의원이며 통계위원회 위원장인 프랏트란놈은 자기의 《조선개방안》을 국회 하원회의에 상정시켰으며 조국을 즉시 《개방》시킬 대책을 요구하였다.

그후 1850년대에 미국놈들은 종전의 대서양으로부터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걸쳐 인도양에 이르는 항로 대신 직접 태평양을 가로건너 아세아에로 닿을수 있는 태평양횡단항로의 기항시를 조선에 둘 쑥덕공론을 하였다.

이시기 미국배들의 조선연해 출현사건이 또한 빈번하였다. 1853년 1월에는 경상도 동래부 룡당포에, 1855년 7월에는 강원도 통천과 흡곡앞바다에 미국해적선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은 이미 1830년대부터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1860년대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야욕을 부추긴 새로운 사태 국내전쟁에서 산업부르죠아가 승리하여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자 미국놈들은 조선침략을 서둘렀다.

그것은 첫째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침략중심이 천진, 우장, 지부 등 북중국으로 이동되게 됨에 따라 조선서해를 통과해야했던만큼 조선에 기항지설정이 필요로 됐던것이다.

둘째로는 국내전쟁으로 하여 극동시장에서 미국의 중요경쟁자들이 압도적세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미국은 조선침략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것은 당시 청국주재 미국공사 로우란놈이 《나는 외국무역 혹은 무역의 확장을 위하여 나라를 개방시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조선이나 혹은 기타의 소여국가와 전쟁하는것을 반대한다. 나의 관점은 단순한 상업적리익보다 더 중요한 의의가 있는것을 고려함에 기초하고있다.》고 지껄인데서 표현되고있다.

셋째로 아세아대륙의 침략을 위하여 미국의 군사—전략적지점으로 조선이 선택되였던것이다.

당시 미국무장관 윌리암 시워드란놈은 《우리는 아세아대륙에 련락점 즉 식민지령토 같은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조우하였다.》라고 떠벌였다.

1860년대중엽 로씨야 주재 미국공사 클레이란놈은 륙군과 해군이 튼튼히 의거할수 있는 아세아해역에서의 미국의 기지를 창설하여야 하며 지브랄타르의 의의를 가지는 조선의 남방의 거문도를 우선 점령하여야 한다고지껄였다. 미국침략자들은 1866년부터 국회상원에서 조선침략에 대한 문제를 긴급문제로 토론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미국침략자들은 조선령해 침범행위를 빈번히 감행하였는데 1865년 8월 미국배 1척의 경상도 영일현 림곡진에의 난파 표도사건, 1866년 3월 쌘프랜씨스코소속선박의 경상도 부산침범사건, 1866년 6월 미국선박 《써프라이스》호의 평안도 철산부 선사포 선암리 포구에의 표도 사건 등은 그 대표적 실례들이다.

—미국해적선 《샤만》호 침입 조선령해에 대한 침범행위를 빈번히 감행하여 오던 미국침략자들은 1866년 8월 무장한 《샤만》호를 우리 나라에 침입시키였다. 8월 15일 평안도 룡강현에 면한 대동강하류에 도착한 미국침략자들은 우리측의 루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에는 평양 만경대에 불법침입하여 10리가까운 길을 정찰하면서 부녀자들에 대한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으며 8월 27일에는 우리의 감시선을 보통강입구부근에서 불법습격하여 랍치했다.

한편 평안 감영 대표가 놈들과의 회견에서 즉시 물러갈것을 요구한데 대해 미국놈들은 뻔뻔스럽게도 그 조건으로 쌀 1,000석, 거대한 량의 금, 은 및 인삼을 요구하는 등 침략자, 략탈자의 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였다. 놈들은 강변에 모인 성내인민들을 향해 총포 사격을 시작했고 살인, 강도질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을 선두로 한결같이 떨쳐나서 9월 2일 《샤만》호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였다.

—미국침략선 《쉐난도아》호와 《차이나》호의 침입 미국놈들은 저들이 파견한 《샤만》호의 격침을 조선침략의 좋은 구실로 삼았다. 1868년 4월 23일 상해주재 미국 총령사 죠지 시워드는 국무성에 보내는 보고에서 《나의 의견으로서는 조선인과의 무역관계를 획득함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력으로써 시위하는것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당한것이라고는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조선인

기독교도들과 련계를 취한 상해주재 미국령사관 성원이였던 미국놈 젠킨스 일당과 군함 《쉐난도아》호를 조선에 파견하여 보다 용이하게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여 그 백골을 미끼로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려는 전대미문의 극악한 침략계획을 꾸몄다. 이를 방조할 목적으로 청국주재 미국공사 윌리 암스는 미국군함 《쉐난도아》호로 1868년 4월 초순에 벌써 대동강에 침입하여 평안도와 황해도 연해를 싸다니면서 략탈, 무력공갈, 최후통첩, 포사격 등으로 소란을 일으켰다.

젠킨스를 총지휘자로 하는 120여명의 도적들은 1868년 5월 10일 21개조로 된 불평등조약초안을 가지고 《챠이나》호로 충청도 아산만 삽교천입구 근처에 정박한후 5월 11일 구만포에 상륙하여 덕산군 가야동에 침입하였으며 도굴작업에 착수하였다가 우리 인민의 강력한 반격에 부딪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다. 미국승냥이들은 경기만으로 북상하여 최후 통첩적공갈장을 대원군에게 보냈다. 여기서도 패배를 보게된 도적놈들은 5월 17일 정찰과 략탈을 목적으로 영종도에 상륙하였으나 또다시 섬멸적타격을 받고 간신히 도망쳐 5월 18일 조선해안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후 청국주재 미국당국의 죠지시워드는 정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조선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할지언정 상당한 무력적시위에 의해서 옹호되지 않는다면 나는 현재 교섭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리라고 확신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무력침공정책을 제기하였다.

1868년 10월 죠지 시워드란놈은 청국주재 미국공사 부라운, 일본주재 미국공사 발켄버그, 중국파견 미국함대 사령관 로완놈들과 《조선문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조직을 정부에 제기하였다.

1870년대

—조선에 대한 미제의 대규모적인무력침공 1868년 조선침략에 실패한 미국무성은 《샤만》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원정함대를 파견하자는 무력침공안을 세우고 그 준비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원정함대사령관으로는 이른바 극동전문가이며 미해군의 우두머리의 한놈이였던 로쟈스라는자를 임명하였으며 1869년말에는 조선과의 조약체결에 대한 전권을 청국주재 미국공사인 로우란자에게 주었다.

미국정부의 지시에 의해 로우, 로쟈스, 시워드란놈들은 1870년 11월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고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1871년 5월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에로!》라는 침략적 구호를 써붙인 《콜로라드》호를 비롯한 5척의 군함, 포 80여문을 가진 1,230명의 군대로 구성된 미국함대는 1871년 5월 8일 나가사끼에서 최종적 침공준비를 마치고 5월 30일 강화도의 남방 물치도 앞바다에 정박하였다. 이 함대는 경기도 연안 일대의 해역에 대한 광범한 측량을 비법적으로 진행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군사적도발사건을 조작하였다. 놈들은 이른바 《측량함대》를 조직하고 강화해협과 한강을 거슬러올라와 조선의 주요 요새지인 손돌목을 향해 침입하다가 조선군대에 의해 저지당했다. 놈들은 본격적 전쟁준비를 갖추고 6월 10일 무력침공을 다시했으나 또다시 패배하였다. 무력으로 예속적조약을 강요할수 없게 된 놈들은 《귀정부는 속히 현명한 방책을 세움으로써 금후의 분쟁을 면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는 협박장을 조선정부에 루차 보냈다. 이런 방법으로도 성공할수 없게 된 놈들은 7일 3일 완전히 패주하고 말았다.

—일제를 조선침략의 길잡이로 리용하려는 미제의 획책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집행에서 거듭되는 실패를 본 미국침략자들은 당시 조선에 대한 침략적야망에 눈이 뒤집혀 날뛰고 있던 일본을 리용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길을 닦게 하는 교활하고 음흉한 정책으로 넘어갔다.

1871년 10월 미국은 일본정부의 외교고문으로서 스미스(미국무성 배상위원)를 파견하였으며 조선침략전쟁을 위하여 군함 2척과 8만발의 탄환을 포함한 군사적원조를 일본에 넘겨주었다.

1873년에는 리젠르르를 일본 외교부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침략을 적극적으로 준비케하였다.

미국의 고무적지지를 받은 일본은 1873년 12월 대원군이 정권에서 물러나게된데 힘을 얻어 1875년 9월에 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운양호》사건을 조작하였으며 무력시위방법으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계급을 얼어넘겨 1876년 2월 강화도에서 불평등조약(강화도조약)을 조작해냈다.

1880년대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아세아대륙에로의 통로에 놓여있는 조선에 대한 미국침략자들의 침략야망은 그 어느때보다도 컸다. 1882년 청국주재 미국공사 양그란놈은 《조선은 군사적관점으로 볼때 그 명로에 들어서는 자는 누구나 청제국의 개방된 문호를 얻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하였다. 188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개방문호를 얻기 위하여 즉 대륙침략의 지반을 닦을것을 목적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반광적으로 실시하였다.

미국은 부패무능한 조청량국통치층이 조선안에서 장성하는 일본침략세력을 제지할 제3의 보호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미를 알아내고 만청 왕조의 실제적지배자 리홍장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접근하여 그를 조미간의 조약 알선자로 내세웠다. 그리하여 리홍장과 조선의 전권대표 김윤식간 천진회담(1880년 1~4월), 리홍장과 슈펠트간의 제2차 천진회담(1881년 7월~1882년 4월)에서 조미조약 체결의 예비교섭이 진행되였다. 예비교섭에서 미국은 조선에 대한 침략목적을 실현할수 있는 모든 예속적, 불평등적내용을 규정하도록 조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준비에 근거하여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조선전권대표 신헌과 미국전권대표 슈펠르놈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조인되였다.

조약에는 통상을 위한 항구의 개방, 공사주경, 개방지에서의 령사관설치, 미국공민의 거류권, 토지조사와 건물건축권, 미국상인의 활동자유, 조선근해에서의 조난당한 미국 선박과 식량, 연료가 부족한 미국선박에 대한 구호의무, 미국공민에 대한 조선정부의 보호책임, 치외법권, 미국상품에 대한 특별한 저률관세 등이 규정되였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이와 같이 조선에 대하여서는 일방적인 의무만을, 미국에 대하여서는 일방적인 권리만을 규정한 완전히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이였다.

—미제의 조선에서의 침략지반 축성 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 후 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정치, 경제적침략 지반을 준비하며 한편으로는 청국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음흉한 책동을 벌리였다.

조선에서 개화파와 수구파의 정치적 대립이 첨예화되고있던 1884년 2월 4일 미국놈들은 일본놈들과 공모하여 개화파를 부추겨 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수구파와 청군의 우세한 세력에 의하여 실패하였다.

조선을 둘러싸고 청일량군의 정치, 경제적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였다. 이 기회에 미국놈들은 교활하게도 조선의 《친우》행세를 하면서 조선정부내에 들어 앉아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닦았다.

1885년에 미국인 메릴이란 놈이 해관세무사의 자리를 차지하여 조선의 세관을 장악하였으며 1886년에 데니란 놈이 내무협판 겸 외무장교사의 자리

를 차지하였다. 1888년에는 다이소장, 캠프벨대좌, 리소좌 등 놈들이 군사고문으로 서울에 기여들었다.

—종교—문화적 및 경제적 침략의 개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에서 종교—문화적침략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한 미국놈들은 1880년대에 들어와 적극적인 실천행동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종교의 간판을 든 선교사들을 우리 나라에 파견하여 각지에 례배당을 짓고 기독교와 숭미사상을 퍼뜨렸으며 장차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수십년동안 진행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173페지)

이미 1866년 《샤만》호의 침입시 토마스란선교사놈을 길잡이로 세웠고 1871년 극동함대의 침략시에도 선교사 리델을 앞장세웠으며 《조미수호통상조약》강요시에는 조약의 조문에 《기독교 전파의 자유》를 항목에 집어넣으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온 미국침략자들은 1880년대에 들어와 더욱 발악적으로 종교침략의 길을 닦기에 날뛰였다. 1883년 7월에 서울에 기여든 미국 선교사 맥레이는 반동적조선봉건통치층으로부터 조선에 있는 외국사람들속에서 선교활동을 할수 있다는 비공식적허가를 받아가지고는 조선에 물밀듯이 몰려들어 광범한 조선사람들속에서 종교활동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1884~1885년에 기독교 장로파 선교사 알렌, 언더우드, 감리교회계의 아펜셀러란놈 등 첫 미국 선교사집단들이 기여들었으며 그후 계속하여 선교사들이 꼬리를 물고 기여들었다. 놈들은 선교사로 또는 《교육가》와 《자선가》로 가장하려 하였다. 그러기 위해 서양식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조선사람들을 기만하고 롱락하였다. 선교사 알렌이란놈은 1885년 2월에 병원—광혜원을 세웠고 1886년 5월에 선교사 스크렌톤이란년은 리화학당을, 선교사 아펜셀러놈은 6월에 배재학당을 설립하였으며 7월에는 조선의 교육을 지도한다는 명목하에 신학교를 졸업한 헐버트, 번커, 길모아란놈 등을 조선에 들여밀었다. 놈들은 《계몽가》나 《자선가》라 자처하였지만 반미감정이 강한 조선인민들을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뇌까리면서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하느님의 뜻》을 따르라고 독약을 먹여 죽였고 임신부는 배에 혹이 났다고 배를 갈라죽이고 팔다리에 약간 상처만 생겨도 불구로 만드는 등 살인 만행을 오락으로, 저들의 《의학실험》으로 감행하였다. 또한 놈들은 조선어린이들을 노예무역의 대상으로 랍치하여가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또한 이시기에 미제는 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과 략탈을 강화하였다.

미국침략자들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후 우리 나라를 완전한 제놈들의 상품시장으로, 귀금속과 원료략탈지로 그리고 자본투하지로 전락시키기 위한 로골적인 략탈행동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1883년 하반년부터 미국 장사군놈들은 인천에 모여들어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미국으로부터 석유, 담배, 사탕같은 잉여상품들을 가져다 팔고 대신 조선으로부터는 금, 은을 비롯한 귀금속들을 략탈해갔다.

미국놈들은 1884년에 인천에 《타운센드상회》를 차려놓고 낡은 배, 낡은 총을 비싼 값으로 팔아먹었으며 《스탠다드석유회사》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기업체들과 련계를 갖고 잉여상품을 조선에 대량 끌어들여 더러운 딸라주머니를 채웠다.

한편 미국놈들은 경제적리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1883년에는 《미들론 상회》의 상해—인천간 및 부산—나가사끼 간 항로 설정, 《미국 무역회사》의 울릉도 목재 채벌, 1884년에는 《에디슨 상회》의 왕궁 전등 가설, 미국인 로젠범의 유리공장 및 성냥공장설립, 《미국 무역회사》의 운산 금광 탐사, 1885년에는 《타운센트 상회》의 화약공장설립, 1886년에는 미국인 뉴엘의 조선 연해에서의 진주 채취 1887년에는 파라델피야 자본가 집단의 샌프란씨스코로부터 북태평양을 경유하여 원산에 이르는 해저 전선 가설, 1888년에는 뉴욕은행의 부산, 인천, 항구의 관세 탈취 등을 계획하였거나 실현에 옮김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수다한 리권을 강탈해 냈다.

1890~1900년대

—청일전쟁시기 일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도와나선 미제 1894년 2월 조선에서 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미국은 일본과 함께 조선사태를 자기들의 조선침략활동에 리용하려고 책동하였다.

무능력한 조선정부가 농민전쟁을 진압할 목적으로 만청정부에 출병을 요청하여 1894년 6월초 청군이 조선에 상륙하자 조선에 대한 침략구실을 찾지 못해하던 일본은 《거류민보호》라는 구실밑에 대부대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 무렵 미국정부는 조선해역에 포함 2척, 군함 4척, 미국 아세아함대기함 《발티모어》호를 인천에 들여보내여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면 농민군을 반대하는 무장간섭을 진행하며 일본을 군사적으로 원조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미국은 조선정부가 청일군대의 철거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중개조정을 3차에 걸쳐 정식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본이 청일전쟁을 도발할수 있는 국제적조건까지 보장하였다. 1894년 7월 청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승리하여 1895년 4월에 《마관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조선에서 만청세력을 구축하고 지배권을 독차지하게 되였다. 이러한 일제의 행동에 대하여 조선주재 미국공사 씰이란놈은 《정당한 행동》이라느니 《…조선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매우 선의적인것이라고 능히 말할수 있다.》느니 하면서 극구 찬양하였다.

—미국침략자들의 왕궁습격책동 1895년 7월 친로파세력이 민비를 끼고 정변을 일으킨데 당황한 일본침략세력은 1895년 10월 18일 왕궁을 습격하고 민비를 학살하였다.

로씨야와 친로파의 활동이 적극화되고 고종이 친로파와 접근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두려움을 느낀 미국침략자들은 고종을 미국공사관에 랍치하여다가 친미정권을 수립하려는 흉악한 기도밑에 1895년 11월 28일 40여명의 악당들에게 미국공사관에서 무기와 탄약을 주었으며 그들이 수백명의 군병을 거느리고 경복궁을 습격케 하였으나 이 책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로일전쟁시기 일제의 조선강점을 적극 부추긴 미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19세기말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왔으며 1905년에는 가쯔라와 타프트의 비밀협약을 체결하고 일제의 조선강점을 도와주었습니다.》(《김일성군사선집》, 1권, 118페지)

1904년 2월 9일 로일전쟁이 개시되자 미제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나섰다. 이것을 알리없는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1904년 2월 일제가 조선의 군사적점령을 합법화한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였을때, 1904년 8월 외교 및 재정분야에서 자주권 박탈을 규정한 《한일협약》을 강요하였을때, 《조선의 독립을 말살하려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서든지 대책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떠벌려오던 미국정부에 원조를 요구하였다. 미국은 이 원조를 회피하였을뿐아니라 일본의 조선강점을 보장하기 위한 외

교적대책을 비밀리에 취하였다.

1905년 7월 미륙군장관 타프트와 일본총리 가쯔라놈간의 비밀회담이 있었는데 이 회담에서 타프트란놈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할것을 승인하였다.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놈은 1905년 6월 포츠마즈에서의 로일간의 강화회담(이 회담에서는 조선문제가 토의됨)에 조선정부대표의 참가를 반대하였을뿐아니라 불공평한 강화조약초안을 받아 읽으면서는《일본인들이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조선통치권을 포함시킨것을 나는 성심으로 동의한다.》고 지껄였다.

미제는 1905년 9월 포츠마즈강화조약 제2조에서《일본국이 조선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우선적인 리익을 갖는다는것》과 일본이 조선에서《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규정을 지지찬동하였다.

미제는《조미조약》제1조에 근거한 원조의무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하며 소위《통감정치》로써 사실상의 완전한 식민지통치제도의 수립을 예견한《보호조약》을 조작하도록 적극 방조하였다.

1905년 11월 17일에《보호조약》이 조작되자 미국무장관이란놈은 즉시 조선으로부터 미국공사를 소환하라는 지시를 주고 워싱톤주재 일본공사에게는 조선에 관한 미국의 외교 사무를 맡을것을 통고하였다. 조선주재 미국공사관은 11월 24일 철폐되였다.

미제는 1907년 6월 화란의 수도 해아(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간 조선대표를 랭대하고 입장조차시키지 않았으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을뿐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요망하였다는것으로 고종을 왕자리에서 내쫓고 일제의 조선의 내정에 대한 실제적장악을《합법화》한《정미7조약》을 적극 지지찬동하였다.

1907년 일본을 방문한 미국 륙군장관 타프트놈은《일본의 주되는 임무는 조선의 개혁에 있다.전세계는 락후한 민족에게 법치권과 교육을 보급시키려는 일본의 정책에 찬동하여야 할것이다》라고 일본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조선의 개화》라고 떠벌였으며 1908년 3월 조선정부의 고문이던 미국놈 스티븐스는《조선인민은 우매하며 독립할 자격이 없으며 일본의 조선통치는 조선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음으로 조선사람으로서 이를 반대하는 자가 없다.》라고 조선인민을 모독하였다. 뉴욕 헤랄드트리뷴지는《…우리는 일본 보호하의 조선에 대하여 흔연 그 소위 독립에 영원한 리별을 고하기를 꺼리지 않는 바이다.》라고 썼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 및 종교—문화적 침략의 강화 1890년 이후 수많은 미국놈들이 고문이란 명칭으로 조선정부의 요직에 들어 앉게 되여 미국침략세력을 부식하기 위한 행정적지반과 간섭이 더욱 강화되였다.

리젠드르란놈은 외부 고문, 길모아란놈은 학부고문 그레트하우스란놈은 외무 및 업무 광무고문, 다이란놈은 군부 고문, 산도란놈은 궁내부 고문으로,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놈들은 정부내의 책임적지위에 잠입하였다.

미제는 이런 지반우에서 크고작은 수많은 경제리권들을 박탈해냈다.

1890년에 리젠드르란놈은 미국 은행으로부터 100만딸라의 차관을 얻어 전체 조선의 광산을 독점적으로 개발해보려는 야욕을 품고 간교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갑산의 고진동광산, 평안도 은산광산, 강원도 화천, 강릉광산, 평안도 회천광산 등을 채굴하기 시작하였으며 1896년에는 동양제일이라는 평북도 운산광산 채굴을 시작하였다. 그후 홀동, 직산 광산 등 전체 광산채굴권의 대부분을 독점하게 되였다.

1909년 운산광산은 조선의 총 금생산액의 70%를 차지하였으며 운산, 수안, 창성, 직산의 미국인경영 4대 금은광은 전조선 금, 은생산액의 80%를 차지하였다. 미제도적놈들은 이것을 모조리 빼았아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놈들은 우리 나라에서 숱한 금을 도적질해갔습니다. 미국놈들이 운산, 대유동, 수안 광산들에서 가져간 금만 해도 대단한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74페지)

이외에도 1890년대에 모르스, 콜부란, 포스트, 위크 등 월가의 사환군들은 서울—인천간 철도부설권을 비롯하여 서울시내 전기, 수도, 전차시설 부설권, 서울—개성간 경편철도 부설권《한미전기회사》소속 은행의 개설, 압록강 류역 목재채벌권 등 경제적리권을 강탈하였다.

또한 이 시기 미국 상품의 조선시장 진출이 대대적으로 격증되기 시작하였는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903년에는 39만 8,377원에 달하였고 1908년에는 423만 9,635원으로써 10여배나 늘어났다.

조선에 있는 미국 기업체들이 인민들로부터 짜낸 리윤은 1904년에 35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미국 노예상인들은 소위《이민》이란 명목하에 조선인민들을 공공연하게 팔아넘기였다. 1902년 미국인 데쉴러란놈은 조선을 대리점으로《대륙개발회사》를 꾸며내여 수많은《이주로동자》들을 미국 노예 상인들에게 넘겨 주었다. 1902~1905년기간에만도 하와이와 미국 사탕재배업자들에게 끌려간《이민》수는 4,600여명에 달하였으며 미국 서해안, 멕시코, 남미주에 끌려간《이민》수는 수만명에 달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미제의 종교—문화적침투 역시 매우 강화되였다.

1897년에 조선을 중국 교구에서 떼내여 독립적인 선교지로 설정한후 수십명의 미국선교사놈들이 우리 나라에 더 밀려 들었으며 막대한 비용을 들인 교회당, 선교학교, 병원시설들이 늘어났다.

1903년《미국기독교청년회》에서 들이민 질렛란놈은《조선기독교청년회》란것을 조작하여 청년들과 주민들속에 숭미사대주의를 퍼뜨리며 인민들의 반일기세를 억누르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1910~1920년대

—조선인민의 독립운동에 대한 미제의 참을수없는 모독 미제는 사회주의 10월혁명의 영향이 약소국가인민대중속에 미치는것이 두려워 그를 반대하는 길에 나섰다.

미국의 반동두목이였던 윌슨은 1918년 1월 8일《민주주의》와《인도주의》를 고창한《14개조》의 강화원칙을 제기하였으며 여기서 소위 미국식《민족자결주의》를 들고나왔다. 1918년 여름 윌슨의 특사놈은 상해에서 조선의 부르조아 시정배들에게 이것을 선전하면서 조선의《독립》을 가져다 줄듯이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1919년 조선인민은 거족적인 3.1인민봉기를 일으켜 피로써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에 접하여 미국무성은《조선문제는 순전한 일본의 내정문제…》라느니《폭동진압을 위하여 일본정부가 취한 태도에 관한 각종 불이한 보도가 있으나 이는 극히 의심스럽다. 국무성이 입수한 정보에 의한다면 일본이 특히 엄혹 잔인한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느니 하고 지껄이면서 일제를 비호해 나섰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일제는 1919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에만도 조선에서 7,509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고 1만 5,961명의 부상자, 6,948명의 피검자를 냈다.

당시 미제어용출판물들까지 조선에

대한 참을수 없는 선전깜빠니야를 감행하였다.

미제어용출판물들은 《…조선인민은 형식상 자유는 얻지 못하였으나 유치하던 전일의 경제상태에 비하면 물자의 자유를 얻은것이다》느니 《일본황제는 시종 여일하고 또한 확고한 정책으로써 조선의 악정을 교정하고 그를 세계에 소개함에 노력하였으니 이 인도적이고 관대한 정책으로 조선은 개화되였다》느니, 《만일 조선이 이 현명인자한 일본제국주의의 정치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게 되면…일본제국이 8, 9년 진력하여 극도의 타락에 빠졌던 조선사람을 구제한 정심은 수포로 돌아갈것이며 그와 같이 문명의 진보를 저해하는 자는 세계에 대하여 최대의 죄악이 될것이다》느니 하고 줴치면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악랄하게 모독하였다.

1919년 1~6월 기간에 빠리의 벨사이유에서 강화회의가 있었다. 이때 《민족자결주의》에 기만당한 재미조선인들이 독립청원을 위한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 려권 발급신청을 제기하자 미제는 이를 거부하면서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일부이다. 만일 이 경우에 려권을 발급하려면 일본대신의 요구에 의해서만 할수 있다. …일본이 조선을 그 제국의 일부로 한 사실은 확실하므로 오늘 조선을 옛상태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제안은 단연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떠들어댔다.

또한 미국의 《지지》밑에 독립을 얻어보려고 망상한 상해에 가있던 조선민족주의자들이 1919년 4월 《림시의정원》과 《림시정부》를 만들어놓고 대표를 빠리 강화회의에 보냈으나 미국놈들은 그를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

놈들은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서는 입에 담는것조차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떠벌이면서 1919년 9월부터 1920년 3월까지 기간에 3차에 걸쳐 미국회상원에 《조선독립승인안》을 제기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이는 조선인민에게 추파를 던져 투쟁에서 물러서게 하려는 하나의 간교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 및종교—문화적 침략 미제국주의는 조선에 대한 경제 및 종교—문화적 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하여 공동행동을 취하는 한편 장차 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침략준비를 강화하였다.

특히 미제는 종교—문화적침투에 미쳐날뛰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음흉한 미국놈들은 조선에서 막대한 금을 도적질해가면서 그가운데서 몇푼 안되는것을 가지고 〈자혜병원〉이니, 무엇이니 하는 몇개 병원을 차려놓고 예수쟁이들에게 금계랍봉지나 노나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탐군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조선사람들가운데서 몇명 뽑아서 미국류학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놈들은 자기들이 아주 인자하며 마치도 조선사람들을 도와주는것 같이 선전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74페지)

미제의 지시에 따라 1910년 봄에 서울에서는 선교사대회가 소집되였는데 여기에서는 선교활동 강화의 《행동 강령》이란것이 꾸며지고 조선인 기독교신자를 100만명으로 늘일데 대한 미국선교사들의 과업이 제기되였다.

1910년 현재 조선에 기여든 외국인 선교사 총수는 453명이였는데 그중 미국인 선교사가 306명이였다. 1920년에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남감리교, 북감리교의 4대 교단에서 조선에 들이민 선교사 수는 336명이였다. 여기서 북장로교회가 세계 각국에 내보낸 선교사 총수의 3분의 1을 조선에 들이민 사실만으로도 미제가 조선에 대한 종교—문화적 침략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이시기 교회 및 교리 강습소는 2,300여개소였으며 목사, 전도사, 권사 등의 수는 2만 3,000여명이였다.

또한 미제는 기독교청년회 조직망을 확대하고 기독교 서적 출판을 위한 출판기관들을 늘이였다. 《조선 기독교서회》라는 한 단체의 출판물만하여도 400여종이였으며 그중 정기 간행물 5종은 그 부수가 1만 6,000부에 달하였다.

또한 《성경》을 가장 중요한 교과목으로 한 기독교 계층 학교들과 기독교 전파 기관으로서 복무한 병원들이 늘어났다. 1920년대에 기독교계통 학교의 학생수는 《공립학교》 학생수를 초과하였다.

미제는 미국식인도주의를 요란하게 설교하면서 조선사람들속에서 미제에 대한 숭배와 환상을 조성하기에 미쳐날뛰였으며 《남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대라》느니, 《하느님》을 믿고 모든 학대와 굴욕을 참으면 《천당》에 갈수 있다느니 하는 회유로써 조선인민의 계급의식과 투쟁정신을 마비시키고 노예적굴종사상을 주입시켰다.

미제는 또한 조선에서 제놈들의 정치적지반을 닦으며 침략의 길잡이를 키우려는 야욕도 미국 선교사놈들을 통하여 감행하였다. 매국적친미주구 리승만과 장면도 이시기 미국선교사놈들에 의하여 길들어졌으며 미제의 고용 간첩 박헌영도 이시기 선교사의 탈을 쓴 미제의 정탐 언더우드에 의해 매수되였다.

《자선》과 《문명》을 운운하고 《박애》와 《평등》의 가면을 쓴 미제 침략자들과 선교사놈들의 조선인민에 대한 민족적멸시와 모독은 형용할수 없이 악독하였다. 1925년 평남도 순안에 있던 미국 선교사 페스미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 길가에 떨어진 사과알을 주은 12살의 조선소년을 붙들어 개에게 물어뜯게하고 나중에는 소년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는 글을 새기는 짐승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개성 《남성병원》의 선교사놈은 소아마비에 걸린 조선어린이를 약물실험대상으로 삼아 즉사케 하였으며 선천 《미동병원》의 선교사놈은 어린소년의 곱사등을 펴준다고 하면서 어린이의 등에 두터운 철판을 대고 마구 꺾어 즉사시키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또한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하였다.

미제의 조선에 대한 수출액은 1910년의 32만 2,000원으로부터 1937년에는 2,771만 1,000원으로 무려 80여배나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에 조선의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30만 4,000원으로부터 79만 5,000원으로 2배의 증가를 보였을뿐이다.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은 1921년에 평양에 1천 500만원의 자본을 투하하여 전분공장을 세운것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기업소들을 세웠으며 1924년에는 일제의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한 개인채무의 형식으로 근 2천만원을 투하하여 조선농민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였다.

또한 미제는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수많이 략탈해갔다.

미제는 1903년부터 1928년에 이르는 25년간에 8,200만원어치의 금을 도적질해갔다.

이밖에도 조선에 많은 기업체들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재벌들과 융자 또는 차관의 형태로 련계를 가지고있는 모르간을 비롯한 미제독점체들이 그 투자액의 리자를 통해서도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1930년대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을 말살하려고 일제를 도와나선 흉악한 미제 미제국주의자들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는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 야욕을 계속 품고 있었던 미제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로 급속히 발전하여 가는데 대하여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그 투쟁을 말살하기에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항일유격대를 《모험주의자》로 모독하면서 일본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혁명무력을 반대하는 목적을 가진다면 그들이 침략을 확대하는것을 묵인할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조중인민의 혁명력량을 반대하고 나아가서는 반쏘전쟁의 도발을 위하여 1931년 후 일제의 대륙 침략을 적극 지지방조하였다. 미제는 막대한 전략물자를 포함한 경제적지원도 강화하였다.

미제독점회사 《제네랄 모터스》는 1931년에 근 7,500대의 자동차를, 《포드》회사는 11,400여대의 자동차를 일제에게 넘겨주었으며 미 《제록펠러》원유독점회사와 《스탠다드 오일 오브 뉴저시》는 전체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휘발유와 막대한 량의 철재, 흑색공업원료들을 일제침략자들에게 공급하였다.

1940년대

—제2차세계대전시기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기도 1941년 일제는 태평양에서 모험적인 전쟁을 도발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뛰여들게 되였다.

이 시기 일제의 패망이 확정적사실로 되여짐에 따라 국제 정치무대에서는 조선문제가 상정되게 되였다.

미제는 이때야말로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전환시킬때라고 하면서 조선을 다시금 제국주의자들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

그후 미제는 세계여론에 눌리여 1943년 11월 22~26일 미, 영, 중 3개국간의 까히라회담에서 형식상으로나마 《…조선은 적당한 시기에 자유독립국가가 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놈들은 《적당한 시기》라는 문구를 넣어 소위 독립준비시기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20~30년간 미국의 단독적신탁통치를 실시하는것으로 조선인민을 미국의 식민지로 예속시키려고 술책하였다.

또한 1945년 2월 쏘, 미, 영 3개국 지도자들의 크림회담에서도 미제는 조선을 민주주의 독립국가로 부흥시킴에 대한 원칙적방침에 찬의를 표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파도기를 운운하였다. 회담에서는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종속시키려던 미제의 방안과는 반대로 조선은 독립을 획득해야 하고 만일 파도기가 필요하다면 후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비공식협약이 성립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본의 아닌 동의를 하였다.

크림회담후 미제는 조선의 독립국가에로의 발전을 저지시키려는 목적밑에 구성될 정부의 성원을 친미주구분자로 꾸려보려고 미쳐날뛰였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 미제는 련합군간의 합의에 의하여 미군이 북위 38도선 이남의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게 된것을 기화로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며 군사적점령제도를 공간으로 남조선을 완전히 식민지 예속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조선을 강점하기 위하여 1945년 9월 8일 38선 이남에 상륙하였다.

이에 앞서 8월 20일 태평양 미제침략군 괴수인 맥아더는 당시 일제의 조선총독 아베에게 특별명령으로 남조선 치안은 전적으로 조선총독과 조선 주둔군 사령관이 책임지고 유지하여야 하며 그 량자이외의 여하한자에 의한 치안유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떠벌였으며 8월 21일에는 비행기로 하지놈의 포고를 살포하였다. 포고에는 《주민의 경솔, 무분별한 행동은 의미없이 인명을 잃고 아름다운 국토도 황폐되여 재건이 지체될것임, 현재의 환경은 제씨의 생각하고는 맞지 않더라도 장래의 한국을 위하여서는 평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겠으니 국내의 동란을 발생할 행동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음》이라고 씌여있었다.

또한 미군의 남조선 상륙 첫날 맥아더란놈은 포고 제1, 제2호에서 미제의 로골적침략야욕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였다.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국륙군 최고 지휘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38도이남과 동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치함.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좌기와 여히 포고함.

제1조 조선북위 38도이남의 지역과 동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

제2조. 정부 공공 단체 또는 기타의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명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임할사.

제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속 복종할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한 질서 보안을 문란히하는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한다.

제5조 군정기간 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제6조 기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급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하여 주민이 리행하여야 될 사항을 명기 함.》

《…태평양 미국륙군 최고지휘관의 권한하에 발한 포고, 명령, 지시를 범한자, 미국인 또는 기타 련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한자, 공중치안질서를 교란한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한자, 또한 련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 행위를 하는자는 점령군 군률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 회의의 결정되는 대로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라고 하였다.

포고의 이 침략성은 미국의 한 어용신문기자가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였다. 우리들은 점령하기 위해서, 조선인이 항복조건에 복종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달려 간것이다. 우리는 상륙 첫날부터 조선인의 적으로 행동하였다.》라고 실토한데서도 여실히 폭로되였다.

—남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정치적예속화정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군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모든 애국적민주인사들을 박해하였으며 해방직후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해산하고 미군정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 끌어온 매국노들과 국내에 있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긁어모아 남조선반동세력을 형성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207페지)

미제는 《독립국》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예속된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통치를 남조선에 수립하기 위해 군정기간에 그 기본 토대를 닦는 책동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테로적인 군사점령기구를 통해 민주력량을 대표하는 인민위원회를 폭력으로 해산하고 각 정당 사회단체 활동을 탄압하였다. 미군정은 식민지통치기구의 보존을 위해 일제시기 통치체계와 그 기관에 복무하던 관리를 그대로 둔다는것과 종래에 《조선총독이 행사하던 제반 직권을 군정장관이 행사한다.》고 법적으로 선포하였다.

1945년 11월 13일에는 국방사령부, 계속하여 11월에 《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를 조작하여 경찰력을 꾸렸으

며 뒤이어 각종 테로단체들을 조작하였다. 놈들은 각종 악법들을 군사적폭력으로 적용하여 침략자들에 대한 인민들의 항거를 진압하였다.

로골적인 식민지통치의 방법으로는 조선을 다시 예속시킬수 없다는것을 알게된 미제는 남조선을 《독립국》으로 분장하기에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친미, 친일, 민족반역자, 지주, 예속자본가를 키웠으며 1945년 10월에는 오래전부터 친미주구로 이름난 리승만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여 반동들을 묶어세우는 총우두머리로 내세웠으며 1946년 2월 《군정고문》 대신 새 군정자문기관인 리승만을 《의장》으로 하는 소위 《남조선 대한 국민대표민주의원》을 꾸며냈다. 미제는 제놈들의 기만적본성을 오래 감출수 없게되자 《선거》에 의하여 보다 교활한 주구기관을 만들기 위해 같은해 12월에 소위 《립법의원》을 조작하였으며 뒤이어 1947년 6월에는 《남조선과도정부》를 꾸며냈다.

—미 군정의 남조선에 대한 경제—문화적 침략정책 미제는 남조선 강점 첫날부터 남조선을 과잉상품의 판매시장으로, 전략자원의 값싼 조달지로, 유리한 자본투하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남조선 경제의 식민지적재편성을 위한 기초 축성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 첫 조치로써 남조선 경제를 강탈하는것이였다. 미제는 1945년 9월 25일부 군정법령 제2호 《적산에 관한 건》과 같은해 12월 6일부 군정법령 33호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취득에 관한 건》을 들고나와 일본인에게 소속되였던 남조선 경제의 대부분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 재산 총액은 남조선 재산 총액의 80%이상에 달하였다.

미제는 남조선경제를 모조리 파괴하고 제놈들에게 철저히 예속시키기 위해 남북조선의 경제적련계를 끊어버리기 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1948년 5월 북반부로부터 이미 받아오던 낮은 가격의 전력공급을 거절하고 자기 나라 발전선들을 끌어들여 북반부로부터 공급받던 전력대금의 10배나 되는 비싼 값으로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리윤을 긁어모았으며 남조선경제에 파괴적영향을 주었다.

또한 미제는 남조선의 무역을 독점하였으며 남조선에 대한 침략적 《원조》를 강화하였다. 이 《원조》는 철저히 남조선 경제를 파괴하며 자국에 체화된 과잉물자를 처분하여 막대한 리윤을 얻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미제가 1948년 말까지 남조선에 준 《원조》총액은 4억 969만딸라에 달하였는데 그중 변질한 식료품이 1억 7,050만 딸라로 총액의 40%이고 토질에 맞지않는 비료가 7,799만딸라로 총액의 18%, 피복과 직물류가 4,779만딸라로 11%, 석탄류가 3,334만딸라, 석유류가 2,035만딸라 기타 과자류, 사치품, 의약품 등 남조선공업 시설로도 능히 생산할수 있는 물건들이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공장, 기업소들은 파괴해체되였다. 남조선의 공장수는 1947년 3월 현재로 1943년 6월에 비하여 44%로, 로동자수는 같은 기간에 59%로 각각 줄어들었다.

또한 미제는 1945년 9월 22일 《과거토지 소유관계는 변동이 없으며 지주는 종전대로 소작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농촌에서 일제가 남긴 토지소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주놈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주었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에서 일제를 대신하여 대지주로 등장하게 되였다.

1946년 2월에 《신한공사》라는것을 조작하였는데 여기에는 《동양 척식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불이농장》, 《박간농장》, 《조선흥업》 등 일본인의 대농장회사와 일본인 개인소유 토지의 전부인 28만 6,767정보를 《귀속》시켰다. 여기에 소속된 자산액은 실로 12억 5,000만 딸라였다. 놈들은 이 《신한공사》를 통하여 1948년 3월말까지 27억 1,465만여원(놈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을 략탈하였다.

그러나 이 로골적형태의 착취는 토지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오래가지 못하고 1948년 3월에 《신한공사》의 토지불하정책의 실시로 해체되였으며 대신 토지는 《중앙농지행정처》에 넘겨졌다. 놈들은 《신한공사》 불하정책을 통해 토지를 1942년 이전의 년평균 수확고의 3배에 해당하는 대금으로써 농민들에게 15년간의 년부로 팔아넘기였다. 이는 령세한 농민들이 대를 이어 가면서도 감당할수 없는 엄청난 대금이였다. 1947년 말에는 소위 《농지개혁법》이라는것을 조작하여 남조선농경지의 거의 대부분인 약 120만정보를 소유한 남조선 농가호수의 3%도 못되는 지주들의 권익을 옹호하였다. 농업생산액은 감소되였다. 그중 미곡생산은 1947년까지 년평균 472만석이 감소되였고 목화는 1946년에 1944년에 비해 42.9%로 감소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위하여 반공산주의 사상공세를 발광적으로 감행하면서 《미국식 생활양식》을 보급하기에 미쳐날뛰였다.

1946년 9월 반인민적 이중 교육체계와 식민지 교육체계가 그대로 답습된 《신학제》를 조작하였으며 1946년 8월에는 소위 《국립 서울 종합대학교안》이란것을 발표하여 《서울대학교》라는 간판밑에 미국인이 장악하는 하나의 리사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과 제반 권한을 미국인이 통간하도록 하였다.

미제는 남조선 문화출판기관들에서 진보적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으며 1946년 2월에는 민주주의적연극의 공연을 금지시킬 목적밑에 《극장 및 흥행 취제령》을, 12월에는 진보적 영화의 제작과 상영을 금지함은 물론 남조선극장이나 영화관에서 미국영화를 무조건 상영하도록 강요하는 《영화상영규칙》을 군정 명령으로 공포하였다.

놈들은 또한 민족문화유산을 파괴략탈하였다. 1946년에 서울대학 도서관에 귀중히 보관하였던 규장각 도서를 도적질하였으며 1947년 4월에는 우수한 민족문화유물인 부도, 석등, 석비탑 등을 진렬한 경복궁 정원을 파괴하고 미제침략군 병사를 설치하였으며 덕수궁 미술관 내 미술품들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구실밑에 미국으로 략탈해갔다. 1947년에는 세계 문화사에서 큰 자랑으로 되는 국보적 유물인 합천해인사의 8만 대장경의 일부를 비롯하여 리왕직 박물관내의 유물들을 강탈하였다. 1948~1949년에는 서울중앙박물관에 있던 신라의 금관과 구슬, 목걸이, 팔지, 금반지, 경주부근에서 나온 고대유물들, 개성박물관에 간직된 고려시대 문화유물들을 략탈하여갔다.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킨 미제 1945년 12월 16~26일간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쏘, 미, 영 외교부장회의에서 미국은 첫째로 조선에 신탁통치제도가 수립될때까지 무기한으로 쏘, 미 량군 사령관을 수위로 하는 군행정부를 창설하며 둘째로 조선정부가 수립될때까지 신탁통치를 실시할것을 예견하는 결의초안을 들고나왔다.

놈들은 1946년 1월 16~25일까지에 조선주둔 쏘, 미 량군 사령부 대표회의에서 5개항목에 걸치는 남북조선에 관계되는 긴급한 행정,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조선림시정부 수립을 원조하기 위한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1개월 이내에 개시할것을 토의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조선경제를 인공적으로 갈라놓았으며 1946년 3월 20일부터 열린 제1차 쏘미공동위원회도, 1947년 5월 21일 재개된 제2차 쏘미공동위원회도 파탄시키고말았다.

그러면서도 놈들은 1946년 5월 12일 리승만매국노들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재심의할것

을 유엔에 제기하도록 하고 그를 구실로 주구 리승만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1947년 1~4월에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는 방법으로 남조선에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를 조작할 방침을 전달하였다.

1947년 7월 18일 전 미국 대통령 후버놈은 미국회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조선사람들은 금후 다년간 자치를 행할수 없다. 조선이 재 통일된다하여도 누구가 금후 25년동안 그들의 정부를 감독하여야 할것이다》라고 폭언하였다. 또한 1947년 7~9월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서 남조선에 와 군사기지와 실현의 현지조사를 진행한 악명높은 전쟁상인이며 반동군벌 두목의 하나인 웨데마이어놈은 미국정부에 제출한 비밀조사보고서에서 《미국정부는 미국의 침략적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행동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는것과 그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전반적리익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는 통일독립된 민주주의 조선의 출현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이다.》라고 뇌깔였다. 계속하여 이놈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방법으로 되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을 계속하는것이며 또 앞으로 전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실현하는것이라고 하면서 1947년 9월 17일에는 조선문제를 유엔 제2차총회에 상정시킬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내리였다.

미제는 유엔을 제놈들의 침략적의사를 강요하는 도구로써 리용하기 위하여 유엔헌장자체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1947년 9월 23일 유엔 총회 제2차회의 의정에 조선문제를 포함시켰다.

1947년 10월 28일~11월 5일간 유엔 총회 제1정치위원회에서 조선문제에 대한 비법적토의가 진행되였다.

미제는 쏘미량군의 조선에서의 철거, 통일정부를 조직할 가능성을 조선인민에게 줄데 대한 문제,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에 조선대표를 초청할데 대한 제의를 거부하고 11월 14일 소위 《조선독립문제》에 관한 《결의》를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구성할데 대한 문제, 이 《위원단》의 감시밑에 남북점령군당국은 1948년 3월 31일전으로 선거를 실시할것, 조선에서의 군대 철거는 조선에 통일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진행할것 등 놈들의 침략적야심이 그대로 표현되여있었다.

—남조선괴뢰정권의 조작과 새로운 식민지체계의 수립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은 조선인민의 분노와 저주를 받으면서 남조선에서 5.10단선을 조작했다. 7월에는 소위 《대한민국 헌법》을 조작하였으며 8월 15일에는 만고역적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괴뢰정부를 날조하였다. 미제는 자기들의 침략도구이며 파쑈적폭압기구인 남조선괴뢰정부를 조선의 《합법적》정부로 묘사해 보려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상정시키고 《조선독립문제》에 관한 새로운 《결의》를 강압통과시켰다. 미제는 이 《결의》에서 남조선 《정부》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기때문에 《합법적정부》라고 하였으며 남조선에 세운 반동적제도를 북조선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구성하여 조선에 들이밀데 대해 떠벌였다.

미제는 괴뢰정권을 조작한후 우선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계속하며 남조선에서 군사적지배권을 틀어쥐는 보다 교활하고 음흉한 체계를 세웠다. 이러한 목적으로 놈들은 1948년 8월 24일 《과도기간 잠정적 군사 및 안정에 관한 협조협정》을 남조선괴뢰와 체결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괴뢰 《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경찰》과 군사기지 및 시설에 대한 관할통수권을 괴뢰정부에 점차 넘겨준다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놈이 계속 일체 관할 통수권을 장악하며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장기강점을 《합법화》한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협정이였다.

미제는 그후 1950년 1월 26일 괴뢰정권에 《주한미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협정》을 강요함으로써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에 대한 완전한 군사적지배권을 《합법화》하였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사고문단》이 《대한 민국의 륙군, 해안경비대 및 국군 경찰을 포함한 군경조직의 통괄 및 훈련에 있어서 고문 및 원조》를 준다는 구실을 붙이고 괴뢰군의 실재적인 통솔자, 지휘자로 남조선의 군사적지배자로 남아있게 하자는데 목적을 둔것이였다.

미제는 다음으로 괴뢰정권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지배체계도 더욱 강화하였다. 교활한 미제는 1948년 9월 11일 《한미 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이란것을 조작하여 남조선 괴뢰정권이 《미군정》3년간에 남조선인민을 억압착취하기 위하여 조작한 식민지통치기구를 넘겨받을 의무를 강요함으로써 남조선괴뢰정권이 《미군정》청 또는 남조선과도정부의 일체 현행 법률, 법령 및 규칙을 전적으로 계속시행할것을 협약하였다. 이것은 괴뢰정권이 《미군정》의 계속이며 미제식민지 통치기구의 새로운 보다 교활한 형태임을 규정한 것이였다.

—《한미경제원조협정》의 체결 미제는 남조선의 정치, 경제에 대한 자기의 지배권을 새로이 법적으로 강화하며 재확인하기 위하여 1948년 12월 10일에 《한미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전문 12조로 된 이 《협정》은 미제가 《원조》를 미끼로 남조선에서의 통화발행과 외화의 거래관리, 무역에 대한 통제, 량곡을 비롯한 생산물의 수매, 회수자금의 사용 등 남조선경제생활의 전반을 간섭하고 통제할 권한을 주었으며 괴뢰정부는 미제의 《동의》없이 그를 처리할수 없을뿐만아니라 그 구체적실행정형을 미국정부에 보고한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굴욕적인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 협정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이 《협정리행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뢰들에게서 어떠한 자료든지 받아낼수 있으며 《협정》의 《목적과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괴뢰정부에 그 《시정》을 명령할수 있으며 만약 괴뢰들이 이 《협정》을 위반하거나 미국의 《국가적리해관계》에 어긋날 때에는 언제든지 《원조》를 중지 또는 《폐지》한다는것이 규정되여있었다.

《협정》에 의하여 미제는 이와 같은 간섭과 통제 및 략탈정책을 현지에서 직접 실현할 목적으로 악명높은 《미경제협조처》대표를 《원조대표》라는 명목밑에 남조선에 끌어들이였고 괴뢰들은 남조선에 대한 광범한 내정간섭의 권한을 미제상전에게 부여하였다.

이 협정은 미제가 표면상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경제적위기를 《방지》하며 《국력부흥을 촉진》하고 《국내안정을 확보》한다는 등 허울좋은 말마디로 위장하고 있었으나 실제상에 있어서는 남조선경제를 딸라에 얽어매놓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 억압하고 략탈할것을 추구하였다.

미제는 이 협정의 체결후 《대한전력회사》, 《대한석유저장회사》, 《대한석탄공사》, 《광물개발공사》, 《광업진흥회사》, 《대한조선공사》, 《대한해운공사》, 《극동무역》, 《마이터련합회사》 등을 통하여 남조선경제를 저들의 예속하에 몰아넣고 더욱 파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 도발준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남북조선인민들의 단합된 혁명력량과 또한 1948~1949년 경제공황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헤여날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되고 아세아에서 저들의 침

략정책이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게된 미제는 이로부터의 출로를 전쟁도발에서 찾으려 하였다. 미제는 조선을 그 첫번째 대상으로 하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침략전쟁을 아세아대륙에로 확대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우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력량을 탄압하고 정치생활을 완전히 파쑈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1948년 2월에 《국가보안법》을 공포하고 애국적인민들을 체포, 구금, 학살하였으며 1949년초에는 이른바 《신문지법》을 조작하여 수다한 민주주의적출판물들을 강제페간시켰으며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완전히 금지시켰다. 1948년 11월에는 《국군조직법》, 1949년 3월에는 남조선청년들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한 《병역법》 등 각종악법들을 조작하여 괴뢰통치기구의 파쑈체계를 갖추는 한편 애국적인민들에게 야수적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국방경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고 괴뢰군사단들을 증설하며 괴뢰해군 및 공군을 독자적으로 분립시켜 그를 확장강화하기에 미쳐 날뛰였다. 놈들은 괴뢰군 증강계획을 10만의 상비군, 5만의 예비군, 5만의 경찰, 20만의 민병 도합 40만으로 목표하고 그중 10만의 정규군을 만드는데 미쳐 날뛰였다. 또한 괴뢰군 각급 장교놈들을 악질적인 놈들로 바꾸었으며 보병 및 기술병종장교들의 대량 양성에 광분하였다.

1948년 11월~1949년 8월간에 괴뢰군의 예비군 조작을 목적한 《호국군》을 조작확대하여 미군장교들의 지휘하에 10개 련대를 편성하고 강제 징모한 학생, 청년들에게 군사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그들을 위협과 공갈로 괴뢰군에 쓸어넣었다.

미제는 남조선 괴뢰군장비를 증강하며 그를 현대적전투기술기재로 장비시키기 위하여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1억 9,000만 딸라에 해당하는 《군사원조》를 주었다. 그중에는 10만 5,000정의 미국제 보총과 4만정의 일본제보총,2,000문 이상의 반전차포 파즈가와 그 탄약 4만 발,다량의 105미리 류탄포와 37미리 및 57미리 반전차포 화염방사기, 2,000여정의 기관총과 기관단총, 다량의 60~80미리 박격포와 70만발의 박격포탄, 다량의 지뢰, 4,900대 이상의 군용 자동차가 포함되여 있었다.

미제는 《국방군》개편당시 5개 려단에 불과하던 괴뢰군의 륙군무력을 1949년 5월에는 5개 사단과 1개 려단으로 증강시켰고 6월에는 8개 사단으로 그 총 병력수를 10만으로 증가시켰다. 이밖에도 해공군과 5만명의 경찰대를 꾸려놓았다.

또한 미제는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의 군사전략적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군용도로, 비행장 등 군사기지를 신설확장하는데 미처날뛰였으며 38도선에 전호 및 참호 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완전한 전쟁준비를 갖춘 놈들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의 위협》을 선전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범을 빈번히 감행하였다. 1949년 1년에만도 황해도 벽성지역으로부터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공화국북반부지역에 1,836회나 무장침습을 감행하였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들여보내였다.

괴뢰도당의 전쟁준비는 미국 대통령 트루맨, 국무장관 애치슨, 국무성 극동 국장 배터워드, 호전군벌 두목 웨데마이어와 그 막료들, 해군 작전부장 덴펠드,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키등 미제지배층의 전쟁미치광이놈들의 흉악한 책동에 의해 감행되였으며 수많은 미제 전쟁상인들의 현지 지휘하에 완성하였다.

1949년에는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하기 위한 작전계획까지 완성시켰다.

195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도발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준비는 더욱 보충 완성되였다. 1950년 6월에 남조선괴뢰군병력은 15만으로 증가되고 이해 상반년에 2척의 항공모함, 2척의 순양함, 6척의 구축함이 미제7함대에 증강되였으며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들에 폭격기 3개 련대, 추격기 6개 련대, 2개의 수송기 련대가 집결되고 수많은 병종부대들이 보강되였다.

또한 미제는 남조선괴뢰들과 제놈들이 준 《원조》를 《그 공여목적이외에 타목적을 위하여 류용하지 않을것을 공약함》이라고 한 《한미 군사원조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이 오로지 전쟁준비에만 충당되도록 함으로써 침략전쟁준비의 물질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미국 잡지 《라이프》까지 《우리는 우리 력사의 전기간을 통해서 이 전쟁이 시작될 때처럼 그러한 정도로 준비되여 있은 례를 이때까지의 그 어떤 전쟁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쓴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1950년 2월에 맥아더놈은 리승만괴뢰도당에게 북조선을 침공할 구체적지시를 주었다.

1950년 4월 초 미제는 악명높은 전쟁미치광이 덜레스놈에게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최종적지도를 일임 할것을 결정하고 5월에 주한 미제대신 무쵸놈으로 하여금 남조선괴뢰정부가 덜레스를 그곳에 초청하는 형식상절차를 취하도록 하였다.

6월 17일 남조선에 기여든 덜레스놈은 18일 38도선을 싸다니고 와서 리승만도당에게 《북한에서 먼저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라… 만약 2주일만 견디여낸다면 이 동안에 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끔 하여서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것이다》라고 지껄였다. 덜레스놈은 6월 19일 제2기 《국회》개원식에서 떠벌이면서 《미국은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에 물심량면의 필요한 원조를 주기에 준비되여 있다》고 하면서 괴뢰도당의 《북벌》전쟁을 공공연히 부추기였다.

미제는 제놈들의 앞잡이 리승만도당을 사촉하여 드디여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반부를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놈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의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와 민주건설성과를 말살하며 남반부에 부식된 반동통치제도를 북반부에까지 확대하여 우리 나라를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며 조선을 발판으로 중국, 쏘련 기타 아세아를 침공하여 새 세계대전을 도발하려는데 있었다.

—침략전쟁도발을 합법화해보려는 미제의 어리석은 연극 1951년에 발표된 미국정부의 《조선백서》에서는 1950년 6월 25일 주한미제 대사 무쵸놈의 보고와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조선전쟁이 마치 북조선측으로부터의 공격에 의하여 일어난듯이 묘사하였다. 이미 작성된 계획에 따라 미국무성은 무쵸놈의 날조된 보고를 받은후 전화로 유엔사무총장을 호출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북조선군의 무장공격》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운운하면서 전쟁의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넘겨씌우려는 비법적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미제는 6월 27일에 안전보장리사회에서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미국과 기타 유엔 성원국들의 조선에 대한 무력간섭을 허용하는 침략적 《결정》을 채택케 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채택 3시간 먼저 트루맨놈은 자기 성명에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에 기초하였다고 하면서 미제침략무력의 조선전선출동을 공식

명령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미제는 이보다 훨씬 더 먼저 비밀리에 미제침략군의 출동명령을 내리고 수많은 침략무력을 조선전선에 들이밀었던것이다.

1950년 7월 7일 미제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제놈들이 지휘하는 《유엔군》을 조작할데 대한 비법적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일본도꾜에 그 《사령부》를 꾸려놓았다. 이에 기초하여 1950년 7월 14일 미제는 괴뢰도당과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괴뢰군의 통수권을 《유엔군》 즉 미제침략군사령부에 이관하고 일체 군사적지휘권을 장악하였다.

놈들은 조선사태를 평화적으로 조성하려는 일체 발기를 거부해 나섰다.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 제5차회의에서 미제는 《유엔의 지도하에》 조선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유엔군》의 전조선 강점을 승인하며 남조선의 반인민적통치제도를 북반부에까지 연장시키기 위한 침략도구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설치를 예견하는 반동적결정을 강압통과시켰다.

1950년 10월 12일 유엔 조선관계 소총회에서는 《유엔군이 점령한 지역의 행정에 관한 결의》를 조작하여 《북조선통치권》을 림시 《유엔군》사령부에 담당시키고 인민정권을 파괴하고 일제식민지체계를 부활시켰으며 제반민주주의 개혁들을 파괴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감행한 천인공노할 만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어느 한 시기에 엥겔스는 영국군대를 가장 야수적인 군대라고 불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독일파쑈군대는 그의 야수성에 있어 영국군대를 릉가하였다.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서는 그 당시 히틀러악당들이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독하고 더 무서운 만행을 상상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양키들은 히틀러도배들을 더 훨씬 릉가하였다.》(《김일성선집》, 4권, 1953년판, 204폐지)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야수들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공장과 기업소들을 무차별 폭격하여 모조리 파괴하고 재더미로 만들었다.

놈들은 전쟁초기 남으로 패주하면서 수원과 충주를 비롯한 11개시, 군에서만도 무려 2만 2천 600명을 학살하였으며 해방되었던 남반부지역에 다시 기여 들면서 7만 2천여명을 학살하였다. 전쟁도발후 1년 2개월이 남짓한 기간에 남조선에서만도 100만여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놈들은 《치안대》, 《멸공단》, 《경찰대》, 《백골단》,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등 각종 반동 테로단체들까지 동원하여 우리 나라 수천년의 력사에 있어보지 못하였던 가장 대규모적이고 잔인한 인간도살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유엔군 병사들이여!… 설사 그대들앞에 있는것이 어린애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된다.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원하는것이며 또 유엔병사의 책임을 다하는것이다》라고 한 미 제8군 사령관의 인간증오적이며 식인종적인 망발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일시적후퇴시기에 놈들이 학살한 인민들의 수는 초보적자료에 의하더라도 각지방에서 다음과 같다.

재령—1,400명	강서—1,561명
사리원—950명	개천—1,342명
안악—19,072명	박천—1,400명
신천—35,383명	안주—5,000명
송화—5,545명	정주—800명
은률—13,000명	선천—1,400명
평산—5,290명	희천—850명
해주—2,700명	초산—900명
송림—1,000명	원산—630명
봉산—1,293명	양양—25,300명
연평도—2,000명	정읍—1,560명
평양—15,000명	단천—532명
남포—1,511명	함주—648명
순천—1,200명	

살인귀 미제는 북반부 강점지역에서 수십만의 우리 인민들을 총살, 타살, 교살하고 생매장하며 사람의 코와 귀를 꿰여 끌고 다니다가 죽이며, 눈알을 뽑고 젖가슴을 도려내죽이며, 머리가죽이나 몸가죽을 벗겨서죽이며, 입술을 도려내고 혀를 잘라죽이며, 오관과 사지를 각을 떠서 죽이며, 톱으로 토막을 내여죽이며, 장작낟가리우에서 불태워죽이며, 땅크로 깔아죽이는 등 참으로 짐승도 낯을 돌릴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9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휘발유창고에 넣고 불태워 죽인 신천 대중학살사건을 비롯하여 신천군 초리면 월산리에서 박도세 모범농민을 코와 귀를 철사로 꿰고 이마에는 모범농민으로 받았던 표창장을 못으로 박아 붙이고 끌고다니다 죽인 사실, 이를 저지하려는 며느리 리옥봉에게 덤벼들어 머리채를 휘여잡고 뒤산으로 끌고가 밤나무에 동여매고 그의 국부에 휘발유에 적신 말뚝을 꽂고 불을 붙여 태워죽인 만행, 개천군에서 아무죄 없는 임신부를 남편이 로동당원이였다고 그의 배를 가르고 9개월이 되는 태아를 끄집어내여 밟아죽인 만행, 황주군에서 어린애를 끓는 물에 삶아 죽인 사실, 양양군에서 윤두희농민을 모범농민이였다고 그의 몸을 톱으로 잘라 학살한 사실등은 인간의 가죽을 쓰고서는 상상조차할수 없는 승냥이 미제가 저지른 치떨리는 만행중의 단적실례들이다.

놈들은 국제법에 의하여 중지된 세균무기까지 사용하였다.

악명높은 전쟁광 덴쓰가 《나는 전쟁은 륙, 해, 공군에만 국한 되여야 한다거나 또는 파괴의 방법과 무기에 대하여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세균전쟁, 가스, 원자탄 및 수소탄 사용을 찬성한다》고 떠벌였으며 1951년부터는 세균전을 살인행동에 옮겼다. 놈들은 세균탄과 독가스탄을 전선에서는 물론 북반부의 거의 전지역에 발사 투하하였다. 1952년 1~2월간만도 400여개의 지역에 700여회나 발사투하하였다.

1952년 8월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란놈은 북반부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공연히 지껄였으며 이에 따라 무차별 초토화 폭격을 감행하였다.

1952년 1년동안에만도 우리의 평화적도시와 농촌들에 20여만발의 대중폭탄을 떨구었으며 5억여만발의 탄환과 약 40만개의 로케트포탄, 1천 500여발의 나팜탄을 투하 또는 발사하였다. 전쟁 3년간 평양시에만도 시민 1인당 1개씩으로 계산되는 42만 8천 700여개의 폭탄과 나팜탄을 투하하였고 북반부지역에서 8천 700여개소의 공장, 생산시설, 60만호의 주택, 5천여개소의 학교를 비롯한 수천 개소의 보건, 문화 후생시설들을 파괴소각하였다.

미제는 또한 평양과 청진, 함흥, 해주, 묘향산 등지의 력사박물관을 파괴하고 고귀한 문화유물 6천 709점을 략탈해갔으며 강서, 룡강, 안악 등지에서 여러개의 고구려고분을 파괴하였다.

—정전협정의 합의사항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남조선 영구강점에 미쳐 날뛴 미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앞에 1953년 7월 27일 미제는 드디여 무릎을 꿇고야 말았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전쟁에서의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파탄에 직면한 자기의 침략

정책을 수습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방해하고 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계속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새 전쟁도발의 군사적기지로 계속 장악하려 하였다. 이미 1953년 4월 7일 아이젠하워는 정전이 성립된다하여도 미군은 《당분간》 남조선에 계속 주둔할것이라는것을 뻔뻔스럽게 선포하였다.

미국무장관 덜레스는 륙군장관 스티븐스를 남조선에 파견하여 1953년 8월 8일 소위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미제는 조약에서 남조선전역을 미군의 군사기지로 규정하였으며 미군이 필요한 경우 단독적으로 군사행동을 개시할수 있는 권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지향하며 미제의 예속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도 취할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다.

미제는 또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문제를 토의할 목적밑에 1954년 4월 26일부터 열리게 될 제네바회의에 앞서 주구 리승만과 10여차의 비밀회담을 가지고 제네바회의를 반대하는 12차의 성명을 발표케 하였으며 1954년 5월 22일 리승만괴뢰대표를 시켜 미제침략군이 강점한 조건하에서 《유엔감시하의선거》를 진행할데 대한 소위 《14개 항목방안》을 제기케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6월 15일 조선정전협정에서 예견된 조선문제에 관한 정치회의 파탄을 선포하였으며 소위 《16개국 선언서》를 랑독하였는데 《조선문제를 이 이상 더 심의하고 검토하는것은 하등 유용한 목적에 도움을 주지 않을것》이라고 떠벌였다.

미제는 1954년 9월 유엔총회 제9차 회의에 또다시 조선문제를 강압적으로 상정시키고 조선문제는 미국이 제시한 목적과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는것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비법적 《결의안》을 자기의 거수기를 동원하여 강제로 통과시켰다.

미제는 《협상에 의한 해결방안분쇄》를 들고나오면서 남북협상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지지하거나 그에 관하여 말하는 자는 소위 《대한민국의 국시를 위반하는 자》로서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중범으로서 다스릴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미제는 조선정전협정 체결후 1년간에 부대통령 닉슨, 국무장관 덜레스, 국방장관 윌슨 등 50여명의 악명높은 전쟁상인들을 남조선에 직접 들이밀어 《현지지휘》를 진행케 하였으며 1954년 7월에 리승만놈을 워싱톤에 불러다가 《량단된 한국의 장래문제》를 토의한다는 명목밑에 《북진》계획의 침략로선을 재확인하는 회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북진준비의 상세한 토의를 위한 《전문가》들간의 회담도 진행하였다.

1954년 8월 26일 군사회담, 9월 13일에는 경제회담을 걸쳐 《한미회담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는 《한미호상방위조약》의 보충적 《협정》으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 영구강점을 재확인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 정치, 경제적 지배를 가일층 강화하며 《북진》전쟁의 발광적준비를 내용으로 한것으로써 여기에는 륙군 66만 1천명, 해군 1만 6천명, 해병대 2만 7천명, 공군 1만 6천명 계 72만의 괴뢰군 정규병력을 확보할것이 규정되였으며 또한 《유엔군사령부가 남조선방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국군을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지휘통솔권을 재확인하였다.

미제는 1954년 하반기에 일본에 있던 미 제8군사령부, 미극동군사령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한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무력을 증강하며 군사시설들을 확장하는데 미쳐날뛰였다.

1956년 3월 미국무장관 덜레스는 부리나케 남조선에 기여들어 《북조선해방》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미제의 식민지제도를 북반부에까지 연장할수 있는 기회가 조성된것처럼 떠들면서 리승만을 시켜 《북진》나발을 불게 하였다.

1956년 7월에는 서부독일에서 파괴활동에 《수완》을 보인 다울링이란놈을 황급히 주한미제대사로 임명하였는데 그놈은 《한국의 통일은 불원 실현될것이다》고 뇌까렸다.

1956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합동참모본부 의장 래드포드놈은 《한국군뒤에는 유엔군이》 있으므로 《한국》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북진》을 극구 부추기였다.

1956년 5월초에는 워싱톤에서 조선전쟁참가국 16개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소집을 거부할것을 강요하였으며 《중립국시찰소조의 남한으로부터의 철거요구》까지 결정하였다. 한편 6월에는 《한미법령집행련석회의》, 《한미합동특무대》를 설치하고 미헌병, 특무기관들의 직접적 지휘감독밑에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테로 첩보활동을 감행케 하였다.

1957년 6월 21일에는 증강하는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할데 대한 조선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페기하였으며 7월 1일에는 《유엔군》사령부를 일본으로부터 서울로 이동시키고 《유엔군》사령관이라는놈이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 및 미 제8군 사령관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군사적 통수체계를 단일화하고 남조선을 원자기지화하기에 미쳐날뛰였다.

1957년 7~8월사이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7사를 원자사단으로 개편하였으며 10월에는 일본으로부터 미제침략군 제1기병사단을 다시 남조선으로 이동시켜 미24사와 통합하여 12월까지 원자사단으로 개편하였다.

미제는 1958년 2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지원군과 미군이 조선으로부터 철수되게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0월까지 지원군은 철거를 끝마쳤으나 계속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저들의 영구 강점의 야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11월 18일 덜레스는 미국군대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거를 공공연히 거부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비증강을 중지하지 않을것이라고 뇌까렸다.

1959년 7월부터는 《유엔군사령관》관할하에 있던 《원조》기관의 관리권과 《주한미군사고문단》을 미제대사관할하에 이관시키도록 하였다.

이렇게 미제는 전후 정전협정의 합의사항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고 그를 발판으로 새로운 전쟁준비에 미쳐날뛰였다.

—남조선 경제의 예속화를 위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 미제는 남조선경제를 《북진》전쟁 준비와 군사기지화정책을 보장하는 군사경제체계로 재편성할것을 목적으로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1953년 12월에는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한미합동 경제위원회 협약》을, 1954년 11월에는 《한미회담의사록》을 체결하였는데 미제는 이 두 《협정》에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그에게 남조선경제에 대한 더욱 철저한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미제는 괴뢰도당을 사촉하여 1954년 11월 제2차 《개헌》시에 경제조항의 《헌법》내용을 뜯어 고쳐 미국사자본이 용이하게 들어올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외자 관리법》, 《무역법》, 《외자도입 촉진법》 등 미국 사자본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조치를 여러모로 세웠다.

미제는 1956년 11월 28일에 괴뢰도당과 남조선에서 무제한한 략탈의 자유를 체계화한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미제의 독점자본이 《모

든 종류의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할수 있고 《모든 종류의 유체 무체의 동산을 구입, 임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소유하고 점유》할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의 모든 경제명맥과 재산을 거머쥐고 남조선인민들과 그의 재부를 마음껏 착취략탈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조약》을 통하여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제마음대로 거주하고 려행하며 조사하는 등 무제한한 행동의 자유를 가지며 남조선측에 저들의 특권과 재산과 모든 기관들을 철저히 보장할 의무를 지우며 지어 모든 미국인들과 미국의 착취략탈기관들과 시설들에 대하여서는 치외법권적 특권까지 보장받았다.

또한 《조약》에 의하면 미국자본가들의 어떠한 범죄행위도 단속을 받지않게 되여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세금과 관세를 붙일수도 없게 되여있었다.

이 《조약》은 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팔아넘기는것을 법적으로 성문화한 매국조약이였다.

미제는 이 침략적 《조약》으로도 부족하여 1960년 2월에는 《한미 투자보장협정》까지 조작하였다. 이는 남조선에 침투한 미국 사자본의 권리, 권한, 리익은 미국정부가 향유하고 있는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투자된 미국사자본의 여하한 손실에 대하여서도 괴뢰정부가 보상하기로 규정한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이였다.

이와 같은 《조약》 및 《협정》 등 악법들로 하여 남조선 경제, 문화는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남조선공업제품수요의 대외의존도는 1941년의 50%로부터 1958년에 86%로 제고되고 1943년보다 1957년 1월에 공장수는 2,993개가 줄었고 1958년 공업생산수준은 총생산액적으로 일제말기의 절반정도가 되나마나 하였다.

1960년대

—리승만을 대신하여 새로운 주구를 내세운 미제의 검은 속심

아이젠하워놈은 1960년도 《예산교서》에서 남조선은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지원에 있어서 최고 우선권》을 받는 지점의 하나로 될것이라고 하였으며 미국상전의 고무하에 리승만은 《언제든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겠다는 결심을 굳게》한다고 미제의 침략기도에 짝짝궁이를 쳤다. 미제는 이렇게 충실한 주구 리승만을 저들의 계속되는 앞잡이로 리용하기 위해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에서 리승만《대통령》4선과 리기붕의 《부통령》당선을 날조해냈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의 4.19투쟁은 고조되여 4.26일 리승만괴뢰정권을 타도하고야 말았다. 미제는 4월 28일 제놈들의 새 주구로써 이른바 《과도정부》를 꾸미고 위기에 빠진 사태를 수습하면서 인민들의 진출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과도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전면적인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한 지지를 계속할것》이라고 떠들었다. 29일 멕코노이와 허정간의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방위 및 안전보장에 관한》 미국의 《책임과 지위》 및 경제부문에서의 미국과의 《밀접한 협조》를 운운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예속관계를 재확인하였다.

6월 15일에는 매국역적 리승만 《헌법》의 복사판으로 되는 《개정헌법》이란것을 발포하였다.

미제는 괴뢰정권을 저들의 주구집단인 《민주당》에 넘겨주기 위해 7월 29일 기만과 강압의 수법으로 《선거》를 감행하고 8월 23일 악명높은 친일주구 장면을 《국무총리》로 한 새로운 괴뢰내각을 꾸미였으며 제놈들의 본국에서 《특별훈련을 받은》부대로써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계속 증강하였다. 아이젠하워놈의 뒤를 이은 호전광 케네디란 놈은 《유엔군》은 전조선에서 제놈들의 침략야욕을 실현할때까지 계속 남조선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뇌까리면서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는 침략야망을 또다시 드러내였다.

그후 남조선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자 미제는 반동적 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정권을 군사파쑈정권으로 바꾸는 흉계를 꾸미였다. 이미 1959년 말 미국회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이란놈은 《리승만의 정당 정치가 실패한 경우에 군인정치에 의한 교체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군사파쑈정권을 조작하기 위한 음모를 꾸며왔으며 박정희 군사 깡패로 하여금 60년 12월 정변음모를 꾸미고 61년 5월 16일 새벽 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 《정권》을 뒤엎고 악명높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조작하였다. 그러고는 미국에서 어용교수들까지 끌어들여 파쑈적 《헌법개정안》을 조작하고 계엄령하에서 사기협잡과 폭력으로 《선거》를 실시케 하여 1963년 12월 이른바 《민정이양》에 기초한 《제3공화국》을 조작하였다. 군사파쑈독재수립 후 놈들은 남조선 사회와 인민들에 대한 더욱 가혹하고 포악한 탄압과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면서 저들의 책동을 정당화하고 사회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1966년 7월에 14년간이나 미루어 오던 《한미행정협정》을 급작스럽게 조작하였다. 이 《협정》은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이 저지른 온갖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미제가 요구한대로 완전포기하고 무제한한 략탈과 만행에 대한 치외법권적특권을 재확인한 반동적인 협정이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야수적만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국놈들이 남조선에서 사냥하다가 나무하는 조선사람들을 꿩이나 토끼라고 하면서 쏴죽인것, 어린아이가 철조망곁에 왔다고 해서 도적이라는 루명을 씌워 쏴죽인것, 우리 부녀자들을 롱욕하고 머리까지 깎은것, 조선녀자를 벌거벗기고 뼁끼칠을 한것 등은 다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963년판, 473페지)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승냥이 미제는 그 첫날부터 무고한 우리 인민들에 대한 갖은 잔인하고 횡포한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나무하는 40여명의 나무군들을 꿩사냥하듯 마구 총질하여 여러명을 살해케한 사실(1962년 1월 경기도 파주군 하포리 뒤산에서), 길가던 사람을 리유없이 끌어다가 구두발로 짓밟고 로프로 목을 매단 후 총가목으로 후려갈기고 나중에는 벌거벗겨 온몸에 겨자까지 바르는 치떨리는 만행(1962년 5월 29일 경기도 파주에서), 녀성들을 끌어다 가죽채가 끊어지도록 때리고 옷을 벗기고는 등과 하반신에 뼁끼칠을 하여 내쫓은 만행(1959년 12월 31일), 녀성들을 병사에 끌어다 머리를 몽땅 깎아버리고 희롱하던끝에 그대로 거리에 내쫓은 만행(1960년 1월 2일) 등 우리 인민들을 사격의 목표물로, 군견의 훈련대상물로, 저들의 노리개로 하는 치떨리는 야수적만행은 매해 늘어가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놈들이 감행한 만행은 1963년에 215건, 1964년에 220여건, 1965년에 230건, 1966년에는 320건이였으며 《한미행정협정》의 조작이후인 1967년 2월부터 1968년 1월말까지의 1년간에는 그이전의 6배에 달하는 1천 876건으로 늘어났다.

—《한일협정》의 조작을 부추긴 미제

미제국주의자들은 1960년대에 들어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아세아침략에 더욱 광범히 리용할 범죄적인 《한일회담》을 빨리 《결속》시키기에 미쳐 날뛰였다.

미국무차관이였던 질패트릭이란놈은

1963년봄에 《미국은 일본이 장래에 있어서 조선반도를 포함하는 구역을 지키기에 충분한 〈감시력〉을 보유하게 될것을 기대하고있으며 그렇게 되면 조선에서 다시한번 분쟁이 일어나도 미국사람을 재 증강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고 지껄였다. 미제의 침략괴수 케네디놈은 1961년 6월 2일 일본총리 이께다놈을 제소굴로 불러들여 아세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이른바 《지도적역할》을 강조하면서 《한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할것을 요구하였다. 미제의 요구에 따라 1961년 10월 《제6차한일회담》이 박정희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 사이에 개시되였다. 케네디놈은 1962년 5월 회담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1964년 1월에는 미국무장관 러스크놈이 직접 일본과 남조선에 기여들어 5월에 《국교정상화》가 실현되도록 할것을 요구하였다.

1964년 3월에 결속짓고 4월에 《조인》하며 5월에 《비준》하기로 되였던 《한일회담》은 남조선인민들의 3,24투쟁에 의하여 지연되였다. 이에 극도로 당황한 미제는 1964년 11월 남조선괴뢰들에게 《래년봄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할》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 1965년 1월 미제의 두목 존슨놈은 일제의 두목 사또와의 회담에서 《한일회담》에 관한 최종적인 비밀합의를 진행함으로써 《회담》을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 침략세력의 남조선재침책동을 《합법화》한 철저히 침략적인 협정인 《한일협정》은 1965년 6월 22일 조작되게 되였다.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범죄적책동 미제호전광들은 《군사정변》을 조작한후 《조선에서 국부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시로 존재하고있다》고 떠들면서 조선에서의 새 전쟁 준비를 로골적으로 다그쳤다.

미제는 우선 남조선 주둔 미군침략무력을 증강하는데 혈안이 되였다.

1962년에 《라크로스》유도탄을 남조선에 끌어들인것을 비롯하여 전술적유도무기와 기타 전술적핵무기를 계속 끌어들였으며 《에프—5에이》, 《에프—100》, 《에프—105》형 등 신형비행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1966년 한해동안에 《나이크》, 《헤르큘래스》와 《호크》유도탄 각각 1개 대대, 《엠—48형》땅크 20여대, 중화기 600문, 수백정의 수류탄발사기, 여러척의 함선, 레이다장치 등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였다.

《푸에블로》호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남조선에 《제5공군전방사령부》를 새로 설치하고 미국 본토와 일본 및 태평양지역으로부터 200여대의 전투폭격기들과 1만 2,000여명의 병력을 새로 끌어들이였으며 구축함, 초계정을 비롯한 수많은 해군함정들과 대공포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였다.

1966년에만도 남조선괴뢰 륙군 1개 사단과 해병대 1개려단, 해상방위 려단 및 1개의 전투비행단과 몇대의 비행대대를 새로 조작하였으며 3개의 예비사단을 완전한 전투사단으로 개편하였다. 1967년 상반년에는 3천톤급전투구축함, 고속경비정, 고속수송함 《엠—48》형 땅크, 《에프—5에이》초음속전투폭격기와 직승비행기 등 수많은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남조선괴뢰에게 넘겨주었다.

미제는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명령하여 수개의 괴뢰군 전투사단, 기갑사단, 전투비행단을 새로 편성하고 250만의 《향토예비군》을 조작하였으며 도처에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확장하도록 하였다.

미제는 또한 새로운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연습소동을 빈번히 벌렸는바 《림전태세》를 떠들면서 1961년 한해에만도 《북조선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30여차의 각종 대규모적군사연습소동을 감행하였으며 1962년에는 50여차의 대규모적연습소동을 벌리였다.

또한 미제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행위를 쉼없이 강화하였다.

1961년 8월 28일 미제 구축함 《제72호》가 우리 해상에 침입하여 정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우리측 순찰선에 대해 80여발의 포탄을 쏴대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으며 1962년 11월 24일에는 군용비행기의 비호하에 구축함을 비롯한 20여척의 대형함선을 우리 측 령해인 청진앞바다까지 침입시키는 침략행위를 감행하였다. 1963년 5월 11일에는 로케트포함 《311호》를 우리측 령해에 침입시켜 평화적어선에 대하여 800여발의 로케트포탄을 쏴댔으며 1963년 5월 17일과 1964년 1월 14일에는 전투기들을 우리측 상공에 침입시켜 정찰비행을 감행케 하였다. 1967년 1월 19일에는 《경호함56》호를 우리측령해에 침입시켜 도발행동을 감행케 했으며 1968년 1월 15일에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우리측령해에 침입시켜 정탐행위를 감행케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령해에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침범한데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날강도적인 해적행위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적인 책동의 일환인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1972년판, 6페지)

침략자 미제는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의 응당한 조치에 의해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자 《보복조치》를 떠들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군사적도발행위는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시기를 전후한 1968년 1월부터 3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지상에서만도 하루 평균 25건, 년 2천여건이나 된다.

1969년에 미제의 전쟁미치광이 닉슨놈이 새로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것을 계기로 놈들의 전쟁소동은 더욱 강화되였다.

1969년 1~4월 10일에 이르는 기간에 미제침략자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일으킨 군사적도발행동은 우리측이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정식 항의한것만도 2천 180여건에 이르렀다.

미제는 1969년 4월 15일 《이씨—121》대형 간첩비행기를 우리 나라 령공에 침입시켜 적대행위를 감행케 하고도 응당한 우리의 보복조치에 《침략행위》라고 떠들면서 새로운 전쟁소동을 일으켰다. 닉슨놈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정찰행동이 제놈들의 무슨 《권리》로나 되며 정상적 행위인것처럼 묘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정탐비행을 계속할것이며 그 정찰비행에는 《무장보호를》 붙일것이라고 지껄였다. 닉슨놈의 호전적명령에 따라 미제침략자들은 전함과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숱한 함선들로 《기동함대》를 편성하여 우리 나라 주변에 긴급히 집결시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은 《비상경계령》에 따라 전연에 부대들을 더 증강하고 《초특별대기태세》에 들어갔다.

1970년대

—《닉슨주의》에 따라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고 있는 미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계속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의 새 전쟁 도발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71페지)

1969년 8월 닉슨놈이 미국회에서 《닉슨주의》를 선포한후 놈들은 《남조선은 닉슨주의의 시험장》이며 1970년대의 《대결점》은 《동북 아세아 특히 조선》이라고 떠벌이면서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여기에서 미제는 무엇보다 일본군국주의를 조선과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몰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1972년의 미일우두머리놈들의 하와이회담, 1973년의 닉슨—다나까놈들의 회담 등을 계기로 미일안보체계를 다시 확인하고 그에 기초한 미일사이의 종속적동맹관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미제는 또한 1973년에 있은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의 쑥덕공론끝에 일본에 있는 미제침략군기지의 일부를《통합정리》하면서 조선을 침략하는데 유리하게 미제침략군을 다시 조절배치하는 한편 일본자위대무력을 더욱더 증강시켜주었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과 아세아침략에 적극 나서도록 그놈들을 얼려추는 나발을 끊임없이 불어대였다.

미제는 한편 1971년에만도 새전쟁도발을 위해 미부대통령 애그뉴와 미국방장관 레어드를 비롯한 수많은 수급전쟁사환군들을 남조선에 들여보내여 《한미안보회의》와 《한미군수뇌회담》이요 하는것들을 벌리고 전쟁모의를 하였으며 1972년에 역시 미국무차관보, 미태평양지구사령관, 륙해공군사령관놈을 비롯하여 군사작전, 통신, 군사기지 군용관계 등 각 병종에 걸치는 군사관계자들을 남조선에 련속 보내여 직접 현지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치도록 하였다.

미제는 미제침략군 《감축》의 미명밑에 일본과 미국 본토로부터 해군 및 공군 무력과 여러가지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계속 끌어들이였다. 1970년초 《에프—5비》 제트 전투기 15대와 수십대의 《티—33》제트기, 《씨—54》 대형수송기 그리고 수만정의 《에스엠지》기관단총과 500만 딸라분에 달하는 작전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괴뢰군에게 넘겨주었으며 뒤이어 《에프—4팬톰》 전투폭격기로 편성된 미전략공군사령부소속 2개의 전술비행단과 여러대의 군용비행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또한 《에프—105》제트 전투폭격기로 편성된 오끼나와 강점 미제침략군 제313공군사단소속 제18전술비행대대를 끌어들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작전임무를 수행케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한데 뒤이어 남부웰남 침략전쟁터에서 살륙적인 《전투경험》을 쌓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끌어들였으며 여러대의 《에스—2》 해군 초계기를 끌어들여 남조선괴뢰군에게 넘겨주었다. 1971년 3월 15일에는 일본의 미자와공군기지로부터 《에프—4디》 팬톰전투폭격기 3개 대대를 끌어들여 《미공군제3전술전투비행단》이라는것을 만들어낸것을 비롯하여 일본의 이다쯔께공군기지로부터는 《이씨—121》정찰기로 편성된 항공대, 대형수송기, 신형땅크 등 현대적군사장비를 끌어들이였다. 4월 1일에는 미국본토에 기지를 두고 있던 《채파랄》유도탄 및 20미리 《벌칸》포체제를 장비하고 있는 제61포병대 제8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군사분계선 사이에 배치하였으며 대함미싸일을 발사할수 있는 미해군의 쾌속함 《베니씨야》호를 남조선괴뢰군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미제는 남조선에서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였다.

1970년초 수십척의 여러가지 해군함선들, 항공기들을 동원하여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른바 《한미련합대잠수함훈련》을 벌리였으며 뒤이어 《야전군춘계대기 훈련》을 벌렸다. 또한 이른바 《한영해군해병대련합상륙작전》과 《전진상륙작전》을 벌리였으며 9월에는 미제침략군 제7함대소속 전투항공모함과 《아메리카》호를 비롯하여 구축함, 호위구축함들을 우리 나라 동해에 끌어다놓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상륙작전훈련》을 벌리였다.

1971년 3월초에는 미국본토로부터 사단규모의 중장비와 병력을 남조선에 실어나르는 대규모적인 《공수작전》을 벌리였으며 새 전쟁도발에 대처한 해상수송체계와 공수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한미합동훈련》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침공능력을 《련마》하기 위한 괴뢰군해군의 《상륙작전》을 벌리였다. 11월 27일～12월 4일까지에는 군사분계선 가까이 포병, 기계화 부대 공수보병사단, 《특수유격대》들이 참가한 《승전71》이라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소동을 벌리였으며 이외에도 《독수리상륙작전》이요 《상호협동공격전투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이요 《미일합동군사훈련》이요 하는따위의 호전광들의 광대놀음을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미제는 또한 새 전쟁준비로써 남조선괴뢰군의 증강과 그의 현대화에 많은 힘을 넣었으며 군사시설을 확장, 보강하기에 혈안이되여 날뛰였다.

미제는 남조선괴뢰군의 증강을 위해 이미 1970년에 괴뢰군의 강제징집을 전담하는 《중앙병무청》을 새로 꾸미도록하고 팔다리가 없는 외의 병신까지도 괴뢰군에 끌어들여 괴뢰군을 증강하였으며 지어 녀자들까지 징집하여 《녀군단》을 새로 편성케 하는 책동을 감행하였다. 또한 《향토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그것을 《엠—1》소총과 카빙총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대한 지휘를 괴뢰군에 의한 지휘체계로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것으로 방위사단을 조작하여 침략전쟁도발시 후방에 있던 《예비사단》이 전선에 투입되는 즉시로 그 지대를 《향토예비군》이 맡도록 하였다.

또한 미제는 파쑈폭압통치기구를 더 늘이고 그를 《현대화》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날로 높아가는 혁명기세를 꺾으려고 발악하였다. 미제는 박정희도당을 부추겨 이미 1970년 《치안체계의 정비강화》니 《경찰행정의 미비점보완》이니 하는 간판밑에 수많은 《이동지서》, 《파출소》, 《이동경찰소》, 《경찰초소》, 《해안경찰기지대》 등을 새로 내오게 하고 서울,부산을 비롯한 중요시들에 《방범기동순찰대》라는 폭압기구까지 새로 꾸려놓고 파쑈적폭압만행을 감행케 하였다. 또한 1971년 12월에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란 날조된 구실밑에 파쑈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하여 더욱 남조선사회를 파쑈화의 길로 몰아넣었다.

미제는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도발준비의 하나로서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1970년에 정전협정위반행위는 우리 측이 항의한것만도 무려 1만 1천 200여건, 1971년에는 1만 2천 130여건, 1972년에는 1만 5천 277건(6월 22일～7월 4일까지 위반행위는 제외)이나 되였다. 놈들은 1971년 한해에만도 무려 12만 900여발의 총, 포탄을 쏘아대는 550여차의 사격행위와 79차에 걸쳐 330여놈의 무장간첩선침입, 21차의 공중침범사건을 감행하는 등 전쟁도발을 위한 생트집을 만들기에 미쳐 날뛰고있다.

—북과 남의 대화를 방해하고 있는 미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닉슨도당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인 1972년 7월 5일 미국무성대변인 브레이란자를 시켜 두번이나 기자회견을 벌리고 남조선 영구강점흉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국무성 극동차관보 그린이란놈은 《긴장완화능력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유엔군의 계속 주둔 등》 미제의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유엔군의 계속주둔이 필요하다》고 떠벌렸다. 한편 미국무성대변인 브레이란놈도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공동성명가운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방법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 원칙은 남북조선간의 《정치협상과정에서 고려되여야 할 문제로 간주되여야 하지 미군이 남조선주둔과 관련된것으로 간주되여서는 안될것이다》라고 뇌까리면서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법화》하려고 책동하였다. 9월 25일과 28일에 미국무장관 로져스, 차관보 존슨이란놈들

은 미국에서 각각 남조선 《외무부장관》과 남조선의 《방위태세》와 남조선군 《현대화》 등 문제에 대하여 쑥덕공론하면서 《현재로서는 주한 미군철수에 관한 계획은 없으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뇌까렸다. 또한 미국회하원에서 연설한 스칼리피오란놈은 남북접촉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에 심중히 대하여야 한다》느니 《공산주의자들의 진의를 정검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북과 남사이의 접촉은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지껄였다. 이렇게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여러모로 방해하여 온 미제는 유엔 제28차총회에서 알제리를 비롯한 평화애호국가들이 공동으로 제의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의 새로운 의제가 상정토의되지 못하게 로골적으로 방해하여 나섰다.

한편 새 전쟁 도발준비를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였다.

미제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인 1972년 7월 5일 《디디—805》구축함 1척을 남조선에 끌어들인데 뒤이어 미싸일 장비를 갖춘 수십정의 고속포함과 상륙작전용수륙량용전차 수십대를 끌어들여 새로운 대대를 구미였으며 8월 10일에는 《남조선이 강력한 상태에 계속있도록 미국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남조선에 줄 2억 1천 570만 딸라의 군사 《원조》가 들어있는 이른바 《대외 군사 원조법안》을 미국회하원에서 통과시켰으며 8월 11일에는 남조선에 넘겨줄것을 목적으로 신형전투기 《에프—501》의 시험비행을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는 남조선사회를 더욱 파쑈화하기에 광분하였다.

미제는 박정희괴뢰도당을 사촉하여 1972년 11월 17일에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조항들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모든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고 대학을 폐쇄하고 남조선 전역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력사에 류례없는 횡포를 감행하였으며 12월 11일에는 《비상경계태세령》을 또다시 선포케 하였다. 뒤이어 12월 14일에는 《특별경비령》을 내렸다. 그후 100여건의 군사관계 및 탄압을 위한 악법들을 조작 및 개악하였으며 《헌법개정안》을 비롯하여 《비상국무회의법》 등 17건의 각종 악법들도 조작 및 개악하여 남조선인민들을 엮어매놓음으로써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조국통일 기운을 질식시키기에 미쳐날뛰고있다.

× ×

이상의 력사적사실들은 미재야말로 가장 야수적이며 악랄하고 흉악한 침략자, 조선의 자유와 독립의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날로 강화되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행위,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온갖 파쑈적만행,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방해책동 등 조선인민에 대한 미제의 죄행은 날을 따라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멸망에 직면한자의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혁명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오늘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은 완전한 파산을 면할수 없으며 그 종국적멸망도 불가피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는 강한것 같이 보아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루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면서 허장성세하지만 그들 역시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0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는 멸망의 운명을 면치못할것이다.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가 종국적으로 멸망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미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100여년의 피맺힌 원한을 갚을것이며 놈들의 침략책동을 종국적으로 분쇄하고 미제를 이 세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고야 말것이다.

일제의 조선침략 주요일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들과 새세대들에게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력사를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력사를 잊지 않고 일본군국주의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도록 하고있습니다.》(《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단행본, 18폐지)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흉악한 망상밑에 해외침략의 길에 공공연히 나서고있다. 아세아를 지배하려는 극히 야심적인 계획밑에 추진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무장, 해외침략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86년간에 걸쳐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씌운 우리 민족의 철천의 원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계획까지 짜놓고있으며 남조선에 더러운 재침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있다.

미제의 사촉하에 박정희매국도당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을 강화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과 그로부터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태들은 우리 조국의 남쪽 절반땅이 미일침략자들의 2중의 식민지예속하에 빠져들어가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있으며 조성된 정세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던 1894년을 전후한 당시를 방불케 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지난날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침략력사를 똑똑히 알고 침략자들을 미워하며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주시하며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1875. 9. 20 일제침략선 《운양호》 강화도에 불법침입.

소위 《명치개혁》이후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해외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고 침략적인 《정한론》을 요란스럽게 떠드는 한편 미제침략

자의 본을 따라 군사적위협과 공갈 등 무력적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1875년 9월 20일 침략선 《운양호》를 강화도일대에 침입시킴.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피비린내나는 침략의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그후 35년만에 일제침략자들에게 완전히 강점당하게 되였고 그후 36년간 일제식민지통치하에 놓이게 됨.

1875. 10. 28 일본제국주의자들 《거류민보호》라는 구실밑에 부산일대에 군함과 해군륙전대를 침입시켜 조선봉건정부를 위협하며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도발행동을 감행

1876. 2. 27 포악무도한 군국주의자 구로다놈을 《전권대표》로 하고 7척의 군함과 수송선에 800여명의 침략군을 실은 침략함대 강화도일대에 다시금 침입. 미제를 등에 업고 기여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강압적요구와 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적행위로 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침략의 무제한한 길을 열어준 예속적이며 굴욕적인 불평등조약 《강화도조약》체결.

1878. 4. 21 일본제국주의자들 조선의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연안일대에 군함을 침입시켜 《개항장》을 찾기 위한 강도적인 측량행위를 감행.

1882. 5. 7 일본제국주의자들 우리나라 동서남해안의 중요 항구들인 원산항, 인천항, 부산항을 강제로 개항.

1882. 8. 20 일본제국주의자들 조선에서 일어난 군인폭동을 구실로 1,500명의 군대를 서울에 침입시킴.

1882. 8. 30 일제는 군인폭동에서 공사관이 습격되고 일본놈들이 피살되였다는것을 구실삼아 무력적위협공갈로 두개의 침략조약 《제물포조약》과 《조일수호조규속약》을 강제 체결.

《제물포조약》은 5,000원의 《배상금》지불과 4,000명에 달하는 침략군의 주둔권, 그리고 일제공사관의 설치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6개조문으로 됨. 이 《조약》을 체결한후 일제침략자들은 서울 남산중턱에 조선봉건정부의 왕궁을 겨누는 공고한 총포 발사구를 설치하고 강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강도적요구를 마음대로 제기하기 시작함.

1884. 12. 4~1885. 1 일제 《갑신정변》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침략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

1885. 1. 9 일본제국주의자들 《갑신정변》을 계기로 감행한 범죄적인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며 봉건정부에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성조약》체결을 강요.

1890. 5. 17 일제 대동강개항을 봉건정부에 강요.

1893. 조선을 정복해야 한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강도적인 침략의 녀두리인 《정한론》의 계속이며 후일 《대동아공영권》의 원형인 《대동합방론》이 일본에 대두, 일본제국주의자들 우선 조선을 삼키고 일본의 식민지로 예속시킨다음 이를 발판으로 하여 《원조》, 《평화》, 《공동방위》의 간판밑에 전아세아를 삼킬것을 망상한 침략적인 반동사상을 악랄하게 고아댐.

1894. 6. 9 일제는 갑오농민전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많은 정예함선들과 근 1만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우리 나라에 침입시킴.

1894. 8. 20 일제의 강요로 조선의 중요 철도 부설권과 전선부설권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합동조관》조인.

1897. 10 일제의 강요로 목포항, 남포항 등 개항.

1898. 9. 8 일제 경부선철도부설권 강탈.

1899. 2 일제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 연해의 어업권 독점.

1900. 2 일제 조선연해 포경권 독점.

1900. 8 일제 직산금광 채굴권 독점.

1901. 5 일제 비법적으로 마산포에 거류지를 설치하고 《이민》개시.

1903. 2 일제 경의선철도부설권 탈취.

1904. 2 일제 경원선철도부설권 탈취.

1904. 2. 23 일제는 로일전쟁을 도발한후 서울을 점령하고 《한일동맹》이라는 구실밑에 무력적방법과 친일파들을 조종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정치적자주권을 유린하며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15종에 달하는 강도적이며 침략적인 요구를 담은 《한일의정서》의 조인을 강요. 침략적인 《한일의정서》조인.

1904. 4. 1 일제 조선의 통신기관 강탈.

1904. 6. 4 일제 《어업구역조례》를 강요함으로써 조선의 어업권을 독점.

1904. 6 친일주구단체인 《일진회》조작.

1904. 8. 22 일제침략자들 《한일협정서》(《외국인용빙협정》)를 강제로 체결하고 《고문정치》를 강요.

1904. 9. 6 일제 조선의 토지 및 광곡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흥업주식회사》를 설립.

1904. 10. 14 일제는 조선의 재정금융을 장악통제할 목적밑에 조선봉건정부에 《재정선문》을 강요.

1904. 10 일제 《재정고문》을 침입시킴.

1905. 2 일제침략자들 조선의 경찰행정권을 탈취할 목적밑에 《경무고문용빙계약서》를 강요.

1905. 2. 26 일제 《학부고문》을 침입시킴.

1905. 4. 1 일제 《한국통신기관위탁에 관한 협정서》의 조인을 강요, 조선의 우편, 체신, 전화기관 독점.

1905. 4. 11 일제는 조선에서의 교육을 침략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한국교육개정안》조작

1905. 4 일제 조선군대 절반 축소.

1905. 9. 13 일제 조선봉건정부에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협정》을 강요함으로써 조선의 연해 및 중요 강하천들에서의 항행권을 독점.

1905. 11. 17 일제 조선의 정치적자주권을 박탈하는 《을사보호조약》조인을 강요.

1906. 2. 1 일제 총독부의 전신인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정치》를 실시하기 시작.

1906. 3. 2 일제 조선침략의 원흉 이도놈을 초대《통감》으로 임명.

1906. 4. 17 일제 의병운동탄압을 위하여 《보안령》을 공포.

1906. 6. 17 일제 수많은 릉묘들을 도굴하여 문화유물들을 탈취.

1906. 10. 19 일제 백두산 좌우 대산림지대의 목재를 략탈하기 위하여 《압록강 및 두만강 산림경영협동약관》의 조인을 강요.

1907. 7. 24 일제침략자들과 친일매국노들에 의하여 제2의 《을사보호조약》인 《정미7조약》체결, 일제 조선의 행정, 립법, 관리임면 및 일본관리의 파견권 등을 완전히 장악.

1907. 8. 1 일제 조선강점을 쉽게 달성하기 위한 책동으로 조선군대 강제로 해산.

1907. 10. 7 일제 《한국주차헌병령》을 공포하고 군사경찰인 조선주둔헌병수를 대폭 증강, 그후 헌병으로 하여금 일반치안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을 담당케 함.

1907. 10. 29 일제 조선의 경찰권 탈취.

1908. 1. 9 일제 청진항을 강제로 개항.

1908. 4. 30 일제 《신문지법》을 공포하고 반일적인 언론출판활동을 가혹하게 탄압.

1908. 8 일제는 애국적인 반일사상단체들을 해체시키기 위하여 《학회령》을 공포.

1908. 12. 28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적착취기관인 《동양척식회사》가 설

치됨. 일제는 이 회사에 농업경영, 토지에 대한 대차, 척식에 필요한 자금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식민지적인 농업략탈을 강화함.

1909. 7. 12 일제 조선의 사법권을 탈취.

1910. 3. 15 일제는 조선의 토지략탈을 위한 《토지조사령》 공포.

1910. 6. 24 일제 조선봉건정부에 《경찰권 양도조약》의 조인을 강요.

1910. 8. 22 일제 침략자들 조선봉건정부를 총포로 위협하는 한편 친일분자들을 사촉하여 조선강점을 성문화하기 위한 《한일합병조약》의 조인을 강요. 일제와 매국노들간에 강도적이며 매국적인 《한일합병조약》 조인.

1910. 8. 25 일제는 조선강점을 선포하며 반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집회취체령》을 공포.

1910. 8. 29 일제침략자들과 친일매국노들 인민의 반항이 두려워 한주일동안 매국조약을 비밀에 붙이고 국내신문들을 정간하고 애국단체들을 해산하며 수천수만의 애국자들을 검거투옥하는 동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경비망을 더욱 삼엄하게 늘인 다음 이날에야 발표. 우리 나라 일제식민지에로의 전락.

1910. 10. 1 일제 조선에서 《총독정치》실시, 조선강점 선포한 일제는 이어 조선총독부관제, 중추원관제, 취조국관제, 지방관서관제, 철도국관제, 림지토지조사국관제, 세관관제, 전매국관제, 재판직원정원령 등을 조작함으로써 식민지통치기구를 완비하고 1910년 10월 1일부터 《총독정치》의 실시를 선포함.

1910. 10. 29 일제는 조선의 민족산업발전을 말살하고 일본독점자본의 무제한한 침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회사령》을 공포, 일제침략자들은 이 법령에서 《회사의 설립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선총독놈에게 회사의 정리, 금지 및 해산명령권을 부여함.

1911. 3. 29. 일제 조선의 재정금융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선은행법》을 공포.

1911. 6. 3 일제 조선의 어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어업령》을 공포.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 법령을 통하여 조선의 가장 중요한 어장들을 독점하는 동시에 뜨랄어업, 저예망어업, 잠수기어업 등은 일본놈들에게만 허용하고 조선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계화된 어업은 금지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수산자원을 모조리 략탈하기 시작함.

1911. 8. 23 일제 조선에 식민지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식민지노예교육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선교육령》을 공포.

1911. 12. 29 일제 《관부련락선》 정기항행을 제정.

1912. 3. 18 일제 조선인민을 저들의 파쑈악법에 더욱더 얽매놓으며 조선인민의 반일애국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민사령》과 《형사령》을 각각 공포.

1912. 3. 25 일제 《경찰범처벌규칙》을 공포하고 헌병경찰에 《즉결강제집행권》을 부여함으로써 총검에 의거하는 《무단통치》체제를 더욱더 강화.

1915. 12. 24 일제 조선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광업령》을 공포.

1916. 7. 4 일제 《고적및유물보전규칙》을 공포, 《조선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선의 문화유물을 략탈.

1917. 7. 17 일제는 조선농민을 희생으로 일본인소유토지를 옥답으로 만들며 일본인소유토지에 대한 관개시설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조선수리조합령》을 공포, 이 법령에 의하여 수리조합과는 아무런 리해관계도 없는 조선농민들은 해마다 수많은 각종 수리세를 내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놈들이 강요하는 관개 및 방수 시설공사에 동원되지 않으면 안됨.

1918. 3 일제 일본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

1918. 5. 1 일제 조선의 산림략탈을 목적으로 하는 《림야조사령》을 공포.

일제는 이 법령을 공포한후 일본놈들에게는 각종 위조문서를 날조케 하여 방대한 산림을 떼넘겨 주는 동시에 복잡한 수속절차를 만들어 기간내에 수속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유화》하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 산림을 강탈함.

1918. 6. 18 일제 《조선식산은행》을 설치하고 산업자본에 의한 략탈을 더욱 강화.

1919. 3. 1 일제 3.1운동을 가혹하게 탄압, 애국적인민 7,509명을 학살하고 15,961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46,948명을 검거투옥함.

1919. 4. 15 일제 반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정치범처벌에 관한 건》을 공포.

1919. 8. 20 일제 《조선총독부관제개정》을 공포하고 《무단통치》대신 《문화통치》의 간판밑에 식민지폭압체제를 더욱 강화. 3.1인민봉기에 놀란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 개정안에서 종래 조선총독놈을 현역무관중에서 임명하던것을 문관중에서 임명하며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고 《문화통치》를 실시한다고 떠벌였으나 《문화통치》는 사실상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실시하는 《무단통치》의 계속에 불과함.

1920. 3 일제는 조선에서 《고등경찰제》를 실시. 종래의 헌병경찰제도대신에 나온 이 《고등경찰제도》는 헌병복을 경찰복으로 바꾸고 헌병들에게 경찰임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헌병을 행정 및 사법경찰로 바꾸어놓은데 불과.

1920. 10 일제 간도에서 조선인민에 대한 대규모적인 《토벌》만행을 감행.

1920. 12. 27 일제 략탈적인 《산미증식계획》을 공포.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 《계획》을 공포함으로써 놈들이 겪고있는 식량위기를 타개하는 한편 조선에서의 식량략탈을 더욱 강화함.

1921. 2. 6 일제 식민지노예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조선교육령》을 공포.

1925. 4. 1 일제 누에고치 《백만석증수계획》을 공포하고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 《계획》을 공포한후 조선농민들에게 양잠을 강요함으로써 매년 방대한 량의 누에고치를 자기들의 견직공업을 위한 원료로서 략탈하여감.

1925. 5. 8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반일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악명높은 《치안유지법》의 실시를 공포.

1927. 3. 14 일제는 《조선농회》를 설치하고 농작, 면작, 양잠, 축산 등에 대한 생산기술적지도를 하여준다는 간판밑에 농민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 농업을 놈들의 식민지적 농업략탈정책에 더욱 복종시키기 위한 책동을 강화함.

1929. 11. 3 일제는 광주학생들의 투쟁과 학생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량적으로 검거투옥하는 만행을 감행함.

1932. 3 일제는 북부조선에 대한 식민지적략탈을 강화하기 위해 《북선개척안》을 조작, 일제침략자들은 《북선개척안》을 조작한후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북부조선일대에 군수산업과 관련된 금속, 화학, 기타 부문의 공장들과 광산, 발전소, 항만, 철도 등을 신설확장하기에 미쳐날뜀.

1932. 12 일제 《조선소작령》을 공포하고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

1933. 12 일제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간의 련계를 끊을 목적으로 중국동북지방에서 중세기적인 야만적인민탄압제도인 《보갑제도》를 조작.

1934. 3. 29 일제 《면양장려계획》을 공포하고 양모략탈을 강화.

1934. 4 일제 략탈적인 《농지령》을 공포.

1934. 8 일제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조작하고 조선인민에게 그것을 강요.

1936. 8 일제《불온문서림시 취체령》을 공포하고 반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

1936. 10 조선총독과 관동군사령관놈이 참가한 이른바 《도문회담》 진행. 조선인민혁명군의 북부국경지대에로의 진출에 커다란 위협을 느낀 일제침략자들은 이 《회담》에서 조선주둔일본군, 관동군, 위만군 등 더욱 많은 무력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막으며 집단부락을 설치하여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들간의 련계를 끊으며 인민들의 반일혁명운동을 탄압할것을 모의함.

1936. 12. 12 일제 《사상범보호관찰령》을 공포.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 법령을 공포한후 반일투사들의 거처와 일거일동을 감시하는 동시에 각 형무소마다 《사상보호단체》를 설치하고 일단 《사상범》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시킴으로써 서로 《련좌감시》를 하게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비구속령을 발동하여 체포구금하는 만행을 감행함.

1937. 3 일제 《중요산업통제법》을 조작.

1937. 7. 22 일제 조선총독부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고 반일투사들의 신원조회 및 그 동향을 내탐하는 등 반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

1937. 7. 26 일제 《조선군사후원련맹》을 조작.

1937. 8 일제는 장백일대에서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간의 련계를 끊기 위하여 《집단부락》을 설치.

1937. 10. 2 일제 조선인민에게 《황국신민서사》의 제창을 강요.

1938. 2. 26 일제 《지원병령》을 공포하고 조선청년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기 시작.

1938. 3. 16 일제 《조선교육령》을 개악하고 조선어교육을 완전히 폐지, 교수시간에 조선어사용을 금지하기 시작.

1938. 4. 1 일제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침략전쟁수행에 동원하며 금융, 산업, 국민생활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국민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그것을 조선인민에게도 강요.

1938. 7. 7 일제는 조선인민을 침략전쟁수행에 정신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련맹》을 조작, 일제침략자들은 이 《련맹》의 두목으로서 가장 악질적인 파쑈분자들을 임명하였으며 그의 전임고문으로서는 항일유격대 《토벌》에 나선자들을 임명함.

1938. 9 일제 《조선반공협회》를 조작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악랄한 책동을 강화.

1939. 7. 8 일제 조선인민을 군수산업과 군사시설공사 등에 강제로 끌어내기 위하여 《국민징용령》을 공포.

1939. 9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이란 명목밑에 길림에 관동군사령관직속으로 《노조에토벌사령부》를 설치함.

1939. 10 일제 어용반동단체인 《조선문인협회》를 조작.

1939. 12. 26 일제는 조선인민을《황국신민화》하기 위하여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기 위한 《창씨개명》법령을 공포.

1940. 4. 10 일제는 조선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량곡을 모조리 강탈하기 위한 《미곡강제출하명령》을 공포.

1940. 10 일제는 조선인민을 침략전쟁수행에 동원하기 위하여 《국민총력조선련맹》을 조작.

1941. 3. 10 일제 《개정치안유지법》을 조작하고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

1941. 4. 1 일제 《국민학교령》을 공포하고 식민지노예교육을 더욱 강화.

1941. 12. 8 일제 태평양전쟁을 도발, 《전시체제》의 선포와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과 략탈을 강화.

1941. 12. 26 일제 《조선림시보안령》을 공포하고 반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

1942. 1 일제 태평양전쟁과 관련하여 《미곡천만석증식계획》을 조작하고 량곡수탈을 강화.

1942. 2. 11 일제 《기업정비령》을 공포하고 조선의 중소기업을 해체.

1942. 10. 1 일제 조선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강요하기 위하여 《조선청년특별련성령》을 조작.

1943. 4. 28 일제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강제로동에 조선인민들을 끌어가기 위하여 《근로보국대정비요강》을 조작.

1943. 8. 1 일제는 조선학생들을 강제 징집하며 제놈들의 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하여 《징병제령》을 공포하고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에 끌어가기 시작.

1943. 8. 9 일제 《해군특별지원병령》을 조작하여 조선청년들을 제놈들의 해군에 강제로 끌어가기 시작.

1943. 11 일제 《학도병제령》을 공포하고 조선학생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끌어가기 시작.

1944. 3. 15 일제 《전시재판제도》를 조작하고 닥치는대로 조선인민에게 가혹한 형벌을 적용.

1944. 3. 18 일제 《학도군사교육강화요강》을 조작하고 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강화.

1944. 4 일제 《학도동원제》를 조작하고 청년학생들을 강제로동에 끌어가기 시작.

1944. 8 일제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을 공포하고 조선인민을 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강제로동에 모조리 동원하기 시작.

1945. 8.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위대한 승리와 강도일제의 패망.

1950. 6 일본군국주의자들 미제의 조선전쟁도발을 계기로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 리승만괴뢰도당과의 공모하에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한일통상협정》 및 《한일통상재정에 관한 협정》을 조작.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협정》에서 남조선과의 수출입비률을 2:1로 설정함으로써 무역격차를 통하여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예속시키는 동시에 남조선으로부터 광물, 수산물, 농산물 등을 가져가는 반면에 남조선에 군수물자와 공업제품 등을 수출함으로써 남조선의 자원략탈을 통하여 독점자본의 팽창을 촉진시킴.

1950. 10. 4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간에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수송로를 열어주는 《한일해운협정》이 체결됨.

1959 일본군국주의자들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침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가학회》를 비롯한 각종 반동종교를 침투시키기 시작함.

1960. 12. 1 일본군국주의자들 남조선당국자들과의 공모하에 부산―하까다간의 《한일정기해상》항로를 개설하고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와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

1963 일본군국주의자들 미제와의 공모하에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에 일본 《자위대》무력을 끌어들일것을 노린 침략적《작전》문건인 《세개화살작전》계획을 작성, 《세개화살작전》(세개의 화살이란 미제침략군, 일본 《자위대》, 남조선 《국군》을 말함) 계획은 1,419페지에 5분책으로 된 주도세밀하게 작성된 침략문건으로서 여기에는 미제가 《제2차조선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담당수행하여야 할 침략행동계획들이 규정되여 있음.

1964. 일본군국주의자들 미제와의 공모하에 《세개화살작전》을 보다 구체화한 침략적 《작전》문건인 《날아가는 룡작전》계획을 작성. 《1964~1965년도의 실전계획》 또는 《1965년도 일미공동작전계획》이라고도 불리워지고있는 《날아가는 룡작전》계획은 《세개화살작전》계획에 기초하여 《제2차조선전

쟁안》을 더욱 구체화한것으로서 여기에는 일본 《자위대》가 《일미합동사령부의 지시에 따라서 오끼나와 및 남조선에 출동》하고 《유엔군의 요청이 있으면 북조선과 중국에 상륙》한다는것이 지적되여있으며 그대신 미제침략군은 하와이로부터 오끼나와로 이동하고 그의 일부가 북큐슈에 주둔하게 되여있음.

1965년초 일본군국주의자들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공모하에 서울 《반도호텔》에 《반상주외교기관》을 설치하고 남조선재침책동을 더욱 강화.

1965 일본군국주의자들 남조선재침활동의 현지거점의 하나로서 서울에 《주한일본사무소》를 설치.

1965. 6. 22 일본군국주의들과 박정희괴뢰도당과의 결탁을 《합법화》하고 남조선집권자들의 매국배족행위를 성문화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무제한한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 놈들에게 남조선을 송두리채 떠맡기는 제2의 을사망국조약인 《한일협정》을 정식 조인.

1965. 12. 26 일본군국주의자들 소위 《국교정상화》의 간판밑에 체결된 《한일협정》이후 남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한일본대사관》을 설치.

1966. 1 일본군국주의자들 부산에 《총령사관》을 설치함.

1966. 3 일본군국주의자들 인천에 《령사관》을 설치함.

1966. 3 일본군국주의자들 《주한일본대사관》의 별동대인 《재한일본인회》를 조작하고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더욱 강화.

1966. 3. 9 일본군국주의자들 서울에초대 《주한일본대사》놈을 들여보냄.

1966 일본군국주의자들 미제와의 공모하에 《제2차조선전쟁》에서 놈들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예견한 《달리는 황소작전》계획을 작성. 종래의 《세개화살작전》과 《날아가는 룡작전》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작성한 《달리는 황소작전》은 그것이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의 유기적구성부분을 이루는 동시에 특히 《제2차조선전쟁》에서 일본 《자위대》무력이 주력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비중을 전례없이 강화할것을 예견한 침략적《작전》문건임.

1967. 2. 미제의 사촉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사이에 정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할것을 목적으로 한 침략적정치군사협의기구인 《한일국회의원간담회》가 조작됨. 이 기구가 조작된후 2차에 걸쳐 소집된 《한일국회의원간담회》에서는 2차대전의 전범자들과 남조선재침의 발광자들인 군인출신 《국회의원》들이 남조선집권자들과 모여앉아 일본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며 《한일》간에 군사동맹을 조작할데 대한 문제를 모의함.

1967. 5 일본군국주의자들 박정희매국역적과 공모하여 《민간항공협정》을 조작하고 서울—부산간 등 중요항공로를 장악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기 시작.

1969. 1 일본군국주의자들 박정희악당과의 공모하에 《한일합동경제위원회》를 조작함. 남조선의 반동적경제단체들과 일본독점체들간의 《협의》기구였던 종래의 《한일경제간담회》 대신에 새로 조작된 《한일합동경제위원회》는 일본독점체들의 남조선침투와 관련한 실질적문제들을 모의하는 상설적인 기구로서 남조선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무제한한 침투의 길을 열어주는 경제적침략기구의 하나임.

1969. 2. 12 일본군국주의자들 박정희매국역적과 모의하여 《한일협력위원회》를 조작함. 《한일협력위원회》는 일본반동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미제의 조종하에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 결탁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를 보장하며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침략기구의 하나임. 1970년 4월에 있은 《제2차한일협력위원회 총회》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포항지구 이남의 공업지역과 일본의 관서경제권을 통합하여 《한일경제협력권》을 조작함으로써 이 지역에 《한일수직분업체계》를 만들고 남조선경제를 철저히 예속시키려는 흉책을 드러내놓음.

1969. 8. 26 일본군국주의자들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놈들의 남조선침투를 모의하고 실현하는 침략기구의 하나인 《한일정기각료회》를 조작.

1969. 11 미제두목 닉슨놈과 일본반동두목 사또놈간에 워싱톤회담진행. 이 회담에서 우리 나라와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악명높은 《미일공동성명》이 발표됨. 이 회담에서 특히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놈은 남조선이 일본자체의 안전에 불가결한것이라고 떠벌인데 뒤이어 《남조선이 일본방위의 제일선》이며 《38선이 일본의 국경선》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신제공격》을 하는것은 《자위권》에 속한다고 고아댐.

1970. 1 일본군국주의자들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마산에 《수출입자유지역》을 설치케 함. 남조선당국자들은 《수출입자유지역》에 투자되는 일본독점자본에 대해서는 관세, 물품세, 영업세를 면제하고 소득세를 감면시켜주는 등 세제상의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를 보장해주는 매국배족행위를 더욱 강화함.

1970. 3. 3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간에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를 더욱더 보장해주는 《한일조세협정》이 체결됨. 전문 26조로 된 《한일조세협정》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대일굴종정책의 산물로서 《한일협정》체결후 정치, 경제적침투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독점자본가들에게 남조선경제를 송두리채 넘겨주는 또하나의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정》임.

1970. 6. 17 일본군국주의자들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부산—시모노세끼간의 《정기련락선》을 개설.

1970. 8 일본군국주의자들 《한일항공화물수송로》를 개설.

1971. 3 일본군국주의자들 《한일민간투자금융회사》를 조작하고 남조선에 대한 일본독점자본가들의 자본투자를 더욱 강화케 함.

1971. 7. 15 일본군국주의자들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침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한일본공보관》을 설치.


자주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발은 온누리에 찬연히 비치고있다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인류가 낳은 천재》,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붉은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거대한 리론실천적공헌을 하신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그 실천적경험과 모범으로써 세계혁명운동을 힘있게 고무하시며 피압박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과 민족해방투쟁,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계시는것으로 하여, 조선혁명과 더불어 세계혁명발전에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높은 국제적권위와 절대적위신을 지니고계시며 전세계의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신다.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정부지도자들, 혁명조직들과 사회단체들, 국제기구들과 민주단체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고있는 로작연구소조들과 개별적인사들은 해마다 1천여건이상의 축전, 편지, 결의문들을 수령님께 삼가 올리고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우리 시대가 낳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천재》, 《세계인민들속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영향력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시고계시는 국제적권위와 위신은 날과 더불어 세계인민들속에서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흠모의 정은 더욱 뜨거워게 불타오르고있다.

모리셔스신문《자 모리셔스 브뤼지》주필은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원수님은 동양에서 솟아오른 새로운 아침해이시며 그 혁명의 황금빛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아들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가져다주고있다.》

수리아신문《알 사우라》는《김일성주석님은 혁명의 세찬 조류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폭풍우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온갖 낡은것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는 태양이시며 암운과 비운이 드리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서광을 안겨주며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주는 등대이시다.

그 밝은 태양은 조선반도만이 아니라 세계의 그 모든 곳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라고 썼다.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성원들은 수령님께 올리는 송가《혁명의 태양 김일성원수만세》에서

《준엄한 세계혁명 키를 잡으신
김일성 그이는 탁월한 수령
공산주의 앞길 밝히신
그이께 충성의 노래 드리네》라고

썼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송시《당신께 올리고 싶은 말》에서 네팔 작가 나르 바즈라는

《착취와 고역에서 시달리는
수억만 인민들의 해방과 자유의 길을 밝히시여
김일성원수님은 태양으로 솟았거니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나는 당신을 인류의 태양에 비기옵니다.》라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남아프리카의 한 벗은《나는 많은 로동계급의 수령을 알고있지만 김일성동지처럼 혁명리론과 혁명실천을 옳게 결합시켜 혁명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분은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으며 일본의 한 정밀기계주식회사 전무취체역 야마도 슈조는 《내가 특히 감동한것은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이다. 김일성주석님처럼 나라의 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옳은 정치를 하는 지도자는 오늘 세계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다오메공화국의 한 정치활동가는《조선땅에 기적적인 성과를 창조해놓게 한 천재는 과연 누구이신가?》라고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바로 그 천재, 그이는 기적의 창조자이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력사의 거인이시며 위대한 심장을 지니신 영웅이시며 대중의 단결자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영재이시며 인민을 벗으로 하는 위인이시며 교양자이시며 인류의 사상을 대변하는 분이시며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사상의 불씨를 안겨주시는 홰불이시며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일성원수이시다.》라고 말하였다.

베네수엘라잡지《쌀바도르 데 라뿔라사》편집부는《김일성주석님은 전세계 인민들의 위대한 영웅이시며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실뿐아니라 전인류의 영재이시며 스승이신 김일성주석님은 천재적예지와 혁명적전개력을 지니고 계신다.》라고 잡지에 썼다.

일본의 한 철학가는 말하기를《사회주의혁명을 위하여 몸바치신 천재, 영웅, 위인은 적지않게 있지만 김일성주석님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걸출한 분으로서 그이의 성함은 세계력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참으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천재적인 지혜를 갖추고 계실뿐아니라 세계에서도 보기드문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분이시다.

김일성주석님의 비할바없는 탁월성은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불요불굴의 의지, 그 강한 행동력에 대해서는 더우기 놀라지 않을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뽀르뚜갈민족해방애국전선 지도부성

원인 페르난도 삐떼이라 싼또스는 《조선이 오늘처럼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은 천리마의 나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게 된 그 근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령도가 놓여있다.》라고 말하였다.

말리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보내온 축하편지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세계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세계인민들의 위대한 수령이심을 잘 알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류의 태양이시며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희망이시며 반제투쟁에서 우리의 등대이십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고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실뿐아니라 한없이 높으신 공산주의적덕성을 체현하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 숭고한 품성,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 무한히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인품과 겸손하고 소박하신 성품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인민에게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계신다.

오늘 외국의 벗들과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은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적품성과 참다운 공산주의적덕성에 대하여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칭송하여 마지않고있다.

알제리의 한 편집원은 《우리는 김일성주석님이 진정으로 인민적인 위대한 수령이시라는것을 똑똑히 알수있다.

현지에 내려가 인민과 상론하시며 나라의 정책을 세우시고 그 집행대책을 포치하신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또 내려 가시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시는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조직동원하는 진정한 인민적령도방법이다.》라고 말하였다.

아르헨띠나의 한 사회활동가는 《인민에 대한 끓어넘치는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명확하고도 확고히 앞날에 제기할 문제들을 구상하시면서 김일성동지께서 지새우신 밤인들 그 얼마였던가! 그이께서는 피곤도 잊으시고 인민을 찾아다니시며 그들과 의논하고 하나하나 풀어주신다.》라고 말하면서 몹시 감탄하였다.

수리아신문 《알 사우라》는 《진정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를 가나 김일성주석님의 정확한 령도가 미치지 않는곳이란 없으며 그이의 자애로운 보살피심이 가닿지 않는곳이란 없다.

수령님은 인민을 믿으시고 사랑하시며 인민은 항상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썼다.

인도의 저명한 한 사회활동가는 《세계혁명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위대한 사상가이시며 시대의 향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처럼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한 민족에 대한 타민족의 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혁명위업에 공헌하시는 령도자를 인류력사는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감동적으로 말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세련된 령도,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은 인류의 혁명운동사에 불멸의 금자탑으로 높이 솟아있을것이며 날을 따라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6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적시대,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 세계혁명에 관한 정연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심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전일적인 혁명리론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공산주의의 미래에 대한 종래의 모든 예언과 가정은 과학적인 학설로 체계화되고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가지게 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체로서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창시 이것은 인류사상발전에서 최고단계로 된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고 한없이 위대하고 풍부한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하시여 인류사상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그러기에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현대인류의 가장 완벽한 진보적사상이며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전백승의 사상》,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 《영생불멸의 혁명사상》이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중근동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샤우끼 아쟈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지도사상》이다 라고 말하였다.

인도일간신문 《인디안 엑스프레스》는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며 맑스—레닌주의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조선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혁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확고한 전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영생불멸의 혁명사상이다.》라고 썼다.

메히꼬의 《인민문화사》 사장 로만 발데스는 《인류력사의 보물인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오늘의 세계혁명발전에 맞게 창조적으

로 발전시킨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이라고 말하였으며 일본 호세이대학 교수 야스이 가오루는《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은 세계사의 앞길을 비쳐주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인 세계직련 다오메로총상주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사상이 세계적범위에서 커다란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의 본질이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부합되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해나갈데 대한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들을 사회와 자연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주체사상의 본질과 그 기초 그리고 주체사상의 구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특히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독창적인 사상, 인간의 본질과 그 역할에 관한 가장 완벽한 유물변증법적리해를 주는 천재적학설인 주체철학은 주체의 빛발을 받아안으며 주체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철학사상을 가리켜《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사람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현류최고의 철학사상》, 《사람들을 사회와 자연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하는 위대한 사상》,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유물론적리해를 주는 독창적사상》이라고 높이 칭송하고 있다.

《전아프리카김일성동지주체사상토론회》준비위원회의 성원이였던 한 벗은《주체사상의 기초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명제는 주체철학의 기본을 천재적으로 정식화하고 로동계급의 철학의 근본원리를 새롭게 밝혀준 위대한 창조적사상이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수리아《문화신문》사 주필 마드하트 아까쉬는《주체사상의 철학적근거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사상의 기초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명제는 주체철학의 기본을 천재적으로 정식화하고 로동계급의 철학적세계관의 기초를 새롭게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본질과 기초를 천재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고찰하고 해석하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체를 개조해나가는 훌륭한 방법을 주는 사상리론적 무기를 안겨주시였다.》라고 말하였다.

페루 리마 싼마르꼬스종합대학 교수 베드로 까스뜨로는 《무엇보다도먼저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생각하며 모든 정책을 작성하고 실현해나가는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철학의 본질이다.

그 어느력사, 어느시기에 이처럼 위대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한 수령이 있었던가》라고 격동적으로 말하였다.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까히라 및 중근동상주부대표는 담화에서《김일성주석님께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구체적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철학에 기초를 두고있는것으로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사상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오차노미즈녀자대학 교수 슈고 히로시는《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이 력사의 주인은 인민이라고 말했는데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더욱 발전시키시여 력사창조에서 사람이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고수하는 문제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통일적으로 밝히시였다.》라고 말하였다.

말리 청년 및 체육지도일군들의 로작연구모임 참가자일동은《수령님께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위대한 주체철학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적인 자주적립장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인 창조적립장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세계직련 다오메로총상주대표 까시엔 히진그바기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사람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서 중요한것은 사람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라는것이며 또한 사람이 자기활동을 규정하는 사상의식을 가진 존재라는것이다.

수령님의 이 명제는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에 대한 유물변증법적리해를 더욱 심화시킨 사상이며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를 새롭게 밝힌 사상이다.

수령님의 이 위대한 사상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그들의 모든 활동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하며 그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라는 심오한 뜻을 담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본질을 천재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과 진보적인민들은 혁명적세계관의 확고한 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일본 도꾜대학명예교수 스기 야스오는 《주석님께서는 주체사상이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주체사상에 대한 말씀에서 커다란 공감을 느끼며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데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부인회의 부의장 야마모도 쇼꼬는 말하기를 《인간존중》이란 말은 하기는 쉽지만 김일성주석님처럼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 투쟁하는것, 모든 정책에서 인간본위의 사상을 관통시키며 그것을 구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주석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무한히 믿으시고 사람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 근본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시고 그것을 세계적인 사상으로서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사상을 국가건설에서 훌륭히 구현하시였다. 여기에 바로 주석님의 위대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높이 칭송되고있다.

주체사상은 세계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 영생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에게 혁명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는 불패의 혁명적기치이다.

주체사상은 오늘 전세계의 혁명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고있으며 대륙과 대양을 건너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힘으로 퍼져나가고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리론을 따르고 신봉하며 그것을 자기들의 사상과 신념으로, 투쟁의 무기로 삼고있다.

세계 수많은 벗들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을《전세계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세계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우리 시대의 기사본조》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일본의 한 평론가는 말하기를《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전세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며 그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제국주의, 군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혁명적인민들의 승리를 담보하는 투쟁의 기치이며 무기이다》라고 하였으며 인도의 한 건축가는《현시대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야말로 모든 문제해결의 유일하게 정확하고 가장 현명한 원칙이라는것을 공인하는 시대이다.

오직 주체사상만이 락후한 철학사상을 타승하고 인류에게 새로운 진보를 가져다주는 영생불멸의 혁명적기치로 된다》라고 말하였다.

쿠바《보천보도서관》 관장은《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실천적투쟁속에서 창시되였고 그 투쟁속에서 정당성이 립증되였기때문에 이 위대한 사상은 아프리카대륙뿐아니라 세계적규모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있다.

오늘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는 승리의 등대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일본 평론가 무라마쯔 다까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나라나 자본주의나라나 할것없이 모두 자주적립장에 설것을 절박하게 요구하는것은 세계적인 조류로 되고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혁명의 진리이다.》

버마신문《가디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은 맑스—레닌주의발전과 인류의 사상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 리론이며 전세계 피착취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시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시대적사상이다. 그러므로 오늘 전세계인민들은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자기들의 희망의 등대로, 투쟁의 교과서로 삼고있는것이다.

수리아《문화신문》사 주필 마드하드 아까쉬는《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해명을 줄수 있는 새로운 지도사상을 내놓은것이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된 때에 영명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이 절박한 요구를 통찰하시고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반제민족해방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주체사상은 모든 나라들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학설이다》라고 말하였다.

끼쁘로스선박《싼드라》호 선장은《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론들은 혁명적인민들에게 불패의 힘과 용기와 신심을 주는 희망의 등대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라크 한 법률가는《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계에서 김일성동지의 리론과 사상이 더욱더 큰 파문을 일으키며 싸우는 인민들속에서 그이의 권위와 위신이 더욱더 높아지게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열쇠로 되기때문이다.

경제건설에서나 조국보위에서나 문화예술에서 주체사상은 백과전서적이며 만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레바논의 한 국회의원은《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은 조선에서뿐아니라 세계의 모든곳에서 진보와 번영을 위한 맑스—레닌주의명도의 최고지침이다.》라고 말하였다.

인도의 저명한 한 교육가는《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이야말로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지도사상이며 인류를 해방하는 성스러운 홰불이다》라고 격조높이 말하였으며 일본의 한 문학평론가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며 그들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지도사상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제국주의, 군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혁명적인민들의 승리를 담보하는 투쟁의 기치이며 무기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오스트랄리아 기자이며 작가인 윌프레드 버체트는《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주체로선—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투쟁에서 누구나가 견지하여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며 가장 현명한 길이다》라고 말하였다.

노르웨이공산당 위원장 페이다르 테라르쎈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상은 조선의 현실에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이 사상은 역시 다른 공산당들에 있어서도 고무와 경험으로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머리로 사고하여야 하며 자력갱생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모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진리로 됩니다.》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위원회《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온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맑은 아침의 나라의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혁명의 길에 오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현시대의 최고봉외 맑스—레닌주의적혁명사상이며 세계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심으로써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은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에게 불패의 힘과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며 혁명적정열과 지혜를 주는 원천으로서 19세기 공산당선언이 자본주의의 멸망을 선고한것처럼 20세기 제국주의의 멸망을 선고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기네—비싸우 대표는《김일성주석님께서는 우리가 살고있는 전세계의 혁명의 진리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리론화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세계혁명가들에게 투쟁의 참된 길을 똑똑히 가르쳐주시였다.

우리는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함에 있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걸출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투쟁의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실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환되고있으며 새 사회,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세계인민들을 고무추동하는 영생불멸의 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세계적흐름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주체사상의 정당성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많은 사람들속에서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28페지)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온갖 예속과 착취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념원과 일치하며 제국주의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세계적사조로 되고있다.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각계인사들,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정력적으로 따라배우고있으며 주체사상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과 나라들에 널리 퍼지고있다.

아세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여러가지 형식과 수단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적극 보급선전하고있다.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은 1973년에 세계의 수십개 나라들에서 30여개의 민족어로 수천만부나 번역출판되였으며 무려 억만부를 훨씬 넘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 출판물들에 게재되였다.

중국, 일본, 버마, 인도, 파키스탄, 레바논을 비롯한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과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핀란드, 단마르크, 스웨리예, 노르웨이를 비롯한 구라파의 나라들, 그리고 알제리, 말리, 수단, 페루, 메히꼬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김일성저작선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등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대대적으로 번역출판하여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리론, 위대한 혁명업적과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함께 《김일성전》의 출판도 세계출판계를 휩쓸고있다.

1973년에 파키스탄에서《김일성전》2부(영문)를, 프랑스와 메히꼬에서《김일성전》3부를 에스빠냐어와 아랍어로 출판하였으며 수리아, 모리셔스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대대적으로 소개선전하고있다.

일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을 기념하여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서술한 책《령도의 예술가 김일성》을 출판하였으며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기념하여서는 일본의 청소년들을 위해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전기《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을 출판하였다.

영국신문《타임스》는《천리마조선》이란 제목으로 두호에 걸쳐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존경하면서 수령님의 령도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또한 소말리아, 꾸바, 모리셔스, 나이제리아, 가이아나 등 여러 나라들에 있는《김일성도서관》, 《보천보도서관》, 《김일성서점》을 비롯하여 수령님의 로작만을 연구하고 보급선전하는 많은 도서관들과 서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여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널리 보급, 소개선전하였다.

이해에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 지구상의 모든 대륙의 이르는곳마다에《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애독회》등 여러가지 학술연구소조들이 더욱더 많이 무어져 운영되였다.

이들은 수령님의 탄생기념일과 그이의 혁명활동력사의 중요기념일, 로작발표기념일들을 계기로 성대한 축하모임들과 발표모임, 연구토론회들을 가졌으며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를 채택하였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토론회들을 한 나라의 범위, 대륙과 지역적 범위로 크게 조직하여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천재적로작들을 높이 찬양하였다.

1971년에 중근동지역에서, 1972년에 전아프리카대륙에서 주체사상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1973년에는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에서 중근동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정치활동가들, 사회활동가들의 참가밑에 《중근동 및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중근동 및 아프리카지역에서 벌써 국가정책작성자들의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생활상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일본각지에서 조직된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성원들의《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연구토론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수많은 학자들과 정당, 사회단체 산하들, 출판계인사들이 여러차례의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와 수령님의 로작연구발표회를 가졌다. 뿐만아니라 일본에서는 이름있는 학자들이《위대한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의의에 대하여》, 《조선에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론의 발전》,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리론》등 제목으로 큰 과학론문들을 발표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리론을 높이 찬양하고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온 세상 사람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고있으며 그것을 따라배우는것은 막을수 없는 세계적흐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제4차주체사상연구전국토론집회에서 일본군마《조선문제연구위원회》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주체사상을 배우고 그에 따라서 살려는것은 현시대의 추세로 되고있다.

김일성주의는 우리 시대의 유일한 라침판이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는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주석님에 의하여 창시되고 체계화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의체계는 그 깊이와 너비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있으며 완성된 사상리론체계이다. 과거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연구하는것이 하나의 풍조로 되고있었으나 오늘은 김일성주의를 연구체득하는것이 시대의 커다란 조류로 되고있다.

우리들은 앞으로 김일성주의를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것으로 하는데 제1차적인 관심을 돌리나갈것이다.》

일본의 오차노미즈녀자대학 교수 슈교 히로시는《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 없습니다.》라고 하신 김일성주석님의 말씀은《큰 나라에 추종하고 큰 사람에게 굽실거리는데 비롯된 일본의 현실에 실망하고있던 나에게 있어서 한줄기의 광명과도 같이 강력한 인상을 안겨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일본도 모든 면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는 또한《일본이 지난시기 구라파와 미국에서 배웠다면 이제는 조선에서 주체사상과 자주성을 배워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세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제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축하시에서 파키스탄《마미르》신문사 및《진보적출판사》사장 나씸 휴마윤은 다음과 같이 썼다.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세계의 미래

그 미래는 주체의 빛발아래 앞당겨지도다.

주체사상은 불멸의 사상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적량식

주체사상은 인류의 귀중한 재부여라

우리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을것을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까나리아섬자결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주빌로는《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아프리카투사들은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체사상의 진수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미국흑인단체의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상은 우리의 투쟁에서 그야말로 사활적으로 중요한것이며 따라서 모든혁명가들은 그것을 체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에 의거함으로써만 투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자신의 해답을 얻을수 있으며 실현할수 있는 혁명적인 행동계획을 발전시킬수 있기때문이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흠모하여 그이께 드리는 시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김일성주석혁명력사연구소조》 성원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세계 모든 나라
혁명가들이여!
그대들이
진실로 혁명을 하 거든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신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라!
혁명하는 모든 나라
혁명가들이여
그대들이 인민들에게 참으로
행복을 주려거든
혁명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을 체득하라.》

중근동 및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

１９７３년 １１월 １９일부터 ２１일까지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에서 《중근동 및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는 소말리아, 시에라 레온,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리따니, 우간다, 다오메 등 여러 나라들의 정부대표단들을 비롯하여 수단, 수리아, 꽁고, 탄자니아, 말리, 또고, 레바논, 부룬디, 서남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들에서 온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대표들과 투쟁단체 대표들, 저명한 정치활동가들과 사회활동가들, 박사, 교수들, 출판기관 책임일군 등 ６０여명의 대표들을 포함하여 ３００여명이 참가하였다.토론회에는 소말리아 최고혁명리사회 위원들인 국무비서들이 참가하였다.

이 토론회는 이전에 진행된 토론회들과는 달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이 주최가 되여 정부적행사로서 전례없이 큰 규모로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속에 채택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서 얻은 견해와 경험을 나누었다. 또한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주의,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과 모든 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세계의 평화와 사회적발전과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얻은 경험을 나누고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소말리아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고등교육 및 문화담당국무비서 아멘 쎄크의 축하연설, 토론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수리아《문화신문》사 주필 마드하드 아까쉬의 보고가 있었다.

또한 시에라 레온, 다오메, 모리따니,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간다 정부대표단 단장들과 중근동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사상연구위원회》위원장, 말리교육부 총시학, 까히라에 있는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단체들의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소조》책임자, 수단보건일군로조 위원장, 탄자니아종합대학 부학부장, 중근동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력사연구소조》책임자, 또고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레바논 변호사, 꽁고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서

기장, 말리평화운동위원회 총서기,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단 단장, 부룬디정부기관지 《우부무에》 부사장, 소말리아대표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보고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본질과 기본내용, 그의 정당성과 위대성, 보편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다.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고있다. 위대하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을 초석으로 하는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이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위한 전략전술적방도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적기초를 제시해주고있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근본원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게 하는 근본립장과 방법을 밝혀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행동의 지침이다.

주체사상은 조선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로 되였으며 날을 따라 세계인민들속에 더욱 널리 전파되여 그 정당성과 위대성,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 이 위대한 학설을 지침으로 삼아야만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으며 실패와 곡절을 면할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혁명투사들속에서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구현하며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는 인민들의 경험을 따라배우려는 열의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이 학설을 연구하고 그의 적용방도를 인식하는것을 우리는 혁명과 시대 앞에 지닌 자기의 신성한 의무의 하나로, 우리의 민족적사명과 떼여놓을수 없는 의무의 하나로 간주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근동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샤우끼 아쟈미는 《력사발전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이 노는 역할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을 혁명에로 불러일으켜 승리를 이룩하게 하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며 로동계급의 대표이시며 로동계급의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게 된것은 조선과 세계적범위에서 근본적전변을 가져온 위대한 력사적전환점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시에라 레온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이며 전인민대회당 전국집행비서이며 국회의원인 필리 파보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발전시키시였으며 세계 특히 조선의 실천적경험을 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고 말하면서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깊이 학습하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것은 시에라 레온인민앞에 나서는 필수적과업이라고 하였다.

데바논 변호사 아델 깐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앞에 절박한 문제로 나선 세계혁명의 원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고 하면서 중근동과 아프리카 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불멸의 원칙은 낡은 세계를 쓸어버리고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세계적기치라고 강조하였다.

부룬디정부기관지 《우부무에》 부사장 빠뜨리스는 자기 토론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만 혁명을 수호하며 맑스—레닌주의를 예속되고 착취당하고있는 제3세계의 현실에 특히는 아프리카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수 있다. 부룬디청년들은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리론실천적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주체의 시대에 사는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렬한 존경과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 주체사상 만세!》,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 만세!》, 《주체사상 승리 만세!》를 높이 부르며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갈 굳은 결의를 표시하였다.

회의 전과정은 수령님에 대한 칭송과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실천투쟁에서 구현하려는 참가자들의 높은 열의로 일관되였다.

토론회는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와 혁명실천에서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열어놓은 주체사상이 온 누리에 찬연한 빛발을 뿌리고있으며 전세계적범위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는것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매우 높아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와 동정자의 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진보적인민들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１９７３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높은 국제적 권위와 위신으로 하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혁명적인 대외정책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정당성으로 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일층 강화된 한해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의 국제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그리고 그이의 세련되고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１９７３년에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분야에서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이 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정부대표단,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사회단체대표단들이 사회주의나라들과 중근동 및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 일련의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을 친선방문하였다.

우리 나라 대표단들은 그 나라 당지도자들과 국가수반들의 접견을 받았으며 쌍방대표단들간에 친선적분위기속에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일련의 주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표단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이 나라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 나라들의 당지도자들과 국가수반들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따뜻한 말씀을 우리 나라 대표단들이 정중히 전하였다. 수령님께서 친서와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으며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들이 방문한 나라들에서 있은 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행사들과 그 뒤에 발표된 공동보도들이 뚜렷이 보여준바와 같이 우리의 벗들과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５대강령에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면서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확고부동한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졌다.

특히 이해 중국, 일본, 영국, 이딸리아 등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만수대예술단의 성과적공연은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는 주체예술의 커다란 생활력과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 이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나라 대외적위신을 더욱 높였다.

그것은 특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온갖 발악적인 책동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대륙의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의 국가적 및 경제문화적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실에서 잘 보여주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가적관계를 맺는것은 하나의 막을수 없는 세계적추세로 되였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와 관계를 가지지 않고있던 많은 서방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조선인민의 참다운 합법적대표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국가관계를 맺었다. １９７３년에 또고 (１월 ３１일), 다오메 (２월 ５일), 잠비아 (３월 ２일), 모리셔스 (３월 １６일), 스웨리예 (４월 ７일), 이란 (４월 １５일), 단마르크 (７월 １５일), 핀란드 (６월 １일), 아르헨띠나 (６월 １일), 노르웨이 (６월 ２２일), 말레이시아 (６월 ３０일), 이슬란드 (７월 ２７일), 방글라데슈 (１２월 ９일), 인도와 리베리아 (１２월 １０일), 아프가니스탄 (１２월 ２６일) 과 새로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는바 한해에 이렇듯 많은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세계 정치외교무대에서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에 우리 공화국정부가 수많은 나라들과 새롭게 국가관계를 맺은 결과 우리 나라는 무려 ６４개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구라파 나라들과 정식 외교관계를 가지게 되였으며 총령사관계 및 무역관계를 합하면 ８０개 나라, 그밖의 각종 공식관계까지 포함하면 １００여개의 나라들과 공식적관계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늘어남으로써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공화국기발이 휘날리게 되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고립봉쇄하고 남조선에서 식민지괴뢰판동롱치를 《합법화》하려던 미제의 비렬한 책동은 여지없이 파탄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게 되였다.

１９７３년에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 적극 진출하여 국제기구들에 들어가기 위한 대외활동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해에 유엔주재 상임옵써버대표부를 개설한것을 비롯하여 １１５개의 각종 국제기구들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세계의 이목이 우리 공화국에 쏠리고 우리 공화국의 위신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기구, 국제회의들에서도 우리 공화국을 지지하는 대렬이 계속 늘어났다. 세계 절대다수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 속에서 우리 나라는

4월에 국제의회동맹에 가입하였으며 뒤이어 또다시 유엔전문기구들인 세계보건기구 (5월), 유엔무역개발회의(8월) 에 가입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가 급격히 높아지는데 몹시 초조해 하면서 우리 나라가 세계보건기구에 들어가는것을 어떻게나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하였다. 미제는 일본에 《대표단》까지 보내여 모략을 꾸몄으며 일본반동지배층은 그 무슨 《시기상조론》을 들고나와 분별없이 돌아쳤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여러 나라들에 모략단들을 보내고 우리 나라를 비방중상하는 이른바 《비망록》들을 성원국들에 보냈으며 지어 우리 나라의 가입문제가 심의되는 경우에는 다음번 총회에까지 가입심의를 연기한다는《결의안》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더러운 추태를 부렸다.

그러나 놈들의 이 모든 정치적모략책동은 많은 나라 대표들이 우리의 정당한 립장을 지지환영함으로써 산산이 짓부서지고 압도적다수표로 우리 나라의 가입이 결정되였다.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우리의 가입이 선포되자 남조선괴뢰《대표》란놈은 회의장복판에서 졸도하는 추태까지 벌렸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진출을 가로막고 그를 고립봉쇄하려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그리고 남조선반동들에 대한 심대한 정치적타격으로 되며 그들의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의미한다.

이해의 전반적대세가 제놈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지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세계여론을 오도하면서 저들의 패배를 만회해보려고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특별성명》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 5대강령을 천명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심으로써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궁여지책으로 꾸며낸 이른바 《특별성명》은 세상에 나온 그 자리에서 철추를 맞고 박산났다.

이해에 26년만에 처음으로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의 조선문제토의에 우리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유엔연단에서 각국 대표들과 세계를 향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신랄히 폭로규탄하고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단죄하였으며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정당성을 설득력있게 론증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의 실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높이 울린 조선인민의 진정한 목소리는 조선문제토의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을뿐아니라 유엔성원국대표들과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들에게 정당한 인식을 주었다.

이리하여 유엔총회에서는 수령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을 공인하게 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 대표단들은 수많은 국제행사들에 참가하여 조선에서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폭로규탄하였으며 반제혁명력량과의 단결과 공동행동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기간에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은 알제리, 애급, 수리아, 이라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시에라 레온, 꾸바, 아르헨띠나, 뻬루, 로드니아, 쏘련, 미국, 일본, 프랑스, 오스트랄리아 등 여러 나라 청년학생들과 상봉모임, 련대성집회, 토론회들을 가지고 그들과의 전투적친선단결과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축전기간에 특히 미국청년로동자해방동맹 성원들의 성명, 조선전쟁참전국청년학생대표들의 공동성명,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성원국 청년학생대표들이 자기 나라 정부들에 보내는 공동서한을 채택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친선협조와 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세계 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세계혁명력량의 단결을 이룩하며 특히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그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은 더욱 늘어났다.

반면에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을 실시하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드센 규탄과 배격을 당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비상히 강화된것은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3년 6월 23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민족분렬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은 세계에서 광범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령님께서 조국통일 5대강령을 발표하시자 세계여론은 한결같이 여기에로 쏠리게 되였으며 각국의 신문, 통신, 방송, 텔레비죤 등 출판보도기관들은 그이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이《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을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놓은 민족의 대강령》, 《완전한 통일에로 가닿는 지름길을 다시 한번 천명한 위대한 강령》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1973년현재 세계 50여개 나라 국가수반들과 당수들이 수령님의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적극 지지하는 공식적인 립장을 표명하였으며 80여개의 각국 정당, 사회단체, 국제기구, 투쟁단체들에서 지지전문을 보내왔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50여회의 군중집회를 비롯하여 700여건의 지지조치들이 취해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받들고 열린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도 전세계인민들속에서 열화같은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선참으로 지지편지를 보내여왔으며 중국의 광범한 언론, 사회계에서도 우리의 정당한 립장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쏘련정부와 광범한 사회계와 많은 출판물들이 또한 우리 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밖에 사회주의 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의 많은 나라 국회들과 정부들, 국가지도자들 그리고 정당, 사회단체, 국제기구, 투쟁단체 및 각계 인사들이 최고인민회의 편지에 대한 귀중한 지지와 동정을 표시하여 회답편지들과 전문들을 우리 나라에 보내여왔으며 성명, 호소문, 담화, 결의들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은 국제회의에서 뚜렷이 표시되였다.

력사상 가장 많은 80여개 나라의 국가수반들을 비롯하여 100여개 대표단의 참가밑에 9월에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알제리의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은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의 명의로 쁠럭불가담국가 수반들에게, 알제리 외교부장은 쁠럭불가담국가 외교부장들에게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것을 권고하는 전문을 보내였다.

세계민청뷰로,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과 많은 나라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하는 성명, 호소문, 편지, 전문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강력한 련대성의 국제적시위로 되였으며 반면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는 치명적타격으로 되였다. 회의결과는 자주성의 공통된 리념속에서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지지력량이 제3세계 나라들속에서 도도하게 급속히 자라나고있으며 그것이 지배적인것으로 되여나가고있다는 것을 확신성있게 보여주었다.

11월중순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는 세계의 광범한 사회여론이 조직동원된 뚜렷한 실례의 하나였다. 이 회의에는 북구라파 나라들의 7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저명한 인사들 160여명이 참가하여 미제의 침략정책을 규탄하고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진행된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의 조선문제토의에서는 많은 나라 대표들이 자기의 연설들에서 갈라진 조국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밑에 조선문제를 토의해오던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제1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는 표결함이 없이 미제의 어용기구이며 내정간섭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회의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수치스럽게 저지되고말았다.

유엔총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고 그 원칙에 따라 조선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치하게 인정한것은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온 립장의 정당성과 유엔을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의 도구로 리용하여오던 미제의 장기간에 걸친 방해책동이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하기시작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조선문제토의의 진행정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과 조국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를 시위한 커다란 사변으로 되였다.

유엔무대에서 달성한 승리는 전적으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높으신 국제적 권위와 위신, 그리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조국통일방침에 의해서 이룩될수 있었다.

이렇듯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의 조선문제토의 결과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대승리로, 그이의 반제반미전략의 빛나는 승리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의 위대한 승리로 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은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을 설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애급의 수도 까히라에서 사진전람회, 도서전람회, 단마르크에서 반미군중집회, 반미군중시위가 진행된것을 포함하여 세계도처에서 이와 같은 련대성행사들이 있었다.

5대륙의 여러 나라 출판물들은 련대성을 표시하는 사설, 론설을 발표하였으며 국제학생동맹 서기국, 세계직련, 세계민청뷰로,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등 많은 국제기구들이 성명, 호소문을 발표하여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준렬히 단죄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세계 많은 나라들에 조직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지지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및련대성위원회》,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쑈반제민주화운동투쟁지지련대성위원회》, 《남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등 우리 나라와의 련대성단체들이 여러가지 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는것으로써 조선인민과의 친선의 뉴대를 표시하였다.

반제반미투쟁에 대한 지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 대외정책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단행본, 15페지)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제3세계가 제국주의와 맞서있는 위력한 존재로 된것은 인류력사와 세계혁명운동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사변이다. 신흥세력을 이루는 이 제3세계나라들은 과거 및 현재의 처지의 공통성과 공동의 지향과 목적 그리고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으로 하여 하나의 단합된 정치적력량을 이루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들은 제3세계력량을 무서워하면서 이 신흥세력을 약화시키며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발악하였다.

제3세계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는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며 국제분야에서 자주성과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3세계 인민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이에 튼튼한 련대성을 보내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받은 인도지나인민들은 1973년에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에서 거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웰남과 라오스 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시여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지도자들,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지도자들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과 6월 13일 공동콤뮤니케를 란폭하게 유린하고있는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도당의 범죄적죄행을 규탄하여 4월 5일, 11월 16일에 외교부성명을, 8월 4일, 10월 24일, 12월 12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각각 냈다.

이해에 우리 나라 정부는 남부웰남공화에 무상으로 경제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 (12월 28일)을 조인하고 웰남민주공화국과도 이런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 나라들과의 전투적친선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고 싸우는 캄보쟈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미제가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야수적인 폭격만행을 확대강화하며 놈들의 지원밑에 론놀괴뢰도당이 무고한 캄보쟈주민들에 대한 류혈적탄압과 학살을 감행하고있는것 등을 규탄하여 여러차례의 외교부 및 외교부대변인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들은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의 두리에 뭉친 영웅적캄보쟈인민과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의 성스러운 위업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표시하고 그들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앞으로도 계속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4월과 7월의 우리 나라방문은 반미공동투쟁에서 굳게 맺어진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 사이의 전투적친선의 력사에 또하나의 뜻깊은 사변으로 되였다.

중동지역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부추겨 제4차중동전쟁을 일으키자 애급과 수리아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성전에로 용감히 일떠섰으며 원쑤들에게 커다란 군사정치적타격을 주었다.

10월 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애급과 수리아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여 애급과 수리아 대통령들에게 각각 전문을 보내시였다. 10월 18일에 수령님께서는 여러 아랍나라들이 애급과 수리아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것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시여 알제리, 예멘, 모리따니, 이라크, 민주예멘, 수단, 리비아, 쿠웨이트, 레바논, 마로끄, 뛰니지,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추장국련방, 바레인국가, 까타르국가, 아랍련맹 지도자들에게 전문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 나라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기네—비싸우, 앙골라, 모잠비끄,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인민들의 투쟁에 변함없는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해에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은 미제의 지배와 예속을 허용하지 않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 아르헨띠나, 꼬스따 리까, 가이아나, 뻬루, 빠나마, 메히꼬, 에꽈도르 등 라틴아메리카나라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9월 11일 미제가 칠레군부의 반동세력을 부추겨 쌀바도르 알옌데대통령을 살해하고 그를 수반으로 하는 칠레의 합법적정부를 전복하는 파쑈적군사정변을 일으켰다. 9월 1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등 우리 나라 여러 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칠레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낼것이라는것을 확언하였다. 9월 18일 우리 나라 외교부는 칠레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과 칠레 두 나라 사이의 국가적관계를 재검토하고 칠레에서 파쑈적인 반동세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칠레와의 국가적관계를 중단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10월 10일에는 우리 나라 여러 사회단체들이 칠레공산당 총비서를 비롯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지체없이 석방하며 무분별한 류혈적폭압만행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여 공동성명을 냈다.

그밖에도 9월 16일 평양시내 2만여명의 로동자, 농민, 학생청년들이 칠레인민과 청년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를 가지였으며 여러 사회단체 위원장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렇듯 이 한해동안에 제3세계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친선협조와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은 더욱 늘어났다.

우리 인민은 또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자기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투쟁에 열렬한 성원을 보내였다.

당 및 국가 수반들과 정부수반급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인 친선단결과 련대성이 강화됨에 따라 수많은 외국대표단들이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세기적인 기적을 이룩하고있는 우리 나라를 따라 배우기 위하여 련이어 찾아왔다. 이 한해동안에 7개의 수반급대표단을 포함하여 근 5천명을 망라한 800여개의 각종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의 우리 나라 친선방문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캄보쟈의 해방지역을 방문하여 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인민들을 만나고 돌아온 기쁨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를 만나뵈으며 수령님탄생 예순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1973년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4월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캄보쟈해방지역방문을 수록한 사진전시회를 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 15일 수령님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축하방문하여온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만나시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을 열렬히 축하하고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여 그이께 지성어린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4월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열렬히 환영하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해방투쟁에 물심량면으로 되는 적극적인 지원을 줄것을 재천명하시였으며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시였다.

방문기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모든 분야에서 가장 발전된 강유력한 참다운 지상락원으로 전변된 우리 나라의 훌륭한 모범은 나라를 구원하며 조국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무장투쟁이 끝난 다음 캄보쟈인민들이 나라의 복구건설을 위한 방대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커다란 고무로 될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휴식차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에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두차례에 걸친 우리 나라 방문은 반제반미공동투쟁을 통하여 맺어진 두 나라 인민의 전투적친선단결을 더욱 굳게 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친선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당및정부대표단이 1973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당및정부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평양시와 함흥시의 공장, 협동농장, 교육문화기관들을 돌아보았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월 24일 체스꼬슬로벤스꼬의 최고훈장을 받으시였으며 같은날 체스꼬슬로벤스꼬당및정부대표단성원들에게 우리 나라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당및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6월 24일 체스꼬슬로벤스꼬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께가 발표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이 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쳐 앞으로 보다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킬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조선—체스꼬슬로벤스꼬 정부 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위원회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측은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짧은 기간에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발전된 공업과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서와 최근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가 더욱 급격히 높아지고있는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측은 또한 조선의 통일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방침에 대하여서와 특히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가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에서 천명한 립장에 다시금 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체스꼬슬로벤스꼬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평양시와 함흥시에서 진행되였다.

6월 23일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군중대회에서는 또한 구스따브 후싸끄동지가 연설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방문은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꽁고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친선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이며 국가수반인 마리엔 느구아비를 단장으로 하는 꽁고당및정부대표단이 1973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우리 나라에 대한 공식적인 당 및 국가방문을 진행하였다.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과 그와 함께 온 인원들은 평양시와 그 주변의 공장, 협동농장과 문화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꽁고의 손님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8월 3일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인민공화국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은 군중대회 연설에서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할수 있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식민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과정에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경험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8월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부인 김성애동지가 꽁고인민공화국의 최고훈장인 대십자훈장을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날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와 셀린느 느구아비부인에게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 제1급을 각각 수여하시였다.

또한 대표단성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시였다.

방문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8월 4일 꽁고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그밖에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콤뮤니케에 의하면 꽁고측은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의 옳바른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훌륭히 구현하여 짧은 기간에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꽁고측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나라 정부의 일관한 립장과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월 23일 새롭게 천명하신 5개 항목의 조국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에 대한 당 및 국가 방문은 두 나라 인민과 정부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벌가리아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친선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쥡꼬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당및정부대표단이 1973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하였다.

벌가리아당및정부대표단은 평양시와 함경남도의 공업기업소와 교육, 문화 기관들을 방문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따뜻하고 진심으로부터의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10월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벌가리아의 최고훈장을 받으시였으며 같은날 벌가리아당및정부대표단성원들에게는 우리 나라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쥡꼬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10월 29일 벌가리아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당 및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날로 좋게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두 당, 두 나라 사이에 접촉과 련계를 강화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두 대표단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 및과학기술협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벌가리아측은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벌가리아측은 또한 우리 나라 정부의 시종일관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방침에 대하여서와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월 23일 새롭게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하에 벌가리아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평양시와 함흥시에서 진행되였다.

10월 28일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군중대회에서는 또한 또도르 쥡꼬브동지가 연설하였다.

벌가리아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계기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웰남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친선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부 총리인 범문동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웰남 당및정부대표단이 1973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 친선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웰남 당및정부대표단을 만나시고 따뜻한 친선의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웰남 당및정부대표단은 평양시와 황해북도 및 개성시의 공장, 협동농장, 교육, 문화 기관들을 돌아보았으며 대표단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다.

방문기간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웰남 당및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7월 1일 웰남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대표단은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과 사회주의건설에 견결한 지지성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그리고 조선로동당과 정부와 우리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웰남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평양시와 사리원시에서 진행되였다.

7월 1일 우리 나라가 웰남민주공화국정부에 경제및기술적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협정과 두 나라 사이의 1974년도 상품류통및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웰남측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 1973년 6월 23일 새롭게 천명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5개 항목의 조국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쌍방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통하여 굳게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가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웰남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전투적단결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애급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친선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후쎄인 엘 샤페이부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애급아랍공화국정부대표단이 1973년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애급아랍공화국 후쎄인 엘 샤페이를 단장으로 하는 애급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석상에서 애급정부대표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 무함마드 안워르 앗 사다트대통령이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그이의 령도밑에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끊임없는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평양시와 함남도, 평남도의 공장, 기업소, 교육,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방문기간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애급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9월 21일 애급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각기 자기 나라의 정세와 자국정부의 대외정책 그리고 국내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통보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 방도에 대하여서와 현국제정세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콤뮤니케에 의하면 애급측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의 올바른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애급측은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 6월 23일 력사적인 연설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 방침에 진심으로 지지를 표명하였다.

애급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친선방문은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호상리해를 깊게 하고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이 강화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감비아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친선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에이. 디. 카마라부대통령 겸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감비아공화국정부대표단이 1973년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적으로 친선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 감비아공화국 정부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대표단은 조선에 머무르는동안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비롯한 평양시와 함흥시, 개성시의 공장, 기업소, 교육,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방문기간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감비아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에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10월 30일 감비아공화국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콤뮤니케에 의하면 감비아측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올바른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감비아측은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이 없이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정책과 다른 모든 창발적인 발기들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쌍방은 우리 나라와 감비아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간에 대사급 외교관계설정후 급속히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였다.

감비아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과 감비아인민 사이에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고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환하신 축전, 축하편지, 전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각국 당 및 국가 수반들과 사회단체 지도자들에게 보내신 축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여온 수많은 축전과 편지, 전문들에 대해 답전을 보내시는것과 함께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 특히 제3세계나라들의 민족적명절들과 각종 의의깊은 행사들, 력사적인 사변들에 즈음하여서와 당과 국가수반들의 탄생일, 그들의 수반으로서의 재선 등에 대해 친선적이며 전투적인 인사와 축하를 담은 축전들을 보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축전들에서 대상나라들의 혁명과 건설,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들을 열렬히 축하하시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시였으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친선과 단결을 강화할것과 반제반미투쟁에서 련대성의 기치를 높이 들것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들에 축전을 보내시였다.

버마독립 스물다섯돐을 축하하여 버마련방혁명리사회 의장 우네 윈 (1월 2일)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라오스애국전선창건 열일곱돐을 축하하여 라오스애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 (1월 5일)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1월 9일)

챠드공화국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챠드공화국 대통령 프랑수와 똠발바예 (1월 10일)

인도공화국창건 스물세돐에 즈음하여 인도공화국 대통령 브이. 브이. 기리 (1월 24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의 탄생 쉰다섯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1월 25일)

《웰남에서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협정》이 조인되고웰남전역에서 정화가 실현된것과 관련하여 웰남민주공화국 주석 손덕승,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총리 범문동▶ 《웰남에서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협정》이 조인되고 웰남전역에서 정화가 실현된것과 관련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자문리사회 위원장 원우수,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주석 휜뗜팥(1월 30일)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으로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가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우리 나라와 또고공화국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또고공화국 대통령 에떠옌느 에야데마 (2월 3일)

우리 나라와 다오메공화국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다오메공화국 대통령 마티어 께레꾸 (2월 10일)

나리다 도모미가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2월 14일)

네팔왕국 민족민주주의의 날에 즈음하여 네팔왕국 국왕 비렌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 데바 (2월 16일)

감비아독립 여덟돐을 맞이하여 감비아공화국 대통령 다우다 크웨씨 쟈와라 ▶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니꼴라이 위또로비치 뽀드고르느이탄생 일흔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2월 17일)

끼쁘로스공화국 대통령으로 마카리오스가 다시 취임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2월 19일)

까타르인민의 민족적명절인 2월 22일운동 한돐에 즈음하여 까타르국가추장 할리파 빈 하마드 알 타니 (2월 21일)

《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이 조인되고 라오스전역에서 정화가 실현된것과 관련하여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 (2월 23일)

체스꼬슬로벤스꼬근로자들의 2월승리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루드위끄 스워보다,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총리 루보미르 슈트로우갈 ◀ 쿠웨이트국경절에 즈음하여 쿠웨이트 국가추장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 (2월 24일)

마로끄인민의 민족절명절에 즈음하여 마로끄왕국 국왕 물라이 하싼2세 (3월 2일)

가나독립 열여섯돐에 즈음하여 가나공화국 구국리사회 위원장 아이. 케이. 아참퐁 (3월 5일)

싼마리노공산당 제8차대회에서 에르메네질도 가스뻬로니가 이 당 위원장으로, 움베르또 바롤리가 총비서로 각각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3월 7일)

우리 나라와 감비아공화국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감비아공화국 대통령 다우다 크웨씨 쟈와라 (3월 8일)

모리셔스독립 다섯돐에 즈음하여 모리셔스 총리 시우사구르 람굴람 (3월 11일)

우루과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3월 18일)

뛰니지공화국독립 열일곱돐에 즈음하여 뛰니지공화국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 (3월 19일)

우리 나라와 모리셔스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모리셔스 총리 시우사구르 람굴람 (3월 20일)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 줄피카르 알리 부토 ◀ 캄보쟈민족통일전선결성과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창건 세돐에 즈음하여 캄보쟈 국가원수인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와 캄보쟈 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장인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총리 펜 누트 (3월 22일)

루드위끄 스워보다가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3월 24일)

룩셈부르그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도미니크 무르바니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3월 30일)

수하르또가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3월 31일)

웽그리아해방 스물여덟돐에 즈음하여 웽그리아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순치 빨, 웽그리아인민공화국 내각총리 포크 예네 ▶ 세네갈공화국독립 열세돐에 즈음하여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 (4월 3일)

수리아독립 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 (4월 16일)

시에라 레온공화국선포 두돐에 즈음하여 시에라 레온공화국 대통령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 (4월 18일)

우리 나라와 이란제국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이란제국 황제 모함메드 레자 파흘라비 (4월 21일)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세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국가 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장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총리 펜 누트, 웰남민주공화국 주석 손 덕승, 웰남민주공화국 정부 총리 범문동,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원우수,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주석 훵 펀팔,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 (4월 24일)

탄자니아련합공화국창건 아홉돐에 즈음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4월 25일)

또고독립 열세돐에 즈음하여 또고공화국 대통령 에띠엔느 에야데마 (4월 26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수립 세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장이며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총리 펜누트 ▶ 에티오피아제국국경절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제국 황제 하일레 셀라씨에 1세 (5월 4일)

체스꼬슬로벤스꼬해방 스물여덟돐에 즈음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루드위끄 스워보다,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총리 루보미르 슈트로우갈 (5월 8일)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주간》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야씨르 아라파트 (5월 14일)

까메룬련합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까메룬련합공화국 대통령 엘하지 아호마두 아히죠 (5월 19일)

제10차 아프리카통일기구국가및정부수뇌자회의가 열린것과 관련하여 이 회의에 (5월 20일)

스리랑카공화국선포 한돐에 즈음하여 스리랑카공화국 대통령 윌리암 고팔라와 (5월 21일)

아르헨띠나 공화국대통령으로 엑또르 로세 깜뽀라가 취임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 5월혁명승리 네돐에 즈음하여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5월 24일)

아프가니스탄 독립절에 즈음하여 아프가니스탄왕국 국왕 모함메드 자히르 샤흐 (5월 26일)

뛰니지 국경절에 즈음하여 뛰니지공화국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 (5월 31일)

우리 나라와 아르헨띠나공화국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한것과 관련하여 아르헨띠나공화국 대통령 엑또르 호세 깜뽀라 (6월 1일)

우리 나라와 핀란드공화국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한것과 관련하여 핀란드공화국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 (6월 4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수립 4돐에 즈음하여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인 원우수,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주석 훵펀팔

(6월 5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시정조치 네돐에 즈음하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6월 20일)

말가슈공화국독립 열세돐에 즈음하여 말가슈공화국 정부수반 가브리엘 라마난트 (6월 24일)

자이르공화국 독립 열세돐에 즈음하여 자이르공화국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 (6월 28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 발테르'울브리히트 탄생 여든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6월 29일)

몽골인민혁명 쉰두돐에 즈음하여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몽골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유. 쩨덴발, 몽골인민공화국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제1부위원장 쓰. 룹싼 (7월 10일)

7월 14일 이라크공화국 명절 열다섯돐과 7월 17일 혁명승리 다섯돐에 즈음하여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 (7월 13일)

뽈스까재생 스물아홉돐에 즈음하여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 뽈스까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헨리크 야브원쓰끼, 뽈스까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뾰뜨르 야로쉐비치 (7월 21일)

애급아랍공화국 국경절인 7월 23일 혁명 스물한돐에 즈음하여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 안와르 앗 사다트 (7월 21일)

아프가니스탄공화국이 선포되고 모함메드 다우드 한이 대통령으로 취임한것과 관련하여 그이게 ▶말디브제도독립 여덟돐에 즈음하여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이브라힘 나시르 (7월 24일)

꾸바인민의 7월 26일 무장봉기 스무돐에 즈음하여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혁명정부총리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 리베리아독립절에 즈음하여 리베리아공화국 대통령 윌리암 리챠드 톨버트 (7월 25일)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로 아리스리데스 뻬레이라가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7월 28일)

니제르독립 열세돐에 즈음하여 니제르공화국 대통령 디오리 아마니 (8월 2일)

상아해안독립 열세돐에 즈음하여 상아해안공화국 대통령 펠릭스 후푸에 브와니 (8월 6일)

싱가포르독립 여덟돐에 즈음하여 싱가포르공화국 대통령 벤쟈민 헨리 새어즈 (8월 7일)

꽁고인민의 민족적명절인 8월혁명승리 열돐에 즈음하여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 루안다공화국 대통령으로 쥬베날 하비알리마나가 새로 취임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8월 12일)

파키스탄독립 스물여섯돐에 즈음하여서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으로 쵸우드리 파잘 엘라히가 새로 취임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조선인민이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8. 15명절 스물여덟돐에 즈음하여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오니드 일리이치 브레쥬네브,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니꼴라이 윅또르위치 뽀드고르느이,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내각 총리 알렉쎄이 니꼴라예비치 꼬씌긴 (8월 14일)

인도네시아공화국 독립선포 스물여덟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수하르또▶ 가봉공화국 독립 열세돐에 즈음하여 가봉공화국 대통령 알베르 베르나르 봉고 (8월 16일)

웰남민주공화국 주석 손덕승 탄생 여든다섯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8월 19일)

로므니아해방 스물아홉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내각총리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8월 22일)

말레이시아 독립 열여섯돐에 즈음하여 말레이시아 총리 뚠아브둘 라자끄 (8월 30일)

까타르독립 두돐에 즈음하여 까타르 국가추장 할리파 빈 하마드 알 타니 ▶리비아혁명 네돐에 즈음하여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 의장 모아메르 엘 가다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으로 모택동동지가 또다시 추대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8월 31일)

웰남민주공화국 창건 스물여덟돐에 즈음하여 웰남민주공화국 주석 손덕승,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정,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총리 범문동 (9월 1일)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9월 3일)

벌가리아에서의 사회주의혁명 스물아홉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집꼬브,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내각총리 쓰딴꼬 또도로브 (9월 8일)

말리공화국선포 열세돐에 즈음하여 말리공화국 국가수반이며 정부총리이며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 무싸뜨라오레▶ 스웨리예왕국 국왕으로 까를구스따프가 즉위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9월 21일)

아르헨띠나공화국 대통령으로 후안 도밍고 뻬론이, 부대통령으로 이싸벨마르띠네스 데 뻬론이 각각 새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예멘아랍공화국 혁명승리 열한돐에 즈음하여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 아브둘라흐만 알 이리야니 (9월 25일)

보쯔와나공화국독립 일곱돐에 즈음하여 보쯔와나공화국 대통령 쎄레쩨카마 ▶까메룬통일의 날 열두돐에 즈음하여 까메룬련합공화국 대통령 엘하지 아호마두 아히죠 ▶나이제리아독립 열세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련방군사 정부수반이며 군총사령관인 야쿠부 고원 (9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모택동,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대리 동필무,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주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 끼쁘로스독립 열세돐에 즈음하여 끼쁘로스공화국 대통령 대주교 마가리오스 (9월 30일)

기네공화국독립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 (10월 1일)

기네—비싸우공화국의 선포와 기네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으로 루이스 까브랄이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10월 3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창건 스물네돐에 즈음하여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윌리 슈토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내각 총리 호르스트 진데르만 (10월 6일)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애급과 수리아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안워르 앗 사다트,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에게 전문 (10월 7일)

우간다독립 열한돐에 즈음하여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이디 아민 다다 (10월 8일)

적도기네공화국독립 다섯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비요고▶ 라오스독립 스물여덟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예

멘에서의 10월 14일 혁명개시 열돐에 즈음하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10월 11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으로 월리 슈토프가 새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10월 13일)

알바니아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엔베르 호쟈의 탄생 예순다섯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10월 15일)

애굽아랍공화국과 수리아아랍공화국 인민들이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아랍나라 지도자들인 혁명리사회 의장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후아리 부메디엔,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 아브둘 라흐만 알 이리야니,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리비아아랍공화국 혁명지도리사회 의장 모아메르 엘 가다피, 쿠웨이트국가 추장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술레이만 프란쥐에, 마로끄왕국 국왕 물라이 하싼 2세, 뜌니지공화국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 하쉐미트요르단왕국 국왕 후쎄인 1세, 사우디아라비아왕국 국왕 파이살 이븐 아브델 아지즈 이븐 싸우드, 아랍추장국련방 대통령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바레인국가 추장 이사 빈 술만 알 할리파, 까타르국가 추장 할리파 빈 하마드 알 타니, 아랍련맹 서기장 마호무드 리야드에게 전문 (10월 18일)

소말리아의 10월 21일 혁명승리 네돐에 즈음하여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10월 20일)

잠비아공화국 독립 아홉돐에 즈음하여 잠비아공화국 대통령 갠네스 다비드 카운다 (10월 23일)

다오메혁명승리 한돐에 즈음하여 다오메공화국 대통령 마티어 께레꾸▶ 이란국경절과 이란제국 황제 모함메드 레자 파흐라비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에게 (10월 25일)

알제리 혁명개시 열아홉돐에 즈음하여 혁명리사회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 후아리 부메디엔 (10월 31일)

시소와트 코사마크 니리라트 왕후가 수십명의 애국적왕족들, 진보적인사들과 함께 적통치지역에서 나와 중국에 무사히 도착한것과 관련하여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11월 5일)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쉰여섯돐에 즈음하여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오니드 일리이치 브레쥬네브,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련맹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니꼴라이 윅또르비치 뽀드고르느이,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내각총리 알렉쎄이 니꼴라예비치 꼬씌긴▶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레이다르 테 라르센이 새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11월 6일)

캄보쟈왕국독립 스무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장이며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총리 펜 누트 (11월 8일)

뻬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호르헤 델 쁘라도가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11월 16일)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제4차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 의장의 명의로 쁠럭불가담국가 수반들에게 전문을 보내여 조선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할것을 권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총리 후아리 부메디엔 (11월 20일)

자이르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자이르공화국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구벤두 와자 방가 (11월 23일)

아랍국가 수뇌자회의가 열린것과 관련하여 이 회의에 (11월 26일)

모리따니회교공화국독립 열세돐에 즈음하여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부룬디혁명 일곱돐에 즈음하여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 (11월 27일)

유고슬라비아인민의 민족적명절인 공화국의 날 서른돐에 즈음하여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이며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알바니아해방 스물아홉돐에 즈음하여 알바니아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엔베르 호쟈,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메흐메트 쉐후 (11월 28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독립 여섯돐에 즈음하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11월 29일)

아랍추장국련방 국경절에 즈음하여 아랍추장국련방 대통령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12월 1일)

핀란드공화국 독립 쉰다섯돐에 즈음하여 핀란드공화국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 핀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아아르네 사아리넨 탄생 60돐에 즈음하여 그에게 (12월 5일)

상부볼따공화국선포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상부볼따공화국 대통령 상구레 라미자나 (12월 9일)

잠비아공화국 대통령으로 갠네스 다비드 카운다가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12월 10일)

케니아독립 열돐에 즈음하여 케니아공화국 대통령 조모 케니아타 (12월 11일)

바레인국경절 두돐에 즈음하여 바레인 국가 추장 이사 빈 술만 알 할리파 (12월 15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 열세돐에 즈음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윈우수 (12월 1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신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의 탄생 여든돐을 축하하여 그에게 (12월 25일)

벨지끄공산당 위원장으로 루이 반 게이트가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그에게 (12월 28일)

수단독립 열여덟돐과 1974년 새해에 즈음하여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꾸바혁명승리 열다섯돐과 1974년 새해를 맞이하여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총리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비요고의 생일 쉰돐과 새해에 즈음하여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비요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세계 각국에서 보내여 온 축전, 축하편지 및 전문

인류의 영재이시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쌓아올리신 빛나는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수많은 혁명적인민들로부터 허물수없는 높은 권위와 위신을 지니시고 계신다.

그러기에 1973년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세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르는 많은 나라의 당과 정부수반들과 그 지도자들을 비롯한 수어만 사람들이 그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정이 차넘치는 축전과, 축하편지, 전문들을 셀수없이 보내여 왔다.

세계 수많은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최대의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은 축전과 편지들을 보내여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으며 수령님께서 6월 23일 연설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5대방침을 내놓으시였을때》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에서 세계 각국국회와 정부들에 편지를 보냈을때 그를 진폭적으로 지지하여 수령님께 전문들을 보내여왔다. 우리 나라가 세계의회동맹과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였을때,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이 유엔총회 제28차 회의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을때도 그를《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또하나의 거대한 승리》로 열렬히 축하하여 그이께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조선로동당창건 스물 여덟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 《반제반미투쟁의 날》등을 비롯한 명절들과 기념일들을 맞이하여서도 수령님께 축전과 축하편지, 전문들을 보내여왔다.

이것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령님을 얼마나 높이 우러르고 흠모해 마지않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얼마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축전과 편지, 전문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세계 피압박인민들을 식민지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세계 민족해방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가장 곧바른 지름길을 밝혀주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반세기에 걸친 혁명투쟁을 통하여 조선을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은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일떠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라는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축전과 편지, 전문들은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천재적군사적전략가이시며 반제반미투쟁의 기수이시라는것과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신 사회주의건설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라는데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신뢰의 정을 담아 강조하였다.

축전과 편지, 전문들에서 세계 수많은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 배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라는것을 표명하였다.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혁명과 건설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아 사회주의가 활짝꽃피는 새 아프리카를 건설하겠다》고 한것은 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프리카 류학생들의 편지에만 담겨진 글이 아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시대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로 알고 심장으로 체득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원칙과 사상에 끝까지 충실하겠다》는 열정적인 글발들은 그대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 그이를 높이 우러러 따르려는 정의로운 투사들의 제국주의를 쓸어버리고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맞기 위한 투쟁의 맹세이다.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확고한 지침으로 받아들이고있는 수많은 나라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고무되여 반제반미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싸우는 나라 혁명적투사들이, 수령님께서 지니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훌륭한 귀감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수천수만의 가지가지의 불멸의 공적들로하여 누를길 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인 수억만의 개별적인사들과 사회단체 및 근로단체 대표들이, 온누리를 비치는 주체의 빛발로 새로운 삶의 길, 투쟁의 길을 찾고 새사회건설의 가장 옳은 지도리론과 방법을 찾은 진보적인민들이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가지고 그이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오직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리론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암담하던 자기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 자기 나라의 혁명가로써만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붉은 국제주의전사로 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다지였다.

축전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은 《조선의 력사에서 새기원을 열어놓았으며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의 파산의 시각을 알리였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하면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에 대하여 높이 찬양하였다. 그들은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는 《조국의 독립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의 해방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력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영광스러운 력사》라고 하면서 그것은 오늘 혁명가들이 따라배워야 할 《힘의 원천》으로, 혁명가들이 끝까지 혁명을 하도록 하는 《고무적인 추동력》으로 되고있다고하였다. 그러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싸우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였고 앞으로의 보다큰 성과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에서 그들은 일치하게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조선인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삼가 축원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전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수령님께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충심으로 바라는 수많은 축전, 축하편지들을 보내여왔다.

축전과 편지들에서는 수령님의 탁월한 혁명리론과 훌륭한 혁명실천경험을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여덟돐에 즈음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여주신때로부터 스물여덟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세계의 여러나라들에서는 수령님께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담은 축전, 축하편지들을 보내여왔다.

축전과 편지들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을《모든 정치적령역에서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세력의 등장》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은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형의 가장 혁명적인 당을 가지게 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로동당은《세계의 방방곡곡에 사는 모든 착취받는 사람들의 앞길을 개척하는 고무적힘의 원천으로》,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상징》으로도 된다고 하였다.

또한 축전과 편지들은 조선로동당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탄생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준엄한 시련을 겪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내외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단련되였다고 강조하면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28년간 조선에서의 모든 기적적인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지도하시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과 수령님의 교시를 혁명과 건설의 지침으로 삼을것이며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고귀한 경험을 모든 힘을 다하여 배워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온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기네공화국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

까나리아섬자결독립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구벨로

노르웨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레이다르 테 라르센

모리따니인민당 총비서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아랍해방전선책임자 대리 아부 알팔라흐

산로메 프린시페 해방운동 총서기 대리 안또니오 삐레스 도스 싼또스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리스떼데스 뻬레이라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내)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위원장 모사데크 아하드 샤흐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성원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

중근동에 있는《김일성동지사상연구위원회》

중근동에 있는《김일성동지로작번역및출판위원회》

아프리카에 살고있는 산로메 프린시페애국자들로 조직된《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부책임자 호아오 데 알바 또르데스

핀란드조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를 대표하여 책임자 라쎄 께스끼넨

핀란드 땀뻬레종합대학《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위원장 까라비따 포히아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투쟁단체대표부 성원들의《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대표하여 바이야르드 데마리아 봐또

스웨리예 스톡홀름 종합대학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위원장 크리스티나 칠란드로

일본선박 《고후꾸마루》 《김일성동지로작애독회》회장 이즈미 시게요시

단마르크 쾨뻰하븐건축대학 계획학부《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책임자 핀 바르노우와 이 대학 발전학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책임자 안네 올레쎈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 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크리스텐 암비와 서기 안데르스 크리스텐센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사회공보비서 디. 지. 실문디카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피터 무에 쉬한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세계각국의 당과 국가 수반들, 사회단체 및 근로단체일군들, 투쟁단체, 연구소조성원들, 각계각층인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축전과 편지들을 보내여왔다.

축전과 편지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식민지동방에 첫 로동자, 농민의 나라,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을 온 누리에 뿌리는 사회주의 새 조선이 찬란히 솟아오르게 된데 대하여, 우리 조국이 독립되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의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희망과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조선인민뿐만아니라 전세계인민들에게 있어서 력사적으로 중요한 경사스럽고 의의깊은 사변이였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적뿌리에 대하여서와 공화국의 창건후 지난 25년간 우리 조국에서의 천지개벽이 일어난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반동세력의 련합세력을 물리치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조선, 100년전에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것이라고 한 제국주의자들에게 본때를 보이며 재더미속에서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를 경탄시키는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일떠선 조선, 의식주에 대하여, 병치료에 대하여, 아들딸들을 공부시킬데 대하여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동지적 협조와 방조의 미풍 등 세인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는 스물다섯해 동안의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위대한 사상과 거대한 노력으로 오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을 자신들도 따를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끝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온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주석 모택동,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대리 동필무,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주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은래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로므니아사회주의 공화국 내각 총리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엘.브레쥬네브,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뽀드고르느이, 쏘련 내각 총리 아.꼬씨긴

웰남민주공화국 주석 손덕승,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 러순,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정, 웰남민주공화국 정부 총리 범문동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장이며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총리 펜 누트

알바니아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 엔베르 호쟈,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메흐메트 쉐후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 뽈쓰까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헨리끄 야브원스끼, 뽈쓰까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뾰뜨르 야로쉐비치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원우수,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주석 황떤 팔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이며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총리 소좌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대통령 박사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루드위끄 스워보다,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정부 총리 루보미르 슈뜨로우갈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 까다르 야노쉬,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손찌빨, 웽그리아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포크 예네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 에리히 호네케르,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대리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내각 총리 윌리 슈토프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이며 몽골인민공화국 내각총리 유쩨덴발, 몽골인민공화국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제 1 부위원장 쓰. 톨싼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

말따국가 총독 안토니 죠세프 마모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이며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인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안워르 앗 사다트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꾸 투레

말리공화국 국가수반이며 정부총리이며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 무싸 뜨라오레대좌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 총비서이며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대좌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호마드 하싼 알 바크르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 친왕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수하르또대장

잠비아공화국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이디 아민 다다장군

싱가포르공화국 대통령 박사 벤쟈민 헨리 섀어즈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후아리 부메디엔

말따국가 총리 도미니크 민토프

아르헨띠나공화국 대통령 후안 도밍고 뻬론 중장

아르헨띠나공화국 부대통령 이사벨 데 뻬론

인도공화국 대통령 브이. 브이. 기리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 대리 아브둘 라벤 아호마드 알 하쟈리

핀란드공화국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이브라힘 나시르

뜌니지공화국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

까메룬련합공화국 대통령 엘하지 아호마두 아히죠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예레레

쿠웨이트국가 추장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

챠드공화국 대통령 엔가르따 똠발바예

말레이시아총리 툰 아브둘 라자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대통령 쵸우드리 파잘엘라히

또고공화국 대통령 에띠엔느 에야데마

다오메공화국 대통령 마티어 께레꾸중좌

이란제국 황제 모함메드 레자 파흐라비

뜌니지공화국 총리 헤디 누이라

자이르공화국 대통령 전국집행리사회 위원장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자 방가대장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뽀르뚜갈공산당 중앙위원회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이며 팔레스티나혁명군 총령사관 야씨르 아라파트

레바논사회진보당 위원장 카말 줌블라트

스웨리예공산주의좌익당 위원장 칼 헨리크 헤르만손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뚜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운동 총서기 마누엘 삔또다꼬스따

핀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아아르네 사아리넨

수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 뷰로 (국내)

국제아랍로조련맹 서기장 아브둘 라띠프 볼테아

팔레스티나해방인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 중앙사령부 중앙집행위원회

라호르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 모사데크 아하드 샤호

파키스탄라호르시법률가협회 서기장 모함마드 아프잘바스

파키스탄신문《모니터》주필 아지즈 베그어

파키스탄주간신문《모쉬르 싸다트》주필 쉐이크 두크람

파키스탄 사이왈지구 주간신문《이슬람 잠후리아》행정주필 무크탈 쉐이크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파키스탄 련대성위원회》

파키스탄《썬》신문사 부주필 아호마드 하싼

파키스탄선박《이크발박스》호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모힘

마드 샤비루
카라치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와 카라치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를 대표하여 문화비서 이스마일 유스프
싱가포르대동유한공사
싱가포르공화국《코스모스》 선박회사 킨링무역상사 사장 란킴현
싱가포르《통판》기계회사 사장과 직원일동
싱가포르《호크》선박회사
싱가포르선박《구드이어》호 선장 켄니데스 알윈씨맨
싱가포르《남기홍》호 선원일동
싱가포르선박《몸라이》호 전체 선원들을 대표하여 사무장 싸아단
《쿠웨이트 타임스》신문사 주필
쿠웨이트국가 국회의원인《알 아이암》잡지 책임주필 아빠스 하비브 무나위르
쿠웨이트《다르 알 라이 알 아암》신문사 책임주필 파헤드 아브둘 아지즈 알 마사이드
인도법률가협회 하리쉬 차드라
인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에스. 에스. 모하파트라
인도《남조선청년학생들과의 련대성위원회》위원장 라빈데 르 한다
인도신문《데일리 싸베라》책임주필 마단모한 꾸바
소말리아선박 《콘피던스》호 선장 석배곤
소말리아선박《마리너 알과》호 선장 피 터제
소말리아《골든 로즈》호 선박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취욱
소말리아선박《반다시야》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중수평
일본선박《〈고후꾸마루〉김일성로작애독회》
일본사회당 사사끼 고조, 아까마쯔 이사무와 아까마쯔 가나꼬
일본전국혁신시장회회장이며 요꼬하마시장인 아스까라 이찌오
일본니이가다시장 와다나베 고따로
일본로동조합평의회 의장 이찌가와 마꼬드
일조무역회 전무리사 아이까와 리이찌로와 상무리사 무라 까미 사다오
일본《미라이샤》사장 니시다니 요시오
일본《유잔가꾸》출판사 사장 나가사까 가즈오
일조협회 회장 와다나베 사테이
일조협회 사이다마현련합회
일조협회 니이가다현 련합회와 니이가다현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
일조우호촉진 나가노시의회의원련맹 회장 기다자와 마사시와 사무국장 하기와 라 마사하루
일본사회당소속 참의원 사사끼 시즈꼬
도꼬도 지사 미노배 노기찌
일본사회당 오사까부본부 부안대책부장 모리히사꼬
일본교직원조합 중앙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마끼에다 모도후미
일본 우에다시장 고야마 이찌헤이
일본 이다바시구로동조합련합회 의장 스즈끼 도시로
《요미우리신붕》사 대표 취체역겸사장 우다이 미쯔오
일본선박 《제1야마히사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당게다까시
일조선박《에이와마루》선장 마스까와 하루오
일본선박《에이요마루》선장 가와가미시로
일본야마구찌현 로동조합 평의회
일본선박《에이요마루》선장 가와가미시로
일조우호촉진 시모노세끼시의회의원련맹 회장 다나까시게또시
일조우호촉진시마네현의회의원련맹 사무국장 오다니 히사미쯔
일조우호촉진시마네현 히라다시의회의원련맹
미야기현 일조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
일조국교정상화 국민회의
일본오사까부인회
일본사회당 시미네현본부
일본선박《제1유세이마루》선장 후지야마 마사하루
일본선박《교세이마루》선장 마쯔모도 간이찌
일본고난무역 주식회사 사장 모리요시미
일본헤이안 무역주식회사 사장대리 나까노 히로히꼬
일본선박《보소마루》선장 아까이 하시오
일본선박《제18도 호마루》선장 미우라 스미오
일본선박《제8다이세이마루》 선장 하다야스미
일본선박《가이 류마루》선장 다히라 쥬이찌
일본선박《도꼬마루》선장 하마찌지로
《쥬니찌신붕》도꼬본사편집국장 호따 이찌로와 외보부장 이즈다 유다까
일본선박《이마하꾸마루》선장 후지와라 구마기찌
일본《무니가다마루》선장 후지다 다쯔오,《헤이 요마루》선장 아만지시찌로,《쇼또마루》선장 스즈끼 마사오,《제15고에이마루》선장 사또 가쯔야,《제22고에이마루》선장 와다나베 히로시,《제20와끼시오마루》선장 사사야 이시미찌
일본선박《시쯔끼마루》선원일동
일본도까이선박회사소속 《도까이고》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하마구찌 가즈오
일본《제15지요마루》 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스도 도미오
도꾜에서 진행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다섯돐기념 김일성주석저작연구전국집회》참가자일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일본전국학생현대조선연구교류집회 참가자일동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국제학생동맹위원장 두산 울차크
말리공화국 최고재판소 총검사 알리우멤
말리공화국 비달라부구고등전문학교 교장 비라마뜨 꿀라
말리조선친선협회위원장 싸무 뚜레
말리공화국 적십자중앙위원회위원장 아싼느 쎄이
말리도자기공장 종업원일동
이라크로동조합총련맹 철도 및 항공로조위원장 무함마드 앗달리미
수리아아랍지역아랍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아브달라 알아호마드
수리아아랍공화국 주간지《알사카파 돌우쑤부아이에》주필 마르히드 아까쉬
모리따니인민당청년 최고리사회 위원장 바 아브둘
모리따니근로자동맹 총서기 쉐이크 말라인느 로베르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위원장 바 알라싼느 쌀림 루바이아 알리
아르헨띠나공화국 사회복리부장 개인서기 까를로스 알레한드로 빌로네
네팔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마니크랄 쉬레스타, 서기장 비슈누순데르 프라단
네팔민족 판차야트위원 랄머 뜨찬드
네팔로동자협회 위원장 비. 피. 구뻐따
네팔로조대회 전서기장 꿀라즈 싸기야
네팔농민단체 중앙위원회 위원장 까쉬라도 우빠디야와 비서 까일라쉬 꾸마르 하말
네팔일간신문 《코미너》 주필 고팔다스 스레스타
네팔교수 만주라뜨나 싸기야
네팔주간신문 《아세아목소리》주필 글리스나 쁘라싸드 싸와꼬뜨
네팔주간지 《마뜨리푸미》주필 고빈다 디요기

네팔주간지 《짜리차》 주필 엔비너이 우빠니

시에라레온 부대통령 겸 총리대리이며 전인민대회당 총비서인 시에라레온조선친선협회 전국위원장 씨. 에이. 카마라 테일러

시에라레온 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울루마마호

압제리조선친선 라뚜라우이 알리 옛뚜사협동농장원일동

오지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추진협회 위원장인 교수 박사 헤이 베르트 슈라인네르

오지리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이르마쉬와게르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에베르트 쿰과 서기장 카렌 룬드베르그

스웨리예좌익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에바탈매

스웨리예 스톡홀름종합대학《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책임자 크리스티나 칠란드르

희랍선박《아리엘》호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알렉싼드로스 찌로 조구로우

희랍선박《아르한 겔로스 미하일》호 선장 짜꼬스 파나기오 리스

희랍선박《그레시안 발 라우어》호 선장 겐나디오스 바씰리오스

희랍선박《게오르게따》호 선장 모니 오우까스 안또니오스

핀란드조선협회 뚜루꾸지부 위원장 안나리사요끼넨과 부위원장 헬며 라이넨

핀란드 땀뻬레시 시난며예출판사 로동자, 사무원일동

핀란드인민민주련맹 위원장 엘레 알레뉴스와 총서기 아이모사아파엔

핀란드 조선협회《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책임자 라쎄 게쓰끼넨

핀란드 조선협회위원장 서리애 우노 깔레르브와 서기장 크리스티나 노르드 그렌라

레바논공화국 국회의원 푸아드 라히니

레바논《두스트루》잡지사 사장 알리 발루르

레바논평화운동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사 하쉼 후쎄이니

레바논《김일성동지로작번역 및 출판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하미드 나쎄르

레바논기계체조련맹 위원장 오마르 칸드로

칠레사회당 총비서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오레고

튜니지공화국 총리 헤디 누이라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 위원장대리 아브둘라멘 아호마드 알 하쟈리

다오메공화국 대통령 마리이 께레꾸

제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위한 다오메동맹 위원장 베르나르드 꼬도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데르에귤 마우세스, 부위원장 딜레 켈스트르엠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위원장 교수 트루그베 게스톨란드, 서기장 게오르그 로세프

끼쁘로스선박《프로로마쵸스》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스떼르 구이오스 나노스

끼쁘로스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 바쏘스 리싸리 데스

끼쁘로스선박《미모샤》호 선장 코우노우파스 스테파노스

꾸바에 있는 아이며공산주의통일당 소조 대표 호아낀 헤안 베엘레

꾸바에 있는 콜롬비아상주인동맹

아자니아범아프리카대회 대리위원장 비. 엘. 탄타라

《아호마드》국제출판사 싸이드 라우드 아호마드 안와르

아프리카에 있는《김일성동지사상연구위원회》 성원일동

아프리카에 있는《김일성주석혁명력사연구소조》 성원일동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리스티데스 뻬레이라

국제기자동맹 서기장 이쥐 꾸브까

아갑해방전선

뻬루민족해방전선 위원장 안헬 까스뜨로 라바레요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안헬 까스뜨로 라바레요

우루과이조선문화협회와《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루과이운동》

구라파에 있는 아프리카류학생《김일성동지혁명활동력사및로작연구소조》

중근동에 있는《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로동자위원회》성원일동

중근동에 있는《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일동

애급아랍공화국 평화민족리사회 총서기 할리드 모헷딘

콜롬비아평화리사회 위원장 후아낀 몰라노 깜뿌싸노

라틴아메리카농업근로자 및 농민기구조직리사회

룩셈부르그《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연구소조》책임자 요르 페슈밀트

《아프리끄 아지아》잡지사 총사장 씨몽 말레이

모리따니에 있는 빨레스티나혁명가들의《김일성동지사상연구위원회》 성원일동

동남아세아에 있는《김일성동지로작연구청년소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모리따니수도 누악쇼뜨에서 조직진행된 행사 참가자일동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바 알라싼느

아자니아범아프리카대회 대리위원장 비. 엘. 탄타라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비서 모세스 엠. 가로에브

단마르크사회민주청년동맹 위원장 니엘스 에에볼드쎈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텐 암비

단마르크전국학생동맹 부위원장 쉘끼 마링

국제상업일군직업련맹 서기 니꼬메데스 안따네스

아세아아프리카주택지구 서기장 아브델 하미드엘 잔팔리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한돐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1973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한돐과 2월 8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이날을 맞이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조선인민혁명군과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보내여왔다.

축전과 편지들에서는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자주적으로 조국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 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그를 령도하시여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이룩하신데 대하여서와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1948년 2월 8일 창건된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자랑찬 25년의 력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모든 승리와 성과의 마련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전략과 령도

예술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머지않은 앞날에 조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온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한돐에 즈음하여

민주예멘 군인 및 붉은별학교학생들의 집회 참가자일동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국방담당국무비서 준장 모하메드 알리 사마테르

소말리아선박《아르고씨》호의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쿼웨이구

소말리아선박《페이타》호의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에이. 엘. 맥크레오드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바 알라싼느

예멘군 총사령관 모함메드 아브둘라 호 알 이리아니

콩고민족인민군사령부소속 부대장병들을 대표하여 부대혁명위원회 위원장 모리스 디나르드 비꾸와

단마르크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텐 암비

알제리조선친선 라투라우이 알리 엣투사 협동농장 관리위원장과 전체 농장원일동

아덴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성원들의《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

팔레스티나해방인민민주주의전선 《김일성동지의 로작 및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위원회》위원장 아부알 하캄

일본 동방륜선주식회사소속《고레이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요꼬미 에이지

일본선박《다이니찌마루》 선원일동을 대표하여 구지 미네하루

일본 유한회사 이마하꾸기선 소속선박《이마하꾸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후지와다 구마기찌

일본도꾜무역주식회사 사장대리 데시마 시즈오와

일본선박《도꾜마루》선원대표 선장 나까하라 고이찌

끼쁘로스선박《엘씨나》호의 모든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콘스타스 아부구스리스

끼쁘로스선박 《아브라델포스》호의 모든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엠. 크싸 가리스

끼쁘로스선박《아르히게리스》호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게오르기오스 스페찌오리스

희랍선박《아기오스 스피리돈》호 선원들과 항해사들을 대표하여 선장 라이씨스 꼬스딴찌노스, 기관장 아리스타도우 아르기리오스, 1등항해사 마끄리스 이리스티티스

희랍선박《스팔라뜨리 캠톤》호 선장 레온드라스 스카르다씨스

희랍선박 《아리스토크라티스》호의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알렉싼드리스 찌미뜨리에쓰

뿌에르또리꼬사회당 총비서 후안 마리 브라스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쌀바도르인민혁명군 전국지도부성원인 대위 쎄바스띠안 무르끼아

쌀바도르인민혁명군 아바나상주대표 로게 달똔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 투쟁단체 대표부성원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알제리주재 앙골라인민해방운동 대표 빅또르 깐부따

아덴에 있는 팔레스티나 해방인민전선 성원들의《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총비서 조드류 하바쉬

꾸바상주 꼴롬비아공청대표 쎄군도 에르메스 벨라스께스

꾸바상주 꼴롬비아인동맹 위원장 하이메 알따마르

꾸바《보친보도서관》관장 에두아르도 오도노싸

꾸바《천리마》조선소 지배인 베르나르드 에르난데스, 당비서 레네 디아스 루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교류촉진 아르헨띠나위원회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안혤까쓰뜨로 바레요, 서기장 헤나르 까르네르 체까

베네수엘라혁명가 엘리아스 마누이뜨 까메로

메히꼬혁명가 플로렌띠노 하이메 에르난데스,라파엘 울레아까 스따네이라

라호르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모함마드 아슬람 나기

페샤와드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싸이르 유사샤프알리 샤흐

아덴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집회 참가자일동

예멘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 아브둘라자크샤프 샤헤르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모리따니인민당 전국정치국 위원 바 알바싼느

모리따니회교공화국 국방부장 씨디 모함메드 디아가나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 바 아브둘

이라크로동조합총동맹 위원장 모함매드 아이쉬

핀란드조선협회 중앙위원회 서기장 크리스티나 노로스 그렌라

핀란드조선협회 뚜르꾸지부위원장인 국회의원 안나—리사 요끼넨, 부위원장 펜떠 라이엘

이딸리아조선협회안또니오 코아지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카렌 룬드 베르그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크리스텐 암비, 서기장 토르스텐 디네스

피렌하븐건축대학 계획학부《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책임자 펀 바르노우

피렌하븐건축대학 발전학부《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책임자 안네 울리쎈

피렌하븐건축대학 정치과학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책임자 브티 안네떼

우루과이조선문화협회 서기장 오스까르 까브레라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팔레스티나류학생일동

일본선박 《에이요마루》성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야에가시 우스께

일본선박《유신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스기모도 시게아끼

도꾜무역주식회사대표 취체역 다까에 가즈오

일본선박 《도꾜마루》선장 하마찌지로

일본선박 《고세이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마쯔모노 간이찌

일본헤이안 무역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사장 이노우에리소지

일본고난무역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사장 모리요시미

일본《미라이샤》사장 니시다니 요시오

일본《미라이샤》사원일동

끼쁘로스아세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위원장 바쏘스리싸리 데스

라호르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 무샤히드 후쎄인 싸이드

《제3세계와의 파키스탄청년련대성위원회》

라왈핀디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 무주타바 후쎄인

리얄프르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미안 모함마드 이크발

까라치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유니스 리즈비

룩셈부르그《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연구소조》책임자 사를 도에르네르

아프리카에 있는《김일성주석혁명력사연구소조》성원일동

라틴아메리카에 있는《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구라파에 있는 아프리카류학생《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 및 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 류학생들의《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구라파에서 공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및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동남아세아에 있는《김일성동지로작출판인쇄소》성원일동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까룰로스모랄레스 아바르수아, 서기장 다르마멜로 및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 위원장 훌리오 베니떼스 까쓰떨요

알제리조선친선바뜨터스무뭄바렐사아동학원 교직원일동

알제리조선친선라뜨라우이 알리 엣투사 협동농장 전체성원일동

꽁고민족인민군 사령부 보병부대 장병일동

꽁고제인민간의친선협회 위원장 비떨 발라

네팔주간신문 《아르판》주필 교수 만주라트나 싸기야

까히라에 있는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단체들의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까히라주재 아자니아범아프리카대회대표 빅또르엘 아예키쏘

영국인민조선친선협회 전국조직자 그란빌 브이. 스터운

조선인민과의 문화친선 및 련대성다오메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빠도누장 마리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소말리아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 기념 브라자빌 주재 앙골라인민해방운동 투사들과 지도자들의 집회참가자일동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가진 구라파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이제리아 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5대방침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으로 국토가 갈라지게 된 첫날부터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천명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3년 6월 23 연설에서 자주적평화통일의 5대방침을 새로이 천명하시였다.

수령님의 자주적평화통일의 5대방침에 접한 세계각국의 수많은 나라 당과 정부 지도자들, 사회단체일군들 각계각층진보적인사들은《가장 정당하고 완성된 조국통일 강령》, 《합리적인 현명한 방안》이라고 열렬히 지지하면서 수령님께 전문과 편지들을 보내여왔다.

전문과 편지들에서는 《5대강령은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전세계인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명한 방안》, 《현시대의 리념을 대표하시고 주체의 빛발로 세계를 비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만이 내놓을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침》, 《전쟁과 민족적분렬을 추구하는 반동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고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나 다 접수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강령》이라고 하면서 이에 전폭적이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또한 편지와 전문들에서는 5대강령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애국적인방안》이며《세계인민들의 념원에도 맞는 평화애호적인 발기》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전문과 편지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면서 이 공명정대한 강령을 거부하고《두개조선》을 조작하려고 책동하면서 매국, 분렬, 《반공》을 일삼는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세계진보적인민들과 조선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될것이며 력사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인민의 앞길에 빛나는 승리가 있을것을 충심으로부터 축원하였다.

편지, 전문을 보내여온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까나리아섬자결독립운동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투쟁단체대표부성원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대표하여 책임자 바야르드, 메마리아 봐또

쿠웨이트국가 국회의원인 《알 아이암》잡지 책임주필 아빠스 하비브 무나위르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자총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마히더 아브둘라싸이드

예멘학생전국총동맹 집행위원회

칠레기독교좌익조직정치국을 대표하여 총비서 보스꼬 빠라, 부총비서 후안 미겔, 집행비서 셀비아 알바레스

칠레 북부종합대학 대표 우고 모레노 빼랄따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소장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지도위원회

아세아아프리카주택지구 서기장 기사 아브델 하마드 엘 잔괄리

짐바브웨 아프리카인민동맹 혁명리사회 위원장겸 재정비서 자손 모요

파키스탄 《라미르》신문사 사장 나쉼 휴마윤

파키스탄《후리야트》신문사 기자 아쉬라프 하쉬미

파키스탄 《마싸와르》신문사업무부장 이나뚤라 후까지

파키스탄 물탄 팔태방직공장 구락부 주임 마흐프즈 꾸르브

파키스탄 전국학생련맹 물탄지구 위원장 미나아 브드르 라쉬드, 서기장 나씨르 아바쓰

파키스탄회교연구소 박사 멜레브에치할리드

물탄지구 파키스탄농조위원회 위원장 말쿠 아다울라

파키스탄 전국학생련맹 리얄프르지구 서기장 샤바르 후쎄인

파키스탄판잡주 공업발전상사 종업원련맹 위원장 모함마드 니싸르

파키스탄《데일리 싸야싸트》신문사 주필 아싸르 챠우 한

파키스탄《싼》신문사 부주필 아흐마드 하싼

파키스탄《데일리와탄》신문사 주필 마크불 카슈미리

파키스탄《씨하브》신문사 주필 글자르 아화키

파키스탄신문《뉴타임스》주필 자미룰 라흐만

물탄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모함마드 아쉬라프한, 서기장 테르베즈 아브드바보, 위원 까스와이르 까즈더지, 위원 모함마드 아프 잘 한
관잡학생동맹, 파키스탄사상가학술회, 라왈핀디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파키스탄 페와드종합대학 인민대학생 련맹위원장 아미르 모함 마드칸
인도공산당 (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피 순다라야
일본어선 《제25사누끼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다끼 시즈오
일본선박 《제1유세이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후지야마 마사지
일본선박 《제18도호마루》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미우라 스미오
일본선박《교세이마루》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마쯔모도 간이찌
일본선박《고후꾸마루》의 《김일성주석로작애독회》회원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이즈미 시게요시
일본선박《헤이요마루》선장 아만지 시며로
일본선박《에이요마루》선장 가와가미시로
일본선박《미야자끼마루》선장 고시드시오
일본선박《미하루 마루》선장 나가히사 마마도
일본선박《나아모로》호 선장 고미야 겐따로
일본선박《고후꾸마루》 《김일성주석로작애독회》회원들을 대표하여 회장 이즈미 시게요시
일본 니이가다시장 와다나베 고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기념 김일성주석 저작연구 도꾜집회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친왕
라오스애국청년대표단 단장 쿤 샹뎅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텐 암비, 서기장 토르스 텐 디에쎈
레바논 사회진보당 대외사업부 부장 싸이드 알구스, 부부장 만쑤르 쟈비르
탄자니아주재 앙골라인민해방운동대표부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잔지바르아프로쉬라지 청년동맹조직비서 에이, 에쓰 나테페
이라크농민조합총동맹 위원장 후쎄인 좌바르
이라크 쿠르드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오스만 디제이
이라크공화국 평화 및 련대성 민족리사회 총비서 아지즈 샤리프
이라크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력사연구소조》
이라크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박사 싸아둔 할리파티크리티
노르웨이대학생협회 위원장 요르겐 군네루드
희랍선박《마르코스 엠. 에프》호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마까리오스 쌀리아리스
희랍선박《마르티더오리싸》호 선장 멜레코스 안드레아스
희랍선박《마르코숌프》호 선장 게오르기오스 스티로스
희랍선박 《아르한겔로스 미하일》 선장 짜꼬스 빠나기오티스
우리 나라 의료일군들에 의하여 병을 고친 희랍선박《팔미라》호 기관장 지아노울리스 의미트리오스
말리조선친선협회와 말리아세아 아프리카단결위원회가 조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 5대 강령과 그 실현을 위한 형제적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참가자일동
중국선박 《동산》호 선장 장추류
끼쁘로스선박《아에티》호 선장 오르파노스 니꼴라오스
세계민주청년동맹 위원장 로베르또 비찌
꾸바에 있는 미국인련맹
라틴아메리카에 있는《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라틴아메리카 농업근로자, 농민 및 토착인조직조절 위원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월간에 조직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평화통일의 5대강령을 지지하는 모리따니 8지구 소재지 누아디부시 군중 집회 참가자 일동
모리따니근로자동맹 총서기 쉐이크 말라인느 로베르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 바아브들
영국청년동맹 리사회 총비서 로버트 아노트
룩셈부르그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 후쓰 제안
룩셈부르그공산주의청년동맹 부위원장 제논 베르나르드
벨지끄공청 전국비서 뿔반덴 아벨
화란청년학생대표단 단장 로브 베르누이
오스트랄리아청년학생대표단 단장 브리온 맥클라취
토이기청년학생대표단 단장 제만 일마즈
카나다청년학생대표단 단장 프레드 웨이프
수리아혁명청년동맹 중앙위원이며 전국학생동맹 위원장 알라띤 후쎄인
프랑스공산주의청년운동비서 삐에르 바르
네팔청년학생대표단 부단장 므크티 나라얀 프라단
미국청년로동자해방동맹중앙위원회 위원 파울씨 미쉴러
남아프리카 민족대회당 청년학생서기국성원 모크헬레 케이, 말리에
꼴롬비아공청지도부성원 싸비에르 엘퍼키르 떼스
메히꼬종합대학공청지도부성원 라니온 쎄사 몬떼스
아프리카에 살고있는 산토메 프린시페 애국자들로 조직된《김일성동지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 일동을 대표하여 책임자 안또니오 삐레스 도스 싼도스
아프리카에 있는《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아프리카에 있는《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책임자 박사 에스 쿠르편
중근동에 있는《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로동자위원회》.
동남아세아에 있는《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성원일동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포트 루이스시 참의회 의원인 엘, 찬드라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과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과《반제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기념집회, 조선인민과의 련대성모임 등을 가지고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 축하편지, 축전들을 보내여왔다.

축전과 편지들에서는 우선《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김일성동지께서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라는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수령님의 《천재적인 령도》와《주체리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이 달성한 력사적승리는《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을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위대한 승리는 미제국주의가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정책에 매여달리고있는 오늘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세계혁명적인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는것으로 하여 보다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축전과 편지, 전문들은 죄악에 찬 침략의 력사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아직도 뻔뻔스럽게《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는 미군은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여온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캄보쟈국가 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웰남민주공화국 주석 손덕승,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레순, 웰남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징, 웰남민주공화국 정부 총리 범문동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살림 루바이아 알리

예멘아랍공화국 공화리사회위원장 아브들 라호만 알 이리야니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 위원장 엘바에르 난데스

다오메공화국 대통령 마티어 께레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련대성 다오메위원회 위원장 빠도누 쟝마리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

이라크공화국 대통령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기념 군중집회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이라크 로동조합총련맹 철도 및 항공로조위원장 무함마드 앗달리미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 소좌

일조국교정상화 국민회의 준비회

일조문화교류협회

일본선박《고후꾸마루》선장 이즈미사개요시

일본선박《도까이》호 선장 하마구찌 기즈마사

일본선박《도요마루》선장 야다도시보

일본선박 《도요꾸니마루》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하야찌 지로

일본선박 《제18다이요마루》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이마세 모기찌

팔레스티나 작가 및 기자동맹 총서기 나리 알루취

팔레스티나해방조직집행위원회 위원장이며 팔레스티나혁명군 총사령관인 야씨르 아라파트

모리따니에 있는 팔레스티나혁명가들의《김일성사상연구위원회》

파키스탄에서 공부하고있는 팔레스티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칠레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칠레북부종합대학 대표 우고 모레노 헤랄따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 위원장 훌리오 베니떼스

칠레조선문화친선협회 서기장 겸 아세아아프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칠레위원회 위원장 마르따 멘르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까를로스 모랄레스 아바르수아

칠레 동상사 판매사장 마리아 이싸벨 까므쓰

칠레국영금속기계무역상사 총사장 짐쓰 윌리암손

칠레 《그라피끄》출판사를 대표하여 사장 조세 문요스비다르

칠레사회주의청년동맹 총비서 까를로스 모르까 또바르, 국제관계비서 자비에르 바즈가스 빼레이라

기네공화국 대통령 아흐메드 세쿠 투레

이딸리아조선친선협회 집행부

이딸리아 오락및문화협회 위원장 아리고 오란디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에베르르굼, 서기장 카렌 룬드베르그

파키스탄 라호르시 법률가협회

파키스탄 농조위원회 위원장 초우드리 화떼흐 모함마드

리얄프르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성원들을 대표하여 위원장 미안 모함마드 이크발, 련합비서 초두리 리싸흐 알리

파키스탄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파키스탄 무자파르 가흐랄 황마공장로조동맹

구라파에 있는 아프리카직맹일군들과 대학생들의《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를 대표하여 소조책임자 까시엔 하지 그바기리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혁명활동력사 및 로작연구소조》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 및 로작연구소조》성원일동

까히라에 있는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단체들의《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소조》책임자 빅또르엘 마예끼소

레바논《김일성동지 로작번역 및 출판위원회》위원장 아브둘 하미드 나째르

레바논《두스투르》잡지사 사장 겸 주필 알리 발루르르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위원장이며 레바논국회의원인 사회진보당 부위원장 파리드 저브란

동남아세아에 있는《김일성동지 로작번역위원회》

아프리카에 있는《김일성동지주체사상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버마조선친선협회》 만다레이지부 위원장 떠킨예초와 서기장 우쏘 루잉

룩셈부르그《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연구소조》

핀란드 땀뻬레종합대학《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위원장 까리 비따 포히아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시리애 우우노 깐떼르보와 부위원장 라쎄 깨스끼렌 및 서기장 큰리스티나 노르드그랜나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며 포트 루이스시 참의회 의원 엘.챤드라문

인도《남조선청년학생들과의 련대성위원회》위원장이며 인도《조선통일》지 주필 라빈 데르 한라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 스무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뉴델리군중집회 참가자일동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기념 인도 봄베이군중집회 참가자일동

인도 《세계협조및문화관계련맹》 에쓰 에쓰라회

소말리아선박《골드로즈》호 선장 충박통

소말리아 선박《반다시》호 1등 항해사 휘춘히

소말리아선박《디자이너》호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룩 심

소말리아선박 《에게안씨》호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윙 카이차우

우루과이 조선문화협회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루과이 운동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바 알라싼느

희랍선박《비너우스》호 선장 아르벨라리스 게라시모스

희랍선박 《피닉스》호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파피리스 마르코스

끼쁘로스선박 《깜빠니아 오디기트리아》호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마르코스 프란고스

끼쁘로스선박 《마르가레트에이취》호 선장 도간찌스 와실리오스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말라이청년일동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잔지바르 아프로쉬라지청년동맹 조직비서 에이. 에쓰. 나헤페

아랍해방전선

남부웰남공화 지도자들인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주석 휭 떤 팔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 안워르 앗사다르

모리따니인민당 전국정치국성원이며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바 알라싼느

이라크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전선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력사연구소조》

카라치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엠. 이브라힘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위원장인 니콜라에 챠우쉐쓰꾸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팔레스티나 련대성위원회》서기장 아부 바싼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리스티데 뻬레이라

이라크로동조합총련맹 위원장 모함마드 아이쉬

파키스탄 로동조합련맹을 대표하여 서기장 바쉬르 아호마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파키스탄 련대성위원회》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쟝 슈레까날, 총서기 크레스티안 좌노

팔레스티나 혁명정치위원회

아랍법률가동맹 서기장 대리 이민 쉬브리

산토메 프린시페애국자들로 조직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일동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텐 암비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 바하두르 칸사카르

조선에 대한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르웨이사회계련대성집회 참가자 일동

수리아아랍지역 아랍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아브달라 알 아호마드

수리아아랍공화국 인민군사령부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군중집회 참가자 일동

희랍선박 《스필리아다》호 항해사들과 선원들을 대표하여 선장 젬피리스 리아스

소말리아최고혁명리사회직속 공공관계사무소가 조직한 모가디쇼시군중집회 참가자 일동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텐 암비

아프리카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까히라에 있는 팔레스티나의사들의 《김일성동지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아브델 말리크

모리따니인민당 정치국성원이며 모리따니인민당 청년최고리사회 위원장 바 아브둘

칠레독립인민행동청년동맹 총비서대리 프란씨스꼬 써클베나와 이 동맹 정치비서 뻬뜨리씨오 까쎄레쓰

칠레좌익기독교운동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기념 인도찬디가르시군중집회 참가자 일동을 대표하여 인도북부지구 인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하르바그완 싱

《조선에 대한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한 월간》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핀란드 헤멘린나시군중집회 참가자 일동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을 맞이하여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디마스끄군중집회 참가자 일동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핀란드 꾸오삐오시군중집회 참가자 일동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꽁고제인민간의 친선협회 부위원장 앙리 에밀 몬조

《조선의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칠레사회주의청년동맹이 조직한 군중집회 참가자 일동, 칠레사회주의청년동맹 총비서 까를로스 로르까 뜨마르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알제리조선친선라뜨라우이 알리 엣투사협동농장 성원 일동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뉴악쇼뜨시군중집회 참가자 일동

알제리종합대학 교원 세리크출립 조세트쿨립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진행된 따르부스도군중집회 참가자 일동

우리 나라가 국제의회동맹과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한것을 축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구현하고 날로 륭성발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허물수 없는 국제적권위와 위신을 남김없이 온 천하에 다시한번 과시한 우리 나라의 국제의회동맹과 세계보건기구의 가입과 관련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수령님께 열렬한 축하를 올리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을 따라 발전하고 있는 조선이 국제의회동맹과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한것은 《조선의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조선의 국제무대에로의 진출을 가로막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여온 미제를 비롯한 국제반동세력의 비참한 참패》를 보여준다고 축전들은 강조하였다.

또한 어제까지만 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인을 거부하던 자본주의나라들도 련이어 조선을 승인하고 공식관계를 맺고있는 오늘에 있어서 조선의 세계보건기구의 가입은 《조선의 국제무대에로의 당당한 등장》과 보다 큰 《활약》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축전들을 보내온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사무국장 안따꾸 쯔네히꼬

일본사회당 도꾜도본부 위원장 우나베 히데오

일조우호촉진 도꾜도의회 의원련맹 회장 시마다 시게마사

일조협회 니이가다현 련합회

일본 오쯔시 시장 야마다 고자브로

일본 가나가와현 지방로동조합 평의회 의장 가쯔이 쇼세이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일본전국혁신시장회 회장

일본 훗까이도의회 부의장 오까다 요시오

일조우호촉진 훗까이도의회의원련맹 회장 미야마 가즈구니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일본 군마현 조선문제연구회

일본 오이다현 로동조합평의회

일본 니이가다현 로동조합평의회

일본 후꾸오까현 다가와시 시장 사까다쯔구오

《출입국법안》을 반대하는 도꾜도민집회

일본 히다까상사

일본 나가사끼현지사 구보 강이찌

일본 요꼬스까시 시장 나가노 마사요시

일본 요꼬스까시의회 의장 이시까와 도주지로

일조협회 요꼬스까지부 리사장 혼다 스찌로

일본 니이가다시장 와다나베 고따로

이라크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인 박사 싸아둔 할리파리크리티

콩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챈 압비

《출입국법안》을 반대하는 도꾜도민집회를 대표하여 아오야마 요시며찌

일본 히다까상사

일본 오사까 후꾸시마구 간데인병원 가다무라 에이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이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둔것과 관련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따라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계속하며 미제의 어용기구이며 내정간섭의 도구였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합의가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문과 편지들을 보내여왔다.

전문과 편지들은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제28차 유엔총회 결정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전문과 편지들은 미군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남아있을 아무런 구실도 없다고 지적하고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벗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하였다.

전문, 편지를 보내온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아리스 떼데스 뻬레이라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루이스 까브랄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 모사데크 아하드 샤흐

파키스탄 《뉴 타임스》 행정주필 자파르 로디

라왈핀디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 위원장 무루타빈 후쎄인

라왈핀디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에이 타힐

레바논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번역및출판위원회》 위원장 아브돌 하미드 나쎄르

레바논 《무스루르》잡지사 사장 알리 발루르

레바논의 낫쟈르당 총서기 이브라힘 샴마스

레바논에 있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파리드 져브란

중근동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사상연구위원회》

《중근동 및 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

네팔조선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출판편집부》 주필 마니크랄 쉬레스타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프렘 바하두르 칸사카르

네팔주간지 《아르판》 주필인 교수 만주라트나 싸기야

네팔일간신문 《코머너》주필 고팔 다스 스레스타

스웨리예평화옹호위원장 스텔란 아르비드손과 서기장 페루 에릭손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예베르트 큄과 서기장 카렌 룬드베르그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교수 로루 그베게스톨한드, 서기장 게오르그 로세프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 부위원장 존 존 펠레켄스트룸, 서기장 카를 지구드룬드센

비하르주인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나링쉬 아이라와 운영위원장 산딜야 및 서기장 라쉬드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총서기 너머르 나트 비더아럼 까르, 서기 옴프 라카쉬 만트리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잠비아주재 대표단인 앙골라인민해방운동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의 존 하이론다

일본선박 《제2가이꼬마루》 선원일동을 대표하여 선장 우오스무 가쯔네

일본선박 다이도붓산주식회사 사장 야마모도 마시오

일본선박 다이도붓산주식회사 용선단

일본선박 《제2기비마루》 선장 마오다 다미야

일본선박 《제7다이도꾸마루》선장 가와이 소고

일본선박 《제51다이에이마루》선장 미사끼 온지

일본선박 《제73찌도리마루》 선장 나리자와 요네오, 사무장 나가다 신지

일본선박 《제27와까시오마루》, 《제15고에이마루》, 《헤이요마루》의 선원들과 《고후꾸마루》의 《김일성동지로작애독회》 회원들

민주예멘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라자크샤프 샤헤르

× ×

이외에도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 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및로작연구소조》성원들, 말리의 철학가들, 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프리카 류학생들, 일본 도꾜에서 진행한《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연구로론모임》참가자들, 《중근동및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 수많은 연구소조들과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와 주체사상연구토론회 등을 가지고 수령님께 편지 및 전문들을 보내여왔으며 파키스탄선박 《예크발바크쉬》호와 희랍선박 《루씨》호를 비롯한 우리 나라 항구들에 머무르는 많은 외국선박들의 항해사들과 선원들은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께 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쥡꼬브, 체스꼬슬로벤쓰꼬사회주의공화국 정부총리 루보미르 슈트로우갈,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일본사회당 부위원장 아까마쯔 이사무, 일조체육교류촉진련맹대표단, 아르헨띠나의 뻬론장군의 부인이며 전국정의운동 부위원장인 이싸벨 마르띠네스 데

빼론,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대통령부인 마리엠 다다흐, 일본사회당대표단 단장 사사게 고조, 에꽈도르공산당 총비서 뻬드르 안또니오 싸아드, 우루파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인 로드네이 아리스멘디 등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수많은 대표단들과 사회활동가들, 사고로 인하여 사경에 처했다가 우리 나라에서 치료를 받고 소생한 희랍선박《켄타 보르즈》호 갑판원 콜메자끄스 와실리오스와 홍남항에 머무르는 기간 우리 나라 보건일군들의 정성어린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소말리아선박《코랍씨》호 갑판원 항옥산 등으로부터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과 흠모의 정 차고 넘치는 감사전문을 보내여왔다.

남북공동성명발표 한돐, 조국광복회창건 서른일곱돐, 보천보전투승리 서른여섯돐,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결성열여덟돐 등 각종 기념일들과 의의깊은 날에 많은 나라 각계각층의 여러 인사들로부터 수령님께 축전과 축하편지, 전문들을 보내여왔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가고있다

1973년 국제정세

1973년에 전세계는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흠모하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갔다.

이 장엄한 환경속에서 세계혁명적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이 거세찬 격랑앞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멸망과정은 더욱 촉진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성스러운 해방투쟁에 용감히 일떠서 싸우고있으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습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5페지)

이해 세계 많은 나라 인민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고무되면서 반제민족해방투쟁에 떨쳐나섰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주체사상으로 살며 자주성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멸망하여가는 자기의 운명을 구원할 출로를 찾기 위하여 악명높은 《닉슨주의》를 내걸고 교활한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미제는 박정희괴뢰도당을 부추겨 조선의 분렬을 고정화, 영구화할데 대한 《정책》을 공공연히 세상에 선포케 하였으며 유엔총회에서 《두개 조선》조작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보려고 갖은 술책을 다 하였다.

미제는 윁남과 라오스에서 정화협정을 란폭하게 짓밟으면서 신식민주의통치를 유지하려고 발악하였으며 캄보쟈에서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계속하였다.

10월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부추겨 애급과 수리아 인민을 반대하는 제4차중근동전쟁을 감행케 함으로써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말살하려하였다.

칠레에서 합법적인 인민통일정부를 전복하는 파쑈적군사정변을 조작하였으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과 로데시아,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을 내세워 앙골라, 모잠비크, 아자니아, 짐바브웨, 나미비아에서 식민지전쟁을 추동하였다.

미제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정부전복음모와 파괴암해행위로써 침략과 내정간섭 책동을 감행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미제와 공모결탁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한 음모를 적극 추진시켰으며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세아나라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침략과 교활한 술책도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수령님께서 지니신 높은 국제적권위와 위신으로 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정당성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은 더욱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일층 강화되였다.

이해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실천투쟁에 구현하려는 열의가 얼마나 높아지고있는가 하는것은 11월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에서 진행된 《중근동 및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에서 똑똑히 보여주었다.

중근동지역과 아프리카대륙의 여러 나라 정부지도자들과 정치활동가들은 토론회에서 자기 나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주체사상연구에서 얻은 견해와 경험,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과 모든 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세계평화와 사회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얻은 경험을 나누고 주체사상을 자기 나라에 조성된 력사적조건에 완전히 부합되게 실천에 옮길것을 한결같이 결의하였다.

주체사상은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날을 따라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면서 인민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저주러운 식민지멍에를 벗어던지고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3세계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과 자주권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이 투쟁에서 공동행동과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9월 알제리에서 있은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세계 80여개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을 포함한 100여개 대표단들이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 인종주의 침략과 략탈을 견결히 규탄하고 모든 민족들과 인민들이 자기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켜나가며 이 정당한 위업에서 서로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선언과 결의, 행동강령들을 채택함으로써 제3세계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확고한 결의를 시위하였다.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흐름은 유엔총회에서와 기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들에서도 나타났다.

9월에 시작된 유엔총회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결의들이 채택되였으며 미제는 한세기이상이나 《보호령》으로 가지고있던 뿌에르또 리꼬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특히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내놓은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안은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지지하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정당한 투쟁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산되였다.

인도지나인민들은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 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전투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반미구국항전에서 거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웰남인민들과 라오스인민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야만적인 살륙전쟁을 짓부시고 미제로 하여금 정화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캄보쟈인민들은 령토의 90%와 인구의 80%를 해방하였으며 프놈 펜을 전면적으로 포위하고 론 놀도당의 마지막숨통을 조이였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발판으로 되고있는 일본에서도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공모결탁, 군국주의재생, 광란적전쟁준비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미제는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처 쫓겨나고있으며 미제의 침략과 간섭책동은 전면적으로 파탄되였다.

중근동지역에서도 아랍인민들은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령토완정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10월 6일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제4차중근동전쟁을 일으키자 애급과 수리아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며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일떠서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아랍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련대성은 강화되고 행동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라크, 알제리, 마로끄, 수단, 뜌니지,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우간다 등 나라들이 애급과 수리아 전선에 지원병을 보냈으며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수많은 나라들이 군사 및 재정적 원조로써 애급과 수리아를 지원하였다.

미제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자 10개의 아랍석유생산국들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는 미제와 일본, 화란 기타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아랍나라들은 정화후에도 령토완정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이 1967년 중근동전쟁 이전계선으로 철수할 때까지 미제에 대한 석유수출을 끊고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서방제국주의나라들에 수출하던 석유량도 대폭 줄일것을 선포하였다.

아랍인민뿐아니라 전쟁전까지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지고있던 루안다, 다오메, 상부볼따, 까메룬, 상아해안, 리베리아 등 12개 아프리카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음으로써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투쟁에 합류하였다.

이해 제국주의, 식민주의 압제밑에서 신음하던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의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가 이룩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기네—비싸우가 9월 26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6월에 그레네이더, 7월에 바하마가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였다.

앙골라, 모잠비끄, 짐바브웨, 아자니아,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에서의 무장투쟁도 강화되여 식민주의, 인종주의 멸망을 촉진시켰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미제의 간섭과 침투의 마수를 꺾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이라크, 다오메, 우간다, 뻬루 인민들은 미제와 국내반동들의 거듭되는 악랄한 정부전복음모와 파괴암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켰으며 빠나마인민들은 《우리는 우리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다》는 구호밑에 빠나마운하지대에 대한 미제의 강점을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위한 투쟁을 벌렸으며 말따, 바레인, 이슬란드에서는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을 반대하며 이전에 맺은 불평등조약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제3세계나라인민들속에서는 정치적자주권을 수호할뿐아니라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며 빼앗긴 자기 나라 자연부원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더욱 높아졌다.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아프리카통일기구의 공동결의에 따라 식민주의잔재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이 광범히 벌어졌으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동력기구, 까리브공동체 등 기구들을 창설하여 자원에 대한 미제의 지배와 략탈과 통제에 집단적으로 대처해나갈것을 결의하였으며 200마일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강화하였다.

또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리권을 박탈하고 국유화, 토지개혁 등 진보적사회경제개혁들이 추진되였다.

미국, 영국, 서독, 이딸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근로자들은 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파업투쟁을 벌려 낡은 제도에 충격을 주었다.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들은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에서 자기나라 로동계급 호상간, 그리고 다른나라 로동계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반동통치배놈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자주성을 요구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타격과 자체내부모순에 의하여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쇠퇴몰락의 한길로 더욱 줄달음쳤다.

제국주의아성인 미제는 내부모순으로 하여 커다란 진통을 겪었다.

미국정치의 부패상과 추악상을 온세상에 드러내놓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놈을 우두머리로 하는 미제지배층내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으며 대립과 알륵은 극도로 격화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겪었다.

날로 심화되는 딸라위기와 동력위기 등은 미제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

미제는 이른바 《동맹국》 내에서도 배격을 받고 고립되였다.

미제와 《동맹국》들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제국주의의 내부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였다.

미제는 1973년초부터 《새 대서양헌장》이라는 음흉한 술책을 꾸며놓고 뿔뿔이 흩어져가는 서구라파 《동맹국》들을 묶어세워 구라파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제놈들에게 유리하게 리용하여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이 술책은 실현할수 없었으며 강력한 반항에 부딪쳤다.

미제의 간교한 술책을 알아챈 서구라파나라들은 《새 대서양헌장》을 행

대하였으며 프랑스는 그것을 구라파지역을 미국의 패권밑에 종속시키려는 새로운 책동이라고 폭로하면서 견결히 반대하였다.

미제와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모순은 중근동전쟁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였다.

미제는 중근동전쟁에서의 제놈들의 위기를 모면하는데 도와나설것을 여러차례 서구라파나라들에 간청하였으나 모조리 거절당하였다.

서독은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무기를 수송하는것을 중지하라고 미제에 들이댔으며 이딸리아, 희랍, 토이기 등 거의 모든 구라파나라들이 이스라엘편에 서서 싸우자는 미제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미제가 꾸며낸 침략기구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다.

4월에 있은 미주국가기구총회에서는 이 기구 성원인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평등권을 주장하였으며 미주국가기구를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것을 결정하였다.

미제의 침략기구인 《나토》에서는 미제와 맺은 예속적군사조약을 뜯어고치며 자기 나라에 있는 나토군사기지의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갔으며 《세아토》에서는 11월에 파키스탄이 탈퇴하였다.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는 《세아토》의 해체를 요구하면서 《세아토》군사연습에 참가하는것을 거부해나섰다. 영국은 《세아토》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있으며 프랑스는 운영비분담금지불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세아토》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였으며 《안쥬스》는 뒤흔들리고 《아스파크》는 말레이시아의 탈퇴로 무너질 위험에 처하였다.

미제의 《동맹국》들내에서 일어나고있는 이러한 현상은 지난날 미제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여오던 나라들도 더는 미제에 추종하지 않으며 미제의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로 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러한 추세로 하여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침략적군사블럭체계는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있으며 미제의 멸망은 더욱 촉진되였다.

제국주의체계는 제2차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파동을 겪었으며 전면적인 위기에 부닥쳐 더욱 허덕이였다.

중근동전쟁을 계기로 발단된 세계적인 연료난으로 자본주의나라들은 전면적인 질식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며 전례없는 혼란속에서 허우적거리였다.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엄중한 통화위기에 극심한 연료난이 겹쳐 발전소,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생산은 급격히 감퇴되였다.

제2차대전후 최대의 경제적난관에 봉착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살길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비락질을 하였으나 놈들은 도처에서 랭대와 배격을 받았다.

반제 자주, 자립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과 예속화정책은 여지없이 파산되였다.

1973년에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이 모든 사변, 심각한 변혁과정은 세계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더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이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로 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것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더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되여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다.

《석유전쟁》의 선포, 서방세계에서의 동력위기

미제의 사촉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아랍석유생산국가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기타 서방나라들에 《석유전쟁》을 선포하였다.

《석유전쟁》의 선포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고있는 미제와 서방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동력위기로 대혼란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얼마 안되는 제국주의억만장자들이 지구상에서 활개치고 주인행세를 하며 인류를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세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325페지)

석유수출문제에서 아랍나라들이 취한 조치는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자원을 제멋대로 착취하고 략탈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이 나라들이 자기들의 민족적 권리와 존엄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1972년현재 세계석유총매장량의 67%(589억톤), 세계석유총생산량의 41%(10억 2천만톤)를 차지하는 중근동지역의 석유생산국들이 미제와 그의 동맹국들에 석유가격의 인상 및 석유수출의 제한 또는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등 집단적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이라크정부는 제4차중동전쟁이 일어난 다음날인 10월 7일에 미국석유회사들인 《스탠다드 오일 오브 뉴저시》와 《모빌 오일 코퍼레이숀》을 국유화함으로써 심각한 연료위기를 이미 겪어온 미제에게 새로운 타격을 가하였다. 아랍만의 석유생산국들인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추장국련방 및 바레인은 10월 16일 긴급석유공급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석유값을 17%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10월 17일에 아랍석유생산 10개국은 강점당한 아랍령토가 해방될 때까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는 미제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석유공급을 매달 그 전달공급량의 5%씩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12월 9일 쿠웨이트에서 진행된 아랍석유수출국가기구성원국들의 각료회의에서는 미국, 화란, 뽀르투갈 및 남아프리카의 인종주의정권들에 대한 석유봉쇄정책을 계속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알제리,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까따르 등 여러 나라들은 미제 그리고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지한 화란에 대한 석유수출을 전면적으로 중지하였다.

아랍석유생산국들은 미제와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 대한 전면적석유수출제한, 금지 조치가 단기적이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하면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이 1967년 중동전쟁 때 강점한 모든 아랍땅에서 물러가고 팔레스티나인민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될것이라는 확고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렇듯 석유생산수출국가들이 선포한 《석유전쟁》은 단순한 석유리권을 위한 경제투쟁이 아니라 아랍의 민족적 존엄을 지키며 중근동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랍나라들의 집단적인 정치투쟁으로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아랍석유수출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취한 석유수출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하여 석유를 연료, 원료로 하는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공업, 운수를 비롯한 경제전반에서 조업의 중지와 단축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의

위기 및 혼란상태를 가져왔다.

미제의 석유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960~1970년사이에 미국은 석유의 국내소비량의 20%를 수입하였으며 1973년에는 그것이 33%로 올라가게 될것이라 하였다. 1980년에 가서 미국이 수입하게 될 석유는 국내소비량의 50%이상을 차지할것으로 예견하였다. 이제까지 미제는 중근동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40%를 략탈해갔다.

1972년에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은 6억 9천만톤, 일본은 2억 3천 600만톤의 석유를 수입하였는데 그것의 80%이상을 중근동지역에서 가져갔다. 그러나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의 대상으로, 《치부를 위한 연료》로 간주되여오던 중근동의 석유는 오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폭약》으로 되였다.

중근동석유생산국들의 석유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중근동석유의 40%를 략탈하던 미제는 1972년에 비하여 1974년에 45억딸라로부터 200억딸라,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은 110억딸라로부터 500억딸라, 일본은 36억딸라로부터 170억딸라의 돈을 더 물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특히 미제는 아랍국가들의 석유수출금지조치로 《제2차세계대전이래의 가장 심각한 연료위기》을 겪었다. 닉손도당은 1974년 1. 4분기에 석유가 수요량보다 근 20%나 모자랄것이며 바야흐로 《석유결핍시대》에 들어서고있다고 아우성쳤다. 미국의 수백개의 화학공장들이 휴업상태에 빠졌으며 기타 강철, 동제련, 방직공업 등 전반적 경제분야가 련쇄반응을 일으키며 뒤흔들었다. 뉴욕, 뉴저시 주들에서는 30여개의 대규모회사들이 생산을 중지하였으며 석유를 원료로 쓰고있는 합성수지공장들에서는 230억딸라어치에 달하는 제품이 줄어들것이 예견되였다. 놈들은 국내외의 많은 항공로를 폐쇄하고 자동차의 운행을 단축하고 그 시속을 낮추며 1974년부터는 난방용 석유의 배급제를 실시하며 려관, 식당, 관광업의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등 실로 대혼란이 휩쓸었다. 석유부족으로 미제가 겪고있는 진통은 침략군대에 석유공급을 못하여 군함들의 항행과 비행기들의 비행시간을 축감하게 된데서도 나타났다. 그리하여 닉손도당은 《석유긴축조치》를 떠벌이면서 석유위기의 중하를 인민대중에게 들씌우려고 날뛰였다.

동력위기의 선풍은 석유수입의 81%를 중근동석유에 의존하고있는 일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였다. 일본에서는 공장, 운수 등에 심한 조업 및 운행 단축을 가져오고 경제에 커다란 혼란이 조성되였다. 그리하여 《경제예산을 다시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이르렀으며 《자위대》의 무장과 훈련계획까지 《대폭수정》하게 될지 모른다고 비명을 질렀다. 지어 일본정계에서까지도 《현석유공급의 부족으로 일본경제는 전후에 있어서의 최악의 난관에 처하여있다.》고 숨가쁜 소리를 쳤다. 일본에서 전력생산 하나만 보더라도 석유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들이 총발전량의 77%를 차지하며 이는 공업전력수요의 66%를 보장해주고있다. 석유화학공업부문의 생산은 20~30%, 강철생산은 6~7%, 알루미니움생산은 12~13%떨어졌으며 합성섬유, 흑색금속, 운수부문들에서도 심각한 연료난을 겪게 되였다. 11월에 석유값은 20%이상 뛰여올랐고 물건값은 계속 올라가 주민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외신들은 아랍석유생산국이 취한 조치로 말미암아 1973년 11월에 일본에 대한 석유공급량은 9월에 비해 20%, 12월부터 1974년 3월까지의 기간에 또다시 18.2% 줄어들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바빠맞은 일본반동정부는 《긴급조치》니, 내각개조니 하면서 경제위기를 모면하려하였으며 11월 22일 각의에서는 《신중동정책》이라는 외교자세를 보이면서 아랍나라들에 추파를 던졌다.

석유소비량의 거의 전량을 중근동지역에서 수입하고있는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의 사정도 다를바 없었다. 석유정제공장들과 석유화학공장들이 조업의 정지 또는 단축을 하고 경제는 침체상태에 빠졌다. 이로 말미암아 영국에서는 1973년말현재 50여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아랍나라들의 석유수출금지 및 제한조치로 하여 제국주의나라 호상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여 중동문제에서 미제의 정책에 추종하던 나라들마저 반아랍정책을 《재검토》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중근동지역 인민들의 단결된 힘앞에서 당황망조한 미제국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회유기만과 다른 편으로는 《힘》에 의한 위협공갈로써도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먼춰세우지 못하였다.

제4차중동전쟁

미제의 부추김밑에 중근동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오던 이스라엘침략자들은 1973년 10월 6일 애급과 수리아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중동에서는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에 의하여 2차대전후 4번째로 되는 전쟁이 일어났다.

이 지역에서 여러차례의 전쟁이 일어난것은 유태복고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아랍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을 교살하고 이 지역을 저들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에 그 원인이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감행한 새로운 무력침공은 애급아랍공화국과 수리아아랍공화국의 독립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전체 아랍인민들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행위입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자 아랍인민들은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수호하며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일떠섰다. 애급과 수리아는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불의의 침공을 과감히 물리치면서 반공격에로 넘어갔다. 이라크, 수단, 알제리, 마로끄,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튜니지, 요르단, 우간다는 직접 지원병을 파견하였다. 이리하여 수리아전선에서는 수리아, 이라크, 마로끄, 알제리,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군대들이 싸웠으며 애급의 시나이전선에서는 애급, 이라크, 알제리, 튜니지, 쿠웨이트 군대들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웠다. 리비아, 소말리아, 남부예멘은 지원병을 파견하기 위한 등록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레바논과 북부예멘에서는 군대파견을 위한 대기 태세를 취하였다. 또한 다오메, 상부볼따, 까메룬, 탄자니아, 적도기네, 말가슈, 나이제리아, 중앙아프리카, 세네갈, 감비아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이라크, 마로끄,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는 애급과 수리아전선에 비행기, 땅크, 의료단, 약품들을 보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수리아에 10억딸라를, 쿠웨이트는 애급과 수리아에 약 3억 5천만딸라를, 리비아는 2억 파운드를 줄것을 선포하였으며 소말리

아와 모리따니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수리아에 물질적지원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인민들, 국제기구들이 아랍인민의 정의의 항전을 적극 지지하였다.

아랍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전쟁초기 애급과 수리아는 전쟁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호된 타격을 가하였다. 애급은 1967년 전쟁때 잃었던 수에즈운하 동쪽 길이 100키로메터, 너비 23키로메터의 넓은 지역을 되찾았으며 수리아는 골란고원의 일부를 해방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전쟁을 일으킨후 사흘동안에만도 1967년 전쟁기간에 입은 손실을 릉가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수천명의 군대와 수백대의 비행기, 땅크를 잃었으며 주요한 진지들을 내놓았다.

아랍인민과 그 무장력의 단호한 반격에 직면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모든 전선에서 패배를 거듭하게 되자 그를 만회해보려고 미제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은 중동전쟁을 계단식으로 강화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예비역까지 총동원하여 전연방어에 내몰아 아랍군의 승리적진격을 막아보려고 날뛰는 한편 애급과 수리아의 후방을 교란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수십년동안이나 부추기고 키워온 미제는 이스라엘이 수세에 빠져 제놈들의 침략적목적을 이룩할수 없게 되자 직접 전쟁에 뛰여들어 로골적인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수백대의《팬톰》전투폭격기, 미싸일, 땅크, 포를 비롯한 살인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이스라엘로 대대적으로 공수하였으며《의용군》의 명색으로 수많은 비행사들과 군사인원들을 들이밀었다. 또한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중동지역에 급격히 증강하였으며 미제6함대, 지어 나토군까지 대기시켰다.

미제가 이스라엘침략자들을《지원》하면서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데로 내몰자 10개아랍석유생산국들은 회의를 열고 미제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놈에게 공급하던 석유공급량을 월간 5%씩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리비아, 알제리, 쿠웨이트, 바레인, 까타르, 아부다비 등은 10월 19일부터 미제에 대한 석유수출을 전면적으로 중지하였다. 항전에 일떠선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중동전쟁력사에서 가장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17일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시간당 1천만딸라를 탕진함으로써 정치, 경제에 새로운 긴장성을 조성시켰다.

10월 22일 중근동전쟁은 시작된지 17일만에 정화에 들어갔다. 정화당시 애급은 수에즈운하의 동안 시나이반도에서 500평방키로메터를 차지하고있었으며 이스라엘은 수에즈운하 서안의 애급령토 1천 200평방키로메터와 수리아령토를 새로 300평방마일을 차지하고있었다.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채택된 중동정화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서로 싸우는 나라들이 12시간이내에 정화를 실시하며

2, 1967년 11월 유엔안보리사회결의 242호 (※이스라엘이 1967년에 점령한 모든 아랍령토로부터 철수할것을 규정) 의 모든 조항의 리행에 착수할것을 《호소》하며

3, 중동에서의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을 목적으로 《협상》을 시작할것을 결정한다.

10월 22일 애급은 중동정화에 관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를 접수하였다.

10월 23일 수리아는 이스라엘이 1967년 6월과 그 이후의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는 조건에서 정화를 수락한다고 하였다.

10월 25일 유엔안보리사회는 중동에서의 평화감시를 위해 유엔중동평화군을 창설하여 파견할것을 결정하였다.

정화직후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전후 중동문제처리에서 유리한 립장에 서려는 정치적야욕으로부터 수에즈지역을 포함한 많은 부분을 강점하였으며 전쟁때 시나이지역에 들어간 애급 제3군과 여러 부대들의 보급로를 끊어버렸다. 그러면서 애급과 수리아에 대한 군사적도발책동을 련이어 감행하였다. 11월 25일밤 2시간동안 애급전선에 포사격을 하고 여러건의 충돌사건을 일으켰으며 12월 6일에는 제놈들의 비행기를 수에즈령공에 침입시켰다. 12월 2일에는 골란고원에서 수리아진지들에 포사격을 감행하였다.

10월 28일부터 애급과 이스라엘간에는 까히라—수에즈도로상에서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두 나라간에 부상당한 포로들을 교환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11월 11일 애급과 이스라엘간에는 6개항목으로 된 정전협정이 조인되였다.

정전협정에서 쌍방은 10월 22일 정화당시의 위치로 돌아가며 수에즈운하동쪽기슭에 대한 비군사물자의 공급은 방해를 받지않으며 까히라—수에즈도로에 유엔검문소들이 설치되는 즉시로 부상자를 포함한 모든 전쟁포로를 교환하는데 합의하였다.

협정에 따라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애급—이스라엘간에는 포로교환이 진행되였다.

11월 22일부터 애급—이스라엘간에는 10월 22일계선으로 두 나라 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군대격리협정을 위한 회담이 시작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채 일단 중지되였다.

12월 21일부터 제네바에서 중동문제해결을 위한 중동평화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쏘련, 미국, 애급, 요르단, 이스라엘이 참가하였으며 수리아는 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12월 8일 수리아정부대변인은 전쟁포로교환이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결부되지 않는한 이를 거부하며 제네바 중동평화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1974년 1월 18일 병력분리에 관한 애급—이스라엘협정이 조인되였다. 협정에 의하면 애급은 수에즈운하동쪽에 남아있으나 대폭 줄이며 이스라엘침략군은 수에즈운하동쪽으로 33~38키로메터 철수하고 그 사이에는 유엔중동평화군을 주둔시키며 협정조인후 7일 이내에 병력들의 분리를 시작하여 40일안으로 끝낸다고 하였다.

1974년 5월 29일 골란전선의 수리아—이스라엘병력분리문제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31일 제네바에서 정식 병력분리협정이 조인되였다.

이리하여 제4차중동전쟁의 불길은 238일만에 겨우 꺼졌다.

200마일령해권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은 정의와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이 세계를 틀어쥐고 나가는 시대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41페지)

제3세계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완강하게 싸워나가고있는 현추세는 제국주의의 침해로부터 해양권을 지키기 위한 인민들의 과감한 투쟁에서도 명백히 찾아볼수 있다.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200마일령해권을 위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투쟁은 주목할만하다.

라틴아메리카의 24개 나라중 빠라과이와 볼리비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바다를 끼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은 그들의 경제적 및 국방상리익을 고려하여 령해의 넓이를 200마일로 선포하였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일적인 령해넓이가없는 조건에서 200마일의 령해권을 선포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조치는 그들의 자주권에 속하는 응당한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조치가 《국제법》에 위반되는것이라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200마일령해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를 침해하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여왔다.

이렇게 되여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령해권은 도전당하게 되였으며 그를 수호하기 위한 이 나라들의 투쟁이 벌어지게 되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령해에는 풍부한 석유자원과 천연가스 및 중요한 어장들이 있다.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9개 나라의 연해에는 특히 방대한 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여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석유를 채취하고있다.

또한 칠레북부 연해로부터 뻬루, 에꽈도르, 시지쟈라퍼거스군도에 이르기까지의 해역은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어장이다.

이 풍부한 령해자원에 눈독을 들인 미제는 1972년에 이른바 《어업법》을 발표하여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 령해넓이를 12마일로 인정하고 침략행위를 계속하는한편 200마일령해권을 주장하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원조》를 중지하는 등의 압력과 위협을 가하였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조금도 굴함없이 미제와 단호히 맞서 싸웠다.

1973년에 뻬루, 에꽈도르, 아르헨띠나, 꼬스따 리까, 살바도르, 빠나마, 메히꼬 등 10여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이미 1958년과 1960년 두 차례에 걸치는 국제해양법회의에서 높이 추켜들었던, 200마일령해권 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 령해에 침범한 제국주의자들의 해적선들을 무조건 붙잡아 징벌하였다.

이해 2월 에꽈도르국방부는 미제해적선들이 자주 침입하여 수산자원을 로략질해가는것을 막기 위해 200마일령해에 대한 순찰을 더욱 강화할것을 에꽈도르해군에 명령하였다.

메히꼬도 올해부터 200마일령해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 결의밑에 10척의 순찰함을 마련하고 그 배들에 메히꼬기발을 띄우는 의식을 진행하였으며 여기에서 연설한 메히꼬대통령 루이스 에체베리아는 바다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나라의 정치적 및 경제적 독립을 위한 메히꼬인민의 완강한 투쟁의 한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200마일령해를 지키며 자기 령해안에서 물고기잡이를 하기 위한 첫 어선대를 무은 뻬루에서 22척의 어선들의 침보떼항구를 떠나던 날 뻬루인민들은 《200마일—뻬루령해》, 《존엄, 자주권》이라고 쓴 프랑카트를 들고 항구에 모여 성대한 모임을 가졌으며 200마일령해권을 지켜나가려는 자기들의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투쟁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단합되고있으며 미제와 공동으로 맞서려는 움직임이 뚜렷이 보였다.

이해 2월에 산살바도르에서 진행된 뻬루, 에꽈도르, 아르헨띠나, 브라질, 니까라과, 칠레, 빠나마, 살바도르, 우루과이 등 라틴아메리카 9개국회의에서는 200마일령해권주장을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운동을 추진시키기 위해 라틴아메리카뻘럭을 형성하기로 결정하고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공동콤뮤니케는 이 나라들이 200마일령해내의 자연부원들을 개발보존할 독점권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다시금 선포하였다.

1974년 1월 에꽈도르수도 끼또에서 열렸던 200마일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남태평양연안국가 제12차회의에서도 뻬루, 에꽈도르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반대하며 나라의 령해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투쟁할것을 다시금 결의하였다.

이와 같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200마일령해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려는 움직임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으로 된다.

령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1973년에 라틴아메리카나라인민들이 벌린 투쟁은 이 지역에서 반미자주적추세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슬란드 — 영국 사이의 《대구전쟁》

1973년에 이슬란드와 영국사이의 《대구전쟁》은 영제국주의자들이 이슬란드어로수역에 제멋대로 들어가 대구를 망탕 잡아감으로써 발생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매년 영국물고기소비량에서 25%를 차지하는 물고기를 이슬란드수역에 침입하여 잡아가는 해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의 우심해가는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여 이슬란드는 1972년 9월에 령해를 50마일로 선포하고 경비정을 동원하며 령해에 침입하는 영국해적선들의 강도적행위를 단속하여왔다.

그러나 영제국주의자들은 이슬란드의 령해권을 인정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제놈들의 고기배를 《엄호》한다는 구실밑에 여러척의 군함과 직승기들까지 침입시켜 이슬란드에 군사적압력과 위협을 가하고 1973년 5월 23일에는 어로수역을 지키는 이 나라 경비정을 공격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하여 5월 26일 이슬란드경비정은 영국트랄선에 포격을 가해 1척을 침몰시켰다. 6월 21일에 이슬란드포함과 영국함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대구전쟁》은 매우 심각해졌다.

《대구전쟁》은 정치적충돌에까지 이르렀다.

이슬란드정부는 자기 나라주재 영국대사관 공보관이 이슬란드해안경비정의 동향을 정탐하였다고 하여 그놈을 추방하고 영국주재 자기 나라 대사를 소환하였으며 이슬란드수역에서 군함들을 끌어가지 않는한 영국과 외교관계를 끊겠다고 최후《통첩》까지 내였다.

이슬란드와 영국간의 어로분쟁은 나토참가국들사이의 복잡한 문제로 화하였다.

5월 28일 이슬란드는 나토가 이슬란드어로수역에 침입한 영국해군함선들을 철수시킬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이슬란드는 나토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태도에 대처하여 미제는 영제국주의자들을 감싸고 두둔하여나섰다.

이에 격분한 이슬란드는 6월 12일 이슬란드와 미제간에 맺은 예속적인 군사조약의 개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통고하였다.

이슬란드로부터 압력이 강화되자 영국총리놈은 10월 3일까지 영국군함들을 이슬란드연안으로부터 끌어내갈것을 밝히였으며 그후 이슬란드총리와의 회담 결과 《대구전쟁》은 일단 정지되였다.

《대구전쟁》의 과정은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까지도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의 지배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요구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아 세 아

정 세 개 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그 보편적타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1973년에도 세계진보적인민들과 더불어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온 누리에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위업에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혁명적업적으로 하여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못하고있는 아세아수억만 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현대인류의 가장 완벽한 진보적사상이며 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전백승의 사상》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일본, 버마, 인도, 파키스탄으로부터 중근동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대대적으로 출판하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리론, 혁명업적과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일본에서는 수많은 학자들과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 출판계인사들이 여러차례의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를 가지였으며 수령님의 로작연구발표회들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의 이름있는 학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의의에 대하여》, 《조선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리론의 발전》,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리론》 등 제목으로 파학론문들을 발표하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리론을 높이 찬양하고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인도에서는 전인도조선친선협회에서만 하여도 협회창설이래 《김일성전》 1권을 비롯하여 20여전에 달하는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33만여부나 출판보급하였으며 협회의 월간잡지를 통하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대하여 널리 소개하였다.

그밖에도 파키스탄의 《아흐마드》 국제출판사와 진보출판사, 버마의 《미따모》출판사, 수리아의 디마스끄출판사, 레바논의 《다르 알 탈리아》 출판사들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 출판사들에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전기《김일성전》을 출판하였으며 수많은 나라 신문들과 잡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을 앞을 다투어 실었다.

특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중국의 인민출판사에서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을 기념으로 출판한것을 비롯하여 레바논에서는 그이의 고전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을 출판하였다. 일본에서는 이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연구토론모임》이, 파키스탄에서는 기념경축집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1973년에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월 23일 새롭게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의 국회,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편지들을 보내여 왔다. 일본, 파키스탄, 인도 등 여러 나라 출판물들은 조국통일 5대강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사회단체들의 성명, 호소문, 결의문이, 저명한 인사들의 담화가 련이어 발표되였다.

이해 캄보쟈왕국 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친 우리 나라 방문, 범문동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월남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반제반미공동투쟁을 통하여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와 아세아지역 여러나라들의 당 및 정부대표단, 사회단체, 경제, 무역, 교육, 문화, 예술 대표단들의 호상방문을 통하여 친선협조관계가 일층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한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이해에 아세아지역에서 이란 (4월), 말레이시아 (6월), 방글라데슈, 인도, 아프가니스탄 (12월) 등 5개 나라와 새로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비할바 없이 높아졌다.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든 아세아 인민들에 의하여 미제는 걷잡을수 없이 녹아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은 이 지역 인민들의 완강한 반항에 부딪쳐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으며 그들은 아세아의 여러곳에서 쫓겨나고있습니다.》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단행본, 10페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1973년에 아세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미제의 발악적인 책동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거듭하였으며 놈들의 침략적지반은 모래성과도 같이 허물어져나갔다.

형제적중국인민은 독립, 자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중국공산당 제10차대회가 제시한 정치로선과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나라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고 령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중국인민은 6월에 수소폭탄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핵무기를 독점하고 세계인민들을 위협하려던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다시 한번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인도지나지역에서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하며 전쟁의 국면을 제놈들에게 유리하게 전변시켜보려던 미제의 망상은 깨여지고 1973년 1월 27일 놈들은 월남정화협정에 도장을 찍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월남침략전쟁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에 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협정의 리행을 로골적으로 위반하며 그를 파탄시키기 위한 극히 악랄한 범죄적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부월남괴뢰도당은 협정조항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이른바 《땅빼앗기작전》을 집요하게 감행하였으나 남부월남인민해방무장력과 인민들은 그것을 [illegible]

짓부시고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라오스에서도 애국적무장력과 인민들이 18년간의 영웅적인 반미구국항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역시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로 하여금 해방지역에 대한 무력침공을 포기하고 2월 27일 《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비엔티안괴뢰군은 정화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하고 해방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과 지상공격, 정탐비행을 감행하였으나 라오스애국적무장력과 인민들의 단호한 립장과 반격에 의하여 걸음마다 파탄되였다.

전국령토의 5분의 4와 100여만의 주민을 포괄하는 해방지역을 통제하고있는 라오스애국전선은 정화후 전쟁의 상처를 급속히 가시고 모든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해에 특히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인민들은 년초부터 모든 전선에서 대규모적인 공세를 들이대여 미제와 론 놀괴뢰도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무장간섭은 미국인민과 세계인민들로부터도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았다.

이리하여 미제는 8월에 부득불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폭격을 중지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미제의 공군력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간신히 프놈 펜을 비롯한 몇몇 전략지점을 유지하고있던 론 놀괴뢰도당에게 치명적타격으로 되였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미제와 프놈 펜괴뢰도당의 《평화》와 《정화》놀음을 배격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확고한 결의밑에 프놈 펜에 대한 포위망을 바싹 조이였다.

부르죠아통신들까지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이 《마치도 썩은 참외에 구멍을 내는것처럼 손쉽게 프놈 펜을 조이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뒤받침이 없으면 론 놀정권은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를 내면서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론 놀괴뢰도당의 가련한 몰골을 그대로 전하였다.

날로 국제적위신이 높아지고있는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는 1973년 현재 50여개 나라들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으며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령토의 90%이상과 인구의 80%인 550여만명을 해방하였다.

인도지나인민들의 승리적인 반미구국투쟁과 아세아에서의 미제의 침략정책의 파산은 그 이웃인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들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10월에 타이에서는 군사파쑈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적인 류혈적폭동이 일어났다. 결과 미제를 충실히 떠받들면서 타이를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내맡기고 놈들의 인도지나침략전쟁에 적극 복무하여 온 타놈군사독재정권이 뒤집혀졌다.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민들속에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였다.

또한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발판으로 되고있는 일본에서도 《일미 〈안보조약〉을 페기하라!》등의 구호밑에 일본의 대미예속과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공모결탁, 군국주의재생과 광란적인 전쟁준비책동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중근동지역에서 아랍인민들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령토완정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10월에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애급과 수리아를 반대하여 제4차중동전쟁을 일으키자 이라크, 알제리, 수단, 마로끄 등 10개나라들이 애급과 수리아에 지원병을 포함한 물심량면의 지원을 주었다.

전쟁기간에 애급은 1967년전쟁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빼앗겼던 시나이반도의 일부를 되찾은 반면에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중동전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이스라엘은 미제의 지원밑에 시간당 1천만딸라씩이나 탕진하였으나 전쟁초기 3일동안에 벌써 1967년전쟁 전기간을 통하여 입은 손실을 능가하였다.

중동지역에서 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아랍나라들은 1967년 중동전쟁이전 계선으로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철수할 때까지 미제에 대한 석유수출을 완전히 금지하고 일본과 서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 수출하던 석유수출량을 대폭 줄이는 집단적보복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서방세계가 일대 정치,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되자 배타적인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부득불 이스라엘침략자들이 강점지역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아랍나라들의 립장을 지지하는 《친아랍정책》을 내놓지 않을수 없었다.

반제자주의 거세찬 물결이 휩쓸고있는 시대적추이를 반영하여 어제날 미제에 추종하던 나라들까지도 더는 놈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려하지 않고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하여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적거점들이 련이어 무너져가는것과 때를 같이 하여 미제의 침략도구인 《세아토》, 《아스파크》도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파키스탄은 11월에 미제의 아세아침략기구인 《세아토》로부터 정식 탈퇴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3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앞으로 아스파크의 그 어떤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을것》이며 이 기구의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필리핀은 《미국이나 〈세아토〉동맹국들에 계속 의존할수 없》으며 《미군기지가 필리핀의 주권자체를 좀먹고있다.》고 하면서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모든 군사협정들을 될수록 빨리 없애치우기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맞섰다.

미제에 항거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놈들의 《동맹국》들속에서도 《세아토》와 《아스파크》와 같은 《반공블럭》의 존재를 《시대착오》로 보면서 여기에서 물러나려는 추세가 강화됨으로써 《세아토》는 할수 없이 그 군사적기능을 정지하였으며 아스파크는 회의조차 운영할수 없게 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여버렸다. 미제의 아세아침략기구들의 이러한 운명을 반영한 한 서방통신은 《세아토는 지금 닭들 대신에 오리, 게사니, 여우, 삵들이 들어있는 닭우리와 같다.》, 《아스파크는 지금 무덤속으로 들어가고있다.》고 하면서 이것들은 《변동하는 아세아정세의 응당한 귀결》이라고 썼다.

제반사실은 1973년에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반제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악명높은 《닉슨주의》는 이 지역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은 전면적인 파산의 위기에 빠져 모대겼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넓이 960만Km²
인구 7억이상
주민은 한족이 전인구의 94%를 차지하며 그밖에 50여개의 소수민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중국말
수도 베이징 (주민 약 700만명, 교외인구 포함)

정 치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3기로서 1964년에 선거되였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주덕

주석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35살이상의 공민중에서 선거되며 임기는 4년이다.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령을 공포하며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며 국가무력을 통솔하며 대사령과 전쟁상태를 선포한다.

주석대리 동필무

국무원 최고집행기관이며 주석이 국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총리 주은래, 외교부장, 희붕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7월 1일 상해에서 창건

주석 모택동

인민정치협상위원회 인민민주주의 통일전선단체로서 1949년 9월에 창립, 국민당혁명위원회 1948년 1월에 조직, 전국총공회, 공산주의청년단, 부녀련합회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와 공산당의 령도밑에 1945년 8월 항일전쟁승리후 미제의 졸개인 장개석도당을 반대하여 제3차국내전쟁(1945~1949년의 인민해방전쟁)을 진행하였다.

중국인민은 장개석도당의 반동통치를 뒤집어엎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국인민은 오래동안에 걸치는 반제해방투쟁끝에 마침내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 통치를 뒤집어엎었다. 중국혁명의 승리는 그 의의로 보아 위대한 10월혁명의 다음가는 큰 국제적사변이였다. 세계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인민이 제국주의멍에를 벗어던지고 사회주의길에 들어선것은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또 하나의 커다란 돌파구를 낸것이였으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력량관계를 사회주의편에 결정적으로 리롭게 전변시켰다.》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단행본, 7페지)

중국혁명의 승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장기간에 걸치는 혁명투쟁에서 중국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으며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1954년 9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기 제1차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하였다.

중국공산당은 1958년 5월에 소집된 대표자회의에서 모든 힘을 다하여 앞장서기에 힘쓰며 더 많이, 더 빨리, 더 절약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제시하였다.

1966년 8월에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는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서가 발표되였다. 1969년 4월에 있은 제9차당대회는 문화대혁명을 총화하고 당중앙위원회를 새로 선거하였다.

1971년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은 미제의 이른바《두개 중국》조작음모책동을 짓부시고 유엔총회 제26차회의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하여 유엔에서 합법적지위를 회복하였으며 장개석도당은 유엔의 모든 기구들에서 쫓겨났다.

주요사건: 1973년 8월 24~29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0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된 정치보고, 당규약수정에 관한 보고와 대회에 제출된 《중국공산당 규약초안》, 중국공산당 제10기 중앙위원회선거 등의 의정이 상정되였다.

대회는 상정된 의정을 일치하게 채택하였으며 중국공산당 제10기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대회는 특히 림표반당집단을 분쇄하는 투쟁의 기본경험을 총화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의 계속혁명의 방향과 과업을 더욱 명백히 규정하였다.

대회의 전체 대표들은 매국역적 림표의 당적과 그리고 림표반당집단의 주요성원인 진백달의 당적을 영원히 제거하며 그들의 당내외의 모든 직책을 취소할데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를 견결히 지지하였다.

8월 30일에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0기 제1차전원회의는 모택동동지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추대하였다. 전원회의는 5명의 중앙위원회 부주석, 22명의 정치국위원, 4명의 정치국 후보위원,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4월에 베이징시공회 제6차대회, 3월에 공산주의청년단 베이징시 제6차대회, 9월에 베이징시와 상해시 녀성대표대회가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여러 성, 시, 자치구들에서 각각 사회단체들의 대회들이 진행되였다.

6월 27일 중국은 나라의 서부지역 상공에서 수소폭탄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8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핵무기사용금지조약》제2호 보충의정서에 조인하는 의식을 메히꼬에서 가졌다. 이 의정서가 서명된 이후 이와 관련하여 발표한 중국정부의 성명은 중국이 그 어떤 시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재천명하고 중국은 절대로 라틴아메리카의 핵무기 없는 나라들과 지역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3년에 중국정부는 많은 나라들과 접촉하고 친선협조관계를 확대강화하였다.

3월 9일 에스빠냐, 9월 15일 상부볼따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새로 맺었다. 1월 13일 중국이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에 1973년에 군사장비와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데 관한 협정과 경제원조를 제공할데 관한 협정, 6월 8일 중국이 민주월남에 경제및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줄데 관한 협정, 11월 20일 중국이 1974년도에 남부월남공화에 무상경제원조를 줄데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또한 중국이 1월 14일 자이르와 경제기술협정과 무역협정, 3월 28일 까메룬과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6월 24일 말리와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9월 19일 끼쁘로스와 통상및지불에 관한 협정, 9월 20일 챠드와 경제기술협조협정과 통상협정을 맺었다.

이해에 자이르대통령(1월), 까메룬대통령(4월), 메히꼬대통령(4월), 월남로동당 제1비서 레순과 정부총리 범문동이 인솔하는 월남민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6월), 말리국가수반(6월), 꽁고대통령(7월), 프랑스대통령(9월), 카나다총리(10

월), 시에라 레온대통령(11월), 네팔국왕(12월), 2월과 11월에 미국무장관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였다. 키신저의 중국방문기간인 2월 22일 발표된 콤뮤니케는 쌍방이 무역과 과학, 문화 및 기타 분야의 교류를 확대할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련락사무소를 설치할데 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1973년에 중국인민은 《농업을 기초로 하고 공업을 위주로 하는》 인민경제발전의 총적방침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침으로써 인민경제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1973년 공업 및 농업 총생산액은 1972년보다 8%이상 늘어났다.

공업부문에서는 대경(대경유전)을 따라 배우는 대중적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흑색야금공업에서 기술혁신운동과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져 1973년 국가계획과제를 넘쳐수행하였다. 강철(1972년에 2천 300만t), 선철, 강재 등 주요제품의 생산이 1972년보다 더 늘어났고 그 질이 높아지고 원자재 소비기준이 낮아졌다.

제4차 5개년계획의 첫 3년동안에 베이징에 있는 수도철강공사는 해마다 선철은 11%, 강철은 13%, 강재는 8%씩 늘었으며 상해시 야금공업 기업소들은 1973년에 그 전해보다 강철은 약 10%, 강재는 7.4% 더 생산하였다.

기계제작공업도 1973년에 국가계획과제를 넘쳐하였다. 랭간압연기, 대형뽐프, 립식보링반, 이동측정전자계산기 등 중요한 새 제품들을 시험제작하였다.

베이징기계제작공업기업소들은 년간계획을 수행하였으며 200여가지의 새 제품을 만들었다. 기계제작공업은 농촌기계화를 다그치는데 이바지 하였다. 14가지 주요농기계가운데서 11가지 농기계생산은 1972년에 비하여 20%이상 장성하였다.

중국의 2천여개의 현들중에서 96%에 달하는 현들에 농기계공장, 농기계수리공장이 일떠섰다.

전력공업부문에서 1973년도 생산계획은 10일이나 앞당겨 끝냈으며 새로 조업한 발전설비의 능력은 전해보다 23%나 늘어났다. 이리하여 1973년의 총발전능력은 1965년의 2.1배에 이르렀다. 이 기간 전력생산은 2.4배 늘어났다.

채취공업은 석탄(매장량에서 세계 제2위), 석유, 중석, 몰리브덴, 안티몬, 망간, 주석, 연, 아연 그리고 니켈, 류황, 린 등 품종이 다양하고 매장량이 많은 지하자원에 의거하고있다. 1966년이후 7년동안에 120만개소에 대한 지질탐사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그전 10년동안의것보다 2.5배나 더 많았다. 1972년의 탐사사업량은 1965년의 4.8배에 이르렀으며 90여가지광물의 매장지가 새로 발견되였다. 1972년에 1965년에 비하여 석탄은 58%, 철광석은 50%, 동은 65%의 매장지가 늘어났다. 탐사사업을 앞세운 결과 석유생산량은 1969년부터 1972년까지 해마다 평균 28%씩 장성하였으며 1973년에도 국가과제를 기한전에 수행했다. 휘발유, 석유, 디젤유,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량과 질이 훨씬 높아졌다. 서주광무국산하 탄광들을 비롯한 많은 탄광들이 1973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1973년 상반년에 1965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화학비료는 1.9배, 농약은 1.5배, 의약품은 1.8배, 합성섬유원료는 1965년 한해동안에 생산한것보다 3배이상 더 생산하였다.

경공업은 중공업의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국내인민들의 일용필수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있으며 일부 경공업제품들은 외국에 수출하고있다. 197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경공업총생산액이 1972년 같은 기간보다 8% 늘었다. 사탕, 세척제, 합성섬유, 자전거, 재봉기, 손목시계 등 주요제품생산은 10~40% 올랐다. 상해시의 경공업총생산액은 1973년에 그 전해보다 9% 늘었다.

공업의 지원밑에 농업부문에서는 대채(농업생산대대)를 따라배우는 군중적운동을 벌려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알곡을 기본으로 하면서 농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에 의하여 알곡뿐아니라 과수업, 축산업, 잠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약 1억헥터에 달하는 부침땅중에서 알곡작물(비, 밀, 강냉이, 수수, 조, 감자 등)이 씨붙임땅의 90%를 차지한다. 콩, 땅콩, 유채, 차, 목화, 담배, 사탕수수, 사탕무우 등의 공예작물중에서 목화와 콩을 비롯한 유지작물은 공예작물씨붙임땅의 약 90%를 차지한다.

가물과 큰물로 인한 혹심한 자연재해를 이겨낸 1973년에 알곡생산량은 최고 수확년도인 1971년도(2억 5천만t)보다 많았다.

공화국이 창건된후 20여년사이에 알곡 년생산량은 2배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전국적으로 600여개의 현(시)들이 알곡생산에서 《전국농업발전요강》에 규정된 지표에 도달하였거나 뛰여넘었다. 해마다 수백만톤씩의 식량을 다른 지방에서 날라다 먹던 하남, 하북, 산동성 같은데서도 자급자족할수 있게 되였고 《남쪽의 낟알을 북쪽으로 실어가는 현상을 극복할데 대한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이해에 특히 목화, 삼(대마), 황마, 사탕무우, 담배 등의 공예작물이 잘되였다.

이해에 중국에서는 관개수리공사를 힘있게 벌렸다.

1972년부터 1973년 상반년까지의 기간에 북부지방은 오랜기간 가물이 들었다. 1972년 10월부터 1973년 9월까지의 기간에 북부중국의 14개성, 자치구 및 직할시들에서는 도합 30만개의 기계우물과 기공사를 끝냈다.

돼지, 소, 양, 염소, 말 등을 기르는 축산업도 해마다 발전하고있다.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며 연해 및 하천 운수도 큰 의의를 가진다. 1973년에 철도, 도로, 수로를 통한 화물수송량이 1965년에 비하여 60%나 늘었다.

대외무역도 늘어나 1973년 현재 150여개 나라, 지역과 무역관계를 가지고있었다. 그중 50여개 나라와는 무역협정 및 의정서를 맺었다. 수출총액에서 공업 및 광업 제품이 65%를 차지한다.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신화

신문 인민일보(공산당기관지), 광명일보, 해방군보(인민해방군기관지), 베이징일보

잡지 홍기(공산당기관잡지)

방송 베이징방송, 베이징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우리 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1949년 10월 6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53년 11월에는 조중경제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7년 12월에는 조중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1년 7월 1일에 조중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협정이, 1973년 6월 18일에 두 나라 정부사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과 의정서가, 10월 9일에는 국경철도협정이 조인되였다.

1973년에 인민출판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출판하였으며 이 출판사는 그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도 출판하였다.

수령님께서 197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신 신년사를 중국신문들인 《인민일보》, 《광명일보》, 《해방군보》가 전문을 실었으며 그리고 베이징방송과 신화통신이 전문을 보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를 《인민일보》는 전문을, 《광명일보》는 요지를 실었으며 신화통신은 전문을 보도하였다.

6월 25일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앙 각 신문들과 베이징방송은 수령님께서 6월 23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의 상세한 요지를 소개하면서 그이께서 새로이 천명하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에 관한 부분을 전문보도하였으며 이에 앞서 6월 24일 신화통신도 이 부분을 전문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을 신문 《인민일보》, 《광명일보》 및 《해방군보》가 상세한 요지를 실었으며 수령님의 참석밑에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가 진행된데 대하여 신문 《인민일보》, 《광명일보》와 신화통신이 크게 보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 탄생 여든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모택동선집》 전 4권을 출판하였다. 그밖에도 모택동동지의 로작들인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고침데 대하여》, 《실천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자》를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모택동동지의 탄생 여든돐을 기념하여 사진전시회,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있었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제1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 중국대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립장을 지지하여 연설하였다.

3월에 중국외교부는 미제석유독점체가 남조선괴뢰도당과 공모하여 우리 나라 서해와 중국연해의 석유자원을 로략질하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냈다.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는 베이징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를 가졌다.

5월 19일 베이징에서 우리 나라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개막식이 성대히 진행된데 이어 한달 남짓한 기간에 베이징, 남경, 상해 및 심양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인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22회 공연하였으며 가무공연을 15회 진행하였다. 20여만 관중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중국신문들인 《인민일보》, 《해방군보》 및 《광명일보》는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공연에 대하여 광범히 보도하였다.

1973년에 중국친선대표단(9월), 《인민일보》대표단(10월), 신화통신사대표단(8월), 과학기술협조대표단(10월), 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9월), 텔레비죤방송기술대표단(1월), 조중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12차회의에 참가할 중국측대표단(1월), 남녀배구선수단(3월), 세멘트생산견학단(4월), 녀성대표단(5월), 원양운수대표단(5월), 료녕성 청년축구선수단(5월), 인민해방군 남녀체조선수단(6월), 심양교예단(6월), 남녀륙상선수단(6월), 남녀바드민톤선수단(7월), 동의및동약부문견학단(7월), 인민해방군롱구선수단(8월), 집단체조참관단(8월), 건축학회대표단(10월), 체육대표단(10월), 남녀롱구선수단(11월), 농촌보건및모성유아보호부문의 견학단(12월), 기상국견학단(12월), 려행유람사업관리국대표단(12월), 중조우호협회대표단(1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해에 외교부장(2월), 조선로동당휴양단(5월), 정부경제대표단(6월), 《로동신문》대표단(4월), 조선인민군군사휴양단(7월), 만수대예술단(5월), 평양시축구선수단(1월), 의학자대표단(5월),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대표단(5월), 건축가대표단(6월), 화학공업대표단(6월), 정부철도대표단(10월), 압록강녀자롱구선수단(12월), 조선인민군 2.8남녀롱구선수단(12월)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샹강(홍콩)

중국령토의 일부인 샹강은 중국의 광저우(광주)시에서 동남쪽으로 140Km 떨어진곳에 있는 샹강섬(82Km²)과 쥬룽(구룡)반도(7Km²), 그 부근에 널려있는 235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넓이 1,034Km²

인구 409만명(1971년)

주민의 98%이상은 중국사람이며 영국사람과 기타 구라파사람들이 살고있다.

행정중심지 샹강(홍콩)

총독 머레스 맥클호스(영국사람, 1970년 10월—)

통치기구로는 총독을 보좌하는 《행정리사회》와 《립법리사회》가 있다.

1839~1842년 기간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제1차아편전쟁》을 통하여 샹강을 강점한후 1842년 10월 29일 중국에 불평등한 《난징조약》을 강요하여 샹강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샹강을 근거지로 중국침략을 강화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860년 10월 또다시 침략적인 《베이징조약》을 강요하여 쥬룽반도의 남부지역을 떼내였으며 1899년에는 그 북부지역인 샹강일대의 섬(신개지)들을 99년간의 《조차지》라는 명목밑에 빼앗아냈다.

제2차대전기간에는 3년 8개월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강점하고있었다. 일제가 패망한후 영제국주의자들은 다시 중국인민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샹강에 기여들었다.

샹강은 해상운수상 및 군사상 요지에 위치하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오래동안 샹강을 발판으로 하여 중국에 대한 략탈과 침략을 감행하여왔으며 극동의 무역을 위한 해상운수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근거지로 삼아왔다.

샹강의 로동자들은 삶의 권리와 영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경제는 영국과 미제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외래독점체들의 3대 은행이 경제전반을 틀어쥐고있다. 경제에서 샹강의 자유무역항을 통한 중계무역과 수입한 원료를 다시 가공하여 파는 중계가공무역이 큰 몫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중계가공무역의 비중이 크다.

샹강시장에서는 술, 담배, 약품을 제

외한 상품들에는 관세를 붙이지 않으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품이 밀려든다.

주로 비금속광물, 직물 및 각종 의복류, 의약품, 남새, 과일, 커피, 홍차, 기계류, 염료, 시계, 반도체라지오, 인삼 등이 재수출되는데 이것은 총무역액의 20～30%를 차지한다.

방적, 직물, 편직물 등 섬유공업을 위주로 한 경공업이 공업총생산액의 약 90%에 이르고있다.

그중 근 30%에 가까운 몫은 방직공업이 차지한다.

최근에는 일본독점자본이《합작》의 명목밑에 샹강에 대대적으로 침투하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인구의 약 8.5%가 일한다. 주로 쥴룽반도에서 농사하는데 1만 2천여헥터의 부침땅가운데 논이 7천 700헥터이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벼로써는 수요의 10%밖에 충족시키지 못하며 알곡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한다.

년간 약 1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에게서 받아들이는 수입도 재정수입원천의 하나로 되고있다.

샹강은 영국의《파운드지대》에 속하지만 무역지대에서는 자유외화로 통용되는 샹강(홍콩)딸라를 쓴다.

주요수출품은 각종 천과 의복류, 부인용 가방, 가발, 놀이감, 신발, 전기기구 등이며 식료품과 섬유원료, 식량, 남새, 고기, 운수기재, 전기설비, 기계 지어 물까지 수입한다.

근로자들의 생활은 어려우며 38만명이 빈민굴에서 살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문회보, 대공보, 성도만보, 샹강상보, 홍콩스텐다드, 스타, 차이나 메일

방송 샹강방송, 샹강상업방송, 샹강텔레비죤방송

아오먼(마카오)

중국의 령토인 아오먼은 중국의 남해기슭, 샹강(홍콩)에서 60～70Km 되는곳에 자리잡고있다. 아오먼은 좁은 갑에 의하여 중국본토의 광둥성에 잇닿은 아오먼반도와 한찍도와 쮸도 등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넓이 16Km²

인구 31만명(1971년)

주민의 약 98%는 중국사람들이다.

공용어는 중국말

행정중심지 아오먼(마카오)

아오먼은 중국령토의 일부이다. 1516년부터 중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1557년에 중국의 해적토벌에 《원조》를 주었다는 구실로 거주권을 얻어내고 이곳을《조차지》로 만들었다. 1887년 12월에는 《조차료》지불조차 거부하면서 당시 청국정부에 강요하여 아오먼을 강점하였다.

그후 놈들은 중국인민의 버림을 받고 쫓겨난 장개석도당을 승인하고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여왔다.

중국정부는 1955년 10월 아오먼이 중국의 령토이며 이에 대하여 중국이 반환할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성명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아오먼에《총독》을 두고있다.

아오먼은 하나의 상업중심지였으나 샹강이 개항된후부터는 쇠퇴하였다.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며 년산 500만딸라에 이르는 물고기를 잡아 가공품으로 판다.

이밖에 직물과 성냥, 애자 등을 만드는 가내업과 금세공이 있으나 보잘것없다.

알곡생산이 적기때문에 식량을 사들인다.

아오먼은 또한 국제도박장을 통한 세금수입과 관광수입으로 재정을 유지하고있다.

아오먼은 샹강(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을 주로 한다. 대외무역액은 년간 6천 500만～7천만딸라이며 수입은 수출의 2배를 넘는다.

주요수출품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다 다시 세공한 금세공품을 비롯하여 각종 수공업제품, 식료품, 섬유제품이며 수입품은 금, 식량, 음료수 등이다.

몽골

(몽골인민공화국)

넓이 156만 5,000Km²

인구 137만 7,900명(1974년초)

주민의 90%이상이 몽골사람이며 그밖에 까자흐, 중국 사람 등이 산다.

공용어는 몽골말

수도 울란 바따르(주민 약 27만명)

정치

대인민후랄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3년이다.

대인민후랄회의의 휴회기간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상임위원회 제1부위원장 쓰. 룹싼(1973년 7월 선거)

정부 1973년 7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윰좌긴 쩨덴발(1966년 7—, 1973년 7월 재선), 외교부장 론돈긴 린친, 보위부장 바떤도르쥬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당** 1921년 3월 1일에 창건된 인민당을 1924년 8월 제3차당대회에서 인민혁명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윰좌긴 쩨덴발, **직업동맹**, **혁명청년동맹**, **근로녀성동맹**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몽골인민은 인민당(현재 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외래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물리치고 1921년 7월 11일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1924년 11월 26일에는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때로부터 당의 령도밑에 몽골은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발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회주의에로 나가게 되였다.

1925년 몽골인민혁명당 제4차대회에서 채택한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당의 기본과업을 규정한 강령에 따라 1940년까지 사회주의건설의 제1단계의 과업인 일체 봉건잔재를 숙청하였다.

1940년 몽골인민혁명당 제10차대회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제2단계의 과업인 사회주의기초축성을 위한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몽골은 1960년 7월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1971년 6월에 진행된 당 제16차대회는 제5차 5개년계획(1971～1975년)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사건: 1973년 4월 16일과 17일간에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농촌건설개선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6월 30일에 진행된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로동법령초안을 토의하고 그것을 대인민후랄 제8기 제1차회의의 토의에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7월 2일과 3일 이틀동안에 진행된 대인민후랄회의는 새로운 로동법령을 토의하고 승인하였다. 회의는 내각을 이전성원들로 새로 구성하고 내각총리로 유• 쩨덴발을 다시 임명하였으며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선거하였다.

12월 24일에 진행된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1974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을 승인하였다.

4월 18일과 19일에는 대인민후랄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근로자들의 제의, 청원 및 신소와 관련한 문제들, 가족에 관한 법안 및 기타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서들을 채택하였다.

6월 11~13일까지 진행된 농업협동조합동맹 제4차대회에서는 최고리사회 총결보고를 청취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새 성원들을 선거하였다.

몽골정부는 10월 8일과 10월 26일 두차례에 걸쳐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침략자들을 규탄하고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3년에 몽골정부는 10월에 필리핀, 12월에 끼쁘로스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해에 6월 14~19일까지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 6월 22~26일까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 10월 29~11월 2일까지 벌가리아공산당 총비서이며 국가쏘베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몽골을 각각 공식방문하였다.

몽골은 체스꼬슬로벤스꼬당및정부대표단과 6월 18일 두 정부사이의 우호및협조에 관한 조약을, 웰남당및정부대표단과는 6월 25일 두 정부사이의 1974~1975년도에 몽골이 웰남에 경제원조를 무상으로 줄데 관한 협정과 1974년도 상품호상공급및지불에 관한 협정을 각각 조인하였다.

이해에 몽골정부 총리는 1월에 쏘련, 2월에 인도, 11월에 이란을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몽골은 축산업을 위주로 하는 사회주의적농업—공업국가이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60%에 이르고있으며 특히 인구 한사람당 집짐승마리수(평균 19마리)에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집짐승들을 위한 1억 3천 300만헥터의 자연방목지가운데 6천만헥터에 관개수가 흘러든다. 1973년에 300만헥터의 방목지에 물을 댈수 있게 하였으며 많은 우물과 230여개의 저수지를 만들었다.

1970년현재 272개의 농업협동조합들이 있었는데 매개 협동조합들은 약 6만마리의 집짐승을 길렀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말, 소, 락타이다.

1972년에 집짐승마리수는 모두 2천 550만마리였는데 그중 60%가 양이였다. 1973년에 집짐승마리수는 43만마리 더 늘어났다.

농산업은 혁명이후 새로 발전하기 시작한 부문이다. 1973년말에 국영농장들과 농업협동조합들의 씨붙임땅은 71만 6천헥터였다. 그중 60%는 모래 혹은 진흙땅이다. 1958년에 비하여 1973년에 뜨락또르대수는 10.4배, 수확기는 5.6배로 늘어났다.

주요농산물은 밀, 귀밀, 보리, 감자 등이다. 1973년에 47만 6천 600여톤의 알곡이 생산되였다. 이해에 농산물생산은 13% 늘었다.

공업도 혁명후에 창설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쇠돌, 금, 은, 동, 망간, 몰리브덴, 중석 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축산물가공을 위주로 하는 식료공업, 양털가공 및 가죽공업, 모방직공업과 채취공업, 건재공업, 유색금속공업, 연료동력공업, 목재가공업 등이다.

주요공업지구는 수도이외에 쵸이발싼, 수헤바따르, 다르한시이다.

1973년에 공업총생산액은 1972년에 비하여 8.5% 늘었다. 특히 연료동력, 방직, 피복, 식료, 건재, 유색금속 공업부문이 빨리 발전하였다.

1973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전력은 4.7%, 모직물은 5.6%, 건재는 6.8% 더 생산되였다.

지하자원의 탐사와 개발 사업이 진척되여 동 및 몰리브덴 광산이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1973년까지 160개소의 석탄매장지(총매장량 근 200억톤)가 발견되였다.

운수의 기본은 60%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철도운수이며 울란 바따르를 중심으로 자동차길이 사방으로 뻗었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가죽, 양털, 고기 및 그 가공품이며 공업설비, 건재, 농기구, 화학제품, 일용필수품 등을 수입한다.

대외무역의 90%이상을 사회주의나라들과 진행하고있다.

교육부문에는 예산의 약 3분의 1이 돌려지고있다.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으며 1973년 3월 현재 보통교육부문 학교는 532개있었다. 여기에서 26만 1천 2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있었다.

보건부문에서는 1973년에 그전해에 비하여 병원침대수는 5.4%, 의사수는 5.5% 각각 늘었다.

출판보도; 통신 몬짜메

신문 우넨(당및정부기관지), 허덜머르(직업동맹기관지), 잘로쵸딘 우넨(혁명청년동맹기관지), 나뮌 아미드랄(인민혁명당기관잡지)

방송 울란 바따르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6년 5월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같은해 11월에는 경제및문화협정을 맺었다.

1969년 6월 7일에는 우리 나라와 령사협약을 체결하였다.

1960년 8월 12일에 몽골조선친선협회가, 1961년 7월 7일에는 조선몽골친선협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3년 10월 3일 우리 나라 정부와 몽골정부사이의 1974년도 상품류통및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이보다 앞서 6월 16일에는 두 나라 정부사이의 1972—1973년도 문화교류계획서에 대한 보충의정서가 울란 바따르에서 각각 조인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5돐에 즈음하여 9월 7일 울란 바따르에서 경축집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울란 바따르시에 있는 종합인쇄공장에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4일 울란 바따르편의봉사관리국에서 각각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졌다.

6월 19일 체스꼬슬로벤스꼬당및정부대표단의 몽골방문결과에 관한 공동콤뮤니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나라 정부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1973년에 몽조친선협회대표단(7월), 과학기술협조대표단(11월), 기자대표단(1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대표단(3월), 정부무역대표단(10월), 조몽친선대표단(9월), 기관차축구선수단(8월)이 몽골을 방문하였다.

웰 남

(웰남민주공화국)

넓이 15만 8, 750km²
인구 2, 100만명 (1971년말)
주민은 웰남족외에 60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나 총인구의 약 90%는 웰남족이다.
공용어는 웰남말
수도 하노이 (주민 65만명)

정 치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1971년 4월 제4기 인민회의는 420명의 대의원을 선거하였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정
주석 임기 4년인 주석은 국방회의와 특별정치회의 의장을 겸한다.
주석 손덕승 (1969년 9월 3일—)
정부 1971년 6월에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범문동 (1964년 7월—), 외교부장 원유정, 국방부장 무원갑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30년 2월 3일에 창건된 인도지나공산당을 1951년 2월 3일 제2차전국대표자회의에서 로동당으로 고침, 제1비서 려순, 민주당 1944년에 인테리들과 민족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조직, 사회당 1946년에 인테리들을 중심으로 조직, 조국전선, 직업련맹, 호지명로동청년동맹, 청년련맹 (모든 청년들을 망라), 녀성동맹

1954년 7월 웰남의 독립, 자주권, 통일 및 령토완정을 인정하는 제네바협정이 체결되였으나 미제는 이 협정을 파괴유린하고 웰남에 대한 침략책동을 계속 감행하였다. 미제는 1956년에 남부웰남에서 괴뢰정권을 조작하였으며 1962년에는 사이공에 《군사원조사령부》를 설치하고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면서 이른바 《특수전쟁》을 벌려놓았다. 1964년 8월에 이르러 미제는 《바크보만》사건을 날조하고 1965년부터 북부웰남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50여만의 제놈들의 침략군과 수많은 추종국가 및 괴뢰군을 끌어들여 남부웰남에서《특수전쟁》을《국부전쟁》으로 확대하였다.

웰남침략전쟁에서 참패를 거듭하게 된 미제는 제놈들의 침략책동을 가리기 위하여《평화협상》을 떠벌렸으며 그 막뒤에서 웰남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였다.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1965년 4월 7일 4개 항목의 립장을 천명하고 웰남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웰남문제해결을 위하여 1968년 5월 2일부터 민주웰남과 미국간에 빠리평화회담이 28차례에 걸쳐 진행되였으며 1969년 1월 25일 이후부터는 174차례의《4자회의》(남부웰남공화대표,사이공괴뢰포함)가 진행되였다. 또한 민주웰남과 미국간에는 1969년 8월이래 여러차례의 비밀회담들이 진행되였다. 웰남침략전쟁에서 정치군사적패배,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강력한 압력에 부닥친 미제는 근 4년간 끌어온 회담의 많은 점들에서 웰남인민앞에 굴복하고 1973년 1월 27일 정화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협정조인후 1973년 한해동안에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도당은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온갖 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함으로써 웰남정세를 의연히 긴장시켰다.

미제는 남부웰남에서 군사인원을 유지하였으며 북부웰남 수로에서 기뢰를 해제할데 대한 공약을 리행하지 않았다. 미제정찰기들은 이해에 39회나 민주웰남령공을 침범하였으며 12월 6일에는 웰남침략전쟁에서 악명떨친 핵항공모함《미드웨이》호를 또다시 바크보만에 들이밀었다.

남부웰남괴뢰도당은 2월 9일 4자공동군사위원회 웰남민주공화국측 군사대표단의 한조가 남부웰남 중부고원지대의 어느 한지역에 도착하였을 때 수많은 무뢰한들을 내몰아 그들을 공격하여 이 조의 성원들을 부상시키거나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2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와 사이공괴뢰도당이 협정조항들을 존중하고 정확히 리행할 대신에 놈들이 남부웰남에서 사단 혹은 련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해방지역을 공격하고 인민들에 대한 테로와 탄압을 강화하면서 북부웰남의 령해와 항구, 수로들에서의 기뢰해제를 고의적으로 질질 끄는 등 정화협정의 가장 중요하고도 긴요한 조항들을 공공연히 파괴유린하고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까밝혔다. 3월 30일에도 이 나라 정부는 웰남정화협정이 효력을 가지게 된 이후 60일동안의 이 협정리행정형에 관한 성명에서 미제와 사이공괴뢰도당의 범죄적죄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놈들의 범죄적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여 민주웰남 외교부는 7월 31일, 10월 8일, 11월 3일, 11월 27일, 11월 30일에, 외교부 대변인은 7월 25일, 8월 16일, 11월 28일, 12월 2일과 3일, 12월 15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3년에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는 1월에 핀란드, 2월에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3월에 말레이시아, 4월에 프랑스, 부룬디, 8월에 이슬란드, 이란, 9월에 일본,영국, 10월에 아르헨띠나, 감비아, 11월에 상부볼따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해에 웰남 당및정부대표단 (려순과 범문동이 인솔) 이 6월 4~11일까지 중국, 7월 9~16일까지 쏘련을 각각 방문하였다. 중국방문기간에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고 중국이 1974년에 북부웰남에 경제및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줄데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쏘련방문기간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쏘련이 북부웰남의 인민경제복구발전에 원조를 줄데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룩되였으며 쏘련이 이 나라에서 인민경제를 복구하며 대공업기업소들을 건설하는데 협조를 줄 용의가 있다는것을 지적하고 지난시기 준 차관을 무상원조로 간주하기로 하였다는것이 강조되였다.

또한 웰남 당및정부대표단 (단장 려순) 이 11월 2~6일까지 라오스해방지역을 방문하였다. 6일에 조인된 공동성명에는 반미구국투쟁에서 두 나라 인민이 련대성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조하며 호상 의거할것이라는것이 지적되였다.

웰남 당및정부대표단 (단장 범문동) 은 6월에 몽골, 7월에 뽈스까, 로므니아, 8월에 벌가리아, 10월에 민주독일, 체스꼬슬로벤스꼬, 알바니아를 방문하였으며 이 기간동에 몽골이 1974~1975년도에 웰남에 경제원조를 무상으로 줄데 관한 협정, 체스꼬슬로벤스꼬가 웰남에 경제및 군사원조를 줄데 관한 협정, 민주독일이 웰남에 경제및군사원조를 줄데 관한 협정, 알바니아가 웰남에 경제원조를 줄데 관한 협정이 각각 조인되였다.

1973년 4월에 캄보쟈 국가원수이며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8월에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 9월에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정부총리인 피델 까스뜨로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2월에 미국대통령 특별보좌관 키신저가 웰남에 와서 호상 관계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웰남에는 석탄, 쇠돌, 주석, 린산염, 중석, 금, 연 등 지하자원이 많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이며 그밖에 고무, 목화, 담배, 사탕수수, 차, 커피, 바나나, 야자, 카사바 등 공예 및 열대 농산물들이 난다.

웰남에서는 1956년까지 토지개혁이 완수되였으며 1958년부터 협동화운동을 시작하여 1971년초에 94.3%의 농가가 농업협동조합에 망라되였다. 부침땅의 90%에 알곡작물을 심고있는데 그중 논이 80%이상을 차지한다.

1972년에 농업협동조합들에서는 12년래의 가장 높은 수확을 거두었으나 1973년 정화이후 여러달째 계속된 자연재해때문에 알곡생산에 지장을 받았다. 근 2만개의 농업협동조합들에서는 올벼생산에서 풍작을 이룩하였다.

국영농장들에서는 1973년 여섯달동안에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콩파 차 생산량이 각각 34%와 25% 늘어났다.

관개공사도 적극 추진되여 저수지들도 새로 건설되였다. 통 무어이저수지는 전국적으로 큰것에 속하는것으로서 그 저수량은 9천만m^3나 된다.

이 저수지의 물로써 2만 7천정보의 논밭을 적실수 있게 되였다.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의 마리수도 현저히 늘었는데 1973년에 돼지마리수의 증가계획은 4.4% 초과수행하였다.

북부웰남인민은 정화후 복구사업과 함께 공업생산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1973년에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파괴되였던 687개의 공업기업소들이 이미 복구개건되였으며 많은 공장, 광산들에서 생산이 정상화되였다. 파괴되였던 발전소, 변전소, 송전망들이 원상대로 복구되여 이해에 전력공업부문에서 전력생산계획이 10.4% 초과수행되였다. 많은 탄광들의 석탄생산량이 전쟁전수준에 이르렀다.

북부웰남의 가장 큰 강철기지인 타이 웬강철공장의 제1호용광로가 원상대로 복구되였다.

여러 방직공장들도 복구되였는데 《3.8》방직공장의 생산이 정상상태에 들어섰다.

큰 세멘트생산기지의 하나인 하이퐁 세멘트공장에서도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근 3천개의 수공업생산협동조합들이 2.4분기에 전분기보다 21.2%나 더 많은 여러가지 제품들을 생산하였다.

이리하여 1973년에 공업 및 수공업 제품 총생산액은 1965년수준을 17% 릉가하였다.

정화후 짧은 기간에 모든 기본간선 철길의 운행이 회복되였다. 1973년 상반년동안에 느게 안주, 하타이주를 비롯한 8개주의 농촌지역에서만도 3천 260여km의 도로와 764개의 크고 작은 다리와 지하수로들이 건설중이거나 복구되였다.

1973~1974학년도에 보통교육부문 학생수는 그전 학년도에 비해 6% 늘었다. 1972~1973학년도에 산간마을 초급중학교 및 고급중학교 학생수는 평균 15% 늘어났다.

출판보도; 통신 웰남통신

신문 인민 (로동당기관지), 구국 (조국전선기관지), 인민군 (인민군기관지)

잡지 학습 (로동당리론잡지)

방송 《웰남의 소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0년 1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7년 11월 20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5년 8월 12일에 웰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우리 나라에는 1965년 8월 27일에 조선웰남친선협회가 조직되였다.

1973년 6월 1일에 두 나라간의 1973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7월 16일에 두 나라 사이의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8차회의 의정서와 우리 나라 과학원과 웰남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이의 1973~1974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하노이에서 각각 조인되였다.

6월 30일 하노이에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웰남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웰남조선친선협회의 공동명의로 사진전시회가 일주일간 열렸으며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9월 7일 웰남조국전선 중앙위원회와 웰남조선친선협회는 기념경축대회를 조직하였다. 9월 8일에는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9일에는 영화상영주간이 하노이에서 개막되였다.

웰남외교부 대변인은 2월 7일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새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7월 12일에는 미제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모략선전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7월 28일에는 미국무장관 로저스놈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두개조선》을 조작하려고 꾀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9월 19일에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새로운 전쟁모의들을 벌린것을 규탄하여 각각 성명을 냈다.

11월 30일 이 나라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제1위원회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가 끝난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우리 나라 외교부의 11월 23일부 성명을 지지하였다.

12월 17일 하노이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박정희파쑈독재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애국적인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모임을 가졌다.

1973년 6월 26~7월 1일까지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부총리인 범문동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웰남 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대표단은 6월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7월 1일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같은날 우리 나라 정부가 웰남에 경제및기술적 원조를 제공할데 관한 두 나라 정부사이의 협정과 우리 나라와 웰남 정부사이의 1974년도 상품류통및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월에는 웰남정부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웰남친선협회대표단 (8월), 농업과학자대표단 (12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남 부 웰 남

(남부웰남공화)

넓이 17만 3,809Km^2 (남부웰남 전지역)

인구 1,900만명 (1971년말, 남부웰남 전인구)

정 치

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1969년 6월에 남부웰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소수민족, 정치세력인사들과 지식인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였으며 정부의 대내외정책에 관한 의견과 조언을 주는 과업을 수행한다.

위원장 원우수

공화림시혁명정부 1969년 6월 6~8일까지의 사이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과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을 비롯한 남부웰남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및 각계각층의 대표들은 남부웰남 국민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 이 정부를 수립하였다.

주석 휭떤팔, 외교부장 웬티빙, 국방부장 쩐남쭝

정당, 사회단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1960년 12월 20일에 창건되였다. 남부웰남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집결한 반미구국통일전선체이다. 전선은 남부웰남인민의 진정한 리익을 대표하며 그들의 반미구국항전의 조직자이며 령도자이다. 위원장 원우수, **인민혁명당** 1962년 1월 1일에 창건, 로동계급의 혁명적전위대로서 남부웰남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 1968년 4월 20일 남부웰남의 적강점지역내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과 정당, 대중단체들을 망라하여 조직된 반미구국통일전선체이다.

해방지역에는 해방로동런맹, **호지명인민혁명청년동맹**(1973년 8월초 남부웰남인민혁명청년동맹 제2차대회에서 현재 이름으로 고침), **해방녀성동맹**(1974년 1월 제4차대회진행)

1973년 1월 27일 빠리에서 《웰남에서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협정에 의하여 남부웰남의 긴전선에 걸쳐 정화가 실시되였다.

6월 13일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 조인측들은 1월 27일 협정과 그의 의정서들의 모든 조항들의 엄격한 존중과 성실한 리행을 위한 14개 항목의 공동콤뮤니케에 조인하였다.

빠리협정과 공동콤뮤니케 정신에 기초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측은 민족적화목과 평화를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부웰남인민은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의 엄격한 리행을 보장하며 해방지역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빠리협정의 엄격한 리행을 위하여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사령부는 협정조인 직후인 1973년 1월 28일 남부웰남 모든 전선들에서 정화를 실시할데 대하여 전체 인민해방무장력에 명령하였다.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는 포로된 군사인원 및 민간인들의 송환사업을 진지하게 집행하였다. 60일동안에 127명의 미국군사인원과 외국민간인들을 미국에, 5천 433명의 군사인원포로들을 사이공괴뢰도당에게 넘겨주었다.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의 군사대표단은 4자공동군사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성실히 리행하였으며 국제감시및관리위원회의 활동에 온갖 편의를 보장하였다. 공화림시혁명정부대표단은 6월 28일 빠리에서 진행된 남부웰남 두 당사측의 협상 제14차회의에서 남부웰남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6개 항목 제안을 내놓았다.

제안에는 정규군 및 비정규군, 두 당사측의 무장경찰이 남부웰남전역에서 1973년 6월 14일에 명령된 정화를 엄격히 준수하며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과 의정서들을 철저히 리행할것, 전체 웰남민간인들을 될수록 빨리 송환하며 6월 13일 공동콤뮤니케조인후 45일이내에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것을 다할것,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의 보장, 민족화해일치 전국리사회수립, 남부웰남에서의 자유로운 민주주의적총선거를 실시할것 등의 문제들이 들어있다.

7월 18일 두 당사측의 협상 제17차회의에서는 남부웰남인민의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중요제안을 내놓았다. 새 제안에서는 공민들의 평등권보장, 개인의 자유보장,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종교와 신앙의 자유보장, 소유와 기업의 자유보장 등의 문제들을 내놓았다.그러나 정화협정과 공동콤뮤니케에 대한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도당의 파괴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부웰남에서는 의연히 전쟁상태가 지속되였으며 완전한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였다. 사이공괴뢰정권통치하의 지역에서는 20여만의《정치범》들이 여전히 감금되여있었으며 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마저 유린당하였다. 민족화해일치 전국리사회는 수립되지 못하였고 정치군사정세는 긴장을 가시지 못하였다. 빠리협정이 발효된 직후인 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만도 미제와 사이공괴뢰도당의 협정위반사건은 무려 30만 1천여건에 달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여도 이 기간에 놈들은 3만 6천여명을 체포, 구금하였으며 수십만톤의 입쌀과 수만마리의 집짐승, 남부웰남돈 1천 450억피아스터를 략탈하고 92만여명을 집단수용소에 강제로 잡아넣었다.

사이공괴뢰도당은 공동콤뮤니케의 웰남인포로석방에 관한 조항을 짓밟고 20여만의《정치범》가운데서 그 일부만을 송환하였다. 지어 놈들은 저들이 인정한 5천 81명의 웰남비군사인원도 전부 송환하지 않고 1천 500여명만을 송환하였다.

미제가 빠리협정이 조인된 이후에도 남부웰남에 민간인으로 가장하여 남겨둔 2만 4천여명의 군사인원들은 사이공괴뢰당국의 전쟁기구를 지휘하고있다.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국가 군대들은 남부웰남에서 철수할 때 수십억딸라에 해당하는 무기와 탄약, 작전물자들을 그냥 남겨두었다. 미제는 남부웰남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철폐하지 않았으며 빠리협정조인이후에도 200대의 군용차와 500대의 군용비행기를 포함하여 각종 살인무기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끌어들여 남부웰남괴뢰도당에게 넘겨주었다.

사이공괴뢰도당은 1973년 1월 28일부터 12월까지 3만 4천여회에 걸쳐 해방지역에 대한 범죄적인 《땅빼앗기》작전을 벌렸으며 11월 7일에는 공화림시혁명정부통제하에 있는 로크닌읍과 부도프지역을 마구 폭격하여 100여명의 주민들을 살상하고 수백동의 살림집들과 많은 학교, 병원들을 파괴함으로써 남부웰남정세를 더욱 격화시켰다.

1973년 6월 현재 남부웰남의 해방지역에는 44개주, 6개의 시, 약 200개의 군과 2천개의 리에 혁명정권이, 중부중앙지구, 중부남쪽지구, 남부중앙지구 등에 림시혁명정부의 대표위원회가 수립되였다.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는 빠리협정과 6월 13일 공동콤뮤니케의 매 조항들을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해방지역들에서 민족화해정책을 실시하면서 인민들의 완전한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였다. 이해에 그의 국제적위신은 일층 높아졌다.

1973년현재 38개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스웨리예, 핀란드, 단마르크, 노르웨이 및 프랑스에 공보부를 두고있다. 또한 이해 7월현재 18개 나라의 대사들이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에게 신임장을 바쳤다.

1973년에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인 원우수를 단장으로 하는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대표단이 9월에 알제리, 세네갈, 유고슬라비아, 탄자니아, 10월에 우간다, 11월에 중국, 12월에 뽈스까, 웽그리아, 쏘련을 각각 방문하였으며 방문기간에 공동콤뮤니케들이 발표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농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인구의 85%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주요농산물은 쌀, 고무, 강냉이, 사탕, 담배 등이다.

공화림시혁명정부는 해방지역에서 지주놈들의 토지 250만헥터를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농민들은 호상협조반과 공동작업반을 무어 파괴된 농촌경리를 복구하고 관개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알곡생산량을 부단히 늘이였다.

1973년에 빈 롱주에서는 500헥터의 농경지가 복구되여 논은 10만헥터에 달하였다. 이곳 농민들은 30Km의 물길을 파서 1만 5천헥터의 논에 물을 댔다.

해방지역에서는 축산업도 발전되고 있는데 물소와 돼지 마리수가 현저히 늘어났다. 물소는 주로 부림소로 리용되고있다.

공업도 발전하고있다. 방직공장, 목재가공공장, 종이공장, 사탕공장, 식료품가공공장 등 많은 공장들이 일떠서고있다. 1973년에는 첫 농기구수리공장이 일떠섰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설치되여 100만명이상이 공부하고있으며 교원양성과 교과서출판도 자체로 하고있다. 키엔 퐁주해방지역에서는 빠리협정이 조인된후 80개의 학급을 가진 31개의 학교를 지어 1천 900여명의 학생들을 받아들였다.

보건망도 늘어나 매주들에 병원, 군들에 진료소, 마을들에는 의료초소들이 설치되였으며 기동의료대들이 조직되여 산간지대에 들어가 치료사업을 하고있다.

중앙영화촬영소만도 5개이며 각주에 촬영소가 있다. 5개의 중앙가무단과 각주의 가무단들이 활동하면서 해방지역들에서 순회공연을 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해방통신 (해방지역통신),

신문 기애퐁 (민족해방전선기관지), 기애퐁 쾅 (인민해방무장력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5월에 외교대표부급의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상설대표부가 우리 나라에 설치되였다. 1969년 6월 12일 우리 나라 정부와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가 맺어졌다. 그리하여 조선주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상설대표부는 대사관으로, 상설대표부 대표는 특명전권대사로 사업하게 되였다.

1972년 6월 9일 우리 나라 정부와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사이에 외교 및 공무 려권소지자들의 사증제도를 페지할데 대한 협약이 체결되였다.

1973년 2월 27일 남부웰남공화 외교부대변인은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의 2월 3일 성명을 지지하고 남조선 전해역에서의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전쟁연습소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3월 13일에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대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고 3월8일부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의 성명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4월 8일에 공화외교부 대변인은 남조선에서 미제가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거듭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31일 공화외교부 대변인은 미제가 저들의 수급사환군 로저스란 놈을 남조선에 보내여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을 냈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우수의 알제리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9월 15일) 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이 중지되여야 한다고 강조되였다.

원우수의 탄자니아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9월 28일) 에는 《미군은 남조선에서 철수해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해체되여야 한다》는것이 특별히 강조되였다.

1973년 4월 12~21일까지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외교부장 웬티빙을 단장으로 하는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및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12월 21~29일까지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 기간에 우리 나라가 남부웰남공화에 무상으로 경제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 (12월 28일) 이 조인되였다.

라 오 스

(라오스왕국)

넓이 23만 6, 800km²
인구 303만명 (1971년)
30여개의 종족이 살고있는데 주민의 3분의 2는 라오족이다.
국어는 라오스말
수도 비엔티안 (주민 14만명)

정 치

국왕 립헌군주국으로서 국왕이 총리를 임명한다.

국왕 사방 바타나 (1959년 10월—)

림시민족련합정부 1973년 9월 14일 협정의정서조인후 애국력량측 (애국전선과 애국적중립파세력) 파 비엔티안측 사이의 13개월간의 협상끝에 1974년 4월 5일 림시민족련합정부수립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14명의 각료 (애국전선측파 비엔티안측이 각각 5명, 중립파 4명, 부총리 2명 포함) 들로 구성되였다. 총리 수반나 푸마 (1974년 4월 5일—), 부총리 겸 외교부장 푸미 봉비치트 (애국전선측), 국방부장 시수크 나 참파사크 (비엔티안측)

민족련립정치리사회 독립적인 기구로서 림시민족련합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림시민족련합정부와 함께 1974년 4월 5일에 수립되였다. 2명의 부위원장과 42명의 위원 (애국전선측파 비엔티안측이 각각 16명, 중립파 10명) 들로 구성되였다. 위원장 수파누봉, 부위원장 겸 비서장 캄수크 케올라 (애국적중립파세력동맹 위원장)

정당, 사회단체; 라오스애국전선 1950년 8월에 창건되였던 《라오스자유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여 1956년 1월 6일 창건, 이 전선은 당면과업으로 라오스에서 반제반봉건민주혁명수행을 목적으로 하면서 전체 인민과 각 정당들이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각 민족들의 평등의 보장, 인민생활의 개선 등을 위해 투쟁한다. 위원장 수파누봉, 총비서 푸미 봉비치트, **인민당** 1955년 3월 22일 창건, **평화중립민족적화목및통일옹호위원회** 1960년 10월 31일 애국전선, 평화및중립정책옹호위원회, 청년단체, 애국적국회의원, 각 민족, 각계층, 승려 및 왕족 대표들로 창설, **애국적중립파세력동맹위원회, 청년련맹, 애국청년조직, 애국녀성동맹**

1962년 7월 23일 라오스의 중립, 독립, 자주권, 령토완정을 인정하는 제네바협정이 조인되고 3파련립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미제는 이 협정을 란폭하게 파괴유린하면서 라오스에 대한 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제는 애국력량과 중립파세력의 련합을 파괴하고 우파세력을 강화한데 기초하여 1964년 4월 군사정변을 일으켜 3파련립정부를 파괴하고 비엔티안괴뢰정권을 꾸며냈다.

또한 미제는 저들의 침략군과 라오스반동군대, 남부월남괴뢰, 타이, 장개석도당의 고용병까지 끌어들이여 해방지역에 대한 공격에로 내몰았다.

애국전선의 령도밑에 반미구국항전에 일며선 라오스인민들과 애국적무장력은 1973년현재 100여만의 인민들을 망라하는 전국령토의 5분의 4를 해방하였다.

한편 애국전선은 라오스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70년 3월 6일 애국전선은 라오스문제의 정치적해결을 위한 5개항목의 성명을 발표한 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라오스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분쟁당사자들이 회담할것을 제의하였다. 애국전선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라오스애국력량대표단 (애국전선대표와 애국적중립파세력동맹대표 포함) 과 비엔티안대표단간에 1972년 10월 17일부터 비엔티안에서 10여차례의 예비회담을 거쳐 1973년 2월 21일《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라오스애국전선의 제안을 기초로 한 정화협정이 조인됨으로써 라오스전역에서 정화가 실현되고 18년동안이나 라오스에서 횡포한 내정간섭과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벌려온 미제는 라오스에서 침략의 손을 떼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1973년에 라오스해방지역 인민들은 정화후 협정을 엄격히 리행하면서 해방지역을 공고히 하고 전쟁상처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미구국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라오스인민은 오늘 〈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의 엄격한 리행을 보장하며 해방지역을 공고발전시키고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정화협정이 조인되자 애국력량은 자기측의 무장력에 라오스전역에서 완전한 현지정화를 동시에 실시할것을 명령하였으며 전체 애국적무장력은 정화명령을 정확히 집행하였다.

2월 22일에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애국적중립파군사령부는 호소문과 명령을 발표하여 정화협정을 엄격히, 철저히 리행할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전체 라오스인민이 평화롭고 독립된, 중립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통일되고 번영하는 라오스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진할것을 호소하였다.

애국력량대표단은 협정에 규정된 군사적 및 정치적 문제들, 새로운 림시민족련합정부와 민족련립정치리사회의 구성, 루앙 프라방시와 비엔티안시의 중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엔티안측 대표단과의 회담에 곧 착수하였으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제안들이 담긴 협정에 첨부할 의정서초안을 제시하였다. 협정리행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애국전선측은 3월 28일 미국측에 전쟁시기 라오스에서 포로된 미국의 군사인원과 비군사인원들을 협정에 규정된 기한을 앞당겨 돌려보냈다.

그러나 미제와 비엔티안괴뢰군은 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하였다. 정화협정이 조인된 이튿날인 2월 23일 미제폭격기들이 애국력량의 통제지역인 히엥 광주변과 파크송읍주변을 폭격하였으며 4월 20일까지만도 4천여차례나 해방지역들에 대한 폭격 및 정탐비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의 두목 닉슨의 지시에 따라 4월 16일 태평양지구 미제침략군 총사령부는 《폭격작전을 재개》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발표하였다.

4월 16일 미제의《비 52》전략폭격기들은 자르평원—히엥 광지역에 대한 야수적인 집중폭격을 감행하였다. 비엔티안측은 자기 군대에 정화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징상적》인 과업을 수행할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비엔티안괴뢰군은 미제의 공중지원과 타이반동군의 지원밑에 해방지역에 대한 《토벌작전》을 거듭하였다. 미제와 반동들의 압력밑에 비엔티안측은 라오스의 정치 및 군사적 문제해결을 위한 쌍방회담을 지연시켰다.

4월 23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비엔티안괴뢰들이 정화협정을 파괴유린한데 대하여 규탄하고 라오스애국력량과 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정화협정위반행위를 짓부시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애국적중립파세력동맹위원회도 25일 애국전선의 23일부 성명을 지지하였다.

협정조인후 첫 다섯달동안에 7천번이나 협정을 위반한 미제와 우파괴뢰도당은 해방지역에 대한 야수적폭격과 범죄적지상공격을 감행하던끝에 8월 20일에는 드디여 군사정변을 조작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애국전선은 놈들의《정변목적이 쌍방간에 이미 합의된 것을 취소하며 조인된 협정의 리행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 의정서조인을 위한 비엔티안회담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며 라오스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데 있었다.》는것을 까밝혔다.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온갖 파괴음모책동을 짓부시면서 협정의정서조인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 온 애국전선측은 5월 17일 정치적 및 군사적 장래에 관한 8개항목의 제안을 또다시 내놓았다. 이 제안에 기초하여《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의정서》초안이 7월 27일 애국전선측과 비엔티안측 사이에 합의에 도달하였다.

9월 14일 독립후 세번째로 되는 라오스림시민족련합정부구성을 예견하여 애국력량과 비엔티안 대표들 사이에 협정의정서가 정식 조인되였다.협정의정서는 제9장 제28조로서 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림시민족련합정부는 쌍방의 동등한 수에 들어가지 않는 한 사람의 총리, 애국력량측과 비엔티안측에서 한 사람씩 나온 두 사람의 부총리, 도합 25명의 부장 및 부부장들로 구성된다.

림시민족련합정부는 또한 애국력량측 대표, 비엔티안측 대표, 쌍방의 어느측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다.

② 민족련립정치리사회는 쌍방의 대표들과 중립적인사들을 포함하여 공동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1명의 위원장, 2명의 부위원장, 상무위원 및 보통위원 도합 42명으로 구성된다.

민족련립정치리사회 상무위원회는 애국력량에 속하는 리사회위원장과 비서장직을 겸하는 부위원장, 비엔티안측에 속하는 1명의 부위원장 등 2명의 부위원장, 애국력량측에서 3명, 비엔티안측에서 4명 도합 7명의 상무위원들로 구성된다.

③ 민족련립정치리사회와 림시민족련합정부는 정기적으로 국사를 처리하는 두개의 자립적이고 평등한 기관이다. 민족련립정치리사회는 민족회의와 확정적인 민족련합정부를 가능한한 속히 수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조직할 과업을 지닌다.

④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배치되는 모든 법과 일체 규정, 온갖 단체

들과 조직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한다.

⑤ 루앙 프라방과 비엔티안시를 중립화한 두 도시는 쌍방무력에 의하여 공동으로 방위된다.

쌍방은 같은 수와 동등한 장비를 가진 공동경찰군을 조직하며 량측은 비엔티안에 1천명, 루앙 프라방에 500명씩 경찰군을 둔다.

⑥ 1973년 2월 22일의 정화가 라오스전역에서 실제적인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쌍방무력의 사령관들은 자기측의 모든 정규군 및 무장경찰부대들에 정화명령과 정화협정 및 의정서의 모든 조항들을 성실하게 리행할것을 명령할 의무를 지닌다.

⑦ 림시민족련합정부가 승인한 외교대표부들의 인원들을 제외하고 라오스 주재 외국대사관들과 령사관들에 가장한 군사인원들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대와 군사인원들은 완전히 철수하여야 한다.

⑧ 협정의 리행을 위하여 구성된 중앙공동위원회는 협정과 의정서 조항들을 리행하는데서 쌍방을 조절하며 인도할 과업을 지닌다.

협정의정서에 근거하여 비엔티안과 루앙 프라방 두 도시를《중립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10월 17~12월 18일까지의 기간에 라오스애국력량측 군사인원들과 물자들을 이 도시들에 실어나르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또한 협정의정서에 따라 구성된 중앙공동위원회는 11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가지고 그후 두 도시의 《중립화》문제에 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토의하였으나 두측의 의견차이로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애국력량측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다음 림시민족련합정부와 민족련립정치리사회를 구성할것을 주장하였다.

10월 8일과 9일 삼 누아에서 진행된 애국전선 중앙위원회와 애국적중립파세력동맹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한 정치보고에서 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은 라오스인민의 당면과업을 제시하면서 민족적단결 특히 두 애국력량의 단결과 그의 력량을 더욱 강화하며 비엔티안협정리행을 위해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73년 11월 2~6일까지 웰남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려순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민주공화국 당 및정부대표단이 라오스해방지역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업과 림업에 종사하며 농업에서 벼농사가 기본이다. 부침땅은 약 100만정보이며 그중 논이 약 96만정보이다.

주요농산물은 벼(년산 85만~90만t), 강냉이 (2만t), 담배 (4천t), 목화 (1천 500t), 고무, 아편 등이다.

령토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해방지역의 인민들은 정화후 묵은 밭을 일구고 폭탄구뎅이를 메워 새 땅을 얻어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다.

《폭탄구뎅이를 메워 밭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운동을 벌려 히엥 광주에서만도 1973년에 벼재배면적은 전해에 비하여 20% 늘었으며 메마른 땅면적은 25% 줄었다.

우돔 사이주해방지역 인민들은 이해 상반년동안에 32개의 관개시설을 수리하거나 건설하였으며 100헥타의 논을 새로 일구었다. 이 주의 올벼재배면적은 근3천정보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해방지역에서는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고있다.

알곡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축산업도 발전하고있는데 1972년에 퐁 살리주를 비롯한 여러 주의 해방지역에서 물소마리수는 1970년보다 35.7%, 돼지는 22.4% 더 불었다. 히엥 광주에서는 1972년에 비하여 1973년에 소의 마리수는 약 20% 늘었다.

공업과 수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1972년에 벌써 방직공장, 기계공장, 자동차수리공장, 인쇄공장, 제약공장 등 적지않은 중소규모공장들이 일떠섰다.

10개주의 해방지역에 철공소가 있으며 수많은 마을들에 야장간과 농기구수리소들이 일떠섰다. 1973년에 퐁 살리주에서는 2천 700여점의 농쟁기들이 생산되였으며 삼 누아주에서는 한개 군에만도 1만2천여점의 농쟁기가 공급되였다.

특히 해방지역 산간지대에서는 돌소금캐기가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국영 및 개인 부문의 직물생산이 늘어났다.

도자기, 바구니, 가죽제품 등 여러가지 가내수공업제품들도 많이 생산되고있다.

해방지역에는 해방전에 비하여 2배나 되는 4천Km의 도로망이 건설되였다. 군과 리들을 련결하는 도로망은 2천 500Km에 달한다. 소형발동선과 증기선들이 다닐수 있게 수로들이 새로 보수되였으며 자동차수만도 1973년에 5년전에 비하여 3배로 늘었다.

의료망이 마을과 부락들까지 미치고 있다.

43개소의 의학학교와 적지않은 마을들에 의료일군양성소가 있다. 3천 700여명의 보건일군들과 약제사들이 일하며 부락들마다에서 일하는 간호원수는 근 5천명에 달한다.

해방지역에는 2천 800개의 보건시설과 2개의 중앙병원, 18개의 주병원, 96개의 군병원 그리고 108개의 진료소들이 있으며 1천명당 20대의 침대가 차례진다.

침대수와 보건일군수는 피뢰뢍치지역보다 훨씬 릉가하고있다.

교육문화부문도 빨리 발전하고있다. 1개의 교예단, 4개의 중앙예술단, 1개의 민요단이 있다. 10년제일반교육망에 속한 학생수는 해방지역인구의 9.4%에 달한다.

1973년 4월 11일에는 삼 누아에 첫대학인 교원대학이 개교식을 진행하였다.

1973년현재 1천 600여개 부락의 주민들이 글을 읽고 쓰게 되였다.

히엥 광주에는 100개의 각급 학급들에 500여명의 교원들이 있으며 1973~1974학년도의 학생수는 전년도보다 12%나 더 많은 7천여명에 이르렀다.

출판보도; 통신 파테트 라오통신 (애국전선의 통신)

신문 라오 하크사트(애국전선기관지)

방송 파테트 라오방송 (애국전선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2월 4일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이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대승리를 거둔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 외교부의 11월 23일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1972년 3월에 우리 나라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였으며 1973년 4월 23~5월 1일까지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캄 보 쟈

(캄보쟈왕국)

넓이 18만 1,035Km²

인구 700만명(1971년)

주민의 87%가 크메르족이며 그밖에 타이족, 라오족 등 20여개 종족들이 있다.

공용어는 캄보쟈말이나 프랑스말도 쓴다.

수도 프놈 펜(주민 150만명)

정 치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1960년 6월—)

왕국민족련합정부 1970년 5월 5일에 수립되였다. 총리 펜 누트(1970년 5월—), 부총리 겸 국방부장(민족해방인민무장력 총사령관) 키에우 삼판, 외교부장 사린 챠크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전선** 1970년 3월 23일창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체이다.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로동자련맹, 애국농민동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협회, 애국인테리협회, 애국승려협회**

1970년 3월 18일 미제는 캄보쟈에서 우익반동들을 부추겨 국가정변을 일으키고 반동적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캄보쟈국가원수 시하누크친왕은 3월 23일 조성된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출하기 위한《5개항목선언》을 발표하였다. 같은날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을 조직하고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을 창건하였으며 5월 5일에는 민족통일전선령도하의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수립하였다.

민족통일전선의 령도밑에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선 애국적인민들은 1973년현재 80%이상의 인구를 망라하는 전국령토의 90%이상을 해방하고 계속 미제와 괴뢰도당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캄보쟈 인민과 애국적무장력은 캄보쟈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공세를 벌려 새로운 승리를 거두고있으며 프놈 펜을 전면적으로 포위하고 론 놀, 시리크 마타크, 손 느곡 탄반역도당을 더는 헤여날수 없는 마지막 궁지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단행본, 6페지)

1973년에 영웅적 캄보쟈 인민과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년초부터 모든 전선에서 대규모적인 공세로 적들을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다. 1월에 벌써 1만 6천 500명의 적을 살상포로한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2월에 들어서면서 프놈 펜과 그 주변지역들에서 전례없는 대공세를 들이댔다. 2월 2일 적들의 통제밑에 있는 항구도시 시하누크빌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를 봉쇄하고 그후 2호도로와 기타 주요도로들을 차단하거나 점령하였으며 10일부터는《전례없는 가장 대규모적인 공격작전》을 벌렸다. 이 드세찬 공세앞에서 메콩강 항구도시 바남의 적진지들이 녹아나고 1호도로연선에 있는 프놈 펜 괴뢰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방위거점인 네아크 루웅이 완전히 고립되였다.

캄보쟈에 대한 침략정책이 전면적파탄의 위기에 부딪친 미제는 프놈 펜과 일부 도시에로 압축된 론 놀괴뢰도당을 내세워 1월 29일부터《공격작전을 중지》할것이라고 줴치게 하는 한편 이른바《캄보쟈에서의 평화회복》을 요란스럽게 떠들게 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비롯한 캄보쟈 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 지도자들은 1월 26일과 1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와 프놈 펜괴뢰도당의《평화》와《정화》놀음을 배격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립장을 지지하여 2월 3일 프놈 펜에 있는 270명의 애국적승려들은 청원서에 서명하였으며 같은달 13일에는 프놈 펜의 2천 700명의 각계층 대표들이 미제와 론 놀괴뢰도당의 기만적인《정화》책동을 규탄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련합정부의 단호한 결의에 당황한 미제는 2월 25일 캄보쟈에 대한 대규모적인 폭격을 재개한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하였으며《비 52》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수많은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해방지역에 대한 폭격을 전례없는 규모로 확대하였다. 1월말부터 8월 15일까지 미제는 3만 5천 400여대의 비행기로 24만톤에 달하는 폭탄을 마구 떨구었다.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이 기간에 프놈 펜에 대한 포위망을 더욱 좁히면서 13만 4천 300명의 적을 소탕하였다. 특히 그들은 장마철(5～10월) 기간에 1972년의 같은 기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9만 9천여명의 적을 살상포로하고 수많은 군용자동차, 무전기와 수천톤의 군수물자를 빼앗았으며 24만명의 주민들을 해방시켰다.

수세에 몰린 미제는 8월 15일부터 캄보쟈에 대한 폭격을 중지한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미제 두목 닉슨놈은 8월 15일 성명에서 캄보쟈에 대한 폭격중지후에도 론 놀괴뢰도당에 대한 군사, 경제《원조》와 캄보쟈에 대한 정찰비행을 계속하겠다고 줴쳤다.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는 8월 15일 성명에서 미제의 캄보쟈폭격중지는 침략전쟁의 새로운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구국항쟁을 계속할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1973～1974년 가물철(11～4월)에 들어서면서 적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공세를 들이대였다. 프놈 펜에 대한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의 포위망이 바싹 조여들자 론 놀매국도당은 프놈 펜주변 반경 20키로메터이내에 적들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무력을 배치하였으나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1973년에 이 지역에서만도 4만 6천명의 적을 쓸어눕혔다. 1972년 11월부터 1973년 11월까지의 기간에는 20만명의 적들을 소탕하였다.

론 놀괴뢰도당의 소굴 프놈 펜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으며 괴뢰두목놈들의 내부모순은 더욱 격화되였다.

2월 26일 프놈 펜에서 괴뢰고용병 수백명이 저들을 죽음터로 내몰고 있는 괴뢰중앙시청에 처들어가 군인폭동을 일으켰으며 3월 17일과 11월 19일에는 괴뢰공군기들이 론 놀도당이 둥지를 틀고있는《대통령궁전》을 폭격하여 수백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론 놀도당은 괴뢰참모부의 모든 장교들을 연금하고 괴뢰공군을 개편하는 소동을 벌렸다.

미제와 괴뢰도당을 반대하는 놈들의 통치지역내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도 힘차게 전개되였는데 2월 5일에는 프놈 펜의 거의 모든 공장로동자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파업과 시위 등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청년학생들이 강제징집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괴뢰《고위관리》들속에서까지 미제에게《론 놀을 제거하고 시하누크친왕을 즉시 복귀시킬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민족해방인민무장력의 승리적인 진격에 고무되여 적통치구역인민들과 괴뢰군병사들이 해방지역으로 집단적으로 넘어왔다. 9월에는 콤퐁챰시 주민 3만명이,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의 사이에만도 1천여명의 괴뢰군병사들이 해방지역으로 넘어왔다.

괴뢰우두머리들의 개싸움질로 하여 2월 24일《대롱령특별보좌관》놈이 《사임》하였으며 론 놀의 오른팔로 불리여온 시리크 마타크가 《부대통령》자리에 들어앉기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자리를 탐내여 기를 쓰고 돌아쳤다. 위기에 처한 론 놀괴뢰도당은 4월 4일《국가위험상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라 애국적인사들을 마구 잡아가두고 군사재판에 넘기는 등 파쑈적인 탄압소동을 강화하였다.

6월 1일에는 인 탐을 우두머리로 하는 이른바《비상내각》이 조작되였으며 10월에 제2차《내각개조》놀음을 벌렸으나 위기를 모면할수 없었다.

캄보쟈인민은 유일한 합법적정부인 왕국민족련합정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합되였으며 왕국민족련합정부의 국제적권위와 위신은 전례없이 올라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는 광활한 령토와 인민들속에 깊은 뿌리를 내린 행정조직기구와 강력한 군대를 가진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서 전체 캄보쟈인민의 전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있으며 세계의 수십개 나라들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권위있고 존엄있는 확고부동한 존재로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5폐지)

1973년현재 왕국민족련합정부는 고립된 프놈 펜과 일부 주소재지들과 진지들을 제외한 123개 지방들에 인민정권기관들을 수립하였다. 해방지역에서는 주, 군, 리, 촌들에 이르기까지 인민선거에 의하여 조직된 민족통일전선의 각급위원회들이 수립되였으며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교육기관들이 운영되고있다.

사회단체들도 광범히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다.

1973년 3월 1개월여에 걸쳐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해방지역을 돌아보았다. 방문기간 그는 키에우 삼판부총리, 후 윤, 후 님 부장 등 국내항전운동지도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고 현지에서 왕국민족련합정부 내각회의를 가지였으며 성대한 군중대회에 참가하여 전투적인 연설을 하였다. 7월 19~21일까지 해방지역에서 진행된 국민대회에서는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 친선적인 나라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11월 9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총리부는 이전까지 국외에서 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여러 부(외교부만 제외)들을 국내에로 소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보를 발표하였다.

1973년현재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는 50여개 나라들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4월에 민주웰남, 5월에 세네갈, 기네, 말리, 콩고, 잠비아, 마로끄, 모리따니, 6월에 알제리,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로므니아를 각각 방문하였으며 방문기간 이 나라 정부 지도자들과 인민들은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 일행을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대표로 맞이하였다.

9월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에 시하누크친왕이 참가하였으며 회의참가국들은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와 인민의 성스러운 구국투쟁에 대한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유엔의 68개 쁠럭불가담국가대표들의 7월 26일 회의에서는 미제의 캄보쟈폭격을 규탄하고 즉시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절대다수 유엔성원국들이《유엔기구에서의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할데 관한 문제를 상정시키는데 찬성투표하였으며 표결(찬성 50, 반대 52, 기권 21)에서 많은 나라들이 지지를 표시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이 부문에서 주민의 85%가 일한다. 농사할수 있는 땅은 850만헥타에 달하나 실지 리용되고있는 부침땅은 약 200만헥타이다. 농업의 기본은 벼재배이며 부침땅의 80%는 논이다. 벼씨뿌림땅의 10% 정도는 물이 깊고 수위가 변하는데서 자랄수 있는《물에 뜨는 벼》를 심는다. 이 벼는 장마철이면 물이 넘어나는 똔레샤프호수변에서 주로 재배한다. 한해동안에 약 250만t의 벼가 생산된다. 1969년에는 8만 8천t의 쌀을 수출하였다. 그밖에 강냉이(년산 11만 7천t), 후추, 차, 목화(년산 6천 200t), 콩 등을 심는다. 고무생산량은 약 4만 9천t에 달한다. 후추생산은 인도네시아 다음가는 세계 제2위를 차지한다.

농업에서 축산업도 큰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물소, 소, 돼지 등인데 물소와 소는 주로 부림소로 리용된다.

해방지역농민들은 관개수리공사를 적극 벌려 많은 물주머니와 관개수로를 건설하였으며 농업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73년에 서남부 해방지역(츠낭, 콤퐁 스프, 코콩, 캄포트, 타케오주들) 농민들은 많은 묵은 땅을 개간하여 논을 풀며 관개공사를 벌려 농업생산을 늘였다. 캄포트주의 일부 지역과 콤퐁 스프주의 남부지역에서는 전해보다 감자를 2~3배나 더 많이 심었다. 그리하여 여러 해방지역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하게 되였다. 동남부해방지역(크라티에, 프레이 벵, 콤퐁 참주 등)의 대부분의 지방에서도 필요한 식량의 80~90%를 자체로 해결하고있다. 이 지역에서 이 해에 남새, 목화, 담배가 잘되였다.

공업은 독립전에 소규모적인 제재, 정미, 도자기, 고무가공 등의 공장들밖에 없었다면 독립후 방직, 세멘트, 종이, 합판 공장을 비롯한 일련의 공장, 기업소들이 일떠섰다. 지하자원으로서는 금, 연, 몰리브덴, 질콘 등이 있다.

해방지역에서는 옷, 수건, 모기장 등 천으로 만든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일련의 제품들을 자체로 만들고있다.

전령토의 45%가 산림으로서 치크나무, 망그로브 등 질좋은 나무들이 많다.

수산업에서는 주로 민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수상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메콩강은 국내수상운수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적강점지역의 경제는 전면적으로 파산되였고 미제의《원조》에 매달리고있다. 론 놀도당은 매해 미제로부터 1억딸라이상 구걸했으나 재정적자는 해마다 늘어나 1971년에는 10억리엘, 1972년에는 15억리엘, 1973년에는 30억리엘에 이르렀다.

1972~1973년에 논은 1968~1969년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1972년에는 7만 5천t의 쌀을 수입하였다. 모든 필수품을 미제와 그 추종국에서 얻어온다. 1973년에 수입초과는 1억 2천 300만딸라에 달하였으며 생계비지수는 160% 증가하였다. 물건값은 전반적으로 계속 뛰여오르는데 쌀값은 1973년 9월에 100kg당 2만리엘로부터 10월에는 6만리엘에 달하였다. 학교는 페쇄되고 신문발행은 금지되고있다.

소승불교가 국교로 되여있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케이아이(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통신, 1970년 8월부터 시작)

방송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소리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63년 11월에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을, 1964년 4월에는 문화및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64년 12월 20일에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1970년 3월18일 미제가 캄보쟈에서 반동적국가정변을 조작한 직후에 미제의 주구론 놀괴뢰도당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와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았으며 프놈 뺀에 가있던 우리 나라 대사관을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데 뒤이어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가 수립된 즉시로 그를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승인하였다.

1973년 3월 14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외교부 대변인은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대가 남조선에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고 3월 8일 우리 나라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8월 8일 총리 뻰 누트친왕이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적명절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1973년 4월 14~17일까지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해방지역을 방문하여 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인민을 만나고 돌아온 기쁨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를 만나뵈우며 수령님의 탄생 예순한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7월 21~8월 14일까지 휴식차로 또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일 본

넓이 37만 9,873km²

인구 1억 820만 2,038만명(1973년 3월)

주민의 99%가 일본사람들이고 홋가이도에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약간 있다.

언어는 일본말

수도 도꾜(주민 1,155만 821명, 1974년 4월 1일)

정 치

천황 실권은 없고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후 특급전범자로서 응당 처단되였어야 할 천황을 군국화의 방패로 삼고있다. 실권은 내각에 있다. 천황 히로이도(1926년 12월—)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의 량원제, 중의원은 491명이며 임기는 4년, 참의원은 252명이며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참의원의원의 반수를 개선한다. 1972년 12월에 제33차중의원선거를 진행, 의석배정(괄호안은 선거전 의석수)은 다음과 같다. 공산당 38석(14석), 사회당 118석(87석), 공명당 29석(47석), 민주사회당 19석(29석), 자유민주당 271석(297석), 기타 2석, 무소속 14석(3석)

정부 1972년 7월 7일 제1차 다나까내각이 구성되였다. 총리 다나까 가꾸에이 (1972년 7월 6일—), 외교부장 오히라, 방위청장관 야마나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7월 15일에 창건되였다가 1924년 3월에 해산되였으며 1926년 12월에 재건되였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비합법적투쟁을 진행하다가 1945년 12월 1일에 합법화되였다. 의장 노사까 산조, 간부회 위원장 미야모또 겐지, **사회당** 1945년 11월 2일에 창건, 도시와 농촌의 중소부르죠아지, 지식인, 사무원, 로동자, 농민, 수공업자들 속에 지반을 두고있다. 사회당은 《자유민주당의 다나까정치와는 앞으로 엄격히 대결》할 결의를 표명,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 **공명당** 1964년 11월 17일 종교단체인 《창가학회》를 모체로 조직, 위원장 다께이리 요시가즈, **자유민주당**(집권당) 1955년 11월 15일 반동적부르죠아정당들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성립, 독점재벌들과 반동관료배들의 집단으로서 미제에 적극 추종, **민주사회당** 1960년 1월에 사회당에서 떨어져나간 우파분자들로 조직, 오사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도시들의 중소기업가들로 구성, **로동조합총평의회**(총평) 420만의 로동자를 망라하고있는 일본최대의 로조, **전일본로동조합총련맹**(우익로조), **중립로동조합련락회의**, **신일본농민조합련합회**, 신일본부인회, **민주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1973년에 일본반동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인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치도 《인민적인》 정책을 실시하는척하면서 파쑈화, 군국화를 바싹 다그쳤으며 대외적으로는 《자주외교》의 간판을 들고 대미추종정책을 보다 강화하는데로 줄달음쳤다.

파쑈화, 군국화 책동의 강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되살아났으며 미제의 부추김을 받으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고있는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28페지)

다나까정권이 들어앉은지 넉달만인 1972년 12월의 중의원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잃고 혁신세력이 급격히 진출함으로써 뒤흔들리기 시작한 다나까반동정부는 지반을 다지기 위해 1973년초부터 반인민적인 파쑈악법을 꾸며내는데 기를 쓰고 달려들었다.

1월에 특별국회를 열어놓고 《소선거구제》, 《국철운임인상법안》, 《방위2개법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파쑈악법들을 기어이 성사시키려고 날뛰였다. 그러나 자민당반동들이 파쑈적인 《헌법》개악에 필요한 3분의 2이상의 안전한 국회의석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고 나온 《소선거구제》에 관한 법안은 인민들과 야당의원들, 지어 자유민주당내 의원들속에서까지 강력한 배격을 받고 5월 22일 드디여 철회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소선거구제》 조작책동이 파탄된 후 반동정부는 특히 《방위2개법안》 심의를 진척시키기 위하여 이미 끝나게 된 국회회기를 야당의원들이 참가하지도 않은 가운데 5월 19일에 65일연장을 결정하였으며 이어 《방위2개법안》을 날치기로 채택하였다. 각계층인민들의 드센 반대에 부딪쳐 이전에 두번이나 폐안이 되였던 침략적인 이 악법은 9월 23일 참의원본회회의에서까지 통과하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국회회기기간에 120여건에 달하는 악법을 기어이 성사시키려고 발악하였으나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배격에 부딪쳐 20여건밖에 날조해내지 못했다.

다나까반동정부는 파쑈악법을 날조하기에 미쳐날뛰는 한편 대규모적인 군비확장계획인 《제4차방위력정비계획》(1972--1976년)에 따른 침략무력증강에 열을 올렸다. 이《게

획》에 따라 1973년도 군사비지출을 전해에 비하여 17%나 늘어난 9천 400억엔을 배당하였으며《자위대》무력을 새로운 최신장비로 무장시키며 그 인원수를 늘일것을 획책하였다.

6월 21일 중의원내각위원회회의에서 방위국장이란자는 일본이 1976회계년도까지《나이크 미싸일》로 장비된 반항공포부대를 서부일본의 쥬고꾸지방에,《에프 4 이 제이》팬톰비행기들을 오끼나와의 나하를 비롯한 다른 항공《자위대》기지들에 배치할것이며《자위대》침략무력을 3천 400명의《자위관》을 포함하여 약 7천명을 더 늘일것이라고 줴쳤다. 서부일본의 쥬고꾸지방과 오끼나와를 비롯한 항공《자위대》의 여러 기지들에 유도무기와 공격무기들을 배치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혁명적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꾀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놈들은 청장년들을 회유, 기만, 랍치 등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자위대》에 끌어들이던 나머지 정신병환자들까지 마구 잡아들이는 악랄한 책동을 벌렸다.

한편《어선들과 상선들의 안전항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간판밑에 나가사끼현의 쯔시마에《오메가체게》라고 불리우는 침략적목적을 가진 군사기지를 꾸리였다.

《제4차방위력정비계획》실현의 일환으로 7월에 일본방위청은 미국해군부와 약 3천 130만딸라분의 해상대공중미싸일《타타》를 수입할데 대한 계약을 맺었다.이리하여《자위대》침략무력을 여러가지 현대적인 유도무기들로 장비함으로써 극동과 아세아에서《제공권》과《제해권》을 틀어쥐려고하였다.이에 발맞추어 9월에 혹가이도에서 륙상《자위대》의 대대적인 실전연습을 벌렸으며 조선동해쪽의 마이즈루시 앞바다에서는 해상《자위대》관함식이라는것을 벌려놓고 해상《자위대》무력의 침략적작전체제를 갖추는 동시에《자위대》에 군국주의사상을 불어넣음으로써 침략전쟁에 접사리 내몰수 있는 준비를 다그쳤다.

이에 앞서《방위청》은《자위대》의 1974년도《업무계획》과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방위예산요구액을 1973년에 비하여 23.7%나 더 늘였다.

9월 23일 일본반동정부는《자위대》의 규모와 범위를 대대적으로 증강할것을 노린《방위2개법안》을 참의원본회의에서 강다짐으로 성립시킨 후 이에 기초하여 10월 12일 내각회의에서《자위대법시행령》의 일부를 고치고 오끼나와에 배치할 항공침략무력인《남서항공혼성단》과 요꼬스까에 배치할 해상침략무력인《제2잠수대군》을 새로 내올것을 정식으로 결정하는 등 해외파병을 위한 군사적조치를 다그쳤다.

이러한 군사적조치에 이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은 자체의 힘으로《적》의 공격을 대처할수 있는《능력과 군사장비》를 강화하여야 하며《해상방위권》을 일본해안에서《1천해리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지껄여댔다.

특히 7월 17일에 30여명의 자유민주당의 출신 극우익《반공》국회의원들로 꾸려진《청람회》는《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해외침략의 첫번째대상으로 삼고 오만하게 날뛰였다.또한 해외침략을 뒤받침하는 후방을 준비하기 위해 나라의 군국화와 파쑈화를 다그치려고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자주외교》의 탈을 쓰고;

대외적으로 다나까반동정부는 이전 사또정부가 무너진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철저한 대미추종정책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이른바《자주외교》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대미추종을 더욱더 강화하였다.

7월 31일과 8월 1일에 워싱톤에서 벌린 다나까—닉슨회담에서 다나까는《일미협력》을 일본의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으로 결정하고 미제의 비호밑에 해외팽창의 야망을 더욱 쉽게 실현해보려 하였다. 콤뮤니께에서는 일미안보체계를 계속 견지하며《일본주둔미군의 시설들과 지역들을 재정비하고 공고히》하는데 합의하였으며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과 세계전략에 적극 가담하여 악명높은《닉슨주의》에 따르는《책임분담》을 더 많이 걸머지게 하자는 미제의 요구에 응하였다.

7월 16일 도꾜에서 벌려놓은《미일무역경제합동위원회회의》에서 일본반동들은 미제와 함께《일미우호관계를 기축》으로 하여 아세아침략을 계속하여나갈데 대한 속심을 드러내놓았다. 미제의 침략책동에 발맞추어 일본외교부장놈은《전환기에 놓여있는 현세계에서의 일미관계의 강화에 협력하는것이 두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워진 중대한 책임이며 임무》라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일본반동들은 미제와 함께《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문제를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들고나왔으며 제1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 일본대표란자는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일본은 반대한다고 떠벌이면서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중동정책에서 미제에 추종하여오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제4차중동전쟁이 일어난후 아랍나라들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부추기고있는 나라들에 대한 석유공급을 제한 및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신중동정책》이라는것을 내놓고 아랍나라들을 끌어당겨 석유를 얻어냄으로써 궁지에 빠진 경제를 추세워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인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인민들은 지금 군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고 민주, 중립, 평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이 투쟁은 일본반동지배층에 큰 압력을 가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229페지)

1973년에 일본반동정부의 반인민적인 대내외정책은 인민들에게 온갖 재난과 불행을 들씌움으로써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을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봄철공동투쟁에는 170여개 로조의 820만 로동자들이 떨쳐나섰다.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총평)와 중립로동조합련락회의(중립로련)를 중심으로 무어진 봄철공동투쟁위원회에 뭉친 근로자들은 도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과 전국각지에서 거듭 강력한 통일적인 파업과 태업 투쟁을 벌렸다.

봄철공동투쟁은 3월 29일 국철로조, 국철동력차로조 산하의 철도로동자들과 금속, 기계, 인쇄 부문로동자 50여만의 파업투쟁으로 시작되였다. 4월 5일의 제2차통일행동, 4월 17일의 53개 로조산하 350만 로동자들의 제3차통일행동, 4월 24일의 제4차통일행동과 그 연장인 26일과 27일의 68개 로조산하 300여만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독점자본가놈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로동계급의 견결한 투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봄철공동투쟁에 이어 5월 1일 도꾜를 비롯한 22개 도, 도, 부, 현의 약 850개소에서 700만로동자들이 임금을 대폭 올리고 최저임금제를 세우라, 해고와 자본주의적합리화를 반대한다, 로동자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며 파업금지법을 철페하라, 물건값

을 내리고 공해를 없애며 세금을 낮추라 등의 구호밑에 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그 밖에도 2월 10일 국철로조와 체신로조를 비롯한 일본공공기관기업소의 9개 로조에 뭉친 로동자, 사무원들의 12시간파업에 이어 교직원로조와 출판인쇄로조 등 32개로조의 로동자들이 합세한 230만로동자들의 파업으로 하여 1천 700여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에서 뻐스와 철도 운행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국영 기관, 기업소들이 문을 닫아매는 결과를 낳았다.

이해에 일본인민들은 미제의 군사기지화책동을 반대하여 싸웠다. 2월 19일 미제가 요꼬스까항을 핵항공모함기지로 리용하는것을 반대하여 요꼬스까주민들은 투쟁위원회를 뭇고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3월 24일 도꾜에서 공산당과 사회당, 총평을 비롯한 19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반미군중집회, 9월 30일 요꼬스까에서 8천여명의 로동자, 청년학생들의 군중집회 등이 있었다.

일미《안보조약》폐기제요구관철중앙실행위원회를 비롯한 일련의 진보적단체들은 10월 5일부터 요꼬스까의 미제핵잠수함의 모항화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기로 결정하고 5일부터 대규모적인 항의집회들을 련일 벌렸다.

일본인민들은 국회에서 《출입국법안》, 《방위2개법안》 등 파쑈적인 악법들을 강행통과시키려는 반동정부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3월 13일 도꾜에서 로동조합총평의회 청년협의회와 도꾜지방로조평의회 청년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3.13청년로동자중앙총궐기집회》에 뒤이어 여러 정당, 사회단체, 지방의회들과 각계인사들이 요청문, 항의문, 의견서 등을 들이대고 《출입국법안》을 즉시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6월 1일에 18개 정당, 사회단체 성원들 3만명의 참가밑에 반동정부의 악법조작책동을 반대하는 제4차 통일행동중앙집회, 4일 도꾜의 13개 정당, 사회단체 주최로 파쑈악법을 분쇄하기 위한 통일행동군중집회가 있었다. 그밖에 《국철운임인상법》 과 《방위2개법》등을 항의규탄하는 군중집회와 시위, 6월과 7월에 있은 큐슈, 오끼나와 어민들, 10월에 있은 오사까시민들의 공해반대투쟁을 비롯한 반정부투쟁이 강력히 벌어졌다.

이해에 반동정부의 반인민적정책에 의하여 다나까내각지지률이 전국적으로《전후 일본에서 가장 낮은》22.7%, 도꾜에서는 19.1%, 간사이지방에서는 11.8%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붕》) 반면에 태평양지역안의 6대도시 시장선거에서 혁신계인사가 승리하여 민주인사들이 통제하는 도시와 지방 행정들은 약 150개를 헤아리게 되였으며 여기에는 약 4천만주민을 포괄하고있다. 이리하여 다나까는 이해에《일찌기 없었던 최악의 위기》를 겪었다.

경 제

일본경제는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독점재벌들에게 장악되여있다. 전체 회사수의 0.2%도 못되는 대독점회사들이 전체 회사들의 자본총금액의 70%이상을 독차지하고있다. 불과 5개도 못되는 대독점체들은 중요공업제품생산의 70~90%, 특히 군수생산의 80%를 틀어쥐고있다.

원료, 연료의 심한 대외의존으로 인하여 그 예비량은 주간 또는 1개월분이내에 국한되여있다.

일본은 소요되는 석유, 철광석, 동, 보크사이트, 생고무, 양털의 거의 100%, 콕스탄의 약 70%, 목재의 60%, 농산물과 식료품의 50%를 수입에 의존한다.

일본경제는 미제독점자본의 지배밑에 있으며 《일미경제협력체제》를 이루고있다. 외자도입중 미제독점자본의 몫은 90%이상 차지하며 석유, 철강, 전력, 자동차, 전기기계, 전자 공업 등 기간공업부문이 자본, 원료, 기술면에서 미제독점자본에 의존하고있으며 무역에서 미국이 근 30%를 차지한다.

국민소득에서 공업, 건설 및 운수부문의 몫이 약 50%를 차지하며 가공공업부문이 공업생산의 75%를 담당하고있다. 공업은 주요군수생산과 련관된 중화학공업에 치우쳐있으며 공업과 농업간의 심한 차이 등 부문별구조가 매우 고르롭지 못하다. 전후 자국의 석탄생산을 김차 줄이고 석유를 동력자원으로 대용하였다. 결과 동력자원의 73%는 석유에 의존하게 되였으며 화학공업도 주로 석유화학공업으로 전환되였다. 1972년에 일본은 73만t (총매장량은 300여만t에 불과)의 석유를 생산하였는데 국내소비량은 2억 4천 600만t에 달하였다. 이런 형편은 소요되는 석유의 99.7%를 수입에 의존하였으며 그중 약 80%를 중동지역에서 들여들였다.

1973년 10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후 이 지역 나라들이 취한 석유수출의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하여 침체속에 허덕이던 일본경제는 엄중한 통화팽창에 극심한 원료난, 연료난이 겹쳐 파국적위기를 겪었다. 이 조치에 의하여 석유수입총량은 약 16%나 줄었다.

석유위기에 의하여 수출의 대부분과 철광석, 석탄, 목재 수입이 현저히 줄고 농산물수입은 거의 2배, 기타 화물수송은 60~70%나 줄었다. 가장 중요한 야금공업의 원료예비는 불과 18일분에 불과하였다.

중요공업분야에서 생산이 20%이상 줄었다. 석유의 부족으로 석유화학공업생산은 20~30% 줄었으며 세멘트생산은 20%, 합성섬유생산은 10%, 강철생산은 6~7%, 알루미니움생산은 12~13% 떨어졌다. 자동차공업에서는 12월에 생산이 그 전해의 같은 달에 비하여 24.3%나 줄었다.

1973회계년도 공공건설계획은 지연되였으며 선박건조회사들은 12월부터 새로운 주문을 받아들이는것을 중지하였다.

이해의 설비투자계획이 10%이상 줄어듦으로써 잇달아 기계제작공업의 생산이 감퇴되고 2차가공공업의 생산도 내려갔다.

1963년부터 위기를 겪는 석탄공업은 1973년에 이르는 기간 탄광수가 5분의 1로, 채탄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밖에도 방직, 전력, 합성고무 등의 공업부문에서도 생산이 침체상태에 빠졌다.

생산이 줄고 조업률이 단축됨에 따라 경영난에 부딪친 수많은 기업소들이 무리로 파산당하였다. 1973년에 무려 8천200여개의 중소기업소들이 7천 53억 5천 600만엔 (전해에 비하여 41.7% 증가)의 빚을 걸머지고 파산당하였는데 이것은 1972년에 비하여 14.9%나 늘어난것이다.

날로 심화되는 경제위기는 재정금융부문에도 반영되였다.

1973년에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 일본의 통화팽창률은 1973년 1월부터 1974년 1월까지의 기간에 23.1%나 뛰여올랐다. 통화량은 1973년말현재 그 전해에 비하여 27%나 늘었다.

통화량의 증대로 엔의 가치는 1973년까지 25년동안에 75% 떨어졌으며 1973년 3월부터 10월말까지의 기간에 그것은 11.7% 내려갔다.

주민의 18%가 일하고있는 농업부

문은 국민소득의 약 10%를 차지할 뿐이다. 부침땅은 전 령토의 16.4%에 불과하다. 농업부문에서는 봉건적인 토지소유제가 지배하고있으며 경지의 군용지화로 날로 령세화되고있다. 농가호수의 70%가 1헥터미만의 땅을 가지고있으며 그중 38%가 0.5헥터미만을 부치는 형편이다.

농업의 기본은 농산업이며 주되는 농산물은 벼인데 논은 부침땅의 58%를 차지한다. 그밖에 밀, 감자, 콩, 남새, 차, 담배, 사탕무우 등을 심는다.

최근년간 일본의 농업생산은 반동정부의 반인민적농업시책과 미제의 잉여농산물투매정책으로 인하여 계속 감퇴되였다. 게다가 1973년부터 시작된 심각한 통화팽창은 농업에 새로운 타격을 주었다.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이 급격히 커졌으며 경제에서 농업의 몫은 현저히 줄었다. 1960년에 총생산액적으로 볼때 농업의 몫이 10.2%였다면 1971년에는 4.7%로 줄었다. 같은 기간에 부침땅은 812만헥터로부터 600만 2천헥터로 줄었고 농가호수는 605만 6천세대로부터 517만세대로 줄었다. 1968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에 농촌인구는 2천만이상 줄었고 계절로동자로 전락된 농민들은 120만명에 달하였다.

1973년에 밀, 보리, 호밀 생산은 1972년에 비해 33%나 떨어졌으며 그의 부침땅은 근 절반이나 줄었다. 콩은 1960년의 41만 8천t으로부터 1972년에 12만 7천t으로 줄었다.

반면에 농산물수입량은 급격히 늘었다. 1960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에 밀은 267만 8천t으로부터 538만 4천t으로, 콩은 112만 8천t으로부터 363만 5천t으로, 집짐승먹이강냉이는 130만 6천t으로부터 582만 4천t으로 뛰여올랐다.

이해에 급격한 통화팽창이후에도 농산물에 대한 가격억제정책으로 하여 농민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1973년에 쌀값은 불과 15%올랐을뿐인데 농기계류의 값은 평균 30.8%올랐다. 이러한 요인들은 농업의 위기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러하여 일본의 농업은 삼짱농업(할머니, 어머니, 언니)으로 변해 농촌로력의 70%가 녀성이며 농민의 70%가 예순을 넘는 할머니들이다.

축산업은 필요한 집짐승먹이의 70%를 외국에서 사들이는 형편이고 1973년에 먹이값은 거의 2배로 뛰여올랐다. 닭먹이의 100%, 돼지먹이의 90%, 소먹이의 64%를 수입하고있다. 그런데 먹이값이 뛰여오름에 따라 1973년 한해동안에 매일평균 85명의 축산업자들이 파산당하였다.

1973년에 대외무역에서 수출이 줄어든 반면에 수입이 63%나 늘어나 14억딸라의 적자를 냈다. 같은해 3월이래 국제수지에서는 련속 9개월째 적자를 냈으며 11월 한달동안에만도 17억1천만딸라의 적자가 생겼다. 이것은 한달동안의 수지적자로서는《력사상 최고기록》이였다. 이에 따라 외화보유량이 급격히 줄어 1973년말현재 1972년 2월에 비하여 68억 2천 100만딸라나 감소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원조》와 《공동개발》의 명목밑에 해외팽창에 날뛰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략탈을 강화하였다.

일본독점자본의 해외투자총액은 1972년말현재 약 62억 5천 500만딸라에 달하였다. 해외투자총액의 23%는 아세아에, 20.3%는 중근동지역에, 16.6%는 라틴아메리카지역에 투자되였다.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은 광물 및 석유자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1973년 3월말현재 22억 7천 300만딸라를 해외에 쏟아부었다. 그중 석유부문에 14억 7천 800만딸라, 쇠돌부문에 2억 2천 600만딸라, 동광부문에 3억 3천 500만딸라가 돌려졌다. 같은 기간에 특히 제조공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었는데 도합 17억 5천 200만딸라에 달하였으며 아세아지역에는 7억 7천 200만딸라에 이르렀다. 1971년 3월까지 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투자액은 9천 250만딸라였는데 그중 가공공업에 2천 490만딸라, 채광공업에 5천 860만딸라, 수산업에 130만딸라가 돌려졌다.

일본독점자본의 해외투자총액의 3분의 2가 동남아세아지역에 돌려졌으며 그 투자의 장성속도는 해마다 20~25%에 달한다.

사회문화

1973년에 소매가격은 19%이상, 도매가격은 29%이상 올랐다. 이해에 도꾜의 소매품가격의 평균지수는 1972년에 비해 11.8% 높아졌다. 1973년 11월에 있은 석유위기로 인하여 80%에 달하는 공업제품의 값이 올랐다. 석유를 원료와 연료로 하는 석유가공, 유색금속, 세멘트, 합성섬유를 비롯한 공업제품의 값이 급격히 뛰여 올랐다. 석유제품의 가격은 35~40% 올랐다.

근로자들의 생계비는 20%이상 뛰여 올랐다.

1974년 2월초부터 치료비는 평균 19% 올랐다. 내과, 소아과, 외과, 안과 진찰비는 2~3배, 저녁이나 이른새벽, 또는 휴일에 치료받으려면 그전보다 10배 더 많은 돈을 물게 되였다. 의사가 없는 지방은 약 2천600개소나 된다.

1973년 11월현재 교통사고로 1만 3천명이 죽었다. 자동차사고로 매일 평균 40명이 생명을 잃는다. 1973년에 범죄건수는 119만건이 였는데 그 대부분이 살인, 강도 등의 범죄행위였다. 로동재해로 1972년에 죽거나 부상당한 근로자들의 수는 무려 140만명에 달하였다.

공해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일본에서는 1972년부터 1년반동안에 《미나마다》병, 《이다이-이다이》병, 《욧까이찌천식》병 등의 《공해병》환자가 2.5배, 사망자가 6배이상 늘었다. 특히《미나마다》병의 발원지인 큐슈 구마모도현의 미나마다시에서는 주민 2명가운데 1명이 이 병에 걸려있다. 매해 130억t의 유해로운 폐설물이 바다와 강으로 흘러든다. 도꾜의 하늘에는 1년에 100만t이나 되는 유해물질이 뒤덮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지지, 교도, 재팬프레스, 니홍뎀빠

신문 아까하다(공산당기관지),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요미우리신붕, 도꾜신붕, 쥬니찌신붕, 산께이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샤까이신보(사회당주간지), 세까이세이지시보(공산당반월간잡지)

방송 엔에취케이방송, 아사히방송, 도꾜방송, 엔에취케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계층들속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선린관계를 맺기 위한 운동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35페지)

일본에는 우리 나라와 친선관계를 맺으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우리 나라와의

제반교류의 촉진과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조직들이 무어져있다.

１９５１년에 일조협회, １９５６년에 일조무역회가 결성된데 이어 일조자유래왕실현련락회의,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 재일조선인인권옹호회, 일조학술교류촉진회, 재일조선인의 귀국과 민족교육을 지키는 중앙련락회의, 재일조선인민족교육문제간담회,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조선연구소 등이 결성되였다.

１９７１년 １１월 １６일에 일본국회의원들의 초당파적인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이 조직된것을 비롯하여 일조간의 친선과 국교정상화를 요구하여 각 현의회들에서도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들을 무었다.

１９７２년 ２월 ８일에 일조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 ８월 ９일에 일조체육촉진협회, ９월 ５일에 일조문화교류협회 등이 조직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은 연구소조를 뭇고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오히 연구학습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도꾜대학《김일성저작연구회》, 도꾜청년《주체사상연구회》, 도꾜 마다《주체사상교육연구회》, 도꾜 스미다《주체사상연구회》, 도꾜 스기나미《주체사상연구회》, 센슈대학《김일성로작연구회》, 《김일성저작도꾜도북부교원학습회》, 도시마구, 네리마구교직원 《김일성주석로작연구회》, 이바라기대학 《주체사상연구회》, 사이다마 오가와지방 《김일성주석혁명활동연구회》, 가나가와 《주체사상연구회》, 삿보로 《주체사상연구회》, 니이가다시《김일성주석로작연구회》, 아이찌《김일성주석로작연구회》, 후꾸이대학《김일성로작연구회》, 오사까 니시나리《주체사상연구회》, 오사까 이즈노《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배우는회》등 일본의 전국각지에 수많은 연구소조들이 무어졌다.

１９７３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１９５０년 ７월～１９７２년말까지의 사이에 여러 나라 기자들과 각계대표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들을 체계적으로 묶은《김일성주석답화집》,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불후의 로작들을 묶은《조국통일의 길》을 《요미우리신붕》사에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일조교류문화협회 리사장이 쓴 책 《평도의 예술가 김일성》을 도꾜의 반쬬쇼보에서 출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２５돐에 즈음하여서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전기《２０세기가 낳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을 일본의 이름있는 출판사《산세이도》가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잡지《세계정치자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잡지들인 《세계정치자료》와 《법률시보》가,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신문《아까하다》와 잡지들인《세계정치자료》, 《세계주보》가,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를 잡지《세계정치자료》가 각각 실었다.

일본잡지 《세까이》는 《김일성주석님과의 회견기》라는 제목을 달고 ９월 １９일 수령님께서 일본《이와나미》서점 상무취체역 총편집장을 접견하시고 하신 담화내용전문과 우리 나라 방문 인상기를 실었다. 잡지《미라이》는 １９７３년 １호와 ２호에 일본의 현대사 연구가인 나까가와 노보오의 론문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리론》을 련재하였으며 잡지《아세아경제순보》는 １９７３년 ３월하순호부터 ４월하순호까지에 와세다대학 부교수 에다 요시이에의 론문《조선에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론의 발전》을 련재하였다.

４월 １８일 일본의 가장 큰 신문인 《아사히신붕》은 석간호의 옹근한면에 걸쳐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성과를 소개하는 사진특집을 했다.

이해에 １９７２년 ４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바 있는 사회당활동가력포단활동의 기록을 담은 《천리마의 나라—주체사상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책이 출판되였다. 이 책의 서두에는 일본사회당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의 글 《일조우호운동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가 실렸다. １９７２년 １０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바 있는 일본사회당부인활동가대표단 성원들은 자기들이 쓴 책 《조선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６월 ２３일에 하신 연설내용과 상세한 요지를 일본의 중앙신문들은 물론 지방신문들을 포함한 모든 신문들이 대서특필하였다. 모든 신문들이 첫자리에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엔에취케이》, 《엔티브이》, 《티비에스》 방송을 비롯한 모든 텔레비죤방송들과 라지오방송, 그리고 지지통신도 ６월 ２３일 일제히 보도하였다. 일본공산당기관지 《아까하다》는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련속 보도하고 이 연설과 관련한 해설기사를 실었다.

이해 일본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모임, 토론회, 강연회들이 광범히 조직되였다.

４월 ７일 도꾜에서 수령님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일본각지에서 조직된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의《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연구토론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９월 １０일에는 도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김일성주석저작연구전국집회》가 일본전국 １２개 도, 도, 부, 현에서 ２０개를 넘는 주체사상연구성원들과 수령님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열성적으로 연구하고있는 개별적인사 ５０여명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１１월 ２３일에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간 일본《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대표단의 보고모임이《도꾜대학 김일성저작연구회》, 《이바라기 김일성저작연구회》를 비롯한 ２１개 연구소조대표들과 간또지방 일본 교원, 청년학생들의 참가밑에 진행되였다.

이외에도 도꾜에서 １월 ２７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하여》의 연구회, ２월 １１일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강연회가 있었다.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는 ２월 ２４일 제４차연구모임에서《주체사상에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 ５월 １２일 제７차연구모임에서《주체사상의 세계사적의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에 이어 토론들을 진행하였다.

７월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회가 도꾜의 히도쯔바시대학 학생들로 무어진《사회주의사상연구소조》의 주최로 진행되였다.

５월에 아오모리현에 있는 히로사끼대학에서《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에 대한 연구회가 이 대학 교직원조합과 리학부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２월 １５일 일조협회 사이다마현 오가와지부에서 성대한

련회를 차렸다.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6월 23일 연설에서 새로이 천명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5대강령을 환영하여 일본의 정당들과 각계대표들이 지지하였다.

일본사회당 위원장 나리다 도모미는 《김일성원수님께서 하신 6월 23일 연설을 나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나는 조선인민이 이 애국적제안에 기초하여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4반세기에 걸친 민족분렬에 종지부를 찍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 속히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바란다.》고 말하였다. 일본참의원 의장 고노 겐조는 6월 23일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새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조선의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력사적인 강령으로서 지지환영하였다.

7월 12일에는 도꾜도 지사를 비롯한 일본의 저명한 학자, 문화인들과 각계인사 200여명의 참가밑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성대한 모임이 있었다.

7월 27일 도꾜에서 일조협회의 주최로 17개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각계대표자들의 회의에서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7월에 가나가와현의회와 야마나시현 엔잔시의회, 일본사회당 가나가와현본부 집행위원회 제6차대회와 일조우호촉진 사이다마현의회의원련맹 제2차총회에서도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7월에 일조협회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서명수집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일조협회 후꾸오까현련합회가 리사회를 진행하고 성명과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련대성편지를 채택하였다.

12월 19일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은 리사회를 가진데 이어 20일에는 이 련맹대표들이 정부당국자와 직접 만나 《일한각료회의》를 열지말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해 일본야당들과 각계층인민들은 세계보건기구 제26차총회에서 우리 나라의 즉시 가입결의안이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것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조선적대시정책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7월 30~9월 13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였다. 8월 2일 도꾜문화회관에서 일본방문공연의 첫막을 올린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은 도꾜를 비롯하여 나고야, 오사까, 히로시마, 후꾸오까, 교도, 고베 등 여러 도시들에서 혁명가극《꽃파는 처녀》공연 20회, 음악무용종합공연 21회, 그리고 재일동포들을 위한 특별공연과 시연회를 포함하여 도합 57회의 공연을 진행하여 20여만명에 가까운 관람자들에게 사회주의조선의 주체예술을 보여주었다.

1973년에 일본으로부터 일본《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대표단 (9월), 일본사회당대표단 (4월과 10월), 《쥬니찌신붕》대표단 (1월), 도꾜도경제우호대표단 (4월), 조일친선탁구일본대표선수단 (4월), 일조우호후꾸이현대표단 (5월), 일조우호촉진일본해연안도시회의대표단 (5월), 도꾜방송대표단 (6월), 나고야녀성대표단 (6월), 홋가이도의회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대표단 (6월과 11월), 지지통신사대표단 (6월), 《아사히신붕》기자대표단 (6월), 사이다마현지사부부인행 (7월), 영화대표단 (7월), 일조체육교류촉진련맹리사장 (8월), 오사까부지사일행 (8월), 큐슈아사히방송대표단 (8월), 《이와나미》서점 상무취체역 총편집장(9월), 유술대표단 (9월), 탁구대표단 (9월), 《미라이샤》편집국장과 그 일행 (9월), 일본사회당청년활동가대표단 (10월), 일본신문협회대표단 (10월), 일조문화교류협회리사 (11월)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평양고등경공업학교축구대표단 (2월), 기자동맹대표단 (5월), 평양만수대예술단선발대일행, 조선교육문화일군직맹대표단과 조선설비수입상사대표단 (7월), 항결핵협회대표단 (9월), 직맹대표단 (9월), 조선대외과학기술교류협회대표단 (10월)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필 리 핀

(필리핀공화국)

넓이 30만km^2

인구 3,950만명 (1973년 6월초)

주민은 4개 종족으로 이루어져있으나 주민구성은 종교적관념에 따라 구분한다. 주민의 92%가 기독교도, 5%가 회교도이다.

국어는 타갈로그말인데 영국말과 에스빠냐말도 쓴다.

수도 케손 (주민 97만 1,637명)

정 치

대통령 임기 4년인 대통령은 한번밖에 재선될수 없으나 1973년 1월 헌법을 수정하여 장기집권도 허용하였다.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군최고사령관을 겸한다.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1969년 2월 재선)

국회 량원제, 상원은 24명, 임기는 6년 (2년만에 3분의 1을 개선)이며 하원은 120명 (현재 110명) 이내로서 임기는 4년이다. 1971년 11월현재 의석배정수는 국민당이 상원에서 15석, 하원에서 90석을, 자유당이 상원에서 9석, 하원에서 18석을, 기타 하원에서 2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이 총리를 겸한다. 외교부장 카를로스 로물로, 국방부장 후안 폰쎄

국가회의 정부의 최고자문기관으로서 부대통령, 국회량원 의장들, 주요각료들, 량원 국방 및 외교 위원회 위원장들, 리대대통령들로 구성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11월 7일 창건되였으나 1946년 6월에 비법화, 총비서 헤쑤스 라바, 국민당 (집권당) 1907년 당시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독립을 요구한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하였으나 현재 친미정책실시, 자유당 1946년 독립후 국민당에서 떨어져나와 조직되였고 자유주의적경향이 강함, 진보당 1965년에 국민당에서 갈라져나와 조직, 사회당 (1971년 6월에 이 당의 부위원장이 우리 나라 방문), 민족주의공민당, 사회민주주의전선, 전국로동조합협회 (1971년 11월이 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 자유로동조합협회

1898년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전락된 필리핀은 태평양전쟁시기에 일제의 강점하에 들어갔다. 일제의 패망이 박두하게 되자 미제는 이 나라에 다시 기여들었다.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부딪친 미제는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는 필리핀반동지배층을 구슬려 《경제협정》, 《군사원조협정》 및 《호상방위조약》 등 일련의 예속적인 협정과 조약들을 강요하여 필리핀을 저들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삼아왔다.

이 나라 반동정부는 1947년 4월 필리핀령토내에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를 설치하는것을 허용하는《군사기지협정》을 미제와 맺었으며 1966년에 이 협정은 다시 25년간 (1991년까지) 연장되였다.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필리핀반동지배층은 5천여명의 고용병을 파견한데 이어 이듬해 8월 30일에는 미제와《호상방위조약》을 맺었으며 1954년 9월 6일 침략적군사쁠럭인 세아토에 가담하였다.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의《국제화》를 적극 지지한 정부는 1966년 8월에 군대를 미제의 대포밥으로 제공하였다. 그밖에도 필리핀은 미제의 침략도구인 《아스파크》 (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 《아세안》 (동남아세아국가련합) 성원국으로 있다.

1969년 3월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요구하는 무장력인《새 인민군》이 창건되였다. 이들은 1971년부터 전국의 10개주에서 무장투쟁을 벌리면서 산악지대로부터 점차 도시에로 투쟁무대를 확대하였다. 1972년 9월 23일 마르코스대통령은 계엄령선포와 관련하여 전국에 보내는 라지오 및 텔레비존 방송연설에서《새인민군》은 1만명의 정규군으로서 10만명의 동정자를 가지고있으며 전국도처에서 무장투쟁을 벌리고있다고 말했다.

1973년에 들어서면서 남부필리핀을 비롯한 나라의 도처에서 반정부기운이 일층 강화되였다.

이미 1972년 9월에 계엄령을 선포한 마르코스는 1973년 1월 17일 전국텔레비존방송연설에서《계엄정권》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1월 10~15일까지에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며 그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새 헌법채택을 위한《국민투표》가 실시되였다. 이리하여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였다.

2월말부터 남부필리핀의 민다나오, 술루 섬지역에 주로 사는 350만의 회교도소수민족은 민다나오의《독립》을 요구하여 반정부무장폭동에 일떠섰다. 3월중순 북부코타바토주의 근 20개의 주요읍들에서 폭동자들과 반동정부군간에 치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태앞에서 군부당국까지도 술루주의 근 90%와 바실란섬의 3분의 2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다고 인정하는데 이르렀다.

마르코스는 이 반정부폭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약 6만 6천명에 달하는 정부군을 투입할것을 다짐하였으며 미제에 더욱 많은 무기를 대줄것을 요구하였다. 5월 8일 마르코스는 필리핀에서《내부위협이 10년동안 더 지속될것》이라고 하였으며 미제는 혼란에 빠진 이 나라의 내부정세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대한 군사《원조》를 다그쳤다.

필리핀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접촉》과 친미추종정책에 대한 새로운《검토》라는데로부터 대외정책에서 일련의 다른 측면들도 나타냈다.

필리핀은 1973년 9월에 민주독일, 뽈스까, 웽그리아, 10월에 몽골, 11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1월 8일 마르코스는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을 규탄하였으며 같은 달 18일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아랍땅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고려》하겠다고 하였다. 11월 15일 석유수요량의 90%를 중동지역에 의거하여온 필리핀원유가공회사들은 미제에 대한 아랍나라들의 석유수출 금지 및 제한조치에 발맞추어 이 나라에 있는 미제침략군군사기지들에 대한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을 중지하였다.

5월 8일 마르코스대통령은 대외정책연설에서 《미군기지가 필리핀의 주권자체를 좀먹고있다.》고 하면서 필리핀은 미제에 의해 강요된《군사기지협정》, 《군사원조협정》및 《호상방위조약》등을 될수록 빨리 없애치우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는 필리핀의 자주권을 짓밟는 미군기지들이 없어지면 필리핀과 다른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개선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미제는 여러개의 휴양 및 통신 시설이외에 루손섬에 2개의 큰 군사기지들인 클라크공군기지와 수비크해군기지를 두고있는데 이 두 기지에만도 약 1만 5천명의 미제침략군이 둥지를틀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며 경제구조는 전형적인 식민지적기형성을 띠고있다.

주민의 75%가 농사하며 농산물이 국민총생산액의 약 35%, 수출의 60%를 차지한다. 부침땅으로 리용할수 있는 땅은 약 1천 400만헥타이나 실지 리용되는 땅은 그의 50%밖에 안된다. 토지의 대부분은 대토지소유자들이 거머쥐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를 비롯한 알곡작물과 이 나라의 4대 특산물인 사탕수수, 코프라, 담배, 마닐라삼 등이다.

벼는 민다나오섬의 바다가와 루손섬의 중부지역에서, 강냉이는 쎄부섬에서 주로 심는데 이 두 작물은 전체 부침땅의 70%에 달한다. 알곡은 아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적지않은 량을 수입한다.

해마다 벼는 약 470만t, 강냉이는 약 160만t, 사탕수수는 1천200만t, 코프라는 150여만t 가량 생산된다. 가물과 큰물 피해로 해마다 농산물수확량은 파동성이 심하다.

집짐승들로서 소, 돼지, 말, 염소 등이 있다.

공업에서 기본은 제국주의자들의 원료략탈을 위한 채광공업이다. 그러나 이 부문의 50%는 미제독점자본의 통제하에 있다. 동 (년산 11만t), 크롬 (정광으로 년산 약 40만t), 쇠돌, 망간, 주석, 금, 은 등이 채굴된다.

세멘트, 방직, 기계, 금속, 팔프, 원유가공, 제약, 화학, 고무 등의 공장들이 있으나 미제와 일본 독점자본의 침투가 강하다.

미제독점자본은 이 나라에 투자된 외래자본투자총액의 80%에 해당하는 약 10억딸라 (1972년현재) 에 달한다. 필리핀에 있는 큰 회사 50개중 24개는 미제독점자본의 통제하에 있다. 미제독점체인《에쏘》회사만 하여도 이 나라에서 근 1억 5천만딸라의 주권을 틀어쥐고있다. 최근년간 일본독점자본도 경쟁적으로 밀려들고있다.

림업과 수산업이 경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령토의 40%가 산림이며 라완재와 같이 굳은 나무를 비롯한 많은 목재를 수출하는데 그의 80%는 일본이 독점하고있다.

섬들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해상운수가 대외무역, 국내화물수송, 려객수송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루손섬과 파나이섬에만 있는 철길은 그 길이가 1천 167km이다.

주요수출품은 목재, 코프라, 사탕, 동광석 (이상은 수출의 80%) 이며 그밖에 야자기름, 담배, 유색금속 등이다. 수입품은 운수기재, 금속제품, 식량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일본, 화란, 서독, 영국, 오스트랄리아이다.

인구의 60%는 의사란 말조차 모르며 3천 950만의 인구중 750만명만이 전기불을 보는 정도이다. 항시적인 실업자는 430만명, 1천 2

00만명은 빈궁한 사람들이다. 3%에 불과한 특권계층이 국민소득의 65%를 독차지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피엔에스

신문 안그바얀 (공산당기관지), 마닐라 타임스, 마닐라크로니클, 데일리 스타, 데일리 미러

방송 비비에스방송, 필리핀텔레비죤방송

브 루 네 이

(영국《보호령》)

넓이 5,763km²

인구 13만명(1971년)

주민의 절반이상이 말라이족, 26%정도가 화교, 5%가 다야크족이며 그밖의 일련의 소수민족이 있다.

행정중심지 반다르 세리 베가완 (주민 약 6만명)

정 치

추장 최고권력자이나 실권은 영국고등판무관이 쥐고있다.

추장 펭기란 무다 다코타 하싸날 볼키아호 (1967년 10월—)

립법평의회 일원제의 립법기관, 21명으로 구성된 식민지통치기구

정당, 사회단체; 브루네이인민당 1965년 8월에 창건되였으며 북부깔리만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아자하리, **브루네이런맹** (집권당), **민족통일혁명전선** 1965년에 결성

브루네이는 원래 오늘의 북부깔리만딴 전지역을 포괄하고있었다.

1888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협정》을 강요하여 브루네이를 《보호령》으로 만든후 북부깔리만딴을 브루네이, 서라와크, 사바호 등 세 지역으로 분할하여 통치하였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는 4년간(1942~1945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브루네이를 강점하고있었으며 일제가 패망한 이후인 1946년 7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이 다시 기여들어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963년 8월 서라와크와 사바호는 말레이시아련방에 편입되였으나 브루네이는 석유수익분배에서의 의견상의로 련방에 가입하지 않았다.

전후 이 지역에서 타오른 민족해방투쟁은 1956년 8월 브루네이인민당이 창건됨으로써 급속히 앙양되였다.

투쟁의 불길속에서 1963년 1월 1일 브루네이인민당 위원장 아자하리를 수반으로 하는 북부깔리만딴혁명정부가 수립되였었다. 북부깔리만딴민족해방군은 1965년에 4만명을 망라한 무장력으로 자라나 영국식민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65년 3월에 괴뢰들로 새 립법평의회를 날조하고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지역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있다.

브루네이는 1971년 11월 23일부터 내부자치를 실시하고있으나 실권은 영제국주의자들이 여전히 장악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공업이다. 이 부문에서 전체 로동인구의 4분의 3이 일하며 재정수입의 90%가 여기에서 얻어진다. 그러나 영국독점회사인 《브루네이쉘》석유회사가 채취업을 독점하고있다. 주요원유산지는 세리아유전이다. 해저에서도 원유가 개발되고있다. 해마다 600만t정도의 원유가 생산된다. 그의 95%를 영제국주의자들이 헐값으로 앗아가고있다. 년간 16억~17억m³에 달하는 천연가스는 모두 수출된다.

1971년부터 가스액화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 나라에 침투한 미제의 《크라크석유회사》는 동북지방의 700여평방에이커의 땅에서 《석유탐사권》을 탈취하였다. 최근년간에 일본독점자본의 경제적침투도 강화되고있다.

가공공업으로서는 일용품을 만드는 가내수공업과 목재가공공장 등이 있을뿐이다.

고무재배원이 부침땅의 절반이상인 1만 2천여헥터에 달하며 여기에서는 매년 1천여t의 생고무가 수출된다. 고무재배원의 대부분은 영국독점체들이 거머쥐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야자, 후추, 코프라이며 식량수요의 3분의 2는 수입에 의존한다. 목재도 많이 생산된다.

철길은 없고 하천운수와 연안해상운수가 주요의의를 가진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천연가스 (이상은 수출의 90~95%), 고무, 목재, 후추, 코프라이며 건재 및 채취설비, 운수수단, 직물, 식량 등을 수입한다. 무역은 영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와 한다.

주민들의 생활형편은 장기간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19개의 중학교, 1개의 교원양성소, 1개의 직업학교 가 있고 대학은 없다. 학생수는 약 7천명에 불과하다. 병원도 몇개있을뿐 농촌에는 아무런 의료시설도 없다.

주민의 대부분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데일리 스타, 보르네오불레틴, 살람, 페즐리타 브루네이

방송 브루네이방송

인 도 네 시 아

(인도네시아공화국)

넓이 190만 4,345km²

인구 1억 2,900만명 (1974년초)

전령토의 약 7%인 쟈바섬에 인구의 65%가 집중되여있다. 쟈바족 (7천 600여만명), 순다족, 마둘라족 등 100여개의 종족이 있다.

공용어는 인도네시아말

수도 쟈까르따 (491만 5,260명, 1973년말)

정 치

협조국회 일원제로서 립법문제를 취급하나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총의석 460석중 100석(그중 75석은 군인, 25석은 골까르)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360석은 선거한다. 1971년 7월 협조국회선거결과 정부의 정치조직인 골까르 (직능그루빠)가 236석, 회교승려협회가 58석, 인도네시아회교당이 24석, 민족당이 20석, 회교련맹당이 10석, 카톨릭교당이 3석, 기독교당이 7석, 뻬르띠회교당이 2석을 차지하였다.

인민협상회의 1969년 11월에 채택된 선거법에 의하여 1972년 10월 1일에 창설된 최고주권기관이다. 5년에 한번씩 열리며 대통령 및 부대통령의 선거, 헌법재정, 정강결정 등을 한다. 협조국회의원 460명과 지역대표, 국회의원 이외의 정당대표, 직능그루빠대표 등 도합 920명으로 구성한다. 그중 골까르 458명, 장교 277명, 정당대표 185명이 망라되여있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수하르또

(1968년 3월-, 1973년 3월 재선), 외교부장 아담 말리끄, 국방 및안전부장 마르뎬 빵가베안 (군총사령관겸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5월 23일 창건, 1965년 《9월 30일운동》후 비법화, 골까르 (집권정치조직), 민족당, 회교승려협회, 인도네시아회교당, 회교련맹당, 카톨릭교당, 기독교당, 쁘르띠회교당, 1973년 1월 10일에 민족당, 기독교당, 카톨릭교당 기타 2개 정당이 통합

오랜기간 화란식민지로 있던 인도네시아는 1942년 8월에 일제에 강점되였다가 놈들의 패망후인 1945년 8월 17일 독립하였으며 1950년 8월 15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5월 1일 이리안 쟈야 (서부 이리안을 1973년 3월에 이리안 쟈야로 고침) 에 대한 화란의 행정권이 인도네시아에 넘어왔으며 1969년 8월 16일 인도네시아령토로 완전히 선포되였다.

1965년 9월 30일에 《9월 30일운동》이 일어났으나 10월 1일 진압되였다.

1966년 3월 독립이래 대통령으로 있던 수카르노의 정부가 해산되였으며 치안을 위주로 한 대통령의 권한이 수하르또에게 넘어갔다. 1967년 1월에는 《외자도입법》을 채택하고 미국, 일본, 화란,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8월에는 타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동남아세아국가련합》 (아세안) 을 결성하였다.

1968년 3월 제5차림시인민협상회의에서 수하르또를 대리대통령 (1967년 3월) 으로부터 정식 대통령으로 결정하였다.

1969년 11월에 진행된 국회는 공산당원, 《9월 30일운동》에 관련된 사람들, 금지된 조직의 성원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총선거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원칙에 기초하여 1971년 7월 3일 16년만에 처음으로 협조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1972년 10월 1일 독립 27년만에 《선거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창설된 새 인민협상회의가 개막되였었다.

1973년 3월 1~23일까지 진행된 인민협상회의에서 수하르또가 대통령으로 재선거되였다. 인민협상회의는 대통령의 최고권한을 재확인하고 자기가 앞으로 5년간 리행할 《기본지도로선》 (정강) 을 채택하였다. 이에 의하면 군부가 인도네시아의 정치에서 의연히 지도적역할을 놀것이라는데 로부터 《방위 및 안전 세력으로서, 또한 사회세력으로서의 인도네시아군대의 강화》를 호소하였다.

3월 27일 새로 구성된 내각은 대통령과 부대통령을 제외한 17명의 부장들과 5명의 국무부장들로 이루어졌다. 대통령이 차지하고있던 국방및안전부장직과 군총사령관직이 다른 사람에게 이관되였다.

8월 3일 대통령은 정당, 군부 및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19명의 자문리사회를 새로 꾸렸다.

11월 27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1천마일에 달하는 국경선을 측량및확정할데 대한 합의를 보았다. 현재 확정된 국경선은 18마일에 불과하다.

이해에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를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렸다. 11월 24일 반둥공과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수십명의 학생들은 일본대사관에 몰려가 자기 나라의 자원을 마구 략탈해가는 일본독점자본가놈들의 죄행을 규탄하는 성명문을 냈다. 성명문에서 학생들은 일본놈들에게 빌붙어 저들의 검은 배속을 채우기 위해 피눈이 된 인도네시아반동관리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였다. 11월 30일에도 대학생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규탄하는 프랑카드를 들고 강력한 시위 투쟁을 벌렸다.

이해 5월에 말레이시아총리, 싱가포르총리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 농업은 알곡생산과 수출용 열대농산물재배를 주로 하고있다. 주민의 70%이상이 농사를 하며 국민소득에서 농업의 몫이 40%를 차지한다. 1천700만헥터에 달하는 부침땅의 대부분은 쟈바섬과 마둘라섬에 집중되여있다. 이 지역에서는 전국알곡총생산량의 60~90%를 생산한다.

주요농산물은 후추, 고무, 차, 커피, 코코아, 야자, 사탕수수, 사이잘삼, 키니네 등의 수출용 농산물과 벼, 강냉이, 밀, 콩, 고구마, 땅콩, 담배와 같은 알곡 및 공예작물이다. 천연고무생산은 해마다 75만~80만t으로서 말레이시아 다음가는 세계 제2위이다. 고무재배원의 대부분은 수마뜨라섬에 집중되여있다. 키니네 (말라리야약 원료) 는 특산물로서 쟈바섬에서 재배되는데 세계 총수출량의 95%를 차지하며 후추도 그 생산량과 수출에 있어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벼는 1971년에 1천 100여만t 생산하였으나 아직 적지않은 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집짐승으로서는 소, 물소, 말, 염소, 양, 돼지 등이다.

많은 산림자원을 가지고있으며 목재생산도 경제에서 큰몫을 담당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라완재, 치크재와 같은 질좋은 목재채벌권을 독점하고있다.

공업에서는 채취공업 (공업의 60%) 이 위주이다. 주석, 석유, 쇠돌, 석탄, 보크사이트, 니켈, 망간, 금, 은, 동, 크롬, 아연 등의 지하자원이 있다. 그러나 채굴공업은 외국독점자본에 많이 장악되여있다.

하루에 농도가 낮은 140만바렐의 석유가 생산된다. 1970년이래 해마다 석유는 4천 200만~4천 400만t, 주석정광은 1만 9천t, 보크사이트는 120여만t 정도 생산하고있다.

외국자본총액의 80%는 채굴공업과 림업 부문에 투자되고있다.

기타 공업으로서는 소비품을 생산하는 중소규모의 경공업이 있으며 흑색금속, 기계, 화학 등 중공업의 토대는 매우 미약하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사탕, 고무가공, 제유, 담배가공, 정미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현정부는 국영부문을 축소하고 개인기업을 장려하고있다. 석유, 화학, 흑색금속 공업부문과 농업분야에 대규모의 외국자본투자를 요구하고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9—1973년)은 많은 면에서 서방나라들의 투자와 부채에 의거하였다. 계획수행기간에 소요자금의 70%가 《외국원조》였다. 결과 현정권이 존재한 7년동안에 그의 대외부채는 20억딸라선을 넘었다.

1973년 6월현재 이 나라에 대한 외국자본투자총액 가운데서 일본독점자본이 5분의 1에 달하는 4억 700만딸라였다. 일본독점자본은 《경제원조》라는 명목밑에 1973—1974년도에 477억엔(1억 8천만딸라)을 제공하였다. 미쯔이독점재벌은 6년내에 1억딸라를 투자할것을 계획하고 인도네시아의 여러 경제분야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있다.

교통운수에서 해상운수가 기본을 이룬다. 주요항구는 쟈까르따, 쑤라바야, 벨라완, 빨렘방, 마까싸르, 반쟈

르마쎈 등이다. 7천여km에 달하는 철길은 주로 쟈바(70%)와 쑤마뜨라의 북부와 중남부에 집중되여있다. 기타 섬들은 자동차운수와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석유, 천연고무, 주석, 담배, 코프라, 차, 커피, 후추, 키니네, 향료이다. 천연고무는 세계총수출량의 4분의 1이상 차지한다. 석유수출의 70%는 일본, 약 16%는 미국이 차지한다. 수입품은 식량, 기계설비, 직물, 화학제품, 인용품, 운수수단 등이다. 독립후 글모르는 사람의 비률이 적어졌으나 1974년초 현재 10살이상의 문맹자는 아직 인구의 약 40%(약 3천 600만명)에 달하였다.

로동력의 약 35%가 실업자이다. 해마나 실업자수는 140만씩 늘고있다.

주민의 근 90%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안따라

신문 베리따 유다 (륙군신문), 안뻬라 페쁘, 쟈까르따 타임스, 메르데까 (무소속), 와르따 하리안, 표스 나쇼날, 뉴 스텐다드

방송 인도네시아방송, 쟈까르따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1년 6월 17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63년 11월 15일에는 무역협정, 과학기술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4년 4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5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5월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 나라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말씀이 전달되있다.

수령님께서 친서와 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고 인도네시아대통령은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귀국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떠 모 르

(뽀르뚜갈식민지)

인도네시아동부에 있는 떠모르섬의 동쪽절반과 그 주변의 몇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서쪽 절반은 인도네시아 령토)

넓이 1만 4,925km²

인구 55만 9,000명

주민의 대부분은 원주민인 떠모르사람이며 그밖에 중국사람, 뽀르뚜갈사람, 인도사람도 산다.

공용어 뽀르뚜갈말

행정중심지 딜리 (주민 1만 9,000명)

정 치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1586년부터 떠모르섬 전체를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후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만든 화란식민주의자들이 1661년 떠모르섬의 서부에 있는 꾸빵지역을 점령하고 점차 동부로 진출하였다. 1859년 4월에 화란—뽀르뚜갈조약에 의하여 섬의 서부지역을 화란식민주의자들이 차지함으로써 원주민들은 인위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1904년부터 두 강점자들이 떠모르섬을 현재와 같이 동서로 절반씩 갈라서 통치하였다.

1945년 8월 인도네시아가 독립함에 따라 이 섬의 서쪽절반은 인도네시아령토로 되였으나 동쪽절반은 아직도 뽀르뚜갈식민지로 남아있다.

1951년부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떠모르를 제놈들의 한개주로 만들고 가혹한 총독통치를 실시하고있다. 1963년 쟈까르따에서 《떠모르련합공화국정부》가 조직되였으며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해방투쟁을 지도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식민주의자들의 장기간의 착취와 략탈로 뒤떨어진 농업을 가진 떠모르는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가 지배적자리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로서 강냉이 (년산 약 1만 4천t), 벼 (약 1만 4천t), 고구마 (약 3천 500t) 등을 생산하나 식량은 자급자족 못한다. 그밖에 코프라, 천연고무, 커피 등 수출용 열대농산물이 난다.

목축업이 경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데 소와 물소는 15여만마리, 양과 염소는 약 30만마리, 돼지는 약 20만마리, 말은 30만마리 정도 기른다. 석유를 비롯한 지하자원이 많다.

이 섬에는 철길이 없으며 자동차와 배가 기본 수송수단이다.

동물 및 식물성 기름, 코프라, 커피, 천연고무를 수출하며 남새, 식량, 화학제품, 천, 강재, 수송기재 등을 수입한다. 무역은 뽀르뚜갈이 독점하고있다.

원주민들은 원시종교를, 백인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보스 데 떠모르

방송 떠모르방송

싱가포르

(싱가포르공화국)

넓이 581.5km²

인구 216만 7,200명 (1973년초), 그중 화교 164만 9,600명, 말라이사람 32만 6,100명, 인도사람 15만 800명, 기타 4,000명

공용어는 중국말, 말라이말, 영국말, 타밀말

수도 싱가포르(주민 약 110만명)

정 치

국회 일원제이며 임기 5년인 65명의 의원들로 구성, 현국회는 제4기로서 1972년 9월에 선거되였으며 전 의석을 인민행동당이 차지하고있다.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4년임기로 국회에서 선거된다. 대통령은 총리와 정부각료들을 임명한다. 대통령 벤쟈민 헨리 새어즈 (1971년 1월—)

정부 총리 리관유 (1965년 8월—), 외교부장 에쓰. 라쟈라뜨남

정당, 사회단체; **인민행동당** (집권당) 화교로 부르죠아지 및 지식분자들로 1954년 11월에 조직, **사회주의전선** 인민행동당에서 떨어져나와 1961년 9월에 조직된 좌익정당, **로동당** 싱가포르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영국의 군사기지의 철페를 주장, **국민조직** 1961년에 조직, **인민련맹** 1957년에 조직, **자유사회당** 1956년에 조직, **국민당** 1971년 2월에 조직, **화교당** 1967년에 조직, **인민전선** 1971년 3월에 조직, **전국로동조합회의**, **로조련맹**

싱가포르는 1959년 6월 3일 《자치권》 (외교, 국방권 제외)을 획득한 영련방성원국이였다. 그후 이 나라는 1963년 9월 16일에 결

성된 말레이시아련방의 한개 주로 있다가 일련의 의견상이로 1965년 8월 9일《련방》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였다. 1965년 12월 22일 국회는 싱가포르공화국 독립법안을 가결하고 1966년 8월 9일 공포하였다.

싱가포르정부는《련방》에서 탈퇴하면서 말레이시아와《대외방위및호상원조조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군사기지들을 계속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말레이시아에 주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싱가포르에 해군기지와《영국극동륙해공군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이 지역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여왔다. 그러나 놈들은 재정경제위기로 하여 1971년 10월말까지 침략군을 싱가포르에서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싱가포르정부에 이관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공동방위》라는 명목밑에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들로 5개국《방위협정》(1971년 11월 1일 발표)을 조작하였다. 이《협정》을 맺은후 싱가포르에는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 군대가 주둔하게 되였으며 싱가포르정부는 군사비를 대폭 늘이였으며 종래의 지원병제를 페지하고 새로운 징병제를 내왔다.

1973년 11월 12일 싱가포르 외교부장은 오스트랄리아정부가 년말에 싱가포르주둔 자기의 군대(1천 800명)를 철수시킬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오스트랄리아가 5개국《방위협정의 종말을 초래한다면》두 나라간의 관계가 달라질것이라고 말하였다.

싱가포르정부는 대외적으로《쁠럭불가담》을 표방하면서 많은 나라들과 정치 및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있다. 1973년 8월에 민주웰남, 민주독일, 11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 2월에 핀란드, 8월에 이란과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이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서독과도 긴밀한 련계를 맺고있다.

리관유총리는 이해에 미국(3월말부터 4월초), 일본(5월에 비공식방문), 타이(1월), 인도네시아(5월)를 방문하였다. 4월 6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난 리관유는 동남아세아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조속한 철수가 이른바《파국적후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말하면서 미제침략군이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였다. 리관유는 인도네시아방문중에 두 나라간에 풀리지 않았던 령해권문제를 해결하고《해상국경협정》을 체결하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와 말라까해협의 리용문제를 둘러싼 의견상이는 의연히 존재하고있다. 중계무역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는 싱가포르는 말라까해협을《자유항로》로 만들것을 주장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역중심지의 하나인 싱가포르는 중계무역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중계무역과 직접, 간접적으로 련관된 부문에서 국민소득의 80%이상을 얻고있다.

이 나라 경제는 국제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적지 않게 좌우되며 일본, 미국, 영국 독점자본의 영향력이 강하다.

주변나라들과 주로 중계무역을 진행하며 동남아세아지역의 각지로부터 고무, 주석, 코프라, 향료 등 특산물이 이 나라에 집중된다. 초보적인 가공을 거친 반제품 또는 원료가 싱가포르항구를 거쳐 세계각지로 재수출된다. 해마다 1만 7천~1만 8천척의 상선들이 싱가포르항을 나드는데 년간 화물류통량은 약 3천 800만t에 달하고있다. 최근년간 중계무역액은 동남아세아에 대한 미제와 일본 독점자본의 침투로 말미암아 점차 줄고있다.

공업은 가공공업을 기본으로 하는 일련의 공장, 기업소들이 있으나 경제에서 주도적역할은 하지 못한다. 공장들로는 주석제련소, 석유정제공장, 세멘트공장, 고무공장, 기름공장 등이 있다 이 나라에는 외국자본 특히 일본독점자본이 많이 들어 오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공업 및 상업 기업체들과 은행이 80여개, 무역상사 및 그 지부가 30여개나 된다. 1973년 8월에《합작투자》의 형식으로 일본의 스미또모재벌과 큰 석유화학종합공장을 건설하는데 합의하였다. 10월에는 서독과 투자촉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싱가포르에 있는 5개 석유정제공장들은 중동석유에 크게 의존하고있다. 1971년에 석유수입량의 70%를 중동지역으로부터 들여왔다. 1973년 첫 6개월동안에 수입한 1천만t의 석유중 66%도 이 지역에서 수입하였다. 아랍나라들의 석유수출삭감조치로 1973년에 싱가포르는 미제침략군에 공급하여오던 연료공급을 중단하지 않을수 없었다.

새로 일며선 싱가포르시 서남부의《주롱공업지구》에는 년산 10만t 능력의 강철공장과 1만t급이상의 배를 수리할수 있는 조선소, 세멘트, 방직, 성냥 공장 등 일련의 공장들이 있다.

농업에서는 주로 남새와 고무나무, 야자나무, 담배, 과일을 재배하며 식량은 대부분 수입한다. 부침땅은 약 1만 5천헥타이며 여기에서 1만 6천여명이 일한다. 해마다 평균 1만t 정도의 물고기도 잡는다.

교통운수는 싱가포르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운수가 기본이며 싱가포르시와 말레이시아간에는 철길(19.2km)로 련결되였다.

주요수출품은 고무, 야자, 향료 및 가공제품이며 쌀, 각종 직물류, 원료 등을 수입한다. 대외무역은 일본, 영국, 미국, 말레이시아, 중국과 주로 한다.

싱가포르대학, 남양대학 등이 있으며 그밖에 약 700개의 각급학교가 있다. 중국사람들은 불교를, 말라이사람들은 회교를, 인도사람들은 힌두교를 주로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바리산(사회주의전선기관지), 명보, 신명일보, 남양상보, 신평일보, 성주일보, 스트레이츠 타임스(정부계), 인터내슈널뉴스, 썬데이타임스

방송 싱가포르방송, 싱가포르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5월 13일 우리 나라와 싱가포르정부간에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평양과 싱가포르에 각각 무역대표부를 설치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969년 11월 28일에는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다.

1973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와《상품류통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의 전문을 신문《명보》가,《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전문)와《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한 담화》에서 우리 나라 교육체계와 교육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을 신문《성주일보》가 실었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의 전문을 신문들인《민보》와《신명일보》가 실었으며 신문들인《성주일보》와《남양일보》는《김일성주석님께서 1973년 6월 23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새로 천명하신 5대강령》이라는 표제밑에 5대강령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1971년 11월 3~16일까지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이 나라에서 공연하였다.

1973년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4월)과 4.25축구선수단(3월)이 싱가포르를 방문하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련방)

말레이시아련방은 13개주 (말라이 11개주, 사라와크 1개주, 사바흐 1개주)로서 련방을 이루고있다. 각 주에는 헌법과 의회가 있으며 주추장이 통치권을 가지고있다.

넓이 33만 1,321km² (말라이 13만 1,313km², 사라와크 12만 3,025km², 사바흐 7만 6,115km²)

인구 1,080만명 (1971년 12월), 그중 말라이 914만명, 사라와크 100만명, 사바흐 66만명

주민은 말라이족 (50%), 화교 (40%), 인도사람 (10%) 등이다.

공용어는 말라이말이며 중국말, 영국말, 타밀말도 쓴다.

수도 꾸알라 룸뿌르 (주민 50만명)

정 치

국왕 국가원수로 되며 각 주 추장합동회의에서 선출된다. 임기 5년, 국왕 아브둘 할림 무아드 잠 샤흐 이브니 알마르훔 술탄 바들리 샤흐 (1970년 9월—)

련방회의 상하량원제, 상원 58석중 32석은 국왕이 임명, 26석은 주의회에서 선출, 임기는 6년, 하원 144석중 말라이 104석, 사라와크 24석, 사바흐 16석을 차지, 임기는 5년, 1969년 5월의 인종폭동으로 국회활동이 금지되였다가 1971년 2월 재개, 당시 하원에서 련맹당이 94석, 민주행동당이 13석, 전말라이회교도당이 12석, 사라와크국민당이 9석, 인민운동당이 7석, 사라와크인민련합당이 5석, 인민진보당이 4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1971년 2월 재개된 국회에서는 말라이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며 국어를 말라이말로, 국교를 회교로 할데 대하여, 또한 주 원수제도에 대한 일체 비판을 금지하도록 헌법을 개정

중앙정부 1973년 8월 13일 새 내각 구성, 총리 뚠 아브둘 라자끄 (1970년 9월—), 외교, 국방부장 겸임

정당, 사회단체; 말라이공산당 1930년 4월 30일 창건, 1948년에 비법화되였다. 위원장 아흐마드, 총비서 진평, **련맹당** (집권당) 1950년에 창건, 봉건귀족, 지주, 부르죠아지의 리익 대변, **민주행동당, 전말라이회교도당, 인민진보당, 인민운동당, 인민사회당, 레이버당, 사라와크국민당, 사라와크인민련합당, 사바흐련맹당, 로조대회, 인도인학교교원련맹**

1970년 9월 총리로 된 라자끄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말레이시아화》,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내세우고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예속적인 처지에서 점차 벗어나 사회주의나라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실시하고있다.

1973년초에 정부는 자국내에서의 외국석유독점체들의 활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5월 25일에 나라의 자원을 지켜내기 위하여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연고무의 판매를 다루는 민족회사들의 활동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회사들의 창설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이해에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민주웰남 (3월), 민주독일 (4월), 이라크 (4월), 핀란드(6월), 리비아 (11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중국, 알바니아, 꾸바와도 외교관계를 가질 용의가 있다는것을 밝혔다.

말레이시아외교부는 3월 12일 자기 나라는《앞으로 아스파크 (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 의 그 어떤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을것》이며 아스파크상임리사회에《대표단을 보내지 않을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제의 악명높은 이 아세아침략기구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 말레이시아는 11월 12일 캄보쟈 론 놀괴뢰도당의 엄중한 외화부족과 수송사업을 돕는다는 명목밑에 미제가 1972년초에 조작한 이른바 《외화지원기금》에서도 나왔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제4차중동전쟁을 일으키자 라자끄총리는 10월 9일 발표한 성명에서《전쟁의 근본원인이 아랍령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비법적인 강점》에 있다고 하면서 빼앗긴 령토를 되찾기 위한 아랍나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전쟁기간에 말레이시아정부는 애급과 수리아에 5만딸라분의 의약품을 보냈으며 앞으로 계속 지원할 용의를 표시하였다. 라자끄총리는 제3차(1970년 9월),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이 회의들에서《동남아세아의 중립화》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라오스, 캄보쟈, 버마 및 남부웰남을 포괄)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1973년 11월 15일 기자회견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대외정책은《동남아세아지역이 중립화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라자끄총리는 1973년에 인도네시아 (5월), 타이 (5월), 싱가포르 (11월) 등 주변나라들을 방문하였다. 싱가포르방문시에 두 나라 사이에는 공동각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1년에 세번씩 회의를 열고 공동경제문제를 해결하며 경제협력을 추진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라자끄총리는 12월 3일 국회에서 론 놀도당의 괴뢰정부를《캄보쟈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1972년 8월 가이아나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 외교부장회의에서도 말레이시아대표는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대표단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대표단을 회의의 정식성원으로 받아들이는것을 거부하였다.

1967년에 12마일령해권을 선포한 말레이시아는 1973년 5월 10일 인도네시아와 함께 말라까해협의 통제권을 실시할것이라고 선포하고 공동순찰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두 나라는 20만톤급이상의 선박들의 이 해협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간의 사바흐에 대한 령토권분쟁문제는 아직까지 미해결로 남아있다. 5월 7일 라자끄는 사바흐에 대한 그 어떠한 령토권주장도 인정하지 않을것이라는 단호한 립장을 취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이 나라의 경제는 천연고무생산과 주석채굴이 기본을 이룬다. 그러나 영국독점자본이 고무생산의 40%, 주석생산의 60%를 독점하고있다. 외국독점회사들은 이 나라에서 해마다 1억 2천만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주민의 65% (어업, 림업 포함)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17%인 250만헥타이

다. 그중 3분의 2가 고무재배원이다. 1973년 5월 정부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략탈로부터 나라의 자원을 지키기 위하여 고무판매를 다루는 민족회사들의 활동범위를 넓히며 새로운 회사들의 창설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고무생산량 (년산 120만～130만t) 은 세계 제1위이며 자본주의세계 천연고무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서해안의 벌방지대와 언덕들에 고무재배원들이 집중되여있다.

논면적은 130여만에이커 (1에이커는 약 4천 47m²) 인데 그중 90만에이커는 서부말레이시아에 있다. 여기에서 벼2모작을 한 논은 1970년에 32만에이커였다. 이 나라의 쌀의 자급률은 약 85%에 이르고있다.

고무 다음가는 수출작물은 세계 제4위를 차지하는 코프라 (야자씨) 이며 그밖에 후추, 커피, 담배, 차, 파인애플, 사탕수수 등도 재배한다.

전령토의 4분의 3이 산림으로 뒤덮여있으며 해마다 1천 100만t정도의 목재를 생산한다.

공업은 채광공업과 농산물가공공업이 기본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주석, 쇠돌, 보크사이트, 석탄, 석유 등이다. 이 나라는 세계 주석채굴량의 3분의 1을 생산하며 그의 수출 (년산 7만～7만 5천t) 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세계의 첫자리를 차지한다. 주석은 주로 서해안의 이뽀곡지, 따이삥과 꾸알라 룸뿌르에서 채굴한다. 보크사이트의 채굴은 일본의 알루미니움공업에 전적으로 복무하고있다. 말라이반도의 동남방지방은 주요보크사이트산지이다.

1968년부터 서라와크에서 채취하기 시작한 석유는 년간 평균 3천 200만바렐을 수출한다. 그러나 영국의 석유독점체인 《쉘》 회사가 채취되는 석유의 80%를 독차지하고있었다. 말레이시아정부는 1973년초에 외국석유독점체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놈들과 맺었던 협정들을 재검토하며 민족석유회사를 창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973년에 5개의 유전이 새로 발견되여 이 유전들에서 하루 약 6천바렐의 석유를 채취하고있다. 1974년 1월 정부는 석유 1바렐당 28.8말레이시아딸라로 값을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공업에서 그밖에 영국자본에 의하여 운영되는 유색금속공업기업소 (주로 주석제련) 들과 고무가공, 야금, 세멘트, 석유가공, 방직 공장들과 정미소, 제재소 등이 있다.

1971년부터 착수한 제2차 5개년계획은 일본의 《엔차관》 에 주로 의거하고있다.

말라이에는 2천여km의 좁은 철길과 약 1만km의 자동차길이 있다. 철길의 대부분은 항구들과 원료산지들을 련결하고있으며 주로 서해안에 치우쳐있다. 주요항구는 삐낭과 꾸알라 룸뿌르이다.

원료를 수출하고 제품을 수입한다. 고무 (수출총액의 60%), 주석 (20%), 쇠돌, 석유, 야자기름, 목재 등을 수출한다. 식량 (수입총액의 50%), 원유제품, 기계류, 여러가지 천, 화학제품 등을 수입한다. 이 나라 쇠돌수출의 99%, 목재수출의 3분의 2는 일본이 독점하고있다.

이 나라 주민중에서 말라이사람과 인도사람들은 농촌지대의 고무재배원에서, 화교들은 도시에서 주로 산다. 학생총수는 약 200만명 (그중 화교 93.1%, 말라이사람 1.5%, 기타 5.4%) 이다. 1959년에 창립된 말라이종합대학에는 7개의 학부에 약 4천 700명의 학생이 공부한다. 의료기관수는 독립전보다 30배나 늘어났으며 정부는 말라리아, 결핵 등을 포함한 전염병을 없애기 위한 10대 보건과업을 추진하고있다.

국교는 회교이다. 주로 말라이사람들이 회교를 믿으며 화교들은 불교, 인도사람들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베르남 (1968년 5월부터 시작)

신문 웃산 멜라이우 (정부계), 말라이 매일, 말라이 타임스

방송 말레이시아방송 (국영), 말레이시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30일 우리 나라 정부와 말레이시아정부 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1973년 3월에 우리 나라에서 4.25축구선수단과 평양시탁구선수단이 말레이시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타 이

(타이왕국)

넓이 51만 4,000km²

인구 3,700만명 (1972년)

주민의 대부분이 타이족이며 그밖에 화교, 말라이족, 라오족, 크메르족 등 약 30개 종족이 사는 다민족국가이다.

공용어는 타이말

수도 방코크 (주민 320만명, 1971년)

정 치

국왕 국왕은 국회의원과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푸미폰 아둘랴데트 (1950년 5월—)

국회 1973년 10월 타놈반동정권이 전복된후 12월 23일 국왕은 299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임명하였다. 그중 국가관리 94석, 고위정치인사 33석, 대학교원 37석, 군인 23석, 의사, 법률가, 실업가 112석, 나머지 의석은 일부 개별적 인사들이다.

정부 1973년 10월 14일 타놈정권이 전복되고 10월 16일 과도적인 민간인정부가 수립되였다. 총리 산야 타마스크디, 외교부장 챠룬판드이스랑쿨, 국방부장 출라사피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2년 12월 2일 창건, 1947년에 비법화, **애국전선** 1965년 1월 1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로 조직된 반미반정부조직, 반정부무장투쟁을 령도, **민족해방전선** 1970년 10월 19일 타이애국적무장력의 영향을 받는 회교도세력이 중심이 되여 결성, **민주주의전선** 일련의 사회경제개혁의 실시를 요구하며 친미반동정부를 반대, **근왕민족사회당** 1973년 11월 21일 결성, 민족경제의 개선과 일련의 개혁을 주장

타이는 2차세계대전후 미제가 기여들어 친미독재정권을 세우고 저들의 동남아세아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온 나라이다. 1973년말까지만도 타이에는 7개의 미공군기지와 각종 미군사기지가 있었으며 3만 5천명의 미제침략군이 도사리고있었다.

타이 애국자들과 인민들은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오래전부터 투쟁하여왔다. 1965년부터는 타이 동북부에서 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입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관, 121페지)

1973년에 타이에서는 학생들의 반정부투쟁과 로동자들의 파업투쟁,

애국적인민들의 무장투쟁이 그 어느해보다 치렬히 전개되었다. 10월 14일 학생들의 시위로 하여 1963년부터 미제의 부추김밑에 극악한 파쑈군사통치를 실시하여온 타놈 키티카초른친미반동정부가 뒤집히졌다.

친미반동정책을 실시하여오던 타놈도당은 1971년 11월 17일 미제의 사촉밑에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파쑈군사독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타놈도당은 헌법을 페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애국적인민들의 반정부무장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놈들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마저 억누르면서 모든 정당, 로조 활동을 금지시켰다. 괴뢰도당은 타이령토를 미제의 군사작전기지로, 미일독점자본가놈들의 상품판매시장으로 전변시키고 인도지나침략전쟁터에 고용병들을 내몰아 미제의 아세아침략전쟁에 적극 복무하였다.반면에 타놈파쑈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도 점차 높아갔다.

1972년 11월 중순 수도 방코크의 청년학생들이 일으킨 일본상품배척운동을 발단으로 하여 확대된 반정부투쟁은 1973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치렬히 전개되였다. 정초부터 전국 도처에서 로동자, 청년학생들은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힘차게 싸웠다. 반동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3년에 들어와 9월까지에만도 방코크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과 공업지대들에서 178회의 파업이 일어났다. 이것은 그 전해 같은 기간의 5배에 해당한다. 특히 7월과 8월에 로동자들의 투쟁은 절정에 달하였다. 이 기간에 70여회의 파업이 일어났으며 여기에는 5만여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5월에 수백명의 강철로동자들은 반동당국의 전횡에 항의하여 근 두달동안이나 투쟁을 계속하였다.

타놈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와 대미대일추종정책에 대하여 극도로 불만을 품고있던 청년학생들은 10월 10일 13명의 학생, 교수, 정치인들이 《새 헌법의 공포》를 요구하는 모임을 조직하다가 군사당국에 의하여 체포된것을 계기로 반정부시위투쟁을 벌렸다. 40만명의 성원을 망라하고있는 학생쎈터는 10월 12일 체포된 13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타놈도당에게 들이댔다. 반동당국이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게 되자 13일 20만명의 학생들은 《타이력사상 최대규모의 항의시위》를 벌리면서 폭동으로 들어갔다. 투쟁에 떨쳐나선 학생들은 정부청사와 경찰본부를 습격하였다. 이 투쟁에서 그들은 100여명의 희생자와 700여명의 부상자를 냈다. 격분한 학생들은 반동군대와 경찰놈들의 류혈적인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도 경찰서를 불태우고 완강히 대항해나섰다.

청년학생들의 반정부폭동은 10월 14일에 가증스러운 친미군사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야 말았다. 타이인민의 버림을 받은 반동총리 타놈과 부총리 프라파스, 군부두목의 한놈인 타놈의 아들은 국외로 도주하였다.

타놈반동정권을 무너뜨린후 타이에서는 반미반일기세가 높아가고 반동통치배들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인민들과 학생들의 투쟁이 련일 계속되였다.

11월 20일에 타이주재 미국신임대사놈이 기여들자 학생들은 발표문을 배포하여 미제가 타놈도당을 적극 부추켜온 사실, 미제의 경제 《원조》의 부당성, 타이에서 미제침략군이 감행하고있는 범죄적행위를 준렬히 폭로규탄하였다.

친미반동정부를 반대하여 장기간 무장투쟁을 전개하여온 애국적인민들의 투쟁도 계속되였다.

10월 15일 타마사트종합대학 총장이던 산야 타마스크디를 총리로 하는 민간인정부가 수립되였다. 10월 17일 산야총리는 체포된 폭동참가자들에 《대사》를 실시할것과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장의식을 명령하였다. 10월 25일 총리는 헌법의 조속한 공포, 세금제도의 개혁,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외국과의 우호관계촉진 등 일련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앙양된 반정부기운에 눌린 산야정부는 종전의 파쑈통치를 일부 완화하지 않을수 없었다.

타이정부는 11월 27일 《로동법》을 개정하여 로조조직 및 로동자들의 파업권을 인정하였으며 이전군사정권이 조작한 5명이상의 집회에 대한 금지령을 폐지하였다. 12월 27일 정부는 중국려행금지를 포함한 《반공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로동인구의 약 80%가 농사하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외래독점자본에 얽매인 전형적식민지경제가 지배하고있는 이 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상품판매시장으로, 원료공급기지로 되고있다. 타이에 대한 일본, 미국, 영국, 서독 등 외국독점체들의 투자총액은 60억딸라이상에 달한다. 특히 1971년 현재 타이에 대한 외국자본투자총액의 약 40%와 타이의 상품수입의 35%를 일본독점자본이 차지하고있었다.

농업생산은 국민총생산액의 거의 60%를 차지하며 수출의 85%가 농산물이다. 1천여만헥터의 부침땅중에서 720만헥터가 논이다.

부침땅의 50%는 왕실, 봉건귀족, 지주들이 차지하고있다.

벼농사가 농업에서 기본을 이루는데 그의 절반이상이 메남강삼각주에서 생산된다. 뒤떨어진 영농방법과 비료부족으로 하여 많은 논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년간 1천 300만t 정도의 벼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벼다음 가는 작물로서 고무나무재배가 유명하다.

말라이반도의 북부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있는 고무는 매해 30여만t으로서 세계 제3위를 차지한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음) 최근년간에 강냉이밭이 늘어남에 따라 그것은 알곡생산에서 큰몫을 담당하고있다. 기타 작물로서 목화 (년간 약 8만t정도), 담배 (8만t정도), 사탕수수, 콩, 후추, 마니오크, 마닐라삼도 생산된다.

축산부문에서는 소, 물소, 말, 코끼리 등을 기르는데 소와 물소는 농사일에, 코끼리는 목재운반에 주로 리용된다.

공업은 외래독점자본에 의한 예속으로 하여 매우 뒤떨어져있다. 공업기업소의 90%가 10명미만의 로동자들이 일하는 작은것들이다. 농산물가공업과 방직공업을 위주로 한 경공업과 채굴공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채굴공업분야에서는 주석, 중석, 연, 안티몬, 형석, 쇠돌, 망간 등을 캐고있다. 특히 주석생산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말레이시아, 볼리비아 다음인 세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주석은 1972년에 2만 2천t을 생산하였다.

타이반동도당이 1962년에 이른바 《산업투자장려법》을 내놓은 이래 일본독점자본은 《원조자》의 탈을 쓰고 본격적으로 밀려들었다. 특히 《공동개발》의 간판밑에 고무, 기계, 금속, 다이야, 방직, 식료 공업부문에 깊이 침투한 일본독점자본은 타이매판자본가들과 《합영회사》를 차려놓고 이 부문에서 독관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이 이 나라에 설치한 공장, 기업소들은 500개이상에 달하며 방코크에만도 그것은 200여개나 된다. 《차관》이라는 미명하에 1973년 5월 일본

반동정부는 타이에 2억2천 500만딸라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1968년에 제공한《차관》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일본독점자본에 의한 타이경제의 예속은 무역에서도 심한 적자를 내고있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타이는 1973년 1. 4분기에 전해 같은 시기보다 2억 900만바트나 더 많은 14억 2천 380만바트의 적자를 봤다.

오늘 타이는 일본독점자본의 동남아세아에 대한 경제적침투의 거점으로 되고있다.

운수의 기본은 하천운수이며 메남강은 주요배길로 리용된다. 3천 700km에 달하는 철길은 방코크를 중심으로 하여 북부, 동부, 남부로 뻗어있다.

쌀 (년간 140만~150만t), 고무, 주석, 치크재, 마대 등이 주요수출품이나 최근년간 강냉이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품목에 첨가되였다.

각종 기계 및 설비, 원유제품, 비료, 화학제품, 일용품을 주로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일본 (총무역액중 35%정도 차지), 미국 (약 15%) 과 기타 자본주의나라들과 주변나라들이다.

반동통치배들의 반인민적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반주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였다. 농촌에만 하여도 100여만명의 계절로동자들이 항시적으로 떠돌아다니고있다.

주민의 30%이상이 문맹자이다.

썩어빠진《미국식생활양식》이 범람하여 패륜패덕, 살인강도 행위들이 사회전반을 휩쓸고있다. 게다가 반동통치배들은 직위를 람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고있다. 타이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돌아치는 일본놈들은 타이의 어린소녀들까지 노리개로 삼거나《기술훈련》을 시킨다는 구실밑에 일본에 팔아넘기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불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산 세, 방코크 포스트 (영어), 샴 뉴스

방송 타이전국방송, 타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타이반동도당은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수많은 고용병들을 보내여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케 하였다. 전후에도 타이반동군대는《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졸개노릇을 하고있다.

타이는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규탄을 받은《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성원국으로 있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는 미제의 충실한 거수기로서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고있다.

버 마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넓이 67만 8, 033km²

인구 2, 888만 5, 800명 (1973년 3월말)

주민은 버마족, 카랜족, 샨족, 카친족, 몬족 등 약 70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고 그중 약 2천만명이 버마족이다.

공용어는 버마말이나 영국말도 쓴다.

수도 랑군 (주민 185만 4, 890명)

정 치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다. 1974년 1월 27일~2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선거에서 451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여 구성되였다.

국가리사회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이전혁명리사회 성원10명, 국내의 매개 민족자치국 (구) 및 주인민리사회 대의원 1명씩과 기타 대의원 14명을 포함하여 도합 28명으로 구성되였다. 국가리사회 의장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겸임하며 서기장은 대통령이 없거나 그가 일시적으로 자기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의장 네 윈, 서기장 산 유

정부 1974년 3월 5일 18명의 부장과 1명의 부총리로 구성, 총리 우 센 윈 (1974년 3월 5일—), 외교부장 우 라 폰, 국방부장 틴 우

정당, 사회단체; 1964년 3월 28일 네 윈이 사회주의로선당이외의 모든 정당들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 공산당 1939년 8월 창건, 1946년 2월 적기공산당과 백기공산당으로 갈라졌으며 1948년에 비법화, 사회주의로선당 1962년 7월 4일에 창건된 유일집권당, 위원장 네 윈, 총비서 산 유, 인민로동자리사회 유일한 로조단체, 인민농민리사회 유일한 농민조직

버마는 1948년 1월 4일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다.

1962년 3월 2일 네 윈이 우누정권을 뒤집어엎고 군인들로 혁명리사회를 조직하였다.

혁명리사회는 헌법을 폐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같은해 4월 30일에 혁명리사회는 《사회주의에로 가는 버마의 길》이라는 정치선언을 발표하였으며 7월 4일에는 유일집권당으로서의 버마사회주의로선당이 결성되였다.

혁명리사회는 1964년 3월 28일 《민족통일옹호법》에 의하여 유일당체계를 수립하고 사회주의로선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유일당체계의 테두리내에서 새로운 대중단체들인 인민로동자리사회와 인민농민리사회가 조직되였다.

버마정부는 1962년혁명이후 미제의 침략적인 《포드재단》과 《아세아기금》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미제의 내사관이 경영하던 도서관을 몰수하였다.

같은해에 버마정부는 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여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가지고있던 은행, 회사, 기업체들에 대한 국유화를 적극 추진시킨 결과 공업, 운수, 대외무역, 국내상업, 체신, 은행 및 산림자원의 개발 등 거의 모든 부문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었다.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운동도 추진시켰다. 1970년말에는 국가경제생활의 모든 부문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최고국가경제리사회가 창설되였다.

1971년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된 사회주의로선당 제1차대회에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국가건설과 《엄정중립정책》을 선포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것을 결정하였다.

1973년 10월 8~21일까지의 기간에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제2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새 헌법을 심의하고 비준하였으며 새 헌법에 대한 전인민적투표실시와 1974년에 진행될 인민회의 선거를 위한 준비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또한 대회는 나라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문제를 심의하였으며 새 당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12월 15일부터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였다.

1974년 1월 3일 혁명리사회는 새 헌법을 승인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국민투표에서 찬동을 받은 헌법은 1월 3일부터 국가의 기본법으로 되였다. 이날부터 버마는 헌법에

의하여 나라 이름을 버마련방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고쳤다.

1974년 1월 27~2월 10일까지 새로 채택된 헌법에 따라 인민회의 및 인민리사회 (각급 지방주권기관)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3월 2일에는 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네 윈은 국가권력을 인민회의에 넘기며 혁명리사회는 해산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또한 회의는 인민회의 국가리사회를 선거하였다. 국가리사회 제1차회의는 의장과 서기장을 선거하였다.

3월 5일에 국가리사회는 새 내각명단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날에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은 국방및안전리사회가 구성되였다. 여기에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부총리, 내무, 국방, 외교 부장들이 들어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은 약 80%가 농업부문에 종사한다. 농산물은 국민소득의 3분의 2, 외화수입의 80~85%를 차지한다. 부칠수 있는 땅은 약 1천 600만헥타이나 현재 리용되는 부침땅은 880만헥타이다.

세계적인 벼생산국의 하나인 이 나라는 한해에 두번의 벼농사를 한다. 1971년에 약 800만t의 벼를 생산하였다. 그밖에 고무, 사탕수수, 목화, 차, 땅콩, 콩, 밀, 담배, 깨 등을 재배한다.

축산업도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물소, 돼지, 양, 코끼리인데 물소 (300여만마리) 와 소 (180만마리) 는 주로 농사일에, 코끼리는 목재운반에 리용한다.

공업부문에서 기본은 광업과 정미업및 제재업이다. 석유, 연, 아연, 주석, 중석 등을 채굴하며 석유는 매년 약 75만t정도 생산된다. 정미업은 가공공업의 4분의 3을 차지하는데 전국 로동자의 절반이 이 부문에서 일한다.

여러차례의 경제발전계획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일떠섰다. 뜨락또르조립공장, 농기구공장, 화학비료공장, 방직공장, 세멘트공장 등 크고 작은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전국총생산액에서 국영부문의 몫은 35%이며 8%는 협동부문이 차지한다. 1974년 3월현재 이 나라에는 도합 1만 6천 500개의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근 77만의 근로자들이 망라되였다.

치크나무를 비롯한 질좋은 나무들이 많으며 림업이 또한 경제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운수에서 국내수송은 철길로, 대외무역은 주로 해상운수에 의거한다. 4천 309km의 철길이 있으나 모두 좁은 철길이다.

주요수출품은 쌀 (수출총액의 약 70%), 치크재 (수출총액의 20%) 광석, 생고무, 목화 등이다. 수입품은 일용필수품 (약 20%), 기계설비, 공업원료 및 자재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중국 쏘련,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다.

1964년부터 농촌지역들에서 글모르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한 사업이 벌어져 1971년현재 글모르는 사람들의 수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주민은 약 90%가 불교도이며 1961년 8월에 불교는 국교로 선포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버마통신

신문 록따삐뚜네씨, 만마아링, 워킹 피플즈 데일리, 보터타웅

방송 버마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1년 5월 15일에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58년 3월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랑군에 개설되였다.

1963년 8월 14일에 버마조선친선협회가, 1971년 5월 25일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버마에는 《김일성동지로작학습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활동연구소조》,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녀성소조》,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를 위한 교육과학위원회》를 비롯한 여러개의 연구소조들이 있다.

1973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와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를 비롯한 많은 로작들을 《미마모》 출판사가 단행본 (버마어) 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3년을 맞이하여 하신 신년사의 요지를 《제몽》, 《록따삐뚜네씨》, 《만마아링》, 《워킹 피플즈 데일리》 및 《보터타웅》 등 버마신문들이 실었다.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의 전문을 잡지 《인다뚜베다》가 전문을 실었다.

5월 16일 버마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위원회》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의 편지를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버마신문들인 《록따삐뚜네씨》, 《제몽》, 《만마아링》은 우리 나라를 다녀간 버마기자대표단의 방문기를 실었다.

5월 6일 버마혁명리사회 자문기구 성원이며 이름난 작가인 우뗀 페민은 《외세의 배격》이라는 제목밑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글을 냈다.

1973년에 버마교육대표단 (8월), 기자대표단 (9월), 남자롱구선수단 (7월) 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3월에 정부대표단이 버마를 방문하였다.

부 탄

(부 탄 왕 국)

넓이 4만 6, 600km²

인구 약 110만명

주민의 3분의 2가 보테아족이며 그 밖에 라이족, 림부족 등이 산다.

언어는 드루크케말 (부탄말)

수도 텀푸

정 치

국왕 국가원수로서 립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한다. 국왕의 자문기관으로서 협의위원회 (8명의 고문으로 구성) 와 국가회의 (30명으로 구성) 가 있다. 국왕 지그므 싱기 왕추크 (1972년 7월 20일 왕이 사망후 그해 7월 27일 17살에 왕위에 올랐다.)

정부 국왕이 총리를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정당은 일체 금지

부탄은 1910년부터 영국의《보호령》으로 되였다.

1947년 인도의 독립과 함께 영국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난 부탄은 1949년 8월 인도로부터 데완길지방을 넘겨받고 또 해마다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국방 및 외교권을 인도에 넘겨주는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후 인도정부의 정치 및 법률 고문이 이 나라에 파견되였으며 인도의《보호》하에 들어갔다.

1971년 이 나라 정부는 인도에 넘겨주었던 외교권을 되찾고 같은해 5월에 첫외교대표부를 인도에 개설하였다.

1972년 11월 부탄의 외교부장은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부탄이 쁠럭불가담 및 세계평화를 위하여 건전한 외교정책을 실시할것이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 그리고 특히 이웃나라들과의 밀접한 친선관계를 가질것을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나라가 이제는 외부세계와 떨어진 생활을 그만두었다고 덧붙였다.

1973년에 부탄이 처음으로 쁠럭불가담국가회의에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농목축업을 하는 농업국가로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가 지배적이며 자연경제가 그대로 유지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보리, 인도밀, 강냉이, 감자, 메밀이다. 그 밖에 망고와 바나나, 고무나무도 재배한다. 부칠랑의 내부분이 다락논과 다락밭들이다. 식량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한다.

북부산악지대에서는 목축업을 주로한다. 주요집짐승은 야크 (소의 일종), 양, 당나귀, 말, 코끼리 등인데 야크를 제일 많이 기른다.

전국토의 70%가 산림이며 목재생산이 경제에서 큰 몫을 담당한다.

공업은 보잘것없으며 동, 석탄, 돌비늘, 백운석, 석고, 흑연 등을 수공업적으로 캐낸다. 해마다 3만t정도의 석탄을 캔다. 수공업지방법으로 종이 (주로 한지), 모직물을 생산한다. 또한 작은 규모의 목재가공, 과일가공공장이 있으며 팀푸에는 소규모의 발전소가 있다.

산악지대가 많기때문에 야크, 당나귀, 말이 주요운수수단이다. 제2차5개년계획 (1967~1971년) 기간에 동부와 서부를 련결하는 자동차길이 건설되였다.

주요수출품은 목재, 과일통졸임, 농산물, 광물, 상아이며 수입품은 공업제품, 휘발유를 비롯한 연료, 사탕이다.

출판보도; 신문 쿠엔셀 (정부기관지, 부탄말, 영국말, 네팔말로 발간), 방송은 없다

시 킴

(인도《보호령》)

넓이 7, 298km²

인구 약 20만명 (1971년)

주민의 3분의 2가 네팔사람계통의 키라트, 타망, 쉐르프, 네와르족이고 그밖에 부티아, 라프챠, 벵갈족이 있다.

공용어로서 네팔말 및 영국말을 쓴다.

행정중심지 강토크 (주민 1만 2, 000여명)

정 치

국왕 쿠마르 팔덴 톤다프 남갈 초갈 (1963년 12월—)

국가평의회 25명으로 구성되는 국왕의 자문기관이다. 그중 6명은 국왕이 임명하고 18명은 총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행정평의회 국가평의회 성원중에서 국왕이 임명한다. 국가평의회 의장이 행정평의회 의장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국민대회당 립헌군주제와 나라의 민주화를 주장, 국가평의회에서 5석을 차지, 국가대회당, 국민당 전제군주제의 유지를 주장

시킴은 1817년에 영국의《보호령》으로 되였다.

1950년 12월 시킴은 인도와의 조약에 의하여 그의《보호령》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시킴의 외교, 재정, 교통 및 체신 등에 이르는 모든 주요실권은 인도측에 쥐여졌다.

형식상 행정 및 립법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인도인 고문들과 관리들이 사실상 이 나라를 통치하고있다.

1973년 4월초에 1만 5천여명의 인민들이 정치적 및 행정적 개혁을 요구하며 국왕의《폭압통치》를 반대하여 강토크와 지방들에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군대가 시위자들에게 발포함으로써 여러명의 사상자가 나자 국내사태가 더욱 복잡하여졌다. 이를 계기로 인도군대가 시킴에 파견되였으며 4월 8일에는 형식상 국왕이 쥐고있던 행정권마저 인도정부가 쥐였다. 국왕은 시위자들의 기세에 눌리여 13일에 그들의 정치적요구의 대부분을 수락하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5월 8일에 시킴왕, 인도정부, 이 나라의 3개 정당대표들사이에 립헌군주제의 실시, 소수민족인 부티아 및 라프챠족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할것을 예견하는 협정이 조인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거의 모든 논밭들이 높은 산비탈에 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인도밀을 비롯한 알곡작물과 감귤류,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 등 과일이다. 6만헥터의 밭에 강냉이를, 1만 2천헥터정도의 논에 벼를 심는다. 서남부에서 재배하는 소두구 (향료 및 약재)는 특산물로서 6만헥터정도나 심는다. 식량은 자급자족 못한다.

집짐승으로서 야크 (소의 일종), 말, 양, 염소 등을 기른다.

공업이란 소규모의 채굴업과 수공업이 기본이다.

동, 연, 아연이 약간 채굴된다. 양털을 원료로 하는 수공업공장들과 남부지방에 소규모발전소들이 있다.

자동차길은 약 800마일이며 인도와 중국의 시짱지방을 련결하는 도로가 이 나라를 통한다.

주요수출품은 털과 집짐승, 소두구 (이 수출액은 년간소득액의 50%차지)이며 식량과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주로 인도와 무역한다.

라마교가 국교이나 주민의 근60%는 힌두교를 믿는다.

네 팔

(네팔왕국)

넓이 14만 797km²

인구 1, 155만 5, 000명(1974년초)

주민은 쿠르카족, 네와르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네팔말이며 힌디말, 영국말도 쓴다.

수도 까트만두(주민 33만 3, 000명)

정 치

국왕 전국참사회와 정부를 통하여 립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한다. 국왕 비렌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 데바

전국참사회 (판챠야트)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는 125명, 그중 30명은 국왕이 임명하며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한다. 여기에서 채택된 일체 법령은 국왕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국가리사회 국왕의 최고자문기관,

그의 성원은 국왕이 임명한다.

정부 정부성원은 국왕이 전국참사회 성원중에서 임명한다. 총리 프라사드 미잘 (1973년 7월—), 외교부장 갸넨드라 바하두르 까르끼

정당, 사회단체; 1961년 1월 이래 일체 정당들의 활동은 금지되였는데 그 이전에 활동하던 당은 공산당 (1949년 9월 15일 창건), 대회당, 구르카당이다.

1951년 2월 18일 네팔에서는 영제국주의의 괴뢰였던 라나독재정권이 타도되고 립헌군주제가 선포되였다. 이것은 100여년간에 걸친 라나일가의 독재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새생활 창조를 위한 네팔인민의 투쟁에서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2월 18일은 《민족민주주의의 날》로서 이 나라의 민족적명절이다.

1962년에 12월 16일 국왕은 의회제도를 폐지하고 《당이 없는 참사회 (판차야트) 제도의 민주주의적체계》를 규정한 새 헌법을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네팔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을들에 존재한 《부락장로회의》 또는 《촌락회의》를 현실에 맞게 《적용발전》시킨 4등급으로 구분되는 《판챠야트》 (주권기관) 제도가 나왔다. 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1963년 2월부터 4월 중순까지에 걸쳐 전국참사회, 지방참사회 등 각급 주권기관선거가 진행되였다. 그해 4월 18일에 전국참사회가 수립된후 이 나라에서는 공업과 상업의 70% 이상을 틀어쥐고있던 외래독점자본을 몰아내고 네팔사람들이 기업소들을 운영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972년 1월 국왕 마헨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 데바 (1955년 3월에 왕으로 됨)가 병으로 사망하고 그의 아들 비렌드라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1972년 6월에 진행된 전국참사회 제20차회의에 보낸 서신에서 정부가 계획에 따라 나라의 발전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공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증대시키며 대중소비품가격을 안정시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그는 평등,독립, 자주권, 령토완정에 기초하여 시종일관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공고히 하는 정책을 견지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73년 6월에 진행된 전국참사회 제22차회의에서 국왕은 앞으로 민족경제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정부가 국내자원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업생산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일것이라고 말하고 공업문제에서도 국내원료에 기초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2월 18일 민족적명절인 《민족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집회에 참가한 국왕은 인민들에게 보내는 축하편지에서 나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제적진보를 이룩하여 자급자족하자》고 강조하였다.

8월에 정부는 자기 나라에 둥지를 틀고있으면서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독점하고 네팔내정에 간섭하던 미영석유독점체들로부터 석유나 석유제품을 수입하며 판매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해에 네팔은 1월에 노르웨이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2월에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1973년현재 네팔은 54개 나라와 외교 및 령사관계를 맺었다.

1973년 3월에 유고슬라비아련방집행리사회 (정부) 위원장이 네팔을 방문하였으며 네팔국왕은 11월에 인도를, 12월에 중국을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네팔은 로동인구의 90%이상이 농사하는 농업국가이다. 2~3모작할수 있는 부침땅이 180여만헥타가 있는데 관개된 땅은 12만 5천여헥타이다. 논밭들은 대부분이 해발고가 높은 산비탈에 있는 다락논, 다락밭들이며 논농사가 기본이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조, 밀, 보리, 감자 등의 알곡작물과 사탕수수, 황마, 목화, 담배, 유채와 같은 공예작물 그리고 바나나를 비롯한 열대과일이다. 1969—1970농업년도에 알곡생산량은 369만t에 달하였다. 1973년에 밀수확에서 기록을 내여 그 전해에 비하여 1.5배나 더 거두었다. 그러나 식량은 여전히 자급자족 못하여 1973년에도 막대한 량을 수입하였다.

1970—1971농업년도에 황마는 5만 5천t, 담배는 6천 905t, 사탕수수는 23만 5천 611t을 거두었었다.

자연방목지를 리용하여 소, 털소, 양, 염소, 당나귀를 방목하는데 800여만마리의 소와 400여만마리의 양과 염소를 기른다.

령토의 50%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가지고있다.

원래 수공업이 위주로 되여왔으나 여러차례의 5개년계획을 통하여 세멘트, 금속가공, 목재가공, 방직, 편직물, 사탕, 담배, 구두 및 가죽 등 크고 작은 현대적인 공장들이 일떠섰다. 그 밖에도 종이, 천, 목재가공품, 가죽제품이 수공업적으로 생산된다.

1972년에 수력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은 5만kW에 달하였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동, 쇠돌, 돌비늘, 석탄, 연, 아연, 금, 은, 석유 등이 있다.

정부는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기업체들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거나 네팔사람들의 관할하에 넘기는 조치도 취하였다.

1973년 8월에 《버마 쉘》 (영국), 《인디안 오일》및 《에쏘》 (미국) 등 미영석유독점회사들로부터 석유나 석유제품을 수입하며 판매하는 권리를 빼앗았다. 네팔국영석유회사는 수도에 있는 석유제품수입을 취급하는 본 사무소외에 3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있다.

또한 네팔은 산이 많고 바다를 끼고있지 않은 나라로서 도로와 체신망의 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있다. 동서를 련결하는 마헨드라도로 (994km)가 건설중에 있다. 남부변방지대에는 127km의 좁은 철길이 있다.

여러 나라들과 국제전화도 통하고있다.

제4차 5개년계획 (1971~1975년) 기간에 네팔정부는 《운수, 통신개발, 토지개혁, 관개건설,동력, 생활향상》에 주력하고있다.

1970년말현재 7천 258개의 소학교에서 44만 9천여명의 학생이 공부하였다. 1960년 까트만두에 첫대학인 트리부반대학이 문을 열었다.

1972년에 병원침대수는 약 3천대, 의료기관수는 209개였다. 힌두교가 국교이나 남부지방주민들은 라마교를 믿는다.

주요수출품은 목재, 황마, 가축, 담배 등이며 여러가지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주로 인도와 무역을 진행한다.

출판보도; 통신 라스트리아 삼바드 사미티통신

신문 고르까 빠뜨라 (정부기관지), 태징네팔 (정부기관지), 마더랜드, 마뜨리푸미, 파샤 파르리카

방송 네팔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5월 11일 두 나라사이에 무역관계 및 령사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0일에는 총령사관계를 설정할데 관한 협정

을 맺었다.

1974년 5월 15일에는 두 나라 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7년 9월 19일에 네팔조선친선협회가, 1959년 11월 9일에는 조선네팔친선협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네팔에는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위원회》, 《김일성주석로작편집부》등이 조직되여있다.

1973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짜멘더》출판사가 네팔말과 힌디말로,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짜멘더》출판사와 《모디디》출판사가 네팔말로,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를 《짜마먼더 페르네스》출판사가 네팔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네팔조선친선협회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를 《씽하》출판사가 네팔말로 된 단행본으로 각각 출판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를 신문《라더랜드》가,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파샤 파트리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주간지 《미러》가, 수령님께서 197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신 신년사를 잡지 《씨투》가 각각 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정부기관지들인 《대정네팔》, 《고르까 빠뜨라》와 그리고 《싸마거》, 《저너 자그러머》, 《아르관》, 《마뜨리푸미》, 《파샤 파트리카》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상세히 실었다.

네팔조선친선협회는 7월 22일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여, 5월 22일에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각각 성명을 냈다.

1973년 1월에 네팔국가리사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왕국국가리사회친선대표단이, 9월에는 외교부장이, 7월에 유엔주재 네팔왕국상임대표와 녀성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대표단(3월)과 사로청대표단이 네팔을 방문하였다.

방글라데슈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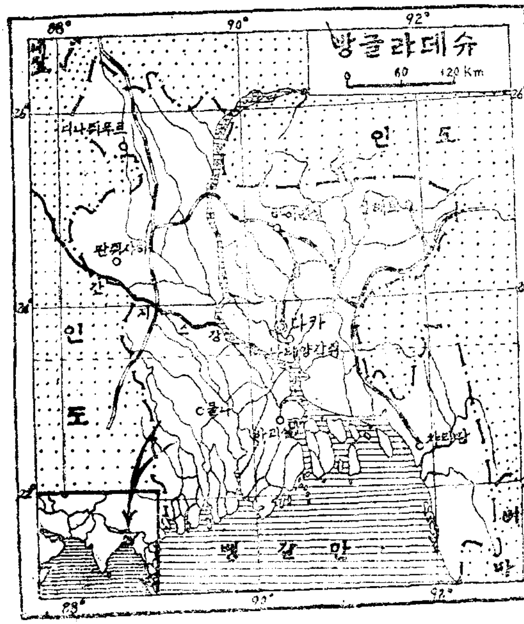
넓이 14만 1,157km²

인구 7,131만 6,000명 (1974년 5월)

주민의 98%가 벵갈족이며 아라칸족, 카시야족 등 소수민족이 산다.

공용어 벵갈말이나 영국말도 통한다.

수도 다카 (주민 131만 1,000명, 1974년 5월)



정 치

민족회의 1973년 3월 7일 첫국회선거에서 집권당인 아와미련맹(인민련맹)이 300개 의석중 291석을 차지

대통령 1972년 1월에 선거된 아부사이드 쵸우드리가 사임하고 1973년 12월 국회의장이던 무함메드 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나 실권은 없다. 대통령 무함마드 울라 (1973년 12월 24일—)

정부 1973년 10월 23명으로 된 내각이 발표되였다. 총리가 모든 실권을 행사한다. 총리 무지부르 라흐만(1972년 1월 12일—)은 국방부장, 계획부장, 내각문제및시설부장을 겸한다. 외교부장 카말 호싸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8년에 창건되여 1954년 7월 파키스탄에서 비법화되였다. 방글라데슈국가가 수립된후 합법화, 현집권당과 협조하면서 진보적시책들을 지지, 위원장 모니 싱, 총비서 모함메드 파르하드, **아와미련맹** (인민련맹) 1967년에 파키스탄아와미련맹에서 떨어져나와 따로 조직, 동부파키스탄의 자치, 사회경제개혁과 중립적인 대외정책의 실시, 세아토와 센토에서의 탈퇴, 인도와의 관계정상화를 주장하였다. 현재 집권당이다. 위원장 카마 루자만, 총비서 질루르 라흐만, **민족아와미련맹** (민족인민련맹) 1957년에 결성, **민족사회당**, **인민통일전선** 1971년 9월에 아와미련맹을 기본세력으로 하여 공산당, 민족아와미련맹이 전국협상위원회를 조직, 1973년 10월 10일 3당지도자들은 인민통일전선을 창설하고 공동행동강령을 채택, **인민청년동맹** 1973년에 조직, 위원장 파즐 하크모니

방글라데슈는 인도가 영국식민지로 있을때 인도의 벵갈주였다.

1947년 8월 영식민지통치하에서 인도가 독립당시 종교적구분에 의하여 회교도가 많은 파키스탄지역이 떨어져나와 하나의 회교국가를 이루게 되였다. 그리하여 회교도가 많은 동부벵갈이 파키스탄에 속하여 동부파키스탄주를 이루고있었다.

1971년 3월 26일 인도의 뉴델리에서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독립을 선

포하고 아와미련맹이 지도하는 방글라데슈정부를 수립하였다.

같은해 4월 12일 무지부르 라호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각료명단이 발표되고 4월 17일에는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이 정식 선포되였다. 방글라데슈무장력은 이해 11월에 인도군의 지원밑에 동부파키스탄의 여러 지점을 점령하였으며 12월에 들어서면서 인도군과 파키스탄간에는 대규모적인 무력충돌로 확대되였다. 그후 인도군이 다카를 점령하자 방글라데슈정부는 인도(뉴델리)로부터 12월 22일 다카로 옮겨왔다. 1972년 1월 새로 대통령과 총리가 선출되였다.

같은해 12월 16일 제헌의회(1970년 12월 파키스탄 총선거에서 당선되였던 국민의회, 지방의회의 의원들로 구성)는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헌법에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및 현실주의가 국가정책의 근본원칙이라고 규정하였다.
제헌의회는 16일 해체되였다.
1971년 12월에 정부는 국내독점자본을 청산하며 황마산업을 포함한 모든 주요산업을 국유화하며 황마수출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는다고 발표하였다. 1972년 2월 20일에는 《토지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정부의 결정이 발표되였다. 이러한 조치들에 기초하여 모든 기간공업부문들과 철도, 항공 및 해상 운수, 강하천운수회사들, 재정금융기관이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땅없는 농민들에 대한 토지분배계획이 세워졌다.

1973년에 방글라데슈에서는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3월 8일 총리는 국내외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적은 방글라데슈의 경제적독립을 이룩하고 주민들에게 의식주를 보장해주며 교육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독립후 처음으로 되는 민족회의(국회) 선거가 3월 7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였다. 14개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무소속립후보자들이 나선 선거에서 집권당인 아와미련맹이 300개 의석중 291석을 차지하였다. 무지부르 라호만총리는 3월 20일에 새 내각을 구성한데 이어 10월 3일 또다시 23명(녀성 2명포함)으로 된 내각을 내왔다.

10월 10일 아와미련맹, 공산당 및 민족아와미당은 인민통일전선을 창설하고 10월 4일 공동행동강령을 선포하였다. 10월 21~22일간에 걸쳐 진행된 인민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공동행동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이 토의되였다. 회의는 4명으로 구성된 중앙서기국을 선거하고 서기국이 강령관철을 위한 구체적방안을 작성할것을 위임하였다. 또한 회의는 10월 30일까지 나라의 50개주 전체에서 인민통일전선 주위원회들을 조직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11월 1일 인민통일전선 중앙서기국 제1차회의에서는 강령관철을 위한 세부계획, 특히 경제발전, 물가인하조치, 범죄 및 뢰물 행위와의 투쟁, 반동분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제거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1월 30일 라호만총리는 1971년 인도—파키스탄전쟁기간에 파키스탄의 군사작전에 협력한탓으로 기소된 3만 2천명의 범갈사람들에 대한 특사령을 내렸다. 5월 16일에도 이런 죄명으로 감금되였던 5만명중의 일부를 석방하였었다.

12월 4~9일까지 공산당 제2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새 당강령을 채택하고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대회에서 결정된 정치결의는 현단계에서 당의 기본과업이 《민족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방글라데슈는 경제적난관으로부터 여러 나라들에서 많은 경제원조(도합 10억딸라)를 요구하였다.
10월 23일 라호만총리는 방글라데슈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합작투자》를 호소하였다. 특히 10월 18일 일본으로부터 90억엔에 해당하는 상품 《원조》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3월 24일에는 이른바 《청년해외협력대파견에 관한 협정》을 일본과 맺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청년해외룡격대》가 이 나라의 경제, 사회각 분야에 발길을 들여놓게 되였다.

미제와는 8월 6일 8만톤의 밀을 구입할데 대한 협정을 비롯한 일련의 경제《원조》협정들을 맺었다.

방글라데슈정부는 대외관계분야에서 《중립과 쁠럭불가담,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73년 1월 라호만총리는 수도 다카에서 진행된 군중대회에서 《방글라데슈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우리는 평등과 자주권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을 지향한다.》고 말하였다.

10월에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글라데슈정부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나라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라호만총리는 아랍나라들을 돕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원조》(10월 12일)와 《자유투사들》(10월 18일)을 보낼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방글라데슈정부는 1973년현재 100여개 나라의 승인을 받았으며 1974년 2월 22일 파키스탄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1973년에 민주웰남(2월 11일),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10월 24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기네—비싸우(9월 30일)를 승인하였다.

1973년 3월에 유고슬라비아련방 집행리사회 위원장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라호만총리가 7월에 유고슬라비아, 10월에 일본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약 85%가 농사하는 농업국가이다. 전령토의 64%정도가 부침땅이며 그 넓이는 약 2천 600만에이커이다. 벼, 밀, 보리, 강냉이 재배면적은 전체 부침땅의 약 80%를 차지한다. 논면적은 2천 200만에이커이다. 벼농사는 1년에 3모작할수 있으나 그 생산량은 1천 100만~1천 200만t에 불과하다.

1972년에 이 나라의 외화보유액은 1억딸라에 불과한데 식량수입액만 하여도 1억 6천만딸라에 달하였다.

주요수출작물은 황마(년산 120만~130만t)와 차(3만t)이다. 세계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황마는 주요외화원천이다.

집짐승으로는 소, 물소, 당나귀가 있다. 소는 주로 부림소로 쓰인다.

정부는 1972년 2월의 《토지개혁》법령에서 매 세대당 토지소유규모를 약 7헥터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이미 개인농장들은 국가의 통제하에 두었다.

53만 3천에이커의 토지가 땅없는 농민들에게 분여할 대상에 들어갔다.

1973년 5월에 860세대의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공동으로 경작하는 4개의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조합에 드는 농민들에게는 2.5에이커, 개인농민들에게는 1.5에이커를 주었다.

정부는 이 조합들이 자립할수 있게 대부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질적지원을 주었으며 이 조합들을 시범으로 하여 가까운 년간에 전국적범위에서 조직하려고 계획하고있다.

공업은 아직 뒤떨어진 상태에 있다. 공업부문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황마를 원료로 하는 섬유 및 여

머가지 제품, 면방직과 비단, 합성섬유 등의 방직공업이다. 1970년에 면사 4만 8천t, 면직물 5천 500만m가 생산되였다.

그밖에 석유가공, 야금, 기계제작, 자동차조립, 종이, 뇨소비료(년산 약 10만t) 공장 등이 있다.

정부의 국유화조치에 따라 1970년현재 250여개의 주요 공장, 기업소들이 국유화되였는데 이것은 공업총투자액의 85%를 차지하였다.

제1차경제개건및발전계획(1972~1973년)을 수행하여 정부는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기본적으로 복구개건하였다.

1973년 7월부터 시작한 첫 제1차 5개년계획(1974~1979년)에 의하면 투자의 89%가 경제의 국영부문에 돌려지며 농업이 의연히 경제의 기본으로서 여기에 예산의 가장 많은 몫이 지출된다. 국민소득은 해마다 5.5%까지 올릴것을 예견하였다. 계획소요자금의 약 40%는 외국자본에 의거하게 된다. 기름생산, 남새 및 과일통졸임, 소젖가공, 공업설비, 운수수단 및 그 예비부속품, 가죽제품, 의약품 생산 등 18개 부문에는 특별히 외국자본투자를 장려하고있다. 또한 《합작》형식의 외국자본투자도 호소하면서 투자비률은 방글라데슈투자가 51%, 외국자본투자가 49%로 할것을 제기하고있다. 이 나라에 대한 외국자본투자에 있어서 일본독점재벌의 반응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고있다.

교통운수에서는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배가 통과할수 있는 강의 길이는 장마철에는 6천 500km, 가물철에는 4천 300km에 달한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900km, 자동차포장도로 길이는 2천 500km이다. 주요 항구는 차타감(치타공)이다.

주요수출품은 황마, 차, 면사 등이며 식량, 건재품, 설비품, 기타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주민의 77%가 회교를 믿으며 그밖에 힌두교도(22%), 불교도들이 있다.

대학은 6개 있으며 글모르는 사람은 80%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문화부문에서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973년 5월 농촌에서 살림집건설을 위하여 2천 400만타카(화폐단위)를 배당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에꼬다(공산당주간지), 방글라바니(정부계), 싼그바드, 모닝 뉴스, 아자드, 메일

방송 다카방송, 차타감방송, 다카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2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인 도

(인도공화국)

넓이 326만 8,090km²

인구 5억 5,396만명(1971년)

주민은 힌두스탄족, 벵갈족, 비하르족, 구자라티족 등 200여개의 민족과 종족들이 산다.

공용어는 힌디말과 영국말

수도 뉴델리(주민 420만명, 1970년)

정 치

대통령 브이.브이.기리(1969년 8월—), 상하량원과 각 주의 하원의원들로 구성되는 선거집단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헌법상 국가원수이나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의회 련방원(상원), 인민원(하원)의 량원제로서 상원은 250명이하로 구성되며 그중 12명은 대통령이, 나머지는 각 주 하원에서 선출,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3분의 1을 개선, 의장은 부대통령, 하원의석은 525명이하, 그중 대통령이 3명임명, 임기는 5년, 1971년 3월 하원 제5차 총선거에서 간디의 국민대회당이 350석, 인도공산당(맑스주의) 25석, 인도공산당 23석, 드라비다진보동맹 23석, 쟌산당 22석, 우파국민대회당 16석, 나머지 의석은 기타 정당들이 차지

정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며 총리의 권고에 따라 각료들도 임명한다. 1971년 3월에 정부구성, 총리 인디라 간디(1963년 3월—), 외교부장 스와란 싱, 국방부장 쟈그지반 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 당은 1964년에 분렬되였다. 공산당(맑스주의) 1964년 10월에 창건되였다. 총비서 피.순다라야, 국민대회당(집권당) 1885년에 창건, 《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1969년 10월 간디파(좌파)와 극소수의 대독점체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두파로 분렬, 전인도민주당, 자유당, 통일사회당, 인민사회당, 쟌산당, 드라비다진보동맹, 인도공화당, 전인도로조대회, 전인도직업동맹, 인도전국녀성련맹, 전인도청년련맹

독립후 국민대회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내에서 개인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조치들을 취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중립을 표방하면서 평화외교활동을 벌렸다. 그러나 1967년 10월 제4차 총선거에서는 국민대회당이 286석(선거진 375석)으로 국회에서 겨우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1969년 8월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국민대회당내에서는 파벌싸움이 심하여져 10월에는 국민대회당이 《좌파》와 극소수의 대독점체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우파로 분렬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간디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대회당의 《좌파》의석은 과반수도 못되는 220석으로 줄어 집권당의 세력은 약화되였다.

1969년 11월 하원에서는 총리불신임안이 제출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1970년 6월 간디총리는 내각을 개조하고 12월 27일 국회를 1년앞당겨 해산시키고 1971년 3월 총선거를 실시할것을 선포하였다.

1971년 3월 1~10일까지 각 정당들간의 경쟁이 심한 가운데 진행된 선거결과 간디의 국민대회당(《좌파》)이 350석을 얻음으로써 단독으로 헌법개정이 가능한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1971년 4월부터 인도와 파키스탄간에는 방글라데슈(당시 동부파키스탄)에서 일어난 혼란으로 인하여 긴장상태가 조성되였으며 12월 4일 전면전쟁으로 확대되였다.

12월 6일 인도는 방글라데슈를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12월 15일 방글라데슈의 수도 다카를 점령하였다. 한편 인도는 북부카슈미르의 약 50개 초소를 포함한 1천 400평방마일의 파키스탄령토를 점령하였다. 12월 17일에 14일간 진행된 인도—파키스탄전쟁이 정화되였다.

1973년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3월 27일 10만명의 근로자들이 빈궁과 물가등귀때문에 델리로부터 뉴델리에 이르는 시위를 벌렸다. 5월 28일 파업을 일으킨 3만명의 철도로동자들이 생활조건과 식량배급증가를 요구하였다.

4월 22일 간디총리는 우타르 프라데슈주에서 있은 군중집회에서 한

연선에서 빈궁과 락후성을 청산하고 나라의 사회적진보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973년 4월 1일 간디총리는 모임에서 정부가 석탄, 동광, 야금공업들과 운수, 알곡도매상업 등을 계속 국유화하는 정책을 실시하려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국영경제부문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5월 18일 국회상원은 700여개의 탄광을 국유화할데 관한 법안을 통과하였다.

1973년 1월에 뽈스까총리, 자이르대통령, 라오스총리 (수반나 푸마), 2월에 몽골총리, 3월에 유고슬라비아련방집행리사회 위원장, 민주독일총리, 6월에 오스트랄리아총리, 9월에 꾸바총리, 11월에 쏘련공산당 총비서, 12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총비서가 이 나라를 공식 방문하였다.

이해에 또한 인도총리 간디가 네팔 (2월), 스리랑카 (4월), 유고슬라비아 (6월), 카나다 (6월), 영국 (6월) 을, 인도대통령 기리가 말레이시아 (3월), 로므니아 (10월), 체스꼬슬로벤스꼬 (10월) 를 각각 방문하였다.

간디총리는 스리랑카방문기간에 이 나라에 있는 약 100만명의 무국적 인도인들에 관한 1964년의 협정을 리행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협정에 의하여 15년동안에 52만 5천명을 인도에 송환하며 30만명에게는 스리랑카공민권을 주기로 되였다. 간디는 스리랑카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인도양을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문제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인도대통령 기리가 말레이시아방문시에는 이 나라가 제창하고있는 동남아세아의 《중립지대》구상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9월에 간디총리는 알제리에서 열린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1973년 4월17일 인도는 방글라데슈와의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파키스탄과의 회담에 림할 립장을 토의하였다. 두 나라 대표들은 이에 기초하여 파키스탄이 먼저 방글라데슈를 승인할것을 요구하면서 인도에 있는 파키스탄인 전쟁포로 및 민간인 9만명중 방글라데슈가 전쟁범죄자로 재판하려고 하는 195명을 제외한 전쟁포로 및 민간인 그리고 방글라데슈에 있는 비벵갈인들과 파키스탄에 있는 벵갈인들을 서로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

그후 인도와 파키스탄은 1974년 7월 24일부터 1주일간 파키스탄에서, 8월 18~28일까지 인도의 뉴델리에서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1971년 12월 전쟁후 전쟁포로와 억류된 민간인문제를 토의하고 그들을 6개월이내에 송환할데 대한 협정에 합의를 보았다. 그리하여 20여개월만에 인도,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슈에 있는 40여만의 포로와 민간인들이 6개월이내에 송환되게 되였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억류한 203명의 민간인들과 방글라데슈가 전쟁범죄자로 기소하려는 파키스탄인 포로 195명 그리고 방글라데슈에 있는 18만명의 비벵갈인문제가 아직 미해결문제로 남았다.

9월 24일부터 시작된 포로교환은 그후 11월 30일까지 약 10만명이 각기 제나라로 송환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며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의 몫이 79%를 차지하는 농업국가이다.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지주와 부농, 영국인 농장주가 부침땅의 85%인 약 1억 5천만정보를 차지하고있다. 부침땅의 4분의 3에 알곡을 심을수 있으나 그중 관개면적은 10%에 불과하다.

주요알곡작물은 벼와 밀, 보리, 강냉이, 기장 등이다.

벼생산량은 세계적으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공예작물로는 목화, 황마, 사탕수수, 차, 커피, 고무 등이 있다. 알곡생산량은 1971년의 1억 800만t이 독립후 최고수준이였으나 205만t의 알곡이 수입되였다. 1972년부터 1973년 상반년까지 400만t, 1973년 하반년에 또 400만t의 식량이 수입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 물소, 양, 염소 락타이다. 소와 물소는 부림소로 많이 쓰인다. 소는 약 2억 2천 900만마리로서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며 그중 4분의 1은 물소이다.

정부는 독립이후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공장, 기업소, 은행 등을 국가의 수중에 장악하였다. 국영부문은 흑색야금, 화학, 석탄, 유색금속, 전기 공업 등 공업의 주요부문에서 큰 역할을 한다. 채광공업부문에서는 쇠돌, 석탄, 망간, 석유, 동, 보크사이트, 돌비늘, 석회석 등을 캐내고있으나 매장량에 비하여 생산량은 그리 높지 못하다. 돌비늘생산량 (년산 1만 6천t) 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면직물과 황마제품 생산량이 적지 않다.

공업부문에는 전체 로동인구의 10%가 일하며 공업총생산액도 국민총생산액의 20%정도밖에 안된다.

1970년 3월현재 외국자본투자는 약 129억루피이며 그중 영국자본이 64%, 미국자본이 18%를 차지하였다. 인도에 있는 외국회사들의 40%는 독립후에 들어온것들이다. 외래독점체들과 련결된 《타타》, 《비를라》를 비롯한 75개의 국내대독점재벌들이 석탄, 야금, 세멘트, 전력, 방직, 출판인쇄, 은행 및 보험 기타 부문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국내운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철길인데 그 총길이는 5만 9천 600km (자본주의세계에서 3위) 에 달하나 전기화된것은 2천 900km이다.

주요수출품은 황마제품 (수출의 14%이상), 차 (9%정도), 쇠돌, 천, 가죽과 그 가공품, 호두씨, 기계 및 설비, 식물성기름, 목화 등이다. 기계 및 설비 (수입의 25%), 식량 (20%이상), 흑색 및 유색 금속, 비료, 원유, 화학제품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수입의 근 30%, 수출의 근 17%), 영국, 쏘련, 일본, 서독이다.

1973년현재 20년전에 비하여 3배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1947년에 주민의 10분의 9가 문맹자였다면 현재 주민의 거의 3분의 1이 글을 알게 되였다. 약 60만개의 농촌지역가운데 10만개의 지역에 전기가 들어갔을 따름이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비럭질을 금지하는 14가지의 법이 있으나 550여만명의 거지가 있고 실업자는 2천만 내지 5천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출판보도; 통신 피티아이

신문 뉴에이지 (공산당계), 나브바라트 타임스 (국민대회당계), 이벤트, 이브닝뉴, 패트리오트, 인디안 엑스프레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프로그레스, 파를라멘터리 타임스, 순하터 파러트

방송 전인도방송, 전인도라지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1973년 12월 10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각각 맺었다. 1968년에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1956년 12월 25일에 인도조

선문화협회가, 1969년 12월에 전인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57년 5월 8일에는 조선인도친선협회가 창설되였다.

1971년 2월과 3월에 《김일성동지의 로작청년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연구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모자이크》출판사가,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를 전인도조선친선협회에서 출판한것을 비롯하여 그이의 많은 로작들이 단행본으로 나왔다.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인《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신문《패트리오트》, 《인디안 엑스프레스》, 《이벤트》, 《이브닝뷰》, 《브례즈》, 《노던 인디아 파트리카》 및 《콤멘퍼러리》기타 신문, 잡지들이, 197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신 신년사를 신문《프로그레스》, 《패트리오트》, 《파틀라멘터리 타임스》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신문《이브닝뷰》, 《아즈끼바뜨》, 《싸배라》, 《이벤트》및《순하리 파러뜨》등 여러 신문, 잡지들이 실은것을 비롯하여 인도의 많은 출판물들이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전문 혹은 요지로 실었다.

1973년 4월 23일 우리 나라 정부와 인도정부 사이의 1973년도 통상협정이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7월에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총서기장이 성명을 낸데 이어 9월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여 이 협회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26~7월 1일까지 전인도조선친선협회는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수도 뉴델리에서 사진전시회를 조직하였다.

7월에《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한 인도비하르주청년학생및대학생축전 참가자들이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해에 인도정부무역대표단 (4월)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서기장부부 (6월), 인도평화리사회 서기장 (9월) 영화대표단 (1월), 탁구대표단 (9월) 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대표단 (3월), 직맹대표단 (1월), 독로강축구선수단 (9월), 조선녀성대표단 (12월) 이 인도를 방문하였다.

파 키 스 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넓이 80만 6, 538km²

인구 6, 489만명 (1972년)

주민은 판잡족, 신드족, 파르지아족, 비하르족, 푸슈르족, 이란족. 벵갈족 등 다양하다.

공용어는 우루드말이나 영국말도 쓴다.

수도 이슬라마바드 (주민 10만명)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이다.

대통령 1973년 8월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선거되였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되여있으며 정치적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대통령 초우드리 파잘 엘라히

정부 1973년 8월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선거되였다. 총리 줄피카르 알리 부토 (1973년 8월 12일—) 외교부장, 국방부장 겸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8년에 창건되여 1954년 7월에 비법화되였다. 1972년 8월 11일에 공산당에 대한 금지령이 해제되였다. 인민당 (집권당), 회교도련맹당 1906년에 창건된 대지주들과 부르죠아지들의 정당, 민족아와미당 (민족인민련맹), 통일련합당, 로조련맹, 민족청년련맹, 전파키스탄녀성협회

1971년 3월 26일 파키스탄의 일부였던 방글라데슈 (동부파키스탄)가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그후 파키스탄에서는 8개월간의 내전이 있었다. 같은해 12월 17일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벌어졌던 14일간의 전쟁이 정화되였다.

전쟁후 이 나라 군사정부의 대통령 야히아 한은 1971년 12월 20일에 사임하고 인민당 당수 줄피카르 알리 부토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부토대통령은 인도—파키스탄전쟁의 후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2년 6월 28~7월 3일까지 인도의 심라에서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중심문제로 토의된 카슈미르문제, 포로송환문제, 방글라데슈승인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만 평화조약과 국교회복을 위해 무력행사를 포기하는 등 일련의 초보적인 문제를 밖에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파키스탄정부는 1972년 1월에 영련방에서 떨어져나왔으며 같은해 1월 21일에는 미제의 조선침략기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

1973년 4월 10일 국회는 새 헌법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새 헌법에 기초하여 8월 10일과 12일 국회는 새로 대통령과 총리를 선거하였다.

정부는 1973년에 일련의 진보적 조치를 취하였다. 1월 19일 공업품과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 령역에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며 큰 개인기업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6월에는 쌀무역을, 9월에는 식용유공업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3월 21일 정부는 물고기잡이구역을 해안으로부터 50해리로 확장하였고 4월 26일 소수민족의 가난한 주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0만루피의 기금을 설립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8월 20일에 총리는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낡은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밑으로부터 각 부의 고급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평등한 신분을 가지는 행정개혁을 실시한다고 지적하였다.

11월 7일 파키스탄정부는 미제의 악명높은 아세아침략기구인 세아토로부터 정식 탈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8월에 판잡주와 신드주를 휩쓴 큰물로 인하여 1만개의 부락이 파괴되고 800만명의 주민이 집을 잃었다. 또한 1천만에이커의 씨뿌림땅이 물에 잠겼으며 190만에이커의 농작물이 못쓰게 되였다. 운수, 공업대상, 관개체계, 체신 및 교통도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약 3억딸라에 달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말하면서 부토총리는 이것은 1965년 또는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입은 피해액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이라고 말하였다. 파키스탄정부는 수재민을 구제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로부터 식량을 비롯한 많은 원조를 받아들였다.

10월에 중동전쟁이 일어나자 부토

총리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10월 11일 그는《아랍나라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원》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군사간부들의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그후 파키스탄정부는 물질적지원을 주었다.

방글라데슈와의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서 1월 3일 부토총리는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슈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인도에 있는 9만명의 포로들이 석방되지 못하며 또한 해마다 방글라데슈를 대신하여 약 9천만딸라의 대외빚을 계속 물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7월 10일 국회는 부토에게 방글라데슈를 승인하는것이 국가적리익에 부합될 때 그가 행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날 국회는 방글라데슈의《승인여하는 전체 파키스탄인포로의 본국송환에 달려있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1974년 2월 22일 정부는 방글라데슈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이에 하여 2월 22~24일까지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진행된 제2차회교국가수뇌자회의에 방글라데슈총리 라호만이 참가하였다. 1973년 8월 28일 인도—파키스탄간에 맺은 전쟁포로와 민간인송환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1974년 3월 8일현재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슈에 11만 421명의 민간인을, 방글라데슈가 파키스탄에 5만 8천 426명을, 인도가 파키스탄에 7만 4천 80명의 포로와 민간인을 각각 송환하였다.

파키스탄정부는 1973년 1월 25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한데 이어 5월에는 두 나라 사이의 대사급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보를 발표하였다.

1973년 1월 로므니아국가쏘베트 위원장, 이란황제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파키스탄총리 부토가 5월에 이란, 7월에 이딸리아, 영국, 프랑스, 9월에 미국, 오지리, 10월에 이란, 토이기 및 사우디 아라비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하는 농업국가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조, 수수, 사탕수수, 강냉이, 콩, 유채, 목화, 황마 등이다. 밀은 전체 부침땅의 55%, 목화는 10%를 차지하며 논은 목화부침땅보다 적다.

1972—1973농업년도에 농산물생산량은 그전 농업년도에 비하여 3% 늘었다. 특히 밀은 9%, 사탕무우는 7% 장성하였다. 1973년에 판잡주와 신드주에만도 1만에이커의 땅에 황마를 심어 한 에이커당 평균 15~20몬드 (이 나라 무게단위) 를 거두었다. 판잡주에는 900개의 시범황마농장이 있다. 1973년 8월에 있은 큰물로 인하여 벼, 목화, 집짐승먹이작물, 사탕수수 및 강냉이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 특히 주요외화벌이 원천인 목화는 그 수확량의 4분의 1이 못쓰게 되여 정부는 목화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72년 3월 토지개혁법이 발표된 이후 1974년 3월현재 몰수대상인 지주들의 토지의 43%가 국가의 소유로 되였다. 이 토지는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분배되고있다.

축산업도 농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소와 물소가 기본이며 양과 염소도 기른다. 락타는 주로 판잡지방에 많으며 수송수단으로 리용된다.

공업분야에서는 천연가스, 석탄, 크롬, 쇠돌, 우라니움, 류황, 돌소금들을 캐내는 채취공업이 어느정도 발전하였다. 동북부의 물탄, 라호르, 라왈핀디, 페샤와르 지구에 방직, 식료, 제당, 기계제작, 석유정제, 세멘트, 화학비료 공장들과 화력발전소가 있다. 남부의 카라치—하이데라바드지구에는 화학, 기계제작, 세멘트 공장들이 있다.

1972년 3월현재 방직공장수는 독립전의 근 7배에 달하였다. 특히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광물 탐사 및 채취 사업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강화하고있다.

제4차5개년계획기간에 중공업발전에 힘이 돌려지고있는데 이 기간에 년산 85만t능력의 제강소, 1만t 능력의 화학비료공장 등이 조업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10개의 주요공업부문에서 30여개의 큰 기업소들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며 국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60% 늘이는것을 당면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운수에서는 해상과 철도 운수가 기본이다. 8천 775km에 달하는 철길이 있으나 좁은 철길이다.

대외무역은 카라치항구를 통하여 진행된다. 1972—1973회계년도에 1천 30만t의 물동을 카라치항이 처리하였다. 카라치조선소에서 큰 짐배들이 무어지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면사, 면직물, 양털, 가죽 등이며 석유, 화학제품, 강철, 기계, 운수설비, 식량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중국, 영국, 미국, 서독, 일본이다.

정부는 교육문화부문에서《파키스탄화》를 추진시키고있다. 1972년 9월에 해마다 10월 1일을《문맹퇴치의 날》로 정하였다. 200만명에 달하는 성인문맹자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다.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 잔재를 가시기 위하여 교과서 및 과정안들을 수정 및 개편하고있다. 교육개혁의 법안에 의하여 1972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동안에 사립학교들을 국유화 (무상몰수) 하게 되였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피

신문 뉴 타임스, 돈, 썬, 타미르, 마싸와트, 데일리 뉴스, 모닝 뉴스, 파키스탄 타임스, 아만, 씨하브, 쎄와싸르, 훠리예트, 와탄, 리더, 비지네스 레코더, 이슬라미크 잠후르, 메슬라우, 무쉬르 싸르트

방송 파키스탄방송, 파키스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1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에 앞서 1966년 11월 8일에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을, 1968년 1월 14일에는 령사관계를 맺었다.

파키스탄인민은 조선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파키스탄조선녀성친선협회 등 무려 20여개의 친선협회를 결성하였으며 그밖에도 조국의 자주적평화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하여 파키스탄조선인민의 투쟁 련대성위원회 (1970년 4월 30일) 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지지련대성위원회 (1970년 6월 29일) 를 결성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파키스탄인민은《김일성주석로작연구로동자소조》,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주석로작및혁명활동연구소조》, 《김일성주석각하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김일성주석로작연구교원소조》, 《김일성주석로작연구녀성소조》, 《김일성주석로작연구법률가소조》,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 《김일성주석로작편집부》 등 수많은 연구소조들을 조직하였다.

1973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와 그이께서 1972년 새해

를 맞이하여 하신 신년사를 《아호마드》국제출판사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하여》와《시, 군 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진보출판사에서 단행본(우루드어판)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전기《김일성전》제1부(영어), 제2부 (우루드어, 영어) 가 출판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파키스탄신문들인《이슬라미크 잠후르》, 《무쉬르 싸르트》, 《뉴타입스》, 《타미르》, 《파키스탄 모니터》, 《마싸와트》, 《모닝 뉴스》가, 그이께서 6월 23일 새롭게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신문 《마싸와트》, 《파키스탄 모니터》, 《아만》, 《타미르》, 《돈》, 《모닝 뉴스》, 《휘리예트》, 《스타》, 《씨하브》, 《쎄와싸르》, 《모니터》, 《와탄》, 《리더》, 《비지네스 레코디》, 《이슬라미크 잠후르》, 《페숄라우》, 《데일리 뉴스》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신문《마싸와트》가 실은것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많은 출판물들이 수령님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실었다.

1973년 6월 14일 우리 나라와 파키스탄정부 사이에 문화및과학분야에서 련계와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으며 이에 앞서 2월 22일에 두 나라 정부 사이의 1973년도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73년 11월 21일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제1위원회 (정치위원회) 에서 파키스탄대표는 미제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규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연설하였다.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을 기념하는 경축집회가 라호르시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4월 27일 파키스탄의 14개 사회단체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나라 정부의 립장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냈으며 4월 30일에도 제3세계와의 파키스탄청년련대성위원회를 포함한 3개 사회단체가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8일에 판잡학생동맹 라왈핀디위원장이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성명을 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3년 6월 23일 새롭게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여 7월 6일에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7월 10일에는 리얄프르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군중집회가 각각 진행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이 나라의 14개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3년에 파키스탄 정부무역대표단 (2명), 군사대학견학단 (3명),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대표단 (9명), 예술단 (4명), 축구선수단 (6명) 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4월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파키스탄예술단 단장과 예술인들을 만나시였으며 수령님께서는 이날 예술단의 공연을 보시였다.

이 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외교부장 (2명), 정부교육대표단 (11명) 4. 25축구선수단 (4명) 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의 특사로 이 나라를 방문한 우리 나라 외교부장은 2월 18일 수령님께서 줄피카르 알리 부토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말씀을 석상에서 전달하였다.

스 리 랑 카

(스리랑카공화국)

넓이 6만 5, 610 km^2

인구 1, 323만 4, 000명 (1973년말)

주민은 싱할족이 70%, 타밀족이 약 23% 기타 등이다.

공용어는 싱할말과 타밀말

수도 콜롬보 (주민 56만 4, 000명, 1971년 10월)

정 치

대통령 1972년 5월에 채택된 새 헌법에 의하여 총독이였던 윌리암 고빨라와가 첫대통령으로 되였다.

민족국가회의 일원제로서 157명 (그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6명의 의원 포함) 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1972년 5월에 채택된 새 헌법에 따라 국회를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1970년 5월의 선거결과 국회에서 자유당 91석, 평등사회당 19석, 공산당 6석, 통일국민당 17석, 련방당 13석, 타밀련맹 3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1970년 5월 31일 자유당, 평등사회당, 공산당의 통일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총리 시리마 아르 디 반다라나이케 (1970년 5월—, 외교 및 국방 부장겸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3년 7월 3일에 창건, 자유당 1951년 7월 통일국민당에서 탈퇴하여 조직, 싱할족의 민족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면서 외국기업체들의 국유화, 경제의《스리랑카화》등을 강령으로 내놓고있다. 평등사회당 1935년에 조직, 통일국민당 1946년에 조직되였고 매부르죠아지들과 대지주들의 리익을 대변, 련방당 1948년에 조직되였고 타밀족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 타밀련맹, 로조련맹, 로동자대회, 공산주의청년련맹, 진보녀성협회

스리랑카는 1948년 2월 4일 영련방안의《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독립후 진보적인 자유당정부와 우익적인 통일국민당정부가 여러번 교체되였다. 1970년 5월에 진행된 국회선거에서는 민주력량의 통일전선 (자유당, 공산당, 평등사회당) 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반동적인 통일국민당정부가 무너지고 5월 31일 통일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통일전선정부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조치를 취하였다.

1964년 5월의 헌법대신에 1972년 5월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새 헌법에 의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이 들씌웠던 쎄일론이라는 나라이름을 버리고 스리랑카로 고쳤다. 같은해 5월 22일에는 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스리랑카는 영국의《자치령》의 예속적인 처지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였다.

또한 정부는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 고무나무, 야자 재배원들을 국유화하는 한편 1972년에 채택된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규모를 제한하였으며 토지개혁위원회는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재분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밖에도 필수품 수입과 수출의 많은 부분을 자기의 통제하에 넣었고 경제의 국영부문을 확대하였다. 동시에 외국자본의 활

동을 제한하면서 정부는 경제의《스리랑카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문화분야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침투와 파괴책동을 막기 위하여 1970년 7월 14일 이 나라의 교육, 법률, 행정, 도서관망, 과학기술 및 지방《개발》분야에 16년간이나 틀어박혀있은 미제의 간첩무리인 아세아기금》을, 이에 앞서 6월 24일에는 미제의《평화군》을 추방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스리랑카정부는 중립, 뿔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고있으며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있으며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를 승인하였다. 반면에 아랍령토를 강점한 이스라엘침략자들과는 1970년 7월 30일에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1년 3월 16일 전국적인 반란이 일어나《비상사태가》선포되였다. 이 반란은 2개월만에 진압되였다.

가물로 인한 식량위기는 1973년에도 계속되였다. 3월 30일 칸디주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반다라나이케총리는 많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밀가루 소비량을 줄이기 위하여 스리랑카에서 널리, 쉽게 재배할수 있는 카사바, 감자 등으로 대용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그는 식량생산문제를 토해하기 위한 시찰려행에 앞서 9월 21일《식량생산전쟁》의 개시를 공포하였으며 9월 29일 전국방송연설에서 인민들이 식량생산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식량위기와 관련하여 이해에 외국에서 많은 식량을 사들였다.

10월에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중동전쟁을 일으켰을 때 반다라나이케총리는 11일 공식성명을 발표하여 놈들을 규탄하고 아랍나라들에 대한 동정과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스리랑카정부는 1971년에《인도양을 점차적으로 비무장화》할것을 제안하였으며 유엔총회 제26차회의는 이 제안에 기초하여《인도양을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공식선언서》를 채택하였다. 선언서는 인도양에서의 강국들의 군사적진출의 계단식확대의 중지와 이 지역으로부터의 군사기지, 시설 및 보급시설들 특히는 핵무기의 제거를 호소하였다. 스리랑카는《선언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어떤 실제적조치를 취할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한 15개국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담당하였다.

스리랑카와 인도간에는 스리랑카 북쪽 약 15키로메터지점에 있는 카초차티부섬의 령유권문제가 미해결문제로 남아있다. 섬주변의 해저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밝혀진후 령유권문제는 더욱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 1974년 1월 반다라나이케의 인도방문시에 이 문제가 론의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53%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이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경제에서 차, 고무나무, 야자 등 수출용 열대농산물재배와 그 가공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전령토의 30%에 달하는 부침땅 (약 160만정보) 중에서 그 3분의 2가 차, 고무나무 및 야자 재배지이다. 해마다 차 22만t, 생고무 15만~16만t정도 생산된다. 이 3대작물 (차, 고무, 야자) 은 농업생산액의 75%, 수출총액의 90%이상, 외화수입의 약 65%,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각각 차지한다. 최근년간 국제시장에서 차값의 불경기로 난관을 겪고있다.

주식용 작물의 하나인 벼생산은 독립후 근 2배로 늘어나 한해에 약 15만~16만t 생산된다. 그러나 식량수요의 절반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1972년 채택된 법령에 따라 대토지소유제를 청산하기 위하여 그 소유범위를 50에이커로 제한하였다. 토지개혁위원회는 50만에이커를 국유화할 목표를 세우고 이미 약 16만에이커 (1에이커=약4, 047m²) 를 재분배하였다. 1973년현재 약 30여개의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였는데 정부는 협동조합들에 기술문건, 종자, 농기구를 대주고있다. 이 조합들은 과일, 고추, 파 및 기타 남새 재배를 전문한다.

축산업에서는 소와 물소, 양, 돼지를 기른다.

공업부문에서 기본은 가공공업이며 그중에서도 농산물가공업이 80%를 차지한다. 차, 고무, 야자씨를 가공하는 공장들과 야금공장, 원유가공공장, 다이야공장, 뜨락또르수리공장, 제분공장, 보석가공공장들이 있다. 보석은 약 40종에 달하는데 그 가지수에 있어서 브라질 다음간다. 흑연, 돌비늘, 석고, 형석 등의 지하자원을 캐내는 광산들이 있다. 정부는 1971년 5월에 전체 광산들을 국유화하였다.

1973년현재 국영회사들의 수는 70여개에 달하였다. 그것들은 차무역, 해운, 야금, 다이야, 제분 공업파 보석판매를 포함한 경제의 모든 중요부문을 통제하고있다.

1972~1976년의 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에 제강, 화학, 세멘트 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일것을 예견하고있다.

이 나라의 년평균 어획고는 15만t 정도이다.

교통운수에서 국내운수는 기차와 자동차로, 대외무역은 배로 한다.

주요수출품은 차, 생고무, 야자씨 (이상은 수출총액의 90%이상) 를 비롯하여 보석, 흑연 등이며 쌀, 밀가루, 섬유제품과 기계류를 수입한다. 수입액의 약 40%는 식량이 차지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이다.

교육부문에서 1968년에 학제개혁후 소학교와 중학교들의 수가 일정하게 늘어났으며 종합대학외에 3개의 대학이 있다.

통일전선정부집권후 2년기간에 10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받았다. 싱할족의 대부분은 불교를, 따밀족의 대부분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스리랑카통신

신문 아따 (공산당기관지), 자나디나 (평등사회당기관지), 썬, 데일리 미러, 다바싸, 비라케사리, 란카디파, 네이순

방송 스리랑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2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3년 5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콜롬보에 개설되였다. 1964년 1월 25일에 두 나라 사이에 령사관계를, 1970년 7월 15일에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말디브제도

(말디브제도공화국)

넓이 298km²

인구 11만명 (1971년)

주민의 80%가 싱할족이며 그밖에 말라이족, 아랍족이 있다.

공용어는 말디브말이나 영국말, 아랍말도 쓴다.

수도 말레 (주민 1만 5, 000명)

정 치

정부 대통령 아미드 이브라힘 나시

르 (1968년 11월—), 총리 아호메드 자키

국민의회 최고립법기관으로서 임기 5년인 54명의 의원들로 구성

정당, 사회단체; 공식적인 정당, 사회 단체들이 없다.

말디브제도인민은 나라의 민족적독립을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려 1965년 7월 26일 78년간의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 날을 말디브인민들은 민족적명절로 성대히 기념하고있다.

독립을 쟁취한 말디브인민은 가증스러운 군주제를 철폐하고 1968년 11월 11일 새 헌법에 기초하여 정식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말디브정부는 대내적으로 영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수산업과 농업 등 민족경제발전에 력량을 집중하고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정부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1969년에 령해를 3마일로부터 12마일로 확장하였으며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실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자기 나라의 독립과 령토완정을 존중하는 사회주의나라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1973년 1월에 말디브제도공화국 총리 아호메드 자키는 자기 나라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은 중립과 쁠럭불가담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는 스리랑카와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있으며 스리랑카주재 말디브대사는 많은 나라 대사직을 겸임하고있다.

말디브정부는 자기 나라에 있는 영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들을 포함한 인도양상에 있는 모든 군사기지들을 철폐할것을 주장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는 오랜 기간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매우 뒤떨어졌다.

경제의 기본을 이루는것은 수산업과 해상운수이며 이 부문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하고있다. 독립이전에는 어선들의 장비수준이 매우 낮았고 잡은 물고기마저 제대로 가공하지 못하였다.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독립후 8년동안에 어선은 2천척으로부터 2천 500척으로 늘었으며 물고기생산량은 약 7% 늘어났다. 해마다 2만~3만t의 물고기를 잡고있는 이 나라는 250~300t을 랭동하여 수출하고 3천여t은 해빛에 말리여 주로 주변나라 (스리랑카와 인도) 들에 팔고있다. 말린 물고기는 질이 좋은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물고기가루도 만들어 수출한다. 물고기와 그 제품은 이 나라 외화수입의 90%이상에 달한다.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부터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나라는 1969년에 100마일수역을 자기의 어업구역으로 선포하였다.

농업은 식민지통치의 후과와 자연지리적조건으로 하여 발전되지 못하고있다. 알곡작물로는 기장을 약간 심는 정도이고 야자, 바나나, 파인애플, 사탕수수, 감귤류 등 열대과일과 남새를 재배하고있다. 특히 야자는 모든 섬들에서 잘 자라며 농업부문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식량은 주변나라들로부터 수입한다. 닭 이외에 다른 집짐승들은 없다.

운수는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독립후 8년동안에 화물선은 4척으로부터 40척에 달하였으며 그것들은 샹강 (홍콩), 아랍만과 홍해 지역까지 항행하고있다. 대외적련계는 비행기와 배를 리용하는데 말레섬에 가까운 훌루레섬에 비행장이 있다. 스리랑카와 말레간에는 매주 한번씩 정기 련락선이 다닌다.

주요수출품은 말린 물고기와 물고기가루, 물고기통졸임, 코프라 등이다. 물고기와 그 제품이 수출의 97%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쌀, 밀가루, 소금, 천, 황마제품, 일용품이다. 대외무역은 주로 스리랑카, 인도와 한다.

독립후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도 성과를 달성하였다. 1973년현재 238개의 각급 학교가 있었다. 40대의 침대를 가진 국립병원도 있으며 일련의 섬들에도 보건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중등전문 및 고등 교육은 다른 나라에 류학을 보내여 해결한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말디브말로 발간되는 일간 신문이 있다.

방송 말디브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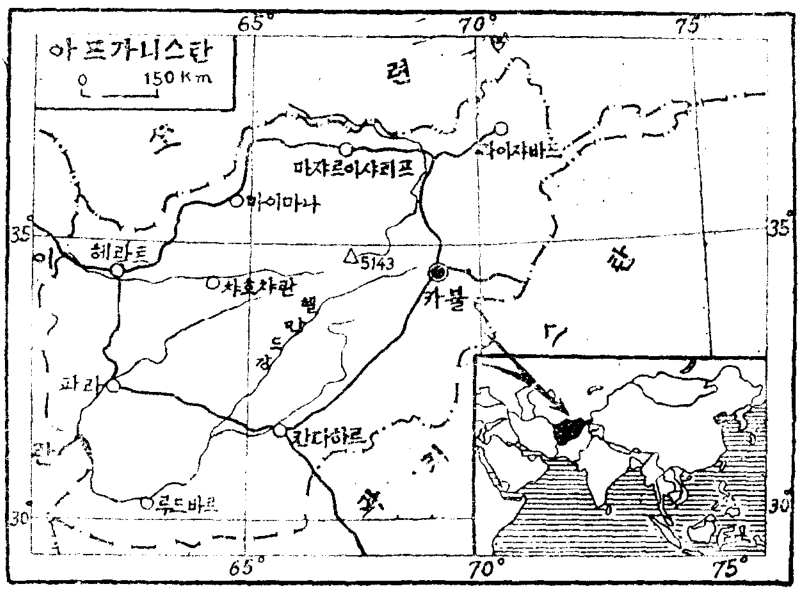
1970년 6월 14일 우리 나라와 말디브제도공화국 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디브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가 전달되였다. 나시르대통령은 그이께서 보내신 친서를 받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를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립장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말디브인민이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성원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공화국)



넓이 64만 7,497km²
인구 1,750만명 (1972년)
주민은 아프가니스탄사람 54%, 따쥐크사람 36%로서 제일 많으며 우즈베크사람, 하자라사람, 뚜르크메니야사람 등 20여개 민족이 산다.
공용어는 푸슈트말과 다리말
수도 카불 (50만명)

정 치

중앙위원회 1973년 7월 17일 국가정변후 조직된 최고기관이다. 7월 19일 중앙위원회는 대통령과 총리를 선거하였다.
국회 7월 26일 대통령에 의하여 해산되였다.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이다. 사르다르 모하메드 다우드 한 (1973년 7월 19일—)
정부 1973년 8월 2일 구성되였다. 대통령이 총리와 외교 및 국방부장직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이전왕국 정부시기부터 정당, 사회단체는 없다.

아프가니스탄은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1919년 5월 27일 왕국으로 독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은 어느측에도 기울어들지 않으며 일체 국제문제들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립장을 취하였다.
1964년 10월 1일에 새 헌법이 채택되여 립헌군주국으로 되였으며 1965년 9월에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총선거가 진행되여 국회의원들이 선거되였다.
1970년에 들어서면서 심한 가물피해와 통화팽창으로 인하여 정치경제적위기가 계속되였으며 게다가 국가기관관리들의 뢰물행위, 지배계층의 부패한 생활로 하여 인민생활은 더욱 령락되였다. 광범한 계층들속에서는 정부의 반인민적대내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갔다.
이러한 혼란된 정세하에서 1973년 7월 17일 이미 1953년에 총리를 지낸바 있는 사르다르 모하메드 다우드 한이 군주제도를 전복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7월 19일 공화국 중앙위원회 제1차회의는 그를 대통령 겸 총리로 선거하였다.
다우드는 첫방송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대외정책은 계속 《적극적인 쁠럭불가담과 중립에 기초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 지역들에서 로동자, 농민, 사무원 및 학생들이 공화국정부를 지지하는 군중집회와 시위를 진행하였다. 7월 25일 한 기자회견에서 다우드는 《국내생활분야에서의 정부의 기본 목표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고 법을 준수하며 근본적인 사회적 개혁을 실시》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우드는 7월 26일 1964년에 채택된 헌법을 페지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8월 2일 대통령은 12명으로 된 내각을 구성하였으며 4일에는 정부의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8월하순에 정부는 모든 교육기관을 국가의 관할하에 두기로 결정하였으며 각급학교 책임자는 정부가 임명하기로 하였다.
9월 21일 새 정부를 반대하는 국내반동들의 반정부음모가 적발되여 이전 총리 한명과 공군사령관을 포함한 여러명이 체포되였다.
10월에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자 8일 대통령 다우드는 아랍나라들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10월 21일 정부는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75%가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농업국가이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의 약 50%를 차지한다. 부칠수있는 땅은 1천 400만헥타에 달하나 실지 리용하고있는 땅은 300만헥타이다. 부침땅의 75%를 농가호수의 15%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이 차지하고있다.
부침땅의 90%에 알곡을 심는데 그중 70%의 땅에 밀(년산 235만~245만t)을 심는다. 주요알곡작물로는 밀이외에 강냉이, 벼, 보리, 감자 등이며 목화 (년산 7만~8만t), 사탕무우 (6만여t), 사탕수수 (6만t), 기름작물 (3만여t)과 같은 공예작물이 있다.
목축업은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체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의 3분의 2가 유목민인데 그 수는 약 250만명을 헤아린다. 목축업은 농업총생산액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 부문에는 약 2천만마리의 양, 약 370만마리의 소, 300만마리의 염소 그리고 말, 당나귀 및 락타가 있다. 말, 당나귀, 락타는 주로 운수수단으로 리용한다.
공업부문에서는 1956년부터 1972년까지 수행된 세차례의 5개년계획기간에 일련의 공업대상들이 일떠섰다. 제3차5개년계획 (1972년) 기간에 세멘트, 자동차수리, 금속가공, 면방직, 모방직, 타면, 기름공장과 수력발전소 등 80개의 공업대상들이 조업하였다. 이밖에도 석탄, 연, 석유, 천연가스, 소금, 중정석, 돌비늘 등을 개발하기 위한 채광공업이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도 주단, 옥석 제품을 비롯한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이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한다.
다우드정부는 우선 채광, 금속가공, 기계제작, 동력 및 화학 공업분야를 발전시킬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협동조합 및 생산협동단체들을 조직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산이 많은 이 나라에서 자동차운수는 큰 의의를 가진다. 자동차길은 7천 500여km에 달하나 철길은 쏘련의 꾸슈까로부터 이 나라의 뚜루군디까지 7km에 지나지 않는다. 주요도시들간에는 항공운수수단이 리용된다.
주요수출품은 자색가죽, 양털, 목화 및 과일 (이상은 수출총액의 80%차지), 주단 등이다. 자색가죽은 수출총액의 4분의 1로서 외화수입의 80%를 차지한다. 수입품은 주로 기계, 기구, 섬유제품, 운수수단, 차, 사탕 등이며 주요무역대상국은 쏘련 (무역액의 약 40%차지),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다.
1971년현재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수는 3천 232개, 학생수는 70여만명에 달하였다. 주민의 90%에 이르는 문맹자를 퇴치하기 위하여 새 정부는 이를 퇴치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하였다.
150개의 보건쎈터가 건설되고있는데 매 쎈터는 4만~5만의 주민을 대상으로 치료하게 된다.
공화국선포후 경제 및 인민생활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져 소비품값이 내려갔으며 최저임금한도액과 주로동시간이 고정되였다.
주민의 95%는 회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바크타르통신
신문 이슬라흐 아니스 (정부기관지), 카불 타임스, 모사바르, 바다크샨, 카라반 데일리
방송 아프가니스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2월 26일 우리 나라 정부와 아프가니스탄정부 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제1위원회에서 11월 21일 연설한 아프가니스탄대표는 조선의 통일은 조선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자결권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외부의 간섭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란

(이 란 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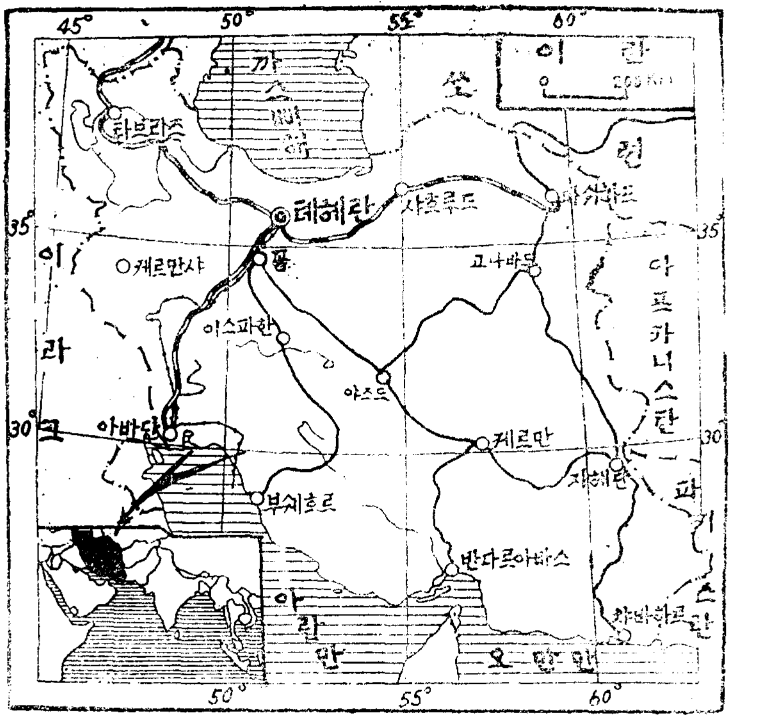
넓이 164만 8,000km²

인구 2,928만 2,000명 (1971년)

주민의 약 절반이 이란사람(페르샤사람)이며 그밖에 아제르바이쟌사람, 쿠르드사람 등이 있다.

국어는 이란말

수도 테헤란 (주민 350여만명, 1974년초)



정 치

황제 국가수반이며 군총사령관이다. 황제는 국회가 채택한 법령과 정령을 비준 또는 부결하며 국회를 해산할수 있으며 정부성원들을 임명한다. 황제 모함메드 레자 파흘라비(1941년 9월—)

국회 량원제이며 임기는 각각 4년, 상원은 60석, 그중 30석은 테헤란과 각 주에서 선거하며 나머지는 황제가 임명, 국민의회(하원)는 286석, 1971년 7월 총선거결과 집권당인 신이란당이 상원에서 20석, 하원에서 214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총리 아미르 아빠스 호베이다(1965년 1월—), 외교부장 아빠스 알리 할라트바리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투데흐당) 전신은 1920년에 창건된 공산당, 1949년부터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제1비서 에스깐다리 이라주, **국민세력련합** 진보쎈터, 신이란당, 로조, 농민, 녀성조직의 련합세력으로서 1963년에 결성, 1965년 1월에 현정부를 조직, **신이란당**(노빈당) 진보쎈터의 일부 성원들이 1963년에 조직, 집권당으로서 황제의 《사회개혁안》집행을 주요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진보쎈터** 1963년의 총선거기간에 활동한 당파로서 1961년에 조직, **국민당**(멜리윤당) 1958년에 조직되였고 지주,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며 1960년까지 집권당, **마르돔당**, **이란자유운동** 정부관할하의 로조단체들이 있다.

이란은 세습적인 립헌군주국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이란의 풍부한 석유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정치, 경제적 침투를 일층 강화하였다.

1954년 9월 이란은 제국주의자들과 새로운 석유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에 따라 이 나라의 석유리권은 《국제석유련합체》(미국, 영국, 프랑스, 화란)에 넘어갔다.

이란은 1955년 10월 침략적인 군사기구인 《쎈토》에 들어갔으며 1959년 3월에는 미제와 《쌍무군사조약》을 맺었다.

1972년에 이란정부는 미제와 20억딸라분의 《무기판매협정》을 맺었으며 이 협정에 의하여 1천 200명의 《미군사사절단》이 이 나라에 와 있었다. 이란은 1965년이래 미국으로부터 37억딸라분의 군사장비와 무기를 구입하였다.

파흘라비황제는 1963년 1월 26일 《백색혁명》(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토지개혁, 선거법개정, 산림 및 목장 국유화, 문맹퇴치, 로동자들에 대한 기업리익금의 배당, 행정 및 교육 개편 등 《근대화》를 위한 《사회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란정부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이 략탈해가는 석유값을 올리고 리윤분배에서 이란의 몫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 오다가 이란국영석유회사로 하여금 1973년 3월 21일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석유독점체들로부터 석유생산의 완전한 통제권을 인수케 하여 석유공업의 《이란화》를 개시하였다. 이와 관련한 방송연설에서 이란황제는 이란이 《자기의 석유공업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쟁취하였다.》고 말하였다.

호베이다총리는 7월 19일 서방석유회사들과 1954년에 맺은 불평등한 협정(협정 기한 1979년까지)을 페기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7월 24일 하원에서 통과되였다. 법안은 천연가스자원도 국유화한다고 강조하였다.

8월 3일 이란상원은 7월 30일 이란국영석유회사와 서방제국주의석유회사들 사이에 맺은 새 석유협정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8월 31일 황제의 비준을 받은 새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이란정부는 해마다 8월 31일을 민족적명절(《석유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에 중동전쟁이 일어났을때 이란정부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나라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아랍나라들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돕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단적보복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호베이다총리는 10월 19일 자기 나라는 석유를

정치적무기로 사용하는데서 아랍석유생산국들과 동맹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12월 22일 황제는 아랍나라들이 석유금수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랍나라들의 석유금수조치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빚어낼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30일 이란정부는 페르샤만과 오만해에서 연해지역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기잡이구역을 확대하며 그를 명백히 규정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란은 8월 15일 민주월남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이에 앞서 8월 14일 윁남국제감시및관리위원회 성원국으로 되였다.

1973년 1월에 쏘련총리, 4월에 파키스탄대통령, 6월에 중국외교부장, 9월에 프랑스대통령, 10월에 로므니아총리, 11월에 몽골총리가 이란을 각각 방문하였다.

이해에 이란황제가 5월에 유고슬라비아, 6월에 로므니아, 7월에 영국, 미국을, 이란총리는 4월에 영국, 5월에 뽈스까, 8월에 쏘련을 방문하였다.

이란은 이라크국경지대를 흐르는 샤트 알 아랍강의 하구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섬들인 《아부무사》와 《춤브》의 령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이라크와 오래동안 분쟁을 벌려왔다. 1969년 4월에 이란이 이 강에 대한 량국 항행조약(1937년)을 폐기하고 《아부무사》와 《춤브》를 점령함으로써 두 나라사이의 국경분쟁문제는 더욱 표면화되여 외교관계까지 끊는데 이르렀다.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가 1973년 10월 15일 회복되였으나 국경상에서 충돌은 자주 계속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75%가 농사하지만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약 21%, 공업이 47%(그중 석유공업의 몫이 27%)를 차지한다.

농업생산의 기본은 알곡이다. 《토지개혁법》이 발표된후 대토지소유제는 기본적으로 청산되였다. 약 130만호의 농가가 토지를 유상분배받았으며 100만호의 농가는 장기대부조건으로 땅을 받았다.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약 9천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이 협동조합들은 알곡의 수매, 비료의 공급, 수로의 관리와 보수, 생산물의 판매를 보장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벼 등 알곡작물과 사탕무우, 사탕수수, 목화, 포도, 차 등의 공예작물 및 과일이다. 밀은 동부고원지대에서, 벼는 까스삐해연안과 후제스탄지방에서 많이 심는다. 1972년에 밀은 410만t, 목화는 15만 8천t 생산되였다. 식량은 자급자족 못하며 해마다 100여만t의 알곡을 수입한다.

농사할수 있는 땅은 1천 800만헥타이나 리용되고있는 땅은 600만헥타이다. 1967년이래 관개수리사업이 추진된 결과 12개의 큰 저수지들이 건설되였다. 새로 건설된 저수지들에는 13억 m³ 의 물을 채울수 있다. 소금기가 많은 땅을 개간하는 사업도 추진되고있다.

목축업은 자연력이에 기초한 이동방목이 위주로 되고있다. 이란에는 근 300만명의 유목민들이 있다. 주요집짐승은 소(640여만마리), 양(약 3천 200만마리), 염소, 당나귀, 말, 노새 및 락타이다. 양털과 락타털은 수출된다.

제5차5개년계획 (1973~1978년)기간에 농업부문에 23억 5천만딸라를 투자한다.

공업부문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석유채취와 그 가공업인데 이것은 이 나라 경제발전의 기초를 이룬다. 석유매장에 있어서는 중동에서 세번째, 채취량에 있어서는 중동에서 두번째,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세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유정당 하루 평균생산량은 2천 200여t, 어떤 유정은 1만t에 달한다. 그러나 석유생산의 대부분은 《국제석유련합체》(미국, 영국, 프랑스, 화란 석유회사들의 련합)가 쥐고있었다. 이 회사는 1972년에 이란에서 채취한 2억 5천 400만t(1973년에 2억 9천 300만t,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3위)의 석유중에서 2억 2천 300만t을 차지한데 비하여 이란국영석유회사의 몫은 3천 100만t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3년 7월에 발표한 법안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석유회사들은 이란국영석유회사의 완전한 통제와 관리하에 놓이게 되였다.

석유이외에 가스, 크롬, 중정석, 아연, 연, 동 등의 지하자원도 개발되고있다. 1973년에 5개의 새로운 원유 및 가스 산지와 또 다른 5개의 동광매장지가 발견되였다.

중요공업기업소들로서는 원유가공, 세멘트, 판유리, 물감, 방직(면직, 모직, 합성섬유), 식료 (사탕, 기름, 과일가공, 기타), 가죽, 제약 공장들이 있다.

제4차5개년계획 (1968~1973년)기간에 중공업발전에 힘을 돌린 결과 이스파한기계공장, 아라크기계공장을 포함한 일련의 중공업공장들이 건설되였다. 타브리즈, 쉬라즈, 아흐와즈, 이스파한은 공업중심지들이다. 전통적인 수공업도 발전하고있다.

제5차5개년계획기간에 특히 석유공업에 44억딸라를 투자하며 계획말인 1978년에 가서 하루 520만바렐 (1972년)로부터 약 800만바렐의 석유를 채취하게 된다.

교통운수에서 철도운수가 기본이며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약 4천 500km이다. 약 4만km의 자동차길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석유, 주단(총수출액의 약 24%), 목화(약 20%), 과일(약 15%), 가죽, 광석, 메리야스제품이며 수입품은 기계 및 설비(20%이상), 흑색압연제품, 화학제품 및 의약품, 수송수단, 전기설비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쏘련(수출에서 20%이상, 수입에서 약 7%), 서독,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딸리아이다.

1970—1971학년도의 학생수는 도합 455만 2천 700여명, 각급학교수는 2만 6천 926개였다, 대학은 8개이다. 1963년부터 문맹퇴치운동을 벌린 결과 1972년현재 글을 읽을줄 아는 사람은 도시에서 근 60~70%, 농촌에서 25%정도 되였다.

회교가 국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파르즈통신, 이란국제통신

신문 메흐레 이란 (마르돔당기관지) 네다예 이란—노비(신이란당기관지), 카이한 인터내슈널, 테헤란 저널

방송 이란방송, 이란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4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9월에 우리 나라와 이란제국 정부사이의 무역협정과 지불협정이 테헤란에서 체결되였다.

이해 9월에 이란제국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9월 10일 이 대표단을 만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4월에 정부친선대표단, 8월에 정부무역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였다.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란황제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말씀을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파흐라비황제에게 전달하였다.

이 라 크

(이라크공화국)

면적 43만 4,924km²

인구 1,000만명(1972년)

주민구성에서 아랍사람이 75%이상 차지하며 그밖에 쿠르드사람(20%), 토이기사람 등이다.

공용어는 아랍말이나 쿠르드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쓴다.

수도 바그다드(주민 110여만명)

정 치

혁명지도리사회 1968년에 창설된 국가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1969년 11월 리사회 성원을 5명으로부터 15명으로 늘이였다. 의장 겸 대통령 아호마드 하싼 알 바크르 (1968년 7월—)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수반이다. 1972년 5월에 아랍사회부흥당, 쿠르드민주당 및 공산당 (2명이 정부성원직 차지)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외교부장 샤딜 자심 타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 4월 2일 창건, 1970년 9월에 제2차당대회를 진행, 제1비서 아지즈 무함메드, **아랍사회부흥당**(집권당) 1947년에 창건, 아랍사람들의 리익을 대변, **쿠르드민주당** 1954년에 창건, **민족진보전선** 1973년 7월 17일에 결성된 아랍사회부흥당과 공산당의 통일전선체, **로동조합총련맹**, **농민조합총동맹**, **청년총동맹** 1973년 4월에 제1차대회 진행, **녀성총동맹**

이라크인민은 1958년 7월 14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파이살왕조를 전복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 이듬해 3월 24일 이라크정부는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구인 《바그다드조약》기구에서 탈퇴하였으며 3월 30일에는 42년간 자기 나라를 강점하고있던 영국침략군을 몰아냈다. 또한 미제와 맺었던 예속적인 《협정》들을 폐기하였다.

1968년 7월 17일 혁명에 의하여 혁명지도리사회가 구성되였으며 아호마드 하싼 알 바크르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이라크정부는 자치와 민족적권리를 요구하여 40여년간 투쟁하여온 쿠르드족과 1976년 3월 11일 《쿠르드족문제》의 평화적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적통일문제를 해결하였다. 정부는 쿠르드족이 사는 북부주들에 자치를 주며 정부와 군대 내에서도 《적절한 자리》를 차지할수 있게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70년 7월 17일 쿠르드족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림시헌법이 발포되였다.

이라크혁명지도리사회는 1972년 6월 1일 제국주의독점체들의 소유였던 《이라크석유회사》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이 법령에 따라 정부는 《이라크석유회사》의 재산과 리권을 넘겨받을 새로운 국영석유회사를 내오게 하였다. 또한 정부는 전반적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같은해 6월 29일 민족경제발전 최고위원회를 창설하였다.

1973년 2월 28일 서방제국주의석유독점체들은 이라크정부와 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부딪쳐 민족적부원의 완전한 주인으로서의 이라크인민의 합법적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새 협정에 의하여 제국주의석유독점회사들은 이라크에 대한 경제적압력을 즉시 중지하고 이라크측이 요구한 배상금 (1억 7천 100만파운드)을 지불하며 모술석유회사의 특권을 아무 보상없이 이라크정부에 양도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에 앞서 놈들의 《이라크석유회사》의 국유화와 관련하여 이라크정부는 수리아와 레바논령토를 통과하는 송유관의 리용질서를 규정해주는 협정을 수리아 및 레바논과 맺었다. 지중해로 나가는 이라크석유수송의 종착항구는 수리아의 바니야스와 레바논의 트리폴리 항구이다.

3월 1일 이라크대통령 바크르는 제국주의독점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라크인민은 제국주의석유독점체들의 올가미를 끊어버렸으며 국유화를 위한 투쟁에서 큰 승리를 달성하였다고 강조하였다.

6월 30일 이전 이라크치안사령관 칸자르라는자와 그와 결탁한 반동집단의 반정부음모가 드러났다. 이자들은 국방부장을 학살하고 내무부장을 부상시키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놈들의 반정부음모는 즉시에 분쇄되였으며 특별재판소는 음모의 주모자들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7월 14일 이라크혁명지도리사회는 림시헌법을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정된 헌법에 따라 내각이 재조직되였다. 내각은 법안을 작성하여 혁명지도리사회의 비준을 받으며 비상사태의 선포와 해제, 국가공무원들을 임명할 과업 등을 지녔다.

7월 17일 이라크아랍사회부흥당과 이라크공산당사이에 민족진보전선의 테두리안에서의 협조원칙 (민족행동헌장)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 두 당은 모든 정당, 민주주의력량 및 진보적민족주의세력이 통일전선의 테두리안에서 협조하는것이 진보의 길,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 위한 길에서 중요한 전진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10월 6일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이라크정부는 자기 나라 군대를 애급—수리아련합군의 지휘체계에 넣는 등 애급과 수리아를 돕는데 물심량면의 지원을 주었다. 혁명지도리사회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돕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놈들의 석유독점체인 《바쓰라 페트롤레움 캄파니》의 주권중에서 10월 7일 《스탠다드 오일 오브 뉴저시》와 《모빌 오일 코퍼레이슌》(미국)의 주권을, 10월 22일 《로얄 다취 쉘》(화란)의 주권을, 12월 20일 《굴벤키안》(뽀르뚜갈)의 주권을 각각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20일 이라크정부는 중동지역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석유리권을 국유화할것을 호소하였다.

이해 11월 19일 이라크는 수리아에서 유프라테스강의 타브칸언제건설로 인하여 생긴 대규모의 저수지인 아싸드호수의 관개수를 나누어 쓸데 대하여 수리아와 합의하였다.

3월 20일에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이의 150마일 국경선의 한 지역에서 충돌이 있었다. 이라크측은 쿠웨이트와의 국경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페르샤만의 연안에 있는 2개의 전략적인 섬들인 부비얀섬과 와르바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있다. 여러차례의 회담이 있었으나 미해결문제로 남았다.

이라크정부는 4월에 탄자니아, 말레이시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페르샤만에 있는 3개의 섬들을 이란이 점령하자 이란과 1971년 12월에 끊었던 외교관계를 1973년 10월 15일에 회복하였다. 또한 1967년 중동전쟁이후 6년동안 끊었던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5월 28일 회복하였다.

1973년 6월에 이라크대통령이 불가리아, 뽈스까를, 9월에 꾸바총리 피델 까스뜨로가 이라크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이라크는 로동인구의 약 75%가 농사하는 농업국가이다. 부침땅으로 리용할수 있는 땅은 1천 400만헥터이나 실지 씨뿌림땅은 약 800만헥터이다. 약 430만헥터는 관개되였다.

1968년 7월혁명이전까지 인구의 10%에 불과한 왕족들과 지주들이 부침땅의 70%를 틀어쥐고있었다.

혁명지도리사회는 1970년 5월에 《로

지개혁법》을 발포하여 봉건 왕족들과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땅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972년 9월현재 500만두눔(1두눔은 910m²)의 땅이 분배되였다. 1972년말현재 1천 500개이상의 농업협동조합과 국영농장이 조직되였다. 여기에 속한 땅은 910만헥타에 달한다.

해마다 밀 120만~150만t, 보리 약 90만t, 벼 30만~35만t이 생산되고있으며 대추야자, 목화, 강냉이, 수수, 담배, 커피 등의 농산물생산량도 늘어나고있다. 이름있는 이라크대추는 해마다 평균 38만t이상 생산되며 세계수출량의 80%를 차지한다.

집집승으로서 양(1천여만마리), 소, 염소, 당나귀, 말, 노새, 락타를 기르며 년평균 1만 3천~1만 5천t의 양털을 깎는다.

공업부문에서는 석유채취 및 가공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석유공업부문에서 공업로동자의 3분의 1이 일하며 석유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예산액의 약 60%를 담당한다. 탐사된 석유총매장량은 38억 9천 800만t에 달하며 유정당 석유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1972년 6월 1일 제국주의자들의 석유독점체였던 《이라크석유회사》를 국유화한데 이어 1973년 10월과 12월에 역시 놈들의 석유독점체인 《바쓰라 페트롤레움 캄파니》의 주권중에서 미국, 화란, 뽀르뚜갈의 주권을 국유화하였다. 결과 가장 중요한 자연부원을 민족공업발전에 리용할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였다. 국영석유회사는 석유의 탐사 및 채취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있다. 1973년에 하루 평균 210만바렐의 석유가 생산되였으며 한해동안의 석유총생산량은 1972년보다 43% 늘어난 약 1억 500만t에 달하였다.

6개의 석유가공공장이 있는데 이것들의 능력을 늘이는 동시에 북부루메일라, 알 마우쎌(모술)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새 석유가공공장이 건설중에 있다.

그밖에 방직, 세멘트, 제약, 비료, 전기, 식료 등의 공장들이 새로 일떠섰거나 많은 공장들이 개건확장되였다. 석란, 류황, 망간, 대리석, 코발트, 연, 동 등의 지하자원개발사업도 활발하다. 1972년에 류황만도 17만 5천t 생산되여 수출까지하고있다.

1970년부터 시작한 5개년계획기간(1970~1974년)에 투자를 늘여 새로운 공업기업소들을 건설할것을 예견하였다. 특히 석유화학, 선박건조, 전기공업 등에 힘을 넣고있다.

운수에서는 철도와 하천 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1천 915km의 철길이 있으며 티그리스강은 하천운수에서 큰 역할을 한다.

주요수출품은 석유와 대추, 양털, 가죽, 목화이며 수입품은 사탕, 차, 식량, 기계설비, 목재, 금속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아랍나라들이며 사회주의나라들과도 진행한다.

1972년에 국민소득은 1967년의 7억 5천 700만디나르로부터 12억 5천만디나르로 늘었다. 같은 기간에 한사람당 국민소득액은 88디나르에서 124디나르로 늘었다.

1972—1973학년도에 혁명전에 비하여 소학교는 1천 632개나 더 많은 6천 454개로 늘었다. 중학교는 605개로부터 1천 32개에 달하였다. 같은 학년도에 5개의 대학에서 5만5천명의 학생이 공부하였다. 글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강습소들이 도처에 있다. 술레마니아주에만도 157개의 강습소에서 7천여명이 글을 배운다.

1973년에 병원침대수는 혁명전의 1만 2천 300대로부터 2만 322대로 늘었다. 이 부문기술일군수는 혁명전 5천 147명으로부터 1만 2천 185명이였다.

주민의 90%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이라크통신

신문 알사우라(정부기관지), 알 타이키(쿠르드민주당기관지), 알 타카파 호 쟈디다흐(공산당기관지), 알 죰후리아, 바그다드옵써버, 알 아얌, 알 누우, 알 무즈타마, 싸우툴 화라바, 알 라쉬드, 알 리하리브, 알 사우라, 알 무하리브, 하우카리

방송 이라크방송, 바그다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9년 7월 우리 나라와 통상 및 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1월 30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4월 두 나라간의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9년 7월 6일 이라크조선친선협회가, 1969년 12월 13일 조선이라크친선협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신문 《알 무즈타마》가,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신문 《알 라쉬드》가 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0월 28일 하신 력사적인 연설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를 신문 《알 무하리브》와 《알 라쉬드》가 전문을 게재하였으며 신문 《알사우라》, 《하우카리》는 요지를 실었다.

신문 《알 라쉬드》 8월 5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위대한 조선인민의 영화. 착취를 반대하는 인간의 투쟁을 반영한 〈꽃파는 처녀〉》라는 표제밑에 불멸의 기념비적명작 우리 나라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1973년 6월에 이라크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3월에 정부대표단(단장 부주석), 5월과 7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 2월에 정부친선대표단, 10월에 정부무역대표단, 5월에 농근맹대표단, 9월에 조선기자동맹대표단이 이라크를 방문하였다.

수 리 아

(수리아아랍공화국)

넓이 18만 5,180km²

인구 645만명(1972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족인 수리아사람이며 소수민족으로서 쿠르드족, 아르메니야족, 아씨리아족, 베드윈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디마스크(주민 63만 6,400명)

정 치

인민회의 1973년 5월에 선거된 최고립법기관, 총의석 186석중 민족진보전선이 140석 차지(그중 아랍사회부흥당 122석, 공산당 8석, 아랍사회주의동맹 6석, 아랍사회당 3석, 사회주의련합 1석), 임기 4년

대통령 1973년 3월에 채택된 새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군총사령관, 아

랍사회부흥당총비서, 민족진보전선위원장을 겸하며 부대통령, 총리 및 각료들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1971년 3월—)

정부 1973년 9월 26일 내각 개조, 총리 마호무드 알 아유비, 외교부장 아브델 할림 하담, 국방부장 무스따파 틀라스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4년 10월 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58년 11월에 떨어져나옴. 1972년 3월 7일에 창립된 민족진보전선의 규약에 따라 47년만에 처음으로 합법화 됨, 총비서 할레드 바그다쉬, **아랍사회부흥당**(집권당) 1954년 아랍부흥당과 아랍사회당이 합당하여 창건, 1963년 3월 8일 혁명후 집권당으로 됨, 소부르죠아지, 인테리, 수공업자, 하층장교, 농민 및 근로청년들을 망라, 아랍통일, 자유, 사회주의건설을 구호로 제기, 민족지도부 총비서 하페즈 알 아싸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 **아랍사회당**, **사회주의련합**, **민족진보전선** 1972년 3월 7일 공산당, 아랍사회부흥당,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과 기타 정당들을 망라하여 결성된 통일전선체, 위원장 하페즈 알 아싸드, **근로자로동조합련맹**, **혁명청년동맹**, **녀성동맹**, **수리아아랍지역조선친선협회** 1970년 3월 28일 결성, 위원장 아브달라흐 알 아흐마드

1963년 3월 8일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세력이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다.

혁명후 수리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번영하는 새 수리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진보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1970년 11월 13일 국방부장이던 하페즈 알 아싸드를 수반으로 하는 새정부가 구성되였으며 1971년 2월 16일 림시헌법이 발포되였다.

1972년 3월 7일 아랍사회부흥당, 공산당, 아랍사회주의동맹과 기타 정당들을 망라하는 민족진보전선이 결성됨으로써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일층 강화되였다.

1973년 1월 31일 새헌법초안이 채택되였으며 3월 12일에는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였다. 새헌법에서는 수리아를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이며 자주적인 인민의 나라》라고 규정하였다.

1973년 2월에 진행된 인민회의에서는 정부정강이 새로 발표되였다. 정강은 대내정책분야에서 민족진보전선을 중심으로 인민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방침을 취할것이며 아랍공화국련방을 계속 옹호하고 팔레스티나항쟁운동에 계속 필요한 지원을 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호상존중과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강화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5월 25일과 26일에 인민회의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15개의 선거구에서 186명의 대표들이 선거되였다. 대표들중 95명이 로동자, 농민이다.

5월 레바논군대와 수리아의 국경부근에서 활동하고있던 팔레스티나유격대간에 무장충돌이 일어나 수리아와 레바논국경이 일시 폐쇄되였다가 8월 17일 국경재개협정에 의하여 국경이 다시 열렸다.

10월 6일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수리아와 애급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하자 수리아정부는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침략자들에 대한 즉시적인 반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전쟁초기에 벌써 골란고원의 일부를 해방하였다.

싸우는 수리아인민을 도와 이라크, 마로끄, 알제리,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군대들이 수리아전선에서 함께 싸웠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일으킨 중동전쟁은 시작된지 17일만인 10월 22일 정화에 들어갔으며 10월 24일 수리아는 이스라엘이 1967년 6월과 그 이후에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는 조건에서 정화를 수락한다고 하였다.

10월 29일 아싸드대통령은 만일 이스라엘이 점령한 모든 아랍령토로부터 철수하지 않고 팔레스티나의 권리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전투를 재개할것이라고하였다.

12월 8일 정부대변인은 전쟁포로교환이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결부되지 않는한 이를 거부하며 제네바중동평화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973년 7월과 9월에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슈를 각각 승인하였으며 5월에는 영국과, 10월에는 요르단과의 외교관계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75%가 농사를 한다. 농업이 국민소득의 65%, 수출총액의 85%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545만헥타이며 그중 관개된 땅은 59만헥타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밀, 보리, 감자, 포도, 기장 등이다. 1972년에 밀은 195만t, 보리는 73만 5천t, 목화는 41만 9천t 생산하였다.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협동화하고 기계화하며 현대적인 과학에 기초하여 생산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방도로 내세우고있다. 1973년 4월현재 약 2천개의 농업협동조합이 무어졌으며 그외 17개의 국영농목장과 매개도에 시범적인 집단생산협동조합들이 하나씩 조직되였다. 또한 각지 농촌들에 기계화작업소들이 창설되였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인 조건에서 물문제해결을 위하여 관개공사를 적극 벌리고있다. 1974년에 유프라테스강언제가 완공되면 64만헥타의 메마른 땅에 물을 댈수 있게 된다.

축산업도 큰 의의를 가진다. 령토의 절반이 방목지로 리용할수 있는 지역이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소, 말, 노새, 당나귀, 락타 등이다.

공업은 알레포를 중심으로 한 방직공업과 식료공업이 기본이며 공업총생산액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그중 방직공업은 민족공업총생산액의 35%를 차지한다.

혁명후 정부는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이 가지고있던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69년에 벌써 공업생산에서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몫은 90%에 달하였다. 또한 원유가공공장, 수력발전소, 뜨락또르공장, 화학비료공장, 세멘트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린회석, 쇠돌, 망간, 크롬, 천연가스, 돌소금 등이다. 원유매장량은 약 10억t에 달한다. 1973년에 원유생산량은 830만t이였다. 홈스시에는 270만t의 원유제품을 생산할수 있는 원유가공공장이 있으며 3차 5개년계획(1971—1975)기간에는 500만t능력의 새로운 원유가공공장이 건설된다.

계획기간에 하마와 홈스에 있는 면방직공장들이 확장되며 동부의 데이르죠르와 서북부의 아들리브에는 새 방직공장이 건설되게 된다. 현재 제나라 목화를 원료로 하여 실을 뽑아 천을 짜고있다. 1971년에 2만 6천 600t의 무명실을 생산하였다.

1970년에 발전능력은 23만kw 였는데 유프라테스수력발전소가 완공되면 전력생산은 3배로 늘어나게 된다.

3차 5개년계획기간에 이 나라의 공업생산은 2배로 늘어나게 되며 그중에서 석유공업과 방직공업은 2.5배로 늘어나게 된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천 400km이다. 해상운수는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밀, 보리, 양털, 가축, 석유와 석유제품, 과일 등이

주요수입품은 금속, 기계 등 공업설비품과 일용소비품이다.

교육보건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1972년에만도 100여개의 교실이 새로 꾸려졌고 600여만부의 교과서들이 출판되였다. 1972년에 각급학교 학생수는 150만명이였다.

3차 5개년계획기간에 43개의 병원과 240여개의 진료소들이 새로 건설되게 되며 이 계획이 실행되면 주민 2천 500명당 의사 1명이 차례지게 된다.

주민의 85%가 회교도이다. 12%가 기독교도이며 아랍국가중 레바논다음으로 기독교도가 많다.

출판보도; **통신** 수리아아랍통신

신문 알 바아스(아랍사회부흥당기관지), 알 사우라(정부기관지), 알 피다, 니달 알 팔라힌,

방송 수리아방송, 수리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0월 4일 우리 나라와 무역 및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6년 7월 25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이해 8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3년 7월 30일 디마스끄에서 1974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0년 4월 28일 수리아아랍지역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에 수리아의 출판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하였다. 디마스끄출판사에서는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당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혁명화할데 대하여》,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한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이 나라 신문들인 《알 바아스》, 《알 사우라》, 《알 리아다》, 《니달 알 팔라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등을 실었다.

수리아 정부와 인민들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수리아는 《조선문제》에 관한 《알제리아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5월 수리아공산당 총비서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조국통일 5대강령이야말로 나라의 분렬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참다운 애국적립장에서 나오는 현명한 방침》이라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이 나라 각지에서는 군중집회들이 진행되였다.

1973년에 수리아 농민총동맹대표단(8월), 인민회의대표단 (9월), 뜨락또르기술대표단(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친선대표단(2월), 조선로동당대표단 (4월), 정부무역대표단(7월), 교육대표단(9월), 녀맹대표단(12월)이 각각 수리아를 방문하였다.

레 바 논

(레바논공화국)

넓이 1만 400km²
인구 290만명(1972년말)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사람들이나 그밖에 토이기사람, 쿠르드사람, 아르메니아사람, 희랍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바이루트(주민 80만명)

정 치

국회 일원제로서 임기는 4년이며 의석은 99석이다. 국회의석은 종교단체대표비률의 원칙에 따라 배정된다. 1972년 4월의 선거에서 마론파기독교도가 30석, 순니파회교도가 20석, 시아파회교도가 19석, 희랍정교도가 11석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타 교파들이 각각 차지하였다.

대통령 국가수반으로서 임기는 6년이며 마론교도(기독교일파)만이 선출된다. 대통령 술레이만 프란쥐에(1970년 8월—)

정부 정부수반으로는 순니파회교도중에서 선출된다. 총리 따끼에딘 쏠리흐(1973년 7월—), 외교부장 푸아드 나파흐, 국방부장 나쓰리 마아루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4년에 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44년에 독자적인 당으로 창건, 1947년부터 1970년 8월까지 당활동이 금지되였다가 그후 합법화되여 1972년 1월에 제3차당대회진행, 총비서 니꼴라 샤우이, **사회진보당**, **아랍사회부흥당** 전아랍적인 아랍사회부흥당의 레바논지역조직, 1963년부터 1970년 8월까지 금지되였다. **팔랑헤당** 1936년에 창건된 극우익소부르죠아정당, **인민사회당**, **아랍사회주의로동당**, **아랍로동자청년당**, **통일로조련맹**, **근로자총련맹**, **로동자사무원로조전국련맹**(세계직련에 가입), **민주청년동맹**

1943년 11월 22일(국경절)에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레바논인민은 1946년에 자기 나라에서 주인행세를 해오던 프랑스, 영국 침략군을 몰아냈다.

그후 레바논의 독립을 말살하고 이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노린 미제국주의자들은 레바논의 반동지배층을 구슬려 《제4항목계획》에 의한 《원조》협정 (1951년 5월), 《트루맨계획》에 의한 《기술협조》협정 (1952년), 《경제원조》협정(1954년)을 맺었다.

1952년에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 샤문은 1957년 3월 이른바 《아이젠하워주의》를 접수하고 《특별군사원조》를 받은 대가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바이루트부근에 공군기지설치권과 미제6함대에 레바논해군기지사용권을 넘겨주었다. 레바논인민들은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반동정부를 반대하여 1958년부터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국적항쟁운동을 개시하였다. 《레바논의 독립과 안전을 위한다》는 강도적구실밑에 7월 15일 미제는 수만명의 침략군을 상륙시켰으나 전인민적항쟁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 부딪쳐 1958년 10월 25일 이 나라에서 쫓겨났으며 동시에 샤문친미반동정부도 무너졌다.

1967년 6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고 (그해 9월에 회복) 일체 석유 및 석유제품의 공급을 중지하였었다.

중동전쟁이후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레바논에 대한 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하였다. 놈들은 1968년 12월 28일 바이루트비행장습격, 1970년 5월 12일 대규모의 무력침공, 1972년 2월 25일과 9월 16일 남부레바논에 대한 대대

적인 무력침공 등 날강도적행위를 감행하였으나 레바논인민들은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였다.

1973년 3월 2일 레바논정부는 제국주의석유독점체들의 소유인 《이라크석유회사》의 모든 대상들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국유화대상에는 송유관, 석유가공공장 등 레바논에 있는 제국주의석유독점체들의 시설들이 들어있다. 한편 레바논과 이라크 정부사이에 레바논의 트리폴리항으로의 이라크석유의 수송을 다시 시작할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에 앞서 1월에는 이스라엘이 제작한 영화, 축음기판, 록음테프의 침투를 금지하는 결정이 발표되였다.

4월에 살람정부가 총사직하고 아민 엘 하페즈의 정부가, 7월에 하페즈의 정부가 다시 사직하고 따끼에딘 쏠리흐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수립되였다.

12월 19일 물가등귀를 반대하여 트리폴리에서 일어난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는 그후 4일간 수도 바이루트, 시돈 등 전국을 휩쓸었다. 국내에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물건값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왔다.

1973년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레바논에 대한 도발행위를 일층 강화하였다.

2월에 놈들은 레바논 북부에 있는 팔레스티나인 거주지들에 항공륙전대를 투하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으며 4월 9일과 10일에도 역시 수도 바이루트에 항공륙전대를 떨구어 이와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놈들은 1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기간에만도 레바논에 대한 104차례의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4월 10일과 11일 수도 바이루트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수만명의 레바논인민과 팔레스티나인민들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야만적인 무장침입을 단호히 규탄하면서 대중적인 시위를 벌렸다. 또한 같은 달에 레바논 공산당, 사회진보당, 아랍사회부흥당 및 기타 정당대표들은 회의를 진행하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무장도발행위가 계속 감행되는데 대처하여 정당들의 행동을 일치시킬 유일강령을 토의하였다. 강령은 특히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며 민족통일전선을 창설할것을 예견하였다.

중근동문제에서 아랍인민의 편에 서 있는 레바논정부는 애급과 수리아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해마다 3천만딸라의 원조를 주기를 결정하였다.

이해 3월에 방글라데슈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1월에 뽀르뚜갈, 남아프리카 및 남로데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끊기로 결정하였다.

이 나라 대통령은 2월에 애급, 3월에 사우디 아라비아를, 총리는 알제리를 방문하였으며 2월에 챠드대통령이 레바논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중계무역, 금융, 관광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동부지중해의 큰 무역 및 상업 중심지로서 대외무역이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바이루트항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중계무역뿐아니라 통과무역이 활발하며 이라크, 요르단 특히 수리아,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중계무역항으로 되고있다. 통과무역량은 레바논의 대외무역류통량을 릉가한다. 트리폴리항은 《이라크석유회사》송유관이 잇닿은 마지막 항구이다. 직물류, 광물성원료, 기계설비 등이 주요중계무역품이다.

또한 중근동에서 하나의 《재정금융중심지》로서 약 75개(1970년)의 외국은행들이 활동하고있다. 국민소득의 20%정도를 차지하는 관광업부문에서는 8만여명의 주민들이 일한다. 수많은 해수욕장에 해마다 100만명에 달하는 유람객이 찾아든다.

로동인구의 약 절반은 농사한다. 약 30만헥타의 부침땅 가운데서 50%이상은 300명의 대토지소유자들이, 15%의 토지는 소지주들과 부농들이 차지하고있다. 농촌주민의 4분의 3은 전혀 토지가 없으며 소작농 혹은 고농들이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의 몫은 12% 남짓하며 농업총생산액에서 45%는 과일, 약 14%정도는 남새이다. 약 30만헥타의 부침땅 가운데서 10만 5천헥타가 사과, 포도, 귤, 바나나 재배원이다. 해마다 귤은 23만 5천t, 사과 15만t, 포도 9만t, 바나나 2만 5천t, 올리브 4만t 정도가 생산된다.

6만 5천헥타에 밀, 보리를 심는 외에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 담배도 가꾼다. 해마다 3만~4만t의 밀과 약 10만t의 사탕무우, 6천 500t 정도의 담배가 생산된다. 식량수요의 75%와 고기를 비롯한 많은 식료품을 수입에 의존한다.

소, 염소, 양, 당나귀, 닭 등을 기르는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에서 25% 정도 차지한다.

공업은 국민소득에서 14~15%에 불과하며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식료(과일가공, 기름 포도주 등), 직물, 담배, 가죽, 피복, 세멘트, 석유가공 기타 중소규모공장들이 있다.

교통운수에서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인데 670km인 철길은 이웃나라들과 련결되여있다. 주요항구는 바이루트, 트리폴리이다.

주요수출품은 귤, 사과, 바나나 등의 과일과 남새류이다. 주요수입품은 식량, 식료품, 석유 및 그제품, 설비품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아랍나라들, 사회주의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이다.

다른 아랍나라들과 달리 주민의 절반이 기독교도이고 나머지는 회교도이다. 이 두 교도는 여러갈래의 파로 갈라져있다. 해외에서 품팔이로 헤매는 레바논주민은 110여만명에 달한다.

출판보도; **신문** 알 안와르, 안 나다, 알 무하리르, 알 욤, 알 샤아브, 뜨리오리, 알 발라그, 사우트 알 우루바 **방송** 레바논방송, 렐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12월 14일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바이루트에 개설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레바논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위원회》,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는 로동자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번역및출판위원회》,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로작을 연구하는 위원회》 등을 결성하였다.

1973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론문, 보고, 연설 등 력사적인 문헌들이 수록되여 있는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을 《다르 알 탈리아》출판사에서 아랍어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조선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1955~1970년기간)을 아랍어로 출판하였다.

또한 《다르 알 탈리아》 출판사는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인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등 많은 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알 샤아

브》, 《사우트 알 우루바》, 《뜨리오리》 《알 발라그》, 《알 욤》 등 여러 신문들이 실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신문 《알 욤》 (2월 27일호)은 특집을 조직하였으며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소개하는 글을 《알 안와르》지가 세번에 걸쳐 련재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 및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20돐에 즈음하여 사이다시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사진및도서전람회가 진행되었다.

요 르 단

(하쉐미트요르단왕국)

넓이 9만 7,740km²
인구 250만명(1973년)
주민은 아랍사람들이며 그중 60%가 팔레스티나사람들이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암만(주민 45만명)

정 치

국왕 국가수반으로서 총리를 임명하며 법령을 비준하고 국회를 소집 또는 해산할수 있다. 3군총사령관을 겸하면서 군부의 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다.
국왕 아미르 아브달라흐 후쎄인 1세 (1952년—)

국회 상하량원제이며 상원의원은 30명(국왕이 임명)한다. 하원의원은 60명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정부 1973년 5월에 새 정부가 구성되었다. 총리 리파이(1973년 5월—), 외교부장, 국방부장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1957년 4월이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공산당** 1943년에 창건되여 1951년까지 민족해방련맹이라고 불렀다. 제1비서 푸아드 나싸르, **아랍사회부흥당** 비합법적으로 활동, **민주사회당, 아랍민헌당, 아랍민족동맹**(유일정치조직)

요르단은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로부터 1946년 5월 25일 독립이후에도 정치, 군사적 실권이 의연히 놈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었다.

1956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진보적인 나불시정권은 1948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강요했던 《공동방위조약》(20년간)을 폐기하고 영국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아랍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제의 《아이젠하워주의》를 반대배격하고 중립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요르단반동들을 부추겨 1957년 4월 10일 나불시정권을 전복하였다.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이때로부터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아이젠하워주의》를 받아들이고 아랍분렬책동이 실시되였다.

1962년 8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예멘아랍공화국에 대한 무장공격을 감행하였으며 같은해 11월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호상방위조약》을 맺었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이 1967년 6월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요르단은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서부요르단의 5천 600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령토를 놈들에게 강점당하였다.

1970년 2월에 요르단당국은 팔레스티나유격대의 무장을 해제시킬 목적으로 정규군을 제외한 기타 인원들의 《무기휴대, 포이동, 폭발물저장의 금지》 등을 규정한 《치안강화조치》를 발표하였다. 같은해 6월과 9월에 요르단당국은 중무장한 군대를 동원하여 팔레스티나유격대를 공격하였다. 이리하여 요르단정부군과 팔레스티나유격대간에 류혈적인 전투가 벌어진 이후 요르단은 수많은 팔레스티나유격대원들을 요르단밖으로 내쫓거나 투옥하였다.

팔레스티나유격대에 대한 거듭되는 요르단정부의 탄압에 항의하여 리비아, 쿠웨이트는 해마다 주던 보조금을 끊어버렸으며 1971년 7월 이라크, 알제리, 수리아는 요르단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애급은 요르단에 있던 군사대표단을 철수시키고 국경선을 폐쇄하였다.

1972년 3월 15일 요르단 국왕 후쎄인은 미제와 이스라엘 놈과 공모결탁하여 요르단강서쪽의 이스라엘강점지역에 이른바 《팔레스티나준자치국》을 세우고 이것을 요르단과 통합하여 《아랍련합왕국》을 조작할데 대한 제안을 공개하였다. 이 제안은 《팔레스티나준자치국》의 수도는 암만으로 하며 요르단국왕이 새 《련합왕국》의《원수》로 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가질것을 예견하였다. 또한 《팔레스티나준자치국》에는 이스라엘촌락들을 건설하며 이스라엘침략군의 진지들을 계속 유지하며 팔레스티나해방군이 이 《자치국》의 《치안대》역할을 할것이라고 하였다.

이 제안은 자기 조국을 되찾으려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항쟁운동을 영원히 청산할것을 노린 반동계획으로서 첫시각부터 아랍나라들과 세계진보적나라들의 일치한 규탄을 받았다.

1973년 3월 16일 후쎄인은 자기의《계획》을 발표한지 한돐이 되는 날에《아랍련합왕국》을 형성할데 대한 주장을 거듭하였다. 그는 또한 11월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강점지역인 요르단강서안에 사는 주민들의 장래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것을 제의하였다.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은 요르단이 이 투표를 감시하지 않고 국제감시 또는 아랍국가그루빠의 감시하에 진행되는 조건에서 원칙적으로 수락한다는 립장을 밝혔다.

7월 16일 후쎄인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점령하에 있는 요르단강서쪽강안지방에서 이스라엘놈들에게 토지를 파는것을 《반역행위》로 규정하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그는 또한 9월 18일 3년전(1970년)에 팔레스티나유격대를 탄압하면서 수많이 체포구금한 유격대원들, 《정치범》, 기타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대사령을 내렸다. 요르단당국이 팔레스티나유격대원들을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그들을 내쫓은 후 수리아에 의하여 국경선이 폐쇄당하였으나 5월 29일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였다.

한편 이해에 후쎄인국왕은 2월에 미국, 3월에 마로끄, 7월에 영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미국방문에서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요구하였다. 요르단은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약 1억딸라어치의 《원조》를 받아왔다. 미제는 1973—1974회계년도 《예산원조》의 명목밑에 2천 500만딸라 (제1회분)를 주는 협정을 요르단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85%가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요르단은 1967년 중동전쟁에서 나라의 서부지역을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있다.

이 지역은 이나라 알곡생산의 30%, 유지작물의 80%, 남새의 65%, 과일의 60%, 집짐승의 30%를 차지하고있었다. 또한 공업기업소의 48%, 상업기관의 54%가 있었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10분의 1로서 요르단강골짜기에 집중되여있으며 관개면적은 전체 토지의 1%밖에 안된다.

대부분의 토지, 관개시설, 방목지들은 왕족, 지주, 족장들이 독차지하고있으며 농민의 40%는 전혀 토지가 없다.

주요농산물은 밀(년산 15만t), 보리(4만여t), 콩, 올리브, 감귤류, 담배, 남새 등이다.

목축업은 경제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하는 중요부문이다. 주요집짐승은 양(53만마리), 염소(86만마리), 소, 당나귀, 락타 등이다. 유목민수는 5만명, 반유목민수는 12만명에 달한다.

공업부문에서는 린산염채취, 대리석가공, 담배가공, 진주조개채취 등 수공업이 큰 의의를 가진다. 대리석은 세계적으로 이름있다.

대부분의 공업기업소들도 수공업적방법이 우세하다. 1970년현재 약 7천개의 공업기업소들중에서 500명이상의 로동자를 가진것은 30개에 불과하였다. 석유가공공장(년산 35만t능력), 세멘트공장, 금속가공공장 등 약간의 중공업기업소들이 있다. 채취공업에서는 린산염(년산 110만t)과 천연소금 채취가 큰 몫을 담당한다.

과일가공공업이 약간 발전하였고 30여개의 방직공장이 있으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운수의 기본은 자동차와 철도 운수이다. 철길은 수리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련결하는 단선(총 329km)이 있다. 홍해의 아까바만에 면한 알 아까바는 유일한 항구이다.

주요수출품은 과일, 올리브, 담배 등의 농산물과 약간의 광물류이며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아랍나라들, 미국, 영국, 서독, 일본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수준 및 빈부의 차이가 심하며 글모르는 사람은 80%이상되며 대학은 하나밖에 없다. 주민의 8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오피셜 가제트(정부계), 알 라이(관영), 알 사바, 알 데스투르, 아호바르 알 우쓰브오

방송 하쉐미트요르단방송, 요르단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요르단신문 《아호바르 알 우쓰브오》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를 수록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실었다.

1969년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 요르단출판협회대표가 참가하였다.

이 스 라 엘

넓이 2만 700km² (1949년 아랍국가들과의 정전선에 의한것, 1947년 팔레스티나분할에 관한 유엔결정에 의하면 1만 4,000km²)

인구 335만명(1974년초, 강점한 요르단의 동부꾸드스의 주민포함)

주민의 대부분은 유태사람이며 그밖에 아랍사람이 산다.

공용어는 헤브라이말이나 아랍사람들은 아랍말을 한다.

수도 텔 아비브(주민 38만 5,000명)

정 치

국회 일원제로서 의원수는 120명, 임기는 4년이다. 1973년 12월 31일에 실시된 총선거결과 레이버당은 51석(6석 상실)을 차지하였다.

대통령 국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국회에서 선출된다. 대통령 에프라힘 카쯔이르(1973년 5월—)

정부 1974년 4월 악명높은 전쟁두목 메이르가 《총리》직(11일)과 집권당인 레이버당의 《당수》직(22일)에서 쫓겨난데 이어 총리자리에 림시로 붙어있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에 팔레스티나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48년 5월 이스라엘공산당으로 고쳤다. 총비서 메이르 빌너 겐세크, **레이버당** 1968년 1월에 마파이당을 비롯한 3개의 우익정당이 합당하여 조직, **독립자유당** 1965년에 조직되였고 부르죠아지리익을 대변, **국가종교당** 1956년에 조직된 유태교의 정당, **통일로동당**(마팜당), **전국로동총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련맹**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에 의하여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란 유태인국가가 조작된 이후 이스라엘침략자들은 같은해 5월 15일 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전쟁》(1948년 5월부터 1949년 7월에 이르는 기간에 이스라엘이 이라크, 요르단, 애급, 사우디 아라비아, 레바논, 수리아 등과 한 제1차중동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6천 700평방키로메터의 땅을 빼앗았다. (요르단강 서쪽지역은 요르단이 차지). 이리하여 100여만 (1972년에 약 160만명)의 팔레스티나인민들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랍나라들에 흩어져 피난민생활을 하게 되였다.

1956년 10월 29일에는 영국,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전쟁 (수에즈운하사건, 제2차중동전쟁)을 일으켰다.

1967년 6월 5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 (제3차중동전쟁)을 일으켜 애급의 시나이반도, 수리아의 골란고지, 요르단강 서쪽지역을 포함한 6만 3천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땅을 강점하였다.

전쟁이후 놈들은 1972년초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정화사항을 위반하고 아랍나라들에 연 5천 270건의 평로침범행위를 저질렀다.

1973년에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촉을 받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년초부터 중동지역에서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각종 도발책동을 벌려오다가 10월에는 애급과 수리아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제4차중동전쟁)을 일으켰다.

이해에 총예산의 40%를 군사비로 배당한 이스라엘반동당국은 그것도 성차지 않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더 많은 경제, 군사 《원조》를 구걸하였다. 3월 1일 미제의 두목 닉슨을 찾아간 이스라엘의 반동두목 메이르는 5억딸라의 군사《원조》와 《군수품제공의 장기적인 담보》를 받았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침략과 전쟁도발에 이골이 난 이스라엘침략자들은 1월 8일 수많은 군용기를 동원하여 수리아의 여러 주민지대들과 공업대상물 그리고 초소들을 대대적으로 폭격하여 많은 주민들을 살상하고 살림집들을 파괴하는 야수적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2월 21일에 놈들은 리비아려객기에 사격을 가하여 무고한 민간인 70여명의 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였다.

악명높은 전쟁광 다얀이란놈은 4월 13일 텔레비죤에 나타나 《이스라엘이 보복공격의 방침보다 선제공격의 방침을 취할것》이라느니,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유격대목표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팔레스티나항쟁운동을 지지하는 다른 아랍나라들에도 《타격을 가할수 있을것》이라느니 뭐니하고 떠벌이였다. 이에 앞서 이자는 지어 《이스라엘정부》가 강점지역에서 《항구적인 정부》로 《간주될것》이라고 지껄이였다.

이러한 침략적폭언을 전후한 4월 9일 밤과 10일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 제놈들의 항공륙전대를 떨구어 수많은 살림집들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무참히 죽이거

나 부상시켰으며 팔레스티나항쟁운동지도자들을 살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놈들은 1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기간에만도 104차례에 걸쳐 레바논을 반대하는 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침략군은 레바논에 대한 82차례의 령공, 19차례의 령토, 3차례의 령해 침범행위를 각각 감행하였다.

9월 14일 이스라엘침략자들은 64대에 달하는 비행기를 지중해연안지역 수리아의 령공에 침입시켜 1967년 중동전쟁이래 가장 큰 도발행위를 저질렀다. 이보다 앞서 8월 11일에 놈들은 레바논소속 려객기를 백주에 제놈들의 공군기지에 강제착륙시키는 날강도행위를 하였다.

더많은 아랍땅을 거머쥐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도발책동을 감행하여온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은 10월 6일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과 부추김밑에 애급과 수리아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 (제4차중동전쟁)을 동시에 감행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이번에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감행하여나선 새로운 무력침공은 애급아랍공화국과 수리아아랍공화국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행위이며 모든 아랍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행위입니다.》

이스라엘침략군은 수에즈운하 너머 애급지역과 수리아와의 정화선지역에 걸친 동시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애급군과 수리아군의 반격에 부딪쳐 전쟁초기에 패전을 거듭하였다. 전쟁이 시작되자 3일동안에 이스라엘침략군의 손실은 1967년전쟁전체를 통하여 입은 손실을 이미 릉가하였다.

아랍나라들의 반격에 의하여 호되게 얻어맞아 궁지에 빠진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10월 15일 닉슨도당은 웰남침략전쟁에 내몰았던 미제침략군놈들을 포함하여 약 3만명의 미국인 《지원병》들을 이스라엘전선에 들이밀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전쟁이 일어난지 첫 12일동안에만도 8억 2천 500만딸라어치에 달하는 각종 살인무기들을 놈들에게 긴급히 대주었을뿐아니라 10월 19일에는 또다시 22억딸라에 달하는 《비상군사원조》를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제공해줄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놈들이 줄여서 밝힌 자료에 의하더라도 중동전쟁이 개시된 때로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미제는 《200회의 공수를 단행하여 총 9천톤의 군사장비》를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대주었다. 이리하여 전쟁기간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실로 300억이스라엘파운드(71억 4천만딸라)를 탕진하였다. 이것은 시간당 1천만딸라씩 소비한것으로 된다.

전쟁이 일어나자 중근동, 아프리카나라들이 싸우는 애급과 수리아에 지원병을 포함한 재정적 및 물질적 지원을 아낌없이 주고 집단적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스라엘침략자들은 군사적으로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고립상태에 빠졌다. 거의 3주일간에 걸친 제4차 중동전쟁은 10월 22일 정화되였다.

10월 6일 중동전쟁이 개시된 이후 탄자니아, 까메룬, 다오메, 적도기네, 말가슈, 세네갈 , 잠비아, 루안다 등 20개의 아프리카나라들이 이스라엘침략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에서 다만 친미, 친이스라엘적인 남로데시아,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과만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해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아랍강점지역을 영구히 거머쥐려는 더러운 속심밑에 아랍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이스라엘인민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키는 동시에 여기에 여러가지 공업대상들을 건설하는 등 강점지역의 《이스라엘화》를 다그쳤다.

요르단강 서쪽지역과 가자지역에 공업대상들을 건설하기 위해 8억이스라엘파운드를 들이밀었으며 9월현재 시나이반도 동북쪽에만 하여도 37만명이상의 이스라엘인들을 이주시켰다. 아랍주민들을 내쫓기 위하여 그들의 땅을 《사들인다》는 구실을 붙여 빼앗아낸 땅은 요르단강 서쪽지역에서만도 15만도눔이나 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는 외국자본 특히 미제독점자본에 얽매여있다. 외국자본투자액중에서 70%를 차지하고있는 미제독점자본은 석유, 화학, 제당공업과 해운, 은행들을 장악하고있다.

공업은 주로 각종 살인무기생산을 위한 군수산업 일면에 치우치고있다. 약 96만명의 로력인구가운데서 20여만명이 군수공장들에서 일한다.

지하자원은 석고, 석회, 류황 등이다.

직접적인 군사비는 국민총생산액의 30~35%에 달한다.

군수공업 이외에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한 린비료, 면방직, 다이야, 세멘트, 종이, 자동차조립, 금강석연마, 광학유리, 정밀기계, 석유가공, 식료품가공 공장 등이 있다. 공업은 주로 하이파부근에 집중되여있다. 경제의 군사화는 군수품생산의 기형적장성과 민수공업의 심한 침체를 가져오고있다. 1973년 10월전쟁기간에 공업으로부터 농업, 관광업에 이르기까지 심한 손실을 입었다. 10월 한달동안에 금강석연마공업과 관광수입에서 입은 손실만 하여도 2천 600만딸라에 달하였다. 공업부문에 있던 로동력중 4분의 1을 침략전쟁에 내몬 후과로 공업생산량은 겨우 70%선에 불과하였다. 대외빚은 1970년에 21억딸라였다면 1973년에 그의 2배인 41억딸라에 달하였다.

농업은 수출용 열대과일재배 일면에 치우쳐있으며 주민의 18%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부침땅은 약 42만헥타인데 관개된 토지는 17만헥타에 불과하다.

주요농산물은 귤(년산 약 87만t), 포도(26만t이상), 레몬 등의 열대과일과 밀, 보리, 강냉이, 사탕무우, 올리브, 담배이다. 과일류는 바다가지방에 집중되여있고 그의 60%는 수출한다. 식량은 국내수요의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하며 수입에 의존한다.

집짐승들로서 소, 염소, 양, 닭 등을 기른다.

철길은 좁은 철길로서 주요항구들과 련결되여있다. 주요항구는 하이파와 텔 아비브이다.

주요수출품은 연마한 금강석, 직물, 다이야, 감귤류 등이며 연마하지 않은 금강석, 식량, 흑색압연제품, 화학제품, 원유제품, 수송설비 및 전기설비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영국, 서독등 자본주의나라들이다.

세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서 국가총세입의 60%를 근로자들에게서 짜내고있다. 세금의 90%이상과 국가수입의 거의 40%를 침략전쟁수행에 탕진한다.

주민의 약 3분의 1은 빈궁속에 허덕이며 14살까지의 어린이들 중 4분의 1이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한다. 이스라엘에서 사는 아랍주민들에게는 150종의 차별법이 적용된다. 이 나라에 있는 100여개의 아랍주민부락들의 절반은 의료시설이 전혀 없으며 실업자의 대부분도 아랍주민들이다.

1973년 첫 3개월동안에 고기는 35%

사탕은 37%까지 올랐으며 3월말경에 반동당국은 밀가루, 사탕, 기름을 비롯한 주요식료품값을 또 20~30%나 더 끌어올리기로 하였다. 이해에 생계비는 첫석달동안에 9.5%나 뛰여올랐다.

주민의 대부분은 유태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이스라엘통신(아이엔에이)

신문 꼴 하암(공산당기관지), 알 하미쉬마르(마팜당기관지), 하포엘 하트자이르(테이버당기관지), 다바르(전국로동총련맹기관지)

방송 꼴 이스라엘방송, 중앙텔레비죤방송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

넓이 214만 9,690km²

인구 800만명(1972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사람(85%)이며 그 밖에 아프리카흑인(10%), 이란사람, 유태사람, 인도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리야드 (주민 35만명, 정부소재지)

메카(주민 25만명, 회교성지)

정 치

국왕 국가수반으로서 립법권, 집행권을 가지고있으며 종교적인 최고권력자로서 제한없는 권력을 가진다.

파이살 이븐 아브델 아지즈 이븐 싸우드 (1964년 11월—)

각료회의(정부)의장(총리)은 국왕이 겸한다. 외교부장 장 오마르 사가프

1926년 1월 아라비아반도를 통일하고 왕국을 세웠으며 1932년에 나라이름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으로 고쳤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습적인 군주제국가이며 이 나라의 법률은 회교성전에 기초하고있으며 국회도, 정당도 없다.

1962년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예멘왕당파를 지원하여 예멘아랍공화국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1966년 10월에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이 나라에 있는 비행장과 항구들을 임의의 시각에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1972년 4월 미제와 사우디 아라비아 반동들은 민주예멘에서 쫓겨난 놈들과 사우디 아라비아, 북부예멘, 오만 등지에 있는 반동들을 긁어 모아 민주예멘을 반대하는 소위 《지원군》을 조작하고 《통합사령부》라는것까지 만들어놓고 재정《원조》와 무기, 탄약까지 공급해 주었다.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는 1967년 하르툼회의 결정에 따라 애급과 기타 아랍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계속 주면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고있다.

1973년 3월 정부는 남부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공에 의하여 희생된 사람들에게 100만딸라를 기증하였다.

10월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1970년이래 요르단전선에 배치하고 있던 군대중 1천 500여명과 비행기 150~200대, 땅크 250대를 수리아전선에 보냈으며 수리아에 10억딸라의 원조를 주었다. 또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적극 뒤받침해주고있는 미제에 대한 석유수출을 끊고 11월 1일부터 석유생산을 5% 낮추었다.

11월 22일 석유부장은 미제와 구라파나라들이 석유수출금지조치에 보복을 가하면서 석유생산을 80% 낮추며 미제가 군사행동을 취하면 유정을 폭파해 버리겠다고 하였다.

1973년에 시에라 레온(6월), 자이르(9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9월에는 1965년에 서독이 이스라엘을 승인한데 항의하여 끊었던 서독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약 60%가 농업과 축산업을 한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국내 식량수요의 10%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부침땅은 40만헥타정도인데 대부분을 왕족, 봉건령주, 사원들이 가지고 있으며 관개지역의 대부분은 미제독점자본이 틀어쥐고 있다.

주요농산물은 대추야자, 강냉이, 벼, 보리 등이다.

매해 밀은 1만 5천t, 강냉이는 2만 1천t, 보리는 1만 3천t, 벼는 2천t, 대추야자는 20만t 정도 생산된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락타, 말, 당나귀 등이다. 축산업의 중심지는 동부와 서남부지역이다.

경제에서 기본은 원유채취이다. 세계 10대원유생산국의 하나로서 약 200억t의 매장량을 가지고있다. 국가재정수입의 85%정도를 원유에서 얻고있다. 원유채취는 미일독점체들에 완전히 장악되여있다. 1973년에 원유생산량은 약 3억 7천 550만t으로서 1972년에 비하여 25.7% 늘어났다.

원유가공공업은 아주 약하다.

공업으로는 석유공업외에 세멘트, 석고, 비누, 가죽공업, 석유화학공업 등이 있다.

교통운수는 뒤떨어진 형편이다. 철길은 알마디나로부터 요르단의 국경까지 뻗은것과 리야드와 아드담맘을 련결하는 철길(580km)뿐이다.

자동차길은 약 4천km에 달한다. 아직도 락타에 의한 운반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출품은 원유 (수출액의 99%)가 기본이며 이외 과일, 집짐승, 가죽 등이며 수입품은 식량, 사탕, 화학제품, 운수수단, 일용품 등이다.

회교의 본거지로서 회교규률이 엄격하다.

주민의 95%가 글을 모른다. 대학은 리야드종합대학 등 3개가 있다.

출판보도; 신문 타우라, 알 빌라드, 알 리야드, 체프리카

방송 사우디 아라비아방송, 사우디 아라비아국립텔레비죤방송

쿠 웨 이 트

(쿠웨이트 추장국)

넓이 2만 770km²(중립지대포함)

인구 80만명 (1972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사람이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쿠웨이트 (주민 25만명)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 임기 4년, 의석 50석, 현국회는 3기로서 1971년 1월에 선거되였다.

추장 국가수반으로서 법령을 비준하며 내각을 통하여 행사되는 일체 집행권을 가지고있다.

추장 사바흐 알 살렘 알 사바흐 (1965년 11월—)

정부 총리 자베르 알 아흐메드 알 자베르, 국방부장 싸드 알 아브드 알 라발 사바

정당, 사회단체; 1963년 1월부터 일체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쿠웨이트는 1961년 2월 25일 영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되여 독립하였다.

1963년 1월 립헌군주제와 의회책임제를 규정한 헌법이 채택되고 1월 30일 이 나라 력사상 첫 국회가 선거되였다.

1964년에 쿠웨이트는 서남부의 중립지대분할에 관한 협정을 사우디 아라비아와 맺었다.

독립후 쿠웨이트정부는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 나라에서의 외래제국주의자들의 활동범위와 리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4년에 《쿠웨이트국립석유회사》를 창설하고 원유의 채취, 가공, 판매권을 장악하였으며 1970년과 1971년에는 수출하는 원유값과 외국회사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국주의독점체들에 큰 타격을 주었다.

1974년 1월에는 미영제국주의석유독점회사인 《쿠웨이트 오일 캄파니》를 국유화하고 이 회사 주권의 60%를 통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이 독점회사의 주권에서 국가의 몫을 해마다 계속 7%씩 늘여나감으로써 이 회사 전부를 장악하게 된다.

1973년 3월 산업은행을 창설하고 8월에는 썩어빠진 외국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반제투쟁을 강화하면서 아랍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1966년 7월 뽀르뚜갈침략자들과 외교, 령사, 무역 관계를 끊었으며 1966년 12월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거래하는 미제독점회사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1967년 6월 중동전쟁때 애급인민을 지원하여 자기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미제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지하였다.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또다시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군대와 땅크를 애급전선에 파견하였으며 애급과 수리아에 약 3억 5천만딸라의 원조를 주었다. 또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적극 뒤받침해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지하고 자체석유생산량을 낮추었으며 석유값을 올렸다.

1973년 11월 방글라데슈를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업이다. 국가수입의 92~94%이상을 원유수출에서 얻고있다. 원유매장량은 약 89억 3천 800만t에 달한다. 매년 1억 5천만 t (1972년)이상의 원유를 채취하고있는데 그중 1억 3천여만t은 수출하고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독점체인 《쿠웨이트석유회사》가 이 나라 원유채취의 92%정도, 일본독점자본의 《아라비아석유회사》가 약 6%를 틀어쥐고있다.

공업에서 석유채취일면에만 치우치던 경제의 편파성을 없애고 자체의 민족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력, 기계, 화학 공업 등이 새로 창설되였다. 민족공업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국내의 기업가들에게 공장건설을 위한 땅을 대주며 연료, 전력, 공업용수, 자금을 대주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농사는 바다가지역과 오아시스부근에서 약간한다. 주요농산물은 남새, 과일 등이다.

농업에서 기본은 유목 및 반유목형태의 목축업이다. 주요집짐승은 말, 양, 염소, 락타 등이다.

바다가주민들은 고기잡이와 진주채취를 한다.

운수에서는 송유관수송을 제외하면 기본이 자동차운수이다. 자동차길은 총 600km정도이나. 철길은 약 100km이다. 무역은 해상운수를 통하여 진행한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원유제품이다. 식료품과 공업품은 10%정도 자체 충족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밀가루, 사탕, 기름, 차는 거의 전부 수입한다.

220여개의 각급학교에서 17만 1천여명(1971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1973년 8월 아마아이르시에 150개의 침대를 가진 병원이 새로 건설되였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신문** 알 라이 알암, 아호바르 알 쿠웨이트, 데일리 뉴스, 알 칼라즈 알 하다프, 쿠웨이트 타임스

방송 쿠웨이트방송, 쿠웨이트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17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4월 20일 쿠웨이트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개설되였다.

1973년에 《알 아스리아》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이 나라신문들인 《데일리 뉴스》, 《쿠웨이트 타임스》, 《알라이 알암》, 《알싸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일본정치리론잡지〈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등 여러로작들을 실었다.

또한 신문《알 가바스》 11월 9일호는 《조선은 통일되여야 한다》는 표제밑에 미제를 규탄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론설을 실었으며 주간잡지 《알 아암》도 《미국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진상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론설을 실었다.

바 레 인

(바레인국가)

넓이 598km²

인구 22만명 (1971년)

주민의 85%이상이 아랍사람이며 그외 이란사람, 인도사람, 파키스탄사람 등이있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마나마(주민 약 8만명)

정 치

국회 1973년 12월 7일 처음으로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총의석 39석

추장 이사 빈 술만 알 할리파(1942년—)

각료회의(정부) 1973년 12월 15일 14명으로 구성, 총리 할리과 빈 술만 알 할리파, 외교부장 빈 무바라크 알 할리파, 국방부장 하마드 빈 이사 알 할리파

정당, 사회단체; 합법적 정당, 사회단체는 없다. **바레인민족해방전선** 바레인의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1956년에 결성된 투쟁단체, **바레인민족동맹** 1953년에 조직

바레인은 1971년 8월 14일 영국과의 예속적인 《조약》을 파기하고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8월 16일 바레인국가로 고쳤다.

독립을 선포하면서 바레인은 이웃추장국들과의 친선, 회교국가들, 그리

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협력, 페르샤만의 안전과 진보를 위한 노력, 빼앗긴 조국을 찾으려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권리인정 등을 선언하였다.

1971년 8월 15일 영국과 새로운 《우호조약》을 맺었으며 이 조약에 의하여 영국의 해군 및 공군 기지들이 바레인에 남아있게 되였다. 바레인에는 근동주둔 《영국군총사령부》가 있다.

1972년 1월 6일에는 미해군의 바레인기지의 계속 사용을 인정하는《협정》을 미국과 맺었다. 1973년 10월 정부는 미제가 중동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침략자들을 계속 뒤받침하며 놈들을 침략전쟁확대에로 내몰자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페기하기로 하였으며 11월 20일에는 자기 나라에 기지를 두고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하던 미제침략군을 1974년 10월 1일까지 몰아낼데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미제에 대한 석유수출을 전면적으로 중지하였으며 석유값을 올리기로 하였다.

1973년 12월 7일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국회선거가 진행되여 국회가 성립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와 그 가공이다. 국민소득의 80%가 원유생산에서 얻어지며 로동인구의 4분의 1이 원유 채취 및 가공 부문에서 일한다. 탐사된 원유매장량은 약 1억t에 달한다. 매년 약 380만~400만t의 원유가 생산된다.

석유채취권은 미, 일 독점체들이 틀어쥐고 있다. 바레인제도에는 년산 1천만t 능력의 정유소가 있으며 이 나라와 부근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보내오는 석유도 정제한다.

이외 공업으로는 약간의 세멘트, 벽돌공장과 진주제품, 일용품, 천, 옷 등을 생산하는 수공업공장들이 몇개 있다.

농사는 오아시스부근에서 약간 한다. 부침땅은 령토의 10분의 1 (1만 5천에이커)에 달한다.

주요농산물은 망고, 포도, 귤, 수박, 참외 등의 과일과 남새이다. 벼도 약간 재배 한다.

진주채취가 유명하다. 이것은 일본독점체가 독점하고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 및 해상운수가 기본이며 철길은 없다. 약 200km의 자동차길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석유와 진주이며 수입품은 식량, 일용품, 공업제품 등이다. 천, 양복, 가구, 세멘트, 목재, 사탕, 차 등은 이웃 나라들에 재수출하여 리윤을 얻고있다.

주민의 90%가 회교도이며 기독교와 유태교도 믿는다.

인구밀도가 1km²에 340명으로서 중근동에서 제일 높다.

바레인로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백인들의 임금의 10~15%밖에 안된다.

물이 없으므로 대륙으로부터 약 150km의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받고있다.

교육 및 보건 형편은 뒤떨어져 있으나 독립후 점차 개선되고있다.

출판보도;신문 알 자리다 알 바스비야

방송 바레인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4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바레인을 방문하였다.

까 타 르

(까 타 르 국 가)

넓이 2만 2,014km²

인구 14만명 (1970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사람이며 그외 인도사람, 이란사람, 토이기사람, 아프리카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도하 (주민 10명)

정 치

추장 할리파 빈 하마드 알 타니 (1972년 2월—)

정부 1970년 5월 첫 내각이 구성되였으나 총리는 없고 각료 10명중 8명은 추장일가이다.

정당,사회단체;합법적 정당, 사회단체는 없고 1964년에 《까타르민족투쟁단체》가 결성되여 비합법적으로 활동

까타르는 타니일가의 세습군주제추장국이다.

1971년 9월 1일 영국과의 예속적인 조약을 페기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해 9월 3일 영국과 새로운 《우호조약》을 맺었다.

1972년 2월 22일 황태자 하마드 알 타니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아호메드 알 타니추장을 내쫓고 정권을 잡았다.

정권을 잡은후 민족군대의 《아랍화》를 주장하면서 까타르군대내에 있던 영국인장교들을 전부 제거하였으며 일련의 경제개혁을 내놓았다. 또한 군인들과 국가공무원들의 임금을 20% 올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민족경제발전을 위하여 1972년 4월 민족석유회사창설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공동의 리익의 호상존중, 호상내정불간섭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으며 아랍의 통일을 실현하며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아랍땅과 팔레스티나땅을 되찾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73년 10월 싸우는 아랍인민을 지지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뒤받침해주고 있는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원유채취업이다. 국민소득의 약 90%가 석유공업에서 들어온다. 탐사된 원유매장량은 약 4억t이상이다. 석유채굴권은 미제의 《까타르석유개발회사》 (2010년까지의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까타르쉘석유회사》 등이 독점하고있으며 일본석유독점체들의 침투도 강화되고 있다.

농업은 뒤떨어져 있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반정착생활을 하는 유목인이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와 과일, 남새, 등이다.

바다가지역의 주민들은 고기잡이와 진주채취도 한다.

철도가 없으며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서부바다가를 남북으로 련결하는 길과 동서를 련결하는 길이 있고 기타 지역에는 고정된 길이 없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진주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소비품, 자동차 등이다.

독립후 약 80개의 소학교가 건설되여 1만 3천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알 아암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9월 우리 나라가 까타르를 승인하였다.

1973년 4월 16일 까타르신문 《알 아암》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

후의 로작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실었다.

아랍추장국

(아랍추장국련방)

아라비아반도의 동남쪽 페르샤만의 입구에 있다.

넓이 8만 6,300km²

인구 22만명 (1971년)

주민의 대부분은 자와손족, 아부 아리족, 아부파라살족을 기본으로 하는 아랍사람들이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아부 다비 (주민 2만명)

정 치

아랍추장국은 아부 다비, 두바이, 푸쟈이라, 샤르쟈, 아즈만, 움알꾸와인, 카이마호 등 7개의 추장국이 련방을 이루고있다.

련방최고회의 련방의 최고기관이다 다수가결에 의하여 문제를 결정하는데 아부 다비와 두바이가 거부권을 가진다.

자문기관으로서 34명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부 다비와 두바이에서 각각 8명, 샤르쟈 6명, 기타 3개국에서 각각 3명씩 참가하고있다. (라스 알 카이마호는 의석배정후에 련방에 가입하였으므로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자이르 빈 술탄 알 나하얀 (1971년 12월—)

정부 1973년 12월 23일 구성, 총리 마크룸 빈 라쉬드 엘 마크룸, 외교부장 아호마드 할리파 엘 수와이디, 국방부장 모하메드 빈 라쉬드 엘 마크룸

1971년 12월 1일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던 6개 추장국이 영국과의 《보호조약》을 폐기하고 련방을 창설하였으며 2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1972년 2월 라스 알 카이마호추장국이 련방에 가입하였다.

1971년 12월 2일 영국과 새로운 조약을 맺었다. 협정에 의하여 영국은 일부군사기지들을 그대로 가지고있다.

1971년 12월 유엔과 아랍련맹에 가입하였다. 1973년 10월 아부 다비는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미제에 대한 석유수출을 전면 중지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외래독점체들에 의한 원유채취이다. 재정수입의 대부분이 원유수출에서 얻어지고있다. 년 5천만t이상의 원유를 채취하고있으나 원유채취권은 미국, 영국, 일본, 서독, 프랑스, 이딸리아 등 제국주의독점체들이 완전히 틀어쥐고있다. 1973년에 6천 270만t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일본독점체들은 아부 다비를 포함한 중근동지역에서 국내 수요원유량의 약 70%를 략탈해 가고있다.

농업은 오아시스농사가 기본이다. 얼마 안되는 부침땅은 추장들의 소유로 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대추야자, 강냉이 등이다.

주민의 10~15%가 목축업을 한다. 락타를 많이 기르고있다.

해안지대주민은 고기잡이와 진주채취를 한다.

련방형성이후 매개추장국들에서는 원유수출에 의한 수입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일련의 경제발전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아부 다비에서는 세멘트, 원유가공, 석유화학공장들이 건설되였거나 또 건설중에 있다.

철길이 없으며 정식 도로도 없다. 자동차길을 건설하고 주요항구를 확장개건하는 사업에 큰 주목이 돌려지고있다. 두바이항은 중계무역중심지이며 주요원유수출항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그외 진주, 수산물이며 수입품은 공업설비, 운수수단, 식량, 일용품 등이다.

재정은 각 추장국에서 석유수입의 10%씩분담한다.

각 추장국들은 발전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아부 다비는 인구 1인당 국민소득에서 6천 500딸라로서 자본주의세계에서 부유한 나라의 하나이며 푸쟈이라는 고기잡이만 하는 가장 못사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교육은 지방에서 자체로 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잡지 《알 아이얌》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우리 나라가 아랍추장국을 승인하였다.

1973년에 잡지《알 아이얌》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실었다.

오 만

넓이 21만 2,457km²

인구 75만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사람이며 이외 인도사람, 이란사람, 아프리카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마스까트(주민 약 1만명)

정 치

추장 가부스 빈 사이드 (1970년 7월—)

정부 총리 사이드 타리크 빈 라이무르

정당, 사회단체;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 1971년 12월 20일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과 오만민족해방전선을 통합하여 창건,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 1965년에 창건, 도파르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을 지도. **오만민족해방전선** (오만및 아랍만민족민주주의해방전선) 1970년 6월에 조직, 쉐벨 아호다르산지에서 무장투쟁을 지도. 이외 강점된아랍만해방전선산하에 **청년조직, 녀성조직**이 있다.

18세기 말엽부터 오만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쟁탈의 대상으로 되였다.

1839년과 1891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오만에 예속적인 조약을 강요하여 제놈들의 지배를 강화하였다.

1913년 오만의 내륙지방인민들이 반영봉기를 일으켜 회교교주국을 세우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39년과 1951년에 마스까트오만과 《우호통상및항해조약》, 《우호조약》을 강요하여 저들의 예속하에 넣었다.

1955년 12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마스까트오만을 사촉하여 회교교주국을 반대하는 내란을 일으키게 하고 제놈들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회교교주국을 강점하고 마스까트오만에 병합시켰다.

1958년 7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마스까트오만과 《군사협정》을 맺고 제놈들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설치하였으며 이 나라 군대의 통수권을 장악하였다.

1965년에는 마스까트오만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구실밑에 제놈들의 륙해공군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었다.

1970년 7월 23일 타이무르 추장의 아들 가부스 빈 사이드가 궁전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자음으로 내각을 조직하였다.

오만정부는 1973년 10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고있는 미제와 화란에 대한 석유수출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해 6월에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오만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 오래전부터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여오던 오만인민들은 1963년 서부의 도파르지역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영침략자들과 그 괴뢰들을 반대하여 싸웠다.

1965년에는 《도파르해방전선》이 창건되였으며 이해 6월 9일에는 이 전선의 지도밑에 도파르산지에서 무장투쟁이 시작되였다.

1968년 9월 《도파르해방전선》 제2차대회에서는 이 조직의 이름을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으로 고쳤다. 이 전선은 무장투쟁에 의한 나라의 해방과 노예제도의 근절, 토지개혁의 실시, 자연부원의 국유화, 민주주의적인 오만국가의 건설을 투쟁강령으로 내세우고 적들을 호되게 족쳐 커다란 성과를 날성하고있다. 1972년초에 이미 도파르주민의 98%를 적들의 통치기반에서 해방하였다.

또한 1970년 6월에는 《오만민족해방전선》(오만및아랍만민족민주주의해방전선)이 창건되여 제벨 아호다르산지에서 무장투쟁을 벌리고있다.

1971년 12월 20일 오만에서 활동하고있는 투쟁단체들이 련환대회를 열고 민족해방투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조직인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을 창설하고 반제반봉건투쟁강령을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농업은 주로 오아시스근방에서 하는데 얼마되지 않는 부침땅마저 지주와 통치배들이 독점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대추야자 (년평균 7천t), 밀, 보리이며 그외 목화, 담배, 남새 등을 생산한다.

고원과 사막지대에서는 락타, 염소 등을 기른다.

바다가 주민들은 물고기잡이도 하며 중계무역에도 종사한다.

공업은 원유채취업외에 다른것은 거의 없다. 채굴권은 《이라크석유회사》 (미, 영, 프, 화란 독점자본)의 분회사인 《오만석유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원유생산량은 1천 500만~1천 700만t정도이다.

철길이 없고 400km에 달하는 자동차길이 있다. 고원지대와 사막지대에서는 락타가 주요운수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대추야자, 물고기, 락타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천, 사탕, 운수수단, 일용품 등이다.

주민의 6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주민의 95%가 글모르는 사람이다.

1972년말에 소학교는 50여개, 중학교는 3개 있다.

1971년말 현재 병원은 없고 진료소가 41개있다.

출판보도; 신문 쏘트 알 샤아브(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기관지), 알 와탄(정부가 발간하는 주간지)

잡지 6월 9일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기관잡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반미세계기자대회에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0년 5월 강점된아랍만해방인민전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 전선청년조직대표단은 1971년 6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민 주 예 멘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넓이 28만 7,683km²

인구 180만명 (1972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사람이며 그외 인도사람, 소말리아사람, 영국사람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아덴 (주민 25만명)

정 치

대통령리사회 1969년 6월 시정조치후 조직된 최고지도기관, 1971년 8월 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 정부총리를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1969년 6월—)

림시최고인민회의 민주주의적인 최고립법기관, 101명으로 구성, 상임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1951년 5월—)

정부 1973년 5월 내각개조, 총리 겸 보위부장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 하싸니 (1971년 8월—), 외교부장 무함마드 쌀레흐 무티으

정당, 사회단체; 민족전선 1963년 8월 9일 민족해방전선(독립후 이름을 고침)으로 창건되여 민족해방투쟁을 지도하였다. 독립후 집권당으로 된 남부예멘의 유일한 정당, 총비서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 **로동조합총련맹, 청년련맹, 녀성련맹**

1967년 11월 30일 4년이상에 걸치는 무장투쟁을 통하여 129년간의 영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경제, 군사 분야에서 식민지잔재를 청산하고 1968년10월과 1970년 11월 5일에는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봉건령주, 반동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였다. 1969년 6월 22일에는 민주예멘혁명을 말살하려는 우익반동세력을 청산하는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1970년 11월 30일 이 나라 력사상 첫헌법을 채택하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헌법에서는 현단계에서의 혁명의 성격을 《민족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당면과업으로 내세웠으며 장차로는 《과학적사회주의》를 건설할것을 규정하였다.

1972년 5월 민족전선 제5차대회에서는 외래독점체들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며 봉건주의를 청산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민족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민족전선의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경제발전 3개년계획 (1971~1973년)이 작성되였다.

1972년 9월 26일부터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분렬책동에 의하여 두 예멘간에 일어났던 무장충돌은 10월 19일 아랍련맹의 중재로 정화되였다. 정화후

남북예멘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멘공화국》을 형성할데 대하여 합의하고 1973년 1월 20일부터 공동위원회들이 각각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월 14일에는 남북이 포로교환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6월 3일 북부예멘이 두 예멘간의 정치, 경제, 군사 및 헌법적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였던 공동위원회로부터 탈퇴함으로써 사실상 두 나라간의 통합은 파탄되였다.

민주예멘은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애급과 수리아에 자기의 모든 예비를 다 제공할것이라고 언명하였으며 지원병파견을 위한 등록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3년에 아르헨띠나 (3월), 일본(4월)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목축업을 한다. 부침땅은 12만 1천여 헥터에 달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이며 그밖에 담배밀, 참깨, 남새 등이다. 년평균 목화는 7천 500~8천t, 기장과 수수는 6만여t, 참깨는 3천t, 그리고 해마다 30만t의 남새와 과일, 30만파운드어치의 담배를 생산하고있다.

토지개혁이 실시되여 농촌경리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의 방조밑에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였으며 개인농민들의 토지소유한계가 20페단(관개된 토지)내지 40페단 (관개되지 않은 토지)으로 제한되였다.

농업협동조합에 속해있는 부침땅은 전체 부침땅의 50%를 차지한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황무지개간사업과 관개공사, 우물파기공사를 널리 벌리는 한편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식 보급사업을 광범히 진행하고있다. 1974년 2월 메이파하자르 제1계단관개공사가 준공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약 4만여마리), 염소, 당나귀, 락타 등이다.

민주예멘정부는 경제를 《봉사경제》로부터 《생산경제》로 전환시키는것을 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새로운 공업기업소들을 창설하며 국영경제부문을 확대하고있는데 3개년계획(1971~1973년)기간에만도 세멘트공장, 방직공장, 농기계부속품공장 등 30여개의 새로운 공장들의 건설을 예견하였다. 1972년 6월 농기계부속품공장이 조업하였으며 1973년 1월에는 가죽공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또한 정부는 계획화사업을 강화하고 공장, 기업소에 대한 일상적인 국가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의 무정부성을 없애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없고 바다가와 서부지역에 2천 500km의 자동차길이 있다. 아덴항은 인도양과 홍해를 련결하는 중계무역항이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천, 말린물고기, 가죽, 커피, 소금이며 수입품은 식량, 기계, 각종 금속류, 기타 공업제품, 의약품 등이다.

민족교육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1973년 10월현재 1천 42개의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16만 7천 3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는데 이것은 1967년에 비하여 학교수는 4.5배, 학생수는 3배로 각각 늘어난것으로 된다. 또한 글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 1971~1972학년도에만도 3천 416명이 완전히 글을 읽고 쓰게 되였다.

민족문화건설을 위하여 정부는 공식문건과 신문에서 영어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부르조아생활양식을 설교하는 책과 영화를 회수하고 극장들에 대한 검열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아덴통신

신문 아르바아타 아샤라 옥투브르(정부기관지), 앗 싸우라(민족전선기관지), 타우라, 싸우툴 움말

방송 국립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2월 1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5월 5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6월에는 우리 나라가 민주예멘에 경제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4월에는 우편업무에 관한 협정,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우리 나라 중앙방송위원회와 민주예멘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국사이에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3년 3월 26일 평양시와 민주예멘 제1도 사이의 친선적련계설정에 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민주예멘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아덴항구로동자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학생전국총동맹 아덴시 타와이지부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아덴시교원들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등이 무어져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1년 2월 민주예멘에 불도젤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조물자를 보내주었다.

1972년에는 우리 나라의 원조로 농기구수리공장이 건설되였으며 1974년 2월 10일에는 우리 나라가 건설해주는 제5도 메이파하쟈르관개공사 1계단룡수식이 진행되였다.

1973년 1월 24일 아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이 개관되였다.

민주예멘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민주예멘은 《조선문제》에 관한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또한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는 《우리는 조선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친선적조선인민의 편에 서있을 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내놓은 방침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였다. 5월 28일 민주예멘친선위원회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6월 16일에는 또한 청년련맹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3년에 신문 《아르바아타 아샤라 옥투브르》, 《싸우툴 움말》을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을 실었다.

1972년 7월 민족전선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림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족전선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2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예 멘

(예멘아랍공화국)

넓이 19만 5,000km²

인구 700만명 (1972년)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사람이며 이란사람, 소말리아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사나 (주민 12만명), 제2수도 따이즈(주민 8만명)

정 치

공화리사회 1967년 정변후 3명으로 구성된 최고권력기관, 위원장 아브둘 라흐만 알 이리야니 (1967년 11월—)

협상리사회(국회) 1971년 4월 공화파, 왕당파, 추장파 등 각이한 정치세력을 망라하여 창설, 159명중 129명은 일반선거에 의하여 선거하며 30명은 공화리사회가 임명한다.

정부 1974년 3월 3일 구성, 총리 하싼 마키, 외교부장 아브달라흐 알 아스나구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당 1967년 11월 정변후에 조직된 집권당이다. **로동총련맹**

예멘인민은 1962년 9월 26일 혁명을 통하여 예멘아랍공화국을 선포하고 공화제도를 수립하였다. 공화국선포후 미영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쫓겨난 예멘왕당파,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반동들을 긁어모아 무력간섭을 감행하였다. 1964년 11월 정화협정이 체결되였으나 이러한 반란은 계속되였다.

1967년 11월 5일 군사정변으로 살랄정권이 무너지고 알 이리야니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화리사회가 창설되였다.

공화리사회는 1962년 이후 조성된 경제적난관을 타개하고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1970년 3월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다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정부, 예멘왕당파와 내란을 끝장낼데 대한 《정화협정》을 맺었다. 이리하여 8년간에 걸친 내란은 일단 끝나고 공화파와 왕당파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1970년 12월 새 헌법이 공포되였으며 1971년 3월에는 총선거가 진행되여 4월에 공화파, 왕당파, 추장파를 비롯한 각이한 정치세력을 망라한 협상리사회가 창설되였다.

1972년 9월 26일부터 민주예멘과 무장충돌이 있었다. 10월 19일 아랍련맹의 중재로 정화가 실시되였으며 11월 28일에는 남북예멘의 통합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고 두 예멘간의 정치, 경제, 군사 및 헌법적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합동위원회가 구성되였으나 1973년 6월 예멘아랍공화국은 여기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1971년 4월 프랑스, 사우디 아라비아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72년 7월에는 1967년 중근동전쟁때 끊었던 미제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하였다.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6일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애급과 수리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들에 경계태세를 명령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이상이 농업과 축산업을 한다. 부침땅은 약 230만헥타이며 2—3모작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수수 (알곡생산의 90%차지), 보리, 밀, 강냉이, 목화, 커피, 야자, 종려 등이다. 수수는 년평균 90만~120만t, 목화는 5천t, 커피는 4천t 정도 생산된다.

동부지방과 홍해연안에서는 축산업을 한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말, 락타, 노새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은, 쩨단, 망간, 석탄, 쇠돌, 류황, 석회석 등이다.

공업으로는 알루미니움공장, 방직공장, 비료공장, 제철소, 세멘트공장, 식료가공공장 등이 있다. 금, 은 장식물을 가공하는 수공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철길은 없으며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을 닦는것이 긴급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집짐승, 소금이며 수입품은 목재, 식료품, 식량, 공업제품 등이다.

주민의 90%이상이 회교도이다.

1970년 12월 사나에 종합대학이 건설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예멘통신

신문 알 좀후리아, 알 싸아브, 알 리싸라, 알 와하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3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4년 9월 18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11월 10일 사나시고급중학교 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3년에 이 나라 신문들인 《알 리싸라》《알 싸아브》, 《알 사우라》 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등을 실었다.

1973년 2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토 이 기

(토이기공화국)

넓이 78만 576km²

인구 3,750만명(1972년)

주민은 토이기사람이 80%이상이고 그밖에 쿠르드사람, 희랍사람, 그루지야사람, 아랍사람 등이 산다.

공용어는 토이기말

수도 앙까라(주민 164만명)

정 치

국회 (대국민회의) 상하량원제로서 상원은 187석(그중 150명은 선거, 15명은 대통령이 임명, 22명은 종신)이며 임기는 6년이다. 2년에 한번씩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하원(국민의원)은 450석이며 임기는 4년이다. 1973년 10월 14일 총선거결과 주요정당들의 하원의원배석수(괄호안은 해산당시)를 보면 인민공화당 185(95)석, 정의당 149(225)석, 민족구원당 48(13)석, 민주당 45(44)석, 신임당 13(42)석, 기타 10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상원의 52석에 대한 선거결과는 인민공화당 25(4)석, 정의당 22(31)석, 민족구원당 3석, 신임당 1(12)석, 기타 1석이다.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상하량원합동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다수표로 선거되며 임기는 7년이다. 대통령 파흐리 코르튜르크(1973년 4월 6일—)

정부 1973년 10월에 있은 총선거후 3개월동안 정부위기가 계속되였다가 1974년 1월 25일 인민공화당과 민족구원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뷸렌트 에체비트(인민공화당출신, 1973년 10월—), 외교부장 투란 구네스, 국방부장 하신예사로 이시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9월에 창건되였으며 1925년에 비법화되였

다. 제1비서 야쿠브 데미르, **인민공화당** 1923년에 창건되였고 부르죠아지들과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친미우익정당, **정의당** 1950년부터 집권당으로 있다가 1960년 5월 군사정변직후 해산된 민주당에서 떨어져나온자들, 퇴역장교들로 1961년에 구성, **민족구원당, 민주당**(1970년에 창건), **신임당, 토이기통일당, 국민당, 독립당, 민족운동당, 로조련맹, 진보로조련맹**

1925년 10월에 공화국을 선포한 토이기는 전후 미제국주의자들에 적극 추종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중동나라 인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충실한 도구로 굴러떨어졌다.

토이기는 1947년 7월 《트루맨주의》에 의한 《경제협조협정》을, 1949년에는 《문화협조협정》을 미제와 맺었다. 그후 토이기반동당국은 침략적인 나토(1952년)와 쎈토(1955년)에 가담하였으며 1962년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과 《군사원조협정》을 맺었다.

이즈미르에는 나토의 《동남부군사령부》와 《제6전술공군(동남공군)사령부》가 있으며 수도 앙까라에는 쎈토의 사무국이 도사리고있다. 이밖에도 미제는 토이기에 각종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여 수많은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토이기령토를 사회주의나라들과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군사전략적기지로 리용하고있다. 토이기에 대한 미제의 군사《원조》는 년평균 1억딸라에 달한다.

토이기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5천명)을 보냈으며 미제에 의하여 조작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성원국으로서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계속 방해하여 왔다.

1971년 3월 앙까라, 이스땀불 등 각 도시에서 반미반정부시위가 크게 일어났으며 이와 함께 임금인상,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투쟁도 앙양되였다. 이리하여 반동당국은 같은해 4월 수도 앙까라를 포함한 11개 주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인민들과 진보적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그후 국내에 조성된 정치적위기와 경제적난관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내각이 교체되였다.

1973년 3월 13일부터 새 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각 정당세력들은 20여일간 옥신각신하면서 10여차례의 선거를 거듭한 끝에 4월 6일 3개당(정의당, 인민공화당, 신임당)의 공동후보가 대통령으로 들어앉았다.

뒤이어 4월 16일 24명의 각료들로 구성된 새 련립정부가 조직되였다.

새 정부정강에서 총리 탈루는 중동정세에 언급하여 토이기는 령토획득을 반대하며 힘을 사용하거나 힘의 위협으로 정치적리득을 보는것을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1971년 4월에 선포되였던 《비상사태》는 그후 적용범위를 몇개주로 줄였다가 9월 26일에 총선거를 앞두고 29개월만에 완전히 해제되였다.

10월 14일에 전체 하원의원과 부분적상원의원(52명)선거를 위한 총선거가 진행되였으나 그 어느 정당도 유일당정부를 조직할만한 표수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5년이래 과반수의 의석을 유지하여온 련립정권의 중심당이였던 보수적인 정의당이 패배하고 인민공화당(중도좌파)이 하원의석 450석중 185석을 차지하여 제1당으로 되였다.

인민공화당이 다른 정당들과 련립정부를 조직하게 되였으나 정당들간의 첨예한 정치적의견상이로 하여 3개월동안이나 정부위기가 조성되였다.

1974년 1월 25일 인민공화당과 민족구원당이 에체비트인민공화당 당수를 총리로 하는 련립내각을 조직하는데 겨우 합의를 이룩하였다.

두 당은 련립정부를 조직하면서 9개의 조항으로 된 《정책협정》에 조인하였는데 이 《협정》은 침략적군사기구인 나토에 토이기가 앞으로도 계속 성원국으로 남아있을것이라는것을 재확인하였다.

1973년 5월 1일 토이기와 이라크사이에 이라크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토이기로 수송하기 위한 2개의 송유관건설계획에 관한 합의를 보았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65.5%가 농사하는 농업국가이다. 부침땅은 전체 땅넓이의 28.4%를 차지하며 그 70%이상은 지주, 부농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알곡작물로는 밀(년 800만t정도), 보리, 강냉이를 많이 심는다. 그밖에 목화(40만~45만t), 담배, 커피, 포도, 사과, 올리브, 무화과, 감귤류 등이 있다.

목축업이 농업에서 큰 몫을 담당한다. 방목지는 전체 부침땅넓이의 38.3%를 차지한다. 1971년현재 총집짐승마리수는 7천 620만마리이며 그중 양은 3천700만마리, 염소는 2천 150만마리였다. 이 나라의 앙고라종 염소털은 가늘고 길며 광택이 나는것으로서 그 질이 좋다.

공업부문에서 기본은 광업과 경공업이다. 광업은 국민소득의 15%를 차지하며 이 부문에서 로동인구의 12%가 일한다. 석탄, 크롬, 동, 쇠돌, 망간, 연, 아연, 석유 등의 지하자원이 개발되고있다. 생산되는 석유로는 국내수요의 50%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나라에 있는 14개의 석유회사중 78%의 주권은 미제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제철 및 제강, 기계, 세멘트, 화학, 선박건조 공업 등의 중공업도 있다.

경공업부문에서 중요한것은 담배, 석유, 종이, 유리, 도자기, 가죽, 식료가공, 양탄자제조 공업이다. 양탄자는 이란의 양탄자와 함께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있다.

운수에서는 철도 및 해상 운수가 기본이다. 기본간선은 아나똘리아고원을 가로 뻗은 이란—바그다드철길(2천60km)이다. 주요항구는 이즈미르, 이스땀불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크롬광, 담배, 말린포도, 집짐승, 목화, 과일, 올리브이며 금속제품, 기계, 화학제품, 원유제품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서독, 이딸리아, 영국,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프랑스 등이다.

1971년말에 실업자수는 200만명이였으며 같은해에 살길을 찾아 해외를 떠난 사람들의 수는 60만명이였다. 문맹자가 주민의 3분의 2이상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나똘리에통신

신문 울루스(인민공화당기관지), 아달레트(정의당계), 쑴후리예트, 후리예트

방송 앙까라방송, 토이기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끼 쁘 로 스

(끼쁘로스공화국)

넓이 9,251km²

인구 64만 5,000명 (1973년 12월초) 주민의 77%가 희랍사람, 18%가 토이기사람, 기타 민족이 5%이다.

공용어 희랍말과 토이기말이다. 영국말도 통한다.

수도 니코시아(11만 8,000명, 1973년 12월초)

정 치

의회 일원제이며 임기는 5년이다. 총의석 50석중 희랍계주민공동체에서 35명, 토이기계주민공동체에서 15명을 각각 선거한다. 1963년 12월부터 토이

기계주민공동체대표들은 의회와 정부 및 기타 국가기관들에 참가하지 않고있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마카리오스(1960년 8월—, 1973년 2월 3선) 외교부장 존들 크리스토피데스

정당, 사회단체; 근로인민진보당 전신은 1926년에 창건된 공산당이며 1941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침, 총비서 에제키아스 파파이오안누, **민족주의자통일당** 1969년에 창건된 큰 부르죠아정당, **진보개혁전선** 1970년에 조직된 당, **통일민주중앙련맹** 1969년에 조직된 당, **민주민족당** 극반동적인 민족부르죠아정당이나 그 세력은 미약, **토이기공화당** 1970년 12월에 조직, **전끼쁘로스로동련맹**(1946년에 창립된 진보적로조이며 세계직련에 가입), **끼쁘로스민주로동자련맹, 끼쁘로스로동자련맹**(우익로조) **농민동맹, 통일민주청년조직**(1959년에 조직되였고 세계민주청년련맹에 가입한 진보적청년조직), **녀성련맹**

1960년 10월 1일 끼쁘로스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으나 놈들이 강요한 1959년의 예속적인 협정과 1960년의 《헌법》에 의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심히 유린당하였다.

1963년 11월 마카리오스대통령은 비법적으로 강요된 《협정》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소수민족인 토이기계주민들에 대한 많은 권리를 인정한 《헌법》의 폐기를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영제국주의자들은 끼쁘로스반동들을 부추겨 1963년 12월 희랍계주민들과 토이기계주민들간의 류혈적인 충돌을 일으켰으며 그것을 진압한다는 구실밑에 이 나라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다. 《질서유지》라는 미명하에 미제는 1964년 3월에 침략적인 《유엔평화유지군》(1973년 현재 2,700명)을 조작하여 이 나라에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끼쁘로스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희랍, 토이기 반동들의 군사적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지중해 섬나라를 사회주의나라들과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나토의 완전한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무장간섭을 강화하고 희랍계주민들과 토이계주민들 사이에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킴으로써 이 나라의 민족적통일단결을 방해하였다. 두 민족간의 충돌은 더욱 첨예화되여 1967년 11월에는 수많은 사상자까지 났다.

1967년 12월 29일 토이기계주민들은 중앙정부와 완전히 구별되는 자기의 《림시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의 대통령으로 중앙정부의 부대통령(토이기사람)을 들여앉혔다. 토이기계 끼쁘로스사람들은 《림시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토이기계주민구역에 한하여 립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며 중앙정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것을 선포하였다.

한편 미제의 지원밑에 희랍군사파쑈도당의 부추김을 받고있는 우익반동인 그리바스란놈이 1971년 9월에 희랍으로부터 이 나라에 기여든 후 이자는 반동들을 규합하여 《에노시스》(희랍과의 통합이라는 뜻)운동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진보적인 마카리오스정부를 반대하는 파괴암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1973년 2월 3일과 7일 밤 무장악당들은 수도 니코시아의 교외와 기타 여러지역에 있는 경찰초소들을 습격하여 일부 초소들을 파괴하고 많은 무기를 빼앗아갔으며 마카리오스대통령을 반대하여 나서도록 인민들을 위협공갈하였다. 이에 앞서 1월 17일에 그리바스우익반동도당은 《희랍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구호를 웨쳐대면서 국회청사와 한개의 중학교, 진료소를 공격하고 통일민주청년조직 지역위원회와 농민동맹건물을 불사르려고 시도하였다. 지어 놈들은 희랍반동정권과 나토의 배후조종밑에 4월 1일을 계기로 대통령궁전과 경찰서, 방송국 등을 장악하고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으나 이 음모는 사전에 드러났다.

마카리오스정부를 반대하는 그리바스우익도당의 책동은 2월 18일로 예견되였던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눈에 띄게 드러났다. 1월 31일 《에노시스투쟁조직위원회》 위원장이란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바스놈의 《에노시스》운동을 지지할것이라고 떠벌렸으며 3월에 정부에 불만을 품은 3명의 주교놈들은 마카리오스대통령의 사임을 강요하였다.

니코시아를 포함한 이 나라의 여러도시들에서 폭탄폭발사건을 일으키고 공공기관들을 습격하며 반정부적인 삐라를 뿌리는 등의 테로와 파괴행위를 일삼던 그리바스우익반동악당들은 7월 27일에는 마카리오스정부의 사법부장을 랍치해가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마카리오스대통령은 놈들의 악랄한 책동에 대처하여 수색을 강화하며 국내정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8월 20일 근로인민진보당은 성명을 발표하여 정부의 조치들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반동들과의 투쟁에서 정부가 견결하고도 광범한 조치들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10월 7일 마카리오스대통령에 대한 반동들의 암살행위가 드러나자 근로인민진보당을 비롯한 광범한 사회계는 반동들의 테로행위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1973년 2월 8일 유일립후보로 또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카리오스는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상의 방법으로 나라안에 조성된 희랍계주민과 토이기계주민간의 불화와 반목을 가시기 위하여 1971년부터 회담을 계속 추진시켜왔다. 회담에서는 두개의 행정기관을 통합하는 문제와 토이기계주민대표들이 희랍계주민들의 정부에 들어가는 문제를 토의하고있다.

정부는 대외관계분야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오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경제전반이 아직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경제에서 영국독점자본이 지배적지위를 차지하며 미제와 서부독일 독점자본의 침투도 강화되고있다.

경제의 기본을 이루는 농업부문에서 로동인구의 약 40%가 일한다. 부침땅은 약45만헥타인데 그중에서 씨붙임땅은 27만 5천헥타정도이고 17만 5천헥타는 묵이고있다. 부침땅의 3분의 1은 대토지소유자나 교회의 소유이고 85%의 농민은 토지가 없거나 적다. 농사에 쓸 물이 부족하여 자연에 많이 의존하고있다. 독립후 관개사업이 진척되였으나 아직 16~20%의 땅밖에 물을 대지 못하고있다. 최근년간 해마다 계속되는 가물로 하여 알곡은 90%, 과일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끼쁘로스당국은 관개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중해밑바닥을 통할 끼쁘로스와 수리아간의 수도관건설을 위한 두 나라간의 회담을 추진시키고있다.

제3차5개년계획 (1972~1976년)기간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약 1천 400만끼쁘로스파운드를 배당하였다. 이것은 2차5개년계획 때보다 600만끼쁘로스파운드나 더 많은것이다.

알곡씨붙임땅은 약 14만헥타이며 메사오리아평원은 주요알곡산지이다. 해마다 5만~10만t의 밀, 5만~13만t의 보리, 17만t의 감자가 생산된다.

공예작물로서는 약간의 목화와 담배가 난다. 농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포도와 감귤류이다. 약 4만헥

터의 포도원과 거의 1만헥터의 감귤류 재배지가 있다. 100여종에 달하는 포도나무중에는 이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희귀한것도 있다. 년간 18만여t의 포도와 감귤류를 각각 생산한다. 그밖에 약 250여만그루의 올리브나무에서 2만 5천t이상의 올리브를 수확한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한다. 주로 양과 염소를 방목하고 소와 돼지도 기른다.

독립후 약 100개의 중소규모공업기업소들이 일떠섰다.

공업부문에서 앞선 부문은 가공공업 특히 식료, 방직, 금속가공, 목재가공 세멘트, 가죽 공업이다. 그중 중요한 것은 세멘트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건재생산인데 이 부문에는 영국자본이 깊이 침투하였다.

금속가공공업은 철제품을 만드는 수개의 소규모기업소들과 기계수리소가 있을뿐이다.

동력자원이 거의 없기때문에 발전소들은 수입연료에 의존한다. 공업총생산액에서 약 20%의 몫을 차지하는 채취공업은 동, 쇠돌, 돌솜, 크롬 등 지하자원에 의거하나 그 채굴권은 미제(70%)와 영국, 서독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이 나라에서 채굴되는 광물성염료는 주요수출품이다.

철길은 없고 해상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항구는 리마솔, 파마구스타, 라르나카, 파포스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쇠돌, 동, 돌솜 등의 광물류와 포도, 포도주, 감귤류, 감자, 광물성염료이며 수입품은 밀, 사탕, 비료, 액체연료, 천, 자동차, 금속제품, 일용품 등이다. 대외무역은 주로 영국, 서독, 미국과 한다.

주민의 80%가 글을 읽고 쓸줄 알며 다른 중근동 나라들에 비하여 문화수준이 비교적 높다. 소학교는 780여개(8만 6천여명), 중학교는 90여개이며 고등교육기관은 없다. 교육분야에서 희랍계주민지구와 토이기계주민지구는 서로 다른 언어와 학제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의료봉사망도 확대되여 어린이사망률이 1972년에 1946년도 보다 3분의 1로 줄었다.

희랍계주민은 희랍정교를, 토이기계주민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하라브기(근로인민진보당기관지), 펠레페, 에트니키 (희랍계신문), 아킨, 끼쁘로스 메일(토이기계신문)

방송 끼쁘로스라지오및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2월에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같은해 10월 12일에 조선끼쁘로스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 하여야 한다》를 이 나라 신문 《하라브기》(1970년 3월)와 《싸로스》(1971년 7월)가 각각 실었다.

1972년 4월 우리 나라 사회과학자대회에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6월에 전끼쁘로스로동련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다녀갔다.

1973년 3월에 끼쁘로스근로인민진보당대표단, 4월에 농민동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4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5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끼쁘로스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말씀을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단장이 전달하였다. 마카리오스대통령은 석상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나라 정부의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조선의 통일과 관련하여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웰남정화협정의 리행을 위한 공동콤뮤니케

1973년 5월 17~6월 13일까지의 기간에 빠리에서 북부웰남과 미국측 대표간의 10여차에 걸치는 비밀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1973년 1월 27일 빠리에서 조인된 《웰남에서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협정》 조항들을 엄격히 리행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민주웰남,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미제와 사이공괴뢰도당의 4개측이 조인한 14개 항목으로 된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공동콤뮤니케는 협정 제2조에 따라 미제공중비적들의 민주웰남에 대한 공중정찰을 즉시 완전히 무조건 중지하며 공동콤뮤니케가 조인된 날부터 5일이내에 기뢰해제작업을 재개하여 30일이내에 이 작업을 끝낼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부웰남 두 당사측 최고사령부들이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정규군, 비정규군 및 무장경찰들에게 1973년 6월 15일부터 남부웰남전역에서 정화를 엄격히 준수하며 협정과 의정서들을 엄밀히 리행하게끔 명령하도록 조인측들이 합의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 의하면 협정조인측들은 또한 남부웰남 두 당사측이 남부웰남에서의 정화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와 제3조를 엄격히 리행할데 대하여, 2자공동군사위원회가 남부웰남 두 당사측의 통제지역들과 주둔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정의 제3조에 따르는 자기 임무를 즉시 리행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밖에 남부웰남 두 당사측이 군사기술인원들을 포함한 군대, 군사고문 및 군사인원들과 장비, 탄약 및 전쟁물자를 남부웰남에 끌어들이지 말며 포로된 인원으로서 아직 송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체없이 공동콤뮤니케의 조인날자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시일내에 송환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공동콤뮤니케는 이밖에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리행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합의를 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아 프 리 카

정 세 개 관

1973년에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위대한 변혁이 일어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거대한 사상조류로 되여 아프리카대륙에 차고넘쳤으며 이 대륙인민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신뢰와 열화같은 흠모의 정은 이 대륙 인민들의 심장속에 더욱 뜨겁게 고동쳤으며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기 위한 열의는 비상히 높아졌다.

이해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 그이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수록한 회상실기들이 앞을 다투어 수많이 번역출판되였으며 신문, 잡지들에 널리 소개선전되였다. 탄자니아의 《민족출판사》, 기네의 《빠뜨리스 루뭄바출판사》, 시에라 레온의 《메일출판사》를 비롯한 여러 출판사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인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등 여러 로작들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존함을 모신 소말리아의 《김일성도서관》과 나이제리아의 《김일성서점》, 모리셔스의 《김일성동지도서관》들에서는 이해에도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을 수많이 보급선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흠모하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려는 열의가 얼마나 높아지고있는가 하는것은 11월 모가디쇼에서 진행된 《중근동및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토론회에는 소말리아, 시에라 레온, 모리따니, 우간다 등 여러 나라 정부대표단들을 비롯하여 다오메, 콩고, 탄자니아, 말리, 또고 등 여러 나라들에서 온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대표들과 투쟁단체대표들, 저명한 정치활동가들과 사회활동가들이 모여 주체사상연구에서 얻은 경험과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된 고귀한 성과와 경험들을 나누고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시에라 레온 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은 시에라 레온 인민들은 가장 위대한 기적의 창조자이신 김일성원수님을 조선뿐만아니라 전세계에 광휘로운 빛발을 뿌리시는 태양으로,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자로, 위대한 스승으로, 문필가로, 백전백승의 군사전략가로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다고 하면서 시에라 레온에서는 1972년12월《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주체사상토론회》가 있은후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들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였다고 하였다. 다오메공화국정부대표단 단장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탁월한 투사이시라고 하면서 수많은 진보적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오메에서도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며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사업에 구현하려는 지향이 이 대륙인민들의 생활적요구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해 아프리카대륙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6월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연설이 나오자 아프리카의 수많은 통신, 방송, 신문들이 앞을 다투어 조국통일5대강령을 보도했으며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각계 인사들이 수령님께 련대성전문을 보내여왔다.

9월 알제리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에 참가한 아프리카국가수반들과 대표들은 한결같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에 찬동하였다. 회의에서 연설한 기네총리는 수령님께서 1973년 6월 23일에 제시하신 현명하고 결단성있는 제안들에 지지를 표시해야 할 도덕적의무를 지니고있다고 하였으며 소말리아최고혁명리사회위원장은 《… 우리는 조선인민이 자결권에 기초하여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수 있도록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즉시 철거시킬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유엔사무총장에게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통일을 촉진시킬것을 호소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 후아리 부메디엔은 유엔총회에서의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들에게 수뇌자회의 결의에서 표명된 정신에 따라 조선에 관한 문제의 평화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냈다.

유엔총회 28차회의에서는 부룬디, 콩고, 기네, 말리, 모리따니, 소말리아, 시에라 레온, 수단, 탄자니아, 잠비아, 적도기네, 애급, 또고, 자이르가 조선문제토의에 관한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거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 새로 국가관계를 맺었다. 다오메, 감비아, 모리셔스, 또고, 리베리아가 우리 나라와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우리 나라와의 친선협조관계는 대표단들과 각계 인사들의 래왕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이 해에 콩고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 애급부대통령 엘 샤페이, 감비아부대통령겸외교부장 에이. 디. 카마라, 모리따니대통령부인 마리엠 다다흐를 비롯한 각급 대표단들이 수많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와의 친선협조관계와 련대성을 더욱 두터이 하였다.

1973년에 아프리카인민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낡은제도를 짓부시고 새생활을 창조하는 위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

주의나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신생 독립국가들도 다른 나라의 간섭과 구속을 반대하고있으며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281페지)

반제자주, 번영하는 아프리카, 바로 이 공통된 리념의 실현을 위해 아프리카나라들은 1973년에도 자기들의 투쟁의 예봉을 아프리카인민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자유와 독립의 교란자인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돌렸다.

이 투쟁에서 아프리카인민들사이의 련대성과 통일이 더욱 강화되였다.

10월 6일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일으켰을 때 온 아프리카가 침략자를 단죄하고 아랍인민의 편에 서서 정의의 성전에 떨쳐나섰다. 전쟁이 일어나자 알제리, 마로끄, 수단, 뜌니지, 우간다 등 나라 군대들이 중동전쟁에 참전하여 아랍인민과 함께 싸웠으며 소말리아, 부룬디, 모리따니 등 거의 모든 아프리카나라들이 싸우는 애급과 수리아 및 팔레스티나인민들에게 물질 정신적지원을 남김없이 보냈다.

또한 아랍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여 탄자니아, 잠비아, 시에라 레온, 까메룬, 루안다, 다오메 등 20개 아프리카나라들이 유태복고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알제리, 리비아 등 나라들은 아랍나라들의 《석유전쟁》에 합류함으로써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을 수습할수 없는 사회경제적혼란과 헤여날수 없는 심한 정치적위기에 빠뜨렸다.

아프리카인민들은 단합하여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렸다. 1월 남로데시아백인인종주의자들이 남부아프리카지역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압살할 목적으로 잠비아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전쟁위험을 조성하였을 때 아프리카나라들은 일치하게 이를 규탄하였다. 1월 9일 잠비아대통령 카운다는 잠비아는 아프리카해방운동을 지지한다는것을 재천명하였으며 탄자니아, 말라위, 에티오피아, 우간다, 가나, 자이르 등 전반적아프리카나라들이 로데시아백인인종주의정권을 규탄하고 잠비아에 동수출로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형태의 원조를 아낌없이 주었다. 잠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은 국경을 폐쇄한지 일주일만에 다시 국경을 열어놓는다고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프리카의 영련방성원국들은 8월에 있은 영련방수뇌자회의에서 로데시아인종주의정권에 대한 통상과 자본투자를 확대하고 모잠비끄, 앙골라 및 기네—비싸우를 강점하고있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에 대한 경제 및 군사적 원조를 강화함으로써 아프리카에 제놈들의 식민주의적 리권을 계속 유지하고있는 영제국주의자들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이해 아프리카인민들의 반제투쟁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미제의 내정간섭과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놈들과 정면으로 맞서 미제의 낯짝을 되게 후려갈긴것이다. 우간다에서는 5월에 미중앙정보국의 일부성원들을 추방하였으며 11월에는 캄팔라주재 미국대사관을 폐쇄하였다. 또한 루안다로 가는 미제 《평화군》100여명이 우간다비행장에 내렸을 때 48시간이나 붙잡아놓고 루안다내정에 절대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 전원을 자이르로 보냈다. 또한 미제가 우간다에 대한 《원조》를 중지하자 《경제적독립전쟁》을 선포하고 미제에게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의 반제자주적립장은 아프리카대륙에서 제국주의의 마지막 지탱점이며 생명선인 식민지를 영원히 청산하고 온 아프리카땅을 해방하려는 확고한 결의와 립장에서도 똑똑히 나타났다.

1973년에 진행된 제10차 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와 아프리카통일기구해방위원회 회의, 아프리카통일기구성원국외교부장들의 비상회의와 동부 및 중부아프리카친선국가외교부장회의들은 《무장투쟁만이 아프리카완전해방의 유일한 길》임을 재확인함으로써 이 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영영 매장해버리려는 인민들의 불타는 지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해 아프리카인민들은 자력갱생과 자립의 기치밑에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리비아, 우간다, 잠비아, 자이르 등 많은 나라들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리권을 박탈하고 경제적독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리비아정부는 미국석유회사 《뻥커 한트 오일 캄파니》와 《오일 피틀오꾸시덴틀 캄파니 오브 리비아》등을 국유화하였으며 9월 1일 혁명 4주년에 즈음하여서는 리비아에서 조업하는 모든 외국석유기업의 51%국유화를 완료하였다. 2월에 자이르는 국내에서 가장 큰 전기회사인 《콜렉트리크》를 국유화하였다. 또한 자주권을 수호하며 바다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네, 말가슈, 가나 등 나라들은 령해를 12마일로부터 30마일이상으로 넓혔다.

민족문화분야에서도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케니아, 챠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식민지통치시기에 부르던 거리와 도시의 이름을 모두 아프리카식으로 고쳤다. 소말리아에서는 1월 23일부터 이 나라에서 발간되는 모든 일간 및 주간신문들을 소말리아글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알제리, 소말리아, 꽁고, 탄자니아 등 많은 나라들은 《사회주의는 나라의 사회경제적진보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선택한 길, 사회주의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고 있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알제리에서 토지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농촌에서 봉건적착취관계가 청산되고 사회적평등과 번영이 이룩되고있다.

민족적해방을 이룩하며 식민주의와 인종주의 탄압을 반대하는 이 대륙인민들의 무장투쟁은 더욱 거세찼다. 기네—비싸우, 앙골라, 모잠비끄, 짐바브웨, 아자니아, 나미비아 인민들은 손에 무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자비하게 족쳤다.

이 거세찬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9월 12일 기네—비싸우공화국이 선포되였다. 새로 창건된 기네—비싸우공화국은 세계 80여개나라들의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는 아프리카통일기구의 정식성원으로 가입하였다.

아프리카인민들은 세계무대에서도 당당한 자주권을 행사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이 국제회의들과 국제기구들에서 울리는 정의의 목소리는 국제문제의 공정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오늘에 와서 아프리카나라들의 의사를 제쳐놓고는 그 어떤 국제문제도 옳게 해결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형태의 예속과 종속, 모든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여 투쟁할것을 결의해나선 아프리카인민들의 강력한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어제날의 《암흑의 대륙》—아프리카는 자주, 자립의 기치밑에 투쟁과 혁명의 대륙, 창조와 건설의 대륙으로 전변되였다.

애 급

(애급아랍공화국)

넓이 100만 1,449Km²
인구 3,500만명 (1972년 9월)
주민의 90%이상이 아랍족이며 소수의 베드윈족, 베르베르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까히라 (주민 500만명, 1971년 11월)

정 치

인민회의 일원제, 의원수 350만명, 현 인민회의는 1971년 11월에 선거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국회의 해산권과 부대통령, 총리 임명권을 가진다. 6년임기로 선거된다. 안워르 앗 사다르 (1970년 10월—)
정부 1973년 3월 구성 대통령이 총리 겸함, 외교부장 파흐미
정당, 사회단체; 아랍사회주의동맹 1962년 6월 인민력량전국대회의 결정에 따라 1957년 11월에 조직된 민족련맹이 발전적으로 해산되고 1963년에 창건되였다. 광범한 민족전선의 역할을 하는 대중적정치조직이다. 위원장 안워르 앗 사다르. **로동련맹, 사회주의청년조직, 애급조선친선협회** 1969년 2월 결성

1952년 7월 23일 나쎄르를 위수로 한 《자유장교조직》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파르크왕조를 전복하고 1953년 6월 18일 애급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혁명후 애급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1956년 7월 26일 애급정부는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이 통제장악하고있던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할데 대한 력사적인 법령을 발포하고 이를 반대하여 애급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침략군을 물리쳤다.

1964년 3월에는 민족의회선거를 진행하고 림시헌법을 채택하였다. 림시헌법에서는 애급은 《근로인민력량의 동맹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사회주의국가》라고 규정하고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1967년 6월 5일부터 9일까지 애급인민은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촉밑에 애급인민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애급령토인 시나이반도를 강점하였다.

정화후 애급인민들은 강점된 아랍땅을 해방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1969년 1월 30일 전국방위리사회를 창설하였으며 1970년 2월에는 최고민간방위리사회를 결성하였다.

1973년 4월 22일 인민회의에서는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들에서 군사교육을 진행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971년 4월 17일 리비아, 수리아와 함께 아랍공화국련방을 형성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4월 29일 나라 이름을 애급아랍공화국으로 고쳤다. 1972년 5월 애급아랍사회주의동맹은 리비아아랍사회주의동맹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비니가지에서 사다트대통령과 가다피의장이 회담하고 1973년 9월 1일까지 두 나라의 완전통합을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1973년 6월과 8월 사다트대통령과 가다피의장이 통합문제를 토의하였으며 8월 7일에는 두 나라의 통합에 관한 선언문 초안에 합의하였다. 8월 29일에는 까히라에서 9월 1일부터 련방국가창설을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13개조항으로 된 련방국가 창설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면 9월 1일까지 100명(량측에서 각각 50명씩)으로 구성되는 립법회의를 조직하며 련방국가헌법과 대통령선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통합정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형성된 100명의 립법회의는 전쟁의 발발로 회합을 정지하였다.

1973년 10월 6일 애급정부와 인민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자 나라를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일떠섰다. 1967년 6월의 중동전쟁을 통하여 애급의 시나이반도를 포함한 6만km²의 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빼앗긴 땅을 평화적방법으로 되찾으려는 아랍인민의 노력에 무력으로 맞섰으며 끝내 제4차중동전쟁을 일으켰다.

이스라엘침략군의 불의의 무력침공에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간 애급군은 전쟁이 일어난지 이틀후인 8일 오전에 벌써 100여키로메터에 달하는 수에즈운하 동쪽 넓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9일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철벽의 방선》으로 호언장담하던 《바르레브선》을 돌파하였다.

싸우는 애급인민을 도와 이라크, 알제리, 뜌니지, 쿠웨이트 군대들이 시나이전선에서 함께 싸웠다.

10월 22일 제4차중동전쟁은 정화하였으며 애급은 이날 정화를 수락하였다.

11월 11일 애급과 이스라엘간에는 정전협정이 조인되였다.

1974년 1월 18일에는 애급—이스라엘군대격리협정이 체결되였다. 협정에 의하면 애급군은 수에즈운하동쪽에 남아있으나 대폭 감소되며 이스라엘군은 수에즈운하동쪽으로 33~38km 철수하고 그 사이에는 유엔비상군을 주둔시키며 협정조인후 7일내에 분리를 시작하여 40일안으로 끝내기로 되였다.

애급은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며 아프리카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3년 8월 26일 아랍사회주의동맹 중앙위원회는 《나미비아의 날》에 즈음하여 나미비아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3년에 가봉(4월), 보쯔와나(11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5월에는 방글라 데슈를 승인하였다.

사다트대통령이 리비아(1월,4월, 6월), 유고(1월), 수리아(6월),사우디 아라비아(8월) 등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약 60%가 농사한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30%, 수출총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몫은 62%에 달한다.

부침땅은 약 300만헥터에 달한다.

농산물에서 기본은 목화이며 농민의 약 70%가 목화농사를 하고있다. 그밖에 벼, 강냉이, 땅콩, 밀,옥파 등을 심는다. 1972~1973 농업년도에만도 52만t의 목화를 생산하였다.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1961년부터 종합적인 계획화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이미 두차례의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으며 1973년부터는 농업발전 10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섰다.

정부는 농촌개건을 위하여 1972년 한해동안에만도 100만애급파운드를 돌렸다.

특히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사막이 많고 부침땅이 제한되여있는 조건에서 사막을 수리화하는 대자연개조사업과 관개공사에 힘을 넣었다. 1971년에 아스완뗌 (길이 3천 600m, 높이 111m, 저수능력1, 640억m^3) 이 완공됨으로써 120만페단의 새 땅을 얻었다.

농촌전기화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1971년부터 1973년 7월까지 1천여개 마을에 전기가 들어갔다.

공업에서 중심은 면방직공업 (공업총생산액의 30%차지) 과 식료가공공업 (공업총생산액의 28%차지) 이다.

혁명후 공업화계획에 따라 10억애급파운드의 자금을 투자하여 석유가공공장, 대규모의 화학비료공장을 비롯하여 80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이리하여 헬루안, 슈브라헤이마, 아스완 등 전국도처에 공업지구들이 생겨났다.

국민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24%이상에 달한다.

1972년현재 공업부문에서 일하는 100만명중 50만명이상이 국영공업부문에서 일하고있으며 공업의 85%이상이 국가수중에 장악되여있다.

1971—1972회계년도의 공업총생산액은 22억 7천 130만애급파운드였다. 그중에서 국영공업부문 회사들이 차지하는 생산액은 16억 9천 680만애급파운드였다.

1952년부터 1972년말까지 사이에 공업생산은 8배로 늘어났으며 공업제품생산액은 1952년에 비하여 1971~1972회계년도에 약 22억파운드 늘어났다. 또한 전력생산은 18배로 늘어났다.

1973년부터 10개년발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 전망계획의 첫 5년동안에는 공업부문에 10억애급파운드를 투자하게 된다. 이 기간에 국가는 공업의 기초를 확장하는 사업과 함께 소비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기업소들을 건설하게 된다. 1973년에는 1억 6천 500만애급파운드를 투자하는데 그중 5천만애급파운드는 이 나라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헬루안야금종합공장의 확장, 새로운 원유매장지탐사, 수에즈—지중해송유관 건설에 돌려진다.

1973년 8월 딴따시에 매일 2천t에 달하는 각종원유제품을 생산할수있는 원유정제공장이 새로 조업하였으며 12월에는 헬루안야금종합공장 제3호용광로가 일을 시작하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운수업은 완전히 국유화되였다. 철길은 총 7천200km이며 자동차길은 2만 1천 600km이상에 달한다. 수에즈운하는 국제적인 배길인 동시에 애급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

수출총액에서 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몫은 약 50%정도 (1972년현재) 이며 목화를 비롯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공업제품의 수출에서 55%는 실과 천이며 농산물수출에서 70%는 목화이다. 수입품은 기계류, 화학제품, 금속 등이다.

혁명후 교육사업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1973년현재 대학생수만도 5배로 늘어나 3만여명에 달하고있다.

6개의 종합대학과 33개의 단과대학, 30개의 전문학교가 있다.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도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액만도 1952년의 400만애급파운드로부터 1973년에는 4천 800만애급파운드로 늘어났다.

보건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1952년에는 90개의 병원에 100대의 침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1970년에는 179개의 병원과 1만 7천 61대의 침대를 가지게 되였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멘통신

신문 알 굼후리아 (정부기관지), 알 아흐람, 알 아흐바르, 알메싸, 에집션 가제트, 쥬르날 에집트, 알 칼라즈, 아흐바르, 알욤

방송 애급방송, 중동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8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57년 12월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72년 9월에는 문화 및 보건협정을 각각 맺었다.

애급정부와 인민은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아랍사회주의동맹 중앙위원회는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알렉싼드리아에 있는 알호리아문화궁전에서는 우리 나라문화주간을 설정하였다.

또한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조선문제에 관한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1967년 5월 상원의장 사다트(현대통령)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9월 28~10월 8일까지 평양예술단이 애급을 방문하였다.

1973년에 군사대표단 (4월), 인민회의대표단 (6월), 정부대표단 (9월) 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월에는 우리 나라 국제무역촉진위원회대표단이 아세아 아프리카경제협조기구 제12차리사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애급을 방문하였다.

리 비 아

(리비아아랍공화국)

넓이 175만 9, 540km^2
인구 201만 (1971년 12월)

주민의 90%가 아랍사람이다. 그밖에 흑인, 이딸리아 사람, 희랍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타라불스 (겨울수도, 주민 33만 2, 000명), 비니가지 (여름수도, 주민 28만명)

정 치

혁명지도리사회 1969년 9월에 조직된 최고주권기관, 의장 모아메르 엘 가다피 (1969년—)

정부 1972년 7월 16일 구성, 총리 아브둘 살람 잘루드, 외교부장 만수르 라쉬드 알 키키아

정당, 사회단체; 리비아아랍사회주의동맹 1972년 3월에 조직된 유일한 대중적인 정치조직, 18살이상의 공민으로서 정치적권리를 잃지 않은 모든 성원들이 거의 망라되여있다. 공식적인 사회단체는 없다.

1969년 9월 1일 이드리스 1세봉건왕조를 뒤집어 엎고 리비아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후 리비아인민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를 철폐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1970년 3월 영침략군을 몽땅 몰아냈으며 6월 11일에는 16년동안 이 나라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제의 윌러스공군기지를 철폐하고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몰아냈다.

1970년 8월에는 국유화법령을 발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리권을 박탈하였으며 영국파운드지역에서 탈퇴하였다.

1972년 1월에는 이전 봉건왕조가 영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예속적인 《우호동맹조약》과 《군사 및 재정협정》을, 2월에는 미제와 맺었던 군사기지, 군사원조, 경제원조, 기술협조 등에 관한 협정을 공식적으로 페기함으로써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반을 완전히 청산하였다.

1973년 6월 11일 미국석유회사《벵커 한트 오일 캄파니》와 8월 11일에는 《오일 피름 오쿠시덴틀 캄파니 오브 리비아》등을 국유화하였으며 9월 1일 혁명 4주년에 즈음하여 리비아에서 조업하는 모든 외국석유기업의 51%국유화를 완료하였다.

1973년 6월 11일 가다피의장은 윌러스공군기지로부터 미제침략군을 내쫓은 세돐이 되는 날에 있은 군중집회에서 《우리들이 팽창하고 오만한 미국의 낯짝을 강하게 후려갈길 때는 왔다.바로 지금이야말로 아랍인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미국의 리권에 손상을 주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들을 취할 때이다》라고 하면서 미제국주의전체와 진짜로 대결할 때는 왔다고 하였다.

1973년 2월 21일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리비아려객기 《보잉 727》을 쏴떨구어 106명의 사망자를 내게 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2월 23일 수천명의 리비아인들이 미국대사관을 습격하여 미국국기를 불살라버렸다.

아랍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들에서도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알제리 부메디엔의장은 가다피에게 보낸 조문에서 유태복고주의 원쑤들이 팽창주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약육강식의 법률을 적용하여 무서운 대량학살을 감행하였다고 규탄하였으며 수단의 니메리대통령은 《이것은 비인간적인 만행이며 온 세계가 규탄하여야 할 범죄행위이다》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2월 28일 국제민용항공기구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할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05, 반대 1 (이스라엘) 로 채택하였다.

1973년 4월 15일 혁명지도리사회 의장 가다피는 현행 법률을 정지하는 5개 항목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모든 기존법률을 정지하며 정치적으로 병든자들을 숙청하고 혁명적인민대중에게 무기를 내주어 무장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각지에이 사업을 맡아보는 인민위원회들이 조직되였다.

1971년 4월 17일 애급, 수리아와 함께 련방을 형성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9월 11일 련방창설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아랍공화국련방성원국으로 되였다.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비니가지에서 사다트대통령과 가다피의장이 1973년 9월 1일까지 두 나라의 완전통합을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1973년 6월과 8월 가다피의장과 사다트대통령이 통합문제를 토의하였다. 가다피의장은 전면적인 통합을 희망하였으며 애급은 단계별통합을 주장하였다.

7월 17일 수천명의 리비아인들이 리비아—애급통합을 주장하여 까히라에로의 2천 500키로메터의 장거리행진을 벌리고 21일에는 사다트대통령에게 《피로 씌여진 즉시통합 호소문》을 제출하였다.

8월 7일 두 나라간에 통합에 관한 선언문초안에 합의하였으며 8월 29일에는 련방국가창설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면 9월 1일까지 100명(량측에서 각각 50명씩) 으로 구성되는 립법회의를 조직하며 련방국가헌법과 대통령선거를 진행하기로 되였다. 그러나 새 헌법은 준비되지 않았으며 국민투표도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통합정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형성된 립법회의는 전쟁의 발발로 회합을 정지하였다.

12월 2일 리비아는 까히라주재 리비아외교대표단을 소환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랍나라들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3년 2월 리비아령공에 대한 뽀르뚜갈의 항로를 페쇄하였으며 로데시아와 남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들도 봉쇄하였다.

1973년 10월에는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전쟁행위를 적극 부추기면서 놈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있는 미제와 화란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중지하였다.

1973년에 꾸바 (3월), 민주독일 (6월), 다오메 (4월), 콩고(4월), 말레이시아 (11월) 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공업이다. 국민총생산액에서 83%를 차지한다. 원유매장량은 약 14억 1천만t으로 추산되고있다.

혁명승리후 리비아정부는 원유공업발전을 위하여 이 나라 석유채취량의 90%를 독점하고있던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석유회사와 원유가공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1971년에는석유와 천연가스자원에 대한 제국주의독점체들의 략탈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포하고 국영회사를 창설하였다. 또한 이미 있는 유정들에서의 원유생산량을 늘이며 새로운 원유산지들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따라세우고있다. 원유생산량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는데 1961년부터 1970년 기간에만도 70만t으로부터 1억 7천만t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원유공업외에 중소규모의 식료가공 공장들이 있으며 세멘트공장을 비롯한 공장들이 건설되고있다.

정부는 농업발전을 선차적인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 있다. 2차 5개년계획(1970—1974년) 기간에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난 계획기간의 3배로 늘이고 토지개간사업, 물문제해결에 힘을 넣고있다. 또한 농민들에게 국가장려금을 대주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땅콩, 올리브, 야자, 포도 등이다.

주민의 약 40%가 축산업을 한다. 주요집짐승은 락타, 염소, 양 등이다. 먹이와 물 부족으로 곤난을 겪고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철길은 비니가지지역에 약간 있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수출총액의 98%), 땅콩, 올리브기름, 과실, 집짐승,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천, 건재, 운수수단 등이다.

교육분야에서 식민주의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영국말을 페지하고 아랍말을 쓰고있다.

1973년 비니가지에 현대적설비

를 갖춘 새 병원이 건설되였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랍혁명통신

신문 알사우라(정부기관지), 알 호르리예, 알 뜨라, 알 욤, 알 발라그, 트리풀리 미러, 알 무싸와르, 알 나하르

방송 리비아라지오및텔레비죤 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2월 26일 우리 나라와 무역대표부를 호상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74년 1월 29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등 여러 로작들을 《알 호르리예》를 비롯한 이 나라 신문들이 광범히 실었다.

1973년 28차유엔총회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1년 5월 리비아기자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수 단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넓이 250만 5,813km²

인구 1,630만 5,000명(1972년)

주민은 아랍사람, 누비아사람, 아프리카흑인 등 500여종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하르툼(주민 25만 5,740명)

정 치

인민회의 1972년 10월 총선거를 통하여 조직된 최고립법기관, 의원수 207명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1971년 10월 12일—), 임기 6년

정부 1973년 5월 10일 구성, 총리겸국방부장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외교부장 할레드 만수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6년에 창건, 1971년 7월에 비법화, 수단사회주의동맹 1972년 1월 10일 창건된 유일한 정치조직, 《사회주의수단》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수단조선친선협회 1970년 3월 16일 결성

1969년 5월 25일 수단군장교들이 친서방적인 아즈하리—마흐쥬브정부를 뒤집어엎고 니메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명지도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5월 혁명후 수단정부는 《수단식사회주의》를 제기하면서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국내반동들의 파괴음모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5월혁명승리 다섯돐에 즈음하여 수단대통령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승리후 지난 다섯해동안 용감하고 근면한 수단인민은 당신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악독한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화목과 통일을 이룩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수단정부는 1969년 5월부터 1970년 3월까지만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6차례의 정부전복음모와 무장반란을 분쇄하였다.

1969년 6월에는 남부수단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민족적통일을 이룩하였다.

1972년 1월에는 유일한 정치조직인 수단사회주의동맹을 창건하였다.

1973년 4월 11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5월 10일 니메리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6월 29일에는 사회주의동맹이외의 모든 정당을 금지하는 새 법령을 발포하였다.

8월말에 하르툼대학과 고등학교 학생 3천여명의 반정부시위가 있었으며 이에 합세하여 9월 5일 수단철도 및 강하천운수로조를 비롯한 일련의 로조들이 파업하였다. 정부는 9월 5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하르툼종합대학과 기타 교육기관들을 페쇄하고 3인회합을 금지시켰다.

1973년 3월 1일 팔레스티나유격대들이 수단주재 사우디 아라비아대사관을 포위점령하고 미국대사놈을 비롯한 5명의 외교관을 인질로 요르단당국에 체포된 팔레스티나유격대 지도자 아부 다리드의 석방 등 5개항목의 요구조건을 내놓았다. 미제와 요르단반동들이 이 요구를 거절하자 인질 다섯놈 중 미국대사, 대리대사와 벨지끄대사를 죽이고 요르단대리대사와 사우디 아라비아대사를 석방하고 팔레스티나유격대원 8명은 수단정부에 투항하였다.

1973년 3월 외교부는 남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의 인종차별정책을 강력히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수단정부는 4천200명의 군대와 의료단을 애급과 수리아에 각각 파견하였다.

1973년 9월 방글라데슈를 승인하였다.

1973년에 니메리대통령이 영국(3월), 로므니아(4월), 나이제리아(8월), 기네(9월), 사우디 아라비아(11월) 등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농업은 이 나라 총생산액의 약 80%, 총수출액의 95%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와 아라비아고무이며 그외 땅콩, 수수, 사탕수수, 참깨, 강냉이, 밀, 보리, 조, 콩 등이다. 목화는 섬유가 길고 부드럽고 윤택이 나는것이 특징이며 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2위이다. 목화밭은 전체 부침땅의 40%를 차지하며 농업인구의 85%가 목화재배에 종사한다. 목화는 외화수입의 70%, 국가재정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1972년에 게지라목화산지에서만도 41만 8천t을 생산하였다. 아라비아고무는 수단의 특산물로서 세계총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세계시장에 들어가는 고무풀의 약 90%가 수단에서 생산된다.

혁명승리후 수단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의 통치밑에서 목화하나에만 의존하던 단작경리의 식민지적후과를 가시고 농촌경리를 다각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특히 정부는 수리화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게지라지구에 대규모의 관개체계를 만들었으며 나일강의 물을 끌어올려 9만페단의 메마른 땅에 생명수가 흘러들게 하였다. 또한 묵은 땅을 개간하며 부침땅을 확장하여 밀, 강냉이, 수수 등 여러가지 작물을 재배하고있다.

이 나라는 아랍나라들 중 축산업이

제일 발전하였다. 평토의 약 10분의 1에 달하는 25만km²의 넓은 방목지를 가지고있다. 약 4천만마리의 집짐승이 있다.

혁명승리후 경제의 《수단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였다.

나일강의 수많은 폭포들을 리용하여 많은 수력발전소를 일떠세웠으며 원유가공공장과 야금공장을 건설하였다. 또한 대추, 야자, 망고, 바나나, 종려 등 열매를 가공하는 70여개의 식료가공공장들이 운영되고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2%에 달한다.

세멘트생산량은 1973년에 1969년(7만 9천 600t)에 비하여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

목화를 원료로 하는 방직공업이 빨리 발전하고있으며 년 1억m의 면직물을 생산하고있다.

1973년에 사탕생산량은 1972년에 비하여 24%나 더 많은 11만 3천 500t이였다.

혁명승리후 《교육의 민주화》와 《모든 공민들에게 교육의 권리 부여》라는 구호를 들고 문맹퇴치운동을 적극 벌렸다.

그리하여 혁명후에 늘어난 학교수만 하여도 소학교는 1천개, 중고등학교는 180개에 달한다. 또한 기계공학기술학교, 농업기술학교, 공학건축기술학교 등 고등학교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보건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1973년에 병원수는 1969년의 77개로부터 122개로 늘어났다.

특히 1973년에 해마다 수천명을 헤아리던 천연두환자가 거의 없어지게 되였다.

북부와 중부에는 회교도가 많고 남부에서는 원시종교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수단통신, 하르툼통신

신문 알 싸하파 (정부기관지), 알 아얌, 알 라이 알암, 앗 수단 알 쟈디드, 모닝 뉴스, 알 아호바르

방송 수단방송, 수단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23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맺었으며 6월 21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4월 13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수단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활동 및 로작연구소조》등을 비롯한 연구소조들을 뭇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연구학습하고있다.

이 나라의 정부기관지 《알 싸하파》를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을 광범히 싣고있다.

1973년에만도 신문《알 싸하파》, 《나일 미러》, 《수단 스탠다드》등 여러 신문들이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등을 실었다.

수단에서는 매해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기념일에 즈음하여 《수단조선친선주간》을 설정하고 기념행사들을 진행하고있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서는 전국 각지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들을 가졌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조선문제에 관한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1970년 8월 니메리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에 수단정부친선대표단(5월), 외교부 유엔 및 국제기구국장(5월), 남자롱구선수단 (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5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수단을 방문하였다.

1973년 5월 24일 니메리대통령은 수단혁명승리 네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을 만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은 매우 전투적인 분이시다.

그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인민의 수령이시며 모든 정력을 다바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분이시다.

그이는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며 세계혁명과 인류의 해방을 위하여 특출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뜌 니 지

(뜌니지공화국)

넓이 16만 4,150km²

인구 540만명(1973년 9월)

주민의 90%이상이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다.

국어는 아랍말

수도 뜌니스(주민 70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 101명, 임기 5년

공화국리사회 최고심의기관으로서 집권당인 데스뜨르사회당 정치국위원들과 정부성원들로 구성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1969년 11월 3선, 임기 5년)

정부 1974년 1월 14일 개조, 총리 헤디 누이라, 외교부장 하비브 샤띠, 국방부장 모하메드 헤디 케파챠가

정당,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34년에 독자적인 정당으로 창건, 1963년 1월에 비법화, 총비서 모함메드 엔다리, 데스뜨르사회당(집권당) 1934년에 창건, 민족부르죠아지, 지주들의 리익을 대표, 근로자총련맹, 농민련맹, 청년동맹, 녀성련맹

1956년 3월 20일 프랑스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고 1957년 7월 25일 봉건군주제도를 철폐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민족군대를 창건하고 식민주의적행정기구들을 개편하고 사법제도를 개혁하였다.

1963년 10월 프랑스침략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1964년 5월에는 외국인소유의 토지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2년에 석유채취 및 가공공업을 지도하며 이 부문에 요구되는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맡아보는 새로운 국영석유회사를 창설하였다.

대외적으로는《쁠럭불가담》과 《중립》을 표방하고있다.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일으키자 싸우는 애급, 수리아 인민을 지원하여 애급전선에 지원병을 파견하였다.

1973년 12월 16일 부르기바는 이스라엘이 1947년국경으로 돌아간다면 아랍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승인할 용의를 가지고있다고 언명하였다.

1973년 9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으며 10월에는 요르단과의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75%가 농사를 한다. 농사할수 있는 땅은 900만헥터에 달한다.

주요농산물은 올리브, 밀, 보리, 포도, 알파초(아프리카의 갈) 등인데 올리브생산이 기본이다.

1972년의 알곡총수확고는 100만t, 그중 보리는 20만t에 달하였다.

세계적으로 올리브기름생산국으로써 1972년에는 16만 7천톤의 올리브기름을 생산하였다.

농업생산을 높이며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농업협동조합운동을 벌렸다. 또한 관개공사, 저수지공사를 도처에 벌리고 황무지개간과 토지개량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목축업이 농업생산의 약 25%를 차지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60만마리), 양, 염소, 락타, 말, 노새 등이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굴공업이다. 린광석, 쇠돌, 아연, 연, 석유, 돌소금 등이 채굴된다. 린광석매장량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4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년평균린광석은 200만톤 이상, 석유는 300만톤이상, 쇠돌은 100만톤 정도 생산된다.

1972년 씨디 리따임지역에서 새로운 석유매장지가 발견되여 년 40만톤의 석유를 생산하고있다. 이리하여 이 나라의 석유채취량은 10% 더 늘어났다.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의 연장길이는 2천km이상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좁은 철길이다.

주요 수출품은 올리브기름, 린광석, 쇠돌, 연, 알파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사탕, 식료품, 운수수단, 화학제품, 기계 등이다.

교육발전을 위하여 매해 교육부문에 예산의 약30%를 돌리고있다.

교원양성에 많은 관심을 돌려 1969년에 초등교육의 튜니지화를 실현하였다. 1973년 현재 2천 229개의 소학교, 136개의 중학교, 5개의 학부를 가진 하나의 종합대학과 기타 7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인구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약 115만명이 교육을 받고있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튜니지아프리카통신

신문 아랄레아 (공산당기관지), 악씨옹, 알 아말(이상데스트르사회당기관지), 아스 샤바흐(청년동맹기관지), 쥬르날 오피시엘 튜니지엥, 알 사바흐, 라 쁘레쓰 더 튜니지

방송 튜니지방송, 튜니지텔레비존방송

알 제 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넓이 238만 1,741km²

인구 1,477만명 (1971년)

주민의 97%가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알제(주민 100만명)

정 치

혁명리사회 최고주권기관으로서 1965년 6월에 창설, 11명으로 구성되였으며 그중 7명이 군인이다. 의장 후아리 부메디엔

정부 1970년 7월 21일 개조, 23명으로 구성,내각총리 후아리 부메디엔(1965년 7월—, 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아브델 아지즈 부떼플리까

정당, 사회단체; 민족해방전선 집권당이며 유일당, 1954년 8월에 창건. 근로자총동맹, 민족해방전선청년단체, 전국녀성동맹, 농업근로자전국런맹

알제리인민은 1962년 7월 5일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인 무장투쟁으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9월 25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 후아리 부메디엔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알제리인민은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후아리 부메디엔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리사회의 옳바른 령도밑에 자주, 자립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가면서 공업혁명, 토지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으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독립후 알제리인민은 외래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고 공장기업소, 토지, 광산, 은행, 대외무역 등을 국유화하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를 막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적독립의 기초를 닦아놓았다.

1967—1969년사이에 나라의 공업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할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경제발전 3개년계획을 수행하였다.

1970년부터는 공업화의 결정적단계로 되는 경제발전 4개년계획(1970～1973년)을 작성하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이 기간인 1971년 2월 24일에 제국주의독점체들의 석유와 천연가스자원을 국유화할데 대한 결정, 이해 7월에는 대외무역을 국가가 독점할데 대한 결정 등 혁명적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알제리인민은 자체의 자원을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리용함으로써 경제적독립의 기초를 닦아놓았으며 공업혁명을 수행하였다.

국가는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며 농촌의 면모를 개변하기 위하여《토지혁명》을 제기하고《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땅을 나누어주었다. 1963년 10월에는 외국인소유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여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땅을 몰수하였다. 이리하여 자치제농장과 옛투사농장을 조직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국가적소유형태가 전국농업생산의 60%를 담당하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혁명리사회와 정부는 1971년 11월《토지혁명법안》을 선포하고 토지혁명2단계사업에 착수하였다. 2단계의 주요과업은 약 400만헥터의 개인소유토지와 약 100만헥터의 공유지를 국유화하여 협동조합을 조직하며 농촌에서 착취를 청산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1972년 6월 17일 첫 토지분배식이 있었으며 1973년 6월 17일에는 이날을《토지혁명의 날》

로 선포하였다. 이날 혁명리사회의장 부메디엔은《오늘 착취를 종식시킬때는 왔다. 바로 이것이 토지혁명의 최고 목적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전국토지혁명위원회》를 내오고 각도마다 각급 위원회들과 상무위원회들을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전국의 개인소유토지를 조사장악하는 한편 개인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원적으로 국가에 토지를《기증》하도록 하였으며《기증》된 토지를 국유화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실정과 토지의 규모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조합을 묶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도처에《표본농촌마을》을 건설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집단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새로 조직된 협동조합들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지금 농촌에서는 사회적평등과 번영을 가져다주며 자급자족을 담보하는《토지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다.

또한 문맹퇴치, 교육의 발전, 간부의 양성 그리고 민족어와 민족문화유산을 되살리기 위한《문화혁명》도 진행하였다.

1974년 1월부터 부분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으며 정부는 16세까지의 어린이들과 60세이상의 연금자들과 임신부들, 입원을 요하는 중환자들에게 무상치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반제반식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운동인 쁠럭불가담운동의 확대발전과 아랍인민의 존엄을 지키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이룩하며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적극적역할을 놀고있다.

1973년 9월 알제에서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1974년 1월 30일 부메디엔은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의 자격으로서 연료 및 원료문제를 포함한 국제경제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총회 특별회의를 소집할것을 제기하였다.

알제리는 1973년 10월 6일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혁명리사회 회의를 열고 정세를 토의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에급전선에 공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알제에서 제6차아랍국가수뇌자회의가 소집되였으며 회의에서 부메디엔의장은 10월중동전쟁중에 과시한 아랍인민의 단결을 유지함으로써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종지부를 찍어놓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1973년에 빠나마 (2월), 라오스 (5월), 까타르 (7월) 와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채취공업과 농업이다. 공업총생산액에서 채취공업이 3분의 2를 차지하며 그중 석유와 천연가스생산이 위주로 되고있다. 탐사된 석유매장량은 약 60억 9천 600만톤이다.

독립후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소탕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각종 회사들과 은행들, 외국인소유의 토지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를 막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하였다. 결과 1972년초 현재로 석유생산의 83%, 천연가스생산의 100%, 그 밖에 채취공업기업소들과 기계, 화학, 전력, 비료공업들을 비롯한 공업의 주요부문들이 모두 국유화되였다. 이리하여 이 나라 민족공업에서 국영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의 80%를 차지하게 되였다.

알제리정부는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두고 자체의 중공업을 건설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인민경제발전 4개년계획 (1970∼1973) 기간에 국가투자총액 (277억디나르) 의 45% (125억디나르) 를 공업건설에 돌렸으며 그중 86%를 중공업건설에 돌렸다. 특히 석유 및 가스 (36%), 금속 (15%), 기계 (11%) 공업부문에 많은 힘을 넣고있다. 그리하여 4개년계획기간에만도 25개의 공장들이 이미 건설되였거나 건설중에 있으며 공업제품생산량도 훨씬 늘어났다. 원유는 5천 200만t (1972년), 가스는 90억m^3 (1973년예견), 철광석은 35만t (1972년), 전력은 20억kW (1972년), 세멘트는 120만t (1972년), 강철은 48만t (1973년예견), 직물은 1억m 각각 생산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농업을 현대화하며 농산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토지혁명》수행에 힘을 넣고있다. 4개년계획기간에 총투자예산의 15%를 농촌경리발전에 돌렸으며 알곡수요의 80%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포도, 보리, 귀밀, 담배, 도마도, 남새 등이다. 1970-1973년기간에 년평균 200만t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토지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1973년 1월중순현재 2천 200여개의 각이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조직되였으며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표본농촌마을이 건설되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 (6만km) 과 철길 (4천 500km)은 주로 지중해기슭의 도시들을 련결하고있다. 사막지대에서는 락타와 말이 중요 운수수단으로 되여있다.

대외무역은 1971년 7월부터 국가무역기관을 통해 진행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석유, 포도주를 비롯하여 가스, 올리브, 쇠돌, 가축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석유제품, 기계, 사탕 등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의《민주화, 아랍화, 과학기술교육발전》, 교원대렬의《알제리화》방침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있다. 4개년계획기간에 총투자의 12% (30억디나르) 를 교육부문에 돌렸다. 3개의 종합대학과 30개의 기술단과대학이 있으며 6천 109개의 각급학교들이 있다. 4개년계획기간에 많은 학교들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1973년 한해동안에만도 약 5천개의 교실을 새로 지었다.

1973년현재 초등학교학생수만도 24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원들은 모두 알제리사람들로 꾸려졌다.

또한《무지의 청산이 진보적인 사회주의건설의 기초》라는 구호를 내걸고 글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고있다.

1974년 1월부터 부분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아뻬에스

신문 엘 무쟈히드 (정부기관지, 프랑스말), 알 샤브 (아랍말), 안나쓰르 (동부지방신문, 아랍말), 레뿌블리끄 (서부지방신문, 프랑스말) 레볼류씨옹 데트라바이 (로총기관지, 아랍말, 프랑스말), 에샤바보 (청년동맹기관지, 아랍말, 프랑스말)

잡지 레볼류씨옹 아프리깬 (민족해방전선기관지, 아랍말, 프랑스말), 엘 제이쉬 (민족인민군기관지, 아랍말, 프랑스말), 엘쟈쟈이리아 (녀맹잡지, 아랍말, 프랑스말)

방송 알제리방송, 알제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9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4년 9월 16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0월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2년 11월 15일 보건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3년 9월 28일 알제에서 두 나라 사이의 1973—1974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계획서가 조인되였다.

1970년 7월 26일 알제리조선친선협회가, 1971년 3월에는 조선로동자들과의 알제리련대성위원회가 조직되였다.

1973년 3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조선친선빠뜨리스루뭄바펠사아동학원에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알제리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 9월 알제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으며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의정으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를 토의할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11월 12일 후아리 부메디엔의장은 유엔총회에서의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제4차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 의장의 명의로 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들에게 수뇌자회의 결의에서 표명된 정신에 따라 조선에 관한 문제의 평화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내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알제리의 각지에서는 련대성집회들과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72년 1월 26~2월 8일까지 우리나라 피바다 가극단이 알제리를 방문하고 혁명가극 《피바다》를 공연하였다.

1973년에 알제리 경제 및 무역대표단 (3월), 민족해방전선청년대표단 (5월), 정부군사대표단 (5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로부터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2월), 직맹대표단 (3월) 이 알제리를 방문하였다.

마 로 끄

(마로끄왕국)

넓이 44만 6, 550km² (이프니포함)

인구 1, 630만명(1972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라바트 (주민 37만 5, 000명), 탄지르 (1962년 1월에 여름수도로 결정)

정 치

국회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는 240명, 그중 150명은 다계단선거에 의하여 선거되며 90명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거된다. 임기는 6년, 1970년 8월에 선거된 국회의원중 180명은 무소속이고 60명은 인민운동당 출신이다.

국왕 물라이 하싼 2세 (1961년 3월—), 국가수반이며 군총사령관이다. 1970년 헌법에 의하면 국왕이 총리와 각료들을 임명하거나 파면할수 있고 국회를 해산할수 있다.

정부 1972년 11월 2일 구성. 총리 아흐메드 오스만, 외교부장 아흐메드 따이비 벤히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43년 독자적인 당으로 창건, 1960년에 비법화, **민주사회당 (집권당)** 1964년에 조직, 대부르죠아지와 봉건령주들의 리익을 대변. **립헌제도옹호전선** 1963년 3월 인민운동당, 립헌민주당, 자유당이 선거통일전선으로 결성, 보수적인 왕당파로서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 **이스티클랄** (독립당) 1943년에 조직, 제일 영향력있는 민족주의정당. **인민력량전국동맹** 1959년 이스티클랄에서 떨어져나온 사람들로서 조직된 좌익적인 민족주의정당, 1973년 4월 비법화. **해방 및 사회주의당** 1968년 공산당에 기초하여 창건, 근본적인 민주주의적개혁 요구, 1969년 9월 19일 라바트지방재판소는 이 당을 해산할것을 결정, 총비서 알리 야따. **로동런맹, 근로자총동맹, 로동청년동맹**

1956년 3월 2일 프랑스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해 4월 7일 에스빠냐령 마로끄가 이에 귀속되였으며 10월 26일에는 탄지르지역에 대한 《국제관리》도 철폐되였다. 1969년 1월 4일에는 에스빠냐의 강점하에 있던 이프니가 마로끄에 통합됨으로써 나라의 완전한 통일이 이룩되였다.

1962년 12월 첫 헌법을 제정하고 립헌왕국으로 되였다.

1970년 7월 의회제를 규정한 헌법을 채택하고 이해 8월에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헌법에서는 국왕이 모든 립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것을 규정하였다.

1971년 7월 10일과 1972년 8월 13일 두번에 걸쳐 장교들이 국왕을 전복하기 위한 군사정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였다. 정변후 하싼왕은 국방부와 군대를 직접 자기 지휘하에 두게 하고 국방부, 륙군총사령관직을 폐지하였다. 1972년 3월에 1970년 헌법을 일부 개정한 새 헌법이 국민투표가 실시되여 승인되였다. 그러나 야당은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여 국민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1973년 3월 9일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땅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법령에 따라 8월 8일 《중앙접수위원회》가 구성되였으며 그후 각주들에 《접수위원회》가 조직되여 전국적으로 토지를 몰수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8월 18일 바이레히드에서 국왕의 참가하에 국유화된 토지의 경작의식이 진행되였다.

대외관계에서는 적극적중립정책을 내놓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강점된 아랍땅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과 아랍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마로끄정부는 수리아전선에 지원병을 파견하여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였다.

1973년 5월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를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85%가 농사한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35%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700만헥타이상 (씨뿌리지 않는 땅까지 포함) 인데 그중 관개한 땅은 15~20만헥타이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목화, 포도, 감류 등이다. 밀, 보리, 강냉이가 85% 차지한다. 독립

후 정부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3년에는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땅 100만헥타중 23만헥타를, 1973년에는 17만헥타를 국유화하였다.

1971년에 알곡총생산량은 492만t에 달하였는데 그중 밀은 220여만t, 보리는 230만t에 달하였다. 1972년에는 260만t의 밀을 생산하였다.

목축업도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남부초원지대에서는 양, 소, 말, 염소, 락타 등을 기른다.

공업에서는 채광공업이 80%를 차지한다.

린산염채굴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2위를 차지하며 이 나라 채굴공업생산액의 70%(1972년에 1천 700만t생산)에 달한다. 이외 쇠돌, 연, 아연, 망간, 석탄, 석유, 동 등이 생산된다.

1973년부터 시작되는 경제발전 5개년계획 (1973—1977) 기간 공업부문에 11억 3천만디르함이 투자되는데 그중 방직공업부문에 7억 7천 800만디르함, 식료공업부문에 1억 3천 200만디르함, 중공업부문에 2억 2천만디르함이 돌려지게 된다.

수산업도 비교적 발전하였다. 정어리생산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1위다. 물고기생산량은 22만 5천t정도이다.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중요하다. 철길은 1천 700여km, 도로는 2만 4천여km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린산염, 망간 등 광물류와 감귤류, 일년감, 수산물가공품, 어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량, 기계, 차, 사탕 등이다.

교육의《아랍화》를 위하여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추진시키며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학령아동의 취학률은 45%(1969년) 정도이며 대학은 4개 있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마그레브아랍통신

신문 알 알람 (이스티클랄기관지), 오삐니옹 (이스티클랄기관지), 레베떼뜨 마로끄, 라 비지 마로끄, 알 안바아 (공보부신문), 알 마그레브 알 아라비, 아방가르드, 사우뜨 알 마그레브, 팔라스띤, 알끼파흐, 알 와따니

방송 마로끄방송, 마로끄텔레비죤방송

에스빠냐령사하라

넓이 26만 6,000km^2

인구 9만여명

주민의 대부분이 베드윈족과 베르베르족이다.

공용어는 아랍말과 베르베르말

행정중심지 엘 아윤 (주민 5,300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에스빠냐총독이 통치하고있다. 명목상의 자치정권기관으로서 해외령의회라는것을 두고있다.

1916년부터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이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1972년 6월 엘 아윤에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규모시위가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유목민이다.

주요집짐승은 락타, 염소, 면양 등이다.

오아시스부근에서는 보리, 기장, 올리브를 심고있다.

물고기잡이와 바다풀 채취도 한다.

공장이라고는 몇개의 작은 물고기통졸임공장밖에 없다.

주요지하자원은 린회석, 쇠돌, 석탄, 망간, 석유 등이다.

주민들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방송 사하라방송

모 리 따 니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넓이 103만 700km^2

인구 120만명 (1971년)

주민은 98%가 베르베르족의 모르사람이다.

공용어는 아랍말

수도 누악쇼뜨 (주민 13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1971년 8월에 선거, 인민당이 전의석 50석을 차지하고있다. 임기는 5년이다.

정부 1973년 12월 내각개조,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1971년 8월 재선), 외교부장 함디 울드 무크나스, 국방부장 씨디 모하메드 디아가나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1년 4개의 정당이 통합되여 성립, 수공업자, 지식인, 로동자, 농민, 유목민, 상인, 민족부르죠아지 등 사회의 모든 계층이 다 들어있다. 총비서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근로자동맹**, **인민당청년최고리사회**, **인민당녀성최고리사회**,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 1968년 4월 11일 결성, 위원장 바 알라싼느

1958년 11월 28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고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1년 5월 새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제를 내왔으며 이해 8월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를 대통령으로 하는 새 정부를 수립하였다.

독립후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자주적발전》, 《모리따니화》, 《민족경제건설》의 구호를 들고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파괴음모책동을 짓부시면서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인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경제기관에 남아있던 식민주의자들을 내쫓고 모리따니사람들 자신이 나라의 행정사업과 경제를 관리운영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회사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68년 10월 제국주의자들, 유태복고주의자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의 그 어떤 무역도 금지하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2년 12월에는 제국주의식민지화폐제도를 청산하고 민족화폐 (우기아)를 제정하였으며 1973년 5월에는 중앙은행을 창설하였다.

1972년 6월에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령해를 30해리로 확장하였다.

1973년초부터는 프랑스와 맺은 1961년 6월의 불평등한 《협조협정》을 재 검토할데 대한 인민당 제4

차대회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와의 《협정》을 재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2월 20일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대통령은 누악쇼뜨에서 진행된 군중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민족화페의 발행과 프랑지대로 부터의 모리따니의 탈퇴는 나라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어느 나라도 경제적으로 예속되여있으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모리따니는 중립 및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아랍인민의 정의의 위업,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1965년 12월 남로데시아 소수백인인종주의정권을 부추기고 있는 영제국주의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7년 6월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사촉하여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제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3년에 민주독일(1월), 이란(10월)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이다. 주민의 70%가 축산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7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락타 등이다. 큰 뿔난집짐승은 200여만마리, 양과 염소는 850여만마리, 락타는 100여만마리 있었는데 계속되는 가물로 집짐승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부침땅은 30만헥터이다.

주요농산물은 수수, 조, 보리, 콩, 기장, 대추, 야자, 아라비아고무 등이다.

공업에서는 광업이 기본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쇠돌(매장량 10억t), 동(매장량 3천 200만t), 석유, 크롬, 니켈, 바나디움 등이다. 쇠돌년생산량은 약 1천만t으로 아프리카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아직도 공업부문에서는 외국자본의 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미페르마철광석채굴기업소는 95%가 외래독점체들에게 속해있다.

가공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양털공장, 통졸임공장, 가죽공장, 식료가공공장 등이 새로 건설되였다.

수산업도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해마다 약 30만톤의 물고기를 잡는다. 어업발전을 위하여 항만과 물고기잡이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있다.

교육분야에서도 《모리따니화》가 실현되여 교원들의 100%가 모리따니사람으로 교체되였다.

1973년 누악쇼뜨에 사범대학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각지에 고등학교들이 많이 일떠섰다.

인민보건사업에서도 새로운 전변이 이룩되였다.

8개의 큰 병원을 비롯하여 진료소, 예방원, 산원들이 건설되였다.

정부는 가물로 피해를 입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5억아프리카프랑을 배당하고 집짐승잃은 유목민들에게 보조금을 나누어주고 무상으로 의료상 방조를 주고 있으며 가물피해가 심한 지역들에서는 식량을 공급해 주고있다.

회교도가 압도적다수이며 기독교도는 약 1%밖에 안된다.

출판보도; 통신 모리따니통신

신문 빼쁠 (인민당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1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 9월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1967년 10월에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정을 맺었다.

1973년 2월 24일 누악쇼뜨에서 우리 나라가 모리따니의 《청년회관》건설을 도와줄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68년 4월 11일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에 모리따니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김일성주석혁명력사연구소조》등을 결성하였다.

1973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는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 및 영화감상회를 조직하였다.

모리따니정부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 7월 26일 다다흐대통령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5대강령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하면서《5대강령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굳은 확신을 다시금 표명한다》고 하였다. 또한 모리따니조선친선협회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5월 11일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7월 5일에는 8지구소재기 누아디부시에서 5대강령을 지지하는 군중집회를 진행하였다.

모리따니는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1967년 10월 모크타르 울드 다다흐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973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대통령부인 마리엠 다다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0월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마리엠 다다흐에게 우리 나라에서 녀자 및 어린이옷공장의 규모, 능력, 설비 그리고 공장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방조를 줄데 대한 명세서를 전달하였다.

1973년 2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모리따니를 방문하였다.

말 리

(말리공화국)

넓이 124만km²

인구 514만명(1971년 12월)

주민은 밤바라족, 프리니족, 마르카족, 송가이족, 말린케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바마코 (주민 20만명)

정 치

민족해방군사위원회 1968년 11월에 창설된 최고기관, 립법권을 행사한다. 위원장 무싸 뜨라오레

정부 1973년 5월에 내각 개조, 총리 무싸 뜨라오레(1968년 11월—), 외무 및 협조부장 샤르레스 쌈바 씨쏘꼬, 국방 내무 및 안전부장 키씨마 두카라

정당, 사회단체; 1968년 11월 정변후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산별로조의 활동만이 허용되고있다. 로조조정위원회 1971년 7월 10일에 창설, 전국근로녀성위원회, 말리조선친선협회 1972년 1월 결성

1968년 11월 19일 중하층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모디보 케이타정부를 전복하고 민족해방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민족해방군사위원회는 헌법을 페지하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해산하였다.

1968년 12월 프랑스와 재정《협정》을 맺었으며 그 이듬해 2월에는 《말리국가기업소 및 회사사업지도를 위한 프랑스전문대표부》를 말리에 설치하게 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말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3년 6월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 무싸 뜨라오레가 중국을 방문하였다.

1973년 4월 민주독일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3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바마코에서 제1차아프리카평화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일반결의와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일반결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5대강령을 적극 지지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5%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농업과 목축업은 국민총생산액과 수출총액에서 70%를 차지한다.

농업에서는 목축업이 위주다. 국민총생산액에서 23%를 차지한다.

집짐승마리수에서 서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당나귀, 말, 락타 등이다. 인구1인당 3마리이상의 집짐승이 차례진다. 큰뿔난집짐승은 510만마리, 양과 염소는 1천만마리에 달한다. 해마다 집짐승마리수는 3%씩 늘어나고 있다.

부침땅은 약 200만헥타에 달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땅콩, 벼, 강냉이, 조, 수수, 사탕수수, 나무감자 등이다. 목화생산량은 서아프리카에서 제1위다.

1972년에 목화는 8만t, 땅콩은 13만t, 벼는 12만t 생산하였다.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씨붙임땅을 늘이며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망간, 보크사이트, 아연, 동, 쇠돌, 주석, 석유 등이다.

민족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70여개의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우리 나라의 원조에 의하여 도자기공장과 정미공장을 비롯하여 방직공장, 세멘트공장, 사탕공장, 육류가공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가축제품, 땅콩, 목화, 쌀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및 부속품, 건재, 각종연료 및 기타 일용품 등이다.

주민들은 회교(65%)와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말리통신

신문 에쏘르 (민족해방군사위원회 기관지)

방송 말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0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7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5년 10월 21일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련락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6년 8월 25일 바마코에서 우리 나라의 원조로 건설된 도자기공장조업과 관련한 최종의정서가 조인되였다.

말리인민들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등을 뭇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학습하고있다.

1973년 2월 15일 바마코에서 말리철학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연구토론모임을 가지고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1973년에 말리신문 《에쏘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실었으며 7월 2일 말리방송은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5대강령을 보도하였다.

말리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유엔총회 28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5월 15일 말리평화운동위원회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에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7월 10일 바마코에서는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 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군중집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말리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3년 4월 우리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세 네 갈

(세네갈공화국)

넓이 19만 6,192km²

인구 378만명(1971년 12월)

주민은 월로프족(30%), 풀베족, 쎄레이족, 뚜꿀레르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다까르(주민 66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석 100석, 임기 5년, 1972년 12월 28일 민족회의선거가 진행되었다.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1960년 9월—, 1972년 12월재선)

정부 1972년 6월 내각 개조, 총리 아브두 디우프(1970년 2월), 외교부장 아싼 쎅크

정당, 사회단체; 진보련맹당(집권당) 1958년 9월 25일 창건, 아프리카독립당 1957년에 창건, 1960년에 비법화, 전국근로자련맹, 근로자전국련합, 청년전국리사회, 녀맹전국리사회

세네갈은 1958년 11월 25일 《프랑스공동체》내의 《자치공화국》

으로 되였으며 1959년 4월에는 말리와 병합하여 말리련방을 형성하였다.

1960년 4월 4일에는 말리련방의 한 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1960년 8월 19일 련방회의 의장이던 쎈고르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20일에 말리련방에서 떨어져나와 《프랑스공동체》내의 독립국가로서 세네갈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0년 8월 첫 헌법을 채택하고 쎈고르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1969년 3월 내각책임제를 페지하고 대통령책임제를 규정한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당과 정부, 군대의 통솔권을 직접 장악하였으며 야당활동과 국가공무원들의 파업을 금지시켰다. 1970년 2월 헌법을 개정하고 총리직을 새로 내왔다.

헌법에는 《대통령책임제를 보존하는 조건하에서 총리직을 내올것》과 총리와 각료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국가정책》을 실시할것을 규정하였다.

정부는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경제의 《세네갈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1973년 1월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소유하고있던 전기 및 수도회사를 국가의 통제하에 넘기로 하였다.

1974년 1월 영화수입과 보급을 정부가 틀어쥐며 모든 영화관들을 살데 대한 법안을 발표하였다. 이렇게함으로써 영화상영을 국가가 통제하며 퇴폐적인 영화가 보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반제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싸우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에 알바니아(4월), 아프가니스탄(2월), 까타르(6월), 아랍추장국(7월)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7월에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를 승인하였다. 12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이와 관련하여 쎈고르대통령은 세네갈은 중동에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관계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농업에서 기본은 땅콩생산이며 그외 수수, 기장, 벼, 밀, 강냉이, 목화 등을 심는다. 부침땅은 령토의 약 10%정도이며 그의 절반(90만헥타)이 땅콩밭이다.

땅콩생산량은 농업총생산액의 35%, 농민들의 총화폐수입의 65%, 세계땅콩생산량의 10%(4위)를 차지한다. 1972년에 땅콩은 91만 7천t, 목화는 2만 1천t, 수수와 기장은 60만 2천t 생산하였다. 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땅콩생산에 치우치던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특히 벼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저수지를 만들고 물길을 새로 째며 우물을 파는데 큰 힘을 돌리고있다.

축산업도 큰 의의를 가진다. 큰뿔난집짐승은 300만마리, 양과 염소는 250만마리 정도이다.

공업은 경공업이 위주다. 공업총생산액은 국민소득의 20%를 차지한다.

석유정제공장, 방직공장, 비누공장, 세멘트공장, 기름공장, 합성섬유공장등이 있다. 1972년 9월부터 자체의 원료로 사탕을 생산하고있다.

린회석(년생산량 100만t), 알루미니움, 기타 희유금속도 생산한다.

수산업도 경제의 중요한 부문이며 다랑어어장은 유명하다. 약 100여척의 어선을 가지고있다.

1972년에 25만t의 물고기를 잡았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땅콩과 그 가공제품, 린광석, 수산물가공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원유제품, 금속제품, 세멘트, 목재, 종이 등이다.

교육발전을 위하여 《민족간부의 세네갈화》방침을 내놓고 총예산의 4분의 1을 이 부문에 돌리고있다. 어린이들의 80%가 학교에 다닌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70%)를 믿으며 기타 원시종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세네갈통신

신문 유니떼 아프리깬(진보련맹당 기관지), 앵포르마씨옹 아프리깬(정부신문), 다까르 마땡, 모니떼르 아프리깬, 러 쏠레이, 아프리끄 누벨

방송 세네갈방송, 세네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9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에 신문 《모니떼르 아프리깬》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1월 15일부터 3월 1일에 걸쳐 련재하였다.

1973년 4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감 비 아

(감비아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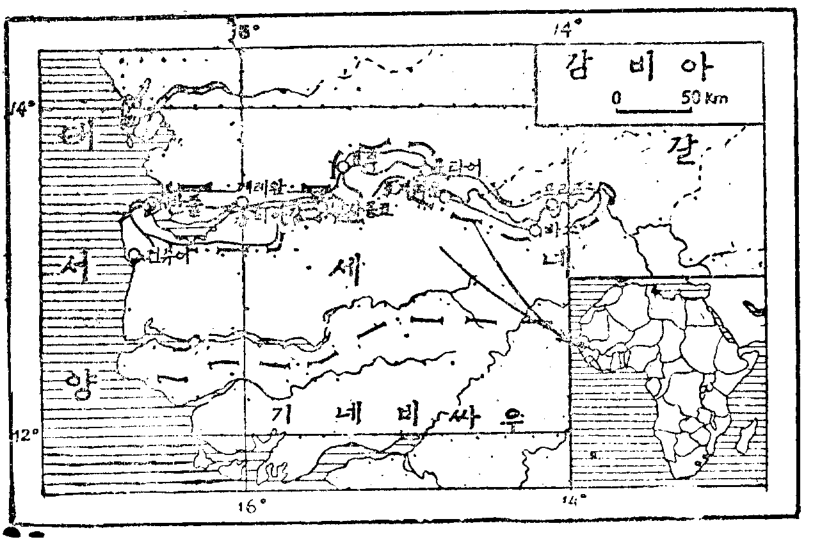
넓이 1만 1,295km²

인구 37만명(1971년)

주민은 말린케족, 풀베족, 월로프족, 뚜꿀레르족 등이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반쥴(주민 3만 8,000명)



정 치

국회 일원제, 의원수 40명, 그중 32명은 주민들이 선거하며 4명은 추장총회에서 선출한다. 1972년 3월에 진행된 선거결과 인민진보당이 25석, 통일당이 7석, 인민진보동맹이 4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 다우다 크웨씨 쟈와라(1970년 4월—), 부대통령겸 외교부장 에이. 디. 카마라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 1959년에 창건, 1962년에 집권당으로 됨, 식민주의제도의 청산을 주장하고있다. 통일당 1951년에 창건, 종족상층부들에 의거하고있다. 인민진보동맹, 로동련맹, 로동자련맹

1965년 2월 18일 영식민지철쇄를 끊어버리고 독립하였으며 1970년 4월 24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평화, 진보 및 번영》의 구호밑에 제국주의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정부는 농업을 현대화, 다양화하며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계획을 세우고 3차례의 4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1973년 4월 25일 식민주의자들이 달아놓았던 수도의 이름을 반쥴이라고 고쳤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1973년에 민주독일(1월), 윁남(10월)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7월)를 승인하였다.

10월 25일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영웅적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사한다. 경제의 기본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땅콩생산이며 이것은 수출총액의 94%를 차지한다. 그외 벼, 조, 수수, 강냉이 등을 약간 심는다. 땅콩은 10～11만t, 벼는 1만t정도 생산된다.

농업에서는 다각화와 집약화를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공업부문에서는 땅콩을 가공하기 위한 가공공장, 기름공장이 기본이며 그밖에 가죽공장과 년 6천 300kW 능력의 수력발전소가 있다.

철길은 없으며 감비아강을 리용한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의 총 연장길이는 1천 200km이다.

주요수출품은 땅콩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직물, 기계, 석유제품 등이다.

100여개의 학교들에서 2만여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감비아 뉴스 불레틴(정부기관지), 감비아 온워드, 네이숀, 뉴 감비아

방송 감비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3월 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6월 11일 감비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 10월 부대통령겸 외교부장인 에이. 디. 카마라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4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감비아를 방문하였다.

기네—비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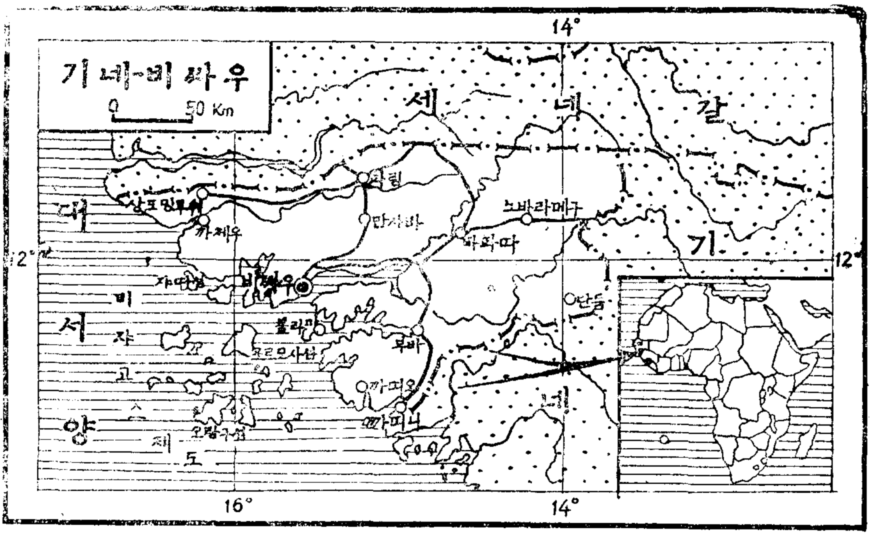
(기네—비싸우공화국)

넓이 3만 6, 125km²
인구 56만명(1971년)

수단어계통의 비란트, 풀라니, 마딩그 등 여러 종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뽀르뚜갈말

수도 비싸우(주민 2만 7, 000명)



정 치

인민회의 최고립법기관, 1972년 8～10월에 진행된 총선거에서 120명의 의원들이 선거되였다. 1973년 9월 24～26일까지 제1차 인민회의가 진행되였다.

국가리사회 1973년 9월 26일 15명으로 구성, 위원장 루이스 까브랄

정부 1973년 9월 26일 국가리사회 위원장이 16명의 정부성원을 임명하였다. 제1전권위원(총리) 프랑시쓰꼬 망데스, 대외관계담당전권위원 빅또르 사우데 마리아, 군부담당전권위원 니노 비에이라

정당, 사회단체;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1956년 9월 19일 창건된후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당은 민족적독립의 쟁취, 민주주의제도의 수립, 급속한 경제적진보와 사회발전의 실현을 기본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총비서 아리스띠데 뻬레이라(1973년 7월 제2차당대회에서 선거), 기네— 비싸우민족독립전선 기네—비싸우해방운동과 기네—비싸우 인민동맹으로 구성, 민

족인민동맹, 기네－비싸우 근로자전국동맹

１９７３년 ９월 ２４일 기네－비싸우 인민들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네－비싸우공화국선포와 관련하여 국가리사회 위원장 루이스 까브랄에게 보내신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네－비싸우공화국의 선포는 용감한 기네－비싸우인민이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이며 귀국인민의 생활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변으로 됩니다.》

기네－비싸우인민들은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의 지도밑에 １９６１년 ８월 무장투쟁을 시작한이래 １９７３년 ９월까지 령토의 ８０％와 인구의 절반이상을 해방하였다.

이 기간에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은 해방지역에서 식민주의자들의 통치기구를 짓부시고 인민정권을 창설하였으며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인민적인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해방지역은 무장투쟁의 믿음직한 기지로, 후방으로 공고발전되였다.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해방지역에서는 １９７２년 ８월부터 １０월사이에 이 나라 력사상 첫 국가주권기관인 전국인민회의선거가 진행되였으며 새로 창건될 기네－비싸우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지반이 닦아졌다.

선거된 전국인민회의는 １９７３년 ９월 ２４일 마디나 보해방지역에서 제１차회의를 진행하고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는 《기네－비싸우국가선언》을 발표하였다.

헌법에 따라 인민회의는 루이스 까브랄을 위원장으로 하는 １５명으로 구성된 국가리사회를 선거하였으며 국가리사회 위원장은 １６명으로 구성된 정부성원들을 임명하였다.

선언에는 기네－비싸우가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국가이라고 지적되였다.

선언에서는 기네－비싸우인민을 완전히 해방하며 강력한 아프리카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우선 해방지역에서 혁명정권을 세우며 토지개혁과 남녀평등권법령을 실시하고 농업협동조합조직과 수많은 학교, 병원들을 설치할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또한 선언은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며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내정불간섭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킬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선언에는 기네－비싸우령토에서 정치, 군사 및 행정권의 실제적집행자였던 뽀르뚜갈식민주의국가의 권력과 기구들은 기네－비싸우국가가 선포된 순간부터 비법화되며 그 활동은 무효로 된다고 지적되였다.

공화국이 선포된후 기네－비싸우는 １９７３년말현재로 세계 ７０여개이상 나라들의 승인을 받았다.

１１월 ２일에는 ２８차유엔총회에서 기네－비싸우를 독립국가로 선포하는 결의안이 찬성 ９３, 반대 ７, 기권 ３０표로 통과되였다.

１１월 ２６일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에 가입하였다.

１１월 아프리카통일기구에 ４２번째 성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오랜 기간의 식민지통치후과로 경제는 락후한 형편에 있다. 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땅콩, 피마주, 야자, 코코아 등 수출작물들이 주로 재배되였으며 이외에 강냉이, 벼, 사탕수수, 목화 등을 생산하고있었다.

주요집짐승은 말, 노새, 당나귀 (２만 １천여마리), 소 (２만 ７천여마리), 염소 (７만 ９천 ３００마리) 등이 있다.

공업으로는 광업과 농산물, 수산물, 목재 등을 가공하는 몇개의 가공공장이 있는데 모두 뽀르뚜갈, 미국, 프랑스 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철길은 없고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강점지역의 문맹률은 ９９％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중학교는 하나이며 학생수는 ４００여명인데 그 대부분이 백인이다.

병원은 하나밖에 없다. 마라리아, 문둥병 등 각종 질병이 돌고있다.

해방지역에서는 토지와 공장들이 이 나라 인민의것으로 되였으며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여 새 생활이 창조되고있다. ２５０여개의 학교, ４개의 병원, １００여개의 진료소들이 설치되였다.

회교 (３５％) 또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가번멘트 가제트, 오 아 라우또, 볼레띰 다 유니아오 인데르나찌오날 데 비싸우

우리 나라와의 관계

１９７３년 １０월 ３일 우리 나라는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승인하였다.

１９７２년 ８월 이전 총비서 아밀까르 까브랄을 단장으로 하는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１９７１년 ３월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공부하고있는 기네－비싸우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및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하고있다.

베르데갑제도

(뽀르뚜갈식민지)

넓이 ４, ０３３km^2

인구 ２８만명 (１９７０년)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사람 (３２％) 과 혼혈인 (６５％) 들이다.

공용어는 뽀르뚜갈말

행정중심지 쁘라야 (주민 약 ３만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뽀르뚜갈총독이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통치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민족인민동맹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추종하고 있다.

１４９５년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

１９５１년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이섬을《해외주》로 선포하고 파쑈적인 총독통치를 실시하고있다.

이 나라 인민들은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의 지도밑에 민족해방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외래식민주의자들의 재배농장에서 커피와 담배, 그밖에 강냉이, 땅콩, 사탕수수, 나무감자, 바나나, 남새 등을 재배한다.

축산업도 일정한 자리를 차지한다. 소, 염소, 돼지 등을 기른다.

일부 주민들은 물고기잡이도 한다.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소금, 술, 물고기가공 등을 하며 돌소금 (년산 ３

만 6,000여t)을 캐낸다.

주민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출판물 노며씨아스 데 까보 베르데오 아르귀벨라고, 볼레띰 오피씨알

방송 베르데갑제도방송

기 네

(기네공화국)

넓이 24만 5,857km²

인구 524만 3,284명(1972년 12월)

주민은 풀베족(40%), 말린케족, 만딩그족, 수수족 등 20여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꼬나크리(주민 35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민주당이 전의석(75석)을 차지하고있다.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무장력의 최고사령관, 임기는 7년, 아흐메드 세쿠 투레 (1961년—, 1968년에 재선)

정부 1972년 5월 총리직을 새로 내오고 내각을 구성, 총리 란사나 베아보기, 외교부장 필리 씨쏘코, 인민군담당국무부장 뚜마니 싼가레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47년 5월 17일 아프리카민주련맹의 지부로 창건, 1958년 11월 19일 독립적인 정당으로 됨. 당의 최고기관은 전국혁명리사회이다. 총비서 아흐메드 세쿠 투레, 근로자전국련맹, 아프리카민주혁명청년, 전국녀성위원회

1958년 10월 2일 서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기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국내반동들의 음모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진보적인 정책들을 실시하여왔다. 첫 조치로서 식민지통치시기에 있던 국가기관들과 사법, 안전기관들을 민족적기초우에서 개편하였으며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였다.

1960년에는 민족군대를 창건하고 민족화페를 발행하였으며 1970년 5월에는 의무병역제를 실시하였다.

기네정부는 1969년 2월과 1970년 9월, 1973년 3월에 제국주의자들과 기네반동들이 조작한 반정부음모를 짓부셨으며 1970년 11월 22일에는 미제의 사촉하에 기네공화국을 반대하는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한 뽀르뚜갈침략자들을 단숨에 격파하고 기네혁명을 수호하였다.

1971년 7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인 민병대를 창건하였다.

1973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기네민주당 제10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 (1973~1978)을 토의하고 비준하였으며 결정을 채택하였다. 결정에는 민족경제를 공고히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며 가물과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력과 물질 및 재정수단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12월 6일부터 21일까지 꼬나크리에서 진행된 제3차 전국경제대회에서 세쿠 투레대통령은 기네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며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 9월 기네—비싸우공화국이 선포되자 이 나라를 처음으로 승인하고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80%가 농사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파인애플, 벼, 강냉이, 기장, 수수, 나무감자, 고구마, 목화 등이다. 매년 벼는 30여만t, 나무감자는 40여만t, 고구마는 10만t, 기장과 수수는 15만t, 강냉이는 6만여t생산되고있다. 2대수출작물인 바나나는 년8만t, 파인애플은 1만 5천t정도 생산된다.

정부는 단작경리의 후과를 가시고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알곡작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경지면적과 관개면적을 늘이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또한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기계, 연료, 씨앗, 비료 등 농촌에 대한 물질적 및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축산업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내륙초원지대에서 소, 양, 염소 등을 기른다.

공업에서는 채광공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기네에는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진 보크사이트를 비롯하여 금, 은, 철, 금강석, 반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정부는 경제전반에서 채광공업의 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광산개발을 다그치고 있다.

독립후 《자체의 로력과 자금으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방직공장을 비롯하여 원유가공공장, 철근공장, 세멘트공장, 유리공장, 합성수지공장, 제지공장, 육류가공공장 등을 새로 건설하였다.

철도망과 도로망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총 800여km의 철길과 1만 2천 700km의 자동차길이있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 쇠돌, 보크사이트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공업제품, 식량, 운수수단 등이다.

독립후 교육체계가 새로 개편되고 교육망이 대대적으로 늘어났으며 소학교에서는 민족어로 교육하고있다. 1972년에 25만명의 학생이 있었다.

글모르는 사람을 없애기 위하여 문맹퇴치전국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1971년에 전국의 모든 촌락들에 진료소를 건설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병원과 많은 진료소들이 건설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고있다.

대부분이 회교도이며 원시종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기네통신

신문 호로야 (민주당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드 기네 (정부기관지), 프라바예르 드 기네 (근로자전국련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10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6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68년 4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3년에 민주당기관지 《호로야》 1월 11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을 실었다. 또한 12월 빠뜨리스

루뭄바출판사에서는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기네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 5월 22일 기네정부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조국통일에 관한 5개항목방안을 지지하여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2일 세쿠 투레대통령은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이룩하며 하나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야한다》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적극 지지하였다.

또한 유엔총회 28차회의에서는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1965년 4월 대통령부인 앙드레 투레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972년 12월에는 란사나 베아보기 총리를 단장으로하는 기네 당및정부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4월과 11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기네를 방문하였다.

시에라 레온

(시에라 레온공화국)

넓이 7만 1，740km²

인구 260만명(1971년)

주민은 멘데족(30%)，템네족，림바이족 등 13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프리타운(주민 15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총의석 78석 그중 66석은 총선거에 의해 선거되며 12석은 추장회의가 차지한다.

대통령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1971년 4월ㅡ，임기 5년，국방부장 겸임)

정부 부대통령 겸 총리 에쓰．아이 코로마，외교부장 디이 파슐레 루크

정당，사회단체；전인민대회당 1960년에 창건，1968년 4월부터 집권당，독자적인 민족발전정책의 실시와 외국자본의 제한을 주장，총비서 씨．에이．카마라ㅡ테일러，인민당 1951년에 창건，민족부르죠아지들과 종족들의 상류계급의 리익을 대변，로동대회 12개의 산별로조단체를 망라하고있으며 국제자유로조련맹에 가입，전국청년동맹，녀성조직전국련맹，시에라 레온조선친선협회 1968년 9월 9일 결성，전국위원회 위원장 본티 코올

1961년 4월 27일《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한후 1971년 4월 19일에는 영국녀왕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한 낡은 헌법을 페지하고 새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후 《경제적자유가 없이는 정치적자유가 없다》는 구호밑에 안팎의 원수들의 거듭되는 침략과 파괴음모책동을 짓부시면서 민족경제와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0년부터 1971년까지만도 두차례의 제국주의자들의 전복음모를 짓부시였으며 1970년 4월에는 정부 전복활동을 일삼던 미국외교관놈을 내쫓았다.

1971년 4월에는 주요상품의 수입과 판매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무역회사를 내오도록 하였으며 1973년 2월에는 전적으로 자기 나라의 소유인 민족상업은행을 창설하였다.

1972년 3월에는 자기 나라 사람들로서 기업소들을 운영할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1973년 1월에는 전국계획리사회를 창설하였다. 시에라 레온정부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1년 4월에 령해를 12마일로부터 200마일로 확대하였으며 1973년 12월 18일에는 민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권수정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에서는 나라의 령해가 해안선으로부터 200마일의 수역이라고 규정하고 령해에 들어와 비법적으로 어로작업을 하는 외국의 선박들은 징벌을 받을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교육분야에서는 이전의《상업교육》의 낡은 식민지교육체계를 새로운《기술교육체계》로 개편하고 학생들에게 자기 나라 력사와 문화를 배워주고있다.

정부는《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고 하면서 민병을 조직하고 해안방위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아프리카통일의 리념에 대한 충실성，인종주의 반대，아프리카의 종국적해방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1970년 11월 기네가 뽀르뚜갈 식민주의자들과 그 고용병의 침략을 받았을 때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기네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스티븐스대통령은 군대와 인민들에게 기네인민과 함께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출것을 호소하였다. 1971년 3월 기네와《호상방위조약》을 맺었다.

1971년말 영국과 스미스인종주의정권이 제놈들의 식민주의적 리익을 위하여 이른바《로데시아독립의 분쟁해결》이란 《협정》을 조작하자 련속 성명을 발표하여 이《협정》을 규탄하였다.

1973년 1월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이 잠비아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잠비아인민을 반대하는 비렬한 음모책동을 감행하자 잠비아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잠비아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재정원조도 주었다.

1973년 10월 27일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3년 12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서 승인하였다.

1973년 6월 22일 스티븐스대통령은 민족회의 제2기 제1차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시에라 레온정부는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것이며 자유와 자결권을 쟁취하기 위한 짐바브웨，나미비아，앙골라，기네ㅡ비싸우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아프리카해방운동에 전면적이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제，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금강석，쇠돌，보크사이트，금，주석 등 채취공업이다. 금강석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4위를 차지한다. 국가재정수입의 15%이상，광물수출총액의 60%를 차지한다. 1971년에 230만카라트의 금강석을 생산하였다. 해마다 쇠돌은 260만t이상，보크사이트는 45만t정도 생산되고있다.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의 금강석회사인《시에라 레온 셀렉숀 트라스트》의 통제권을 박탈하고 1970년에 국가가 그 주권의 51%를 차지하는 민족회사인《디밍고》를 창설하였다 또한 쇠돌，보크사이트 등을 채굴하는 광업회사주권의 51%를 차지하였다.

채취공업을 국유화하는것과 함께 기름공장, 신발공장, 정미공장, 방직공장, 강철압연공장 등 수많은 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부침땅은 3만6, 617km²에 달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종려씨, 강냉이, 벼, 수수, 생강 등이다. 매해 커피는 9천t, 종려씨는 5만 4천t, 코코아는 4천 500~6천t, 벼는 약 40만t, 기장과 수수는 2만 4천t정도 생산되고있다.

정부는《농업부문의 발전이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고 하면서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정부는 협동조합들과 농민들에게 재정원조와 대부금을 주기 위한 농업은행을 창설하였다.

또한 이 나라 인민들의 주식물인 쌀을 비롯한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이 취해지고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여러농촌지역들에서 벼를 심기 위해 새 땅을 개간하고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3천 500km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금강석, 쇠돌, 보크사이트, 종려씨, 코코아, 커피 등이다. 그중 광물이 수출액의 8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기계, 설비, 천, 차량, 석유 등이다.

종합대학, 녀자교원대학, 교원양성소를 비롯하여 중학교, 기술학교, 초급학교들이 수백개 있다.

프리타운시에 종합병원이 있으며 전국에 120개의 진료소가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북부의 풀라니족, 수수족 등은 회교를 믿으며 혼혈인종에는 기독교도가 많다.

출판보도;신문 데일리 메일 (정부기관지), 우니티, 아드반스, 엑스프레스, 피플, 위온,

방송 시에라 레온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 1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9일에는 시에라 레온 조선친선협회가, 1971년 3월에는《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시에라 레온 인민들은《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원수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2년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프리타운에서 16개국 대표들이 참가한《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 주체사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이 토론회에서 전인민대회당 총비서는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회주의의 빛나는 진리를 이루는 시에라 레온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김일성동지로작들을 연구하는것은 거대한 기쁨으로 되며 고무로 된다》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 8월 23일 스티븐스대통령은 수령님의 친서를 전달받고《우리는 조선이 통일되여야 하며 또 반드시 통일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1년 7월 전인민대회당 총비서 씨. 에이. 카마라—데일러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6월 시에라 레온기자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4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리 베 리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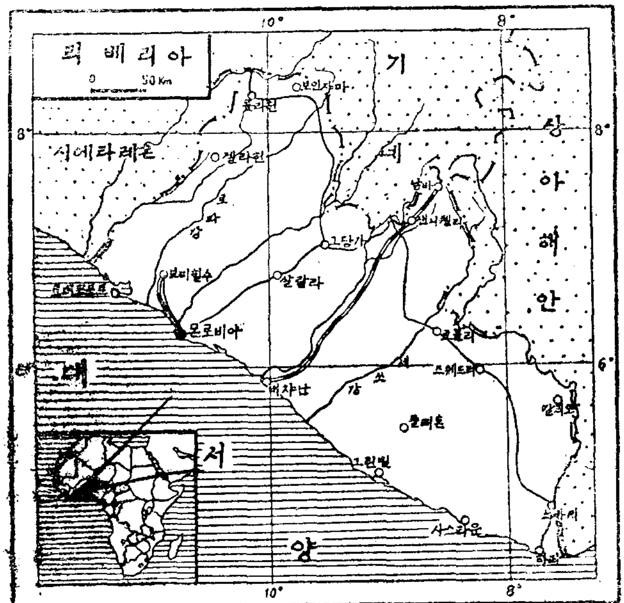
(리베리아공화국)

넓이 11만 1, 369km²
인구 140만명 (1970년)

주민은 쿠르족 (50만명), 크펠레족, 바이족, 말린케족, 그바싸족 등 27개의 아프리카인 종족들과 미국에서 이주해온 흑인후손인 아메리카—리베리아사람 (약 2만명) 이 있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몬로비아 (주민 18만명)



정 치

립법회의 상하량원제, 상원은 18명이며 임기는 6년, 하원은 52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정부 대통령 윌리암 리챠드 톨버트 (1972년 1월—), 국방부장 알렌 윌리암스

정당, 사회단체; 진정독립당 1869년에 창건된 집권당이며 유일당, 미국으로부터 이주해온 《해방노예》의 후손들로 구성되였으며 예속자본가와 농장주들의 리익을 대표, **생산로조대회**

리베리아는 1822년《미국식민지협회》가 보낸《해방노예》들이 만들어낸 나라이다.

1847년 7월 26일 독립을 쟁취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실권은 《해방노예》의 후손들이 쥐고있다.

1955년 국가의 정치, 경제 생활에서 토착아프리카인들에게 일정한 지위를 준《통일정책》을 공포하였다.

1966년 미제와 예속적인 《방위협정》을 맺었다.

1973년 5월 쿠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1월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4년 1월 12일 톨버트대통령은 독립을 공고히하기 위한 기네—비싸우인민을 지원하여 2만 5천딸라를 제공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이상이 농사를 한다. 농업은 원시적소농경리와 외국자본 특히 미제독점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대농장경리가 결합되여있다.

주요농산물은 천연고무이며 그외 커피, 코코아, 바나나, 수수, 나무감자, 고구마, 벼 등을 심는다. 천연고무는 매년 7만~8만t 생산되고있다.

경제의 기본은 쇠돌채굴이다. 매년 2만 2천~2만 4천t정도 생산된다.

쇠돌생산은 미제와 서부독일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으며 일본독점체들도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가공공업은 목재가공공업이 있을 뿐이다.

1년에 1만 5천t정도의 물고기도 잡는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총 432km에 불과한데 쇠돌운반에만 리용되고 려객수송에는 리용되지 못한다.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째가는 상선국이다.

수출총액에서 쇠돌이 70%, 천연고무가 20% 차지한다.

매년 4만t이상의 쌀과 기타 식료품, 기계설비 등을 수입한다.

주민들은 회교와 천주교를 믿는다.

어린이들의 취학률은 10%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2월 1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12월 쏘련주재 리베리아대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상 아 해 안

(상아 해안공화국)

넓이 32만 2,463km²

인구 442만명(1971년)

주민은 바울레족, 쿠르족, 말린케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민족어는 있으나 문자가 없다.

수도 아비쟝(주민 50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 100명, 임기는 5년, 민주당이 총의석을 독차지

정부 대통령 펠릭스 후푸에 브아니(1960년—, 1970년에 3선), 외교부장 아르센 우쉐르 아쑤앙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46년에 창건, 민족부르죠아지들과 관리들의 리익을 대변, **민족해방위원회** 1958년 9월에 창건,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주장, **근로자총련맹**

1960년 8월 7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1년 4월 대외, 국방,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프랑스와 예속적인《협조협정》을 맺었다.

1970년 민주당 제5차대회에서는 국가자본과 함께 개인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대내정책으로서 《자유경제》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1973년 8월 방글라 데슈를 승인하였다.

11월 2일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 종려, 벼, 강냉이, 목화, 나무감자 등이다.

커피생산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3위, 코코아생산은 3, 4위를 다투고있다. 해마다 커피는 24만~27만t, 코코아는 18만~22만t, 바나나는 13만~18만t, 목화는 5만~10만t정도 생산된다.

20여종의 질좋은 통나무가 생산되고있다.

공업은 식료공업, 목재가공공업, 채굴공업이 기본이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은 22%를 차지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는 프랑스자본에 의하여 운영된다.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아비쟝과 상부볼따를 련결하는 한개의 선밖에 없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목재, 바나나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식량, 기계류이다.

주민의 80%가 글모르는 사람들이다. 어린이들의 30%만이 학교에 다닌다. 종족어는 있으나 문자가 없으며 프랑스어로 교육한다.

인구의 65%가 원시종교를 믿으며 회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상아해안통신

신문 프라떼르니떼(민주당기관지), 프라떼르니떼 마땡(정부신문)

방송 아비쟝방송, 부아께방송, 상아해안텔레비죤방송

상 부 볼 따

(상부볼따공화국)

넓이 27만 4,200km²

인구 550만명(1971년)

주민은 모시족, 로비족, 보보족, 그룬시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와가두구(주민 15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로서 57명의 의원들로 구성, 임기는 5년, 1970년 12월 선거결과 민주동맹이 37석, 민족해방운동이 6석, 아프리카재편성당이 12석, 기타가 2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1974년 2월 8일 라미자나대통령은 국회해산을 선포하였다.

정부 1974년 2월 11일 10명의 군인과 4명의 사민으로 구성, 대통령 상구레 라미자나(1966년 1월—, 총리와 사법부장 겸임), 외교부장 사이에 제르보, 국방 및 제대군인담당부장 바바 시

정당, 사회단체; 1974년 2월 8일 라미자나대통령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민주동맹** 1947년에 창건, 종족장들의 리익을 대변, **민족해방운동** 1958년에 창건, 인테리와 학생청년들에게 의거하고있다. **아프리카재편성당** 1959년에 조직, 나라의 자본주의적발전을 반대. **민족재편성당** 1970년에 조직, 다당제

의 청산과 모든 정치세력들이 민주주의적민족전선에 단합할것을 주장.
근로자당 1970년에 조직. 새공화국동맹, 인민행동근로자로조련합, 아프리카로조련맹 (세계직련에 가맹)

1966년 1월 4일 총참모장이던 상구떼 라미자나가 정변을 일으켜 독립이래 정권을 잡고있던 야메오고정권을 전복하고 군사정권을 세웠다. 라미자나정부는 1969년 11월부터 정변당시 금지하였던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허용하였으며 국회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활동은 적극화되였다.
1970년 6월 14일에 각 정당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출한 새 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채택되였다. 새헌법에서는 군부가 1974년까지 정권을 유지하며 각료의 3분의 1은 군인들이 차지하며 총리직은 대통령이 선발하는 민간인으로서 민족회의의 비준을 받기로 하였다.
헌법에 따라 1970년 12월 20일에는 민족회의선거가 진행되였으며 라미자나를 대통령으로, 총리를 민간인으로 하는 군인들과 정당 대표들의 민간—군인정부가 수립되였다.
1974년 2월 8일 라미자나대통령은 10개항목의 선언을 발표하여 민족회의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으며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새 군사정부의 수립을 발표하였다. 선언에서는《새정부의 목적은 자력갱생에 의한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매개인의 사회적정의의 보장을 추구하는데 있을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1974년 2월 11일 라미자나대통령은 자신이 총리직을 겸하고 10명의 군인과 4명의 민간인으로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에 중국 (9월), 윁남 (11월), 민주독일 (4월) 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7월에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1973년 10월 아프리카에서 11번째로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5%가 농사한다. 업종농생산액은 국민총생산액의 75%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강낭이, 기장, 벼, 땅콩, 조, 수수 등이다. 몇년째 계속되는 심한 가물로 농업생산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목축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축산물수출액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50%를 차지한다.
공업은 농산물가공공업과 채굴업이다. 탱동공장, 기름공장, 신발공장, 벽돌공장 등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와가두구로부터 국경까지 련결되여있는데 주로 수출입을 하고있다. 이 나라는 말리, 니제르, 다오메, 또고, 가나, 상아해안을 련결하는 상업통로의 교차점에 자리잡고있어 통상관계발전에서 아주 유리하다.
1969년부터 민족문자를 제정하고 민족어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있다. 1972～1973년도 국가예산의 10%를 교육부문에 돌렸다.
의료시설이 확장되고 점차 전염병이 줄어들고있다.
원시종교가 대부분이며 회교와 기독교도도 있다.
출판보도; 신문 까데푸르 아프리깽 (정부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드 오뜨 볼따, 불레뗑 꼬띠디앵 드 앵포르마씨옹
방송 상부볼따방송, 상부볼따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0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10월 12일 우리 나라가 상부볼따에 무상으로 경제 및 기술적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971년 3월 25일 말리에 있는 상부볼따 류학생들이《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2년 10월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4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상부볼따를 방문하였다.

가 나

(가나공화국)

넓이 23만 8, 537km²
인구 886만명 (1971년)
주민은 아샨티족 (44%), 다고아족, 에웨족, 후아티족 등 10여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아크라 (주민 63만 3, 900명)

정 치

구국리사회 (정부) 1972년 1월 13일 군사정변후 7명으로 구성, 위원장 아이. 케이. 아참퐁 (국방부, 재정부, 경제부 담당), 외교부장 크와메 바호
정당, 사회단체; 1972년 1월 정변후 모든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로조대회 1971년에 비법화되였다가 1972년 1월 정변후 복구

1972년 1월 13일 반동적인 부시아정부가 전복되고 아참퐁대좌를 수반으로 새로 구성된 구국리사회는 정변후 헌법을 페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정당활동을 금지하였다.
1972년에 가나는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하여 38만딸라어치의 원호물자를 제공하였으며 식민지 지배밑에 있는 인민들의 투쟁을 돕기 위한《아프리카통일기금》모집에 응할것을 호소하였다.
1973년 1월 11일 구국리사회 위원장은 대내외정책강령인《부흥헌장》을 발표하였다.
헌장에서는 가나의 대내정책이 인민의 리익을 보장하며 민족적통일을 강화하고 온갖 형태의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없애고 인민들을 애국주의와 제인민간의 우의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공화국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정신, 물질적 력량을 동원하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적극적인 중립과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 및 인종주의의 온갖 형태와 표현을 폭로하고 견결히 규탄하며 아프리카의 통일을 적극 강화하며 아프리카와 세계의 기타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며 모든 나라 및 선량한 인민들과 협조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정부는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특히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한) 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외국은행 및 보험회사들의 주권의 40%, 생활필수품공업기업소들과 개인텔레비죤, 방송회사들의 주권의 50%이상을 정부가 장악한다고 하였다.
1973년 3월에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령해권을 12마일로부터 30마일로 늘이고 대륙붕은 구국리사회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3년 1월 기네와 외교관계를 회복하였다. 10월에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강점지역에서 물러가기전에는 이스라엘과 절대로 관계를 다시 맺지 않을것이라는 공보를 발표하였다.

1973년 1월 아프리카통일기구 해방위원회를 초청하여 아크라에서 이 위원회 제21차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회의에서 아참퐁은 무장혁명은 외래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해있는 아프리카지역들을 해방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잠비아와의 국경을 봉쇄한 로데시아 백인인종주의자들을 규탄하여 로데시아와 잠비아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로데시아의 백인 1명씩을 죽여버릴것을 호소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로동력의 60%가 농사를 하며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42%를 차지한다. 코코아가 기본작물이며 인구의 3분의 1이상이 이에 종사한다. 코코아생산은 세계 제1위이며 코코아수출이 이 나라 수출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1972년에 코코아생산량은 45만t이였다.

그외 바나나, 땅콩, 수수, 강냉이, 커피, 야자, 생고무 등도 생산한다.

정부는 민족경제발전에서 특히 알곡생산에 큰힘을 넣고있는데 1972—1974년을 농업의 해로 선포하고 이 기간에 주민들에 대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며 집짐승의 수요를 보장할 먹이생산을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1973년에 아크라주변에 8km의 도혜나관개수로가 건설되였다.

공업은 금, 금강석, 망간, 보크사이트 채굴업이 기본이다. 매년 금은 70만온스, 금강석은 250만~280만카라트, 망간은 28만~30여만t, 보크사이트는 24만t 생산되고있다.

가공업으로는 비누공장, 코코아가공공장, 제강소, 가구공장, 일용품공장, 원유가공공장 등이 있다.

년 14만t정도의 물고기도 잡는다.

운수에서는 아크라와 코코아산지 및 광산지역을 련결하는 철도운수와 기타 지방에서의 자동차운수, 볼따강을 리용하는 수상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금강석, 보크사이트, 망간, 목재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 천, 연료 등이다.

1972년 10월 코코아협약이 채택됨으로써 코코아에 의한 수입이 높아졌으며 대외무역에서는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국가가 통제함으로써 흑자를 내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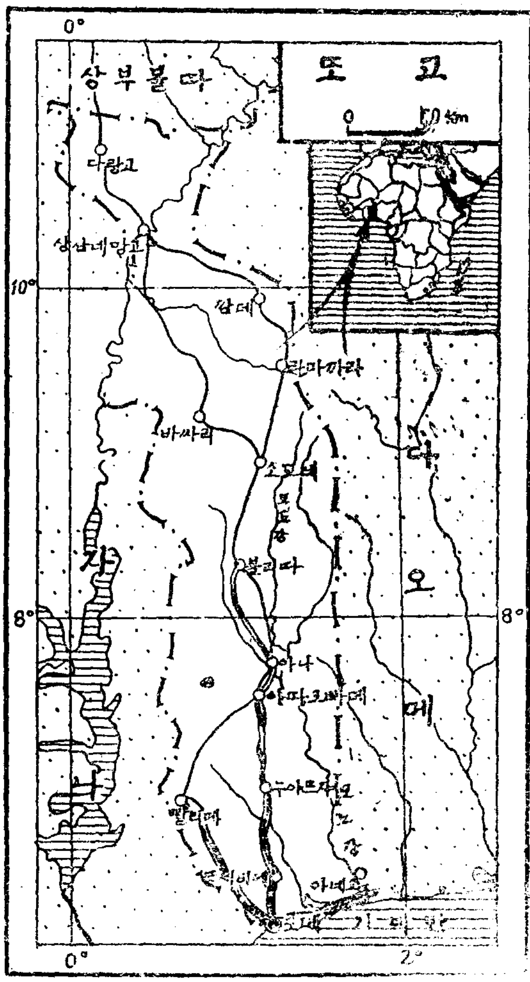
기독교도가 43%, 회교도가 12%, 나머지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가나통신

신문 가나타임스 (정부기관지), 데일리 그래피크, 이브닝 스탠다드, 스탠다드

방송 가나방송, 가나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가나신문《데일리 그래피크》1972년 3월 28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를 실었다

또 고

(또고공화국)

넓이 5만 6,000km²
인구 191만명 (1971년)

주민은 에웨족, 마나족, 까브시족, 까부레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로메 (주민 4만 8,000명)

정 치

정부 대통령 에띠엔느 에야데마 (1967년 1월—), 외교부장 조아심 훈데데

정당, 사회단체; 인민련합 유일당이며 집권당, 1969년 11월 29일창건, 전국위원회 위원장 에띠엔느 에야데마, 근로자전국동맹, 또고조선친선협회 1969년 11월 4일 결성, 위원장 죤손 뿔리까르삐

1967년 1월 13일 군총참모장이던 에야데마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친미정권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군사정권을 세웠다. 새 정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을 비법화하였다.

1969년 11월 29일에는 유일당인 또고인민련합을 창건하였다. 인민련합은 식민주의 후과를 가시고 모든 외래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새 사회의 기초를 닦기 위한 강령을 내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4년 1월 10일 에야데마대통령은《경제적으로 외국에 의존하지 않게 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독립할수 있다.》고 하면서 국내 광업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국유화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1월 10일 프랑스자본과 공동으로 경영하는《또고베닌광

업회사》의 주권의 51%를 인수하였으며 2월 2일에는 또다시 나머지 49%의 주권을 인수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1972년 8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으며 9월에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 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야자, 종려, 목화, 강냉이, 땅콩 등이다. 커피와 코코아는 이 나라 수출총액의 60%를 차지한다. 매년 커피는 1만여t, 코코아는 1만 8천여t, 목화는 1천t, 야자씨는 1만 6천t, 땅콩은 5천t정도 생산된다.

직물공장, 도자기공장, 솜타는공장, 식료가공공장 등의 경공업공장들이 있으며 린회석, 화강석을 캐내는 광산들이 개발되고있다. 150만t정도의 린광석을 캐내고있다.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499km, 자동차길은 7천km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목화, 린회석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료품, 금속제품, 기계류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약 30만명의 기독교도가 있다.

출판보도; 신문 또고프레스

방송 또고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11월 또고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1971년 3월 말리에서 공부하고있는 또고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조선문제》토의에 관한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다 오 메

(다오메공화국)

넓이 11만 2,622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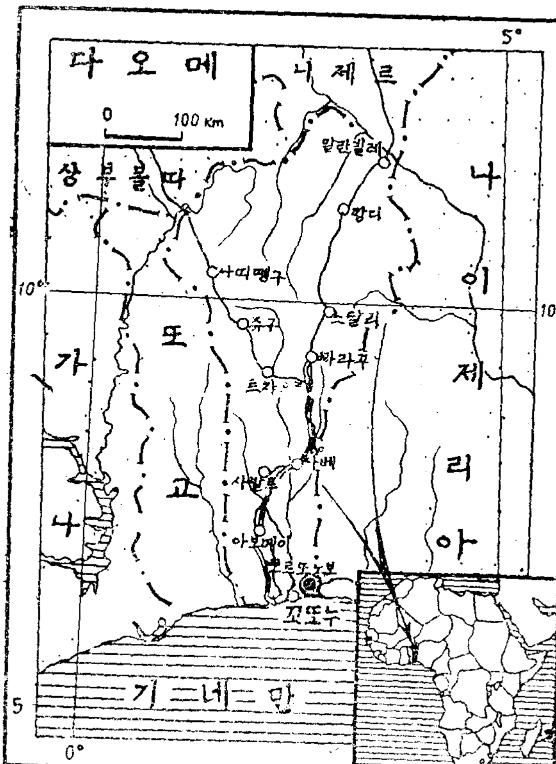
인구 269만명 (1970년)

주민은 폰족, 아자족, 요르바족, 바리바족, 풀베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뽀르또노보 (주민 8만 5,000명)

정부 소재지는 꼬또누 (주민 16만명)



정 치

전국혁명리사회 1973년 10월 19일에 창설, 최고지도기관, 위원장 마티어 께레꾸

군사혁명정부 1972년 10월 26일 12명의 장교들로 구성, 대통령 마티어 께레꾸, 외교부장 미셸 알라다이에

정당, 사회단체; 1972년 10월 26일 혁명후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1973년에 새로 사회단체들을 창설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있다. 녀성전선 1973년

8월 창립

1972년 10월 26일 탁
대사령관이던 마티어 께레꾸의
에 진보적장교들이 군사정변을
친서방적인 마가정권을 뒤집어엎
사혁명정부를 조직하였다.

11월 30일 께레꾸대통령은
메정부정책의 기초는 민족적독립
수하는것이며 국가와 인민이
부원을 책임지게 될것이다. 다른
들과의 관계는 쁠럭불가담, 평등
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호혜 및
적존엄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
정부정강을 발표하였다.

혁명승리후 다오메정부는 이
정치강령을 실
기 위하여 나
경제, 문화 및
기구를 재조직
국가의 권위를
기 위한 일련의
치들을 취하였다

식민지시대로
넘겨받은 팽창된
가기구유지비로
당되는 방대한
을 줄이고 엄격
절약제도를 세우
며 외국독점체들
주인행세를 하지
하도록 하였다.
한 국내의 애국력
을 단합하기 위
대대적인 깜빠니
를 벌리고 통일적
로조, 청년 및
성단체를 내오기
한 사업을 벌리
다.

대외적으로는
른 나라와의 관계
발전시키며 반
혁명력량의 편에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
와 민족적해방을 위한 아프리카피압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
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
전쟁을 일으키자 이스라엘과 외교관
를 끊었다.

1973년에 꾸바 (4월), 리비아
(4월) 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
며 10월에는 방글라데슈공화국을 승
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이상이 농업에 종사한

다. 주요농산물은 종려 (부침땅의 절반이상 약 60만헥타), 커피, 목화, 기장, 조, 강냉이, 벼, 나무감자, 땅콩, 수수, 바나나 등이다.

1972년에 종려기름은 4만 8천t, 땅콩은 3만3천t, 목화는 4만 7천t 생산되였다.

종려씨와 종려기름생산이 경제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매년 5만여t의 종려씨와 1만 6천여t의 종려기름이 수출되고있는데 이것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70%를 차지한다.

께레꾸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다각화방침을 내놓고 식민주의자들의 강요밑에 종려, 야자재배에만 치우치던 현상을 극복하고 나무감자, 고구마, 강냉이, 땅콩, 목화, 커피, 수수, 바나나 등을 재배하고있다.

내륙 언덕지대에서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있다. 소, 양, 염소는 50여만마리, 돼지, 말은 35만마리 정도이다.

나라의 자연부원을 개발하며 민족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주요자원은 금, 철, 린회석 등이다.

공업으로는 종려기름공장, 빵공장, 솜타는 공장, 농산물가공공장, 타일공장, 비누공장, 세멘트공장 등이 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생산이 차지하는 몫은 약 9%정도이다.

철도운수 (총602km) 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 수출품은 종려씨와 종려기름, 땅콩, 목화, 커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천, 원유제품, 금속제품 등이다.

각급 학교 학생수는 16만 5천여명에 달하고있다.

병원이 건설되고 의료봉사시설이 개선되였다.

원시종교 (남부) 를 많이 믿으며 회교 (북부) 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다오메통신

신문 다오 엑스 프레스 (정부기관지), 악씨옹 뽀쀨레르, 로브 누벨, 다오메 앵포르 마씨옹, 르 데모끄라뜨

방송 다오메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2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8년 9월 6일에는 다오메조선친선협회가, 1971년 5월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다오메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오메인민들속에서는 다오메조선친선협회 청년회원들의 《김일성주석의 로작 및 혁명활동략력연구소조》, 《김일성동지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3년에 다오메정부대표단 (1월), 정부기관지 《다오 엑스프레스》사장 (10월) 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2월 5일 정부대표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다오메정부대표단 단장은 금성뜨락또르공장 참관을 마치고 이곳 로동자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조선땅에 이와 같은 기적적인 성과를 창조해 놓게 한 천재는 과연 누구인가? 이 천재란 바로 저명한 김일성원수님이신바 그이는 기적의 창조자이시며 무비의 애국자이시며 력사의 거인이시며 위대한 심장을 지니신 영웅이시며 대중의 단결자이시며 뛰여난 사회주의자이시며 위대한 만능가이시며 대중을 벗으로 하는 위인이시며 교육자이시며 영명한 수령이시며 인류사상의 대변자이시며 모든 방문객들에게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심장 및 자기 손의 귀중한 보물 등을 제공해주시는 크나큰 보물고이시며 세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라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4월 4일부터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다오메를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께레꾸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말씀을 전달하였다.

나 이 제 리 아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넓이 92만 3, 768km²

인구 7천 976만명 (1973년 11월)

주민은 하우사족 (북부), 이보족 (동부), 요루바족 (서부) 등 200여종족이 있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라고스 (주민 170만명)

정 치

련방군사정부 최고군사리사회와 련방집행리사회로 구성된 최고기관이다. 립법권과 집행권을 가진다. 정부수반이 두 리사회의 의장직과 군총사령관직을 겸한다. 수반 야쿠부 고원 (1966년 8월—)

최고군사리사회 립법기관으로서 정부수반과 총참모장, 륙군참모장, 해군 및 공군 사령관들, 주의 군장관들, 경찰총검열관과 부검열관으로 구성된다. 의장 야쿠부 고원

련방집행리사회 (내각) 의장 야쿠부 고원, 외교부장 오코이 아리크포

정당, 사회단체; 1966년 5월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해산되였다.

1960년 10월 1일《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1963년 10월 1일 련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미영제국주의자들의《분렬정책》의 후과로 종족들간의 분쟁이 계속되여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자치권을 가진 4개주인 북부와 남부의 3개주 (동부, 서부, 중부) 가 련방을 형성하고있었다.

정당들도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기 지반을 가지고있지 못하고 부족과 지역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으로 존재하고있었다.

련방정부는 남부출신의 대통령과 북부출신의 총리가 타협정책을 실시하였다.

1966년 7월 29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고원은 1967년 5월 27일 련방의 새로운 체제를 내오고 나라를 12개주로 구성되는 련방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북부지역은 6개주, 동부지역은 3개주) 고원정권이 수립되자 동부의 분렬주의자들은 미제의 지지밑에 련방으로부터 떨어져나와 1967년 5월 30일 이른바 《비아프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결과 100만명의 희생을 낸 30개월간의 내란이 계속되였다.

1970년 1월 12일 3년간의 내란은 련방군의 승리로 끝났다.

내란후 정부는 전쟁피해를 가시고 종족들간의 화목을 이룩하며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1970~1974년간에 동부주에 3억파운드의 자금을 돌렸다.

1970년 1~2월까지만도 비아프라분렬주의자들과 공모하여 정부전복음모를 꾸민 영국《고등판무관》, 미륙군대좌놈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내쫓았다.

1971년 4월 국영석유회사를 창설하였으며 1972년 2월에는 외국석유회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3년 10월 1일 독립 13돐에 즈음하여 한 방송연설에서 고원은 아프리카땅에서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청산하고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

범을 강화하는것이 나이제리아정책의 초석으로 된다고하였다. 또한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프리카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할것이라고 하였다.

1973년 1월 2일부터 영파운드 대신에 전국적으로 십진제 새화폐(단위는 나라와 코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3월에는 농업은행과 공업 및 상업은행을, 6월에는 원유공업개발기금을 창설하였다.

1973년에 민주독일(2월), 알바니아(5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0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부침땅은 령토의 35%에 달한다.

주요농산물은 종려, 코코아, 땅콩, 담배, 목화, 고무 등이다. 종려, 코코아, 땅콩은 그 생산과 수출량에 있어서 자본주의세계에서 2, 3위를 차지한다.

북부의 초원지대에서는 소, 양, 락타 등을 기른다.

공업은 석유, 콜롬바이트, 주석, 우라니움, 중석, 탄탈, 석탄, 금, 쇠돌 등을 캐내는 채굴공업과 원유가공공업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콜롬바이트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85%)를 차지하며 주석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2위이다. 세계 10대석유생산국의 하나로서 하루 평균 200만바렐의 석유를 생산하고있다. 1972년의 석유생산량은 8천 990만t이였다.

철도운수가 기본이며 니제르강을 통한 하천운수도 진행한다. 철길의 총길이는 3천 500km이다.

대외무역이 늘어나고있다. 1972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6억 2천 500만딸라의 흑자를 냈으며 1973년에는 1972년에 비하여 수출초과액이 2배로 늘어났다. 대외무역에서 원유수출이 총수출액의 83%를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코코아, 종려씨, 종려기름, 땅콩, 목화, 콜롬바이트, 주석, 목재,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료품, 기계류 등이다.

1973년에 정부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개주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의 최저임금을 설정할것을 결정하는 법령을 발포하였다.

교육은 라고스의 교육과 이바단, 라고스에 있는 대학들은 련방정부가 맡아보고있으며 주교육행정은 주정부가 맡아보고있다. 따라서 주마다 교육제도도 다르다. 1972년 현재로 리베르쏘주에는 35개의 중학교와 3개의 상업학교, 6개의 기술전문학교, 5개의 사범전문학교가 있었다. 1972년에 대학생수는 1만 9천 400명이였다.

보건사업도 각 주정부들이 제가끔 맡아보고있다. 1973년에 베닌시에 새로운 병원이 건설되였다.

인구의 47%는 이슬람교, 34%는 기독교를 믿으며 나머지는 전통적인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모닝 포스트(련방정부기관지), 데일리 타임스, 데일리 엑스프레스, 데일리 스케취, 나이제리언 모닝 포스트, 뉴스, 썬데이 스타, 나이제리언 위커

방송 나이제리아방송, 카더나북부나이제리아텔레비죤방송, 나이제리아국제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2월 18일 베닌시에서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가, 1970년 12월 라고스에서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5월 나이제리아에 《김일성서점》이 개관되였다.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나이제리아 《김일성동지로작학습연구소조》와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나이제리아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오로로출판사》에서는 그이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정의의 필봉을 높이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3년 2월 4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나이제리아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들이 수령님의 천재적로작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가지고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나이제리아 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유엔총회 28차회의에서 조선문제 토의시 나이제리아대표는 자기 연설에서 조선문제는 조선사람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과 남조선주둔《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1971년 6월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나이제리아《김일성동지로작학습연구소조》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같은해 9월에는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니 제 르

(니제르공화국)

넓이 126만 7,000km²

인구 413만명(1971년 9월)

주민은 하우사족(약 45%), (송가이족(약 20%), 제르마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니아메(주민 8만 6,000명)

정 치

최고군사리사회 1974년 4월 15일 군사정변후 조직된 최고기관, 의장 쿤체 쎄이니

정부 1974년 4월 17일 11명의 군인들로 구성, 국가수반 쿤체 쎄이니(계획부장겸임) 외교 및 협조부장 무무니 제르마오이에 아다무

정당, 사회단체; 1974년 4월 정변후 일체 정당활동금지

1960년 8월 3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61년 2월에 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독립후 니제르정부는 종족간에 복잡하게 얽혔던 문제를 풀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기본과업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경제적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73년까지 6년간 계속된 가물로 인민들은 기아와 고통에 헤메이게 되였으며 정권내에서도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문제를 둘러싸고 의견불일치가 조성되여왔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1974년 4월 15일 군총참모장이던 쿤체 쎄이니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최고군사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하였다.

1973년(1월 4일)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3년에 웽그리아(2월), 벌가리아(3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4월), 방글라데슈(9월)를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국민소득의 약 80%를 농업이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땅콩, 목화, 조, 나무감자, 사탕수수 등이다. 땅콩은 년 20만~25만t, 목화는 1만t정도 생산된다.

축산업은 예로부터 이 나라 인민들의 기본 생존수단의 하나로 되여왔으며 아프리카에서 손꼽힌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락타 등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인 조건에서 물문제해결이 농촌경리발전에서 기본문제로 나서고있다.

경제전반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가내공업과 수공업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쇠돌, 주석, 우라니움, 망간, 중석, 돌솜 등이다. 아직 미개발상태에 있으나 개발된것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길도 발달하지 못하였다. 니제르강에서의 수상운수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요수출품은 땅콩과 땅콩기름, 축산물이며 수출총액의 75%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직물, 자동차, 금속, 기계, 전기설비, 원유제품 등이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글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학령아동의 취학률은 약 10.8%정도이다.

출판보도;신문 르 망 듀 니제르, 쥬르날 오피씨 엘—드 라 레쀼블리끄 듀 니제르, 르 니제르

방송 니제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3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니제르를 방문하였다.

챠 드

(챠드공화국)

넓이 128만 4,000km²

인구 400만명(1970년)

주민은 북부에 아랍족, 하우사족, 투부족과 남부에 사라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느쟈메나(주민 15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 105명(진보당이 전의석 차지), 임기 5년

정부 대통령 프랑수와 똠발바예(1960년—, 총리, 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바바 하싼느

정당, 사회단체; 진보당 1947년에 조직, 독립이래 집권당이며 유일당, 민족부르죠아지와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족주의정당, 총비서 프랑수와 똠발바예, **전국근로자동맹, 진보당청년동맹, 전국녀성동맹**

챠드는 1960년 8월 1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기후상관계로 1월 11일을 국경절로 기념)

1962년 3월 새 헌법을 채택하고 1963년 1월에는 유일당제를 확립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군대와 국가기관내에 잠입하여있던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내쫓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8년 4월 프랑스의 영향하에 있는 《중앙아프리카경제및관세동맹》에서 탈퇴하고 《중앙아프리카국가동맹》에 가입하였다.

1973년 7월 아프리카—말가슈—모리셔스합동기구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1973년 9월 수도이름을 느쟈메나로 고쳤으며 식민주의시기 불리우던 수도의 모든 거리이름들도 고쳐부르기로 하였다.

1973년 4월 26일 똠발바예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침략과 팽창정책을 규탄하였으며 모든 아랍문제 특히 팔레스티나위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1973년 1월 바레인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3월에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벼, 땅콩, 수수, 기장, 사탕수수 등이다. 농업에서 기본이 목화이며 이것은 이 나라 국민총생산액의 20%, 수출총액의 82%이상을 차지한다. 1972년의 목화생산량은 10만 9천t 이였다.

축산업은 적도아프리카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발전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말, 락타 등이다. 약 1천만마리이상의 집짐승이 있다. 인구 1인당 거의 3마리의 집짐승이 차례진다.

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0%미만이다. 솜타는 공장, 기름공장, 가죽공장, 가루가공공장, 원유가공공장, 화력발전소 등이 있다.

1971년에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목화략탈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권의 45%를 차지하는 《코톤챠드》회사를 창설하였다.

챠드호를 비롯한 여러 호수들에서 매년 10만~11만t의 물고기를 잡는다.

철길이 없으며 자동차길도 년중 쓸수 있는것이 거의 없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집짐승, 고기, 가죽, 땅콩 등이며 수입품은 직물, 식량, 일용품, 운수수단, 기계류 등이다.

주민의 약 절반이 회교를 믿으며 그외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1972년 수도에 첫 민족대학이 창설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챠드통신

신문 앵포챠드(일간), 앵포르마씨옹 에꼬노미끄(주간),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듀 챠드

방송 챠드국립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5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공화국창건 스무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챠드정부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까 메 룬

(까메룬련합공화국)

넓이 47만 5,442km²

인구 584만명(1970년)

주민은 반투족, 세미반투족, 풀족, 함족 등 130여종족

공용어는 영국말과 프랑스말

수도 야운데(주민 16만 5,000명)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총의석 120석, 1973년 5월 18일 선거

정부 1972년 7월 3일 구성, **대통령** 엘하지 아흐마두 아히죠(총리겸임), 외교부장 밴쌍 에퐁

정당, 사회단체; 민족동맹 (집권당) 1966년 9월 1일 동서까메룬의 6개 정당들이 통합되여 결성, 위원장 엘하지 아흐마두 아히죠, **전국근로자동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1960년 1월 1일 프랑스령까메룬이, 1962년 2월에는 영령까메룬이 각각 독립하였으며 같은해 10월 1일에는 이 두지역이 통합되여 련방공화국을 이루었다.

1972년 5월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련방을 이루고있던 동서까메룬이 단일한 국가체제인 까메룬련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3년 5월 18일 민족적통일을 더욱 강화하자는 구호밑에 국민회의 선거가 진행되였다. 이리하여 련방국민회의 대신에 통일적인 국민회의가 창설되였다.

까메룬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2년 10월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의무병역제실시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며 아프리카의 해방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3년 10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싸우는 아랍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3년 5월 23일 아프리카통일기구창립 10돐에 즈음하여 한 연설에서 아히죠대통령은 아프리카의 한치의 땅이라도 외국의 통치하에 남아있는한 어느한 아프리카국가도 자신을 실제적으로 자유롭게 느낄수 없다고 하면서 인종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프리카국가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85%가 농사를 한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42%이상이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종려, 목화, 땅콩 등이다. 코코아는 해마다 약 10만t이상 생산되며 이 나라 화폐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1972년에 코코아는 12만 6천t, 커피는 4만 3천 200여t, 벼는 1만 4천t 생산되였다.

목축업도 발전하고있다. 주로 북부와 서부지역에서 소, 양, 염소 등을 기르고있다.

독립후 농산물가공공장, 목재가공공장, 농기구공장과 일련의 경공업공장들이 건설되였다. 1971년 현재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몫은 23.1%이다.

경제적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964년에 국가투자회사가 창설되였으며 1972년 8월 이 회사는 37개의 외국자본과의 합영기업소들에 주권의 10~87%를 각각 차지하였다. 또한 까메룬사람들로서 경영되는 중소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운수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800km이다. 내륙지방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목재, 종려기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원유제품, 기계류, 운수수단, 천, 식량 등이다.

교육사업에서는 《까메룬화》방침을 내놓고 이를 계속 밀고나가고있다.

1971년부터 까메룬교과서를 사용하고있으며 식민지통치시기의 낡은 교수요강을 철폐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였다.

1972년 현재 약 90만명의 어린이들이 소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1969년 현재 비교적 큰 64개 기업소들에서 까메룬간부와 관리원들이 차지하는 몫은 46.2%였다.

주민의 48%가 원시종교를 믿으며 기독교와 회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까메룬통신

신문 유니떼(민족동맹기관지), 라 드레스뛰 까메룬, 쁘레스 드 까메룬

방송 까메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3월 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이 나라 신문《쁘레스 드 까메룬》7월 13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월 23일에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실었다.

1972년 8월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까메룬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5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까메룬을 방문하였다.

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넓이 62만 2,984km^2

인구 164만명(1971년)

주민은 우방기족, 방다족, 만쟈족, 사라족, 페르미족 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방기(주민 29만 8,500명)

정 치

민족회의 1966년 정변후 해산

대통령 장 베델 보카싸(1966년 1월—), 1973년에 종신대통령으로 선포, 일체 립법 및 집행권을 가지고있다.

정부 1973년 4월 6일 내각 개조, 대통령 겸 총리 장 베델 보카싸(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죠세프 포틀로르트

정당, 사회단체; 흑아프리카사회혁명당, 1946년에 창건, 1963년부터 유일당이며 집권당, **근로자총련맹, 녀성동맹, 민족청년동맹**

1958년 12월 1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고 우방기샤리라고 부르던 나라 이름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고쳤다.

1960년 8월 13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1965년 12월 31일 륙군참모장이던 보카싸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반동적인 다꼬정부를 전복하였다. 1966년 1월 헌법을 폐지하고 민족회의를 해산하였다.

보카싸정부는 대내적으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경제적락후성을 극복하는것을 기본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1970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중앙금고》를 국가의 통제하에 넘겼으며 강하천운수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1971년 6월 이 나라의 금강석을 마음대로 략탈해 가던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소피카드》 금강석회사를 내쫓았다.

1973년 10월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승인하였다. 또한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여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로력인구의 약 80%가 농사한다. 부침땅은 약 150만정보이다.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목화와 커피이며 그외 나무감자, 강냉이, 수수, 벼, 땅콩, 담배 등도 심는다. 1년에 목화는 5만~6만 t, 커피는 1만~1만 3천t정도 생산된다.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12종의 질좋은 목재가 생산된다.

공업은 농산물가공업과 광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직물공장, 솜타는 공장, 정미공장 등이 있다.

금강석 채취업이 발전하였다. 매년 60만카라트의 금강석을 캐내고있다. 기타 자원은 거의 개발되지 못하고있다.

철길은 없고 하천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도로의 총길이는 약 2만km에 달한다.

대외무역에서 수출품의 55%는 목화와 커피 등 각종 농산물이 차지하며 그 나머지는 금강석이 차지한다.

1971년 현재 18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었다.

인구의 약 70%가 원시종교를 믿으며 그외 기독교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떼르 아프리깬 (흑아프리카사회혁명당기관지), 쁘레쓰,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쎈트 아프리깬, 방기 라쏘

방송 국립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9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10월 7일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9월 이 나라 정부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적 도 기 네

(적도기네공화국)

적도기네는 리오무니(2만 6천 km²)와 마시아스 느게마섬을 비롯한 기네만에 있는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넓이 2만 8,051km²

인구 35만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이 판그족(리오 무니에서 산다)과 부비족(마시아스 느게마섬에서 산다)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말라보(주민 3만 7,200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 35명

정부 대통령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1968년 9월—외교부장, 국방부장겸임)

정당, 사회단체; 민족유일로동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70년 7월 7일 창건, 1972년 7월 2차당대회에서 민족통일당을 민족유일로동당으로 고침, 위원장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느게마, 당산하에 《마시아스와 함께 전진하는》 청년조직, 녀성조직 등이 있다.

적도기네는 1968년 10월 12일 근 2세기에 걸치는 에스빠냐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룩하였다.

독립후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1969년 3월 5일 제국주의자들의 정변음모를 분쇄하고 이날을 식민주의청산의 날로 정하였다. 적도기네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전국적인 명절로 기념하고있다.

1969년 에스빠냐침략군과 그 군사기지를 철수시켰으며 1970년에는 미제의 군사기지설치제의를 거부하고 미제의 석유회사와 《국제적십자사》의 간판밑에 이 나라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국놈들을 내쫓았다.

1970년 7월 느게마대통령은 모든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유일당인 민족통일당을 창건하였다. 느게마대통령은 민족유일로동당이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인간의 진정한 해방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국가건설을 주장》하며 인민을 비자본주의발전의 길로 인도할것이라고하였다.

1972년 7월 민족통일당 2차대회에서는 당명칭을 민족유일로동당으로 고쳤으며 느게마를 종신대통령으로 선거하였다.

1973년 7월 민족유일로동당 제3차대회에서는 새 헌법을 채택하였나. 대회에서는 산타이사벨을 말라보시로, 페르난도—뽀섬을 마시아스 느게마섬으로 고쳐부르기로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아프리카의 통일과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아랍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나무감자, 담배, 바나나 등이다. 커피는 주로 리오 무니에서 생산(총생산량의 80%)되며 코코아는 마시아스 느게마섬에서 생산 (총생산량의 90%)된다.

매년 커피는 약 8천t, 코코아는 2만 8천~3만 7천t정도 생산된다. 또한 1년에 33만~35만t의 고급목재를 생산하고있다.

공업으로는 세멘트, 제재, 제분, 식료가공 공장 등이 있다.

독립후 락후한 경제를 추켜세우며 민족경제를 창설하기 위하여 경제관리를 적도기네인민들에게 맡기게 하였으며 국가경제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경제발전조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화폐개혁을 실시하고 공화국은행을 창설하였다.

철길은 없고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야자기름, 목재 등이며 수입품은 공업제품, 기계류 등이다.

간부의 《적도기네화》방침에 따라 많은 민족간부들이 양성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디아리오 델라 기네아 에꾸아또리알 (정부기관지)

방송 적도기네방송, 적도기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1월 3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적도기네 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느게마대통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면서 《조선의 통일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해결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유엔총회 28차회의에서는 조선문제에 관한《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0년 11월 적도기네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 사로청6차대회에 《마시아스와 함께 전진하는》 청년조직대표단이, 1972년 4월 사회과

학자대회에 적도기네대표단이 각각 참가하였다.

가 봉

(가봉공화국)

넓이 26만 7,667km^2
인구 64만명 (1971년)
주민은 팡족, 피그미족, 바켈레족, 바니야비족 등 40여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리브르빌 (주민 7만 5,000명)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 70명 (모두 민주당원들이다), 1973년 2월에 선거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이다.알베르 베르나르 봉고 (1973년 2월에 재선)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외무 및 협조담당국무부장 조르쥐 라위리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8년 3월 12일 민주련맹당과 민주사회동맹을 합당하여 조직, 총비서 알베르 베르나르 봉고. 로조련맹 (세계직련에 가입), 근로자전국련맹

1960년 8월 17일 《프랑스공동체》내에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가봉에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강요하여 군대주둔권, 군사기지설치권, 프랑스회사의 면세권까지 빼앗았다.

1967년 11월 대통령으로 된 봉고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종족들에 기초하여 조직된 다당제를 폐지하고 유일당을 창건하였다.

가봉정부는 1967년에 미제 《평화군》놈들을 모두 내쫓았다.

1972년에는 외국독점체들의 주권의 많은 몫을 사들이고 가봉사람들을 이 회사의 책임적인 자리에 앉혔다. 또한 1974년 3월 1일부터는 이 나라에서 외래독점자본가들이 캐내고있는 우라니움값을 올리기로 하였다.

1973년 2월 대통령 및 국회선거가 진행되였으며 봉고가 다시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3년 4월 애급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림업, 목재가공업, 채굴업이다.

원목생산과 목재가공업은 대외무역의 37%를 차지한다. 원목생산량은 매년 230만m^3에 달하는데 그중 190만m^3은 합판가공에 적합한 흑단이다.

흑단생산량은 세계 제1위이며 세계시장을 거의 독점하고있다. 이외 4만여m^3의제 재목파 8만여m^3의 고급합판이 매년 생산되고있다.

채굴업은 대외무역총액에서 60%를 차지한다.

석유는 매년 540만t정도생산되는데 아프리카석유생산국들 중에서 네번째 (리비아, 나이제리아, 알제리, 다음) 자리를 차지하며 이 나라 총 수출량의 5분의 2를 차지한다.

망간은 약 2억t 매장되여 있는데 그 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네번째자리를 차지한다.

1972년에 망간생산량은 200만t이였다.

이외 천연가스 (2천 100여만m^3), 우라니움 (1천 400t) 등도 채굴된다.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12%, 수출총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몫은 1.5%밖에 안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년산 약 4천t)

커피, 마니오크 (17만t), 바나나 (8만t), 땅콩 (1만여t) 등이다.

축산업은 거의 없다.

운수에서는 강하천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없고 6천여km의 도로가 있다.

주요항구는 뽀르장띨과 리브르빌항이다.

아프리카나라들중 비행장이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여있는데 23개의 비행장중 3개는 국제적비행장이다.

경제의 많은 부문이 외국자본에 의존하고있다.

아프리카나라들중 취학률이 비교적 높다.

도시에서는 기독교가 우세하며 종족에 따라 서로 다른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가봉통신

신문 악듀알리떼 가봉내즈, 가봉 도쥬르듀이, 가봉 마땡, 르 빠뜨리오뜨

방송 가봉방송, 가봉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꽁 고

(꽁고인민공화국)

넓이 34만 2,000km^2
인구 96만명 (1971년)
주민의 97%는 반투족이며 피그미족이 약간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브라자빌 (주민 20만명)

정 치

민족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1973년 6월 24일 115명의 대의원 선거

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 (1968년 12월—, 1972년 12월 선거) 1973년 7월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 되며 국가리사회 위원장으로 된다. 5년임기로 로동당 대회에서 선거한다.

국가리사회 최고집행기관, 당정치위원 5명, 민족인민회의 대의원 5명 모두 10명으로 구성, 민족인민회의와 내각을 지도한다. 위원장 마리엔 느구아비 (민족보위및안전부장 겸임)

정부 1973년 8월 30일 구성, 총리 겸 계획부장 앙리 로뻬즈, 외교부장 다비드 샤르레 가나오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9년 12월 31일 창건, 당의 리론적 및 조직적 기초는 맑스—레닌주의이며 꽁고에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공포, 위원장 마리엔 느구아비, 로동조합총련맹, 농업근로자직업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혁명동맹, 꽁고조선친선협회 1968년 7월 결성.

1963년 8월 애국적인민들의 대중적인 파업과 폭동에 의하여 율루반동정권이 타도되고 혁명의 승리가 이룩되였다.

혁명승리후 꽁고정부는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각종 예속적인 조약들과 협정들을 폐기하고 외국군사기지와 병영들을 철폐하였다. 또한 외래독점체들의 기업소를 국유화하였으며 새 국가기구를 창설하고 진

보적인 사회경제개혁들을 실시하였다.

1968년 7월 31일 군총사령관이였던 느구아비가 정변을 일으키고 혁명리사회를 창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용감한 꽁고인민은 1968년의 〈7월 31일운동〉이후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꽁고로동당과 국가리사회의 올바른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민족민주주의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으며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마사버리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며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7월 31일운동》후 꽁고인민들은 헌법을 폐지하고 집권당이였던 민족혁명운동당의 정치국을 해산하였으며 1969년 12월 31일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는 꽁고로동당을 창건하고 꽁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2년 12월 로동당비상대회에서는 새 헌법초안을 채택하였으며 1973년 2월 20일 경찰을 해산하고 그 기능을 군대에 넘겨주도록 하였다. 4월에 진행된 꽁고로동당과 그의 대중조직들의 제1차전국대표자회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외래자본주의의 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원칙에 기초한 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정치로선을 채택하였다.

1973년 6월 24일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날 최고주권기관인 민족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회의를 선거하였으며 7월 12일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새 헌법에는 《꽁고인민공화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이며 주권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지적하였다. 헌법에 의하여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새로운 국가리사회가 구성되였으며 총리제를 새로 내왔다.

10월 프랑스공동체에서 탈퇴하였으며 프랑스와 맺었던 협조협정들을 페기하였다.

1973년에 민주독일 (3월), 리비아 (4월), 에스빠냐 (1월) 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9월에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승인하였고 12월에는 칠레군사정권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림업이며 주민의 약 80%가 여기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나무감자, 좁쌀, 기장, 수수, 땅콩 등이며 과거에는 심을수 없다던 벼, 커피, 사탕수수 등을 심고있다.

8월혁명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농업회사를 국유화하고 국영농업회사, 농목장, 농업협동조합들을 창설하였으며 국가의 유일적통제밑에 농업생산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이 나라에는 6만여헥타이상의 땅을 가진 20여개의 농목장들이 있다.

산림은 전령토의 58.5%에 달한다. 해마다 50만m^3의 목재를 수출하고있다.

1971년 2월에 프랑스독점회사들의 산림소유권이 페기되여 8만여헥타의 산림이 국가의 소유로 되였다.

공업생산액은 국민총생산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공업에서는 광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금, 연, 주석, 동, 소금, 원유, 천연가스 등이 채굴된다. 1973년에 180만t의 석유를 채취했다.

꽁고정부는 《자력에 의하여 자립적경제를 건설하자》는 구호밑에 프랑스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고 특히 국영경제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국영전력회사인 《쏘씨에떼 나씨오날 뗴네르쥐》를 비롯하여 루떼뜨세멘트공장, 낀순더방직종합공장, 물고기가공공장, 국영목재종합공장 등이 건설되였으며 1972년초 현재 국영부문은 공업제품생산의 13%, 국내상업류통의 4%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영부문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며 국유화된 기업소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소들에 생산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혁명위원회들과 로조집행부를 창설하였다.

이리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적지않은 공업제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으며 천과 성냥을 비롯한 일부소비품의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개인 기업가들이 생산하는 물건값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실시하고있다.

로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사회보험제와 유급휴가제가 실시되고있다.

학령아동의 거의 전부가 학교에 다니고있으며 인구의 대부분이 글을 읽을줄 알며 4분의 1이 쓸줄 안다. 학령아동의 취학률은 95%로서 적도아프리카나라들중 제일 높다. 1972년현재 학생수는 28만명이였다.

1972년 브라자빌에 첫 국립종합대학이 개설되였다. 종합대학의 모든 학부들에서는 의무적으로 맑스—레닌주의 기본을 배우고있다.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주민의 30%정도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꽁고통신

신문 에뚬바 (로동당기관지), 브라자빌, 라 부아 아프리깬, 꾸리에르 드 아프리끄, 브라자빌로와, 쁘디쥬르날 드 브라자빌,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듀 꽁고

방송 꽁고《혁명의 소리》방송, 브라자빌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에 우리 나라와 과학기술협조협정과 무역 및 지불협정을 맺었으며 또한 우리 나라가 꽁고에 경제 및 기술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68년 12월에는 문화협정, 1967년 3월에는 통신 및 방송협정, 9월에는 우편물교환협정을 각각 맺었다.

1968년 7월 25일 꽁고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에 꽁고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 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등을 무었다.

1970년 9월 우리 나라의 원조에 의하여 베두성냥공장이 건설되였다.

1973년에 신문《브라자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1973년 신년사와 수령님의 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실었다. 또한 통신과 방송에서는 수령님의 6월 23일연설과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소개하였다.

꽁고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 7월 19일 느구아비대통령은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전달받고 5대강령은 조선의 통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침이라고 하면서 《꽁고로동당과 꽁고인민공화국 정부는…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조선의 유엔가입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꽁고에서 우리 나라 영화상영주간이 진행되

였다.

1973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느구아비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8월 1일과 2일에 걸쳐 두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8월 3일 느구아비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 성원들에게 공화국훈장과 메달을 수여하였다.

8월 4일 우리 나라정부가 꽁고정부에 경제 및 기술 문화적 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두 나라 정부사이의 합의서가 조인되였다.

6월에는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대표단 (5월, 8월), 집단체조대표단 (4월)이 꽁고를 방문하였다.

까 빈 다

(뽀르뚜갈식민지)

넓이 7,770km²
인구 5만 8,000명
주민은 대부분이 반투족이다.
공용어는 반투말
행정중심지 까빈다

정 치

1866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3년부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리고있다.

행정적으로는 앙골라에 귀속되여 뽀르뚜갈침략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당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물고기잡이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코코아, 종려, 땅콩 등이다.

해마다 30만m³의 목재도 생산된다.

주민들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자 이 르

(자이르공화국)

넓이 234만 5,409km²
인구 2,248만명(1971년)
200여종족이 있는데 그중 반투족이 약 84%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킨샤사 (주민 150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 420명, 임기 5년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7년,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 (1965년 11월—, 1970년에 선거)

전국집행리사회 1972년 10월 18일 정부대신 6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최고집행기관, 위원장 모부투 쎄쎄 쎄꼬 (무력담당국무위원겸임), 외무 및 국제협조담당 국무위원 움바디 루떼떼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운동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7년 5월에 창건, 근로자전국동맹

1965년 11월 당시 군사령관이던 모부투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금후 5년간 비상사태》하에서 나라를 통치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1967년 6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민족회의를 일원제로 개편하였다.

1967년 유일당인 인민혁명운동당을 창건하였다.

모부투정부는 식민주의적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신을 발양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이르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971년 10월 27일 민족적특성을 살려 나라이름을 자이르공화국으로 고쳤으며 1972년에는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되던 도시와 거리들의 이름을 자이르식으로 고쳤다.

킨샤사에는 민족적영웅인 루뭄바의 동상을 세우고 그가 살해된 거리의 이름을 루뭄바거리로 고쳤다. 또한 일부다처제를 폐기하고 녀성들을 사회생활에 광범히 인입하였다.

1972년 12월 25일 중소상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금지하였으며 1973년 2월에는 벨지끄독점자본이 통제하고있던 전력공업회사인 《렐렉트리끄》를 국유화하였다. 11월에는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농업부문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12월 20일 인민혁명운동당 정치국과 전국집행리사회 합동회의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는 석유회사들의 석유저장고와 송유관, 기타 설비들을 국유화할것을 결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중립》을 강조하며 아프리카나라들의 통일단결과 아프리카사람들을 위한 아프리카를 주장하면서 아프리카의 민족적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백인인종주의자들을 규탄하고있다.

1972년 11월 장개석도당파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동서독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를 승인하였다.

기네, 모리따니, 소말리아, 잠비아, 우간다와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있으며 1972년 10월 29일에는 아프리카통일기구를 대표하여 중동문제의 《평화적해결책》을 모색하면서 10명으로 구성된 《아프리카통일기구위원회》를 킨샤사에서 결성하였다.

1973년 2월 17일에는 로데시아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잠비아인민의 투쟁을 지원하여 100만딸라를 기증하였다.

1973년에 헝가리아 (6월), 꾸바 (9월) 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9월)를 승인하였다. 10월에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모부투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경제기술협조협정과 무역협정을 맺었다.

또한 인도, 버마, 소말리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채광업과 공예작물생산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우라니움 (매장량에서 세계 제1위), 동, 석, 금강석, 망간, 중석, 은, 탄탈, 라디움, 코발트, 연, 아연, 게르마니움, 철 등이다.

금강석과 코발트채굴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1년에 금강석은 1천 400만~1천 600만카라트, 코발트는 1만여톤, 동은 36만~40만 7천톤, 망간은 34만t정도 생산된다.

100여개의 미제독점회사들이 우라니움광의 90%, 코발트광의 전부, 라디움, 중석 등 군수원료의 절반이상을 통제하고있다. 일본독점체들도 자이르에 합영회사를 설치하였다.

주민의 70%가 농사한다. 부침땅

은 약 300만 헥타이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종려, 야자, 목화, 담배, 고무이며 이밖에 차, 삼, 강냉이, 나무감자 등을 심는다.

1972—1973농업년도에 커피는 8만 1천톤생산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우라니움, 동, 금강석, 망간 등 광석과 야자기름, 커피, 고무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광산기계와 설비품, 식량, 운수수단, 일용품, 석탄, 원유제품 등이다. 광물은 수출총액의 80%, 예산수입의 60%를 차지한다.

인구 1인당 국민소득은 90딸라이다.

출판보도; **통신** 자이르통신

신문 르 쁘로그레, 쌀롱고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2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나라 립장을 지지하였다.

1973년에 자이르대표단(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부 룬 디

(부룬디공화국)

넓이 2만 7, 834km²

인구 362만명(1971년)

주민중 와투치족(키가 가장 큰 종족, 평균 2m)이 12. 8%, 바후투족이 86. 4%를 차지하며 그 밖에 피그미족(키가 제일 작은 종족, 평균 1. 3m) 등이있다.

공용어는 프랑스말과 키룬디말, 상업용어로 스와힐리말도 쓴다.

수도 부줌부라(주민 9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대통령 미쉘 미촘베로(1966년 11월—), 국가수반으로서 모든 립법 및 집행권을 행사하며 임기는 7년이다.

정부 1972년 7월 14일 14명으로 구성, 총리 니아모아 알빈, 외무협조및계획 부장 아르떼몽 씸바나니예

정당, 사회단체;민족통일진보당 1959년에 창건, 1966년 12월 유일당으로 선포, 총비서 미쉘 미촘베로, **근로자총동맹**, **르와가쏘레혁명청년동맹**

1966년 11월 28일 총리이던 미촘베로가 느타레 5세의 반동적인 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공화국을 선포한후 부룬디정부는 《통일, 로동, 진보》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 식민주의,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국가행정기관에 남아있던 백인식민주의자들을 모두 내쫓았으며 제국주의독점체들을 국유화하고 식민지교육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종족간의 반목을 조성하여 부룬디를 분렬시키며 동족상쟁을 일으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으로 하여 1969년 10월 바후투족들의 반정부음모가 있었으며 1972년 4월에는 대통령암살미수사건이 발생하고 소수집권종족인 와투치족을 반대하는 바후투족과 왕권지지파세력의 무장반란이 있었다. 이 무장반란은 전국적범위를 포괄하였으며 8만여명의 사망자와 1만여명의 피난민을 내고 진압되였다. 미촘베로는 국내에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5월 1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각을 해산하였으며 7월 14일 새정부를 구성하였다.

그후 정부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책동에 맞서기 위하여 종족대표들로 민간자위대를 조직하였다.

1973년 3월 자체의 민족통계국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1973년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부줌부라에서 제1차전국청년축전이 진행되였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불간섭 및 국제적협조를 기본로선으로 제기하고있다.

1973년에 윁남(4월), 알바니아(11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이스라엘침략자(5월)들과는 외교관계를 끊어버렸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축산업이다.

농업은 오래동안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아라비카종 커피(수출총액의 80%차지), 목화 등 수출작물생산에 치우치고있으며 그외 벼, 차, 수수, 강냉이, 고구마 등을 심는다.

정부는 이러한 기형성을 없애고 농촌경리의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알곡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협동조합들을 조직하는 한편 토지를 개량확장하여 알곡생산면적을 늘이는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이리하여 벼생산량은 1만 5천톤수준에 이르고있다. 커피는 약 5만t, 목화는 약 7천t 생산된다.

고원지대의 자연방목지를 리용하여 소, 양, 염소 등을 기른다. 소를 많이 기를데 대한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여러 지방에 국영목장들이 새로 생겨났으며 선진사양방법을 받아들이고있다.

공업으로는 금, 주석을 캐내는 광산과 농산물가공공장, 세멘트, 식료, 방직 공장이 몇개 있을뿐이며 수도 부줌부라를 비롯한 여러곳에 화력발전소들이 있다.

경제건설을 위하여 이 나라에서는 사회적로동(로요로동)으로 황무지개간, 관개공사, 건설사업들을 벌리고있는데 부줌부라주에서만도 500여개의 공공건물이 건설되였다.

철길이 없으며 자동차운수와 탄가니카호를 통한 수상운수가 기본이다. 1973년에 므랍비아—끼제가를 련결하는 54km의 포장도로가 새로 건설되였다.

수출품의 98%는 농산물이다. 주요수출품은 아라비카종 커피, 목화, 차, 짐짐승, 축산물가공품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제품, 일용품 등이다.

교육발전을 위하여 1972년에는 국가예산의 23%, 1973년에는 국가예산의 25%를 이 부문에 돌렸다. 1973년에 학생수는 20여만명이였다.

전국도처에 병원과 진료소들이 건설되고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도 개선되고있다.

주민의 약 절반은 기독교를, 그외는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마잠베리(민족통일진보당기관지), 유니옹 에 라 떼볼류시옹, 미긴베, 앵포르 부룬디, 부룬디 크레띠앵, 인뚬 우부무에

방송 부룬디혁명의 소리방송, 코르다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3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3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2년 2월 우리 나라가 부룬디에 농기구공장을 건설해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1971년에 부룬디종합대학생들이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를, 기네에서 공부하고있는 부룬디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서는 부룬디대통령특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수령님께 보내는 미촘베로대통령의 친서와 선물을 전달하였다.

1973년에 신문《보이스》7월1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5대강령요지를 실었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부룬디는 조선문제에 관한 《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립장을 지지하였다.

루 안 다

(루안다공화국)

넓이 2만 6,338km²

인구 359만명(1970년), 아프리카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주민은 바후투족(약90%), 와투치족(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종족, 평균2m, 9%), 피그미족(세계에서 키가 가장 작은 종족, 평균1.3m)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끼갈리(주민 2만 6000명

정 치

전국평화및통일위원회 1973년 7월 5일 정변후 조직,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있다. 위원장 쥬베날 하비알리마나

정부 1973년 8월 1일 13명으로 구성, 대통령 겸 국방부장 쥬베날 하비알리마나, 외무및 협조부장 느스깔이쉐 알오이스

정당, 사회단체; 파르메후투당(바후투족을 대표), 민족동맹(와투치족을 대표), 아프르소마(사회진보협회), 전국청년동맹 등이 있었으나 1973년 7월 5일 정변후 나라의 일체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은 1년간금지되였다.

1973년에 들어와서 루안다의 대내외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농업생산이 떨어지고 식량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2월에는 집권종족인 바후투족학생들과 와투치족(독립이전에 루안다를 지배하던종족) 학생들간에 충돌사건이 일어나 300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회적혼란이 조성되였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대립되여 오던 종족간의 분쟁을 또다시 격화시킬 위험에까지 이끌어 갔다.

5월에 국회가 새 헌법을 채택하여 대통령선거에서 3선밖에 받지못하게 된 독립직후의 헌법을 페지하고 까이방다를 2개월후에 있게될 대통령선거에서 유일립후보자로 다시 내세우고 그 임기를 무제한 연장한 것으로하여 정권내부에서도 불만이 조성되게 되였다. 또한 린접나라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였다. 1972년 4월 부룬디에서의 집권종족인 와투치족을 반대하는 바후투족의 무장반란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여 전쟁대치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우간다와의 관계에서는 우간다에서 추방된 이스라엘인들이 루안다에 들어가게 된것을 계기로 계속 악화되여 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1973년 7월 5일 경비및경찰부장이였던 하비알리마나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독립이래 정권을 잡고있던 바후투족출신인 까이방다를 내쫓고 정권을 잡았다. 하비알리마나는 《전국평화및통일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전국회를 해산하고 이전 대통령과 정부성원들을 전부 연금하였다. 그리고 1년동안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8월 1일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하비알리마나는 부족적 또는 지역적 차이를 없애는 정책들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평화와 민족적 단결의 재확립을 호소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외국 및 국제기구들과 체결한 모든 협정들과 조약들을 존중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0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토지는 매우 메마르며 세대당 평균 0.5헥터 차례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목화, 차,바나나,제충국,콩, 감자, 고구마 등이다. 년평균 커피는 12만t이상, 차는 700만~900만, 바나나는 150만~160만t, 콩은 14만t, 감자는12만t, 고구마는 32만t정도 생산된다. 바나나, 감자, 고구마를 주식으로 하고있는데 최근년간 농업생산이 줄어들어 곤난을 겪고있다.

공업으로는 채굴업과 소규모의 가공공장들이 있다.

1970년에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였다. 년산 2천t정도의 주석(수출의 40%차지), 100~200t의 중석과 베릴리움, 30t의 탄탈을 캐내고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차, 제충국, 바나나, 주석, 탄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운수수단, 기계, 천 등이다.

2천여개의 소학교, 20여개의 중학교, 4개의 대학이 있다. 학령아동의 70%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소학교 학생수만도 42만 5천명이나 된다.

1인당국민소득은 약60딸라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임하보, 끼니아 마제까, 루안다 까르떼프르 아프리끄

방송 루안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4월 2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5월 6일 부룬디에 있는 루안다인들이 《김일성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으며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루안다학생들이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1년 6월 루안다전국청년동맹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우 간 다

(우간다공화국)

넓이 23만 6,036km²

인구 1,013만명(1971년)

38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지고있는데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부간다족을 비롯하여 20만명이상씩 차지하는 10개 종족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1973년 8월에 스와힐리말을 국어로 선포하였다. 각 종족은 자기의 고유한 말을 가지고있다.

수도 캄팔라 (주민 33만 1,000명)

정 치

민족회의 1971년 1월 정변후

해산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으로 되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이디 아민 다다 (1971년 1월—), 외교부장 엘리자베스 바가야, 국방부장 프랜시스 냥괴소
정당, 사회단체; 1971년 10월 정변후 모든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맺은 모든 예속적 조약과 협정 및 군사동맹을 파기하며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정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며 혁명력량을 묶어세워 사회의 혁명적개혁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330페지)
1971년 1월 25일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아민대통령은 우간다에 남아있던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고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섰다.
아민정부는 1972년초에 《군사고문》, 《외교관》, 《평화군》 등의 탈을 쓰고 이 나라에 기여들어 파괴음모책동을 일삼던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내쫓았으며 1972년 8월 5일 아민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이해 12월말까지 나라의 주요경제명맥을 장악하고있던 5만명의 영국계 아세아사람들이 우간다에서 쫓겨났다. 영국반동정부가 아세아사람 추방계획에 정치, 경제적 압력과 위협 공갈로써 보복하려고 하자 아민대통령은 10월 12일 영국고등판무관과 460여명의 영국인 기술자, 전문가, 교육인들을 추방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아민대통령은 《우간다인민은 자기 나라의 완전한 주인》이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11월 2일 외국인 항공회사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키고 11월 29일 《일체 외국인건물들을 정부가 인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외국인소유였던 차농장들과 공업, 농업 및 운수 분야에서 영국과 미국인 소유의 8개 대회사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3년 1월에는 500여개의 회사들을 국유화할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영국인소유의 일체 회사와 농장을 몰수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우간다군인들과 정부에 대하여 악선전을 해오던 월간지 《우간다 스타》의 발행을 금지시켰으며 1972년 12월 1일에는 영국인 소유의 일간신문 《우간다 아규스》를 국유화하고 신문이름을 《우간다 소리》로 고치였다.
1972년 12월 나라의 유명한 명승고적들과 주요 광장, 거리의 이름들을 우간다와 전아프리카의 민족적영웅들과 세계의 저명한 활동가들의 이름을 따서 부르도록 하였다.
대외관계에서 우간다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3대륙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2년에 10개의 아랍나라들과 외교관계를 회복하였으며 이 나라 반동들과 결탁하여 정부전복음모를 꾸미고있던 이스라엘과 외교관계와 일체 무역거래를 끊었다.
1973년 4월 미제가 우간다에 대한 《원조》를 중지하자 《경제적독립전쟁》을 선포하고 미제에게 더욱 강경한 립장을 취하였다.
7월 아민은 닉슨에게 우간다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에게 지워진 《워터게이트사건》이나 옳게 처리하라고 하면서 미제의 내정간섭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또한 아민대통령은 미제 《평화군》 112명이 루안다로 가던중 우간다비행장에 내렸을 때 비행장에 48시간 강제억류시켜놓고 우간다주재 미국대리대사놈에게 루안다내정에 절대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미제 《평화군》 전원을 자이르로 보냈다.
중동전쟁이 일어나자 아민은 우간다주재 미국대리대사에게 만일 미국이 중근동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외교관들을 포함하여 우간다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을 감옥에 잡아넣겠다고 하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아민은 애굽과 리비아에서 훈련받고있던 전체 우간다 장교들에게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에 합류할것을 명령하였으며 우간다에 있는 정규군 2천명을 중동전쟁에 파견하였다.
1973년에 민주독일 (2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9월), 남부웰남공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60%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2만 5천km^2이며 그중 4분의 3에 목화와 커피를 심는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년산 7만 5천~8만t) 와 커피 (년산 20만~24만t), 차이며 이외 담배, 강냉이, 조, 수수, 바나나, 땅콩 등이다.
동남부고원의 초원지대에서는 양, 염소 등을 기른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주석, 금, 은, 린회석, 망간, 코발트, 쇠돌 등이다. 해마다 동은 1만 6천~1만 8천t, 주석은 250t, 중석은 180~200t 정도, 전력은 약 7억 3천 700만KwH 생산된다.
호수와 강하천들에서 년산 12만t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다.
우간다경제는 외국자본의 예속하에 있었으나 아민정권이 수립된 후 경제의 《우간다화》를 위한 정부조치에 의하여 1972년 12월에는 모든 소매상업이 우간다인들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큰 차재배농장들과 국내에서 활동한 대다수의 외국회사들과 상사들이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대외무역 및 개발을 위한 《리비아아랍우간다은행》이 새로 창설되였다.
1973년 1월에 있은 정변 두돐 경축행사에서 아민대통령은 《우리는 제1단계 경제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우리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고있으며 농업기업소들이 제품을 생산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수상운수가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철길은 1천 200Km, 자동차길은 2만 5천km정도밖에 안된다.
주요수출품은 목화와 커피 (수출총액의 90%), 주석, 중석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금속제품, 기계, 화학제품, 원유제품 등이다.
독립후 교육발전에 힘을 돌렸으나 글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75%나 된다. 영국계 아세아사람들을 몰아냄으로써 1만동의 주택과 많은 학교들이 우간다사람들에게 돌아왔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있다.
출판보도; 신문 피플, 우간다 베이숀, 오무쿨 벰베즈, 드윌 르와크, 아루페타 로보 메와, 무시지, 우간다 소리
방송 우간다방송, 우간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8월 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10월 16일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3년 9월 국방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간다정부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9월 13일 대표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3년에 신문 《보이스》 8월 2일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실었다.

이해에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10월), 집단체조대표단 (5월)이 우간다를 방문하였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제국)

넓이 122만 1,900Km^2

인구 2,700만명(1973년)

주민은 암하라족(40%)과 갈라족(40%)이 기본이며 그외 소말리아족과 산가리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암하라말이며 영국말과 아랍말도 통한다.

수도 아디스 아바바 (주민 약 80만명)

정 치

황제 부계 세습제이다. 하일레 셀라씨에 1세(1930년 1월―), 1955년에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황제는 행정, 립법, 군사, 외교 분야에서의 최고결정권, 상원, 총리, 부장, 재판관, 지사, 시장의 임명 및 파면권, 군대의 편성권,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군최고사령관이며 교회의 수반이다.

국회 상하량원제, 하원은 250명으로서 일반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 상원은 125명이며 황제가 임명한다. 임기는 6년

정부 1974년 3월 구성, 총리 엔달카체우 마콘넨, 외교부장 제브레 셀라씨에, 국방부장 아비아베베

정당, 사회단체; 정당은 없다. 민족애국련합회 황제정권을 옹호하는 유일한 합법적정치조직, 에리트레아해방전선 에리트레아의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민주독일, 애급, 알제리, 소말리아, 수리아, 민주예멘 등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전국 로총, 전국학생동맹 위원회, 기독교청년 련맹

19세기말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에 강점당하였으며 1889년에는 이딸리아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이딸리아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략탈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과 영국과 프랑스 대 이딸리아의 대립은 제1차 에티오피아전쟁(1895—1896)을 일으켰으며 결과 에티오피아는 일단 독립국으로 되였다. 1930년 하일레 셀라씨에가 왕위에 올라앉았다.

1935년 이딸리아가 제2차에티오피아전쟁을 일으키고 에티오피아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었다. 1941년 제2차세계대전에서 이딸리아가 패망하자 영제국주의자들이 에티오피아에 대신 기여들었다.

1941년 5월 5일 셀라씨에 1세가 다시 왕위에 올라앉았다.

에티오피아의 동북부에 자리잡고있는 에리트레아는 1941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었으며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유엔의 《결정》으로 1952년 9월 에티오피아에 편입되였다가 1962년 12월 에티오피아의 한개 주로 되였다.

에티오피아는 립헌군주국으로서 정당도 없고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다.

국회와 정부의 주요한 자리도 모두 왕족일파가 차지하고있다.

에티오피아는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하였다.

1966년 9월 남조선강점《유엔군사령부》에서 자기의 대표단을 철수하였다.

1954년 5월에는 미제와 90년간의 예속적인 《군사기지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의하여 마사와항은 미제의 해공군기지로 되였으며 그 대가로 매년 500만딸라의 군사《원조》를 받고있다. 아스마라에는 미제의 해외통신기지중에서 가장 큰 통신기지가 있다.

1973년 11월 아디스 아바바에서 진행된 제8차아프리카통일기구 성원국 외교부장들의 비상회의에서 셀라씨에는 대륙의 어느 일부가 외국의 지배하에 남아있는 한 아프리카는 항구적인 평화와 진보를 확보할수 없다고 언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랍령토강점을 규탄하고 남아프리카의 식민주의 및 인종주의 정권들에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기 위해 아프리카통일기구 성원국들은 호상 련대성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10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여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3년에 셀라씨에 1세는 미국(5월), 쏘련(10월)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인구의 95%가 농목축업을 한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65%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80만헥터에 달한다. 대부분은 국가와 대지주, 교회들이 차지하고있으며 농민은 30%만이 땅을 가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수출총액의 60%차지)이며 그외 강냉이, 밀, 보리, 유지작물,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을 심는다.

커피재배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종사한다.

부침땅의 5.8%가 커피밭이다. 1헥터에서 평균 270kg의 커피를 거두어들인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하천류역을 개발하며 일부 지역을 선택하여 계획적으로 농장과 농호들에 차관, 비료, 종곡, 개량농기구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있다.

아와스강안의 17만 5천헥터의 땅중에서 5만 2천헥터의 땅이 관개되였는데 이 지역에서만도 이 나라에 필요한 식용사탕과 전국목화생산량의 64%를 생산한다.

공업으로는 방직, 식료품, 피혁, 건재 등 일련의 경공업공장들이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공업이 5%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은, 망간, 석, 동, 류황, 운모, 소금, 니켈, 철, 갈탄, 우라니움 등이다.

공업발전을 위하여 에티오피아인들의 기술관리능력을 높이며 합동기업체에서의 에티오피아의 자본의 비중을 점차 늘이는 《에티오피아화》를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매년 관광업으로 1천 500만에티오피아딸라를 얻고있다.

1962년부터 전국적으로 문맹퇴치사업을 벌리고있으나 학령아동의 70%가 학교에 못간다. 에티오피아의 대학에서는 3년간 공부한후 농촌이나 사회에 나가서 1년간 일하고 다시 대학에 돌아와서 1년간 공부한 다음 졸업하게 되여있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기독교를 믿으며 그외에는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에티오피아통신

신문 아디스 제멘, 에티오피안 헤랄드, 아디스 스와르, 퀘티디아노 에리트레아, 산데크 알라마르친, 에티오피 드오쥬르듀이

방송 에티오피아방송, 에티오피아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3월말부터 4월초에 걸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서를 셀라씨에황제에게 전달하였다.

소 말 리 아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넓이 63만 7,657km²
인구 450만명(1971년)
주민은 대부분이 사마르족과 사브족이며 그외 아랍사람, 인도사람, 에티오피아사람이 있다.
공용어는 소말리아말
수도 모가디쇼(주민 25만명)

정 치

최고혁명리사회 최고립법기관, 25명으로 구성,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1969년 10월—)
정부 1973년 3월 27일개조, 총리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외무담당국무비서 오마르 아르테흐 갈리브, 국방담당국무비서 모하메드 알리 사마테르
정당, 사회단체: 1969년 10월 21일 혁명후 모든 정당, 사회단체는 일시 금지되였다.

1969년 10월 21일 소말리아 륙군이 혁명을 일으켜 반동적인 에갈정권을 뒤집어엎고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를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혁명리사회를 조직하였다. 최고혁명리사회는 헌법을 폐지하고 국회와 정당들을 해산하였으며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혁명승리후 소말리아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가면서 나라의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0년 2월까지 이 나라에 기여들어 파괴암해책동을 일삼던 200여명의 미제《평화군》놈들을 몽땅 내쫓았다.

1970년 5월에는 외국인소유의 모든 은행과 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1972년 2월에는 사회주의사상을 선전하는 전국적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최고조정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각 주들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군인들 및 사회단체 대표들로 지방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73년 1월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는 사법일군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소말리아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주되는 목적은 모든 공민들의 법률상 평등과 정의 및 로동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무계급사회를 건설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73년 1월 21일 최고혁명리사회는 전재수입을 국가가 독점할데 관한 법령, 주민들에게 집짐승용 약을 나누어줄데 관한 법령, 영화자치국을 내올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2월에는 목화와 유지작물의 수매 및 판매 사업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족문화건설을 위하여 1972년 10월 21일 민족문자를 제정하며 소말리아말을 공용어로 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1973년 1월 21일부터 모든 일간 및 주간 신문들을 소말리아어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반제적이며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싸우는 애급, 수리아 인민을 지원하여 지원병파견을 위한 등록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물질적지원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과 농업이다. 주민의 약 3분의 2가 유목 및 반유목민이며 순수농민은 10%정도이다.

주요집짐승은 락타와 소이며 닭, 염소, 양도 많이 기른다. 큰뿔난집짐승은 280만마리, 락타는 250만마리, 양은 390만마리, 염소는 470만마리 정도이다.

인구 1인당 10마리의 집짐승이 차례진다.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상설적인 국가기관을 내오고 유목민들을 일정한 지역에 안착시키는 사업을 추진시키고있으며 새로운 방목지들과 목장들을 설치하고 가축병원들을 신설확장하고있다.

농업에서는 식민지적편파성을 퇴치하고 다각적발전을 이룩하며 농산물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저수지와 관개공사를 벌리는 한편 선진영농방법과 기계기술을 광범히 도입하고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과 농기구, 1년동안 먹을 식량을 보장해주고있다.

부침땅은 약 100만ha이며 바나나, 강냉이, 목화, 땅콩, 사탕수수 등을 심는다. 년알곡생산량은 15만t 이상이다.

공업에서는 축산물을 가공하는 식료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족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방직공장, 세멘트공장, 피혁공장, 목재가공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그리하여 전적으로 수입하던 생활필수품의 많은 부분을 자체의 원료와 자원으로 만들어내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망간, 연, 동, 석유 등이다.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없다. 내륙지방에서는 락타가 중요한 운수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자동차길의 총길이는 1만 3천km이며 그중 850km는 포장되여있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의 소말리아화》를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민족어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며 새 사회건설에 맞게 교육내용과 교육행정사업을 개선하며 많은 학교를 건설하는 등 교육분야에서 식민지적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3년 1월 21일부터 일체 일간 및 주간 신문들이 소말리아글로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모든 학교, 정부기관들에서 소말리아말을 쓰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새 글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지방들에 특별위원회와 직속위원회들을 설치하였다. 1973년말 현재로 50여만명이 소말리아글을 쓸수 있게 되였다.

1972~1973학년도에 학교수는 92개로 늘어났으며 1973~1974학년도에 학생수는 10만 3천 600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분야에서는 앞으로 무상치료제를 실시할 목표밑에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동의료반을 조직하여 궁벽한 농촌들에까지 찾아다니면서 치료사업을 하고있다.

정부는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들에서 림시적으로 일하는 사무원들을 그 기관들에 정식으로 받아들이며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비롯한 사회적혜택을 보장하여주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남부에서는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소나통신

신문 히지그타 욕터바르 (정부기관지)
방송 모가디쇼방송, 소말리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우리 나라와 무역대표부 교환에 관한 협정, 1967년 4월 12일에는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5월 23일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11월 모가디쇼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김일성도서관》이 개관되였다.

1973년에 신문 《선봉》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모든 힘을 전쟁승리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에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실었다.

1973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모가디쇼에서 《중근동 및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이 기간에 신문 《선봉》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전문 실었다. 또한 정부기관지 《10월의 별》은《주체사상로론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는 사설과 《주체사상의 자주적측면과 창조적측면》이라는 해설기사를 실었다.

소말리아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있다. 1969년 10월혁명후 유엔에서 우리의 자주적통일방침을 계속 지지하여왔으며 제28차유엔총회에서는 조선문제에 관한《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우리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최고혁명러사회 위원장 시아드 바레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여 연설하면서 《우리는 조선이 자결권에 기초하여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수 있도록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즉시 철거시킬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하고 《유엔사무총장에게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통일을 촉진시킬것을 호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월 15일 소말리아 외교부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에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서는 군중집회와 영화상영주간을 비롯한 각종 련대성행사들을 진행하였다.

1972년 5월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에는 최고혁명리사회 직속 민족정치국대표단(8월), 하르게이사방송국장(7월), 축구종합선수단(7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2월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프랑스령소말리아

(아파르－이싸)

넓이 2만 2,000km²
인구 12만 5,000명
주민은 대부분이 소말리아족과 다나크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행정중심지 지부티 (주민 6만 4,800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프랑스고등판무관이 대외, 국방, 재정 및 사법권을 틀어쥐고 통치하고있다. 고등판무관의 관할하에 형식상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평의회》와 그리고 《해외령의회》가 있다. 《해외령의회》는 32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여있으며 프랑스국회의 상하량원에 각각 1명의 의원을 두고있다. 《행정평의회》는 《해외령의회》가 선출하는 6~12명(현재는 9명)의 성원들로 구성된다.

정당, 사회단체; **프랑스령소말리아해방전선** 1963년에 창건, 당의 투쟁목적은 중립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이라고 선포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지도하고있다. 본부는 모가디쇼에 있다. 총비서 아브달라히 아르데에, **민주통일당** (집권당), **아프리카인민동맹**, **민주련합당**, **지부티해방운동**

원래 소말리아령토였던 이 지역을 1880년에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강점하고 1882년에 《보호령》으로, 1958년에는 식민지로 만들었다.

1967년 6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이 지역을 《아파르－이싸》로 고치고 《프랑스공동체》내의 《해외령토》로 선포하였다.

프랑스고등판무관이 대외, 국방, 재정 및 사법권을 틀어쥐고 통치하고있다.

이 나라 인민들은 《프랑스령소말리아해방전선》의 지도밑에 민족해방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유목 및 반유목민이며 해안지대주민들은 물고기잡이와 소금생산도 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농사는 관개시설이 되여있는 지부티와 기타 일부 지역에서 파일나무와 남새를 약간 심고있으며 종려와 커피도 심고있다.

공업에서 주요생산품은 소금이다.

아쌀호에는 약 20억t의 소금이 매장되여있다. 그외 석유, 운모, 석고, 류황 등이 채굴되고있다. 조선소및선박수리공장, 가스압축공장, 가죽공장, 식료가공공장 등과 소규모의 기계공장이 있다.

공업제품과 식량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프랑스식민지통치결과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는 매우 뒤떨어져있다.

물이 대단히 나쁘며 수도물도 마실수 없어 《비텔》이라는 가공한 프랑스의 물을 가져다마시는데 그 값이 비싸 원주민들은 살수 없다. 결핵 등 질병이 많다.

지부티와 아디스 아바바를 련결하는 긴 철길이 있다.

주민들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알라이드 (프랑스령소말리아해방전선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르 레베일 드 지부티
방송 지부티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프랑스령소말리아인민들은 《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바그다드), 강점된 서부소말리아해방전선들격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소조》(아덴), 아덴에 있는 소말리아민주청년조직성원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등을 결성하였다.

1971년에 신문 《알라이드》는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실었다.

케 니 아

(케니아공화국)

넓이 58만 2, 644m²
인구 1, 250만명 (1973년 10월)
주민은 키쿠유족, 캄바족, 루오족, 키시족 등 60여개종족으로 이루어졌다.
1973년 2월 21일 스와힐리말을 국어로 선포하였다.
수도 나이로비 (주민 50만 9, 000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 170명, 그중 158명은 선거하며 12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 대통령 겸 총리 죠모 케니아타 (1963년 6월—), 외교부장 느죠로게 뭉가이
정당, 사회단체; 아프리카민족동맹 집권당, 1960년에 결성. 《아프리카식사회—민주주의적케니아》의 창설을 목표로 하고있다. 인민동맹 1962년 4월에 조직. 1969년 10월에 비법화, 민주주의적개혁의 실시, 종족적평등을 주장, 로조중앙조직

케니아는 1963년 12월 12일에 독립한 영련방성원국이다.
1964년 12월 12일 공화국 선포후 케니아타정부는 영침략군을 내쫓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독립후 750여개의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아프리카사람들의 관리하에 넘겼으며 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땅을 유상몰수하여 3만 4천여세대의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나누어주었다.
1973년 4월에는 영국사람 대신 케니아사람을 공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으며 7월에는 1천 100명의 비케니아인상인들과 기타 실업가들에게 6개월 이내에 케니아사람들에게 기업을 넘겨줄것을 명령하였다. 백인들과 아세아사람들이 차지하고있던 관리들의 자리는 99%가 아프리카사람으로 교체되였다.
1973년 6월 1일까지 식민지통치시기에 부르던 도시와 거리들의 이름을 모두 고치기로 하였다.
12월 12일 독립 10주년기념행사에서 케니아타대통령은 학령어린이들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할것을 선언하였다.
11월 1일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데 항의하여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총생산액에서 농업이 34%를 차지하며 수출총액에서는 농산물이 90%를 차지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차, 밀, 보리, 담배, 목화 등이다. 매해 커피는 5만t, 사이잘삼은 4만 8천t, 차는 4만 3천여t이상, 목화는 1만 6천t, 쌀은 2만 6천t, 밀은 23만t 정도 생산된다.
1972년에 농산물총생산액은 1억300만케니아파운드에 달하였다.
내륙고원지대에서는 양, 소, 말 등을 많이 기른다. 1973년부터 집짐승마리수를 늘이기 위하여 15개의 목장을 현대화하기로 하였다. 1973년에 뿔난집짐승은 900만마리 있었다.
동아프리카에서 공업이 비교적 발전하였으나 공업은 총생산액에서 17%를 차지한다.
경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는데 10명미만의 로동자를 가진 소규모공장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로동인구의 17~18% (11만명)가 공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운수는 철도와 자동차 운수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관광수입은 매해 약 2천만케니아파운드에 달한다.
1970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케니아는 아프리카식사회주의를 주장하나 외국인민간투자를 장려하고있다.
독립후 많은 학교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스와힐리말로 신문, 잡지, 교과서가 발간되고있으며 학교에서도 스와힐리말로 가르친다. 1973년말에 소학교 학생수는 200만명이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기독교, 회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케니아통신
신문 이스트 아프리칸 스탠다드 (영어), 데일리 네이숀, 타이파 레오 (스와힐리말), 썬데이 네이숀 (영어), 타이파 케니아 (스와힐리말)
방송 케니아의 소리 방송, 케니아의 소리 텔레비죤 방송

탄 자 니 아

(탄자니아 련합공화국)

넓이 93만 9, 703km²
인구 1, 363만명 (1971년)
주민은 대부분이 아프리카사람이며 그외 아랍사람, 인도사람, 파키스탄사람, 구라파사람이 있다.
공용어는 스와힐리말과 영국말
수도 다르 에스 살람 (주민 35만 3, 000명)

정 치

탄자니아는 탄가니카와 잔지바르가 련합공화국을 이루고있다.
민족회의 일원제, 련합공화국의 최고립법기관인 동시에 탄가니카내정문제에 관한 최고립법기관이다. 총의석 204석, 임기 5년, 1970년 11월 5일 민족회의 선거진행, 잔지바르혁명리사회 의원 전원이 민족회의에 망라된다.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1964년 4월—, 1970년 1월 30일 재선),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군총사령관이다. 임기 5년, 탄가니카대통령을 겸한다. 제1부대통령 아보우드 줌베 무이니 (1972년 4월—, 잔지바르대통령을 겸한다.)
정부 1972년 2월 17일 총리직제를 새로 내옴, 제2부대통령 겸 총리 쉐이크 라쉬더 므파우메 카와와 (1972년 2월—) 외교부장 시귀 예미시 사무엘죤 말레쎌라, 국방보위 및민족복무부장 에드와드 엠. 소코이네
정당, 사회단체;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 1954년 7월에 창건된 탄가니카집권당, 《착취없는 사회주의건설》을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다. 위원장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아프리카쉬라지당 1957년 2월에 창건된 잔지바르집권당 위원장 아보우드 줌베 무이니, 탄가니카로동자전국동맹, 잔지바르혁명로조련맹, 청년동맹 (탄가니카와 잔지바르에 각각 있다.) 전국녀성동맹, 탄자니아조선친선협회 1970년 4월 결성, 위원장 아담 사피 모크와와

1964년 4월 26일 탄가니카와 잔지바르가 련합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련합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잔지바르는 독자

적인 헌법을 가지고 국방, 경제, 문화분야에서 독자적권한을 행사하며 지역적립법기관과 행정기관을 가지고 자치를 실시한다.

1965년 7월 5일 민족회의는 유일당 국가제도를 규정한 새로운 림시헌법을 채택하였다.

1967년 2월 5일《사회주의와 자력갱생에 관한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의 정책》이라는《아루샤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에는 탄자니아가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할것이라고 하면서 경제의 중요생산수단들을 로동자, 농민이 통제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나라 인민과 부원에 의거하여 경제를 건설하며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현상을 근절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리념에 기초하여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며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조치를 취하였다.

1966년이래 이 나라에 기어들어 정탐과 정부전복음모를 꾸미던 미제《평화군》400여명을 1969년 8월까지 모두 내쫓았다.

또한 1964년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인민보위군을 창건하였다. 1971년 2월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 비상대회에서는 당중앙에 국방위원회를 조직하고 전체인민을 무장시키기로 하였다.

각지방에서 민병이 광범히 조직되였으며 1973년에 전국민병사령부가 수립되였다.

1973년 8월 국가주권과 수산자원을 수호하기 위하여 령해를 12마일로부터 50마일로 늘였다.

정부는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력갱생》과 《사회주의》구호밑에 제국주의독점체들의 회사와 농장들을 국유화하고 간부들을 아프리카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 1월 로데시아백인인종주의자들이 잠비아의 경제를 압살하고 남아프리카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잠비아의 지지를 멈춰세우려는 기도밑에 잠비아와의 국경을 폐쇄하자 탄자니아정부는 무트와다항과 다르 에스 살람항을 잠비아가 리용하도록 하였다.

9월에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공인을 적은 려권을 가지고있는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10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8월 카나다에서 진행된 제19차 영련방수뇌자회의에서 니에레레대통령은 12개의 흑인국가들이 로데시아와 남아프리카에 대한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한 남아프리카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출하였다.

11월 4일 탄자니아정부는 690만탄자니아쉴링을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에 기증하였다.

10월 탄자니아정부는 인도양에 대한 미제의 군사력증강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3년 2월 메히꼬와 대사관계를 맺었다.

다르 에스 살람에는 아프리카통일기구해방위원회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투쟁단체 본부와 사무소가 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인구의 약 90%가 농사한다.

탄가니카에서는 사이잘삼 (세계생산량의 3분의 1), 커피, 목화를, 잔지바르에서는 정향 (세계생산량의 80%), 야자, 사탕수수를 많이 심고있다.

부침땅은 약 4천만에이커에 달한다.

해마다 사이잘삼은 25~30만t, 정향은 1만 5천~2만t, 야자는 1만 5천t 정도 생산된다.

축산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초원지방에서는 소, 양, 염소 등을 기른다.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청산하고 협동화하는 것을 중심과업으로 내놓고있다. 1967년부터 1973년말까지 5천 500여개의《우자마아》마을이 조직되였다.

여기에는 전체 인구의 15%이상되는 200만명이 망라되여있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굴공업과 농산물가공공업이다.

또한 방직, 세멘트, 원유정제 공장등이 있다.

국민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10%에 불과하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년 약 83만카라트), 금 (년 3t), 주석, 연, 석고, 운모, 돌소금, 원유, 동 등이다.

정부는 자체의 원료에 기초한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1964년부터 1972년까지 공업에 대한 투자는 해마다 20%씩 늘어났다.

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이다.

대외무역은 주로 다르 에스 살람항을 통한 해상운수로 진행된다.

주요수출품은 사이잘삼, 커피, 목화, 정향, 야자, 가죽제품, 금강석을 비롯한 광물 등이며 수입품은 각종기계류, 운수기재, 금속제품, 화학제품, 천, 석탄 등이다.

교육문화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학교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였으며 학생수가 늘어났다. 1970년 6월 다르 에스 살람에 첫 국립종합대학이 창설되였으며 1972년 5월부터는 통신대학을 새로 내왔다. 1975년까지 글모르는 사람을 완전히 없앨 목표밑에 성인교육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1971년 현재 병원수는 독립전의 5배에 달하는 122개로 늘어났다.

잔지바르에서는 초등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회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정부기관지로는 썬데이뉴스, 데일리뉴스,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기관지로는 우후르, 욤잘렌도가 있다. 느구루모 (개인경영) 잔지바르출판물로서는 잔지바르 가제트 아프리카 크웨트, 판아프리카가 있다.

방송 탄자니아방송, 탄자니아잔지바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월 1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 6월에는 무역협정, 11월에는 과학기술협조협정, 1966년 7월에는 문화및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8월 니에레레대통령에게 타보라혁명학원 교육설비를 선물로 보내시였다.

1972년 8월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우리 나라 교원들에 의하여 꾸려진 다르 에스 살람민족교육대학 타누혁명력사 연구실이 개관되였다.

1973년 10월 10일 다르 에스 살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이 개관되였다.

1973년에 민족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당의 조직적사상적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국영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기업소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를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이 나라 신문들인 《느구루모》, 《우후루》, 《음화냐카지》등은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등 여러 로작들을 실었다.

탄자니아정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3년 6월 18일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유엔총회 28차회의에서는 조선문제에 관한《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1968년 6월 니에레레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2월 탄자니아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2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해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정부친선대표단(2월), 집단체조대표단(10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모 잠 비 끄

(뽀르뚜갈식민지)

넓이 78만 3,030Km^2
인구 800만명 (1970년)
주민의 대부분이 반투족이다.
공용어는 뽀르뚜갈말
행정중심지 로렌쏘 마르께스 (주민 25만명)

정 치

뽀르뚜갈총독이 《립법회의》와 《경제 및 사회평의회》를 통하여 통치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모잠비끄해방전선** 1962년 6월 아프리카민족동맹, 민족민주동맹, 아프리카인동맹 등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하여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사모라 모이세스 마쉘. **해방전선 청년동맹**

모잠비끄는 1700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

모잠비끄인민들은 뽀르뚜갈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오래전부터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으며 1964년 9월부터는 무장투쟁을 진행하고있다. 초기 250명의 대오로 시작된 애국적무장력은 투쟁과정에 1만 5천여명의 정규무력과 6만명이상의 자위대를 가진 강력한 력량으로 자라났으며 1971년까지의 7년동안에만도 1만여명의 뽀르뚜갈침략군을 살상하고 1천여대의 각종 자동차를 파괴하였다.

모잠비끄무장력은 이미 약 100만명의 주민을 포괄하는 령토의 3분의 1을 해방하였다. 1973년 10월에는 마니카주와 소팔라주에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군대편에서 싸우던 아프리카인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해방전선부대에 넘어왔다.

해방지역에서는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진보적시책들이 실시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기름진땅은 모두 뽀르뚜갈과 영국농장주들이 독점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목화, 야자, 바나나, 사이잘삼, 땅콩, 강냉이, 조, 콩, 나무감자 등이다.

축산업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집짐승은 양, 염소, 소 등이다.

공업발전수준은 매우 낮다. 석탄, 보크사이트, 금, 은, 우라니움, 석유, 주석 등을 채굴하나 모두 식민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가공공업으로는 규모가 작은 사탕, 기름, 비누, 세멘트 공장 등이 로렌쏘 마르께스를 비롯한 몇개의 도시에 집중되여 있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땅콩, 차 등이며 수입품은 원유제품, 천, 운수수단 기타 금속제품 등이다.

주민의 절대다수가 문맹자이다. 하나밖에 없는 대학도 백인들이 차지하고있다.

의료시설도 기본은 백인을 위한 것이며 원주민의 사망률은 대단히 높다. 특히 어린이사망률은 60%를 넘는 형편이다.

해방지역에서는 밭갈이 하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있으며 농업협동조합, 소비품공급협동조합 등이 창설되였다. 식량도 자급자족하고있다. 또한 수많은 학교들이 건설되여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고있다.

400여개의 유격대야전병원과 인민병원들이 있다.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백인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사로청 6차대회에 민족해방전선 청년운동대표가 참가하였으며 9월에는 민족해방전선 위원장이며 해방군총사령관인 사모라 모이세스 마쉘을 단장으로 하는 민족해방전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말 라 위

(말라위공화국)

넓이 11만 8,484km²
인구 455만명 (1971년)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사람이며 구라파사람, 아세아사람 등도 있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좀바 (주민 2만명)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 55명, 그중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50명은 선거한다.

정부 대통령겸총리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 (1964년 7월—), 1970년 헌법수정법에 의하여 종신대통령으로 되였다.

정당, 사회단체; **말라위대회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59년 9월 30일 창건, 1970년 9월 당대회에서 반다를종신위원장으로 결정. **전국로동련맹**, **로조대회**

1964년 7월 6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1966년 7월 6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말라위는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과의 일체 관계를 끊을데 대한 아프리카나라들과 세계인민들의 공동행동에 참가하지 않고있다.

1972년 11월 1일 유엔총회 특별정치위원회에서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을 규탄하는 결의표결에서 기권하였다.

1973년 11월 21일 아프리카나라들의 외교부장들이 중근동에 관한 비상회의를 열고 이스라엘, 뽀르뚜갈,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에 대해 석유를 포함한 일체 경제관계를 끊을

것을 호소할때에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말라위만 참가하지않았다.

경제, 사회문화

락후한 농업국이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농업은 기형성을 띠고있다. 비옥한땅은 백인들이 차지하고있다.

주로 담배, 목화, 차, 땅콩, 커피를 심는다. 해마다 차는 약1만1천t, 목화는 2만t정도 생산된다.

돌솜, 보크사이트, 동, 석탄, 금, 쇠돌, 망간, 금강석, 석유 등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여있으나 일부만을 수공업적으로 캐내고있다.

공업으로는 차, 담배 등을 가공하는 공장과 목재, 합판공장들이 있을 뿐이다.

운수는 철도운수와 수상운수에 의거하고있다. 철길은 쌀리마에서 모잠비끄로 통하는 한개선밖에 없다.

주요수출품은 차, 담배, 목화, 커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식량, 천, 금속제품 등이다.

취학률은 아직도 50%에 불과하며 문맹률이 대단히 높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기독교와 회교도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말라위뉴스 (대회당기관지), 디스 이즈 말라위 (정부기관지), 말라위 가번멘트가제트

방송 말라위 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3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잠 비 아

(잠비아공화국)

넓이 75만 2,614km²

인구 430만명

주민의 기본은 바로투족이며 그외 벰바족, 톤다족 등 70여개 종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스와힐리말

수도 루사카 (주민 25만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 105명, 100명은 선거하며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1973년 12월 5일에 민족회의선거가 진행되였다.

정부 1973년 12월 10일 구성,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 (국방부장겸임, 1973년 12월 7일 3선, 임기는 4년), 외교부장 베르논 존슨 므완가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독립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59년 11월 창건, 위원장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 로조대회, 민족통일독립청년운동, 잠비아조선친선협회 1971년 4월 결성

1964년 10월 24일 《영련방》내의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독립후 식민주의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잠비아정부는 1968년에 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였으며 1969년 6월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백인들의 선거권과 참정권, 토지와 일부 기업소들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였다.

1969년 8월 모든 광물자원의 개발권을 국가가 장악하였으며 12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대영남아프리카회사》와 외국농장주놈들이 가지고있던 토지의 대부분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기로 결정하였다.

1970년 2월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반동적인 야당활동을 금지시켰으며 1972년 12월 9일에는 유일당제를 수립할데 대한 헌법수정안을 채택하였다. 1973년 6월 23일 정부는 외국인들이 가지고있던 23개의 개인농장을 국가가 장악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에는 동 및 기타 금속생산과 판매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전국금속판매회사를 창설하였다.

잠비아인민의 반제적인 투쟁에 불안을 느낀 미영제국주의자들과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은 잠비아에 대한 침략과 도발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1973년 1월 9일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은 남아프리카경찰 두명이 국경지역에서 총에 맞아죽은것을 구실로 잠비아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남로데시아와 잠비아 사이의 모든 철도 및 도로 수송을 차단하였다. 이리하여 남로데시아와 련결된 수송로를 통하여 진행하던 잠비아의 동수출을 비롯한 대외수출입통로를 《봉쇄》하여 잠비아의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난관과 곤난을 조성하고 이 나라로 하여금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지어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은 잠비아국경에 침범하여 총질을 하고 조명탄을 터뜨리며 잠비아강의 잠비아측 언덕에 지뢰를 매설하고 잠비아수역내의 잠비아배들을 비법적으로 수색하며 가리바호 잠비아섬에서 코끼리들을 도적사냥하는 등 군사적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1월 11일 정부는 남로데시아의 수송로를 통한 동수출을 중지한다고 선포하였으며 남로데시아 및 남아프리카와의 금융거래를 중지하였다.

또한 정부는 남로데시아 및 남아프리카수송로들을 리용하지 않고 북부의 기타 수송로를 통한 수출입수송을 조직하였다.

잠비아정부는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잠비아에 수송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년간 약 3억딸라의 리득을 보아오던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에게 도리여 타격을 가하였다.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의 비렬한 음모책동에 대한 정부의 조치들을 지지하여 1월 20일 루사카에서 1천여명의 녀성들이 《스미스인종주의자들은 잠비아에 대한 략탈과 도발을 당장 중지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벌렸다. 21일부터 24일간에 주소재지 치파타, 동생산지구인 천고라, 치리라방부웨 등지에서도 이러한 시위가 있었다.

잠비아동광로조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들도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단결을 강화하고 생산을 잘하며 상품공급을 잘 조직하여 국내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것을 담보하여나섰다.

아프리카통일기구를 비롯하여 탄자니아, 말라위, 에티오피아, 우간다, 가나, 자이르 등 아프리카나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인종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잠비아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탄자니아는 성명을 발표하여 므트와라항과 다르 에스 살람항의 자기 관할하의 수용능력을 잠비아에 양보하고 자기들은 북부의 탕가항을 개건리용하려 한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케니아와 기타 아프리카나라들도 잠비아가 자기들의 해외에로의 통로와 항구를 리용하여 수출입무역을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는것을 각각 표명하였다.

1월 14일 아프리카통일기구는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우간다대통령 아민은 흑아프리카나라들이 잠비아에 군대를 파견할것을 호소하였다.

수많은 아프리카나라들과 세계 진보적나라의 신문들과 방송들도 특집과론평을 발표하여 남로데시아백인인종주의자들을 규탄하고 잠비아인민의 정의

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잠비아인민들의 완강한 투쟁과 세계 인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2월 4일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은 국경을 폐쇄한지 25일만에 다시 국경을 열어놓는다고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카운다대통령은 국경은 폐쇄된채로 남아있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2월 12일 외교부장은 또다시 남로데시아인종주의정부가 다수파통치에 양보할 때까지 국경이 폐쇄되여있을것이라고 재언명하였다.

2월 6일 잠비아는 남로데시아와의 모든 직결 전신 및 전화선들을 끊어버렸다.

12월 5일 대통령선거와 민족회의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12월 7일 카운다가 제3기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였다. 12월 10일 처음으로 군인을 포함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1973년 2월 민주독일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0월에는 이스라엘, 칠레군사파쑈정권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광업이며 광업은 국민소득의 80%를 차지한다. 광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동, 코발트, 쇠돌, 연, 아연 등이며 이외 우라니움, 크롬, 금, 은, 금강석 등을 채굴한다. 특히 동은 국민총생산액에서 40~55%, 수출총액의 90%이상을 차지한다. 동과 코발트 생산량은 세계에서 제3위, 연, 아연 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4위를 차지한다.

광업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동광을 비롯한 많은 광산들을 새로 개발확장하며 이미 있는 광산들의 채광량을 늘이는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동광생산에만 치중하던 경제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가공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린 결과 동제품생산공장을 비롯하여 방직공장, 비료공장, 폭발물제조공장, 유리섬유제품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이리하여 1973년에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의《봉쇄》책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1972년에 비하여 11%나 장성하였다. 1973년에 68만여t의 동, 80만t의 석탄을 생산하였다.

농업에서도 알곡과 목화를 비롯한 중요농산물생산이 늘어나고있으며 수입에만 의존하던 축산물은 자급자족할수 있게 되였다. 농업에서는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고있다. 해마다 강냉이는 63만t (1972년), 목화는 1만 9천t (1971년) 생산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 면양, 염소, 돼지 등이다. 정부는 많은 지역들에 대규모의 목장들을 신설확장하고있으며 특히 가금업을 발전시키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다.

주요수출품은 동, 코발트, 쇠돌, 아연, 연, 담배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원유제품, 기계설비, 식량, 일용품 등이다.

1973년에 잠비아인민들은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의 봉쇄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서로돕기운동》을 벌렸으며 휴일과 로동외시간을 리용하여 다리를 고치고 길을 닦았으며 우물을 파고 수도관을 설치하였다. 어떤 지방에서는 국가자금을 쓰지 않고 학교를 건설하였다.

무료교육제실시를 지향하고 중등학교수준까지의 교육체계를 확립하였다.

잠비아에는 약 260개의 병원과 진료소가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잠비아 메일 (정부기관지), 데일리 메일, 타임스 오브 잠비아, 민족통일독립당의 목소리

방송 잠비아방송, 잠비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12월 12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4월 18일 잠비아조선청년친선협회와《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잠비아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잠비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등이 조직되였다.

1973년에 신문《데일리 메일》은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인《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등 많은 로작들을 실었다.

잠비아 정부와 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유엔총회 28차회의에서 조선문제토의시 조선문제에 관한《알제리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2년 9월 잠비아부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1월 우리 나라 정부친선대표단이 잠비아를 방문하였다.

짐 바 브 웨

(남로데시아)

넓이 38만 9,400km²

인구 550만 (1971년)

주민의 대부분이 반투어계통의 흑인이며 약 240만명의 백인이 있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솔스베리 (주민 42만 3,000명)

정 치

의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23명, 그중 백인이 10명, 부족장회의에서 선출하는 아프리카인 10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인원으로 구성, 하원은 66명중 백인이 50명, 부족장회의에서 선출하는 아프리카인 8명, 지역별대표 8명으로 구성, 부족장회의의 임명권은 백인이 장악하고있다.

대통령 크리포드워터 듀폰 (1970년 4월 14일—) 국가수반이며 군총사령관이다. 임기는 5년

정부 총리 얀 더글라스 스미스 (1964년—)

정당, 사회단체;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1961년 12월에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1962년 9월에 비법화,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1963년에 창건된 민족해방투쟁단체, 현재 비법화. **로데시아전선** (집권당) 백인들의 반동적인 계층의 리익을 대변하는 악질정당, **중앙당**, **아프리카로조대회**

1895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부딪쳐 더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할수 없게 되자 스미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백인인종주의정권을 조작하고 1965년 11월 일방적으로《독립》을 선포케 하였다.

백인인종주의정권은 전령토의 절반을 백인전용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법, 주민등록법, 치안유지법, 립헌정부유지법 등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로골적인 인종차별정책과 인종탄압정책

을 실시하였다.

1969년 6월에는 인종주의정권을《합법화》하기 위하여 이른바《헌법》을 채택하고 1970년 3월 2일 일방적으로《남로데시아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1년 11월 24일 영제국주의자들과 스미스도당은 소수 백인정권을 영구화하기 위하여《헌법개정》이라는 기만적인 구호밑에《다수인의 통치》를 실현하는데 영국이 동의한다는 이른바《영국—로데시아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남로데시아정권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짐바브웨인민들은 백인인종주의자들의 민족적 및 인종적 억압과 파쑈통치를 반대하여 1966년 4월부터 무장투쟁을 벌리고있다.

1967년 3월 흑인애국자들에 대한 스미스도당의 학살만행을 계기로 투쟁은 새로운 본격적인 단계로 발전하였다.

1972년 1월에는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이 인민혁명군을 창건하였다. 인민혁명군은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2만명의 강력한 대오로 자라났으며 나라의 5분의 1에 달하는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벌리고있다.

1972년 3월 23일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과 아프리카민족동맹은 합동군사령부를 조직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1973년 3월 17일에는 두 조직을 통합할데 대하여 합의하고 짐바브웨정치위원회와 련합군사지휘부를 설립할것을 규정하였다.

1973월 4월 23일 유엔비식민지화위원회에서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의 정치문제담당비서는 《오늘날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해방군의 활동은 나라의 동북부, 북부 및 서북부의 5만평방마일지역과 150만내지 200만의 인구를 포괄하고있다》고 하였다.

1973년 한해동안에만도 짐바브웨유격대는 55명의 적들을 죽이고 수백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으며 7대의 적비행기와 20대의 군용차를 파괴하고 8개의 적진지와 군사시설, 다리들을 폭파하였다.

날로 앙양되고있는 민족해방투쟁앞에서 극도로 공포에 떨고있는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은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짐바브웨인민들의 투쟁을 멈춰세워보려고 망상하면서 인민탄압에 미쳐날뛰고있으며 발악적인《초토화작전》을 감행하고있다.

1973년 8월 스미스도당은 무장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38～48살사이의 남자들을 예비군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하고《반유격전》에 동원하고있다. 이것을 남로데시아출판물들까지도《송장직전의 군대》라고 야유하고있다.

남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은 유격대의 활동이 가장 적극화되고있는 동북지역을《거주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그곳으로부터 아프리카사람들을《특수촌》으로 강제적으로 이주시키고있다. 또한 1974년 1월에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백인이주자들을 남로데시아에 끌어들이기 위한 대대적인 깜빠니아를 벌렸다.

1974년 2월 남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은《짐바브웨유격대를 지원하였다》는 리유로 무지브촌락에 침입하여 집과 밭곡식을 불태우고 집짐승들을 빼앗아가며 100여명의 주민들을 마구 잡아가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1973년 1월 9일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은 잠비아가 짐바브웨애국자들을 지원하고있다는것을 구실로 잠비아와의 국경을 폐쇄하였으며 약 4천명의 남아프리카군대까지 끌어들여《유격대소탕작전》을 벌렸다.

잠비아를 반대하는 스미스도당의 비렬한 책동을 규탄하여 아프리카통일기구를 비롯한 탄자니아, 말라위, 에티오피아, 우간다, 가나, 자이르 등 아프리카 나라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이 성명과 출판물 론평 등을 발표하였으며 잠비아의 동수출을 적극 도와나섰다.

잠비아인민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규탄을 받은 남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은 2월 4일 하는수 없이 국경을 다시 열어놓는다고 발표하였다.

남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은 1973년 9월 국제수영련맹에서 쫓겨났다.

경제, 사회문화

전형적인 식민지적기형성을 띠고있는 농업국이다.

경제명맥은 미영제국주의독점자본에 얽매여있다. 인구의 5.7%밖에 안되는 백인인종주의자들이 부침땅의 70%를 차지하고 아프리카사람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담배(농업생산액의 50～80%), 사탕수수, 강냉이, 목화, 땅콩 등이다. 1년에 담배는 6만～7만t, 목화는 10만～10만5천t, 강냉이는 100만t정도 생산된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굴업이며 농산물가공을 위주로 한 가공공업이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크롬, 라디움, 철, 동, 니켈, 돌솜 등이다.

주요공업회사들은 영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이 가지고있다. 이 나라에는 약 200～300개의 영국회사들이 있다. 미제의 침투도 강화되고있다. 매해 크롬은 37만～40만t, 동은 2만t, 석탄은 300만t, 금은 15t 정도 생산된다.

운수의 기본은 철도운수이다. 철길의 길이는 2천 152km이다. 식민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자원을 략탈해가기 위하여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여놓았다.

주요수출품은 담배, 크롬, 돌솜, 라디움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식량, 일용품 등이다.

백인인종주의자들은 60여종의 각종 악법을 만들어놓고 아프리카사람들을 착취하고있다. 아프리카사람들은 메마른땅으로 쫓겨나 농사를 하거나 혹은 광산, 농장들에서 고용로동을 하고있다. 아프리카사람들의 임금은 백인로동자의 임금의 20분의 1밖에 안된다.

아프리카사람들의 문화수준과 생활수준은 대단히 낮다. 1971년에 중학교에 다니는 백인학생수는 2만 3천명이였으며 백인보다 20배이상의 인구를 가진 흑인학생수는 2만 6천명밖에 안되였다.

80%이상이 글을 모른다.

아프리카사람들은 원시종교를, 백인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짐바브웨통신 (범아프리카통신)

신문 짐바브웨 레뷰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기관지), 로데시아 헤랄드, 크로니클, 썬데이 메일

방송 로데시아방송, 로데시아텔레비죤방송

앙 골 라

(뽀르뚜갈식민지)

넓이 124만 6,700km^2

인구 510만명 (1972년)

주민의 97%가 반투족

공용어는 뽀르뚜갈말, 원주민은 거의 모두 반투말을 쓴다.

행정중심지 루안다 (주민 29만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뽀르뚜갈총독이 통치하고있다. 총독밑에 34명으로 구성된 《협상립법회의》와 18명으로 구성된 《경제및사회평의회》가 있다.

정당, 사회단체; 인민해방운동 19

56년 12월 9일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

민족해방전선 1954년에 북부앙골라인민련맹으로 조직되였다가 1958년에 인민련맹으로 고침, 한때 인민해방운동과 공동으로 무장투쟁을 하다가 갈라져 1962년 자이르의 킨샤사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위원장 홀덴 로베르트, 1972년 12월 인민해방운동과 민족해방전선이 《앙골라해방최고리사회》란 새기구로 통합, 위원장 홀덴 로베르트,부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 전국근로자동맹, 녀성조직

1885년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1년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앙골라를 제놈들의《해외주》로 선포하였다. 놈들은 1957년 파쑈기구인《국가정보 및 치안경찰》을 설치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앙골라인민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그때부터 투쟁에 일며섰다.

뽀르뚜갈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앙골라인민의 투쟁은 인민해방운동이 조직된후 더욱 앙양되였으며 1961년 2월 4일부터는 무장투쟁에로 발전하였다. 1962년 12월 인민해방운동 1차대회에서는 민족해방군이 창건되였다.

초기 20자루의 보총을 가진 24명의 애국자들로 조직되였던 유격대는 현대적무장을 갖춘 수만명의 강력한 대오로 자라나 1973년 현재 100만의 인구를 포함하는 령토의 3분의 1이상을 해방하였다. 해방지역에서는 인민정권기관인 행동위원회가 수립되고 진보적인 시책들이 실시되고있다.

1972년 12월 13일 앙골라의 무장투쟁을 각각 지도하고있던 인민해방운동과 민족해방전선이《앙골라해방최고리사회》라는 새 조직으로 통합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광업이다. 주민의 87%가 농사를 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종려, 사탕수수, 땅콩, 강냉이, 바나나, 나무감자 등이다. 1972년에 20만 4천t의 커피를 생산하여 아프리카에서 2위, 자본주의세계에서 4위를 차지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양, 염소 등이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광업이며 그외 가죽공장, 식료품가공공장, 성냥공장, 담배공장 등이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금, 원유, 동, 망간, 쇠돌, 우라니움 등이다. 금강석채굴량은 년산 약 200만~220만카라트로서 자본주의세계에서 제4위를 차지한다.

광산은 모두 미국, 영국, 벨지끄,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서독,일본의 침투가 강화되고있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2천 400km이다. 그중 절반이상은 외국자본의 소유이다.

주요수출품은 금강석, 커피, 사이잘삼, 쇠돌, 종려 기름, 물고기 등이며 천, 일용품, 식량, 군수품, 운수수단, 연료 기타 공업제품 등을 수입한다.

문맹률은 90%이상에 달하며 각종 질병에 걸려 쓰러지고있다. 매해 10여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웃나라로 떠난다.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윅또리아 오우 모르떼 (인민해방운동기관지), 아 쁘로빈씨아 데 앙골라, 디아리오 데 루안다, 오 꼬메르씨오, 오 로비또.

방송 앙골라방송, 벵구엘라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앙골라인민해방운동투사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무었으며 인민해방운동기관지 《윅또리아 오우 모르떼》 (승리냐, 죽음이냐) 는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을 광범히 싣고있다.

1968년 9월과 1971년 8월 두차례에 걸쳐 인민해방운동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 사로청 6차대회에 인민해방운동청년대표단, 잠비아에 있는 인민해방운동《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나 미 비 아

(서남아프리카)

넓이 82만 4, 292km²
인구 67만 100명
주민의 90%가 오밤보족, 부슈맨족, 호텐토트족 등 아프리카사람이며 그외 보아사람, 독일사람, 영국사람 등이 있다.

아프리카사람들은 반투말을 쓰며 백인들은 영국말과 독일말을 쓴다.

행정중심지 윈드후크(주민 7만명)

정 치

립법회의 1968년 10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이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만들어낸《립법기구》로서 백인들로 구성되여있다. 의원수 18명, 남아프리카국회에 4명의 상원의원과 6명의 하원의원을 참가시키고있다. 1970년 4월 선거에서 국민당이 전의석을 차지

행정평의회 남아프리카대통령이 행정장관을 임명한다.

정당, 사회단체;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1958년에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탄자니아, 잠비아, 애급, 알제리, 꾸바에 대표부를 두고있다.위원장 삼 느조마, 국민당 (집권당)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정당인 남아프리카국민당의 지부, 통일당, 서남아프리카로조, 나미비아근로자련맹, 청년동맹

나미비아는 1915년 7월 영제국주의자들이 남아프리카에서 조작한 남아련방에 강점되였으며 1920년 12월부터 남아련방의《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49년 4월 남아련방은《서남아프리카사무수정법안》을 조작하고 이 나라를 자기 령토에 비법적으로 포함시켰다.

1968년 6월 12일 서남아프리카로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나미비아로 고쳤다.

1969년 3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나미비아에 대한 저들의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한《법안》을 조작하여 이 나라의 행정 및 재정권을 장악하였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극단한 인종주의정책을 실시하면서 나미비아인민들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나미비아인민들은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웠다. 특히 2차세계대전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의 결성과 함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1966년 5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의 지도밑에 무장투쟁이 개시되였으며 1968년 11월 동북부지역의

므파챠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을 계기로 무장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나미비아애국자들은 도처에서 남아프리카침략군을 차단하고 적장갑차들을 습격하였다.

로동자들의 파업투쟁도 치렬하게 전개되고있다.

1971년말부터 1972년초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 나라 력사상 가장 큰 아프리카인로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되였다. 이 투쟁에는 4만 5천명의 로동자중 약 반수가 참가하였으며 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광범한 인민들이 투쟁에 궐기하였다.

1973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을 《나미비아인민의 진정한 대표》로 인정하는 결의안이 압도적다수로 채택되였으며 남아프리카인종주의 악당들이 나미비아로부터 《즉시 철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채광업과 축산업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어업도 한다. 채광공업이 이 나라 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세계생산량의 3%), 바나디움(세계생산량의 10%), 동, 연, 아연, 망간, 우라니움, 중석, 금, 쇠돌, 은 등이다. 금강석은 주로 로천에서 채굴되고있는데 1972년에 약 185만카라트 생산되였다. 영국(외국자본총투자액의 80%차지), 미국, 남아프리카, 서독 등 100여개의 독점회사들이 이 나라의 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해가고있다. 미영자본의 《합동금강석회사》는 금강석채굴의 99.6%를 독점하고 해마다 7천만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가공공업으로는 수산물가공공장, 식료공장, 동제련공장 등이 있다.

토지의 90%는 백인인종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이며 밀, 공예작물도 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해마다 300만매의 가죽을 수출한다.

항구들과 광산지대를 련결시키는 철길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가죽, 동, 연, 바나디움 등이며 일용품과 기타 제품들은 수입한다. 수입의 10분의 9와 수출의 4분의 1은 남아프리카와 한다.

인종차별정책에 의하여 나미비아인민들은 공민권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으며 선거권, 교육을 받을 권리, 기능을 소유할 권리, 지어는 공직에 근무할 권리도 없다. 광산로동자들의 임금은 백인로동자 임금의 20분의 1밖에 안되며 계약로동자들의 임금은 하루에 3분의 1실링이하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어린이들의 사망률은 40%에 달한다.

출판보도; 출판물 알게마이네 짜이퉁, 오피씨얄 가제트 오브 사우즈 웨스트 아프리카, 윈드후크 애드버타이저

방송 아르에스에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3월 20일 잠비아에 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성원들이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를 연구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선봉소조》를 결성하고 투쟁대오내에 《김일성부대》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1971년 6월 사로청6차대회에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를 연구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선봉소조》대표단과 나미비아청년동맹대표가 참가하였다.

1965년 7월과 1973년 7월에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위원장 삼 누죠마를 단장으로 하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보 쯔 와 나

(보쯔와나공화국)

면적 60만 372km²
인구 64만 8,000명 (1971년 9월)
주민은 대부분이 아프리카사람이다.
공용어는 영국말과 보쯔와나말
수도 가보로네 (주민 2만7,065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임기 5년, 총의석 36석중 31석은 선거하며 4석은 국회의원들이 선거한다.

1969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24석, 인민당이 3석, 민족전선이 3석, 독립당이 1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 쎄레쩨 카마 (1966년 9월—), 외교부장 마시시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1960년에 창건,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정당, 민주당 (집권당) 1962년에 창건, 영식민주의자들을 지지하며 추장들의 리익을 대표, 독립당 1964년 인민당에서 갈라져나와 창건, 진정한 민주주의발전을 요구, 민족전선, 로조대회

1966년 9월 30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고 베추아날랜드로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보쯔와나공화국으로 고쳤다.

인종격리정책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있으며 남로데시아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는것을 단호히 거절하고있다. 1974년 2월 인종격리를 규탄하는 국제협정에 조인하였다.

1973년 11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4년 3월 중국을 승인하고 장개석도당의 대사관을 내쫓았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이다. 축산물에서 얻는 수입은 국민소득의 75%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약 140만마리), 양(약 33만마리), 염소(약 86만마리) 등이며 대부분이 외래독점체들과 추장들의 소유이다.

부침땅은 약 800만헥터에 달하나 습하거나 메마른 땅이므로 거의 농사를 지을수 없고 북부와 동북 지방에서 약간의 강냉이, 수수, 콩 등을 심는다.

공업은 채굴공업이 약간 있으나 전부 제국주의독점체에 속해있다.

주요지하자원은 돌솜, 망간, 동, 금강석, 니켈, 연, 철, 금 등이다.

남아프리카와 짐바브웨를 련결하는 철길의 일부가 동부국경선을 통과(650km)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가죽, 고기가공제품, 돌솜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천, 기계류, 원유제품 등이다.

학교교육은 제한되여있으며 75~85%가 글모르는 사람이다.

매해 로동인구의 4분의 1은 남아프리카에 끌려가 품팔이를 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마사(인민당기관지) 데리사니오(민주당기관지), 무오 파(민족전선기관지), 데일리뉴스, 쿠틀와노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8월 보쯔와나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느 그 와 네

(느그와네왕국)

넓이 1만7, 363km²

인구 42만명 (1971년)

주민의 85%가 스워지족이며 그외 줄루족 (14%), 구라파사람 (1%) 이 있다.

공용어는 영국말과 스와힐리말

수도 음바바네 (주민 1만 4,000명)

정 치

립법회의 상하량원제, 상원의원 12명중 왕이 6명을 임명하고 6명은 하원에서 선거한다. 하원의원 24명중 왕이 6명을 임명한다. 인보코드워민족운동당이 상하량원의석을 독차지하고있다.

국왕 국가원수이며 국왕이 국내에 없을 때는 왕모가 대신한다. 사브후자 2세

정부 총리 마코쉬니 들라미니 (1970년 5월—)

정당, 사회단체; **인보코드워민족운동당** (집권당), 1964년에 창건, **스워질랜드진보당**, **느그와네민족해방대회당**, **스워질랜드통일전선** 1962년에 결성, 봉건주의를 반대하여 투쟁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주요부문은 농업과 목축업이다. 경제는 영국과 남아프리카에 예속되여있다. 부침땅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비옥한 땅과 집짐승의 대부분은 인구의 1.5%에 불과한 백인농장주들과 남아프리카독점체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벼, 강냉이, 사탕수수, 오렌지, 땅콩, 감자 등이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질좋은 목재도 많이 생산되고있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광업이다. 돌솜, 쇠돌, 금, 은, 주석 등이 채굴된다. 자본주의세계에서 4대돌솜산지의 하나로서 해마다 3만t의 돌솜을 캐내고있다.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공장들과 합판공장들이 몇개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돌솜 (총수출액의 3분의 2) 과 사탕이며 그외 집짐승, 털가죽, 가죽, 목재, 담배, 목화 등이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원시적인 농업과 집짐승기르기를 하고있다. 원주민의 20%가 백인들의 농장에서 힘겨운 삯일을 하고있으며 로동자들은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흑인광부들의 로임은 백인광부들의 로임의 10분의 1밖에 안된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남아프리카의 금광으로 품팔이를 떠난다.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다. 약 350개의 소학교가 있는데 그중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는 38개, 나머지는 백인들의 소유이다.

원주민들의 40%는 원시종교를 믿으며 나머지는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옴비키 (정부기관지), 타임스 오브 스워질랜드

방송 느그와네방송

느그와네는 1906년 영국의《보호령》으로 되였다.

1962년 2월 영국의 세 보호령 (느그와네, 레소토, 보쯔와나) 의 민족주의정당들이 통일전선인 범아프리카대회 (느그와네진보당, 바수톨랜드대회당, 보쯔와나인민당 망라) 를 결성하고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공동투쟁을 벌렸다.

1967년 4월 《내부자치권》을 가지게 되였으며 1968년 9월 6일에는 영련방내의 립헌왕국으로 독립하였다. 그리고 스워질랜드라고 부르던 나라이름을 느그와네로 고쳤다.

아 자 니 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넓이 122만 3, 409km²

인구 2, 128만 2,000명 (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며 약 378만명의 백인, 200만명의 혼혈인, 61만명의 아세아사람이 있다.

공용어는 영국말과 아프리칸말이며 원주민은 반투말을 쓴다.

수도 프레토리아 (55만명)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54명으로 구성, 그중 43명은 매개 주에서 선거하며 11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원은 166명으로 구성, 국회의원은 백인만이 될수 있다. 1970년 4월 하원선거에서 국민당 118석, 통일당 47석, 진보당이 1석 차지

대통령 푸제 (1968년—),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

정부 총리 존 보스터 (1966년—), 외교부장 뮬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7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창건되였으나 인종주의자들의 《공산주의진압법》에 의하여 1950년에 해산, 1960년에 다시 조직되여 지하에서 활동,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1912년 1월에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꾸바, 알제리, 애급, 잠비아, 탄자니아 등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1966년부터 활동이 금지되여있다. 총서기 알프레드 느조. **국민당** (집권당), 1913년에 조직, 가장 반동적이며 인종주의적정당. **재생국민당** 1969년 국민당 지도부에서 떨어져 나온 극단적우익분자들로서 조직, **통일당** 1934년에 창건, 영국출신의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변, 전반적으로 인종차별정책을 지지하며 실현방도에서만 의견을 달리하고있다. **진보당** 1959년에 창건, 인종차별의 극단적인 형태를 반대. **민주주의자대회**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백인들의 정당, 1962년부터 금지되여있다. **남아프리카인도인대회**, **남아프리카유색인주민대회**, **로조대회**, 1956년에 조직, 인종주의정권을 반대하는 유일한 로조련합체

아자니아는 영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인 백인인종주의정권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1910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저들의 한개《자치령》으로 만들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왔다.

2차세계대전후 영식민주의자들은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에 부딪쳐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더는 유지할수 없게 되자 1948년에 식민지통치의 변종인 백인인종주의정권을 조작하였다.

인종주의자들은 1961년 5월에 이 나라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선포하고 극악한 인종주의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인종주의정권은 제놈들의 반동통치를 유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통행증법》, 《파괴활동금지법》 등 100여종의 파쑈악법과 파쑈폭압기구를 조작하고 온 나라를 테로와 폭압이 살판치는《인종주의감옥》으로 전변시켰다.

아자니아인민들은 백인인종주의도당의 인종차별정책과 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비롯한 각종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1973년초 두르반시에서는 20여개이상의 공장에서 3만 6천 6명의 로동자들이 인종주의도당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여 로동조건의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대중적파업을 벌려 공장, 기업소들과 해상운수수단들을 마비상태에 빠뜨렸다.

3월에는 프레토리아의 비트와테르스란드대학의 2천명 학생들이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진보적학생지도자들을 박해하는 보스터인종주의도당을 규탄하여 항의모임을 가졌다.

인종주의자들은 미영제국주의에 아부굴종하면서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데 발벗고 나서고있다. 보스터도당은 침략적인 나토국가들에 군사기지를 제공하였으며 모잠비끄, 앙골라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이 나라인민들을 반대하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1973년 1월 보스터도당은 남로데시아백인인종주의자들이 잠비아의 국경을 봉쇄하는 도발행동을 감행하였을 때에도 4천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그에 적극 가담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채광업과 농업이다 경제는 소수백인인종주의자들과 외래독점자본에 얽매여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원료공급기지로서 채광공업 일면에만 치우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백금, 금강석, 우라니움, 바나디움, 돌솜, 망간, 크롬, 석탄, 쇠돌, 동 등이다. 1년에 금은 960t이상, 금강석은 740만카라트이상, 망간은 290만t, 크롬은 160만t정도 생산된다. 금, 백금 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 총생산량의 약 50%, 금강석은 60~7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약 500개의 영국회사, 375개의 미제독점회사와 은행들, 약 300개의 서독회사들이 이 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틀어쥐고 제마음대로 략탈해가고있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투도 강화되고있다

가공공업은 매우 뒤떨어져있다.

농업은 이 나라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국민소득의 6분의 1정도를 차지한다.

농업에서는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돼지등이다.

부침땅은 전 령토의 8%밖에 안되는데 그중 90%는 소수인종주의자들과 외래독점체들이 거머쥐고있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목화, 담배, 사탕수수 등이다. 매년 강냉이는 470여만t, 밀은 120여만t, 땅콩은 30만t정도 생산된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금과 금강석을 비롯한 광물자원들과 식료품, 양털, 금속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와 운수수단 (수입의 45%이상), 화학제품, 소비품 (20%), 식량, 차, 커피 등이다.

보스터도당의 인종격리정책에 의하여 아프리카인들은 공민권도 없는 무권리상태에 있으며 아프리카인 거주지역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은 로조도 결성할수 없고 파업권도 없다. 백인과의 결혼, 국제경기의 참가 등 일체 사회정치생활에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있다. 아프리카인 로동자들의 로임은 백인로동자들의 로임의 약 47분의 1밖에 안된다.

인종차별로 하여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의 입학을 금지하고있다. 입학을《금지하지 않는》불과 몇개의 대학에서도 아프리카인 학생들의 비률은 0.05%밖에 안되며 중학교학생의 비률은 1%미만이다.

의료시설도 이들에게는 차례지지 않으며 농촌의 흑인거주지에서는 병원이라는 말조차 잘 모르는 형편이다. 1~4살의 어린이들의 사망률은 백인어린이들보다 25배나 높다. 굶주림과 고역에 시달려 평균 수명도 백인보다 15~17년이나 낮다.

아프리카인들은 원시종교를, 백인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남아프리카통신

신문 인꿀루레끄 (공산당기관지), 트란스바러 (정부계), 아거스, 케이프 타임스, 란드 데일리 메일

방송 남아프리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9월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총서기 알프레드 느조를 단장으로 하는 이 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6월 사로청 6차대회에 남아프리카대회청년대표가 참가하였다.

레 소 토

(레소토왕국)

넓이 3만 355km²

인구 93만명 (1971년 9월)

주민은 바수토족 (80%)과 줄루족 (20%)이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며 반투말과 줄루말도 쓴다.

수도 마세루 (주민 1만 4,000명)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22명의 추장들과 왕이 임명하는 11명의 의원들로 구성, 하원은 5년기한으로 선거되는 60명의 의원으로 구성, 1971년 1월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국왕 국가수반이며 국회와함께 립법권을 가진다. 국왕 모쉐슈 2세

정부 총리 레부와 죠나탄 (1965년 4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62년 5월 5일창건, 1970년 1월 국회선거에 처음으로 참가, 그후 《비상사태》선포로 비법화, 총비서 케나, 대회당 1952년에 창건, 모든 문관들의 아프리카인화를 주장하며 종족차별반대, 토지개혁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정치경제적해방을 주장하고있다. 1970년 1월 국회선거에서 36석을 차지하였으나 집권하지 못함, 민족당 (집권당) 현집권자들과 반동적인 부르죠아지들, 기독교회의 리익을 대변, 1970년 국회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강권을 발동하여 야당을 탄압하고 계속 집권, 마레마뜰로우자유당 국왕 모쉐슈2세의 지지자들의 정당, 1970년 국회선거에서 대회당과 련합, 로조대회

1966년 5월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10월 4일 바수톨랜드라고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레소토왕국으로 고쳤다.

1970년 1월 27일 독립후 처음으로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총의석 60석중 야당인 대회당이 36석을 차지함으로써 집권당인 민족당을 물리쳤다. 이렇게 되자 당시 총리이던 죠나탄은 미영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사촉밑에

1월 30일 군사정변을 일으켜 선거를《무효》로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또한 대회당지도자들을 체포구금하였다.

레소토정부는 미영제국주의자들과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1967년 5월에는 레소토에 피신해오는 남아프리카애국자들을 체포하여 넘겨줄데 대한 《인도협정》을 남아프리카와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양털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목축업이다. 주요집짐승은 양(약 150만마리), 염소 (약 80만마리), 소 (약 37만마리)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하며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부침땅은 령토의 10%에 불과하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수수 등이다.

자연부원으로 철, 돌솜, 금강석이 있으나 약간의 금강석채취를 제외하고는 개발되지 못했으며 가공업도 없는 형편이다.

운수에서는 산악의 오솔길을 따라 등짐으로 운반하는것이 기본이다. 철길은 남아프리카로부터 마세루를 련결하는 몇키로메터 안되는 지선이 있을뿐이다.

주요수출품은 양털, 가죽, 집짐승이며 주요수입품은 직물, 농기구, 금속제품 등이다. 대외무역에서 수입초과로 계속 적자를 내고있으며 국가예산에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2배나 된다.

해마다 20여만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웃나라로 떠난다.

교육형편은 락후하며 문맹률도 높다.

출판보도;신문 레소토 타임스, 느케투 (민족당기관지), 모에레트시 오아 바소토, 모할라바니

방송 레소토방송

말 가 슈

(말가슈공화국)

넓이 59만 6,000km²

인구 760만 4,000명(1973년 12월)

주민은 인도네시아계의 이메리나족(호바족)과 베치미사라카족 (동해안일대), 베칠레오족 (중앙고원의 남부), 치미헤티족 (북동부) 등으로 이루어진 말가슈인이 99%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말가슈말과 프랑스말

수도 따나나리브 (주민 33만 5,000명)

정 치

전국인민개발리사회 (국회) 1973년 10월 21일 선거, 총의석 162석중 18개의석은 정부가 지명, 52석은 총선거를 통해, 92석은 제한된 선거를 통해 각각 선출된다.

대통령 가브리엘 라마난르 소아 (1972년 10월—)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으로 되며 임기는 5년이다.

정부 1972년 10월 4명의 군인과 6명의 민간인들로 구성, 정부수반 가브리엘 라마난르 소아 (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디디에 라찌라까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제1비서 앙드리 앙자 러네 앙셀므, 독립대회당 1958년에 독립을 요구하여 투쟁한 5개의 진보적정당을 망라하여 창건, 적극적인 중립과 기본생산부문의 국유화, 토지의 재분배를 주장, 사회주의동맹 1972년 10월에 창건, 현정부를 지지, 사회민주당 1972년 《5월혁명》전까지 집권당으로 있었다. 프랑스와의《협조》를 주장, 민족당, 통일당, 근로자로조련맹, 민주청년동맹

1972년 5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에 의하여 독립후 정권을 잡고있던 반동적인 치라나나정권이 무너지고 군총참모장이였던 라마난르 소아를 수반으로 하는 새 정부가 수립되였다. 10월 8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라마난르 소아는 《나라의 경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민족적통일을 강화하며 아프리카통일기구 성원국들과의 전면적협조를 실현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정부의 기본과업이라고 하였다.

1973년에 새 정부는《나라의 리익을 위하여, 민족통일의 리익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월에 말가슈정부는 프랑스와 1960년에 맺었던《협조협정》을 폐기하고 6월에는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협조협정을 맺었으며 말가슈에서의 프랑스의 군사기지설치와 군대주둔을 포함한 일련의 특권을 취소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9월 1일까지 이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있던 4만명의 프랑스 침략군을 완전히 몰아냈다.

1973년말에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령해권을 12마일로부터 50마일로 확대하였다.

또한 경제의《말가슈화》구호를 내놓고 8월 31일 라마난르 소아는 은행, 보험, 운수, 동력, 광업 및 대외무역을 비롯한 중요부문을 국유화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1973년 5월 프랑지역에서 탈퇴하고 7월에 중앙은행을 내왔으며 자국화폐의 발행권을 회복하였다.

1973년 8월 아프리카—말가슈—모리셔스합동기구에서 탈퇴하였다.

1974년 1월에는 프랑스인들이 경영하던 4개의 은행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었다.

대외적으로는 민족적자주권과 독립,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투쟁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2년에 쏘련 (10월), 중국 (11월) 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과의 관계를 끊었다.

1973년 민주독일 (11월) 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승인하였다. 또한 아프리카통일기구해방위원회에 1천 50만말가슈프랑 (약 3만딸라) 의 현금을 기증하였다.

1973년 10월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12월 말가슈정부는 인도양을 항행하는 미제침략군 군함이 말가슈의 디에고 수아레스항에 정박하거나 연유를 보급받는것을 거부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부침땅은 약 300만헥타로서 전 령토의 5%에 불과하다.

주요농산물은 와닐라, 커피, 담배, 벼, 감자, 강냉이, 바나나, 사탕수수 등이다. 1972년에 5만 5천t의 커피를 생산하였다. 와닐라생산은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농작물이 수출의 90%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커피는 이 나라 수출총액의 40%를

차지한다.

목축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약 600만마리이상의 소가 있다.

공업은 농산물가공업과 광업이 기본이다.

주요지하자원은 흑연, 돌비늘, 린회석, 금, 베릴리움, 크롬 등이다. 흑연채굴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4위이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864km이다. 약 10개의 비행장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와닐라, 흑연, 돌비늘, 담배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금속제품, 화학제품, 차량, 섬유제품, 식료품 등이다.

말가슈종합대학을 비롯한 각급학교들이 있다.

아프리카에서 보건사업이 비교적발전된 나라로서 10여개의 병원과 400여개의 진료소가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원시종교를 믿으며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말가슈통신

신문 마다가스까라 마할레오테나, 꾸리에 드 마다가스까르, 라 레쀠블리끄

방송 말가슈방송, 말가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1월 16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말가슈정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유엔총회 28차회의에서 말가슈대표는 자기 연설에서 조선문제해결의 열쇠는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는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말가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내놓은 조국통일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다.

1972년 11월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말가슈정부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3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말가슈를 방문하였다.

까 나 리 아

(에스빠냐식민지)

넓이 7,273km²

인구 100만명

주민은 대부분이 까나리아인

공용어는 에스빠냐말

행정중심지 산따 끄루스 데 떼네리페(주민 13만 5,000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에스빠냐총독이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통치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까나리아섬민족자결독립운동 1960년에 까나리아자치운동에 기초하여 1964년 10월 22일에 결성,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까나리아조선친선협회** 1971년 4월 26일 결성

1516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강점초기부터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렸으며 1960년부터 까나리아섬민족자결독립운동의 지도밑에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한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바나나, 옥파, 사탕수수, 포도, 감자, 귤 등이다.

집짐승으로는 소, 염소, 양, 락타 등이다.

공업으로는 원유정제공장, 세멘트공장, 화학공장, 선박수리공장, 수산물가공공장 등이 있다. 미제의 석유독점회사가 급유탕크를 건설하고 많은 리윤을 짜내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물고기통졸임, 남새, 담배 등이며 수입품은 연료와 직물 등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우리 나라 사로청 6차대회에 까나리아섬민족자결독립운동대표가 참가하였다.

쎈 트 헬 레 나

(영국식민지)

넓이 122km²

인구 4,760명

주민은 구라파사람이 대부분이며 아프리카사람, 중국사람 등도 있다.

대부분이 영국말을 한다.

행정중심지 제임스타운(주민 1,700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영국총독이 형식상 《내부자치제》에 기초하여 수립된 《립법회의》와 《행정평의회》를 통하여 통치하고있다. 《립법회의》와 《행정평의회》의장직은 총독이 겸임하고있다.

1637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2차대전후 이 섬에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해군함대의 기지로 리용하고있다.

1956년 6월 1일부터 《내부자치제》가 실시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이 섬에 정박하는 선박들의 봉사사업을 맡아한다.

경제의 기본은 아마생산이며 기타 남새, 과일 등도 가꾸고있다.

소와 양을 기르는 축산업과 수산업도 약간한다.

공업으로는 몇개의 아마가공공장과 레스공장이 있다. 아마(총수출의 85%)를 수출하고 식량과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해저통신선의 중계지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산토메 프린시페

(뽀르뚜갈 식민지)

넓이 964km² (산토메섬 836km², 프린시페섬 128km²)

인구 6만 6,000명(1970년)

주민은 90%가 반투족이며 그외 인도사람, 구라파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뽀르뚜갈말

행정중심지 산토메 (주민 8,000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뽀르뚜갈총독이 형식상의 립법 및 행정 기구들을 두고 통치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위원회 민족적독립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 현재비법화, 총비서 토마스 메더이로, 민족인민행동 (집권당)

1485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1951년에는 《해외주》로 되였다. 산토메에는 뽀르뚜갈의 공군기지와 해군기지가 있다.

이 나라 인민들은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위원회의 령도밑에 민족해방투쟁

을 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코프라, 코코아 등 수출작물을 기본으로 하는 농업국이다. 코프라는 1년에 1천 300~1천500t정도 생산된다. 땅의 대부분은 뽀르투갈식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다. 원주민은 한사람당 0.17헥터에 불과한 땅을 가지고있다.

집짐승으로는 말, 노새, 당나귀, 소, 양, 염소 등이 있다.

수산업도 한다. 년간어획고는 770t 정도이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수출총액의 70%), 커피, 코프라, 종려기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과 섬유제품 등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다. 몇개의 중학교, 소학교 등이 있으나 원주민자녀들은 거의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볼레띰 오피씨알 (주간지), 아 보스 데 산토메 (주간지)

방송 산토메 프린시페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사로청 6차대회에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위원회 성원들로 조직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세 이 쉘

(영국식민지)

넓이 404km²

인구 5만 5,000명 (1971년)

주민의 대부분이 반투족이며 그외 인도인, 구라파인 등도 있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나 일반 주민들은 프랑스말을 많이 쓴다.

행정중심지 빅토리아 (주민 1만 4,200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영국총독이 실권을 쥐고있다. 형식상 《립법회의》와 《행정평의회》가 있으나 대외정책, 국방 등의 주요부문은 총독의 관할하에 있다.

정부 총리 제임스 만참

정당, 사회단체; 인민통일당 1964년에 창건,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 1970년 12월 완전독립을 위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는 새로운 강령을 발표, 민주당 1963년에 창건, 영국과의 긴밀한 련계의 유지를 주장하고있다. 1967년 12월 총선거 이래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세이쉘당, 9개의 로조단체들이 있다.

1794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70년 3월부터 《내부자치제》가 실시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코프라, 종려, 커피, 향료, 계피 등 이다. 코프라의 년평균생산량은 6천t, 계피기름은 2만 5천t정도이다.

년평균어획고는 1천~1천500t 정도이다.

주요수출품은 코프라, 커피, 향료, 계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사탕, 천 등이다.

주민의 90%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피플 (인민당기관지), 세이쉘 위클리 (민주당기관지)

방송 세이쉘방송

모 리 셔 스

(모리셔스공화국)

넓이 2,045km²

인구 82만명 (1971년 9월)

주민은 인도사람과 파키스탄사람이 67%, 혼혈인과 구라파사람이 30%, 중국사람이 3%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영국말과 프랑스말

수도 포트루이스 (주민 15만명)

정 치

국민회의 일원제, 의석수 70석,

정부 1969년 12월에 민족통일정부 (레이버당, 사회민주당, 회교행동위원회의 3당련립정부) 가 구성, 총리 시우사구르 람굴람 (1967년—), 외무, 관광 및 이민부장 갈스개탄 두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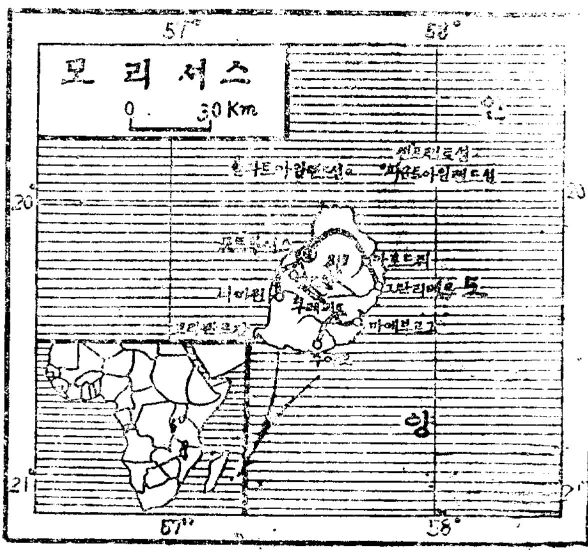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위원장 엘찬드라문, 레이버당 (집권당) 1936년에 창건, 인도인출신의 사람들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사회민주당 (집권당) 혼혈인출신의 부르죠아지들과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 남아프리카와 아프리카나라들 사이의 《대화》를 지지, 회교행동위원회, 민주동맹 1970년 11월 사회민주당에서 갈라져나와 조직, 독립전위집력, 루사운동, 로동련맹, 로조련맹, 로동대회, 공산주의청년동맹

1968년 3월 12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3년 5월 14일 중앙아프리카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2월 27일에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8월과 9월에 걸쳐 총리가 쏘련, 프랑스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 생산이다. 부침땅의 94%가 사탕수수밭이다. 사탕생산의 60%를 22개의 프랑스—모리셔스 합영회사가 쥐고있다. 1973년에 72만t의 사탕수수를 생산하였다.

그밖에 담배, 차, 커피, 향료도 약

간 가꾸고있으며 식량은 수요의 10분의 1도 생산못하며 매년 오스트랄리아 등에서 10여만t의 식량을 수입한다.

공업은 거의 없고 22개의 사탕수수가공공장과 목재가공공장, 선박건조 및 수리공장 등이 있다.

관광업도 발전시키고있다. 1972년에 5만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1천 323km, 철길은 총연장 43km이다.

주요수출품은 사탕과 차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운수수단, 공업제품 등이다.

하나의 종합대학과 100여개의 초등 및 중등 학교가 있다. 어린이들의 90%가 공부하고있다. 고등교육기관들에서는 자체로 양성한 모리셔스교원들이 교육사업을 맡아보고있다.

구라파인과 크레올은 기독교, 인도인은 힌두교, 나머지는 회교, 불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액숀 (영어, 프랑스어), 어드반스 (영어, 프랑스어), 로브, 락시옹

방송 모리셔스방송, 모리셔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 4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1973년 3월 16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9일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1년 1월에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현대성모리셔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하여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 성원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로므니아에서 공부하는 모리셔스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1년에 모리셔스에서 《김일성동지도서관》이 개관되였다. 이 도서관에는 여러 나라말로 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수많이 전시되였다.

1973년에 신문 《락시옹》 4월 19일호는 《조선인민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요람 만경대》라는 제목으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1973년 3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모리셔스를 방문하였다.

레 유 니 옹

(프랑스식민지)

넓이 2,510km²

인구 45만명 (1970년)

주민의 대부분이 구라파계인이며 그외 인도인, 말가슈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행정중심지 쌩드니 (주민 8만 9,000)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프랑스정부가 임명하는 지사에 의해 통치된다. 지사는 레유니옹의 최고권력자이다. 총의회는 해외령의회로서 형식상 36석으로 되여있으나 실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레유니옹은 프랑스의 국민의회에서 3석을, 참의원에서 2석을 차지한다.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프랑스공산당 지부로 있다가 1959년 5월부터 독자적인 정당으로 되였다. 총비서 폴 베르제스

1643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793년부터 레유니옹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1810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1815년에는 다시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46년 3월 19일에는 프랑스의 《해외주》로 되였다.

레유니옹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여 민족적자결권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사탕생산이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사탕생산만을 강요하고있다. 이외 커피, 강냉이, 파실, 담배 등을 생산한다.

사탕공업을 제외한 공업은 거의 없다.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사탕과 알콜이 수출총액의 90%를 차지하며 이외 향유 등을 수출한다. 주요수입품은 쌀, 비료, 방직제품, 사탕공업설비, 연료 등이다.

주민들의 60%가 문맹자이다.

사탕수수가을이 끝나면 년중 7~8개월은 계절적인 실업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주민의 85%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떼무아나쥐 (공산당기관지), 쥬르날 드 질 드 라 레유니옹, 레 꾸리에 듀 뻬쁠

방송 레유니옹방송

우리나라와의 관계

1969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산당 총비서 폴 베르제스를 단장으로 하는 공산당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꼬 모 르

(프랑스식민지)

넓이 2,171km²

인구 29만명 (1970년)

주민은 안떨라우또라족, 말가슈족, 인도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행정중심지 모로니 (주민 1만 1,500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프랑스고등판무관이 재정, 국방, 외교 등의 실권을 틀어쥐고 통치하고있다.

정부 1973년 1월 7일 민주동맹과 인민민주회의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아흐메드 아브달라호

정당;꼬모르민족해방운동 1963년에 창건, 꼬모르에서의 반식민주의투쟁을 지도, 1964년부터 비법화, **사회주의당, 민주동맹**(집권당), **인민민주회의**(집권당)

1912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57년에는 프랑스의 《해외령》으로 되였다.

1961년 12월 《내부자치권》을 가지게 되였다.

1972년 12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 인민들이 강력한 투쟁에 못이겨 《자치정부》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국회상원의 꼬모르대표로 파견되여 있은 아브달라호가 《자치정부》 총리로 선거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축산업, 어업을 한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코코아, 야자, 사탕수수, 목화, 와닐라, 바나나등이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노새, 돼지 등이다. 년평균어획고는 3천t정도이다.

공업으로는 와닐라가공공장들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담배, 커피, 사탕, 코코아, 와닐라기름이며 주요수입품은 석유제품, 천, 일용품이다.

실업자가 많으며 원주민들의 최저임금은 하루에 17아프리카프랑이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이 나라에는 출판물이 전혀 없다.

구 라 파

정세개관

1973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발은 구라파의 많은 지역에 더욱 찬연히 비쳐갔으며 이 지역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더 한층 높아졌다.

이해 스웨리예, 단마르크, 핀란드, 노르웨이를 비롯한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자료들을 출판하여 광범한 인민들속에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1973년에 진행된 만수대예술단 무용단의 런던, 이딸리아에서의 공연,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우리나라예술단의 베를린에서의 공연 등을 계기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온 구라파땅에 더욱 힘있게 울려퍼졌다.

1973년에 구라파나라들은 우리 나라와의 련대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1973년 6월 20일부터 24일사이의 구스따브 후싸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당및정부대표단, 10월 24일부터 29일 사이의 또도르 쥡꼬브동지를 단장으로하는 벌가리아 당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당및 국가들간의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으며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과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1973년에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수많은 당및 정부대표단, 근로단체 대표단, 경제대표단, 교육, 문화, 예술대표단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우리 나라에서 당 및 정부대표단들을 비롯한 수많은 대표단들이 구라파나라들을 방문한것은 이 지역나라들과 우리 나라 사이의 굳은 련대성과 친선관계 발전의 또하나의 표시로 되였다.

이해 북구라파나라들인 스웨리예, 단마르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슬란드가 우리 나라를 승인하고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은것은 북구라파 나라들과 우리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1973년에 구라파나라들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었다. 우리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에서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 자본주의나라들의 국회와 정부, 당 및 친선단체들과 개별적인 정치활동가들로부터 그것을 지지하는 수많은 편지들을 보내여왔으며 성명, 담화들이 발표되였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 북구라파나라들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나라의 립장을 지지하여 활동하였다. 1973년 11월 17일 핀란드수도 헬싱키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가 진행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북구라파나라들의 70여개 정당 사회문화단체대표들과 저명한 인사들 160여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1973년에 서구라파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침략과 간섭, 식민주의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북아일랜드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통치와 이슬란드의 자주권에 대한 강도적 침범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아프리카에서의 인종주의정책을 적극 추동하여 세계인민들의 규탄을 받았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기네-비싸우, 앙골라, 모잠비끄 인민들을 반대하는 식민주의전쟁을 계속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미제의 침략도구 나토성원국들은 침략전쟁준비에 계속 미쳐날뛰였다. 6월에 희랍에서 나토성원국들의 전쟁연습이 감행되였으며 나토리사회에서 서독, 벨지끄 등은 미제로부터 새로운 미싸일을 끌어들일것을 다짐하였다. 서독과 이딸리아에서는 파씨즘이 공공연히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죽어가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마지막 발악이며 놈들의 침략과 간섭, 식민주의 정책은 인민들로부터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막다른골목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326페지)

서구라파제국주의자들은 안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1973년에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은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겪었다. 프랑스, 이딸리아를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좌익세력의 진출이 강화되였다. 또한 많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치적지배권을 위한 지배층내의 암투와 모순이 격화되고 정부의 반동적통치와 반인민적 경제정책을 반대하며 임금인상,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대중적파업, 시위투쟁이 힘있게 진행되였다. 또한 이해에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은 심각한 경제적위기를 겪었다.

아랍석유수출국들의 석유수출금지 및 제한조치로하여 국내소비의 약70%를 중동원유에 의존하고있는 서독, 영국, 이딸리아, 화란, 프랑스, 벨지끄 등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심한 연료위기를 겪었다. 연유의 부족으로 영국, 서독, 화란, 이딸리아 등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의 석유에 의존하는 중화학공업부문이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통화팽창으로 많은 나라들의 돈가치는 대폭 떨어졌다. 1973년까지에 이르는 지난 25년동안 서부독일의 마르크의 실제적가치는 41%, 영국의 파운드는 66%, 프랑스의 프랑은 72%나 떨어졌다.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적위기는 이 나라들의 대외무역에서 초래된 심한 적자에서도 나타났다. 즉 1973년에 영국에서는 23억 4천 600만파운드, 이딸리아에서는 1만 8천 680억리라의 적자가 났다.

1973년에 서구라파제국주의자들은 밖으로부터도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해 영제국주의,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아프리카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뽀르뚜갈식민지였던 기네-비싸우와 영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바하마가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다. 영제국주의의 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주

의정책은 8월 2—10일까지 카나다에서 진행된 영련방회의에서 많은 성원국들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았다.

회의에서 대다수성원국들은 남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에 대한 통상과 자본투자를 확대하고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에 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를 강화하는 영제국주의를 규탄하였다.

또한 영련방내의 신생독립국가들은 련방내의 불평등한 경제적예속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것은 영제국주의자들과 영련방성원국들간에 심각한 대립과 모순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되였다.

미제의 지배를 반대하는데로 나아가는 구라파의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나토의 침략행위를 반대하며 나토에서 떨어져나오려는 움직임이 날로 강화되였다.

이와함께 이슬란드를 비롯한 구라파의 작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큰 제국주의나라들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기운이 보다 높아졌다. 영제국주의의 지배와 수산자원의 략탈을 반대한 이슬란드정부와 인민의 투쟁, 영국해군기지를 자기의 통제하에 넣은 말따인민들의 투쟁,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한것으로하여 미국주재 자기 나라 신임대사의 입국을 거부당한것과 관련하여 취한 스웨리예정부의 단호한 립장 등은 그의단적인 실례로 된다. 이해에도 프랑스는 미제의 구라파지배를 반대하고 서구라파의 《독자성》을 주장해나섰다.

1973년에 미제와 그의 서구라파《동맹국》들 사이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였다. 서구라파의 미제《동맹국》들중 많은 나라들이 서구라파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교활하게 지배하려는 미제의 《새대서양헌장》을 랭대하였으며 프랑스는 그것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과 미제와의 모순은 1973년 10월 제4차중근동전쟁을 계기로 더욱 심각해졌다. 당시 미제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사촉하여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케해놓고는 전쟁에서 궁지에 빠진 이스라엘놈들을 부추기기 위하여 구라파의 나토《동맹국》들로 하여금 제놈들의 이스라엘 《원조》정책에 《협력》해 나설것을 강요해나섰다. 그러나 아랍석유수출국들이 미제와 그《동맹국》들에 대한 석유수출을 줄이거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집단적인 조치를 취하자 이에 겁을 먹은 대다수 구라파나토성원국들은 미제의 《협력》요청을 거부하였을뿐아니라 자기 나라들에 배치되여있는 미제의 군사기지들을 통해 미제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수하는것마저 거부하였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동맹국》은 미제가 자기 《동맹국》들과 《아무런 협의와 사전 통고》도없이 구라파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로의 살인무기수송을 감행한데 대해 그것이 《자기 나라 주권에 대한 모욕》이며 《격분하지않을수 없는 행위》라고 노발대발하면서 미제를 공격하였다. 뿐만아니라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은 중근동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개입을 위해 미제가 《경계태세》를 취한데 대해 그것을 《너절한 정치적모략》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그런짓을 그만두라고 《집단적》으로 들이대였다.

실로 1973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찬란한 빛발이 구라파의 많은 지역에 더욱 넓고 깊게 비쳐가고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존경심이 구라파인민들속에서 보다 세차게 일어났다.

또한 서구라파자본주의는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으며 반면에 이 지역나라들에서 자주적지향과 좌익세력의 진출, 근로자들의 투쟁이 보다 더 강화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쏘 련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넓이 2,240만 2,200km²

인구 2억 4,860만명(1973년 1월)

로씨야족 (53%), 우크라이나족 (20%), 백로씨야족, 우즈베크족, 따따르족 등 100여개의 민족과 소수민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로어

수도 모스크바(주민 706만 1,000명, 1971년)

정 치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에는 15개 가맹공화국, 20개의 자치공화국, 8개의 자치주, 10개의 민족구(1973년)가 속해있다.

최고쏘베트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량원—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로 구성된다. 임기는 각각 4년이다. 련맹 쏘베트는 전련맹적으로 쏘련인민의 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며 민족쏘베트는 각민족의 리익을 대표한다. 련맹쏘베트 대의원수는 767명이며 민족쏘베트대의원수는 750명이다. 현 최고쏘베트는 제8기로서 1970년 6월에 선거되였다.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드고르느이(1966년 8월—)

정부 총리 아. 엔. 꼬씌긴(1966년 8월—). 현 내각은 1970년 7월에 구성되였다. 외교부장 아. 아그로미꼬, 국방부장 아. 아그레치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03년 7월 30일에 창건되였다.

총비서 엘. 이. 브레쥬네브

직업동맹, 레닌공산청년동맹, 쏘련청년단체위원회, 녀성위원회, 쏘련로병위원회, 쏘조친선협회

쏘련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국가이다.

1917년 11월 7일 로씨야로동계급은 레닌의 지도밑에 사회주의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인류 력사상 처음으로 새형의 쏘베트국가를 창건하였다. 1918—1921년의 어려운 공민전쟁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지켜내였다.

1922년 12월 제1차전련맹쏘베트대회에서 다민족국가인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이 결성되였으며 1924년 1월 31일에 제2차 전련맹쏘베트대회에서 첫 쏘련헌법이 채택되였다.

1925년 12월 쏘련공산당 제14차대회에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할데 대한 로선, 1927년 12월 당 제15차대회에서 농업집단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제1차5개년계획(1928—1932년)을 수행하고 제2차5개년계획(1933—1937년)을 수행함으로써 쏘련은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되였으며 농업집단화를 완성하였다.

1936년 12월 5일 전련맹쏘베트 제8차비상대회에서 쏘련헌법이 채택되였다.

1941—1945년의 제2차세계대전에서 쏘련인민은 파쑈독일과 일제를 격파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였다.

쏘련인민은 혁명이후 부터 1970년까지의 8차례에 걸치는 5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다.

주요사건 4월 26—27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국제적활동에 관한 쏘련공산당총비서의 보고를 청취토의하였다.

6월 26—27일사이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제24차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제적활동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의하

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2월 10—11일사이에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1974년도 쏘련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쏘련공산당은 제24차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1972년 5월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73—1974년 기간에 진행하는 당원증을 바꾸어주는 사업을 이해 3월 1일부터 진행하였다.

7월 쏘련에서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 70돐과 관련한 경축회를 성대히 진행하였다. 또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 량원합동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인민교육에 관한 법안과 기타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쏘련인민교육의 상태와 그를 더한층 완성하기 위한 조치, 인민교육에 관한 법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쏘련최고쏘베트회의는 1974년도 인민경제계획 및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6월 17일 쏘련에서 지방쏘베트선거가 진행되였다. 219만 3천여명이 지방쏘베트대의원으로 선출되였다. 그중 67.2%가 로동자들과 꼴호즈원들이며 47.4%가 녀성들이다.

7월 19일 쏘련최고쏘베트는 197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국가공증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쏘련최고쏘베트는 197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인민교육법 기초를 비준하였다.

7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쏘련정부는 농촌에서 학교교육을 더한층 발전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결정에서는 1974년부터—1982년까지 국가투자로 농촌학교를 건설하며 매개 농촌 학교들에 농업기술과 자동차운전기술을 배울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며 농촌들에 중등학교들을 두는 동시에 직업기술학교망을 확장할것을 예견하였다.

쏘련공산당 총비서 브레쥬네브는 1973년 5월 12—13일까지 민주독일, 5월 18—22일까지 서독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서부독일과 경제, 공업 및 기술협조의 발전에 관한 협정,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보충의정서를 조인하였다.

브레쥬네브는 또한 6월 18—25일까지 미국, 6월 25—27일 사이에 프랑스, 9월 18일—21일사이에 벌가리아, 11월 26일부터 5일간 인도를 방문하였다.

7월 5—8일에 쏘련 최고쏘베트 상임위원장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1973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총리 다나까가 쏘련을 방문하였다.

쏘일회담에서 쌍방은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회담문제, 씨비리공동개발을 비롯한 경제협력문제, 호상관심사로되는 중요 국제문제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8월 4일에 웰남로동당 제1비서, 10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 대통령, 11월 2일에 벌가리아공산당 제1비서, 11월 12일—15일사이에 유고슬라비아련방공화국 대통령, 11월 8일 이라크공산당 제1비서, 12월에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10월 중순에 단마르크 총리가 쏘련을 방문하였다.

10월 21일 미국무장관 키신저가 쏘련에 가서 브레쥬네브와 회담하였다.

쏘련은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공화국정부를 승인하였으며 10월 9일에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인정하였다. 6월 23일에는 미국 쌘프랜시스코에 총령사관을 개설하였다.

쏘련은 칠레에서 일어난 반동적군사정변에 의해 알옌데정권이 전복됨과 관련하여 9월 22일 칠레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3년에 쏘련에서는 제8차국제영화축전, 국제아동영화축전, 기록영화축전들이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쏘련은 발전된 공업국가이다.

쏘련의 공업생산은 쏘련형성 이후 지난 반세기동안 321배로 늘어났으며 세계공업생산의 20%를 차지하고있다.

1973년에 쏘련의 공업생산은 1972년에 비하여 7.3%늘어났다.

공업의 70% 이상을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연료동력공업 등 중공업이 차지한다.

주요 흑색금속공업지구는 도네쯔탄전을 중심으로하는 남부지구, 우랄지구 등이다. 강철생산은 1973년 1—9월까지 아홉달동안에 전해 같은 기간보다 420만t 더 늘어났다.

연료동력공업의 주요원천은 석탄, 원유, 천연가스, 유모혈암, 니탄, 수력자원 등이다. 1973년의 첫 아홉달동안 전해같은 기간보다 전력은 370억kWH, 석유는 1천 800만t, 가스는 100억m^3 더 생산하였다.

기계공업은 동력기계, 운수기계, 농기계, 공작기계 및 각종설비 등을 생산하고있다. 동력기계제작중심지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하리꼬브 등이며 운수기계 제작중심지는 모스크바, 뜨빌리씨, 하리꼬브 등이며 자동차공업의 중심지는 모스크바, 야로슬라블리, 고리끼시, 민스크 등이다. 1973년 1—9월까지 전해 같은 기간보다 계산기생산은 34%, 승용차생산은 29%, 탄광용기계화된 종합설비는 21% 늘어났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최신식로케트초음속비행기, 원자쇄빙선을 제조하였다.

화학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비료, 합성고무, 각종수지, 인조섬유생산이다. 1973년 첫 9개월동안 합성수지와 소성재는 14% 늘어났다.

경공업에서는 섬유공업과 식료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식료품공업에서는 제분과 기름제조, 빵, 사탕, 술, 통졸임, 고기, 물고기가공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1973년에 노보리베쯔크야금공장의 큰 용광로, 체르까쓰화학종합공장 제3계단공사를 완공하였다.

쏘련의 농업도 쏘베트정권밑에서 발전하였다.

중요 알곡작물은 밀, 호밀, 보리, 귀밀, 강냉이 등이다. 기본 알곡생산지역은 우크라이나, 북깝까즈, 볼가강연안 중앙흑토지대, 우랄 등지이다.

1973년에 알곡은 2억2천 250만t 생산되였다.

쏘련에서 최근년간 벼재배면적이 2배로 늘어났으며 그 수확고는150만t을 넘었다. 중부아세아의 씌르다리아강의 하류에 새로운 벼재배지역이 마련되였다.

공예작물로서는 목화, 아마, 삼, 사탕무우, 해바라기, 담배, 차 등이다. 1973년에 목화는 760만t 생산되였다.

축산부문에서는 소, 양, 돼지, 염소를 주로 기르고있다.

1972년 10월—1973년 6월에 그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우유는 142만 2천t, 고기는 35만t, 닭알은 24억개 더 생산하였다. 7월 1일 현재 큰뿔가진 집짐승마리수는 그전해에 비하여 170만마리, 양과 염소는 440만마리 늘어났다.

12월 초 쏘련에서는 집짐승의 종자개량을 위해 분산된 종축장들을 큰 중심지들에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첫 중심지를 꼬스뜨롬까야주 《까라바예브》 농업연구소에 창설하였다.

어업도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부문의 하나로 되고있다.

대외무역은 사회주의나라들과 65%, 신생독립국가들을 비롯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 13.5%, 자본주의 나라들과 21.5%(1971년 현재)의 비률로 하고있다.

1973년에 쏘련에서 인구 한사람당 실질수입은 1970년에 비하여 14%,

1972년에 비하여 5.2% 늘어났다.

쏘련에는 800여개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4천여개의 중등기술학교들이 있으며 일반학교들에서는 4천 900만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있다. 그중 농촌 어린이들이 2천 200만명이다.

1973년에 쏘련은 통신위성, 항공 및 지구물리위성, 우주탐사위성, 각종 과학장치를 장비한 위성 80여개를 띄웠다.

쏘련의 자행기구 《루노호드-2》호는 자동정류소 《루나-21》에 실려 1973년 1월 16일에 달표면에 내려 4개월동안 60회의 무선련락을 하면서 선체내계통들의 작용을 검열하며 운동을 조종하는 작업과 과학적실험들을 진행하며 지상에 통보자료를 전달하였다.

2월 18일 쏘련에서는 사람을 태운 우주비행선 《쏘유즈-13호》를 쏴올렸다. 12월 19일에는 8개의 인공지구위성을 한꺼번에 쏴올렸다.

출판보도; 통신—따쓰, 아뻬엔. **신문** 쁘라우다(쏘련공산당기관지) 이즈베스찌야(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및내각기관지), 꼼쏘몰쓰까야 쁘라우다(레닌공청기관지), 뜨루드 (직맹기관지), 크라쓰나야 즈베즈다(국방부기관지), 《리쩨라뚜르나야 가제따》

잡지 꼼무니스뜨(쏘련공산당 리론잡지), 노보에 브레먀(정치주간잡지), 메쥬드나로드나야 쥐즌(국제생활잡지) **방송** 모스크바방송, 모스크바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2일 우리 나라와 쏘련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7월 6일에는 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1972년 4월 13일 혁명의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쏘련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는 레닌훈장을 수여함에 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쏘련 잡지 《노보에 브레먀》 1973년 2호는 그이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략력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으며 경애하는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하신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소개하였다. 이해 쏘련 신문 《쁘라우다》와 잡지 《노보에 브레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6월 23일연설에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5대방침을 지지하는 론평과 론설들을 실었다. 잡지 《빠르찌나야 쥐즌》 1973년 3호는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의 요지를 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9월 쏘련에서는 쏘조친선주간이 진행되였다. 이 주간에 련대성집회, 친선야회 등이 진행되였다. 또한 조선영화상영주간이 진행되였다. 9월 5일에는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모스크바사회계의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2월 6일 모스크바에서 사회계의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1973년에 쏘련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주었다.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에서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에 대하여 4월 17일 쏘련최고쏘베트 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로부터 우리 인민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대한 견결한 지지를 표시하는 회답편지를 보내여왔다. 1973년에 쏘련은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제출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에 대하여》의 결의안의공동발기국으로서 우리 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하여 활동하였다.

1973년 9월 7일-12일사이에 쏘련내각부총리를 단장으로하는 쏘련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9월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표단을 만나시였다.

또한 이해 4월에 쏘련정부 무역대표단, 5월에 모형항공기선수단, 까자흐스딴가맹공화국 녀자롱구종합선수단, 건설대표단, 6월에 쏘조친선대표단, 7월에 건축가대표단, 작가대표단, 7월-8월초에 청소년배구선수단, 8월-9월초에 쏘조친선관광단, 우즈베크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빠호따고르축구선수단, 9월-10월에 백로씨야국립무용단, 10월 쏘련과학기술협조대표단, 11월에 영화대표단, 력기선수대표단, 박물관 일군들, 쏘조친선협회대표단, 조쏘정부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10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쏘련정부대표단, 교육대표단, 12월에 국립은행및 무역은행대표단 등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2월23~3월6일까지 피바다가극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1973년 2월 27-3월 5일까지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2월 28일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브레쥬네브동지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전달하였다.

이해 1월 우리 나라 파학기술협조대표단이 모스크바에서 있은 조쏘파학기술협조상설분과위원회 제6차회의에 참가하였으며 2월에는 청소년빙상선수단이 쏘련에서 진행된 사회주의나라 청소년빙상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2월에 민용항공기대표단, 유술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으며 4월에는 정부대표단이 조쏘정부사이의 경제 및 파학기술협의위원회 제9차회의에 참가하였다. 5월에 직맹대표단, 압록강선수단, 적십자회대표단, 5-6월에 작가대표단, 6월에 조선공업기술총련맹 전기통신 및 전자공학협회대표단, 9월에 조쏘친선대표단, 10월에 조선음악가동맹대표단 11월 녀맹대표단 등이 각각 쏘련을 방문하였다.

뽈 스 까

(뽈스까인민공화국)

넓이 31만 2,677km²

인구 3,350만명(1973년말)

주민은 서슬라브족의 뽈스까사람이다.

국어는 서슬라브말에 속하는 뽈스까말

수도 와르샤와(주민 130만명, 1973년)

정 치

쎄임 최고주권기관이다. 대의원은 460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쎄임은 국가주권의 최고협의기관이며 국가수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쏘베트를 선거한다. 쎄임의 휴회기간에는 국가 쏘베트가 최고주권기관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헨리크 야브원스끼(1972년 3월-)

정부 총리 뾰뜨르 야로쉐비치(1970년 12월-), 외교부장 쓰떼판 올쑈쓰끼, 민족보위부장 보이쩨흐 야루젤쓰끼

정당, 사회단체; 통일로동당 1948년 12월 15일 로동당 (1945년 1월 5일 창건)과 사회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 **통일농민당, 민주당, 인민통일전선, 직업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련맹** 1973년 4월에 창설된 청년조직, 학생조직, 소년단조직들의 련합상설기구, **사회주의청년동맹, 사회주의농촌청년동맹, 녀성리사회**

1944년 7월 22일 뽈스까는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시적으로 강점되였던 히틀러독일의 파쑈통치기반에서 해방되

여 민족재생의 길에 들어섰다.

재생후 뽈스까인민은 1945—1947년까지 부르죠아정권을 복귀하려던 반동세력을 진압하고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그후 이 나라 인민은 전쟁으로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여러차례의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뽈스까를 번영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다.

주요사건 1973년 2월 26일에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전원회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원료와 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강령을 토의하였다. 6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근로대중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한 당, 국가 및 직맹의 과업과 또한 나라의 대외정책의 주요방향을 토의하였다.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통일로동당 제1차전국대표자대회는 보고 《제6차당대회의 결정을 철저히 수행하며 경제관리의 효과성을 가일층 높이기 위하여》와 기타 문제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의하였다.

3월에 뽈스까통일로동당에서는 구역 및 시당단체들의 결산선거회의를 진행하였다.

1월 25일 뽈스까쎄임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1973년도 농촌경리 및 식료공업에 관한 보고를 토의하였다.

4월 12일에 열린 쎄임회의는 청년들을 교양하며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참가시키는데서 인민과 국가앞에 나서는 과업을 토의하고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밖에 인민쏘베트들의 임기를 연장할데 대한 법안, 원자력관리국 창설에 관한 법안, 과학연구소들의 조직과 관련한 조항 등을 수정할데 대한 법안들을 토의하였다.

3월 23일 끝난 쎄임회의는 1972년도 인민경제계획 및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정부의 보고를 찬동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제출한 기업소들의 상금폰드, 사회적폰드, 주택폰드의 창설 및 분배원칙에 관한 법령을 토의채택하였다.

10월 13일 쎄임회의에서는 나라의 인민교육체계문제와 전반적의무교육실시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 22일에 열린 쎄임회의에서는 1974년도 사회경제발전계획을 토의하였다.

12월 9일 뽈스까에서 지방인민쏘베트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는 유권자의 97.38%가 참가하였으며 13만 5천 424명의 대의원들이 압도적다수의 찬성투표로 선거되였다.

4월 11일 와르샤와에서 진행된 사회주의청년동맹, 사회주의농촌청년동맹, 사회주의학생동맹, 소년단동맹 그리고 군대 사회주의청년동맹 총지도부들의 공동회의에서 뽈스까인민공화국 사회주의청년동맹련맹을 창설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련맹총리사회 집행위원회를 선거하였다.

뽈스까통일로동당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는 1월 하순에 체스꼬슬로벤스꼬, 5월에 유고슬라비아, 6월 18일에 민주독일, 11월 19일부터 4일간 벨지끄, 12월 17—19일에 쏘련을 방문하였다.

10월 29일부터 5일간 국가쏘베트위원장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뽈스까총리는 1월 10일 인도, 8월 중순에 쏘련을 방문하였다. 그는 쏘련총리와의 회담에서 금후 두 나라의 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3월 14일부터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와 총리 포그에네, 6월 27—30일사이에 이라크 대통령, 11월 중순에 또도르 쥡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 당및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2월에 남부웰남공화공식대표단, 7월에 웰남 당 및 정부대표단, 6월 오지리총리가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12월초 이딸리아공산당 총비서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월 뽈스까통일로동당과 독일사회통일당 사이에 사상사업과 선전분야에서 두당의 협조를 가일층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5월 31일 뽈스까통일로동당은 웽그리아사회로동당과 사상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뽈스까는 3월에 뉴질랜드, 9월에 필리핀과 대사급외교관계를, 11월에 이딸리아와 령사협정을 맺었다. 한편 칠레에서 반동적군부세력들이 정권을 잡은것과 관련하여 10월 11일 칠레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뽈스까는 공업—농업국가이다.

공업에서는 연료동력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금속공업, 건재공업 등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연료동력공업에서 석탄채굴공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석탄채굴량은 세계 제5위이다. 상부 실레지아탄전과 하부 실레지아의 발프쥐호탄전은 이 나라의 기본 석탄생산기지로서 전국 석탄생산량의 91%를 담당하고있다.

전력공업은 석탄을 원료로하는 화력발전에 의거하고있으며 그 생산기지도 실레지아탄전지역에 집중되여있다.

화학공업에서는 석탄을 주원료로하는 합성암모니아, 질소비료, 합성섬유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자동차, 뜨락또르, 중형공작기계, 선박, 야금설비, 정밀공학기구들, 각종 계기들과 설비들을 생산하고있다. 중심지는 상부 실레지아지구와 브로쯜라브, 와르샤와, 뽀즈난 등이다.

금속공업부문도 석탄생산지역에 있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면직, 모직, 아마직 생산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 중심지는 이 나라 방직 및 섬유공업의 거의 절반이 배치되여있는 로지시이다.

1973년 상반년에 공업부문에서는 년간계획을 50.5% 수행하였다. 1973년에 농기계공장로동자들은 전해보다 30% 더많은 농기계를 생산하였으며 선박공업부문에서는 20척의 배를 무어 바다에 띄웠다. 이해 첫 8개월간 뽈스까에서는 17개의 큰 기업소들이 새로 조업하였다.

부침땅은 1천 500만헥타이상으로서 전령토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주요작물은 밀, 쌀보리, 보리, 귀밀,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쌀보리와 감자는 이 나라의 2대작물로 되고있다.

축산업에서는 소 (60여만마리)를 주로 기른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철도운수, 해상운수, 하천운수가 큰 의의를 가진다.

수출품은 석탄, 아연, 콕스탄, 섬유제품, 기계, 선박, 일용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쇠돌, 비료, 석유제품, 양털, 알곡, 목화이다.

대외무역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쏘련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몫은 33%에 달하고있다.

일본과의 경제교류가 늘어나고있으며 1972년에 일본과의 상품류통액은 4억 3천 300만즐로띠에 달하였다.

3월 뽈스까는 교육간부들의 양성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교육간부들은 종합대학, 사범대학 그리고 공업대학, 농업대학 등에서 전문과목 교원들을 양성하게 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빠쁘통신(뽈스까통신)

신문 뜨리부나 류드(통일로동당기관지), 그워스 쁘라쮜 (직맹기관지)발까 므워드호 (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즤쩨 와르샤븨 (수도신문), 젠니크류도븨

잡지 노웨드로기 (통일로동당 리론

잡지), 직쩨 빠르며 (통일로동당 생활잡지),

방송 뾜스까라지오및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뽈스까는 1948년 10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 1971년에 뽈스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였으며 그이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잡지 《제쉬뜨이떼오레띠츠노―뽈리츠네》가 실었다. 신문 《뜨이고드니크꿀라르느이》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소개하였다.

1973년에 뽈스까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었다.

뽈스까는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제출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에 대하여》의 발기국으로 활동하였다.

1973년 5월 29일—6월 5일사이에 뽈스까 당 및 쎄임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6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표단을 만나시였다.

이해 뽈스까의 정부대표단(10월), 농업과학원대표단 (6월), 청소년배구선수단 (7월말—8월초), 과학기술협조대표단(8월), 철도녀자배구선수단 (8월), 빠쁘통신사대표단 (10월), 력기선수단 (11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0년 3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뽈스까통일로동당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동지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전달하였다.

1973년에 또한 우리 나라 과학원 대표단(2월—3월), 사로청대표단 (4월), 철도부기관차녀자배구선수단 (4월), 직맹대표단 (5월)이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7월에 조선인민군협주단이 뽈스까를 방문하여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해 3월 15일에 우리 나라 과학원과 뽈스까과학원 사이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 1973~1974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조인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넓이 12만 7,870km²

인구 1,454만 2,000명(1973년 3월)

주민의 대부분은 체스꼬사람, 슬로벤스꼬사람이고 이 밖에 독일사람, 뽈스까사람, 우크라이나사람들이 산다.

공용어는 체스꼬말과 슬로벤스꼬말이다.

수도 쁘라하(주민 107만 8,000명)

정 치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 공화국은 두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 민족국가인 체스꼬사회주의공화국과 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으로 이루어져있다.

련방회의 최고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련방회의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 인민의원과 민족의원으로 이루어져있다. 인민의원 대의원은 전련방적인 인구비례에 의하여 선출되며 그 수는 200명이다. 민족의원은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각각 75명씩 선거되여 150명으로 구성된다.

체스꼬에는 200명, 슬로벤스꼬에는 150명으로 구성된 민족리사회가 있다.

대통령 루드위끄 스워보다 (1973년 3월 22일 재선)대통령은 국가수반이며 량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한다. 임기는 5년이다.

련방정부 최고집행기관이다.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의 두 공화국에는 정부가 있다. 임기는 4년이다. 총리 루보미르 슈뜨로우갈 (1970년 1월), 외교부장 보후슬라브 흐뇨우뻬끄, 민족보위부장 마르띤 드주르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1년 5월 14일 창건, 1948년 6월 28일에 사회민주당과 합당.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사회당 1897년에 조직, 일부 사무원들과 인테리들을 망라. **인민당** 1922년에 조직. 일부 농민, 인테리층을 망라, **슬로벤스꼬부흥당** 1948년 3월에 조직, **민족전선, 혁명직맹운동,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리사회.**

1945년 5월 9일 체스꼬슬로벤스꼬 전국이 파쑈독일강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다.

1945년 7월 민족전선정부가 수립되여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들은 1948년 2월 공산당의 령도밑에 서방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한 국내반동세력의 반혁명적음모를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48년 2월승리후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애국적 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자기 나라를 발전된 공업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으며 계급적원쑤들의 거듭되는 파괴암해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였습니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단행본, 2페지)

체스꼬슬로벤스꼬는 1949—1953년의 제1차5개년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되였다.

1960년 7월 11일 새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들은 1970년까지 네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였으며 1968년에 채택된 체스꼬슬로벤스꼬련방국가제도법에 따라 1969년 1월부터 련방제를 실시하고있다.

1971년 5월 공산당 제14차대회가 제시한 5차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주요사건 1973년 2월 20—21일사이에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상무위원회 및 비서국의 보고, 1973년도 예산, 당중앙기구, 간부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7월 3일—4일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주의교양문제를 토의하였으며 11월 27일에 진행된 전원회의는 경제문제와 1974년도 국가예산초안 등을 토의하고 5개년계획의 첫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1973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단체들에서 결산선거 회의들이 진행되였으며 주 및 시당대표자회의들이 진행되였다.

3월 21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루드위끄 스워보다를 대통령으로 재선하도록 권고할것을 전원일치로 결정하였으며 3월 22일 련방회의 인민의원 및 민족의원 합동회의에서 루드위끄 스워보다가 대통령으로 재선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 련방회의 량원합동회의가 6월 27일부터 진행되여 1972년도 국가예산 집행과 군사문제 및 애국주의교양에 관한 련방정부의 법안을 심의하였다. 10월 31일에 진행된 량원합동회의는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몽골

간에 조인된 우호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2월 14일에 열린 련방회의 량원합동회의는 정부정강실현정형과 당면과업 및 국가예산을 토의하였다.

1973년 4월 2—7일까지 구스따브 후싸끄를 단장으로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꾸바를 방문하였다. 두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은 쌍무적인 관계와 현국제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후싸끄는 6월 14—19일 사이에 당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몽골을 공식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몽골간에 우호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였다.

10월 1일에 대통령이 쏘련을 방문하였으며 이 달에 총리가 핀란드를 방문하였다.

1973년 2월에 쏘련공산당 총비서 브레쥬네브가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12월 11일 서독총리가 체스꼬슬로벤스꼬에 와서 두 나라 사이의 호상관계를 규정하는 협정에 조인하였으며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0월 9일에 인도대통령 기리, 8월 1—3일 사이에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총리, 12월에 유고슬라비아 총리가 각각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는 5월 4일 빠나마, 8월 2일 베네수엘라, 10월 5일 필리핀, 11월 23일 싱가포르와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7월 9일에는 미국과 령사협정을 맺었다.

한편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칠레에서 반동적군사정변이 일어나 알옌데정권이 전복됨과 관련하여 9월 25일 칠레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경제, 사회문화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사회주의 공업국가이다.

공업 및 농업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거의 90%에 달하고있다.

공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부문은 기계공업, 흑색금속공업, 연료동력공업이다. 화학공업에서는 유기화학공업이 기본이며 인조섬유, 인조고무, 소다, 류산, 화학비료생산이 위주이다. 경공업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대외무역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1973년 상반년에 공업생산은 1972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6.1% 장성하였다.

1973년 상반년에 석탄 1천 405만 9천t, 갈탄 3천 885만t, 전력 266억 7천만kWH, 선철 428만 7천t, 강철 661만 7천t, 압연강재 459만 9천t, 질소 및 린비료 35만 1천t, 화학 섬유 6만 4천t을 생산하였다.

부침땅은 전 령토의 42%에 해당하는 약 530만헥타이다. 알곡작물은 밀, 쌀보리, 보리, 귀밀, 강냉이 등이다. 1970년에 밀은 317만 8천t 생산되였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주로 젖소) 말, 양, 돼지, 가금류이다.

1973년 상반년에 집짐승은 11만 1천마리, 고기생산량은 3만t 늘어났으며 우유는 1억 8천 500만리터, 닭알은 3천 700만개 더 생산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설비, 도자기, 유리제품, 사탕, 경공업제품이며 수입품은 원료, 유색금속광물, 화학공업원료, 원유제품, 곡파 등이다. 수출총액에서 기계 및 설비가 차지하는 몫은 거의 50%, 수입총액에서는 원료의 몫이 약 50%를 차지한다. 무역에서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몫이 70%,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몫이 10%를 차지한다.

1973년에 4만 5천 258동의 살림집이 준공되였으며 같은 기간 주민들의 현금수입은 5.9% 늘어났다.

출판보도; 통신 체떼까 **신문** 루데 쁘라보(공산당기관지), 쁘라쩨(혁명적 직맹운동기관지), 믈라다 프론따(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스보보드네 슬로보 리도바 데모크라찌에

잡지 노바미슬(공산당리론잡지)

방송 체스꼬슬로벤스꼬방송, 체스꼬슬로벤스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체스꼬슬로벤스꼬는 1948년 10월 2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체스꼬어로 출판하였으며 루데 쁘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그이의 혁명활동을 소개하는 글들과 천재적로작들을 실었다. 1973년에 신문 《루데 쁘라보》 6월 26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6월 23일 연설전문을 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9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쁘라하에서 군중집회, 사진전람회, 영화감상회들을 성대히 진행하였다.

4월 30일 련방회의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에서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에 대한 회답에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발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적극적인 방조와 지지를 줄 입장을 천명한 회답편지를 보내여왔다.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제출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에 대하여》의 결의안 공동제출국이였다.

1973년 6월 20—24일 사이에 구스따브 후싸끄동지를 단장으로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공식 친선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대회에서 또한 구스따브 후싸끄동지가 연설하였다.

방문기간 두 당및 정부 대표단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6월 24일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또한 두 나라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를 내오기로 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로부터 1973년 1월에 텔레비죤방송 대표단, 5월에 력사교원대표단, 공업대학교원대표단, 7월—8월초에 청소년배구선수단, 9월에 과학기술협조대표단, 청년축구선수단, 10월에 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 11월에 정부통상대표단, 력기선수단, 12월에 권투선수단 등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 2월 27—3월 2일사이에 정부대표단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3월 1일 대표단단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스따브 후싸끄동지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전달하였다.

또한 5월에 기자대표단, 10월에 정부대표단, 녀맹대표단, 11월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대표단 등이 각각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9월 22일 두 나라 사이의 1973—1974년도 보건협조에 관한 집행계획서가 조인되였다.

웽그리아

(웽그리아인민공화국)

넓이 9만 3,030km²

인구 1,041만 5,000명(1973년 1월)

주민의 대다수가 웽그리아사람(마쟈르족)이고 기타 로므니아사람, 슬로벤스꼬사람, 쎄르비아사람, 독일사람이다.

공용어 웽그리아말

수도 부다뻬슈트(주민 193만 9,500명)

정 치

국가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임기 4년인 352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되여있다. 국가회의 휴회기간에는 상임위원회가 최고주권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숀찌 빨(1967년 3월—)

정부 총리 포크 예네(1967년 4월—), 외교부장 뻬떼르 야노쉬, 국방부장 찌네게 라이요쉬

정당, 사회단체; **사회로동당** 1918년 11월에 창건, 1948년 6월에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근로자당을 창건, 10월에 웽그리아공산주의자들은 근로자당을 해산하고 이해 11월 1일에 사회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애국인민전선, 직업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리사회.

1945년 4월 4일 웽그리아는 파쑈독일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였다.

1945년 3월에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였으며 1947년말—194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산업국유화를 실시하였다.

1949년 8월 18일 웽그리아국가회의는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새헌법을 채택하였다.

1956년 10월 웽그리아인민들은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일으킨 반혁명도발책동을 분쇄하고 이해 11월에 로농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웽그리아인민은 1957년말까지 계급적원쑤들에 의하여 파괴된 경제를 기본적으로 복구하고 그후 3개년계획과 5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나라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주요사건 1973년 4월 18일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문제, 웽그리아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1972년 11월 전원회의 결정에서 제시된 경제정치적과업실행정형에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6월 27일에 진행된 전원회의는 절박한 대외정책문제, 1973년도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에 관한 문제, 인민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를 개선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제안들을 토의하였다. 11월 2일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는 국제정세문제, 당과 정부의 대외활동문제들을 심의하였으며 11월 28일에 열린 전원회의는 1974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초안, 국가예산초안들을 토의하였다.

6월 14—15일에 진행된 국가회의에서는 1972년도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법안을 토의하였다. 6월 9일 정부는 국가계획위원회를 새로 내왔다. 7월 19일에 열린 국가회의에서는 꽁고대통령을 단장으로하는 당 및 정부대표단의 웽그리아 방문과 정부대표단의 몽골방문 결과 등을 청취하였다. 10월 4일에 진행된 국가회의에서는 내각성원들과 국무비서들의 법적지위와 권한, 부 및 동계작성체계에 관한 법안들을 토의찬동하였다. 12월 19—20일에 진행된 국가회의는 1974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을 토의하고 승인하였다. 1973년 4월에 웽그리아근로자대의원 지방쏘베트 선거가 진행되였다. 전체 투표자의 98.1%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투표자의 99.2%가 애국인민전선립후보자에게 찬성 투표하였다.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는 1973년 7월 10일—13일까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11월 하순부터 국가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숀찌 빨이 나이제리아, 가나, 시에라 레온, 뛰니지를 방문하였다.

웽그리아 총리는 8월 9일에 뽈스까, 8월 16일에 쏘련을 방문하였다. 그는 쏘련 총리와의 회담에서 1976—1980년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973년 7월 8—11일 사이에 마리엔 느구아비를 단장으로하는 꽁고 당 및정부대표단, 7월에 프랑스 총리, 웰남민주공화국 범문동총리 등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11월에 벨지끄공산당대표단, 미국공산당 위원장, 12월에 요르단공산당 위원장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웽그리아는 1973년 2월 1일 나이제리아, 6월 18일 자이르, 7월 2일 온두라스, 9월 29일 필리핀, 10월 24일 타이, 서독과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0월 31일 기네—비싸우 공화국을 승인하였다.

웽그리아사회로동당은 1973년 3월 26일 독일사회통일당과 선전선동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5월 31일에는 뽈스까로동당과 사상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 12월 5일 부다뻬슈트에서 웽그리아와 벌가리아 당 및 정부대표단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3월 6일 웽그리아는 미국과 제2차 세계대전이래 미결로 남아있던 웽그리아에 대한 미국의 전쟁배상청구권과 웽그리아에서 국유화된 미국재산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 3월 7일에는 중국과 1973년도 상품교환 및 지불협정을 조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웽그리야는 사회주의공업국가이다.

공업은 인민경제에서 주도적부문을 차지하고있다. 공업에서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채굴공업, 흑색유색금속공업부문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기계공업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화학공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과 일부 수입하는 가스와 석유를 원료로하여 의약품, 화학비료 각종 물감 등을 생산하고있다.

채굴공업부문에서는 석탄과 보크사이트, 원유, 천연가스 등의 채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1973년에 공업생산은 7.2% 늘어났다. 이해 두나이 야금종합공장, 《이까루쓰》자동차공장 등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973년에 전력, 보크사이트, 세멘트, 천 기타 제품생산량이 늘어났다. 이해 이노따화력발전소가 새로 건설되였다.

농업은 국민소득의 근 20%를 담당하고있으며 이 부문에서 로력인구의 35%가 일하고있다. 웽그리아에는 180개의 국영농목장과 2천 800개의 생산협동조합이 있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57%(1971년현재)를 차지하며 그의 3분의 2는 알곡생산에 리용되고있다. 기본알곡작물은 밀과 강냉이이다. 그밖에 호밀, 보리, 귀밀, 감자도 심는다.

1973년에 농업총생산액은 1972년에 비하여 6% 늘어났다.

축산에서는 소, 양, 돼지를 많이 기른다. 1973년에 지난해보다 3—3,5%나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였다. 큰뿔가진 집짐승 마리수는 1만 7천마리나 늘어났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웽그리아는 공작기계, 금속제품, 전기기구, 의료기구, 여러가지 화학제품, 식료품 등을 수출하고 원유, 가스, 콕스, 쇠돌, 목화, 목재, 고무 가죽등과 정밀기계, 식료품 등을 수입한다. 세계 100여개 나라와 경제적련계를 가지고있다. 대외무역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큰 몫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쏘련과의 무역이 35%이다.

1973년에 주민 1인당 소득은 1972년에 비하여 4.4% 늘어났다.

1971년에 74개 대학에서 8만명,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200만명, 약 270개의 기능공양성전문학교에서 15만여명의 학생들과 청년로동자들이 공부하였다.

의사수는 약 2만 3천명, 병원침대수는 8만 4천여대이다.

출판보도 통신 엠떼이(웽그리아통신). **신문** 네프싸바드샤그(사회로동당기관지), 네프싸바(직맹기관지), 마쟈르 이휴샤그(공산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잡지—빠르뜨엘레뜨(사회로동당생활잡지),

방송 마쟈르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사이에는 1948년 11월 11일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웽그리아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웽그리아어로 출판하였으며 신문 《끼쉬엘뤨드》는 그이의 고전적로작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를 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9월 6일 웽그리아 직업동맹평의회와 애국인민전선 전국리사회는 부다뻬슈뜨에서 경축집회를 조직하였다.

5월 16일 웽그리아국가회의 의장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에 대한 회답편지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건설적제안들을 지지환영하였다.

웽그리아는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제출된 결의안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에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으로 활동하였다.

1973년 4월에 웽그리아외교부 유엔담당부부장, 7월말—8월초에 청소년배구선수단, 10월에 력기선수단, 12월에 력사교원대표단 등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3월 6—12일까지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웽그리아 사회로동당 제1비서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전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4월에 녀자배구선수단, 5월에 직맹대표단, 사로청대표단, 조선기자대표단, 7월에 탁하산선수단, 8월말—9월초에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대표단 등이 각각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3월 17일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 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현을 위한 1973—1974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로 므 니 아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넓이 23만 7,500km²

인구 2,080만명(1973년 1월)

주민의 대부분은 로므니아사람(88%)이며 웽그리아사람, 독일사람, 기타 소수민족이 있다.

국어는 로므니아말

수도 부꾸레슈띠 (주민 164만 3,651명, 12개 교외지역주민 포함, 1973년 7월

정 치

대민족회의 최고 주권기관이며 상임기관은 국가 쏘베트이다. 임기는 4년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1969년 3월—)

정부 총리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1969년 3월 재선), 외교부장 제오르제 마꼬베쓰꾸, 무력부장 이온 이오니쩌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1년 5월 8일에 창건되였으며 1948년 2월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되였다. 1965년 7월 로동당 제4차대회에서는 당의 명칭을 공산당으로 다시 고쳤으며 이 대회(로동당 제4차대회)를 공산당 제9차대회(1921년 5월에 당대회로부터)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사회주의통일전선, 직업동맹, 공산의청년동맹, 전국녀성리사회

1944년 8월 23일 로므니아는 히틀러파시스트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였다.

1945년 3월 6일 로므니아인민은 자기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정권인 민주주의민족전선정부를 수립하였다. 1947년 12월 30일에는 군주제를 철폐하고 로므니아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5년 8월 21일 새헌법을 채택하고 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주요사건 2월 28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73년도 계획수행을 위한 대책의 집행, 새 기관들의 창설, 농업로동조직의 개선과 임금인상, 기구축소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당중앙 위원회 전원회의는 교육을 발전시키고 개선할데 관한 문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높일데 관한 문제, 두나이—흑해 항행체계와 새로운 항구를 건설할데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나라의 정치, 경제 분야들에서와 사회생활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며 대중의 사회주의의식을 높이며 현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 10일에 열린 전원회의는 10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11월 27일에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1974년도 경제및사회발전 유일국가계획초안과 국가예산초안에 대한 문제, 전력발전, 연료 및 전력절약방도 문제, 국제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3월 28일부터 29일사이에 대민족회의 정기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로므니아 사회경제발전 최고리사회와 재정감독최고의원창설 및 형사소송법수정에 관한 법안들을 포함하여 일련의 법안들을 심의하였다.

6월 1일에 열린 로므니아경제사회발전 최고리사회는 1974년도 계획초안을 토의하였다.

7월 13일 로므니아공산당, 경제사회발전최고리사회 및 내각의 합동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집짐승수매가격을 올리며 가축물의 소매가격을 올릴데 관한 조치, 1973년에 임금을 인상하며 고기제품의 변동된 가격으로 인한 지출을 보상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1월 30일에 열린 대민족회의에서는 1974년도 로므니아경제 및 사회발전유일국가계획, 국가예산초안에 관한 법안들을 심의하였다.

1973년에 로므니아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1933년 1~2월에 걸쳐 철도로동자들과 원유로동자들이 일으킨 혁명투쟁 40돐, 1848년의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 125돐을 성대히 기념하는 집회들을 진행하였다.

1973년 1월 국가쏘베트 위원장 챠우쉐쓰꾸가 이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파키스탄과 경제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항공협정 등을 조인하였다.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는 3월 6—7일에 체스꼬슬로벤스꼬, 4월 10—13일에 화란, 5월 21—24일에 이딸리아, 5월 25—27일에 싼마리노, 6월 26—30일에 서독을 방문하였다. 서독 방문기간 챠우쉐쓰꾸는 서독 루르지방 기계회사인 《구테호프눙그슈테》와 첫 로므니아—서독합자회사를 창설할데 대한 협정을 비롯한 경제 문화 등 7개협력협정을 맺었다.

챠우쉐쓰꾸는 또한 7월 15—16일에 유고슬라비아, 9월에 꾸바, 꼬스따 리까,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에꽈도르, 뻬루, 9월 21—22일에 마로끄, 12월 3일에 알제리, 12월 4—5일에 미국

을 방문하였다.

8월 23일에 로므니아총리가 쏘련을 방문하여 1976—1980년 5개년계획기간 두 나라 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1973년 4월초에 수단대통령, 6월 2—5일에 이란황제, 6월 12일 상부볼따 대통령, 7월 상순에 노로돔 시하누크친왕, 콩고 대통령, 10월초에 인도 대통령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인도대통령의 방문기간 두 나라는 로므니아—인도합동경제, 기술문화협조위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중순에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6월 중순에 일본공산당대표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로므니아는 3월 19일 메히코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로므니아는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이다.

국민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65%이다.

공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원유채취 및 원유가공공업, 전력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흑색금속공업 등이다.

원유채취 및 원유가공공업은 이 나라 공업의 기초적인 부문으로되고있다. 1973년에 원유는 1천 430만t 생산되였다.

1973년에 석탄생산량은 2천 480만t으로서 해방전 보다 8배, 1972년보다 7.3% 늘어났다.

전력생산의 약 95%는 화력발전에 의거하고있으며 화력발전소들에서는 천연가스(75%), 석유 (약 4%), 석탄 (약 20%)을 리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1973년에 전력은 467억 kwH 생산되였다.

화학공업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화학비료, 염료, 도료 등의 제품을 생산한다. 1973년의 화학제품총생산액은 1970년에 비하여 50% 늘어났다.

1973년에 기계제작 및 전기기계공업 총생산액은 1970년보다 거의 70%나 높아졌다. 1973년에 뜨락또르 3만 8천 800대, 화물자동차 약 3만 5천대를 생산하였다.

흑색금속공업도 발전하고있으나 필요되는 쇠돌의 많은 량을 수입해 쓰고있다. 1973년에 약 820만t의 강철을 생산하였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1973년에 40개의 건재공장을 건설하여 조업하였다.

농업에서는 알곡작물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산물생산과 공예작물재배, 축산업이 발전하고있다.

부침땅 900만정보 가운데서 70%정도가 알곡작물재배에 돌려지고있다. 주요알곡작물은 강냉이와 밀이다.

씨뿌림땅에서 강냉이는 34%, 밀은 30%를 차지한다. 주요 공예작물은 목화, 담배, 사탕무우이다.

로므니아는 주로 석유제품, 석유가공설비를 비롯하여 뜨락또르, 기관차, 차량, 화학제품, 석유, 농기계, 전기기계를 수출하며 기계설비, 각종공업원료와 반제품, 연료,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을 사들인다.

축산업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양이다.

교통운수에서 강하천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72년에 철길의 총 길이는 1만 1천여 km였으며 기관차들에서 디젤 및 전기기관차가 86% 차지하였다.

1973년 첫 8개월간 수도에서 1만 5천세대의 살림집이 준공되였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 가구생산량은 4배로 늘어났다.

1973년에 소학교와 중학교들에 2천 500여개의 새로운 교실과 공작실, 실험실들이 건설되였다.

로므니아의 일반중등학교들에서는 해방전보다 10배나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출판보도;통신 아제르 쁘레쓰 **신문** 쓰곤떼아(공산당기관지), 문까(직맹기관지), 쓰곤떼아 띠내레뜰루이(공청기관지), 인포르마떼아 부꾸레슈뜰루이 (부꾸레슈띠시당 기관지)

잡지 루메아, 에라 쏘치알리스떠

방송 부꾸레슈띠방송, 부꾸레슈띠 중앙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과 로므니아는 력사적으로 친형제처럼 친근한 관계를 맺고 긴밀히 협조하여왔습니다.

우리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은 끊임없이 호상리해를 깊이하면서 사회주의건설분야에서 또는 국제관계분야에서 언제나 성의껏 서로지지협조하여왔으며 이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는 최근년간 중요 대표단들의 호상 래왕과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에 걸친 호상련계의 강화를 통하여 더욱 확대발전되여왔습니다.》

1948년 11월 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잡지 《루메아》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략력을 소개하였다.

1973년에 잡지 《에라 쏘치알리스떠》 3월호는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신문 《쓰곤떼아》는 수령님의 신년사를 실었다.

1973년에 로므니아는 조선인민군 창건 스물다섯돐,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경축집회들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6월 23일 연설에서 천명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안을 지지하여 7월 4일 그이께 챠우쉐쓰꾸동지로부터 전문을 보내여왔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에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와 관련하여 4월 20일 대민족회의 대외정책위원회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나라의 립장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로므니아는 유엔총회 제23차회의에 제출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에 대하여》 결의안의 공동발기국으로 활동하였다.

1973년 5월말—6월초에 로므니아의 희그루빠대표단, 9월에 공산당 및 국가대표단, 11월에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표단을 따뜻하게 만나주시였다.

또한 6월에 로므니아 《슈떼판 게오르기우》 명칭 당사회정치경제 및 국가행정사업간부양성학원대표단, 과학원대표단, 음악가대표단, 6월말—7월초에 군사대표단, 청소년배구선수단, 작가대표단, 민족은행대표단, 10월에 공산당일군대표단, 11월에 력기선수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2월 9~22일까지 피바다가극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고 혁명가극 《피바다》를 공연하였다.

1973년 3월 상순과 8월하순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챠우쉐쓰꾸동지에게 보내시는 인사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2월에 우리 나라 경제대표단, 5월에 직맹대표단, 사회문화대표단, 6월에

문화대표단, 7월에 농근맹대표단, 9월에 영화대표단, 10월에 김일성고급당학교대표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1973년 11월 19일 우리 나라와 로므니아 정부사이의 1974년도 상품류통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와 두 나라정부사이의 경제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4차회의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벌 가 리 아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넓이 11만 912km²

인구 860만 3,000명(1973년)

주민의 대부분이 남슬라브의 벌가리아사람이다.

공용어 벌가리아말

수도 쏘피아(주민 92만 3,800명, 1973년)

정 치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일원제이다. 1971년 6월 27일 선거된 인민회의 대의원수는 400명이다. 인민회의 휴회기간의 상설적인 최고주권기관은 인민회의가 선거하는 국가쏘베트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찝꼬브(1971년 7월—)

정부 총리 쓰딴꼬 또도로브(1971년 7월), 외교부장 뻬떠르 믈라데노브, 인민보위부장 도브리 드쥬로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5월 25일 창건, 전신은 1903년에 창건된 사회민주로동당이다.

제1비서 또도르 찝꼬브

인민농민동맹, 조국전선, 직업동맹, 지미뜨로브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1944년 9월 9일 지미뜨로브동지의 령도밑에 벌가리아인민은 파쑈군주정부를 뒤집어 엎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1946년 9월 8일에 진행된 인민투표의 결과 군주제가 페지되고 9월 15일에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였다.

벌가리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후 벌가리아인민은 토지개혁(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발포), 산업국유화(1947년 12월 산업국유화법령 발포) 등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그후 사회주의적개조를 추진시켰다.

벌가리아인민은 2개년인민경제계획과 여러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발전된 공업과 기계화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 나라로 전변시켰다.

1971년 4월 공산당 제10차대회에서는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강령을 내놓았으며 1971년 5월 18일에 새헌법을 채택하였다.

주요사건 1973년 7월17—19일사이에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일련의 국제정세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결정서에는 사회주의나라들간의 관계, 쏘미관계, 인도지나문제 등이 지적되였다. 11월 29일에 진행된 공산당 전원회의는 농업발전문제를 토의하였다.

1973년 1월에 진행된 공산당, 국가쏘베트 및 내각 확대회의에서 1976—1990년기간의 벌가리아 생산력의 지역적배치에 관한 총계획이 토의되였다.

3월 29일부터 인민회의 제6차회의가 진행되였다. 인민회의에서는 정부의 대내외정책을 전원일치로 찬동하였다. 또한 개간되는 땅과 저수지의 보호, 주민지점들의 배치 등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가족법과 민사소송법을 수정하였다. 6월 27일에 열린 인민회의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 관한 일련의 법안을 심의하였다. 또한 새로운 유일선거법, 공업기업소들에서의 로동보호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권한을 직맹에 제공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10월 31일에 진행된 인민회의 제8차회의는 인민보건에 관한 법안을 찬동하였다.

1973년 12월 13—14일사이에 진행된 인민회의에서 1974년 사회경제발전계획초안과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벌가리아공산당 제1비서 또도르 찝꼬브는 1973년 10월 상순에 오지리, 10월 중순에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또도르 찝꼬브를 단장으로하는 벌가리아 당및 정부대표단은 10월 29—11월 2일사이에 몽골, 11월 2일에 쏘련, 12월 3—5일 사이에 웽그리아, 12월 12—16일사이에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8월 21일에 벌가리아총리가 쏘련을 방문하여 당면한 5개년계획(1976—1980년)에서의 두 나라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벌가리아 총리는 4월 16—19일 사이에 핀란드, 11월 22—29일 사이에 꾸바를 방문하였다. 또한 1월에 벌가리아공산당 대표단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한편 6월 25일에 이라크 대통령, 7월 5—8일사이에 쏘련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7월 12—14일사이에 꽁고 대통령이 각각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벌가리아는 1973년에 니제르(3월 5일), 빠나마(3월 22일), 필리핀(11월 17일), 서독(12월 12일)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벌가리아는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이다.

공업과 농업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3분의 2이상에 이르고있다.

공업에서는 연료동력공업, 야금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벌가리아인민은 벌가리아공산당 제10차대회가 내놓은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단행본, 2—3페지)

1973년에 전력생산및 공급, 기계제작, 야금, 화학및 고무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확장하는데 자본의 대부분이 투자되였다.

제6차5개년계획의 세번째해인 1973년 국가공업계획은 0.8%를 넘쳐수행하였으며 공업생산이 늘어났다. 이해 선철은 4만 8천t, 강철은 12만 8천t 더 생산되였다. 또한 1973년에 224억 kWH의 전력이 생산되였다.

농업생산에서는 알곡작물이 40%, 공예작물이 20%, 다년생작물이 약 25%, 남새는 10% 이상을 차지하고있다. 공예작물은 담배, 해바라기, 사탕무우, 장미 등이다. 1973년에 농업생산은 3%(예비적자료)늘어났으며 집짐승과 가금마리수가 늘어났다. 관개면적은 2만 1천 200헥타,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은 41% 늘어났다.

농업의 기본분야의 하나인 포도재배는 그 면적이 20만 헥타에 이르고있으며 최근 10년간 수확량은 2.4배 늘어났다. 쁠레벤포도연구소에는 1천 800종의 향기로운 포도품종이 있다.

수출품은 담배, 포도, 남새를 비롯한 식료품과 기계 및 설비들이며 수입품은 기계와 석유, 화학제품등이다.

대외무역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차지하는 몫은 80.5%이며 그중 쏘련이 56% 차지한다.

벌가리아는 석유의 77%이상과 콕스와 석탄의 전체 수입량 그리고 선철수입의 95% 이상을 쏘련과 구라파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납입하고있다.

1973년에 살림집은 전해보다 18.9% 더 건설되였다.

1960—1972년기간에 벌가리아 경제 각부문에 종사하는 중등교육이상을

받은 일군수는 16만 4천명으로부터 41만 4천명으로 늘어났다.

출판보도; **통신**—베떼아(벌가리아통신), 쏘피아통신(1967년에 개설)

신문 라보뜨니체스꼬젤로(공산당기관지), 오떼체스뜨벤 프론트(인민회의및 조국전선기관지), 뜨루드(직맹기관지), 나로드나 믈라제쥬(공청기관지), 나로드나 아르미야(인민군기관지), 제메젤스꼬 즈나메(인민농민동맹기관지)

잡지 노보 브레메(공산당리론잡지)

방송 벌가리아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쏘피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29일 벌가리아는 우리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에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라보뜨니체스꼬 젤로》와 중앙급신문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1973년 10월 28일연설 전문을 실었다. 또한 《나로드나야 믈라제쥬》 7월 18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73년 6월 23일연설을 지지하는 론설을 실었다.

9월 쏘피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기념하는 군중집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으며 2월 7일에는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을 기념하는 인민보위부, 인민군총정치국에서의 기념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7월에 벌가리아에서는 군중집회, 사진전람회들이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에서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와 관련하여 4월 23일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인민회의는 남조선강점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회답 편지를 보내여왔다.

1973년에 벌가리아는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제출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에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으로 활동하였다.

1973년 10월 24—29일 사이에 또도르 쥡꼬브를 단장으로하는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 정부대표단이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방문하였다.

10월 24—25일 우리 나라와 벌가리아 당및정부대표단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정형에 대하여 호상통보하고 두 당 및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서로 관심사로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이 교환되였다.

10월 28일 또드르 쥡꼬브를 단장으로하는 벌가리아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회의에서 또도르 쥡꼬브동지가 연설하였다.

벌가리아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1973년에 벌가리아로부터 교육대표단(2월), 작가(3월), 금속화학공업대표단(3월말—4월초), 농업대표단(4월), 박물관 대표단(4월), 기계공업대표단(4월), 게오르기 지미뜨로브박물관 관장(6월), 과학기술대표단(6월), 작가대표단(10월), 벌가리아 《지미뜨로브 그라드》 체육친선협회, 축구선수단(10월), 벌가리아인민군협주단(10월말—11월), 무선통신선수단(10월), 정부무역대표단(10월), 농업과학원대표단(11월), 력기선수단(11월), 기자대표단(11월), 문화대표단(11월)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2월 중순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2월 19일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도르 쥡꼬브동지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전달하였다. 5월에 우리 나라 최고 인민회의 대표단, 직맹대표단, 7월에 기계공업대표단, 9월에 무역대표단, 대외문화련락위원회대표단이 각각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8월 3일 쏘피아에서 두나라사이에 1973년도호상 상품을 추가적으로 공급할데 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으며 11월 5일에 1974년도 상품호상공급및지불에 관한 의정서, 11월 19일에 두 나라 농업과학원 사이의 1974—1975년도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계획서가 조인되였다.

8월 6일—8월 9일까지 두 나라사이에 경제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5차회의가 진행되였다.

알 바 니 아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넓이 2만 8,748km²

인구 227만명(1972년말)

주민의 대부분은 알바니아사람이며 그밖에 희랍사람, 로이기사람, 벌가리아사람이 산다.

공용어 알바니아말

수도 티라나(주민 24만명)

정 치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대의원수는 264명, 임기는 4년이다. 인민회의 휴회기간에는 상임위원회가 인민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 인민회의는 제7기로서 1970년 9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1970년 11월 재선)

정부 총리 메흐메트 쉐후(1970년 11월 재선), 외교부장 네스띠 나쎄, 인민보위부장 베키르 발루크

정당, 사회단체;로동당 1941년 11월 8일 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48년 11월 제1차 당대표자대회에서 로동당으로 이름을 고쳤다.

제1비서 엔베르 호쟈

민주주의전선, 직업동맹, 로동청년동맹, 녀성동맹

알바니아는 1943년 9월 파쑈독일의 강점밑에 들어갔다. 독일침략자들과 국내반역도당을 반대하는 알바니아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44년 11월 29일 알바니아는 외래침략자들의 강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다.

1945년 12월에 있은 헌법제정회의 선거에서는 공산당과 민주주의적사회단체들로서 구성된 민주세력이 승리하였다. 이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인민회의는 1946년 1월 11일에 알바니아를 인민공화국으로 선포하였으며 같은해 4월 14일에 헌법을 채택하였다.

1945—1946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1945—1947년에는 산업 및 은행국유화를 실시하였다.

알바니아는 1947—1948년과 1949—1950년까지의 두차례의 2개년계획, 1951—1960년까지의 두차례의 5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여 나라를 뒤떨어진 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적 농업—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알바니아인민들은 1970년까지 제4차 5개년계획을 끝내고 1971년부터 알바니아로동당 제6차대회(1971년 11월)가 제시한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 제5차 5개년계획(1971—1975년)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주요사건 1973년 2월 5—6일까지 알바니아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72년도계획수행정형과 1973년도 주요과업 등을 토의하였다. 당 제6기

제4차전원회의(6월 26일—6월 28일)는 《양풍과 그에 대한 자유주의적태도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심도있게 할데 대하여》의 보고를 청취토의하였다.

9월 25—26일까지 인민회의 제7기 제6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인민회의 의장선거, 지난 4년간 학교를 가일층 혁명화하는데서 달성한 성과와 앞으로의 과업,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구성상 변화 등을 토의하였다. 인민회의 제7기 제7차회의(12월 25—26일)는 1973년 경제 및 문화발전계획과 예산집행정형을 총화하고 1974년도 국가계획 및 예산을 토의하였다.

1973년에 알바니아인민군군사친선대표단(11월)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군사친선대표단(7월)이 알바니아를 방문하였다.

6월 18—22일까지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알바니아를 친선방문하였다. 10월 28—11월 2일사이에 웰남 당및정부대표단이 알바니아를 방문하였다. 방문결과 1974년에 알바니아가 웰남민주공화국정부에 무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8월 7일 오스트랄리아공산당(맑스-레닌주의)위원장이 이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에 알바니아는 3월에 말따, 4월에 세네갈, 5월에 나이제리아, 7월에 까메룬, 10월에 아르헨띠나, 뜌니지와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해 알바니아는 뽈스까(2월 10일)와 1973년도 통상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로므니아와(10월 17일) 1974년도 상품호상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를 각각 조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알바니아는 사회주의적농업—공업국가이다.

공업부문에서는 채굴공업, 연료동력공업, 경공업, 목재가공공업이 주요부문을 이루고있다.

원유, 석탄, 동, 쇠돌, 크롬, 니켈 등이 풍부한 알바니아에서는 채굴공업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3년에 알바니아근로자들은 중공업과 광업에 힘을 넣는 동시에 공업구조를 더욱 개선할것을 예견한 제5차 5개년계획(1971—1975)의 세번째해 계획을 수행하였다. 1973년 계획수행에서 원유는 약 99%로 수행하여 전해보다 10%, 크롬광은 97%로 수행하여 전해보다 21% 늘었다.

야금공업은 해방후에 창설된 청소한 공업부문으로서 1973년에 계획을 103% 수행하여 전해보다 5%늘였다.

1973년에 전해보다 화학비료는 4%, 전력은 24%, 기계설비는 8% 더 생산되였다.

농업은 이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총생산액에서 농산물이 3분의 2, 축산물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주요작물로는 강냉이, 밀, 호밀, 벼 등이다. 그밖에 목화, 담배, 사탕무우, 아마, 올리브 등 공예작물을 심는다.

1973년에 1만 8천여헥타의 새땅을 개간하였으며 1만헥타의 관개면적을 더 늘이였다. 농업기계화수준도 19% 높였다. 그리하여 이해 식량생산은 12%, 사탕무우는 26% 높아졌다.

알바니아는 국토의 25%가 방목지로 되여있으며 양과 염소를 많이 기른다. 1973년에 육류는 11%, 알류는 26% 더 생산하였다.

알바니아는 크롬광, 니켈광, 석유, 피치, 동제품, 목재가공품 등을 수출하고 광산설비를 비롯한 공업설비, 농기계, 운수수단 기타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출판보도;통신 아따(알바니아통신),
신문 제리 이 포풀리트(로동당기관지), 바슈키미(민주주의전선 및 내각기관지), 제리 이 리니스(로동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루가 에 빠르띠써(로동당리론잡지)
방송 티라나방송(대외), 알바니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5월 17일에 우리 나라와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정부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6년 7월 1일에는 기술 및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알바니아는 우리 당과 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을 시종일관 지지하여 주고있다.

1973년 4월 29일 알바니아 인민회의와 정부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가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에 대한 회답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할것이라고 하였다. 이해 신문 《제리 이 포풀리트》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론설들을 실었다.

1973년 3월에 알바니아외교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2월에 알바니아를 방문하였으며 6월에 녀맹대표단이 알바니아녀성동맹 제7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73년 7월 7일 티라나에서 두나라사이의 1973—1974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넓이 10만 8,178km²
인구 1,705만 6,983명(1971년 1월) 주민의 대부분은 게르만족이다.
공용어 독일말
수도 베를린(주민 108만 5,440명)

정 치

인민의원 최고주권기관이며 4년임기의 434명의 대의원과 66명의 베를린대표들로 구성된다. 인민의원의 휴회기간에는 국가쏘베트가 최고주권기관이다. 현재의 제6기인민의원은 1971년 11월에 선거되였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윌리 슈토프(1973년 10월—)

정부 총리 호르스트 진데르만(1973년 10월—), 외교부장 오토 윈쩨르, 민족보위부장 하인쯔 호프만

정당, 사회단체;독일사회통일당 1946년 4월 21일 독일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

민주농민당, 기독교민주동맹, 자유민주당, 민족민주당, 민주주의독일민족전선, 자유독일직업총동맹, 자유독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두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앞에 커다란 죄악을 저지른 파쑈독일은 1945년 5월 9일 쏘련을 비롯한 반파쑈력량에 의하여 멸망되였다.

전후 독일은 쏘련, 미국, 영국, 프랑스의 4개 점령지역으로 갈라지게되였으며 독일의 최고주권은 4개국대표들로 구성된 대독관리리사회에 들어있었다.

미, 영,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독일의 통일적민주주의국가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포츠담협정을 파기하고 1949년 9월 20일 서독에 반인민적단독국가인 《독일련방공화국》을 조작하였다.

이러한 정세밑에서 1949년 5월 30일에 진행된 제3차인민대표대회에서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그해 10월 7일 독일력사상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정권인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일사회통일당의 령도밑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근로자들은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1949—1960년까지의 사이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냈다.

1968년 4월 9일 새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근로자들은 1951년부터 여러차례의 5개년계획과 전망계획을 수행하였으며 1971년부터 독일사회통일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제5차5개년계획(1971—1975년)을 수행하고있다.

주요사건 1973년 5월 28일에 열린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총화보고를 토의하였다. 회의는 1973년의 당지도기관선거진행에 관한 지시문과 당지도기관선거, 대표회의, 당대표자회의 및 당대회들에 참가하는 대표선출에 관한 규정들을 채택하였다.

10월 2일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0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칠레사태와 조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2월 14—15일사이에 진행된 전원회의는 1974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에 관한 법안을 비준하였다.

6월 13일 인민의원 회의에서는 두 독일간의 관계의 기초에 관한 법안을 토의하고 채택하였다. 7월 12일에 열린 인민의원회의는 지방인민대표부와 그 기구에 관한 법령 등을 채택하였다. 12월 11일부터 진행된 인민의원위원회들에서 1974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안을 심의하였다.

1973년 8월 1일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발테르 울브리히트가 서거하였다. 8월 7일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내각, 인민의원 및 민족전선 전국리사회의 명의로 장의식이 진행되였다.

10월 3일 인민의원 제 10차회의에서 이전 총리 윌리 슈토프를 국가쏘베트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또한 이회의에서 호르스트 진데르만이 새 총리로 선거되였다.

1973년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동서독일문제 해결을 위해 서독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을 비준한것을 비롯하여 두 독일의 유엔 가입문제, 두 독일 사이의 상주대표교환문제 등을 가지고 서독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나라는 6월 12일 유엔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9월 18일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유엔성원국으로 되였다.

1973년에 당 및 정부대표단이 몽골(10월), 윁남민주공화국(3월)을 방문하였다. 8월 중순에 총리가 쏘련을 방문하여 1976년—1980년의 두 나라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973년 5월 12일—13일사이에 쏘련공산당 총비서, 10월 하순에 윁남 당 및 정부대표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또한 5월에 이스라엘공산당 총비서, 오지리공산당 위원장, 6월말에 레바논공산당 총비서들이 인솔하는 당대표단들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1월 5일 화란, 룩셈부르그, 루안다, 1월 8일 꼬스따 리까, 1월 12일 이슬란드, 단마르크, 1월 17일 노르웨이, 아프가니스탄, 1월 18일 이딸리아, 1월 22일 모리따니, 1월 26일 감비아, 1월 31일 에티오피아, 2월 6일 말따, 2월 9일 영국, 프랑스, 2월 10일 나이제리아, 2월 23일 잠비아, 버마, 4월 3일 상부볼따, 4월 18일 또고, 4월 19일 말리, 4월 21일 가이아나, 5월 15일 일본, 5월 25일 희랍, 6월 5일 메히꼬, 6월 26일 아르헨띠나, 6월 30일 리비아, 7월 23일 까메룬, 8월 2일 베네수엘라, 8월 10일 싱가포르, 9월 15일 다오메, 9월 18일 볼리비아, 9월 22일 필리핀, 10월 1일 리베리아, 11월 29일 말가슈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3월 14일 콩고와 각각 대사급 외교대표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월에는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승인하고 이 조직의 대표부를 동부베를린에 두는데 동의하였다. 10월 21일에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미제의 사촉밑에 칠레에서 반동적군사정변이 일어나 알옌데정권이 전복된것과 관련하여 9월 21일 칠레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이해 이 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2월 23일), 국제전기통신련합(5월), 세계보건기구(5월)에 가입하였다.

1973년에 독일사회통일당은 웽그리아사회로동당과 선전선동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3월 26일), 쏘련공산당과 1974—1975년 사상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10월 30일)을 맺었다.

1월 13일 이 나라는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두 나라 군대들간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4월 4일에는 꾸바와 직통항공로를 개통하였다. 7월 19일 프랑스와 10년을 기한으로 하는 경제 공업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

8월 4일 이 나라는 윁남민주공화국에 준 모든 차관을 무상원조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1973년 3월 베를린에서는 《공산당선언》 발표 125돐기념 국제리론토론회가 진행되였다.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베를린에서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이 진행되였다.

《반제적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진행된 이 축전은 세계 140개 나라에서온 2만 5천여명의 청년학생대표단과 많은 명예손님 그리고 관광객들이 참가한 가장 큰 규모의 축전이였다.

경제, 사회문화

전후 동서독일로의 분렬은 동부독일의 경제발전에 많은 난관을 가져왔다. 그러나 인민정권하에서 경제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현재 동부독일의 공업부문에서는 1936년 전독일의 공업생산수준을 4.5배 이상 릉가하고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은 약 75%(1970년)의 몫을 담당하고있다.

민주독일의 주요공업부문은 연료동력공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경공업이다.

1973년에 공업총생산은 1972년에 비하여 6.8% 늘어났다.

연료동력공업부문에서는 500억톤의 매장량을 가지고있는 갈탄생산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갈탄생산의 3분의 2는 전력생산과 화학공업에 리용되고있다. 전력생산의 90%가 갈탄을 리용하는 화력발전에 의거하고있다.

기계제작공업은 중기계로부터 정밀기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기계를 생산하며 정밀기계, 광학기계생산이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1972년에 절삭공작기계생산량은 1965년에 비하여 1.7배 늘어났다.

화학공업은 풍부한 갈탄, 칼리움염, 석회석에 기초하여 화학비료, 시약, 합성섬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한다.

1972년에 1965년에 비해 카리비료생산은 약 1.3배, 질소비료는 1.2배, 합성수지는 약 2배 늘어났다.

1973년에 슈베트—로이나 구간(360km)에 송유관을 건설함으로써 라히프찌히, 할레 화학종합방직공장들에서 송유관으로 원유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합성수지, 휘발유, 합성섬유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농업에서 축산이 3분의 2를 차지하며 돼지, 가금, 소 등을 많이 기른다. 소는 주로 북부에서, 돼지는 전반적지역에서 다 기른다.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종합집짐승먹이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고있다. 1973년에는 100여개의 기업소에서 40—50가지의 종합집짐승먹이들을 생산하였다.

농산물로는 주로 호밀, 밀, 감자, 사탕무우 등을 심는다. 호밀과 감자는 엘베강동부에서, 밀과 사탕무우는 서남부에서, 귀밀은 북부에서 많이 생산한다. 동부독일에서는 농촌경리의 기계화, 화학화에 힘을 넣으면서 농업생산을 집약화하고있다.

철도운수와 하천운수가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엘베강은 중요 하천운수로 리용되고있다.

기계류, 공업설비, 화학제품, 경공업제품 등을 수출하고 공업원료, 농산물, 식료품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사회주의나라들이다. 무역의 3분의 1이상이 쏘련과 진행되고있다. 석유와 철강석의 90%, 강철압연제품과 켜낸 목재의 40%, 아연의 70%, 알루미니움과 주석의 60%, 목화의 80%를 쏘련에서 수입한다.

살림집도 많이 짓고있다. 1973년 첫 4개월동안에 2만 1천세대가 새집들이를 하였다.

현재 민주독일에서는 10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1970년 현재 6,800여개의 일반교육학교에서 250여만명, 54개의 대학에서 13만 8천 600명이 공부하였다. 1971년까지 약 6만명의 근로자들이 통신 및 야간 대학을 나왔다.

출판보도; 통신 아데엔

신문 노이에스도이췰란트(사회통일당 기관지), 쏘씨알리스쎄 데모크라티(국가쏘베트및 내각 기관지), 트리뷰네(자유독일직업총동맹기관지), 베를리네르 짜이퉁, 바우에른에코(민주농민당기관지)

잡지 노이에르 웨크(사회통일당당생활잡지)

방송 독일민주주의공화국방송, 드이췌 페른쎄풍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11월 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신문 《노이에스도이췰란트》는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략력을, 《호리존트》는 기념론설을 실었다.

1973년에 우리 나라와 동부독일 사이에 당및정부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대표단들이 서로 오고갔다.

11월 18—24일까지 독일사회통일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1월 2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표단을 만나시였다.

또한 이해 1월 23—2월 7일까지 국립인민예술단, 4월에 정부무역대표단, 외교부대표단, 7월에 기자대표단, 청소년배구선수단, 10월에 국제영화문헌고대표단, 력사교원대표단, 미술가동맹대표단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발테르 울브리히트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8월 7일 우리 나라 주재 독일대사관을 방문하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8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이 발테르 울브리히트동지의 장의식에 참가하였다. 1973년 3월 12—16일 사이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동부독일을 방문하였다. 3월 13일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일사회통일당 제1비서 에리히 호네케르동지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전달하였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단 포함)이 이해 7월 28—8월 5일 사이에 베를린에서 진행된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다. 5월에 우리 나라 사격선수단, 9월에 영화대표단, 10월에 광업대표단, 대학교원대표단, 11월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1월 베를린에서 우리 나라와 동부독일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11월 27일에는 두 나라 과학원사이에 1974—1976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조인되였다.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넓이 25만 5,804km²

인구 2,066만명

주민은 주로 쎄르비아, 크로아찌아, 슬로베니아 등 남슬라브족들이며 기타 10여개의 소수민족들이 있다.

언어는 쎄르비아말, 크로아찌아말이 대표적이며 슬로베니아말, 마케도니아말도 공용어로 쓴다.

수도 베오그라드(주민 95만명)

정 치

련방회의(국회) 최고 립법 및 자치기관으로서 임기 4년인 대의원들로 구성되였다.

련방회의는 련방리사회와 경제리사회, 사회정치 및 보건리사회, 민족리사회 등 5개의 상설리사회로 구성된다. 각리사회 대의원은 120명씩이며 2년마다 절반씩 개선한다. 련방리사회는 외교, 국방, 내정 등 전반적문제들을 심의하고 법안을 채택한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4년이다. 세번 다시 선거될수 없으나 현 대통령은 례외로 되고있다. 대통령은 련방회의에서 선출되며 군최고사령관을 겸임한다. 1961년 5월 헌법을 일부 개정하여 부대통령제를 없앴다.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1945년 11월—)

국가상무위원회 1971년 7월에 구성, 련방공화국내 6개의 공화국에서 3명씩, 2개의 자치변강에서 2명씩 선출된 22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전반적정책을 협의작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임기는 1년이다.

위원장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1971년 7월 29일—)

민족리사회(70명)는 헌법을 개정하며 민족문제를 심의 결정한다. 의장 미얀꼬 또도로위츠(1971년7월 30일—)

련방집행리사회(내각) 1971년 7월에 구성, 위원장 제말 비에디치, 외무담당련방비서 밀로쓰 미니츠, 국방담당련방비서 니꼴라 류비치치.

정당, 사회단체;공산주의자동맹 1919년 4월에 창건된 공산당은 1952년 11월 제6차당대회에서 현재 이름으로 고쳤다.

위원장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 대중적사회정치조직, **직업동맹, 청년동맹, 인민해방전쟁투사련합동맹**

유고슬라비아는 오스만제국이 패망된후 독립국가로 되였으나 1941년 4월 6일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로동계급과 인민은 손에 무장을 들고 내외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벌려 1945년 5월 나라를 히틀러 파쑈강점자들의 기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였다.

1945년 11월 29일 유고슬라비아는 련방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1963년 4월 7일 채택된 새 헌법에 따라 나라의 이름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으로 고쳤다.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은 자주적립장에서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여 나라의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유고슬라비아를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대외관계분야에서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신구식민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반대

하며 나라의 완전한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린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0년 10월 공산주의자동맹 제1차대표자회의에서 《국가상무위원회》(집체적대통령제)를 내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여 1971년 6월 30일 련방의회민족리사회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새로 국가상무위원회를 내왔으며 새 헌법에 따라 이때까지 련방공화국에 집중되여있던 권한을 대폭 《분권화》하여 6개 공화국과 2개의 자치변강들에 《완전한 민족자치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대외정책과 무역은 여전히 련방공화국이 장악하며 중요한 모든 문제는 전체 가맹공화국들의 일치가결의 원칙에 의하여 채택된다.

1973년 5월 10일 공산주의자동맹 제4차대표자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당10차 대회에서 찌또를 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으로 재선할것을 제의하였다. 5월에 진행된 공산주의자동맹 상무위원회에서는 제10차대회강령초안을 토의하였으며 11월에 진행된 상무위원회는 공산주의자동맹 제10차대회를 1974년 5월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에 유고슬라비아 련방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일련의 경제정책문제, 유고슬라비아와 외국과의 관계문제들이 토의되였다.

1973년 9월 찌또대통령이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11월에 찌또는 쏘련을 방문하여 두 나라 당과 국가의 관계발전 및 국제문제들을 토의하였다.

3월에 련방집행리사회 위원장이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를 방문하여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준비와 관계되는 문제, 쁠럭불가담국가들 사이의 쌍무적, 다무적협조의 강화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그는 12월에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6월 21일—27일 사이에 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이 꾸바를 방문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7월에 기네—비싸우와 아프가니스탄공화국을 승인하였다.

1973년 4월에 로므니아와 다뉴브강의 두나라수력자원을 더 유용하게 쓰며 기계제작 및 금속공업, 광업, 석유, 지질, 경공업, 농업, 운수 및 체신분야에서 협력 및 협조할데 대한 협상단계와 협조를 위한 새 제안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유고슬라비아의 공업에서는 기계공업, 섬유, 담배, 제재, 강철, 화학, 전력, 선박공업 등이 비교적발전하였다. 기계공업은 공업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최근년간에 전력공업, 원유공업, 석탄공업, 화학공업, 야금공업생산이 늘어났다.

1972년에 유고슬라비아의 공업총생산액은 1971년에 비하여 8% 늘어났으며 1973년 상반년 공업총생산액은 6.9% 늘어났다. 두까비쯔에 있는 콕스화학공장 로동자들은 1973년 첫 8개월동안에 1972년 한해동안 생산한것만한 량의 콕스를 생산하였으며 체르노고리아에 있는 알루미니움공장에서는 1973년상반년에 계획했던것보다 5% 더 많은 알루미니움을 생산하였다.

경공업기업소들에서는 신발, 종이, 천 등 여러가지 소비품생산을 늘이고있다.

농촌경리에서는 개인경리가 지배적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부침땅은 1천 470만 7천헥타이며 인구의 근 절반이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 포도, 오얏, 사과, 담배, 해바라기, 삼 등이다.

1973년에 담배생산은 14% 늘어났으며 사탕무우, 사과, 포도 등 과일생산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유고슬라비아는 광물류, 기계, 운수설비, 목재, 식료가공품, 아열대농산물 등을 수출하고 철강재, 기계류, 공업설비, 화학제품, 석유, 콕스탄, 섬유 등을 수입한다.

대외무역은 주로 서독, 미국, 영국, 이딸리아 등과 하며 그밖에 사회주의나라들과도 한다.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으며 대학을 비롯한 각급학교들에서 300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대학생수는 1973학년도에 29만 5천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따뉴그

신문 꼼무니스트(공산주의자동맹기관지), 보르바(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기관지), 뽈리찌까(정부기관지), 웨체르니에 노보스띠(베오그라드에서 발간)

잡지 쏘찌 알리잠(공산주의자동맹기관잡지), 국제로동운동(국제로동운동연구소기관잡지),

방송 베오그라드라지오 및 텔레비존방송, 자그레브라지오 및 텔레비존방송, 류블랴나라지오 및 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30일 우리 나라와 유고슬라비아는 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1971년 두 나라사이에 서로 대사급 외교대표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1973년에 두 나라 외교대표부들은 각각 주재국에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이 나라 국제로동운동연구소기관잡지가 실었으며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신문 《뽈리찌까》가 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신문 《보르바》는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략력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1973년에 신문 《뽈리찌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3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신 신년사를 보도하였으며 《꼼무니스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를 실었다.

1973년에 유고슬라비아는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제출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에 대하여》의 결의안의 공동발기국으로 활동하였다.

1973년 5월 3—8일까지 유고슬라비아련방의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표단을 만나시였다.

7월에는 경제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8월하순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찌또위원장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전달하였다.

1973년 4월 23—27일 사이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1973년 5월 9일 베오그라드에서 조선중앙통신사와 유고슬라비아 따뉴그통신사사이에 보도 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핀 란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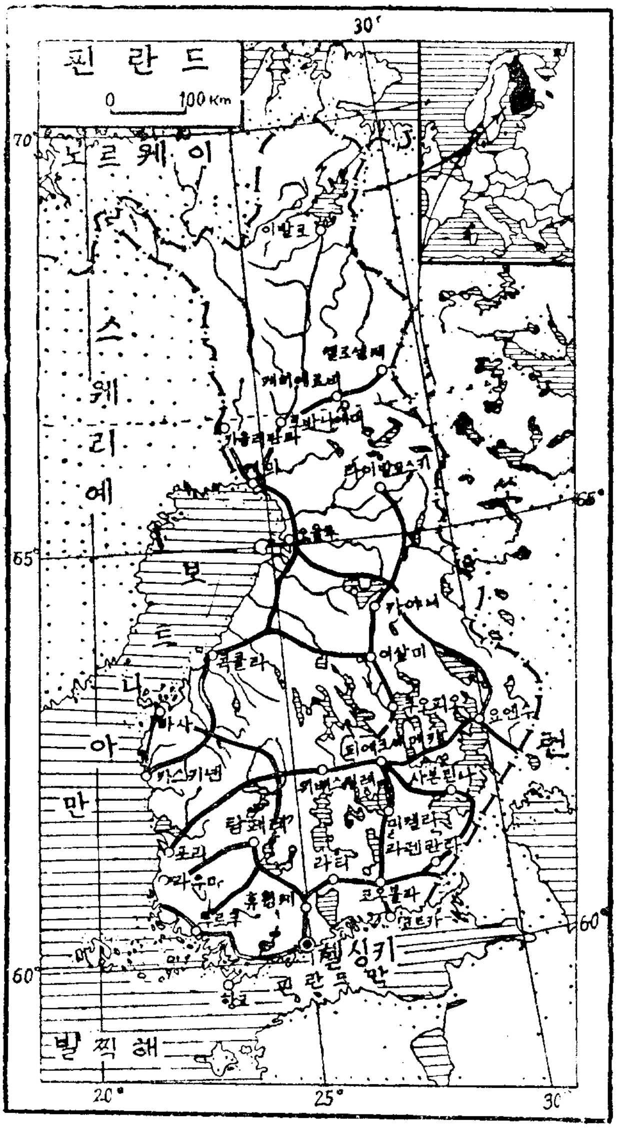
(핀란드공화국)

면적 33만 7,009km²
인구 469만 7,000명

핀란드사람이 90%, 스웨리예사람이 9%이며 그 밖에 쏘련사람, 독일사람들이 있다.

공용어는 핀란드말과 스웨리예말

수도 헬싱키 (주민 53만 5,200명)



정　치

국회 일원제, 임기는 4년이며 20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였다. 1972년 1월 선거결과 공산당의 통일전선체인 인민민주주의전선이 37석, 사회민주당이 55석, 중앙당이 35석, 민족련합당(보수당)이 34석, 농민당이 18석, 스웨리예 인민당이 10석, 자유인민당이 7석, 기독교동맹이 4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국회에서 선출된다. 1973년 1월 국회에서 대통령 임기(원래 6년)를 1978년 3월 1일까지 연장할데 관한 법안이 통과되였다.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 (1968년에 3선됨).

정부 1972년 9월 사회민주당, 중앙당, 스웨리예인민당, 자유인민당, 련립정부가수립되였다.

총리 칼레비 소르사 (사회민주당출신, 1972년 9월—) 외교부장아호티 까리알라이넨, 국방부장크리스찌안 게스트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9월 28일에 창건. 1972년 3월 제16차대회 진행, 위원장 아아르네 사아리넨, 총비서아르보 아알토, 사회민주당, 중앙당, 민족련합당, 자유인민당, 스웨리예인민당, 농민당, 인민민주련맹, 로동자소농사회민주련맹, 기독교련맹, 로조중앙련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핀란드는 파쑈독일의 조종밑에 1939년 11월, 1941년 6월 쏘련을 침공하였다가 패배하였다. 1947년 2월에 쏘련과 《강화조약》을 맺었으며 1970년에 이 조약을 25년간 연장하였다.

1972년 1월에 있은 국회선거후 사회민주당의 단독내각을 거쳐 그해 9월에 사회민주당, 중앙당, 스웨리예인민당, 자유인민당의 4당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핀란드정부는 자기의 대외정책강령에서 평화를 공고히하고 국제적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빠아씨끼비—케코넨의 로선》에 부합되는 정책을 실시할것을 내세우며 북구라파나라들과의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을 정부의 기본 대외정책목표의 하나라고 하였다.

1973년 1월 18일 핀란드국회는 대통령 케코넨을 정상적인 선거없이 1978년 3월 1일까지 대통령으로 남아있도록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케코넨의 현대통령 임기는 1974년 3월 1일까지)

핀란드는 1973년에 윁남민주공화국(1월), 말레시아 (6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로므니아와 무역의정서를 조인 (3월)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목재가공공업 및 제지공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목재가공공업은 공업총생산량의 3분의 1, 국민소득의 70%, 수출의 85%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신문용지생산은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첫자리, 펄프생산은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종이는 년평균 290만t, 합판은 70만t 생산한다.

기계제작공업 (주로 대형기계)과 금속공업, 선박건조공업이 일정한 수준에 올랐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식료가공공업 (축산물가공), 섬유공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목축업이다. 이 나라 특히 남부지방에서는 품종이 좋은 젖소를 많이 기르고있으며 북극지방에서는 이 지방기후에 적응한 북극사슴을 방목하고있다. 부침땅의 4분의 3이 먹이작물재배지 또는 방목지로 리용되고있다.

농산물은 국민총생산액에서 겨우 8%를 차지하고있으며 식량은 국내수요의 절반밖에 보장하지못하여 해마다 많이 사들이고있다. 주요 농작물은 밀, 보리, 호밀, 귀밀, 감자 등이다.

핀란드는 가까운 발찍해에서뿐아니라 수많은 호수들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목재, 팔프, 종이, 선박, 기계, 축산제품 등을 수출하고 석유, 석탄, 목화, 집짐승먹이, 기계류 기타 공업제품들을 수입한다. 주요 무역대상국은 스웨리예, 영국, 서독, 쏘련이다.

경제의 기본부문들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이른바 《스무가정》의 기업체(련합체)들이며 이것들이 전체 산업자본, 은행자본, 대외무역의 90%를 통제하고있다.

17개의 대학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3만 2천600여명의 대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출판보도;통신 에스티티—에프엔비 **신문** 칸산우우티세트(공산당중앙기관지), 쏘시알 데모크라티 (사회민주당기관지), 투룬 페이테호티 (사회민주당소속), 에텔레—사미마(중앙당기관지), 배드보르가르블라데트 (인민당기관지)폴또 퍼스테(자유민주당기관지), 우우시 수오미 (민족련합당기관지), **방송** 핀란드 (대내, 대외)방송, 핀란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핀란드정부는 1973년 6월 1일에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과 핀란드사이의 외교관계설정은 우리 두나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됩니다.》

1969년 10월 우리 나라와 핀란드정부 사이에 맺어진 무역협정에 따라 1970년 9월 15일 헬싱키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67년 3월 23일 핀란드조선협회가 결성되였다.

핀란드조선협회는 1971년 4월 15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를 조직하였다. 또한 핀란드땀뻬레종합대학에도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1969년 7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핀란드공산당 중앙기관지 《칸산 우우티세트》를 위하여 제기한 일련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시였다. 《칸산 우우티세트》지는 그이께서 주신 대답전문을 전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경축하여 신문 《칸산 우우티세트》, 《소시알데모크라티》, 《온딱뜰》과 잡지 《트리끈트》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소개하였다.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인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비롯한 그이의 많은 고전적로작들을 출판하여 온 《사난머에》출판사는 197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에 대하여》를 《핀란드어로 번역출판하였다. 12월 이 출판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10월 28일 연설을 번역출판하였다. 또한 《사난머에》출판사는 《주체사상의 승리》라는 책을 핀란드어로 번역출판하였다.

1973년에 《사난머에》출판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묶음(8개제목)과 《인민들속에서》를 번역출판하였다.

11월 17일 헬싱키에서 우리 나라 도서 및 사진전시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전시회는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전시되여있었다.

1973년 11월 17일 헬싱키에서 핀란드, 스웨리예, 단마르크 등 북구라파나라들의 70여개 정당, 사회문화단체 대표들과 저명한 인사들 160여명의 참가하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8월 29일—9월 4일까지 핀란드공화국 제1재정부장이며 국회의원인 핀란드 중앙당 당수 요한네스 비로라이넨을 단장으로 하는 핀란드공화국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3일 핀란드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시고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1973년 8월에 핀란드조선친선협회대표단, 9월에 녀성대표단, 11월에 정부무역대표단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3월 15—20일까지 핀란드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 나라 우르호 케코넨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말씀을 전달하였다. 또한 3월에 우리 나라 정부 무역대표단이 핀란드를 방문하였으며 4월에 사로청대표단이 핀란드민주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스 웨 리 예

(스웨리예왕국)

넓이 44만 9,750km²

인구 804만명

주민의 95% 이상이 스웨드족이며 기타 핀족, 고드족, 린족들이 있다.

공용어 스웨리예말

수도 스톡홀름(주민 74만 7,490명)

정 치

국왕 까를 구스타프 16세 (1973년 9월—)

의회 일원제, 의원수는 350명, 임기는 4년이다. 1973년 9월 16일 선거에서 공산주의자좌익당 19석, 사회민주당 156석, 중앙당 90석, 인민당 34석, 보수당 51석차지

정부 총리 올로프 팔메(1973년 10월—)외교부장 스벤 안데르쏜, 국방부장 홀름비스트.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좌익당 1917년 5월에 창건. 위원장 칼 헨리크헤르만쏜, 사회민주당(집권당) 로조에지반을 두고있으며 당내에서 좌익세력의 영향이 강하다. **중앙당, 인민당, 온건련합당**(전신은 보수당), **로동총앙련맹, 사무원로조 중앙조직, 공산주의청년, 사회민주청년동맹**(사회민주당소속), **좌익녀성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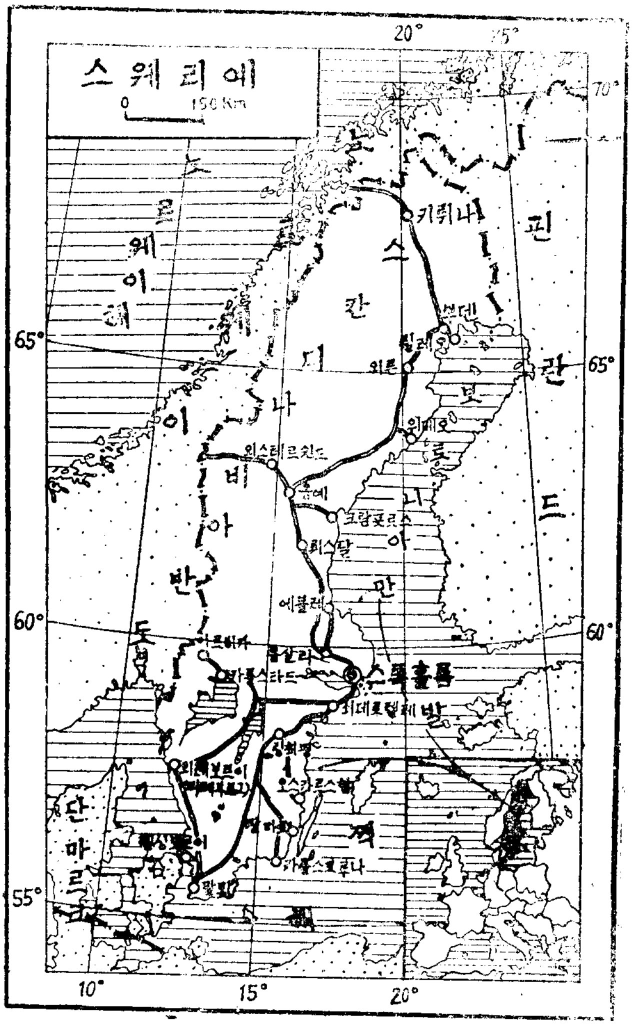
스웨리예는 립헌군주제국가이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다. 전후에는 《중립정책》을 내세우고 나토를 비롯한 침략적군사쁠럭에 가담하지않았다.

스웨리예는 조선정전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가하고있다.

스웨리예는 북구라파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구라파리사회》(1952년 12월 스웨리예, 핀란드, 단마르크, 노르웨이, 이슬란드 나라들로 조직) 성원국들과의 정치, 경제 및 문화적협조를 두터이하고있다.

1973년 9월 16일에 스웨리예국회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국회에서 공산주의좌익당은 17석으로부터 19석을 차지하였으며 민주당은 163석으로부터 156석으로 떨어졌다. 1936년부



터 련립정부에 참가하였다가 1957년 이후 단독내각을 구성하고있는 사회민주당은 또다시 최고의석을 얻음으로써 10월 30일에 당수 올로프 팔메를 총리로하는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1973년 9월 국왕 구스타프 아돌프 6세가 서거하고 그의 손자 까를 구스타프16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6월 11일 스웨리예국회는 국왕의 모든 권한을 제한할데 대한 법안을 가결하였으며 녀성이 왕위를 계승할수 있게할데 대한 보수파의 제안을 부결하였다.

1973년에 스웨리예정부와 인민은 미제의 침략과 간섭정책을 반대하여 나섰다. 1월초 정부는 자기 나라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였다는 리유로 닉슨도당이 미국주재 스웨리예신임대사를 받아들이는것을 거부한것과 관련하여 스웨리예가 《미국의 문을 두두리지 않을것이다》라고 하면서 미제에 면박을 주었다. 스웨리예정부는 5월에 미중앙정보국의 지령밑에 《공보부》라는 간판으로 스웨리예에서 날뛰던 미제간첩망을 적발분쇄하였다.

또한 8월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야만적폭격을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였으며 9월에는 놈들이 칠레의 반동적군부세력을 조종하여 알옌데정권을 전복한것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11월 스웨리예외교부장은 희랍반동군사정권이 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을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스웨리예정부는 5월 자기 나라 주재 남조선괴뢰대사놈을 살인자, 전쟁범죄자로 규탄하고 내쫓았다.

경제, 사회문화

스웨리예는 자본주의적공업, 농업국가이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40%를 차지하고있다. 공업부문에서는 북부지방의 쇠돌과 산림자원 및 수력자원에 기초하여 금속, 기계, 제재, 팔프, 선박공업 등이 발전하였다.

채광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4%를 차지한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팔프, 종이 생산설비들과 고성능 특수기계들을 주로 생산하고있다.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목재가공업은 비교적 발전하였다. 년평균 종이, 팔프는 약 840만t, 합판은 약 90만t, 목재는 약 1천 160만m^3 생산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합성수지생산에 주력하고있으며 수입에 의한 석유제품생산도 하고있다.

경제의 5%이상이 외래독점자본의 통제밑에 있다. 그중 미제독점자본은 전체 외국자본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외국독점체들은 주로 전기기계설비, 전자계산기분야에 밀려들고있다.

농업은 뒤떨어져있다. 부침땅은 전국 령토의 10%에 불과하다. 그중 10분의 7은 먹이작물재배지이다. 년간 약 130만t의 알곡, 320만t의 먹이작물, 127만t의 감자, 약 180만t의 사탕무우가 생산된다.

농업에서 기본은 축산업이며 이것은 농업총생산액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집짐승은 소, 돼지, 말, 닭 등이며 소젖생산을 기본으로하고 있다.

스웨리예는 각종 기계, (전체 수출의 45%), 목재 및 종이제품(약 25%) 쇠돌, 금속 및 선박 등을 수출하며 석탄, 섬유, 식량 등을 수입한다.

주로 영국, 서독, 노르웨이, 프랑스 등과 무역한다.

스웨리예에서는 1973년 11월에 생계비가 그전해 11월 보다 10.8% 올랐다.

출판보도; **통신** 스웨리예통신.

신문 뉴다그(공산주의자 좌익당기관지)아프톤 블라데트 (사회민주당및정부기관지), 다겐스 뉘헤테르 (자유당기관지), 익스트 웨쎌, 조선통보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기관지), 엑스프레쎈, 스벤스카그블라데트, 쏘찌알 데모크라티, 알제떼트,

방송 스웨리예방송, 스웨리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스웨리예정부는 1973년 4월 7일에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6월에 스웨리예에 우리 나라 공보부가 설치되였다. 1969년 11월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에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성원들은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김일성주석로작출판위원회》를 각각 조직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스웨리예 웁살라종합대학에는 《김일성원수 반제혁명사상연구소조》(4월 8일), 이 대학 동방어문학부에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가 조직되였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성원들의 《김일성주석로작출판위원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포함한 9권의 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로작들을 출판보급하였다.

1973년에 스웨리예신문 《펜스피르링엔》 10월 8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 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의 상세한 내용을 실었으며 스웨리예 로조출판사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인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와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를 스웨리예어로 종합본으로 번역출판하였다.

스웨리예의 진보적 정당, 사회문화단체대표들은 1973년 11월 17일 헬싱키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에 참가하였다.

1973년 10월 19일 스웨리예수도 스톡홀름시회관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공예품전람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11월에 우리 나라와 스웨리예간에 첫 무역협정이 조인되였다.

1973년 2월에 스웨리예외교부장 특별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외교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한편 1973년 3월 9일—15일까지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스웨리예를 방문하였다. 4월에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이 스웨리예공산주의청년동맹 제30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이 스웨리예를 방문하였다. 8월에 우리 나라 교예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여 공연하였다.

노 르 웨 이

(노르웨이왕국)

넓이 32만 4,219km²

인구 390만명 (1971년 1월)

주민의 대부분이 노르웨이사람이며 그밖에 싸미사람, 크베사람, 스웨리예사람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노르웨이말

수도 오슬로(주민 48만 7,363명)

정 치

국왕 울라프 5세(1957년)

국회 상하량원제, 임기는 4년이다. 총의원 155명중에서 38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상원을 구성하며 나머지 112명으로 하원을 구성한다.

1973년 9월에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155석중 레이버당이 61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트리크베 브랏뗄리 (1973년 10월—), 외교부장 크누트 프리덴룬드, 국방부장 알프 쟈꼬브 포스테르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3년 11월 4일에 창건, 위원장 레이다르 테라르센, **사회주의인민당** 1961년 4월 6일에 창건, 핵무장화반대, 나토로부터의 탈퇴를 요구한다. **레이버당**(집권당), **호이레당**(보수당, 대부르죠아지의 리익대변), **기독교인민당**, **중앙당**, 대중토지소유자들과 산림경영주들의 리익을 대변, **벤스트레당**(자유당), 중소부르죠아지, 일부 사무원,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변, **로조중앙련맹** (세계자유로련에 가입), **공산주의청년동맹**, **청년동맹**(레이버당 소속), **녀성동맹**

노르웨이는 립헌군주국이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에 해방되였다.

노르웨이는 침략적인 나토성원국이며 오슬로에는 나토 북부군사령부가 있다.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전까지 기간에 국회에서 다수파를 차지하고있던 레이버당이 1935년부터 30년간 정권을 유지하여왔으나 (1963년 8월에 <보수련립정부>가 4주일간 유지) 1965년의 총선거에서 패배한후 정권은 보수적인 4당련합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러나 1971년 3월 구라파 《공동시장》 가입을 둘러싼 내부분쟁과 분렬로하여 이 내각은 해체되고 레이버당 당수가 소수파내각을 구성하였다.

1972년 10월 레이버당정부는 구라파 《공동시장》가입반대파인 기독교인민, 중앙당, 자유당들의 소수파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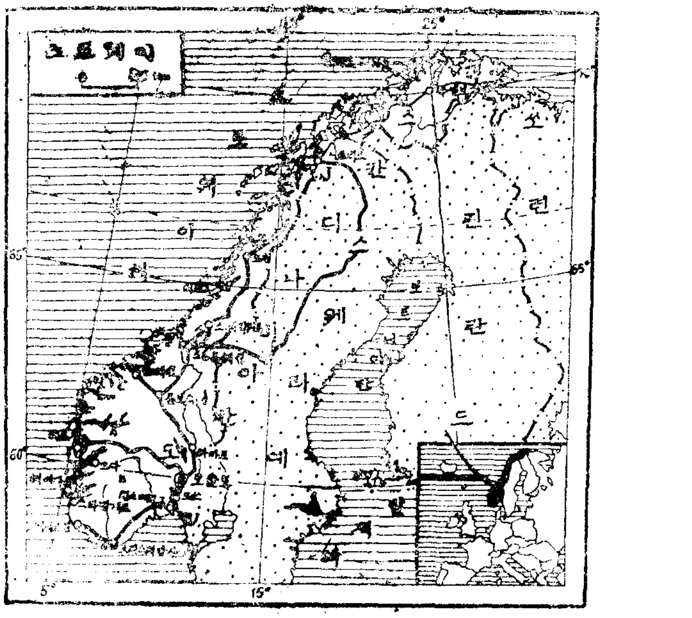
1973년 9월에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레이버당은 정당들중 제일 많은 의석(62석)을 차지함으로써 10월 16일 당수 트리크베 브랏뗄리를 총리로하는 소수파정부를 세웠다.

노르웨이는 1964년 10월 미제의 《다각적핵무력창설안》을 반대하였으며 1957년말의 《나토리사회》에서 미제의 원자기지를 제공하는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1968년 6월의 《나토각료리사회》에서 나토의 지중해무력을 강화할데 대한 미제의 제의를 거부하였으며 그리고 남부웰남에 고용병을 보내라는 놈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1973년 8월 13일 노르웨이총리는 캄보쟈의 도시와 농촌들에 대한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을 규탄하였으며 5월 27일에는 이슬란드령해를 침범하여 해적행위를 하는 영제국주의자들을 비난하였다.

1973년 1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1월 2일—4일에 노르웨이공산당 제14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중앙지도부의 총화보고를 토의 찬동하고 개정되는 새 강령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 레이다르 테 라르센이 위원장으로 재선되였다. 11월 4일 노르웨이공산당은 당창건 50돐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6월 9일—11일사이에 노르



웨이공산주의청년동맹 제4차대회가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노르웨이는 자본주의적 공업, 농업 국가이다.

경제에서 주요한 부문은 전력공업, 해운업, 수산업, 림업, 목재가공업이다.

공업생산은 국민소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력생산의 90% 이상이 수력자원에 기초하고있으며 전력의 년평균생산량은 572억kwH이다.

년평균 선철은 약 67만~68만t, 강철은 87만t, 합금철은 55만t, 동은 2만 6천t, 아연은 6만t, 니켈은 4만t, 알루미니움은 53만t 정도 생산한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전기기계생산과 선박건조가 전문화되여있다.

팔프 및 종이는 년평균 약 220만t, 합판은 약 8만t 생산한다.

농업총생산액은 국민소득에서 약 6%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3%에 불과하며 동남부 일부지역에서 보리와 밀 등 알곡작물을 심고있으나 식량수요의 15~20%밖에 충당하지못하고있다.

농촌경리에서 4분의 3은 축산업이 차지하고있다. 집짐승은 주로 소(90만마리, 그중 젖소 43만마리), 양(190만마리)과 돼지(7만마리)를 기른다.

세계3대어장의 하나인 북해를 끼고 있기때문에 수산업이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로 대구, 청어 등을 잡고있는데 물고기는 년평균 300만톤 잡고있다.

해운업은 국민소득의 10%를 담당하고있다.

노르웨이는 쇠돌, 목재, 팔프 및 종이, 물고기와 그 가공제품, 알루미니움제품, 선박, 비료, 동물성기름, 가죽과 그 가공제품 등을 수출하며 식량, 집짐승먹이, 사탕, 화학제품, 천, 파실, 의복, 연료, 금속제품, 기계류, 운수설비들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스웨리예, 미국이다.

출판보도;통신 엔티비 (노르웨이통신)

신문 프린 헤덴(공산당기관지), 아르바이데트 다그블라데트(자유당기관지), 아르바이데트 블라데트(레이버당기관지), 오리엔떼링(사회인민당주간지), 폴케쯔 프람티드(기독교인민당기관지), 아프뗀 포스뗀(보수당기관지),

방송 노르웨이방송, 노르웨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22일 노르웨이는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9월에 노르웨이 주재 우리 나라공보부가 오슬로에 개설되였다.

1968년 10월 10일에는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고 1972년 2월 28일에는 오슬로에서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노르웨이공산당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노르웨이의 《뉴 다그》 출판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등 여러 로작들을 출판하였으며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노르웨이자유당기관지 《다그블라데트》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를 실었다.

1973년에 《뉴 다그》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인 1973년 《신년사》,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를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다그 블라데트》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1973년 4월 16일 연설과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노르웨이공산당, 사회인민당, 레이버당좌파와 진보적사회단체대표들과 인사들이 1973년 11월에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에 참가하였다.

1972년 11월 21—26일까지 노르웨이영화협회와 오슬로시영화국의 주최로 우리 나라영화상영주간이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영화상영주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불후의 기념비적명작들인 《꽃파는 처녀》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예술영화들과 기록영화들이 상영되여 이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69년 11월 18—28일까지 노르웨이공산당 위원장 레이다르 테 라르센동지를 단장으로하는 이 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였다.

1973년 2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노르웨이를 방문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11월 2~4일까지 사이에 진행된 노르웨이공산당 제14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대회기간에 진행된 노르웨이공산당창건 50돐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1973년 8월에 우리 나라 교예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 슬 란 드

(이슬란드공화국)

넓이 10만 2,846km²

인구 21만명(1970년)

주민은 노르드족과 덴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이슬란드말이며 단마르크말도 쓴다.

수도 레이캬비크(주민 8만 1,476명)

정 치

의회 상하량원제, 임기는 4년이다. 1974년 6월 12일 선거에서 총의석 60석중 련립정부가 32석(인민동맹 10석, 진보당 17석, 자유좌익당 5석), 독립당 22석, 사회민주당 6석차지)

대통령 크리스챤 엘자른(1968년 7월—)

정부 1971년 7월 13일 인민동맹(통일사회당통일전선체), 진보당, 자유좌익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올라푸르 요한네쏜(진보당), 외교부장 아이나르 아구스트쏜.

정당, 사회단체 ; 통일사회당 1938년에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좌파가 련합하여 조직, 위원장 에이나르 올게이르쏜, **인민동맹** 나토로부터의 탈퇴와 미군기지의 철폐를 요구, **진보당** 나토성원국으로 남아있는것을 지지하지만 미제의 군사기지의 철페를 주장, **자유좌익당**,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주장, **독립당** (가장 큰 우익당), **사회민주당** 나토에의 참가를 지지, **로조련맹, 전투적사회주의조직**

이슬란드는 1944년에 단마르크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였으며 같은해 6월 17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9년에 침략적인 나로에 가담하였으며 1951년 5월에는 미제와 《방위조약》을 맺었다.

이 협정에 따라 미제는 케플라비크공군기지에 대한 관할권을 얻었다. (여기에는 3천 500명의 미제침략군이 둥지를 틀고있다.)

1971년 6월 13일 국회선거에서 좌익력량이 승리하였으며 7월 13일 진보당 위원장 요한네쏜을 총리로하는 인민동맹(통일사회당 통일전선체), 진보당, 자유좌익당을 망라한 3당좌익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정부는 큰 제국주의나라들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며 자주적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1972년 9월 이슬란드는 자기 연해에서 물고기 특히 대구를 마구 잡아가는 영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부터 자기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50마일 령해권을 선포하고 1973년초부터는 경비정을 동원하여 이 수역에서 영국어선들이 함부로 고기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단속하였다.

이에 따라 이슬란드는 영제국주의자들과 《대구전쟁》을 진행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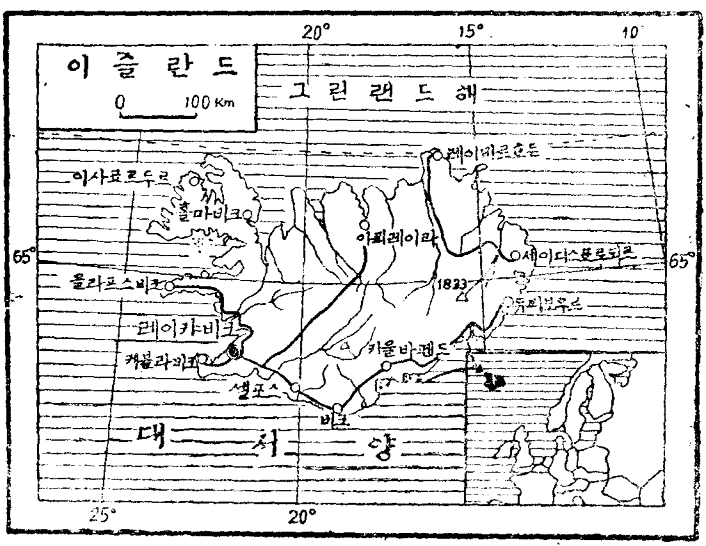
이슬란드총리는 5월 20일 영제국주의자들이 이슬란드령해에 침입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저들의 트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함선들을 들이민데 대한 대응조치로 영국군용기들의 케플라비크공항착륙을 금지시켰으며 5월 23일에는 영국군용기들의 자국령공비행을 완전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5월 23일 영제국주의침략군함선이 이슬란드경비정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을 감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5월 24일 이슬란드수도의 시위군중은 그곳 주재 영국대사관에 몰려가 창문을 까부시면서 영제국주의의 《군사적침략》을 견결히 항의규탄하였다. 또한 5월에 영국보도관을 추방하였다.

같은날 이슬란드 수산부장은 자기 나라 50마일 어로수역에서 영국군함을 나토가 강제적으로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이슬란드가 나토에서 대표를 소환하고 나토의 활동에 참가하는것을 거부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월 26일 이슬란드 포함은 자기 나라 령해에 기여든 영국해적선 《에버틴》호에 포탄벼락을 안겨 바다에 처넣으며 6월 7일에는 또 이슬란드포함이 영국해군소속 프리케트함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대구전쟁》으로 하여 이슬란드와 영국사이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였으며 국교단절의 위기에까지 직면하였다. 9월 이슬란드정부는 10월 3일까지 영제국주의자들이 프리케트함을 50마일수역에서 철수하지않는다면 영국과 국가관계를 끊을데 대하여 결정하고 이것을 영제국주의자들에게 통고하였다. 그후 이슬란드—영국회담에 의해 영제국주의는 이슬란드령해에 침입시켰던 프리케트함을 철수하지 않을수 없었다.

6월 12일 이슬란드 외교부장은 이 나라 주재 미국대사놈에게 각서를 보내여 1951년에 미제와 이슬란드간에 체결된 예속적인 군사조약의 개정을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하자고 통고하였다.



이슬란드정부는 자기 나라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이 철수할것과 케플라비크에 있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나토의 군사기지를 1975년전으로 폐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슬란드정부는 1973년 1월 12일 민주독일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이슬란드에서 어업은 경제의 기본을 이룬다.

이슬란드는 세계어장의 하나인 북해어장을 통하여 청어와 대구를 많이 잡는다.

이슬란드의 고기배는 1972년 현재 867척(배수량 8만t)이고 해마다65만~85만t의 물고기를 잡는다. 어획고의 70%는 대구이다.

이 나라에는 95개의 물고기랭동가공공장이 있다. 그중 50개의 기업소는 물고기가루와 간유를 생산하며 24개의 공장은 물고기통졸임을 만든다. 대구가공시설은 주로 서남부해안지대에, 청어가공능력은 북부 특히 시글루표두르 항구지역에 집중되여있다.

공업에서 물고기가공과 관련된 부문이 중요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고기배들을 위해 크지않은 선박수리공장들이 있다.

이 밖에 주조공장, 화학비료공장, 세멘트공장과 신발, 가죽제품, 메리야스공장들이 있다. 공업부문에는 주민의 3분의 1이상이 일하고있다.

이슬란드에는 광물원료가 거의 없다.

인구의 약 3분의 1이 농촌경리부문에서 일하고있다. 농촌경리의 기본은 면양기르기와 젖생산이다. 부침땅의 대부분은 방목지 또는 먹이작물 재배지로 리용되고있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대외무역은 나라의 경제에서 적지않는 비중(국민총생산액의 40%)을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물고기와 물고기제품(80—90%), 육류 등이다.

출판보도; 신문 우트신(인민동맹주간지), 알리두블라디드(사회민주당기관지), 모르군 블라디드(독립당 기관지), 티민(진보당기관지), 다구르(진보당반주간지)

방송 레이캬비크방송, 이슬란드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7월 27일 이슬란드정부는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6월 5일 이슬란드신문 《길오피린》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지지하는 글을 실었다.

1971년 6월 이슬란드전투적사회주의조직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단마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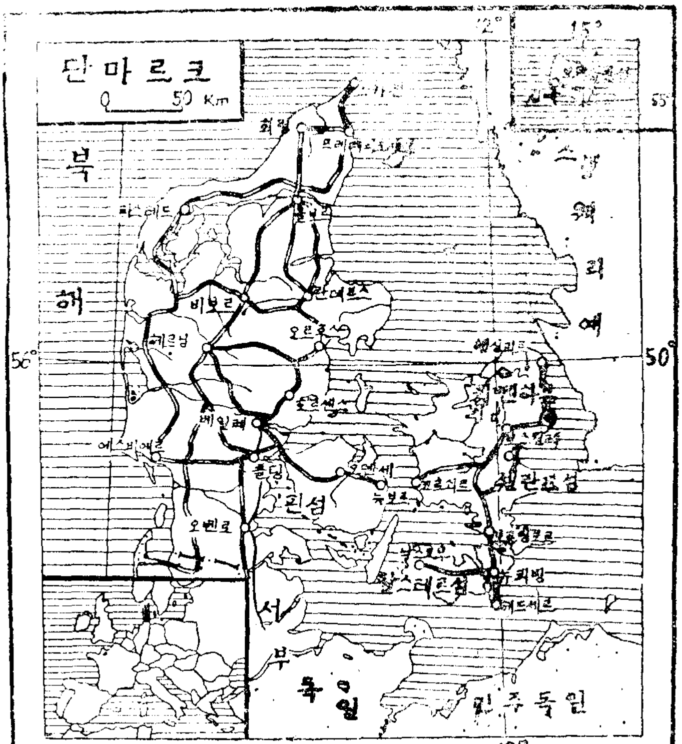
(단마르크 왕국)

넓이 4만 3,069km²
인구 492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덴족이며 그 밖에 약간의 독일사람과 프랑스사람이 살고 있다.

공용어는 단마르크말

수도 쾨뻰하븐(주민 81만 9,105명)



정 치

국왕 마르가레테 2세 녀왕(1972년 2월—)

의회 일원제, 임기는 4년이다. 의원은 모두 179명, 1973년 12월 선거결과 공산당 6석, 사회민주당 46석, 사회인민당 11석, 자유민주당 22석, 급진자유당 20석, 보수인민당 16석, 진보당 28석, 중심민주당 14석, 레츠포드분드당 5석, 기독교인민당 7석, 기타 4석 차지.

정부 총리 뽀울 하르틀링(자유민주당, 1973년 12월—), 외교부장 오베 굴드베르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11월 19일 창건, 1973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24차당대회 진행, 위원장 크누두 에스페르센, **자유민주당**(집권당), **사회민주당**, **사회인민당**, **보수인민당**, **급진자유당**, **중심민주당**, **레츠포드분드당**, **기독교인민당**, **로조련맹**, **공신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단마르크는 립헌군주국이다.

1940년 4월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에 해방되였다.

전후 단마르크는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고 미제와 《그린랜드공동방위조약》을 맺었다. 1961년 12월에 서독군국주의자들과 함께 《발적해합동사령부》를 조직하였다.

단마르크는 북구라파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설된 《북구라파리사회》의 성원국이며 1962년에 북구라파 4개국과 함께 《북구라파협력조약》을 맺었다. 단마르크는 최근년간 외국군대의 주둔, 핵무기의 반입, 원자잠수함의 기항을 반대하는 립장을 밝히고 나토로부터 군대를 축감하기로 결정하였다.

1973년 11월 8일 단마르크총리는 판세법안의 의회통과가 실패되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것을 국왕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3일 단마르크에서는 의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여당이였던 사회민주당은 1971년 9월의 70석으로부터 46석으로, 사회인민당은 17석으로부터 11석으로 크게 패배하였다. 공산당은 1석으로부터 6석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22석을 차지하였다.

12월 19일 자유민주당 당수 뽀울 하르틀링을 총리로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단마르크는 1월에 민주독일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2월 8일에는 대륙붕을 둘러싼 단마르크와 카나다사이의 경계선에 대한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라 단마르크의 그린랜드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인 네이티스해협, 바핀만 및 데이비스해협과 카나다의 엘리미어 및 바핀섬을 통과하여 경계가 그어졌다.

1973년 1월 12—14일사이에 단마르크공산당 제24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크누드 에스페르센을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5월 단마르크공산당은 근로자들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해 모든 진보적력량이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4월 단마르크공산청년동맹 제30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단마르크에서는 6월에 미제의 침략도구 나토를 반대하는 새로운 투쟁단체가 조직되였으며 11월에 제정당, 로조, 청년단체들의 주최밑에 칠레군사도당의 테로를 반대하는 항의 집회들이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공업의 주요부문은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기계제작과 조선업이다.

가공공업에서 주되는것은 내연기관(특히 선박 내연기관), 세멘트설비, 랭동기, 뻐터제조기, 자전거생산이다. 야금공업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공업부문에는 또한 린비료, 질소비료 생산을 기본으로하는 화학공업, 통졸임(고기, 물고기, 과일)과 뻐터, 치

즈 등을 생산하는 식료공업, 목재, 팔프 및 종이공업이 있다.

주요공업제품들인 강철은 47만t, 세멘트는 235만t, 린비료는 9만—11만t, 질소비료는 7만 5천t 정도 생산하고있다.

농업생산은 국민총생산액의 6분의 1밖에 안된다.

전령토의 60%가 부침땅이지만 비옥하지못하다. 대부분의 토지와 집짐승 및 농기계들은 자본가와 부농들이 차지하고있으며 고용로동자가 많다.

농업에서는 축산업과 가금업이 기본이다.

뻐터, 돼지고기와 닭알생산이 농업총생산량의 90%, 수출의 60%를 차지한다.

알곡으로는 보리, 밀, 호밀, 귀밀들을 심고있으나 보리, 밀을 제외하고는 생산량이 많지못하다.

북해어장에서 대구, 청어를 잡으며 년평균 물고기 생산량은 122만t정도이다.

단마르크는 고기, 뻐터, 치즈, 닭알가루, 기계, 전기기구, 선박, 화학제품을 수출하며 석탄, 원유, 기계, 운수수단, 흑색 및 유색금속, 천, 알곡을 주로 수입한다. 주요 무역대상국은 영국, 서독, 스웨리예이다. 1972년 9월—1973년 9월기간 식료품값이 9.9% 올랐다.

출판보도; **통신** 아트비(단마르크), **신문** 란드 오그 폴크(공산당기관지), 빈스 디덴데(자유당기관지), 아크투엘트(사회민주당기관지), 베르링스케티덴데(보수인민당기관지), 미나비센(사회인민당기관지) 폴리티켄(급진자유당기관지),

방송 단마르크방송, 단마르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단마르크정부는 1973년 7월 17일에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10월 10일에 단마르크조선친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2년에는 단마르크주재 우리 나라 공보부가 개설되였다.

단마르크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1971년에 희벤하븐건축대학 계획부와 발전학부에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희벤하븐종합대학 력사학부에 《김일성동지혁명력사와 로작연구소조》가 각각 조직되였다. 또한 희벤하븐외스떼르지역의 기관, 사회단체일군들과 학생들도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3년에 단마르크조선친선협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신문 《아크 루엘드》지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를 게재하였다.

또한 신문 《란드 오그 폴크》, 《인터네이숀》등 여러신문들은 수령님의 력사적인 10월 28일 연설을 요지로 게재하였다.

1973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단마르크공산당 제24차대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 보내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4월에 진행된 단마르크공산주의청년동맹 제30차대회에서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조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단마르크의 진보적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1973년 11월 17일 헬싱키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에 참가하였다.

6월에 단마르크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 조선기록영화상영주간, 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73년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초청에 의하여 단마르크공산당 위원장 크누드 에스페르센을 단장으로하는 단마르크공산당대표단이 6월 5일—12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6월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대표단을 만나시여 대표단성원들과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베푸시였다.

또한 8월 21—9월 4일까지 단마르크와 조선사이의 협조관계촉진위원회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고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10월에는 단마르크사회민주청년동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1월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단마르크공산당 제24차대회에 참가하였다. 2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 6월에 조선청년대표단이 단마르크를 방문하였다. 8월말—9월초에 우리 나라 교예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서부독일

(독일련방공화국)

넓이 24만 7,778km²
인구 5,955만명(1971년 10월)
주민의 대부분이 게르만족이다.
공용어는 독일말
수도 본(주민 17만명)

정 치

대통령 국가수반으로서 련방대회의(상하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구수타프 하이네만 (1967년 7월—)

국회 련방회의 (하원)와 련방참의원(상원)으로 구성되여있다. 련방의회의원은 496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련방참의원의원은 41명 (결의권없는 서부베를린대표 4명포함)이며 각 주정부들로 구성된다. 실권은 련방회의에 있고 련방참의원은 협의기관에 지나지않는다.

정부 총리는 대통령의 제의에 의하여 련방회의에서 선거되며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1972년 11월에 제2차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윌리 브란트

정당, 사회단체; **독일의 공산당** 전신은 1918년 12월 30일에 창건된 독일공산당이다. 1973년 11월에 당대회진행, 위원장 헤리베르트 머스, **사회민주당**(집권당)1946년 5월에 조직된 우익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당, **자유민주당**(집권당) 1948년에 나온 부르죠아정당, **기독교민주동맹** 1945년 7월에 결성, 독점자본가, 대토지소유자 및 관료, 군국주의세력을 대표하는 반동적인 정당, **기독교사회동맹** 1945년에 조직, **전독일당** (반동정당), **국가민주당**(파쑈정당), **독일로조총련맹**, **서독사회주의청년동맹**

서부독일은 군국주의국가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1949년 9월에 미영, 프랑스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서부독일땅에 단독적인 《독일련방공화국》이 조작되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서부독일에서는 군국주의세력이 빨리 되살아났으며 구라파에서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났다. 1955년 5월에 침

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다.

1956년 1월에 《훈련부대》라는 미명밑에 6천명의 첫병력을 편성하였다. 1965년에 서독복수주의자들은 징병년령을 20세로부터 18세로하고 종전의 《지원제》를 《징병제》로 고치였으며 6월에는 20만명의 《민간방위군창설법》을 조작하고 군국화를 다그쳤다.

1973년에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침략무력을 더욱 증강하였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1973년 7월 1일 현재 침략군을 41만 8천 275명으로 증강하였다. 6월에 있은 나토국방부장놈들의 모임에서는 미국제 지상대 공중 미싸일《란스》를 구입할것을 확인하였다.

이해 놈들은 9월 3일 에데르강, 웨제르강 등에서 도하훈련이란 구실밑에 군사연습을 벌렸으며 9월 12일—20일에는 미국으로부터 공수된 증강부대, 카나다군대와 련합하여 5만 900여명이 참가하고 수천대의 기계화무력과 헬리콥터가 동원된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함으로써 침략전쟁준비에 날뛰였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때 저지른 침략의 력사를 뒤집어보려고 파렴치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국가기관에 신나치스당원 1천 400여명(그중 340명은 높은 자리 차지)을 틀어놓고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를 부인하는 나발을 불어대였으며 어용학자들을 긁어모아 오데르—나이쎄 경계선이 제놈들의 의사에 배치되게 된것이라는 외곡된 사실을 력사교재에 넣어 후대들에게까지 팽료팽창야망을 고취시키고있다. 서독의 큰 도시의 하나인 에쎈에서는 파쑈분자들이 전후 구라파 《국경》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파쑈히틀러도당이 다른 나라를 강점했던 1937년도 국경으로 표시된 《지도》까지 들고나왔다.

1973년에 브란트 도당은 친미적인 반동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1월 18일 서독총리 브란트놈은 하원에서 한 《정부성명》에서 미제가 꾸며낸 나토가 여전히 서독의 《안전의 기초》로 된다고 줴쳤다. 4월 18일 브란트놈을 우두머리로 하는 사회민주당 제15차대회는 미제침략군의 구라파주둔을 지지하며 나토를 《외교정책의 확고한 기초》로 삼음데 대한 브란트놈의 《대외정책》을 승인하였다.

브란트도당은 4월 14일에 미제가 내놓은 《통상방안》과 4월 23일 키신저놈이 내놓은 《미군의 계속적인 구라파주둔》에 기초한 미국—구라파관계의 개선에 대한 새 《대서양헌장》창설을 《환영》하였다. 브란트놈은 4월 29일—5월까지 또한 9월에 미국을 행각하요 미국의 《평화》와 《번영》은 《대서양동맹》강화에 의존하며 미제침략군의 구라파주둔은 동서무력의 균형유지에 불가결한것이라고 줴쳤으며 구라파와 미국이 동료와 벗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떠벌였다.

브란트도당은 옛 침략적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와의 접촉도 강화하였다.

10월초 브란트도당은 본에 기여든 다나까놈과 두 나라사이의 《뉴데》를 떠들고 구라파주둔 미제침략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일치》를 확인하였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에 대처하여 7월 9일 노르드호른 근로자들은 나토의 군사연습소동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렸으며 2월초 서독의 에쎈시 사회계와 주민들은 미제와 서독반동들의 비호밑에 히틀러나치스트전범자들이 공공연히 활개치고있는데 대해 강력한 항의 투쟁을 벌리였다.

1973년에 브란트도당은 서방제국주의나라들에 싸다니면서 통화위기를 막아보려고 발악하였다. 1월 22일 브란트도당은 빠리에서 프랑스대통령 퐁피듀와 제2차 《서독—프랑스수뇌자회담》을 벌리고 구라파 《경제 및 통화동맹》을 내오기로 합의하였다. 3월 1일에는 브란트도당이 영국의 히스총리놈과 쑥덕공론을 벌리고 국제통화위기에 구라파나라들이 공동으로 맞설 필요성을 떠들었다.

한편 브란트도당은 1월에 미제와 국제통화제도개혁문제를 가지고 쑥덕공론하였으며 2월 29일에는 빠리에서 영국, 프랑스와 구라파공동체나라 통화들의 공동변동시세제도입문제를 흥정하였다.

두독일문제와 관련하여 5월 25일 서독련방참의원(상원)은 동부독일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을 비준하였으며 5월 16일부터 두 독일대표사이에 유엔의 가입문제를 의제로 회담을 벌리였다. 6월 30일에는 동서 두독일사이에 상주대표교환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벌렸으며 7월 3일에는 동부독일 외교부장과 서부독일 외교부장사이에 첫 정치회담을 진행하였다. 9월 18일에는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동독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1973년에 브란트도당은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문제를 《개선》해나가면서 12월에 벌가리아, 헹그리아와 각각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정부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감행하면서 1973년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지지해나섰다.

경제, 사회문화

서부독일은 자본주의공업국가이다.

서독경제는 심히 집적, 집중되였다. 《티쎈》, 《만네스만》회사들이 강철생산량의 80%를 독점하고있는가 하면 5개의 큰 화학독점체가 전체 화학제품생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다. 《폴크스 바겐》, 《벤쯔》회사들은 자동차생산을 독점하고있다. 또한 국가자본이 주식자본의 6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1973년에 자본의 집중이 더욱 강화되여 공업 및 상업회사들과 은행들의 융합건수는 275건에 달하였다.

서독의 독점자본들은 미국독점자본과 밀접히 유착되고 그에 심히 예속되여있다. 1972년에 미국독점체들의 서독에 대한 투자는 126억마르크에 달하였다. 이것은 서독에 대한 외국투자총액의 46%에 해당한다. 미국독점체들은 서독공업의 기간 부문인 원유, 자동차, 전자공업부문들에 깊이 침투하고있다. 미국석유독점체의 자매회사인 《엑손》은 서독원유공업능력의 20%이상을 통제하고있으며 다른 한 회사인 《텍사코》는 서독액체연료시장의 10%를 틀어쥐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미국독점체들은 서독 국내시장의 35~40%를 틀어쥐고 판을 치고있다.

독점의 강화와 미국독점자본의 침투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은 계속 파산몰락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세계는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파동을 겪고있으며 전면적인 위기에 부닥쳐 더욱더 허덕이고있습니다.》(《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8페지)

1973년에 기업의 파산 및 재판소에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5천 515건에 달하였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불과 몇달동안에 200개의 회사와 기업체들이 몰락하여 문을 닫았다. 1973년말—1974년초에는 《쿤바우 금브흐》, 《모벨란》등 건설회사들과 그 산하 기업체들을 비롯하여 400개 건설회사들이 파산몰락하여 건설에서 위기를 겪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1962년—1970년 사이에 62만 9천개의 중소농장들이 파산되였다.

브란트도당의 반동적인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서독의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있다.

1972년에 서독의 석탄생산량은 그 전해에 비하여 7.5% 떨어졌는데 1973

년에는 그것이 또 5%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60%의 탄광들이 문을 닫아버렸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의 석탄생산 감소량은 무려 1천 350만t이나 된다. 또한 자동차, 강철, 화학, 전력, 건설 공업부문들에서도 생산이 현저히 줄어들고있다.

자동차공업은 최악의 위기를 겪고있다. 1973년에 이 부문에서 주문액은 56% 줄어들었다.

서독독점체들과 은행들은 1973년에 화란, 에스빠냐, 오지리, 이딸리아 등 여러 나라들을 경제적침투의 기본대상으로 선택하였으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제놈들의 자본을 들이밀었다.

화학, 전기, 기계공업과 운수부문의 독점체들이 해외자본투자를 적극화하였는데 놈들은 일련의 아프리카나라들과 뽀르뚜갈, 희랍, 이스라엘에서 서독방직회사의 자매기업체들을 만들어 관을 치게하고있다.

1973년에 서독은 심각한 통화위기를 겪었다. 년초 미제의 딸라 10%평가인하이래 서독은 금평가유지로 11.1% 인상(1딸라=2.9003마르크)하였다.

3월 구라파외환시장에서 딸라시세가 더 한층 떨어지자 서독련방은행은 단 두시간에 17억딸라를 사들이는 소동을 피웠다. 6월 29일 브란트 도당은 또다시 마르크화를 5.5%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마르크의 인상에 따라 새환률(평가)은 1딸라대 2.6690마르크(종전2.8158마르크)에 해당되게되였다.

서독의 국제수지도 더욱 악화되였다. 1973년 12월에만도 그것은 12억마르크에 달하였다.

1973년말에 48만 5천명이 실업당하였는데 그것은 1966—1967년의 경제위기때보다 더 많은것이였다.

1974년 2월말에 실업자수는 62만명명이상으로 늘어났다.

1973년에 서독에서 소비물가가 6.9% 올랐다. 이것은 1950년—1951년이래 가장 높은 률이였다. 난방용연료값은 156% 올랐다.

1973년에 매세대당 생계비는 평균 7.8% 올랐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살림집이 없어 심한 고통을 겪고있는데 바바리아주에서는 8만세대이상이 집없이 한지에서 살고있으며 뮨헨에서도 수만세대가 비바람도 가리지못하는 게딱지같은 판자집에서 간신히 살아가고있다. 많은 도시들에서는 최근 10년동안에만도 집세가 3배나 뛰여올랐다.

1973년에 서독반동당국이 근로자들에게서 짜낸 세금은 무려 600억마르크에 이르렀다. 서독에서는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근로자들로부터 수탈하는 세금으로 메꾸고있다.

서독은 공해가 심한 나라의 하나이다.

1973년 9월하순에만도 하쎈을 비롯한 4개지역의 오물장들에 6만톤에 달하는 유독성페물이 쌓여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라인강은 이 류역에 있는 화학, 야금, 기계제작회사들에서 흘러드는 여러가지 독성물질로하여 심히 오염됨으로써 물고기가 거의 없으며 사람들이 모욕하는것도 금지되는 형편에 있다.

서독반동통치밑에서 교육조건은 심히 락후한 형편에 있다. 하부작소니아주에만도 7천여명의 교원이 부족되며 함부르그의 소학교들에서는 교원이 25%나 모자란다. 서부 베를린에서 최근 10년동안 대부분의 학교들을 수리하지 못하여 다 낡아못쓰게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데페아. **신문** 운제레 짜이트(독일의 공산당기관지)

디벨트(정부계), 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 게르니쉐르 룬트샤우(사회민주당계), 한델스블라트(공업, 금융 및 상업계의 대변지), 쥬트도이체 짜이퉁

방송 8개의 방송망을 각지에 두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서부독일에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 서부베를린에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결성되여있다.

1970년에 서독신문 《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조선은 20세기의 영웅을 낳았다. 김일성전 1부》라는 표제밑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 《김일성전》 제1부를 소개하였다. 1971년에 《붉은별》 출판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을 포함한 4편의 로작을 묶은 문헌집 제1권을 출판하였다.

1969년 4월 서부독일공산주의자그루빠가, 1970년 9월에는 서독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1971년 6월에는 서부독일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1972년 4월에는 서부독일텔레비죤방송기자가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1973년 6월에 서독텔레죤기자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한편 1972년 9월에 우리 나라 올림픽선수단이 서독의 뮨헨에서 진행된 제20차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오 지 리

(오지리공화국)

넓이 8만 3,849km²

인구 744만 4,000명 (1971년 5월)

주민의 대부분이 독일사람이고 그밖에 슬라브사람, 마쟈르사람, 이딸리아사람이 있다.

공용어 독일말

수도 윈 (주민 165만 6,100명)

정 치

국회 국민의회(하원)와 련방의회(상원)의 량원제, 1971년 총선거결과 국민의회에서 사회당 90석, 인민당 80석, 자유당 10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6 년이다. 대통령 프란쯔 요나스(사회당출신 1965년 5월—)

정부 총리 부르노 크라이스키 (사회당출신 1970년 4월—), 외교부장 루돌프 키르히슐레게르

정당,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에 창건. 1974년 1월 22차대회 진행, 위원장 프란쯔무리, **사회당** 1945년에 조직, 로조에 지반을 두고있다. **인민당** 1945년에 나왔으며 대부르죠아지, 지주 및 부농의 리익을 대변한다. **자유당** 1956년에 배타주의자들과 이전 나치스분자들로 무어진 극우익정당 **국가민주당** 1967년에 조직된 신파쑈정당. **민주진보당** 1965년에 나왔으며 우익개량주의적립장에 서있다.

오지리로조련맹 (사회당소속), **공산주의청년, 공산주의대학생동맹, 민주녀성동맹**

오지리는 제1차세계대전에서 독일파 한짝이되여 싸우다 패배한후 1918년 11월에 오홍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물러나고 이해 오지리공화국이 수립되였다.

오지리는 1938년 3월 12일 히틀러독일에 강점되여 제2차세계대전에 참가하였다.

1945년 4월 23일 파쑈독일로부터 해방된 후 오지리는 쏘, 미, 영, 프랑스 4개국의 공동관리밑에 들어갔다.

1945년 4월 공산당, 사회당, 인민당의 련립정부가 형성되였으나 정부내의 반동지배층이 독일파의 《병합》을 공공연히 부르짖자 공산당은 여기에서 탈퇴하였다.

1955년 5월 15일에 조인된 대오국가

조약에 따라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오지리의 주권이 회복되였다. 같은해 10월 26일 오지리국회는 《영구중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전후 오지리반동지배층은 저들의 《중립정책》과는 배치되게 1956년에 미제와 예속적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을 맺었으며 이해 4월에는 침략적인 나토와 련결된 《구라파리사회》에 가담하였다.

오지리는 전후 《중립》의 명목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자본주의나라들에 대하여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73년 3월 13일 윈의 많은 청년학생들이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아랍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외교부장놈이 그곳에 기여든것과 때를같이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준렬히 단죄하는 삐라를 뿌리면서 시위를 벌리였다.

5월 17일 오지리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내에서 끊임없는 물가등귀를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며 임금의 최저한도액을 높이고 가격통제를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1973년에 오지리에서는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며 물건값을 낮추고 임금을 올려받기 위한 로동자, 중등학교 교원들의 투쟁(4월),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6만명 교원들의 파업투쟁(6월)이 벌어졌다.

경제, 사회문화

오지리는 비교적 발전된 자본주의적 공업—농업국가이다.

주요공업부문은 흑색금속, 섬유, 전기기계, 석유, 석탄, 팔프 및 종이, 차량공업이다. 중요공업부문은 국가독점자본의 통제밑에 있다. (광업은 100%, 강철은 95%, 전력은 85%)

게다가 외래독점체들이 오지리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1960년—1970년까지의 기간에 외래독점자본은 오지리에서 96개의 기업소를 틀어쥐였다. 1970년에 외래독점체들에 고용된 로동자수는 4만 8천여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오지리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총수의 7.6%에 해당하였다. 외래독점자본투자총액가운데서 서부독일은 25%, 미제는 20%를 차지하고있다.

농업부문에는 인구의 약 20%가 일하고있으며 전체 농가호수의 1%밖에 안되는 지주놈들이 부침땅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다.

농업에서 목축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약 160만헥터의 부침땅가운데서 많은 지역이 집짐승을 위한 방목지와 먹이작물재배지로 리용되고있다. 목축업에서는 주로 소, 돼지, 양, 염소, 말을 많이 기른다.

알곡작물로는 보리, 강냉이, 호밀, 귀밀 등이 있으나 식량은 자급자족못한다.

선철, 강철, 기계류, 목재, 팔프와 종이, 화학제품등을 수출하고 식료품 연료, 기계류, 공업원료 등을 수입한다.

구라파《공동시장》나라들과의 무역은 수출의 약 40%, 수입의 약 50%를 차지한다.

오지리에서 국제수지적자가 늘어나고있다. 1973년에 오지리의 대외무역에서는 350억 쉴링에 달하는 기록적인 적자를 냈다. 이것은 197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늘어난것으로서 대부분이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과의 무역에서 생긴것이다.

오지리에서는 1973년 6월에 물건값이 전해 6월에 비하여 7.2%나 더 비싸졌다. 또한 1973년 상반년동안에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집세는 13.6%, 식료품값은 8.4%나 뛰여올랐다.

1974년 1월 현재 실업자수는 1973년 같은 기간보다 14%나 더 많은 7만 1천 234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에이 **신문** 폴크스 슈팀메 (공산당기관지), 외그 윤트질 (공산당월간잡지), 윈 짜이퉁 (정부기관지), 디 프레쎄, 포르 베르츠, 아이바르테르 짜이퉁 (사회당기관지), 폴크스 블라트 (인민당기관지), 데에프페—텔레그람 (민주진보당기관지), 노이에 프론트(자유당기관지), **방송**—오지리방송, 오지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1월 23일 오지리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오지리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73년에 오지리공산당 기관지 《폴크스 슈팀메》 7월 4일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6월 23일 연설 요지를 실었다.

1973년 5월 10일 윈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촉진협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 6월 19일—7월 3일까지 이 협회 위원장부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한편 1973년 5월 17~24일까지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오지리를 방문하여 오지리공산당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6월에 우리 나라 의회그루빠대표단이 오지리를 방문하였다.

희 랍

(희랍공화국)

넓이 13만 1,944km²
인구 896만명(1971년)
희랍사람이 절대다수이며 토이기사람, 유태사람 등도 있다.
국어는 희랍말
수도 아테네(주민 86만 2,000명)

정 치

대통령 파에돈 기지키스(1973년 11월—)

1973년 7월 국민투표에 의해 군주제가 페지되고 《대통령제 의회공화국》으로 넘어갔다.

정부 총리 아다만티오스 안드루뚤로스, 외교부장 스피리돈 테테네스, 국방부장 에프라티오스 라추디스

정당, 사회단체; 1967년 4월 군사정변후 모든 정당, 청년단체들의 활동이 금지되였다. **공산당** 1918년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아포스톨로스 그로조스 **통일민주좌익당**, **중앙동맹**, **민족급진동맹**, **진보당** 등이 있다.

사회단체로서는 우익적인 **희랍로동총련맹**의 활동만이 인정되고있다.

희랍은 1830년에 왕국으로 독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공산당을 포함한 민족전선의 련합정부가 수립되였으나 그후 영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으로 민족전선력량은 정부에서 배제되였으며 1946년 3월에는 립헌군주제가 복구되고 희랍에는 파쑈통치가 지배하게 되였다.

희랍반동들은 1950년에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으며 1952년에 나토에 들어갔다. 1953년에는 미제와 《군사기지협정》을 맺고 미제의 군사기지설치를 허용하였다.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1967년 4월 20일 군사정변이 일어나 파쑈독재정부가 수립되였다. 반동군사정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진보적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미제는 희랍반동들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1972회계년도에 1억 1천 700만딸라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주었다.

1973년에 희랍에서는 반동지배층의 정권쟁탈전이 지속되여 오랜 군주제가 끝장나고 공화제가 수립되였으며 새로운 파쑈군사정권이 세워졌다.

이해 6월 1일 희랍반동정부 파파도풀로스총리놈은 년초부터 일어난 학생들의 반정부투쟁과 5월에 일어난 왕당파를 지지하는 희랍구축함 《벨로스》호 해군들의 반란을 계기로 1967년 군사정변후 로마에 망명중인 희랍국왕 콘스탄티노스 2세의 페위와 공화제 이행을 발표하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포하였다. 6월 8일 희랍의 새반동정부는 이 나라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형태를 발표하고 대통령은 재선될 권리가 없이 7년 임기로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거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체제의 명칭을 《대통령제 의회공화국》이라고로 하였다.

이해 7월말에 희랍은 공화국이행에 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였으며 8월 19일 희랍총리 게오르게 파파도풀로스는 새공화국의 첫대통령으로 되였다.

10월 1일 희랍내각은 1967년이래 첫 《문관내각성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총사직하였으며 10월 8일 진보당 당수 마르케지니스를 총리로하는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내각은 얼마가지 못하였다.

11월부터 희랍반동정권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이때중부 희랍 라리씨에의 1군 사령관이던 파이돈 기지키스를 우두머리로하는 희랍의 반동적군부세력은 학생들의 반정부투쟁을 계기로 《나라의 엄중한 위협》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10월 25일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파에돈 기지키스는 자기를 새대통령으로 선포하고 반동적인 군사정권을 꾸며내였다.

1973년에 희랍반동들은 국내 진보적 세력들과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1월 29일 아테네재판소는 희랍공산당비서 드라코풀로스에게 12년 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으며 이어 여러명의 공산당원들에게 징역형을 내리였다. 2월 14일 희랍군사정권은 동맹휴학하는 학생들은 군대에 징집한다는 새헌법을 꾸며내였으며 3월 20일에는 400명의 경관과 소방대원들을 동원하여 아테네 대학 법학부를 습격하였다. 11월에 희랍반동들은 또다시 수명의 공산주의자들과 866명의 학생들을 체포하였다.

이해 희랍반동정부는 대외적으로 친미적정책을 강화하였다. 1월 8일 희랍반동들은 미제침략군과 미제7함대의 항공모함 1척과 구축함 6척이 아떼네부근의 엘레브시스만의 정박시설을 리용케하는 5년 기한의 《기술협정》에 조인하였다. 희랍반동정권은 또한 나토앞에서 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비를 100만드라훔(약 3억딸라)으로 늘이였으며 6월에는 희랍북부에서 나토의 《기동력》을 시험하는 《알렉산드르 엑스쁘레스》훈련까지 감행케하였다.

희랍지배층의 반동적, 파쑈적 정책들은 국내 진보적세력들과 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그들의 반정부기운과 투쟁을 폭발시켰다.

1973년 1월에 아테네의 1천 500명의 대학생들은 학생들에 대한 군대징집을 반대하며 희랍에 대한 미제의 군사기지화 책동에 항의하는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5월 23일 희랍공산당은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힘을 단합할것을 국내민주력량에 호소하고 행동강령을 내놓았다. 희랍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은 특히 11월 16, 17, 18일 걸쳐 세차게 진행되였다.

그들은 희랍의 반동군경들과 맞서 격렬히 투쟁하였으며 경찰 33명을 까눕혔다. 11월 18일 희랍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아테네대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해나섰다.

이해 5월에는 나토해군연습에 참가하고있던 구축함《벨로스》호 함장 이하 병사들이 희랍군사정권을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이딸리아의 로마에 가까운 피우미치노 항구밖으로 배를 이끌고 갔으며 함장과 장교 6명, 해병 24명이 이딸리아에 망명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희랍의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과 농업이 각각 28%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항행, 운수, 상업 및 봉사부문이 차지한다.

공업에서는 채취, 식료, 방직, 목재가공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고무, 합성수지, 운수, 전기, 야금공업부문들이 새로 생겨났다. 년평균 석탄은 약 500만톤, 보크사이트는 200만톤, 쇠돌은 40여만톤, 강철은 80여만톤, 솜실은 4만톤, 세멘트는 500여만톤정도 생산하고있다.

희랍에서는 200개의 대독점체 《가정》이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거머쥐고있으며 주권의 4분의 3은 9개의 《가정》에 집중되여있다.

희랍반동지배층은 외국자본의 대대적인 침투를 허용하고있다. 1945년이래 희랍은 미제로부터만도 도합 32억딸라이상을 끌어들이였다.

이리하여 현재 희랍에서 외국자본은 국내독점체들의 자본을 통가하고있다.

희랍의 부침땅은 국토의 25%에 지나지않는다. 이 부침땅의 대부분은 인구의 4%밖에 안되는 지주, 승려, 은행가, 왕족들이 차지하고있다.

희랍은 전통적으로 알곡생산보다 담배, 사탕무우, 귤류, 올리브, 포도, 목화 등 과일과 공예작물생산을 위주로하고있다. 알곡으로 보리, 귀밀, 강냉이, 감자, 벼를 심으나 생산량은 극히 적다.

집짐승으로는 양, 소, 염소 등을 기르고있으며 그 생산성 역시 낮은 수준에 있다.

희랍은 해상운수가 발전한 나라로서 해외화물수송에서 많은 수입을 얻어내고있다.

올리브기름, 포도주, 담배 등 농산물과 광물류 등을 수출하고 여러가지 공업제품과 연료, 식량을 수입한다. 주요 무역대상국은 서독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테네통신

출판물 자유희랍(희랍공산당리론잡지), 아끌로폴리스, 엘레프로로스 코즈보스, 네아폴리티아,

방송 아테네방송, 피르고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월 18일 희랍선박《나브마쵸스》호의 선원들이 《김일성주석로작및혁명활동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2년에 희랍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집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희랍어)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희랍선박《네오리스》호 선원들은 그이께 축전을 보내여왔으며 《마그놀리아》호, 《아리스따 이오스》호, 《까삐딴게론따스》호, 《에갈리》호 선원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을 비롯한 여러가지 계기들을 통하여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모임들을 가지였다.

1973년 5월 24일 희랍선박《파나기오티스》호 선원들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에서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는 모임을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지지하는 편지를 보내여왔다. 1973년 5월 27일 희랍선박《루씨》호의 항해사들과 선원들은 자기 선박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였다.

스 위 스

(스위스련방)

넓이 4만 1,288km²
인구 625만 7,000명
주민의 절반이상이 독일사람이며 그밖에 프랑스사람, 이딸리아사람이 있다.
공용어 독일말, 프랑스말, 이딸리아말.
수도 베론(주민 16만 8,000명)

정 치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1년이다.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련방회의(정부)를 구성하고있는 7명의 각료들중에서 륜번제로 선출된다.

대통령 에르네스트 기르기 (1974년 1월—)

국회 최고립법기관으로서 국민의회(하원)와 전주의회 (상원)로 구성되여있다. 국민의회는 200명으로 구성되며 전주의회는 매개주에서 2명씩 선출되여 44명으로 구성된다. 1971년 10월 30일 선거결과 련립여당들인 급진민주및 자유당, 사회당, 기독교보수사회당, 농민당이 200석중 160석을 차지하였다.

련방회의 (정부)국회량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 7명의 성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정당, 사회단체 ; 로동당 1921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좌익사회주의 그루빠가 합동하여 1944년 10월에 조직, 지도부에는 3명으로 구성된 비서국이 있으며 그들의 권한은 서로 같은 위치에 있다. 전국비서 야꼬브 레흐라이떼르 **사회민주당**(사회당)1888년에 무어졌으며 로조에 지반을 두고있다. 급진민주및자유당 1848년에 무어졌으며 대금융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한다. **기독교보수사회당** 1912년에 창건. 대부르죠아지및 중간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며 로마법왕청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다. **농민당** 1919년에 조직, 농민, 수공업자, 도시소시민들의 리익대변, **《독립》당** 1935년에 무어진 우익정당, **자유민주당** 1913년에 조직

로조련맹 (사회민주당의 영향밑에 있다), **기독교로조, 자치로조, 자유청년.**

1815년 윈회의에서 스위스의 국경이 확정되고 《영구중립국가》로 선포되였다. 1874년에 련방헌법을 채택하고 22개 주로된 련방을 형성하였다.

스위스는 제1, 제2차 세계대전시기 중립을 취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의 《마샬안》을 접수하였고 《구라파자유무역지대》, 《구라파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배타적인 경제쁠럭들에 들어갔으며 1956년에는 미제와 《원자협정》을 맺었다.

1957년 12월 국회는 군사비를 늘일데 대한 정부의 제의를 채택하였으며 그 이듬해 7월 11일에 스위스군을 핵무기로 무장할것을 결정하였다. 1960년 10월과 1963년 5월에 상비군을 확장하며 핵무장을 갖출데 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스위스는 《중립국》이라고 하여 유엔에도 가입하지 않고있으며 조선정전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으로 활동하고있다.

1973년 12월 25일 스위스련방회의(내각)는 7명의 내각성원중 3명의 각료를 새로 바꾸고 평의회 표결에서 경제부장 에르네스트 기르기를 1974년의 대통령으로 선거하였다.

1973년 1월 스위스의 프리부르, 이베르돈, 무티에시들에서 농민들이 독점자본가놈들의 착취와 전횡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시위투쟁을 벌렸다.

1월에 제네바에서는 수천명의 각계층근로자들이 반미시위를 벌렸다. 20개정당사회단체들의 호소에 따라 시위투쟁에 떨쳐나선 로동자, 사무원, 인테리 등 광범한 근로자들은 윁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스위스는 주민의 46%가 공업에 종사하는 비교적 발전된 자본주의공업국가이다.

지하자원은 매우 적으며 최근년간 우라니움광이 채굴되고있을뿐이다.

공업의 기본부문은 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으나 중소규모기업소들이 우세를 차지하고있다. 50명미만의 로동자들을 가진 기업소가 전체기업소수의 5분의4에 달하고있다. 1천여명 이상을 가진 공장은 15개정도이다.

공업은 주로 원료를 적게 들이고 숙련된 로동을 요구하는 부문을 발전시키면서 값비싼 제품생산을 전문화하고있다. 시계, 각종 계기류, 실험기구, 치차등의 정밀기계공업을 위주로하면서 방직기계, 전동기, 발전기, 타빈, 전기기관차도 생산하고있다. 시계생산은 300년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이밖에 의약품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물감, 합성수지, 인조섬유, 광물질비료를 생산하는 화학공업과 수출을 목적으로하여 고급면직물, 견직물을 생산하는 방직공업 등이 있다.

스위스에는 외래독점자본이 깊이 침투되여있다. 1973년말현재 580여개의 미국회사들이 둥지를 틀고있으면서 공업생산의 15%를 통제하고 있으며 5만 4천명의 스위스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착취하고있다. 미국독점자본가놈들은 또한 스위스무역의 30%와 여러 은행들을 통제하고있다.

외래독점자본의 침투로 하여 스위스의 오랜 회사의 하나인 《쎄쇼》는 1973년 3월부터 문을 닫았다.

농업은 부침땅이 매우 적은 관계로 경제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민의 12%가 농사를 하고 있을뿐이다.

농업에서 기본은 목축업이며 그것은 농업생산에서 70%를 차지하고있다. 소(젖소가 대부분), 돼지, 양, 염소, 말을 많이 기른다.

국가수입에서 관광업이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담당하며 년 관광수입액은 18억 6천만 스위스프랑에 달한다.

스위스는 시계(수출총액의 16%)를 비롯하여 각종 정밀기계, 화학제품, 견직물 및 면직물 등을 수출하고 식료품과 공업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서독, 미국, 프랑스, 이딸리아이다. 대외무역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1971년에 60억스위스프랑, 1972년에 62억스위스프랑에 이르렀다.

최근 3년동안 스위스에서 치료비는 58—81%나 비싸졌다.

스위스에서 마약암거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1972년 마약암거래를 하다가 발각된 수는 3천 882명에 달하고 있다.

출판보도; 통신—에미지(스위스통신) **신문**—포르베르츠(로동당기관지), 보이스 우브리에르(로동당기관지), 리베라 스탐파 (사회민주당기관지), 아펜젤레르 짜이퉁 (급진민주당계), 가제떠 드로잔느 (자유민주당계)

방송 스위스방송 제네바방송(프랑스어), 로잔느방송 (프랑스어) 쮸리히방송(독일어)스위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7월 14일 우리 나라와 정부급무역대표부를 교환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최근년간 스위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비롯한 여러 고전적 로작들이 출판되였다.

1970년 8월 11일—20일까지 스위스로동당대표단, 1971년 6월 스위스자유청년대표, 1973년 3월 중국주재 스위스대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3월에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이 스위스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다.

1973년 5월 24일~25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스위스를 방문하였다.

1973년 10월부터 스위스에서 제네바유엔사무국 주재 우리 나라 상임옵써버대표부 겸 국제기구주재상설대표부대표가 활동하고있다.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공국)

넓이 157km²
인구 2만 1,230명
주민은 게르만족
공용어는 독일말
수도 바두쯔 (주민 4,000명)

정 치

국회 일원제, 의원수는 15명, 임기는 4년, 1970년 선거결과 조국동맹이 8석, 시민진보당이 7석을 차지하고있다.

국왕 국가수반이며 모든 실권을 가지고있다. 국왕 프란쯔 요제프 2세 (1938년—)

정부 총리(임기 6년)와 2명의 보조관 (부장 임기 2년)이 있으나 정치적실권은 없다. 총리 알 프레드 힐베

정당, 사회단체; **조국동맹**(집권당), **시민진보당**, **기독교사회당**, **리히텐슈타인로동자동맹**

리히텐슈타인은 1719년에 공국으로 되였으며 1806년 《신성로마제국》에 속해있다가 1866년에 독립하였고 1867년에는 《영구중립》을 선포하였다.

제1차세계대전후 실제상 스위스의 보호밑에 있었으며 제1차, 제2차세계대전당시에는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가 해방되였다.

1921년부터 립헌군주제를 실시하고있으며 이 나라의 군사, 외교, 재정은 스위스가 틀어쥐고있다.

1970년 2월 국회선거에서 42년간 집권하여온 시민진보당이 패배하고 조국동맹이 승리하였다.

이 나라에는 군대가 없고 오지리와의 국경에서 세관일을 맡아보는 26명의 경찰이 있을뿐이다.

경제, 사회문화

인구의 60%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한다.

농산물은 강냉이, 밀, 포도, 과일 등이다. 주식물인 밀은 수입한다. 목축업에서는 주로 소를 기른다.

공업으로는 주요수입원천의 하나인 석탄채굴 이외에 금속가공, 방직, 축산물가공, 소형정밀기계공업(현미경, 쌍안경, 시계, 계산기 등)이 있다.

나라의 주요재정수입원천은 우표판매 (국고수입의 3분의 1을 차지)와 관광업(년 6만 5천500명)이다.

전통적으로 의치(이발)를 만드는 나라로 알려져있다.

이 나라에는 국민학교 14개, 중학교 5개가 있을뿐이다.

이 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에게는 국적을 10만프랑으로 팔고있다. 현재 약 4천개의 각종 외국회사들이 수도에 본부와 지점을 두고있다.

사회적으로 녀성들에게는 정치에 참가할 권한이 없고 년령적인 계층제가 실시된다.

국교는 천주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리히텐슈타인통신. **신문** 리히텐슈타이네르 파테르란트(조국동맹기관지), 리히텐슈타이네르 폴크스 블란트(시민진보당기관지), 데르 리히텐슈타이네르(기독교사회당주간지)

이딸리아

(이딸리아공화국)

넓이 30만 1,250km²
인구 5,450만명(1972년)
주민의 대부분이 이딸리아사람이고 독일사람, 프랑스사람 등 소수민족들이 산다.
공용어는이딸리아말
수도 로마(주민 340만명, 교외인구포함)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315석 (이전 대통령과 종신의원 7명을 포함하면 322명) 하원은 630석, 상, 하원 임기는 각각 5년

1972년 5월 7일과 8일에 있은 총선거결과 하원의석은 기독교민주당 267석, 공산당 179석, 사회당 61석, 사회민주당 29석, 공화당 14석, 자유당 21석, 신파쑈적인 《이딸리아사회운동》이 56석을 차지하였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상하 량원 합동회의에서 3분의2다수 가결로 선출된다. 3차례의 투표로써 결정할수 없을 때에는 과반수로 선출한다. 임기는 7년이다.

대통령 조반네레오네(기독교민주당출신)

정부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각료들은 총리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1974년 3월 14일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사회민주당의 3개정당 종간좌파 련립내각이 구성되였다. 총리 마리아노 루모르(기독교민주당출신), 외교부장 알도 모로, 국방부장 쥴리오 안드레오띠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21일 창건, 1972년 3월 제13차대회진행, 위원장 루이지 롱고, 총비서 엔리꼬 베르링게르, **기독교민주당**1943년에 교회, 독점자본가와 대지주의리익을 대표하여 무어진 이래 계속 집권당이다. **사회당** 1892년에 창건되여 1943년에 재조직, 지식계층에 지반을 둔 개량주의정당, **사회민주당** 1969년에 사회당내 우익분자들로 조직, **공화당** 1832년에 무어진 군주제를 반대하는 보수정당, **《이딸리아사회운동》**1947년에 파시스트잔당들로 무어진 신파시스트정당, **군주통일민주당** 왕당파잔당세력들로 조직된 극우익파쑈정당.

로조련맹 세계직련에 가입, 공산당의 영향밑에 있다.)**로동련맹**(사회민주당, 사회당, 공화당의 영향밑에 있다, **카톨릭행동** 천주교단체로서 로마바띠까노와 기독교민주당의 영향밑에 있다 **근로자기독교련맹** 반로조적인 성격을 띤 단체이다, **공산주의청년련맹**, **사회주의청년련맹**, **녀성련맹**.

1943년 7월 제2차세계대전에 가담하였던 파쑈 이딸리아가 멸망하고 1946년 6월 2일 이딸리아공화국이 수립되였다.

전후 이딸리아에서는 공산당과 사회당 그리고 기독교민주당의 련립정부가 무어졌으나 1947년 5월 우익반동세력들에 의하여 기독교민주당독재정부가 수립되였다.

미제의 비호밑에 정권을 장악한 이딸리아반동정부는 1949년에 나토에 가담함으로써 이딸리아를 미제의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그 밖에 《서구동맹》, 《공동시장》등 각종 제국주의기구 등에 가담하였다.

이딸리아에서는 전후 반동적인 정치세력호상간의 알륵과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으로 30여차례나 정권이 바뀌였으

나 이 정권들은 모두 반인민적인 친미정책을 실시해왔다. 1972년 5월 총선거후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공화당의 우익적인 련립정부가 섰으나 이 정부는 1973년 6월 총사직하고 7월에 루모르를 총리로 2차대전후 35번째의 새내각인 《중간파》련립정부가 세워졌다. 새내각은 기독교민주당 17명, 사회당 6명, 사회민주당 4명, 공화당 2명의 4당련합으로 구성되였다.

그러나 기독교민주당을 포함한 우익집권당내에서의 의견불일치와 권력쟁탈전, 날로 심화되는 경제적위기로 하여 1974년 3월 2일 루모르내각은 또다시 총사직하고 3월 14일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사회민주당의 3개정당 중간좌파 련립내각이 구성되였다.

1973년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당들의 반정부적공동진출과 통일행동은 더욱 강화되였다.

7월 이딸리아공산당 전원회의 련합확대회의에서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고 나라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전반적인 민주주의적발전의 길로 전진하기 위한 공산당원들의 투쟁과업을 토의하였다. 또한 이딸리아 사회주의청년련맹은 대회를 소집하고 《청년들은 파시즘, 우경화 및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개혁 사회주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투쟁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좌익력량의 장성과 함께 이딸리아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보다 넓히는데로 나아갔다.

이딸리아는 1월에 민주독일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으며 4월에는 두나라사이의 경제, 공업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0년)을 체결하였다. 1월에 이딸리아외교부장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과 민용항공운수협정을 맺었다.

1973년에 이딸리아정부는 친미정책을 계속하였다. 4월에 이딸리아총리는 미국에 찾아가 닉슨놈과 나토의 강화문제, 두 나라 사이의 통상문제, 통화문제 등을 가지고 쑥덕공론하였다. 6월 이딸리아는 미제와 함께 희랍북부에서 감행된 침략적인 나토군사연습에 가담하였다.

1973년에 이딸리아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정부의 반동적정책을 반대하며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1폐지)

1월 18일 로마에서는 10명의 각계층 인민들이 신파쑈분자들의 정당인 《이딸리아사회운동》이 민주력량을 반대하기 위한 도발적인 《대회》를 벌려놓은데 항의하여 《그 어떤 파시즘도 타도하라!》, 《신파쑈분자들의 집회를 해산시키라!》는 구호밑에 시위를 벌렸다. 1월 26일에는 공업, 농업, 상업 및 수공업부문에 고용된 5만명의 근로자들이 대규모의 반정부시위를 단행하였다.

5월말 이딸리아에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상업부문근로자들의 전국적인 총파업, 32만명의 공무원들의 전국적인파업,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112만명의 근로자들의 전국적인 파업이 단행되였다.

12월 18일에는 롬바르디아주에서 300만명의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또한 이해 4월 27일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는 농업로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으며 2월 21일에는 정부의 반인민적정책과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로마, 뚜린, 나뽈리 등에서 2만 5천명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경제, 사회문화

이딸리아의 경제는 자본주의경리와 함께 심한 봉건적잔재가 결합된 경제이다. 나라의 북부에 대규모공업의 대부분이 배치되여 있다면 남부와 섬들에는 뒤떨어진 소농경리가 기본을 이루고있다.

제노아, 뚜린, 밀라노를 련결하는 북부삼각지대가 이 나라 공업의 심장부를 이루고있다. 여기에 모든 공업부문기업소와 로동자수의 80%이상이 집중되여있다.

이딸리아경제는 정부의 군사화정책에 의하여 심한 기형성을 띠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이 석유공업의 전부와 금속, 기계, 화학 및 전력 공업의 대부분을 장악하고있으며 이 나라 독점자본가들은 군사화와 관련된 공업부문을 지배하고있다.

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기계제작공업, 흑색금속공업, 화학공업, 방직공업 등이다.

흑색금속공업은 쇠돌과 석탄자원이 적기때문에 발전하지못하고있으며 기계제작공업은 수입원료에 많이 의존하고있다. 그러나 무기 및 군수생산과 관련하여 공업총생산액에서 기계제작공업은 4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방직공업에서 견직물생산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딸리아 공업은 날로 위기와 침체에 빠지고있다.

1971년 첫 9개월동안에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기계제작공업과 방직공업생산은 6.4%, 금속공업생산은 6.1% 각각 줄어들었다.

농업은 유리한 자연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보다 훨씬 뒤떨어져있다.

농촌경리는 락후한 기술에 얽매여있으며 쇠퇴의 길을 걷고있다. 1.1%밖에 안되는 대토지소유자들이 1천만헥타의 부침땅을 가지고있는 반면에 수백만에 달하는 농민들은 토지가 전혀 없거나 몇뙈기의 땅을 가지고 소작살이를 하고있다.

농업에서는 밭농사가 기본이며 알곡작물과 함께 포도, 올리브, 귤을 비롯한 아열대과일을 많이 재배하며 남새농사가 큰 의의를 가진다. 포도주와 올리브기름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알곡작물로는 밀, 보리, 호밀, 벼 등이 있으며 감자, 사탕무우, 목화를 가꾸고있다.

축산업은 농업생산총액의 3분의 1도 안된다.

농업부문에서는 누에치기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약 60만명의 농민들이 농사와 함께 누에치기를 부업으로 하고있다.

대외무역은 구라파 《공동시장》나라들인 서독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나라들과 한다.

이딸리아에서 대외무역총액은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1973년에 대외무역에서는 1만 8천 680억리라에 달하는 적자가 났다.

주로 공업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즉 목화의 약 90%, 털의 75% 인견펄프의 100%, 동의 90%, 쇠돌의 대부분, 섬유의 90% 이상, 석탄의 95%와 철강재류를 수입한다.

이딸리아는 여러가지 설비, 방직기, 명주생산의 5분의 4, 자동차생산의 3분의 1, 대마의 약 40%, 귤과 쌀의 30%, 담배의 15%, 포도주, 올리브기름 등을 수출한다.

1973년 10월의 이딸리아 금보유량은 1972년 10월에 비하여 5천 245억리라나 줄어들었으며 이해 한해동안 리라의 가치는 13~15%떨어졌다. 이해 10월현재 통화팽창률은 11% 높아졌다.

1971년 11월 전해 같은 달에 비하여 생계비지수는 11.4%, 소매값은 10.7%올랐다. 농산물 값은 1.5%, 공공사용료는 9.2% 올랐다.

1973년에 실업자수는 51만 3천여명에 달하였다.

1973년 새학년초부터 학생들의 교과서값이 10% 올랐으며 로마의 초등학

교들에서만도 2천 333개의 교실이 부족하였다.

8월 이딸리아의 나폴리에서 코레라가 만연하여 10여명이 죽었다.

사회의 부패상은 더욱 심해져 1972년 7월 1일부터 1973년 6월 30일까지 범죄건수는 125만 4천건으로부터 143만 5천건으로 늘어났다.

이해 로마에서만도 108건의 살인사건, 약 500건의 무장강도사건, 1만 6천건의 강탈사건이 일어났다.

출판보도 ; 통신 안사통신, 아기트통신, 아스트라통신

신문 우니따(공산당기관지), 아반띠(사회당계), 코리에레 델라 쎄라(무소속), 메싸제로 일쥬르노, 뽀뽈로(기독교민주당기관지), 보쎄레푸블리카나(공화당기관지), 라 스탄파(중립계), 뗌뽀(우익계)

방송 이딸리아방송회사가 라지오방송과 텔레비죤방송을 독점하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월 18일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최근년간 이딸리아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들인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하신 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등 많은 로작들과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 전기 《김일성전》 제1, 2, 3부(이딸리아어판)를 깔렌다리오 델 뽀뽈로 출판사가 각각 출판하였다. 이 출판사는 또한 10개의 제목을 묶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도 발행하였다.

1973년 10월 26—11월 6일까지 이딸리아공산당정치국 위원이며 지도부성원이며 국회의원인 에마누엘레 마깔루스를 단장으로하는 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1월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딸리아공산당 대표단을 만나시였다.

2월 중국주재 이딸리아대사관 무역참사가, 6월에는 이딸리아무역대표단이, 9월에는 이딸리아공청대표단과 또스까나주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3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이딸리아를 방문하였다. 1973년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무용단이 이딸리아를 방문하여 이 나라의 수도 로마와 제노아, 라스페찌아, 베니스, 또리노, 볼로냐, 플로렌스 등지를 순회공연하였다.

1973년에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이 이딸리아로동총련맹 제8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무역대표단, 당선전및출판일군대표단이 각각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바띠까노

바띠까노는 이딸리아의 수도 로마시의 서북쪽 언덕에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있다.

넓이 0.44km²

인구 1,000명

주민은 이딸리아사람이 85%, 에스빠냐사람이 15%, 기타 3%로 구성되였다.

정 치

법왕 파울로 6세 (이딸리아사람으로서 본명은 지오반니 바띠스따 몬띠니. 1963년에 선출), 립법, 사법, 행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있다. 임기는 종신제이다. 법왕이 죽으면 16~19일만에 추기경들로 구성되는 비밀선거회에서 새 법왕이 선거된다.

법왕을 보좌하는것은 126명의 추기경들이다.

법왕아래에 법왕청이 있고 이 기관의 국무장관(총리겸외교부장과 같은 직제)이 법왕의 직무를 보좌하고있다.

국무장관은 바띠까노에서 법왕 다음가는 실권자이다.

바띠까노는 세계에서 제일 악명높은 천주교의 본거지이다. 바띠까노는 1929년 2월 11일 이딸리아정부와 법왕청 사이에 맺은 이른바 《라떼라노》조약에 따라 무쏠리니란놈이 만들어 낸것이다.

바띠까노는 자체의 군대와 대학, 화폐를 가지고 있다. 바띠까노는 세계 각지에 교회들을 두고 30만명이상의 목사와 100만명이 넘는 수도승을 가지고있다.

바띠까노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나라 독점체들과 긴밀히 련결되여있다.

바띠까노의 세력밑에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려있는 승려당들이 있으며 이 당들은 독점자본의 의사를 집행하면서 그 나라 정치생활에 악영향을 크게 미치고있다. 또한 기독교로조를 비롯한 여러 반동적조직들과 출판물, 방송, 통신 등을 통하여 반동적천주교를 전파하고있다. 특히 신문 《오쎄르바또레 로마노》(법왕청기관지)는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인 신문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바띠까노는 위선자들의 소굴이며 도덕적타락과 음탕, 사기와 살인, 암흑과 무법이 지배하는 곳이다.

바띠까노는 미제의 침략정책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세계 90개나라들에《성사》(대사),《대리성사》(공사)들을 보내여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파괴, 암해, 정탐 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바띠까노는 1950년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원수로 되였다.

바띠까노에는 공업도, 농업도 없으며 로동자, 농민도 없다.

싼 마리노

(싼마리노공화국)

넓이 6,057km²

인구 2만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은 이딸리아사람이다.

공용어 이딸리아말

수도 싼 마리노(주민 4,500명)

정 치

국회(대평의회) 5년 임기로 된 6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였다. 1969년 선거결과 공산당 14석, 기독교민주당, 27석, 사회민주당 11석, 사회당이 7석을 차지

정부 대평의회가 임명하는 국무부장2명 (임기 6개월)과 행정회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 총리직은 없고 외무담당국무부장(지안까를로 기론지)이 실권자이다.

정당, 사회단체 ; 공산당 1921년에 창건, 위원장 에르메네질도 가스뻬로니, 총비서 움베르또 바룰리, **사회당** 좌익적인 당, 그밖에 보수적인 집권당들인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있다. **공산주청년동맹, 민주로동총련맹, 로동총련맹**

301년에 성립된 세계에서 제일 작은 공화국이다.

중세기에 싼 마리노는 로마법왕청의 《보호》밑에 있다가 1631년에 독립하였으며 1862년에는 이딸리아의 《보호령》으로,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파쑈이딸리아에 강점되였다가 1943년에 독립

하였다.

1945년부터 공산당과 좌익사회당 련립정부가 집권하였으나 1957년에 이 나라 반동집단에 의하여 전복되고 우익정당인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보수적인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이 정부는 집권후 여러차례의 협잡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반인민적정책을 실시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는 축산업이 기본이며 소, 양을 많이 기른다. 농산물로서 포도, 올리브, 밀, 강냉이 등을 심는다.

공장은 큰것이 없고 모직, 가구, 도자기, 석재, 포도주, 가죽, 종이, 기념선물 등을 만드는 작은 공장들이 약간 있을뿐이다.

이 나라의 주요수입원천은 우표발행(년간 수입의 3분의 1, 4억리라)과 관광업수입이다.

해마다 20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기때문에 주민들은 이들을 위한 봉사부문에서 많이 일하고있다.

자체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이딸리아의 리라를 쓰면서 이딸리아로부터 해마다 6억리라의 《원조금》을 받고있다.

수출품은 모직제품, 포도주, 가구, 도자기, 석재, 우표 등이다. 대외무역은 이딸리아의 항구인 리미니항구를 통하여 진행된다.

주민들은 천주교를 믿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에 싼 마리노공산주의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970년 4월 18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싼 마리노를 방문하였다.

말 따

(말따국가)

넓이 316km²

인구 33만명(1971년)

주민의 95%는 말따사람이고 그밖에 영국사람, 이딸리아사람이 산다.

공용어는 말따말과 영국말

수도 왈레따(주민 1만 8,350명)

정 치

국회 최고립법기관이다. 의원수 55명, 임기는 5년, 1971년 6월 12일 선거결과 레이버당 28석, 국민당이 27석 차지

총독 영국녀왕이 국가수반이며 총독이 그를 대신한다. 1971년 레이버당정부가 수립된 이후 말따사람이 처음으로 총독으로 되였다. 총독 안또니오 죠세프 마모(1971년 8월)

정부 1971년 6월에 레이버당정부 구성, 총리 도미니크 민토프(1971년 6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70년에 창건, **레이버당**(집권당) 1920년에 창건, 로동자, 소부르죠아지, 지식인들로 구성, 당수 도미니크 민토프, **국민당** 1924년 창건, 자본가와 천주교상층부의 리익을 대변하며 영국과의 밀접한 련계를 주장, **반제전선**(좌익조직), **로조련맹** 1958년 창립, **청년련맹**(레이버당소속)

1964년 9월 21일 말따는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미제는 1953년에 영제국주의자들과 공모결탁하여 《나토지중해사령부》를 이 나라에 설치하였으며 1967년 6월 중동전쟁후 미제는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뒤받침하는 미제6함대의 주요기지로 말따를 리용하여왔다.

1971년 6월 12일에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레이버당이 승리함으로써 국민당반동정부는 허물어지고 진보적인 레이버당정부가 수립되였다.

레이버당정부는 《쁠럭불가담》, 《중립정책》을 지향하면서 반제자주적인 길로 나아가고있다.

1971년 2월 24일 말따정부는 자기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해오던 《나토지중해사령부》를 내쫓았으며 또한 영식민주의의 상징인 총독을 말따사람으로 교체하고 영국총독놈을 내쫓았다.

1971년 6월 말따정부는 영제국주의자들이 1964년 7월에 말따국민당정부에 강요하여 맺은 침략적인 《국방, 재정협정》을 재검토할것을 요구하였다. 1972년 3월 26일 말따와 영국간에 말따기지 사용에 관한 새 《방위협정》이 조인되였다. 협정에 따라 영제국주의자들과 나토가 공동으로 말따에 있는 군사기지들의 《사용료》로 해마다 1천 400만파운드를 이 나라에 주기로 되였으며 영침략군이 말따기지에 7년간 더 머물러있게 되였다.

말따정부는 1972년 5월 3일 지중해에 있는 미제침략군 6함대 함선들의 말따기항을 금지시켰으며 6월 24일에는 횡포하게 내정간섭하던 나토의 《남구라파해군사령부》 사령관놈을 내쫓고 11월 26일 이 《사령부》를 완전히 철수시켰다. 또한 11월에 영제국주의자들의 《비비씨방송》지국을 폐쇄하였다.

1973년 1월 말따정부는 왈레따지역에 있는 영제국주의자들의 해군기지의 일부를 자기 통제밑에 넣었다. 또한 이해 기지사용료로 미제와 구라파공동체나라로부터 87만 5천파운드, 영국으로부터 350만파운드를 받아내였다.

1973년에 말따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갔다. 이해 민주독일, 알바니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8월 15일에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말따의 경제는 영국독점자본의 오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심히 뒤떨어져있다.

공업부문에서는 로동인구의 62%가 일하고있으며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의 몫은 약 45%를 차지한다.

공업부문에는 방직, 신발, 합성수지, 전기설비, 선박수리, 고무, 기계, 식료 공장들이 있다. 그중 선박수리 및 조선소를 내놓고는 대부분이 규모가 작다. 선박수리부문에서는 5천여명의 숙련로동자들이 일하고있다.

지하자원은 알려진것이 없다.

아직도 경제의 대부분은 영제국주의자들에게 장악되여있다. 방직, 피복, 고무, 기계, 전기설비의 많은 부분이 영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외국독점자본가들의 예속밑에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로력인구의 7%가 일하고있으며 밀, 보리, 목화, 감자, 옥파, 올리브, 포도, 도마도, 기타 남새를 재배하고있다. 식량의 대부분은 사들인다. 집짐승으로서 소, 말, 노새, 당나귀, 양, 염소, 돼지, 닭, 토끼 등을 기른다.

말따정부는 식민지경제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1년에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영국독점체의 공업기업소인 《아르쎄날》에 대한 관리권을 국가가 장악하였으며 1973년 10월 29일에는 오래동안 막대한 돈벌이를 하여온 영제국주의자들의 《크로스 콘티넨트 쉽》회사를 국유화하고 대신에 국영회사인 《시말따 캄파니 리미티드》를 창설하였다.

말따정부는 1969년부터 경제발전 제3차 5개년계획 (1969—1974년)을 수행하고있다.

계획기간 국민소득을 9.4% 높일것을 예견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 농

존경리발전, 새로운 공업부문의 창설, 관광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부문에 1천 300만말따파운드, 공업부문에 860만말따파운드를 투자할것을 예견하고 있다.

현정부는 군사기지사용료와 관광업에서 얻는 수입을 경제건설의 주요 밑천으로 삼고있다.

봉사료는 국민총생산액의 22%를 차지한다.

이 나라에는 철길이 없으며 바다길과 도로가 운수에서 기본역할을 논다.

주로 천(60%), 신발, 남새, 포도주를 수출하고 여러가지 공업품, 화학제품, 연료, 원료, 기계, 운수설비, 식량, 건재, 강재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수출의 30%, 수입의 40% 차지)과 이딸리아(수출의 10%와 수입의 15%)이다.

출판보도; **신문**—말따뉴스, 일헬시엔(레이버당기관지), 보이스 오브 말따(레이버당 주간지), 일 삐쁠루(국민당기관지), 엘 오리존트(로조련맹기관지)

방송—말따방송, 말따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말따는 1971년 12월 2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우리 나라와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1972년에 이 나라 신문 《말따뉴스》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미국〈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의 상세한 내용을 실었다.

말따는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제출된 결의안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에 대하여》의 공동발기국으로 활동하였다.

1973년 2월 23일—3월 5일 사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12월에 경제대표단이 말따를 방문하였다.

영 국

(대브리텐및북아일랜드련합왕국)

넓이 24만 4,030km^2

인구 5,573만 4,000명

대부분이 앵글로삭손족, 일부 켈트족이 스코틀랜드에 산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런던(주민 761만 2,280명)

정 치

국왕 녀왕 엘리자베스 2세(1952년 2월—) 명목상 국가원수이다. 정치적 실권은 없다.

의회 상하량원제, 1911년의 《의회법》에 의하여 상원의 권한은 현저히 축소되고 립법상 권한의 대부분은 하원이 가지고있다.

상원은 왕이 임명하는 왕족, 귀족, 승려 등으로 구성되며 의원수에는 정원이 없다. 하원은 임기 5년으로 선거되는 6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1973년 2월 28일 총선거결과 레이버당 301석, 보수당 296석, 자유당 14석, 나머지 의석은 기타가 차지하였다.

하원에서 의석을 가장 많이 차지한 정당지도자가 총리로 되고 부장들은 이 당 당원인 국회의원들중에서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임명된다.

정부 현정부는 1974년 3월에 수립되였다. 총리 해롤드 윌손, 외교부장 제임스 캘라한, 국방부장 로야 메이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7월에 창건, 1973년 11월 10일 제33차대회 진행, 총비서 죤 골랜, **보수당**, 독점자본가와 대지주들의 정당으로서 1832년에 조직, **레이버당**(집권당) 1900년에 로동조합, 협동조합, 인텔리 련합체들로서 조직된 전형적인 개량주의 및 기회주의 정당, **자유당** 19세기중엽에 조직된 중소부르죠아지의 정당, **독립당**, **공화레이버당**, **통합당**(북아일랜드의 좌익정당), **스코틀랜드국민당**, **로동자통일당**, **스피거당**, **로동조합콩그레스**(레이버당소속), **공산주의청년동맹**, **청년행동리사회**

영국은 오랜 제국주의, 식민주의 국가이다.

17세기 부르죠아혁명 이후 영국의 력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야만적인 침략, 식민지나라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무제한한 착취로 일관되여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영제국주의자들은 미제와 함께 나토, 세아토 등 침략적인 군사동맹들과 반동적인 경제기구들을 꾸며내였다. 1954년에는 서독군국주의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빠리협정》을 조작하였다. 이리하여 놈들은 세계 여러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강화하고 이 지역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 말살하며 옛식민지제국의 지위를 유지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전후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쟁취함으로써 《대영제국》은 심히 쇠퇴몰락하고있다.

1970년 6월의 총선거결과 집권한 히스보수당반동정부는 죽어넘어가는 《대영제국》을 그러안고 영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을 연장해보려고 갖은 책동과 발악을 다하였다.

1973년에 히스반동정부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식민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생명선이며 마지막지탱점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스스로 식민지를 내놓지 않으며 독립을 선사하지 않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7페지)

이해 2월 21일 히스반동정부는 1973년도 《국방백서》를 발표하여 《국방예산》을 1972년보다 1천 225만딸라나 더 많은 80억 7천 600만딸라를 책정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이해 침략적인 해상 및 공군 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5월말 6월초 영제국주의자들은 《공동군사연습》이란 구실밑에 유도미싸일장비구축함, 프리게트함 및 순시정들을 동원하여 타이만에서 오스트랄리아, 타이 해군과 함께《해상방위》를 위한 해상연습을 감행하였다.

7월 24일에 나토우두머리놈들과 대사놈들까지 끌어다놓고 스코틀랜드앞바다에서 《쎌리포스》라는 《암호》를 가진 큰 규모의 해군 및 공군 연습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이 연습에 군함 26척, 비행기 60대, 해군 1만명을 동원시켜 원격조종해상 대 해상, 해상 대 공중미싸일들의 발사, 반잠수함전, 기뢰탐지훈련을 벌렸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이해 이슬란드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이 나라가 선포한 50마일 어로수역에 침입하여 대구를 비롯한 물고기를 잡아가는 해적행위를 감행하였으며 5월에는 3척의 프리게트함과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이슬란드경비정들을 들이받는 도발책동을 벌리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군사적으로 협조하면서 이 지역에서 식민주의리권을 계속 유지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이해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카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32개나라 대표들의 참가밑에 제19차 영련방수뇌자회의를 벌려놓고 로데시아인종주의정권에 대한 통상과 자본투자를 넓히고 모잠비끄, 앙골라 및 기네—비싸우를 강점하고있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에 대한 경제 및 군사 원조

를 강화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제놈들의 식민주의적리권을 계속 유지해보려는 검은 속심을 드러내였다.

그러나 이것은 영련방내 많은 성원국들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았다. 이해 영제국주의자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대영제국》은 더욱더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갔다.

놈들은 이해 6월 4일에 그레네이더, 7월 10일에는 300년동안이나 식민지로 통치하여 오던 관광식민지인 바하마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73년에 북아일랜드문제를 더욱 첨예화시켰다. 1972년 히스반동정부가 내놓은 《북아랜드의 장래》에 관한 《보고서》에 따라 놈들은 1973년 3월 8일 북아일랜드에서 《주민선거》라는 것을 벌리고 이 지역을 계속 영국의 예속밑에 남아있도록 하였다.

이 선거를 전후하여 북아일랜드의 정세는 긴장되였으며 영제국주의자들은 무장한 경찰로 인민들을 마구 탄압하였다.

이에 격분한 아일랜드인민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의 《직접통치》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벨파스트와 기타지역에서 무장한 인민들은 영국경찰놈들을 반대하여 총격전을 벌리였다.

이러한 정세밑에서 11월 21일 북아일랜드의 신교도계의 민주통일당, 카톨릭계의 사회민주로동당 및 초당파의 유니온당은 3당 련립정권을 세울데 대해 합의하였다.

이해 영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한 반인민적정책은 국내인민들로부터 거세찬 반항에 부딪쳤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1페지)

1973년에 영국에서는 히스도당의 반인민적경제정책과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생활처지의 개선을 위한 큰 규모의 파업투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2월 27일—28일에 일어난 철도, 가스 부문로동자들의 파업으로 2천개의 렬차가 운행정지되였으며 가스공급이 끊어져 일대 혼란을 일으켰다. 뒤이어 이 파업에 전국공무원로조의 약 25만명의 인원들이 합세함으로써 1926년 파업이후 가장 큰 파업으로 확대되였다. 년간에 파업은 계속되여 이해 11월 18일에는 30만명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다. 11월부터는 26만명의 영국탄부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며 시간외 로동을 거부하여 파업투쟁에 일떠섰다.

탄부들의 파업으로 심한 석탄부족에 부딪친 히스도당은 11월 13일 한달기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연료소비를 제한하였으며 12월에는 이 《비상사태》를 연기하면서까지 탄부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해나섰다. 이에 격분한 탄부들은 1974년 2월 10일부터 다시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에로 넘어갔다.

1973년에 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은 1972년보다 500건이나 더 많은 근 3천건에 이르러 영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해 12월 26일 영국은 경제위기로 하여 아크로티리해군기지부근에 핵잠수함 기항지를 건설할 계획을 포함하여 니코시아에 있는 제놈들의 군사기지들을 강화하려던 일부 계획까지 정지시켰다.

영국총리 히스놈은 1월 30일—2월초에 미국의 닉슨, 3월 1일에 서독의 브란트, 5월에 프랑스의 퐁피듀를 찾아가 국제통화, 통상문제 등을 숙덕공론하였으나 그 어떤 해결도 보지 못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영국은 자본주의공업국가이다.

영국경제는 《50개 가족》에 집중되여 있는 독점자본의 손안에 들어있다.

외국독점자본 특히 미국독점자본은 영국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후 《원조》, 《차관》 등의 명목으로 미국국가독점자본이 영국에 침투한데 뒤이어 미국사자본의 진출(현재 70억딸라)이 강화되였다.

《제네랄 모터스》를 비롯한 미국독점체들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1천여개의 영국회사들을 완전히 통제하고있다.

영국경제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는것은 공업이며 그가운데서도 가공공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가공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90%를 차지하며 공업로동자의 70%가 여기에서 일하고있다. 가공공업에서 중심은 기계, 화학, 강철, 자동차, 선박 공업이다.

영국의 공업은 오늘 심한 불안정상태에서 침체와 답보를 계속하고있다.

지난 몇해동안 만성적인 성격을 띠고 침체와 위기를 거듭해오던 영국의 공업은 특히 1973년에 중근동전쟁을 계기로 전례없이 심화된 동력위기로 하여 30년이래 가장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고있다.

제철공업, 기계제작공업, 자동차공업, 석탄공업 등 기간공업부문이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1973년에 강철생산량은 1972년보다 15%나 줄어들었으며 석탄공업은 여러달동안 계속된 탄부들의 파업투쟁으로 말미암아 마비상태에 빠졌다. 석탄생산의 감퇴는 석유부족과 함께 심각한 동력위기를 빚어내면서 경제전반과 사회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히스도당은 이에 대한 《응급조치》로써 1973년 11월 3일에 한달기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공공기관들에서 연료소비를 10% 줄이는 한편 공장들과 가정들에서의 연료소비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동력위기는 계속 심화되여 1973년 12월중순에는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전력공업이 35% 줄어들고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1973년에 9천 500개의 중소기업체들이 파산되였다.

반면에 최근 5년간 영국에서 1억파운드 또는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진 회사수는 50개로부터 78개로 늘어났다.

영국의 공업생산은 계속 떨어져 자본주의세계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몫은 자동차생산에서만도 1973년에 1956년에 비하여 절반이나 떨어졌다.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영국경제는 국제시장에서 벌어지는 심한 파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동요하고 있다. 1973년에 영국에서는 공업원료의 80% 이상과 식료품의 50%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그런데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물가폭등으로 하여 1973년에 영국이 사들인 이 공업원료와 연료의 원가는 1972년에 비하여 46%나 비싸졌다. 이리하여 1973년에 영국의 대외무역에서는 무려 23억 4천 800만파운드에 달하는 적자가 났다. 이것은 1972년의 무역적자에 비하여 3.5배나 늘어난것으로 된다.

특히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과의 무역에서 11억 2천만파운드의 적자를 냈다. 1973년에 《구라파공동시장》의 8개 성원국들로부터의 영국의 수입액은 거의 50% 늘어났는데 이 나라들에 대한 영국의 수출증가률은 수입증가률보다 13% 떨어졌다.

1973년 1월부터 1974년 1월까지의 기간에 통화팽창률은 12% 높아졌으며 1973년말 현재 영국의 단기대외채무액은 약 41억파운드에 달하였다. 게다가 이미 길머진 빚을 물자고해도 앞으로 10년동안에 110억—130억파운드라는 막대한 돈을 지출해야 할 처지에 있다.

또한 영국으로부터의 외국독점자본가놈들의 리윤반출액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결과 영국의 국제수지적자액은

더욱 늘어나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이 심한 경제적난관을 겪고있는 틈을 타 미제독점회사들은 영국공업생산의 13%를 틀어쥐였으으며 1973년 한해동안에만도 그것을 0.75% 또 늘였다.

미제독점회사들은 영국수출무역의 5분의 1, 신발공업설비, 출납용계산기, 사진설비, 식료기계생산의 80%, 의약품생산과 계산기생산의 60%이상, 자동차, 석유공업설비, 흡진기, 합성직물 생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이 영국에서 짜내는 리윤은 해마다 약 15억파운드에 이르고있다.

1973년 11월 현재 영국의 금 및 외화보유액은 1972년말에 비하여 10억딸라나 줄어들었으며 파운드의 가치는 서방세계의 중요통화와의 환률에서 1973년 한해동안에 20%나 대폭 떨어졌다.

영국의 농업은 림업과 함께 국민총생산의 4~5% 밖에 되지않는다. 전체 토지소유자들의 0.5%밖에 안되는 농장주들이 토지의 60% 이상을 가지고있다. 농민의 3분의 2가 소농경리에 매달리고있다. 1962—1972년 사이에 62만 9천여개의 중소농장들이 파산몰락하였다.

양과 소, 닭을 기본으로 하는 축산업이 전체 농업생산의 5분의 4를 차지하고있다. 알곡작물은 밀과 보리, 감자 등이 기본이며 그 밖에 사탕무우와 남새를 심는다.

히스도당의 반동적경제정책으로 하여 1973년에 영국의 알곡수확고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일부지역에서 알곡수확량은 종래의 거의 4분의 1밖에 되지않았다.

영국에서 물건값은 1972년 5월—1973년 5월 사이에 9.5% 올랐으며 식료품값은 1972년 11월—1973년 11월사이에 26% 올랐다.

히스도당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영국에서 6만세대이상이 집없이 한지에서 살고있다. 런던 한개 도시에만도 6천세대가 한지에 나앉고있다. 이들은 다리밑이나, 공원, 역전대합실 등에서 한많은 세월을 보내고있다. 이밖에도 200만명의 근로자들이 습기차고 추운 토굴집에서 살고있으며 모두가 관절염에 걸려 신음하고있다.

1973년말 현재 영국에는 54만 4천여명을 헤아리는 실업자 및 반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있었다.

1973년에 마약중독자들이 1972년에 비하여 45%나 더 늘어났다. 이해에 기록된 마약중독자의 절반이상이 16살—26살에 이르는 청소년들이였다. 지금 영국에서 14살부터 16살에 이르는 학생 매 40명중 1명이 마약을 쓰고있다.

출판보도; **통신**—로이터통신. 프레스 아소시에이숀, 엑스췌인지 텔레그라프.

신문 모닝스타(공산당기관지)데일리 텔레그라프(보수당계), 데일리 미러(레이버당계). 가디언(자유당계), 데일리 엑스프레스(보수우파계), 타임스(무소속), 레드 모올, 데일리 메일 앤드 뉴스 크로니클(무소속), 썬 (좌파계), 파이낸셜타임스(중립계 경제신문)

방송 비비씨방송, 비비씨텔레비존방송, 아이티에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영국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이 출판되여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선전되고있다.

1971년에 런던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와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되였다.

1972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영문판) 《혁명적문학예술에 대하여》를 런던에 있는 《아프리카》사에서 출판하였다. 문헌집에는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할데 대하여》 등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이 수록되였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삼가 드리는 선물로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아프리카 매가진》출판사는 16장으로 구성된 《주체사상의 승리》라는 책을 번역출판하였다. 1973년 영국에서 발간되는 잡지《아프리카》 9월호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의 상세한 요지를 실었다. 잡지는 연설을 실으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셨다. 1973년 7월 6일호 런던《타임스》지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실었다.

1969년에 런던《타임스》지 11월 3일호는 8군 한면에 걸쳐 《김일성전》(영문판)제1부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1971년 9월 런던에서 영국조선무역회가 결성되였다. 이해 11월 22일에는 평양에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영국조선무역회 사이에 무역협정이 조인되였다. 1971년 6월 영국청년행동리사회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영국무역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4월 런던 《레드 모올》지 주필이 우리 나라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1973년 3월 15일—24일에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무용단이 영국을 방문하여 런던의 쌔들러즈 웨일즈극장에서 대성황리에 수차례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영국은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의 참전국이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공화국)

넓이 7만 283km²

인구 297만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이 아일랜드사람이다.

공용어는 아일랜드말(제1국어), 영국말(제2국어)

수도 더블린 (주민 66만 3,000명)

정 치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이다. 국민투표에 의해 선거된다. 대통령 에아몬데 발레라(1966년 6월—)

의회 량원제, 상원의원수는 60명이다. 그중 11명은 총리가 임명하며 6명은 대학에서 선출한다. 나머지 43명은 직업별대표이다. 하원의원수는 144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정부 1973년 3월 피네 가엘당과 레이버당의 련립정부 구성, 총리 리암 코스 그라베, 외교부장 힐러리, 국방부장 크로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 제2차세계대전시기 벨파스트에서 북아일랜드공산당으로서의 기능을, 더블린에서 아일랜드로동당으로서의 기능을 각각 수행하였다. 1970년 3월 15일 특별련합대회에서 두 당이 하나의 통일적인 공산당으로 합당하였다. 총비서 오리오르단

피안나 파일당 (공화당)신페인당에서 떨어져나온 공화파세력으로 1926년에 조직, **피네가엘당** (아일랜드통일당), 신페인당의 우파세력들로서 1933년 9월에 조직된 극우익부르죠아정당, 현재 집권당, **레이버당** (집권당), 1912년에 조직, **새아일랜드통일공화당** 1971년 9월에 조직, **신페인당** 1905년에 조직되여 큰 영향력을 가지고있었으나 그후 여러파로 분리되여 작은 당으로 되였다. **로동련맹**

12세기부터 영식민주의자들의 예속밑에 있다가 1921년 12월에 아일랜드의 32개주가운데서 26개주가 아일랜드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드북부지역의 6개주는 영국에 병합되였다.

그리하여 아일랜드는 더블린을 수도로 하는 남부아일랜드와 벨파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북아일랜드로 갈라지게 되였다.

1937년에 아일랜드는 영련방내에서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1948년에는 이 련방에서 떨어져나와 완전한 독립국으로 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공화국이 선포된 이래 주로 공화당이 집권하여왔다. (1954년부터 1959년년사이에 야당련합이 집권)

1973년 3월 14일 총선거에서 피네가엘당과 야당련합이 과반수를 얻어 련립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아일랜드는 공화당정권으로부터 련립정권으로 넘어갔다.

경제, 사회문화

아일랜드는 자본주의적 농업, 공업국가이며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는 경제가 뒤떨어진 나라이다.

경제는 미국, 서독, 영국, 화란 등 자본주의나라들에 심히 예속되여있다.

최근년간 이 나라에 새로 건설된 500개의 기업소들가운데서 350여개는 외래독점자본의 소유로 되여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외국자본총액은 약 1억파운드에 달하고있다. 현재 아일랜드공업의 58%가 외래독점자본의 통제밑에 있다.

공업부문에서는 축산물, 식료품, 가죽가공 공업이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이것은 이 나라 가공공업총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그중 뻐터, 소젖, 고기, 맥주, 술, 담배, 가죽, 직물 생산이 주요품목을 이루고있다. 중공업은 뒤떨어져있으며 니탄에 의거하여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경제에서 농업 특히 목축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로력인구의 30%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농산물의 대부분은 집짐승먹이와 사탕무우, 아마 등이다. 집짐승은 소(뿔이 없는 검은소), 양, 말이다.

1972년 현재 소는 약 60만마리, 양은 400여만마리, 말은 12만 4천여마리 있었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과 그 가공품이며 수입품은 석탄, 자동차, 비료, 전기기구 등이다.

아일랜드는 수출의 5분의 4, 수입의 3분의 1을 영국에 의존하고있다. 1973년 1월 구라파 《공동시장》에 가입함으로써 이 나라들과의 무역이 늘어나고있다. 1973년에 대외무역에서 2억 6천 560만파운드의 적자를 냈다. 이것은 1972년에 비하여 6천 410만파운드나 더 많은것으로서 주로 《공동시장》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생긴것이다.

1973년말 현재 실업자수는 6만 4천명에 달하였다.

중학교는 580여개, 대학은 2개이다.

출판보도; **신문** 아이리쉬 프레스(무소속), 글레아스 (피안나 파일당기관지), 유나이티드 아이리쉬맨(신페인당기관지), 이브닝 헤랄드(무소속),

방송 아일랜드방송, 아일랜드텔레비죤방송.

화 란

(화란왕국)

넓이 3만 3,162km²

인구 1,310만명(1970년 12월—)

주민의 대부분은 화란사람이다.

국어는 화란말

수도 암스테르담 (주민 104만명)

왕궁과 정부소재지는 헤그 (주민 71만 9,000명)에 있다.

정 치

국왕 율리아나녀왕(1948년 9월—)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법안을 승인 또는 거부한다. 의원수는 3년에 한번씩 주의회에서 선출하여 개선한다. 1971년에는 헌법개정심의를 위하여 전의원을 개선하였다. 하원은 150명, 임기는 4년이다. 1971년에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공산당은 상원 3석(하원 6석), 카톨릭인민당 22석(35석), 반혁명당 7석(13석), 기독교력사동맹 7석(10석), 자유민주인민당 8석(16석), 《민주주의적사회주의자들—70》 0석(8석), 레이버당 18석(39석), 《민주주의자—66》 6석(11석), 급진정치당 2석(2석), 기타 2석(10석)

정부 1973년 5월 사회민주당, 기독교정당들, 《민주주의자—66》의 좌파, 카톨릭인민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총리 주프 덴 유일 (사회민주당), 외교부장 반데르 스토엘, 국방부장 브레멜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4월에 창건, 1974년 2월 화란공산당 제9차대회에서 명예위원장으로 그로즈스 아포스톨로스, 제1비서로 하리왈로스 플로라이스를 선거, **사회민주당**(집권당), **레이버당**, **카톨릭인민당**, **《민주주의자—66》**, **자유민주주의인민당**, **반혁명당**, **기독교력사동맹**

화란은 한때 방대한 식민지소유국가였으나 식민지들이 독립함에 따라 점차 쇠퇴하여졌다.

1830년에는 화란령토에서 벨지끄가 독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인 1940년 5월에는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 파쑈독일의 패망과 함께 해방되였다.

1945년 8월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가 독립하자 화란은 미영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인민을 반대하는 식민지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하였다. 1949년 12월에는 화란령 가이아나(수리남)와 화란령 서인도제도(안띨제도)가 자치령으로 되였다. 1962년 8월에는 서부이리안이 인도네시아에 이관되였다.

화란은 전후에 조성된 이러한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룩셈부르그, 벨지끄 등과 정치, 경제, 군사 동맹을 맺고 서구라파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에 추종하는 길로 나아갔다.

1949년에 미제의 침략도구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그후 제국주의의 경제, 군사 기구들에 가담하였다. 화란반동들은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보내였다. 1957년에는 자기 나라 령토안에 미제침략군의 원자 및 로케트 기지를 설치하는데 동의하였으며 1966년에는 나토중구라파군참모부를 끌어들였다. 1962년 1월에 화란은 서독과 《군사협정》을 맺고 서독군국주의군대를 자기 나라 령토에 주둔시켰다.

또한 1968년에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수행을 위한 군수공장을 자기 나라에 세웠다.

1973년 5월 주프 덴 유일(사회민주당 당수)을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새 정부에는 사회민주당, 기독교정당 및 《민주주의자—66》의 좌파세력으로부터 10명 그리고 카톨릭 및 중간 킬빈파정당들로부터 6명이 들어갔다.

화란정부는 1973년 10월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일으킨 제4차 중동전쟁시기에 이스라엘반동들을 지지해준것으로 하여 아랍나라들로부터 석유수입을 금지당하였다. 심각한 석유난에 직면한 반동정부는 아랍석유수출국들의 압력에 못이겨 12월에는 형식상이나마 이스라엘의 아랍령토

강점을 비법적인것으로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중동정화결정을 리행할것을 주장하지않을수 없었다.

화란은 1973년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제출된 남조선괴뢰들을 지지하는 반동적결의안에 가담하였다.

1월 20일 헤그의 약 4천명의 근로자들은 반미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시위자들은 헤그에 도사리고있는 미국놈의 대사관에 규찰대를 세우고 중심거리를 누비며 행진하였다. 시위자들은 달려드는 경찰놈들을 물리치고 미제대사관 건물에 돌멩이와 빵끼버락을 들씌웠다.

암스테르담에서도 1천 500명 근로자들의 반미시위투쟁과 미제의 윁남침략에 항의하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앉아버티기 투쟁이 벌어졌다.

8월 20일 헤그근로자들은 미제침략자들이 캄보쟈내정에 간섭하고있는데 격분하여 미국대사관앞에서 시위를 벌리였다. 8월 29일에는 화란의 항구도시인 델헬데르에서 근로자들이 이 도시에 미제의 침략도구인 나토의 함대들과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군함들이 기여든데 항의하여 시위투쟁을 벌렸다.

2월초 화란의 대학생들은 암스테르담종합대학건물을 점거하고 수업료를 5배로 끌어올린 반동정권의 반인민적책동을 반대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주도적부문은 공업이다.

주민의 44%가 공업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공업에서 선박건조, 전기기계, 동력기계, 방직, 식료(치즈, 빠터) 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가공공업의 대부분은 대외시장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특히 선박공업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기계공업은 주로 선박건조공업을 위한 기계설비생산(선박용 엔징과 여러가지 부속과 기구)에 치우치고있으며 그밖에 유전시설, 전기기계들을 생산하고있다.

경공업은 식료공업이 기본이며 맥주, 치즈, 빠터, 우유가루, 통졸임, 사탕, 담배를 생산하고있다.

1973년에 화란은 아랍석유수출국들의 석유금지조치로 심한 연료위기를 겪었다. 석유소비량의 82%를 아랍나라들에 의존하고있는 화란이 이 지역에서 석유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로떼르담주변에 있는 원유가공공장들에서는 생산을 줄이고 로동자들을 마구 내쫓는 소동을 벌렸으며 12월초부터는 이 나라에서 휘발유배급제가 실시되였다.

화란의 중요 경제명맥은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외국회사들의 총수는 930여개이고 그 가운데서 미제가 376개, 영국이 170개, 서독이 128개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대독점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공업기업소들은 물론 상업, 은행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집적과 집중화 과정이 급속히 촉진되고있다. 영국과 화란의 회사들인 《로얄 다취 쉘》과 《유니레바》, 《필립스》를 비롯한 몇개의 대독점체들이 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고있다. 특히 《로얄 다취 쉘》회사는 이 나라 석유가공부문과 화학, 전기기계, 인조섬유, 기계공업부문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공업부문을 거머쥐고있다.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것은 농업생산의 3분의 2를 이루고있다. 전체 농경지의 절반이상이 방목지와 사료재배지이다.

집짐승으로는 소와 돼지가 많으며 그 가운데서도 젖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알곡작물은 밀(년평균 60여만t), 호밀 (13만t), 보리 (약 33만t), 귀밀 (약 20만t). 감자(약 5?5만t)이며 그리고 사탕무우 (400여만t)를 심는다.

세계어장의 하나인 북해를 끼고있기 때문에 수산업도 경제의 주요한 부문으로 되고있다. 주로 청어와 대구를 잡는다.

해상운수가 발전한 나라로서 이 부문에서 많은 외화벌이를 한다.

화란은 각종 선박과 기계류, 화학제품, 석유 및 그 가공제품, 천과 실, 강철, 여러가지 식료품, 꽃나무와 그 뿌리 등을 수출하고 기계류, 식량, 석유, 목재, 코코크 기타 공업원료를 수입한다. 대외무역의 절반이상 (수출의 약 60%, 수입의 약 55%)을 구라파 《공동시장》성원국들과 진행하고있다.

1973년에 물가가 82% 비싸졌다. 농산물과 수산물값은 9.6%, 리발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료금은 10% 뛰어올랐다.

출판보도 ; 통신 에이엔뻬

신문 드바아르 하이트 (공산당기관지), 헤뜨브라이에 볼크 (태이버당기관지), 네델란드세 개다히뗀 (반혁명당주간지)

잡지 폴리띠크 엔 꿀뚜르 (공산당월간잡지), 오피니에 (태이버당월간잡지),

방송 피오비방송, 에이브이아르오방송, 화란세계방송, 화란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를 소개하는 글을 전화란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예위원장 파울 데 그룬테가 써서 자기 당기관지 《드 바아르 하이트》에 1966년 12월 23일—1967년 1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편재하였다.

1971년 12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화란공산당의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11월 우리 나라 예술체조선수단이 화란에서 진행된 제6차세계예술체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다.

벨 지 끄

(벨지끄왕국)

넓이 3만 513km^2

인구 973만명(1971년)

화란계의 프라망사람이 55%, 프랑스계의 왈롱사람이 45%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말과 프라망말이며 독일말도 쓴다.

수도 브류쎌(145만 3,500명)

정 치

국왕 보도앙 1세 (1951년—)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178명, 하원은 212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각각 4년이다. 1974년 3월 10일 총선거결과 하원에서 공산당 4석, 기독교사회당 71석, 사회당 60석, 자유진보당 31석, 왈롱인련맹 24석, 인민동맹 22석 차지

정부 1973년 1월 25일 기독교사회당, 사회당, 자유진보당의 련립정부 구성, 총리 르 뷰르똥 (사회당출신, 1973년 1월—), 외교부장 뻬에르 아르멜, 국방부장 반렌부인난트

정당, 사회단체 ; 공산당 1926년 9월 4일 창건, 위원장 루이 반게이트, **기독교사회당** (집권당) 1963년에 무어진 자본가와 대지주의 보수적정당, **사회당**(집권당) 1885년에 무어진 우익정당, **자유진보당** (집권당) 1946년에 조직된 자본가와 인테리들의 정당, **왈롱인련맹**, **인민동맹**, **프랑코폰민주전선**

로동총련맹 (국제자유로조련합에 망라, 사회당의 영향밑에 있음), **기독교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1830년에 부르죠아혁명을 수행하여 독립을 선포하고 립헌군주국으로 되였다.

19세기 중엽부터 자본주의적산업이 발전하였으며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면서 식민지쟁탈전에 끼여들어 1885년에 자이르, 1919년에 루안다, 부룬디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벨지끄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파쑈독일에 강점되였다.

1944년 9월 독일강점자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난후 공산당을 포함한 련립정부가 수립되였으나 1947년 3월 미제의 부추김밑에 벨지끄반동들은 정부로부터 공산당을 배제하고 미제의 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는데로 나아갔다. 1949년 4월에 미제의 침략도구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그후 《구라파공동시장》, 《구라파석탄강철공동체》, 《유라톰》과 같은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기구들에 가담하였다. 브류쎌에는 《나토리사회》본부, 《나토군구라파통합사령부》본부 (1966년 7월)를 두고있다. 벨지끄반동들은 1973년 6월에 희랍에서 감행된 나토군사연습에 참가하였으며 또한 이해에 미국제 지상대 지상미싸일 《란스》를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벨지끄반동들은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으며 1973년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미일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들고나온 《두개조선》유엔동시가입안에 가담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해나섰다.

1973년 1월 25일 벨지끄에서는 기독교사회당, 사회당, 자유진보당의 3당련립내각이 구성되였다.

1973년 1월말에 약 1만명의 고등학교학생들이 반동정부의 징병조치를 반대하여 시위, 동맹휴학을 벌리였으며 5월 11일에는 안르 웨르덴부두 로동자 2천여명이 정부의 반동적정책을 반대하며 임금을 올리고 생계비를 낮출것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렸다.

12월 14—16일까지 벨지끄공산당 제21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 총결보고를 청취토의하고 반독점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벨지끄는 자본주의공업국가이다.

경제의 군사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공업은 군수공업과 직접 련관된 흑색금속공업, 유색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등에 치우치고있다. 흑색금속공업은 자체의 콕스탄과 수입쇠돌에 의존하고있으며 기계공업은 무기, 기관차, 배, 공작기계를 주로 생산하고있다.

연료자원에서 석탄이 3분의 2를 차지하나 《공동시장》성원국들인 서독과 프랑스의 경제적압력때문에 생산이 줄어들고있으며 원유가공공업, 흑색금속공업 등은 서방세계를 휩쓴 연료난으로 심한 파동을 겪으면서 침체, 퇴보하고있다. 수력발전량은 전력생산의 1% 정도이다.

벨지끄의 경제는 국내 7개독점체들과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벨지끄에 투하된 외국독점자본중 70~80%를 미국자본이 차지하고있다. 1973년초에 외래독점자본은 자동차공업부문로동자의 92%, 전력공업부문로동자의 89%, 기계제작공업부문 로동자의 48%를 고용하고있다.

외래독점자본의 침투로 하여 1972년 상반년에만도 826개의 중소기업소들이 무리로 파산되였다.

농업은 이 나라 경제에서 부차적자리를 차지한다. 주로 자본주의적소농경리에 의거하고있으며 농업생산에서 축산업의 비중이 60%이상을 차지한다.

알곡은 밀, 보리, 감자 등이나 식량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벨지끄는 흑색금속, 유색금속, 화학제품, 직물 등 공업제품의 근 40%를 수출하고 식량과 공업원료를 수입한다.

무역은 절반이상 구라파 《공동시장》나라들과 진행하고있다.

정부의 반인민적경제정책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는 더욱 어려워지고있다. 벨지끄에서 1973년 11월의 식료품값은 전해 같은 기간보다 12% 올랐으며 이해 1.4분기의 공공료금은 9.3% 올랐다. 주택난이 심하며 1973년 상반년 현재 44만여채의 집들은 초보적인 위생시설마저 갖추어지지않은 어지러운 형편에 놓여있다.

교육시설은 매우 락후하며 학비는 1972년부터 1973년 9월까지 2배나 올랐다.

해마다 교통사고로 2만 5천여명이 죽거나 부상당하고있으며 반동정부는 교통사고때문에 한해 평균 400억벨지끄프랑의 경제적손실을 입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벨지끄통신

신문 드라포 루쥬(공산당기관지), 가제트 반 앙트베르빵, 블크스 가제트, 피플, 템페스 도쥬르듀이

방송 벨지끄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벨지끄를 방문하였으며 12월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벨지끄공산당 제21차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벨지끄공산당 위원장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달하였다.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대공국)

넓이 2,586km²

인구 33만 5,0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룩셈부르그사람이며 독일사람, 프랑스사람도 많다.

공용어는 독일말, 프랑스말

수도 룩셈부르그 (주민 7만 7,463명)

정 치

대공 국가원수로서 국회에 의안을 제출할수 있으며 국회의 해산권, 행정권, 각료들의 임명권을 가진다. 대공 쟌(1964년 11월—)

국회 일원제, 의원수 56명, 임기 5년, 그중 절반은 3년에 한번씩 개선한다. 1971년 12월 선거에서 공산당 6석, 기독교사회당 18석, 사회로동당 21석, 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1969년 2월에 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련립내각이 구성되였다. 총리 피에르베르네르, 외교부장 가스톤 토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2월 2일 창건, 1973년 3월 제21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도미니크 우르바니, 기독교사회당(집권당), 민주당(집권당), 사회로동당, 인민독립운동당

1842년부터 1866년까지 독일의 예속밑에 있다가 1867년의 런던조약에서 비무장 《영구중립국》을 선포하였다. 1890년에 대공국으로 되였다.

제1차대전시기 독일침략군에 강점당하였으나 그후 다시 독립을 회복하였다.

제2차대전시기에도 독일침략군의 침입을 받았다.

1948년에 룩셈부르그는 《영구중립》을 그만두고 침략적서구동맹 (1948년)과 나토 (1949년), 《구라파공동시장》 등 제국주의의 정치, 군사 기구들에 가담하였으며 나라의 전체 병력을 나토에 밀어넣었다. 이웃나라들과 관세동맹을 맺고있다.

룩셈부르그는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으며 1973

년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미일제국주의자들 및 남조선괴뢰들이 꾸며낸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에 관한 반동적결의안에 끼여들었다.

경제, 사회문화

주요공업부문은 쇠돌채굴업과 흑색금속공업이며 이 부문에서 전체 공업로동자의 절반 이상이 일하고있다. 쇠돌채굴업과 흑색금속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약 80%를 차지하며 특히 강철생산량은 그의 70%를 차지한다. 야금공업기업소들은 쇠돌매장지인 서남부일대에 집중되여있다.

전력생산은 약간의 수력발전소외 거의 모두 화력발전소에 의거하고있다. (년평균 25억~28억kwH 생산)

작은 규모의 기계공장, 화학공장, 경공업공장들이 몇개있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주로 과일가공, 포도주를 비롯한 각종 술과 청량음료생산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룩셈부르그의 공업은 불경기, 주문감소, 심각한 연료위기 등으로 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심한 침체상태에 빠지고있다.

농업은 이 나라 경제구조에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나 매우 뒤떨어져있다. 부침땅의 5분의 4는 지주놈들이 차지하고있다.

부침땅은 약 7만 5천헥타이며 중요농산물은 밀, 감자, 포도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못하며 매해 많은 알곡을 사들인다.

농업총생산액의 80%는 축산업이 담당하고있다. 축산업은 축산제품(소젖과 고기)생산에 돌려지고있다. 집짐승으로는 소(약 19만마리), 돼지(10만마리), 양(3만마리), 말을 기른다.

이 밖에 포도재배업과 원예업을 하고있다.

거리와 유보도의 가로수에 이르기까지 과수나무들을 심는것이 특징이다.

관광업이 해마다 주요 수입수단으로 되고있다. 년 관광객수는 100만명에 달한다.

이 나라는 금속(강철, 선철, 압연제품), 쇠돌, 린비료, 세멘트, 목제, 포도주를 수출하고 석탄, 콕스, 기계, 설비, 알곡 등을 수입한다. 주요 무역대상국은 서독, 벨지끄를 비롯한 구라파《공동시장》나라들이다.

출판보도; **신문** 짜이퉁 품 레쩨부르게르 플레크(공산당기관지), 룩셈부르게르 보르트(천주교계), 레쩨부르게르 쥬르날(민주당계)

방송 룩셈부르그방송, 룩셈부르그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룩셈부르그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조직되였다.

1972년 8월 이 조직책임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이께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들을 대표하여 이 소조의 책임자로부터 축하의 편지를 보내왔다.

1971년 12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룩셈부르그공산당의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프 랑 스

(프랑스공화국)

넓이 55만 1,208km²

인구 5,150만명(1972년 1월 1일)

주민의 대부분이 켈트족과 프랑크부르군도족으로 구성된 프랑스사람이다.

국어는 프랑스말

수도 빠리(주민 260만 7,625명)

정 치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이다. 《제5공화국》(1958년)으로 되면서 국회의 권한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였다. 대통령은 총리와 부장들을 임명, 해임하며 전쟁시기에는 군최고사령관으로 된다. 대통령 죠르쥬 퐁피듀(1969년 6월—, 1974년 4월에 사망)

국회 국민회의(하원)와 참의원(상원)의 량원제, 국민의회 의원은 490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참의원 의원은 283명, 임기는 9년이며 3년마다 3분의 1을 개선한다.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지방자치제리익》을 대표한다.

1973년 3월 4일, 11일에 진행된 총선거결과 490석(3석은 미확정)중 각 당파별 의석수는 공산당 73석, 사회당 89석, 좌익각파 19석, 중간파 28석, 드골파 273석, 우익각파 5석으로 되였다.

정부 내각은 1973년 4월 5일에 구성되였다. 총리 삐에르 메리메스(1972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2월 29일 사회당에서 분리되여나와 창건, 전후 제1당으로서 내각에 들어갔으나 라만쉐내각으로부터 배제된 이래 야당으로 있다. 1972년 12월에 제20차대회 진행. 총비서 죠르쥬 마르쉐, 명예위원장 발데크 로쉐. **사회당** 1969년의 대통령선거에 앞서 사회주의좌익련합에서 떨어져나와 같은해 7월 17일에 조직. **통일사회당** 독립사회당(1958년 9월 조직)과 사회주의좌익련합 등이 합쳐 1960년 4월에 결성, **급진사회당** 1901년에 조직, **공화국옹호민주주의자동맹**, 1962년에 《새공화국옹호동맹》 (1958년에 드골이 조직)과 《민주로동동맹》이 합쳐 무어진 부르죠아정당(드골파련합—집권당) **민족독립공화주의자련맹** **민주주의중앙** 1966년에 《인민공화운동》과 《민족독립공화주의자및농민중앙》에 기초하여 나온 우익부르죠아정당, **민주주의및진보중앙** 1969년에 조직된 중립주의적그루빠, **공화중앙** 1958년에 결성된 우익급진주의자들의 정당, **자유및진보옹호공화국련맹** 1966년에 조직된 극우익적인 부르죠아정당, **로동총련맹**(세계직련에 가입, 공산당소속), **프랑스민주주의 로동련맹**(세계로동총련맹에 가입), 《**포르스 우브리엘**》(국제자유로련에 가입), **기독교근로자련맹**(세계로동총련맹에 가입), **공산주의청년운동**(프랑스의 여러 청년동맹이 망라되고있다), **녀성동맹**,

프랑스는 제국주의국가이다.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1958년에 제5공화국을 수립하고 프랑스와 그 식민지나라를 망라한 《프랑스련방》을 《프랑스공동체》로 바꾸었다. 드골은 대외정책의 기본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구라파 사람에 의한 구라파건설》에 두고 서구라파에서 《평도권》을 틀어쥐기 위한 이른바 《독자적》인 《로선》을 추구하여 나토문제, 자본주의세계에서의 국제통화문제 등 일련의 국제문제들에서 미제에 맞섰다.

프랑스는 이러한 대외정책의 《원칙》에 따라 1967년에 미제의 침략적군사기구인 나토의 군사통합사령부에서 자기군대를 철수하였으며 프랑스 땅에 있던 《나토군최고사령부》, 《중구라파사령부》, 《서구라파주둔 미군사령부》와 기타 나토산하 기구들을 철수시켰다.

1969년에 드골의 뒤를 이어 집권한 퐁피듀는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면서 구라파에서 패권을 쥐려는 드골의 정책을 답습하였다.

1973년에 퐁피듀는 3월의 총선거를 앞두고 제놈들의 반동적통치와 지배를

연장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프랑스에서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력량이 장성하고 공산당 제20차대회이후 좌익련합이 급격히 강화된 조건에서 이 련합은 총선거에서 드골파의 강력한 경쟁자로 되여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퐁피듀는 총선거에서 좌익련합을 누르고 드골파련합의 《승리》를 얻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3월 4일, 11일 총선거에서 여당의 드골파련합은 총 490석중 273석을 얻어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다시 집권하게 되였다. 3월 28일 프랑스내각은 총사직하였으며 4월 5일 다시 류임하는 메스메르를 총리로 하는 새반동내각이 구성되였다.

1973년에 좌익력량은 보다 강화되였다. 총선거에서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련합세력은 100석의 의석을 더 쟁취하였다. 그리하여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드골파에게 타격을 줄수 있는 지반을 마련하였다. 국회에서 프랑스공산당출신의원수는 33명으로부터 73명으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공산당은 좌익력량가운데서 첫번째 당으로 되였다. 공산당은 이전에 진행된 선거때보다 70만표나 더 많은 500만표를 받았다.

대신 드골파는 선거에서 103석을 잃었다.

통치권을 다시 쥔 퐁피듀는 국내인민들과 좌익력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정책에서의 독자적립장》을 계속 들고나오면서 미제에 맞서 나섰다.

1967년이후부터 미제가 꾸며낸 침략도구인 세아토의 군사활동에 참가하는것을 그만둔 프랑스정부는 1973년 6월 자기 나라가 1974년 9월 30일부터 세아토의 운영비분담금지불을 중지한다는것을 세아토본부에 통고하였다. (1973년까지 프랑스는 세아토의 년간운영분담금으로서 172만딸라를 지불해왔다.)

프랑스는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야심밑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에 남태평양에 있는 뽈리네시아의 무루로아환초에서 4차례나 핵시험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남태평양에서 프랑스가 감행한 7번째 핵시험이다.

프랑스는 구라파에 대한 미제의 지배를 대신하려는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1월 22일 빠리회담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프랑스—서독 수뇌자회담에서 구라파경제 및 통화동맹을 내오기로 하였으며 대서양국가수뇌자회의소집, 구라파안전회의문제등을 토의하였다.

드골파세력은 1973년초부터 미제가 들고나온 《신대서양헌장》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그것은 《구라파지역을 미국의 패권밑에 종속시키려》는 새로운 책동이라고 폭로하였다.

퐁피듀는 6월 1일 아슬란드 수도에서 닉슨과 구라파문제, 국제통화문제를 쑥덕공론하였으며 9월에는 빠리에서 일본총리 다나까와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 구라파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한편 프랑스반동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보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퐁피듀는 1월 11일—12일사이에 쏘련을 방문하여 이 나라 지도자들과 두나라간의 관계발전 및 구라파안전, 구라파공동시장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퐁피듀는 9월 11일—17일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하여 중국지도자들과 두 나라간의 관계문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국제문제들을 가지고 회담하였으며 이에 앞서 6월 10—14일까지 빠리에서 중국외교부장과 회담하였다.

프랑스정부는 11월 9일에 민주독일, 11월 22일에 월남민주공화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프랑스는 흑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30일 흑아프리카 10개국 수뇌자회의를 벌리고 두지역간에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6월 4일 프랑스는 말가슈와 새로운 군사협조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 따라 프랑스는 말가슈에서 가지고있던 군사기지설치와 군대주둔을 포함한 일련의 특권을 잃었으며 9월 1일 이전에 저들의 침략군을 철수하지않으면 안되였다. 말가슈의 디에고 수아레즈기지는 《시설》들을 제외하고 말가슈에 넘겨주며 말가슈기술자들에게 《기술전습을 주기 위해》 400명의 프랑스해군분견대가 이 기지에 계속 머물러 있게되였다.

1973년에 프랑스근로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 프랑스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며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시위와 파업투쟁 등을 벌리였다.

5월 12일 빠리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은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의 군사적도발책동을 반대하여 시위투쟁을 벌렸다.

6월 20일 프랑스의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근로대중의 대규모적인 시위들이 벌어졌다. 진보적인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호소에 따라 약 60개 도시들에서 수십만 근로자들이 시위를 벌렸으며 여기에는 10만명의 빠리 근로자들도 참가하였다. 이해 《리쁘》 시계공장로동자들의 파업은 3개월이상이나 진행되였으며 8월에는 이 투쟁에 빠리지구근로자들이 합세하여 동정시위를 벌리였다.

경제, 사회문화

프랑스는 자본주의공업—농업국가이다. 공업 및 농업총생산액에서 공업이 60%를 차지하고있다.

프랑스경제는 독점자본 특히 국가독점자본의 지배밑에 있다.

또한 석유, 자동차, 전기공업부문에는 외국독점자본이 많이 침투되여있다.

공업총생산액에서 중공업이 5분의 3을 차지하고있다. 중공업에서는 흑색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등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식료가공공업을 비롯하여 일정한 경공업이 있다.

오늘 프랑스공업은 자본주의경제의 기본모순과 특히 최근년간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통화위기, 동력위기 등으로 하여 침체와 답보, 내리막선을 걷고있다. 1971년에 기계제작공업부문의 장성속도는 그 전해에 비하여 3%, 1969년에 비하여 7%나 떨어졌다. 1971년에 강철생산은 3.8%, 주철생산은 4.5% 적어졌으며 석탄생산량은 1962년의 67%에 지나지않았다. 1970년에 면직물과 면사는 1961년보다 20%나 줄었다.

농업에서 토지소유의 집중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50헥타이상을 가진 자본주의적대농장들이 부침땅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보리, 호밀, 귀밀, 강냉이, 감자이며 공예작물로서 사탕무우, 아마, 담배, 호쁘 등이 생산된다.

농업에서는 구라파《공동시장》내의 다른 성원국들과의 경쟁이 치렬하여 침체가 계속되고있다. 특히 보리와 감자생산이 줄어들고있다.

목축업은 농업총생산액의 60%를 차지한다. 목축업에서 소가 기본이며 그 종류는 30종을 넘는다.

대외무역에서 주요수출품은 화학제품, 강철, 기계, 알곡, 직물, 자동차, 포도주 등이며 석탄, 콕스, 양털, 목화, 석유, 고무 등을 많이 수입한다. 《공동시장》성원국들과의 무역이 나라무역에서 50%이상을 차지한다.

프랑스는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통화위기에 직면하여 서독이나 다른 《구라파공동시장》나라들이 변동시세로 이행하는 경우 입을 손해를 우려하여 서독

이 2중시세제로 넘어갈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1973년초 미제의 딸라가 10% 평가인하된이래 프랑스는 금평가유지로 11.1%(1딸라=4.60414프랑)로 인상하였다.

5월 빠리금시장에서의 금시세는 온스당 124.13딸라로서 최고기록에 이르렀다.

1973년 1월부터 1974년 1월까지 통화팽창률은 10.3% 높아졌다. 통화팽창을 막기 위하여 9월 20일 프랑스 은행은 공정리률을 9.5%로부터 11%로 대폭 올려 《금융긴축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리률은 제2차세계대전후의 가장 높은 수준이였다.

프랑스에서 물건값이 8.5% 뛰여 올랐다. 1973년 12월의 생계비는 전해 12월에 비하여 평균 10~11% 올랐다.

1973년 상반년에만도 13만 2천130건의 교통사고가 났으며 이로 인하여 19만 988명이 부상당하거나 죽었다.

1973년 1.4분기에 100개의 은행들이 강도들에게 털리였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에프피

신문 유마니떼(공산당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프랑쌔즈(정부기관지), 아방가르드 (공청기관지), 몽드(무소속), 피가로, 뽀쀨레르(사회당기관지), 오로르, 프랑스수아르, 꽁바

방송 구라파제1방송이 있고 그밖에 제2, 3, 4방송들이 있다. 3개의 텔레비죤방송국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프랑스사이에 무역협정이 맺어졌으며 이에 따라 1968년 4월 5일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빠리에 개설되였다. 1969년 12월 8일에는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최근년간 프랑스의 여러출판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출판보급하고있다.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 《김일성전》1, 2, 3부가 출판되였으며 프랑스공산당기관지 《유마니떼》와 프랑스신문 《몽드》는 《조선이 낳은 영웅의 위대한 민족해방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록》이라는 표제밑에 《김일성전》(프랑스어판)제1부를 소개하는 글을 각각 크게 실었다.

1971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씨네마9》출판사가, 천재적로작들인 《아세아,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와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프랑스 누벨 프레스 빠리지엔느》출판사가 각각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빠리에서는 그이의 고전적로작들을 묶은 《김일성지작집》과 그리고 《주체사상의 승리》, 《조선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라는 책을 각각 프랑스어로 출판하였다.

1973년에 프랑스의 《씨로스》출판사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리론》을 출판하였다. 문헌집에는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가 수록되여있다.

1973년 3월 중국주재 프랑스공화국대사관무역참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4월에는 프랑스구라파공업재정련합은행대표단이, 9월에는 프랑스무역대표단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1월 27일부터 3주일간 만수대 예술단이 프랑스에서 공연하였다.

1973년 5월 5—13일까지 조선로동당대표단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프랑스공산당과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해 조선로동당 선전 및 출판일군대표단이 프랑스를 방문하였다.

모 나 꼬

(모나꼬왕국)

넓이 1.4km²

인구 2만 3000명

주민은 모나꼬사람, 프랑스사람, 이딸리아사람들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가운데서 모나꼬사람은 3천명정도이다.

공용어는 프랑스말과 모나꼬말(프랑스말과 이딸리아말이 뒤섞인 언어)을 쓴다.

수도 몬떼 까를로 (주민 9,948명)

정 치

국왕 레니에 3세 (1949년—) 국가수반으로서 립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있다.

국회 일원제이며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 국왕과 함께 립법권을 가진다.

국회를 방조하는 《자문리사회》가 있다.

정부 총리 이외에 4명의 각료 (국무부장, 내무부장, 재정 및 경제부장, 공공사업부장)들로 구성되여있다.

각료들은 국왕이 직접 임명하며 국왕과 함께 행정권을 가지고있다.

총리 자르르 발데리오

모나꼬의 첫 거주자들은 페니키아사람들이였다. 그후 13세기말에 제노아의 봉건령주인 그리말디가문의 령지로 되였다.

1524년부터 에스빠냐에, 1641년부터는 프랑스에 속해있었다.

1793년에 프랑스에 병합되였다.

1861년 이후 모나꼬는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있다가 1918년 프랑스와의 조약에 의하여 《독립국》으로 되였으나 실제상 프랑스제국주의의 이른바 《보호국》밑에 있다.

1958년 국회선거에서 승리한 민족민주동맹이 국회권한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하자 1959년 1월 29일 국왕은 잠정적으로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나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1961년 2월말 국회를 다시 내오고 국회를 방조하는 《자문리사회》를 만들어냈다.

1962년 12월 17일에 채택된 새헌법에서는 앞으로 헌법은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수정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전통적인 국왕제는 계속 유지되지만 국왕이 《신성불가침》이라는 규정은 삭제하였다.

1962년에 프랑스정부는 이 나라에 관세장벽을 설정하였다가 1963년 5월 관세 및 재산에 관한 새협정을 맺고 이 장벽을 철회하였다.

모나꼬는 현재 20여개의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요생산물은 향수, 화장품, 전기기계 및 약품이며 주로 향수와 화장품을 수출한다.

올리브나무와 귤을 약간 재배하고있을 뿐 농사는 거의 하지않고 식량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그리고 자그마한 식료가공공장과 기념품생산공장들, 선박수리소가 있다.

모나꼬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손꼽히는 유람지이며 이름난 도박장이다. 유람객수는 년평균 65만명에 이른다.

국가수입은 유람지와 《공설도박장》운영, 우표생산에서 얻어진다. 새로 건설된 지구인 몬떼 까를로(수도)에는 도박장과 오락시설이 집중되여있다.

도박장은 국가가 운영하고있다. 도박은 외국의 부자놈들이 하고있으며

모나꼬공민들에게는 도박이 엄격히 금지되여있다.

모나꼬의 주민들은 모두 이 나라의 국교인 천주교를 믿고있다.

이나라에서 공민권은 모나꼬사람들에게만 부여되여있으며 외국사람이 모나꼬의 공민으로 되려면 왕국을 위한 특출한 공로를 세워야 한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터, 신문 쥬르날 드 모나꼬(정부공식기관지),

방송—몬떼 까를로방송, 몬떼 까를로 텔레비죤방송

안 도 라

(안도라공화국)

넓이 465km²

인구 1만 9,600명

기본언어는 까다로니아말이나 프랑스말과 에스빠냐말도 쓴다.

수도 안도라 라 벨라 (주민 6,900명)

정 치

총평의회 24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립법기관, 임기는 4년, 2년마다 절반씩 개선한다.

6개의 부락에서 각각 4명의 의원들이 선출되여 총평의회를 이루며 6개의 부락마다에 의회가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프랑스와 에스빠냐 정부의 공동합의에 따라 임명된다.

정부 행정권은 총평의회가 임명하는 장관(대통령)과 부장관이 행사한다. 장관(대통령) 프란세쓰끄 에스꾸데 폐레로

안도라는 1278년부터 프랑스와 에스빠냐의 공동관리밑에 들어갔다.

1933년 정변에 의하여 선거권의 범위가 확대되였으나 1940년에 제한되여 선거권은 세대주들에게만 부여되고있다. 프랑스와 관세동맹관계를 맺고있으며 밀수입이 매우 심한 나라이다. 현재 프랑스와 에스빠냐의 우르겔승정의 공동관리밑에 있다. 프랑스의 공권은 프랑스대통령이, 에스빠냐의 공권은 마라 카르승정이 각각 대표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안도라의 주민들은 축산업을 위주로 하면서 담배, 보리, 감자, 남새, 포도 등을 재배한다.

쇠돌, 연, 은, 대리석과 같은 지하자원이 있으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였으며 쇠돌, 연, 은을 조금씩 캐내고 있다.

양 2만 5천마리, 소 3천마리, 말 1천마리정도 있다.

공업으로는 식료, 담배, 도자기, 알루미니움, 대리석공장들과 작은 수력발전소가 하나 있을뿐이다.

나라의 재정수입원천은 주로 관광수입(년간 200만명)과 삐레네이산줄기의 《국제선전방송》에서 얻는다.

철도는 없다. 뻐스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되여있다.

안도라는 주민의 90%이상이 천주교를 믿는다.

문화면에서는 에스빠냐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다.

에스빠냐

넓이 50만 4,750km² (발레아르, 까나리아군도포함)

인구 3,457만 2,000명(1972년 12월—)

주민의 대다수가 에스빠냐사람이며 약 100만명의 바스께족이 있다.

국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마드리드(주민 303만 700명)

정 치

총통 국가원수로서 국회에서 승인된 법안을 거부할수 있고 국회의 동의없이도 법안을 발표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있다.

국회 일원제, 의원 564명중 460명은 총통이 임명하고 나머지 104명만 선거한다.

정부 총리는 총통이 임명한다.

총리 까를로스 아리아스 나바로 (1973년 12월—), 외교부장 그레고리오 로페스 브라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4월 15일 창건, 총비서 산띠아고 까릴요, **국민운동** (집권당), **로동자위원회**

1931년 4월 군주제가 전복되고 에스빠냐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36년 2월 국회선거에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인민전선이 승리하여 인민전선정부가 수립되였다.

1936년 7월 파쑈독일과 이딸리아무력간섭자들의 도움을 받은 프랑꼬도당의 반혁명내란도발로 하여 1936년7월—1939년 3월까지 공민전쟁이 진행되였다. 공민전쟁시기 에스빠냐공산당은 무장부대를 조직하고 광범한 반파쑈민주력량을 집결하여 영용하게 싸웠으나 세계제국주의의 공모와 간섭으로 하여 실패하였다.

이리하여 1939년 3월 인민전선정부는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으며 프랑꼬도당의 독재정권이 수립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프랑꼬도당은 기회주의적 《중립》을 취하였다.

전후 프랑꼬도당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정책에 적극 추종하여왔다.

1953년에 미제와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1970년 8월에 그것을 연장하였으며 1964년에 영제국주의자들과, 1970년 6월에 프랑스제국주의자들과 각각 《군사협정》을 맺었으며 1970년 5월 22일에는 1930년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과 맺었던 《친선조약》을 회복하고 군비를 확장하였다.

프랑꼬도당은 안으로는 횡포한 파쑈독재, 밖으로는 친미추종 정책을 감행하고있다.

프랑꼬도당은 1973년초에 23명의 에스빠냐공산당원들을 체포하였으며 3월 9일에는 공산당과 사회당의 한 련합조직을 탄압하였다. 년말에 와서는 로동자위원회 지도성원들을 비롯한 애국자들을 체포투옥하고 살인재판을 벌려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들씌웠다.

에스빠냐근로자들의 5.1절시위에 놀란 프랑꼬도당은 《특별각료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경찰수를 대대적으로 늘이며 그 장비를 증강하는 흉책을 꾸미였다.

1973년 4월 에스빠냐외교부장놈은 미국에 찾아가 이미 체결한 (1970년) 두 나라 사이의 협조관계를 보다 강화할것을 쑥덕공론하였다. 10월 제4차중동전쟁시기에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려 가는 미제침략군 비행사놈들이 《팬톰》전투기를 타고 마드리드를 거쳐 갈수 있게 해주었다.

프랑꼬도당의 파쑈적친미추종정책은 국내인민들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받았다.

1973년 3월에 빌바오종합대학, 바르쎌로나 대학생들이 반정부투쟁을 벌렸으며 6월에는 진보적교원, 문화인, 의사를 비롯한 3만명의 광범한 계층이 프랑꼬도당의 폭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프랑꼬도당의 반동적정책을 반대하며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4월에 안드레안 데 베산스의 3개건설사업소 로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진행하였다. 이 투쟁에는 60개 기업소, 1만 8천여명의 로동자들이 합세하였다. 4월 27일에는 마드리드에서 20만명 이상의 기계제작 및 야금공업부문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일어났으며 여기에 2만 5천명의 다른부문 로동자들이 합세하였다. 5월 1일에는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시위가 진행되였다.

6월 16일에는 약 2만명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하여 빔뻴로나시가 마비되였다.

1973년에 에스빠냐에서는 거의 700건의 파업이 일어났으며 여기에 30여만명이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에스빠냐는 자본주의적 농업, 공업국가이다.

공업에서는 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자본주의세계생산량에서 2위를 차지하는 수은과 그리고 쇠돌, 연, 주석 등 광물들을 캐내고있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선박, 기관차, 자동차, 전기기계, 동력설비 등을 생산한다.

그밖에 식료가공공업, 방직공업 등이 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외래독점자본에 심히 예속되여있다. 1973년 상반년에 에스빠냐에 투자된 외국독점자본총액은 180억 뻬세따이며 그 가운데서 거의 75%는 미제의 《포드》자동차회사를 비롯한 여러 독점회사들의 자본이였다.

에스빠냐에서는 또한 국가독점자본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국가독점자본은 현재 공업생산의 대부분 즉 수은채취의 90%, 선박건조의 50%, 석유가공공업의 75%, 인견사생산의 50%를 통제하고있다. 그 몫은 전체 주식회사들의 4분의 3을 넘는다.

농업부문에서는 로동인구의 약 절반이 일하고있다. 농업총생산액에서 농산물생산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호밀, 귀밀, 감자, 목화, 담배, 사탕무우, 올리브, 해바라기, 포도 등이다. 올리브생산량은 세계총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목축업은 농업총생산액의 30%를 차지한다. 집짐승은 소, 양, 염소, 돼지 말, 노새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류, 올리브기름, 포도주, 감귤류이며 수입품은 석유, 고무, 기타 공업제품, 섬유원료, 식량이다.

주로 미국을 비롯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무역을 하고있다. 대외무역에서 해마다 적자를 내고있으며 이것은 이 나라 재정형편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프랑꼬도당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는 더욱더 어려워지고있다. 1973년의 생계비는 전해 같은 기간보다 14—15% 올랐다. 이해 첫 3개월동안에만도 4만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났다.

1972년에 200만건의 로동사고가 일어났으며 (1950년의 4배) 교통사고로 9만 8천 200명이 죽거나 부상당하였다.

출판보도;통신 이에프이통신 (에스빠냐통신), 구라파통신,

신문 문도오브레로 (공산당기관지), 아라바 (국민운동기관지), 마드리드, 뿌에블로, 스패니쉬 데일리 뉴스

방송 에스빠냐국립방송, 에스빠냐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에 에스빠냐 에브로출판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69년 10월 7—17일까지, 1972년 11월 6—20일까지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이 두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뽀르뚜갈

(뽀르뚜갈공화국)

넓이 9만 2,200km²(아조레스, 마데이라군도포함)

인구 963만명

절대다수의 주민이 뽀르뚜갈사람이다.

국어는 뽀르뚜갈말

수도 리스봉(주민 82만 9,000명)

정 치

국회 일원제, 의원수는 130명, 임기는 4년이다. 국회내에 협의기관인 협동의회가 있다.

대통령 아메리코 데우수 토마스(1965년 7월—)

정부 총리 마르쎌로 까에따노(1968년 7월—), 외교부장 마누엘 빠뜨리씨오, 국방부장 오라씨오 레베르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1년 3월에 창건, 1926년 파쑈독재정권수립후 비법화됨, 총비서 알바로 꾼할, **전국인민행동**(집권당), **민족해방애국전선**(지도부는 알제리에 있다)

뽀르뚜갈은 악랄한 식민주의나라이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뽀르뚜갈은《중립》을 표방하면서 이딸리아와 히틀러독일을 도와주었다.

전후에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1949년 《마샬안》을 접수하고 미제의 침략도구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1년에는 미제와 《친선 및 호상원조협정》을 맺고 본토와 식민지들에 군사기지설치를 허용하였다. 1965년 8월에는 베쟈에 서독군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를 건설할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으며 1971년에는 아조레스군도를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로 떠맡기는 범죄적인 《라헤스군사기지협정》의 기한을 1974년 2월까지 연장하였다. 1966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로데시아 인종주의자들과 비밀군사조약을 맺음으로써 이 지역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데 적극 가담하였다. 1970년에는 기네와 세네갈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순순히 물러가려 하지않을뿐아니라 한치의 땅이라도 더 그러쥐고 예속시키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30페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미제를 비롯한 나토성원국들의 지원밑에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앙골라, 기네—비싸우, 모잠비끄에 13만명의 침략군을 투입하여 이 나라인민들을 반대하는 식민지전쟁을 벌리고있다.

1973년 1월 20일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의 창건자이며 총비서였던 아밀카르 카브랄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놈들은 식민지전쟁을 위하여 1973년에 미제로부터 땅크용 발동기 100여개를 끌어들였으며 100여명의 비행사놈들을 미국에 보내여 훈련시켰다.

그러나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앙골라, 기네—비싸우, 모잠비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커다란 타격을 받고있다. 기네—비싸우인민들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장기간에 걸친 완강한 반제반식민주의투쟁으로 1973년 9월 24일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은 국내인민들로부터도 완강한 반대에 부닥치고있다. 4월 8일 중부 뽀르뚜갈의 아베이로시에서 정부반대파의 대회가 진행되였다. 그들은 시위금지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벌렸으며 경찰들과 맞서싸웠다.

경제, 사회문화

뽀르뚜갈은 서구라파에서 경제가 가

장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경제의 주도적부문인 농업에서는 주민의 30%이상이 일하고있다. 전국의 근 40%가 부침땅이지만 알곡보다 포도, 과일 등의 수출용작물재배를 많이 한다. 포도원은 전국 각지에 있다. 올리브생산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알곡작물로서는 밀, 보리, 귀밀, 강냉이, 벼 등이다. 식량은 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한다. 집짐승으로는 소, 양, 돼지, 당나귀, 노새, 말을 기른다.

공업은 중석, 주석, 동, 쇠돌, 망간, 석탄 등 채광공업에 기초하고있으나 개발이 뒤떨어진 관계로 생산량은 적다. 년평균 석탄은 33만t, 쇠돌은 73만t, 주석은 700t, 중석은 3천t, 동은 4천t, 선철은 35만t, 강철은 40만t 정도 생산된다.

전력공업은 주로 수력으로 한다. 기계공업은 간단한 설비품과 디젤기관, 자전차, 재봉기 등을 생산하는 정도이다.

경공업에서는 식료가공공업이 기본이며 정어리통졸임, 포도주, 과일통졸임, 올리브기름, 제분, 사탕공장들이 있다.

뽀르뚜갈경제에서 코르참크나무껍질 생산과 그의 가공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 생산량은 세계총생산량의 절반이며 수출에서는 첫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코르크, 물고기, 통졸임, 포도주, 광물(중석, 황철광, 우라니움), 면사 및 면직물이며 주요수입품은 설비들과 기계, 원유, 원유제품 흑색금속제품 등이다.

서구라파나라들중에서 인민생활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생활이 곤난하여 해외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엔아이, 뽀르뚜갈통신

신문 아반떼(공산당기관지), 디아리오 다 만하(전국인민행동기관지), 디아리오 데 노띠씨아스, 디아리오 뽀뿔라르

방송 뽀르뚜갈방송. 뽀르뚜갈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6월 6일—13일까지 뽀르뚜갈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6월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지브랄타르

넓이 6.5km²

인구 2만 9,000명

주민은 대부분이 에스빠냐사람, 뽀르뚜갈사람, 이딸리아사람이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나 에스빠냐말도 많이 쓰인다.

정 치

영국사람인 총독 겸 군사령관이 통치하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브랄타르련대와 해군, 륙군, 공군부대를 주둔시키고있다.

지브랄타르는 8세기부터 아랍사람들의 성새로 되여왔다. 1462년에 에스빠냐에, 1704년에 영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그후 영국과 에스빠냐는 군사적요충지인 지브랄타르 령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오래동안 싸워왔다.

1963년 이래 에스빠냐는 미제의 사촉밑에 유엔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이를 거부해 나섰으며 1967년에는 국민투표를 조작하고 지브랄타르주민들이 마치나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지지하는것처럼 사태를 외곡하려고 책동하였다. 같은해 12월 유엔총회는 국민투표결과를 《거부》하였으며 1968년에는 지브랄타르문제해결을 위한 영국—에스빠냐회담을 호소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회담은 잘 진척되지 않고있다.

1973년 5월부터 몇차례에 걸처 지브랄타르문제의 해결을 위한 영국—에스빠냐회담이 진행되였으나 아무런 해결도 보지 못한채 7월 20일에 중지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지중해 일대에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기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암석으로된 좁은 갑과 바위를 파고 만든 지하실들에 항구시설, 원유창고, 무기고 등을 만들고있다. 최근년간 미제의 해군기지로 리용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지브랄타르에는 공업과 농업이 없다.

주민들은 바다기슭에서 어업을 한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지브랄타르를 자유무역항으로 선포하고 중계무역을 통하여 많은 상품을 팔아먹고있다. 지브랄타르무역항에는 매년 약 4천척의 상선들이 드나들고있는데 이 배들에 연료를 보급해주고 적지않은 수입을 얻고있다.

이 밖에 구라파와 아프리카대륙으로 가는 관광객들의 중간휴식장소로서 매년 50여만명의 관광객들이 드나들고있으므로 여기에서도 일정한 수입을 얻고있다.

자체로 생산하는 물건이 없기때문에 일체 소비품과 식량, 기계설비, 연료 등을 수입하고있으며 술, 담배, 원유제품들을 수출 또는 재수출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

정세개관

제3세계나라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드높이 이해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롭고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1973년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열화와 같이 끓어넘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륭성번영하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권위와 위신이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와 동정자들이 급속히 늘어난 한해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이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그들의 심장마다에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세차게 사품치고있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절실한 요구로, 추세로 되였다.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함께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과 각계 인사들, 국가수반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이 단행본으로 번역출판되였으며 신문, 잡지들에 광범히 소개선전되였다.

1973년에 뻬루에서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와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으며 메히꼬에서는 수령님탄생 예순한돐을 축하하여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조선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에스빠냐어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전기 《김일성전》 제3부를 에스빠냐어와 아랍어로 각각 번역출판하였다.

이미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 및 로작연구소조》들이 조직되여 주체사상을 연구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 여러나라들에서는 이해에 수령님의 로작만을 연구하고 보급선전하는 서점, 도서관들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였다.

이해에 꾸바에서는 《영웅조선도서관》과 《보천보도서관》을, 가이아나에서는 김일성동지로작서점들을 잘 운영하여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독자들에게 수령님의 많은 로작들을 보급해주고 열람시키였다.

가이아나의 수도 죠지타운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서점에서는 수령님의 로작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로작출판보급사업이 미처 앞서지 못할 때에는 책을 팔지 않고 열람만시켜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을 요구하는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에 대하처럼흘러들어 혁명투쟁의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같은 신념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이 대륙의 혁명적인민들과 벗들은 수령님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수억만 피압박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면서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표시하였고 우리의 조국통일방침에 절대적인 지지와 동정을 보내면서 우리 나라와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는 아르헨띠나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꼬스따 리까, 뻬루, 가이아나, 빠나마 등 많은 나라들과 친선적뉴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꾸바, 꼴롬비아, 에꽈도르를 비롯한 많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확고부동한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놈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성스러운 해방투쟁에 용감히 일떠서 싸우고있으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주, 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있습니다.》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5페지)

이해에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제국주의 특히 미제의 간섭과 침투를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며 자기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매장하는 제3세계의 당당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났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반미자주적인 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개별적인 나라나 혁명단체들이 미제와 싸우던 지난날과는 달리 서로 힘을 합치고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미제에 맞서 싸운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은 1973년 4월에 소집된 미주국가기구총회 제3차회의에서 이 기구를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도구로 리용해온 미제를 호되게 답새우고 침략적인 이 기구자체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칠데 대하여 한결같이 요구함으로써 미제로부터 형식적이나마 《지지》를 받아냈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하나로 뭉친 힘앞에서 미제는 그들자신이 꾸며낸 기구에서조차 자기의 침략정책을 내려먹일수 없게 되였을뿐만아니라 이 대륙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쫓겨나게 될 운명을 결코 면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20여개 나라들이 미제의 경제적략탈과 간섭 및 전복활동을 규탄한 1973년초의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와 범미경제사회리사회 회의들, 빠나마정부수반 오마르 또르리호스가 《빠나마는 결코 미국의 식민지나 보호령으로 되지않을것》이며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변혁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폭력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을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미제와 직접 대결을 선포하자 뻬루, 가이아나, 메히꼬, 꼴롬비아, 베네수엘라, 에꽈도르 등의 모든 라틴아메리카나라 대표들이 미제를 규탄하면서 운하지대를 빠나마인민에게 돌려줄것을 일치하게 주장한 1973년 3월 유엔안보리사회 연단의 목소리들은 라틴아메리카대륙이 더는 미제의 《고요한 뒤동산》이 아니며 제3세계의 한 전선으로서 이 지역에서 미제의 식민지체계가 걷잡을수 없이 허물어져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실례로 된다.

이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자기나라 뿐만아니라 이 대륙이 미제에게 예속되는것을 반대하며 자기 민족뿐만아니라 자기 대륙 전체인민이 미제의 발굽에 짓밟히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 교육부장들은 까

라까스에서 회합을 가지고 교육분야에서 미제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애국적인 민족교육의 실시를 호소하였으며 이해 11월에는 라틴아메리카력사에서 처음으로 라틴아메리카 외교부장회의를 열고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미제와 직접 맞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옹호를 위해 당당하게 투쟁할데 대한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전진해온 라틴아메리카의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이다.

1973년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자원은 라틴아메리카인민의 것이다》, 《미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물러가라!》는 힘찬 구호를 들고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 버리고 그우에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한계단씩 쌓아왔다.

미제의 준동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뻬루는 올해에 진보적인 사회경제적변혁과정을 동요없이 밀고나가 민족경제발전을 위한 기초를 닦았으며 아르헨띠나에서는 진보적개혁들을 실시하여 미제에 의한 나라의 예속을 끝장내고 우리 나라와 꾸바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비로소 이 나라의 민족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제국주의독점체들이 수십년간 략탈해가던 철, 동, 석유, 석탄 등의 주요 전략적지하자원과 광업, 석유공업 등의 주요 경제명맥을 국유화한 아르헨띠나, 뻬루, 베네수엘라, 에꽈도르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200마일령해권을 선포하고 령해자원도 찾아냄으로써 땅에서 뿐만아니라 바다에서도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을 꽉 조여놓았다.

뻬루, 아르헨띠나, 브라질, 에꽈도르, 니까라과, 빠나마, 우루과이, 살바도르의 혁명적인민들은 남미주의 이 령해에서 무진장한 천연가스와 세계 해저석유생산의 3분의 1, 세계어획고에서 3위를 차지하는 어로수역을 지켜 미제침략자들의 해적선들을 단호히 나포하고 벌금을 받아냈다. 한편 2월 23일 산 살바도르에서 200마일령해내의 자원부원들을 개발보호할 독점권을 가진다는것을 공동으로 선포하였다.

단합된 힘과 공동보조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략탈에 단호히 맞서 싸우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이해에 또한 리마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석유자원을 제국주의략탈로부터 공동으로 수호하며 공동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동력기구》를, 죠지타운에서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 사이에 경제 및 무역협조를 강화하며 단일한 시장에 참가함으로써 민족경제를 보호발전시키기 위한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을 새로 내옴으로써 자기들의 투쟁을 조직화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올려 놓았다.

지금 까리브해지역 정치지도자들속에서 울려나오고있는 《우리 까리브지역 사람들이 까리브해의 파도를 쥐락펴락할 때가 되였다》는 긍지에 찬 발언은 바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려는 이 지역 인민들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반미자주적인 지향이 라틴아메리카정세의 기본흐름이 되고 이 지역에서 제놈들의 지반이 뒤흔들리는데 불안해진 미제는 진보적변혁과정과 혁명운동을 멈춰보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미제에 의한 칠레에서의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은 이에 대한 하나의 실례로 된다. 미제는 칠레우익반동들을 부추겨 파쑈적인 군사정변을 일으켰으며 살바도르 알옌데 대통령을 죽이고 친미파쑈군사정권을 조작해냈다.

뻬루에서도 미제는 우익반동들을 벨라스꼬 알바라도정부를 반대하는데로 내몰았다가 뻬루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의하여 타격을 받았다.

그외에 우루과이에서 군사정변의 조작, 빠라과이, 니까라과, 온두라스, 과떼말라에서의 친미괴뢰정권의 유지를 위한 파쑈적인 반인민적폭압의 강화 등 미제의 모든 범죄적책동은 미제가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얼마나 죽을 기를 다쓰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겉으로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나라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 《협조의 시대》를 떠벌이고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기어이 저들에게 예속시키기 위한 악랄한 음모를 꾸미고있는 미제의 거듭되는 책동을 통하여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올해에 미제야말로 대륙나라들의 독립과 진보의 첫째가는 흉악한 원쑤이며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안전과 진보와 번영은 미제와 그의 부추김을 받는 반동세력과의 비타협적인 견결한 투쟁속에서만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고 힘을 합쳐 미제에 단호히 맞서 싸웠다.

칠레인민들은 반동적군사정변을 반대하여 항전애국전선, 전국항쟁리사회 등 투쟁단체들을 뭇고 유격부대들을 조직해나가면서 원쑤들에게 결정적공세를 들이대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올해 라틴아메리카의 정세흐름은 주체사상의 해살을 받아안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과 대륙의 단합된 투쟁을 막을수 있는 힘이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꾸 바

(꾸바공화국)

넓이 11만 4,524Km²

인구 855만 3,395명

주민은 에스빠냐계통의 백인, 물라트, 흑인으로 이루어졌다.

국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아바나(주민 175만 5,360명, 1970년)

정 치

대통령 오스발도 도르띠꼬스 또라도(1959년 7월 17일—)

혁명정부 혁명정부는 립법권과 집행권을 가진다. 총리 피델 까스뜨로 루쓰(1959년 2월 16일—), 외교부장 라울 로아 가르씨아, 무력부장 라울 까스뜨로 루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62년 3월에 《7월 26일운동》, 인민사회당, 《3월 13일혁명지도부》를 통합하여 《통일혁명조직》을 창건, 1963년초에 사회주의혁명통일당으로 고침, 1965년 10월 2일 사회주의혁명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차대회에서 당의 이름을 공산당으로 고침,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 **근로자로조중앙**(맹원 180만명, 1970년 현재), **공산주의청년동맹**(맹원 13만 5천명, 1970년현재), **녀성련맹**(맹원 약 130만명), **전국소농협회**(맹원 22만 7천명), **혁명수호위원회** 1960년에 반혁명과의 투쟁을 목적으로 조직된 대중적인 단체, 현재는 사회질서유지에 참가하고있으며 교육, 보건위생사업과 각종 대중적인 운동을 벌릴때 정권기관들을 협조한다. 맹원 370여만명

꾸바는 1959년 1월 1일 미제와 그 앞잡이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승리를 이룩한 서반구의 첫 사회주의국가이다. 1959년 2월 16일에 꾸바력사상 처음으로 피델 까스뜨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꾸바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미국의 코앞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29폐지)

혁명승리후 혁명정부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꾸바인민은 1973년을 무장투쟁의 첫 봉화를 올린 1953년 7월 26일을 기념하여 《〈몬까다〉 20주년의 해》로 부르기로 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한의 예비를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1973년에 혁명후 사회주의건설년간에 공화국에서 일어난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 변혁들에 맞는 새로운 법안(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가 진행되였다. 새법안은 사회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장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1973년에 꾸바인민은 피델 까스뜨로총리가 참가한 무장봉기 스무돐(7월), 혁명군절 17돐(12월)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12월에 무력부장 라울 까스뜨로를 비롯한 군사지휘관들과 군관들에게 새 군사칭호가 수여되였다.

1973년 11월에 꾸바근로자중앙 제13차대회가 아바나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12차대회 이후 근로자중앙의 사업을 총화하고 앞으로의 과업들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특히 적은 비용을 들여 질좋은 생산품을 더많이 생산할 결정을 채택하였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대회에서 연설하면서 1970년부터 통화팽창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가까운 10년어간에 그것을 매년 6%씩 낮출것을 예견한다고 지적하였다.

꾸바혁명을 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미제는 또다시 1973년 2월에 바하마군도공해상에서, 10월에 까리브해의 공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고있던 꾸바의 어선을 불의에 습격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꾸바에 대한 미제의 봉쇄고립책동에도 불구하고 1973년에 리비아, 자이르, 적도기네,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이 꾸바를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던 아르헨띠나가 다시 국가관계를 회복하였다. 1973년말까지 꾸바는 7개의 라틴아메리카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에 꾸바—민주독일 직통항공로가 개설되였다.

혁명정부는 1973년 9월에 아랍나라들을 침략한 이스라엘과 칠레반동군사정권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3년에 까스뜨로총리는 9월 알제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으며 까스뜨로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공산당및정부대표단이 웰남민주공화국을 방문(9월)하였다. 또한 이 방문길에 이라크, 인도,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단기 방문하였다.

1973년에 까스뜨로총리의 초청으로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스꾸동지가 8~9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총비서 후싸끄동지가 4월에,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내각총리 쓰딴꼬 또도로브동지가 11월에 꾸바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꾸바는 사회주의적농업—공업국가이다. 공업부문의 100%, 농촌경리의 70%가 사회주의경리에 망라되여있다.

농업에서 주되는 작물은 사탕수수이다. 꾸바는 세계에서 사탕을 제일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이다. 혁명정부는 사탕생산을 늘이기 위해 사탕수수재배면적을 늘이고 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해 힘써왔다. 1973년에 사탕수수씨붙임량은 10만까발레리아(1까발레리아=13.4헥타)였다. 1973년에 2천 800대의 사탕수수수확기와 1만여대의 사탕수수적재기들이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대신하였다. 전체 부침땅의 5분의 1(150만헥타)을 차지하는 사탕수수농장들에서 짐을 싣고부리우며 나르는 작업의 80%, 사탕수수가을과 파종의 40%가 기계화되였다. 사탕실수률을 높이며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사탕수수분쇄시간을 줄이기 위한 투쟁도 전개하고있다.

혁명정부는 사탕생산일면에만 치우치는 농업의 기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벼, 강냉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작물을 심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1972년에 삐나르 델 리오주에서 5만 5천t의 벼를 거두었다.

그밖에 열대농산물인 귤, 커피, 레몬, 코코아, 파인애플과 담배, 목화밭도 늘어나고있다.

정부의 축산업발전을 위한 조치로 소, 닭, 돼지, 젖소 등 집짐승들이 늘어나고 우유생산도 증대되고있다. 1973년에 규격방목지는 3천 800여개였다. 1972년에 소는 730만 2천여마리(그중 젖소 466만 7천여마리)로서 혁명전의 4.2배에 달하고있다. 1972년에 닭알은 440개의 닭우리에서 계획보다 3천500만개 더많은 15억 700만개가 생산되여 한사람당 닭알이 년평균 180알씩 차례졌다. 1972년에 닭고기생산은 23만 3천 19t이였다.

혁명정부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유리한 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수산업발전에 많은 힘을 돌려왔다. 정부는 최근년간 선박공업에 근 15만딸라를 투자하였으며 한해동안에만도 20여척의 크고 작은 기계배를 만들고있다. 1972년현재 현대적트랄가공모선을 비롯하여 3천여척의 크고작은 고기배를 가지고있다. 1973년에 15만 200t의 물고기를 잡았다.

혁명정부는 사탕공업을 비롯하여 기간공업, 경공업부문에 많은 힘을 넣고있다.

꾸바에는 년산 1천만t의 생산능력을 가진 152개의 제탕공장이 있다.

1973년에 전력 45억 8천만KwH, 강철 18만t이 생산되였으며 1973년에 아바나 교외에 《마리오 포르뚜니》가스공장이 새로 조업하였다. 35헥터의 부지면적을 가진 씨엔푸에고스의 화학비료공장을 비롯하여 3개의 큰 화학비료공장에서만도 해마다 90만t의 각종 비료들이 생산되고있다.

기본건설부문에서 1973년에 혁명전에 비해 부재생산 4.5배, 세멘트 4.6배, 벽돌 3.2배, 대리석 3배의 장성을 보았다. 4만 2천여명의 로동자를 망라하는 230여개의 건설작업반들이 살림집건설에 참가하여 1972년에 1만 5천세대, 1973년에 2만 5천여세대의 살림집을 지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방직, 고기랭동 및 가공, 소젖가공, 빠터, 담배가공, 통졸임, 식료가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운수에서는 철길과 배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철길의 총 연장은 1만 4천 490Km이며 도로연장길이도 1973년에 혁명전의 2배로 늘어났다. 해상상선대의 총 배수량은 1973년에 50만t이였다.

주요 수출품은 사탕, 담배, 커피, 광물류, 열대과실 등이며 석유와 그 가공제품, 철강재, 기계, 설비, 쌀 등을 수입한다.

꾸바는 라틴미주에서 문맹이 완전히 퇴치된 첫 나라이다. 교육사업발전을 위해 7억뻬소의 자금을 투하하였다. 1973학년도에 인민학교에서 170만명, 초등 및 중등 학교에서 202만 3천명, 대학에서 2만 6천 600여명이 공부하였다. 인민학교수는 1만 5천개로, 농촌학교는 1만 2천 500개이상으로 늘어났다. 1973년에 아바나교외에 2천여명이 공부하는 전자공업대학이 새로 건설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로동학교들에서 1973년에 43만 2천여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공부하였다. 1972년에 2천 100만부의 책이 출판되여 인구 1인당 3권의 책이 차례졌다.

로임폰드는 1967년에 27억 7천 300만뻬소로부터 1973년에는 36억 9천만뻬소로 늘어났다. 사회보험료는 5억 4천 700만뻬소로 높아졌다.

출판보도; 통신 쁘렌싸 라띠나

신문 그란마(공산당 기관지), 후벤뚜드 레벨데(공청기관지)

잡지 베르데 올리보(혁명군주간잡지), 꼰 라 빠르띠아 엔 알또(혁명수호위원회기관잡지), 보헤미아

방송 꾸바독립방송, 국립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8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68년 8월 6일 경제및과학기술협정을 맺었다.

삐나르 델 리오시에 《영웅조선》도서관이 있으며 아바나시에는 우리 나라 혁명전적지 보천보의 이름을 단 《보천보도서관》이 있다.

그밖에도 꾸바에는 꾸바조선친선협동농장,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모습을 상징하는 《천리마조선소》, 호쎄 안또니오 싸꼬중학교(친선학교)가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1973년 6월 23일 연설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그란마》가 실었다.

꾸바정부는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4월 6일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에 대한 회답편지에서 외국의 간섭없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나라 정부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1973년 11월 15일 제28차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의 조선문제에 관한 토의시에 꾸바대표는 《조선의 분렬은 양키의 침략과 간섭의 결과이며 유엔이 미제에 순종하여 취한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는 유일한 길은 〈유엔군사령부〉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김일성동지와 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취한 시종일관한 립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1973년 2월 7일 꾸바민주법률가협회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꾸바각지에서 련대성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라스 빌라스주의 싼따 끌라라, 삐나르 델 리오주의 건설로동자들과 광부들, 아바나주의 마야베께방직공장 로동자들과 철도공장 로동자들이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가졌고 수산물가공공장, 영웅조선도서관, 안또니오 기떼라스지구 소농협회, 고급중학교 등에서 좌담회들이 진행되였다.

1973년 12월에 꾸바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꾸바정부대표단(2월), 정부친선대표단(7월), 공청대표단(10월), 혁명수호위원회대표단(1월, 8월), 기자대표단(10월), 건축가대표단(10월), 방송국대표단(10월), 축구선수단(6월), 예술단(8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및정부대표단(7월), 정부대표단(3월), 정부무역대표단(11월), 직맹대표단(11월), 사로청대표단(12월), 기자대표단(9월), 작가, 예술가대표단(3월), 사회과학자대표단(4월), 건축가대표단(11월)이 꾸바를 방문하였다.

12월 6일 우리 나라와의 1974년도 통상교류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하였다.

메 히 꼬

(메히꼬합중국)

넓이 197만 2,546Km²

인구 5,620만명(1973년 7월)

주민의 60%가 메티스(인디안과 에스빠냐인의 혼혈인)이며 이밖에 인디안이 30%, 백인이 10%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메히꼬(주민 760만 6,000명)

정 치

의회 상하량원제, 상하량원의석의 대부분을 립헌혁명당이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수반이다. 임기는 6년이며 재선될수 없다. 대통령 루이스 에체베리아 알바레스(1970년 12월—), 외교부장 에밀리오 라바싸, 국방부장 에르메네힐도 꾸엔까 디아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 15일 창건, 1973년 11월 제16차대회 진행, 제1비서 아르놀도 마르띠네스 베르두고, **립헌혁명당**(집권당), **국민행동당, 인민사회당, 로농당, 민족주의당, 민족해방운동, 로동자농민총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련맹, 메히꼬조선친선협회** 1970년 10월 결성

300년간 에스빠냐의 식민지였던 메히꼬는 독립후에도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의 침략을 받아왔다. 1942년까지의 기간에 22차에 걸쳐 미제의 무력침략을 받아왔으며 240만평방키로메터의 광활한 령토를 미국에 강탈당하였다. 메히꼬인민들에게는 자기 나라 령토의 절반이상을 강탈한 미제에 대한 증오심이 력사적으로 뿌리깊이 박혀있다.

메히꼬인민들은 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워왔으며 메히꼬정부는 꾸바에 대한 미제의 고립봉쇄정책을 반대하여 확고한 불간섭원칙을 견지하고 꾸바와의 관계를 끊을데 대한 1961년 4월 《미주국가기구》의 결정을 거부하였으며 꾸바와 외교관계를 견지하여왔다.

인민들의 반미반정부적인 감정이 더욱 심각화되고있는 가운데 진행된 1970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는 립헌혁명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50년간 정권을 잡고있던 립헌혁명당의 1당독재가 다시 유지되게 되였다.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46%가 기권하였다.

미제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며 토지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하여 에체베리아대통령은 집권후 《토지는 밭갈이하는 사람들에게 차례져야 한다》는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한 《농지개혁》법을 승인하였다. 또한 정부각료들을 젊은 사람들로 꾸리고 현지에 나가 나라의 형편을 료해하는 일도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길로 나가기 위한 일련의 반미적조치도 취하였다.

메히꼬정부는 자기 나라 령해에서의 미제의 물고기략탈을 합법화하였던 불평등한 1969년 《협정》을 무효로 선포하고 1971년 1월부터 나라의 령해권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어업발전계획을 도입하였다.

1972년에 메히꼬는 해양국들이 자기 령해에 대한 절대적인 자주권을 누리는 외에 200마일 령해의 자연부원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질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200마일령해권을 수호하는 뻬루와 에꽈도르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1973년 1월에는 메히꼬령해에서 외국어선들이 물고기를 잡는것을 금지하였으며 해안보위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10척의 순찰함을 무어 그 배들에 메히꼬기발을 띄우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연설한 에체베리아대통령은 바다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나라의 정치적 및 경제적 독립을 위한 메히꼬인민의 완강한 투쟁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1973년 3월에 메히꼬정부는 외국의 기술을 리용하며 민족자본투자를 장려

하며 외국자본투자를 조절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이 법령들은 외국기술의 도입이 민족경제발전에 리로워야 하며 석유, 전기, 교통운수와 같은 기간적경제부문들은 메히꼬기관들에 의해서만 경영될수 있으며 외국자본은 광물자원에 대한 채굴권과 특지및 수산자원 통제권이나 메히꼬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가질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10월에 외래독점자본가놈들이 가지고있던 망간을 생산하는 《아우뜰란광업회사》와 식료공장, 담배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정부는 자기 나라에서의 미중앙정보국의 파괴암해책동을 규탄하였으며 4월 미제의 문화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며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미제영화상영을 금지할것과 《미국식생활양식》을 설교하는 미제의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을 금지시키는 2건의 법령을 발포하였다. 한편 메히꼬정부는 미제략탈자들이 이 나라에서 450점의 문화유물을 도적질해가는것을 붙잡아 호된 징벌을 가했다.

10월 14일 메히꼬시에서는 50여만군중들이 집회를 열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며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였다.

1973년에 메히꼬사회계와 신문들은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도전행위에 단호히 맞서 나서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여서는 안된다》, 《메히꼬는 미국의 세력권지대의 일부로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자주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였다.

1973년에 민주주의적자유와 생활상권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도 전개되였다.

1월에 《싼끄리쓰또발》사탕공장 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리며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할것을 요구하여 50일간 파업한것을 비롯하여 메히꼬종합대학 교원들과 로무자들의 파업,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대학생들의 투쟁이 있었다.

11월에 메히꼬공산당 제16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6년간의 메히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를 하였으며 당의 새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고 당의 당면과업과 전략 및 전술을 규정하였다. 대회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메히꼬는 1971년 11월에 장개석도당의 《대사관》을 추방하고 1972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에 탄자니아(2월), 가이아나(3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6월)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에체베리아대통령이 3월 29일부터 4월 24일까지 카나다, 영국, 벨지끄, 프랑스, 쏘련 및 중국을 방문하였다.

11월 메히꼬시에서 제1차라틴아메리카진보청년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메히꼬, 아르헨띠나, 뻬루 등 12개 나라 청년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메히꼬는 중앙아메리카나라들중에서 비교적 발전한 농업—공업국가이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광업이다. 인구의 46%가 농사하며 농업생산액은 총생산의 10%밖에 안된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15%(3천만헥타르)내외이다. 그중에서도 43%는 비가 적게 오기때문에 관개시설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수 없다. 기름진 땅의 대부분은 대토지소유자들이 독차지하고있으며 400만호의 농가가 땅을 전혀 못가지고 소작살이를 하거나 고용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토지문제는 이 나라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으며 농촌경리의 침체로 하여 메히꼬는 농업국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1973년에 정부는 농업생산을 올리기위해 전국관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시켰다. 1973년말 현재 22개주에서만도 212개의 소규모의 관개공사들이 이미 끝나 3만 3천헥타르의 땅에 물을 댈수 있게 되였다. 결과 1973년에 이 나라의 농목축 생산물의 생산량은 그 전해에 비하여 7% 늘어났다.

주요농산물은 강냉이, 밀, 사이잘삼, 목화, 커피, 사탕수수, 담배 등이다. 부침땅의 절반이상에는 강냉이를 심으며 사이잘삼은 세계적공급량의 약 절반을 생산한다. 해마다 강냉이는 약 900만t, 밀은 220만t, 목화는 50여만t 생산된다. 1972~1973년도의 농산물수출량은 그 전년도에 비하여 21% 늘어났는데 그중 커피수출량이 85%, 남새가 40%이상 늘어났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이다. 은생산량은 해마다 1천 300t이상으로서 세계 제1위이며 1970년에 그것은 자본주의세계 총생산량의 6분의 1을 차지하였다. 그외에 금, 아연, 연, 동, 철, 류황(생산량은 세계 2위), 석유 등 지하자원이 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30%이다.

메히꼬는 1971년부터 민족경제발전을 주장하면서 민족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하며 외국자본을 부차적으로 받아들이고있다.

1971년 8월에 외국독점자본이 장악하고있던 카나다동광회사(메히꼬 동생산량의 60%를 생산)를, 1972년 5월에는 범아메리카류황회사(류황생산량의 75%를 생산)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메히꼬광물생산의 98%를 메히꼬회사들이 장악하게 되였다.

정부는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근해의 수산자원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였으며 기술자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하여 해안지역들에 30개의 수산기술학교들을 세웠다. 민족경제발전을 위한 이러한 조치들로 하여 1972년에 이 나라의 국민총생산은 1971년에 비하여 약 7% 늘어났다. 1972년에 국영 석유화학, 동력, 강철, 세멘트 및 동 생산은 1971년에 비하여 10% 늘어났다. 물고기생산량은 1971년에 12%, 1972년에 10% 늘어났으며 1973년에는 32만 6천t에 이르렀다.

메히꼬대외무역의 약 4분의 3이 미국시장에 의존되여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오래동안 대외무역에서 많은 적자를 내고있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확대를 장려하고 세계 여러곳에 새시장을 개척하였다. 1972년말까지에 메히꼬는 120여개 나라 및 지역들의 시장에 수출을 확대하였다. 1972년에 메히꼬는 안데스조약성원국들과 정식 경제협조관계를 수립하였다. 1972년에 대외무역에서 수출액은 1971년에 비하여 22.9% 늘어났다.

주요수출품은 과일, 커피, 사탕, 고기를 비롯한 식료품과 목화, 동, 연, 은이며 수입품은 기계, 설비, 생활필수품이다.

실업자, 반실업자수는 1973년 3월 현재 600만~700만명이며 특히 1950년에 태여난 사람들 가운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20%에 불과하다.

출판보도; **신문** 오뽀씨시온(공산당기관지), 오바씨오네스, 엘 뽀뿔라르, 엑셀씨오르, 엘 나씨오날, 울띠마스 노띠시아스, 엘 디아

잡지 씨엠뿌레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10월에 메히꼬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을 축하하여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조선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에스빠냐어로 출판하였다.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영광찬란한 전기 《김일성전》 제3부를 에스빠냐어와 아랍어로 번역출판하였다.

과떼말라

(과떼말라공화국)

넓이 10만 8,889Km²
인구 535만명(1971년)
주민은 인디안(54%), 혼혈인(35%) 기타 백인과 흑인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과떼말라(주민 약 77만명)

정 치

국민의회 일원제, 의원수 55명
정부 대통령 까를로스 마누엘 아라나 오소리오(1970년 7월—), 외교부장 로베또 이바르겐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9년 9월 28일 창건된 공산당을 1952년에 로동당으로 고침, 총비서 베르나르도 알바라도 몬손(1972년 9월 피살), **혁명당, 국민해방운동**(집권당), **립헌민주당**(집권당), **민족혁신당, 기독교민주당, 자치로조련맹, 애국로동청년**

과떼말라는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한 이후 미제의 끊임 없는 략탈을 당해왔다. 1898년에 이 나라에 침투한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를 통하여 미제는 과떼말라의 주요경제명맥을 틀어쥐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미제는 과떼말라를 제놈들의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과떼말라에서 미제는 괴뢰정권이 인민들로부터 고립될때마다 빈번한 군사정변을 일으켜 군사독재정권을 조작해내는 교활한 수법으로 이 나라에 친미군사독재체계를 수립하였다.

과떼말라인민들은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의 가혹한 략탈과 탄압책동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섰다. 1962년부터 반동적인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과떼말라유격대들의 무장투쟁이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1963년에 유격전선을 하나로 통합하여 과떼말라봉기무력을 창설하였다.

1970년 7월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까를로스 아라나 오소리오가 집권하였으며 이 친미독재정권은 《계엄령》, 《통행금지령》, 《평정계획》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반미반독재투쟁에 궐기한 진보적력량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오소리오친미독재정권이 조작된지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2천여명의 애국자들이 학살되였다.

1972년 9월에는 과떼말라로동당 총비서 알바라도 몬손과 당중앙위원회 위원 4명을 체포하여 가혹한 고문을 가한 끝에 비밀리에 처형해버리는 파쑈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과떼말라혁명가들과 근로자들은 손에 무장을 튼튼히 틀어잡고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1973년 2월 애국적무장인원들의 한 소조는 꾸아떼뻬끼시주변에 있는 악질지주놈들의 《싼 후안》농장과 《라 에스뻬란사》농장을 들이쳐 점거하였다. 이해 5월에 1천여명의 농민들이 지주놈들의 농장을 점거하고 땅을 요구하여 투쟁하였으며 8월에는 《밀린 임금을 내라》는 구호밑에 전국을 휩쓴 교원들의 파업이 있었다.

1974년 1월 2일에는 3천명의 철도로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철도운수체계를 마비상태에 빠뜨렸다.

과떼말라 친미군사독재정권은 대외적으로도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철저한 대미추종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하여 손꼽히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과떼말라는 주민의 3분의 2가 농사를 짓고있는 뒤떨어진 농업국이다. 농업인구의 2.2%에 해당하는 한줌도 못되는 지주놈들이 전체 토지의 70.5%를 독점하고있다.

농업에서는 수출용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목화 등 열대작물재배를 전문으로 하고있다. 특히 이 나라의 커피는 그 질이 좋은것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커피는 매해 10여만t씩 생산되는데 수출액의 약 35%를 차지하고있다.

알곡작물로서 강냉이, 강남콩, 벼 등이 있으나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한다.

연, 아연, 은, 안티몬, 크롬 등의 지하자원이 있으며 림산자원이 많다.

이 나라 경제의 주요명맥은 사실상 《푸른 마귀》라고 불리는 미제의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의 통제하에 있다. 이 회사는 과떼말라의 전통적인 수출용 열대농작물인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수수 재배지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을뿐아니라 철도, 항구, 발전소, 통신시설, 상하수도, 병원, 교회 등을 틀어쥐고있다. 이 회사는 또한 광산들까지 장악하고 지하자원을 략탈해가고있으며 이 나라 수출의 4분의 3을 틀어쥐고 매해 평균 1억딸라이상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무역은 주로 미제와 하며 서독, 일본군국주의자들과도 하는데 해마다 적자를 내고있다.

1973년에 이 나라에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값이 50% 이상이나 뛰여올랐는데 특히 강냉이 값은 2배, 감자값은 300%나 비싸졌다. 살림집은 1973년 2월 현재 76만 4천세대이상이 부족하였다.

10세이상 주민들의 63%가 문맹자이다.

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베르다드(로동당기관지), 쁘렌싸 리브레, 라 오라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과떼말라애국로동청년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살바도르

(살바도르공화국)

넓이 2만 1,393Km²
인구 370만명(1974년.1월)
주민의 대부분이 인디안—구라파 혼혈인이며 이밖에 백인, 인디안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산 살바도르(주민 47만 1,860명)

정 치

의회 일원제, 1972년 3월 선거에서 국민화해당이 37석, 기독교민주당이 15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 아르뚜로 아르몬도 몰리나(총리 겸임, 1972년 7월 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에 창건되여 1932년이후 비법화됨, **국민화해당**(집권당) 1930년에 창건, **기독교민주당** 1960년 창건, **살바도르인민당, 민족진화공화당, 4월및5월혁명당** 1959년 창건된 좌익정당, **혁명당** 1967년에 금지된 혁신행동당의 후신, **민족민주련맹** 1969년에 조직, **민족야당동맹** 진보적야당세력을 망라한 통일전선체, **통일로조련맹, 근로자전국련맹, 근로자총련맹, 로조총련맹, 혁명청년동맹**

살바도르는 1839년에 독립한후 미제의 침략과 간섭정책으로 내란과 정변이 빈번히 일어나 정권교체가 아주 잦았던 나라이다. 집권자들은 모두 친미독재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이 나라는 1947년에 미제가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을 꾸며내기 위하여 조작한 《유엔조선위원단》에 참가하였고 1950년에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에 참가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만행을 감행하였다.

살바도르는 1962년에 《빈공법》을 내왔고 이해 4월에는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살바도르는 미제의 침략적군사기구인 《미주방위리사회》에 들어갔고 이 나라의 수도 산 살바도르에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중미국가기구》본부가 있다.

1973년 2월말 이 나라의 수도 산 살바도르에서 《몬떼비데오그루빠》회의가 있었다. 이 그루빠에는 살바도르를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200마일령해권을 주장하고 있는 9개나라가 망라되여있다. 이 나라들은 앞으로 200마일 령해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도 단호히 맞서 싸울것을 결의하였다.

살바도르 신문 《라 쁘렌싸 그라피까》 1973년 2월 27일호는 론설을 발표하여 200마일령해권을 수호하는것은 나라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의 자원을 수호할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973년 4월에 진행된 《미주국가기구》총회 제3차회의에서 살바도르대표는 미제가 조작해 놓은 《범미체제》와 《미주국가기구》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리익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칠것을 요구하였다.

이해 8월에 살바도르는 이웃 나라인 온두라스와의 《전쟁상태》를 끝장내고 평화조약을 맺기로 합의하였다. 살바도르는 1974년 1월 5일 쏘련, 웽그리아, 벌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무역협정을 맺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살바도르는 주민의 64%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는 농업국가이다.

농업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하여 수출용 커피생산일면에만 치우치고있다.

커피는 농산물생산액의 40%, 수출총액의 44%이상, 외화 총수입의 50%를 보장하는 기본 수출작물로 되여있다.

커피는 대부분 대농장들에서 재배되고있으며 인구의 4%를 차지한 대지주들이 커피생산을 거의 독차지하고있다. 이 나라는 자본주의나라들 가운데서 브라질, 꼴롬비아 다음가는 세번째 커피생산국이지만 그 대부분을 미제가 헐값으로 략탈해가고있다. 농촌에는 《소작제도》가 있다.

농산물은 커피(년산 13만 8천t), 목화(4만 6천t), 사탕(약 11만t), 헤네껜(커피마대용 섬유원료)이며 그밖에 벼, 수수, 강남콩, 콩, 기장 등 알곡작물이 재배되고있다.

집짐승들로는 소, 돼지를 기른다.

공업에서는 수출용 농산물가공과 방직, 세멘트, 석유정제 공업과 헤네껜을 원료로 하는 마대생산이 있다.

1971년초 현재 국가채무는 1억 3천100만딸라, 그중 다른 나라에 진 빚이 9천 200만딸라였다.

수출품은 커피, 목화, 사탕, 새우, 화학제품, 면직물이며 수입품은 기계설비 및 운수수단과 화학제품, 식료품, 석유이다. 농촌주민의 40%가 완전실업 상태에 있다.

살림집은 1972년말현재 44만 5천세대나 부족하였다.

학령아동들의 태반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으며 10살 이상되는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다. 대학은 2개밖에 없다.

출판보도; 신문 엘 디아리오 데 오이(중립계), 라 쁘렌싸 그라피까(보수계)

방송 살바도르방송, 중앙아메리카텔레비죤방송

온두라스

(온두라스공화국)

넓이 11만 2,088Km^2

인구 278만 1,000명(1973년 6월)

주민중 인디안과 에스빠냐인의 혼혈인(메티스)이 91%, 인디안이 6%, 흑인이 2%, 백인이 1%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떼구시갈빠(주민 21만 8,510명)

정 치

국회 일원제이며 64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였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오스왈도 로뻬스 아렐라노(1972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7년에 창건되여 1933년에 비법화되면서 해산되였다가 1954년에 재건, 1956년에 다시 비법화, **국민당**(일명 보수당, 집권당), **자유당** 1963년 군사정변이전까지 집권당으로 있은 반동적인 정당, **혁신통일당** 1972년 군사정변후 창건, **근로자총동맹** 1964년 창립, **온두라스조선친선협회** 1973년 8월 13일 결성, 위원장 호세 마리아 빨리씨오스.

온두라스에서는 독립후 빈번한 군사정변과 기만적인 선거놀음을 통하여 두정당인 국민당과 자유당이 엇바꿔가면서 100여년간에 걸치는 독재정치를 실시해오고있다.

1972년 12월에 군사정변이 있었으며 로뻬스 아렐라노가 집권하였다.

온두라스 인민과 현 정부는 나라의 자주권과 자연부원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1971년에 미제의 침략도구 《중미방위리사회》에서 단호히 탈퇴한 온두라스정부는 1974년초에 들어서면서 미제와 외래제국주의독점체들의 관할하에 있는 산림자원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줄것을 예견한 토지개혁안을 만들었다.

온두라스는 1974년 3월에 라틴아메리카의 7개 바나나생산국들과 함께 바나나수출국동맹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바나나수출가격을 올릴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온두라스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커피판매를 중지하였다.

1974년 2월에 있은 미주국가 외교부장회의에서 온두라스대표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끊어버리고 미제독점체들의 략탈행위에 종지부를 찍을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라틴아메리카특별조정위원회 회의에서도 미제의 략탈적 《관세장벽정책》을 폭로규탄하고 미제의 경제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대륙나라들이 행동통일과 협조를 강화할것을 강조하였다.

1974년 2월에 온두라스의 오스왈도 로뻬스 아렐라노대통령이 빠나마를 방문하였으며 여기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온두라스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자주권존중, 내정불간섭, 민족자결의 원칙을 지킬것을 강조하고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1973년 8월 온두라스는 1969년에 시작된 살바도르와의 오랜 《전쟁상태》를 끝장내고 평화조약과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바나나산지이다. 바나나는 해마다 100만t

이상 생산되며 이 나라 재정수입의 주요한 원천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수출작물인 바나나와 커피는 미제의 독점회사들인 《유나이테드 프루트》, 《스탠다드 프루트》가 독점하고있으며 이 회사들은 온두라스에 방송, 철도, 은행까지 두고 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커피(2만 8천t)외에 목화(3천t), 강냉이(37만 5천t), 당콩(5만여t), 사탕수수(약 7만t), 벼(3만t) 등이다.

집짐승들로는 소, 돼지, 말이 있다.

공업부문에는 금, 은 광산들이 있는데 그것은 미제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민족공업으로는 석유가공, 사탕, 통나무켜는공장 등의 중소규모공장들이 있을뿐이다.

온두라스가 다른 나라에 진 빚은 1972년말 현재 4억렘삐라였다.

철길의 길이는 총 1천 300Km이며 도로의 총연장길이는 3천 600Km이다.

수출품은 바나나(총수출액의 3분의 2), 커피, 은, 목재 등이다.

미제의 가혹한 략탈정책으로 근로대중의 태반이 귀틀집과 빈민굴에서 살고있으며 1972년말 현재 로동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25%가 실업상태에 있다. 1971년 1월부터 1972년 8월까지에 생계비는 40% 올랐다. 10살 이상 주민의 63%가 글을 모르며 학령아동들의 6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라 가쎄따(정부기관지), 엘 뿌에블로, 꼬르레오 델 노르떼(무소속)

방송 온두라스방송, 온두라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8월 13일 온두라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영령온두라스

넓이 2만 2,965Km²

인구 12만명(1971년)

주민의 75%이상이 흑인과 물라트이며 인디안은 17%이다.

공용어는 영국말

행정중심지 벨리제(주민 4만 2,000명, 1971년)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영국총독이 이 나라의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있다.

국회 량원제의 최고립법기구이다. 상원 8석, 총리의 추천으로 총독이 임명한다. 하원 18석, 《선거》한다.

정부 1964년 1월 1일부터 《새 헌법》이 실시되면서 종래의 《행정평의회》대신에 《자치정부》가 수립되였다. 총리 죠지 프라이스(인민통일당 당수)

정당, 사회단체; 인민통일당 1950년에 조직되였고 1964년부터 집권당이다. 국회에서 17석을 차지하고있다. 당수 죠지 프라이스, **민족독립당** 1958년에 창건된 야당이며 국회에서 1석을 차지하고있다. **인민민주운동** 1969년에 조직, **영령온두라스로동자진흥총동맹**

영령온두라스는 1862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자메이카에 있는 영국총독의 통치를 받게 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제독점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였다.

민족적자주권을 전취하며 식민지통치를 끝장내려는 이 나라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64년 1월 1일부터 국방, 외교 등을 제외한 제한된 《내부자치제》가 실시되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에 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 군사연습소동을 벌려오다가 1971년초에 과떼말라의 항의에 의하여 자기 함대를 철수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로동인구의 39%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으며 농업과 림업, 수산업이 국민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씨붙임땅은 약 20만헥타이며 주요농산물은 사탕(년산 5만t), 귤(4만 4천여t), 쌀(7천400t), 야자, 바나나, 고무 등이다. 식량은 수입하고있다.

집짐승은 소, 돼지, 말, 노새, 당나귀를 기른다.

이 나라에서 마호가니채벌은 껌의 원료인 티크르의 채취와 함께 주요산업의 하나이다.

몇개의 사탕공장과 과일가공공장이 있다.

철길은 40Km, 자동차 길은 850마일이며 수송의 대부분을 바다로 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사탕(50%), 귤, 과일즙(약 20%), 목재(5%)이다. 식량과 기계류, 생활필수품을 수입한다. 대외무역은 영국과 미국이 독차지하고있다.

원주민들의 대부분이 글을 모르며 소학교외에 중학교와 전문 및 기술 학교들이 몇개 있다. 아동사망률이 높다.

니까라과

(니까라과공화국)

넓이 13만Km²

인구 198만명(1970년)

주민은 에스빠냐사람과 인디안의 혼혈인인 메티스가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밖에 10만명정도의 흑인들, 약 3만명의 인디안이 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마나과(주민 39만 8,000명, 1970년)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임기 6년인 16명의 의원과 종신의원인 이전대통령 2명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임기 6년인 42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였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아나스따시오 소모사 데바일레(1967년 5월—)

정당, 사회단체; 사회당 1925년에 창건되였던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4년에 창건, 1945년에 비법화, 1973년 11월 10차전국대회 진행, **국민자유당**(집권당) 친미부르죠아지와 대농장주들의 리익을 대변, **정통보수당** 지주들과 상업부르죠아지들 및 교권주의자들의 리익을 대변, **보수당** 1957년에 정통보수당에서 떨어져나와 조직, **독립자유당** 소모사의 독재를 반대, **기독교사회당** 1957년에 창전, **공화동원당** 1958년에 조직된 당으로서 소부르죠아지와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싼디노민족해방전선** 니까라과에서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유격투쟁을 지도, 제1비서 까를로스 쫀세라, **로동총련맹** 1949년에 조직된 독재정권당국의 어용로조

1936년에 니까라과군사령관이였던 소모사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정권에 틀어앉은후 니까라과에는 파쑈군사독재가 수립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여지없이 말살되였으며 이 나라는 미제에 더욱더 추종하는 길로 나갔다.

1954년에 미제와 《군사조약》을 맺었으며 1965년 5월에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중미통합군》에 가담하여 도미니까의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의 무장봉기를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1966년에는 미제의 반꾸바책동에 발맞추어 자기 나라에서 미제침략군과 꾸바반혁명

분자들을 훈련시킴으로써 니까라과를 반꾸바군사훈련중심지로 만들었다.

미제와 니까라과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여 1959년부터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의 지도밑에 유격투쟁이 벌어졌으며 각지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한 파업, 시위, 집회 등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1973년 4월에 수도 마나과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는 로동시간을 더 늘이기로 한 친미반동당국의 결정에 항의하여 건설로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9월에는 금속, 방직, 건설 부문로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하였다.

친미반동정부는 인민들의 투쟁에 총칼로 대답하였으며 1973년 1월에만도 수십명의 정치범들을 총살하였다.

소모사는 자기의 독재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반동적인 야당과 결탁하여 1972년에 실시하기로 되여있는 대통령《선거》를 1974년까지 연기하였다. 놈들은 이른바 《재헌회의》라는것을 만들어놓고 《헌법》에서 대통령재선을 금지하고있는 조항을 없애려고 책동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농촌에서는 아직도 반노예적인 예속적 신분관계가 존속되고있다. 로동력의 57%가 농사를 하고있는데 부침땅의 50%이상을 외국독점체들과 국내의 대토지소유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목화(년산 7만t이상), 커피(년산 3만t이상), 사탕수수, 강냉이, 벼, 참깨, 남새이다. 수량은 매우 부족하다. 축산업이 얼마간 있다.

공업부문에는 사탕수수가공공업과 채굴공업 이외에 약간의 화학, 석유, 금속가공, 종이 공업이 있다. 한해동안에 생산되는 전력은 5억 6천여만KwH이며 사탕생산량은 11만t정도이다.

이 나라에서 외국사자본투자액의 3분의 2는 미제독점자본이 차지하고있다.

친미독재정권의 대외부채액은 1970년에 2억 1천 300만딸라에 달하며 대외무역에서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교통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수상운수가 기본이며 철길은 총 400Km에 불과하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목화씨, 커피, 사탕, 목재이며 수입품은 기계, 화학제품, 운수수단, 설비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서독, 일본이다.

전체 인구의 10%이상이 실업자이다. 친미반동정권의 반인민적경제정책의 후과로 물건값이 끊임없이 오르고 인민생활은 도탄에 빠지고있다. 1973년에만도 생계비는 3배나 뛰여올랐다. 주민의 65%이상이 문맹자이며 학령아동의 40%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다. 농촌에는 진료소조차 거의 없고 주민들은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다.

출판보도; 신문 노베다데스(국민자유당계), 라 노띠시아(독립자유당계), 라 쁘렌싸 그라피까(국민자유당계), 라 나씨온(보수당계), 라 쁘렌사(무소속)

방송 니까라과국립방송, 니까라과텔레비죤방송

꼬스따 리까

(꼬스따 리까공화국)

넓이 5만 700Km²

인구 179만명(1971년)

에스빠냐사람의 후손들인 크레올과 메티스(인디안과 에스빠냐사람의 혼혈인)가 주민의 97.6%를 차지한다. 꼬스따 리까는 중미에서 백인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싼 호쎄(주민 20만 3,000명)

정 치

국회 의원수는 57명, 임기는 4년이다. 1970년 2월 선거결과 총의석중 민족해방당이 32석, 민족통일당련합이 22석, 기타가 3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을 겸하며 임기는 4년이다. 1974년 2월 27일 새 정부구성, 대통령 다니엘 오두베르 끼로스(1974년 2월 3일 선거), 외교부장 곤살로 파씨오 쎄그레다

정당, 사회단체; 꼬스따 리까인민전위당 전신은 1931년에 창건된 공산당이며 1943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1948년에 비법화되었다가 1950년부터 합법적으로 활동, 총비서 마누엘 모라발베르데, **민족해방당**(집권당) 1945년에 성립, 부르죠아지들과 커피농장주들 및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민족동맹당** 1947년에 조직, 대부르죠아지들과 미제독점자본과 련결된 대농장주들의 정당, **민족공화당, 공민혁명동맹당, 기독교민주당** 반동적부르죠아정당, **민족통일당련합** 친미반동정당들의 련합체(민족공화당, 민족동맹당, 파쑈단체인 《자유꼬스따 리까운동》성원까지 망라)로 결성, **근로자총련맹**(1952년에 조직되였고 세계직련에 가맹), **민주근로자련맹, 혁명청년동맹**

꼬스따 리까는 1839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정권은 헌법에 의한 선거로 교체되고있다.

1948년에 군대를 폐지하고 경찰과 해안경비대만 두고있다.

꼬스따 리까 인민들은 오랜기간 이 나라에 대한 로골적인 간섭과 략탈을 감행하여온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민족적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벌려왔다. 1948년에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미제와 그 괴뢰들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봉기가 있었으며 1965년 1월에는 중미에 새 운하를 건설하기 위하여 미국무차관보란놈이 이 나라에 기여드는것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이 벌어졌다. 이해 3월에는 인민들의 투쟁으로 미제대사놈이 이 나라에서 쫓겨났다.

꼬스따 리까는 1966년 4월에 자기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령해를 200해리로 정하였다.

1970년 5월에 집권한 피게레스정부는 미제의 로골적인 간섭과 전복음모를 물리치면서 미제의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소생산자들에게서 세금을 받던것을 없애는 한편 대부르죠아지들에게서는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는 법안을 내놓았으며 외국독점체들에 대한 국유화도 실시하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1971년 2월 미제의 침략적군사기구인 《중미방위리사회》에서 나왔으며 미제가 새로 조작하려는 침략적군사쁠럭인 《중미련맹》에 들어가는것을 거부하였다. 1971년 5월에 꼬스따 리까와 메히꼬간에 제국주의자들과의 무역에서 불평등한 조건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973년 3월에 꼬스따 리까 대학생들이 싼 호쎄에서 집회를 열고 략탈기구인 《국제개발은행》이 미제의 간첩소굴인 미중앙정보국의 하나의 지부로 활동하면서 꼬스따 리까인민들속에서 친미적이며 반민족적인 사상을 고취하고 있는것을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반동적인 《국제개발은행》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제국주의략탈자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쫓을것을 견결히 요구하였다.

정부는 미제와 국내반동들이 현정부를 전복하려하였다는것이 밝혀지자 1972년 3월에 미제대사놈과 《미중앙정보국》 간첩놈을 내쫓았다.

1974년 2월 정부는 미국회사 《오싸 뻬로뚜또스 뽀레스딸레스》가 가지고있던 3만헥타의 토지를 몰수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인민투쟁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이 나라에서 활동하고있는 파쑈단체인 《자유꼬스따 리까운동》을 사촉하여 여기에 중미국가들의 극우익적인 군인들까지 망라하여 1973년 9월 3일 정부전복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꼬스따 리까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 음모는 제때에 적발분쇄되였다.

1973년에도 꼬스따 리까근로자들은 민족적리익을 수호하며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렸다.

1973년 2월에 오싸지역농민들이 꼬스따 리까의 많은 땅을 독차지하고 략탈을 일삼는 미국놈의 《오싸 뻬로뚜또스 뽀레스딸레스》회사의 토지를 점거하고 완강한 투쟁을 벌렸으며 3월에는 철도부문 로동자들이 반동기업주놈들에 의한 로조일군들의 해고를 반대하며 생활상 권리를 위하여 전국적인 파업을 일으켜 나라의 주요 부두와 잇닿은 철도들의 운행을 마비시켰다.

1973년 9월에 꼬스따 리까근로자총련맹 제10차대회가 진행되였다.

꼬스따 리까는 《나라의 대외정책이 평화애호적전통에 기초하여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계평화를 공고히 하며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는 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여러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있다.

1973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로므니아국가쏘베트위원장 챠우쉐스꾸가 이 나라를 친선방문하였으며 1월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2월에는 알바니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농업생산에서 알곡은 적고 수출용 작물인 커피, 바나나, 코코아, 사탕수수 등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까리브해기슭의 낮은 지대에는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를 비롯한 미독점체들의 농장들이 집중되여있는데 이것들은 이 나라 부침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로력인구의 48%가 농사를 짓는다.

매년 바나나 100만~120만t, 커피 8만t이상, 코코아 5천t을 생산한다.

금, 은, 철, 류황, 석유가 생산된다.

산림자원이 많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17%이다. 년산 30만t 능력의 석유가공공장이 있고 그밖에 식료가공공업과 미약한 방직, 신발 공업이 있을뿐인데 그것마저 제국주의 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 꼬스따 리까에 투자된 외국자본은 5억딸라에 달하고있다.

1974년 2월에 일본이 꼬스따 리까의 깔데라에 새항구건설을 위한 1천450만딸라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철길의 총연장은 1천 400Km인데 그것도 65%가 미제독점회사의 소유로 되여있다.

바나나, 커피(수출총액의 50%), 코코아를 수출하고 기계, 화학제품, 식량 등을 수입한다.

문맹자의 비률은 중미나라들 가운데서 비교적 낮은 편이나 현재 15살이상의 주민들중 16%가 글을 모르고있다. 전국적으로 중학교 99개, 대학이 한개 있다.

출판보도; 신문 리베르따드(인민전위당기관지), 라 레뿌블리까(민족해방당기관지)

방송 꼬스따 리까방송, 꼬스따 리까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2월 1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10월에 외교부성명을 발표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빠 나 마

(빠나마공화국)

넓이 7만 5,650Km²(운하지대 제외)

인구 157만명(운하지대 제외)

주민은 물라트(흑인과 백인사이의 혼혈인)72%, 흑인 15%, 백인 13%이다. 물라트와 흑인은 운하건설당시 강제로 끌려온 흑인들의 후손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빠나마(주민 41만 2,000명, 1970년)

정 치

국민회의 최고립법기관, 임기 3년인 505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였다. 의원들은 505개의 《자치체》들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 1972년 8월에 선거되였다.

대통령 데메뜨리오 바실리오 라까스(1972년 9월 19일 국민회의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정부 수반 오마르 또르리호스 에르레라(1972년 10월 11일—), 국가보안군 총사령관 및 총참모장겸임, 외교부장 후안 안또니오 딱크

정당, 사회단체; 빠나마인민당 1930년에 조직된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3년에 창건되였다. 총비서 루벤 다리오 쏘우사, **민족자유당**, **기독교민주당**, **민족동맹** 1960년에 우익정당들의 련합체로 조직된 당이다. **빠나마당**, **공화당**, **《제4세력》**, **근로자전국중앙**, **로동조합총동맹**(세계직련에 가맹), **공산주의청년동맹**

1968년 10월 11일 빠나마보안군 총사령관 또르리호스에 의하여 친미반동정권이 뒤집혀지고 새 군사정권이 조직되였다. 군사정권은 종전의 헌법을 폐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1969년 12월에는 미제의 사촉을 받아 빠나마보안군 부사령관놈이 일으킨 군사정변음모를 철저히 분쇄하였다.

그후 또르리호스군사정권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독립, 완전한 자유》를 이룩하고 《경제적예속성과 가장 빈곤한 층의 무권리를 끝장내며》 《국내의 지역적인 경제발전의 차이를 없앨것》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국가관리들을 새로 임명하였으며 젊은 군인들로 국가보안군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인민당을 비롯한 로조단체, 농민조직, 학생운동들의 활동을 합법화하였다.

빠나마정부와 인민들은 1903년에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예속적인 《미국—빠나마조약》을 폐기하며 빠나마에서의 미제침략군의 철거와 운하지대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몇개의 렬강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일본전국혁신시장회 대표단과 한 담화》, 단행본, 4페지)

빠나마운하지대로부터 미제를 몰아내며 운하와 운하지대에 대한 빠나마의 합법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빠나마인민들의 투쟁과 사회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또르리호스정부는 1970년에 리오 아또에 있는 미공군기지를 철폐하고 1971년에는 미제의 《군사고문》, 《외교관》, 《평화군》놈들을 빠나마에서 내쫓았다.

1972년 빠나마국민회의에서는 새 헌법을 채택하여 《나라의 령토는 일시적이건 부분적이건 결코 외국에 빼앗기거나 남의 령토로 될수 없다》고 선포하였다.

1973년 1월 8일에 빠나마 대학생들은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제의 국기를 불태우면서 반미시위를 벌렸으며 2월에는 여러 사회단체들과 진보적정당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하고 운하지대를 되찾으며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투쟁에 나설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빠나마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의 결과 1973년 3월 16~21일까지 빠나마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제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빠나마시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특별회의가 진행되였다. 40개나라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 빠나마와 페루가 공동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결의안을 둘러싸고 미제에게 날카로운 공격의 화살이 집중되였다. 공동결의안에서는 미제가 빠나마에 강요한 불평등조약을 페기하고 운하지대를 빠나마에로 귀속시키며 운하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것 등을 밝혔다.

회의에서 빠나마총리 오마르 또르리호스는 운하지대를 틀고앉아 이 지역에서 물러가지 않으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신랄히 단죄하고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빠나마에서 《평화로운 변혁을 방해한다면 우리 인민들은 폭력적변혁의 방법을 사용하는데로 나가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며 《빠나마는 결코 미국의 식민지나 보호령으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회의에 제출된 결의안은 꾸바, 페루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15개 안보리사회성원국들중 13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영국이 기권하고 미제국주의자만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회의에 참가한 여러나라 대표들의 압력에 의하여 미제의 대표놈은 자기 연설에서 미국이 《빠나마와 이 운하지역에 관한 새로운 조약을 맺을 용의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빠나마인민앞에 굴복하고야 말았다.

1973년 11월과 1974년 1월에 빠나마에서 미제순회대사 벙커란놈과 빠나마외교부장과의 회담이 있었으며 회담에서는 빠나마운하반환에 관한 기본원칙이 토의되였다. 여기에서는 1903년의 불평등한 조약을 대신할 새협정이 필요하다는것을 인정하고 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할것을 규정하였다.

빠나마는 운하와 운하지대를 10년내에 빠나마에 반환할것을 요구하고있으나 미제는 40~50년내에 반환하겠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1974년 2월 7일 미국무장관 키신저가 미제의 빠나마운하독점에 끝장을 내는 새 조약체결에 관한 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8개 항목선언에 하는수 없이 서명하였으며 빠나마운하수로의 관할권을 빠나마정부에 넘겨주는 새로운 조약을 작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빠나마는 대외적으로 꾸바를 포함한 진보적인 중남미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오고있는데 1972년 5월에 있은 미주국가기구상설리사회에서 빠나마는 꾸바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것을 주장하였다.

1973년에 빠나마는 체스꼬슬로벤스꼬(5월)와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뽈스까(8월)의 외교대표부를 대사관급으로 승격시켰다.

경제, 사회문화

빠나마는 경제의 주요부문이 미제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는 뒤떨어진 농업국이다.

땅이 비옥하고 기후도 각종 열대작물과 남새를 재배하는데 알맞춤하다. 그러나 오랜기간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경제는 기형적으로 발전하였다.

농업은 수출작문재배를 위한 단작경리의 락후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전국의 경제활동은 주로 수도로부터 꼬론시 사이의 좁은 지대에 집중되여있다. 전국면적의 85%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산림지대와 소택지, 미경작지이다. 주민의 70%가 농사를 하면서도 해마다 필요한 식량의 60%를 외국에서 사왔다. 1971년에 부침땅은 201만 9천여헥타에 달하였는데 그중 15%는 11명의 대농장주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미국독점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미제의 《유나이테드 푸르트》회사만도 12만헥타의 토지를 가지고있으면서 바나나생산의 90%를 통제하고 있었다.

땅없는 농민과 빈농민이 전체 농민의 60%에 달하였다.

1968년 10월 정변후 또르리호스정부는 《낡은 경제형태를 청산》할것을 주장하면서 땅을 얻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치렬한 지방들에서 대농장주들의 땅을 몰수하였다. 현 정부는 집권후 3년동안에 미독점체들과 지주들의 토지 23만헥타를 몰수하여 5만 2천여명의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일부는 국유화하여 《공동체》, 혹은 《협동체》를 조직하였다. 1973년에 전국적으로 5천여세대를 망라하는 152개의 이러한 농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5만여헥타의 땅을 가지고있었다. 정부는 이미 창설된 농장들에 기술적방조와 자금을 제공하면서 조합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사탕수수, 커피, 파인애플, 벼, 강냉이, 코코아, 콩 등이다. 매해 평균 바나나 70만t, 커피 5천300t, 벼 16만t, 강냉이 8만 5천t 정도 생산된다.

현재 소 120만마리, 돼지 20만마리가 있으며 매해 평균 약 3만t의 소고기, 8만 5천t의 소젖을 생산하고 있다.

수산업에서는 새우잡이가 기본인데 이 나라에서 새우는 총어획고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공업에서 주요부분을 이루는것은 채굴공업(보크사이트와 원유)이며 농산물가공공장, 식료가공공장, 석유가공공장, 신발, 사탕, 방직공장들이 있다.

정부는 개인자본가들로부터 리윤의 40%를 세금으로 받아내여 자금을 확보하고있다. 또한 2만 7천Kw 능력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1973년에는 라스미나쓰지방에 4만Kw 능력의 화력발전소, 까나따지방에 대형수력발전소건설공사들을 진행하였다. 이해 1월에는 매일 450t씩 생산할수 있는 사탕공장(본래 있던 두 개의 사탕공장의 생산량과 맞먹는다)이 건설되였다.

철길은 운하지대에서 미제의 빠나마운하회사가 경영하는 철길과 다비드시를 중심으로 주요농업지대를 련결하는 철길이 있을 뿐이다. 철길의 총연장은 497Km이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석유제품, 새우, 사탕이며 주요수입품은 석유, 식량, 피복, 자동차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수출의 78% 차지), 베네수엘라(수입의 20%차지) 일본, 서독 등이다.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하여 《특별정부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육의 인민성, 민주주의, 과학성, 빠나마화》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정부는 9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빈민층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을 이전의 2개로부터 4개로 늘였으며 1973년 6월 자체의 전문가들과 인재들을 양성하는 인민종합대학을 새로 창설할것을 또다시 결정하였다. 그러나 빠나마에는 아직 글모르는 사람이 있다.

정부는 보건분야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봉사를 주자》라는 구호밑에 이전에 없던 구외병원들과 진료소들을 새로 건설하는 등 많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러나 빠나마운하지대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미제의 빠나마운하회사에 고용된 2만 3천여명의 빠나마근로자들은 부당한 《외국인》취급을 받으면서 미국인의 5분의 1밖에 안되는 임금으로 연명하

가고 있다.

출판보도; 신문 모멘또(인민당기관지), 엘 디아(친정부계), 라 쁘렌싸(친정부계), 마뚜띠노, 엘 빠나마 아메리카(무소속), 엘 빠이스(무소속)

방송 빠나마방송, 빠나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2월에 빠나마근로자전국중앙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4월에 우리 나라정부대표단이 빠나마를 방문하였다. 또르리호스 총리는 우리 대표단에게 《…조선인민의 위대한 해방자이시며 조선에 솟아오른 빛나는 태양이시며 불멸의 력사를 창조하신 천재적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수령이실뿐아니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위대한 수령이시기에 그이의 권위와 위신은 대양을 넘어 여기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그이의 탁월한 령도는 모든 나라 혁명가들의 귀감으로 되고있습니다.》라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빠나마운하지대

빠나마운하의 두 기슭의 8Km에 해당한 지대를 말한다. (빠나마시와 꼴론시는 제외)

미제는 해마다 이곳에서 빠나마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1억딸라의 수입을 얻고있다.

넓이 1,432Km², 그중 땅넓이는 952Km²

인구 5만 1,400명(그중 미국인 3만 9,084명)

행정중심지 발보아 하이쯔

1903년에 불평등한 《미국—빠나마조약》에 의하여 미제는 1904~1914년 사이에 빠나마운하를 건설하고 이 운하지대에 총독과 침략군을 보내여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빠나마인들의 운하지대에로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고 운하지대를 《국가안의 국가》로 전변시켰다. 운하지대에는 미제의 까리브해통합사령부와 14개의 군사기지가 있으며 미제침략군 특수부대들을 길러내는 특수학교들이 설치되여있다. 미군사기지에는 1만명의 미국륙해공군과 해병대군인들과 국방부의 6천명의 민간 사무원들이 주둔해있다. 미제는 이 지대 인민들의 반미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으며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고있다.

져메이커

넓이 1만 962Km²

인구 200만명(1970년)

주민의 80%가 흑인이며 그밖에 혼혈인, 인디안이 있고 구라파인은 1%이다. 원주민 인디안은 16세기에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거의 전멸되고 지금 기본 주민은 그후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예》의 후손들이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킹스톤(주민 19만 2,000명)

정　치

총독 국가수반인 영국 녀왕이 임명한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21명인데 총리가 추천하는 13명과 야당지도자가 추천하는 8명을 총독이 임명한다. 하원의원은 53명, 임기는 5년이다. 1972년 2월 총선거에서 인민국가당이 34석, 레이버당이 17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정부 총리 마이클 맨리(1972년—)

정당, 사회단체; 인민국가당(1972년 2월부터 집권당) 1938년에 조직, 도시와 농촌의 소부르죠아지, 인테리, 농업로동자들과 공업로동자들의 일부를 망라하고있다. 당수 마이클 맨리, **레이버당** 1943년에 조직, 상업, 공업 및 농업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한다. 자국경제에 대한 외국독점자본의 침투를 장려할것과 미영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 군사적 동맹을 주장하고있다. **자유인민운동** 진보적정당으로서 사회주의건설,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 철페, 평화와 중립 정책의 실시 등을 요구하고있다. **인민정치당** 흑인들의 정당

져메이커는 1961년 10월에 《서인도련방》에서 탈퇴하였으며 1962년 8월 6일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1963년 6월 6일 미제는 져메이커와 《방위협정》을 강제적으로 맺고 이 나라를 꾸바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현재 이 나라의 롱 베이만 동부에 미제침략군의 해군기지가 여러개 있다.

1967년 2월 국회선거에서 사기협잡으로 레이버당이 많은 의석을 얻어 정권을 잡은후 친미반동정책이 실시되여오다가 1972년 2월 29일 총선거에서 레이버당이 패배하고 인민국가당이 승리하여 집권하였다.

새 정권은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킬 의향을 명백히 하였으며 1972년 10월에는 미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인 사회주의꾸바와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였다.

이 나라는 1973년 8월 1일 여러 나라들과 함께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을 창설하였다. 져메이커정부는 이해 8월 16일 킹스톤주재 미제대사놈이 이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있는 것을 규탄하고 추방하였다.

이해 11월 죠지타운에서 있은 까리브해지역 공동시장 참가국 외교부장들의 제1차회의에서 져메이커대표는 까리브해나라들이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지역 나라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들이 결정해 나갈것을 호소하였다.

1974년 2월에 있은 미주국가외교부장회의에서도 져메이커대표는 꾸바를 고립시키는것은 《극도의 근시안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미제를 야유공격하였다. 이해 4월에 져메이커정부는 외래제국주의 독점자본에 의하여 운영되고있는 뻐스회사를 몰수하여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져메이커는 농업국가로서 경제는 미영독점체들을 포함한 외국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탕수수와 바나나 재배 그리고 채광공업이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다.

외래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식민지 후과로 사탕수수와 바나나, 담배, 커피재배 일면에 치우치고있다. 전체 농장주들의 0.7%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대토지소유자들이 외국독점체들과 결탁하여 전체 부침땅의 76%를 거머쥐고 이 나라 농민들을 착취하고있다.

공업부문에서는 미제와 카나다독점체들에 장악된 채굴공업만이 일정하게 발전하고있다. 보크사이트채굴량은 년 약 1천만t으로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렐콘》, 《알코아》, 《아나콘다》, 《카이저》, 《메이버》, 《레이놀드스》 등 외국독점회사들이 이 나라 보크사이트를 원광 그대로 빼앗아가고있다. 그밖에 년산 약 100만t에 달하는 알루미나와 철광석, 석고 등의 생산을 카나다와 기타 외래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국가에 들어오는 년 2억 8천만딸라중에서 1억 8천만딸라가 알루미니움을 팔아서 번것이다. 기타 지하자원으로

률소금, 린회석, 연, 아연 등이 있다.

교통운수는 철도와 해상운수가 기본으로 되여있다. 수도 킹스톤으로부터 북쪽해안의 항구인 몬테고 베이항을 련결하는 철길이 있다.

주요수입품은 식량, 화학제품, 설비, 연료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영국, 카나다이다. 쟈메이카는 무역에서 매년 적자를 내고있는데 그 일부를 관광수입에서 메꾸고있다.

실업자는 20만명이다.

문맹자가 50만명 이상이며 대학은 1개이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영국교회도들이다.

출판보도 신문 트란페트(인민국가당기관지), 보이스 오브 쟈메이카(레이버당기관지), 파블리크 오피니언(인민국가당계), 데일리 글리너(무소속), 스타

방송 쟈메이카방송, 쟈메이카텔레비죤방송

아 이 띠

(아이띠공화국)

넓이 2만 7,750Km²

인구 500만명(1971년)

주민의 90%가 흑인이며 그외는 혼혈인과 백인이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이 나라는 중미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수도 뽀르또 쁘랭스(주민 25만명)

정 치

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는 67명, 임기는 6년이다.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이다. 대통령 쟝 클로드 듀발리에(1971년 4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통일당** 1934년 창건된 공산당의 후신인 인민통일당과 민족해방인민당이 합당하여 1968년 12월에 창건, 지하에서 활동, **혁명정부행동통일당**(집권당) 친미반동정당, 현재 비법화되여 있거나 해외에서 조직된 당들로서 **농업공업당**, **《아이띠련합》**, **민족민주동맹**, **아이띠애국자민주주의운동**, **《신생아이띠당》** 등이 있다. 기타 투쟁조직으로서 **혁명해방전선**, **전국해방운동** 등이 있다. **전국로동자련맹**(친정부로조), **기독교로조련맹**, **로조통일전선**(진보적로조, 현재 비법화), **통일공산주의 청년**

아이띠는 1806년에 세계에서 첫 흑인공화국을 세운 나라이다.

1844년에 이 섬의 동부가 갈라져 도미니까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847년부터 1915년까지 근 70년 동안에 지배층내부의 정권쟁탈전으로 하여 82차나 대통령이 바뀌여졌다.

1915년 7월 반정부폭동이 일어나자 미제는 이른바 《자국민보호》라는 구실밑에 침략군을 파견하여 아이띠를 강점하였으나 이 나라 인민들의 완강한 항거에 못이겨 1934년에 쫓겨나고 말았다.

1956년에 대중적인 반정부총파업에 의하여 독재정권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되자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친미독재자인 듀발리에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1957년 9월 협잡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되였다.

듀발리에도당은 모든 야당들을 비법화하고 애국적 인사들과 군인들을 투옥 학살하거나 외국에 추방하였으며 1961년에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다. 1963년 5월에 듀발리에는 대통령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거를 하지 않은채 1964년 6월에 자신을 《종신대통령》으로 선포하였다.

1971년 4월에 프랑수와 듀발리에놈이 죽고 그의 아들 쟝 클로드 듀발리에가 대통령으로 되여 친미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아이띠 인민들의 투쟁은 1973년에도 계속되여 1월 24일 아이띠애국적무장인원들은 정탐파괴활동을 일삼고있던 미제의 대사놈과 총령사놈을 사로잡았으며 비법적으로 체포구금된 12명의 애국자들을 석방시켰다. 1974년 3월 19일 내각개조가 있었다.

경제, 사회문화

아이띠는 주민의 80%이상이 농사를 한다. 부침땅은 전 평토의 3분의 1이다.

주민의 1%밖에 안되는 지주놈들과 미제독점회사가 이 나라 부침땅의 3분의 2를 가지고 농민들을 착취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바나나,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며 강냉이, 벼, 콩, 마니오크, 남새도 심는다.

주요경제명맥은 미제독점자본의 지배하에 놓여있는데 이 나라에 투자된 외래독점자본총액의 70%(5천만딸라)를 미제가 차지하고있다. 특히 농업부문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미제의 사이잘삼회사, 사탕수수재배및사탕생산회사는 수출용 농산물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으면서 이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집짐승으로서 소, 돼지, 염소를 주로 기른다.

공업이 뒤떨어져있으며 얼마 안되는 것마저 미제독점자본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공업으로는 사탕가공공업을 비롯한 약간의 가공공업과 채광공업이 있다. 가공공업중에서 식료 및 담배가공공업이 공업제품생산액의 70%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금, 은, 동, 쇠돌인데 미제와 카나다의 합영회사인 《알 코아》가 보크사이트채굴(년산 약 130만t)을 독점하고있다. 민족경제는 파산당하고 공업품의 대부분을 수입하고있다. 외화는 주로 관광수입에서 얻고있다.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이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1천 800Km인데 그 대부분이 사탕수수농장의 인입선이고 개인들의 소유이다. 자동차길은 수도 뽀르또 쁘랭스로부터 항구도시 쟈크멜에 이르는 80Km구간을 내놓고는 포장된것이란 거의 없다.

수출품의 절반은 커피와 사탕이며 기타 사이잘삼, 보크사이트, 동, 고기, 과일, 수공업제품도 수출한다. 수입품은 천, 약품, 식료품, 자동차 등이다.

식량이 부족하여 해마다 미제의 잉여농산물을 비싼값으로 수입하고있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이다.

농촌에는 40만명의 완전실업자가 있으며 약 60만명의 고용농민들은 계절적인 실업자이다. 아이띠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 중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낮고 제일 가난한 나라의 하나이다.

학령아동의 대부분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맨발로 다닌다. 15세이상 주민의 89%가 문맹자이며 대학은 1개밖에 없다. 주민 1만 5천여명에 의사 1명이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도이다.

출판보도; 출판물 부깐(공산주의자통일당월간잡지), 아이띠 쥬르날, 르 나띠오날

방송 아이띠방송, 뽀르또 쁘랭스방송, 아이띠텔레비죤방송

도미니까

(도미니까공화국)

넓이 4만 8,734Km²
인구 434만 8,000명
주민은 인디안과 혼혈인이 70%, 흑인과 백인이 각각 15%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나 프랑스말과 영국말도 쓴다.
수도 산또 도밍고(주민 67만 2,000명, 1970년)

정 치

민족회의 상하량원제, 상원은 27석, 하원은 74석이며 임기는 각각 4년이다. 1970년 5월 국회선거결과 **개혁당**(집권당)이 상원에서 26석, 하원에서 60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호아낀 발라게르(1966년 7월 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4년에 창건되여 1965년까지 인민사회당으로 불러오다가 그후 이름을 공산당으로 고쳤다. 1947년에 비법화, 총비서 나르시쏘 이싸 꼰데, **개혁당**(집권당) 1964년에 민족부르죠아지, 지주 및 승려층을 망라하여 조직된 반동적정당, **도미니까혁명당** 1939년에 창건되였으며 소부르죠아지, 일부 농민들과 인테리들을 망라한 진보적정당이다. **《6월 14일혁명운동》** 혁명적인테리, 대학생, 소자산계급, 그리고 로동자, 농민들로 구성된 진보적정당이다. 현재 미제와 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지하에서 투쟁한다. **도미니까인민운동** 베네수엘라에 있는 《도미니까애국동맹》, 꾸바에 있는 《도미니까통일민주주의전선》, 《도미니까통일전선》 등 이 나라의 애국적력량이 1959년 3월 아바나에서 조직한 정당으로서 현재 지하에서 투쟁한다. **민족화해운동, 민족통합운동, 전국공민동맹, 기독교사회혁명당, 사회민주동맹, 기독교사회당, 자유진화당, 도미니까민주당, 도미니까근로자련맹, 공산청년동맹, 녀성련맹**

도미니까는 1844년에 아이띠에서 떨어져 나와 도미니까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이 선포된후 도미니까는 미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받아왔으며 정권은 친미독재자들에게 장악되였다.

미제의 침략과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도미니까 애국적인민들은 1960년부터 유격투쟁에 일떠섰으며 1965년 4월에는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이 반동적인 까브랄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고 립헌제도의 복귀를 요구하여 전국적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봉기자들에 의하여 까브랄군사독재정권은 전복되고 봉기군사령관 프란시쓰꼬 까아마니오를 림시대통령으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이에 질겁한 미제는 8천여명의 침략군과 근 40척의 함선들로 무어진 이른바 《미주통합군》을 조직하여 이 나라에 대한 로골적인 무장간섭을 감행하였다. 까아마니오정부는 전복되고 발라게르정부가 조작되였다.

발라게르도당은 1970년 5월 테로와 폭압속에서 대통령 및 국회 《선거》놀음을 벌려 대통령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국회의석을 독점하였다. 《선거》이후 발라게르도당은 1년되나마나한 사이에 800여명의 공산당원, 혁명당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투옥 학살하였다.

도미니까애국자들은 《우리는 나라를 실제적으로 자유롭고 진실로 독립적이며 진실로 민주주의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국내의 모든 애국력량의 동맹을 위하여 싸울것을 맹세한다》는 구호를 들고 미제와 발라게르반동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1973년 2월에 까라꼴레스의 해안지대에서 반정부무장투쟁이 있었으며 도미니까유격대는 이 투쟁을 탄압하려는 반동적정부군놈들과 치렬한 전투를 벌렸다. 이 투쟁을 지지하여 도미니까수도의 종합대학 학생들이 시위투쟁을 벌렸다. 이해 4월에는 산또 도밍고에서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미제와 반동정부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으며 거리 한 복판에서 미제의 기발 2개를 불태워버렸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주요명맥은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이 틀어쥐고있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아직 수출용 농산물생산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인구의 3분의 2가 농사하고있다. 농촌로력인구의 50%에 해당하는 약 60만명의 계절로동자들이 지주놈들의 농장에서 힘겹게 일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수출을 위한 사탕수수, 커피, 코코아, 담배 등이다. 알곡작물로는 벼, 강냉이가 있고 그밖에 감자, 고구마가 난다.

산간지대에서는 축산업도 약간 하고있다. 소, 돼지, 양을 주로 기르는데 100여만마리의 소가 있다.

공업으로는 사탕가공공업을 비롯한 약간의 가공공업과 채광공업이 있다. 공업부문의 대부분은 미제독점자본이 틀어쥐고 있는데 미제의 《갈프 앤드 웨스턴》회사는 사탕생산의 25%를 독점하고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금, 은, 동, 쇠돌이다. 미제와 카나다의 합영회사인 《알 코아》가 보크사이트채굴을 독점하고있다.

교통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대부분 동북부지역에 집중되여있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1천 800Km인데 그 대부분이 사탕수수농장의 인입선이고 개인들의 소유이다.

주요수출품은 사탕(50%이상), 커피(11~12%), 코코아(10%이상), 보크사이트(8%), 담배(5%)등이며 수입품은 식량, 기계설비 등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이다.

년국민소득에서 인구 1인당 차례지는 몫은 200딸라 남짓하다. 로동능력있는 주민의 약 절반이 일자리를 못가지고있다.

농촌에서는 40만명이 완전실업자이며 약 60만명의 고용농민들은 계절적인 실업자이다.

학령아동의 절반이상이 학교에 못가고 있으며 15살 이상 주민의 36%가 문맹자이다. 대학은 3개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천주교도이며 종교적관습이 일상 생활에서 뿌리박혀있다. 주민의 4분의 1이 도시에 모여 살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리베르따드, 엘.이.헤14(6월 14일 혁명운동기관지), 디아리오 데 라 따르데(인민운동 기관지), 엘 까리베, 리스띤 디아리오, 쁘렌싸 리브레, 라 인포르마씨온

방송 도미니까방송, 도미니까텔레비존방송

뿌에르또 리꼬

(미국식민지)

넓이 8,897Km²
인구 284만명(1970년)
주민은 에스빠냐인계통의 후손들인 크레올이 80%이며 나머지는 흑인과 혼혈인들이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게 거의 전멸되였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과 영국말
행정중심지 싼 후안(주민 80만 4,700명)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이며 상원은 27석, 하원 51석이다. 임기는 4년이다. 《자치권》의 테두리내에서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립법권은 미국회에, 최종재판심의권도 미국최고재판소에 속해있다. 미국회에 상주하는 대표를 보내고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지사 집행권을 행사하며 협상리사회를 책임지고 있다. 임기는 4년이다. 지사 에르난데스 꼴론

협상리사회 지사가 리사회를 지도하며 그가 임명하는 9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에 창건되였다가 1944년에 해산되였다. 1946년에 재건되였으나 비법화되였다. **인민민주당**(집권당)1938년에 조직, 미국의 독점체들과 긴밀히 련결된 대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변, **신진보당** 1968년에 국가공화당이 분렬되여 조직되였는데 그해부터 집권당으로 있다가 1972년 11월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이 당은 뿌에르또 리꼬를 점차 미국의 한개 주로 만들것을 요구하고있다. **인민당** 1968년에 인민민주당에서 떨어져나온 분파, **국가공화당** 1898년에 조직, 자기 나라를 미국의 주로 편입시킬것을 주장, **뿌에르또 리꼬독립당** 소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 **독립운동** 1959년 독립당에서 갈라져나온 좌익적인 당, 비평화적방법으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달성할것을 주장, **사회당** 1971년 11월에 창건, 나라의 자유와 해방,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총비서 후안 마리 브라스, **근로자련맹, 자유근로자련맹**

뿌에르또 리꼬는 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미제의 군사기지이며 정탐기지이다. 이 나라 령토의 13%나 되는 지역에 수만명의 미제륙해공군무력이 주둔하고있으며 21개의 해군기지와 핵무기가 배치되여있다.

미제는 조선침략전쟁에 4만여명의 뿌에르또 리꼬 청장년들을 강제징집하여 대포밥으로 내몰았다.

이 나라 인민들은 1960년에 조직된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의 지도밑에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벌려왔다. 1967년 9월에 도시유격대인 《해방무장대》가 조직되여 무장투쟁을 개시하였다.

1972년 11월에 진행된 지사선거에서 인민민주당이 승리하였는데 이 당은 선거강령에서 자기 나라가 미국의 한개 주로 되는것은 반대하면서도 미국파의 현존관계를 그대로 유지할것을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당수 에르난데스 꼴론은 자기 나라에 《보다 많은 자치권》을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1973년 2월에 뿌에르또 리꼬는 자기 나라 령토인 꿀레브라와 비에께쓰섬주변에서 사격훈련을 한다는 구실밑에 살인만행들을 감행하는 미제해적선을 당장 몰아내기로 결정하였다.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과 세계여론의 압력으로 미제는 제28차 유엔총회에서 뿌에르또 리꼬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경제, 사회문화

뿌에르또 리꼬는 농업국가이다. 농업에서 기본은 전문화된 사탕수수재배와 수출작물들인 담배, 바나나, 커피재배이다. 부침땅의 80%가 미제독점회사들의 소유지로 되고있는데 그 대부분이 사탕수수재배지에 돌려지고있다. 사탕생산량은 1961년에 100만t이던것이 1971년 이후부터는 매해 23만t 정도에 머무르고있다.

담배는 1년에 1만 4천여t, 커피는 1만여t, 바나나는 11만t 정도에 이르고있다.

알곡작물은 거의 심지 않기때문에 해마다 막대한 량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집짐승들로는 소와 돼지가 있으나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고기의 거의 전부는 미제에 략탈당하고 있다.

공업은 농산물가공공업, 사탕공업과 채굴공업이 좀 있는데 공업기업소의 84%는 미제독점회사들에 장악되여있다. 망간과 동채굴은 미제회사들이 몽땅 독점하고있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철길이 없기때문에 해상운수와 자동차운수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운수와 체신부문을 전부 미국회사들이 장악하고있다.

대외무역에서 사탕과 그 제품수출이 수출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미국독점회사들이 이 나라 수입의 75%, 수출의 95%를 장악하고있다.

주민의 4분의 1이 빈민굴에서 살고있다. 뿌에르또 리꼬인 로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미국인 로동자들의 낮은 임금의 3분의 1도 안된다.

미제는 신문, 방송을 비롯한 모든 보도수단을 독점하고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면서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출판보도; 신문 끌라리다드, 엘 임빠르씨알(무소속), 엘 문도(무소속), 싼 후안쓰타(무소속), 엘 디아

방송 뿌에르또 리꼬방송, 뿌에르또 리꼬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에 신문 《끌라리다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공산주의운동에 기여한 빛나는 모범》이라는 표제밑에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략력을 소개하였다. 이 신문은 그이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도 실었다.

1972년 1월 후안 마리 브라스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뿌에르또 리꼬사회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트리니대드 토바고

이 나라는 까리브해의 서인도제도의 남안에 있는 두개의 섬인 트리니대드와 토바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넓이 5,128Km² (트리니대드섬만 4,828Km²)

인구 107만명(1970년)

주민은 흑인이 약 47%, 인도사람이 약 35%, 혼혈인이 약 16%, 백인 등이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주민 10만명)

정 치

국회 량원제, 1971년 5월 24일 총선거에서 인민민족당이 총의석 36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총리 에리크 윌리암스

정당, 사회단체; 민주로동당(인도사람들의 정당) 1956년에 창건된 당으로서 자본가, 지주, 로동자상층부 성원들로 구성, **인민민족당**(독립이래 집권당) 1958년에 창건된 소부르죠아정당, **자유당, 인민민주당, 트리니대드 토바고로동대회, 석유로동자로조**

트리니대드 토바고는 1962년 8월 31일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1971년 5월 24일 총 선거에서 인민민족당이 승리함으로써 독립후 정권을 잡고있던 인민민족당 정부가 다시 구성되였다.

트리니대드 토바고정부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 함께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1970년에 미제의 해군 및 공군 기지를 철폐하고 그것들을 농장, 방목지로 만들었다.

1972년 10월에는 꾸바와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였으며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까리브해지역 영련방성원국들과 함께 1973년 8월 까리브공동체 및 까리브공동시장을 창설하였다. 정부는 민족경제 발전을 위해 이해 3월에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소유인 곡물회사와 2개의 큰 찐진숭먹이공장을 몰수하고 사료공장들과 공업의 원료로 공급되는 모든 곡물을 직접 통제관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석유공업과 피치생산이다. 석유생산과 그 가공공업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석유생산량은 년산 6천700만바렐로서 영련방성원국들 가운데서 카나다 다음의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1973년 2월에 자체의 석유회사가 창설되였다. 피치생산은 년산 13만 6천t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공업은 석유정제와 사탕생산이 기본이다. 이 나라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원유 이외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로부터 다량의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하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에 화학비료공장을 설치하고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 있다.

농업에서는 미영제국주의독점자본에 의한 수출용 작물을 재배한다. 식량은 대부분 수입한다.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코코아, 커피, 귤, 야자, 담배이며 이 나라는 세계적인 코코아생산국이다. 농산물의 대부분을 미제의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와 영제국주의자들이 독차지하고있다.

이 나라 운수에서 기본은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석유제품으로서 총 수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한다. 피치와 목재도 많이 수출한다. 식량과 일용품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였는데 최근 정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극력 줄이며 자체로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종전에 석유공업이나 피치생산에만 치우치던 경제발전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공업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과실가공공업이 새로 창설되여 발전하고있다.

이 나라에는 463개의 소학교, 103개의 중학교, 1개의 대학이 있는데 대학에서는 서인도제도에 있는 영국인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며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이브닝 뉴스(무소속), 트리니대드 가디언(무소속), 트리니대드 앤드 토바고 엑스프레스(무소속)

방송 트리니대드방송, 트리니대드 토바고텔레비죤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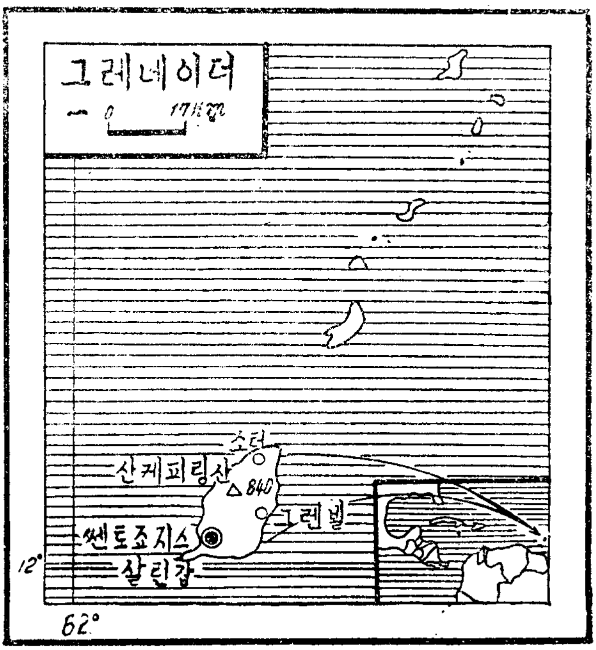
그레네이더

그레네이더는 까리브해의 동남쪽에 있는 3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이다. 열대기후에 속하며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섬에는 산도 많고 물도 많다. 수백개의 강들이 온 섬에 분포되여 있으며 섬에는 또한 화산분출구에 형성된 호수들이 있다. 경치는 아름답고 기후는 사람들이 살기 좋다.

넓이 345Km²

인구 11만명, 흑인이 80%이다.

공용어는 영국말인데 프랑스말을 모체로 하는 방언을 쓰기도 한다.



수도 쎈트 죠지스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1972년 2월 28일 하원선거 진행, 통일레이버당 13석, 국민당 2석 차지

정부 총리 에리크 가이리(1972년 2월 재선)

정당; **통일레이버당**(집권당), **국민당**

그레네이더는 17세기중엽에 프랑스에 강점당하였으며 그후 영국과 프랑스간의 여러차례의 전쟁에 의하여 영국과 프랑스에 번갈아 강점당하였다.

1783년에는 영국에 완전히 강점당하였으며 200년 남짓하게 영국식민지통치를 받아왔다. 1795년부터 1796년 사이에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대봉기가 일어났으며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이 투쟁을 무마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해보기 위해 1958년에 그레네이더를 포함한 주변의 섬들로 이른바 《서인도련방》을 조작해냈다. 인민들의 계속되는 반대와 배격으로 이 《련방》은 1962년에 와해되였다.

1967년에 그레네이더는 《내부자치권》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국방과 외교문제는 영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었다.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술책에 항의하여 계속 투쟁을 전개하였다. 1973년 5월에 영국정부와 그레네이더 총리 에리크 가이리간에 이 나라의 독립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마침내 1974년 2월 7일에 독립이 선포되였다. 이날 독립을 선포하는 의식에서 연설한 그레네이더 총리 에리크 가이리는 인민들이 단결하여 새 나라건설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독립직후부터 가이리를 반대하는 총파업이 계속되였으며 가이리는 기자회견에서 반대파와 《외부의 전복분자들》이 자기를 암살할 음모를 꾸몄다고 말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농업을 위주로 하고있으며 주로 육두구(열대향료작물의 일종), 코코아, 바나나가 많이 생산되고있다. 그중 육두구는 이 나라의 특산물이며 그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향료의 섬》이라고도 불리우고있다. 이 3대농작물은 이 나라의 3대수출작물이기도 하다. 그것은 수출총액의 92%를 차지하는데 그중 육두구가 35%를 차지한다. 그외에 사탕수수, 목화 등을 심는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고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공화국)

넓이 91만 2,050Km²

인구 1,200만명(1974년 2월)

주민은 혼혈인 65%, 백인 20%, 흑인 8%, 인디안 7%이다. 주요산업지구들에는 근 20만명의 외국사람(미국, 에스빠냐, 뽀르뚜갈, 이딸리아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나 원주민인 인디안과 일부 흑인들은 자기들의 고유한 말을 쓴다.

수도 까라까스(주민 217만명)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이며 상원은 56석(종신의원 4명포함), 하원은 216석이다. 임기는 각각 5년이다. 1969년 선거결과 민주행동당은 상원에서 19석, 하원에서 66석, 기독교사회당은 상원에서 16석, 하원에서 59석, 인민선거운동은 상원에서 5석, 하원에서 26석, 공화민주련맹당은 상원에서 3석, 하원에서 17석, 국민운동당이 상원에서 4석, 하원에서 21석, 민족민주전선이 상원에서 1석, 하원에서 5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까를로스 안드레스 뻬레스(민주행동당출신 1974년 3월—), 외교부장 에프라인 샤치르 아리스메게따, 국방부장 호메로 레알 또르레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1년 2월 공산주의그루빠가 조직되였다가 1937년 8월에 정식 창건되였다. 위원장 구스따보 마챠도, 총비서 헤쑤스 파리아, **좌익혁명운동** 1960년 4월에 민주행동당내의 좌익적인 사람들로 조직, 1962년 5월에 비법화, 이 당은 석유공업의 국유화, 대토지소유제의 페지, 식민주의의 청산을 주장하고있다. **기독교사회당**(일명 꼬뻬이당) 대금융계, 지주, 천주교상층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동정당(1968년 12월부터 1973년까지 집권당), **민주행동당**(집권당), **인민선거운동** 1967년 민주행동당이 분렬되여 조직된 당, **공화민주련맹당**, **민족민주전선**, **국민운동당**, **민족혁명당** 1969년에 민족주의적인 인테리들에 토대하여 조직, 《**새력량**》 공산당, 공화민주련맹당, 인민선거운동을 비롯한 좌익정당들과 많은 사회단체들, 로조들, 정치 및 사회활동가들을 망라한 선거운동통일전선체이다. **근로자통일중앙**(진보적로조), **로조총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족해방전선**

1969년 3월에 집권한 깔데라정부는 집권초기 베네수엘라의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진보적력량에 대한 파쑈테로행위에 매달리면서 수많은 애국자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친미추종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깔데라정부는 광범한 사회계의 강력한 압력으로 점차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수호하는데로 나아갔다. 깔데라정부는 1971년 3월 외래석유독점체들이 헐값으로 략탈해가던 석유의 수출값을 33% 올렸으며 7월에 모든 외국석유회사들의 전체 재산을 리권기간이 만료되는 차제로 보상없이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 8월에 천연가스의 채취 및 개발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1972년에는 미제가 1939년에 베네수엘라에 강요한 예속적인 《통상조약》을 기한이 만료되자 인차 페기하였다.

1973년 5월 23일 베네수엘라국회는 외래제국주의회사들이 장악하고있던 국내석유시장과 석유생산을 4년내에 국가가 완전히 통제할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법에 따라 이해 5월에 미제석유회사 《크레올 페트롤리움》의 소유인 2개의 석유기업체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6천 400헥터의 유전을 국유화하였으며 8월에 이 회사가 가지고있던 연유공급소를 베네수엘라 국영회사에 넘겼다.

정부는 또한 베네수엘라의 법질서를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폭행과 략탈을 일삼는 외국독점체들에 응당한 벌금을 부과하였다. 1973년 6월에 미국회사 《크레올 페트롤리움》과 《메네 그란데 일》이 원유자원을 개발한다는 구실로 주민들을 내쫓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으며 살림집들을 마사버린데 대하여 이 회사들로부터 1천 600만딸라의 벌금을 받아냈고 8월에는 《크레올 페트롤리움》회사가 원유정제공장설비들을 해외로 내갈수 없다는 베네수엘라의 법을 위반하고 공장설비들을 뜯어내여 해외반출을 시도한것과 관련하여 1만 2천딸라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회사가 석유를 략취해가는데만 급급하면서 외국독점체들이 석유설비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는 베네수엘라의 법을 위반한데 대한 벌칙으로 정부는 1974년 1월에 석유산지개발권을 박탈하는 법령을 발표하여 총 3만 5천 500헥터의 석유산지와 설비들을 베네수엘라석유회사의 관할하에 넣었다.

정부는 또한 외국선박들을 쓰는데서 생겨나는 재정적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1973년 12월 베네수엘라 상선들이 적어도 나라의 석유수출의 10%를 담당해야 한다는 전국해상법을 공포하였다.

정부는 베네수엘라자원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무제한한 략탈을 끝장내야 할 때가 왔다고 하면서 1973년 11월 1일부터 외국석유독점회사들에 대한 세금을 훨씬 올렸다. 1973년말부터 1974년초에 걸쳐서는 석유수출국기구의 모든 성원국들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석유값을 여러차례 올렸다.

1974년 1월 8일에는 외국석유회사들이 4월 8일부터 유전사용료의 일부로서 매일 10만바렐의 석유를 바치게 하고 그것을 석유가 절실히 필요한 일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1973년 5월 미국무장관 로저스란놈의 베네수엘라행각을 반대하여 이 나라 근로자들은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여러대의 자동차를 마사버렸다.

1973년에 미제독점회사들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생존의 권리와 로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 민주주의적권리와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각계층 근로자들의 투쟁 등 각종 파업과 시위들이 있었다.

1973년 11월에 칠레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있었으며 3천여명의 농민들이 칠레공산당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을 즉시 석방하며 칠레군사도당의 탄압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여 시위하였다. 12월에는 자기 나라에 기여든 칠레파쑈반동정권의 이른바 《대표들》을 칠레의 이전 알옌데인민통일정부전복음모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규탄하고 그 놈들을 베네수엘라에서 내쫓았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깔데라가 1973년

2월에 아르헨띠나, 칠레, 에꽈도르, 꼴롬비아, 뻬루, 볼리비아를 방문하였으며 로므니아 국가쏘베트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쓰꾸가 베네수엘라(9월)를 방문하였다.

이해 8월 2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12월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민주행동당의 까를로스 안드레스 뻬레스가 당선되였다. 1974년 3월 12일 베네수엘라의 39대대통령으로 취임한 뻬레스는 자기 나라가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할것이며 외래독점체들이 독차지하고있는 방대한 규모의 석유공업을 국유화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베네수엘라사람의 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우리 나라의 오래전부터의 포부를 실현하려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석유공업과 광업(쇠돌매장량 10억t)이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적인 석유생산수출국의 하나로서 라틴아메리카대륙의 원유채취량의 60%이상을 차지한다.

국가예산의 70%, 외화수입의 90%이상을 석유에서 얻고있다. 석유의 년생산량은 약 1억9천만t이며 그중 1억 2천만~1억 3천만t을 수출한다. 1973년에는 12억바렐(1바렐은 159ℓ)의 석유가 생산되였다. 그러나 이 나라 석유생산의 85%는 미제의 석유독점체인 《크레올 페트롤리움 코퍼레이숀》을 포함한 3개의 외래독점체들이 독차지하고있다.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로부터 석유자원을 수호하기 위하여 베네수엘라정부는 외국석유회사들을 국유화하여 국영석유회사를 확대강화하였으며 석유세를 높이고 1974년 1월부터는 석유제품의 평균공시가격을 바렐당 7.74딸라로부터 14.85딸라로 올렸다. 197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국영석유회사의 일평균 생산량은 1972년 1년동안의 일평균생산량보다 3만바렐 더 많은 10만바렐로 올라갔다. 같은 기간에 이 회사는 125개의 유정을 팠는데 1972년에 판 유정수는 83개였다.

국내 석유 및 석유제품시장을 국가가 통제할데 대한 법안을 리행함으로써 1973년말 현재 국내가스시장의 72%, 휘발유시장의 35%, 기타 석유제품시장의 22%를 베네수엘라석유회사가 통제하고있다.

베네수엘라 남쪽 가이아나고원에는 석유자원 다음 가는 자원인 큰 쇠돌매장지가 있는데 그 년생산량은 2천200만t가량 된다. 미제는 5만 7천헥터에 달하는 품위높은 쇠돌매장지를 장악하고 해마다 그 총생산량의 70%를 빼앗아간다.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은 석유공업, 광업뿐아니라 가공공업, 상업, 농업 등 각 분야에 침투하고있으며 일본독점재벌들도 아연, 동, 연 등 전략물자에 손을 뻗치고 탐사를 진행하고있다.

민족산업은 외래독점자본에 짓눌려 석유정제, 흑색금속, 식료, 축산물가공, 방직, 건재공업 등도 보잘것없는 형편이다. 공업품, 식료품,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1971년 현재 외국에 진 빚은 무려 52억 1천 100만볼리바르(1딸라=4.5볼리바르)에 달하였다.

1천 700만헥터의 방목지와 목장, 160만헥터의 부침땅이 있다. 부침땅의 80%를 농촌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대토지소유자들과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이 거머쥐고있다. 농산물은 코코아, 바나나, 커피, 담배, 목화, 사탕수수이다. 식량은 수입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석유(65.6%)와 그 가공제품(26.6%), 쇠돌(5.5%), 커피, 코코아 등이다.

이 나라에는 1만 2천 599개의 소학교, 669개의 중학교, 8개의 대학이 있으나 100만명(1971년 현재)에 달하는 학령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다. 1973년 2월 현재 실업자가 23만 1천명이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뜨리부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이스끼에르다(좌익혁명운동기관지), 뿌에블로 이 레볼루씨온(민족해방전선기관지), 라 레뿌블리까(정부기관지), 엘 나씨오날(무소속), 엘 문도(무소속), 울띠마스 노띠씨아스(무소속)

방송 베네수엘라국립방송, 국립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베네수엘라 근로자통일중앙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가이아나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넓이 21만 4,969Km²

인구 76만 3,000명

주민은 원주민인 인디안이 2만명정도이고 인도인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 그밖에 흑인 31%, 혼혈인들이 약 12% 있고 나머지는 백인이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죠지타운(주민 19만 5,250명)

정 치

민족회의 일원제 최고립법기관이다. 의원은 53명, 임기는 4년이다. 1973년 7월 국회선거결과 총의석 53석중 인민진보당이 14석, 인민민족대회당이 37석, 통일력량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하고있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민족회의에서 선거된다. 대통령 아더 충(중국계인, 인민민족대회당 출신, 1970년 3월—)

정부 총리 린든 포베스 쎔프슨 번함(인민민족대회당출신, 1964년 12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 1950년 창건, 로동계급과 농민, 인도인출신을 기본으로 하여 민족부르죠아지들을 망라하고있는 진보적인 야당, 총비서 체디 쟈간, **인민민족대회당** 1955년에 인민진보당에서 갈라져나와 조직된 당, 주로 아프리카인출신의 사람들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있으며 1964년 12월이래 집권당으로 있다. 지도자 린든 포베스 쎔프슨 번함, **통일력량당** 1961년에 창건, 부르죠아지, 지주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 주로 백인들로 구성되여있다. **로조대회, 인민진보청년동맹**

가이아나는 1966년 5월 26일 영련방성원국으로서 영국사람총독과 영국침략군이 그대로 남아있는것을 조건부로 하여 독립하였다. 그후 낡은 식민지통치기구를 청산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의 결과 1970년 2월 23일 공화국이 선포되고 《총독》제가 폐지되였다. 이해 3월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가이아나사람인 아더 충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새 정부는 민족적독립과 국가주권을 수호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1971년 7월 카나다의 독점회사인 《데메라라》보크사이트회사를 국유화하였으며 뒤이어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목재합동기업체를 접수하였다. 1973년 2월에는 외래제국주의 사탕독점회사들의 토지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1973년 4월 죠지타운에서 열린 까리브해 나라 정부수반들의 제8차회의에서 번함총리는 까리브해나라들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하며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 공업, 농업을 자신이 통제하여야만 정치적독립과 경제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8월 1일 가이아나는 바베이도즈, 자메이카, 트리니대드 토바고와 함께 까리브해지역국들이 힘을 합쳐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을 창설하였다.

가이아나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며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싸우고있는 여러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2년 10월 14일에 미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꾸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도 외교관계, 경제 및 무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1972년 8월 가이아나의 수도 죠지타운에서 열린 쁠럭불가담국가 외교부장회의에서 가이아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과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과 전체 아랍인민들의 정당한 투쟁, 그리고 제국주의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1973년 10월에 가이아나전국평화리사회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으며 인민진보당 총비서 체디 쟈간이 리사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이 회의는 칠레에서의 미제에 의한 파쑈적인 군사정변을 규탄하고 기네—비싸우공화국에 대한 지지를 확약하였다.

1974년 2월에 있은 미주국가 외교부장회의에서 가이아나대표는 《미국을 고립시키고 꾸바를 참가시키는 새로운 미주기구를 내올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973년 3월에 가이아나는 쏘련과 량국수도에 대사관들을 개설하며 무역을 증가시킬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해 6월에는 수리아아랍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해 9월에 꾸바의 피델 까스뜨로총리가 가이아나를 방문하였으며 1973년 10월에 가이아나정부무역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가이아나에서는 농업과 광업이 경제의 기본으로 되고있다.

이 나라 로동인구의 37%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으며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23%에 달하고있다. 식민지경제의 후과로 부침땅의 3분의 1에 사탕수수를 재배하고있다. 사탕생산량은 년평균 36만~39만t이다. 그러나 사탕수수농장과 사탕공장들의 거의 전부를 영국독점자본의 2대회사가 거머쥐고있다. 정부는 이를 점차 국유화할데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주식물은 쌀과 강냉이인데 이것은 주로 분산적인 소농경리에 의하여 생산되며 그 생산량은 얼마 안된다. 해마다 많은 식량을 수입한다. 열대농산물인 귤과 파인애플, 커피, 코코아, 야자 등도 생산하고있다.

가이아나농업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꿀생산이다. 이 나라에서 꿀치기는 독립후에야 비로소 발전하기 시작하였지만 꿀생산량이 아주 많으며 앞으로 꿀생산을 늘이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 1973년에 6만 7천폰드의 꿀과 1천 150폰드의 꿀밀을 생산하였다. 정부는 1974년까지 3개의 큰 국영양봉장을 꾸릴것을 계획하고있다. 주요 꿀생산지는 동북부의 에쎄키보이다.

집짐승들로는 소, 양, 염소, 돼지 등을 기르고있다.

1973년에 정부는 《1976년까지 의식주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자》는 구호밑에 경제의 기본을 이루는 농업발전에 국가의 투자를 늘이고 많은 관개공사와 해안방조제건설을 진행하였다.

1973년에 죠지타운의 대서양 연안지역에 너비 약 60m, 길이 약 360m의 둑을 쌓았다. 정부는 1976년까지 둑건설에 4천만가이아나딸라를 투자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나라는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질좋은 목재들을 해외에 수출하고있다.

공업에서는 보크사이트채굴업이 기본인데 그 년간생산량은 430만t이상으로서 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세번째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그 채굴 및 가공 공업은 미제와 카나다 독점체들이 장악하였으며 특히 미제가 80%를 틀어쥐고있다. 독립후에 가이아나는 점차 보크사이트회사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고있다.

그밖에 금, 금강석, 알루미나, 동, 망간, 니켈, 연 등 유색금속들이 있다.

가공공업에서는 소규모의 사탕공장, 방직공장, 열대농산물가공공장들이 있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278Km이며 도로의 연장길이는 1,760Km이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보크사이트, 금강석, 목재 등이다. 수출총액에서 사탕이 차지하는 몫은 36%, 보크사이트는 50%이다.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및 운수수단, 여러가지 완제품, 식량, 연료, 화학제품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미국, 카나다인데 미제는 1973년 첫 일곱달동안에만도 5천 300여만가이아나딸라어치의 잉여상품을 이 나라에 들이밀고 많은 리윤을 짜내갔다.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략탈행위를 제한 통제하기 위하여 1974년 3월에 수입상품을 국가가 통제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가이아나에는 독립 이전에 3개의 중학교에 1천명의 중학생이 있었다면 현재 중등 및 고등 학교가 45개나 되며 대학이 1개 있는데 여기서 1천 200여명이 공부하고있다. 정부는 식민지노예교육체계를 청산하고 교육내용을 민족적리익에 맞게 개편하는 사업과 함께 민족간부양성을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교재들의 편집 및 출판에 힘을 넣고있다.

15살이상의 주민들 중 문맹자는 13%이다.

이 나라에서 종교는 다른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는 달리 영국교회파가 세력을 펴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선더(인민진보당기관지), 뉴 네이숀(인민민족대회당기관지), 썬(통일력량당기관지), 이브닝 포스트, 미러, 가이아나 그라픽

방송 가이아나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5월 1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11월 13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3년 4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가이아나를 방문하였으며 가이아나 대통령을 만났다. 대표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그에게 보내시는 선물을 전달하였다.

가이아나의 수도 죠지타운에는 수령님의 로작들만을 전문으로 보급하는 서점이 있다. 서점안에는 수령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으며 수령님의 로작을 찬양하여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저서》, 《20세기의 공산당선언》이라고 쓴 구호판들이 장식되여있다.

수 리 남

(화란식민지)

이 나라는 남아메리카대륙의 북부에 자리잡고있으며 프랑스령가이아나, 가이아나, 브라질과 린접하고있다.

넓이 16만 3,265Km²

인구 41만명(1971년)

주민구성에서 아세아사람이 많은것이 특징이다. 혼혈인이 36%, 인도사람이 35%, 인도네시아사람이 15%, 흑인이 9%, 인디안이 2%, 기타가 3% 차지하고있다.

공용어는 화란말

행정중심지 파라마리보(주민 15만명)

정 치

국회 일원제, 의석은 39석이고 임기는 4년이다. 1969년 10월 선거결과 통일힌두스탄당이 18석, 수리남국민당이 12석, 국민진보당이 8석, 민족공화당이 1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총독 화란총독이 9명으로 된《내각》과 임명제로 되여있는《자문회의》그리고 39명으로 구성되는 임기 4년의《의회》를 두고 집행권을 행사한다.

정당, 사회단체; 수리남국민당 1946년에 조직, **통일힌두스탄당** 1949년에 조직, **국민진보당, 수리남민주당, 민족공화당, 진보로동자조직, 광업로동자동맹**

화란식민주의자들은 1954년부터 수리남을《자치령》으로 만들고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고있다. 이 나라에는 지금 화란의 전차, 포병, 보병 부대들이 주둔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이 나라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한 미제는 1962년 4월 화란과 협정을 맺고 수리남을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는《권리》를 획득하였다.

최근 년간 수리남에서는 화란식민주의자들과 반동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로동운동이 급속히 앙양되고있다.

1973년 1월 17일 행정중심지 파라마리보시 세관일군들이 임금을 올려받기 위한 파업을 일으켰다. 이 파업은 채취공업과 목재가공공업부문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부문 근로자들까지 합류함으로써 2월 11일에는 전국적인 파업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파라마리보시 파업자들은 거리에 바리케트를 쌓고 최루탄과 총탄을 쏘아대며 날뛰는 경찰놈들과 맞서 용감히 싸웠다. 이해 3월에는 파라마리보시 근로자들이 반동적인 략탈기구인 중앙세무기관건물과 거기에 쌓여있던 각종 문서들을 몽땅 불태워버렸다. 수리남 근로자들의 투쟁은 국내의 진보적로동자들은 물론 화란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받았다.

경제, 사회문화

수리남은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로력인구의 3분의 1은 농업부문에 종사하며 농산물은 벼(년산 10만t), 강냉이(1천 380t), 사탕수수(15만 3천 500t), 감자, 남새, 바나나, 커피, 코코아 등이다. 식량은 대부분 수입한다. 소를 위주로 하는 축산업이 있다. 바다가 주민들은 물고기잡이를 주로 한다. 연해에는 새우가 많다.

이 나라의 경제는 미제와 화란식민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예속되여 있으며 민족경제란 그 형체도 찾아볼수 없다. 공업의 기본은 보크사이트와 금채굴인데 보크사이트 채굴은 미국—카나다의 자매회사인《알코아 수랄코》와 화란회사인《빌리톤》에 장악되여 있다. 보크사이트생산은 제2차세계대전후 급격히 늘어났는데 미제는 자국의 보크사이트 소비량의 65%를 이 나라에서 략탈해가고있다. 금생산량은 년 평균 160Kg정도이다. 전력공업의 거의 전부를 미제가 장악하고있다. 가공공업으로는 소규모의 알루미니움가공공장과 목재 및 식료가공 공장들이 있고 반수공업적으로 사탕, 럼술도 생산한다. 속대가 굳은 질좋은 나무가 많은데 이것들은 대부분 수출된다. 파라마리보항구근처에는 화란계 목재회사의 합판공장이 있다.

철길은 170Km뿐이며 국내수송은 몇개의 강줄기를 통해 하고있다.

수출품은 보크사이트, 알루미나, 알루미니움, 사탕, 귤, 커피, 목재 등이며 수입품은 옷, 식량 및 기타 생활필수품들이다. 미제와 화란식민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대외무역을 독점하고있다.

학교는 중등학교까지밖에 없다.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도 각이하다.

출판보도; 신문 데 와레 티즈드, 데 웨스트, 수리남

방송 수리남방송, 수리남텔레비죤방송

프랑스령가이아나

남아메리카대륙의 북부에 있으며 수리남, 브라질과 접경하고 북쪽으로는 대서양을 끼고있다.

넓이 9만 1,000Km²

인구 5만 1,000명(1970년)

주민은 인디안, 흑인, 프랑스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인구밀도는 1Km²당 0.5명정도이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행정중심지 까옌느시에 모여살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행정중심지 까옌느(주민 2만 4,580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프랑스의 지사가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통치한다. 지사밑에 15명으로 구성된 총무회의가 있는데 프랑스국회 상하량원에 각각 1명씩의 의원을 보내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가이아나사회당 1956년에 창건, **사회당** 1951년에 창건, **인민동맹당** 1958년에 창건, 나라의 자치를 요구한다.

프랑스침략자들은 1815년에 이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 1870년부터 총독통치를 실시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여 식민지통치에 위협이 조성되자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1946년에 이 나라를 프랑스의《해외현》으로 만들었으며 오늘까지 식민지통치를 계속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대부분을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경제에서 기본은 금채취와 림업이다. 령토의 90%이상이 울창한 밀림지대이며 질좋은 목재가 많이 생산되고있다.

농산물로서 사탕수수, 마니오크, 바나나, 파인애플, 코코아 등 열대농산물과 벼, 강냉이와 같은 알곡작물이 있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집짐승들로는 주로 소와 돼지를 기르고있다.

공업부문에는 사탕공장, 럼술공장, 목재가공공장 등이 약간 있다.

철길은 행정중심지부근에 있고 자동차길은 350Km밖에 안된다.

주로 목재, 럼술을 수출하고 식량,

기계류, 석유제품, 세멘트 등을 수입한다. 주요 무역대상국은 미국과 프랑스이다.

원주민인 인디안들은 아직도 밀림지대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있다.

주민의 80%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라 쁘레스 드 가이아나

방송 가이아나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브 라 질

(브라질합중국)

넓이 851만 1,965Km²

인구 1억 100만명(1973년 7월)

주민은 백인이 61.7%, 흑인이 11%, 혼혈인이 26.5%, 기타 0.8%이다. 백인의 대다수는 뽀르뚜갈사람들이며 원주민인 인디안은 점차 줄어들어 아마존강류역에 약 15만명정도 산다.

공용어는 뽀르뚜갈말

수도 브라질리아(주민 54만 5,000명)

정 치

국민회의 상하량원제이며 임기는 상원이 8년, 하원이 4년이며 상원의원들은 매개 주에서 3명씩 선거된다. 하원은 310석, 상원은 66석이다. 1970년 11월 15일 선거결과 하원에서 집권당인 국가혁신동맹이 219석, 브라질민주운동이 91석을 차지하였고 상원에서는 국가혁신동맹이 59석, 브라질민주운동이 7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 에르네스또 가이즐(1974년 1월 15일—)

국가안전리사회(정부기관) 대통령, 부대통령, 각료들, 대통령직속 군사 및 민사 관계 관방장관들, 군총참모장, 각 병종참모장들, 대내외정책의 주요전권을 위임받은자들로 구성된다.

정당, 사회단체; 1965년 10월 법령에 따라 모든 정당이 해산되고 1966년에 두개의 정당만을 창건하는것이 승인되였다. **공산당** 1922년에 창건, 1965년 10월에 비법화되였다. **국가혁신동맹** 1966년에 나온 집권당이다. **브라질민주운동** 합법적활동을 하는 유일한 야당.

1964년 정변이후 활동의 제한과 당국의 통제를 받고있는 로조단체들로서 **공업로동자전국련맹, 상업일군전국동맹, 륙운로동자전국련맹** 등이 있다.

현 반동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단체로서는 **인민혁명전위대, 민족해방행동, 10월 8일혁명운동, 7월 26일 혁명운동, 혁명무장전위대** 등이다.

미제에 의하여 브라질에서 진보적인 굴라르뜨정부가 전복되고 1964년 3월 브랑꼬군사독재정권이 수립된 때로부터 이 나라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친미반동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정권을 빼앗은 브랑꼬파쑈악당들은 진보적정치활동가들과 애국자, 인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과 학살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이전 굴라르뜨정부가 실시한 일련의 진보적조치들을 폐지하였다. 1965년 5월에 미제의 사촉밑에 꾸바와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10월에는 공산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활동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인민들의 반미반정부감정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1965년 3월에 리오그란데 도 술주 남부의 2개 도시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났다. 인민들의 투쟁 앞에서 미제는 1967년 3월에 씰바군사독재정권을 새로 조작해냈으며 이 독재정권은 헌법과 국회를 무기한 정지시켰다. 그후 씰바독재정권을 뒤이은 메디씨정권은 1969년 10월 파쑈독재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새헌법을 발포하고 형식상 국회활동을 재개하였으나 이전 정권의 대외정책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다.

군사정부의 파쑈폭압통치에 항거하여 브라질의 애국적인민들은 1968년부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벌려왔다. 브라질유격대는 싼 빠울로, 리오 데 쟈네이로를 비롯한 대도시들과 뻬르남부고주, 빠라나주 등 광활한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나라들이 취한 강한 조치와 사회적압력에 의하여 1971년 6월 1일부터 자기 나라 령해를 200마일로 선포하였다.

1973년에도 브라질에서는 친미독재정치를 반대하는 유격대들의 투쟁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전개되였다. 브라질의 애국적무장인원들은 2월에 수도의 떼후까구역에 있는 반동경찰서를 습격하여 여러정의 무기와 탄약들을 로획하였으며 3월에는 수도의 꼬빠까바나구역에서 인민탄압책동에 앞장섰던 악질경찰놈들을 습격하여 단호히 처단하였다. 로조활동가들과 교원들을 비롯한 많은 진보적인사들은 2월에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브라질반동당국이 미제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하여 싸운 23명의 애국자들을 무참하게 학살한데 대해 항의하였으며 미제와 반동당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보적력량에 호소하였다. 1월에 리오 데 쟈네이로에서 브라질교원들이 하루 12~14시간의 수업을 강요하면서도 최저생활비조차 주지않는 정부의 반동적처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브라질은 외래독점체들에 예속된 농업—공업국가이다. 로력인구의 50%가 농사를 짓고있으며 대외무역총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몫이 약 80%이다. 비옥한 토지와 방대한 방목지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대토지소유자들과 외래독점회사들에 장악되여있다. 부침땅의 80%이상을 주민의 2%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이 독차지하고있다. 농촌로력인구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전혀 땅을 못가지고있다.

식민주의자들의 략탈정책과 반동당국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하여 수출용작물인 커피,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만을 재배하고있다. 커피생산량은 자본주의나라들 중에서 제1위(년산 110만~140만t), 코코아는 제3위(년산 20만t)이다. 알곡작물로는 강냉이, 벼, 밀 등이 있다.

집짐승들로는 소, 돼지, 양, 말, 노새, 당나귀 등을 기르는데 현재 소가 1억마리이상, 양 2천여만마리가 있다.

브라질고원의 북부와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쇠돌, 망간, 중석, 석유, 우라니움 등의 광업과 섬유, 식료, 금속, 화학, 기계 공업이 창설되였으나 민족공업은 거의 없고 모두 미제와 외래독점회사들에 장악되여있다. 약 500개의 외래독점회사들과 36개의 외국은행지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공업의 70%, 운수의 약 68%를 틀어쥐고있다. 브라질에서의 미국민간인 투자총액은 20억딸라이상에 달하고있다. 특히 최근년간 브라질에 대한 일본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데 1973년에 10억딸라였다. 브라질에는 80만명의 일본 이주민이 있으며 이들은 농업, 상업, 지어는 나라의 공적사무에서도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있다. 80여개의 일본회사들이 이 나라의 제철, 선박건조, 차량, 자동차부분품, 석유화학, 전기 및 전자기구, 식료품, 방직 공업 및 목축업 등 각부문을 틀어쥐고있다.

1973년 9월에 브라질의 카라야스산맥에서 매장량이 아주 풍부한 철광석매장지가 발견되였는데 일본회사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합자로 제철소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제국주의 잉여상품들이 국내시장을 휩쓸고있을뿐아

니라 대외무역도 외래독점체들이 장악하고있다.

대외무역적자는 1973년에 약 5억딸라였고 다른 나라에 진 빚은 무려 125억딸라를 넘었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목화, 코코아, 사탕과 집짐승들이며 기계, 설비, 운수수단, 화학제품, 석량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일본, 서독 등이다.

미제의 략탈과 반동당국의 반인민적 정책으로 하여 브라질근로자들은 30년전과 같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인구의 10%밖에 안되는 반동적특권계층은 일하지 않으면서 국민소득의 90%를 독차지하고있다.

197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과일값이 25~35%, 남새값 10~20%, 물고기값이 12%나 뛰여올랐다.

1973년 1월에 집세 26%, 차비 30%가 더 올랐으며 1월부터 5월까지의 다섯달동안에 생계비는 6.5% 올랐다.

브라질 동북부의 1천 200개 마을들에는 단 한명의 의사도 없으며 나라의 80%에 해당하는 지역이 말라리아감염지대로 선포되고있다. 1973년 1월 현재 결핵환자가 3천만~4천만명이며 폐결핵으로 하루평균 32명이 죽어가고있다. 1973년도의 국가예산에서 보건비지출은 군사비지출의 12분의 1에 불과하였으며 마라니아오주에서만도 122개 지구중 의사가 있는 지구는 22개뿐이고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는 갓난애기 1천명당 722명이 죽고있다. 주민 2천명당 의사수는 한명에 불과하다. 7살이상의 주민들 가운데서 50%가 문맹자이다. 학령어린이 1천명당 550명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헨씨아 나씨오날(정부통신)

신문 오 에스따도 데 싼 빠울로(무소속), 폴라 데 싼 빠울로, 디아리오 데 노띠씨아스

방송 브라질교육문화부방송, 브라질전국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8월 1일 브라질조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4월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투쟁단체 대표부 성원들은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와 《김일성동지혁명활동및로작연구소조》를 조직하여 주체사상을 연구하고있다.

꼴롬비아

(꼴롬비아공화국)

넓이 113만 8,914Km²

인구 2,200만명(1973년)

주민중 인디안과 에스빠냐사람 사이의 혼혈인인 메티스가 68%, 백인이 20%, 인디안이 7%, 흑인이 5%정도 차지한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보고따(주민 251만 5,000명)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118석(임기 4년), 하원은 218석(임기 2년)이다. 헌법에 의하여 자유당과 보수당이 국회에서 지도적지위를 절반씩 차지하고있다(1974년까지). 1970년 4월 국회선거결과 자유당은 상원에서 46석, 하원에서 72석, 보수당의 《우니오니스뜨》파는 상원에서 18석, 하원에서 30석, 《알바리스뜨》파는 상원에서 15석, 하원에서 32석, 인민자유혁명운동은 상원에서 1석, 하원에서 3석, 전국인민동맹은 상원에서 38석, 하원에서 71석을 각각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직은 자유당과 보수당이 교대로 차지한다. 각료직도 자유당과 보수당이 절반씩 차지한다.

대통령 미싸엘 빠스뜨라나 보레로(보수당출신 1970년 8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7월에 창건되여 1948년부터 비법화되였다가 1958년에 합법화되였다. 총비서 힐베르또 비에이라, **《민족전선》** 집권당들인 자유당과 보수당의 련합체이다. **자유당**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변한다. **보수당** 지주, 교회,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한다. 두파로 분렬되여 있다. **인민자유혁명운동** 1960년에 창건되였다가 1967년에 다시 조직되였으며 중소부르죠아지, 일부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을 망라하고있다. **전국인민동맹, 기독교민주당, 근로자로조련맹**(1964년 창립, 진보적로조), **근로자련맹, 전국농업로동자련맹, 공산주의청년** 1973년 1월 제3차대회진행, **민주녀성동맹**

독립이래 꼴롬비아에서는 반동적인 두 정당인 자유당과 보수당간의 추악한 정권쟁탈전이 계속되여오다가 1958년에 자유당과 보수당이 정치적흥정을 하고 두당이 《민족전선》을 형성하면서 량당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두당은 1957년 12월 헌법을 수정하여 대통령직을 륜번제로 차지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꼴롬비아반동정권은 미제에 추종하면서 파쑈테로통치를 실시하였으며 나라의 경제를 제국주의자들에게 더욱 예속시켰다.

미제와 친미반동독재정권의 전횡을 반대하여 1970년부터 1972년까지만도 여러차례의 폭동이 일어났으며 1971년에 놈들은 계엄령까지 선포하였다.

1972년에 꼴롬비아정치무대에서는 새로운 민족적애국전선인 《민족야당동맹》이 출현하여 자연부원의 국유화와 토지개혁의 실시, 민족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수립, 완전한 민주주의적자유와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실시 등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1972년 4월에 진행된 지방자치기관선거에서는 유권자의 63%가 기권하였다.

꼴롬비아신문 《엘 쑬》 1973년 1월호는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나라의 석유자원을 도로 찾을것을 견결히 요구하였으며 《엘 띠엠뽀》 3월호도 나라의 자연부원을 략탈하고있는 외래독점체들과의 예속적인 《계약》을 폐기하고 나라의 원유자원을 국유화할것을 요구하였다.

9월에 꼴롬비아사회계 대표들은 보고따에서 반제군중집회를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문화발전에 간섭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을 폭로규탄하였으며 문학예술인들이 꼴롬비아로동계급의 투쟁력사를 가지고 국내인민들을 교양할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친미파쑈정권의 테로통치를 반대하는 꼴롬비아민족해방군과 혁명군들의 매복, 습격 등 각종 형태의 유격투쟁이 도처에서 전개되였다.

꼴롬비아유격대원들은 1973년에 도처에서 악질주구놈들을 처단하였는데 1월에 꼬르도바, 안띠오끼아, 똘리마주들에서 여러차례의 습격활동을 벌리고 여러놈의 악질기업주놈들과 농장주놈들을 사로잡았으며 다른 한부대는 인민탄압에 미쳐날뛰던 반동경찰놈들을 매복습격하여 불벼락을 안겼다. 2월에는 반동정부군놈들이 유격대의 불벼락에 녹아났고 3월에는 악질적인 미제침략군 대위놈을 체포하는 등 년중 유격대들의 활동이 전개되였다.

또한 4월에 꼴롬비아의 《노엘》회사에 고용된 1천 500명의 로동자들이 반동기업주놈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고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한것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재정경제부문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재정부문공무원들의 파업, 생활처지개선을 위한 교원들의 투쟁 등이 계속되였다. 5월에 미국무장관 로저스란놈의 꼴롬비아행각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반미시위가 보고따와 메델린에서 진행되였으며 이 투쟁에서 학생들은 경찰놈의 차를 불태우고 경찰들과 맹렬한 투석전을 벌렸다.

꼴롬비아인민들과 사회계의 압력으로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이 략탈해가는 원유값을 민족적리익에 맞게 정하는것은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응당한 조치라고 선포하고 10월에 원유 한바렐값을 1.56딸라로부터 2.34딸라로 올릴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8월에 정부는 꼴롬비아의 귀금속채취권을 독차지하고 나라의 법과 자주권을 짓밟고있는 외래제국주의독점회사들의 귀금속 채취광산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꼴롬비아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며 농업과 채굴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주민의 70%가 농사를 한다. 주민의 3% 남짓한 지주놈들이 전체 부침땅의 약 65%를 차지하고있는 반면에 근 85%에 달하는 농민들은 부침땅의 15%밖에 가지지 못하고있다. 농업이 국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몫은 30%이지만 외화벌이에서는 큰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은 오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주로 커피재배에 치우치고있다. 꼴롬비아는 세계에서 브라질 다음가는 커피생산국이며 그 질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한해에 커피가 47만~48만t정도 생산되며 그 대부분이 수출된다. 이 나라 인구의 평균매 10명중 한사람이 커피재배원에서 일하고있으며 그외에 약 40만명이 커피생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있다. 커피가 많이 나는 안띠오기아주에는 현대적인 커피저장창고와 가공공장이 있다. 꼴롬비아에서는 1972년부터 커피이외의 수출품들을 장려하는 《4개년계획》이 실시되고있다.

알곡작물로서 강냉이, 벼, 감자, 콩류가 있으며 그밖에 바나나,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 담배가 생산되고있다.

목축업으로서는 동북부의 산간지대에서 젖소, 양을 기른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20%를 차지한다. 공업에서 주되는 부문은 채굴업이며 그 중심지는 마그달레나지역이다. 광물자원의 4분의 1을 미국자본이 독차지하고있다.

이 나라에서 석유는 매해 약 900만t 생산되는데 석유채취의 85%를 미제독점자본이, 15%를 영국자본이 독차지하고있다.

가공공업으로서는 식료, 방직, 화학, 약품, 피복, 음료 등이 있으며 세멘트, 도자기, 유리도 생산되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에 250개의 기업체를 두고 1딸라를 투자하여 평균 4딸라이상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60%), 석유(10%)와 그 가공제품이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3천 500Km이다.

통화팽창이 계속되고 일용필수품값이 자꾸 올라 생계비는 계속 뛰여오르고있는데 197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생계비가 약 20% 올랐다. 1973년 6월 현재 실업자수는 60여만명이였다.

학령아동의 4분의 1이 배우지 못하며 문맹자의 비률은 인구의 42%나 된다. 특히 농촌주민들속에 문맹자가 많은데 매해 7살부터 14살까지의 농촌소년들중 60만명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있다. 수업료를 물지 못하여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수가 많으며 농촌소학교에 입학한 학생중 졸업하는 학생은 겨우 7%에 불과하다.

주민의 90%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보스 뽀로레따리아(공산당기관지), 에헤르씨또 뽀뿔라르 데 리베라씨온(인민해방군기관지), 푸에르사스 아르마다스(유격대신문), 디아리오 오피씨알(정부기관지), 엘 에쓰뻭따도르(자유당계), 엘 씨글로(보수당계), 엘 띠엠뽀(자유당계), 엘 쏠

방송 꼴롬비아국립방송, 꼴롬비아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 꼴롬비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 7월 1일에 진행된 꼴롬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조선에 관한 결의《조선내정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을 반대하여》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꼴롬비아가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던 력사적오점을 씻어야할 의무를 지니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에서의 미국군대의 철거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주장할것을 꼴롬비아인민에게 호소하였다.

1973년 8월에 꼴롬비아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에꽈도르

(에꽈도르공화국)

넓이 28만 3,561Km²(갈라빠고스군도포함)

인구 1,412만 2천명 (1973년 8월 26일)

주민중 혼혈인과 인디안이 80%를 차지하며 그밖에 백인 10%, 흑인 5%, 기타 5%이다.

수도 끼또(주민 65만명)

정 치

국회 1970년 6월 해산

정부리사회 1972년 2월 15일 륙군사령관(대통령), 해군, 공군 사령관들로 구성된 나라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라라(1972년 2월 15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전신은 1926년 5월 23일에 창건된 사회당인데 1930년에 공산당으로 고쳤다. 1973년 11월 9차대회진행, 총비서 뻬드로 싸아드, **벨라스꼬주의자민족련맹** 1972년 2월까지 집권한 대통령 벨라스꼬를 옹호하는 자들로 조직된 반동적정당, **보수당** 미제독점자본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는 반동정당, **자유급진당** 주요상공업자들의 리익을 대변, **기독교사회운동, 인민력량통일, 립헌민주련합** 1965년에 창건, **에꽈도르민족혁명행동**, 사회당계렬은 **사회혁명당, 사회통일당, 에꽈도르사회당**으로 분렬되여있다. **인민민주동맹** 공산당의 참가하에 1968년에 결성, 제국주의독점체들과 국내반동들을 반대하며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한다. **근로자총련맹**(1944년에 창립, 세계직련에 가입한 진보적로조), **공산주의청년**

에꽈도르는 에스빠냐식민지기반에서 독립한 후 반동적인 군사독재자들이 정권을 잡고있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침략과 간섭책동이 강화되였으며 미제는 1952년에 이 나라와 《군사협정》, 《농업협정》을 맺고 수많은 《군사고문》과 《기술자》의 탈을 쓴 정탐배들을 밀어넣고 에꽈도르에서 사실상 《주인》행세를 하였다.

미제의 지지밑에 1968년 8월에 집권한 벨라스꼬 군사독재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1946년의 파쑈적인 《헌법》을 복귀하였으며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였다. 또한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 정

당, 로조, 학생 지도자들을 잡아가두고 1970년 6월에는 나라의 넓은 석유매장지를 미제에 팔아넘겼다.

1972년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근로자들의 반미반정부투쟁기운이 앙양되여가고있는 가운데 1972년 2월 15일 당시 륙군사령관이었던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라라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벨라스꼬 이바라독재정권을 전복하고 정부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되였다.

길예르모정부는 집권후 1945년에 좌익세력의 통제하에 있던 국회가 초안한 진보적인 헌법을 회복하고 이전 《헌법》을 페지하였으며 정당, 로조 및 기타 근로단체들에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보수적경향이 강한 공군지도부를 정리하고 권력기관들에서 륙해군의 비중을 높이는 조치들을 취하였고 좌익적견해를 가진 민간인활동가들도 정부에 받아들였다.

길예르모정부는 《혁명적민족주의계획》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포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소수의 파두정치세력에 의한 국가자원의 착취와 외국독점체들에 의한 경제의 예속을 끝장낼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계획의 일부로서 진보적계획들의 추진을 연구할 최고민족연구소를 새로 내왔으며 외래독점체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1972년 6월에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독점체들의 석유채취권을 제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이 법령에 따라 1972년 12월 31일까지 미제석유개발지 가운데서 70%를 국유화하였다. 1973년에 들어와서 1월에만 하여도 미제석유회사 《텍사코》관리권의 25%를 국유화하여 6개의 외국석유독점회사들이 차지하고있던 330만헥터의 유전을 국유화하였다.

에꽈도르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미제독점회사들은 이해 1월 11일 국유화한 유전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파렴치한 《요구》를 제기하였으나 에꽈도르정부는 이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 규탄하였다.

에꽈도르정부는 미제기업체들이 이 나라에 기여들어 주인행세를 하는데 대해 응당한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이 나라 정부는 미국놈들이 차지하고 있는 13만 7천헥터의 유전의 땅세를 물지 않는데 대한 벌칙으로 1973년 3월에 미제의 《에꽈도르광업및석유회사》, 《야수니 석유회사》와의 일체 계약을 페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해 8월에는 미제독점회사 《텍사코》, 《갈프》, 《쎈》 석유회사들과 맺었던 파거의 예속적인 《계약》을 없애버리고 미국놈들의 석유채취기한을 40년으로부터 20년으로, 채취지역 범위도 50만헥터를 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1973년 9월 끼또에서 진행된 라틴아메리카동력기구창설회의에서 에꽈도르대표는 제국주의자들이 대륙의 자연부원을 략탈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규탄하고 단결하여 자연부원들을 수호할것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호소하였다.

에꽈도르는 이해 11월 19일 석유수출기구의 성원국으로 되였으며 다른 석유수출국들과 힘을 합쳐 민족적권익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3년에 에꽈도르는 200마일 령해권을 수호하며 바다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1973년 4월 끼또에서 진행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경제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에꽈도르대통령은 《에꽈도르는 모든 힘을 다하여 200마일 령해권을 지킬것이며 나라의 자주권을 짓밟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반대하여 싸울 각오가 되여있다》고 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먼저 200마일 령해권을 선포한 에꽈도르는 1973년 1월에 자국령해에서의 외국선박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법령은 외국선박들이 에꽈도르의 강과 령해들에서 활동할수 있다고 규정한 종전의 결정을 취소하고 외국독점체들의 모든 선박들이 에꽈도르정부의 국유화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등록을 취소하며 선박들에서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일체 에꽈도르선박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지적하였다.

1973년 2월에 에꽈도르국방부는 미제해적선들이 자주 침입하여 바다자원을 략탈해가는것을 막기 위하여 200마일 령해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것을 에꽈도르 해군에 명령하였다.

1971년에 두개 어장에서만도 50척의 해적선을 나포하여 350만딸라의 벌금을 받아들인 에꽈도르 해군은 1973년 1월에 미제해적선 《씨피 오브 파나마》호를 비롯하여 2월에 미제해적선 3척과 일본 해적선 《에이호마루》를 붙잡아 물고기를 몰수하고 벌금을 받아냈다.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적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에꽈도르정부의 시책들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이 나라에 압력을 가하면서 이전 친미독재정권과 맺었던 《차관협정》의 리행을 중지하겠다고 위협하여 나섰지만 에꽈도르정부는 오히려 1972년 4월 8일에 이 《협정》을 주동적으로 페기해버렸다.

1973년 8월과 9월에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원들의 파업투쟁이 있었다.

1974년 1월 15일에 침보라쏘주의 약 5천명의 농민들이 대지주놈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 행위를 준렬히 규탄하고 민주주의적인 토지개혁실시를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렸다.

에꽈도르는 자주적인 정책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배격하며 사회주의나라들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발전시킬것이라고 선언하고있다. 1973년 11월에 한 연설에서 길예르모대통령은 《우리는 에꽈도르의 법과 존엄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어떤 형태의 제국주의예속도 반대하여 싸울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972년 5월 《미주국가기구》 상설리사회회의에서 에꽈도르는 사회주의 꾸바와 관계를 개선할것을 주장하였다. 1973년 8월에 에꽈도르의 진보적인 정당, 로조단체, 사회 및 문화 단체들은 칠레와의 련대성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에꽈도르는 1973년 7월에 민주독일과, 1974년 2월에는 이라크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9월에 로므니아국가쏘베트위원장 니꼴라에 차우쉐쓰꾸가 에꽈도르를, 11월에는 에꽈도르대표단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에꽈도르는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한 극소수의 부유한자들이 국민총생산액의 약 60%를 차지하며 농촌주민의 1%에 해당하는 지주놈들이 부침땅의 4분의 3을 틀어쥐고있다.

농촌에서는 세습적인 반봉건적토지소유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있고 외국독점체들, 특히 미제독점체들의 략탈로 농업생산은 커다란 지장을 받고있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업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농업은 바나나, 커피, 코코아 등 3대 수출작물재배에 많이 치우치고있으며 여기에서 외화벌이의 67%를 얻고있다. 특히 바나나수출은 세계 제1위이다. 1971년에 224만t의 바나나를 생산하였는데 135만t은 수출하였다. 에꽈도르는 자기들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972년에 꼬스따 리까, 콜롬비아와 바나나수출련맹을 결성하고 미제련합과일회사를 비롯한 국제독점체들의 가격제한정책에 공동으로 대항하기로 하였다.

해마다 코코아는 5만여t, 커피는 6만t 정도 생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작물의 수매, 부분적인 생산과 수출은

미제의 《유나이테드 프루트》회사의 자매회사들이 완전히 거머쥐고있다.

알곡작물로서 벼, 강냉이, 밀, 보리, 마니오크 등이 생산되나 식량은 수입한다. 1973년에 밀, 유지작물 등의 품종생산에 힘쓰면서 수입을 될수록 줄이기 위한 데 많은 힘이 돌려졌다.

집짐승은 소, 양, 돼지를 주로 기르고있다.

공업은 석유채취 및 가공 공업을 제외하면 중소규모의 세멘트, 방직, 식료가공 공장들이 있을 뿐이다. 석탄, 쇠돌, 동, 금, 아연 등의 지하자원이 많지만 거의 개발하지 못하고있다.

1967년에 이 나라의 동부지역에서 큰 석유매장지가 발견되여 1972년 8월부터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5월에 석유 1일 생산량은 24만바렐이였다. 이 나라는 매년 250만t의 석유를 수출하고있다.

에꽈도르는 민족적리익의 수호를 위해 1973년 12월에 원유수출공시가격을 37% 올려 1바렐당 13.70딸라로 정하였다. 1972년 8월부터 1973년 11월까지 7번째 원유값을 올렸다.

에꽈도르는 석유가 가져온 릉성기를 충분히 리용하여 기타 부문생산과 수출의 장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각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주목을 돌리고있다.

최근년간에 금속기계와 소비품생산부문의 민족공업이 발전되였으며 일부 국내산제품이 수입상품을 대신하게 되였다.

에꽈도르에서는 45만여t의 세멘트, 21만t의 사탕, 600만리터의 식물성기름, 8억 5천만KwH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다.

교통운수는 철도 및 자동차 운수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큰 무역항구로서는 과야낄항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목화 등이며 기계류, 차량, 화학제품, 식량을 수입하고있다.

1973년에 수출총량은 1972년보다 65% 늘어났다. 대외무역의 절반은 미국과 하고있다.

로동인구의 근 40%가 실업상태에 있다.

학령아동의 대부분이 생활난과 학교의 부족으로 공부하지 못하고있으며 15살이상의 주민들중에서 32%가 문맹자이다. 대학은 7개 있다.

주민의 대다수가 천주교를 믿고있는데 수도 끼또시에는 60여개의 교회가 있다.

출판보도; 신문 엘 뿌에블로(공산당기관지), 엘 메르꾸리오(보수당기관지), 엘 꼬메르씨오(무소속), 레히스뜨로 오피씨알, 엘 띠엠뽀, 울띠마스 노띠씨아스, 아반쎄

방송 에꽈도르방송, 끼또방송, 에꽈도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8월 13일 에꽈도르혁명적청년들이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무었다.

1973년 5월 22일—29일까지 뻬드로 안또니오 싸아드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에꽈도르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7월에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이 에꽈도르를 방문하였으며 끼또시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군중집회가 있었다. 8월에 에꽈도르 신문 《아반쎄》가 《오늘의 조선》이라는 표제하에 김일성원수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인민을 사회주의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시였다고 지적하고 우리 나라의 발전성과를 소개하였다.

7월에 에꽈도르방송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뻬 루

(뻬루공화국)

넓이 128만 5,216Km²

인구 1,412만 2,000명(1973년 8월—), 주민중 인디안이 49%, 혼혈인 37%, 백인 13%를 차지한다.

국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리마(주민 351만 5,800명, 1971년)

정 치

혁명리사회 나라의 최고지도기관이며 대통령과 륙군, 해군, 공군 대표들로 구성되였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다.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1968년 10월—)

정부 혁명리사회의 자문기관역할을 한다. 총리 이르가르도 메르까도 하린(1973년 1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8년 10월 17일 창건된 이래 38년동안 지하에서 활동하다가 1968년 10월 군사정변후 합법화되였다. 1973년 11월 3일—10일까지 제6차대회 진행, 총비서 호르헤 델 쁘라도, **《좌익혁명운동》** 1959년 **인민당**에서 좌익청년집단이 떨어져나와 조직, 1965년 6월부터 1968년 10월 군사정변이전까지 무장유격투쟁을 전개, **사회당** 1928년 공산당에서 떨어져나와 조직, **사회진보당** 1956년에 진보적인테리들로서 조직, **인민당** 1924년에 창건,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 **인민행동당** 1956년에 창건되여 1968년까지 집권당으로 있은 친미정당, **기독교민주당** 민족부르죠아지와 소지주들의 리익을 대변, **기독교인민당** 1966년 기독교민주당에서 극우익분자들이 떨어져나와서 조직, **근로자총련맹**(약 50만명을 망라한 진보적로조), **공산주의청년, 인민녀성동맹**(1972년 11월 창립),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1970년 8월 13일 결성)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을 걸으려 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75페지)

1968년 10월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뻬루인민과 애국적군인들에 의하여 벨라운데친미반동정권이 전복되고 벨라스꼬를 대통령으로 하는 혁명리사회가 수립된후 뻬루에서는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합법화되였으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반제적이며 진보적사회경제조치들이 취해졌다.

벨라스꼬정부는 미제의 《인터내슈널》석유회사와 맺은 석유협정을 무효로 선포하고 1968년 10월 9일에는 이 회사의 유전과 정유소를 접수하였으며 1969년 5월에는 미《군사사절단》을 내쫓았다. 또한 1971년 3월에 발표한 어업법에서는 200마일을 령해로 선포하고 이를 침범한 미제어선들을 나포하였다. 1969년 6월 24일에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였다.

1973년 10월 4일 뻬루혁명승리 5돐에 즈음하여 한 연설에서 벨라스꼬대통령은 뻬루는 앞으로도 나라의 진보적변혁과정을 계속 밀고나갈것이며 《우리는 그 어디로부터 오던지, 그 어떠한 형태로 덤벼들던지간에 우리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시도에 강력한 힘으로써 맞서 나설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기초하여 1973년 12월에 오래전부터 이 나라에 기여들어와 동과 창연을 비롯한 많은 금속들을 생산 략탈해가던 미제의 큰 광업회사인 《라 쎄르로 데 빠스꼬 꼬르뽀라씨온》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으며 뻬루에서 가장 큰 미제의

《쎄로》동광회사에 대한 국유화조치가 취해졌다. 10월에는 미제의 석유독점회사 《간소 아줄》과 콘찬체브론원유정제공장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독점자본가놈들이 가지고있던 물고기가루공장(5월), 세멘트공장(12월)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에 모든 조선소들을 국영조선소인 《씨마뻬루》에 통합시킬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으며 외국전신전화회사의 주권을 모조리 몰수하였다. 1월에 영국자본에 속하여있던 나라의 두개 기본철도를 국유화하였다.

뻬루정부는 채광공업과 수산업에서, 동력, 운수 및 재정 분야에서 외국자본, 우선 미국자본을 기본적으로 내몰았다. 이 나라에 국영회사들인 《뻬뜨로뻬루》, 《미네로뻬루》, 《엘렉뜨로뻬루》가 생겨났다. 5월에 국영항공회사 《아에로뻬루》가 창설되였다.

정부는 1975년까지 토지개혁을 끝낼 계획밑에 토지개혁법령을 더욱 철저히 리행해나갔다.

1973년 2월에는 정부의 진보적조치들을 반대하고 태업을 조작하려는 반동세력에 즉시적인 타격을 주기 위하여 개인공업기업소들의 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발포하였으며 이 법령의 성과적집행을 위해 상공업부 대표들을 중요한 부문의 개인기업소들에 파견하여 일체 문건들을 검열하고 생산을 통제하였다. 1월에는 물건값을 제마음대로 올리는 것을 금지하며 투기업자들을 엄격히 처벌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법령실행을 위해 리마를 비롯한 여러지방들에 근로자통제위원회들이 조직되였으며 위원회 성원들은 식료품과 일용품 값을 마구 올리면서 인민들속에 현 뻬루정부에 대한 불만을 조성하려는 반동세력을 반대하는 강한 투쟁을 벌렸다.

또한 뻬루는 200마일 령해권을 인정하지 않고 령해깊이 침입하여 정탐과 해적 행위를 련이어 감행하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가하였다.

정부는 1월에 200마일 령해를 실제적으로 지키며 령해내에서 어로작업을 하기 위한 첫 어선대를 새로 무었다. 다른 한편 뻬루 령해깊이 침입한 미제의 해적선들을 모조리 붙잡아 벌금을 받아내고 침략자로 세계에 선고하였다. 1973년 1월 한달만해도 200마일령해권을 유린하고 뻬루 령해깊이 기여들어 물고기를 마구 도적질해가는 미제해적선 23척을 붙잡았으며 2천만쏠의 벌금을 받아냈다.

뻬루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려하고있다. 1968년 12월에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려행금지령》을 페지하였으며 1972년에는 꾸바와 외교관계를 회복하는 등 여러 사회주의나라들과 국가 및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뻬루는 칠레인민통일정부를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처음으로 승인하였으며 1973년 9월 칠레군사정변에 항의하여 뻬루의 여러도시들에서는 칠레인민통일정부와 칠레인민을 지지하는 련대성행사들이 조직되였다. 《안데스조약》 성원국인 뻬루는 1973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리마에서 진행된 안데스조약성원국 외교부장들의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리마성명》이 채택되였다. 성명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을 지키고 리용하기 위하여 애쓰는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압력을 강력히 단죄하면서 특히 미국회사들을 국유화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미제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대외수출을 위한 채광공업과 농업이다. 창연, 쇠돌, 석유, 유색 및 희유 금속이 많은 나라이다.

창연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1위, 은생산량은 2～3위를 차지하고있다. 원유공업도 비교적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뻬루경제는 외국자본 주로는 미국자본에 얽매여있었다. 이 나라에 대한 외국의 총 투자액은 9억딸라, 그중 미국의 총자본투자액은 약 7억딸라(1973년)인데 주로 채광공업과 가공공업, 무역부문에 침투하였다. 영국은 방직공업과 운수, 스위스는 동력과 식료공업, 서독은 의약생산과 자동차조립, 일본은 경공업과 자동차조립 등에서, 카나다와 프랑스 자본들도 기타부문에서 판을치고있었다.

그 결과에 나라의 경제는 전면적발전을 보지 못하였고 공업에서는 채광공업, 농업에서는 수출작물들을 위주로 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면치 못하였다.

농촌에서 약 190만명(로동능력있는 주민의 45%)이 일하고있는데 83%의 경작지를 8%의 지주들이 차지하고있었다.

벨라스꼬정부가 수립된후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1968년부터 1973년 사이에 미제와 국내독점체들의 석유회사, 동광, 세멘트 회사, 물고기가루공장, 조선소, 은행, 농장들이 국유화되고 국영회사들이 새로 창설되였다. 1973년에 침보떼지방에 새 제강소가 건설되였으며 1975년말까지 쎄르로 베르데, 꾸아호네, 띤따야 광산들을 개발할것을 목표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지질탐사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여 1973년에 리마 동북쪽 안까스주에서 1만 5천헥터에 달하는 동광매장지가 발견되였다. 마라논강류역에서는 매일 2천 850바렐의 원유를 채취할수 있으며 그 품질에 있어서 류황함유량이 적고 그 질이 매우 높은 새 유전이 발견되였다. 1974년 1월에 뻬루의 빠쓰꼬주와 까하마르까주에서 우라니움산지가 발견되였다. 1969년 토지개혁법령 발포이후 1973년말까지 440만헥터의 대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19만명의 농민세대들에 나누어주었다. 수많은 방목장과 대외무역이 국가수중에 장악되였다.

1971년부터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착수하였으며 이 기간에 토지개혁을 완성하며 주요경제부문들을 발전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1973년 1월부터 11월까지에 뻬루국영회사가 30만t의 강철을 생산하였으며 1974년에 50만t생산을 목표로 하고있다.

1972년에 동 21만 7천t, 물고기기름 40만 3천 700t을 생산하였다.

목화, 사탕, 커피, 과일 등 수출용 농산물생산이 높아졌고 주식알곡작물인 강냉이, 밀, 벼 생산도 늘어났다. 사탕만해도 1972년에 92만t이였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약 20%를 차지하며 고기는 이 나라 인민들의 주식물의 하나로 되고있다.

뻬루의 연해는 세계어장의 하나이다. 경제에서 수산업은 큰 자리를 차지한다. 물고기생산량은 년산 1천 200만～1천 300만t으로서 세계 제 1위이며 물고기가루생산이 세계 제1위, 간유생산이 제2위이다. 수산업도 국가가 전부 통제하고있다.

물고기와 물고기가루, 간유, 원유, 석유제품, 광석, 커피, 사탕, 목화, 털 등을 수출하고 원료와 반제품, 기계, 설비, 건재, 식량, 고기를 수입하고있다. 1973년에 130여가지의 상품들을 40여개 나라들에 수출하였다. 기본대외무역대상국은 미국, 서독, 일본이다. 대외무역총액은 년평균 15억～16억딸라에 달한다.

뻬루에서는 자주권을 수호하는 방향에서 교육개혁이 실시되고있으며 이 개혁을 통하여 수정된 학교 교과서들에는 민족영웅들의 위훈담이 실리고있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민족영웅 꾸버끄 아말루의 애국적영웅주의를 노래하는 시, 노래,

그림, 조각들이 널리 선전되고있다.

정부는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법들을 채택하였다. 1973년부터 글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해에 3만여명의 근로자들이 문맹을 퇴치하였다. 1973~1974년간에 이 사업에 2억 3천만솔의 자금을 돌리기로 결정하였다. 1972~1974년기간에 산간지역과 농촌들에 360개의 새 학교가 건설된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반데라 로하, 라 쁘렌싸(무소속), 엑스쁘레쏘, 울띠마 오라(무소속), 오이가

방송 뻬루국립방송

1974년 1월 30일 리마에 라틴아메리카 보도기구(국제기자동맹 산하조직)가 창설되였다. 이 기구는 이 대륙의 모든 나라들에 지부를 두게 되며 반제반미투쟁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 기자들의 역할을 높이며 파쑈정권을 반대하여 싸우는 칠레기자들을 포함한 세계 진보적기자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8월 13일에 리마에서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와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뻬루의 《씨글로 베인떼》출판사에서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3년 11월에 진행된 뻬루공산당 제6차대회에 우리 나라 당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5월에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뻬루를 공식방문하였다.

볼 리 비 아

(볼리비아공화국)

넓이 109만 8,581Km²

인구 510만명(1971년)

공용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라 빠스(정부소재지, 주민 56만 3,000명, 1971년, 법적수도 수끄레)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 27명, 하원의원수 102명, 임기는 각각 4년이다. 1971년 8월 군사정변후 국회는 해산되였다.

정부 대통령 우고 반세르(1971년 8월 23일—), 내무부장 후안 뻬레다 아스분, 외교부장 알베르또 구스만 쏘리아노, 국방부장 하이메 플로렌띠노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에 창건, 1950년 1월에 재건되였으며 현재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하고있다. 제1비서 호르헤 콜레 꾸에또, **민족혁명운동당**(집권당) 1941년 조직된 소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는 당, **사회주의팔랑헤당**(집권당) 1937년에 나왔으며 자본가, 지주, 천주교도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극반동적인 정당, **좌익민족혁명당** 1964년 민족혁명운동당의 좌파가 떨어져 나와 조직한 당, **진정혁명당** 1960년에 민족혁명운동당의 우파가 떨어져나와 무은 당, **인민기독교운동** 1965년 반동적군사도당에 의해 조직된 당, **사회민주당** 1946년에 나온 우익 정당, **좌익혁명당** 1940년에 인테리, 대학생 일부계층들에 지반을 두고 창건된 당, **로동자중앙**

볼리비아는 독립후 미제의 침략책동과 지배층내의 추악한 정권쟁탈전으로 하여 불안정한 정치정세를 겪어왔다. 1971년까지 187회의 정변과 14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다.

볼리비아인민들은 미제와 놈들이 번갈아대는 친미독재정권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미제는 1971년 8월 22일 군사정변을 조작하여 제놈들이 직접 길러낸 친미주구 반세르를 두목으로 하는 파쑈군사정부를 꾸며냈다. 반세르친미군사정부는 1967년에 철폐된 파쑈적악법인 《사형법》을 복귀하고 애국적민주력량을 잔인하게 탄압하였다. 반세르정부의 반인민적 친미추종정책으로 사회경제형편은 악화되고 인민생활은 급속히 령락되였다.

나라에 조성된 이러한 형편은 1973년에 들어와 반세르파쑈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전국각지에서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시위와 파업투쟁이 련이어 일어나 각계층 근로자들과 국내반동들과의 충돌은 더욱 첨예화되였다.

반동정부는 날로 격화되는 인민들의 파업투쟁에 로조단체 지도자들을 체포구금하는 만행으로 대답하였다. 1973년 9월 《반정부음모》라는 구실밑에 100여명의 로조단체 지도자들을 체포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가혹한 탄압행위에 격분하여 수도에서는 2만여명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으며 이 파업으로 110개의 공장, 기업소들과 은행 등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11월에 뽀또씨시에서는 제15차 광부대회가 진행되였으며 회의에서는 반동정권 수립이후의 국내 정치, 경제 및 사회적형편을 토의하고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결의들에서 볼리비아근로자들의 대렬을 단합하여 생활조건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그들은 볼리비아에서 사회주의적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임금인상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할데 대한 투쟁강령이 채택되였다.

친미반동정권의 반인민적인 정책을 단죄하며 민주주의적인 대통령선거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11월 26일 《정권》에 들어앉아있던 이른바 《각료》들이 사직함으로써 반세르는 제놈들의 집권후 네번째로 내각을 개조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1974년에 들어와서도 2월 14일에 다섯번째로 되는 내각을 개조하였다. 빈번한 내각개조에도 불구하고 반세르는 혼란된 국내정치정세를 안정시킬수 없었다.

근로자들의 반정부투쟁은 1974년 1월에 생활 필수품값을 40% 또 올리기로 한 정부의 조치를 계기로 더욱 고조되였다. 파업에 참가한 로동자, 농민, 사무원, 출판보도일군 등 수십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은 물건값을 올릴데 대한 반동당국의 결정을 폐기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볼리비아반동정권은 전국에 퍼지고 있는 인민투쟁을 억눌러보려고 책동하면서 1월 28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였으며 모든 거리와 마을들은 반동군대와 경찰놈들로 뒤덮였다. 볼리비아군부의 3군사령관이란자들은 성명을 발표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른바 《전폭적이며 강력한 지지》를 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여러 지역들에서 군인들과 시위자들간의 류혈적충돌이 벌어졌고 정치활동가들과 로조활동가들, 파업참가자들이 체포되였다.

그러나 볼리비아근로자들은 《앉아서 굶어죽지 말고 일어나 싸우자》라는 구호밑에 반동정권의 탄압책동에 맞서 계속 굴함없이 싸웠다.

위기에 직면한 정부는 1974년에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한 약속을 1975년 8월 6일로 미루었다.

경제, 사회문화

볼리비아는 뒤떨어진 농업국이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2%에 불과하다. 농업인구의 8∼10%밖에 안되는 지주들이 부침땅의 80%를 차지하고있다. 중세기적농기구들로 농사를 짓고있어 그 생산은 매우 낮으며 식량수요의 70%를 다른 나라에서 사들이고있다.

주작물은 밀, 강냉이, 벼, 감자이며 사탕수수, 귤,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작물과 포도, 담배, 목화 등이 재배되고있다. 야생고무와 키나나무의 껍질(약재)을 채집하고있는데 고무생산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다음가는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축산업에서는 소가 위주이며 돼지, 양, 라마, 알빠까가 있다.

공업은 아주 보잘것 없는 형편인데 기본을 이루는것은 채광업이다. 주석, 안티몬, 중석, 연, 아연, 동, 수은, 은이 생산되며 주석과 안티몬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2위, 중석은 3위를 차지하고있다. 볼리비아는 세계적인 중석생산국(1969년에 3천 220만t 생산)인 동시에 수출국이다. 주석은 수출총액의 54%를 차지한다. 석유도 많이 생산되고있다.

미제는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광물과 석유수출을 통제하고 해마다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있다.

가공공업으로는 소규모의 방직공장, 세멘트공장, 원유가공공장이 있다.

1971년초현재 외국에 진 빚이 3억 7천여만딸라였다. 1972년 10월에 볼리비아화폐 《뻬소》를 66.6% 평가인하(1딸라당 12뻬소로부터 20뻬소로)함으로써 인민들의 생계비는 급격히 뛰여올랐다.

1972년 11월―1973년 4월까지 물건값이 70%나 뛰여올랐는데 그중 고기값은 153%, 각종 운임은 65∼100% 더 비싸졌다.

대외무역에서 미제가 이 나라 대외수출의 35%, 수입의 40%이상, 영제국주의자들이 수출의 45%, 수입의 5%, 서독이 수출의 3%, 수입의 13%를 각각 차지하고있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문맹자이다. 어린이의 4분의 1은 1년도 되기전에 죽는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쁘레쎈시아, 엘 디아리오(무소속), 울띠마 오라(무소속)

방송 볼리비아방송, 볼리비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4월 5일 벌가리아에서 공부하고있는 볼리비아류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빠라과이

(빠라과이공화국)

넓이 40만 6,752Km²

인구 239만명(1970년)

주민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에스빠냐인계통의 혈통이 적고 원주민인 뚜삐―과라니족의 후손들과 메티스(에스빠냐인과 원주민의 혼혈인)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이나 뚜삐―과라니말도 널리 쓴다.

수도 아순씨온(주민 43만 7,136명, 1970년)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는 30명, 하원의원수는 60명이며 임기는 각각 5년이다. 1968년 국회선거결과 꼴로라도당이 상원에서 20석, 하원에서 40석, 급진자유당이 상원에서 9석, 하원에서 16석, 자유당이 상원에서 1석, 하원에서 3석을 각각 차지하고있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수반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알프레도 스뜨로에쓰네르(1973년 2월 1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 1947년부터 비법화, 1973년 5월 지하에서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위원장 안또니오 마이다나(현재 감금되여 있음), 총비서 오스갈 끄레떼, **민족공화련맹**(꼴로라도당) 1881년에 조직되였다. 현재 집권당이다. 대부르죠아지, 대농장주, 반동군부상층의 리익을 대변하며 미제독점체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있다. **《민족해방통일전선》, 자유당** 2월혁명당의 좌익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산당 등이 망라, 해외(우루과이)와 국내에서 독재정권을 반대하여 투쟁, **자유당, 급진자유당, 2월혁명당, 기독교민주당, 기독교근로자총련맹**(현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한다), **근로자총련맹**(정부의 어용로조)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미제는 빠라과이에서 제놈들의 경제적리권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괴뢰정권을 여러번 교체하였다. 미제의 사촉하에 1954년에 정권을 잡은 알프레도 스뜨로에쓰네르는 친미독재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을 테로와 폭압의 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이 나라의 반정부 야당인사들과 민족주의자들은 1959년 4월 민족해방통일전선을 결성하고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포함한 여러가지 투쟁을 조직전개하였다.

스뜨로에쓰네르는 독재정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1968년의 선거놀음에서는 대통령이 세번이상 재선되는것을 금지한 《헌법》까지 개악하고 폭력과 사기협잡으로 대통령으로 다시 들어앉았다. 1970년에 반동당국은 일련의 악법들을 꾸며내여 현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6년으로부터 종신징역에 이르는 무서운 형벌을 들씌우고있다. 그리하여 스뜨로에쓰네르놈의 20년간에 걸친 통치기간에 이 나라 수천명의 애국자들이 무참히 학살되였으며 빠라과이공산당 위원장과 기타 수많은 애국자들이 재판도 없이 마꿈주와 차고사막에 있는 감옥과 수용소들에 무기한 갇혀있다. 1974년 2월에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사회계와 출판물들은 빠라과이 애국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것을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과 진보적력량에 호소하였다.

친미반동정권의 반인민적정책과 탄압책동에 항거하는 목소리는 《국회》내에서까지 울려나오고있다. 빠라과이 인민들과 진보적사회계는 외국독점체들의 국유화, 정치범들의 석방, 민주주의적자유를 부르짖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적으로 미제와 기타 외래독점자본에 얽매인 반식민지농업국가이다. 미제와 외국독점자본은 이 나라에서 비교적 큰 15개의 생산기업소들 중에서 12개를 장악하고있으며 은행자본의 90%와 수출의 80%를 통제하고있다.

주민의 75%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과 림업이 2대경제부문을 이루고있다. 농촌에서는 대토지소유제가 지배하고 있다. 한줌도 못되는 지주와 목장주놈들이 토지를 독차지하고있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

이 전체 부침땅의 4분의 3을 장악하고있다. 남아메리카의 대초원을 끼고있는 이 나라에서 목축업은 오랜 옛날부터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다. 소, 양, 당나귀 및 노새를 기르고 있다. 해마다 많은 고기와 양털이 생산되나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전부 헐값으로 빼앗아간다.

부침땅의 대부분은 먹이작물재배지로 리용된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주식물은 마니오크인데 년산 150여만t 생산된다. 그외에 쌀, 강낭콩, 콩, 단감자, 밀을 심는다. 또한 사탕수수, 목화, 담배, 커피, 빠라과이차, 당오동나무열매 등 식료 및 공예작물도 재배한다. 빠라과이차(일명 마떼차)는 이 나라의 특산물이다.

령토의 54%가 열대림으로 덮여있는데 염료원료로 쓰이는 게푸라나무와 건축 및 가구용재들이 많다.

공업의 기본은 가공공업이다. 고기가공, 솜타기 및 방직, 염료, 기름, 석유정제, 세멘트, 야금, 담배, 맥주공장들이 있다. 식료가공공업이 공업총생산액의 50%를 차지한다. 주요공업제품들인 먹는 기름은 년간 약 2만 3천톤, 섬유는 8천톤, 천은 1천 650만 m, 맥주는 1천만톤, 전력은 약 2억KwH, 세멘트는 1만여톤 생산된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1천 300Km이며 빠라과이강은 국내의 주요하천운수로 리용된다.

주요수출품은 주로 고기와 그 가공제품, 목재, 목화, 가죽용염료, 당오동나무기름 등이며 기계 및 설비, 운수수단, 식량, 흑색금속, 연료, 직물, 화학제품 등을 수입한다. 대외무역은 주로 미국, 영국, 서독, 아르헨띠나와 한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문맹자이며 대학은 2개밖에 없다. 주민의 5%에 불과한 부유한자들이 국민총생산액의 50%를 독차지하고있다. 일반 주민들의 한사람당 년간수입은 겨우 40딸라 정도이다. 근로자들의 약 75%가 초라한 움막집에서 산다. 살수 없어 해외로 떠나간 사람들의 수는 50여만명에 달한다. 남조선반동들에 의하여 《이민》으로 이 나라에 팔려온 남조선사람수는 1962년부터 10년어간에만도 1천 820명에 달한다.

천주교가 국교이며 주민의 89%가 천주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빠라과이통신

신문 아뗄란떼(공산당기관지), 빠뜨리아(꼴로라도당기관지), 라 리베르따드(자유당계), 라 뜨리부나(중립계), 엘 뿌에블로(2월혁명당기관지)

방송 빠라과이국립방송, 빠라과이텔레비죤방송

우루과이

(우루과이공화국)

넓이 18만 6,929Km²

인구 292만명 (1971년)

주민은 구라파인계통의 백인후손들인 크레올이 90%이며 인디안과 구라파인의 혼혈인 메티스가 약 10%이다. 메티스들은 주로 내륙의 벽지에서 살고있다. 인구의 70%가 도시에서 살고있다.

국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몬떼비데오(주민 135만명, 1970년)

정 치

국회 1973년 6월에 해산되였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직접선거에 의해 임기 5년으로 선거된다. 대통령 후안 마리아 보르다베리(꼴로라도당출신, 1972년 3월 1일—)

정부 1972년 3월 1일 구성, 1973년 2월 13일 개조,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국방부장 엔리께 마그나니, 외교부장 호쎄 모라오떼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9월 20일 창건, 1973년 12월 비법화,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 **사회당** 1911년에 창건된 진보적인 정당, 1973년 12월 비법화, 총비서 라몬 마르띠네스, **꼴로라도당**(집권당) 1835년에 창건된 당으로서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한다. 여러개의 분파로 현재 갈라져있다. **《인민정부를 위한》 운동** 1970년 꼴로라도당에서 갈라져나온 분파들로 조직, **블란꼬당**(일명 민족당) 대목장주, 대지주, 대은행가 및 천주교세력의 리익을 대변한다. 3파로 갈라져있다. **블란꼬인민진보운동** 1970년 블란꼬당에서 갈라져나온 진보적그루빠로 조직, **혁명로동당**, **기독교민주당** 1962년에 창건, **좌익해방전선** 1962년 공산당의 지도밑에 진보적사회단체들로 조직, **《광범한 전선》** 1971년 2월 공산당, 사회당, 혁명로동당, 블란꼬인민진보운동, 기독교민주당, 《인민정부를 위한》 운동, 블란꼬당의 일부대표들을 비롯하여 여러 그루빠들이 망라, **우루과이근로자중앙** 1964년 창립, 총비서 엔리께 빠스또리노(세계직련 위원장이며 우루과이공산당 비서)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동맹**, **우루과이조선친선문화협회** 1967년 10월 설성

1971년 11월에 있은 대통령 및 국회선거에서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으면서 기만과 협잡의 방법으로 정권에 들어앉은 꼴로라도당의 새 반동정권은 집권첫날부터 좌익력량의 진출을 억제하고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근로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폭압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나라의 경제를 미제에 더욱더 예속시키는 매국배족행위를 일삼아왔다.

보르다베리가 집권한 1972년 3월부터 1973년 3월까지의 기간에 나라의 생계비는 2배 이상으로 뛰여올랐고 1973년 1월만하여도 상품가격과 일용봉사료금이 30%로부터 60%로 올랐다. 나라의 대외채무는 걷잡을수 없이 올라갔다.

1973년 2월 군부세력이 정부에 개입하여 내각이 개조되고 대통령과 국방, 내무, 외교, 재정부장들과 무력사령관으로 구성된 새로운 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가 창설되였으며 이 위원회에는 광범한 권한이 부여되였다.

정부의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여 1973년에 우루과이로조단체들은 로동계급에게 나라의 정치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광범한 전선》과 민족당이 내놓은 강령인 인민의 대표권, 로조의 자유, 정당들의 합법화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데 대한 6개항목의 최저강령을 정부가 실천할것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국회는 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여 《인권옹호》와 《민주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은 반정부투쟁을 벌리고있는 좌익세력들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십만의 군중들과 로조들이 보르다베리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여 시위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보르다베리는 1973년 6월 27일 우익장교들을 등에 업고 무혈쿠데타를 일으켜 국회를 해산하고 50만명의 회원을 가진 우루과이에서 제일 큰 로조인 근로자중앙을 비법화하고 로조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보르다베리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공산당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와 《광범한 전선》위원장 네랄 리베르 세레니, 우루과이근로자중앙 총비서 엔리께 빠스또리노, 로조활동가, 상원의원들을 비롯하여 진보적 당 및 사회단체 활동가를 6천여명을 체포구금하였다. 미중앙정보국은 우루과이반동경찰과 악질군인들로 이른바 《합

동안전군》을 조작하여 애국자 탄압에 미쳐 날뛰였다.

미제는 워싱톤의 《경찰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탄압기구들에 우루파이 반동들을 끌어들여 《특수훈련》까지 주고있다.

1973년 12월 1일 우루파이 군사파쑈도당은 공산당과 사회당, 그리고 여러개의 좌익군소단체들을 비법화하였으며 공산당기관지들인 《엘 뽀뿔라르》와 《끄로니까》를 비롯한 여러개의 신문들을 폐간시켰다. 10월에는 대학들과 많은 중학교들을 폐교시켰다. 우루파이 근로자들은 보르다베리의 파쑈화정책에 항의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6월 쿠데타 직후에 일어난 근로자중앙에 망라된 로동자들의 파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광범한 기관, 기업소, 은행, 체신, 운수부문 로동자들이 대중적시위와 파업투쟁을 벌렸으며 청년학생들도 보르다베리의 《독재제도를 타도하라》, 《비법화한 로조단체를 복귀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하였다.

군부 상층부에서도 보르다베리 군사파쑈독재통치에 대한 불만을 품고 1973년 8월 11일 3개군종사령관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몬떼비데오에서 일어난 시위투쟁을 진압한 책임은 보르다베리에게 있으며 앞으로 대통령의 《시위진압명령》을 집행할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우루파이민족해방운동(뚜빠마로스) 유격대원들은 7월 31일 호소문을 발표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파시스트독재를 반대하는 온갖 형태의 전투를 벌림으로써 나라를 건설하고 수호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974년에 보르다베리독재정권을 반대하며 인민들을 투쟁에로 호소하는 우루파이공산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성명(2월)과 공산당성명(3월)이 발표되였다.

보르다베리반동정부는 날로 장성하는 좌익력량의 혁명적진출과 반미반정부무장투쟁, 생활상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근로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비상사태》를 전국에 선포하고 대통령궁전의 주변에 진을 치고 궁전 옥상에 기관총까지 걸어놓는 등 폭압통치에 더욱더 매달리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축산물생산과 수출에 주로 의거하는 농업, 공업국가이다.

고기와 양털수출량은 아르헨띠나 다음으로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 가운데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부침땅의 절반이상을 한줌도 못되는 대농목장소유자들이 독차지하고 략탈적인 소작제를 실시하고있다.

부침땅으로 리용할수 있는 거의 모든 곳이 방목지와 먹이작물재배지로 되고있기때문에 식량은 해마다 막대한 량을 수입하고있다.

목축업에서는 소, 양, 돼지기르기가 기본으로 되여 있는데 총마리수의 80%를 소수의 대농장주들이 차지하고 있다. 1년에 고기는 24만t, 양털은 7만 5천t이 생산되는데 그 대부분을 미영제국주의자들이 빼앗아가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강냉이이며 아마, 해바라기도 심는다. 남쪽과 서쪽에는 포도원이 많다.

공업은 랭동고기생산, 식료공업, 방직공업, 소젖가공(빠터, 치즈), 제분, 사탕, 양털가공, 포도주생산 등이다. 그외에 전기, 금속가공, 고무, 종이, 자동차조립, 화학부문 기업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외래독점체들의 통제하에 있다. 공업은 거의 대부분이 수도 몬떼비데오에 집중되여있다.

1970년 현재 이 나라에 대한 외국자본투자총액은 1억딸라에 달하였으며 그의 60%이상을 미제가 차지하고있다. 같은 기간에 다른 나라에 진 빚은 5억 3천 100만딸라에 달하였다. 1972년에 생계비가 99% 뛰여올라갔고 실질임금이 평균 17.1% 내려갔다. 197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만도 물건값이 33.1% 뛰여올랐다. 1974년 1월 3일 휘발유값과 약 1천개 종류의 소비품값이 올라갔다.

이 나라는 랭동한 고기와 그 가공품, 양털, 천, 가죽 그리고 각종 집짐승털, 공업용농산물원료, 광물, 집짐승 등을 수출하며 기계, 설비, 운수기재, 화학제품, 의약품, 건재품, 식량, 원료, 생활필수품 등을 수입한다. 특히 양털수출은 세계에서 네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미제를 비롯한 영국, 서독, 이딸리아 등 제국주의자들이 대외무역을 독점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문화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하나 대학과 예술학교는 각각 하나밖에 없고 중학교가 249개, 사범학교가 43개 있다. 주민의 대다수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엔아이(우루파이통신)

신문 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1973년 12월 폐간), 악씨온(꼴로라도당계), 엘 디아리오(꼴로라도당의 중간파신문), 엘 빠이스(블란꼬당의 중간파신문), 울띠마 오라(《광범한 전선》기관지)

방송 우루파이방송, 우루파이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5월 17일 우리 나라와 우루파이정부간에 무역대표부를 서로 설치할데 관한 협정이 맺어졌다.

1967년 10월 우루파이조선친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에 우루파이사회당대표단(2월), 국회대표단(10월), 우루파이공산당비서 엔리께 빠스또리노(10월)가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방문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이해 12월에 진행된 우루파이사회당 제37차대회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아 르 헨 띠 나

(아르헨띠나공화국)

넓이 277만 6,889Km²

인구 2,500만명(1973년)

주민의 97%는 구라파 특히는 에스빠냐와 이딸리아 이주민들의 후손들인 크레올이며 원주민인 인디안은 36만명(1970년)정도였다.

공용어는 에스빠냐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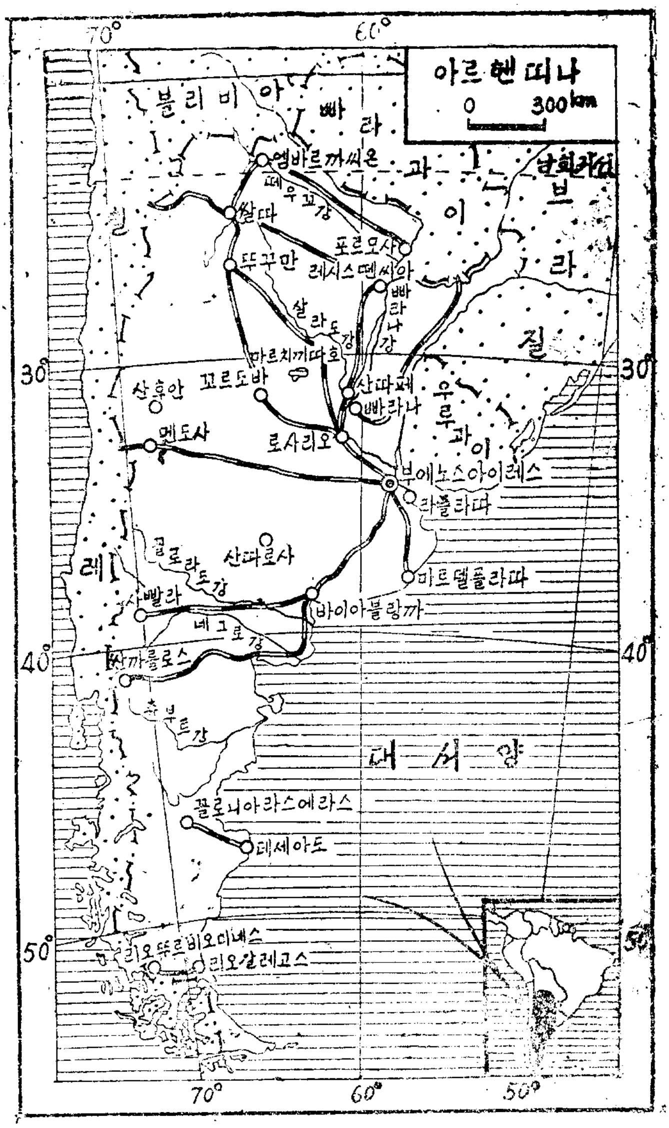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민 350만명, 교외인구를 포함하면 약 850만명, 1973년)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1966년 군사정변이후 헌법폐지와 함께 해산되였다가 1973년 3월 11일에 새로 선거되였다. 《정의해방전선》이 국회 상하원에서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6년이다. 1973년 10월 12일 정부 구성, 대통령 후안 도밍고 뻬론(1973년 10월—), 외교부장 알베르또 후안 비그네스, 국방부장 안헬 로블레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국제사회주의당을 1920년에 공산당으로 고쳤다. 1973년 8월 20일—24일까지 제14차대회 진행, 당원수 약 11만 6천여명, 총비서 헤로니모 아르네도 알바레스, **인민급진공민동맹** 1957년에 창건되였으며 대금융부르죠아지, 대지주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전국정의운동**(일명 뻬론당) 1953년에 창건되였으며 뻬론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구성되



였다. 비타협급진공민동맹 중소부르죠아지와 인테리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통일발전운동(1963년 창건), 사회당, 사회주의아르헨띠나당, 로동총련맹(1930년 창립, 세계직련에 가입, 성원 500만명), 로조행동통일 및 조절운동(1959년 창립), 공산주의청년동맹(성원 약 4만명), 뻬론주의청년운동(성원 30만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맺은 모든 예속적 조약과 협정 및 군사동맹을 파기하며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정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며 혁명력량을 묶어세워 사회의 혁명적개혁을 실현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330페지)

아르헨띠나는 1955년 미제의 사촉으로 뻬론장군이 령도하는 아르헨띠나정부가 전복된후 1973년에 이르기까지 18년동안 무려 여덟차례에 걸치는 군사정변이 일어난, 정권교체가 매우 심하였던 나라이다.

그러나 어느 군사정권도 나라의 정치경제적위기와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였으며 인플레는 온 나라를 휩쓸었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계속 떨어졌다.

민주주의적자유와 생활처지의 개선, 새로운 정부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고조되여 《군사정권》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1973년 3월 11일 10년만에 총선거가 실시되여 대통령, 부대통령, 국회의원, 각 도지사들이 선출되였다. 그리하여 1930년부터 극히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인들이 정권을 틀어쥐고있던 아르헨띠나에서 여러해만에 처음으로 립헌통치형태로 넘어가게 되였다.

선거에서 《정의해방전선》(정의운동과 기타 조직들로 구성)의 립후보자 엑또르 깜뽀라가 인민들의 압도적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였고 《정의해방전선》이 국회 상하원에서 의석의 절대다수를 가지게 되였으며 각 도지사도 거의 다 차지하였다.

1973년 5월 25일 취임한 깜뽀라대통령은 나라의 내부생활을 민주화하며 민족경제를 강화하며 자주적인 대외정치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5월 26일 수백명의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였으며 비법화되였던 공산당을 합법화하고 인민탄압기구인 《파괴활동방지특별재판소》를 없애버렸다. 5월 27일 7년만에 1966년 이후 친미군사독재정권이 실시해온 악명높은 《탄압법》들을 폐기하였다. 6월 2일에는 파쑈적인 탄압기구인 경찰수사국을 해체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국회는 또한 8월 2일 외국의 투자를 제한할데 관한 법안들을 승인하였다.

1973년 7월 13일 뻬론의 충실한 제자이며 친뻬론주의자인 대통령 깜뽀라와 부대통령 비센떼 쏠라노 리마가 뻬론의 대통령당선을 위해 사임하였다.

전국정의운동의 창건자이며 1946년부터 1955년 사이에 대통령이였던 후안 뻬론은 미제가 반동적인 군사정변을 조작한 이후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해오다가 깜뽀라가 대통령으로 된후 6월 20일 아르헨띠나에 돌아왔다.

9월 23일 대통령과 부대통령 선거에서 정의해방전선이 61.85%의 지지표를 얻음으로써 뻬론은 대통령으로, 그의 부인 이싸벨 마르띠네스 데 뻬론은 아르헨띠나와 라틴미주에서 첫 녀성부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10월 12일에 대통령취임식이 있었고 새정부각료들이 임명되였다. 뻬론은 깜뽀라집권시기의 각료들을 그대로 류임시켰다.

뻬론은 선거전과 선거강령에서 제국주의렬강들에 의존하지 말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족경제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확고한 결의를 표

시하였다.

10월 12일 대통령취임환영군중대회 연설에서 뻬론은 제국주의는 인민들에 의하여 선거된 정부를 반대하는 책동을 결코 그만두지 않았으며 독재정권의 수립을 위해 《백방의 지지》를 계속 주고있다고 하면서 모든 세력들이 국가재건을 위하여 단결해서 일할것을 강조하였다.

뻬론정부는 일련의 반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9월 30일 미제의 어용통신사들인 《에이피》와 《유피아이》의 아르헨띠나국내통신보도망을 폐쇄하였으며 이 나라의 57개 신문사들의 련합체에 의하여 형성된 새로운 국립통신사인 《노띠씨아스 아르헨띠나스》를 창설하였다. 정부는 또한 국내에 들어오는 제국주의자들과 외국의 일체 대외선전물을 엄격히 통제하고 검열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9월에는 남아프리카 및 남로데시아 백인인종주의 정권과의 일체 체육관계를 단절하였다.

대외관계에서 아르헨띠나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였다. 5월 28일에 11년동안 결렬되였던 꾸바와 외교관계를 회복하였으며 우리 나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웰남민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아르헨띠나—꾸바무역협정이 체결되였고 가까운 장래에 아르헨띠나가 안데스조약에 가입하며 국내에서 외국자본의 활동을 제한하는 길로 나가려 한다는 것이 선포되였다.

한편 뻬론은 10월 9일 《일본의원단대표단》을 만나 석유를 비롯한 《아르헨띠나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어업, 농업 분야에서도 일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집권당인 전국정의운동내의 좌익세력은 로동총련맹 총서기를 비롯한 전국정의운동내의 일부 인물들이 《반뻬론주의자》이며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규탄하였으며 9월 25일에 총서기는 암살당하였다. 우익세력은 9월 26일에 좌익인물인 뻬론주의청년운동 지도자를 살해하였다. 이런 틈을 리용하여 미제의 부추김을 받는 우익반동세력들을 비롯한 국내파두정치세력들은 현정부의 진보적인 사회경제적개혁들과 조치들을 반대하는 압력과 방해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1973년 9월 25일에 뻬론대통령은 《급격한 개혁은 실패로 끝난다》고 하고 점차적인 《진화》의 방법으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말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아르헨띠나는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생산 및 수출국의 하나이다. 아르헨띠나의 알곡, 식물성기름, 고기, 털시장의 형편은 이 상품들을 파는 세계시장의 시세에 큰 영향을 준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는 세계 최대의 고기랭동공장이 있다. 농업은 소, 양, 돼지, 말을 방목하는 축산업과 밀, 강냉이, 보리, 호밀, 귀밀, 감자, 아마, 해바라기, 땅콩, 목화, 사탕수수, 담배를 생산하는 농산업으로 나뉘여져있다. 축산업은 소고기와 양털생산을 기본으로 한다. 공예작물로는 아마씨, 해바라기씨, 목화, 담배 등이 유명하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세계 아마씨수확의 약 25%(사회주의나라들은 제외), 소고기생산의 7.5%, 밀은 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농업발전은 지주들과 외국독점체들의 대농장들에 의하여 억제당하고있다. 5.4%를 차지하는 대토지소유자들이 전체 토지의 약 70%를 가지고 있으며 농민의 5분의 3이 토지를 못가지고있다. 2천 600여만헥타의 토지가 외국독점체들에 장악되여있다.

아르헨띠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공업이 발전한 나라들중의 하나이지만 경제발전속도는 비교적 굼뜬 편이다. 경제발전의 낮은 속도와 불균등성은 국내시장이 작고 공업과 동력분야에 외국자본이 깊이 침투되여있는것, 세계시장에서 아르헨띠나상품들이 판매난을 겪고있는 사정, 기계, 설비, 많은 공업원료들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사정에 달려있다. 정부내각이 빈번히 바뀐 사정도 나라의 경제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자본투자총액은 약 25억딸라(1970년 현재)에 달하며 그중 미제독점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973년에 공업에만 미제가 투자한것이 20억딸라에 달하였다. 미제의 자본은 주로 가장 자본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높은 공업부문인 자동차제작, 전자, 야금, 석유 부문에 투자되고있다. 아르헨띠나에 대한 외국자본 침투형태의 하나는 미국자본이 주요한 역할을 놀고있는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 및 개발은행과 같은 기구들의 차관과 신용대부이다. 미제독점자본은 가공공업, 야금공업, 석유화학공업 등 중공업뿐아니라 고기랭동, 방직, 담배, 식료공업분야와 금융분야에도 깊숙이 손을 뻗치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외래독점체들과의 경쟁에서 이 나라 민족공업은 점차 밀려나면서 몰락당하였다. 이 나라에서 외국회사들이 자동차의 94%, 식료품의 88%, 합성섬유의 77%를 생산하고있다. 생산되는 전체 제품의 근 절반을 미제독점체들이 생산하고있다.

최근년간에 경제위기의 격화와 통화팽창으로 근로대중의 처지는 계통적으로 악화되였다. 1971년 4월부터 1973년 4월까지 생계비는 75.9% 장성하였으며 실업자는 150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73년 3월 선거에서 뻬론정부가 수립된이래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조치들이 취해짐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형편은 점차 좋아져가고있다. 12월에 발표된 3개년경제발전계획(1974~1976년)에 의하면 이 기간에 농목축업발전을 위하여 남부와 북부의 광활한 지역을 개간하며 30억딸라의 수출액을 배로 늘이며 새로운 대동력기지와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실업자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30%이상, 세대당 소득을 3분의 1 더 올릴것을 예견하고 있다. 12월에 난도사주에서 《세계 최대급》의 우라니움광맥이 발견되였으며 년간생산능력은 400t을 넘을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다.

주요수출품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이 90%를 차지한다.

아르헨띠나는 주로 구라파이주민들로 이루어지고있는것만큼 문화면에서도 구라파문화가 지배적이다. 최근에 와서 농촌기본대중들속에서 독자적인 아르헨띠나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있다.

천주교가 국교이며 주민의 90%가 천주교도들이다.

출판보도; 통신 로스 디아리오 통신, 텔람통신, 국제통신, 노띠씨아스 아르헨띠나스(국립통신사, 1973년 9월 5일 창설)

신문 에스뜨라 빨라브라(공산당기관지), 라 쁘렌싸, 라 나씨온, 부에노스 아이레스 헤랄드, 노띠시아스 그라삐까스, 끌라린, 엘 문도

방송 아르헨띠나 국립방송, 아르헨띠나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6월 1일에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1967년 7월 8일에는 아르헨띠나 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3년 5월에 뻬론장군의 부인이며 전국정의운동 부위원장인 이싸벨 마르띠네스 데 뻬론을 단장으로 하는 이 운동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9월에 아르헨띠나 정부친선대표단

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5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깜뽀라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르헨띠나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르헨띠나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석상에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고무적인 훌륭한 친서를 보내주셨으며 정부대표단을 대통령취임식에 파견하시여 아르헨띠나인민들의 투쟁의 승리를 축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깜뽀라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그이께 자기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줄것을 부탁하였다.

10월 뻬론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아르헨띠나를 방문하였다. 12월에 정부무역대표단이 아르헨띠나를 방문하였으며 우리 나라와 아르헨띠나간에 3년을 기한으로 하는 통상협정이 체결되였다.

칠 레

(칠레공화국)

면적 75만 6,945Km²

인구 1천만명(1974년 2월)

주민은 혼혈인과 에스빠냐, 이딸리아 이주민의 후손인 백인, 인디안으로 이루어졌다.

국어는 에스빠냐말

수도 싼띠아고 데 칠레(주민 258만 6,000명, 1970년)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50명, 임기는 8년, 4년이 되면 절반씩 개선, 하원의원은 150명, 임기는 4년, 1973년 3월 4일 국회선거결과 알옌데(사회당출신)를 공동립후보로 하는 공산당, 사회당을 비롯한 6개정당들의 련합전선인 《인민통일련합》이 총상원의석중에서 20석(40%), 하원에서는 63석(42%)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73년 9월 11일 우익군부들의 군사정변에 의하여 국회는 해산되였다.

군사위원회 1973년 9월 11일 반동적군사정변에 의하여 합법적인 알옌데인민통일정부가 전복된후 친미적우익반동군부 장교들로 구성된 최고권력기관, 위원장 삐노체뜨(1973년 9월—)

정당, 사회단체; 1973년 9월 군사정변전 칠레에는 **공산당** 1922년 1월 22일 창건,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반동들에게 체포), **사회당** 총비서 까를로스 알따미라노(해외에 망명), **급진당, 사회민주당, 인민통일행동운동, 독립인민행동, 좌익기독교민주당**(이상 7개 정당은 인민통일정부에 참가), **좌익급진당, 기독교민주당, 인민사회당, 민족당, 근로자통일로조중앙, 공산주의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련맹, 녀성동맹, 칠레조선친선문화협회**가 있었다. 군사정변후 공산당, 사회당을 비롯한 7개의 진보적정당들이 비법화되였다.

칠레는 군사정변이 빈번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1932년이래 6년에 한번씩 있는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여왔으며 비교적민주세력이 강한 나라였다.

그러나 칠레의 력대정부는 친미반동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반대하여 칠레인민들은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반미반독재투쟁의 불길이 온 나라를 휩쓴 가운데 진행된 1970년 10월 대통령선거에서는 공산당, 사회당을 포함한 6개정당들의 련합전선인 인민통일련합의 립후보 쌀바도르 알옌데가 승리하였으며 11월 칠레력사에서 처음으로 6개의 정당을 망라한 인민통일련합의 진보적정부가 수립되였다.

인민통일정부는 인민통일강령에 따라 반동세력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미제와 국내자본가들의 공장, 기업소, 은행들을 국유화하고 대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진보적인 사회경제적조치들을 취하였으며 대외정책분야에서도 견결한 반제자주적립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질겁한 미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진보적변혁들을 가로막기 위하여 칠레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지하고 경제적압력을 가하였으며 국내 반동들을 사촉하여 칠레를 우경에로 돌려세우며 저들의 통치지반을 되찾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면서 더욱더 량면전술에 매달리고있으며 〈평화〉의 간판밑에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전복활동을 교활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은 칠레에서 알옌데대통령을 살해하고 합법적인민통일정부를 전복하는 파쑈적군사정변을 조작하였습니다.》(《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단행본, 11～12페지)

1973년에 미제와 칠레반동들의 반정부음모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3월 4일 국회선거를 앞두고 우익야당들과 반동들은 정부의 경제계획의 리행을 파탄시키려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파괴행위와 파업을 사촉하였으며 주민들에 대한 식료품과 대중소비품공급을 끊고 암시장을 조성하는 등 파괴활동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지어 진보적인 단체들을 습격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에 대한 암살음모까지 꾸몄다.

놈들은 인민통일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기 위하여 7월말부터 칠레의 화물자동차소유주들을 비롯한 운수업자들과 상인들을 반정부 《파업》에로 사촉하였으며 칠레우익반동들을 싼띠아고와 전국 도처에서 송유관, 철길, 다리, 발전소들을 폭파하고 암살행위를 감행하는데로 내몰았다. 칠레반동들은 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사이에만도 100여건의 파괴 및 테로행위들을 감행하여 혼란과 무질서를 조성하였다.

알옌데는 반동들의 반정부책동을 저지시키며 나라에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973년 8월 9일에 그가 취임한 이래 여섯번째로 되는 내각개조(3군 사령관과 경찰사령관 포함)를 실시하는 등 준엄한 시련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적방법으로 새사회를 건설해보려고 애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반동들은 알옌데대통령에게 군사내각수립을 강요하면서 반정부음모를 계속하였다.

한편 미제는 무력에 의한 정부전복음모를 로골화하면서 1973년 6월말 1개 련대가량의 땅크부대를 동원하여 대통령관저를 포위하고 사격을 가하였으며 8월초에는 해군순양함 《알미란떼 라또레》호와 구축함 《블랑꼬 엔깔라다》호에서의 무장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칠레인민들의 투쟁으로 이 음모들이 파탄되자 미제는 륙해공군 및 경찰우두머리들을 끌어들여 대규모적인 군사정변음모를 면밀히 꾸미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알옌데정부와의 전반적관계악화에도 불구하고 칠레군부와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칠레장교들을 계속 훈련시켜주었으며 칠레해안에서 해군들의 《년례공동연습》을 감행하여왔다. 미제는 칠레해군과의 《공동연습》이라는 간판밑에 수척의 구축함들을 칠레앞바다에 끌어다놓고 군사정변에 간섭할 태세를 취하고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1973년 9월 11일 륙군사령관

삐노체트를 두목으로 하는 3군 사령관들과 경찰사령관이 반동적군사정변을 일으켜 인민통일정부를 전복하고 알엔데대통령을 살해하였다. 놈들은 《군사위원회》를 조작하고 비상사태와 통행금지령을 선포하였으며 국회를 해산하고 진보적정당들을 비법화하였다. 그리고 칠레공산당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을 무인도인 도쏜섬에 체포구금한데 이어 진보적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체포, 구금, 학살하였다. 정변후 1973년 12월말까지 8만여명의 애국자들이 살해되였고 1만 5천~1만 8천여명의 정치범들이 감옥과 집단수용소들에 갇혀있으며 20여만명의 근로자가 해고되고 2만 5천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났다. 또한 칠레반동들은 사회주의나라 대사관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칠레에 와있는 1만 4천여명의 혁명가들도 추방 또는 재판에 회부하였다.

군사정변후 칠레군사도당은 저들의 상전인 미제에게 보다 많은 재정적《원조》를 구걸하였다. 10월에 미국대독점은행인 《매뉴페춰러즈 하노버 트레스트 콤파니》로부터 2천 400만딸라의 《차관》을, 그후에 추가로 2천만딸라를 얻었다. 다른 10개의 미제독점은행들과 2개의 카나다독점은행들에서도 약 1억 5천만딸라의 《차관》을 얻었으며 미국에서 또 2천 800만딸라의 《차관》을 얻어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칠레에 끌어들였다.

미제와 칠레반동들의 악랄한 군사정변을 반대하여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칠레대사를 비롯하여 아르헨띠나, 메히꼬, 꼴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유엔, 미주국가기구, 서독, 영국, 스웨리예, 잠비아 등에 주재하고있는 칠레대사들은 대사의 직위에서 사임을 선언하고 칠레인민통일정부에 충성을 다할것을 결의하였다.

칠레의 애국적인민들은 1973년에 지하에서 항쟁조직들을 뭇고 미제와 군사파쑈도당을 반대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각종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1973년 9월 14일 아르헨띠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칠레애국자들의 칠레항전애국전선이 조직되였으며 칠레국내에서는 전국항쟁리사회가 조직되였다. 1973년 10월에는 칠레혁명조직들의 대표자회가 진행되였으며 여기서는 칠레애국자들의 반파쑈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11월에는 칠레사회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호소문을 발표하여 군사불한당들의 반인민적죄행을 폭로규탄하고 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1974년 1월 칠레공산당은 도쏜섬 집단수용소와 감옥들에서 신음하고있는 칠레공산당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을 비롯한 칠레애국자들의 즉시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칠레애국자들과의 련대성 깜빠니야를 적극 벌릴것을 국제민주단체들에 호소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많은 나라들이 싸우는 칠레인민에 대한 련대성의 표시로서 칠레의 반동적군사정권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2월 12일 스웨리예왕국정부는 스웨리예가 1971—1976년 기간에 칠레에 총 4천만크로나의 원조를 줄것을 예견하였던 칠레와의 금융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무효로 선포하였다. 12월 17일 핀란드도 칠레에 주기로 하였던 경제적원조를 일체 중지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각국의 20여개 공산당들과 정부들, 많은 국제기구들이 칠레의 군사정변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주요지하자원은 동, 초석, 쇠돌, 석탄, 요드, 원유, 천연가스 등이다. 동매장량은 세계 제1위, 년생산량은 약 59만 4천t(1972년)으로서 외화소득의 80%, 정부수입의 20%를 차지한다. 초석생산량은 세계총생산량의 95%, 요드생산량은 세계총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그외에 야금, 방직, 기계, 식료, 종이, 석유화학, 화학섬유, 합성수지, 림업, 수산업 등이 있다. 칠레의 공업은 비교적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지만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정책으로 하여 식민지적경제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칠레는 긴 해안선을 끼고있는 나라로서 수산물수출(년산 120만t)은 동 다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밀, 귀밀, 보리, 벼, 강냉이, 강낭콩, 사탕무우, 감자, 양유채씨, 해바라기, 옥파, 포도 등이다.

인민통일정부가 수립된후 칠레에서는 동광업, 초석생산, 흑색금속공업 등과 은행들이 국유화되였으며 대지주들의 땅이 몰수되고 국영농목장들이 창설되였다.

또한 암시장, 투기행위를 반대할 목적으로 전국 일용필수품분배 및 판매관리국을 새로 내오는 등 일련의 진보적인 조치들이 취하여졌으며 실업자도 많이 줄었다.

그러나 군사정변후 칠레의 군사파쑈도당들은 인민통일정부수립후 국유화되여 인민의 소유로 되였던 262개의 공장, 기업소와 땅들을 자본가와 지주들에게 넘겨주어 경제형편을 더욱 악화시켰다. 칠레경제는 무질서한 혼란상태에 빠져 공업은 20%의 능력을 내고있으며 25만명의 로동자들이 해고당하고있다. 에스꾸도의 가치는 1973년 10월현재 14.3%나 떨어지고 통화팽창은 전례없는 규모를 띠게 되였으며 물건값은 1천% 뛰여올랐다. 식료품이 부족하고 임금은 동결되여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있다. 1974년 2월현재 완전 및 반실업자수는 100만명에 달하였으며 칠레인민의 3분의 2가 굶주림과 빈궁속에서 허덕이였다.

출판보도; 신문 군사정변후 엘 씨글로(공산당기관지), 울띠마 오라(사회당기관지), 라 나씨온(인민통일정부기관지)를 비롯한 진보적인 모든 신문들은 금지되고 몇개의 반동적우익신문마저도 파쑈정권의 엄격한 검열밑에서 발행되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쌀바도르 알옌데를 대통령으로 하는 진보적인 정권인 인민통일정부는 1970년 11월 17일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방해하여온 미제의 침략도구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하고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 친선적이며 우의적인 립장으로 나왔다. 1970년 11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싼띠아고에 설치되였으며 1972년 6월 1일에 우리 나라와 칠레간에 대사급외교관계가 맺어졌다. 칠레신문 《엘 씨글로》 1973년 6월 2일호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론설을 싣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은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1973년 6월 25일 《조선의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칠레사회주의청년련맹의 주최로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1973년 7월에 칠레 공산당, 사회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의 편지를 지지하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4월에 진행된 칠레사회당창건 40돐기념행사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3년 9월 11일 삐노체트를 두목으로 하는 반인민적파쑈도당이 진보적인

알옌데정권을 가로챈후 우리 나라는 칠레와의 국가관계를 중단한다는것을 선언하고 칠레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철수하였다. 칠레의 반동적군사도당이 칠레공산당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을 체포구금하고 그를 군사재판에 넘겨 처형하려 하고있으며 수많은 진보적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였으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칠레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바베이도즈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동쪽끝에 있는 섬나라이다.

넓이 423Km²

인구 24만명(1971년)

주민은 흑인이 77%, 혼혈인이 18%, 백인이 5%이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브리지타운(주민 10만 5,000명)

정 치

국회 총독이 임명하는 립법(상원)의원 21명과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하원의원 24명으로 구성되여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하원에서 민주로동당이 15석, 국민당이 1석, 레이버당이 8석을 각각 차지하고있다.

총독 위스톤 스코트(1967년 5월—)

정부 총리 에롤 바로우, 각료들은 총독이 임명한다.

정당, 사회단체; 민주로동당(집권당), 1955년에 창건, **레이버당** 1938년에 창건, **국민당, 바베이도즈로동자동맹, 바베이도즈공무원동맹**

영국의 식민지였던 바베이도즈는 1961년 10월에 제한된 《내부자치권》을 얻었다. 1966년 11월 3일에 영제국주의자들의 339년간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이 나라는 1966년에 미제의 침략기구인 《미주국가기구》와 유엔에 가입하였다. 1972년 10월 14일 꾸바와 외교관계를 맺기로 하였다.

바베이도즈 내각총리 에롤 바로우는 1973년 1월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가 미제의 압력을 박차고 꾸바와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한데 언급하여 앞으로 바베이도즈정부가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할것이며 미제에 추종하지 않을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이 나라는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까리브해지역 영련방성원국들과 함께 1973년 8월 1일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을 창설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바베이도즈는 농업국가이다.

이 나라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재배이며 이밖에 과일재배와 물고기잡이를 약간 하고있다. 경제는 영국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다. 현재 부침땅은 2만 1천헥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1년에 120만t정도의 사탕수수를 수확하고있다. 사탕생산량은 14만t이다.

집짐승으로는 돼지, 양, 소, 염소 등이 있다.

물고기생산량은 년 180만폰드정도이다.

대외무역에서 식민주의자들의 략탈로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 나고있어 재정형편은 악화되고있으나 관광수입이 적자의 많은 부분을 메워주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당밀, 람술이며 수입품은 식량,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다.

소학교이외에 중학교, 기술학교가 몇개 있다. 대학은 1개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백인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보건시설이 모자라 원주민들은 변변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다.

천주교가 침투하고있으나 영국교회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출판보도; 신문 비컨(레이버당 및 로조기관지), 바베이도즈 뉴스, 바베이도즈 옵써버, 트루즈

방송 바베이도즈방송, 까리브해안텔레비죤방송

앙 길 라

(영국식민지)

뿌에르또 리꼬에서 동쪽으로 240Km 떨어진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섬나라이다.

넓이 90Km²

인구 6,000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이 흑인이다.

언어는 영국말

정 치

앙길라는 18세기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후 까리브해지역에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높아지자 식민지통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1958년에 앙길라를 비롯한 이 지역의 여러 섬들로 이른바 《서인도련방》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1962년 쟈메이커의 독립으로 말미암아 이 련방은 해체되였으나 1967년 2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다시 앙길라와 이웃에 있는 두개의 섬(쎈트키츠와 네비스)을 합쳐 이른바 《련방》을 다시 만들어내였다.

그러나 이해 5월에 앙길라섬인민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략탈과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여 《련방》에서 다시 떨어져나왔다. 앙길라는 1969년 2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영국고등판무관놈을 비롯한 악질적인 영국놈들을 몰아냈다. 그러나 영제국주의자들은 앙길라의 독립을 인정하지않고 이해 3월 19일과 20일에 락하산부대와 수많은 침략무력을 상륙시키고 주요지역을 강점하였으며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앙길라의 경제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장기간의 식민지통치와 략탈로 한심한 형편에 놓여있다. 식민주의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사탕수수와 약간의 열대작물들을 재배하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물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아가고있다. 사탕과 과즙 및 소금을 수출하고 기타 공업제품들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전기도, 전화도, 수도시설도 없으며 의사도 없다.

그린랜드

(단마르크식민지)

북빙양과 대서양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다.

넓이 217만 5,600Km²

인구 5만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은 원주민인 에스키모사람이다.

행정중심지 고트하브(주민 7,000명)

정 치

1841년에 단마르크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1년 4월 미제는 단마르크와

《공동방위조약》을 맺고 침략적군사기지를 설치하였으며 이 섬은 사회주의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한 미제의 군사전략기지로 완전히 전변되였다.

이 나라는 1953년 헌법개정에 따라 단마르크의 한개 주로 되였다.

미제는 이 섬의 서북쪽에 있는 투레에 요격전투기지와 전파탐지기지, 탄도탄조기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노르드와 다른곳에는 전략폭격기기지를, 서남쪽바다가의 피요르드에는 원자력잠수함기지를 설치하였다. 투레에만도 1만여명의 미제침략군이 상시적으로 주둔하고있다.

단마르크의 그린랜드부장이 통치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1920년대 이전까지 경제에서 기본은 사냥업이였으나 1930년대 이후부터는 어업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혹심한 추위가 차츰 덜해지면서부터 녕에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하는수 없이 물고기잡이를 기본으로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1960년 이후부터 물고기잡이는 급속히 발전하여 수공업적인 가까운 바다물고기잡이로부터 최근에는 먼바다물고기잡이에로 넘어가고있다. 잡은 물고기는 가공하여 수출까지 한다.

금, 동, 연, 쇠돌, 석탄 등 지하자원이 묻혀 있을것으로 예견되나 현재 발굴되여 채굴되고있는것은 알루미니움을 만드는데 쓰는 빙정석뿐이다. 이외에 석탄, 연, 아연 등도 조금씩 채굴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인 빙정석은 이 나라의 무역적자를 메우는 주요원천이다.

1960년대초부터 그린랜드말과 단마르크말로 된 반월간 신문이 발간되고 있다.

쎙뻬에르 미켈롱

(프랑스식민지)

카나다령 뉴파운드랜드의 남쪽에 있다.

넓이 쎙뻬에르군도 26Km², 미켈롱군도 216Km²

인구 5,025명

행정중심지 쎙 뻬에르

1960년 이래 프랑스식민지이다.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다.

버 진

(미국식민지)

뿌에르또 리꼬와 소안띨제도사이에 있는 46개의 섬으로 되여있다.

넓이 344Km²

인구 6만명(1970년)

주민은 흑인이 69%, 혼혈인이 22%, 백인이 9%이다.

행정중심지 샬로트 아말리(주민 1만 5,000명)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후에 단마르크의 속령으로 되였다. 1917년 3월 미제는 2천 500만딸라로 매수하여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 및 남새재배와 목축업이며 물고기도 잡는다. 식량과 기계, 일용필수품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다.

신교, 천주교, 유태교를 믿는다.

버 진

(영국식민지)

미령버진군도의 동북쪽에 있는 36개의 섬으로 되여있는데 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12개뿐이다.

넓이 152Km²

인구 1만 1,000명(1969년)

행정중심지 로드타운(주민 2,000명)

영국식민지로서 《서인도련방》에도 가입하지 않고 계속 영국의 총독통치하에 있다.

주민들은 주로 집짐승기르기(소와 양)와 물고기잡이, 과수 및 남새재배 그리고 숯구이를 하고 있다. 식량, 피복류, 일용필수품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축산물, 물고기, 과실 등이다.

로드타운이 유일한 항구이다.

버 무 다

(영국식민지)

미국의 뉴욕동남쪽 1천 80Km의 대서양상에 있는 360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넓이 53Km²

인구 5만 365명(1971년)

주민의 대부분이 구라파인이며 미국인도 산다.

공용어는 영국말

행정중심지 하밀톤(주민 3,000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영국총독이 형식상의 행정평의회와 상원(11명) 및 하원(40명)을 통하여 통치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통일당** 1964년에 조직된 당으로서 자유기업체계를 지지하고있다. **진보레이버당** 나라의 독립을 주장하고있다. **민주당** 중간로선을 주장하고있다. **산업동맹**, **공무원로조**

1609년부터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이 섬에 기여들어 많은 자원을 략탈하기 시작하였으며 1684년에 이르러 놈들은 버무다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1809년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수많은 노예들을 끌어다가 이 군도의 아일랜드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였다. 1940년에 미제는 이 군도의 3개 섬을 99년간의 기한으로 빌려쓰기로 하고는 여기에 침략적인 해군 및 공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1973년 3월 10일 리챠드 샤플즈총독과 그의 부관이 살해되였다. 버무다정부는 11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버무다 수석 사무관 아이킨네가 총독대리로 취임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산물은 감자, 바나나, 귤류, 남새 등이다. 매해 평균 감자는 227만 4천폰드, 바나나는 120만폰드, 남새는 96만 3천폰드 정도 생산한다.

이밖에 소, 돼지, 염소, 말 등도 약간 기르며 물고기잡이(주로 왕새우)도 한다.

재정수입의 원천은 주로 관세, 우편세, 교통세이다.

주민의 50%이상이 문맹자이며 학교는 소학교가 40여개 있을뿐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신교와 천주교를 믿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미드 오우션 뉴스, 로이얼 거제트

방송 버무다방송, 버무다텔레비죤방송

바 하 마

(바하마련방)

미국 플로리다반도의 동남쪽과 꾸바와 아이띠섬 북쪽의 대서양상에 있는 700개(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30여개)의 섬들과 2천 400여개의 암초들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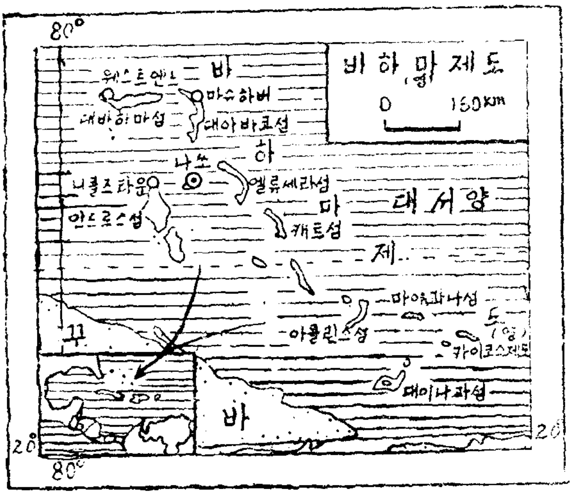
넓이 1만 1,405Km^2

인구 19만 5,000명(1971년)

주민은 86%가 흑인들이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나쏘(주민 10만명)



정 치

의회 최고립법기관으로서 상하량원으로 구성되였으며 상원은 16명, 하원은 38명이다.

정당, 사회단체; 진보자유당 1972년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현재 자치정부의 집권당이다. 주로 흑인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나라의 독립을 요구하고있다. 지도자 핀들링, **통일당, 민족민주당, 레이버당, 로조련맹**

1647년부터 1660년사이에 버무다로부터 많은 흑인노예들을 끌고 바하마군도에 기여들기 시작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783년에 이 군도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여러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1940년 9월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이 군도의 마야파나섬을 미제침략자들의 군사기지로 내맡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이 섬나라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이에 당황한 식민주의자들은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하여 1964년 1월 7일부터 형식상 《내부자치》를 실시하게 하였으나 대외관계, 국방, 내부치안 등 주요부문은 의연히 저들이 틀어쥐고 있었다. 1964년 헌법에 따라 총리와 9명의 내각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자치정부가 섰으나 그 권한은 극히 제한되여있었다. 1968년 4월과 1972년 9월에 진행된 의회선거에서 주로 흑인들의 리익을 대변하며 식민지제도의 철폐를 선거강령으로 내세운 진보자유당이 승리하였다.

1972년말 진보자유당의 자치정부는 바하마군도의 장래문제를 가지고 영제국주의당국자들과 담판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영제국주의자들은 나라의 독립을 요구하는 이 섬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고 이른바 《안전보장》이라는 구실밑에 바하마군도를 저들의 식민지로 계속 얽어매두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바하마자치정부의 완강한 요구와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73년 7월 10일 바하마는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고 나라 이름을 바하마련방으로 고치였다.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 나라 총리는 바하마국기가 올라간것은 《전체 바하마사람들이 새 시대에 들어간 징표》이라고 말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영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여있었으나 경제적측면에서는 미제독점자본가놈들의 지배하에 있다.

경제에서 관광업과 남방과실을 재배하는 농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로부터 매년 10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이 섬나라에 온다.

농업은 도마도와 바나나, 파인애플, 귤 등 수출을 목적으로 하여 생산하는 과실재배에만 치우치고있다. 알곡작물은 심지않고있기때문에 식량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수산업이 약간 있는데 게와 해면, 조개류 그리고 여러가지 물고기를 소규모적으로 잡고있다.

그외에 수출원천으로서 목재와 소금이 생산된다.

철길은 없고 해상운수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수출품은 과실, 소금, 물고기, 목재이며 수입품은 식량, 천, 운수기재, 철제품, 기타 일용필수품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미국, 영국, 카나다이다.

흑인 원주민들의 생활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따로 떨어진 작은 섬들에서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오피셜 가제트(정부계), 바하미언 타임스, 바하머스 떠토리얼, 바하미언 레뷰 매거진

방송 바하마라지오 및 텔레비존방송

마르띠니끄

(프랑스식민지)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의 가운데 있다.

넓이 1,102Km^2

인구 34만명(1971년)

주민은 흑인과 물라트(흑인과 백인의 혼혈인)가 98%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행정중심지 포르 드 프랑스(주민 약 10만명)

정 치

식민지통치기구 프랑스정부가 임명하는 지사가 통치하고 그 밑에 36명의 성원으로 되는 해외령의회가 있다. 의회의 권한은 극히 제한되여 있다. 마르띠니끄는 프랑스 국민의회(하원)에서 3석, 참의원(상원)에서 2석을 차지하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57년에 독립적인 당으로 창건, 총비서 니꼴라, **공화국을 위한 민주주의자동맹**(집권당) 프랑스식민주의자들에게 복무하는

반동적인 정당, **진보당, 통일사회당, 자치를 위한 투쟁전선** 이 전선에는 공산당과 진보당, 통일사회당 그리고 일련의 진보적단체들이 망라되여 있다.

사회단체들로서는 **공산청년동맹, 녀성동맹** 등이 있다.

이 나라는 1635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46년 3월에는 형식상 프랑스의 《해외현》으로 되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민족해방투쟁의 영향하에 이 나라에서도 1960년 이후부터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민주주의적권리와 처지개선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는 대토지소유제에 기초한 단작경리가 기본으로 되고있는 락후한 식민지경제이다. 프랑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하여 수출용 사탕수수와 바나나재배에만 치우치고있기때문에 식량이 매우 부족하다.

《베께》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후손인 열세대의 가족들이 이 나라 부침땅의 80%, 은행의 50%, 10여개의 사탕공장을 틀어쥐고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해마다 사탕수수 가을철 3~4개월동안에만 품팔이를 하고 그 나머지기간에는 일자리를 잃고 헤매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르 콤바, 르 꾸리에, 라 쁘띠뜨빠뜨리

서인도제도

(화란식민지)

베네수엘라의 북부 까리브해상에 있는 6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넓이 961Km²

인구 19만 9,600명

주민은 화란인, 영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인도인, 중국인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공용어는 화란말

행정중심지 윌렘스타드(주민 4만명)

1634년에 화란식민주의자들은 이 제도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1954년에 형식상 《내부자치권》을 부여하였다.

1965년 5월 석유정유소 로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폭동을 일으켜 식민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

주요산업은 석유정유업이다.

미제의 《스탠다드 오일》회사는 우라사오의 섬에, 영국의 《로이얼 쉘》회사는 아루바섬에 각각 큰 정유공장을 두고 베네수엘라로부터 보내오는 원유를 정제하여 다시 수출한다.

이 섬은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농작물가꾸기에 불리하며 주로 귤을 많이 재배하고있다.

센트루시아

(영국식민지)

까리브해의 동쪽 서인도제도에 있다.

넓이 616Km²

인구 9만 6,841명

주민은 대부분이 흑인이며 백인은 5%정도이다.

공용어는 영국말

행정중심지 카스트리(주민 2만 5,000명)

1498년에 콜롬부스에 의해 발견된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그러나 구라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프랑스가 이 섬을 점령하고 영국과 쟁탈전을 벌렸다.

1763년 《빠리조약》에 의하여 이 섬은 영제국주의자들의 관할하에 넘어가고 1803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서인도련방》에 가입하였으나 이 섬 인민들의 장기간의 반식민주의투쟁으로 1967년 3월 1일 내부자치권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대외관계와 방위문제 등은 영제국주의자들이 계속 틀어쥐고있다.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며 주산물은 바나나, 사탕수수, 코코아 등이다.

천주교도가 많다.

안티구아

(영국식민지)

까리브해의 동쪽 소안틸제도의 동부에 있다.

넓이 172Km²

인구 5만 4,405명

행정중심지 쎈트 존스

1493년 콜롬부스에 의해 발견된후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1632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0년 미제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이 섬의 일부 지역에 해군 및 공군기지를 설치하였다.

1958년 《서인도련방》에 가입하였다가 1967년 2월 27일 《자치권》을 쟁취하였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산물은 사탕수수, 목화, 과실, 담배 등이다.

포클랜드

(영국식민지)

남미대륙의 남쪽끝 마젤란해협 동쪽 480Km 해상에 있는 약 200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넓이 1만 2,000Km²

인구 2,132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은 이슬란드인이며 영국계 주민이 2천명정도 있다.

행정중심지 스탠리(주민 약 1,000명)

1776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된후 영국, 에스빠냐 식민주의자들에게 점령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아르헨띠나와 이 제도를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켜오다가 1833년 군함을 파견하여 이곳을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1840년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그러나 아르헨띠나는 이 제도가 이전 에스빠냐령이라고 하여 자기의 령토라고 하면서 말빈제도라고 부르고있다. 이 나라는 영국총독의 통치하에 있다.

이 제도에는 미제의 해군기지가 있다.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다. 양은 62만마리, 소는 1만마리 있다. 목축업에 적합한 지역의 3분의 1은 영국의 한개 회사에 독점되여있다.

사우스 죠지아군도는 고래잡이기지로서 고래기름도 생산하고있다.

과들루쁘

(프랑스식민지)

까리브해의 소안틸제도에 있다.

넓이 1,779Km²

인구 약 33만명(1971년)

주민은 흑인과 혼혈인이 9.8%, 프

랑스인계통의 백인이 2%이다.

공용어는 프랑스말

행정중심지 바스떼르(1만 4,000명)

정 치

지사 프랑스정부가 임명하는 지사가 이 식민지나라의 통치자이다.

국회 지사의 통제하에 있는 해외평의회이다.

36명의 성원들로 구성되여있으나 그 권한은 매우 제한되여있다. 과들루쁘는 형식상 프랑스국민의회에서 3석, 참의원에서 2석을 배정받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58년에 독자적인 정당으로 창건, 1972년 11월에 제5차당대회진행, 1970년 3월 현재 의회에서 9석을 차지하였다. **사회당, 자치를위한투쟁전선** 공산당과 기타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로 구성되였다. **로동총련맹**

과들루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계속 받아오다가 1816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46년에 형식상 프랑스의 한개 《해외현》으로 되였다.

1960년부터 식민주의자들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민족해방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최근년간 투쟁은 조직적인 성격을 띠고 점차 적극화되였다.

1972년 11월 23일—25일까지 진행된 공산당 제5차대회에서는 대중조직들인 로조, 청년 및 녀성단체들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해서와 근로자들속에서 당기관지의 보급사업을 강화할것을 제시하였다. 1971년 행정중심지 바스떼르 시장선거에서 공산당 립후보자가 당선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사탕수수재배업인데 프랑스에 예속되여있다. 주요농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와니르(향료의 일종) 등이다. 그의 대부분을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헐값으로 빼앗아간다. 주요수입품은 식량과 생활필수품이며 수입의 80%를 프랑스에 의거한다.

사탕수수농장에 고용된 계절로동자들은 거의 전부가 1년에 7~8개월씩 일자리를 잃고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에뗀쎌(공산당기관지)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7월 과들루쁘로동총련맹 서기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도 미 니 카

(영국식민지)

까리브해의 동쪽 소안띨제도에 있다.

넓이 789Km²

인구 약 8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이며 순수 원주민인 인디안은 현재 100명정도 남아있다. 전체 주민의 5%는 백인이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나 프랑스말도 쓰인다.

행정중심지 로조(주민 1만 5,000명)

총독 영국녀왕이 임명한다. 총독 루이스쿨스 라티크

국회 선거되는 11명의 의원과 임명되는 4명의 의원들로 구성, 1966년 선거에서 레이버당이 10석, 통일인민당이 1석을 차지

정부 총리 레블란스(1966년—)

정당, 사회단체; 레이버당(집권당), **통일인민당, 자유당**

1763년의 《빠리조약》에 의하여 도미니카섬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의 관할하에 들어갔으며 1783년에는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영제국주의자들은 《서인도련방》을 꾸며내고 이 섬나라를 여기에 밀어넣었다. 영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이 섬 주민들의 투쟁기세가 높아지자 1967년 3월 1일 이른바 《련합국》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아직 대외관계와 방위문제 등을 제놈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다.

경제, 사회문화

영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된 락후한 농업국가이다. 경제에서 기본은 수출용작물재배이다. 농업은 주로 소농경리에 의거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바나나, 오렌지, 코코아, 포도, 감귤류, 야자이다. 로동인구의 절반이상이 주산물인 바나나를 재배하고있다. 년간 약 6만톤 생산되는 바나나는 거의 전부 영제국주의자들이 헐값으로 빼앗아가는데 그나마 영국이 《공동시장》에 가입함으로써 바나나수출은 난관에 부딪치고있다.

그밖에 사탕, 과즙, 람술이 생산된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철길은 없고 바다가의 일부지역에 자동차길이 있다. 짐운반은 작은 배들을 많이 리용한다.

주민들은 주로 천주교를 믿는다. 영제국주의자들의 심한 착취로 하여 생활과 문화수준은 매우 낮다.

출판보도; 신문 도미니카 크로니클(천주교계의 반동신문), 도미니카 헤랄드(주간지), 스타(주간지)

북 미

카 나 다

넓이 997만 6,139Km²
인구 2,200만명(1973년)
주민중 영국계 44%, 프랑스계 33%, 슬라브계 6%, 원주민인 인디안과 에스키모사람은 주민의 2%미만이다.
공용어 영국말, 프랑스말.
수도 오타와(주민 70만명, 1971년)

정 치

총독 카나다총리의 권고에 따라 영국녀왕이 임명하며 정치적실권은 없다. 1952년부터 카나다사람으로 임명되고있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수는 102명이며 임기는 종신이다. 하원의원수는 264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1972년 10월 30일 총선거결과 자유당이 109석, 진보보수당이 109석, 신민주당이 30석, 사회신용당이 15석, 무소속이 2석을 각각 차지하고있다.

정부 총독이 국회의석을 제일 많이 차지한 당의 당수에게 정부조직을 위임한다. 각료들은 하원의원만이 될수 있다. 1972년 11월 정부구성. 총리 엘리오트 트루도(1968년 4월—), 외교부장 미첼 샤프, 국방부장 제임스 리챠드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2월에 창건. 총비서 윌리암 카슈탄. **자유당**(집권당) 19세기 70년대에 조직, **진보보수당**(집권당) 1854년에 나온 반동적인 정당. **사회신용당**1935년에 조직된 반동정당. **신민주당** 1961년에 조직된 반동적인 정당. **민족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로동대회**(반동로조)

카나다는 1931년에 영련방 안에서 독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카나다에는 영제국주의세력을 누르고 지배적지위를 차지한 미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침투가 강화되였다.

이에 발맞추어 집권자들은 친미추종정책을 실시하였다. 카나다는 1949년에 침략적인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0년에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보내였다.

카나다반동정부의 대미의존정책은 카나다의 근로자들, 중소기업가들, 민족자본가들과 광범한 사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카나다정부는 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종래의 친미추종정책에서 어느 정도나마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있다. 1969년 4월에 카나다정부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나토에 배속된 구라파주둔 카나다군을 《계획적, 단계적으로 축감》시키기로 결정하고 1970년에는 그 일부를 철수시켰다.

1973년 5월 14일 카나다하원은 모든 핵소유국들이 핵시험을 금지할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프랑스반동정부가 남태평양에서의 핵시험을 취소할것을 요구하였다.

1973년에 카나다정부는 미국에 더 많은 석유를 수출할데 대해 압력을 가하고있는 닉슨도당을 비난하면서 앞으로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을 엄격히 통제할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제와 기타 제국주의나라들의 경제적침투를 제한하기 위하여 11월 27일 카나다정부는 자기 나라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통제할데 대한 법안을 하원에서 승인받았다.

카나다는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데로부터 점차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과 경제, 무역관계를 넓히고있다. 이해 10월 10~17일까지 카나다총리는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지도자들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문제를 협의하였다. 또한 이해 8월 21일에는 웰남민주공화국과 그리고 11월에는 몽골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2월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로동계급과 민주력량의 통일을 위한 공산당》이라는 문건을 1974년에 소집되게될 당 22차대회전까지 당단체들에서 토의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8월 철도로동자들이 벌린 동맹파업으로 식량, 알곡 및 공업제품의 수송이 중단되고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휴업에 들어갔다. 9월상순에는 2년동안에 임금 21%를 올릴데 대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5만 6천여명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이해 카나다에서는 712건의 파업이 벌어졌으며 여기에는 35만명이 참가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카나다는 자본주의적공업—농업국가이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다. 공업에서는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을 초보적으로 가공수출하기 위한 유색금속공업, 팔프제조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카나다공업은 외국경제 특히 미국경제의 부속물로 되고있다. 1973년현재 카나다에 대한 미제의 투자는 350억딸라에 달하였다. 미제독점자본은 카나다의 석유 및 가스, 전기기계, 화학, 자동차, 유색금속공업 부문에 침투하고있다. 1973년에 약 6천 500개의 회사가 미국자본의 통제하에 있었다. 미국의 4개의 자매회사가 카나다자동차공업의 98%를 거머쥐고있다. 이밖에도 미제는 카나다에서 채취공업의 58%, 화학공업의 70%, 석유공업의 76%, 석탄공업의 70%, 고무공업의 70%, 전기기계공업의 58%, 기계제작공업의 67%를 장악하고있다. 공업의 80%는 미국과 가까운데 집중되여있다.

미국 이외에 영제국주의자들과 서독 및 일본군국주의자들도 카나다의 여러 공업부문에 침투하고있다.

카나다는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미국에 대한 카나다원유의 매일 평균수출량을 대폭 줄이였으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카나다원유에 대한 수출세를 12월 1일부터 1바렐당 40센트로부터 1딸라 90센트로 올리기로 하였다.

카나다원유는 미국의 원유총수입량가운데서 38.5%를 차지한다.

농업은 공업에 비하여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7.7%밖에 안되며 로력인구의 약 10%가 농사하고있다.

농업에서는 자본주의적농업경리가 지배적자리를 차지한다.

중요농산물은 밀, 귀밀, 보리, 강냉이 등이다. 밀생산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손꼽히고있으며 이 나라는 밀 수출국의 하나로 되고있다.

축산업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집짐승으로는 소, 돼지, 양, 특히 젖소를 많이 기른다.

태평양연안은 세계 3대어장의 하나로서 카나다의 어업에 유리하다.

대외무역은 주로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 등 나라들과 하고있다.

1973년에 카나다에서 78개 독점회사들이 근로대중을 가혹하게 착취하여 리윤을 59.2% 늘였다. 1973년 1.4분기동안에만도 독점자본가놈들은 130억딸라 이상의 리윤을 짜내였다.

이와는 반대로 500여만명의 근로자들은 최저생활비보다 더 적은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살아가고있다. 1973년에 식료품값은 18.2% 비싸졌으며 생계비는 그 전해보다 9.3% 올라갔다. 1973년에 카나다에는 58만 4천명의 실업자가 있었다.

카나다정부의 반동적교육정책으로 하여 산간지방과 농촌지역 학령아동의 대부분은 학교문전에도 못가고있다. 케베크주에는 25만명의 녀성문맹자가 있다.

출판보도; **통신** 카나디안 프레스
신문 카나디언 트리뷴(공산당기관지), 토론토 스타, 썬데이 썬, 글로브

앤드 메일 (무소속).

방송 씨비에스방송, 씨비에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에 카나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이 협회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지성어린 선물을 보내왔으며 카나다인민들속에 우리 나라를 널리 소개선전하고 있다. 신문 《썬데이 썬》과 《토론토 스타》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실었다.

미　국

(아메리카합중국)

면적 936만 3,353Km² (알라스카와 하와이제도포함)

인구 2억 1,069만 2,000명(1973년 9월 1일)

수도 워싱톤(75만 6,510명)

정　치

미국은 50개의 자치주와 콜럼비아련방구(수도)로 구성되여있는 부르죠아련방제로 되여있다.

국회 상하량원으로 구성되여있다. 상원의원수는 매개주에서 2명씩 6년임기로 선거된 100명으로 구성되여있다. 2년마다 대의원수의 3분의 1은 새로 선거한다. 하원의원수는 435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은 상하량원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지 못한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수반이며 그가 임명하는 11개의 장관들로 정부가 구성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한사람이 8년이상 할수 없다.

대통령 리챠드 닉슨(1973년 1월재선)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에 창건, 위원장 헨리 윈스톤, 총비서 거스 홀, **흑인펜서당** 1966년에 창건, 정부의 인종차별 및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며 흑인들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당, **청년로동자해방동맹**, **유색인진보촉진전국련맹** 인종차별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흑인단체, **전국도시련맹**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흑인단체 **인민당** 1971년 11월 27일 창건. 부르죠아개혁주의적성격을 띤제한된 강령을 내세우고있다. **공화당** 1854년에 무어진 극반동정당이며 현집권당. **민주당** 1828년에 나온 극반동정당.

미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전세계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다.

국가로 형성된지 200년도 못되는 미국력사는 그가 생겨난 첫날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과 전쟁, 국내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과 가혹한 략탈로 일관된 피비린내나는 력사이다.

1969년에 집권한 닉슨도당은 미국력대전쟁미치광이들의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넘겨받아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에 미쳐날뛰여왔다.

침략과 전쟁정책 1973년 미제국주의의 정책은 량면적인 침략과 전쟁 책동및 그의 전면적파산으로 일관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법입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12페지)

1972년 11월 제38대의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 닉슨은 1973년 1월 20일 《취임연설》에서 침략과 전쟁,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로 일관된 제놈의 4년간의 집권기간을 미화분식하고 새집권기간에 《평화》의 간판뒤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강화할 검은 속심을 드러내였다. 닉슨놈은 2월 2일에 국회에 내놓은 1973년도 《일반서신총론》에서도 《평화》와 《번영》을 줴치면서 허울좋은 간판밑에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을 더욱 강화하며 국내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를 보다 강화할 본심을 내보였다.

1월 29일 국회에 내놓은 《예산서신》에서는 1974회계년도에 전회계년도보다 47억딸라나 더 많은 811억딸라의 방대한 군사비를 예정하였다. 이것은 1945년이래 미제의 군사비지출에서 가장 높은 액수를 차지한다.

미제는 총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막대한 딸라를 군사비에 돌려 전쟁수단들과 살인무기들을 생산축적하였다. 닉슨도당은 《닉슨주의》의 실현을 위해 1974회계년도 《군사원조》를 전회계년도의 7억 5천 900만딸라보다 3천 200만딸라나 더 많은 7억 9천 100만딸라로 설정하였다.

이 《예산》의 많은 몫은 아세아에서 《닉슨주의》를 실현하는데 돌려졌다.

이해 미제는 《닉슨주의》가 본질상 《책임분담》이라고 뇌까리면서 아세아에서 《닉슨주의》의 실현을 위해 일본군국주의를 적극 추동하였다.

미제는 1월 23일 도꾜에서 벌린 제14차 안보협의위원회를 통하여 미일 《안보체제》에 기초한 침략적결탁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주일 《미군기지의 정리축소》라는 구실밑에 일본에 있는 미제침략기지들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일본자위대를 증강시켜주었다. 이 쑥덕공론에서 미제는 앞으로 3년간에 걸쳐 미제침략군병력과 기지의 일부를 《감축 및 통합정리》하여 그 가운데서 10개 기지를 일본자위대에 넘겨주기로 하였다.

미제는 7월 31일—8월 1일에 워싱톤에서 벌린 《미일수뇌자회담》을 통하여 미일 두나라의 《평등한 동료관계》를 떠들면서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한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놈들은 회담에서 남조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일본군국주의의 《책임》을 높일것을 확인하였다.

미제는 《닉슨주의》의 실현을 위한 아세아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힘》을 뒤받침하기 위해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에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계속 늘여붙이였다. 2월 1일 미제는 100척의 군함과 6만명의 침략군으로 구성된 제3함대를 무어 미국 서해안으로부터 미드웨이섬 및 일본사이를 련결하는 5천만평방마일수역의 동부 및 중부 태평양에서 《작전임무》를 수행케하였다. 미제는 또한 일본의 요꼬다기지를 우리 나라와 아세아지역에 대한 수송군단의 가장 큰 기지의 하나로 꾸리였으며 오끼나와와 이와꾸니기지들을 제3해병수륙량용부대의 기지로 만들었다. 10월중순에는 침략적인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요꼬스까항에 들이밀었다.

미제는 미크로네시아를 비롯한 태평양상의 군도들을 아세아침략을 위한 새로운 침략기지들로 꾸리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닉슨주의》의 시험장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틀어쥐려하고있다.

이를 위해 놈들은 《유엔군》의 모자를 씌운 3만 8천명의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계속 강점시키고있다.

미제는 한편 남조선괴뢰군의 《현대화》와 《실력배양》을 위해 피눈이되여 날뛰면서 1974회계년도에 2억 3천 900만딸라의 《원조》를 주었다.

미제는 겉으로 조선에서 《남북대화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 막뒤에서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며 유엔총회 제28차 회의에서는 두개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을 꾀함으로써 조선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미제는 윁남, 라오스 정화 이후 캄보쟈에 대한 침략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미제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이 지역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계속 감행하였다. 닉슨도당은 1974회계년도에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비상원조》 22억딸라, 장기군사원조 3억딸라를 주어 새로운 중동전쟁을 준비시켰으며 10월 6일에는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제4차중근동전쟁의 불을 지르게 하였다. 전쟁기간 미제는 제6함대의 미제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놈들을 직접 지원하였다. 10월 22일 중근동전쟁 정화 이후 놈들은 중동문제의 《평화적조종》이란 허울좋은 간판뒤에서 사실상 정화의 신속한 리행을 방해하고있으며 이 지역의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였다.

미제는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놈들은 서독에 있는 미제침략군기지와 미국내에서 100여명의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비행사놈들을 훈련시켜 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데 내몰았으며 여러대의 군용수송기와 100여개의 땅크기관까지 넘겨주었다.

미제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과 반미자주적지향을 탄압말살하기에 미쳐날뛰였다.

9월 11일 미제는 칠레의 반동세력을 사촉하여 견결한 반제투사인 알옌데대통령을 살해하고 그를 수반으로 하는 칠레의 진보적인 합법적정부를 전복하는 반동적군사정변을 일으켰으며 친미군사독재정권을 꾸며내였다.

미제는 침략과 전쟁 정책 수행을 위해 《평화군》, 《아프리카십자로계획》, 《봉사단》과 같은 침략의 척후병들을 계속 세계 여러 나라들에 침투시켜 《숭미》, 《반공》사상을 주입시키고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면서 이 나라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있다. 1973년 3월 30일 하원은 《평화군》의 책동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이 기간에 추가적으로 쓸 자금을 1억 5천 700만딸라를 할당하는 범죄적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1973년에 미제가 감행한 침략과 전쟁책동은 미제야말로 전세계인민들의 철천지 원쑤이며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라는것을 더욱더 실증하였다.

《닉슨주의》의 전면적파산 1973년에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은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았으며 《닉슨주의》는 전면적으로 파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은 이 지역인민들의 완강한 반항에 부딪쳐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으며 그들은 아세아의 여러곳에서 쫓겨나고있습니다.》(《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단행본, 10페지)

《닉슨주의》실현을 위한 미제의 책동은 인도지나전역에서 파산되고있다.

미제는 윁남침략전쟁에 50여만의 침략군과 수천대의 비행기를 들이밀고 거의 2천억딸라를 탕진하면서 갖은 발악을 다하였으나 이해 1월 27일 《윁남에서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협정》에 도장을 찍고 미제침략군의 마지막부대들을 남부윁남에서 끌어가지 않을수 없었으며 뒤이어 2월 21일 《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에도 조인하였다.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의 강한 타격에 녹아난 미제는 6월 29일 상원과 하원에서 하는수 없이 캄보쟈에 대한 폭격정지법안을 가결하였으며 닉슨놈은 이에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는 1973년에 들어서 8월 중순까지에만도 230여대의 군용비행기와 500여척의 해적선을 잃고 8월 15일 캄보쟈에 대한 폭격중지를 《성명》하였다.

《닉슨주의》는 아세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파산되였다.

우리 나라를 영구분렬하며 두개조선의 유엔가입을 실현함으로써 제놈들의 《두개조선》 조작책동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해보려던 미제의 책동은 우리 인민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의하여 완전히 파탄되였다.

《닉슨주의》는 지난기간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복무하던 나라들속에서도 강한 타격을 받았다.

남조선, 일본, 필리핀, 타이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정부의 친미추종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이 높아갔다.

일본의 각계층인민들은 일본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며 일본을 조선과 아세아침략의 군사기지로 전변시키는것을 완강히 반대 항의하였다.

아세아에서 《닉슨주의》를 실현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미국의 일부 지배층내에서까지 항의와 규탄을 받았다.

2월 18일 미상원외교위원회는 《한국과 필리핀》이라는 표제의 보고서에서 미제가 남조선괴뢰들에게 주는 《원조》와 남조선에 침략군을 강점시키는 종래의 정책을 버릴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이해 미국의 각계층인민들은 미제의 캄보쟈에 대한 침략과 무차별폭격을 반대하여 항의 집회와 시위들을 광범히 벌리였다.

미제는 중근동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도처에서 얻어맞았으며 이 지역들에서 《닉슨주의》는 더욱더 거덜이 났다.

이것은 미제국주의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더욱 심각해진 정치적위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에서 사회적불안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지배층내의 모순은 극도에 이르고있습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단행본, 8페지)

1973년에 닉슨도당은 국내 각계층인민들로부터도 되게 얻어맞았으며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겪었다.

특히 《워터게이트사건》과 관련하여 닉슨놈을 대통령자리에서 몰아낼것을 요구하는 각계층인민들의 투쟁과 사회여론은 닉슨놈의 집권이후 그 어느해보다도 강력하게 벌어졌다.

11월 4일 《뉴욕타임스》지는 《대통령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닉슨놈이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날것을 요구하는 2천단어의 긴글을 써냈다.

10월 20일 수백명의 워싱톤시민들은 《닉슨은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웨치면서 시위를 벌리였다. 11월 25일 100여명의 정치학자들도 닉슨놈의 탄핵과 공개재판을 요구하여 나섰다. 12월 6일 1천 350만명이상의 로조원을 망라하고있는 미국의 한 로조는 닉슨놈의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닉슨놈의 대통령사임을 요구하는 기운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내에서까지 나타나고있다.

그리하여 닉슨놈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미국하원 사법위원회까지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닉슨놈에 대한 탄핵이 제기된 이후 11월 3일까지 닉슨놈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는 전보가 4만 9천 300건 들어온데 비해 반대하는 전보는 겨우 1천 117건이 들어왔으며 닉슨놈에 대한 국민의 지지률은

지난 11월말 현재 겨우 27%밖에 되지 않는다고 공포하였다.

닉슨도당은 정치적사기행위뿐만아니라 경제적협잡행위로하여 더욱더 인민들로부터 고립배격당하고있다.

애그뉴놈은 12만 5천딸라의 공금을 채먹은 현행범죄만이 아니라 1966—1968년 멘릴란드주지사노릇할때 숱한 뢰물을 받아먹은 죄행이 드러나 10월에 부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났다.

1973년에 미국근로자들은 닉슨도당의 반인민적경제정책과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반동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3년에 5천 600건의 파업투쟁이 일어났으며 여기에는 220만명의 여러부문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1972년에 비하여 파업참가자수는 50만명, 파업건수는 600건이 더 많은것이다. 특히 1973년에 자동차공업부문근로자들의 대규모적파업투쟁이 전국적규모에서 세차게 벌어졌다.

9월 《크라이슬러 그터스》회사 산하 56개 공장 로동자들은 독점자본가놈들이 《생산의 합리화》란 구실밑에 로동자들을 대량적으로 해고하고 있는데 항의하여 힘찬 투쟁을 벌렸다.

여기에는 21개주에서 11만 7천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제네랄 모터스》와 《포드》자동차회사산하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개선을 위한 투쟁, 9개주를 휩쓸었던 1만 8천명고무공장 로동자들의 투쟁 등 각 부문 근로자들의 투쟁이 완강하게 벌어졌다.

미국각계층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닉슨도당과 독점자본가놈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하였으며 놈들의 정치적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경 제

미국은 자본주의적공업국가이다.

미국의 경제구조에서 부단히 촉진되는 경제의 군사화는 하나의 특징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중공업부문 총생산에서 군수품생산이 차지하는 비률은 40%이상에 달하고 국민총생산액의 4분의 1이상이 군사적수요에 돌려지고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4분의 3이 군수공업부문에 종사하고있다.

벌써 10년전부터 미국에서 원자로케트공업의 100%, 비행기공업의 94%, 조선업의 61%, 라지오 및 전자공업의 38%가 군수생산에 돌려지고있다.

닉슨도당은 1969년 집권 이후 매년 평균 40~50억딸라를 전략무기개발과 그 생산에 탕진하여왔는데 197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1974회계년도에도 또다시 47억딸라라는 막대한 비용을 이 부문에 지출하였다.

미제는 화학 및 세균무기생산을 위해서만도 1958~1959회계년도에 3천 500만딸라, 1965~1966회계년도에 약 3억딸라, 1968~1969회계년도에 4억딸라를 지출하였다.

군비경쟁의 강화와 함께 군수생산에 종사하는 독점회사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제네랄 모터스》를 비롯한 100개의 대군수독점체들이 년평균 400억딸라에 달하는 반동정부의 군수품주문의 80%를 담당하고있으며 이밖에 많은 회사들이 군수품을 생산하고있다.

미국경제에서 생산과 자본의 집중은 다른 하나의 주요특징으로 된다.

미국경제의 명맥은 록펠러, 모르간, 듀폰, 멜론 등을 비롯한 8대재벌의 손아귀에 들어있다. 미국독점자본의 경제력은 계속 팽창하고 국가와 사회생활에 대한 독점체들의 지배가 보다 강화되고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더욱 강화되고있다.

미국의 민간공업은 군수공업에 눌리여 숨을 쉬지 못하고있으며 중소공업은 대독점체들때문에 계속 파산몰락하고있다.

이해 미제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사촉하여 제4차 중근동전쟁을 일으키고 그를 지원한것으로 하여 아랍나라들로부터 석유수출금지 및 제한이라는 징벌을 받아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큰 석유위기》를 겪었으며 그것은 경제와 인민생활전반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였다.

엄중한 석유위기로하여 공업생산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석유를 기본원료로 하는 화학, 수지, 방직 공장등 30여개의 가소제공장이 문을 닫았다.

1973년에 11월말 세스나비행기회사는 연유공급의 부족으로 단번에 2천 400명의 로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보냈다. 석유위기의 후과로 미국경제의 3대 기둥의 하나인 자동차공업부문에서는 국내외에 널려있는 80여개의 산하 공장들에서 생산을 중지하거나 줄이였다. 《제네랄 모터스》자동차회사는 60%의 생산감축을 발표하였다.

자동차공업부문에서의 생산의 축소는 그와 련관된 강철, 고무, 유리공업부문들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경제의 전반적위기를 심화시켰다.

미국의 농업은 자본주의적농업경영이 지배적형태로 되여있다. 농업생산물의 압도적부분을 생산하는 대농장들은 중소농장들을 파산시키고있다.

최근 10년동안 미국에서는 중소농장수의 35%가 파산몰락하였다. 뉴욕주에서만도 약 3만개의 중소농장들이 파산되였다.

닉슨도당의 자본주의적농업정책으로하여 미국에서 농업생산은 더욱 줄어들고있다. 1973년 6월 1일 현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미국에서 밀재고량은 51%, 강냉이 재고량은 25%, 콩재고량은 44% 줄어들었다.

알곡재고량이 줄어든 결과 식료가공품량도 최근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냉이, 밀, 귀밀, 수수, 담배는 미국의 주요농산물로 되고있다.

미국경제의 군사화, 자본의 고도의 집중 그리고 닉슨도당의 반인민적경제정책은 미국경제를 더욱 파국적인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6월 30일로 끝난 1973회계년도에 미국의 예산에서는 144억딸라에 달하는 적자가 났다. 닉슨도당의 집권 4년동안(1969년 7월 1일—1973년 6월 30일)에 미국의 예산적자는 도합 881억 6천 900만딸라에 달하였다.

1972년의 국제수지적자는 296억딸라로 늘어났으며 거기에 1973년 첫 6개월간에만도 또다시 17억 2천 900만딸라가 첨가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금보유량은 전후 최고였던 1949년의 246억딸라로부터 1972년 2월에는 95억 8천 800만딸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해외단기채무액만도 650억딸라였다.

자본주의 금융계의 《왕자》로 자처하던 딸라는 그 가치가 심히 폭락되였다. 이에 따라 딸라를 평가인하할것을 요구하는 서방자본주의세계의 압력이 미제에 가해졌다. 닉슨도당은 1971년 12월 딸라가치를 금 1온스당 38딸라(8%)로 평가인하한데 뒤이어 1973년 2월 12일 또다시 금 1온스당 42딸라 22쎈트로 딸라의 가치를 10% 평가인하하였다. 그러나 5월중순에 서방시장의 금온스당 가격은 100딸라, 6~7월사이에는 거의 130딸라로 뛰여올랐다. 딸라의 위신을 추세우며 통화팽창을 막기 위하여 닉슨도당은 이해 6월 《제4단계의 통화팽창억제책》을 내놓고 물건값의 《60일 동결》을 발표하였으나 통화팽창은 촉진되고 딸라는 완전히 《기준통화》로서의 가치를 잃고 버림을 받게되였다.

1973년 10월말까지의 1년간 통화팽창률은 7.9%였고 1973년에 물건값은 8.8% 올랐다.

1973년 2월 도매물가는 최근 20년래 《월평균도매물가등귀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이처럼 미국경제는 더욱더 골병이 들어가고있으며 경제의 이러한 위기는 미제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키고있다.

사회문화

미국은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이며 온갖 범죄와 패륜 패덕이 집결된 개같은 세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소수 착취계급들이 날로 부유해지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은 더욱더 령락되여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347페지)

이해 미국독점체들은 근로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리윤을 짜내여 더욱 살졌다. 1973년에 미국독점회사들은 근로자들로부터 715억딸라의 년리윤을 짜내였다. 이것은 1972년에 비하여 161억딸라나 더 많은 리윤을 짜낸것으로 된다.

게다가 독점체들은 통화팽창을 더욱 격화시키고 물건값을 높이 끌어올렸다. 이해 11월에 연료용 석유값은 10%, 빵은 5%, 남새와 과일류는 3.5%, 우유 및 우유제품은 3% 더욱 올랐다.

이로하여 이해 미국근로자들은 더욱더 가난과 빈궁에 빠져들어갔다.

1973년말 미국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1972년보다 3.3%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에 생계비는 8.4%나 올랐다.

1973년에 경제위기 특히 연료위기로 하여 실업자는 560만명에 달하였다.

흑인주민의 33%에 달하는 770만명이 최저생활수준도 유지못하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있다.

원주민들의 어린이사망률은 미국어린이들의 평균 사망률보다 1.5배 높으며 원주민들속에서 결핵환자수는 미국의 평균 수준보다 8배나 많다.

미제반동지배층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는 주민 10만명당 의사는 불과 몇명밖에 안된다. 그나마 의사의 대부분은 큰 도시들에만 집중되여있고 작은 도시나 농촌들에는 의사가 단 한명도 없는곳이 대부분이다.

1천 400만명을 넘는 학령아동들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있으며 2천 500만명에 달하는 문맹자들이 암흑속에서 생활하고있다.

또한 높아가는 학비를 감당해 낼 길이 없어 해마다 중학교학생수의 약 30∼40%, 고등학교 학생수의 약 40%가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고있다.

미국에서는 1분에 7건의 엄중한 범죄행위가 나타나고있다.

1973년 상반년에 살인사건은 486건으로서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6%가 늘어났다. 강간사건은 867건(4.5% 증대), 엄중한 폭행 6천 784건(12.6% 증대), 절도 1만 3천 691건(14.8% 증대), 강도 2만 487건(26.8% 증대), 자동차도적 1만 9천 935건(19.1%증대)이나 일어났다.

마약중독자는 뉴욕에만도 15만명이 있으며 그 수는 날로 불어나고있다.

끝없이 늘어나는 범죄행위로 골머리를 앓고있던 닉슨놈은 이해 8월 7일 범죄 《단속》을 위한 경찰을 강화하는데 32억 5천만딸라를 추가적으로 지불할데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 유피아이, 유에스아이에스

신문 워커(공산당기관지), 피플즈 월드(공산당계), 데일리 월드, 블랙크 팬서(흑인팬서당기관지), 뉴욕타임스(민주당계), 워싱톤 포스트(민주, 공화 량당자유파의 견해를 반영), 뉴욕 헤랄드 트리븐(공화당계), 크리스챤싸이언스 모니터(중립계), 월 스트리트 저널(뉴욕인가의 금융경제신문), 인터내슈널 파블리셔스, 워커스 월드, 모헤메드 스피크스,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방송 에이비씨방송, 씨비에스방송, 《미국의 소리》방송, 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미제국주의는 1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제놈들의 식민지, 군사전략기지로 전변시켰다.

미제는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가 우리 인민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고 참패당하였으며 내리막길에 굴러 떨어졌다.

미제는 전후 조선에서 새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사코 방해하여왔으며 《두개조선》을 조작하며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광범한 인민들과 진보적계층들은 우리 나라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

특히 미국 각계층인민들속에서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높아가고있다.

1970년 8월에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가 결성되였으며 1971년 6월 24일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가 창설되였다.

뉴욕에 있는 《가디언》출판사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수록한 《김일성전》 영문판 제1, 2, 3부를 수만부 출판하였다. 또한 《뉴욕타임스》지 1969년 10월 27일호는 《조선은 20세기의 영웅을 낳았다. 김일성전 제1부》라는 제목으로 옹근 한면에 걸쳐 《김일성전》 1부를 소개하는 글과 새로 출판될 제2부와 제3부의 내용을 알리는 글을 실었다.

뉴욕에 있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출판사 《인터내슈널 파블리셔스》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포함한 1955∼1970년 사이에 발표된 9편의 로작들을 담은 《조선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라는 문헌집을 출판하였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와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1970년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미국공산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헨리 윈스톤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에 미국청년로동자해방동맹대표단과 미국병사동맹 위원장이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미국건국법률가조합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2년 5월에 미국 《뉴욕 타임스》지 부주필과 그 일행, 《워싱톤 포스트》지 극동총국장과 7월에 미국하바드종합대학교수와 그 가족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뉴욕타임스》 부주필과 《워싱톤 포스트》지 극동총국장은 5월 26일과 6월 21일에 각각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받았다. 1973년 6월 미국조선친선공보 쎈터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3년 9월 3일 유엔 주재 우리 나라 상임옵써버대표부성원들이 뉴욕에 도착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유엔이 조선문제에 개입된이래 26년만에 처음으로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의 조선문제토의에 참가하기 위해 외교부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뉴욕에 도착하였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참가하여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친 대표단은 11월 30일 뉴욕을 떠나 조국에 돌아왔다.

대 양 주

정 세 개 관

1973년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은 대양주에서도 뜨겁게 불타올랐으며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들이 수많이 생겨났다.

이해에 오스트랄리아에서 오스트랄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이 위원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출판보급하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륭성번영하는 우리 나라의 모습을 소개선전하는 글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오스트랄리아 휘틀람총리가 1973년 7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자기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공식적인 접촉을 가지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한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오스트랄리아인민의 관심과 지지의 표시이다.

오스트랄리아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소집에 대한 제안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획기적제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하였으며 미제가 남조선으로부터 저들의 침략군을 당장 끌어내갈것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즉시적인 해체를 요구하였다.

오스트랄리아사회계에서는 오스트랄리아정부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조선》조작음모에 가담하지 말것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이것은 지난날 미제의 동맹자였던 나라들까지도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리해하고 우리를 지지하기 시작하였다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해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단과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표단이 오스트랄리아를 방문하고 오스트랄리아 대외무역부장, 오스트랄리아 작가이며 기자인 윌프레드 버체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함으로써 우리 인민과 대양주 나라 인민들간의 리해와 친선을 한층 더 두터이 하였다.

1973년에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그밖의 대양주 나라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함께 미제에 단호히 맞서 싸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생독립국가들도 다른 나라의 간섭과 구속을 반대하고있으며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심지어 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더는 큰 나라들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독자적으로 행동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25페지)

1972년 12월초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서 있은 총선거에서 각각 승리한 레이버당정부들은 이해 대내외정책에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오스트랄리아의 휘틀람총리가 새정부의 대외정책이 《보다 더 자주적인것이고 군사에 중점을 두지 않으며 인종주의를 지지하지 않을것》이며 《미국에 순종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할때 뉴질랜드는 자기의 대외정책이 보다 자주적일것이며 앞으로 영국이나 미국이 어떻게 대하든간에 자기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행동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의 레이버당정부들은 자기 나라가 더는 미국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이전 반동정부가 미제의 지시에 따라 남부윁남에 들이민 군사인원들을 철수한데 이어 남부윁남괴뢰도당과 캄보쟈 론놀괴뢰도당에 대한 군사 및 비군사 원조를 주기로 했던 이전 정권의 《공약》을 취소하였다.

또한 4월에는 남부윁남괴뢰우두머리 느구옌 반 티우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의 오스트랄리아 《방문》을 배격하였으며 7월에는 정치범들을 박해하고있는 남부윁남의 티우도당을 규탄하고 그들의 즉시적인 석방을 호소함과 동시에 윁남민주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였다.

자기나라 령토에서의 미제침략군 핵잠수함들을 위한 《오메가항해지원소》건설을 배격하였으며 10월에 마닐라에서 진행된 세아토성원국들의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지 않은 오스트랄리아정부의 조치는 대미추종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길로 나아가려는 이 나라의 지향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뉴질랜드 역시 《뉴질랜드는 세아토 참가비중을 점차 낮출 결심》이라고 하면서 방코크에 있는 세아토군사계획사무소에서 뉴질랜드직원들을 소환한것이라든가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가 장개석도당과 외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사실, 윁남민주공화국을 공식 승인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는 사실,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선언하고 남로데시아인종주의정권의 《공보부》를 폐쇄하였으며 남로데시아에 대한 밀수출금지와 함께 일체 무역관계를 완전히 금지하고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정권이 보내는 백인 체육선수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오스트랄리아의 결정적조치 등은 제국주의의 붕괴와 몰락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대외정책에서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오스트랄리아는 이해에 국내적으로도 구식민지종주국인 영제국주의자들이 아직도 가지고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특권을 종식시킬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전 정부가 《의무병역제》의 명목밑에 청장년들을 강제로 침략적고용병으로 징집하던 악법을 없애버렸다. 또한 외래독점자본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는 등 미제의 간섭과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한때 미제의 《위성국》으로 불리워오던 오스트랄리아가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반제적조치를 취한 것은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는것이 우리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되였다.

이해 대양주정세에서 다른 한 측면은 오스트랄리아대륙의 북쪽에서 파푸아뉴기니아가 독립한것이다.

이전 오스트랄리아반동정부에 의해 조작된 《파푸아와 뉴기니아법》에 의해 오스트랄리아식민지 압제에서 신음하던 파푸아뉴기니아는 자치국으로 되였다. 파푸아뉴기니아 초대대통령이 《오스트랄리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파푸아뉴기니아의 시대는 끝장이 났다》고 언급한것은 그 어느 민족에도

예속되지않고 나라의 존엄을 지키려는 파푸아뉴기니아인민의 확고한 립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해에 대양주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 지대에서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살륙무기시험을 계속 강화하려는 미제의 책동과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각종 음모를 반대배격하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미제가 대양주에서 제아무리 회유와 기만, 위협공갈을 하여도 이 지역에 굽이치기 시작한 반미자주의 흐름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리아련방)

넓이 768만 6,810Km²

인구 1,315만 4,700명(1973년 4월)

주민의 95%가 영국이주민들의 후손이며 원주민은 약 5만명이 있다.

공용어는 영국말

수도 캔베라(주민 13만 7,000여명)

정 치

총독 폴 해즐러크(1969년—), 총독은 국가수반인 영국녀왕을 대신한다. 국회의 소집과 해산, 법률을 승인한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60명, 임기 6년, 3년에 한번씩 의원의 절반을 개선한다.

하원은 각주의 인구비례로 선거되며 임기는 3년이다. 1972년 12월 2일 국회선거결과 하원의석 125석중 레이버당이 67석, 자유당이 38석, 지방당이 20석 차지

정부 1972년 12월 18일 구성

총리 총리겸 외교부장 휘틀람(1972년 12월 5일—), 부총리 겸 국방부장 란스 바나드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0월 30일 창건, 1940년에 비법화되였다가 1942년부터 다시 합법화됨, 1964년 3월 15일 이 당은 오스트랄리아공산당과 공산당(맑스-레닌주의)으로 분렬됨, **레이버당**(집권당) 1890년에 창건된 가장 오랜 정당, 로조에 지반을 두고있다. **사회당** 1972년 10월 창립, **자유당** 금융 및 공업독점체들의 리익을 대표, **지방당** 대지주, 목장주들의 리익을 대표, **흑인펜서당**(원주민들의 조직) 1972년 1월 창건, **로동조합리사회, 공산주의청년운동, 부녀련맹, 평화위원회**

1972년 12월 2일 진행된 하원선거에서 레이버당이 자유당과 지방당의 두 반동련립집권당들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써 23년만에 정권을 잡았다.

새로 취임한 레이버당정부 총리 휘틀람은 《오스트랄리아가 더는 미국의 추종자로 되지 않을것이다》라고 하면서 새 정부의 대외정책이 《보다 더 자주적인것이며 군사에 중점을 두지 않으며 인종주의를 지지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오스트랄리아의 이전 반동정권은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영제국주의자들의 편에 가담하여 군수공업확장에 미쳐날뛰였으며 제2차세계대전 당시에는 미영제국주의세력에 붙어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자기 나라를 미제의 예속하에 밀어넣었다.

오스트랄리아는 미제의 침략적군사동맹인 《안쥬스》(1951년), 《세아토》(1954년 9월) 및 《아스파크》(1966년 6월)에 가담하였다.

1971년 11월 1일에는 영제국주의자들과 함께 《동남아세아5개국방위조약》을 맺고 동남아세아 영련방성원국들에 군대를 배치하였다.

1967년부터 오스트랄리아반동지배층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한몫 끼여 남부웰남에 침략무력을 파견하였으며 1970년 5월에는 미제의 캄보쟈 침략을 적극 비호하여 캄보쟈괴뢰도당에게 군사《원조》와 괴뢰군《훈련단》을 보냈다.

또한 미제와 항공및해군기지제공에 관한 군사협정을 맺고 자기 나라를 미제의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반동련립정권의 이러한 대미추종정책과 반인민적배족행위는 인민대중의 증오와 규탄을 받았으며 오스트랄리아가 자주의 길로 나갈것을 요구하는 사회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신생독립국가들도 다른 나라의 간섭과 구속을 반대하고있으며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심지어 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더는 큰 나라들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독자적으로 행동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25페지)

새로 집권한 레이버당정부는 이전 반동정부가 미제의 지시에 따라 남부웰남에 들이민 군사인원들을 1972년 12월 27일까지 모두 철수한데 이어 1973년 4월에 남부웰남괴뢰우두머리 느구옌 반 티우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의 오스트랄리아 《방문》을 배격하였으며 7월에는 남부웰남의 티우도당이 정치범들을 박해하고있다고 비난하고 그들의 즉시적인 석방을 호소하였다. 1973년 2월 26일에는 웰남민주공화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해 11월 16일 이전 반동정부가 론놀도당에게 주기로 하였던 3천 500만딸라의 경제《원조》협약을 무효로 선포하였다. 정부는 남부웰남괴뢰도당과 캄보쟈 론놀괴뢰도당에 대한 군사 및 비군사《원조》의 이전 《공약》들을 취소하였다.

이해 7월 12일 레이버당대회에서 휘틀람총리는 오스트랄리아가 자기의 대외정책에서 주로 미국과의 관계에 기초하는것을 더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휘틀람정부는 미제의 침략도구인 세아토의 존재가치에 의혹을 표시하고 1973년 7월 10일 마닐라에서 10월에 하기로 한 세아토성원국들의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3월 26일에는 오스트랄리아령토에서의 미제의 군사시설 《오메가항해지원소》 건설계획을 배격하였다.

한편 휘틀람정부는 장개석도당과 일체 관계를 끊고 1972년 12월 21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22일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선언하고 1972년 12월 8일 남로데시아인종주의정권의 《공보부》를 페쇄하였으며 남로데시아에 대한 오스트랄리아밀수출금지를 비롯하여 1973년 1월에는 일체 무역관계의 완전금지를 발표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채굴공업, 농업, 목축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목축업과 어업이 30%를 차지한다.

농업분야에서 리용되고있는 땅은 4억 9천만헥터에 달하는데 그중 78%가 목장과 초원이며 약 6%가 부침땅과 과수원, 남새밭으로 되고있다. 판개된 땅은 140만헥터에 불과하다. 토지의 대부분을 대토지소유자(자본가)들이 장악하고있으며 농업인구의 40%가 농업로동자들이다. 농업인구는 총인구수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농작물생산에서 밀재배가 기본인 이 나라는 자본주의나라들중 주요 밀생산국인 동시에 수출국의 하나이다. 년평균 밀생

산량은 1천여만t, 보리는 175만t, 귀밀은 145만t이다. 이밖에도 강냉이, 감자, 사탕수수, 담배, 땅콩, 아마, 목화, 남새류, 사과, 귤류, 포도 등을 가군다. 알곡은 주로 영국, 인도, 뉴질랜드, 중근동나라들에 수출한다.

축산업은 오스트랄리아 농업총생산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부문으로서 이 나라 경제에서 큰 몫을 맡고있다. 양마리수와 양털생산량은 세계 제1위로서 세계양털총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1970년 현재 양마리수는 약 1억 8천만마리이며 양털을 91만 6천 400t 생산한다. 생산한 양털의 90%를 수출하며 이것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약 4분의 1에 맞먹는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은 약 70%를 차지한다.

공업은 비교적 발전한 편이나 그 대부분이 외래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을 포함한 100여개의 외래독점체들은 전체 공업기업소의 3분의 1(주로 석유, 희유금속, 기계제작공업 등)을 차지하고있다. 공업의 대부분은 동남부와 남부의 항구도시들에 집중되여있다.

주요공업부문은 채취공업, 기계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방직, 식료가공공업이다. 채취공업은 쇠돌을 비롯하여 석탄, 금, 연, 아연, 주석, 중석, 보크사이트, 우라니움, 석유 등 비교적 다양하다.

수출품은 양털, 밀, 고기, 쇠돌, 석탄이며 그외에 유색금속, 기계설비, 뻐터, 치즈, 사탕, 과일 등이다. 수출총액에서 농축산품이 70%를 차지한다.

주요 무역대상국은 일본(수출의 약 25%, 수입의 12.5%), 미국(13.5%와 25%), 영국(약 12%와 약 21%), 서독, 카나다 등이다.

원주민들은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 에이 피(오스트랄리아련방통신), 에이유피통신

신문 뱅가드(공산당기관지), 시드니 모닝그 헤랄드(보수계), 오스트랄리안, 멜보른 에이지(중립계)

방송 오스트랄리아방송, 오스트랄리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오스트랄리아 이전반동지배층들은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저들의 침략군대를 보냈으며 소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1972년 12월 오스트랄리아 레이버당정부가 수립된후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발전이 이룩되고있다.

휘틀람총리는 1973년 7월 국회에서 한 대외정책연설에서 자기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공식적인 접촉을 가지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였다.

오스트랄리아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담화를 발표하여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인사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소집에 대한 제안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획기적제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하였으며 미국이 남조선으로부터 저들의 침략군을 당장 끌어내갈것과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즉시적인 해체를 요구하였다.

1973년 8월에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위원장은 조세프 워터즈이다. 이 위원회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출판보급하고 륭성번영하는 우리 나라의 모습을 소개선전하는 글을 발표하며 사진전람회와 여러가지 행사를 조직하며 오스트랄리아정부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조선》조작음모에 가담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 무역대표단(7월),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표단(11월~12월)이 오스트랄리아를 방문하였으며 오스트랄리아대외무역부장이 10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8월에 오스트랄리아 작가이며 기자인 윌프레드 버체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뉴 질 랜 드

넓이 26만 8,700Km²

인구 297만 5,522명(1973년 5월 31일)

주민의 대부분은 영국이주민들의 후손이며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약 20만명 있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며 원주민은 마오리말을 쓴다.

수도 웰링톤(주민 30만 1,000명, 1970년 4월)

정 치

총독 에스피에 포리트, 총독은 국가수반인 영국녀왕을 대신한다.

국회 일원제, 임기는 3년, 1972년 11월 25일 국회선거결과 총의석 87석중 레이버당이 55석 차지

정부 총리겸외교부장 노만 에리크 커크(1972년 12월 8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총비서 윌콕스, **레이버당**(집권당), **국민당** 매판자본가와 목장주, 농장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동적인 정당, **사회통일당, 사회신용당, 자유당, 로동총련맹, 진보청년동맹, 녀성동맹**

영련방내의 자치령으로 독립(1907년 9월)한 뉴질랜드는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침략세력이 침투되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가 미제에 예속되였다.

뉴질랜드는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안쥬스》, 《세아토》, 《아스파크》 등 미제가 조작한 침략적군사동맹에 가담하였다.

1960년 11월에 집권한 국민당정부는 《세아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있는 영국기지들과 남부웰남전쟁터에 자기 나라 청장년들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내몰았다.

국민당정부의 이러한 대미추종정책과 특히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로의 파병을 반대하는 뉴질랜드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속에서 1972년 11월 25일 국회선거가 진행되였으며 이 선거에서 레이버당이 87석의 국회의석중 55석을 차지함으로써 1960년 11월이래 4기에 걸쳐 련속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해온 친미반동정당인 국민당을 몰아내고 12년만에 레이버당이 정권을 잡게 되였다. 레이버당정부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파견하였던 뉴질랜드군대를 이해말까지 모두 철수하는 등 대외정책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였다. 새 총리로 된 레이버당 당수 노만 커크는 1973년 7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대외정책보고에서 뉴질랜드가 보다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이 어떻게 대하든간에 자기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행동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0월 15일 정부는 앞으로 《뉴질랜드는 세아토참가수준을 점차 낮출 결심》이라고 하였으며 방코크에 있는 세아토군사계획사무소에서 뉴질랜드직원들을 일부 소환하였다.

1972년 12월 22일 장개석도당과 외

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9월에는 윁남민주공화국을 공식 승인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농목축업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목축업은 전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농업생산액은 총생산액의 50%이상, 수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한다. 농업생산액의 90%는 목축업에서 얻어진다. 농업에 리용되는 915만헥타의 땅중 90%는 목축업을 위한 방목지이며 씨부침땅은 5%, 나무심는 땅이 5%이다. 이 나라에서는 주로 양, 소, 돼지를 기르는데 그중에서도 양의 마리수와 털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2~3위를 차지한다. 양털을 매년 32만~33만t 생산하며 그중 90%를 수출한다.

알곡재배는 축산업에 비하여 보잘것없으며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고있다.

해마다 밀 27만~23만t, 보리 17만t 귀밀 5만 5천~6만t, 강냉이 6만t, 감자 24만여t을 생산한다. 4천 300만에이커에 달하는 토지와 방목지를 가진 8만 5천개의 농목장을 농목장주들이 차지하고 농민들을 착취하고있다.

림산업도 이 나라의 경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해마다 1천 500만그루이상의 나무모를 심으며 약 131만m^3의 목재를 생산한다. 이 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 카우리소나무가 유명한데 둘레 53메터의 카우리나무로 7~8동의 목조건물을 지을수 있다. 화산의 지열을 리용한 60여개의 천연지하분수에서 해마다 19만 2천 600KwH의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탄, 쇠돌, 금, 은 등이 있다.

공업에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가공공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는데 고기가공과 소젖제품생산이 공업총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제2차세계대전후 기계제작, 금속가공, 방직, 전력, 석유가공, 팔프 및 종이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공업부문들이 새로 생겼으나 모든 공업부문들을 미영독점자본이 지배하고있다. 미제가 자동차조립과 석유가공을 비롯한 기타부문에, 영제국주의자들이 식료공업, 금융, 해상운수 부문을 틀어쥐고있다.

외래독점자본의 침투로 민족경제는 나날이 파산몰락의 위기에 처해가고있으며 생산은 침체상태에 빠지고있다.

고기, 소젖제품, 양털, 팔프 및 종이를 수출하고 기계설비, 소비품, 화학제품 등을 수입한다. 국민총생산액의 약 25%는 수출로써 충당하고있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영국, 미국이며 기타 구라파《공동시장》에 들어있는 나라들과 일본, 오스트랄리아 등이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문맹자비률은 대단히 높다. 대학은 6개밖에 없다. 마오리족 학령아동의 5분의 4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남부태평양통신

신문 도미니온, 썬데이 타임스, 뱅가드, 피플즈 보이스, 뉴질랜드 헤랄드

방송 뉴질랜드방송, 뉴질랜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5월에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가 조직되였다. 이 협회 결성모임에서는 협회위원회가 조직되였는데 크라이스트 처치 캔터브리 종합대학 사회학 교수 더블류. 이. 윌모트가 위원장으로 되였다. 이 협회는 우리 나라와 뉴질랜드사이의 호상리해를 도모하며 외교, 문화 및 무역관계를 촉진하며 우리 인민의 력사와 문화, 경제, 사회 및 정치활동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제안과 통일된 조선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목적으로 삼고있다.

피 지

피지는 태평양서남부의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멜라네시아동쪽끝에 있는 섬나라이다.

년평균기온은 더울때 28°c, 추울때 20°c이다.

넓이 1만 8,272Km^2

인구 52만 6,800명(1970년)

주민의 대부분은 피지인과 인도인, 구라파인, 혼혈인들이다.

공용어는 영국말이나 멜라네시아말도 쓴다.

수도 수바(주민 약 6만 1,000명)

정 치

국회 상하량원제의 최고립법기관이다. 상원의원수는 22명,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의원수는 52명, 그중 피지인과 인도인이 각각 22석을, 구라파인이 8석을 차지하고있다. 임기는 5년이다.

총독 로버트 포스터, 1970년 헌법에 따라 영국녀왕을 대신하는 명목상 국가수반이며 실제 권한을 못가지고있다.

정부 총리 라트 세르 카미세세 마라

정당, 사회단체; **동맹당** 집권당이며 하원에서 27석을 차지, **민족련맹당** 1963년에 조직된 야당이며 하원에서 9석을 차지하고있다.

피지는 오랜 왕국이였다. 1874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피지를 완전히 강점하고 직할식민지로 만들었다.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피지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70년 10월 10일 피지는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1973년에 피지는 태평양에서 핵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프랑스의 결정과 관련하여 프랑스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나라의 정치, 경제적 독자성을 가지면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파괴령락되였던 경제를 다시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사탕수수와 야자재배이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생산이 차지하는 몫이 30%이다.

원주민들은 감자, 고구마, 마니오크, 바나나, 코프라(야자씨), 땅콩, 생강 등을 재배한다. 자본주의적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들이 수출용작물인 사탕수수, 야자를 주로 재배하고있다. 이외에 버티레부섬의 동부지역에서는 벼를 심고있다. 년평균 사탕은 약 34만t, 야자기름은 1만 7천t정도 생산된다.

공업기업소는 거의 없으며 작은 사탕공장, 세멘트공장(년산 약 5만t), 화력발전소(약 1억 3천만KwH), 기타 농산물가공공장들이 몇개 있다. 최근 년간 금, 은, 동, 망간 등 지하자원이 소규모적으로 채굴되고있는데 일본독점회사들이 망간과 동을 략탈해가고있다.

피지는 남태평양의 해상 및 항공로의 교차점에 놓여있으므로 관광업과 운수업이 주요외화원천으로 되고있다.

피지인은 기독교, 인도인은 힌두교를 믿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피지 타임스, 쟈이 피지, 피지 로이얼 거제트

서부사모아

태평양의 서남쪽에 있는 폴리네시아의 사모아제도 서쪽절반을 차지하고있다. 이 나라는 사바이이, 우폴루섬을 포함하여 7개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섬들은 산호초로 둘러싸인 화산섬들이다.

열대성기후이며 섬전체가 열대식물로 뒤덮여있다.

넓이 2,842Km²(그중 우폴루섬 1,075Km², 사바이이섬 1,650Km²)

인구 14만 2,000명(1970년 6월)

주민의 대부분은 사모아인이며 구라파인도 약간 있다.

공용어는 사모아말과 영국말이다.

수도 아피아(주민 2만 8,000명, 1970년)

정 치

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으로서 47명으로 구성되여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국가원수 마리에토아 타누마피리 2세

정부 총리 투푸아 타마세세 레아로위 4세(1970년 3월), 총리는 립법회의에서 선출한다.

서부사모아는 원래 독립왕국이였다.

1830년부터 미, 영, 독일식민주의자들이 침입하기 시작하였으며 1899년에는 독일에 완전히 강점당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게 되자 1919년 서부사모아는 뉴질랜드의 《위임통치령》으로, 1947년부터는 《유엔후견령》으로서 뉴질랜드의 관할하에 있었다. 1962년 1월 1일 서부사모아는 독립을 쟁취하였다.

서부사모아는 뉴질랜드와의 《조약》에 의하여 1962년 8월 1일부터 대양주밖의 다른 나라들과 맺는 대외관계는 뉴질랜드외교대표들을 통하여 진행하고있다. 1970년 8월 28일 영제국주의자들은 서부사모아를 영련방에 끌어들였다.

동부사모아는 오늘까지 미제의 식민지로 남아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땅이 걸어서 농사가 아주 잘된다. 그러나 토지의 대부분은 영국침략자들의 코코아농장으로 되고있다.

주요농산물은 코프라(야자씨), 바나나, 코코아이며 그외에 감자와 고구마도 심는다.

섬나라이므로 많은 주민들이 물고기잡이를 하고있으며 조개와 낙지는 일부 수출까지 한다.

공업은 거의 발전하지 못하였고 농산물과 물고기를 가공하여 수출하기 위한 식료가공공장이 몇개 있을뿐이다. 외화원천을 늘이기 위해 관광업을 장려하고있으나 자본주의나라 관광객들이 섬나라 인민들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고있다.

문자가 없고 라틴문자를 쓰는데 학교에서는 사모아말과 함께 영국말을 공용어로 쓰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사모아 타임스, 사발리, 아피아 애드버타이저

파푸아뉴기니아

파푸아뉴기니아는 인도네시아의 동쪽, 오스트랄리아대륙의 북쪽에 있는 뉴기니아섬의 동쪽절반을 이루고있다. 서쪽절반은 인도네시아령인 이리안쟈야(서부이리안)이다.

넓이 47만 2,693Km²

인구 약 240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오스트랄리아원주민과 같은 계통의 파푸아사람들이다.

언어는 멜라네시아말

행정중심지 포트 모레스비

정 치

정부 초대총리 마이클 소마레(1973년 12월 1일—), 외교부장 알버트 마오리 키키

파푸아뉴기니아는 남북으로 갈라져있었다. 북부(뉴기니아)는 1946년에 《유엔후견령》으로 되면서 오스트랄리아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였고 남부(파푸아)도 1906년에 오스트랄리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1949년에 오스트랄리아반동정부는 《파푸아와 뉴기니아법》을 조작하여 파푸아와 뉴기니아를 행정적으로 통합하였으며 두 지대에 대한 련합통치를 실시하여왔다.

1973년 12월 1일에 파푸아뉴기니아가 자치국으로 되였으며 내부문제에 관한 완전한 권력을 오스트랄리아로부터 파푸아뉴기니아정부에 이관할데 관한 새 법령이 채택되였다. 초대대통령 마이클 소마레는 12월 1일 방송연설에서 《오스트랄리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파푸아뉴기니아의 시대는 끝장이 났다》고 지적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이 나라에서는 금, 은, 동, 석유가 개발되고있으며 금은 주요수출품으로 되고있다.

농산물로서는 코코아, 커피, 코프라(야자씨), 고무, 바나나가 있으며 벼와 강냉이도 심고있다. 코프라와 고무는 주요수출품에 속한다. 자원이 풍부한 목재와 물고기도 많이 생산된다.

그러나 지난날 이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식민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여왔다.

누벨깔레도니아

(프랑스해외령)

오스트랄리아의 동북쪽 남태평양상에 있다. 멜라네시아의 동남부에 있는 누벨깔레도니아제도(일명 뉴 깔레도니아제도)는 서북쪽에서부터 동남쪽으로 놓인 좁고 긴 섬들로 이루어졌다. 령토의 3분의 1은 바위산이다.

기후는 봄과 가을이 긴 아열대성기후에 속한다.

넓이 1만 9,103Km²

인구 10만명(1969년)

주민은 백인이 많으며 쟈바사람, 통킹사람, 원주민들인 멜라네시아사람과 파푸아사람도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말이며 원주민들은 멜라네시아말 또는 파푸아말을 쓴다.

행정중심지 누메아(주민 6만명)

정 치

해외령의회 형식상 협의기관으로 되여있으나 실권은 프랑스고등판무관이 틀어쥐고있다.

정당, 사회단체; 깔레도니아동맹당, 누벨깔레도니아당 이 두 당은 섬의 자치를 요구하여 투쟁하고있다. **누벨깔레도니아인종운동당** 1971년 1월에 누벨깔레도니아당에서 떨어져나와 조직, **누벨깔레도니아자치로동조합동맹** 1970년 6월에 이 동맹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하였다.

1744년에 영국인 쿠크에 의하여 발견된후 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오

다가 1853년 프랑스에 병합되였다. 1860년에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에 프랑스의 《해외령》으로 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니켈, 크롬, 쇠돌, 코발트, 망간, 동, 금이 채굴되고있다. 특히 품위가 높은 니켈과 크롬광석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다. 년평균 니켈광석은 150여만t(니켈 약 1만 7천t), 쇠돌은 약 20만t이 생산되고있다.

커피, 코프라, 남새를 위주로 하는 농업과 소를 기본으로 하는 목축업, 림업과 수산업이 있다.

경제는 식민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니켈, 크롬, 쇠돌을 비롯한 광물들을 수출하고 공업제품, 세멘트, 일용품과 식료품을 수입한다.

원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나 우 루

나우루는 미크로네시아의 마샬군도에 속하여있는 적도 바로 남쪽의 외딴 섬나라이다.

강수량이 비교적 적으며 열대의 태풍도 없다.

이르는 곳마다에 야자나무가 무성하며 섬의 대부분이 린광석지역으로 되여있다.

넓이 21Km²

인구 7,000명(1969년)

주민의 대부분은 미크로네시아계의 사람들인데 나우루사람이 3천 500명, 기타 원주민들이 약 2천명정도이다. 그밖에 중국사람, 구라파사람 등이 있다.

언어는 미크로네시아계의 언어와 영국말을 쓴다.

수도 메넹

정 치

립법회의 일원제이며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함메르 데 로바트, 국가수반으로서 임기는 3년이며 립법회의 의원들 속에서 선출된다.

정부(국가리사회) 대통령이 총리를 겸한다.

1796년부터 구라파인들이 기여들기 시작하였으며 1888년에 독일식민지로 되였다.

제1차세계대전시기에는 오스트랄리아침략군이 이 나라를 강점하였으며 그후에는 오스트랄리아, 영국, 뉴질랜드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제침략군이 나우루를 강점(1942~1945년)하였으며 1947년부터는 《유엔후견령》으로 되였다.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적독립을 위한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나우루는 1966년에 《자치권》을 획득한데 이어 1968년 1월에는 《특별성원국》의 지위를 가진 영련방준가맹국(영련방성원국수뇌자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없다)으로 독립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린광석채굴이며 전령토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지역에 린광석이 깔려있다. 1970년 6월에 린광산들을 국유화하였다. 한해에 150여만t의 린광석을 채굴한다. 린광석은 이 나라의 주요수출품이다. 기계류, 자동차, 일용품, 식량을 수입한다. 철길의 길이는 3마일정도이며 포장도로는 12마일에 불과하다.

이 나라 사람들의 생활은 오랜 기간의 식민지통치와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략탈로 인하여 뒤떨어졌으며 문화수준도 락후한 형편에 있다.

주민의 40%이상이 신교를 믿고있다.

출판보도; 불레찐을 발간하는 정도이다.

방송 나우루방송

통 가

(통가왕국)

태평양의 폴리네시아지역 서남부, 사모아제도의 동남쪽에 있으며 통가타푸제도, 하파이제도, 바바우제도로 이루어져있다.

넓이 697Km²

인구 8만 5,000명(1970년)

수도 누쿠알로파(통가타푸섬에 있음, 주민 1만 8,000명)

정 치

국왕 타우파아하우 투포우 4세(1965년—), 국가수반이며 국왕직속으로 비밀리사회가 있다.

립법회의 협상기관이며 22명의 의원들로 구성, 현 립법회의는 1969년 5월에 선거되였다.

정부 총리 파타페히 투이펠레하케(국왕의 동생)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거의 전부가 농사를 하고있다.

농산물로서 코프라(야자씨), 바나나, 파인애플, 고구마, 감자, 마니오크 등을 생산하는데 특히 코프라와 바나나는 주요 수출품이다. 소작제가 실시되고있다. 축산업과 물고기잡이도 조금 하고있다.

기업소라고 할만한 공장도, 지금까지 알려진 지하자원도 없다.

1968년에 크지 않은 석유 매장지가 탐사되였으나 미영제국주의석유회사들에 빼앗기고말았다.

수출품은 코프라, 바나나이며 수입품은 식량, 천, 필수품 등이다. 무역은 영국, 오스트랄리아와 주로 하고있다.

통가의 땅은 모두 왕과 33명의 귀족및 정부의 소유로 되여있으며 평민은 땅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없다. 영농방법은 원시적이며 농기구는 아직까지도 땅파는 막대기와 칼(산림채벌용)밖에 없다.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크로니클(정부계)

괌 도

괌도는 태평양서부 미크로네시아의 마리아나제도 가운데서 제일 큰 섬이며 미크로네시아의 정치적중심지이다.

넓이 549Km²

인구 약 11만명

행정중심지 아가냐

정 치

괌도는 미제의 아세아 침략을 위한 중요군사기지이며 태평양에서의 지배권획득을 위한 기지이다.

미제는 1950년 괌도에서 기만적인 《민정이관》놀음을 벌리고 저들의 주구들을 내세워 식민지통치를 지금까지 실시하고있다. 미제가 내세운 지사가 이 섬을 통치하고있다.

이 섬에는 미제의 공군 및 해군 기지들과 공급기지가 있다. 특히 미제가 웰남과 라오스 및 캄보쟈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부터 팜도는 놈들의 전략폭격기 출격기지로 리용되였다. 《비52》 전략폭격기들이 이 섬에 기지를 두고있다.

이 나라의 오로테반도에 있는 아프라항을 비롯한 여러곳에 미제의 큰 해군기지들과 원자잠수함기지가 있다.

팜도는 최근년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괴뢰들 및 추종국가 두목놈들이 자주 모여 아세아 침략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침략계획들을 꾸미는 장소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미제의 두목 닉슨이 1969년 여름에 바로 이 섬에서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정책인 《닉슨주의》의 륜곽을 처음으로 밝혔다.

경제, 사회문화

섬의 많은 곳이 미제의 군사기지로 되였기때문에 부침땅의 넓이는 불과 3천700여헥타르에 불과하다.

주요작물은 코프라(야자씨)와 파인애플, 바나나, 사탕수수인데 그 생산량은 보잘것 없다. 그외에 강냉이와 고구마, 감자가 난다.

공업에서는 미제의 군사시설과 그 대상들에 대한 건설, 시계조립부문이 있을 뿐이다. 무역대상국은 미국과 일본이다.

미제의 우매화정책에 의하여 몇개의 소학교밖에 없고 많은 어린이들이 공부하지 못하고있다. 글 모르는 사람수는 아주 많다. 미제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적문화와 생활양식을 주민들속에 퍼뜨리고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천주교를 믿고있다.

미크로네시아

(유엔 후견령)

필리핀 동쪽에 있는 마리아나군도, 카롤린군도, 마샬군도를 포함한 2천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넓이 1,813Km²

인구 10만명

주민의 대부분은 미크로네시아족이며 필리핀사람과 일본사람, 혼혈인들이 산다.

행정중심지 사이빤(마리아나군도)

미크로네시아는 제1차세계대전후부터 일제의 《위임통치령》으로 있다가 1947년부터 유엔의 《후견령》으로 되였으나 사실상 미제의 식민지로 되고있다.

미제는 오끼나와와 필리핀인민들의 반미투쟁에 부딪쳐 이 지역의 군사기지의 지위가 날로 불안정하여져감에 따라 미크로네시아를 제놈들의 아세아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책동하나 이 지역 인민들의 강한 반항에 부딪치고있다.

토지 전체가 화산질이며 코프라, 코코아, 바나나 등을 재배한다. 농산물은 주로 일본에 수출한다.

솔로몬제도

(영국보호령)

남위 5~12°, 동경 155~169° 사이의 태평양상에 있다. 부겐빌섬을 비롯한 10여개의 큰 섬들과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기온은 추울 때에도 20°C이상 된다.

넓이 9,785Km²

인구 14만 9,000명(1969년)

인구의 대부분(13만 8,700명)이 원주민인 멜라네시아사람이다.

행정중심지 호니아라(과달카날섬)

정 치

솔로몬제도는 1567년에 발견되였다.

1893년에 영국식민주의자들이 군도의 남부를 《보호령》으로 선포한데 이어 독일식민주의자들이 북부섬들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제1차세계대전후 부겐빌섬과 부카섬을 중심으로 한 독일식민지가 오스트랄리아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제침략군은 미국—오스트랄리아련합함대를 이 해역에서 공격(1942년 여름)하고 여러섬들을 점령하였으나 일제의 패배로 이 섬들에서 물러갔다.

솔로몬제도는 피지에 있는 영국태평양 고등판무관놈의 통치하에 있다.

경 제

이 제도의 주산물은 코프라(야자씨), 코코아, 감자 등이며 목재도 생산된다.

공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없고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나무껍질천을 짜는 직기가 있으며 이 제도 주민들의 기본무기로 되여있는 창과 활이 생산된다.

섬들에는 원래 야자나무, 빵나무를 비롯한 열대식물들이 무성하였으나 식민주의자들이 마구 찍어간 탓으로 일부 섬들에는 나무가 적다.

량 극 지 방

남 극 권

개관 지구의 제일 남쪽끝에 있는 대륙과 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일부로 이루어진 남위 60°이남의 지역을 말한다. (1958년 7월 남극관계 12개나라 대표회의에서 결정)

넓이는 1천 361만Km²이며 대륙해안선의 길이는 2만 4천 700Km이다.

1820년 1월~2월에 로씨야의 탐험대가 대륙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1894년에 노르웨이탐험대가 남극대륙에 처음 들어갔다.

1911년 12월 14일에는 노르웨이의 탐험가가 남극점에 처음 도달하였다.

남극대륙은 해발 2천~3천m의 높이를 가진 고원지대로 되여있으며 도처에 4천 500~6천m의 높이를 가진 산들이 있다.

남극권은 83%가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데 이는 세계의 눈과 얼음 총량의 10분의 9를 차지한다. 얼음의 평균두께는 1천 800m, 최고 4천 480m나 된다.

1958년 1월에 관측된바에 의하면 남극점은 해면상 275m의 암반우에 두께 2천 450m의 대륙빙이 있고 그 우에 약 30m의 눈과 얼음이 쌓여있는 해발 2천 750m 지점이다.

남극대륙은 아직까지 군도인지 단일한 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후 영구성동결기후로서 평균기온은 령하 30°c이다. 가장 따뜻한 철(11~1월)에는 령하 5°c이며 가장 추운철(6~7월)에는 령하 50°c까지 내려간다. 1960년 8월 24일 대륙동부의 쏘련 워쓰또크기지 부근에서 기온이 령하 88.3°c까지 내려갔는데 이것은 지구상에서 관측된 제일 낮은 기온이다. 1년에 한번의 낮과 밤의 변화가 있는데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낮이며 4월부터 8월까지는 밤이다.

남위 50°c이남의 전지역은 년중 폭풍이 일며 아데리해안에서는 풍속이 30m/초이상되는 날이 년중 300일이나 된다.

그러나 퀸메리해안의 반카힐에는 얼지 않는 지대(500Km²)가 있으며 최고기온은 8.3°c, 최저 령하 55°c되는 고원지대도 있다.

자원 금, 은, 주석, 동, 몰리브덴, 찌따니움, 우란, 망간, 석탄 등이 있으며 최근년간 방사성물질이 발견되고 있다. 펭긴새가 많으며 세계고래잡이량의 4분의 3이 남극권에서 난다. 식물은 300여종이 발견되였다.

남극권은 과학연구에서 뿐만아니라 남반구대륙들을 련결하는 해상 및 항공운수로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극조약》에 의하여 남극권은 평화적으로 리용되여야 하며 이 지대에서는 핵시험을 금지하고 과학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령유권을 론하지 않기로 되였다. 그러나 제2차대전후 미제국주의자들은 남극권에 전략기지들을 설치하고 군사연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북 극 권

개관 아세아, 구라파, 아메리카 3대륙의 북쪽의 일부, 그린랜드의 대부분과 북빙양이 속하는 북위 66°30′이북 지역을 말한다. 넓이는 약 2천 500만Km²인데 그중 약 1천 435만Km²는 바다넓이이다. 대부분은 3m 두께의 얼음에 덮여있다. 북빙양의 가장 깊은 곳은 5천 219m이다.

15세기말 《지리적발견》이후 아세아에로의 최단 항로를 개척하려는 나라들에 의하여 북극권에 대한 탐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북서항로에서는 1497년에 뉴과운들랜드가 처음으로 발견되였다. 동북항로에서는 바렌쯔해와 씨비리북부연안, 노바야제믈랴 등에 대한 탐험이 진행되고 1596—1597년에 스피쯔베르겐군도가 발견되였다. 17세기에는 카나다의 북부와 주변 섬들, 18세기 전반기에는 베링그해협이 발견되였다. 19세기 후반기부터 북극권내의 륙지에 대한 탐험이 시작되였으며 1909년 4월 6일 처음 북극점에 도달하였다.

1937년에 최초의 학술탐험이 시작되였다.

1969년 5월에 처음으로 영국탐험대가 북극권대륙횡단(걸어서 5천 800Km)에 성공하였으며 같은해 9월에 북서항공로가 개설되였다.

북극권내에 령토를 가지고있는 쏘련, 노르웨이, 스웨리예, 핀란드가 과학관측소를 설치하고 기상, 해양, 지구물리, 생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있다.

북극권은 아세아, 구라파, 아메리카 등 대륙을 련결하는 최단항로이며 군사, 경제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미제침략자들은 북극권대륙에 수많은 군사기지를 설치하고있다.

기후 기류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남극권보다 따뜻하다. 가장 추운철(1~3월)의 평균기온은 극 중심지대에서 령하 40°c, 대륙연안에서 령하 30°c이다. 가장 더운철(7~8월)의 평균기온은 극 중심지대에서 0°c, 대륙연안에서 5~9°c이다.

1년중 159일은 밤이 계속된다. 년평균강수량은 200~400mm인데 기온이 낮으므로 습도가 높다. 대기의 상태는 년중 불안정하여 기온의 변화를 일으킨다. 북극권의 얼음의 두께는 해마다 얇아지고 북빙양의 수위는 년간 10mm씩 높아진다.

주민 약 12만명 있다. 동부씨비리와 알라스카로부터 카나다의 빵그바지방 및 그린랜드지방에는 에스키모족(약 4만명), 서부씨비리와 노바야 제믈랴에는 싸모예드족(약 2만명), 동부씨비리에는 뚜크치족, 알라스카와 카나다 북쪽에는 아메리카인디안족, 북구라파의 북쪽에는 랍족이 산다.

자원 석탄, 석유 등의 자원이 많으며 쇠돌, 동, 금, 은, 백금, 주석 등이 있다.

남쪽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으며 륙지에는 백곰과 여우 등 털가진 짐승이 많이 산다.

국 제 회 의

제4차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

1973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80여개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을 포함한 100여개 대표단들의 참가하에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3일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번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해방과 자주권,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국제적사변으로 됩니다.》

력사상 가장 많은 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들이 참가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국제정세와 쁠럭불가담운동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심의》를 비롯하여 제3세계나라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분야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 수많은 수뇌자들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공동위업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과 신구식민주의자들의 온갖 형태의 침략과 전쟁정책, 내정간섭, 예속과 불평등, 부정의를 반대하며 특히 렬강들의 《협조》, 《화해》정책에 대처하여 제3세계인민들이 자기들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에 걸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나라 대표들이 인도지나와 아랍나라들을 침략하고있는 미제와 이스라엘 그리고 인종주의자들을 지지하고있는 침략적인 《나또》성원국들을 규탄하고 인도지나, 팔레스티나, 아랍나라들, 앙골라, 모잠비끄, 짐바브웨, 기네—비싸우, 아자니아, 나미비아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회의에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경제분야에서의 광범한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뇌자들은 자력갱생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실업, 대중적빈궁, 분배의 현저한 차이,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의존을 줄이기 위하여 일치한 노력을 기울일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특히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제3세계나라들의 확고한 지지가 표명되였다.

기네공화국 란사나 베아보기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원수께서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대치상태를 제거하며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73년 6월 23일에 제시하신 현명하고 결단성있는 제안들에 지지를 표시하여야 할 도덕적의무를 지니고있다》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의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다.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있는 서울정권이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을 위하여 벌리고있는 책동은 통일을 위한 대화에 장애를 조성하고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고슬라비아련방공화국 찌또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두개국가로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함으로써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책동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며 있을수 있는 충돌의 온상을 제거하며 세계의 이 지역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기울이고있는 노력을 지지한다》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시아드 바레소장은 《…우리는 조선인민의 자결권에 기초하여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수 있도록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즉시 철거시킬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유엔사무총장에게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통일을 촉진시킬것을 호소하여야 한다》

나이제리아, 다오메, 이라크, 칠레, 꾸바, 애급 등 수많은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그들의 대표들도 한결같이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5대강령을 지지하였다. 또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규탄하고 이른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요구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회의에서는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전쟁 및 략탈정책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원 및 산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정치선언, 경제선언,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선언, 경제협조를 위한 행동강령이 채택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위업을 강력히 지지하는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와 뽀르뚜갈통치밑에 있는 령토문제에 관한 결의, 앙골라,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 모잠비끄, 산토메 프린시페문제에 관한 결의, 짐바브웨문제에 관한 결의, 나미비아문제에 관한 결의, 남아프리카인종격리 및 인종차별문제에 관한 결의, 에스빠냐령 사하라문제에 관한 결의, 프랑스령소말리아해안에 관한 결의, 꼬모르제도에 관한 결의 등 지역적문제들에 관한 결의와 경제문제에 대한 6개의 결의가 채택되였다.

정치선언에서는 우리 시대의 현실은 의연히 각국 인민들과 신구식민주의, 제국주의가 대결하는 시대이다. 제3세계나라들이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패권을 반대하며 모든 형태의 예속과 종속, 모든 간섭과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쁠럭불가담국가들이 평등한 기초에서 참가함이 없이는 대소국가들에 관련되는 그 어떤 결의도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문제에 언급하여 회의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위업을 지지하며 외국군대는 남조선으로부터 물러가야 하며 조선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해결되여야 한다고 인

정하였다.

선언은 중동정세에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모든 강점지역으로부터 즉시 무조건 철수할것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온갖 정치, 경제, 군사 및 재정적원조를 그만둘것을 모든 나라 특히 미국에 요구하고 민족적존엄과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인도지나문제에 언급하면서 캄보쟈에 대한 침략정책을 감행하고있는 미제를 규탄하고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할것을 쁠럭불가담국가들에 요구하였다.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언급하면서 오직 무장투쟁으로써만이 식민지지배와 인종적지배를 끝장낼수 있다. 쁠럭불가담국가들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및 력량들과 협조하여 아프리카의 여러 해방운동의 무장투쟁에 적극적인 물질적지지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한다.

군사동맹을 폐기하여야 하며 외국의 군사기지를 철폐하기 위한 나라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구라파의 안전은 지중해의 안전과 갈라 놓을수 없다. 이 지역 쁠럭불가담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안전과 관련되는 결정을 짓는데 참가할수 있는 합법적권리를 가질수 있다.

유엔의 현실태는 새로운 국제적현실태에 적응하지 않으며 평화와 발전에 대한 그의 사명을 충분히 리행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쁠럭불가담국가들은 이 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발전된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의 발전과 무역의 증대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주되는 리익을 손상시키지말아야 하며 더우기 무역및국제협조에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리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２００마일령해권을 지지한다.

선언에서는 제４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끝난후에도 쁠럭불가담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 수뇌자들이 호상 행동통일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에서는 ①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의 종식을 요구한다.

②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제２８차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심의할것과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외국군대의 철거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결정할것을 요구한다.

③ 조선의 유엔가입은 조선의 완전한 통일이 이룩된 다음이거나 남북련방제가 실시된 다음 단일국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유엔총회 제２８차 회의

유엔총회 제２８차회의가 １９７３년 ９월 １８일부터 １２월 １８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조선문제를 비롯하여 상정된 １１０개 의안가운데서 중근동문제를 제외한 １０９개의 의안을 토의하였다.

유엔총회 제２８차회의에 상정된 의안들은 총회본회의에서 ２９개를 토의하였으며 나머지는 제１위원회 (정치문제), 제２위원회 (경제문제), 제３위원회 (사회문제), 제４위원회 (신탁통치), 제５위원회 (예산), 제６위원회 (법률), 특별위원회 (특수정치문제) 에서 토의되였다.

총회의 일반 정치토론에는 ７명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１０１명의 각국 외교부장을 포함한 １２２개의 유엔성원국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 제３세계나라들은 유엔의 연단을 통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온갖 형태의 신구식민주의 정책을 신랄히 폭로 규탄하고 자주성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유엔총회 제２８차회의에서는 동서독일을 유엔에가입시킬데 대한 결의, 기네－비싸우를 주권국가로 선포하는 결의, 아랍강점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과 기타 아랍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혹한 탄압을 규탄하며 자결권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들을 비롯한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총회에서는 또한 중어를 유엔총회 및 안보리사회 공용어에 포함시킬것을 권고하는 결의와 아랍어를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 로어, 중어 다음 ６번째 공식언어로 할데 대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유엔총회 제２８차회의에서 동서독일과 새로 독립한 바하마련방이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유엔성원국은 １３５개 나라로 늘어났다.

조선문제토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밑에 진행된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시키고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지하였으며 미제의 내정간섭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는 환영할만한 조치이며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커다란 승리입니다.》

(《이딸리아공산당기관지 〈우니따〉지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３폐지)

유엔총회 제２８차회의에서는 우리 인민과 전세계 많은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하였다.

９월 ２０일 유엔총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조선문제를 유엔총회 제２８차회의 의정으로 포함시켜 토의할것을 유엔총회 전원회의에 제기하고 총회 제１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 １０월 １일 유엔총회 제１위원회는 조선문제를 토의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무조건 초청할것을 결정하였다.

１１월 １４일부터 ２１일까지의 사이에 있은 유엔총회 제２８차회의 제１위원회에서 조선문제토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높으신 국제적권위로 하여 우리 공화국에 유리한 환경속에서 진행되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３대원칙, ５대방침과 수령님께서 유엔총회가 한창 진행중이던 １０월 ２８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에 더욱 큰 국제적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１０월 ２８일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유엔이 더 이상 미국의 롱락물이 되여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말아야 하며 지난날의 낡은 〈결의〉대신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새로운 결정들을 채택하여야 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합니다.》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단행본, １０폐지)

수령님의 연설은 유엔에 참가하고있는 많은 나라 대표들에게 커다란 감명

파 충격을 주었다.

한편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의정에 조선문제가 상정된것과 관련하여 1973년 9월 26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표한 정부비망록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가 유엔 제28차 총회공식문건으로 회의참가자들에게 배포되였으며 많은 나라 대표들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여 알제리를 비롯한 35개 나라들이 유엔에 제출한 결의안과 남조선괴뢰들을 《지지》하여 미제와 그 추종국들 (25개나라)이 제출한 《결의안》을 《조선문제》라는 하나의 의제로 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는 유엔의 창건이래 특히는 미제가 조선문제를 유엔에 끌고간 때로부터 26년만에 처음으로 문제토의의 당사자로서 회의에 참가하여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과 남조선괴뢰들의 매국배족적죄행을 온 세상에 낱낱이 폭로하고 조선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똑똑히 밝혔으며 우리의 정당하고 확고부동한 립장을 보여주었다.

조선문제토의를 위한 회의에서는 토론에 참가한 59개나라 대표중 알제리, 중국, 수단, 뽈스까, 벌가리아,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꾸바, 자이르, 적도기네, 알바니아, 애급,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크라이나, 수리아, 로므니아, 기네, 부룬디, 말따, 모리따니, 또고, 시에라 레온, 웽그리아, 백로씨아, 파키스탄, 리비아, 말리, 아프가니스탄, 몽골을 비롯한 34개 나라 대표들이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여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분렬의 근원을 밝히고 미제의 침략정책 특히 미제가 유엔의 기발을 부당하게 도용하여 침략책동을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날카롭게 폭로한 다음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고 《유엔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 필요성을 론증하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나라의 립장을 힘있게 지지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4일부터 1월 11일까지의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도 64개 나라 대표들이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견결히 지지하고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11월 12일 알제리 혁명리사회 의장이며 내각총리인 후아리 부메디엔은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에서의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의장의 명의로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들에게 전문을 보내였다.

전문에서는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외국군대의 철거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 조선인민 자신이 자기의 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해결하도록 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었다는것을 상기시키면서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참가국 정부들이 조선에 관한 문제의 평화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과 이 나라들의 유엔주재 대표들이 다른 쁠럭불가담국가들과의 협력밑에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립장이 우세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아끼지 말것을 호소하였다.

이 호소는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참가국대표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추종국가들과 함께 《두개 조선》조작에 대한《결의안》을 통과시켜보려고 갖은 술책을 다 하였으나 파탄을 면치못하였다. 조선문제토의시 토론자중 미제를 비롯한 18개 반동국가대표들만이 남조선괴뢰들을 지지하여 일멜멜한 소리를 외쳤다.

11월 21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많은 나라대표들의 한결같은 주장과 의사를 반영하고 7.4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면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11월 28일 유엔총회전원회의에서 표결없이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실로 유엔총회 제28차회의를 통하여 우리 공화국대표단이 조선에 관한 문제의 토의에 당사자로서 당당히 참가하여 조선인민의 참다운 목소리를 온 세상에 울리였으며 유엔총회에서 우리의 주장대로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무조건 해체해 버리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두개 조선》유엔가입책동을 짓부셔버렸으며 유엔성원국들이 일치하게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근거한 조선사람끼리의 담판을 통해서 조선의 통일이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것 등은 우리 공화국이 거둔 커다란 승리로 된다.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 1972년7월 4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이 만족감을 가지고 류의되였는바 공동성명은 조선의 통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들을 규정하고있다.

첫째, 조선의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세째,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신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조선의 북과 남이 대화를 계속하며 다방면적인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도록할것을 요구하자는것이 전반적인 희망이다. 총회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하기로 결정한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서 11월 17일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가 진행되였다. 이 회의는 북구라파나라들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진보적인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선의 통일문제를 토의하고 일치하게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 뜻깊은 회의였다.

련대성회의 핀란드준비위원회와 북구라파준비위원회의 발기에 의하여 진행된 이 회의에는 핀란드, 스웨리예, 단마르크, 노르웨이 등 북구라파나라들에서 온 70여개 정당, 사회및문화단체 대표들과 저명한 인사들 160여명이 참가하였다.

그들가운데는 핀란드의 주요정당, 노르웨이의주요정당들을 비롯하여 단마르크사회인민당,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 대표들과 세계평화리사회대표, 북구라파 각나라의 평화옹호단체와 청년단체, 조선친선단체, 녀성단체대표들이 들어있었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련대성회의 핀란드준비위원회 위원인 핀란드사회민주당출신

국회위원인 오스모 까이빠이넨의 개막사에 이어 축하연설, 련대성회의의 북구라파준비위원회가 작성한 기본보고, 노르웨이, 스웨리예, 핀란드대표들의 보충보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이련대성회의의 중요한 과업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책동을 반대하여 조선의 평화적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국통일 5대강령을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것이라고 하였다.

많은 대표들의 축하연설들과 보고토론들에서는 조선의 통일문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하면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이 통일을 위한 기초로 되여야 한다》, 《조선의 통일을 위한 사업에 전세계적인 련대성을 강화할것을 제기한다》, 세계평화력량은 《조선인민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야한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물러가야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두개조선조작책동은 저지되여야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선에서 유일한 합법적국가로 인정한다》고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많은 대표들이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전세계반제민주력량의 단합을 강과 할것을 희망하였으며 이련대성회의를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광범한 련대성 운동을 위한 강력한 기초로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문건작성위원회가 제출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 나라들의 련대성회의 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에서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민족적자립과 독립, 평화와 안전을 위한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의 한 부분이다. 국제적긴장상태의 완화를 위한 투쟁은 아세아에서 항구적평화를 이룩하는 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1973년 6월 23일에 제시한 조국통일의 5대강령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다.

우리는 남조선정세에 심중한 주의를 돌릴것을 호소하며 국제여론과 함께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반대하여 감행되고있는 죄행을 규탄한다.

유엔총회가 자기의 결정을 채택함에 있어서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념원과 자결권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해서는 남조선에 있는 미군에게서《유엔군》의 모자를 벗기는것이 필요하다. 모든 외국군대는 남조선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또한 결의에서는 련대성전선을 형성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민족적단합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자고 강조하였다.

세계직업련맹 제8차대회

1973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벌가리아의 와르나에서 우리나라 직맹대표단을 비롯하여 5대륙의 200여개 직맹단체에서 온 대표들의 참가하에 세계직련 제8차대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전세계근로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직맹단체들이 놀아야할 역할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조선로동자 및 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에 관한 통보》를 청취토의하고 《조선근로자들 및 인민과의 련대성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칠레인민과의 련대성 성명, 근동에서의 이스라엘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조선근로자들 및 인민과의 련대성결의》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지지하고 모든 근로자들과 직맹조직들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들과 요구들을 지지하며 온갖 기회에 특히 매해 진행되는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6. 25~7. 27)에 조선근로자들 및 인민과의 련대성활동을 계속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문에서 제8차세계직맹대회는 유엔총회 제28차회의가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조선의 분렬을 끝장내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위원회 제12차회의

에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아덴에서 1973년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집행위원회 제12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대표단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52개 단체의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이 강조되였다.

회의에서는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서기장 유세프 엘 세바이가 보고를 하였다.

그는 자기 보고에서 유엔이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며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고 조선에 관한 부당한 《결의》들을 취소하며 미제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에 관한 특별결의와 총선언이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콤뮤니케는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팔레스티나인민의 유일한 대표로 확인하고 억류되여 있는 모든 팔레스티나투사들을 석방할것을 요르단에 호소하였으며 아랍만문제에 언급하여 오만 및 아랍만해방인민전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 지역에서 모든 식민주의기지의 청산을 요구하였다.

콤뮤니케는 또한 이스라엘이 점령한 아랍지역에서 유태복고주의를 강요하려고 행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였으며 이라크가 석유공업을 국유화하는 결정을 취한것을 지지하고 이지역의 기타 석유생산국들이 이라크의 석유공업 국유화조치의 성과를 보장하도록 요청하였다.

《공산당선언》 발표 125돐 기념 국제과학토론회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수도 베를린에서 1973년 3월 15일과 16일 량일간에 걸쳐 《공산당선언》발표 125돐기념 국제과학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을 포함한 45개의 공산당, 로동당 및 민족혁명당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쿠르트 하게르가 보고하였다.

회의에서는 쏘련공산당, 뽈스까로동당,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프랑스공산당, 웽그리아사회로동당, 꾸바공산당, 벌가리아공산당, 칠레공산당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16일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공산당선언》은 로동계급을 저주로운 자본주의사회를 짓부시고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위대한 혁명적 문헌이며 온 인류를 광명한 미래에로 이끄는 과학적공산주의의 기본사상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불후의 고전적로작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또한 《공산당선언》에서 천명된 과학적공산주의사상은 우리 나라에서도 현실로 되고있으며 빛나게 개화발전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혁명적기치밑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으로서의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공동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전진을 가져오게 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평화력량들의 세계대회

1973년 10월 25일~3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평화력량들의 세계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140여개 나라, 1천 100개 민족단체, 120개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3천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할데 대한 문제, 근동에 관한 유엔안보리사회결의가 지체없이 리행되도록 투쟁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문제에 관한 성명과 모든 나라들에서 칠레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들을 창설하며 반동적칠레군사도당을 제소할것을 세계사회계에 호소하는 호소문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문헌들을 채택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단마르크, 핀란드, 일본, 메히꼬, 과떼말라, 수리아, 말가슈대표들과 쏘련, 몽골, 뽈스까,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웽그리아, 꾸바대표들을 비롯하여 많은대표들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연설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성명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조선인민은 30년가까이나 민족분렬과 국토량단의 고통을 겪고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1) 우리는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형태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사람들 자신에게 맡기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8차 유엔총회회의는 남조선강점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를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우리는 남북조선을 유엔에 동시가입시킴으로써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을 규탄한다.

3)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애국적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테로행위를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강령이 조선에서 평화를 공고히하며 조선의 통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5) 대회는 조선의 분렬을 막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국제적인 련대성운동을 더욱 광범히, 더욱 적극적으로 벌릴것을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대회에서는 53개국의 101명 대표들과 5개의 국제기구대표들이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여 유엔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 대표들과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전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진보적 인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현지에서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는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적극 지지성원할것이 강조되였다.

대회에 참가한 미국대표단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정부는 남조선에서 자기군대를 철수하고 조선의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캄보쟈에 관한 국제회의

프랑스의 빠리에서 1973년 12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캄보쟈에 관한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 대표를 포함하여 세계 53개 나라의 200여개 진보적인 단체와 22개국제단체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회의에서는 성명과 행동권고문이 채택되였다.

성명은 미제가 캄보쟈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을 계속하고있는것을 규탄하고 놈들이 이러한 침략행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견결히 요구하였다.

웰남에 관한 빠리국제회의

1973년 2월 26~3월 2일까지 빠리에서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 제19조에 따르는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웰남민주공화국정부,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 중국, 쏘련, 뽈스까, 웽그리아, 미국, 영국, 프랑스, 카나다, 인도네시아 정부대표단(단장 외교부장들)과 사이공괴뢰대표단 그리고 유엔사무총장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9개조로 된 《웰남에 관한 국제회의 결의》가 조인되였다.

결의에서 결의조인측들은 웰남정화협정과 4개의 협정부속의정서들을 엄숙히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한 지지찬동을 표명하였다.

결의에서 웰남정화협정이 웰남사람들의 념원과 근본적인 민족적권리 즉 웰남의 독립과 주권, 통일과 령토완정에 부합되며 남부웰남사람들의 자결권과 평화에 대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진지한 념원에 부합되는것이라는것과 협정과 의정서들이 엄격히 존중되고 철저히 리행되여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였다.

결의는 또한 결의조인측들이 웰남사람들의 근본적인 민족적권리와 남부웰남사람들의 자결권을 엄숙히 인정하고 존중하며 웰남정화협정과 의정서조항들에 어긋나는 그 어떤 행동도 삼가함으로써 그 협정과 의정서들을 엄격히 존중한다는것과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도 이렇게 할것을 요구한다는것을 지적하였다.

결의는 협정이나 의정서들을 위반하며 웰남의 평화와 독립, 주권과 통일과 령토완정이나 남부웰남사람들의 자결권이 위협을 받는 경우 웰남정화협정과 의정서들의 조인측들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본결의의 기타 조인측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협의한다는것과 웰남에 관한 국제회의가 웰남에 관한 정화협정조인측들을 대신하는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와

미국정부의 공동요청에 따라 본결의의 6개 또는 그 이상의 조인측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소집된다는것을 밝혔다.

결의는 또한 결의조인측들이 인도지나의 평화에 기여하고 인도지나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웰남에 관한 정화협정에 규정된대로 캄보쟈와 라오스의 독립과 주권, 통일과 령토완정과 중립을 존중할데 대한 협정당사측들의 공약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와 어긋나는 그 어떤 행동도 삼가하는데 동의한다는것이 지적되였다.

제10차아프리카통일기구국가 및 정부 수뇌자회의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제10차아프리카통일기구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통일기구 창설 10돐에 즈음한 일반정치선언과 협조개발 및 경제적독립에 관한 성명에 일치하게 찬동하였다.

일반정치선언에서는 통일, 호상단결 및 협조의 원칙들에 대한 아프리카나라들의 지지,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분렬을 조장시키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더욱 단결을 강화할것, 뽀르뚜갈, 남아프리카, 남로데시아에서의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정권들의 인간증오정책과 그를 돕고있는 《나토》성원국들을 규탄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선언은 무장투쟁만이 아프리카를 완전히 해방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협조 개발 및 경제적독립에 관한 성명에서는 많은 인적자원과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며 경제적자립과 전대륙의 급속한 진보를 이룩하려는 아프리카나라들의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제6차 아랍국가수뇌자회의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제6차아랍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18개국 아랍련맹성원국중 애굽, 수리아, 알제리, 마로끄, 남부예멘을 비롯한 국가수반들과 각료들, 모두 16개국대표들과 모리따니,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이 참가하였으며 이라크와 리비아, 팔레스티나의 일부 조직대표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아랍수뇌자회담에 앞서 16개국 아랍외교부장들은 모임을 가지고 수뇌자회담에서 토의할 15개항의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권고안》에서는 1967년 전쟁에서 점령당한 령토의 완전해방, 팔레스티나인민의 권리회복문제, 아랍국가들과 남아프리카식민주의자들과의 모든 관계단절 및 석유의 수출금지 등을 지적하였다.

이 권고안에 따라 수뇌자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회담》개최문제와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는 문제, 계속 석유를 무기로 사용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많은 나라대표들이 단 한치의 땅도 포기하지 않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결의를 다졌으며 아랍통일의 유지를 호소하고 새로운 전투에 림할 태세를 갖출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총선언에서 아랍수뇌자들은 이스라엘이 1967년이래 점령한 모든 아랍령토를 내놓을것을 단호히 요구하고 만약 이스라엘이 점령한 모든 아랍령토에서 철수하지 않고 팔레스티나인민의 권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불안정한 폭발적인 정세와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스라엘과의 협상문제에 대하여서는 점령한 아랍령토로부터의 이스라엘의 전면철수와 팔레스티나인들의 권리의 회복에 기초한《공정한 평화의 수립에 투신할 작정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규탄하였다.

수뇌자회의에서는 《석유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에서는 중동전쟁에 대한 태도여하에 따라 석유공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미제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석유수출금지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입한 석유를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석유공급을 한다고 결정하였다.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

1973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수도 베를린에서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이 진행되였다.

10차축전은 세계 140여개 나라에서 온 2만 5천여명의 청년학생대표들과 많은 명예손님들이 참가한 축전력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축전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275명의 청년학생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그중에는 일본반동당국의 박해와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온 30명의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단 성원들도 포함되였다.

축전기간에는 《반제적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각종 련대성집회, 토론회, 강연회, 자유연단, 대학생구락부, 예술인구락부, 영화인연단, 상봉모임 등 정치행사와 예술경연, 체육행사 등이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은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정치행사와 문화행사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7월 31일에는 세계 30여개 나라에서 온 800여명의 청년학생대표들과 베를린시민들의 참가하에《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청년학생들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세계민청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프랑스, 일본, 오스트랄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토론하였으며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준비위원회 상설위원회의 발기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모든 정당한 방안들 특히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6월 23일 연설에서 새로이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이 강령은 지체없이 실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집회에서는《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결의》도 채택되였다.

축전기간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은《자기의 합법적권리를 위한 팔레스티나 아랍인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련대성집회》를 비롯한 18회에 걸친 각종 련대성집회에 참가하여 세계진보적청년학생들과의 국제적인 전투적친선 단결을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은 강연회와 토론들에서《정치생활에서의 청년들의 역할과 사회정치관리에 대한 그들의 참가》문제, 《청년과 사회》, 《사회주의와 교육문제》, 《현사회에서의 젊은 세대들과 청년들의 역할》문제를 비롯하여 20여회에 걸쳐 보고와 토론들을 함으로써 세계 각국 청

년학생대표들에게 거대한 혁명적영향을 주었다. 특히 《정치생활에서의 청년들의 역할과 사회정치관리에 대한 그들의 참가》문제에 대한 보고는 그의 심오한 사상리론적내용과 론리정연한 철학적분석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은 또한 56개 나라의 1천여명의 청년학생들과의 상봉모임을 주동적으로 조직하였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과 상봉한 조선전쟁참가국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성원국 청년학생대표단은 남조선으로부터 자기 나라 군사인원을 당장 철수시키며 1973년 유엔총회에서 남조선에 와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겨 철거시킬것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당장 해체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자기 나라들에 보내는 공동서한을 채택하였다. 또한 축전에 참가한 미국청년학생대표들은 미국청년로동자해방동맹 성원들의 성명과 닉슨에게 보내는 항의편지를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은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벌려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화발전된 우리의 혁명예술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우리 청년학생예술단은 30개의 작품을 가지고 예술경연에 참가하여 29개 작품이 당선되여 44개의 영예상과 메달을 받았으며 이중에는 재일조선청년학생예술단이 출연한 3개 작품도 포함되여있다.

영화축전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인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가 축전참가자들의 대절찬속에 상연되였다.

한편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은 국제아동그림전람회와 사진전람회, 국제그라휘크전람회에도 많은 작품들을 내놓아 아동그림에서 20개의 영예상과 메달을 받았으며 사진에서는 3개의 영예상과 메달을 받았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은 예술부문에서 44개, 미술부문에서 20개, 사진부문에서 3개, 도합 67개의 영예상과 메달을 받아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1973년에 새로 나온 국제기구

라틴아메리카동력기구

1973년 11월 2일 뻬루의 리마에서 《라틴아메리카동력기구》가 창설되였다.

이 기구에는 베네수엘라, 아르헨띠나, 트리니대드 토바고를 비롯한 20여개국이 참가하고있다.

이 기구의 목적은 라틴아메리카에 많이 매장되여있는 석유자원을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략탈적전횡으로부터 이 지역 나라들이 공동으로 수호하며 호상 협조를 강화하여 그것을 나라의 민족경제발전에 합리적으로 개발, 리용하는데 있다.

이 기구는 석유에 대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수요를 보장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있다.

이 기구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라틴아메리카동력기구》 성원국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 특히 동력자원을 보호하며 매개 나라들은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형식으로 자연부원을 리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틴아메리카동력기구》는 지역통합의 요소로서 동력정책을 작성하며 이를 추진시킨다.

—《라틴아메리카동력기구》 성원국들에 제재, 억압행위가 가해질 경우 이에 단합하여 대항한다.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

제국주의식민주의적략탈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까리브해지역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73년8월 1일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이 창설되였다.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을 창설할데 대한 결정은 1973년 4월 가이아나의 죠지타운에서 진행된 제8차 영련방까리브해지역 정부수뇌자들의 회의에서 채택되였다. 이 결정에 따라 7월 4일 바베이도즈, 가이아나, 자메이카, 트리니대드 토바고가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을 설치할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1974년에 7개 나라가 더 가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450만명의 인구와 22억딸라의 국민총생산액을 가진 공동체로 된다.

이 공동체는 각 성원국들 사이의 경제 및 무역협조를 강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보호적조치를 취하는 단일한 시장에 성원국들을 결속시켜 그들의 민족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게 된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1973년 4월 상아해안의 수도 아비쟝에서 서아프리카의 6개나라(상아해안, 상부볼따, 말리, 모리따니, 니제르, 세네갈)들이 모여 창설하였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목적은 이 지역나라들이 서로 협조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적협조를 더욱 강화하려는데 있다.

소재지 와가두구(상부볼따)

집행위원장 디오리 아마니(니제르대통령), 총서기 쉐이끄 이브라힘괄(세네갈)

공동체는 1974년 1월 1일부터 년간 5천만프랑(프랑스프랑)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사업을 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기념비적작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일제의 강점으로 하여 피바다에 잠겼던 우리 나라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주체의 새 시대, 승리하며 전진하는 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를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변혁과 창조의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이 위대한 진군길우에서 우리의 혁명적로동계급과 인민들은 남들이 한세기, 지어 수세기동안 걸려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14년이란 짧은 기간에 수행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강위력하고 존엄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 전변시키였다.

수령님께 바치는 불타는 충성의 열정을 안고 그이께서 안겨주신 불굴의 신념을 지니고 세기의 새벽길을 주름잡는 우리 인민은 하늘이 들리듯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대문화궁전들을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영원히 전할 불멸의 금자탑으로 쌓아올렸다.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은 수령님의 주체적미학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중앙의 가르치심대로 종자를 바로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단 40일동안에 세인을 경탄케하는 세계적인 명작, 기념비적대작을 창조하여 가극혁명을 일으켰다.

만수대대기념비와 기념비적조각작품, 세상사람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은 5대혁명가극, 혁명적대작들과 세계적인 명작들 그리고 인민상계관작품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우리의 주체시대에만 창조될수 있는 위대한 기념비적작품들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과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의 이 금자탑들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며 영원히 그이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솟아난 우리 나라의 기념비적작품들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기념비적 동상 및 기념탑

만수대대기념비; 1972년 4월 15일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4월 24일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나아가려는 불타는 충성의 념원을 담아 평양만수대의 높은 언덕우에 수령님의 동상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력사의 대기념탑을 세웠다.

총부지면적 24만여평방메터를 가진 이 대기념비의 정면중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고 좌우에는 그이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를 반영한《항일혁명투쟁탑》과《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탑》을 건립하였다.

웅대한 조선혁명박물관정면벽면 백두산천지를 묘사한 화강암쪽무이벽화를 배경으로 하여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은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불굴의 투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예리한 통찰력, 비범한 령도력으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세계혁명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고계시는 수령님의 숭엄하고 거룩하신 모습과 만사람을 크나큰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자애롭고 인자하신 모습을 형상하였다.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바른손을 드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를 향해 나아갈길을 가리키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은 그이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과 인민적품성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은 온 세상사람들이 그이를 혁명의 위대한 태양으로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며 혁명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로 우러러 모시고있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동상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불같은 충성심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그대로 주추돌로, 기둥으로 되고 힘과 기술, 지혜로 되여 높이 솟아오른 충성의 탑이다.

대돌(높이 3메터)우에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의 높이는 20메터이다.

《항일혁명투쟁탑》과《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탑》의 높이는 각각 22.5메터, 조각상들의 평균 높이는 5메터, 조각군상의 길이는 50메터이고 총연장길이는 200메터, 조선혁명박물관 정면벽면에 새겨넣은 화강암쪽무이벽화의 길이는 70메터, 높이는 12.85메터이다.

량탑군상은 총 228상이다.

이 대기념비는 1천여명의 조각가들과 기술자들이 참가하여 불과 1년이라는 기간에 완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오른쪽에 건립한《항일혁명투쟁탑》은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붉은 초상기가 높이 솟아있고 그 량편에 혁명적구호를 새긴 기발과 프랑카드가 있으며 그를 둘러싸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반영한 119상의 조각군상으로 구성되였다.

이 조각군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과 그 과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업적들을 형상하였다.

5상으로 구성된 정면선두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상징하고있다.

《공산당선언》을 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보여준다.

해방된 조선의 당당한 주인이 될 영예를 안고 수령님께 충직한 전사로 더욱 굳세게 살아갈 결의다지며 힘찬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디는 조국광복회원과 간고한 싸움과 행군길에서 언제나 희망과 승리의 신심을 불러일으켜준 나팔수와 총을 높이 추켜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동지애 그리고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보여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위대한 생활력을 표현하고있다.

제1면조각군상은《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인민들의 생활부분》과《맑스-레닌주의보급부분》,《조국광복회창건 및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부분》,《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무장투쟁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제2면조각군상은《일제를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의 투쟁부분》과《무장획득을 위한 부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부분》,《고난의 행군부분》,《보천보전투부

분》,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부분》으로 구성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왼쪽에 건립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탑》은 수령님의 오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붉은 초상기가 높이 솟아 휘날리고 그 뒤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의 기발과 우리 나라의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람홍색기발이 나붓기는데 그에 련달린 붉은 기폭에서는 《김일성장군 만세!》,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힘찬 글발이 빛발치고있다. 이 기발아래에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진행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과 그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는 109상의 조각군상이 있다.

5상으로 구성된 정면선두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의 불패의 생활력과 그 위대한 승리를 상징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상징적으로 형상한 홰불과 《김일성저작선집》을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로동자와 농민, 인테리의 형상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혁명발전의 력사적과정을 표현하고있으며 인민군전사의 형상은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의 정당성과 그 빛나는 생활력을 보여주고있으며 우리 인민무력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있다.

제1면조각군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부분》, 《제반민주개혁부분》,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부분》, 《자립적민족경제건설부분》, 《사회주의문화건설부분》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제2면조각군상은《남반부인민들의 구국투쟁과 해외조선공민들의 투쟁부분》, 《조국해방전쟁부분》, 《자위적군사로선부분》, 《반제반미투쟁전략과 세계혁명부분》 등으로 구성되여있다.

만수대의 높은 언덕우에 모신 수령님의 동상과 력사적기념탑은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가장 숭엄하고 웅장한 대기념비이다.

대기념비의 표현형식과 수법들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회화형식인 조선화의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화폭과 간결하고 선명하고 섬세한 표현방법들을 대기념비의 사상미학적요구에 부합되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것으로 사회주의적기념비발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기념비의 형상에서 훌륭하게 해결한 중요성과의 또 하나는 인물형상에 있어서의 성격화의 심오성과 세부표현의 진실성, 생동성을 훌륭하게 해결한것이다.

이 대기념비는 혁명적조형예술의 빛나는 본보기로 되며 혁명적미술창조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미학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있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1967년 6월 4일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돐을 맞이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승리를 영원히 기념하며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혜산시 패궁정마루에 높이 세운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그 사상적내용의 깊이와 웅장한 규모, 예술적형상의 완벽성에 있어서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걸출한 창조물이며 로동당시대의 혁명적대작의 품격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력사적대기념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술가들이 우리 당이 걸어온 간고하고 즐거운 혁명의 길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들을 미술작품에서 훌륭히 형상해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466페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공산주의 붉은 기치, 민족해방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피흘려 싸워온 항일무장투쟁의 전로정을 집대성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진군의 길에서 일제를 족치고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광을 안겨준 보천보전투승리를 상징하였다.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기폭이 힘차게 나붓기는 그 선두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은 탑의 중심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모를 벗어쥐시고 다른 한손에는 쌍안경을 드신채 옷자락을 날리며 조국땅을 바라보고계시며 그이의 왼쪽에는 혁명의 최고뇌수인 사령부를 보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다바쳐 싸워온《철벽의 용사》가, 오른쪽에는 《불굴의 녀대원》이 서있다.

수령님의 형상에는 조선혁명의 령도자이시며 백전백승의 전략가로서의 높은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의 온갖 신고와 풍파를 몸소 이겨내신 강의성, 불굴의 투지, 조국과 인민, 동지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높은 덕성, 풍부한 인간성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여있다.

붉은 기폭 량옆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이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용감하게 전진해나가는 모습이 형상되여있다.

붉은 기폭을 중심으로한 탑의 동쪽벽에는《광복의 서광》으로부터 시작하여《조국진군》, 《진격》을 설정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따라 일편단심 그이에 대한 충성심으로 싸워온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혁명승리의 굳은 신심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의 혈연적련계를 보여주는 내용을 여름의 환경속에서 형상하였다.

탑의 서쪽벽에는《무장을 위하여》로부터 시작하여 《고난을 뚫고》, 《격멸》을 설정하고 엄혹한 설한풍속에서도 수령님을 따라 일편단심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불굴의 투지와 그속에서 발휘된 그들의 고상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기풍을 형상하였다.

웅장하고도 정교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그 주체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전형적형상의 풍부성뿐아니라 예술적형식의 완벽성으로 하여 로동당시대가 낳은 혁명적대작의 하나이다. 특히 이 기념탑은 탑신을 붉은 기발로 묘사함으로써 그에 거대한 형상적의의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세계의 기념비조각사상 새로운 개척으로 된다.

기발은 붉은 색 화강석이고 기단은 흰색 화강석으로 되여있다.

조각군상의 인물수 61명
탑의 높이 38.7메터
탑의 길이 30.3메터
조각군상의 총연장이 78메터
인물의 키는 앞부분이 8.5메터
뒤부분이 3.7메터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조직진행된 무산지구전투승리 서른두돐이 되는 날인 1971년 5월 23일에 무산지구전투승리를 영원히 기념하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대홍단벌에 세운《무산지구

전투승리기념탑》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미술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여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여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392폐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 땅우에 또다시 승리의 홰불을 높이 올리신 무산지구전투승리의 거대한 력사적사변을 주제로 하고있으며 국내깊이에 진공하시여 적들을 제압하고 인민들을 조국광복의 성전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청사에 길이 빛날 투쟁업적, 고매한 덕성과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이 강도일제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영웅적투쟁업적과 백절불굴의 혁명적기개를 종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혁명적조형미술창작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조각품이다.

대홍단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높이 솟은 탑은 넓은 바닥 판석우에 솟은 장방형탑신과 그를 중심으로 량쪽에 날개처럼 펼쳐진 두 벽면으로 이루어졌다.

백두의 하늘 높이 치솟아 무산지구전투의 대승리를 형상한 흰 화강석탑신, 머리에는 혁명을 상징하는 붉은 오각별장수별이 찬연히 빛나고 그 아래에《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이라는 금문자가 부각되여있다.

탑의 동쪽벽면에는 몸소 진두에 서시여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그리고 그이의 두리에 뭉쳐 원쑤격멸의 성전에로 질풍같이 내닫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 28명의 대군상이 힘있게 펼쳐졌다.

탑의 서쪽벽면에는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의 전행정과 그 불멸의 투쟁사적을 집약적으로 서술한 비문이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다.

우아하고 독창적인 예술형식을 훌륭히 갖춘 이 대기념비적창조물은 통일적으로 조화된 여러가지 구조물과 화강석으로 높이 쌓아올린 탑의 정갈한 모습이며 붉은 돌기단벽이 초록색숲과 대조되면서 보다 아름다운 예술적조화를 이루어 만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숭고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탑의 총높이 35메터

탑신의 높이 33메터

탑의 동쪽벽면의 높이 3.6메터, 길이 18메터,

탑의 서쪽벽면의 높이 3.6메터, 길이 15메터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 몸소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건국사업의 불길을 지펴주신 그 위대한 업적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그이께 영원히 충성다하기 위해 수령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신 스물다섯돐이 되는 날인 1971년 5월 21일 평양시의 봉화동에 세운《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은 또하나의 력사적기념비이다.

1946년 5월 21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신 영광의 그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사업은 결코 다른 사람이 해주는것이 아니다.…우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민주주의국가건설을 위하여 이 적은 공사부터 먼저 완성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은 높이 15메터, 너비 19메터되는 탑과 비로 구성되였다.

통일적으로 조화된 여러가지 구조물과 화강석으로 쌓은 탑의 정갈한 모습이 보통강변의 아름다운 모습과 예술적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에게 더욱 숭고한 감정을 자아내게 한다.

화강석으로 된 비에는 몸소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첫삽을 뜨신 수령님의 불멸의 그 투쟁사적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요지 다음과 같은 헌시가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다.

오랜세월 이 고장 인민들의 한숨과 피눈물을 자아내며 흘러내리던 원한의 강, 보통강!

그 어느때부터였는가? 인민들의 기쁨을 담아싣고 행복을 노래하며 흐르기 시작한것은, 너 보통강아!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해방의 감격은 갈수록 가슴에 차 넘치고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려는 의욕은 하늘에 닿았건만

그러나 아직 무슨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 누구도 모르던 해방된 이듬해 봄,

우리 인민의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십오성상 항일전에서 쌓이고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혁명의 참모부 당을 창건하시고 억년토록 번영할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땅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더니

아, 밤과 밤을 밝히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장군님께서는 해마다 큰물에 밀리우고 큰물에 쫓기우며 가난하게 살아온 이 강변인민들의 고통을 가슴아파하시여 친히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였어라.

……

아, 그날 사람들은 감격에 목메여 장군님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더라

궂은 비 내리는 날 어지러운 진창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작업장에 오시여 우리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 하시고 오늘의 하루가 장래의 백날맞잡이라 하시며 장마전에 이 공사를 끝내기 위하여 힘껏 일하자고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신 장군님,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일떠선 우리들 그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했으랴!

우리들은 산을 갈라 강줄기를 돌리고 진펄을 파헤치고 뚝을 높이 쌓아 남들이 10년이 걸려도 못한다던 거창한 이 공사를 단 55일간에 끝내는 자랑찬 기적을 창조하였거니

보통강변에 오른 승리의 만세소리

그것은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새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의 시위

그것은 온 나라를 새 조국건설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킨 장엄한 서곡, 이나라 대자연개조의 우렁찬 첫 발걸음소리

아, 그날 영명하신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자력갱생의 기치따라 새조선은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을 줄달음쳐왔거니

오늘은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강국으로 온세상에 그 빛을 찬연히 뿌리여라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하여 몸소 첫삽을 뜨신 그 은혜로운 뚝에 오늘은 푸른 수양버들 기쁨에 설레이고 락원동 붉은 거리 아득히 펼쳐졌어라

저기 보통교무지개다리를 넘어서면 토성랑 옛터에 현대적인 천리마, 서성거리 하늘높이 솟아 인민들은 장군님의 크나큰 은공을 노래하거니

아, 락원의 강, 보통강이여! 만고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며 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영원히 흘러가라.

천리마동상; 혁명의 수도 평양 모란봉기슭에 높이 솟은《천리마동상》(인민상계관작품)은 1960년 4월초에 착공하여 1961년 4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마흔아홉돐을 기념하여 완공한 력사적기념비동상이다.

《천리마동상》에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이 독창적으로 발현되여있고 사회주의적내용을 간결한 조형적처리, 구성의 풍부한 예술적환상으로 형상되였으며 위대한 기적과 혁명적기백으로 일관된 천리마시대정신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천리마동상은 조각도 잘하였지만 우리의 위력을 시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각가들이《천리마동상》의 창조를 위하여 100여점의 초안을 작성하고 10여차례에 걸친 군중적인 합평회를 하였으나 아직도 구상이 잘되지 않아 고심한다는것을 통찰하시고 1958년 11월 7일에는 그 초안을 직접 보시고《천리마동상》을 우리 시대의 기념비로 창작할수 있는 방도를 명시하여주시였다.

《천리마동상》은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이땅우에 솟아났다.

동상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지향,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훌륭히 표현되여있다.

동상의 앞면에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당의 붉은 편지를 높이 추켜들고 천리마를 비약에로 내몰며 나아가는것이 형상되여있으며 그의 뒤에는 탐스럽게 익은 벼단을 한아름 안은 젊은녀성 협동농민 천리마기수가 힘찬 진군을 다그치는것이 부각되여있다.

구름을 뒤로 차던지는 천리마는 명확한 륜곽으로 하여 그 어떠한 시점거리에서도 영원한 전진과 비약의 기상을 안겨준다. 특히 천리마의 날개로 하여 형상의 생동성과 표현성을 더욱 높여주며 민족적인 미감과 감정에 우리 시대의 미적리상을 합류시켜주고 있다.

기념비적조형예술작품《천리마동상》은 건축과 조각과의 유기적인 련계를 옳게 해결한데서와 구성의 웅대성에 있어서도 단연 자랑할만한것이다.

기념비조각과 기념탑을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동서의 기마상조각으로 된 기념비동상치고는 단연 첫 자리에 놓이게 되는 기념비이다.

동상의 총높이 14메터
동상의 총길이 16메터
건늠길에서 붉은 편지까지의 높이 46메터
붉은 편지의 크기 1.3×1메터
말머리 길이 2.27메터
로동자의 키 7메터
농민의 키 6.5메터
탑신에는 규격이 각각 다른 360여종의 화강석 2,500여개가 들어있다.

인민군렬사탑; 인민군렬사탑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세계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서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전사한 인민군장병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불멸의 위훈과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1959년에 평양해방산에 세운 력사적기념비이다.

탑은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일당백의 용맹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한 불멸의 위훈을 보여주고있다.

높은 탑신우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쓸어눕힌 인민군전사, 기관단총을 두손에 억세게 틀어쥐고 백포자락을 날리며 조국의 방선을 굳건히 지켜선 일당백용사의 숭고한 모습을 조각한 단신립상이 서있다.

기단의 네 벽면에 새겨진 돋을새김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수령님의 명령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워이긴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승리의 기록, 불멸의 위훈을 형상한것이다.

탑은 크게 화강석으로 된 2층 기단과 탑신 및 청동으로 된 조각상으로 구성되였으며 주위의 계단들, 인공못, 록지들과 잘 조화되여있다.

탑의 총높이는 24.13메터이고 그중 조각상의 높이는 6.13메터이다. 8각기둥모양의 탑신앞면에는 금동으로 조선인민군 모표가 새겨져있으며 민족적양식을 받아들인 아래기단의 네 벽면에는 헌시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용사들의 투쟁모습을 청동으로 부각하였다. 또한 탑의 앞 량쪽에 있는 큰 돌에는 1950, 1953이라는 조국해방전쟁년대가 각각 새겨져있다.

영웅적조국해방전쟁시기 당과 수령님께 충실하였으며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미제침략자들을 쓸어눕힌 인민의 영웅들에 대한 추모의 정은 기단앞면에 금문자로 새겨진 다음과 같은 헌시에 잘 표현되여있다.

여기 혁명의 수도 평양시에 높이 탑을 세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추모하노니
사람들이여, 영원히 기억하라
불멸의 그 이름들을

십오성상 백두의 눈보라길을 헤치며
일제와 싸워이긴 항일투사들의 혁명정신을 이어
강산도 불타던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일당백의 용맹을 떨쳐
미제침략자를 이 땅에서 쓸어눕힌 영웅들
그들은 청춘도 생명도,
붉은 심장의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 바쳐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싸움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웠고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의 자유를 지켰나니
인류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지켰나니
김일성동지께 충성을 다한 전사들이여!
후손만대를 두고 노래할 당의 아들딸들이여!
그대들의 그 이름 그 위훈은 조국의 력사와 함께 길이 빛나리라.

평양지하철도의 벽화와 조각; 1973년에 개통한 평양지하철도 역들에는 길이 30메터, 높이 3.5메터에 이르는 쪽무이—벽화를 비롯하여 수많은 벽화와 조각작품들이 있다.

이 미술작품들은 그 규모뿐아니라 기념비적장식미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미술가들이 형식에서 민족적이고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인 참말로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미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수법에 튼튼히 서서 여러가지 형식을 통하여 현실을 여러 모로 진실하게 그려내는것이 중요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396페지)

평양지하철도의 벽화와 조각품들은 주제사상의 심오성과 풍부성, 미학정서적특징, 주제천명에서의 조선화의 전통적화법의 도입 등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미술창작의 제반 요구를 집대성한 대작들으로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감동적으로 펼쳐보이며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넘치는 대기념비적화폭이다.

개선역의 장식미술작품들은 새 조국건설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한 대리석상을 중심으로 하고 수령님의 조국개선을 열렬히 환영하는 인민들과 조국건설에 일떠선 근로인민들의 투쟁을 표현한 두점의 벽화로 이루어져있다.

전우역의 벽화《민주개혁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이룩된 민주개혁의 력사적승리를 주제로 하고있다.

민주개혁의 성과를 반영하고있는《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 《녀성해방》, 《교육문화의 민주화》등 전우역의 벽화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전체 인민을 혁명승리에로 령도하시는 장면들로 이루어진 봉화역의 벽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기념비적으로 형상한 화면을 중심으로《근거지에서 인민혁명정부수립》, 《인민정권을 수호하여》, 《사회주의지상락원》등 승리역의 벽화들,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이 이루어질 그날을 상징적으로 형상한 통일역의 벽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로선을 받들고 억세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묘사한 붉은별역의 벽화와 조각작품들, 이 모든 기념비적장식미술작품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전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폭넓게 반영한 생동한 화폭들이다. 또한 세상사람들을 경탄케한 사회경제적변혁들로 충만된 우리 로동당시대를 형상한 거대한 기념비적작품들이다.

지하철도의 미술작품들은 그 구성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는바 화폭들에 담겨져있는 수많은 주제들은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미학적경지에 의하여 호상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있다. 지하철도의 벽화와 조각작품들의 주제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혁명의 본질과 그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력사적변혁들을 생동한 형상들로 그려냄으로써 그 총체적인 구성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있다.

지하철도의 장식미술작품들은 혁명적인 주제사상적내용을 민족적이며 인민적인 형식으로 빛나게 구현한점에서 또한 특출한 경지에 이르고있다.

벽화와 조각들은 통속적이며 민족적이며 인민적인 미술형식창조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수법과 상징화하는 표현수법을 능란하게 배합하여 작품의 형상적기능을 더욱 높이고 심오한 전형적형상들을 창조하였다. 또한 구체적이며 생활적인 세부들을 통하여 각이한 현실의 시대적면모를 밝혀내는 높은 일반화의 방법들을 훌륭하게 적용하였다.

지하철도의 미술형상들의 모든 세부들은 간결하며 선명하게 그려져있으며 유리, 사기 등 굳은 재질을 가진 소재들이 씌여져있으나 그 직관적효과는 마치 수놓은것처럼 부드럽고 우아하며 섬세하다. 이것은 주되는것을 강조하고 부차적인것을 생략하여 대조와 조화, 비례와 균형, 률동 등 조형적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전일적인 형상체계를 실현해나가는 조선화의 전통적인 화법을 잘 살렸기때문이다.

지하철도의 벽화와 조각들은 밝고 선명하며 부드럽고 시원한 색채미의 극치를 이루고있으며 로동당시대 기념비적장식미술의 본보기로 된다.

5 대 혁 명 가 극

혁명가극《피바다》; 혁명가극 《피바다》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를 당중앙의 지도밑에 우리 예술인들이 1971년에 각색하여 무대에 올린 세계적명작이다.

가극은 우리 나라 가극발전에서와 전반적문학예술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으로 되는 작품이다.

이 가극에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적가극은 그 내용이 혁명적인것, 사회주의적인것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그 형식이 혁명적내용에 맞게 인민적이며 민족적이며 현대적인것으로 더욱 발전되고 완성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미학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579페지)

혁명가극《피바다》는 현시대가 제기하고 인민이 절박하게 해답을 기다리는 문제가운데서도 혁명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는 근본문제를 주제사상적내용으로 삼고 그에 완벽한 사상예술적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의 심오한 혁명적내용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혁명적가극예술의 주제문제해결에서 가장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실로 이 가극은 우리 나라를 침략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포악성과 잔인성을 예리하게 폭로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억세고 슬기로운 투쟁모습과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으며 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을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손에 무장을 들고 일어나 싸워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 오직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생활의 진리를 높은 예술적견지에서 심오하게 밝혀내고있다.

가극은 이러한 사상을 을남어머니와 남편 윤섭, 세남매인 을남이와 원남이, 갑순이의 심오한 형상을 통하여 힘있게 펼쳐보이였다.

혁명가극《피바다》는 종전의 그 어느 창극이나 가극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의 절가, 우리의 방창, 우리의 민족무용과 우리식 무대미술로 이루어진 새형의 혁명적민족가극이다.

이 가극에서 음악과 노래들은 절가가 가극음악의 인민성과 민족적특성 그리고 통속성을 어떻게 담보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대사를 가사화하고 종래의 대화창을 절가화한것은 혁명가극《피바다》가 낡은 가극의 진부한 형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가극을 창조하는길에서 이룩한 가장 커다란 변혁으로 된다.

가극은 대사와 대화창을 절가화함으로써 가극예술이 음악과 노래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교양하는 자기의 사명을 더 잘 수행할수 있게 하였으며 가극을 대중이 알기 쉽고 부르기 헐하게 통속화, 대중화하였다.

혁명가극《피바다》는 절가와 그에 기초한 제반 형상수단들의 기능을 토대로 하여 종전의 가극에서 찾아볼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극작술을 보여주고 있다.

실로 혁명가극《피바다》는 가극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문학예술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근본사명에 맞는 진실로 당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빨리 발전할수 있게 하는 가장 명확한 길을 열어놓았다.

이 가극은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형의 혁명적가극창작에서 나서는 새로운 미학원칙들과 구체적방도들을 빛나게 구현하였으며 그 실천적인 해명을 주었다.

혁명가극《피바다》는 오래동안 내려오던 종래 가극의 온갖 낡은 틀과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범벅이식 가극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가극사우에 참으

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새형의 혁명적가극의 탄생을 선포한것으로서 위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승리로 되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의 광활한 앞길을 열어놓은 혁신적사변으로 된다.

혁명가극《꽃파는 처녀》;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오가자일대의 농촌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시던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꽃파는 처녀》를 당중앙의 지도밑에 우리 예술인들이 1972년에 각색하여 무대에 올린 기념비적명작이다.

가극은 《피바다》식 가극창작 원칙과 방도를 빛나게 구현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극예술의 휘황한 기치이며 혁명적대작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문예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불멸의 고전으로 되는 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무시하는것은 인간자체를 무시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에게 예속되여 사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데 있겠습니까. 왜 지난날 사람들이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오늘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근로자들이 봉건적인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이였으며 자본주의적인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316페지)

혁명가극《꽃파는 처녀》원작의 종자는 나라 잃은 민족의 설음과 착취받고 압박받는 근로인민의 고통과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들의 투쟁에 관한 문제이다.

가극은 1920년대말～193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꽃분이일가의 운명을 통하여 나라 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수난과 지주, 자본가계급들의 횡포한 억압과 착취밑에서 신음하는 근로인민의 피눈물나는 생활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였으며 사람이 자주성을 찾고 사회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침략자와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야 한다는 혁명의 필연성에 관한 진리를 확증하여주고있다.

꽃분이일가에 강요된 천대와 멸시는 참으로 비참하였다. 꽃분이의 아버지는 지주놈의 집에서 한생 머슴을 살다가 죽었고 아버지가 남긴 좁쌀두말의 빚값때문에 철용이는 8년간이나 머슴을 살다가 누이동생 순이의 눈을 멀게 한 지주놈에게 항거했다는《죄》로 감옥으로 끌려간다. 아들의 뒤를 이어 어머니가 머슴을 살다가 지치고 시달려 몸져눕게 되자 꽃분이마저 머슴으로 끌려가 시달리면서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기 위해 온갖 모욕과 천대를 피눈물과 함께 삼키면서 꽃을 판다.

그러나 어머니는 꽃분이의 정성이 담긴 약한첩 들지 못한채 끝내 세상을 떠나고만다.

꽃분이는 감옥에 끌려간 오빠라도 만나볼 생각으로 700리 먼길을 찾아갔건만 간수놈은 오빠가 죽었다고 청천벽력같이 가슴을 쳤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애타게 기다리던 눈먼 동생은 지주놈의 작간으로 없어지고 꽃분이의 가슴에 찬 서리를 안긴다.

자신에게 강요되는 모든 고통과 재난을 묵묵히 참으며 낡은 사회제도에 순종할줄만 알던 꽃분이는 생활을 통하여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되며 드디여 원쑤들에게 항거해 나선다. 꽃분이는 오빠 철용이의 영향밑에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며 눈물과 설음의 꽃이 아니라 혁명의 붉은 꽃을 판다.

혁명가극《꽃파는 처녀》가 이와 같이 종자를 깊이 가꾼 심오한 혁명적대작으로 되게된것은 극을 비극적으로 깊이 파고들었을뿐아니라 작은 사실에 기초한 원작의 특성에 맞게 서정심리적인 양상을 잘 살려 주인공들의 내면세계와 인정세계를 심오하게 형상한 결과이다.

작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꽃분이의 성격발전은 크게 세단계를 거친다.

이 모든 단계에 일관하고있는 꽃분이의 성격의 주도적특징은 참된 삶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작품은 원작에 주어진 심오한 혁명적 내용을 절가화된 통속적이며 유순한 노래에 담고 립체감이 나는 우아하고 황홀한 무대미술로 조화된 훌륭한 혁명가극으로 각색되였다. 참으로 이 가극의 무대미술은 무대미술사에서 일대 혁명으로 된다.

가극의 가사와 곡은 놀라울 정도로 밀착되여 음절단위에까지 심화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또한 필요한 장면에 무용을 배합함으로써 예술적성과를 더욱 풍부히 해주었다.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는 혁명적대작을 어떻게 창조할것인가 하는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회주의적사실주의 문학예술의 빛나는 본보기로 되며 혁명가극예술의 불멸의 기치로 된다.

혁명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 이 가극은 당중앙의 지도밑에 혁명가극《피바다》가 개척한 주체적가극창작원칙과 방법들에 기초하여 1972년에 창조한 영웅서사시적혁명가극으로서 우리 나라 대명작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356페지)

혁명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적구에서 투쟁한 한 빨찌산지하공작원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를 불굴의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펼쳐보이였다.

가극의 주인공 최병훈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며 유능한 지하공작원이다. 가극이 그토록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는것은 첨예하고도 모순에 찬 극적정황속에서 주인공 최병훈의 성격적특질들을 다각도로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가극에서는 최병훈을 공산주의자로서의 전형적성격들을 소유한 투사로 형상하였다. 최병훈의 형상창조에서 거둔 성과는 우선 그를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성격의 소유자로서의 공산주의투사,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수행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전형을 창조한데 있다.

주인공의 형상창조에서 거둔 다른 하나의 성과는 최병훈을 조선공산주의자로서의 전형적성격들을 소유한 투사로서의 공산주의투사,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임무수행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전형을 창조한데 있다.

주인공의 형상창조에서 거둔 다른 하나의 성과는 최병훈을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고유한 참다운 인간적풍모를 생동하게 창조한데 있다.

주인공의 형상은 혁명가란 과연 어떤 사람이며 혁명가,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생활과 투쟁의 진리를 가르쳐준다. 동시에 이 형상은 혁명가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신조, 승리의 신심을 안고 수령님께서 가르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안겨준다.

혁명가극《밀림아 이야기하라》는 《피

바다》식 가극창작원칙에 의거하여 그 형식을 한걸음 발전시켰다. 절가의 기능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리고 방창에 새로운 수법을 도입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음악극작술에 훌륭히 리용하였다.

《피바다》식 무대미술은 이 가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움직이는 장치물과 주인공의 의식속에 그려지는 환각까지 표현해주었다.

영웅서사시적인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는 《피바다》식 가극예술이 낳은 또 하나의 명작으로서 사상성과 예술성의 완벽한 통일을 이룬 혁명적 대작이다. 이 가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극건설에 관한 문예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펼쳐진 우리식 혁명가극예술의 새시대를 장식하는 또 하나의 빛나는 재부로 된다.

혁명가극《당의 참된 딸》; 당중앙의 지도밑에 《피바다》식 혁명가극창작의 제원칙과 방도를 이어받아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1971년에 창조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인민상계관작품)은 조선인민군의 한 평범한 녀전사 강연옥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당원—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한 혁명적가극예술작품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영웅들은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그들의 자제들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그들이 가지고있는 고상한 사상과 신념, 그들의 꾸밈없는 소박한 행동 그대로를 묘사한다면 오늘날의 우리 공화국 영웅들이 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292페지)

서정심리적인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에 이바지하는 작품으로 될수 있은 근본요인은 작품이 바로 당원은 어떤 사람이 될수있는가 하는 사회정치적문제성을 종자로 택하여 당원—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할 벅찬 과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데 있다.

가극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나어린 한 인민군 간호원이 엄혹한 시련과 고난을 뚫고 자기의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며 위급한 순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혁명임무를 수행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있다.

가극은 조선로동당원이란 경애하는 수령님과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라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강연옥은 중환자를 후방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밀려드는 미제놈들과 맞다들게 된다. 그러나 그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후송하는 귀중한 전우들을 한사람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되며 전원을 목적지까지 데리고가야 한다는 굳은 신념밑에 중환자들을 이끌고 끝내 자기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고야 만다.

강연옥 일행이 목적지까지 가는 도상에는 헤아릴수 없는 난관이 겹쳐들며 고난은 계속 앞을 막아나선다.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는 전우들을 위하여 적들이 욱실거리는 마을인민들속에 들어가 그것을 해결해온다. 환자가 중태에 놓였을 때 약품도, 의료기구도 불비한 조건에서 그는 자기의 피를 뽑아 수혈을 한다. 연옥이가 행동할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그의 심장속에 열화같이 불타고있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충성심에 기초를 두고있다.

혁명의 새세대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에 기초하여 어떻게 당원—공산주의자로 자라며 당원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는가를 보여준 바로 여기에 혁명가극《당의 참된 딸》의 사상예술적 특성이 있다.

가극은 참다운 당원—공산주의자의 정치도덕적풍모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무엇인가하는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이 가극으로 하여금 당적이며 혁명적인 가극으로, 혁명적대작으로 되게 하였다.

가극은 절가와 방창, 립체적무대미술과 무용으로써 형상의 심도와 폭을 가장 높은 경지에 끌어올렸다. 가극의 음악은 항일혁명가요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해방후 가요 특히 전시가요와 인민군대에서 널리 불리우는 가요들에 바탕을 두고있다. 또한 가극에서는 양악기를 우리의 민족음악에 적극 리용복종시키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관현악반주에 의한 양악기의 음조를 우리의 민족음악선률에 완전히 복종시켰다.

가극은 우리 인민의 정서에 맞는 유순하고 아름다운 선률을 통하여 강의하면서도 부드러우며 혁명적정열로 심장이 불타는 우리 인민의 정신적풍모를 훌륭히 표현해주었다.

실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은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당원의 전형을 창조하며 온 사회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자들의 사회로 만들데 대한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에 완벽한 예술적해답을 준 혁명의 참된 교과서이다.

창조이래 2년간에만하여도 국내외무대에서 400여회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혁명가극《금강산의노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을 맞이하는 1973년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당중앙의 지도밑에 창조된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는 《피바다》식 가극예술이 낳은 또하나의 새로운 명작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43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인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는 사회주의하에서의 새 생활의 반영 즉 현대적주제의 가극창작이 힘들다는 신비주의를 사회주의적현실주제의 령역에서까지 종국적으로 마사버리고《피바다》식 가극예술의 위력을 새로이 과시한 혁명적대작이다.

작품은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나라없고 돈없는《죄》로 생리별을 강요당하였던 황석민일가가 사회주의제도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20여년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여 수령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이 땅우에 마련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밝혀내고있다.

작품은 지난날의 참담하였던 생활과의 대비속에서 우리 사회의 본질을 똑똑히 보여준다. 지난날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살래야 살길없었던 황석민일가는 정든 고향을 떠나 금강산 남쪽의 깊은 산속에 들어가 단간초막을 짓고 살아간다. 그러나 석민은 여기서도 자본가놈들이 별장을 지을 자리에 밭을 일구고 집을 지었다는 터무니없는《죄명》을 쓰고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여 가족과 생리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석민이는 그후 북방의 어느 벌목장에 몸을 피해 고역살이를 하느라고 가족의 생사조차 알길없었고 안해인 명희는 어린 순이를 데리고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떠다니며 남편을 찾으려고 무진애를 썼으나 소원을 이룰수 없었다.

어느덧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나라는 해방되고 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이 땅에는 사회주의지

상학원이 펼쳐지고 착취받고 압박받던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였다.

순이는 금강산의 자랑 펼치는 노래와 춤의 명수로, 농장원으로, 명희는 2중천리마과수작업반 반장으로 자랐다.

본래 음악을 즐기던 석민이는 벌목장에 있을 때 그곳을 해방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로부터 혁명가요집을 받고 혁명의 밝은 길을 걷게 되며 해방후에는 작곡가로 되였다.

작품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혁명가극《금강산의 노래》는 사회주의적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중에는 갈등을 극적충돌의 형태로 보여주지 않는 작품도 있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이 보여주고있는 형상방도에서 중요한것은 대비적형상수법이다. 가극은 방창의 설화적기능을 활용하여 회상장면을 극구성에 자연스럽게 물리는 방법으로 대비적형상수법을 구사하고있다. 작품은 절가와 방창에 기초한 《피바다》식 음악극작술의 거대한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에 의거하여 그것을 창조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음악형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무용에서 특징적인것은 실지 인민들속에서 광범히 보급되고있으며 사랑받고있는 가무를 비롯한 무용형식들을 적극 도입한것이다. 무대미술에서는 조선화의 간결하고 선명한 전통적화법을 가극무대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였다.

작품은 생활을 분식하고 과장하며 외곡하는 온갖 낡은 문예사조와 날라리를 일삼는 수정주의적요소를 반대하고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가극예술을 혁명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을 사회주의현실주제분야에서 힘있게 확증한 빛나는 본보기이다.

혁명적 대장편소설

장편소설《피바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피바다》를 당중앙의 지도밑에 1973년에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피바다》는 우리 문학을 주체적인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되게 하는 혁명적대작의 본보기로 되는 기념비적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수많은 혁명가들이 영웅적으로 투쟁한 사실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영화나 소설을 비롯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47페지)

장편소설《피바다》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의 근본문제인 인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문제를 주제적과제로 제기하고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었으며 원작의 빛나는 성과를 소설의 특성에 맞게 옮김으로써 공산주의인간학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 인간의 사상적성장과정에 대한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소설은 1920년대말~193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그대로 피바다로 된 우리 나라의 참상을 보여주었으며 거센 흐름이 되여 굽이치는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밑에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이 앙양되던 현실을 예술적화폭으로 진실하고도 생동하게 펼쳐보이였다.

주인공 을남어머니 순녀는 처음에 그야말로 어질고 순박하고 각성되지 못한 조선의 보통농촌녀성이였다. 그러던 그가 남편 윤섭을 잃고 집을 잃은 다음 피바다속에 잠겨 자기 남편과 조선사람들을 잔악하게 학살한 일제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원한과 증오를 간직하게 된다.

나아가서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삶의 희망을 찾은 어머니는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하공작원 조동춘의 영향하에 혁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한걸음 한걸음 혁명의 길에 들어서며 천대받고 학대받는 한 농가의 가정에서 태여난 세남매인 원남이, 갑순이, 을남이는 항일무장투쟁의 적극적인 영향밑에서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혁명의 새세대로 성장한다.

소설에서는 을남이의 영웅적인 희생장면이 작품의 정점으로 되며 어머니의 성격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다.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어머니는 단련되며 맏아들 원남이를 조선인민혁명군에 보내는데까지 이르며 마침내는 자기도 억센 혁명가로 자라나 성시해방전투에 참가하게 된다.

소설은 억압받고 착취받던 근로하는 보통녀성이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기르는것밖에 모르며 고생을 타고난것처럼 여기고 그저 묵묵히 이겨나가는데만 습관된 어머니가 힘있고 숭고한 혁명가로 발전하기까지의 사상적성장과정을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의 본질적요구와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그리였다.

원남이의 형상은 1930년대 혁명의 새세대들의 빛나는 전형으로 되며 참답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되여야하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되며 갑순이 또한 새세대의 녀성혁명가로, 참답게 어머니를 위할줄 아는 새형의 딸로 그리였다. 을남이의 형상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자라나는 조선의 참된 소년들의 높은 계급적자각과 슬기와 용맹을 훌륭하게 일반화한 예술적기념비로 부각되였다.

소설은 일제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오직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깨달은 어머니가 혁명가로 되는 성격장성과정을 통하여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혁명가로 될수 있고 혁명가의 일생이라는 것이 간고한것이지만 한번 각오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신심과 자부심을 가슴뜨거이 안겨준다.

이처럼 장편소설《피바다》는 사회주의적소설문학의 빛나는 본보기로 되는 작품이다.

장편소설《한자위단원의 운명》;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한자위단원의 운명》을 1973년에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한자위단원의 운명》은 혁명적작품의 본보기로 되는 기념비적대작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페지)

당중앙의 지도밑에 나온 소설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해답을 기다리는 근본문제, 혁명에 관한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명을 주었으며 그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가르쳐줄뿐아니라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미학적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였다.

작품은 1930년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일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불바다로 된 당대조선인민의 참담한 운명을 보여주면서 그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이 손에 무장을 들고 일어나 싸우는 한길밖에

없다는 혁명의 위대한 진리를 밝히고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필연성과 그 로선의 정당성을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확증하였으며 혁명하는 시대의 인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진정한 혁명투사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였다.

소설의 주인공 갑룡이는 처음에 아무런 계급적자각이 없는 순진하고 소박한 농촌청년이였다.

한생을 모진 풍파속에서 살아온 아버지에게 효성을 다하며 돈을 벌어 약혼녀의 빚을 갚고 그와 행복한 살림을 꾸려보리는 갑룡이였지만 이 아름다운 꿈은 참혹한 현실에 의하여 산산이 짓밟히고만다. 그는 일제의 폭압기구인 《자위단》에 끌려가서 치욕스럽고 피눈물나는 생활을 체험하는 과정에 점차 혁명을 인식하고 마침내 반변을 일으켜 일제수비대놈들과《자위대》우두머리들을 처단한 후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 떠나게 된다.

장편소설은 주인공의 파란곡절로 가득찬 이러한 생활에서 얻게 되는 심리적체험과정을 통하여《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으며 오직 손에 무장을 들고 일어나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길에서만 행복과 참된 삶의 보람을 찾을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소설은 혁명적폭풍의 시대 수억만 인민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소설의 특성을 살려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전모를 그리는 거대한 예술적일반화의 힘을 가지고 밝혀내였다.

작품은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특성에 맞게 생활의 진실을 그리고 주인공들의 생활과 내면세계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립체적인 예술적감흥을 더욱 자아내게 한다.

참으로 소설은 원작이 제기한 심오한 문제성과 사상성, 진실한 형상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이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혁명적문학예술창작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는 혁명적대작의 본보기로 된다.

장편소설《만경대》; 1973년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4.15문학창작단 집체작으로 나온 장편소설《만경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요람 만경대와 봉화리에서 보내신 어린시절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폭넓게 반영한 작품으로써 우리 근로자들 특히 청소년들의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되는 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페지)

장편소설《만경대》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이의 혁명적가정을 따라배움으로써 공산주의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게 하는 혁명적작품이다.

1916~1918년시기를 포괄하고있는 이 작품은 4개의 편으로 구성되여있다. 제1편은 원수님께서 만경대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실 때 아버님으로부터 열렬한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제2편은 아버님께서 혁명사업을 위하여 집을 떠나신후 원수님께서 만경대에서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남달리 일찌기 계급적으로 성장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제3편은 아버님을 따라 만경대고향집을 떠나신 원수님께서 봉화리에서 보내신 시기를 반영하고있으며 제4편은 원수님께서 다시 만경대로 돌아오시여 3.1운동을 겪으시던 시기까지의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장편소설《만경대》에서는 어린 원수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애국주의적인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는 생활들이 원수님의 세계관형성과정에 중요한 계기들을 이루고있는데 대하여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아버님께서 옥중고초를 겪으시게 되는 시기의 원수님의 세계관발전과정은 세심한 필치와 깊은 분석을 가지고 잘 그려내였다.

작품은 만경대고향집에서의 고난에 찬 생활체험과 함께 마을 사람들 특히 당대의 사회계급적모순의 산물인 셋째네일가의 비극적운명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원수님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장성과정을 더욱 폭넓게 보여주었다.

소설에서는 어린 시절 원수님께서 남달리 뛰여난 총명과 재능을 지니고계셨으며 아름답고 의젓하고 풍만한 성품과 넓으신 도량을 지니고계셨다는 것을 진실하고 감동깊게 잘 반영하였다.

작품은 또한 원수님의 남달리 굳세인 의지와 원칙성을 생동하게 묘사하였으며 원수님의 완강한 탐구심과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포부 그리고 활달하신 성품들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장편소설《만경대》는 원수님께서 만경대와 봉화리에서 보내신 어린시절의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을 기본으로 보여주면서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의·일단과 강반석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들의 고결한 성품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이처럼 작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에 바쳐진 작품으로서 어린시절 원수님의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 열렬한 애국주의적사상감정과 높고 견결한 민족적 및 계급적의식의 형성과정 그리고 고매하고 슬기로운 성품의 형성과정을 생동하게 서사시적화폭으로 그려내는데 성공한 작품이다.

장편소설《배움의 천리길》; 1972년에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4.15문학창작단 집체작으로 세상에 내놓은 장편소설《배움의 천리길》은 유년시기 부모님들의 혁명로정을 따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에 오르시여 조선사람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생활을 체험하시면서 어떻게 혁명적세계관을 세우시였으며 어떻게 혁명의 장도에 오르시게 되는가를 폭넓고 진실하게 반영한 혁명적대작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더욱 똑똑히 알게 하여 그들속에서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사회주의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는 투쟁정신을 기르는데 커다란 도움으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80~181페지)

장편소설《배움의 천리길》은 1923년초부터 1925년초까지의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력사를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전체 근로자들과 특히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더욱 깊이 알게 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한 혁명적작품이다.

원수님께서는 12살의 어리신 몸으로 8도구에서 만경대에 이르는 험한 천리길을 혼자 걸어나오시여 칠골외가에서 창덕학교를 다니시다가 아버님께서 일제경찰에 또다시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 만경대를 떠나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굳은 결심을 다지시고 포평나루터를 건느시였다.

장편소설은 1923년초 원수님께서8도구를 떠나 포평나루를 건너오신 때로부터 수많은 험산준령과 크고 작은 강을 건느시고 숱한 고을과 마을을 지나 열사흘만에 만경대 고향집에 도착하시

는 천리로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칠골 창덕학교를 다니신 2년 남짓한 동안에 체험하신 가지가지 생활들에 대한 부분과 아버님께서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다시 만경대를 떠나 10여일만에 포평나루에 이르시여 력사적인 맹세를 다지시기까지의 로정부분을 포괄하고있다.

그러면서도 작품은 만경대와 칠골외가에 계시면서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던 때의 생활체험을 중심적으로 묘사하고있다.

작품은 조국의 광복과 공산주의적미래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울 비장하고도 숭고한 굳은 결심을 다지시고 일제침략자들에게 싸움을 선포하신 원수님께서 겨레의 원한과 눈물이 서린 압록강을 건너시는것이 바로 혁명의 개시로 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였다.

이리하여 배움의 천리길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과 크나큰 혁명가적품성을 튼튼히 마련하시고 위대한 혁명의 길에 오르시는 원수님의 형상을 폭넓게 그리려는 장편소설의 사상주제적과제는 훌륭히 실현되였다.

소설은 엄격히 력사적사료와 사적들에 충실하였으며 작품의 구성도 원수님의 현실탐구의 로정과 사적에 맞게 학습과 생활에서 체험하신 특징적인 사실들을 년대적순차에 따라 배렬하고 예술적으로 그리는 형식을 취하였다.

소설은 혁명적진리의 탐구과정을 통하여 이룩하신 원수님의 혁명적세계관과 혁명가적품성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력사를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배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혁명의 참된 교과서이다.

장편소설《혁명의 려명》; 1973년에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기념하여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4.15문학창작단 집체작으로 내놓은 장편소설《혁명의 려명》(총서《불멸의 력사》중에서)은 전편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에서 1927년초부터 1928년말까지 길림을 중심으로 한 초기혁명활동시기 이땅우에 혁명의 려명을 안아오신데 대하여 형상적으로 그리였으며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출발점과 불패의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확증한 기념비적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219페지)

1920년대후반기 길림에 오신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하시는 행정에 권력싸움만하면서 민족개량주의를 설교하는 민족주의자들, 맑스-레닌주의의 개별적명제나 외우면서 《령도권》쟁탈에만 눈이 어두운 종파분자들을 보고 혁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가슴에 사무치도록 체험하신다.

소설은 수령님께서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쓰라린 교훈을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의거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혁명의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신데 대하여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작품에서는 수령님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이 자주적사고와 창조적사색의 억센 날개를 펴게 되였고 처음으로 정확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된 조선혁명이 근본적전환을 이룩하게 된데 대하여 감명깊게 그리였다.

소설은 또한 파란많던 조선혁명을 곧바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수령님의 결정적역할과 그이의 유일적령도를 받으며 혁명투쟁을 힘차게 벌리는 각계각층의 인민의 전형들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옳은 로선과 전략전술, 투쟁구호를 제시하시고 광범한 청년학생들과 인민대중을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며 이 투쟁을 일본상품반대투쟁에로 확대발전시키신 수령님의 빛나는 형상에 바쳐진 화폭들은 그이의 혁명사상의 심오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가슴뜨거이 안겨준다.

작품은 각이한 길을 걷던 청년학생들, 기관구로동자들, 광복촌농민들 지어는 지난날 반일투쟁에서 과오를 범했던 사람들 모두가 수령님의 넓은 품에서 각성되고 성장하여 한마음으로 굳게 뭉치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그이를 혁명의 영재로 높이 칭송하면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민족과 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는 형상들을 훌륭히 보여주었다.

작품은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을 보여주면서도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그이의 지도밑에 녀성해방을 위한 투쟁에 나서신 강반석녀사의 고결한 정신과 위대한 어머니사랑에 대하여, 김형권선생과 김철주동지, 막내아우님의 불타는 혁명적열정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그리였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기본선을 청년학생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이한 계층선 등 결가지선들과의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립체적인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였다.

총서《불멸의 력사》중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장편소설《혁명의 려명》은 혁명의 위대한 태양에 대한 송가이며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충만되고 현대적품격을 훌륭히 갖춘 혁명적대작이다.

장편소설《1932년》; 1972년에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4.15문학창작단에서 내놓은 장편소설《1932년》(총서《불멸의 력사》중에서)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혁명적대작으로서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온 1932년의 커다란 혁명적사변들을 서사시적화폭에 담아 반영한 기념비적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있는 작품들은 현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방법인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의하여서만 창조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페지)

당중앙의 지도밑에 나온 장편소설《1932년》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철저히 립각하여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 혁명적대작이다.

소설은 1932년의 년륜은 손에다 무장을 들고 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를 때려잡은 주체적인 무장투쟁의 새시대를 처음으로 열어놓은 불멸의 력사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수놓은 불멸의 력사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확증하였다.

작품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튼튼히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천재적인 전략전술적방침, 비범한 령도력과 탁월한 혁명적령도예술, 고결한 혁명가적풍모와 공산주의적덕성,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혁명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다방면적으로 그리였다.

소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 첫해의 로정을 주체의 기치밑에 진행된 반

제민족해방혁명시대를 열어놓은 첫돐년륜의 고난에 찬 그러나 영광으로 빛나는 불멸의 력사로 특징화한 주제의 참신성과 심오성, 그 예술적실현의 일관성과 충만성으로 하여 참신한 작품이다.

작품은 항일무장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강반석녀사의 높은 혁명정신과 위대한 어머니사랑에 대한 빛나는 형상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그 모든 수난을 나어리신 몸에 고스란히 받아안고도 꿋꿋이 서서 혁명조직의 사업과 가사의 중하를 다 맡아나서신 김철주동지와 막내아우님의 높은 혁명적자각과 불굴의 기상, 끝없는 헌신성에 대한 잊을수 없는 형상을 부각함으로써 1932년의 불멸의 력사를 창조한 혁명적가정에 대한 송가로 된다.

소설은 자기의 사상주제적과제와 중요등장인물들의 형상을 서사시적화폭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사령관동지의 형상을 보여주는 기본선을 리철군의선, 박흥덕과 차기용의 선, 최칠성과 세걸이 선, 호림과 안동화의 선 등 다양한 곁가지선과의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그림으로써 립체적인 예술적장편소설로 되였다. 특히 작품은 1932년의 원정로정을 년대기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그 머나먼 로정에 대한 기록으로 늘어놓지 않고 10여개의 중요장면을 집중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생활로 충만시키고 집약적인 예술적분석을 가하는 사실주의적인 묘사원칙을 관철시킨것으로 하여 1932년에 대한 예술적인 화폭으로 되였다. 그리고 빈번한 충돌과 전투를 그리는것을 피하고도 일제의 기반하에서 신음하는 한 어린애의 아픔과 누리의 고통과 슬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것을 한가슴에 받아안으시고 통감하시는 사령관동지의 내면적체험을 줄기차게 그림으로써 내면적극성이 강하게 하였다. 혁명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시대의 거류속에서 살며 혁명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분석의 예리성과 철학적심오성, 다양한 묘사대상에 대한 주정적인 시화와 정론적분석의 예리성으로 하여 작품은 사상미학적감흥이 강한것으로 특징적이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의 기치밑에 진행된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가 열려진 1932년의 불멸의 력사에 대한 사상예술적으로 충만되고 현대적품격을 갖춘 혁명적대작으로 된다.

장편소설《력사의 새벽길》; 1972년에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기념하여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4.15문학창작단 집체작으로 내놓은 장편소설《력사의 새벽길》(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오신 불멸의 혁명활동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형상하는데 바쳐진 혁명적대작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선렬들의 불요불굴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50페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1910년대후반기를 시대적배경으로한 장편소설《력사의 새벽길》(상)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가운데서 조선국민회창건 전후시기의 암담한 시대상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반영하면서 진정한 조선혁명력사의 새벽길을 열어놓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혁명가적풍모를 사상예술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하는것을 주제적과제로 제기하고 해명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전통의 력사적뿌리를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데 큰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다.

총 8개의 장과 종장으로 구성되여있는 이 작품은 주제발전의 견지에서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첫째단락에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실태를 깊이 분석하시고《지원》의 사상에 기초하시여 새로운 방략을 탐구제시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여기에서는 만경대고향집에 대한 형상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소설의 둘째단락에서는 새로운 전국적인 반일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과 그에 기초한 조선국민회결성과정이 포괄되여있다. 여기에서는 강동군 내동부락으로 활동무대를 옮기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전국적인 반일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벌리시여 1917년 3월 23일 드디여 력사적인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고 세상에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의 셋째단락에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령도하시여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키시는 견결한 투쟁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마지막단락에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옥중투쟁과 조선민족해방운동을 민족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그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새 출발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여기에서는 간고한 령어생활을 통하여 김형직선생님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성품, 굳은 혁명적지조와 독창적인 탐구정신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소설은 력사의 암흑으로부터 혁명의 새벽에로 나아가시는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령도와《지원》의 사상의 위대한 생활력 그리고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열렬한 애국주의사상을 폭넓게 묘사하였을뿐아니라 선생님의 고매한 풍모와 높은 덕성을 생활적으로 뚜렷이 부각하였다.

작품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가정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소설은 당시의 조선사람들의 세태풍속과 인정세계 그리고 자연풍경도 아주 선명하게 묘사하였다.

이처럼 장편소설《력사의 새벽길》(상)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서사시적화폭속에서 전면적으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전통교양에 귀중한 교과서로 되는 혁명적작품이다.

불 멸 의 서 사 시

서사시《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 서사시《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쉰일곱돐에 즈음하여 1969년 4월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가 집체 창작한 충성의 서사시이다.

《인민의 수령》(4장) 《불멸의 자욱》(4장), 《주체의 기치》(3장), 《위대한 창조》(3장), 《혁명의 홰불》(2장), 《맺음시》 등 여섯개 부분으로 구성된 서사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을 헤쳐오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생불멸의 혁명투쟁업적을 력사적으로 폭넓게 일반화하면서 그이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살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 투지와 기백, 그이께 일편단심 충성을 다할 확고한 결의를 격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인민의 수령》에서는 1912년 4월 15

일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탄생과 새조선의 탄생, 새시대 기원을 연 세기의 려명, 뜻 깊은 이날의 력사적의의를 밝히고있다. 또한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는 수령님의 인민적풍모를 감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노래하고있으며 그이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을 감격에 겨워 토로하고있다.

《불멸의 자욱》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신데 대하여서와 그의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또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이 해방후 당과 인민정권 및 인민무력 건설에서와 그 강화발전에서 얼마나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는가 하는것을 폭넓게 일반화하면서 이러한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자부심을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험난하고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로정과의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노래하고있다.

《주체의 기치》에서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의 거대한 생활력이 노래되고있다. 주체의 조국-조선을 20세기 거치른 항로우에서 모진 태풍도 격랑도 뚫고 넘으며 곧바로 앞으로만 전진하는 큰 배로, 그 힘의 원천을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키를 잡으셨기때문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시적형상을 더욱 풍부히 하고있다.

또한 이 부문에서는 우리의 모든것을 조선식, 조선사람의 본때, 조선의 속도로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의의가 격조높이 노래되고있다.

《위대한 창조》에서는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창시하신 새로운 혁명리론과 사상을 그이의 높으신 덕성과 결합하여 노래하고있다. 또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변혁과 전진을 이룩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과 그들의 혁명적자부심과 행복이 노래되고있다.

《혁명의 홰불》에서는 남녘땅의 우리 동포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며 해외동포들의 생활까지도 구석구석 돌봐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육친적사랑과 배려를 노래하면서 그이의 손길 따라 영웅적으로 싸워온 우리 동포형제들의 자랑찬 투쟁모습을 그리였다. 또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따라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서의 그이의 위대한 풍모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맺음시》에서는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투쟁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높으신 덕성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끝없는 존경과 신뢰, 그이의 령도를 받으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한번 힘있게 강조되였다.

서사시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럽고도 장구한 혁명력사와 영생불멸의 업적, 높으신 덕성을 대서사시적화폭속에 전면적으로 구가한 혁명적대작이다.

서사시는 인민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다하도록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서사시《불멸의 자욱》;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4.15문학창작단의 집체작으로 된 서사시《불멸의 자욱》은 1973년에 세상에 나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에서 명월구회의가 열린때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되여 투쟁의 길에 오르는 력사적시기를 반영하고있는 서사시는 명월구로 향하시는 수령님의 근엄한 모습을 그리는데로부터 시작하여 이미 카룬회의에서 내놓으신 로선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밝히시고 첫 혁명적무장대오를 무으시고 이끌어오신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을 서사시적으로 감명깊이 노래함으로써 그이께서 지니신 위대한 혁명사상,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전개력, 비범하고 탁월한 령도력과 령도예술,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이 작품에 관통된 기본사상으로 맥맥히 흐르게 하였다.

서사시는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있다.

1장에서는 살길을 찾아 어데론가 흘러가는 인민들을 짓밟힌 조선인민의 슬픔, 구원을 부르짖는 조국의 운명으로 받아 안으시고 늙은이가 지고가는 한 컬레의 짚신에 깃든 사연에서 누를길없는 우리 인민의 억센 힘을 가늠하시며 명월구에서 무장투쟁과 유격전의 방침을 제시하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열정적으로 박력있게 노래하였다.

2장에서는 명월구회의의 첫 파업을 받은 혁철이와 분녀가 무장경관을 쓸어눕히고 총을 빼앗는 이야기를 줌으로써 수령님의 전사들과 우리 인민이 수령님께 얼마나 충직하였으며 그이를 얼마나 존경하고 흠모하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특히 2장에서는 혁명사업을 힘겻 떠받들어 주시고 몸소 부녀회를 지도하여 녀성들을 혁명의 길우에 내세워주시는 강반석어머님의 빛나는 형상이 감명깊이 노래되고있다.

3장에서는 한 마을에 들리신 수령님께서 혁명조직과 군중의 움직임, 무장대오를 꾸리기 위한 사업 등을 알아보시고 혁명의 주인은 인민이라고,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우는것이 혁명승리의 열쇠라고 하시면서 조급성에 사로잡힌 야학선생도 타이르시고 인민들을 일깨워주시는 등 명월구회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몸소 조직지도하시는 수령님의 고결한 모습과 그이를 받드는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노래되고있다.

4장에서는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하고 돌아오게 되는 혁철이가 달려드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최후를 마치게 되는 비통한 장면과 수령님을 목숨바쳐 보위하여 주기 바란다는 부탁을 통해 수령님의 혁명전사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격조높이 웨치고있다.

5장에서는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선포하신데 대하여서와 그 혁명적무장대오가 주체의 기치 높이들고 력사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디딘데 대하여 장엄하게 노래하고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헤여졌던 부부가 수령님과 강반석어머님의 사랑의 품에서 소생하여 한 대오에서 만나게 되는 행복한 이야기와 함께 혁철의 죽음에 대한 소식에 접하시여 못내 가슴아파하시는 수령님의 모습이 형상됨으로써 대오가 추켜든 무장에는 혁명전우들의 피가 스며있다는것이 강조되여 피는 피로써 보복하려는 조선의 첫 혁명무력의 비장한 결의가 더욱 힘있게 울리고있다.

이렇듯 서사시《불멸의 자욱》은 의의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를 끌고 나감에있어서 서사시의 특성을 살려 극적인 얽음새로 시대와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실하게 시적인 열정을 담아 노래함으로써 훌륭한 서사시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에 바쳐진 서사시《불멸의 자욱》은 우리 인민을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혁명의 교과서로 됨으로써 주체적인 시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사시《푸른 소나무 영원히 솟아있으리》;

서사시《푸른 소나무 영원

히 솟아 있으리》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육가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탄생 일흔다섯돐에 즈음하여 1969년에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가 집체창작한 혁명적인 시문학작품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위업에 바치신 불멸의 위훈과 고귀한 혁명업적, 선생님의 강의한 혁명정신과 불굴의 기상을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주면서 선생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경건하면서도 격동적인 음조로 노래하고있는 서사시는 《광복의 홰불을 높이 드시고》(1장), 《뜻을 멀리에…》(2장), 《민중의 벗》, 《수령을 키우신 크나큰 품》(3장), 《맺음시》등으로 구성되여있다.

첫머리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손수 지으신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모셔져있는바 이는 작품의 중심사상을 체현하는데서 깊은 형상적의의를 부여하고있다.

《광복의 홰불을 높이 드시고》에서는 나라도 이름도 빼앗긴 강토, 왜적의 쇠사슬에 칭칭 휘감긴 조선에 봉화산의 나팔소리로 투쟁과 혁명을 부르시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이 눈서리 세찬 바람속에서도 굴함없이 솟아 있는 푸른 소나무의 기상으로 격조높이 노래되고 있으며 선생님의 투쟁업적이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력사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강조되고있다.

《뜻을 멀리에…》에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는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격랑을 맞받아 나갈 혁명의 노를 억세게 쥐여주시고 애국의 더운 피 끓게 하여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신 선생님의《지원》의 높은 뜻과 그 거대한 생활력이 노래되고있다. 선생님께서는 아드님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원대한 뜻》을 가진 애국자로 키우시며 틀틀하고 굳센 젊은 세대들을 나라의 운명을 떠메고 나아갈 기둥감으로 교육교양하시였다.

《민중의 벗》에서는 고역에 시달리다 병마로 신음하는 조선의 한 젊은이의 고충에서 병든 조국의 아픔을 느끼시며 정성다해 그를 구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적들을 유인하고 혁명동지들을 구원하시는 선생님의 형상을 감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선생님의 고결한 풍모와 높은 덕성, 열렬한 애국심과 혁명적동지애가 반영되고있다.

《수령님을 키우신 크나큰 품》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키우신 김형직선생님의 크나큰품과 그 사랑의 위대한 힘이 묘사되고있다.

조선을 독립하자면 혁명의 억센 기둥을 키워야 한다시며 열두살 어리신 아드님을 천리 먼길로 보내시는 선생님,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시는 원수님, 김형직선생님의 혁명가정의 파란많던 생활을 서사시적으로 펼쳐보이면서 선생님의 림종의 마지막시각을 가슴 뜨거이 노래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아버님이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받아 안으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조선의 봄을 안아오시였음을 격동적으로 노래하였다.

서사시의 마지막부분인《맺음시》에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김일성동지께서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전체 조선인민과 상봉하시여 개선연설을 하시고서야 헤여진지 20년만인 고향 만경대에 들리시여 조부모님을 만나뵈옵는 감격적인 이야기와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행복을 누리며 튼튼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게된 우리 인민의 기쁨과 혁명적자부심이 노래되였다.

이처럼 서사시《푸른 소나무 영원히 솟아 있으리》는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지원》의 애국사상, 고결한 덕성을 구체적사실들의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감동적으로 보여주면서 선생님께서 이룩하신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정론적이며 송가적인 열정으로 훌륭히 노래하고있다.

특히 선생님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강의한 혁명적절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이 땅우에 영원히 솟아있을 푸른 소나무에 비유됨으로 더욱더 선명한 시적형상으로 안겨오게 된다.

이 시작품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을 따라 배우며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과 그이의 혁명적가정을 목숨으로 보위할 결의에 충만되게 한다.

서사시 《조선의 어머니》; 서사시《조선의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어머님이시며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안해이시며 녀성해방운동의 선각자이신 강반석녀사의 혁명가의 안해, 혁명가의 어머니, 자신이 직접 혁명가로서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이 어머님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열렬한 애국심, 고결하고 인자하시면서도 강의하신 성품과 아름다운 풍모를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1970년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가 집체창작한 혁명적인 시작품이다.

《혁명의 큰 뜻을 높이 받들어》(2개장), 《위대한 어머니사랑》 (3개장), 《력사에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여!》, 《혁명의 길우에 비낀 붉은 노을》(2개장), 《맺음시》 등 다섯부분으로 이루어진 서사시는 마음의 고향 만경대를 찾는 사람들에게 락원의 산천을 가꾸고 계시는듯, 정갈한 우물가에서 누구와 다정히 이야기하시는듯 환히 안겨지는 어머님의 모습을 노래하면서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에 나서신 남편과 아드님을 도우시고 그들의 전우들을 따뜻이 돌보시며 혁명을 위한 한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머님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 고상한 풍모를 대서사시적화폭에 담아 소박하면서도 힘있는 어조로 노래하였으며 어머님을 그리는 우리 인민의 누를길 없는 흠모의 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첫째부분에서는 어머님께서 김형직선생님의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을 도우시여 마른일 궂은일 가림없으시고 닥쳐온 슬픔과 괴로움앞에서도 오히려 선생님의 높은 뜻 받들어갈 맹세를 다지시며 인민의 태양을 받들어오신 혁명가의 안해로서의 강반석녀사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둘째부분에서는 아드님을 홀로 천리 만경대로 보내시고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시던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 천리길을 되돌아온 아드님을 그밤으로 떠내보내시며 병석에 계시는 몸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차디찬 교실에서 글읽으시는 아드님을 위해 치마폭에 나무를 감싸 겪으시여 불을 지펴주시고, 사경에 처한 아드님과 전우들에게 놈들의 삼엄한 경계망속에서도 무기를 날라다주시는 등의 어머님의 사랑이 민족재생의 힘을 키우신 조선혁명의 요람으로,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낳아키우신 위대한 품으로 노래되고있다.

셋째부분에서는 녀성해방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이나라 녀성들을 투쟁에로 묶어세우시고 수령님께서 조직하신 공산주의비밀소조의 성원으로 새날소년동맹, 반제청년동맹사업을 도우신 자신이 직접 불굴의 공산주의투사로서의 강반석어머님을 노래하였다.

넷째부분에서는 장군님께서 조직하신 항일유격대 대원들에게 첫 군복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승리의 앞길을 축원하시는 어머님모습과 병석에 누으시여서도 좁쌀한말을 가지고 온 아드님을 엄하게 꾸짖으시며 눈물 한방울 없이 다시 떠내보내시는 어머니, 그것이 다시는 아드님을 보실수 없는 마지

막 작별이였다는 비통한 사실을 비장한 감정으로 노래하였다.

《맺음시》에서는 오늘의 행복한 락원에서 어머님을 모시지 못하는 우리 인민의 가슴 아픔을 토로하면서 조국과 함께, 혁명과 함께 무궁토록 번영할 조국의 미래와 함께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어머님의 영상을 감동적으로 형상하였다.

서사시 《조선의 어머니》는 이처럼 노래한 주제사상과 그 이야기 자체가 아주 감동적이고 훌륭한것이며 여기에 어머님의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면서도 강의하신 깊은 내면세계를 부드럽고 소박한 언어들로 꾸밈없이 사실을 노래한것으로 하여 더욱 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한다. 또한 살아움직이시는듯한 어머님에 대한 형상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을 어머님을 흠모하고 존경하며 영원히 모시려는 하나같은 마음에로 이끌어준다.

국제영화축전 특별상 계관작품

천연색광폭예술영화 《꽃파는 처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오가자일대의 농촌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시던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꽃파는 처녀》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1972년에 영화로 옮긴 천연색광폭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는 혁명적문학예술의 빛나는 리정표로 되는 기념비적명작이다.

예술영화《꽃파는 처녀》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비운이 절정에 이르렀던 1920년대말～193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가난한 고용농민의 딸인 꽃분이와 그 일가의 피눈물나는 생활에 대한 예술적일반화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의 필연성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확증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41페지)

영화에 나오는 꽃분이와 그 일가가 겪는 뼈에 사무치는 불행은 당시 조선인민이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참을수 없는 민족적재난이며 그가 혁명의 대로에로 나아가기까지의 체험세계는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다는 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생활의 론리에 대한 사실주의적화폭이다.

영화에 나오는 꽃분이와 그 일가를 중심으로 한 마을사람들은 착취계급의 잔인성과 간악성을 전형적으로 체현하고있는 배지주와 그의 처, 마름 더만이와의 첨예한 극적갈등속에서 피눈물나는 생활을 겪게된다. 영화는 꽃분이 일가의 이러한 고통과 불행의 근원을 밝히면서 꽃분이가 계급적으로 각성되는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자신에게 강요되는 모든 고통과 재난을 참으며 낡은 사회제도에 순종할줄만 알던 꽃분이는 생활을 통하여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되며 드디여 원쑤들에게 항거해 나선다. 눈물과 설음의 꽃이 아니라 혁명의 꽃을 팔게된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나온 이 영화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할데 대한 요구, 특히는 생활을 진실하고 풍만하게 그릴데 대한 사실주의적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있는 혁명적문학예술의 빛나는 본보기이다.

영화에 나오는 그 어느 인물이나 모두 당대사회의 심오한 사회적전형으로 일반화되였을뿐아니라 매 장면들도 단 한마디의 추상적인 구호나 개념적인 설명이 없이 생동하고 무수한 생활세부들로 가득차있다.

영화에 나오는 음악 역시 영화음악의 본보기들로서 작품의 주제사상과 주인공들의 내면세계 그리고 정신적풍모를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예술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는 이 영화는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세계적인 영화》로 세상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세계각국에서 조선영화상영주간을 설정하고 《새시대의 새 영화의 탄생》을 알리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대성황리에 상영하고있다.

이 영화는 1972년 7월 21일 체스꼬슬로벤스꼬 까를로비 바리에서 진행된 제18차국제영화축전에서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받았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예술영화《꽃파는 처녀》에 특별상과 특별메달이 수여된 후 축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네들이 받은 상은 보통상이 아니다. 규정된 상과는 대비가 안된다. 다른 그 어떤 영화도 당신네 영화와는 비교할수 없다. 당신들의 영화는 특별한 영화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는 영화《꽃파는 처녀》에 특별상을 주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많은 토론끝에 바리 국제영화축전상규정에도 없고 또 축전력사에도 없는 일이지만 특별상을 주기로 결정한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겠다. 진정 조선영화의 위대성에 대하여 축하를 보낸다.》

천연색광폭기록영화《과수의 나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에서 만든 우리 나라 기록영화《파수의 나라》는 1972년 9월 20부터 28일까지 쏘련의 몰다비야가맹공화국의 수도 끼쉬뇨브에서 《사회주의농촌경리의 과학기술적진보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진행된 국제농업부문영화축전에서 특별상을 받았으며 축전심사위원들과 여러 나라 영화단성원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영화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가 있은 이후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가 황금의 열매 주렁지는 과일동산으로 전변된 자랑찬 력사와 과수업발전의 풍부한 경험을 생동한 화면에 담아 보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이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산을 리용하여 과수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2페지)

기록영화《파수의 나라》에서는 력사적인 1961년 4월 7일 수령님께서 북청땅을 찾으시여 룡전마을에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몸소 마련하시고 국토의 80%를 차지하는 산을 잘 리용하여 과일동산으로 전변시켜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하여 제시하신 그이의 원대한 구상이 활짝 꽃핀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폭의 그림마냥 안겨온다.

수령님께서는 과수원을 늘이는것을 단순한 자연개조사업이 아니라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위대한 혁명과업으로, 우리 세대뿐아니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실정에서 주체적인 과수업발전의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계단식 과수원조성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는 과수원건설의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고 인민들과 함께 풍년묘목을 손수 심으시였다.

영화는 수령님께서 북청땅에 지펴주신 한점의 불꽃이 온 나라에 퍼져 청춘과원으로 피여난 위대한 현실을 장엄한 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

였다.

영화는 과수업의 규모가 커지고 과일생산이 하나의 복잡한 기술공정으로 전환된 새로운 환경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을 단위로 하는 종합농장경영위원회를 내오시고 과수업에서 공산주의적기업관리형태인 작업반책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시여 과수업발전에서 일대전환을 가져오게 하신데 대하여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화면은 기계군단이 기름진 땅을 가꾸며 달리는 과수의 바다, 수리화가 완성된 우리 나라에서 과수원에도 관수체계가 세워져 청청한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여 칠색무지개 곱게 비끼는 능금동산, 약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농장원들의 보람있는 일솜씨를 한폭의 그림마냥 펼쳐보이였다.

영화는 또한 전국도처에 크고 작은 과일가공공장과 저장고들을 마련하도록 하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철따라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도록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오늘의 이 행복을 영화는 높은 사상예술적화폭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이렇듯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과수업의 원대한 구상을 이땅우에 활짝 꽃피워나가는 장엄한 모습을 화폭을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일하는 무한한 행복과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과학영화《누에치기에서의 새로운 방법》; 1972년에 조선교육과학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과학영화《누에치기에서의 새로운 방법》은 우리 나라 잠업발전의 빛나는 과학성과들을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실감있게 보여주었을뿐아니라 누에치기에서 제기되는 선진적인 사육방법을 누구나 다 알기쉽게 통속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과학영화의 발전면모를 온 세상에 시위한 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비단을 더 많이 짜기 위하여 잠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뽕나무의 비배관리를 개선하여 정보마다 뽕잎수확과 고치생산량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잠림과 피마주 재배면적을 늘이고 선진적사육방법을 널리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3페지)

과학영화《누에치기에서의 새로운 방법》은 바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하시고 봉화의 불길을 지펴주신 평안남도 개천군 봉화협동농장의 잠업발전을 위한 실천적모범을 생동한 화폭속에 담고있다.

영화에서 취급하고있는 바깥가설막에서의 사육방법과 가지뽕사육방법은 누에치기에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한 새로운 사육방법이다.

영화에서는 보다 적은 노력과 뽕잎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다 더 훌륭한 누에고치를 더 많이 따낼수 있게하는가 하는 비결을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알기쉽게 해설하여주고있다.

이 영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는 직접 볼수 없는 현상들을 훌륭히 시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관중들로 하여금 더 큰 흥미를 자아내게 하였을뿐아니라 누에치기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게 하였다.

영화는 현실속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혁명의 리익에 맞게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관중들이 다 알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을 창조적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기 위한데 중심을 두고 최대의 친절성과 높은 호소성을 겸비함으로써 과학영화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한 작품이다.

그리하여 과학영화《누에치기에서의 새로운 방법》은 1972년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쏘련의 몰다비야가맹공화국의 수도 끼쉬뇨브에서《사회주의농촌경리의 과학기술적진보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진행된 국제 농업부문영화축전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인민상계관 극작품

혁명연극《혁명의 새아침》; 1969년에 천리마국립연극극장 만경대창작단에서 창조공연한 혁명연극《혁명의새아침》(4막 7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7년봄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길림으로 옮기시고 길림육문중학교를 비롯한 광범한 청년학생들을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에 결속하여 전투적인 혁명조직으로 발전시켜나가시며 광범한 지역의 군중들속에서 혁명활동을 전개하시는 과정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기념비적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작품을 통해서 혁명가의 일생이라는것이 간고한것이지만 한번 각오하면 그렇게 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50페지)

연극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신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전통교양에 크게 이바지한 혁명적작품이다.

작품의 첫부분은 수령님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니시면서 비밀리에《공산당선언》, 《자본론》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의 저작들과 혁명적문학작품을 열심히 탐독하시고 비밀리에 독서회를 조직하시여 청년학생들속에 맑스-레닌주의를 정력적으로 해설선전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연극의 다음부분에서는 수령님께서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을 광범히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명칭을 반제청년동맹으로 고치시고 여기에 각지에서 모여온 선진적청년학생들을 망라시키는 과정과 반제청년동맹과 모든 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감격적인 장면을 형상하였다.

연극의 마지막부분은 수령님께서 일제가 만주강점을 목적으로 시작한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길림시 청년학생들의 적극적인 반일시위를 조직지도하시는 장면으로 구성하고 폭넓게 그리였다.

작품은 이땅우에 혁명의 새아침을 밝혀주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과 풍모를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령활한 령도예술과 비범한 통찰력을 정연하게 부각하였다.

또한 연극은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서는 모든것을 다바치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생활적구체성속에서 감격적으로 형상하였다.

이 연극은 시종일관 열정적이면서도 무게있는 흐름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생동하게 재현한 특출한 성과작이다.

혁명연극《혁명의 새아침》은 그의 높은 사상성과 예술적성과로 하여 1972년 4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수여받았다.

혁명연극《푸른 소나무》; 인민상계관작품인 혁명연극《푸른 소나무》(전 8장, 천리마국립연극극장 만경대창작단 창조공연)는 자기의 전생애를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한 투쟁에다 바쳐싸우신 열렬한 애국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형상한 또 하나의 기

념비적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며 혁명을 위하여 몸바칠 결심을 한 사람이다, 언제나 당과 인민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할것이다, 나 개인이 하나 죽는것은 아까울것 없다, 비록 육체적생명은 죽는다고 하여도 정치적생명만은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혁명적신조만 가지면 어떤 곤난도 이겨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20~421페지)

연극에서는 오직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과정의 투쟁모습을 거창한 력사적흐름속에서 폭넓고 웅심깊게 형상하였다.

연극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인 1910년대하반기의 준엄한 력사적시기에 조국광복에 대한 2천만동포들의 절박한 념원을 하루속히 실현할데 대한 숭고한 뜻을 품으시고 당시 애국적독립운동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조선반일민족해방운동을 올바른 길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진두에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승리에로 조직지도하신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 김선생님의 정력적인 투쟁모습과 불굴의 혁명정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고상한 풍모를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선생님께서는 이겨내기 어려운 시련을 겪으셨지만 그 어느 한 순간도 동요와 주저를 몰랐고 혁명적지조를 지키시였으며 투쟁을 멈추지 않으셨다. 감옥에서 출옥하신 선생님께서는 옥중에서 받으신 상처와 쇠약해지신 몸을 추세울 사이도 없이 다시금 투쟁에 나서시는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혁명활동을 전개하시기 위하여 국경연안일대에 혁명투쟁의 중심을 옮기기로 결심하시고 눈보라를 맞받아 거연히 길을 떠나신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피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선생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노래에는 그이의 불굴의 의지와 신념이 그대로 담겨져있는것이다.

뿐아니라 연극에는 대대로 봉건통치배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워온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부모님으로부터 혁명적교양을 받으시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키우신 금성동지의 슬기로운 모습이 생동한 형상속에 빛나고있다. 그리고 연극에서는 오로지 한평생을 불굴의 혁명가의 안해로서 남편 김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충심으로 도우시였으며 자신이 또한 열렬한 혁명투사로서 조국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우셨고 금성동지를 불굴의 혁명투사로 키우신 강녀사의 숭고한 형상이 우렷히 안겨오고있다.

연극은 투사의 전형을 빛나게 형상하였을뿐아니라 당대사회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시대적화폭속에서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작품은 극중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빛나는 형상으로 보나 극에서 전개되는 력사적사건들의 거대한 의의로 보나 그의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우리의 당적문학예술이 거둔 또 하나의 특출한 성과작이다.

이처럼 연극에 형상된 김선생님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여주고있다.

혁명연극《우리의 어머니》; 인민상계관작품인 혁명연극《우리의 어머니》(서막, 4막 6장, 사회안전부 붉은기연극단 창조공연)는 우리 인민들에게 혁명투쟁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혁명적정열을 북돋아주는 혁명적문예작품창작에서 거둔 또 하나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리상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사람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53페지)

연극에서는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리상을 지니고 견결히 싸우신 열렬한 녀성혁명가, 공산주의투사이시며 위대한 혁명가의 어머니이시며 조선의 어머니로서의 형상을 다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연극은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던 1920년대말~1930년대초의 복잡하고 첨예한 사회력사적환경을 폭넓게 재현하면서 그속에서 조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준비하시는 자제분인 금성동지의 혁명사업을 도우시며 열렬한 공산주의녀성혁명투사로서, 조선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정력적으로 투쟁하시는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의 끝없이 숭엄한 정신세계와 고결한 풍모를 심오하게 밝히고있다.

연극에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금성동지께서 일제의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이 날로 우심해지고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과 좌경모험주의적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던 복잡하고 준엄한 정황속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할데 대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히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소 무장투쟁을 정력적으로 준비해나가시는 독창적이며 창조적인 혁명로정을 그 중심에 줄기차게 심화하고 관통시키고있다. 그러면서 이 거창한 력사적거류의 한복판에서 보람찬 혁명위업에 몸바쳐 슬기롭게 투쟁하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시대적인 기백과 력사적인 구체적화폭으로 펼쳐보이였다.

우리는 이 연극에 묘사된 력사적사건들과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뒤엉킨 당시의 사회관계를 집약된 극중인물들의 관계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있는 그들의 참신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고 그것이 어떻게 싹이 트고 힘차게 솟아오르게 되였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며 숭고한 혁명위업에 바쳐진 어머니의 드높은 정신세계의 아름답고 고결한 인간풍모 등에 깊이 머리숙이며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북받쳐오르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금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투쟁방침을 실현하는데 몸바쳐 싸우신 어머니의 형상에서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의한 의지, 혁명적락관주의 등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어머니의 형상에서는 혁명투사로서의 이러한 숭고한 사상의지, 정서적특질이 전면적으로 체현되고있을뿐아니라 혁명의 지도자로서의 능숙하고 세련된 솜씨와 통찰력이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이와 함께 매우 정력적이며 비상히 강한 전개력과 관찰력을 가지고있으며 대담하고 견결하며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혁명가적기질이 또한 풍부하게 발현되고있는것이다.

창조집단은 연출, 연기, 무대미술 등 무대형상창조의 모든 요소들에서 당대의 력사적구체성속에서 시대의 생활의 진실이 가득한 사실주의적무대형상을 생동하고 실감있게 그려였으며

사상성과 예술성, 정치성과 인간성이 깊고 튼튼하게 결합된 훌륭한 형상적 화폭을 펼쳐보이였다.

이처럼 연극은 우리의 모든 녀성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살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위대하고 완벽한 본보기로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뿌리를 더욱 깊이 인식시키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연극《연풍호》; 천리마남포연극단에서 창조한 인민상계관작품인 연극《연풍호》(6장, 종장)는 1970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경축 전국예술축전(연극부문)에 참가하여 영예의 1등상을 받은 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380페지)

연극《연풍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직후부터 열두삼천리벌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사회주의농촌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심려하여오신 감동적인 사실을 진실하고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인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작품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연극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으며 창조집단을 고무격려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연풍저수지가 어떻게 건설되였는가 하는것만가지고도 소설을 훌륭히 쓸수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 저수지는 거의 10만정보의 논에 생명수를 보내고있으며 거기에서 해마다 풍년을 가져오게 하고있다고 하시였으며 이렇게 세세년년 련이어 풍년이 들게 한다고 하여 그 저수지를 연풍저수지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내용의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의 모든 혁명적작품들이 그러한것처럼 연극《연풍호》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제시하신 창작방향과 방도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창조되였다.

연극은 일제의 멸망을 앞둔 1940년경부터 시작하여 전후복구건설시기까지의 비교적 긴 력사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수천년동안 물이 없어 메말랐던 열두삼천리벌이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에 와서 비로소 생명수 흘러넘치는 곡창지대로 전변된 과정을 심오한 극적형상속에 일반화하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수리화구상이 빛나게 실현된 우리 나라 농촌의 새 력사를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극은 남동마을의 강영민일가를 비롯한 농민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농촌기술혁명의 첫째가는 과업인 우리 당 수리화정책이 실현되는 로정을 혁명의 각이한 단계들에 있었던 계급투쟁의 심각하고 다양한 내용들과의 내적련관속에서 집중적으로 재현하였다.

이 연극이 거둔 성과중에서 첫자리에 놓이는것은 실지있은 력사적사실들에 충실히 의거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풍모와 고매한 덕성을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훌륭하게 구현한 점이다.

연극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덕성을 최대한으로 진실하게 형상하면서 그것을 남동마을 인민들의 생활력사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다. 그리하여 연극은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사랑을 떠나서는 남동마을 농민들의 운명과 새 력사에 대해서 말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밝힐수 있었다.

연극《연풍호》가 거둔 성과의 다른 하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충실성과 흠모의 정을 진실하게 형상한 점이다.

또한 연극《연풍호》의 창조집단은 혁명과 건설의 각이한 단계들을 담으면서 그 과정에 있었던 중요한 계급투쟁의 내용들을 사실주의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작품의 로동계급적선을 뚜렷이 세웠다.

이처럼 연극은 우리 후대들을 연풍호에 깃든 이야기를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으로 교양하는데서 의의가 있을뿐아니라 그들을 지주, 자본가제도의 본질을 깊이 인식시키며 계급적원쑤들을 미워하고 착취받고 억압받던 과거를 잊지 않도록 교양하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연극《연풍호》는 사상성과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그리고 력사적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충실성으로 하여 우리 연극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성과작이다.

연극《붉은 선동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8년 1월 11일교시에서 문학예술이 생활을 다양하고 진실하게 반영하며 사람들의 혁명화과정, 혁명적개조과정을 묘사해야 할 필요성과 의의를 강조하시면서 사람들의 혁명화과정을 잘 그린 모범적인 작품의 하나로서 연극《붉은 선동원》을 례로 드시였다.

연극《붉은 선동원》(7장)은 1961년에 천리마국립연극극장에서 창조공연한 작품이다.

연극은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을 심오한 극적형상속에서 밝힌 작품이다.

연극은 어느한 농촌의 작업반 선동원인 리선자가 수령님의 청산리교시를 접하고 작업반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선자는 괴벽한 성미를 가진 복선아주머니의 생활을 진심으로 돌봐줌으로써 일에 주인답게 나서게 한다. 뿐아니라 선자는 큰물에 터진보뚝을 혼자 몸으로 막는 희생성을 발휘함으로써 건달부리기 좋아하던 관필이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게 한다. 마감으로 선자는 지난날 중농이였으며 일은 걸치레로 하면서도 로력점수에만 눈을 밝히는 관필의 아버지 진오령감을 개조한다.

연극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며 높은 알곡수확을 담보하는 결정적고리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사람들을《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는데 있다는 우리 당의 사상을 깊이있게 반영하였다.

작품은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기풍을 가진 사람들을 이신작칙과 긍정적모범으로 감화교양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훌륭히 구현하였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참을성있게 진심으로 한다면 계급적원쑤가 아닌이상 장사군도, 건달군도, 중농도 능히 다 개조할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정확히 밝히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기에 출연하는 동무들은 모두다 농촌에 나가서 반년이나 농민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일상생활도 같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현실속에 들어가서 농민들의 생활을 연구하고 농촌생활을 자기들의 연극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이 작품은 성공하였습니다. 이 연극에서 리신자나 작업반장의 역을 맡은 동무들은 연극의 실지주인공들과 직접 같이 다니면서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였기때문에 그들은 무대에서 하나도 어색한 점이 없이 실감있게 행동할수 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265페지)

이 작품은 희곡, 연출, 연기, 무대

미술 기타 모든 측면에 걸쳐 생활적진실성으로 충만되였는바 이것은 창조집단이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투쟁하는 로동자, 농민들과 같은 심정으로 현실을 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이다.

이 작품은 외국무대들에서도 재창조되여 절찬을 받았으며 예술영화로도 훌륭히 각색되여 국내외에서 널리 상영되고있다. 이 연극은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196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받았다.

연극《해바라기》; 1960년에 창조된 연극《해바라기》(4막 6장)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 김순실이 위만군 한개중대를 항일의 길로 이끄는 과정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역경에 놓이더라도 혁명가의 절개를 지키고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을 다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심오한 극적형상속에서 밝힌 작품이다.

작품의 주인공 순실은 진실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으로서 반혁명의 소굴에서 공산주의사상의 씨를 뿌려 혁명의 거세찬 바람을 일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사상정신적위력을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그의 행동의 밑바탕에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직성이 확고히 놓여있다.

이 작품의 사건체계는 일제침략자를 대변한 야마다의 휘하에서 민족개량주의의 길을 추구하고있는 방진동과 공산주의자 순실과의 극적관계가 보다 정면에 묘사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위만군병사들을 항일의 길로 이끌려는 주인공의 행동선과 그를 귀순시키는 일을 직접 맡아나선 방진동의 행동선간의 충돌을 반영하는것이다.

연극은 바람따라 돛을 올리는 방진동의 노예적굴종과 민족개량의 사상이 순실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여지없이 분쇄되며 나아가서 진동이 심각한 심리적갈등속에서 모대기던끝에 결국 주인공의 공산주의의 붉은 사상에 감화되는 과정을 심오히 보여주었다.

작품은 생활의 론리와 진실에 기초한 극적정황속에서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와 심리육체적행동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정확히 구현하였다.

연극은 중앙과 지방의 수많은 예술단체에서 창조공연되였으며 영화로도 각색되였다.

연극《해바라기》의 2부인《태양의 딸》도 명작으로 창조되였다.

연극《해바라기》와《태양의 딸》은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에서 달성한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수여받았다.

음악무용서사시《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1958년 9월 9일 공화국창건 열돐을 기념하여 처음 창조공연되고 1968년 9월 9일 공화국창건스무돐과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여서는 장면과 내용이 더 풍부화되여 다시 창조공연된 음악무용서사시《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로동당시대가 낳은 독창적인 예술형식으로 감명깊게 형상한 대서사시적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뿐만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적생활을 보장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은 공화국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화국기발아래 굳게 뭉쳐 간고한 혁명투쟁과 위대한 건설사업을 진행하여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135페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은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정권과 인민무력을 창건하시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거연히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우리 인민이 삼가 드리는 다함없는 충성의 송가이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경축하여 공연된 작품은 1.광명을 찾는 사람들, 2.혁명을 위하여, 3.새아침은 밝아왔다, 4.사회주의조국의 방위를 위하여, 5.주체사상의 홰불을 들고, 6.싸우는 남녘의 형제들, 7.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8.반제반미투쟁의 기치아래, 서곡과 종곡으로 장면을 구성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력사를 년대기적으로 형상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 조국의 해방과 민주개혁,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 대진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 투쟁,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과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높이 세계혁명적인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장엄한 투쟁 등 혁명발전의 매 시기에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위대한 승리를 노래와 무용, 합창과 무용, 무용과 노래, 무용시, 무용 등 예술형식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작품의 매개 장면들은 사상예술적으로 완결된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호상대조와 발전의 원칙에 따라 전체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천명하는데 훌륭히 복종되였다. 매 장면들의 음악과 무용은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해방후 찬란히 개화발전된 음악과 무용의 제반 성과들을 집대성하였다.

음악무용서사시《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은 그가 거둔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1960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받았으며 오늘 세계무대예술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음악무용서사시극《고난의 행군》; 1973년에 창조된 인민상계관작품인 음악무용서사시극《고난의 행군》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1938년말부터 1939년봄에 걸치는《고난의 행군》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그린 성과작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항일빨찌산투쟁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적지않게 내놓았습니다. 항일유격투쟁이 우리 혁명운동의 뿌리인것만큼 이것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것을 계속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45페지)

작품은 몸소 고난의 앞장에 서신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붉은기 높이 들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가장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의 전과정에 대한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폭넓게 펼쳐보임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전통교양에 크게 이바지한 혁명적작품이다.

음악무용서사시극《고난의 행군》은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고난의 행군》에서 어떻게 승리할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그것은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천재적인 전략전술, 대원들과 인민들에 대한 어버이사랑 그리고 수령님에 대한 대원들과 인민들의 끝없는 충성심에 있었다는것

을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작품은 수령님의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과 그 빛나는 생활력을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일제 원쑤를 계속족치는 장면들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굳게 안겨주어 그들을 반일투쟁에 힘차게 조직동원하는 장면들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하였다.

작품은 또한 사령관동지의 어버이사랑을 주인공들의 운명을 통하여 구체화하였으며 다양하고도 풍부한 형상을 통하여 일반화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바로 그이께서 심어주신 위대한 혁명사상과 함께 대원들의 심장속에서 높이 고동치며 백절불굴의 투지를 낳게 하였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음악무용서사시극에 나오는 절가와 방창은 주인공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펼쳐보이며 작품의 주제사상을 힘있게 부각하고있다.

소덕수동판에서 5월의 명절을 축하하여《녀성해방가》의 곡조에 맞추어 춤추는 녀대원들의 혁명적률동, 꼬마나팔수를 선두로 한 아동단원들의 생기발랄한 춤, 5호물동을 건너 녀대원들이 진달래꽃을 손에 들고 조국산천을 둘러보며 감격에 겨워 춤추는 장면 등 무용은 혁명전사들의 전투적인 사상감정을 선명하게 형상하고있다.

음악무용서사시극《고난의 행군》에서의 무대미술은 그 립체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참으로 훌륭하다.

배역들의 연기와 노래들도 훌륭하다.

작품은 그의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근로자들에게 더 깊이 체득시키며 오늘 우리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촉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성과작이다.

장막시극《보통강의 서사시》; 평양영화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창조한 인민상계관작품 장막시극《보통강의 서사시》(서장과 종장까지 12장면으로 구성)는 보통강반의 세기적변혁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을 형상한 새로운 형식의 대작이다.

작품은 그 사상주제적내용의 심오성과 예술적형상의 완벽성으로 하여 그리고 긴 력사적시기를 포괄하는 방대하고도 다양한 생활내용을 집약화하여 생동하게 반영한 새로운 무대극형식의 개척으로 하여 우리 나라 무대예술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혁신적의의를 가지는 성과작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인공은 쾌활하고 락천적이며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전형적인 새 인간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사람이 끊임없는 노력과 수양으로, 헌신적로동의 시련을 거쳐 마침내 성공하고야 마는 그런 생활과정을 잘 그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575페지)

시극은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관철하는 자랑찬 투쟁과정에서 이룩한 빛나는 결실이다.

수령님께서는 친히 이 작품을 보시고 내용이 좋고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방대한 력사적사실을 집약화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형식의 대작으로서 현실맛이 더 있고 흐름이 중단되지않아 좋으며 전 과정을 긴장해서 볼수있게 했으며 영화를 보는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형식으로 작품을 많이 만들어 근로자들을 더 잘 교양할데 대한 내용의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장막시극《보통강의 서사시》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의 가장 주되는것은 바로 보통강의 전변의 력사를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의 력사로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력사로 웅심깊게 형상함으로써 조선혁명발전의 본질적과정을 력사적구체성속에서 진실하게 밝히였으며 그것을 통하여 보통강의 전변뿐아니라 이땅우에 이룩된 세기적변혁들 그리고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행복과 번영이 오직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숭고한 덕성에 의하여 이룩되였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한데있다.

시극은 보통강반 전변의 력사적과정을 일제통치시기와 오늘과의 대비적묘사와 극중인물들의 운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주의적묘사를 통하여 치렬한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펼쳐보이면서 그것은 오직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 그이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에 의하여 이룩되였다는것을 풍부하고도 심오한 형상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밝히였다.

다음으로 작품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극중인물들의 운명을 통하여 더욱 구체화하고 수령님께 충직한 긍정적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력사를 심오히 일반화한것이다.

시극이 그처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격동시키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이 광춘오누이의 운명선과 밀접히 맞물려 구체적인 예술적화폭으로 천명되고 있는데있다.

시극에서 주창자는 주인공과의 관계를 연극에서의 직접적인 대사교제형태와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그의 상대역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시극의 이러한 사상예술적성과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의 위대성과 그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으며 당의 문학예술후비가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음을 뚜렷이 과시해주었다.

음악무용극《밝은 태양아래》; 1962년에 국립예술극장에서 창조한 인민상계관작품인 음악무용극《밝은 태양아래》는 서경, 8경, 종곡으로 구성된 영웅서사시적인 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밝은 태양아래〉라는 작품은 좋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투쟁뿐만아니라 오늘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이 잘 반영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501페지)

음악무용극《밝은 태양아래》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에서와 사회주의건설장에서의 주인공 박영진의 투쟁모습을 통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로력적위훈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형상하였다.

박영진은 1936년 8월 추석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조국광복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웠다.

영진은 일제와 싸우던 그 기세로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발전소 지배인으로 헌신분투한다. 영진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물속에 뛰여들어 위험에 빠졌던 언제를 구원한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서 발전소건설에 참가하고있는 딸 은순이를 20년만에 만난다.

이 작품은 수령님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이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기상으로 되고 그것이 실생활에서 위대한 힘을 낳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창조적성과를 달성하고있다는것을 음악과 무용의 서사시적화폭으로 훌륭히 재현하였다.

주인공 박영진은 조선혁명의 력사와 더불어 성장하여온 혁명가이며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이다.

작품에 담긴 심오한 사상예술적내용은 다양한 음악형식과 풍부한 무용률동들이 유기적으로·결합된 새로운 혁신적인 예술형식을 통하여 잘 부각되

고있다. 음악부문에서는 혁명가요나 민요 및 현대가요에 흐르고있는 다양한 성격의 음조를 토대로 하여 그것을 작품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였다.

작품에서는 음악과 함께 풍부한 무용률동과 다양한 군상의 형상수단들을 극적정황에 맞게 적절히 배합하였다.

음악무용극《밝은 태양아래》는 작품에 체현된 심오한 교양적의의와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196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받았다.

무용극《붉은 기발》; 서막과 4막 7장으로 구성된 이 무용극은 1962년에 평양예술대학에서 창조공연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령님께서 주신 지하공작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싸운 최병훈의 영웅적투쟁과 그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혁명조직으로부터 놈들의 비밀을 탐지하라는 혁명임무를 받은 그는 놈들의 《구장》으로 활동하면서 비밀지하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마을사람들의 반일투쟁을 뒤에서 돕는다.

그는 자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마을사람들과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자기의 본심을 숨김으로써 그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오직 장군님께 무한히 충직한 일념으로 불타고있는 그는 굳센 혁명적의지로 이 모든것을 극복하며 드디여 조선인민혁명군과 이미 약속된 범골로 일제침략군을 유인한다. 적에게 자기의 정체가 폭로된 위급한 순간에 최병훈은 비장한 결심을 품고 붉은 기발로 인민혁명군에 신호한다. 당황망조한 일본군지휘관놈들은 그를 쏜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원쑤놈들은 모조리 소멸된다.

이렇듯 작품은 평범한 농민으로부터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성장한 최병훈의 투쟁모습과 고상한 내면세계를 풍부한 표현수단을 통하여 훌륭히 형상하였다. 작품에서는 우리 나라 민족무용의 다양한 률동들과 형상수법을 주인공의 성격창조와 극적정황에 맞게 새롭게 적용하였다.

최병훈의 결의춤과 리별을 앞두고 지나간 반생을 더듬는 회상무와 그리고 진퇴량난에 빠진 일본군의 추태를 보여주는 상징무를 비롯하여 최병훈과 복순의 쌍무들은 개성적인 무용률동으로 작품의 주제사상을 나타내는데 복종되고있다. 또한 복순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데서 서로 상반되는 두 춤—마을처녀들의 춤과 복순의 춤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조적수법을 능동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사자춤과 같은 민족무용을 극적계기에 맞게 삽입함으로써 민족적색채를 더욱 강조하였다.

무용극《붉은 기발》은 작품에 체현된 높은 예술적성과로 하여 196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받았다.

인민상계관 영화작품

천연색기록영화 《공화국기치만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요즘 영화, 연극 예술부문에서는 많은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영화예술의 성과가 큽니다. 지난해에 나온 영화들가운데는 좋은 작품이 적지 않습니다.

…기록영화〈공화국기치만세〉도 아주 잘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42페지)

수령님께서는 우리 예술부문 특히 영화예술에서 달성한 일반적성과를 지적하시면서 장편천연색기록영화《공화국기치만세》(1,2부, 1963~1964년 조선기록영화촬영소제작)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 영화는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서 간고하면서도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전후10여년간의 자랑찬 건설과 변혁의 로정을 대서사시적화폭속에 폭넓게 개괄하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혁명업적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구가함으로써 천리마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다시한번 온세계에 과시한 기념비적작품의 하나이다.

영화의 제1부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승리의 력사적로정을 폭넓게 개괄하였으며 제2부는 공화국창건 열다섯돐경축 평양시군중대회와 대집단체조《천리마조선》을 보여주면서 다시한번 제1부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부각한 서사시적송가이다.

제1부에서는 평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주요도시들과 농촌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준다음 전쟁이 끝난직후의 페허로 된 도시와 마을이 어떻게 새로 일떠서게 되였는가를 력사적구체성속에서 보여준다.

영화는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전국각지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키는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이다. 그이께서는 정전후 사흘만에 황철의 용해공들을 찾으시고 제철소를 더욱 웅장하게 복구건설할 래일을 설계하시였고 이름없는 산간마을과 어촌에 오시여 인민들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의논하시였다.

그이께서 다녀가신곳마다에서는 그 어디를 물론하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났다.

영화는 여기에서 위대한 변혁의 화폭들과 함께 전쟁에 심한 상처를 입은 옛모습들을 다시한번 반복하여 보여줌으로써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이땅우에 무엇을 이루어놓았는가를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영화의 제2부는 공화국창건 열다섯돐을 경축하는 격동적인 무력시위와 대군중시위를 비롯한 평양시기념행사를 통하여 공화국기치밑에 15년간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업적과 함께 보다 더 휘황한 래일에로 뻗은 조국의 전망을 감회깊게 펼쳐보이였다.

영화에서는 방대한 생활내용을 포괄하고있는 주제적과제를 실현함에 있어서 서사시적인 구성체계를 폭이 넓으면서도 심오하게 구사하였으며 또한 력사적인 생활소재들을 작품전반에서 예리하게 대비함으로써 강한 정론적호소성을 힘있게 체현하였다.

영화는 그의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1964년 8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수여받았다.

예술영화《분계선마을에서》; 1961년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예술영화《분계선마을에서》는 같은 제목의 연극을 영화적특성을 살리면서 훌륭하게 재현한 영화로써 우리 나라 예술영화발전사상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의의있는 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영화의 주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업반장으로 기여든 간첩놈이 열성적으로 나오려는 월남자가족을〈네가 암만 죽도록 애를 써도 별수 없다.〉고 하면서 동요시키려다가 폭로되고맙니다. 우리의 립장은 전쟁때에 미국놈들에게 강제로 끌리여갔거나 속아서 나간 월남자가족들을 적극 포섭하고 쟁취하자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319페지)

이 영화는 월남자가족인 주인공 성례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 군중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밝힌 작품이다.

항상 당을 믿고 당이 시키는대로 일

하며 살려는 성실한 성례에게는 남편이 전쟁때에 미국놈들의 강압으로 남반부에 끌려간것으로인한 고민이 있다. 이 고민은 작업반장으로 기여든 간첩 승진의 모략책동으로 더욱 커진다. 그러나 성례는 당위원장 덕례의 따뜻하고 원칙적인 충고와 방조를 받으면서 굴하지 않고 자기의 계급적립장을 지키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굳세게 살아나간다.

우리 당의 옳바른 군중로선과 그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예술적형상은 성례를 일깨워주고 떠밀어주는 당위원장의 형상을 통하여 훌륭하게 밝혀지고있다.

원쑤놈들의 책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비난과 모해로 감당키 어려운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진심으로 당을 믿고 남편을 맞을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해 자기가 나아갈길이 어느길인가를 깨닫게되는 성례의 성격발전과정을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묘사하였다.

성례의 성격발전에서 절정을 이루는 장면은 자기를 찾아온 남편에게 자수를 권고하는 환상편집으로 처리한 꿈장면이다.

영화는 생활의 진실을 깊이 파고들어가면서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훌륭히 부각하였다.

특히 영화는 민족적특성의 구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보여주었다. 성례와 덕례 등의 전생활과정은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성격과 천리마시대에 와서 새롭게 발전된 풍모들의 조화로운 융합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자연풍물의 상징적구사를 통하여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를 돋구는데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부묘사의 진실성과 심오성에 있어서도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영화는 아주 평범한 사실을 가지고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 때 그것은 참으로 우수한 예술작품이 될수 있다는 미학상의 진리를 영화화폭속에 훌륭히 구현한 특출한 작품이다.

영화는 그의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1962년 2월 2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수여받았다.

예술영화《정 방 공》;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1963년에 제작한 예술영화《정방공》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우리 근로자들의 락천적기백으로 충만되여있는 성과작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천리마시대 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들의 희망과 념원을 뚜렷이 나타내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572페지)

예술영화《정방공》은 일제시기에 고용로동살이의 천대속에서 시달리던 주인공 옥림이가 천리마작업반의 선구자, 큰 공장의 지배인, 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두터운 배려 그리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일제시기 머슴군으로 살아온 옥림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동생을 생리별하고 방직공장에 팔려가 고된 로동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여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자란다. 전쟁시기 한몸바쳐 전시생산을 보장하며 전후에 다기대운동의 선구자로, 인간개조자로 성장하여 나중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받고 유권자들과의 상봉모임을 가지는 날 일제때 생리별했던 동생 정림이와 감격적으로 만난다.

영화의 주인공 옥림이는 천리마시대의 빛나는 전형으로 형상되였으며 사회주의하에서의 로동계급의 생활과 공산주의적풍모를 잘 반영하였다. 옥림을 비롯한 천리마기수들은 집단과 동지를 사랑하며 서로 이끌면서 나아가는 집단적혁신운동의 선구자들이며 진정한 인간개조자들로 형상되였다.

혁명적기백으로 충만된 이 영화의 노래들은 영화의 주제사상적과제를 천명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였으며 배우들의 연기는 소박하고 생동하고 진실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영화에서는 옥림이의 성장과정을 순차적으로 라렬한것이 아니라 회상수법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교차적인 구성형식을 취함으로써 생활내용을 극적으로 집약화하고 과거와 오늘의 대비를 통하여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깊이있게 파고들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중요한 형상적특징이다.

영화는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1964년 3월 28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상을 수여받았다.

예술영화《유격대의 오형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1969년에 제작한 예술영화《유격대의 오형제》(1,2 3부)는 혁명전통주제의 영화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빛나는 성과작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오래동안 간고한 투쟁을 전개한 공산주의투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그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으로 우리 세대의 인민을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계속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68년 2월 13일 예술영화《유격대의 오형제》의 초판인 《형제들》을 보시고 작품의 긍정적주인공들의 성장과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을 풍부한 생활을 통하여 진실하게 추구하며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구생활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묘사하며 작품의 구성과 엮음새를 혁명적대작의 요구에 맞게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1968년 8월 29일 수정판《형제들》(1부)를 보시고 하신 교시에서 형제라는 제목이 너무 크므로 《유격대의 오형제》라고 작품의 제목을 고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영화일군들에게 확고한 신념과 커다란 창조적열정을 안겨주심으로 하여 영화《유격대의 오형제》는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예술적창조물로 세상사람들의 높은 평을 받게 되였다.

이 영화의 첫째가는 성과는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 그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천명한데 있다.

이 영화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그이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은 줄기차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었으며 그이께서 계시는 한 조선혁명은 언제나 승리하며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최고의 의무이며 가장 큰 행복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작품의 전체 형상에 일관되여있는 이 문제는 영화에 나오는 준하에 의하여 제기되였고 그자신의 영웅적투쟁과 준혁일가의 영웅적투쟁에서 심화발전되였다.

영화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의 다른 하나는 바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자들의 빛나는 예술적형상을 창조한데 있다. 투사의 성격을 준혁, 준민, 준호, 준식 등 유격근거지청년들의 성격장성과 세계관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심오히 밝혀내였다.

이 영화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충직성이 공산주의적인간성격의 최고의 미로 된다는것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뚜렷이 확인하였다.

또한 예술적형상에서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예술적통일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성과적으로 실현한 대표적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투쟁과 생활은 두개의 형상적방법으로 통일되였다.

실로 이 영화는 혁명적대작의 요구를 훌륭하게 실현한 하나의 본보기로 된다.

이 작품이 혁명적대작으로 되는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혁명의 지향이 무엇이며 그 지향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어떻게 발전하며 어떻게 승리적으로 실현되는가 하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심오하게 천명한데 있으며 항일무장투쟁시기 가장 의의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의 확대발전과 함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혁명가—투사로 발전하여나가는가 하는것을 웅심깊게 보여준데있다.

이 영화의 매개 부분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극적구조의 측면에서, 영화적 일반화의 측면에서 완전히 유기적련관을 이루고있다. 이것은 이 영화가 다부작구성에서 매개 부문들이 전일적인것으로 완전한 예술적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수령님의 교시를 실천적으로 원숙하게 해결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예술영화《유격대의 오형제》에서의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항일혁명투사—공산주의자의 영웅적형상은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 특히 혁명의 간고성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예술영화《꽃피는마을》; 1970년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만든 예술영화《꽃피는 마을》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에서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문제를 주제로 설정하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사회생활의 세포를 이루는 가정의 혁명화문제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수령님의 교시의 정당성을 형상적으로 밝혀냄으로써 특출한 성과를 거둔 훌륭한 작품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48폐지)

예술영화《꽃피는 마을》에서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협동화가 완성되여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가 확립된 이후시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장애로 되는 개인주의, 리기주의의 낡은 사상은 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며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는가 하는것을 주인공 병철을 비롯한 각이한 인간성격들의 진실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영화에 나오는 영삼로인이 가지고있는 낡은 사상은 협동농장의 일과 내일을 가르며 협동농장의 공동경리와 사적소유를 가르는데서 표현되며 그의 아들 병기의 낡은 사상은 도시에 가서 《화려한 생활》을 하려는 생각에 들떠 로동과 조직생활을 달가워하지 않는데서 표현된다. 작품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농촌에서의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을 각이한 극적정황과 사건, 영삼아바이와 병기의 서로 다른 행동선을 통하여 예리하게 밝히였다.

영화의 주인공 병철에게 있어서 영삼은 아버지였으며 병기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였다. 아버지와 동생을 기어코 개조하리라 결심한 병철은 아버지라고해서 그에게 맹종맹동하지 않으며 동생이라고 해서 어루만지기만 하지않는다. 병철은 아버지에 대한 원칙적인 충고와 해설과 설복으로 농장과 사회사업에 발벗고나서게 하며 민청위원장 숙희의 원칙적태도와 병철의 꾸준한 교양에 의하여 병기를 적극분자의 대렬에 들어서게 한다.

영화는 부모형제들간에도 잘못을 진심으로 깨우쳐주며 서로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나설 때 그것은 비록 일시적으로 괴로울수 있으나 심각한 사상교양과 비판, 투쟁, 개조 과정을 통하여 가정의 모든 성원들이 다같이 수령님께 충실하게 되고 자기 혁명과업수행에 모범이 되며 동지와 집단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것이며 그럴 때에야말로 한 가정은 진정한 혁명가의 행복한 집단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이 영화의 사상예술적성과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사상투쟁이 어디까지나 인민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한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의 계급관계와 근로자들내부에 존재하는 낡은 사상과의 투쟁의 목적에 맞게 영화적형상을 창조한것이다. 긍정과 부정의 갈등문제, 긍정에 의한 부정의 감화교양문제 등 모든 형상은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관계의 새로운 특징과 사상투쟁의 요구에 맞게 처리한 성과작의 하나이다.

예술영화《로동가정》;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1972년에 제작한 인민상계관작품 예술영화《로동가정》은 지금까지 창조된 로동계급형상물과 구별되는 그야말로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이며 참으로 로동계급의 예술에 상응한 품격을 가진 혁명적걸작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생활은 새 사회를 더 빨리 건설하려는 근로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락천적인 정열로 들끓고있으며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집단주의적도덕이 구현된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차있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이 보람찬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서 훌륭한 문예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대중을 혁명위업에로 고무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폐지)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수령님의 이 교시를 높이 받들고 예술영화《로동가정》에서 사회혁명화의 문제를 옳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대중을 혁명위업에로 고무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영화를 보시고 주신 교시에서 영화가 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영화에서는 로동계급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시대적과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미학사상의 진수를 깨우쳐주시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훌륭히 구현하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배워주시는 당중앙의 가르치심과 지도를 받은데서 얻어진것이다.

영화가 걸작으로 되게 된 근거는 첫째로, 로동계급주제에서의 새로운 문제성의 구현과 로동계급형상에서의 높은 전형에 있다. 그것은 예술영화《로동가정》이 그 주제설정에서 로동의 주제와 사회혁명화의 주제를 옳게 결합한것이다.

영화는 로동에 대한 문제를 혁명화의 문제와 결합시킨점에서 혁신적일뿐 아니라 로동계급의 창조적로동을 전형화함에 있어서도 로동생활자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르게 해석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하나의 사상미학적원칙으로 견지한것으로하여 모범적이다.

영화에서 오랜 로동계급인 할아버지 춘보와 아버지 광록의 형상들은 바로 이러한 사상미학적원칙에서 성격화됨으로써 로동에 성실한 로동계급의 전형으로 훌륭히 그려졌다.

오늘 이 영화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나라 명산물, 특산물 (2)

강동왕대추; 강동왕대추는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추이다. 승호왕대추, 황주왕대추를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강동왕대추에 입맛이든 사람은 더욱 많다. 왕추, 고감대추라고도 부르는 왕대추는 알 (최고 20그람, 보통 12그람)이 크고 씨가 없으며 살이 물러 애들도 먹기 좋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확고도 높고 식생활에 리용하는 용도도 많으며 보관하기도 헐한 대추나무를 많이 심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평남도 강동군, 평양시 승호구역, 황북도 황주군내 협동농장들에서는 양지바른 산비탈이나 마을주변의 밭뚝마다에 왕대추나무들을 규모있게 심어왔다.

나무는 곧추 자라지만 가지는 땅에 닿을듯 낮추뻗는 왕대추나무들은 3~4년이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다가 15~20년부터 많이 열린다.

껍질이 붉은 밤색이 나는 왕대추는 덕동대추처럼 생과실로 먹으며 떡이나 찰밥에도 넣어먹으며 탕친도 해먹는다. 그리고 강장제와 보혈제로도 많이 쓰인다.

왕대추나무는 밀원식물로도 좋지만 마을주변과 도로주변에 심어 풍치를 조성하는데도 좋고 나무의 재질이 굳고 무늬가 치밀하여 가구를 만드는데도 쓴다.

길주배; 우리 나라의 《청단》배 (조생적), 《신의주》배(로착금)도 괜찮지만 사람들은 《해주》배와 함께 《길주》배를 더욱 일러준다.

그전에 장십랑이라고 부르던 《길주》배는 알새 (개당 250그람)가 고르로우며 단물이 많아 향기로우며 오래 저장할수 있어 겨울이나 봄철에도 신선한 과일로 인민들에게 공급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배나무가 적은 곳에 배나무들을 더 심어 배도 철따라 골고루 먹을수 있게 하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단천과수농장에서는 길주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나무도 가지도 곧추 자라는 배나무들을 규모있게 심어 백년대계의 배나무동산을 꾸려놓았다.

해마다 9월말에 따들이는《길주배》는 누런 밤색 바탕에 재빛점들이 고루 퍼져있으며 쪼개보면 살이 희고 단단하며 과실속이 큰것이 다른 배들과 다르다.

《길주》배 역시 당분(6~15.7%), 단백질(36%), 산, 회분 성분들이 많아 생과실로 공급하면서 술, 시롭, 과실즙, 통졸임, 쨤 등의 식료공업원료로도 광범히 쓰이고있다.

《길주》배는 자기 꽃가루로 수정이 잘 되지 않으므로 《청단》배, 《원평》배 등의 다른 배나무들과 섞어 심어야 열매가 잘 달린다.

개성시계 개성시계는 기계식시계에 속하는 개성지방의 특산물이다.

개성시계는 시간이 잘 맞고 고장이 적다고 평판이 좋다. 그 가지수가 많아 어느 부문에서나 쓰며 그 생산량이 높아 대중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제날 소비도시, 상업도시였던 개성시를 5천여종의 경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지대로, 전국의 시계생산모체기지로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특히 지난날 시계포수리공들이였던 사람들로 시계생산협동조합을 무어주시고 현대적인 자동화된 시계공장으로, 전국적으로 두번째로 천리마공장칭호를 수여받은 천리마조합으로 발전시켜주시였다.

그리하여 한해에 수십만개의 시계가 쏟아져 나오고있는데 그 가지수는 무려 수십종에 달한다.

흔히 쌍종벽시계, 외종벽시계, 탁상시계, 교편물시계, 특수시계들이 나온다.

쌍종벽시계에는 보통형, 창살형, 원형, 대형, 현관시계를 비롯하여 수십종이 있으며 외종벽시계에는 날자시계, 요일시계 등 여러가지 형이 있다.

그외에 높은 파도와 압력, 세찬 바람에도 끄덕하지 않고 시간을 정확히 알리는 가장 정밀한 고급형 배시계도, 세계 여러 나라의 시간을 동시에 알수 있게 하는 세계시계, 천문학계 일군들의 사업용 시계도 만든다.

오늘 개성시에서는 강계, 사리원, 평성을 비롯한 수많은 시계공장들에 시계의 주요부속품들을 생산공급해 줄뿐만아니라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여러 나라들에 수출하고있다.

6개년계획말에 개성에서만하여도 매해 20여만개 이상의 시계를 생산하게 된다.

《광포종》오리; 어버이수령님의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광포오리는 우리 인민들의 대중적고기식료품원료로 발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은 비록 고기를 먹지 못하였지만 우리 인민은 고기먹는 새 력사를 창조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이 승리한지 닷새만에 많은 제대군인들과 기술자들을 광포에 보내시면서 오리알까지 비행기에 실어보내시였으며 친히 《광포종》이라고 이름을 달아주시였다.

그리하여 갈이 우거지고 물새만 날아들던 70리 광포호수가에는 그 규모와 생산량, 기술장비로 보아 세계에서 으뜸가는 광포오리공장이 일어섰다.

털이 희고 주둥이는 노랗고 정갱이와 발가락이 감빛이 나는《광포종》오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자라 벌써 45일사이에 보통 1.8~2키로그람씩 되며 암컷은 3.5키로그람, 수컷은 4키로그람씩의 고기를 낸다.

광포오리공장에는 현대적가공설비들이 있어 오리고기가공품과 오리고기통졸임을 생산하고있다.

《광포종》오리는 5~7개월사이부터 알을 낳기 시작하여 한마리당 년간 150~160개씩 낳는다.

금강샘물 (신덕수); 평남도 온천군 신덕리에서 솟아나는 금강샘물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샘물이다. 신덕산물, 신덕수라고도 부르는 금강샘물은 산림이 울창한 신덕산골짜기에서 흘러나온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신덕산의 샘물을 가공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룡성고기가공공장에서는 신덕산샘물을 려과하여 병약수를 만들어 식료상점과 청량음료점마다에 공급하고있다.

겉보매 맑고 차고 맛이 좋은 이 샘물은 음식물을 잘 삭이고 영양물질을 잘 빨아들여 그것을 사람의 몸안에 잘 퍼지게해줌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에 대

단히 유익하다.

이 금강샘물을 정상적으로 마셔온 사람들은 소화가 잘 되고 살결이 고와지며 당대에 고혈압이나 간염, 무좀을 모를 뿐만아니라 상대적으로 지칠줄도 모르고 일한다.

이 금강샘물을 늘 마셔온 온천군 신덕리사람들은 보통 백살, 백열살 남아 살면서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고 있다.

덕동대추; 덕동대추는 우리 나라 명산과실이다. 둥근대추, 검정대추, 노란대추도 있지만 예로부터 덕동대추를 더많이 찾는다.

뚝추, 파동이라고도 부르는 덕동대추는 알(개당 9~11그람)이 크고 단단하며 (100그람당 탄수화물 24그람)뿐만아니라 오래 보관해도 영양물질의 량이 변하지 않는다.

수령님께서는 대추란 소독을 안해도 되고 로력도 얼마들지 않고 거두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은것만큼 대추나무를 많이 심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평양시 상원군, 승호구역 일대 협동농장들에서는 땅을 그다지 가리지 않으며 거름도 많이 바라지 않는 덕동대추의 특성을 리용하여 산기슭마다에 대추원을 꾸리였다.

나무껍질에 깊은 세로홈이 왼쪽으로 꼬여있어 마치 나무전체가 꼬인것처럼 보이는 덕동대추나무는 3~4년이면 연한 붉은 밤색이나는 첫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해마다 9월하순부터 따는 덕동대추는 생과실로 먹기도 좋지만 예로부터 대추떡이나 대추밥, 탕친을 해먹는데 많이 쓰이고있다.

또한 대추에는 약용성분이 많아 강장제와 보혈제의 주요 약재로 쓰인다.

6월 중순에 피는 덕동대추나무의 꽃에는 꿀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밀원식물의 하나로 삼아 많은 꿀을 얻어내고있다.

《덕성》사과; 《덕성》사과는 그전에 인도라고 불리웠는데 신맛이 적고 단맛이 많으며 알(개당 150~180그람)이 고르롭고 저장능력(5~6월)이 높아 근로자들에게 사철 공급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북청, 덕성군을 찾으시고 산경사지에 과수원을 조성할데 대하여,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에 맞게 사과나무의 모양만들기와 가지자르기를 바로 잡을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북청과수농장과 북청, 덕성군내 협동농장들에서는 어릴때에는 곧추 자라지만 여러해를 두고 크면서부터 벌어지는 《덕성》사과나무들을 산경사지마다에 계단식으로 심고 과수관리를 개선하여 풍요한 과실풍년을 앞당기였다.

해마다 10월 하순에 수확하는 《덕성》사과는 생김새가 각이하여 둥그런 사과, 납짝한 사과, 길죽한 사과들이 있는데 모두 풀색바탕에 해빛을 받는 쪽이 붉다.

《덕성》사과는 딸무렵 비교적 굳고 물이 적지만 한두달이 지나면 과일살이 연해지면서 특이한 냄새가 난다. 살은 희다.

《덕성》사과는 우리 인민들에게 생과실과 술, 통졸임, 잼, 쩨리, 시롭, 말린과실 등의 형태로 공급되며 대외시장에 많이 내보내고있다.

룡강흰복숭아; 룡강흰복숭아는 늦품종에 속하는 우리 나라 명산과실이다. 룡강흰복숭아 (개당 140~160그람)는 개성흰복숭아 (개당 120그람)에 비하여 크며 물과 단맛이 많아 흰복숭아들중에서 일러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복숭아밭을 더 많이 확장하여 더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룡강군내 협동농장들에서는 가물에 잘 견디고 토양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은 흰복숭아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이 잘 빠지는 사양토나 양토 토질에 흰복숭아밭을 많이 조성하였다.

또한 나무가 크지 않으면서도 열매가 빨리 달리는 흰복숭아의 우점을 살려 열매들이 늦게 열리는 사과나무들 사이에도 심었다.

해마다 8월에 따들이는 룡강흰복숭아는 둥굴며 흰색바탕에 배꼽부문과 해빛받는 쪽이 약간 붉은 색을 띠며 쪽이음줄이 얕다.

룡강흰복숭아는 생과실로 공급하는 외에 영양가가 높고 당분 (7.6~17.5%)들이 많은 반면에 장거리수송에 불리하므로 과일술, 과일즙, 잼 등의 여러가지 가공품들을 만드는데 리용된다.

흰복숭아나무는 크지 않고 가꾸기 쉬우며 아름답기때문에 흔히 정원과수나 원림수로 심어지고있다.

룡연닭; 룡연닭은 우리 나라에서 체질이 제일 강한 토종닭이다. 이 닭은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가장 잘 적응된 특성으로 하여 서해안의 어느 지방에서나 기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집짐승들의 품종을 개량하여 우리 나라의 풍토에 알맞는 좋은 집짐승들을 얻어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룡연군종합농장에서는 해방전에 무질서하게 짝붙임시키던 닭들을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교미시킴으로써 이 지방의 기후조건과 병해충에 잘 견디내는 룡연닭들을 얻어냈다.

룡연닭은 다른 닭들과는 달리 깃이 밤빛이나 날개끝과 꽁지깃이 검고 주둥이와 발목이 재빛이나며 암탉은 수탉과는 또한 달라 목에 검은 얼룩점이 있는것이 류다르다.

룡연닭은 6.5~7개월나이부터 알을 낳기 시작하여 1년에 평균 150개를 낳는데 평균 한알의 무게가 55~60그람 나가는 닭알이 연한 밤빛을 띤다.

고기는 한마리에서 암탉인 경우 2.2키로그람, 수탉인 경우 3키로그람씩 나온다. 고기맛이 참 좋다.

만경닭; 만경닭은 우리 나라에서 으뜸가는 알닭이다. 만경닭은 다른 닭들에 비하여 비교적 일찌기 (4~5개월경)알을 낳기 시작하여 상자안에 가두어도, 겨울에 온도만 보장하면 알을 잘 낳아 1년에 최고 365개, 평균 250개를 쉽게 받을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닭알생산을 공업화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에게 닭알을 충분히 먹이는 문제를 풀수 없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좋은 알닭인 만경닭을 마련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몸소 만경대닭공장 건설을 발기하시고 닭알생산을 공업화할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와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깃이 희고 주둥이, 정갱이, 발가락이 모두 노란 만경닭들이 평양시뿐아니라 각지의 주요도시와 로동자구들에 있는 닭알공장의 기본품종으로 널리 보급되였다.

또한 만경닭은 토종닭들보다 맛이 좀 다르지만 암탉인 경우 1.8~2키로그람, 수탉인 경우 2.2~2.5키로그람씩 나가기때문에 빨리 장성하는 닭고기수요도 보장하는데 의의가 크다.

특히 만경닭은 농촌에서 놓아 기르건, 가둬 기르건간에 관계없이 년간 200개의 닭알을 쉽게 받으므로 협동농장들과 농촌지대의 집집마다에서 닭알을 생산하는 기본품종으로 되고있다.

만수닭; 만수닭은 우리 나라에서 알도 많이 낳고 고기도 많이 내는 량손치기 닭으로 소문났다.

만수 암탉은 6~7달이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하여 년간에 한마리당 180~200개 낳을뿐아니라 3.4키로그람씩

의 고기를 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알과 고기의 겸용품종인 만수닭을 많이 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그 본보기를 통성닭공장에 꾸려주시였고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배려해주시였다.

흔히 흰닭, 얼룩닭으로 불리우는 만수닭은 이젠 어느 지방에 가나 볼수 있는데 다른 닭들에 비하여 몸집이 크고 둥굴며 정갱이가 굵고 긴것이 특징적이다.

만수닭의 병아리들은 60~70일 지나면 벌써 그 무게가 1~1.2키로그람씩 남아 나가며 수탉인 경우에는 보통 4키로그람, 최고 5키로그람까지 자랄뿐아니라 고기맛도 좋은 편이다.

만수닭의 알은 비교적 큰 (개당 65그람)데 연한 갈색이 난다.

오늘 만수닭은 닭고기공장들과 가정들에서 1대 잡종을 길러 고기생산에 흔히 리용하고있다.

백두산들쭉술; 백두산들쭉술은 이름난 술이다. 백두산들쭉술은 개성인삼주, 강계포도주, 평양태평주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술이다.

이 들쭉술은 맛 (당분 63%, 산성 1.8)이 좋고 색갈이 고운데다가 무척 향기로워 많이 찾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들쭉은 량강도의 소문난 특산물입니다. 들쭉을 잘 가공하여 술이나 시롭을 만들면 인민들의 좋은 평을 받을수 있으며 수입도 상당히 높일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586페지)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친히 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대규모 혜산들쭉가공공장을 세워주시였으며 현대적인 설비로 들쭉술을 비롯한 특산가공품들을 생산하게 하시였다.

또한 들쭉나무들이 삼지연군을 중심으로 하여 백암군, 보천군, 풍서군, 풍산군 일대에 많이 분포되여있는 사정을 헤아리시고 매년 수천톤씩의 들쭉을 따는 백두산원료사업소를 꾸려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전군중적운동으로 해마다 들쭉나무들을 심고 잘 관리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정보마다에서 평균 400여키로그람이상씩의 들쭉을 따는 원료기지를 마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략탈물로 되였던 들쭉은 오늘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들에게 백두산들쭉술을 비롯하여 수십종의 들쭉식료품들을 생산공급하는 특산원료로 발전하였다.

상원단양살구; 상원단양살구는 회령백살구와 함께 우리 나라의 명산 살구이다.

상원단양살구는 열매 (개당 60~70그람)가 크고 무척 향기로우며 속살에서 씨가 잘 떨어지고 추위와 병해충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

수령님께서는 살구는 생과실로도, 살구가공품으로 리용할뿐아니라 관리하기도 쉬우므로 많이 심으라고 가르쳐주시였다.

평양시 상원군내 협동농장들에서는 모래와 자갈이 섞인 땅에서도 잘 자라는 단양살구나무의 씨들을 심어 6~9년만에, 나무모들을 심어 3~4년만에 첫열매들을 거두었다.

해마다 6월말부터 따들이는 단양살구는 닭알모양처럼 생겼는데 연한 누런색바탕에 선홍색을 띠며 살은 연한 누런색이고 신맛이 적은 대신 달다.

단양살구는 여름 한철 생과일로 수도시민들에게 공급되고있을뿐만아니라 당분, 단백질, 지방이 적지 않게 들어있기때문에 술, 통졸임들을 만드는데 리용된다.

살구씨에는 지방이 44~57.8%정도 포함되여있으므로 기름원료로 쓸수 있으며 특히 아미그다린이란 성분이 들어있어 행인유나 주사약을 만든다.

특히 단양살구나무를 비롯한 살구나무들은 일찌기 꽃 (4월)이 피고 열매가 달리며 잎이 무성하기때문에 도시와 농촌을 록화하는 원림수로, 정원과수로 많이 심는다.

숙천오류; 숙천오류는 평남도특산 과일이다. 우리 나라에 있는 어랑추리, 사과추리 등 10여종의 추리들이 다 좋지만 오류는 알세가 고르롭고 물과 단맛이 많아 자연히 물망에 오른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올과실과 늦과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심을것을 강조하시면서 로력과 농약이 적게 드는 살구, 단벚, 추리 등을 많이 심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숙천과수농장과 문덕, 숙천, 평원군내 협동농장들에서는 땅을 그다지 가리지 않는 오류나무들을 산기슭이나 북쪽비탈밭에 규모있게 심어 추리밭을 만들었다.

4월 하순에 가면 닭알모양의 흰꽃이 피는 오류 나무에는 8월 상순이 오면 쪽이음줄이 깊지 않는 동그스럼한 추리 (개당 70~90그람)들이 달린다.

붉은 자색에 흰가루에 덮히운 오류는 그 살이 좀 누렇고 맛이 좋으며 통졸임, 단물 등 갖가지 가공품을 만드는데 널리 쓰인다.

오류는 여러가지 병과 벌레해를 덜 받을뿐만 아니라 가꾸기도 쉬우며 특히 꽃과 열매가 아름다워 뜰악에 심는데 안성맞춤이다.

신천단벚; 신천땅에는 명산과일이 많이 난다. 신천배, 신천대추도 유명하지만 늦품종에 속하는 신천단벚이 또한 소문났다.

신천단벚은 크고 많이 달리며 무르고 단맛이 많으며 향기로운데다가 먼거리에도 운반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신천땅을 찾으시고 이곳 인민들이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피도 많이 흘렸으니 공산주의락원을 남먼저 건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신천군내 인민들은 전군중적운동으로 천여정보의 사과, 배, 복숭아, 살구, 호두 과수원을 조성하여 고향땅을 무릉도원으로 꾸리였다.

특히 쓸모없이 버림받던 자갈밭과 모래땅이나 질척땅에는 곧추 자라는 단벚나무들을 심었는데 4월이면 꽃이 만발하고 6월이면 열매가 주렁진다.

심장형처럼 생긴 신천단벚은 약간 누런빛을 띤 바탕에 연한 붉은색의 반점이 많으며 쪼개 보면 살이 희다.

신천단벚은 생과일로도 인기있지만 영양물질과 먹는 부분이 많아 식료가공의 원료로 수요가 대단히 높다.

신천단벚은 제 꽃가루로 수분하지만 큰단벚이나 노란단벚들과 섞어심으면 열매맺는률도 높고 품질도 좋아진다. 그러나 빙어라는 단벚과는 아주 사이가 나빠 열매맺는률이 낮다.

장수닭; 장수닭은 우리 나라에서 닭고기생산의 기본품종의 하나이다. 이 닭은 보통 한 마리에서 암탉이면 3.5~4키로그람, 수탉이면 4~5키로그람씩의 고기를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국영가금업을 발전시켜 닭고기와 닭알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477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닭고기생산에서 으뜸가는 장수닭을 마련해주시면서 모든 닭고기공장에서 기를수 있도록 한

닭공장에서 그 본보기를 꾸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장수닭에는 흰닭, 검은닭, 재빛닭들이 있지만 흔히 흰닭을 많이 기르고있는데 웃볏이 세겹으로 돋았으며 가슴이 넓고 근육이 잘 발달된것이 다른 닭들과 차이 난다.

장수닭의 병아리들은 매우 빨리 자라 50일사이에 1.2키로그람에 달한다. 그대신 첫알낳이는 7~8개월 나이부터 시작하여 1년에 보통 100~130개의 알밖에 낳지 못한다. 최고 150개의 알을 낳은 경우도 있다.

지금 닭고기공장들과 농가들에서는 1대잡종으로 기르고있다.

재령복숭아; 재령복숭아는 중간품종과일이다. 재령복숭아는 평균 130~150그람이며 살이 만문하고 물이 많을 뿐아니라 신맛도 약간 있어 품질이 아주 좋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심어놓은 사과나무사이에 복숭아나무를 심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따기전에 복숭아를 따먹을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29페지)

올과일을 많이 심어 수입을 높일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과일생산 구성에서 복숭아의 비중을 훨씬 높이였다.

특히 황남도내 협동농장들에서는 사과나 배보다 가꾸는데 품이 덜드는 재령복숭아나무들을 늦과실과 섞어 심어 과수원에서 한해동안에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철따라 과실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

7월이 오면 따는 재령복숭아는 연한 풀색을 띠는 흰색바탕에 해빛을 받는 쪽이 선홍색이 나며 열매살이 희다.

재령복숭아는 딸기, 앵두, 신벗, 단벗, 살구 다음에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며 사탕, 포도탕, 당분이 많으므로 과실술, 과실즙, 잼 등의 복숭아가공품을 만든다.

재령복숭아나무도 정원수와 원림수로 좋다.

통천고종감; 통천고종감은 강원도 특산과일이다. 고종감은 다른 감들에 비하여 크고 (개당 180~200그람)수확이 높으며 과즙과 감미가 많으며 당함량 (12.5~16.7%)이 비교적 높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강원도에서는 로력도 덜 들고 약도 안치는 감나무들을 많이 심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안변, 통천, 고성, 천내군들에서는 산기슭과 길섶, 들악을 중심으로 하여 감나무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심어 거리와 마을을 붉은 감나무동산으로 꾸려놓았다.

해마다 10월 하순부터 따들이는 고종감은 황등색이 나는데 과실껍질이 다소 두터운것이 특징적이다.

감은 신선한 과일로서 리용가치가 클뿐아니라 꽂감, 수정과, 약밥, 감술, 감초 등 가지가지의 귀중한 식료품들을 만드는데 널리 리용된다.

감나무에는 탄닌물질이 많아 탄닌공업에 원료를 제공해주며 고기잡이그물이나 비옷들에 칠하여 방부제로도 리용된다.

특히 감나무는 잎과 과일이 아름답고 나무모양이 조화가 잡혀 도시와 농촌을 록화하여 풍치를 조성하는 정원과수로 의의가 있다.

평양단벗; 평양단벗(양벗)은 단벗(양벗)중에서 제일 일러준다. 숙천단벗, 황주단벗, 봉산단벗들도 유명한데 이것들은 모두 평양과수농장에서 1961년부터 세간 나간 평양단벗의 한 종속이다.

평양단벗은 이른 봄철에도 빨리 자라 일찌기 열매들이 달리며 농약이 적게 들어 가꾸기 쉬우며 열매 (개당 3.6~4.7그람)가 커서 수확고가 높은 올과일품종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앞으로 과수원을 개간할때에 지금 없거나 적은 품종의 과실나무들을 많이 심되 단벗부터 대대적으로 재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평양과수농장과 시주변 협동농장들에서는 야산들을 일구어 어느 단벗나무들보다도 추위에 잘 견딜뿐아니라 열매들이 많이 주렁지는 평양단벗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심었다.

해마다 6 월중순에 따는 평양단벗은 빨간데다가 살이 90%이상이며 과실살에는 비타민 A, B, B_2, C 즙액이 많아 생과실로 공급하는 외에 당침도 많이 만든다.

사람들은 평양단벗나무의 일찌기 피는 꽃, 빨간 열매, 무성한 잎사귀들을 보고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원림수로, 정원과수로 즐겨 심고 있다.

평양라전칠공예; 평양 라전칠공예는 우리 나라 명산물이다. 평양라전칠공예는 여러가지 조개껍질을 오려붙인 라전공예와 천연수지인 옻을 바르는 칠공예의 좋은 기법들을 결합시킨 공예로서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라전칠공예가운데서 호수가의 풍경을 장식한 자개함과 꽃잎무늬를 붙인 향합 (고려시기의것)포도무늬를 새긴 궤와 장(리조시기의 것)들이 한때 유명하였지만 일제의 식민지략탈로 말미암아 그 발전이 억제당하였다.

라전칠공예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문예사상과 공예발전에 돌려주신 커다란 배려에 의하여 비로소 전면적인 개화발전을 이룩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우수한 공예품들을 더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라전칠공예공장도 크게 무어주시였다.

또한 현지지도의 나날 태천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에 옻나무숲을 조성하고 전복, 진주, 소라 등의 자원을 보호증식시키도록 하심으로써 라전칠공예의 창작조건을 마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보살피심에 고무된 공예가들은 유명한 포도무늬, 라팔꽃잎무늬로 장식한 꽃병, 귀중품함, 과자함들을 만들어 라전칠공예의 실용성과 예술성을 더욱 높이였다.

특히 혁명적문예작품들을 창작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만경봉》, 《조국의 진달래》, 《재봉대원들》, 《천리마》와 같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라전칠공예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사상정치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오늘 평양라전칠공예는 옻칠공예품의 산지인 동남아세아뿐아니라 중근동, 구라파,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찾는 사람들이 많다.

평양밤; 평양지방을 중심으로 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등지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평양밤은 다른 과실에 비하여 관리하기 쉽고 로력과 농약을 적게 들이고도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큰 과실이다.

평양밤에는 약효성분이 많아 약밤이라고도 부른다. 영양분이 많고 맛이 좋아 식료품으로서의 가치가 클 뿐만아니라 과실속은 단단하고 껍질이 두꺼워 오래동안 저장할수 있다.

밤나무의 수명은 5백년~1천년이다.

밤나무밭에서는 꿀벌도 친다. 꿀벌을 놓으면 꿀도 얻어내고 밤나무의 수정률도 높아 수확고가 올라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수원을 잘 가꾸고 밤나무를 잘 거두어 인민들에게 더많은 과실과 밤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474페지)

우리 근로자들과 특히 청소년학생들

은 이미 마련하여놓은 밤나무밭을 알뜰히 가꾸어 밤을 한나무에서 60키로그람이상 수확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밤에는 녹말 40~60%, 당분 10~20%, 단백질 6~12%, 기름 5% 등이 들어있기때문에 젖대용품 암가루, 고급과자, 짬 등 여러가지 가치있는 식료품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다.

밤나무껍질에서는 물감, 가죽 제조물질을 뽑아낸다. 밤나무 역시 매우 굳고 무늬가 아름답기때문에 건축 및 가구용재, 조각, 악기 재료로 쓰며 철도침목으로도 리용한다.

오늘 사로청에서 밤나무관리를 담당하고 잘 가꾸어 밤생산량을 더욱 늘이고있다.

평양분홍도마도; 평양 분홍도마도는 평양지방뿐아니라 우리 나라 각지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있는 품종으로서 수확이 높고 품질이 좋아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뿌리는 깊고 넓게 뻗으며 곁뿌리가 많이 나오므로 옮겨심어도 한대의 실수없이 잘 산다.

윤기나는 분홍색을 띤 열매는 식료품적가치로서뿐아니라 관상용으로서도 의의가 크다. 따라서 화분에서도 가꾼다.

열매는 단물이 많아 특별히 시원한 감미를 낸다.

평양분홍도마도는 물이 잘 빠지는 땅에서 잘되나 비교적 땅을 가리지 않고 가물에 견디는 힘이 강하므로 우리 나라 북부고지대를 제외한 전국각지에서 널리 가꿀수 있는 우량품종이다.

또한 다른 다년생 과실나무에 비하여 로력을 적게 들이고도 쉽게 가꿀수 있으므로 과수농장과 협동농장들에서뿐아니라 매가정에서까지 가꾸고있다.

도마도에는 당분 1.9~4.9%, 단백질 1.0~1.6%, 광물질 0.6% 그밖에 여러가지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날것으로 먹거나 통졸임으로도 리용한다. 채익지 않은것은 부식물로 쓰면 별맛이다.

평양지방에서는 분홍도마도를 3월상순과 중순에 온상에서 파종하였다가 랭상에 옮겨심어 50~60일 키우다가 밭에 옮겨심는다. 겨울에 온실에서는 2~3번 심고있다.

색갈과 맛, 그 어느면에서나 세상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있는 평양분홍도마도는 오늘 우리 인민들이 먹고도 남아 멀리 외국에까지 수출하고있다.

평양봄통배추; 평양봄통배추는 우리 나라 명산물이다. 삼석배추는 평지대의 김장배추로, 함주배추는 고산지대(해발 1,400메터까지)김장배추로 알려주지만 평양봄통배추는 봄철남새로 평판이 좋다.

이 배추는 통이 앉아 다른 봄배추들에 비하여 수확고가 높으며 섬유질이 만문하여 맛이 좋으며 자라는 기간이 짧아 여느 봄배추보다 일찌기 먹을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부르시고 통이 앉은 봄배추를 만들어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실로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키워낸 배추를 봄통배추라 부르시며 몸소 리현협동농장에 나가시여 해당부문일군들의 방식상학을 조직진행하시면서 봄통배추를 광범히 심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특히 가물이 심한 우리 나라의 봄날씨를 헤아리시고 단번에 수천정보의 분수식남새밭을 꾸릴수 있도록 커다란 국가투자를 돌려주시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봄통배추포전을 지도해주시였다.

그리하여 통배추라면 가을에만 먹는것으로 되여 있었으나 최근 10년간에 전국각지에 널리 퍼져 이른 봄이나 여름에도 통배추를 흔하게 먹을수 있게 되였으며 다른 나라에도 많이 수출할수 있게 되였다.

평양색동단; 평양색동단은 우리 나라 명산 비단이다. 녕변색동단, 안주색동단, 영흥색동단도 수요가 높지만 평양색동단은 국내외적으로 이름이 널리 퍼졌다.

평양색동단은 색갈이 곱고 부드러우며 직물조직이 정밀하여 매우 질기고 아름답다.

일명 칠색단, 다색단, 까치단이라고도 불리우고있는 색동단은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만이 전통적으로 짜는 비단으로써 삼천리금수강산의 아름다움과 수려함을 무지개에 비껴 그 일곱색갈을 천에 옮겨놓았다.

모본단바탕에 일곱색갈을 낸 이 색동단은 흔히 까치동의 저고리감이나 즐겨 덮는 이부자리감으로 많이 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도 많은 자금을 들여 현대적다북직기들을 그쯘히 갖춘 견직공장들을 세워주시였으며 약산단, 모본단을 비롯한 비단을 많이 짜서 인민들에게 공급하라고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도처에 제사공장들과 화학섬유공장들을 꾸리게 하시고 색동단원료들인 명주실과 인견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도록 지도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해방전에는 부자집 아이들만 입던 원한의 색동저고리는 오늘 나라의 왕들인 우리의 어린이들이 연분홍색, 연주색, 노란색 등의 비단치마나 여러가지 조선바지에 받쳐입고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을 당실당실 춤추며 노래하는 행복의 색동저고리, 충성의 색동저고리로 되였다.

그러기에 외국의 손님들은 이 행복한 어린이들을 보고 사람이 다시 한번 세상에 태여날수만 있다면 조선의 어린이로 태여나고싶다고 숨김없이 말하는것도 우연하지 않다.

《허천》 사과; 허천사과는 우리 나라에 있는 100여종의 사과들중에서 《덕성》과 함께 단맛이 제일 많은 사과이다.

그전에 데리샤스라고 부르던 《허천》사과는 신맛이 적은 대신 단맛이 많고 과실살이 부드럽고 향기로우며 알(개당 150~200그람)이 커서 수확고가 높으며 저장성(2~3월)이 있어 다음해 이른 봄까지 먹을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과의 품종구성을 개선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심어 우리가 먹는것만큼 조선사람의 특성에 맞는 단사과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단천과수농장에서는 단천, 허천, 김책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어릴때에는 비교적 곧추 자라지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가지가 벌어지는 《허천》사과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심었다.

이 과수원들에서는 가을마다 푸르스럼한 누런색바탕에 붉은색이 나며 연붉은 줄무늬들이 있는 사과들이 한창 쏟아지고있다.

《허천》사과는 과실살이 부드럽고 과즙이 많다. 특히 이 사과는 수확한 후 1~1.5개월이 지나야 자기 맛이 나므로 단기 저장한 사과를 먹어야 한다.

회령백살구; 회령백살구는 함북도 지방의 특산물이다. 온성백살구, 유선백살구도 일러주지만 회령백살구는 더욱 유명하다.

회령백살구는 다른 백살구들에 비하여 신맛이 적은 대신 달며(당분 5.2%) 빛갈이 고우면서도 무척 향기로우며 추운데서도 수확(개당 평균 53그람)고가 높아 좋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나날 옛날부터 유명한 백살구를 많이 심어 회령의 특산물로 만들되 통졸임으로 만들어도 좋고 수출해도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회령군에서는 협동농장마다 과수작업반을 뭇고 해마다 전군중적운동으로

백살구나무동산을 만들었다.

과수작업반원들은 일제의 탄벌파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외딴 잡관목속에 겨우 살아남았던 120여그루의 백살구나무들을 밑천으로 삼아 수천정보의 골짜기와 언덕들에 청년백살구과원을 만들었다.

회령지구를 병풍처럼 에워싼 백살구과원은 해마다 봄이면 백설같은 꽃을 피워주는가하면 여름이면 향기로운 백살구를 쏟아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백살구가 소나기처럼 쏟아질 이날을 예견하시고 군에 종합식료공장을 꾸려주시였으며 백살구통졸임생산을 공업화하게 하시였다.

오늘 회령백살구통졸임은 국내 인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공급되고도 남아 대외시장에도 많이 나간다.

해주배; 해주배는 우리 나라에 있는 12가지 배들중에서 손꼽히는 늦품종이다.

그전에 만삽길이라고 부르던 해주배는 단물(당분이 최고 15.7%)이 많고 클(개당 400그람)뿐아니라 저장능력이 높아 봄철에도 신선한 과실로 먹을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시원한 배를 좋아하므로 배를 많이 재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해주, 원산 지방들에서는 자라는 힘이 강하고 가지들이 곧추 뻗는 배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4년이후부터 배가 달리더니 이젠 100여년동안 딸수 있게 되였다.

해마다 10월하순에 따들이는 해주배는 회색점들이 점점이 박힌 누런 밤빛이 나며 그 모양이 짧은 물레가락처럼 생겼으며 알세가 고르롭지 못하다.

해주배는 흔히 생과실로 공급하는 외에도 당분과 단백질, 산과 펙틴이 많아 배술, 배시롭, 배즙, 배통졸임으로 만들며 나무는 굳고 좋아 여러가지 가구들을 만드는데 리용된다.

원산배도 늦품종에 속하는데 해주배와 함께 지방특산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황주》 사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과 《홍옥》은 황해북도 황주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난다하여 《황주》라고 이름을 지었다.

《황주》사과는 품질이 매우 좋다. 과실의 크기와 색, 맛이 좋을뿐아니라 수확이 높아 어느점으로 보든지 만숙종중 가장 대표적인 우량품종이다.

과실은 150그람정도가 보통이고 원형 혹은 타원형인데 다소 모가 생기는것도 있다. 본바탕은 황색이나 해빛이 쬐임에 따라 윤기나는 선홍색으로 변한다.

사과살은 황백색인데 비교적 단단한 편이고 물이 많고 산미와 감미가 적당하고 특히 향기가 높이 풍긴다.

나무의 성질은 비교적 강하며 10월에 수확하여 다음해 3월,5~6월까지 저장하여도 고유한 그 맛을 그대로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사과는 맛좋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평남사과는 조선에서 이름났습니다. 맛좋은 사과를 많이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며 수출도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선집》, 5권, 32페지)

우리 인민들은 전국의 야산들을 일구어 과수원을 조성하여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 도처에 사과생산지를 튼튼히 꾸리였으며 추위에 잘 견디며 품질이 좋은 새로운 사과품종들을 수많이 길러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그 어디를 가나 과수원이 없는데가 없으며 거의 모든 협동농장들이 수십 수백정보씩의 과수원을 가지게 되였다. 황주지방도 사과명산지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황주》사과에는 당분과 산, 비타민 그밖에 단백질과 지방까지 들어있음으로 생과실로서 뿐아니라 건과, 통졸임, 술,잼을 비롯한 다양한 식료품으로 가공되여 사철 근로자들에게 공급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먹고도 남아 멀리 외국에까지 수출하고있다.

혜산호프; 혜산호프는 량강도의 특산물이다. 호프열매에는 향기(정유 0,3~1%)롭고 쓰겁고(수지 16~26%)밝게(탄닌 2~5%)하는 여러가지 성분이 많아 맥주생산의 기본원료로 리용되고 있는데 형태적으로 볼때 줄기가 10메터나 되며 잎꼭지에 가시가 꺼꾸로 나고 여름에 솔방울처럼 생긴 황록색 꽃이 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시던 때에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추위에 잘 견디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호프를 많이 심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여름동안의 평균온도가 16도내외이며 강우량이 600~800미리메터 정도인 량강도지대에 호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였다.

또한 호프농장과 호프를 많이 심는 협동농장마다에 현대적건조장과 압착실,저장고들을 꾸림으로써 호프 1차가공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였다.

특히 혜산시에 현대적인 호프가공공장과 크라프르지공장을 건설하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호프열매를 통일적으로 가공포장함으로써 호프의 반제품생산체계를 철저히 세웠다.

그리하여 혜산호프는 오늘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국의 맥주 생산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대외시장에 내보내고있다.

혜산아마; 혜산아마는 우리 나라 북방의 목화이다. 아마줄기의 섬유로는 천을짜고 열매로는 기름을 짜고있다. 따라서 량강도는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아마생산기지인 동시에 아마공업의 중심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예작물을 재배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 지방에는 아마가 잘 되는것만큼 아마를 많이 심는것이 좋겠습니다.》(《김일성선집》, 5권, 486페지)

수령님께서는 아마경영국, 아마연구소,농업과학원 혜산분원 등을 꾸려주시고 지도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농장원들과 함께 백무,개마 고원의 자연기후조건에 맞는 아마채종 및 육종체계를 세우고 그루바꿈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아마농사를 과학기술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또한 아마를 전군중적운동으로 처리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군마다 현대적설비를 갖춘 아마공장들을,협동농장마다 1차가공설비를 갖추게 현명하게 령도하신 결과 방대한 아마처리능력도 조성해주시였다.

특히 1958년이후에 많은 군들에 아마직물공장을 전개하게 하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몸소 공장의 터전은 잡아주시고 년간 수천톤의 아마실 생산능력과 아마직물생산능력을 가진 현대적 방직공장을 꾸려주시였다.

하여 그 전날 옷이라군 토스레옷도 걸치기 어려웠던 량강도땅에서 좋은 아마양복천,아름다운 아마장식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좋은 아마천들이 필필이 쏟아져 나오게 되였다.

오늘 량강도아마는 모방직,면방직,견방직,아마방직을 다 갖춘 우리 방직공업의 다면성에 성과적으로 복무하는 특산물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나라 기상개관

1973년도 우리 나라 기상조건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은것이 특징이였다.

1973년 한해평균기온은 2.0~1.50°C로서 평년에 비하여 0.4~0.6°C정도 높았다. 기온이 특별히 높았던 시기는 겨울철과 여름철이였으며 가을철만은 평년보다 낮았다.

한해강수량은 450~2,000mm의 범위로서 일부지방을 제외하면 평년에 비해 적었다.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특별히 적었던 시기는 우리 나라의 한해강수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름철이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가무는 시기인 봄철에는 강수량이 비교적 많았다.

해비침률은 여름철을 제외하면 평년보다 낮은 편이였다.

1973년도 우리 나라 기상조건을 철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겨울(1—2월)

1973년 1—2월은 전기간에 걸쳐 북서철바람이 약하고 남동방향의 바람이 자주 분 관계로 구름이 낀날이 많았으며 해비침률이 50~60%로써 평년에 비해 5—10%정도 낮았다. 이러한 일기과정에 의하여 올해 겨울철은 북쪽에서 오는 추운공기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비교적 푸근한 날씨가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추운달인 1월 평균기온은 동서해안에서 0~ —2°C 북서내륙에서 —15°C정도로서 평년에 비하여 3~6°C정도나 높았다.

2월 기온도 계속 높아서 전반적 지방들에서 평년보다 2~3°C 더 높았다. 이러한 높은 온도는 례년에 드문 현상이였다. 2월에는 특히 최고기온이 높았으며 서해안과 북부내륙지방의 많은 지방들에서 2월 16일에 루년최고기온이 나타났다. (평양 14.7°C, 해주 14.5°C, 강계 11.7°C)

겨울철에 흐린날씨는 많았으나 강원도를 제외한 전반적 지방들에서 강수량이 10mm이하이며 이것은 평년의 50~90%에 불과했다. 강원도해안지방의 강수량은 30~70mm로서 평년 정도였다(표 1).

봄 (3—5월)

봄철은 흐린날씨가 자주 계속되여 해비침률이 평년에 비하여 약간 낮았다. 올해 봄철날씨의 중요한 특징은 강수량이 평균에 비하여 많은것이였다.

우리 나라 중요지점의 봄철강수량은 다음과 같다.

봄철 강수량(mm) (표 1)

지점 \ 월	3	4	5	합 계	평 년	평년에 대한비 (%)
평 양	19.8	66.8	144.3	230.9	143.3	161
신 의 주	33.9	87.3	121.3	242.5	120.7	201
해 주	2.3	117.7	114.1	234.1	176.6	132
강 계	28.6	68.9	155.4	252.9	161.5	156
김 책	7.9	42.4	130.1	180.4	106.3	170
원 산	20.8	92.4	162.3	275.5	206.6	133

봄철 강수량은 거의 전반적 지방에서 200mm이상이였으며 이것은 평년의 130~200%에 해당된다.

봄철 가운데서도 5월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전반적 지방에서 강수량이 100mm이상이였다. 특별히 많이 내린 지방은 서해안의 평양이남지방과 자강도와 동해안의 전반적 지방들이였다. 이지역들에서의 5월 강수량은 140~160mm로서 최근 1960년대에 한두번 정도 볼수 있는 많은 강수량이였다.

봄철에 해비침률이 낮고 비가 많이 내린 결과 태양복사량이 평년에 비해서 약간 적었다.(표 2)

봄철 태양총복사량(kcal/cm²) (표 2)

지점 \ 월	3	4	5	합계	평균	차
평 양	11.47	11.27	16.16	38.90	40.48	—1.58
경 성	11.03	13.51	14.64	38.18	39.70	—0.52
해 주	11.81	10.55	16.53	38.89	40.58	—1.69

봄철 기온은 3—4월에는 평년보다 약간 높았으나 5월에는 0.5°C정도 낮았다.

이른봄에 기온이 높았으므로 봄철이 시작되는것이 빨랐으며 특히 봄철 마지막서리가 전반적지방에서 평년보다 10~15일정도 일찌기 끝났다.

여름(6—8월)

1973년도 기상조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름철에 기온이 높은것이였다.

여름철에 전반적지역에서 개인날씨가 많았으며 따라서 해비침률이 7—8월에 평년보다 5~10%정도 더 높았으며 태양복사량이 많았다.

여름철기간의 평균기온을 평년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1973년 6~8월 평균기온의 여러해 평균과의 차(°C) (표 3)

지 점 \ 월	6	7	8
평 양	0.0	+1.6	+0.7
신 의 주	+0.1	+0.9	+0.4
해 주	+0.2	+1.7	+0.2
강 계	0.0	+1.6	+1.6
김 책	+0.3	+2.4	+1.4
원 산	—0.9	+1.6	+1.4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6월은 평년과 류사했으나 7월은 1.0~2.4°C, 8월은 0.2~1.6°C정도 평년보다 높아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였다. 기온이 특별히 높았던 지역은 북부내륙지방이며 이 지방들에서는 최근 20년래에 가장 높은 기온이 나타났다. 북부내륙지방에서 최고 극기온은 8월 16일에 강계 36.3°C, 무산 36.2°C, 혜산 35.7°C로서 우리 나라의 가장 높은 기온이 이 지대에서 나타났다.

1973년 여름철 장마는 7월 12일에 시작하여 8월 29일에 끝났으며 평년에 비하면 늦게 시작하고 일찌기 끝나서 장마기간도 짧았다. 장마철기간에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무데기비 현상도 심하지 않았다. 비교적 심했던 무데기비는 8월 29~31일의 3일동안에 황해남도와 강원도지방에서 내린것이였는데 이때에 250mm이상의 비가

내렸다.

가을 (9—11월)

1973년 가을철은 기온이 낮았고 강수량이 적었던것이 특징적이였다. 10～11월의 평균기온은 전반적지방에서 평년보다 1.0～1.5°C나 낮았으며 계절현상이 앞당겨졌다. 이리하여 하루평균기온 5°C 및 10°C의 마지막날자가 전반적지역에서 평년보다 5～10일 일찌기 끝났다.

그러나 가을 첫서리는 평년과 류사하여 동서해안평지대에서 10월 14일, 북부내륙에서 9월 27일에 내렸다.

적산온도

1973년도는 평년에 비해 3—4월 기온이 높았고 10—11월은 기온이 낮았던 관계로 하루 평균 기온이 5°C, 10°C이상되는 첫날자는 평년보다 약간 일렀으며 마감날자도 일렀다.

하루평균기온 5°C 및 10°C이상의 지속날수는 평년보다 약간 짧았으나 여름철 기온이 높았던 관계로 적산온도는 전반적 지역에서 많았다.

적산온도가 특별히 많았던 지역은 북위 40°C 이북 지역이였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평년에 가까워졌다(표4).

>5°C, >10°C의 지속날자와 적산온도 (표 4)

지 점	>5°C				>10°C			
	지속날수	평년과의차	적산온도	평년과의 차	지속날수	평년과의차	적산온도	평년과의차
평 양	229	—1	3992	+39	185	—5	3667	+13
신의주	225	+4	3814	+56	186	+2	3519	+92
해 주	238	—3	4111	+26	195	—6	3746	—52
강 계	204	—3	3425	+37	169	—1	3172	+57
김 책	192	—12	3375	+62	169	—6	2982	+36
원 산	235	—9	3906	—23	196	—1	3593	+10

태풍

1973년도 우리 나라 북반부지역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3호, 5호, 10호의 3개였다.

1) 3호태풍

7월 13일에 발생한 태풍 3호는 7월 18일에 제주도 서쪽을 지나 20일 중국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중국 동북지방에서 소멸되였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 서해안지방들에서는 10～15m/초 정도의 바람이 불었으며 해안연선지방인 철산(34m/초), 룡연(27m/초), 옹진(20m/초)에서는 매우 센 바람이 불었다.

태풍이 지나가는 기간의 강수량은 많지 않았으며 황해남도에서 30～50mm, 평안북도에서 40～60mm, 강원도 해안지대에서는 20～60mm정도였다.

2) 5호태풍

이 태풍은 7월 20일에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경기만을 거쳐 7월 21일에 강원도 앞바다를 지나갔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에서 50～100mm, 황해남도에서 30～70mm, 강원도 해안지대에서 30～130mm의 비가 내렸다. 이 태풍이 지나갈때 바람은 세게 불지 않았다.

3) 10호태풍

일본 오끼나와 부근에서 8월 15일에 발생한 태풍은 18일에 경기도와 강원도를 거쳐 조선 동해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쏘련의 연해주로 지나갔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일대에 50～150mm 정도의 비가 내렸으며 함경남도 광천에서는 235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전반적 지방에서 10m/초이상의 바람이 불었으며 황해남도 남쪽해안지대와 강원도 해안지대에서는 15～20m/초의 센바람이 불었다.

평균기온 °C (1967년)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8.1	—5.2	2.9	10.7	17.9	20.5	24.5	25.5	18.3	11.8	4.0	—8.3	9.5
신의주	—7.9	—5.7	2.8	10.0	16.7	19.8	23.9	24.6	17.7	12.0	2.6	—9.0	9.0
덕 천	—11.1	—8.1	2.4	10.1	17.7	19.4	23.5	23.9	16.9	10.0	2.0	—11.6	7.9
사리원	—6.8	—4.6	3.2	10.9	18.1	20.7	24.6	26.1	18.8	12.1	4.3	—6.8	10.0
해 주	—5.4	—3.2	3.7	10.6	17.4	20.5	24.3	26.0	20.0	14.0	5.9	—5.2	10.7
개 성	—5.8	—3.7	3.6	10.5	17.8	20.3	24.6	25.6	19.3	13.0	5.1	—6.2	10.3
강 계	—14.2	—11.5	1.1	8.8	17.4	18.3	23.2	23.2	15.3	7.9	—1.0	—13.9	6.2
혜 산	—17.1	—16.4	—2.6	5.7	14.7	15.4	20.5	20.7	12.4	5.0	—5.1	—18.8	2.9
청 진	—6.0	—4.5	1.6	6.9	12.3	14.6	19.0	22.9	16.3	11.3	2.9	—6.3	7.6
김 책	—5.0	—3.9	2.5	7.6	12.6	16.0	19.6	23.2	17.2	12.1	4.3	—5.6	8.4
함 흥	—4.8	—3.8	3.8	8.6	16.4	17.9	21.7	23.9	17.1	12.2	4.7	—5.3	9.4
원 산	—3.3	—2.6	4.8	9.2	17.6	18.3	22.2	23.4	17.3	13.0	6.1	—4.4	10.2

강수량mm(1967년)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8.0	34.3	72.2	100.4	56.9	116.4	331.2	273.8	101.1	7.2	24.4	7.5	1133.4
신의주	17.8	17.5	58.3	114.9	73.9	90.1	446.1	295.0	46.6	0.0	18.6	5.8	1184.6
덕 천	25.8	50.7	79.9	109.9	95.5	127.3	434.8	941.6	80.6	9.2	32.5	15.5	2003.3
사리원	11.7	19.7	45.7	76.8	99.7	134.9	231.6	185.2	38.1	10.9	38.4	6.8	899.3
해 주	13.0	54.5	69.5	57.3	124.9	149.4	273.7	288.9	24.0	4.8	47.0	7.2	1114.2
개 성	14.4	57.3	91.5	99.9	86.3	89.9	241.1	736.4	81.6	18.1	48.0	9.8	1574.3
강 계	16.1	29.8	45.6	79.4	74.7	151.8	327.4	336.3	114.7	9.4	30.1	9.0	1224.3
혜 산	10.4	15.4	29.0	41.9	18.5	152.3	197.0	175.4	44.9	2.6	10.0	6.3	704.6
청 진	17.7	6.7	23.0	31.6	23.0	41.9	138.2	58.0	117.6	4.2	13.3	15.5	490.7
김 책	7.6	37.2	26.1	45.8	57.8	41.5	134.8	74.9	109.0	1.0	35.2	42.2	613.1
함 흥	23.3	33.5	51.2	72.3	54.8	89.1	258.9	290.4	199.6	14.3	12.7	1.2	1101.3
원 산	62.1	35.5	39.7	67.0	76.8	131.2	373.7	412.0	478.6	17.3	44.7	1.0	1739.6

평균기온°C (1968년)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7.5	−7.6	2.3	10.6	16.5	21.0	24.0	23.6	19.0	10.8	4.5	−0.3	9.7
신의주	−8.4	−7.2	2.4	9.7	15.5	19.4	23.8	23.5	18.5	11.1	3.8	−2.0	9.2
덕 천	−11.6	−9.5	1.8	10.0	15.8	19.4	23.1	21.8	17.2	8.8	2.3	−3.7	8.0
사리원	−6.3	−7.1	2.7	11.0	16.6	20.7	24.2	23.4	18.7	10.9	5.3	0.7	10.1
해 주	−4.8	−5.8	3.3	11.3	15.8	19.4	23.8	23.9	20.0	12.5	6.8	2.5	10.7
개 성	−5.6	−6.0	3.3	11.1	15.8	19.8	23.8	23.9	19.4	11.6	5.7	1.8	10.4
강 계	−14.1	−11.2	0.5	9.6	15.0	18.6	23.2	21.2	15.7	7.5	0.0	−6.7	6.6
혜 산	−18.7	−15.1	−2.9	7.1	12.2	16.1	20.7	18.5	12.9	4.4	−4.9	−11.6	3.2
청 진	−6.5	−6.2	1.2	7.0	10.4	14.6	20.1	20.3	16.9	9.9	4.1	−1.2	7.6
김 책	−5.0	−5.7	1.7	6.9	11.1	14.7	20.6	21.1	17.6	10.8	6.1	0.6	8.4
함 흥	−4.6	−4.9	3.8	8.9	13.2	17.6	21.8	21.6	17.7	11.2	5.7	0.4	9.4
원 산	−3.5	−4.5	4.8	10.1	14.1	18.3	21.9	22.2	18.4	11.6	7.3	2.3	10.2

강수량mm (1968년)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1.6	16.7	30.7	39.2	19.9	18.0	150.8	207.0	12.4	57.5	61.7	32.3	647.8
신의주	4.8	16.0	28.9	31.4	54.4	107.5	156.5	289.0	43.7	29.9	55.6	16.3	834.0
덕 천	13.0	14.8	39.6	42.6	55.4	157.2	252.6	379.5	11.8	81.0	62.5	32.1	1142.1
사리원	4.7	19.2	40.9	39.4	19.0	31.0	190.2	283.8	22.0	50.1	47.1	18.0	765.4
해 주	2.2	20.4	53.8	58.3	89.2	21.8	239.8	160.7	22.3	35.5	82.9	17.4	804.3
개 성	11.2	9.0	56.8	53.4	52.0	35.0	307.3	183.6	63.1	57.2	42.3	14.7	885.6
강 계	3.7	10.6	17.5	19.2	108.0	128.5	198.7	233.4	47.2	9.6	56.5	16.9	849.8
혜 산	5.3	3.1	2.4	5.7	70.1	82.5	184.9	107.4	27.3	0.9	39.9	7.3	536.8
청 진	4.5	6.7	3.2	11.1	68.5	107.0	78.8	168.8	39.4	91.0	83.0	17.4	679.4
김 책	23.1	22.4	22.3	9.8	70.3	164.5	95.4	395.0	37.9	44.2	42.8	42.8	970.5
함 흥	2.1	10.0	17.0	20.5	69.1	100.6	171.5	206.7	45.2	50.9	42.4	36.1	772.1
원 산	3.6	6.0	19.7	25.4	74.6	84.1	378.0	353.9	81.5	240.3	39.1	81.0	1387.2

평균기온°C (1969년)

월 / 지 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6.8	−5.5	1.3	9.3	15.6	19.2	23.8	23.7	19.7	11.5	2.4	−5.0	9.1
신의주	−8.6	−6.6	0.4	8.2	14.3	18.0	22.3	23.4	19.1	11.5	1.6	−6.0	8.1
덕 천	−8.6	−6.4	0.7	8.6	14.5	18.2	22.6	22.6	18.3	9.5	−0.4	−8.7	7.6
사리원	−6.3	−5.8	1.5	9.6	15.5	19.2	23.7	23.9	19.6	11.6	3.3	−4.3	9.3
해 주	−4.6	−3.8	1.9	9.4	14.7	18.2	22.3	23.5	20.1	12.8	4.5	−2.9	9.7
개 성	−4.6	−4.1	1.9	9.2	15.2	18.7	23.0	23.7	19.7	12.2	3.7	−3.5	9.6
강 계	−12.6	−9.7	−1.5	8.4	13.6	17.3	22.2	21.9	16.3	7.9	−2.4	−12.5	5.7
혜 산	−16.8	−15.4	−5.3	5.5	10.9	14.8	20.0	19.3	13.3	5.3	−5.5	−16.1	2.5
청 진	−7.2	−7.4	−0.9	6.7	11.1	15.2	19.8	21.3	16.5	10.6	2.1	−5.5	6.9
김 책	−5.7	−6.0	0.3	7.2	11.3	15.5	20.6	21.9	17.9	11.9	3.3	−3.6	7.8
함 흥	−4.7	−4.3	2.2	9.0	14.6	18.5	22.3	22.6	18.2	11.7	3.2	−4.2	9.1
원 산	−3.4	−3.3	2.6	9.5	15.8	19.1	23.1	23.2	18.6	12.5	5.0	−2.0	10.1

강수량mm (1969년)

월 / 지 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16.0	8.4	7.5	140.4	100.7	28.7	260.2	420.9	62.8	76.5	32.1	10.9	1166.0
신의주	4.3	5.2	14.9	177.1	110.6	119.2	340.2	236.0	31.0	70.4	4.8	0.7	1114.4
덕 천	10.9	8.0	3.6	191.3	114.0	72.0	416.9	208.9	62.4	62.2	68.3	19.0	1237.5
사리원	21.3	23.8	14.5	132.7	102.8	24.0	209.4	316.8	59.7	100.0	27.4	14.4	1046.8
해 주	21.0	25.4	16.3	234.1	159.8	68.1	383.8	47.5	60.8	47.5	34.9	32.8	1496.0
개 성	35.9	45.1	19.9	211.3	328.0	40.2	389.7	401.0	77.8	15.4	35.8	24.6	1624.7
강 계	7.7	3.1	13.6	59.3	73.5	150.0	194.6	157.8	26.1	48.1	25.2	19.2	778.2
혜 산	7.3	2.0	6.2	52.6	78.6	100.0	95.2	128.4	12.0	16.7	8.8	6.8	514.6
청 진	40.7	17.3	2.6	23.4	71.0	90.4	46.6	233.4	5.7	8.7	37.9	28.6	606.3
김 책	53.0	50.8	1.2	56.9	115.2	51.6	92.5	113.6	6.3	19.5	20.6	17.9	599.1
함 흥	20.1	20.4	2.2	131.2	80.0	66.4	444.0	161.9	31.8	15.1	22.5	8.2	1003.8
원 산	56.4	103.0	56.2	187.0	26.7	76.6	233.1	266.9	48.8	28.5	29.4	23.6	1146.2

평균기온°C (1970년)

월 / 지 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7.9	−3.0	−1.7	10.6	17.7	19.8	22.5	24.8	19.2	12.4	3.2	−4.1	9.5
신의주	−8.4	−3.5	2.0	9.8	17.0	19.3	22.1	24.3	18.7	12.6	2.6	−5.7	8.9
덕 천	−10.7	−4.8	−2.3	9.5	17.2	19.6	21.8	23.8	17.9	10.6	0.9	−8.3	7.9
사리원	−7.4	−2.4	−1.6	10.7	17.7	19.7	22.5	24.6	19.6	13.1	3.8	−3.1	9.8
해 주	−5.4	−1.4	−0.9	10.6	17.6	18.8	21.4	24.6	19.9	13.8	4.9	−1.7	10.2
개 성	−6.1	−1.6	−0.7	10.8	17.6	19.3	22.0	24.6	19.9	13.2	4.3	−2.3	10.1
강 계	−14.5	−8.3	−5.4	9.3	17.0	19.6	22.2	22.7	16.0	9.5	−1.3	−10.7	6.3
혜 산	−18.8	−12.2	−9.8	6.6	14.4	17.0	20.1	20.2	13.1	6.4	5.2	−16.3	3.0
청 진	−7.7	−4.8	−2.8	6.1	12.1	16.9	18.9	20.8	17.4	10.6	2.6	−3.9	7.2
김 책	−5.7	−2.6	−1.5	6.6	12.8	16.4	19.0	21.3	18.1	11.3	4.2	−2.5	8.1
함 흥	−6.1	−1.5	−0.4	8.8	15.9	18.9	21.6	22.4	18.5	12.5	4.4	−2.6	9.4
원 산	−4.1	−0.2	−0.5	8.7	16.0	18.6	21.7	22.5	18.7	13.5	5.8	−0.5	10.1

강수량mm (1970년)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양	5.5	16.1	6.0	1.5	51.5	91.4	235.6	143.2	139.5	6.0	27.3	25.1	748.7
신의주	3.1	21.0	9.4	10.3	68.5	104.5	398.7	92.2	73.0	37.7	48.2	25.7	892.3
덕천	4.8	30.9	3.3	2.6	58.7	113.6	513.7	184.1	206.7	19.6	35.6	34.8	1208.4
사리원	4.1	16.2	9.7	1.4	79.7	121.8	197.7	135.5	166.7	18.8	33.8	17.9	803.3
해주	5.8	17.9	14.9	1.8	53.7	218.8	400.8	197.9	234.7	78.3	33.6	18.8	1277.0
개성	5.5	42.3	12.3	3.1	89.7	218.2	320.8	593.3	380.4	63.5	39.5	14.7	1783.3
강계	9.9	40.8	5.9	5.3	80.0	55.5	270.4	107.0	73.3	22.1	39.6	21.2	731.0
혜산	3.7	18.6	4.5	0.0	50.2	84.8	117.6	153.2	56.9	13.3	19.5	16.8	539.1
청진	10.5	29.0	2.0	0.7	60.7	18.7	200.3	107.9	63.3	3.0	16.3	24.6	537.9
김책	8.6	33.2	6.5	0.0	79.4	11.2	143.7	130.0	130.6	14.4	54.2	28.1	639.9
함흥	13.4	37.4	1.0	0.2	66.6	40.6	270.1	130.6	178.4	5.3	3.1	11.3	758.0
원산	31.5	63.0	1.0	0.4	76.1	128.1	508.9	477.3	363.1	14.4	6.0	17.8	1687.6

평균기온°C (1971년)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양	−5.0	−3.5	−0.2	9.9	16.0	21.0	23.7	23.8	18.3	10.4	5.8	−4.7	9.6
신의주	−6.1	−5.1	−1.2	8.9	14.3	20.2	23.0	23.4	18.2	10.7	5.7	−5.3	8.9
덕천	−8.2	−5.0	−0.9	9.3	14.8	20.2	22.7	23.1	16.9	8.7	3.5	−8.6	8.0
사리원	−4.7	−3.1	0.2	10.1	16.0	21.2	23.7	23.9	18.6	11.2	6.8	−3.8	10.0
해주	−3.2	−1.6	0.8	9.7	14.6	19.9	22.5	23.9	19.4	12.1	7.7	−2.1	10.3
개성	−3.7	−1.6	0.9	9.8	15.0	20.4	23.0	23.7	18.9	11.4	7.0	−2.7	10.2
강계	−11.8	−8.2	−2.6	8.7	14.4	19.5	21.9	22.0	15.2	7.0	1.5	−11.0	6.4
혜산	−18.5	−12.7	−6.0	5.5	11.3	16.8	19.4	19.3	12.5	4.0	−1.7	−15.4	2.9
청진	−5.6	−4.2	−0.2	6.7	10.3	14.0	18.9	19.7	15.9	10.5	5.3	−3.1	7.4
김책	−3.7	−2.6	0.6	7.1	11.1	14.7	19.1	20.1	16.7	11.3	6.6	−2.1	8.2
함흥	−3.7	−2.8	1.4	9.3	14.6	18.1	21.7	21.8	16.7	11.1	6.2	−2.5	9.3
원산	−2.6	−2.1	2.6	10.1	15.3	18.6	22.4	22.2	17.5	12.2	7.7	−0.5	10.3

강수량mm (1971년)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양	11.8	16.0	22.1	38.4	63.7	178.8	305.6	92.0	215.2	26.6	20.6	15.4	1005.9
신의주	3.7	40.4	50.1	32.3	69.0	174.4	212.6	250.0	168.4	73.3	12.4	16.4	1103.0
덕천	10.1	36.1	39.0	46.4	78.8	224.3	446.4	125.7	209.9	31.4	15.0	38.7	1301.8
사리원	18.4	13.0	31.0	32.0	49.0	97.8	252.0	76.5	364.5	21.3	12.0	18.2	985.7
해주	24.4	21.3	31.6	54.7	55.9	175.3	332.0	104.3	205.5	17.5	9.1	29.1	1060.7
개성	20.4	26.6	37.7	74.9	87.4	141.2	454.9	206.0	240.4	22.8	8.4	18.7	1339.4
강계	7.6	17.0	20.7	24.8	59.9	262.8	228.1	118.1	180.4	44.9	5.3	28.2	997.8
혜산	4.7	2.5	10.5	13.2	44.2	189.2	146.2	43.1	147.4	16.7	1.1	6.1	624.9
청진	4.6	30.8	3.6	1.4	42.6	81.4	103.2	58.5	251.3	13.2	1.9	16.7	609.2
김책	6.1	37.3	13.3	20.2	58.4	122.0	137.7	61.5	89.3	5.4	26.7	42.0	619.9
함흥	17.3	17.4	29.8	34.1	72.5	132.5	230.2	91.7	110.3	5.1	8.5	5.5	754.9
원산	63.5	47.8	61.5	46.2	113.1	289.3	343.2	301.5	308.1	3.5	4.5	11.0	1593.2

평균기온°C (1972년)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2.7	−3.6	3.7	9.7	15.3	20.6	24.8	22.1	17.2	11.6	2.7	−2.2	9.9
신의주	−4.3	−5.0	3.1	8.8	14.5	19.5	23.9	21.5	17.0	10.6	1.9	−2.9	9.0
덕 천	−5.0	−6.4	2.9	8.7	14.9	20.0	24.1	20.5	15.7	9.6	0.4	−5.4	8.3
사리원	−2.3	−3.3	3.8	10.0	15.5	20.5	24.4	22.0	17.8	12.0	3.3	−1.5	10.2
해 주	−0.3	−1.7	4.4	9.7	15.1	19.7	24.0	22.0	18.4	13.3	4.8	−0.2	10.8
개 성	−0.7	−1.7	4.6	10.1	15.1	20.0	24.4	21.7	17.7	12.3	3.9	0.8	10.6
강 계	−9.5	−9.5	1.4	8.1	14.5	19.7	24.2	19.5	14.5	7.8	−1.9	−8.5	6.7
혜 산	−13.7	−13.7	−2.2	4.9	11.5	16.4	21.1	17.0	11.6	4.8	−6.1	−14.0	3.1
청 진	−4.0	−4.5	1.4	6.5	12.2	16.2	21.1	20.0	15.7	9.9	1.7	−2.1	7.8
김 책	−2.1	−3.0	2.7	7.0	12.2	16.0	21.1	20.4	16.2	10.7	3.3	−1.1	8.6
함 흥	−2.0	−3.1	3.2	9.4	14.4	19.3	23.3	21.2	16.4	11.2	3.1	−1.3	9.6
원 산	−0.6	−2.3	3.7	10.2	15.1	20.1	23.4	21.8	17.2	12.7	4.7	0.9	10.6

강수량mm (1972년)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41.7	4.7	22.0	40.2	95.3	39.1	286.4	413.8	104.8	78.0	78.7	11.9	1216.6
신의주	39.5	16.1	13.5	35.5	60.4	28.7	96.6	393.2	170.7	72.0	56.9	2.9	986.1
덕 천	58.4	15.5	44.6	116.4	89.9	111.7	252.9	470.1	214.6	169.1	98.7	16.3	1658.2
사리원	37.8	4.4	31.9	18.1	84.1	39.8	271.9	590.5	104.9	70.2	72.9	12.9	1339.4
해 주	40.4	1.5	25.9	25.9	62.3	65.5	342.1	447.7	81.3	51.8	97.8	7.7	1249.9
개 성	55.4	18.0	36.1	23.3	73.8	93.9	392.5	704.8	87.7	64.5	104.0	8.7	1662.7
강 계	38.9	9.0	16.0	62.5	39.7	88.4	136.2	553.8	147.2	109.4	54.3	12.6	1268.0
혜 산	21.1	4.0	8.4	57.4	35.1	91.1	113.2	184.2	90.4	45.2	26.5	6.3	682.9
청 진	15.2	22.9	0.1	36.2	19.6	58.3	154.9	130.4	79.4	95.9	57.2	9.0	679.1
김 책	24.3	53.0	1.1	14.3	23.5	92.6	116.1	208.0	119.9	109.9	56.2	22.1	841.0
함 흥	61.1	27.5	2.3	55.8	50.4	105.5	194.0	371.8	96.6	95.6	67.9	8.4	1136.9
원 산	138.1	39.6	49.0	26.7	36.9	51.8	406.5	570.0	204.8	62.3	117.9	23.5	1727.1

평균기온°C (1973년)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2.4	−2.2	2.5	10.8	15.6	20.6	25.8	25.1	18.6	10.7	2.5	−5.6	10.2
신의주	−3.1	−3.0	2.0	9.8	14.5	19.9	24.6	24.5	18.7	10.3	2.0	−5.3	9.6
덕 천	−5.3	−4.1	1.1	9.4	14.5	20.1	25.2	24.5	17.5	9.1	0.6	−8.1	8.7
사리원	−1.8	−1.8	2.8	11.0	15.9	20.7	25.8	25.0	18.8	11.3	3.2	−4.5	10.5
해 주	−0.4	−0.4	4.1	10.7	15.9	20.1	25.3	24.9	19.2	12.3	4.6	−3.1	11.1
개 성	−0.9	−0.6	3.6	10.8	16.0	20.3	25.8	24.8	18.9	11.4	3.5	−4.2	10.8
강 계	−9.5	−6.9	−1.3	9.0	13.6	19.3	24.7	24.1	15.7	6.9	−2.1	−11.6	6.8
혜 산	−14.7	−10.6	−4.8	5.6	11.2	16.4	22.8	21.3	12.7	4.0	−5.5	−16.5	3.5
청 진	−3.0	−2.8	0.2	6.9	11.3	15.3	21.7	22.9	17.0	9.7	2.6	−4.0	8.2
김 책	−1.7	−1.6	1.2	7.7	11.8	15.7	22.3	23.4	17.6	10.7	3.5	−2.9	9.0
함 흥	−2.1	−1.2	2.4	10.5	14.5	18.0	24.0	24.2	17.7	10.6	3.3	−3.3	9.9
원 산	−0.9	0.2	3.5	11.0	15.3	17.8	24.0	24.7	18.1	11.9	5.2	−1.3	10.8

강수량mm (1973년)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13.9	5.6	19.8	66.8	144.3	85.0	161.4	367.9	69.7	29.8	33.8	13.0	1011.0
신의주	2.6	10.1	33.9	87.3	121.3	62.8	185.2	267.1	69.7	25.8	23.7	3.7	898.2
덕 천	7.6	15.8	42.6	76.1	158.0	111.6	204.0	367.1	112.5	47.2	36.9	19.2	1198.6
사리원	11.1	0.4	5.0	73.0	73.3	81.6	213.8	533.2	73.7	20.7	41.7	12.7	1140.2
해 주	3.9	0.0	2.3	117.7	114.1	62.6	224.6	530.4	51.3	9.3	27.5	12.0	1155.7
개 성	23.1	1.3	8.8	128.4	110.2	93.5	181.2	414.4	93.9	19.5	14.9	6.9	1096.1
강 계	7.3	13.0	28.6	68.9	155.4	101.7	92.4	142.8	90.6	25.6	47.4	10.7	784.4
혜 산	2.1	3.3	16.2	29.3	68.3	72.3	43.2	88.6	100.7	35.2	13.9	6.0	479.1
청 진	4.7	11.0	19.0	21.2	77.5	27.2	74.3	115.3	70.0	60.5	3.7	0.6	485.0
김 책	11.1	22.2	7.9	42.4	130.1	15.4	79.5	253.6	108.0	63.8	15.2	1.9	751.1
함 흥	21.1	4.9	14.8	48.4	165.5	40.3	187.4	364.6	137.4	19.2	24.3	0.0	1028.5
원 산	65.2	3.8	20.8	92.4	162.3	223.9	205.0	521.0	323.0	67.0	108.0	2.4	1794.8

상대누기 % (1973년)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71	61	61	65	69	76	83	84	81	74	71	63	72
신의주	57	55	59	67	69	79	88	83	76	64	63	55	68
덕 천	77	66	66	66	69	76	83	83	80	76	74	74	74
사리원	68	61	58	63	65	74	83	84	79	71	73	68	71
해 주	68	61	53	67	64	75	85	85	73	65	66	67	69
개 성	71	61	57	67	66	76	83	87	78	69	68	63	70
강 계	77	71	68	58	65	75	77	75	79	75	77	78	73
혜 산	78	69	66	60	61	73	70	72	76	64	68	75	69
청 진	72	63	67	64	75	88	87	83	76	65	54	48	70
김 책	73	64	64	67	78	92	90	86	80	69	58	48	72
함 흥	67	54	52	54	66	84	86	83	80	67	53	46	66
원 산	67	52	54	59	67	88	89	83	83	67	53	43	67

해비침률 % (1973년)

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58.4	64.3	59.4	44.4	62.0	39.5	40.3	38.9	54.7	58.1	50.4	65.8	52.0
신의주	72.7	61.5	67.3	59.4	62.2	43.5	36.0	38.0	56.2	52.4	63.9	71.0	55.6
덕 천	51.6	57.5	62.3	47.7	55.7	43.9	34.3	42.2	49.7	54.7	48.4	53.4	49.4
사리원	57.9	59.3	65.5	51.5	62.3	37.4	44.4	44.0	55.9	52.3	53.2	60.7	53.0
해 주	49.1	47.7	50.6	39.0	62.0	32.3	33.5	35.1	51.3	58.1	56.3	64.3	47.3
개 성	58.9	64.5	68.7	47.2	64.7	39.3	49.0	42.0	53.1	53.4	56.5	63.2	54.3
강 계	54.9	53.3	49.5	51.0	44.6	39.7	44.6	48.5	41.4	44.2	42.3	41.2	46.1
혜 산	59.0	57.8	58.1	57.0	52.7	40.3	42.6	44.7	36.3	44.0	54.8	54.6	49.4
청 진	56.7	60.2	57.7	59.4	49.9	26.9	33.5	43.4	47.7	50.0	59.8	60.5	49.0
김 책	59.8	58.1	68.3	52.7	48.5	27.0	39.7	49.3	49.8	51.8	68.3	75.7	52.4
함 흥	62.8	60.0	67.2	55.4	55.3	35.5	34.8	40.9	49.7	57.9	66.5	78.1	53.6
원 산	56.9	62.9	66.6	54.3	59.0	38.6	47.6	43.9	48.0	54.4	61.9	76.1	54.7

우리 나라에서 발표한 편지, 비망록, 호소문, 성명들

미국국회에 보내는 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미국회 상, 하 량원에 이 편지를 보낸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1971년 9월부터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는 대화가 시작되였다.

그후 쌍방사이의 고위급회담이 마련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으며 이 합의된 원칙들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였다.

이것은 오래동안 격페된 상태에 놓여있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동결상태를 깨뜨리고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이였다.

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 우리는 쌍방의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조치로서 북과 남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및 외교 등 각 분야에서 합작을 실현할데 대하여 특히는 쌍방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풀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 등 현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5개항목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온민족의 념원에 맞는 우리의 이 평화애호적발기들은 남조선당국자들로부터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고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쌍방의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에서 더 전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나타난 사실들은 이것이 주로는 조선이 조선사람자신의 손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정부당국의 정책에 기인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정부당국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겉으로는 환영한다고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첫출발로부터 그에 찬물을 끼얹으며 방해하여왔다. 미국정부당국자들은 남북대화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것이며 남조선군대의 《현대화계획을 계속 추진시킬것》이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에게 《힘의 립장》에서 우리와 협상하라고 추동하였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미국은 남조선에 최대의 군사《원조》를 주면서 현대적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대량적으로 공급하고 군사기지를 확장하며 끊임없이 군사적도발과 군사연습을 감행하는 등 전쟁준비를 다그쳤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을 더욱더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의 길로 부추기였다.

조선에 대한 미국정부의 이와 같은 립장과 태도는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어긋나는것이며 긴장완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현 시대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미국정부당국은 무엇때문에 조선에서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진행하며 조선사람끼리 평화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는 이 마당에 와서도 여기에 간섭하며 방해하는가.

만일 미국이 정말로 조선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극동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념원한다면 이 이상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두어두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우리와의 군사적대치상태를 인위적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없을것이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변화된 오늘의 정세하에서 자기의 정책을 개변하고 남조선에서 군대를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평화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한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지하고 무기와 군사장비의 공급을 그만 두며 남조선당국자들을 무력으로 지원하여 조선사람끼리 싸우도록 부추기는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정부당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면 조선에서 전쟁위험은 사라지고 조선인민은 어김없이 자신의 손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이렇게 하는것이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다 같이 부합되며 평화의 리익에도 전적으로 맞는다고 인정하면서 미국국회가 우리의 이 편지에 신중한 관심을 돌리고 해당한 긍정적대책을 강구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973년 4월 6일 평양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내는 편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이 편지를 보낸다.

우리 나라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직접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세계평화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신의 손에 의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특히 전반적 국제정세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우

한 인민들의 위업에 보다 유리하게 급격히 전변되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1971년 8월 6일 연설에서 남조선의 현집권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아무때나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새롭게 천명하신 이후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의 평화통일방침은 조선인민은 물론 광범한 세계여론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때까지 북과 남사이의 접촉을 극력 반대하여오던 남조선당국자들도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1971년 9월에는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이 열리게 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있다.

이 과정에 쌍방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각 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할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민족공동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27년동안이나 격페상태에 놓여있던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이루어진 이러한 접촉과 대화의 결실을 시대적추세와 평화의 리익에 부합되는 커다란 사변으로서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과 세계인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고있는 대화를 통일을 위한 대화로, 단결을 위한 대화로 발전시켜나갈것을 념원하면서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리행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공동성명정신에 맞게 북과 남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하여 남조선측에 제의하였다.

특히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현존하는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는것이 남북사이에 쌓인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담보하는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인정하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며 해외로부터 무기와 전쟁물자를 들여오지 않으며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5개항목의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측의 이 모든 제안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여온 조국통일방침을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진행되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구체화한것으로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의사와 평화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안이며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제의들은 미국이 남조선을 의연히 강점하고 자기의 지배적지위를 리용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을 군사적대결에로 부추기며 대화의 진척을 방해하고있기때문에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닉슨주의》에 따라 조선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적목적을 이룩하려 하며 《두개 조선》을 만들어 우리 나라를 영구히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처음부터 찬물을 끼얹었다.

미국정부당국자들은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비록 대화가 진행되고있다하더라도 《미군을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측이 대화에서 《보다 강력한 립장》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방위공약》의 리행과 《국군의 현대화계획》을 추진시킬데 대하여 거듭 담보하고 각종 신형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제공하고있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을 전쟁준비를 강화하는데로 추동하고있다.

요즘에도 남조선주둔 미군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도발적군사연습을 남조선군대와 함께 대대적으로 벌리며 군사정찰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남침》 위협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부터의 북침위협이 조선에서의 현실적전쟁위협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이러한 방해책동에 발맞추어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와 마주앉아 회담할 때에는 좋은 말을 하나 돌아가서는 그것을 위반하고있으며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 우리의 현실적방안들을 《시기상조》라고 하며 거부하고있다.

그들은 지연전술을 쓰면서 대화를 오직 전쟁준비와 자기들의 통치체제강화의 수단으로 리용하고있으며 우리가 주장하는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이 아니라 미국당국자들이 말하는 대결과 경쟁을 고창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이 아니라 전쟁과 분렬을 추구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신식민주의적예속화정책을 실시하며 조선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자기들의 행동을 《유엔의 결의》에 빙자하여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얼마전에도 남조선에서 《비상사태》우에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한 가운데 총검의 위협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실시한 이른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으로 하여금 《공정한 민주주의선거》라고 비호하게 하였다.

미국은 또한 조선에 대한 자기의 침략정책수행에 일본반동세력을 끌어넣고있다.

모든 사실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종식시키기전에는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더 전진시키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없으리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오늘 조선에서의 정세발전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애들을 제거하는데 적극 힘써줄것을 제기하는바이다.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해체되여야 한다.

사실 오늘 미국군대는 남조선에 더 이상 머물러있을 어떠한 구실도 없다.

원래 미군의 남조선강점 그 자체가 비법적이며 그들이 오늘까지 남조선에 머물러있다는것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예견한 조선정전협정에도 전적으로 위반된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는 어떠한 외국군대도 없다.

미국은 자기의 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두고있는것이 마치 《남침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인듯이 말하고있으나 《보호》라는것도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더우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일관하게 《남침》할 의도가 없다는것을 표명하였을뿐아니라 남북공동성명에도 쌍방이 서로 싸우지 않을데 대하여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조건에서 이러한 구실은 전혀 통할수 없다.

만일 미국이 정말로 조선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무엇때

문에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우리와의 대치상태를 인위적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미국은 마땅히 남조선으로부터 자기의 군대를 철거시켜야 하며 남조선에 무기와 군사장비를 반입하고 그곳에서 군사기지를 확장하며 군사연습을 진행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군대를 자진해서 20만 이하로 줄일 용의가 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을 제거하자면 또한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유엔의 결의》들에 의거하여 정당화하려 하고있는 사실에 비추어 유엔이 이에 옹당한 주의를 돌리고 조선문제에 대하여 정당한 방침을 취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올해 유엔총회에서는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으로부터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함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것이며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토의될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반드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 참가하고있는 나라들도 칠레와 파키스탄이 보여준 정당하고 결단성있는 행동의 전례에 따라 이 《위원단》에서 탈퇴하거나 또는 그 사업을 무시함으로써 《위원단》이 자체로 해체되게 하든가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해체되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애가 제거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할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을 일관한 정책으로 삼고있으며 지난 조선전쟁의 참전국이건 아니건 다 같이 조선문제의 정당한 해결에 옹당한 관심을 돌리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미 마련된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귀중히 여기고 잘 추진시키도록 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우리는 당면하여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제기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 등 우리의 5개 항목제안이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북과 남 사이의 끊어진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고 나라의 통일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고 조국의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각 분야에 걸쳐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이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사들의 참가하에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대화와 협상을 폭넓게 진행하여야 하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적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할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이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큰 련대성을 표시하여줄것을 기대한다.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고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이 제거된다면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지고 대화는 빨리 진척될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순조롭게 해결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동정과 지지를 보내주고있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나라들의 국회와 정부와 인민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귀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편지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해당한 긍정적조치들을 취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973년 4월 6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조선통일문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적견지에서 보나 또는 국제적견지에서 보나 그 해결을 더이상 늦출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민족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하나의 통일된 완전한 민족적독립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있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절절한 평화통일념원은 외세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오늘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이번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의정에는 조선에 관한 문제가 상정되여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평화적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자기의 공명정대한 립장과 방침을 다시한번 온 세상앞에 밝히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조선문제의 발단과 경위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36년동안에 걸친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되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조선민족은 수천년동안 한강토안에서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풍습을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조국이 해방되자 조선인민은 전조선 방방곡곡에서 자기의 창의에 의한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세우고 새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섰다.

—그런데 패망한 일본군대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조선에는 북위 38도선을 림시적계선으로 하여 쏘미량군이 들어오게 되였다.

조선이 해방된후 20여일이 지나서 1945년 9월 8일에 미군은 38선이남지역에 상륙하였다. 남조선에 상륙한 미군은 곧 점령군으로 행세하면서 군정의 실시를 선포하였다.

그때의 군정실시포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미군륙군의 최고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38도이남과 동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치함…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속 복종할것.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보안을 문란히 하는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함…》(맥아더포고 제1호에서)

왜 미군은 해방된 조선땅에 들어와서 이처럼 어마어마한 군정을 실시하였는가?

그후의 모든 력사적사실이 이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주고있다.

미군은 우선 군정의 실시와 함께 조선인민자신이 이미 세워놓은 인민정권기관을 전면적으로 탄압해산하였다.

또한 미군은 38선을 국경선과 같이 폐쇄하고 그때까지 자유롭게 진행되던 남북사이의 교통운수, 체신, 인사래왕의 길을 끊어놓았다.

조선의 비극적분단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쏘, 미, 영 3개국외교부장회의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하게 하며》 이를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조선에 《민주주의림시정부를 수립》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은 이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그의 실현을 위하여 힘썼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자신이 서명한 이 결정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의 앞잡이로서 오래동안 미국에서 길러낸 리승만과 일본식민지통치자들에게 복무한 남조선의 극소수 민족반역자들과 매국세력을 긁어모아 이 3개국 외교부장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리도록 조직추동하였다.

그러던끝에 3개국외교부장회의결정 실행을 위한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

이것은 벌써 미국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발전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에 발붙이게 된것을 기화로 하여 100여년전부터 기도하여온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며 남조선을 식민지군사기지화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국무부가 몇해전에 공포한 조선문제에 관한 비밀외교문서에 의하더라도 1946년에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조선을 《아세아에서의 미국의 모든 성공이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리념상의 싸움터》라고 하고 자기들의 《…과업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기간 조선에 머물러있고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인원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대외관계, 1946년, 극동》에서)

그후의 미국의 모든 행동은 이 목적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데 귀착되였다.

—1947년 미국정부는 모스크바 3개국 외교부장회의결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조선문제를 유엔에 끌고갔다.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킨것은 유엔헌장에 직접 위반되는것이였다.

그것은 조선문제와 같이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에 이미 그 처리방도가 규정되여있는 문제는 유엔에서 토의할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는 유엔헌장 제17장 제107조에 대한 위반이였다.

그것은 또한 임의의 국가의 내정문제의 토의를 금지하고있는 유엔헌장 제2조 7항에 대한 위반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유엔총회 제2차회의에 조선문제를 억지로 상정시키고 조선에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보내며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실시한다는 《결의》를 일방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여 조선인민과 유엔에 다같이 재난으로 된 장기간에 걸친 유엔에서의 《조선문제》 토의의 력사는 시작되였다.

그때로 말하면 오늘날의 절대다수 제3세계 나라들이 아직 유엔에 들어있지 않던 시기였다. 미국은 평화애호국가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유엔의 권위를 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목적수행에 리용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국이 유엔에서 부당하게 만들어낸 《결의》는 전체 조선인민의 응당한 배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미리 계획하였던대로 또다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유엔소총회》라는것을 소집하여 이른바 《가능한 지역》즉 미군의 점령밑에 있는 남조선에서만 단독《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결의》를 꾸며냈다.

미국은 이에 근거하여 1948년 5월 10일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이 만들어낸 《선거법》에 의하여 미군의 총검의 억압밑에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를 감행하였다. 이른바 《유엔감시하의》《자유선거》라고 한 이 《선거》가 얼마나 살인적인 폭압속에서 진행되였는가 하는것은 미국《유피》통신 특파원이 서울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한 사실에서도 가히 알수 있었다.

•《미군정찰기는 상공을 비행하였으며… 경관과 특임된 민간인이 미국군대의 지원밑에 각 요소와 교차장에 바리케트를 설치했으며 각 골목입구에는 경비대가 배치되여있었다.

민간경비대원은 도끼자루, 야구용타봉, 곤봉들을 휴대하고있었고 조선경비대는 미국카빙총으로 무장하였다. 분위기는 계엄령하의 도시와 같았다.》(남조선신문 《경향신문》 1948년 5월 12일)

미국은 폭압협잡《선거》의 결과로 1948년 8월 악명높은 리승만을 우두머리로 하는 남조선단독괴뢰정권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조선에서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라고 하는 유엔의 《결의》를 조작했다.

그러나 이《정권》이 미제의 한개 신식민주의적통치기구로 날조된 가짜 정권이며 어떠한 자주성도 없는 예속적 《정권》이라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감출수 없었다.

—미국이 남조선단독《정권》을 수립한 것은 조선의 분렬을 공공연히 고정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미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남조선에 단독《정권》을 세우려고 획책하여왔다는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드러났다.

•미국무부가 공포한 조선문제에 관한 비밀외교문서에 의하면 1946년 11월과 12월에 미군정청 정치고문 랭든과 미군정장관 하지는 각각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과 편지에서 리승만이 《모스크바3개국외교부장회의협정의 페기와 남조선의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조선단독정부의 수반이 되기를 원하고》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대외관계, 1946년, 극동》에서)

—조선인민은 미국과 남조선반동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속에서 남북조선전지역을 통한 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9월 조선민족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쏘련군대는 1948년말까지 조선에서 모두 완전히 철거하였다.

이것은 조선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할수 있게 하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기를 거부하였다. 그것은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립되여있는 남조선괴뢰정권을 총칼로 비호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해서였다.

—남조선단독《정권》수립후 남조선에서는 공공연히 《북진통일》이 정책으로서 선포되였으며 《북벌》준비가 대대적으로 추진되였다.

1950년 6월 미제는 드디여 덜레스를 직접 남조선에 보내여 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영웅적반격에 의하여 남조선군대의 침공이 산산이 분쇄되고 그들이 패주하게 되자 미국은 직접 자기의 륙해공군부대를 투입하여 야만적무력간섭을 개시하였다.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미리 짜놓은 계획대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고 침략의 희생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미군의 무력침략을 유엔의 《경찰자위행동》으로 묘사하면서 미국침략군대에 《유엔군》의 모자를 씌워줄데 대한 《결의》들을 날조해냈다.

이와 함께 조선에 대한 침략의 도구로 만들었던 《유엔조선위원단》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으로 개편하였다.

조선에 《유엔군》을 보낼데 대한 《결의》가 전혀 부당하다는것은 그것이 조선에서 누가 전쟁을 도발하였는가 하는데 대한 어떠한 조사확인사업도 없이 또한 침략을 당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도 없이 심지어는 안전보장리사회의 상임리사국 일치가결원칙마저 위반하면서 꾸며졌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하였다.

1965년 2월 프랑스대통령 드골까지도 조선에서의 《유엔군》의 행동과 관련하여 《유엔이 그 본래의 성격과 기능의 한도를 넘어서서 헌장원칙을 벗어나게 된것으로 알고있다.》고 함으로써 조선에 《유엔군》을 보낼데 대한 유엔의 《결의가 잘못된것이였다는것을 인정하였다.》

(빠리 1965년 2월 4일발 프랑스통신 《에이에프피》)

—미국은 세계전쟁력사상 보기드문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3년동안이나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감행하였으나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성원을 받은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에 부딪쳐 참패를 거듭하게 된 미국은 1953년 7월 그들이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로 되였다.

조선에서의 정전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가능성을 다시금 조성하였다.

조선정전협정 제60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후 3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등 문제들을 협의할것을 이에 건의한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을 처음부터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자들로 하여금 《조선정전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게 하고 계속 《북진통일》을 고창케 하면서 새 전쟁 준비를 다그치고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여나섰다.

미국은 정전협정조인직후인 1953년 8월에 벌써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예견한 정전협정 제60항의 정신에 완전히 위반되게 미군의 남조선 영구강점을 규정한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또한 정전협정에 규정된 한급 높은 정치회의소집문제도 1953년 12월 이 회의 소집을 위한 판문점예비회담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매장하고말았다.

—1954년 4월—6월사이에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제네바회의가 진행되였다.

미국은 이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제기한 가장 합리적인 조선통일방안들을 거부하였을뿐아니라 《조선문제의 심의과정에서 서로 접근된 또는 접근될수 있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초보적합의를 달성》할데 대한 제의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계속 노력할데 대하여 합의》를 볼데 대한 제안마저 모조리 뿌리치고 회의의 정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때이후 쌍방간에는 19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될 때까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어떠한 협상도 진행되지 못하였다.

—물론 그 기간에도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정할수 있는 좋은 기회는 여러번 있었다.

례컨대 1958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비롯한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들을 제기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중국인민지원군은 1958년말까지 주동적으로 조선에서 모두 철거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에 매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때에도 자기 군대의 철거를 거부하였으며 조선통일의 앞길을 계속 완고히 가로막아나섰다.

—1960년 4월에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영웅적봉기에 의하여 리승만《정부》가 타도되였다.

이것은 유엔《결의》에 빙자하여 괴뢰정권을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적《정권》인듯이 묘사하여온 미국의 모든 주장이 허위와 기만이였다는 것을 폭로하였으며 유엔의 이름밑에 남조선에서 감행하여온 미국의 신식민주의적정책의 수치스러운 파산을 의미하였다.

4.19봉기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새롭게 제기한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기운이 어느때보다도 앙양되여갔다.

미국은 이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1961년 5월 남조선의 군사파쑈분자들을 내세워 군사정변을 조작하였다.

정권을 가로챈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은 평화통일을 주장하여나섰던 남조선의 모든 애국자들과 정치활동가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구금, 학살하였다.

남조선은 군사파쑈폭압의 암흑속에 잠기였다.

—군사파쑈정권이 나온 다음 1960년대에 남조선에서는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와 군사적도발행동이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전술적핵무기와 유도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와 현대적무기들을 더욱 많이 끌어들이여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투력을 증강하고 남조선군대의 병력을 늘이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직접적인 무장도발을 날로 강화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깨여진 《북진통일》론 대신에 《승공통일》론을 내놓고 힘에 의한 남북대결을 더욱더 고창하여나섰다.

1950년 6월 덜레스가 38선을 시찰한 다음 조선전쟁이 일어났던것처럼 1966년 10월 미국대통령 존슨이 남조선에 날아들어 군사분계선일대를 시찰하고 돌아간 다음 조선에서의 정세는 조선전쟁발발전야를 방불케 하는 극도로 첨예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1968년 1월 미국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해깊이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조선인민군에 붙잡혀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1969년 4월 미국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깊이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조선인민군에 의하여 격추당하였다.

미국이 련이어감행한 군사적도발행위는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마련할 목적으로 오직 전쟁전야에만 하는 고의적인 침략행위였다.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이와 같은 침략적죄상에 대해서는 후에 미국정부자신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1968년 12월 미합중국정부가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앞에 낸 사죄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미국함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정탐행위를 한데 대하여 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국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하는 바입니다.》

온 세계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였던 이 사건들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인내성있는 평화애호정책으로 하여 큰 전쟁에로 전변되지 않고 수습될수 있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을 분렬시키고 통일을 방해하여온것은 미국이였다.

해방된 남조선땅을 강점하고 그곳에 비법적으로 군정을 실시한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에 관한 국제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것도 미국이며 유엔의 이름밑에 남조선에 단독《정권》을 조작한것도 미국이며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것도 미국이다.

정전후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하고 북과 남사이의 어떠한 접촉이나 통일협상도 가로막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준비를 다그쳐온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자기들의 이러한 행동을 가리우기 위하여 조선정전이후에도 년례행사와 같이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키고 《유엔감시하의 선거》니, 《유엔군》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느니 하는 판에 박은 《결의안》을 해마다 복사해냈다.

그러나 사태는 언제까지나 미국의 뜻대로만 되지 않았다.

유엔에서 자기들의 지반이 뒤흔들리게 되자 미국은 유엔총회 제26차회의와 제27차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의 토의를 두번이나 연기시켰다.

바로 유엔에 조선문제를 끌어들인 장본인이 미국인데 미국자신이 유엔에서의 조선에 관한 문제의 토의를 그만두자고 제기하게 되였다는것은 그들이 궁지에 빠졌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조선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하루빨리 제거하여야 한다는 안팎의 여론의 압력이 더욱더 커지게 되자 미국정부도 올해 제28차유엔총회에서는 조선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는데 부득불 응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북 조선의 72개 정당, 사회단체들은 조국의 통일위업을 공동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였으며 이 결성대회에서 남북조선 총선거를 실시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것을 거듭 제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평화애호적제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벌》준비를 다그치며 38도선 일대에서 무장도발을 날로 강화하여나섬으로써 전쟁의 위험이 날을 따라 짙어가던때인 1950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자유로운 남북조선 총선거로 전조선 최고립법기관을 창설할데 대한 평화적 조국통일방도를 추진시킬것을 다시금 진지하게 제의하였다.

이에 뒤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를 단일한 전조선 립법기관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방안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끝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도발하는것으로써 이에 대답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정전이후에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제네바회의가 파탄된후 1954년 10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차회의에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의 합동회의를 평양 또는 서울에서 열데 대한 방안을 제기하였다.

—1955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조치를 취하며 남북조선 당국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무력행사도 하지 않고 오직 평화적방법으로만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의무를 질 것을 선포하며 남북조선 군대를 최소한도로 줄이며 남북조선 당국의 대표자회의를 열것 등을 제기하였다.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는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할것을 주장하는것과 함께 남북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 물자교류, 사람들의 래왕, 통신의 교환 등을 가로 막고있는 장벽을 없애고 호상 접촉을 촉진시키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남북 통일의 문제까지 토의하며 그를 위한 실지대책을 취할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남북조선정권당국, 최고립법기관 또는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할것을 제기하였다.

2.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노력

조선인민은 미군의 남조선상륙으로 나라가 인공적으로 분단되게 된 첫날부터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북반부에 있는 정당, 사회단체들이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화통일제안을 내놓은것은 무려 130여차례에 이르렀다.

이제 그 가운데서 몇가지 대표적실례만을 들어도 다음과 같다.

—일찌기 1948년 4월 미국이 모스크바 3개국 외교부장회의결정을 파기하고 유엔의 이름밑에 조선의 분렬을 로골적으로 꾀하여나서고있던 때에 평양에서는 북조선로동당의 발기에 의하여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가 열리였다.

이 회의에는 남조선의 우익정당대표들까지 다 참가하였으며 회의에서는 일치하게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동시에 철거시키고 자유로운 전조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제기하였다. 당시 이것을 반대한것은 오직 미국과 극소수의 리승만매국도당뿐이였다.

—미국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민족적념원을 거역하고 남조선에 단독《정권》을 세운 다음해인 1949년 6월에 남

—1957년 1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적십자단체들이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가족 및 친척들의 문안편지를 교환할수 있도록 협조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할것을 남조선적십자사에 제의하였다.

—1958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해당한 조치를 빨리 취할것을 요구하며 모든 외국군대가 완전히 철거한후 일정한 기간내에 전조선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조선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방안을 제기하였다.

—1960년 4월 남조선인민들의 봉기에 의하여 리승만괴뢰정권이 타도된후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은 전례없이 높아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주석께서는 1960년 8.15해방 열다섯돐기념 경축대회보고에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변함없는 방침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천명하시면서 만약 남조선당국이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의 실시에 응할수 없다면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때까지의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련방제를 실시하며 경제문화 교류와 편지거래, 인사래왕 등을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획기적방안을 제기하시였다.

1960년 11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는 이 강령적인 방안을 구체화하여 남북간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도모할데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기하였다. 여기에는 남조선에서 농업과 어업, 민족공업과 민족문화를 부흥발전시키며 주택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킬 전반적대책과 함께 이에 소요되는 방대한 재정, 경제적 지출을 공화국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제의들이 들어있었다.

—1961년 5월 미국이 현 남조선 당국자들을 내세워 군사정변을 조작하고 평화적조국통일의 가능성을 모두 말살하여나선 이후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오직 민족의 재난을 제거하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일념으로부터 여러가지 구국방안들을 계속 제기하였다.

—1962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회의는 남조선당국이 당장 우리와 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의할 의사가 없다면 먼저 모든 문제해결의 선결 조건인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와 남북간의 평화협정체결 및 남북군대의 축소와 같은 문제를 협상하기 위하여 판문점이나 평양 또는 서울에서 만날것을 제의하였다.

—1963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동련석회의는 끊어진 민족의 뉴대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써 경제, 문화 교류, 남북련방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완전한 통일에로 이르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선 남북조선 대표들이 만날것을 제기하였다.

—1964년 3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회의는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소집하거나 남북조선각계 대표들간의 접촉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민족적 단합과 협조를 실현할것을 제의하였으며 남조선의 파괴된 경제를 바로잡으며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200만석의 쌀, 10만톤의 강재, 1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1만톤의 화학섬유와 세멘트, 목재, 기계류 등을 남조선에 줄것과 남조선의 실업자들을 북반부에 받아들여 그들에게 직업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줄것을 제의하였다.

—1965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4차회의에서도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며 조국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구국대책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도발을 더욱 격렬하게 감행하여 정세를 날로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있는 조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그때 이후 평화적조국통일방안을 더 이상 내놓을수 없었다. 조선문제는 더욱더 동결상태에 빠져들어갔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팎의 정세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것은 평화적조국통일을 추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97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8개항목의 조국통일방안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1)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2)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며
(3) 《한미호상방위조약》과 《한일조약》을 비롯하여 남조선《정권》이 체결한 모든 매국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을 폐기하며
(4)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우며
(5) 이 총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남북조선 전역에서 각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6) 필요하다면 과도적조치로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며
(7) 남북간의 광범한 교류를 실현하며
(8) 이상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정치협상회의를 진행할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제기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안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안들이였다.

그것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것이였으며 또한 분렬로 말미암아 남북에 조성된 각이한 정세를 충분히 고려한 기초우에서 내놓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이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은 이를 덮어놓고 반대하였다. 그들은 이 전기간을 통하여 도대체 조선통일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제안이라는 것은 단한번도 내놓은 일이 없다.

이 한가지 사실만도 그들이 조선의 통일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 하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71년 8월 6일 김일성주석께서는 급변하는 국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오래동안 지속된 남북사이의 동결상태를 깨뜨리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획기적이고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우리의 8개항목 평화통일방안을 접수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딴 문제로 치더라도 그들이 참말로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무엇때문에 남북이 접촉하고 협상하는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사람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의가 나온다음 그 실현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압력이 강화되고 세계인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막을수 없이 높아지게 되자 그때까지 남북사이의 모든 접촉을 완강히 거부하여 오던 남조선당국자들도 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의 형태로나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의 대화의

길에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그것이 비록 좁은 테두리의것이기는 하지만 조선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민족내부문제를 토의하게 된만큼 매우 의의있는 일로 인정하고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와 같은 시종일관한 평화애호적노력과 정당한 방침에 의하여 특히는 김일성주석의 력사적인 8월 6일연설을 계기로 하여 북과 남사이의 동결상태는 깨여지고 접촉과 대화의 문은 열리게 되였다.

3. 북과 남사이의 대화

1971년 9월 20일부터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시작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여러가지 지연전술을 참을성있게 극복하면서 적십자회담이 성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뿐아니라 보다 폭넓은 정치협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힘썼다.

그결과 적십자회담과는 별도로 남북고위급 비밀회담이 진행되였으며 마침내 1972년 7월 4일 공화국측이 제기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였다.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혀진 조국통일 3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에는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할데 대하여,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는것이 지적되였다.

해방후 4분의 1세기이상이나 격폐되여있던 조선에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것은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이였다.

이것은 민족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갈데 대한 원칙적립장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여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남북공동성명발표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공화국측은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회의와 그후 3차에 걸쳐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을 리행하기 위한 구체적조치로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북과 남사이의 합작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공화국측은 정치적합작을 실현할데 대하여 제의하였으며 경제분야의 합작으로서 북반부에 풍부히 매장되여있는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할데 대하여 남북의 어장을 개방하고 고기잡이를 같이할데 대하여, 남반부에서 관개공사를 공동으로 추진시킬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합작으로서 민족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같이 하고 우리 나라 력사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풍모를 빛내이며, 예술단, 체육단을 교환하고 단일한 민족예술단과 단일한 체육단을 구성하여 대외에도 공동으로 진출할데 대하여 제의하였다.

또한 군사적합작을 실현하여 공동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을데 대한 공동방위안과 외교분야에서의 합작을 실현하여 대외활동에서 북과 남이 공동보조를 취할데 대하여서도 제의하였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측의 구체적제안들은 남북간의 오해를 풀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하루빨리 통일의 길을 주동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였다.

—특히 공화국측은 남북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호상 신임을 두터이 하여 민족적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긴절하고도 관건적인 고리로서 남북사이의 현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쌍방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대결상태에 있는 조건에서는 아무리 합작이요, 래왕이요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없는것이다.

오직 속에 품고있는 칼을 내놓아야만 모든 오해와 불신의 근원을 없애고 호상 신뢰와 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으며 통일도상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화국측은 남북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의 제안을 내놓았다.

(1)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2) 미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3) 북과 남의 군대의 10만 또는 그 아래에로의 축소와 군비의 대폭축소,

(4)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중지,

(5)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의 체결.

남조선당국자들은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합의한것만큼 진짜로 그들이 평화통일을 념원한다면 공화국측의 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의 이 모든 구체적제안들은 남조선당국자들로부터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측과 마주앉아 회담할때에는 좋은 말을 하고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으나 뒤에 돌아가서는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전적으로 배치되게 행동하였다.

•남조선 《국무총리》김종필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며칠후에 벌써 남조선《국회》에서 한 공식발언에서 《이 몇장의 성명에 우리의 운명을 점칠수 없으며 또 믿을수도 없다.》, 《국민은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말라》고 하였다.(1972년 7월 8일발 남조선통신《동양》)

•리후락은 남북공동성명에 서명을 하고 돌아가 기자들에게 한 《공동성명에 대한 배경설명》가운데서 《오늘부터 우리는 대화없는 남북대결에서 대화있는 남북대결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라

고 하여 공동성명발표후에도 민족적 단결이 아니라 남북대결이 계속된다는 것을 공언하였다. (남조선《합동년감》 1973년판 612페지)

이처럼 남조선측이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전부터 이를 위반한 사실은 참으로 많다.

—남북공동성명에는 조국통일의 첫째 원칙으로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밝혀져있는데 남조선당국자들은 여기에 동의해놓고도 미군은 외세가 아니라고까지 하면서 계속 외세의존정책에 매여달리고있다.

•남조선《국무총리》는 1972년 7월 6일 남조선《국회》에서 《한국에 있는 유엔군은 외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 1972년 7월 6일발 남조선《국제신보지사》)

•1972년 9월 2일 박정희는 《대미 교섭을 전개하여 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1972년 9월 2일 남조선《중앙방송》)

•1973년 9월 12일에도 남조선《국무총리》는 남조선에 온 미국방차관 클레멘츠에게 《앞으로 상당한 기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군의 장기주둔을 거듭 애걸하였다. (서울 1973년 9월 12일발 남조선통신《합동》)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이 외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남조선이 하와이 다음가는 미국의 제51주로나 된다는 소리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군대까지도 외세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그들에게 민족자주의식이 조금도 없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하는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또한 일본군국주의 세력을 계속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그들과 밀접히 결탁하고있다.

•1973년 5월 25일 일본주재 남조선《대사》는 일본외교부장 오히라를 찾아가서 《한국은 일본만을 믿기때문에 잘 부탁한다.》고 하였다. (일본신문《마이니찌신붕》 1973년 5월 26일)

•1973년 6월 12일 도꾜에서 열린 《한일의원간친회》에 참가한 남조선《국무총리》는 《…세계의 쁠럭화경향으로 보아도 일한량국은 단결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있다》고 하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재침야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내들고있는 이른바 《일한운명공동체》론을 그대로 되뇌이였다. (일본신문《마이니찌신붕》 1973년 6월 12일)

남조선당국자들이 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에도 얼마나 외세의존정책을 집요하게 추진시키고있는가 하는것은 외국독점자본을 제한없이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예속경제로 전변시키고 있는데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남조선이 외자도입을 시작한 이래 1972년말 현재의 외자도입 실적은 32억 2천 2백만딸라였는데 1973년 6월말 현재의 외자도입총액은 무려 41억 4천 8백만딸라에 이르렀다. (서울 1973년 5월 2일발 남조선통신《동양》, 서울 1973년 7월 24일발 남조선통신《합동》)

—남북공동성명에는 조국통일의 둘째 원칙으로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한다는것이 밝혀져있는데 남조선당국자들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있다. 그들은 공화국측과의 《대화있는 대결》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력 배양》을 계속해야 한다느니, 현대전은 《속전속결》을 요한다느니 하면서 군비경쟁과 전쟁준비에 더욱 열을 올리고 긴장상태를 격화시켜나섰다.

•1972년 10월 1일 박정희는 《지금이야말로 총력안보태세의 내실을 거두어야 할 시점에 있으며 모두다 총을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 국민총력의 조직화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였다. (1972년 10월 1일 남조선《중앙방송》)

•1973년 7월 20일 박정희는 《통일의 길을 넓혀나갈수 있》게 하는 기본은 《국방의 강화, 국력의 배양, 총력안보의식의 확립》에 있다고 떠들었다. (1973년 7월 20일발 남조선통신《합동》)

이 모든것은 평화적방법이 아니라 군사적우세로써 힘에 의하여 병탄하는 방도 이외에는 통일의 길이 없다는 소리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렇게 떠들어댈뿐아니라 미국이 적극 추진시키고있는 《국군현대화5개년계획》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장비들을 쉼없이 끌어들이며 군비경쟁과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고있다.

—남북공동성명에는 또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한다고 규정되여있는데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원칙도 철저히 위반하고 도리여《반공》운동을 강화하며 남북대결의식을 고취하고 남조선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인민들과 야당인사들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인 1972년 7월 7일과 15일에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한 29명의 애국자들에 대한 살인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3명을 사형에 처하고 26명에게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의 중형을 들씌웠다. (1972년 7월 15일발 남조선통신《동화》)

•1972년 7월 13일, 15일, 28일에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한 애국자들인 김규남, 김질락, 박대인, 정태묵을 사형에 처하였다. (1972년 7월 13일 남조선《동양라지오》, 7월 15일 남조선《중앙방송》, 7월 29일발 남조선통신《동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평화적 조국통일을 주장한 애국자들을 련이어 처형한것은 통일을 반대하는 고의적인 도전행위이다.

특히 1972년 10월에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미부터 실시해오던 《비상사태》우에 또다시 《비상계엄령》을 이중으로 선포하고 사실상 제2의 군사파쑈정변인 《10월 유신》이란것을 꾸며냈다.

그리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은 《평화통일》의 체제를 갖춘다는 미명하에 평화통일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군사파쑈체제와 저들의 장기독재체제를 꾸리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준비와 대결태세를 강화하여나섰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잡지《뉴욕타임스 썬데이 마가진》도 한 론설에서 《작년 가을에 <유신>을 단행한 박정희의 구실은 남북대화를 뒤받침한다는 것이였지만 그의 진짜 동기는 전혀 딴데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유로운 토론없이 계엄령하에 진행된 국민투표를 통해 그는 모든 민주주의제도를 가짜로 되게 한 새 헌법을 선포하였다 .…박정희의 쿠데타는 대내외적 조건에 의해 전혀 정당화될 수 없는것이였다.

그것은 본질상 비난과 반대파를 없애며 박정희의 집권을 무한정 연장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미국잡지《뉴욕타임스 썬데이 마가진》 1973년 5월 20일)

남조선당국자들은 군사파쑈독재체제를 강화한후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애국적인민들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반대파세력에 대한 탄압을 더욱 혹심하게 감행하여나섰다.

•미국신문《워싱톤 포스트》지는 《박정희가 계엄령을 실시하고 남조선의 정치를 극단적으로 변경시킨지 9개월이 지난 오늘날…계속 벌어지고있는 일련의 체포는 안으로 긴장상태가 조성되여 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고 하면서 《지난 5개월동안에 파괴활동이나 정탐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70여명의

민간인이 체포된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간첩이라기보다 이단자들이며 사회비평가들이라는 징후가 나타나고있다.》고 썼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 1973년 7월 24일)

남조선당국자들은 정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뿐아니라 남조선의 종교인들에 대해서까지도 저들의 반민족적매국행위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마구 체포투옥하고있다.

•1973년 7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남조선당국은 기독교장로회 목사 박형규, 전도사 권호경을 비롯한 15명을 이른바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죄명을 씌워 검거하였으며 1973년 9월 18일 이들에게 이른바 《내란예비음모죄》라 하여 징역형을 들씌웠다. (서울 1973년 7월 6일발 남조선통신《동양》, 1973년 9월 18일 남조선《기독교방송》)

•남조선의 전국기독교리사회 사무총장은 《신앙의 자유가 정부당국에 의해 제한되고있는데로부터 교회와 남조선정부가 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독재하에서 살고있으며 민주주의는 울고있다.》고 하였다. (뉴욕 1973년 9월 12일발 프랑스통신《에이에프피》)

남조선당국자들은 군부대내에서도 자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1973년 4월에는 《서울경비사령관》윤필용을 비롯한 수많은 고급장교들을 《부정부패》라는 죄명을 씌워 체포투옥하였으며 1973년 7월에는 륙군《보안사령부》참모장을 비롯한 수많은 고급장교들을 역시 《부정부패》라는 죄명밑에 체포투옥하였다.

심지어 지난 8월 8일 남조선당국자들은 《중앙정보부》특무들을 동원하여 1971년의 《대통령선거》립후보자였으며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주장하여 투쟁하다가 일본에 망명중이던 민주인사 김대중을 대낮에 도꾜의 한 려관에서 랍치하여 서울에 끌어다가 감금하는것과 같은 야만적인 국제깡패행위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신문《뉴욕타임스》지까지도 《이것은 〈한국야당을 침묵시키려는〉 남조선중앙정보부의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하였다. (뉴욕 1973년 8월 16일발 미국통신《유피아이》)

이 사건에 남조선중앙정보부가 직접 개입하였다는것은 일본정부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일본경찰청은 그에 직접 관여한 남조선《외교관》을 호출하였다.

—남북공동성명을 위반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이상과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1년나마 시간이 지나갔으나 북과 남의 대화에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측이 제기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에 걸친 합작과 교류에 말로는 다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자고 하면 《지금은 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하여나섰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립장을 가리우기 위하여 말로는 서로의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자고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남북간의 온갖 장벽을 무너뜨리는것을 두려워하여 공화국측이 제기한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측과 고위급정치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남북조절위원회자체가 하나의 정치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치적문제를 론할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정치적합작을 반대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간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실데 대한 제안도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그들은 이 긴절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부차적문제들이나 이러저러한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해결하자고 하였다.

이것은 진실로 호상신임을 두터이하고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자는것이 아니며 민족분렬의 쓰라린 상처를 그대로 두고 나라의 분렬을 유지하며 고정화하자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적십자회담도 그것이 성사되자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이 정말로 마음놓고 자유롭게 서로 만날수 있는 사회적조건이 보장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측은 남조선사람들이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한번 접촉하고 말만 하여도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여있는 이른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고있다. 실지로 그들은 회담을 위하여 서울에 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을 남조선인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데 대해서까지 횡포무도하게 탄압을 가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어떻게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의 자유로운 래왕, 상봉, 재결합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겠는가!

—공화국측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주장과 립장을 잘 알게 되였으며 앞으로 북과 남이 더 접근할수 있고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조선민족자신의 손으로 능히 찾아낼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인내성있게 대화를 추진시켰다.

공화국측은 만일 현재의 대화가 잘 진척되지 않는다면 북과 남의 당국자들사이에서만 옮거니 긇거니 하는것보다 광범한 애국적인 각계각층 인사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호상 리해를 촉진시킴으로써 통일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남북조절위원회사업에 북과 남의 각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을 참가시켜 그 폭을 넓히든지 또는 조절위원회사업은 조절위원회사업대로 두고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였다.

공화국측의 이러한 진지한 제의는 남조선경제에서도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1973년 5월 7일 남조선의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당면정책》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을 위하여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교류, 남북조절위원회를 각계각층을 망라한 범국민적인협의기구로》전환시킬것을 제기하였다. (남조선신문《조선일보》 1973년 5월 8일)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간의 폭넓은 정치협상회의의 진행도 반대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반대하고 아무런 실제적조치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오던끝에 지난 6월 23일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외교정책특별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특별성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이 두개 조선으로 완전히 갈라지자는것이며 국제적으로 두개 국가로의 영구분렬을 공인받자는것이다.

이것은 남북공동성명을 공공연히 짓밟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사실상 파탄에로 이끄는 파괴행위이며 대화의 진행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있던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로골적배신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의 성의있고 인내성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의 이상과 같은 표리부동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

의 대화는 정체상태에 빠지고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로 조선민족앞에 열리였던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이 도로 흐려지게 되였다.

4. 대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

전체 조선인민과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기대 속에 출발한 북과 남의 대화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빠지게 된것은 무엇때문인가?

그 근본원인은 다름아닌 미국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으며 그가 남조선에서 차지하고있는 지배적지위를 리용하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며 조선사람끼리 대화를 진행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고있는데 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심화될수록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신식민주의적지배의 마수가 얼마나 뿌리깊이 뻗쳐있으며 그들이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통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얼마나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이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미국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겉으로는 그것을 환영하는척하였으나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처음부터 찬물을 끼얹으며 그를 방해하여나섰다.

미국무부 대변인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인 1972년 7월 5일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은 남북 대화가 진행된다 하여도 《국군현대화를 계속 지원하며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그렇게 하여야만 남조선당국자들로 하여금 《북조선과의 접촉에서 힘의 립장과 신심을 가지고 협상할수 있도록》할수 있다고하였다. (워싱톤 1972년 7월 5일발 미국통신《에이피》)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언제까지나 물러가지 않겠다는것을 공공연히 떠벌인것이며 조선의 평화적통일대신에 남조선당국자들을 로골적으로 힘의 대결정책에로 추동하고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려하고있다는것을 드러내놓은 것이다.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정부당국자들은 이와 같은 소리를 쉬임없이 떠벌여왔다.

•1973년 3월 28일 전 미국방장관 리차드슨은 국회에 제출한 년례 보고에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계속적인 군사적주둔이 《힘의 립장에서 남조선이 북조선과 협상할수 있게 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계속 불가피할것》이라고 떠벌였다. (워싱톤 1973년 3월 28일발 프랑스통신 《에이에프피》)

미국정부당국자들의 이러한 언행이 남북공동성명에 전적으로 위반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미국은 실제적행동으로 남조선에서의 군비증강과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남조선당국자들을 남북대결의 길로 추동하여왔다.

미국은 남조선군대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한국군현대화5개년계획》기간에 예견한 15억딸라의 《무상군사원조》를 남조선에 계속 줄것이라고 하였다. (서울 1973년 3월 8일발 남조선통신《동화》)

미국이 남북공동성명을 무시하고 남조선에 신형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면서 군비확장과 전쟁준비에 날뛰고있는 사실들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최근에 미국은 일본에 있는 미전술공군까지도 전부 남조선에 이동시키고있다.

•미공군참모총장 라이언은 미국회의 하원 세출위원회의 비밀청문회에서 《한국에 공군부대를 배치할 필요성에서 일본에 있던 미전술공군 전부를 한국에 이동시키고있다.》는것을 증언하였다. (서울 1973년 8월 16일 남조선《기독교방송》)

이와 함께 미국은 최근 타이에서 철수하는 미공군부대를 일본으로 이동시키고있다.

일본에서의 미군의 군사력증강이 곧 조선을 노린것이라는것은 아무 비밀도 아니다.

•1973년 8월 1일 일본외교부장 오히라는 워싱톤에서 《일본이 미일 안보조약아래 일본내의 미국군사기지의 유지를 인정하는것이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셈이 된다.》고 말하였다. (도꾜 1973년 8월 3일발 프랑스통신 《에이에프피》)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최근에 미국은 윁남에서 철수함에 따라 윁남침략전쟁에 동원되였던 각종 최신형중무기들과 군장비들을 남조선에 넘겨주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의 군사력증강과 함께 남조선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과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날로 강화하여나섰다. 그 가운데서 몇가지 사실만을 들어도 다음과 같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인 1972년 7월 5일부터 며칠간에 걸쳐 미군사령부는 전선중부일대에서 남조선군부대들을 동원하여 《정전후 최대규모》의 공병훈련, 산악훈련, 유격훈련, 수색, 매복작전 등의 군사연습소동을 벌렸다. (1972년 7월 5일 남조선《중앙방송》)

•남조선통신들에 의하면 1973년 4월초 남조선주둔 미군과 남조선해병대는 대병력과 장비를 끌어내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대규모적인 《한미합동상륙훈련》을 동남해안 일대에서 벌렸다.

1973년 7월중순 미군은 전선서부 비무장지대 남쪽으로부터 불과 2마일 떨어진 150고지에서 이른바 《맹습2호》라는 대규모적인 《공중기동훈련》을 감행하였다.

이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마을사람들은 마치도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났는가고 생각하였을》정도로 완전히 전쟁상태를 방불케 하였다고 한다. (미군신문《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 1973년 7월 17일)

•1973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군 제2사단 장병들과 남조선군대는 《상륙작전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서울 1973년 9월 5일 남조선《기독교방송》)

미군과 남조선군대가 합동하여 끊임없이 대규모의 상륙작전훈련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을 벌려놓고있는것은 벌써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것이라는것이 명백하다.

이뿐만아니라 그들은 실제적인 전쟁연습의 일환으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1973년 3월 7일에만 하여도 남조선군대는 전선동부에 있는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침입하여 정탐과 적대행동을 감행하는 한편 무려 5시간에 걸쳐 연막탄을 발사하고 비행기의 엄호아래 105미리포를 비롯한 중무기를 동원하여 수천발의 총포탄을 퍼붓는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발표후 1973년 9월 3일까지의 14개월간에 그들이 감행한 군사적도발행위와 각종 정전협정위반사건은 비행기침입 82건, 함선침입 8건, 총포사격 246건, 각종 중무기와 자동무기의 비무장지대내에의 반입 5천 562건을 포함하여 총 1만 8천 1백여건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에서의 현실적 전쟁위험이 그 무슨《남침》의 위협에서

가 아니라 바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으로부터의 북침의 위협에서 오고있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미군과 남조선군대의 군사연습소동에 발맞추어 남조선에서는 전시를 가상한 일반주민들의 《민방공훈련》까지도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다.

•1972년 7월 15일 남조선의 32개의 도시들에서 일제히 《민방공훈련》을 실시한것을 비롯하여 8월 16일에는 33개의 도시들에서 《가상적기가 도시상공을 비행》하는 가운데 800만명의 시민들을 동원하여 《방공훈련》을 감행하였다. (서울 1972년 8월 16일발 남조선통신《합동》)

이와 같은 대규모의 《방공훈련》은 1972년 한해동안에 무려 12차례나 감행되였다.

•지난 9월 15일에도 《제21차민방공훈련》이 21개 항만을 포함한 남조선전역의 35개 도시와 121개 읍 소재지에서 일제히 실시되였는데 이 《민방공훈련》은 《처음으로 전국에 불시경보발령을 내리고 언제 기습해올지 모르는 적기의 공격에 대비한 국민의 대피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한다. (서울 1973년 9월 15일발 남조선통신《합동》)

지금 세계의 어디에 남조선에서처럼 무시로 《불시경보발령》을 내리고 《대피》소동을 벌려놓는곳이 있는가?

이와 같은 행동은 조선에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감행하는 도전행위이며 남북사이의 불신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꾸며내는 모략적소동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당국자들은 남북대화이후에도 계속 강화하고있는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군사적지원과 전쟁준비책동이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전략으로부터 나온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1973년 2월 22일 미국무차관 타르는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 《원조》가 《극동에서의 우리의 리해관계를 위해 중요한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워싱톤 1973년 2월 22일발 미국통신《유에스 아이에스》)

•1973년 5월 23일 미합동참모본부의장 무어러는 남조선에서의 《군사설비와 군사력은 앞으로의 미국의 동북아세아방어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되고있다》고 공언하였다. (워싱톤 1973년 5월 23일발 남조선통신《동양》)

사실 미국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통일되면 아세아에서의 저들의 중요한 전략적거점을 잃어버리게 될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의 한 통신까지도 미국은 조선에서 《진지한 긴장완화나 또는 재통일이 이루어진 경우 미군기지들이 남조선에 남아있는것이 허용될것같지 않》은데 대해 우려하고있다고 하였다. (워싱톤 1973년 8월 19일발 미국통신《유피아이》)

미국은 아세아전역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곳곳에서 쫓겨나게 됨에 따라 더욱더 남조선을 아세아침략의 가장 중요한 지탱점으로 인정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공공연히 남조선을 《닉슨주의의 시험장》이라고 부르고 량면전술을 쓰면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을 부추겨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자기들의 이러한 침략책동에 일본을 또한 적극 끌어들이고있다.

1973년 7월말에서 8월초에 걸쳐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일회담에서만 하여도 미국은 《극동에서의 닉슨주의의 구체화의 일환》으로서 《한국군의 방위력강화와 근대화를 위하여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떠맡아해줄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일본신문《요미우리신붕》 1973년 8월 2일)

일본출판물들은 이때의 미일회담에서 《힘》에 의하여 남조선을 옹호하는것을 전제로 한 두개 조선 정책을 추진시킬데 대하여서와 이에 따라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도 공동보조를 취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광범히 보도하였다.

미일반동들의 공모결탁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한 신문은 일본의 남조선진출에 언급하여 《한국은 급속히 일본의 산업기지화되여가고있다》고 썼다. (미국신문《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 1973년 5월 14일)

남조선은 오늘 미일의 이중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미국 다음의 제2의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이상과 같은 모든 사실은 과연 조선에서 누가 진짜로 평화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힘쓰며 누가 진짜로 전쟁과 분렬을 꾀하는가, 누가 진짜로 애국적이며 민족자주적인 립장에서 있으며 누가 진짜로 외세의존의 매국정책에 매여달려있는가 하는것을 남김없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바로 미국의 간섭과 침략 책동이 조선에서 전쟁위험을 지속시키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방해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의 평화적조국통일방침이 조선인민은 물론 광범한 세계여론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으며 안팎의 정세가 자기들에게 날로 불리하게 급변하게 되자 대세의 압력에 밀리여 부득불 대화의 길로 나왔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동안 의거하여온 외세의존정책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미국이 부추기는 대로 량면전술을 쓰면서 겉으로만 《평화통일》을 운운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당국자들이 하는 말그대로 힘의 립장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호상 불신을 고취하면서 남조선에서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대화의 진척을 가로막으며 계속 분렬책동을 일삼아왔다.

공화국측이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대화있는 단결, 대화있는 합작, 대화를 통한 통일의 실현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남조선측이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부르짖고있는것자체가 미국당국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번져놓은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오늘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정체상태에 빠뜨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외세의 부추김밑에 동족을 반대하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저들의 분렬주의적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놓으면서 들고나온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도 다름아닌 미국이 꾸며낸 모략적책동이다.

그것은 전 미국무장관 로저스가 이 문제로 하여 남조선에 직접 찾아와서 이를 적극 지지협조할것이라고 공언하였으며 이번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내놓은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에 관한 결의안을 발기하는데 있어서도 미국이 앞장에서 날뛴 사실이 확증하여준다.

•1973년 7월 20일 로저스는 남조선에 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남북한유엔동시가입을 이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서울 1973년 7월 20일발 남조선통신《동양》, 워싱톤 1973년 7월 20일발 남조선통신《합동》)

모든 사실은 미제야말로 남조선을 거의 30년동안이나 강점하고 조선을 분렬시켜온 장본인이며 오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방해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려고 책동하고있는 주동분자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견결히 반대한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공공연히 들고 나온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안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은 나라의 영구분렬이냐 또는 통일이냐 하는 엄중한 갈림길에 서있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통일의 길은 애국과 자주, 번영의 길이며 분렬의 길은 매국과 망국의 길이다. 조선사람들속에서 나라가 두개로 갈라질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으며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남조선의 극소수분자들뿐이다. 절대다수의 조선인민은 원래부터 하나의 민족인 우리 민족이 두개로 갈라질 조건이 없으며 반드시 통일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안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견결한 반대배격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군사파쑈폭압의 살벌한 분위기속에 있는 남조선의 《국회》안에서까지 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온데서도 잘 나타났다.

1973년 6월 27일 남조선의 한 《국회》의원은 《국회》본회의에서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을 요구한 박정희의 이른바 《특별성명》에 대하여 《두개의 한국과 남북의 분단을 결정하는 선언이기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서울 1973년 6월 28일발 남조선통신 《합동》)

•이전 유엔주재 남조선옵써버대표였던 림창영은 《우리는 박정희가 남조선의 민주주의적자유를 크게 손상시켰으므로 그를 반대한다. 또한 명백히 된것은 그가 통일을 지지하는것이 아니라 조선의 분렬을 굳히는것을 지지하고있다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도꾜 1973년 8월 8일발 미국통신《유피아이》)

남조선의 집권당인《민주공화당》 의장 서리는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에 대한 박정희의 《특별성명》에 대한 《지지》를 긁어모으기 위하여 남조선 《국회의원외교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에 히꼬, 일본을 돌아다니였는데 저들의 영향밑에 있다고 하는《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정부가 취한 6. 23외교선언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있었다.》고 실토하였다. (1973년 7월 31일 남조선 《기독교방송》)

•1973년 9월 18일 유엔총회 제28차회의 개막에 즈음하여 유엔본부앞에서는 미국인들과 재미조선인들이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하여 시위와 집회를 단행하였다. (유엔본부 1973년 9월 18일발 중국통신《신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는것이 응당한 일이라고 보지만 오직 나라의 분렬을 가로 막고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나라가 통일되기전에 유엔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통일후이거나 또는 남북련방제라도 실현된다음 하나의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가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내놓은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안을 절대 반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현 조건에서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안을 반대하는 자기의 공명정대한 립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조선의 북과 남이 유엔에 각각 들어간다면 하나의 민족국가이던 조선이 국제적으로 두개 국가로 공인되여 조선의 분렬은 영원히 고착되고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온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수천년을 두고 단일민족의 단일국가로 내려온 자기 조국을 우리 시대에 와서 두 조각이 난채로 후대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수치스러운 죄악을 결코 범하지 않을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두개 조선으로 유엔에 가입한다 하여도 분렬이 영구화되는것은 아니며 그것이 마치도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도로나 되는듯이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리이다. 이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시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것조차 한사코 반대하여오던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제 갑자기 공화국과 남조선이 유엔에 같이 들어가는것이 통일을 촉진시키게 된다고 하는것은 전혀 앞뒤귀이 맞지 않는 소리이다.

만일 진짜로 그들이 조선의 통일을 념원하여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고 한다면 왜 1973년 6월에 와서야 비로소 제기했는가? 일본의 어느 한 신문이 다음과 같이 쓴데서도 이 사태발전의 진상을 잘 찾아볼수 있다.

•일본신문《니홍게이자이신붕》은 지난 5월 미국, 일본, 남조선 당국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압도적 다수표의 지지를 받아 가입된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남조선당국에게 있어서 1948년의 〈한국〉조작이래 4분의 1세기를 통하여 이와 같이 충격적인 소식은 없었을것이다. 1948년 〈한국〉이란것이 조작된데 이어 유엔총회는 이해 12월에 그것을 조선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인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세계 보건기구총회는 이 허구에 정면으로 도전했으며 그것을 부인하였다.》

《이제 사태는 벌써 〈한국〉이라는 〈정권〉존립의 국제적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을뿐아니라〈일한조약〉이 처음부터 가지고있던 허구를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시키는데까지 이르렀다.》 (일본신문《니홍게이자이신붕》 1973년 5월 22일)

여기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질식시키려던 책동이 완전히 파산되고 유엔의 《결의》에 의한것이라고 하면서 꾸며놓았던 남조선《정권》존립의 기반이 밑뿌리채 허물어지게 되자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문제를 들고나왔다.

이것은 허구의 기반우에 서있던 남조선《정권》의 붕괴를 가로막고 그의 연명을 꾀하자는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자기들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틀어쥐고있으려는 책동이다.

이것은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제기한 목적자체가 조선의 분렬을 고정화하자는데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국이나 남조선 당국자들이 애당초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성과나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은 그들자체가 한 수많은 언행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 1973년 5월 3일 미국대통령 닉슨은 국회에 제출한 년례대외정책보고에서 공공연히 《남북조선은 호상대화를 하고있으나 분규에 싸였던 그 반도의 최근력사를 알고있는 그 누구도 화해가 쉽게 이루어지거나 조속히 도래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떠벌이였다. (워싱톤 1973년 5월 3일발 미국통신《유피아이》)

• 1973년 8월 4일 남조선 《외무부장관》김용식은 두개 조선 유엔동시가입에 대한 지지를 얻어보려고 여러 나라를 싸다니면서 벌려놓은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까지도 《통일은 성취되기 어려운것이다. 그것은 단시일내에 성취되지 않을것이다.》라고 떠들었다. (메히꼬시 1973년 8월 4일발 미국통신《유피아이》)

남조선당국자들은 적어도 100년전에는 통일이 되지 않으리라는것을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 박정희는 1972년 1월 12일 《년두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통일은 객관적 정세여건의 형성이 이루어지기전에는 어려운것이다. 신라의 문무왕이 통일을 서두른지 1백 20년만에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결코 조급히 굴어서는 안된다.》고 공언하였다. (1972년 1월 12일 남조선신문《조선일보》)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조선의 조속한 통일을 결코 바라지 않고있는 조건에서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을 허용한다면 그것이 두개 국가로 조선을 영구분렬시키는 조건을 지어주는것으로 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2) 조선과 같은 오랜 력사를 가진 하나의 민족국가를 억지로 두개 국가로 갈라놓는다면 그것은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항시적인 긴장과 전쟁의 화근만을 더욱 빚어내게 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남북조선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마치 유엔을 통하여 남북의 접근과 화목을 도모하게 되고 조선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게 될듯이 떠들고있으나 그것 역시 기만이며 모략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갈라져서는 결코 살수 없으며 이미 겪어온 분렬의 고통만 하여도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하물며 이 분렬을 더욱 고정화하여 두개국가를 만들어낸다면 조선사람치고 그 누가 그것을 남북간의 접근과 화목을 도모하는것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전체 조선인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에 더욱더 의거하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길로 나간다면 거기에는 평온이 유지되는것이 아니라 민족간의 호상 불신과 반목이 더욱 격화될것이다.

또한 남조선에 외국군대를 그냥두고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을 지속시키는한 그곳에서 착취와 압박, 외세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항은 불가피하게 계속 일어날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에서 정세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 방향에서 안정되는것이 아니라 언제나 복잡하고 긴장된 대립상태에 놓이게 될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아세아의 전반적평화를 위협하는 화근으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따라서 두개 조선의 유엔가입안은 사실상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도 어긋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조선에서의 믿음직하고 공고한 평화는 오직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만 담보될수 있다.

3) 남조선 《정권》이라는것은 외국사람이 조작해내고 외국군대의 총칼의 비호밑에 유지되고있는 가짜 정권이며 남조선은 외국의 완전한 식민지군사기지에 지나지 않기때문에 유엔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조선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남조선《정권》은 남조선인민을 대표할수 없으며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권이다. 이 《정권》이 철두철미 식민지적이고 예속적인 《정권》이며 매국적이며 반인민적인 반동정권이라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서부독일신문《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1973년 3월 26일)도 박정희를 가리켜 《최고감옥간수》라고 하였다.

남조선《정권》은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여있기때문에 세계에 류례드문 혹독한 군사파쑈독재를 실시하고있으며 언제나 외국군대의 비호속에 살아가려 하고있다.

남조선《정권》이란것이 얼마나 상식이하의 수준이고 도덕적으로도 극히 저렬하고 부패타락한 존재인가 하는것은 상전의 명령대로 남부웰남에 수만명의 고용병을 보내여 세계를 격분시킨 피비린내나는 교형리노릇을 도맡아 수행하고서도 그것을 《국위를 선양》한 것으로 자처하며 김대중랍치사건과 같은 국제깡패행위를 감행하고서도 저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철면피하게 우겨대고있는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또한 이 《정권》이 외국관광객들에 대한 매음을 《전략적인 국가기업》으로까지 내세우고있는 사실에서도 남김없이 드러나고있다.

• 미국잡지《타임》은 매춘관광이 《박정희를 포함한 한국정부의 고관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고있다.》고 하면서 매춘부들이 남조선《정부》당국에서 발행하는 공식면허증을 가지고 관광객들의 침실에서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고있다고 썼다. (미국잡지《타임》 1973년 6월 4일)

미국은 이처럼 정권이라고 할수 없는 남조선《정권》을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이란 구실밑에 유엔에 밀어넣음으로써 남조선이 합법적국가인것처럼 보이게 하려 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미국의 이 음모책동에 동조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원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북공동성명에도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현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서약하기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를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외국의 식민지통치를 집행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그들은 안팎으로 더욱더 버림받을수밖에 없을것이다.

4) 두개 조선의 유엔가입안이란 결국 평화를 지향하여나가는 세계인민들의 선량한 념원을 우롱하며 유엔의 이름으로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제국주의의 낡은 식민지통치수법을 감싸보려는 음흉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날 미국은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과 간섭책동을 유엔의 간판으로 가리우기 위하여 《유엔군》이니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니 하는것들을 만들어 냈었다. 그것이 파산의 운명에 빠지게 되자 이제는 《현실인정》에 기초한 《평화유지》라는 미명으로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이란 새로운 술책을 꾸며냄으로써 남조선만이라도 언제까지나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 하고있다.

만일 미국의 이와 같은 교활한 술책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런 책동을 일삼는 전례를 만들어주는것으로 될것이다. 한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신식민주의적책동에 유엔의 권위를 부당하게 리용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저지되여야 한다.

5)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정당화해보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전문기구들에는 남조선과 함께 참가하면서도 유엔에 두개 조선으로 가입하는것을 반대하는것은 모순이라는듯이 떠들고있다.

이 문제에 대한 립장을 말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언제나 나라의 분렬이 고착되여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아야 한다는 립장에서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왔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일련의 국제기구들에 단독으로 들어가 있거나 유엔에 상설옵써버대표를 두고있는것을 가

지고 마치 자기들이 전조선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정부》인듯이 행세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것을 결코 묵과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그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있는이상 조선에서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여러 국제전문기구들에 가입하는것은 응당하다.

더우기 유엔산하 전문기구들로 말한다면 그것은 세계 각국들의 기술실무적협조를 위한 기구인것만큼 매개 나라는 국제적으로 호상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기술실무적협조를 강화하며 이를 성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치문제와는 관계없이 국제전문기구들에 적극 참가하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적인 기술실무적협조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공화국이 해당한 국제기구들에 참가하는것을 가지고 그 누구도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구실로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와는 달리 유엔은 세계적인 정치기구이기때문에 만일 두개 조선으로 거기에 가입한다면 두개 국가의 존재를 공인받는것으로 될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피하기 위한 일관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아직 남북 어느측도 가입하지 않고있는 유엔에 구태여 들어가자고 할 필요가 없으며 나라가 통일된다음이거나 련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하나의 국가로서 들어가자는것이다.

6) 지금 일부에서는 독일이 동서 두개 나라로 분렬되여 유엔에 들어가는데 조선은 왜 그렇게 할수 없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문제와 독일문제는 서로 같지 않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독일에서는 두 독일국가가 완전히 평등한 주권국가로서 호상 승인을 하고 유엔에도 각각 가입하는데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 그런것만큼 거기에서는 당연히 아무 복잡한 문제도 제기될것이 없다.

그러나 조선은 이와 실정이 전혀 다르다. 조선은 외국군대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인공적으로 분렬되여있으며 남조선은 의연히 외국의 식민지지배밑에 놓여있다. 공화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은 유엔가입문제와 관련하여 완전히 상반되는 립장을 취하고있으며 어떠한 합의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남북을 막론하고 나라의 통일을 요구하고있으며 분렬을 영구화할 두개 조선의 유엔가입안을 반대하고있다.

조선과 독일이 분렬되여있다는 한가지점에서는 같지만 그 분렬의 력사적 정치적 배경부터 다르며 오늘 처해있는 현실적조건도 근본적으로 다른것만큼 두 독일의 유엔가입을 기계적으로 조선에 적용할수는 없는것이다.

7) 마지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매개 나라의 유엔가입문제를 그 어떤 분쟁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느 한 민족의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개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인정한다.

이때까지의 전례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유엔에의 새로운 성원국의 가입은 다 그 나라가 독립을 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우에서 지적한 독일의 유엔가입문제만 하여도 그것은 두 독일국가사이에 완전한 합의를 이룩한 결과로 제기되였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조선의 두 부분사이에 유엔가입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도》로서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문제를 제기한다는것이다.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이란것이 도대체 통일문제해결의 방도로 될수도 없거니와 그 어떤 미해결문제를 풀기 위한 한개 방도로 유엔가입문제를 제기한다는것은 유엔헌장의 원칙에 맞지 않는것이다.

왜 미국은 조선사람자신이 원치 않으며 성숙도 되지 않은 문제를 서둘러 들고나서면서 야단인가? 이 자체가 벌써 조선인민의 내정에 대한 참을수 없는 간섭이며 모독이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남조선의 유엔단독가입에 대해서도 운운하고있는데 그것은 더우기나 허용될수 없다.

어느 모로 보나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은 부당하며 위험한것이다.

—력사적경험은 도리에 맞지 않는것, 비법적인것, 인민의 의사에 어긋나는것은 아무리 위장하고 강권행세로써 내리먹인다 하여도 결코 오래갈수 없으며 통할수 없다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미국은 일찌기 1947년에 조선문제를 부당하게 유엔에 끌고가서 이른바 《다수결》에 의하여 통과시킨 《결의》가 조선문제해결의 길인것 같이 광장하게 떠들었지만 그것은 조선인민의 의사를 무시한것이였기때문에 어떠한 결실도 가져올수 없었으며 결국 오늘에 와서 력사의 심판을 받고 완전파산될 운명에 처해있다.

미국정부당국자들은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이란 새로운 요술을 피움으로써 자기들의 파산을 수습해보려 하고있으나 그것이 결코 그들에게 출로로되지 않으리라는것을 력사의 교훈으로부터 찾아보아야 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전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정부들이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는데 또다시 유엔의 권위를 리용하려고 하는 부당한 시도를 결코 허용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6. 조선문제해결의 참다운 길

조선은 통일되여야 한다. 그 길은 처음부터 명백하였다.

조선이 남북으로 분단된이래 흘러온 력사와 특히 북과 남사이의 대화이후의 경험들은 조선의 통일이 지연되고 대화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는 근원이 외국군대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의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 지속되고있는데 있다는것을 더욱더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이루어지자면 남조선에서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외국군대는 물러가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해체되여야 하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모든 외세의 간섭이 종식되여야 하며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주석께서는 1973년 6월 23일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적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조국통일 5대방침을 새로이 천명하시였다.

그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한다.

2)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야 한다.

3)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한다.

4)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단결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련방제를 실시한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련방공화국이라고 한다.

5) 분렬이 고착되여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아야 하며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

유엔에도 북과 남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전에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련방제라도 실현된다음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

이 새로운 방침은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민족의 영구분렬을 가로막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일대 구국강령이며 현시기 조선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공평합리적인 방안이다.

이 조국통일5대방침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나라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조국통일5대방침에 의하여 현시기 조선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모든것을 옳게 풀어나갈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세계의 대세는 유엔이 자기 군대의 남조선강점을 유엔《결의》에 빙자하여 합리화하려 하고있는 미국의 책동에 대하여 마땅히 타격을 줄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이 유엔을 조선문제에 관여시킨지도 이미 26년이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분렬이 지속되고있는것은 정치적으로 보나 인도적견지에서 보나 또한 유엔의 권위로 보나 어느모로 보나 더이상 허용될수 없는 일이다.

더우기 미국이 조선문제에 관한 지난날의 《유엔결의》를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방해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데 계속 리용하고있는것만큼 유엔은 이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유엔은 이번 제28차총회에서 남조선에 와있는 미국군대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물리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맞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유엔이 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차별정책을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유엔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론의될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반드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번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알제리를 비롯한 32개 평화애호국가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안이 조선인민의 리익과 아세아와 세계의 전반적평화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며 이 결의안이 채택되여야 할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오늘 남조선에 외국군대가 머물러있을 어떠한 근거도 없다.

원래 미군의 남조선강점 그 자체가 비법적이다.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지도 20년이 넘는 오늘 까지 외국군대가 의연히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에 그냥 남아있는것은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예견한 조선정전협정에 전적으로 위반되며 유엔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미국은 《남침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곳에 군대를 두고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황당한 구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남침》할 의도가 없다는것을 거듭 표명했으며 실지로 정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사이에 전쟁이 없이 지내왔는데 무슨 《남침위협》이 존재하는가. 더우기 남북공동성명에서 쌍방이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하여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조건에서 미국의 이러한 구실은 전혀 성립될수 없다.

지난날 미국은 《공산주의팽창》을 막기 위하여 남조선에 저들의 군사기지를 둔다고 하였는데 오늘 큰 사회주의 나라인 쏘련,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면서 남조선에 계속 군사기지와 군대를 둘 어떠한 근거도 없다.

사실상 오늘 《공산주의침략위협》이란 유령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지역에는 어떠한 외국군대도 없다.

남조선이 70만의 대병력과 미국이 제공한 현대적 무장을 다 가지고있는데 무슨 외국군대의 《보호》가 필요한가.

《남침위협》으로부터의 《보호》니 뭐니 하는것은 순전히 꾸며낸 헛소리이기때문에 이제는 미국정계내에서조차 날로 통할수 없게 되고있다.

미국잡지《뉴욕타임스 선데이 마가진》에 의하더라도 사태는 다음과 같다.

•《벌써 미상원 외교위원회는 우리가 웰남에서 철수하였는데 무엇때문에 계속 4만명의 미군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있다…

남조선의 장군들의 주장을 뒤받침할만한 근거란 없기때문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모든 군사원조를 즉시 중지할데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될것이다.》

(미국잡지《뉴욕타임스 선데이 마가진》 1973년 5월 20일)

—미국은 또한 유엔의 《결의》에 빙자하여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합리화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주둔 《유엔군》이란것이 처음부터 유엔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행동하고있다는것은 미국당국자들 자신도 감추지 못하고있다.

• 조선전쟁말기에 《유엔군사령관》으로 있던 크라크는 《나는 조선주둔 유엔군사령관이였지만 전체 전쟁기간에 유엔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지시를 받은것이 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유엔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유엔군》이란 이름뿐이고 그 내용은 완전히 미국군대이다. 즉 남조선강점 미군에게 《유엔군》이란 모자를 씌워놓은것에 지나지 않는다.

• 영국의 《로이터》통신도 《미국과 남조선이 보통 유엔군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장군과 참모를 가진 미국통제하의 기구》라고 하였다. (유엔본부 1967년 5월 11일발 영국통신《로이터》)

—미국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남조선으로부터의《유엔군》철수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지 못하도록 막아 보려고 《유엔군》이 나가면 조선에서 정전협정조인 일방이 없어지게 됨으로 위험하다는 궤변을 또한 내놓고있다.

이것역시 문제를 완전히 꺼꾸로 제기한것으로서 그 누구도 속일수 없다.

조선에서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의 위협이 있는것은 오직 남조선에 외국군대가 있기때문이다.

남조선에서 외국군대가 나가기만하면 전쟁의 위협은 커지는것이 아니라 없어지게 될것이다.

이 경우 남북간에는 서로 싸우지 않을데 대하여 서약했고 남북간의 직통전화선가설을 비롯하여 무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방도들을 명시한 남북공동성명이 있는만큼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이 공동성명을 엄격히 지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는한 그것은 조선에서 평화유지의 보다 믿음직한 담보로 될수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어떠한 궤변과 변명으로써도 《유엔군》의 남조선주둔을 정당화할수 없다.

—유엔에서 만들어진 그릇된《결의》들이 시정되여야 한다는 세계여론의 더욱 커가는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지난 9월 7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낸 《년차보고》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건의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그 성원국들의 편이은 탈퇴로 이미 자체붕괴과정에 있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응당 겪어야 할 말로에 다달았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원래 제국주의침략의 도구로서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을 일삼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온 이 기구는 무대에서 사라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결코 순순히 물러가려고 하지 않고있다. 이 《위원단》은 조선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또하나의 정치적모략책동을 꾸며내 보려고 급급하고있다.

즉 이 《위원단》은 《년차보고》에서 상태에 따라 자기들의 활동과 조선에서의 정세발전에 대하여 완전히 흑백을 뒤집어놓은 새빨간 거짓말들을 수다히 늘여놓고 마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조선에서 평화통일의 《분위기조성》에 그 무슨 기여라도 한듯이 떠벌였다. 그렇게 한다음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해체되나 유엔은 《조선반도의 정세에 대한 정치적감시를 계속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할수 없이 해체하겠는데 그대신 《유엔군》은 계속 남조선에 남아있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소리이다.

미리 꾸며놓은 각본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올해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의 철거문제를 결정해서는 안되며 조선에서 평화에 대한 그 무슨 《담보》가 이루어질때까지 《유엔군》은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자기들의 이 주장을 정당화할만한 론거를 내놓을수 없게 되자 요즘 《공산 북조선으로부터의 위협》이 《남북대화전보다 더 크다》느니, 《이번 28차유엔총회에서 주한유엔군철수안이 가결》되면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고아대고있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이후 조선에서 긴장상태가 그전에 비하여 완화되였다는것은 미국정부당국자들을 포함하여 온 세계가 일치하게 인정하고 환영한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이제 그들이 갑자기 180도로 돌아서서 《위협이 더 크다.》고 떠든다고 하여 그것을 믿어줄 사람은 없다.

그것은 너무나도 앞뒤굽이 맞지 않게 꾸며낸 졸렬한 소동으로서 하나의 웃음거리로밖에 되지 않는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나 《유엔군》은 다같은 바탕에서 생겨났던것이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더이상 존재할수 없게 되였다면 《유엔군》도 마찬가지로 더이상 남아있겠다고 할 근거가 없는것이다.

—1973년 4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미국국회상하량원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바있다.

《만일 미국이 진실로 조선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극동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념원한다면 이 이상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두어두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우리와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인위적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없을것이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변화된 오늘의 정세하에서 자기의 정책을 개변하고 남조선에서 군대를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평화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한다.》

미국은 마땅히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지하여야 하며 남조선에 무기와 군사장비를 반입하여 그곳에서 군사기지를 확장하며 군사연습을 진행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을 무력으로 지원하여 조선사람끼리 싸우도록 부추기는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면 자기의 군대를 자진해서 20만 이하로 줄일것이며 또한 남북공동성명에 규정된대로 통일문제해결을 위하여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으며 《남침》을 하지 않으리라는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선언한다.

오늘 세계의 대소 모든 민족들과 인민들이 해방과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도 대세를 거역하지 말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길로 진지하게 나오는것이 마땅하다.

—현단계에서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풀고 호상 불신의 장벽을 허물며 통일문제해결을 촉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을 정상화하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남북공동성명을 전적으로 위반하고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을 제기하였을뿐아니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자리에 있는 리후락자신이 평화적조국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민주인사에 대한 수치스러운 테로만행을 직접 조직감행한것은 조절위원회안에서 도저히 그와 마주 앉아 서로 믿고 사업할수 없도록 분위기를 망쳐놓았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실로 통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있다면 민족의 분렬을 고정화하려는 그릇된 립장을 버리고 공화국정부가 새롭게 천명한 조국통일5대방침을 받아들이는 용단을 내려야 하며 남북 조절위원회가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이 기구를 개편하는데 응해나서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해방과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의 일환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때문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다.

9월초에 알제에서 진행된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조선문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1)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의 종식을 요구한다.

2) 또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제28차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심의할것과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외국군대의 철거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결정할것을 요구한다.

3) 조선의 유엔가입은 조선의 완전한 통일이 이룩된다음이거나 남북련방

제가 실시된다음 단일국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결의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조선인민의 신심을 무한히 북돋아주고 크게 고무하여주며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로 되는 귀중한 결정이다. 이것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조선을 두개 나라로 영원히 분렬시키려는자들에게 더없는 타격으로 된다.

온 세계 인민들은 조선인민과 함께 있으며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기회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적독립국가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나라들과 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이 조선문제에 보다 큰 주목을 돌리고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각방으로 지지성원하여주며 특히 당면한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파탄시키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정당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모든 힘을 다하여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1973년 9월 26일
평 양

남조선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남조선 동포형제자매들!

각 정당, 사회단체 당원들과 맹원들!

나라를 사랑하는 각계각층 인사들!

모든 해외교포단체들과 모든 해외교포들!

해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을 그처럼 흥분시키고 삼천리 온 강산을 조국통일의 새로운 열망으로 들끓게 하던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한해전에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던 당시 우리 민족앞에 열리였던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은 흐려지고 오늘 우리의 머리우에는 민족분렬을 고착시키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범죄적음모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신중히 토의하고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을 방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려는 구국의 불타는 일념을 담아 친애하는 당신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민족최대의 과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어디까지나 우리 조선사람자신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것을 시종일관 주장해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에 따라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지금까지 무려 130여차례에 걸쳐 가장 공정한 평화통일방안들을 제기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을 새롭게 밝히시고 북과 남사이에 서로 접촉하고 대화할수 있는 획기적인 국면을 여시였다.

이리하여 근 30년동안이나 남북을 가로막고있던 굳은 장벽에 돌파구가 열리고 우리 조선사람끼리 한자리에 모여 앉아 민족내부문제를 토의하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였다.

이것은 자기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것을 요구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측은 대화가 시작된 첫날부터 민족분렬의 쓰라린 상처를 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온갖 성의를 다하였으며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측은 호상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긴장상태를 가시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가장 선차적이고 관건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며 쌍방이 각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며 폭넓은 정치적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대화의 시초부터 표리부동한 량면전술을 쓰면서 합의사항들을 어느 하나도 성실하게 리행하지 않았으며 우리측의 모든 합리적인 제안들을 거부하고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배신적행동만을 일삼아왔다.

그들은 말로는 《평화통일》을 운운하면서도 우리측과의 단결과 합작, 통일의 길로 나올 대신《대화있는 대결》과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부르짖으며 일관하게 분렬로선을 추구해왔다.

그들은 대화의 막뒤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력배양》을 떠들면서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계속 애걸하고 미일독점자본을 더욱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여 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며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을 다그치고 전쟁준비를 강화하며 《10월유신》의 파쑈광란극을 벌려놓고 장기집권의 지반을 꾸리는 한편 《반공》소동을 더욱 미친듯이 벌려왔다. 이 모든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범죄적책동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통일된 하나의 조선이 아니라 분렬된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반민족적립장은 얼마전에 남조선의 고위당국자가 발표한 이른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났다.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범죄적문건은 그들이 은밀히 추구해 오던 두개 조선 로선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완전히 정책화하였다는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이것은 민족최대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분렬을 종식시키고 통일위업을 실현할 목적으로 마련한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마침내 자신이 서명한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뒤집어엎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속심을 온 민족앞에 남김없이 드러내놓았다. 이 얼마나 철면피한 반민족적행위인가. 과연 조금이라도 민족적량심이 있는 조선사람이라면 어떻게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에 민족분렬을 고착시킬것을 선포하는것으로 대답할수 있겠는가.

이른바 《특별성명》에서 그들이 떠벌인 《통일》과 《대화》란 가소로운 거짓

과 궁담에 지나지 않는다.

북과 남의 대화는 통일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남조선측이 말하는것처럼 통일이 아니라 대결과 공존을 추구한다면 대화를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더우기 《특별성명》은 분렬의 고착화를 전제로 하고있다.

분렬의 고착화를 전제로하고 어떻게 통일을 말할수 있으며 대화를 운운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자들은 《특별성명》발표가 마치도 《공존》과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국제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것이라는듯이 떠들고있다. 그러나 공존이란 각이한 제도를 가진 나라와 나라들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로서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조국통일문제에는 결코 적용될수 없으며 《현상유지》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 조선인민은 미제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나라의 비극적인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것을 추호도 원치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오는 두개 조선 론은 우리 나라가 분렬된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기를 바라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분렬정책의 산물이다.

미제는 악명높은 《닉슨주의》의 침략적교리에 따라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을 내세워 《조선사람끼리 싸우게》하는 방법으로 침략적야욕을 이루어보려는 범죄적목적밑에 《두개 조선》을 조작하고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을 또다시 식민지화하려는 침략적목적밑에 《두개 조선》조작음모에 적극 가담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침략책동에 추종함으로써 나라를 영구분렬시키려는 매국배족적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고있다.

오늘에 와서 누가 과연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누가 과연 전쟁과 분렬을 원하며 누가 과연 진정으로 민족을 위하고 누가 과연 민족을 배반하고있는가 하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되였다.

우리측의 애국애족적립장과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부진상태에 빠지고 통일의 전망대신에 분렬이 고착화될 엄중한 위험이 조성된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민족분렬정책 때문이다.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

각 정당, 사회단체 당원들과 맹원들!

나라를 사랑하는 각계각층 인사들!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

오늘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부닥친 엄중한 위험은 결코 어느 한 개인이나 당파적리익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장래운명과 흥망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사태는 해내외의 모든 애국력량이 지체없이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할 결정적인 구국대책을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무겁고도 긴급한 민족적임무가 나서고있는 이 엄숙한 시각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난 6월 23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민족적지향과 인민의 념원에 맞게 분렬을 방지하고 통일을 실현할 새로운 구국강령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며 북과 남이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며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밑에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며 북과 남이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할데 대한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새롭게 밝히신 조국통일 5대강령은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꾸미고있는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짓부시고 남북을 가로막고있는 분렬의 장벽을 완전히 없애며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거족적으로 동원하여 평화적조국통일의 지름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획기적인 구국강령이다.

이 조국통일강령은 우리의 아름다운 삼천리강토우에 하나의 통일조국을 하루빨리 건설할 넓은 길을 열어주는 가장 애국적인 강령이며 나라의 통일을 가장 빠르고 순조롭게 이룩할 유일한 방도를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다.

이 력사적인 조국통일강령이 실현될 때 우리 민족이 부닥치고있는 영구분렬의 위험은 사라지고 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리게 될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전체 조선인민과 함께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남조선과 해외의 모든 동포형제자매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이 력사적인 통일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구국투쟁에 나설것을 충심으로 호소한다.

우리가 만일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철저히 짓부시지 않는다면 남조선을 식민지적처지에서 구원할수 없고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방지할수 없을것이며 갈라진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는 천추의 유한을 남기게 될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참을수 없는 일이다.

분렬의 고착화냐, 아니면 전체 인민의 투쟁을 통한 통일의 실현이냐 하는 이 엄숙한 력사의 갈림길에서 남에 살건 북에 살건 해외에 살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장래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가 과연 속수무책으로 사태발전을 관망이나 하고 있을수 있으며 통일이 아니라 분렬의 길을 택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거주지역과 사상의 차이, 신앙의 유무와 과거의 여하에 관계없이 민족적량심이 있는 해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이 거족적으로 단합하여 범죄적인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단호히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결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일대 통일구국운동을 벌려야 할 때라고 굳게 믿고있다.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막고 평화적조국통일을 촉진하는 유일한 길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실현하는데 있다.

조국통일 5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실천적대책들을 토의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결코 특정한 한두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참가없이는 실현될수 없는 전민족적인 애국사업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의 대화도 쌍방의 당국자들사이의 좁은 범위를 벗어나 광범한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범위에서 폭넓게 벌어져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북반부의 로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테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같은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여기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범히 협의하여 해결할것을 제의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대민족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은 조국통일5대강령의 다른 모든 방안들과 함께 전체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있으며 전세계 공정한 사회여론의 한결같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광범한 해외동포들속에서도 대민족회의소집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며 그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남조선 정계와 사회계에서도 대민족회의소집리념에 공감을 표시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대두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는 문제가 이미 성숙된 요구로 일정에 오르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이러한 민족적지향과 요구에 따라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방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민족회의를 시급히 소집할것을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그리고 모든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정중히 제기한다.

우리는 대민족회의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5대강령의 실천대책을 토의하며 특히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 문제와 북과 남이 유엔에 각각 들어갈것이 아니라 고려련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하는 문제를 토의하여야 할것이라고 인정하고있다. 우리는 이밖에도 민족분렬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의견이라면 대민족회의에서 토의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심의하여야 할 대민족회의는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물론 해외의 모든 교포단체들과 각계각층 교포대표들도 참가하는 광범위한 전민족적회의로 되여야 한다고 간주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시기가 성숙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는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회의장소는 평양으로 할것을 주장하면서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울이나 국내의 임의의 장소를 선택할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대민족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실무자급회의를 시급히 열고 거기에서 남북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자급회의의 소집은 서신 또는 성명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합의할수 있을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대민족회의준비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을 활발히 진행할것을 주장한다.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한 우리 민족은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결코 둘로 갈라질수 없으며 하나로 단합될수 밖에 없다.

민족분렬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원하는 모든 애국력량은 하나로 굳게 뭉쳐 거족적인 통일구국투쟁을 벌리자!

력사적인 조국통일5대강령이 밝히주는 휘황한 길을 따라 분렬을 방지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전체 인민이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사업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대민족회의소집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어나자!

《두개 조선》을 조작하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범죄적책동을 반대하고 평화적통일을 위한 거세찬 투쟁의 불길이 온 남조선땅을 뒤덮게 하자!

분렬된 《두개 조선》이 아니라 통일된 하나의 조선을 위한 통일구국투쟁의 애국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계속하려는 음흉한 목적밑에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극악한 원쑤이다.

반미구국투쟁의 노호하는 불길로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시키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 공모결탁하고 남조선에 전면적으로 침투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남조선을 또다시 식민지화하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의 마수를 꺾어버리기 위한 반일애국투쟁을 더욱 강화하자!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두개 조선》로선을 공공연히 선포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에 합의된 공동성명을 뒤집어엎었으며 대화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사실상 파탄직전의 엄중한 사태에 몰아넣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만일 진실로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민족적념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분렬의 영구화책동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조국통일과 량립될수 없는 이른바 《특별성명》은 취소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마땅히 조국통일의 유일한 리정표인 력사적인 5대강령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통일을 위한 대화의 길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분렬의 영구화정책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결국 대화를 파탄시키려 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국내외정세는 분렬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조선인민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두개 조선》을 조작하고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은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배격받고 파산되고있으며 분렬의 고착화를 추구하는자들은 극도로 고립된 남조선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누구도 분렬을 방지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모든 애국자들과 우국지사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내들고있는 《두개 조선》로선을 반대하여 한사람같이 들고일어나자!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북과 남의 온 겨레가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게 될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우리의 이 애국적인 호소를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적극 호응하리라는 확신과 기대를 표명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1973년 7월 24일

평 양

공동성명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이 시작되였다.

해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날인 6월 25일부터 그들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날인 7월 27일까지의 기간을 《반미공동투쟁월간》으로 설정하고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을 규탄하며 그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벌리고있다.

이것은 미제에게 강력한 타격으로 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전투적인 《월간》을 맞이하면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주고 있는 각국 정부와 국제민주단체들, 각국의 진보적인 사회단체들과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일뿐만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선이 분렬된지 30년이 가까와오며 조선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지도 20년이 되나 아직도 조선에서는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고있으며 평화적통일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침략정책을 계속 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일관하게 남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획책하여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망상밑에 남조선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1947년부터는 남조선군대를 동원하여 38연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침공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으며 드디여 1950년 6월 25일 청소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여기에 방대한 침략무력과 군수물자들을 투입하고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그 어떤 야만적인 전쟁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정의의 전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피로써 지켜냈으며 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제국주의침략과 전쟁세력에 대한 평화옹호력량의 위대한 승리였다.

공화국정부는 전후에도 조선에 공고한 평화를 가져오며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시종일관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려 《북진통일》과 《승공통일》을 고창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련이어 벌려왔다.

미제는 《닉슨주의》에 따라 량면전술을 쓰면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조선의 북과 남 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남조선의 호전분자들을 부추겨 조선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려는 책동을 벌리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에 발맞추어 남조선당국자들은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꾀하고있다.

그리하여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는 의연히 풀리지 않고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은 가셔지지 않고있으며 대화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평화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큰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이러한 정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1973년 6월 23일연설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구국대책으로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새로이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동지께서 내놓으신 이 방침은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평화통일을 촉진하며 긴장상태를 가시고 신뢰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총강령으로 되며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하게 옳은 방침이다.

이 방침은 또한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조선에서 평화를 보장하며 분렬을 막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이 5대강령은 진실로 전쟁과 대결을 반대하고 평화와 단결, 합작을 바라며 공존과 분렬이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접수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침이며 평화애호적인 방안이다.

때문에 이 조국통일의 5대강령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오늘 조선에서 한줌도 못되는 매국역적을 제외하고 전쟁과 대결, 분렬을 바라는 사람이 과연 또 어디 있겠는가.

이 강령을 접수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참말로 조선에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름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제시하신 평화통일의 5대강령이 실현되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제시하신 평화통일5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의 영구분렬을 꾀하고 통일과 평화를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조선인민앞에 통일의 서광이 비칠 때마다 그것을 한사코 가로막고 도발로써 대답하여왔다.

1945년 해방직후 조선인민들이 자신의 총의에 의하여 진정한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을 세웠을 때에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에서 그것을 총칼로 탄압하고 군정을 세우고 남북을 인공적으로 갈라놓았으며 1948년 통일의 기운이 짙어갈 때에도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진행하고 독재정권을 세워 분렬을 합법화하여나섰으며 1950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를 합하여 최고립법기관을 만들자는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로 통일의 기회가 다시금 주어졌을 때에는 불의의 침략전쟁을 도발하는것으로써 대답하여나섰다.

그들은 정전후 1954년 제네바회의때에도 우리의 합리적인 제의를 거부하고 회담을 파탄시켰으며 1960년 독재통치를 반대하고 통일을 지향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4.19봉기를 계기로 통일의 기운이 다시 높아졌을 때에도 그것을 총칼로써 무참히 탄압하여 나섰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와 대화의 시작으로 조선인민앞에 자주적평화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자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에 처음부터 찬물을 끼얹었으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진척과 조국통일의 촉진을 방해하여나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에 벌써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하고 남조선당국자들로 하여금 《힘의 립장에서 협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군현대화》를 계속 추진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들을 평화와 민족적단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과 분렬에로 부추겼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에 발맞추어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의 긴장상태를 풀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통일의 지름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놓은 우리의 모든 성의있는 제안들을 《시기상조》니, 《론할 단계가 아니》라느니하면서 거부하고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며 분렬을 고취해왔다.

남북대화가 마련된 이후 모든 사태발전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들어온 《평화통일》이니, 《남북사회개방》이니 하는 것들이 다 가짜이며 그들의 진짜 본심은 영구분렬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자는 이른바 《특별성명》이라는데서 두개 조선을 만들어 분렬을 고착화하는것을 《정책》으로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평화통일과 대화를 원하지 않으며 분렬을 고착화하기 위하여 로골적으로 책동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언한것이다.

전체 조선인민은 조선을 두개로 영원히 분렬하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침략적이며 매국배족적인 책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회담의 막뒤에서 《실력배양》, 《총력안보태세의 확립》을 떠들면서 긴장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며 군사력증강과 전쟁준비에 모든 힘을 돌리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책동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회담이 시작된후에도 군사《예산》을 부단히 늘이며 신형무기와 군사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군사시설을 확장하고있으며 남조선도처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소동을 련이어 벌리고있다.

미국은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7억 8천만딸라의 방대한 경제 및 군사《원조》를 남조선에 들이밀었으며 구축함, 《에프-4팬톰》전투폭격기, 신형수륙량용차 등 각종 최신형무기와 작전장비들을 계속 남조선에 끌어들이였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대규모적인 《황룡3호》작전, 《유도탄사격훈련》, 동남해안일대에서의 대규모적인 《한미합동상륙훈련》 등 군사연습소동을 거의 매일과 같이 벌려놓았다.

이와 함께 그들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지상, 공중해상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전면적으로 강화하고있다. 상륙훈련은 벌써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의미하며 대대적인 정탐활동은 전쟁전야에 하는 행위라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에 속하는것이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이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오늘까지 남조선의 모든 도시들에서 전시를 가상하여 일제히 벌린 이른바 대규모의 《민방공훈련》만하여도 10회이상이나 되며 올해에 들어와 다섯달동안에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한 군사적도발행위와 정전협정위반행위도 무려 6,600여건에 이르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얼마전에는 이른바 《특군중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열어놓고 《예비군의 동원체제》 등을 《전시기본계획》에 따라 재정비하며 《전투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라》는 지시까지 주었다.

그리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그들이 떠드는 《남침》의 위협이 아니라 그들로부터의 북침의 위협이 현실적전쟁위협으로 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수행에 일본군국주의세력까지 끌어들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수행에 가담하는 대가로 남조선에서 옛식민지지배권을 회복할것을 망상하고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그들은 《원조》, 《공동개발》, 《경제협력》의 미명하에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본격화하고있으며 경제적침투에 정치군사적침투를 따라 세우면서 남조선을 또다시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책동하고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에 발맞추어 동족끼리 합작하는것이 아니라 외세와 결탁하고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예속경제로 전변시키고있으며 지어 공해산업까지 끌어들이고있다.

모든 사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도 1년이 되여오고있으나 남북대화에서 별로 진전이 없고 긴장상태가 의연히 풀리지 않고있는 근본요인이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있는데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는 것은 조선통일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의 근본적장애물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분렬정책을 실시하며 전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추구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미제침략군대는 남조선에 남아있을 아무런 구실과 리유도 없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온갖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미제침략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침략정책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들은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킨 범죄자로서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증오와 반격을 받게 될것이며 결국 조선에서 쫓겨나고야말것이다.

미국은 제국주의렬강들이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여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얼마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의회동맹과 세계보건기구에 압도적다수나라들의 지지로 가입한것은 우리 나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던

미제국주의자들의 흉계가 종국적으로 파산되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유엔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유엔결의》에 빙자하여 정당화하려 하고있는 사실에 응단한 타격을 주고 올해 유엔총회에서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할데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 남아있는 나라들이 거기에서 탈퇴하거나 그 사업을 무시하여 《위원단》이 자체로 해체되게 하든지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해체되게 함으로써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애를 제거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줄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조선전쟁참전국이건 아니건 다같이 조선의 통일에 장애로 되고있는 외세를 제거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진보와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나라 정부들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지난 6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평화통일5대강령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여주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 세계 모든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 국제민주단체들,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각국의 련대성위원회들과 각국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사회정치활동가들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미제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가게 함으로써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줄것을 호소한다.

조선인민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지와 성원밑에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실현함으로써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흉계를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민주과학자협회
조선학생위원회

1973년 6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성명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리후락을 두목으로 하는 남조선《중앙정보부》특무들은 지난 8월 8일 일본도꾜에서 망명중에 있는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하여 서울로 끌어가는 야만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지금 그들은 김대중을 불법감금하고 그에게 횡포무도한 박해를 가하면서 그무슨 《범죄》사실을 날조해내려고 음모하고있다.

김대중으로 말하면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워온 야당계 정치활동가이다.

그는 1971년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대통령후보》로 출마하여 남조선사회의 민주화, 남북교류, 평화통일을 정치강령으로 내세우고 류례없는 파쑈적폭압과 사기협잡밑에서도 540만표를 헤아리는 지지표를 받았다.

그후 파쑈통치배들의 탄압책동으로 말미암아 더는 남조선에서 활동을 계속할수 없게 된 김대중은 해외로 망명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미국과 일본을 래왕하면서 정치활동을 계속하여왔다.

그는 지난 7월 미국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를 내왔으며 8월에는 이 단체의 일본본부 결성을 준비하고있었다.

남조선의 파쑈통치배들은 김대중의 애국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활동으로 하여 그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국내에서뿐아니라 해외에까지 따라다니면서 박해하였다.

남조선《중앙정보부》는 특무들을 동원하여 벌써 미국에서부터 김대중을 암살하기 위한 파렴치한 책동을 다하였으며 마침내 김대중이 일본에 와서 활동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에 파견한 특무들까지 끌어넣어 도꾜 한복판에서 백주에 그를 랍치하는 악랄한 만행을 감행하였던것이다.

남조선의 파쑈통치자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가리워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였으나 그 진범인이 다름아닌 리후락을 두목으로 하는 남조선《중앙정보부》라는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사실이였다.

김대중에 대한 비렬한 랍치사건은 미일반동들과의 결탁밑에 남조선파쑈도당들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감행된 국제적깡패행위이고 악랄한 모략책동이며 파렴치한 테로행위이다.

지금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일본의 진보적 정계, 사회계, 언론계 인사들과 광범한 인민 그리고 세계 모든 선량한 인민들은 남조선파쑈테로분자들의 야수적만행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대표하여 온 민족의 이름으로 민주인사 김대중에 대한 남조선파쑈도당들의 랍치행위를 인간의 존엄과 국제규범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민족적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단죄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이와 함께 나는 남조선당국자들과 공모한 일본당국자들이 이 엄중한 범죄행위를 계속 비호하는 비렬한 행위를 그만두고 일본에서 발생된 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미국도 이번 사건의 공모자로서 응당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김대중에 대한 랍치사건은 그 어떤 단순한 《형사사건》도 아니며 어느 한 개인에 대한 고립된 범죄행위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애국력량을 말살하기 위한 일대 정치적음모이며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매국배족적책동의 일환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북과 남사이의 협상에 응해나온후 우리와의 대화에서 시종일관 량면전술에 매달리였다.

리후락은 우리와 마주앉아 조국통일

의 3대원칙에 합의하고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하고서도 돌아앉아서는 쌍방이 합의한 원칙과는 배치되게 행동하였으며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과 통일대신에 대결과 경쟁과 분렬을 끊임없이 추구하여왔다.

리후락은 우리와의 대화에서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을 덮어놓고 반대하였다.

그는 《평화》와 《평화통일》을 운운하면서도 남북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기를 거부하였으며 말로만 《완전개방》을 떠들고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대책을 취하는것을 회피하였으며 《국민의 요망》을 내세우면서도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에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을 참가시키는것을 극력 반대하였다.

결국 남조선당국자들의 속심은 《남북대화》의 간판으로 인민들을 기만하려는데 있으며 민족분렬을 고정화하여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데 있다.

대화의 막뒤에서 그들이 감행하여온 모든 범죄적책동들은 이것을 더욱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외세의존과 전쟁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반공》파쑈정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왔다.

특히 그들은 온갖 폭압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남조선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애국력량을 억누르는데 탄압의 예봉을 돌리고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그들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운 전《국회의원》 김규남, 박사이며 교수인 박대인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학살하였다.

그들은 《반공법》을 휘두르면서 공화국북반부의 현실을 그대로 말한 로동자, 농민들을 체포하고 조난을 당하여 북조선에 왔던 어민들을 고문하며 남북대화에 대하여 자기 소견을 표명한 학생, 지식인들에게 형벌을 가하고있다.

지어 그들은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한 목사 박형규, 전도사 권호경 등 15명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재판에 넘겼으며 파쑈적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독교 불교 신자를 비롯한 종교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이 파쑈분자들은 민족분렬과 장기집권을 위한 저들의 범죄적책동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전《서울경비사령관》 윤필용을 비롯한 수십명의 장교들을 체포투옥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른바《보안대사령부》에 대한 숙청놀음을 벌려 수많은 장병들을 무더기로 처형하고있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애국력량과 인민들에 대한 이 횡포무도한 파쑈적탄압은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전적으로 배치되는것이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과 대화의 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배신행위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통일념원을 억누르고 일관하게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꾀하여온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 6월 23일 마침내 《특별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자기들의 《두개 조선》로선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쌍방이 합의한 남북공동성명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저들의 민족반역적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두개 조선》조작책동이 《정책》으로 선포된 이때에 리후락을 두목으로 하는 남조선《중앙정보부》의 특무들이 김대중을 랍치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지향에 도전해나선데 대하여 응당한 주목을 돌리지 않을수 없다.

이 비렬한 랍치사건은 우리의 회담상대방으로 되여온 남조선《중앙정보부장》리후락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사람잡이를 일삼던 나머지 외국에까지 가서 망명객을 묶어오는 이자야말로 민주주의의 교형리이고 평화통일의 장애물이며 인간의 량심마저 저버린 상습적인 배신자이다.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자와 자리를 같이한다는것은 그의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와 타협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남북조절위원회에 대한 온 민족의 기대를 배반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남북조절위원회는 바로 민족의 대사인 통일문제를 협의, 해결하여야 할 크고도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이 신성한 민족공동의 기구에는 리후락이와같은 자가 계속 눌러앉을 자리가 없으며 인민과 민족앞에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있는 우리는 깡패들과 마주앉아 국가대사를 론의할수 없다.

나는 조절위원회의 사명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일관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의 리후락을 비롯한 《중앙정보부》의 깡패들을 더는 대화에 참가시킬수 없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성명한다.

북과 남사이에는 아직 의견상이가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조건에서 우리는 회담을 앞으로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며 이를 위하여 쌍방이 다같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것을 남조선의 당국자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호소한다.

북과 남이 진실로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하자면 현남북조절위원회를 그의 목적과 기능에 알맞게 충실히 꾸리고 그것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리후락과 같은자들을 제거하고 민족적량심이 있고 쌍방사이의 신의를 지킬줄 알며 민족분렬의 고정화를 반대하고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념원하는 사람들로 교체할것을 제기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만일 진실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응당 쌍방사이에 합의된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존중하고 《두개 조선》로선을 취소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정당,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김대중을 비롯하여 체포, 투옥한 애국자들을 석방하여야 한다.

남북조절위원회는 응당 전민족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당국자들뿐만아니라 여기에 남북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들이 참가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에만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민족적대단결의 기초우에서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성과있게 추진될수 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민족의 지상과업인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성과적진척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것이다.

나는 남조선의 당국자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이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현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애국적인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나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김 영 주

1973년 8월 28일 평양

성명, 보도, 콤뮤니케 일람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남조선당국자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반동적책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성명, 보도

1월 22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2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미제침략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준비를 더욱 발악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3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미제침략군과 남조선해군이 새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3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일본정부가 악명높은 《출입국법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성사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4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다그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6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일본반동들의 직접적인 부추김밑에 일본불량학생들이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집단폭행을 련이어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7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와 아세아나라들을 반대하는 각종 침략책동과 함께 《극동방송국》과 같은 침략기구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모략선전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7월 18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더욱 강화하며 이른바 《관광객》의 명목으로 남조선에 물밀듯이 기여들어 녀성들을 마구 희롱하며 릉욕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7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일본당국자들이 총련조직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폭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7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수급사환군 로져스란놈을 남조선에까지 파견하여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여)

8월 1일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공화국북반부령역에 들어왔던 남반부어민들을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8월 9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성명 (일본에 머무르고있던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대낮에 랍치한 박정희도당의 만행을 규탄하여)

8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남조선파쑈악당들이 특무를 파견하여 일본에 머무르고있던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한 남조선파쑈악당들의 만행을 규탄하여)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나라의 평화통일을 주장한 남조선 민주인사를 일본땅에까지 쫓아가서 불법랍치한 남조선파쑈악당들의 죄행을 규탄하여)

8월 11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 (남조선 《중앙정보부》가 파견한 특무들이 일본에 망명중인 남조선민주인사 김대중을 백주에 랍치하는 극악무도한 깡패행위를 감행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여)

8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학생체육협회 성명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를 《두개조선》조작을 위한 정치적목적에 리용해 보려는 남조선괴뢰도당을 규탄하여)

8월 16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성명 (박정희괴뢰도당이 일본당국자들과의 공모결탁하에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하여 서울에 끌어다놓고 새로운 파쑈적탄압음모를 꾸미고있는것을 규탄하여)

8월 20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인민무력부대변인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중상비방을 반박한것과 관련하여)

8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성명 (불의의 조난을 당하여 일본에 표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들을 지체없이 석방하고 그들을 자기조국으로 즉시 돌려보낼것을 일본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여)

8월 27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성명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과 그의 가족들에게 가하고있는 남조선파쑈무리들의 인권유린행위와 인신박해행위를 규탄하여)

10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이 더욱 우심해지고있는것을 규탄하여)

10월 19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성명 (일본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들을 부당하게 억류하여 놓고 그 무슨 《재판》놀음을 벌리면서 그들에게 온갖 박해와 탄압을 가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11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부 보도 (일본선박 《신류마루》가 우리 나라 령해에 깊이 불법침입한것을 규탄하여)

11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성명 (제28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가 끝난것과 관련하여)

12월 1일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 성명 (남조선에서 보도활동의 초보적인 자유마저 박탈당한 기자, 언론인들이 파쑈도당의 류례없는 폭압을 박차고 정의의 투쟁에 단호히 떨쳐나서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12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부 보도 (우리 나라 령해에 불법침입하였던 일본선박 《신류마루》 선원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냄과 관련하여)

12월 17일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미제와 그의 부추김밑에 남조선호전분자들이 벌리고있는 전쟁소동을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파괴하며 7.4남북공동성명을 무시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한 범죄행위로 규탄하여)

12월 2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박정희괴뢰도당이 그 무슨 《간첩단사건》이라는것을 꾸며내고 남조선지식인들과 인민들을 체포투옥하고 갖은 박해를 가하고있는것을 폭로규탄하여)

12월 25일 조선학생위원회 성명 (박정희파쑈살인악당들이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던 끝에 3명의 대학생을 고문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12월 25일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매국도당의 《한일각료회의》를 벌리려는 위험한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규탄하여)

12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일본당국이 재일조선공민들과 총련조직에 대한 박해와 탄압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지지하며 미제침략자들의 전쟁정책을 폭로규탄하여 발표한 성명

2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는것을 규탄하여)

2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인 폭격을 규탄하여)

3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성명 (캄보쟈 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2월 27일 성명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외교부대변인의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3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미제의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폭격의 확대와 미제의 지원밑에 론놀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무고한 캄보쟈주민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과 학살만행을 규탄하여)

4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웰남민주공화국정부와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가 3월 30일과 4월 1일에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리행정형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천명된 정당한 립장과 주장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4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가 캄보쟈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 있는 미제의 새로운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4월 17일 성명을 지지하여)

5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외교부의 5월 12일 성명을 지지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8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도당이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과 1973년 6월 13일부 공동콤뮤니케를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와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외교부 성명을 지지하여)

9월 15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 (칠레에서 파쑈적군사정변을 조작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세력들의 죄행을 규탄하여)

9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행동을 더욱 빈번히 감행하면서 중동지역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칠레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과 칠레 두 나라사이의 국가적 관계를 재검토하고 칠레에서 파쑈적인 반동세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칠레와의 국가적 관계를 중단할것을 선언한것과 관련하여)

10월 10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 (칠레군사파쑈교형리들이 칠레공산당 총비서 루이스꼬르발란동지를 체포구금하고 그를 군사재판에 넘겨 처형하려는 범죄적음모를 꾸미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10월 13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 (미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애급아랍공화국과 수리아아랍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 무력침공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10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웰남정세를 격화시키고 정화협정을 파괴하려는 미제의 새로운 음모책동을 규탄하여)

11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성명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로운 전쟁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여 11월 9일과 10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와 웰남민주공화국정부가 발표한 성명들에서 천명된 정당한 립장과 요구를 지지하여)

12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남부웰남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있는 미제와 사이공괴뢰도당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여)

12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른바 《공동정책전환》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나라 사이에 발표된 공동성명, 보도 및 공동콤뮤니케

1월 23일 우루과이 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평양)

1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또고공화국사이에 외교관계를 설정할데 관한 공동콤뮤니케 (로메)

2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칠레공화국정부대표단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

2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다오메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

2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베이징)

3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다마스끄)

3월 2일 우리 나라와 잠비아공화국 사이에 외교관계를 설정할데 대한 공동보도 (바더스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쁘라하)

3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보쯔와나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가베로네스)

3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애급아랍공화국 정부대표

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까히라)

3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방문결과에 관한 보도(뉴악쇼뜨)

3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모가디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의 예멘아랍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사나)

3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이라크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바그다드)

3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모리셔스 사이에 외교관계를 설정할데 관한 공동콤뮤니케(포트 루이스)

3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다르 에스 살람)

3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몽골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울란바따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적도기네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산타 이사벨)

3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말가슈공화국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따나 나리브)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다오메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꼬또누)

4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란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테헤란)

4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또고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로메)

4월 21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및 공화림시혁명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공식친선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평양)

4월 26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수리아아랍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다마스끄)

4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베오그라드)

5월 1일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평양)

5월 4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이라크공화국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바그다드)

5월 10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의 우간다공화국방문결과에 관한 공동콤뮤니케(캄팔라)

5월 14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의 부룬디공화국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부줌부라)

5월 24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오지리방문에 관한 공동보도(윈)

5월 31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스위스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베른)

6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르헨띠나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성명(부에노스 아이레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핀란드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헬싱키)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쟈까르따)

7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스위스련방사이의 무역대표부 교환에 관한 공동콤뮤니케(베른)

7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슬란드공화국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 설정에 대한 공동콤뮤니케(모스크바)

8월 4일 콩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결과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평양)

8월 24일 애급아랍공화국 인민회의 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평양)

9월 11일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과 수리아아랍공화국 인민회의 대표단사이의 공동보도(평양)

9월 23일 애급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평양)

10월 3일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과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가 공동성명(도꾜)

10월 29일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평양)

10월 30일 감비아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평양)

11월 5일 이딸리아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관한 공동보도(평양)

11월 13일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평양)

11월 24일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평양)

12월 9일 우리 나라와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및 외교대표교환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쟈까르따)

12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도공화국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리베리아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평양)

12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프카니스탄공화국 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설정에 관한보도

국내 주요 일지

(1973년 1—12월)

1 월

1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3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사, 세계 각국 당 및 정부수반들과 년하장을 교환 하심

3일 군사정전위원회 제409차 비서장회의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과 공동경비구역 가까이에서 긴장성을 더욱 격화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미제를 강력히 항의규탄

4일 9. 15주탁아소에서 수령님의 교시 한돐 기념보고회,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의 기계전사들이 천리마작업반열성자회의를 열고 결의를 다지고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8일 1968년 1월 8일 평양기가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 다섯돐기념 강연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이며 열렬한 공산주의자인 마동희동지서거 서른다섯돐 평양시 추모회 ▶혜산청년광산의 광부들이 1973년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끝내고 년말까지는 125%로 넘쳐 수행할것을 결의하면서 전국의 채취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9일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주간》 평양시 군중집회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발표 한돐기념모임 ▶천리마황해제철소 사로청열성자회의에서 1973년도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끝낼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금속공업부문과 이와 관련된 광산들의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에게 이에 호응하여 나설것을 호소

11일 정무원 부총리 정준택동지 서거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 정준택동지의 령구를 찾으시고 깊은 애도의 뜻 표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평양시내 각 기관일군들과 근로자들 고 정준택동지의 령전에 조의,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고 정준택동지의 령구를 찾아 조의 표시▶외교부에서 미제의 사촉밑에 유태복고주의자들이 수리아 인민과 아랍나라 인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침략행위를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기양뜨락또르공장에서 천리마기수들이 궐기모임을 열고 봄발갈이전으로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은 뜨락또르를 보내며 1973년도 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끝낼것을 결의하면서 농촌지원사업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각지공장,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호소

16일 사로청창립 스물일곱돐을 맞이하여 모범적인 사로청조직과 사로청원들을 표창하여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여

17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우루과이공산당대표단사이 회담 (평양)

18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34차회의, 우리측은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파괴유린하고 남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고 조성된 긴장상태를 제거하며 조선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요구를 제기

19일 조중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제12차회의 합의서 평양에서 조인

20일 평대탄광에서 1972년 실적에 비하여 1.5배로 장성한 1973년도 첫달 계획을 101%로 앞당겨 끝냄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체스꼬슬로벤스꼬텔레비존방송사이의 협조협정 조인 (평양) ▶사로청창립 스물일곱돐기념 전국청소년 빙상경기대회(31일까지)

22일 1973년도 전국스키선수권대회 삼지연에서 진행(28일까지)

23일 우루과이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보도 발표

26일 우리 나라가 웰남민주공화국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무상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협정, 우리 나라 정부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3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조인 ▶군사정전위원회 제335차회의, 우리측은 여러가지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강력히 항의규탄하고 조선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요구조건을 리행할것을 미제에게 다시한번 촉구

27일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받은 천리마강선제강소에서 104.5%로, 혜산청년광산 102.7%로 1월분계획을 넘쳐수행

28일 기양의 기계전사들이 1월분 뜨락또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

31일 우리 나라와 또고공화국 사이에 외교관계를 설정할데 관한 공동콤뮤니케발표 (평양)

2 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한 기양뜨락또르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전보문을 보냄▶혁명적출판물 《새날》신문창간 마흔다섯돐기념보고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칠레공화국정부대표단성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훈장을 수여하심 ▶외교부대변인이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준비를 더욱 발악적으로 추진시키고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칠레공화국 정부대표단사이에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아세아,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평양)

4일 천리마만경대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이 궐기모임을 열고 1973년에 알곡정당 1톤이상 더 내며 축산, 남새, 과수, 잠업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협동농장 천리마기수들과 농장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기념 평양시국방체육구락부무선통신경기대회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에게 훈장 및메달을 수여할데 대한 정령을 공포하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일본사회당 제36차대회에 축전을 보냄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전국사회과학토론회 ▶우리 나라 정부와 다오메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 및 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조인(평양)▶ 군사정전위원회 제336차회의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악랄한 전쟁소동을 당장 중지하고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갈것을 강경히 요구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찾으시고 명절맞는 군인들을 축하하심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기념중앙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9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일당백상》체육경기대회(평양에서)

12일 탄자니아련합공화국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와 평양시주둔부대군중집회▶ 조선과 꾸바정부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3차회의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0년 2월 의학과학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 세돐을 기념하는 전국의학과학토론회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결과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

16일 강계시에 예술전문학교가 새로 나옴

17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알바니아정부대표단사이에 회담 (티라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동지의 특사로 파키스탄을 방문하고있는 우리 나라 외교부장과 파키스탄 외교및국방담당국무부장사이에 회담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벌가리아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 (쏘피아에서)

18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이라크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 (바그다드에서)

19일 외교부대변인이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인 폭격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21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노르웨이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오슬로에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꽁고공화국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브라자빌에서) ▶ 군사정전위원회 제410차 비서장회의,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과 공동경비구역안에서 긴장성을 조성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항의규탄

22일 우리 나라와 파키스탄 사이에 1973년도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체결(평양에서)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청년학생기동선전대 예술종합공연을 보심

26일 우리 나라정부대표단과 자이르정부대표단사이의 회담 (킨샤사에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보쯔와나 정부대표단사이의 회담(가베로네스에서)

28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수리아정부대표단 사이의 회담(다마스끄에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단마르크정부대표단 사이 회담 (꼬뻰하븐에서)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과 스웨리예 외교부대표단 사이의 회담(평양에서)

29일 3. 1인민봉기 쉰돐 평양시기념회

3 월

1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수리아아랍공화국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발표(다마스끄에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애급정부대표단사이의 회담(까히라에서)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노르웨이사회인민당 제8차전국대회에 축전을 보냄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의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잠비아정부대표단이 회담, 우리 나라와 감비아사이의 외교관계를 설정할데 대한 공동성명 발표(바더스트에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꾸바공화국 정부대표단이 회담(아바나에서)

3일 외교부에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 시하누크친왕의 2월 27일 성명과 캄 쟈왕국 민족련합정부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우리 나라 부대표단과 알제리정부대표단이 회 (알제에서)

5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의 보쯔 나공화국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표

6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말라 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 (좀바에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애급아랍공 국 정부대표단사이 공동콤뮤니케 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까메룬공 국 정부대표단사이에 회담(야운데에서

7일 우리나라 정부대표단과 이슬란 정부대표단이 회담(레이캬비크에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알제리민주 민공화국 방문 결과에 관한 조선—알 리공동콤뮤니케 발표 ▶우리 나라 부대표단과 소말리아정부대표단사이 회담(모가디쇼에서) ▶외교부대변 은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리 서 새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공화국 반부를 반대하는 엄중한 도발행위 감행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 규탄하여 성명

9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제1차간사회의 소집에 관한 공동보 ▶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모리따 회교공화국 정부대표단이 회담(누악 뜨에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네공화국 정부대표단이 회담(꼬나크 에서)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 산회의 마흔돐기념 함경북도보고 성대히 진행▶ 남북조절위원회 제1 회의 진행, 공동보도발표▶우리 나 정부대표단의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문결과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

1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 동지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 적인 왕재산회의 마흔돐을 기념하 온성에서 함경북도내 청년학생들의 불행진과 우등불 모임 ▶수령님께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 산회의 혁명사적지건설 착공식 현지 서 진행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표단의 예멘아랍공화국 방문에 관 공동보도 발표(사나에서) ▶조선민 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소말 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 공동콤뮤니케 발표(모가디쇼에서)

12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 동지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 적인 왕재산회의 마흔돐기념 전국사 과학토론회 진행 ▶우리 나라 정부 표단과 탄자니아정부대표단이 회담(

르 에스 살람에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칠레인민통일정부대표단이 회담(싼띠아고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제337차회의에서 조선에서 새 전쟁준비를 계속 강화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고 미제침략자들이 모든 살인무기들과 이른바 《련락사절단》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

13일 우리 나라 외교부장과 쏘련 외교부장사이 회담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전원회의(14일까지) ▶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에 참가할 남조선측 성원들과 기자들이 평양에 옴 ▶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네팔왕국정부대표단이 회담(까뜨만두에서)

14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스웨리예왕국정부대표단이 회담(스톡홀름에서) ▶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모리셔스정부대표단사이의 회담(포르루이스)

15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가 평양에서 진행 ▶ 우리 나라 과학원과 뽈스까과학원사이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과 1973~1974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인(와르샤와에서)

16일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공동위원장을 대신하여 정무원 부총리가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가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내외기자들과 만남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핀란드정부대표단이 회담(헬싱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모리셔스 사이에 외교관계를 설정할데 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포르루이스에서) ▶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튜니지정부대표단이 회담 (튜니스에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몽골정부대표단이 회담(울란바따르에서)

17일 제8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평양에 옴 ▶ 남북적십자회담에 참가할 우리측 자문위원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재일본조선인 기자대표단이 평양에 옴 ▶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사이의 1973년—1974년도문화교류계획서 조인(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발표 (다르 에스 살람에서) ▶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시에라 레온정부대표단이 회담(프리타운에서)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의회총선거에서 귀당을 비롯한 좌익력량들이 달성한 커다란 성과를 축하하여 프랑스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축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연설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발표 열돐기념 전국학술토론회 ▶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잠비아정부대표단이 회담(루사카에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적도기네공화국 정부대표단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발표 (산타 이사벨에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말가슈정부대표단이 회담 (따나나리브에서)

20일 남북적십자회담 제5차회의에 참가할 남조선측 성원들이 평양에 옴, 23일 돌아감 ▶ 조쏘친선협회와 쏘련대외친선문화련락협회련맹 및 쏘조친선협회 사이의 1973년도 협조계획서 조인(평양에서) ▶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말리공화국 정부대표단이 회담(바마코에서) ▶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인도정부대표단이 회담(뉴델리에서)

21일 평양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제5차회의 (22일까지) ▶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에꽈도르정부대표단 회담(끼또에서) ▶ 제1차전국수산부문체육경기대회 원산신풍경기장에서 23일까지 진행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룩셈부르그공산당 제21차대회에 축전 ▶ 외교부대변인 일본정부가 악명높은 《출입국법안》을 국회에 상정시키려고 책동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말가슈공화국 정부대표단사이의 공동콤뮤니케 발표(따나나리브에서)

23일 봉화혁명사적관개관식 성대히 진행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단장이 남북적십자회담 제5차회의가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내외기자들과 만남

26일 사회주의조국으로 돌아오는 재일동포들을 태운 제167차귀국선 《만경봉》호 청진항 도착 ▶ 니제르공화국을 친선방문한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니제르공화국 정부대표단이 회담 (니아메에서)

27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에티오피아왕국 정부대표단이 회담(아디스 아바바에서)

28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끼쁘로스근로인민진보당대표단사이 회담(평양에서)

30일 군사정전위원회 제411차비서장회의에서 정전위원회 본부구역과 공동경비구역 가까이에 있는 제놈들의 초소에 기관총과 전투인원 및 군사용차량을 끌어들이면서 긴장성을 조성하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항의규탄 ▶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과 상부 볼따정부대표단 사이 회담(와가두구에서) ▶ 우리 나라 정부군사대표단과 싱가포르군사대표단이 회담(싱가포르에서)

31일 제8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 외교부대변인은 미제가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폭격을 확대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제의 지원밑에 론 놀괴뢰도당이 무고한 캄보쟈주민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과 학살만행을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4 월

3일 조선로므니아친선협회결성모임 (평양에서)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 열림, 6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하여》의 최고인민회의 결정과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내는 편지와 미국국회에 보내는 편지 채택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심, 최고인민회의 제5기제2차회의 10일에 끝남 ▶ 외교부는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와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가 3월 30일과 4월 1일에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리행정형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들에서 천명된 정당한 립장과 주장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성명 ▶ 외교부대변인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는 미제를 규탄하여 성명

6일 우리 나라 정부가 스웨리예정부의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의에 동의하여 답전을 보냄

7일 우리 나라 정부군사대표단과 애급아랍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이 회담 (평양에서)

8일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물 평양체육관 개관

10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38차회의에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규탄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

11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일본사회당대표단이 회담(평양에서)

12일 남북적십자회담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재일본조선인기자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집회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여하도록 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애급아랍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성원들에게 수여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크나큰 공헌을 한 21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군부대들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발표 ▶ 김일성방송대학 창립기념모임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및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대표단 사이 회담(평양에서)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의 부인을 맞이하시고 환영연회를 베푸시고 연회에서 연설하심 수령님께서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이 캄보쟈해방지역 방문을 수록한 사진전시회를 보심 ▶수령님탄생 예순한돐을 맞이하여 중앙강연회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수령님탄생 예순한돐기념 전국사회과학토론회, 전국혁명사적지사진전시회 진행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령님탄생 예순한돐을 맞이하여 축하방문하여온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과 그 부인을 만나심, 친왕과 함께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국가원수친왕의 캄보쟈해방지역방문을 수록한 기록영화를 보심 ▶수령님탄생 예순한돐기념 조선소년단 평양시련합단체대회 만경대에서 성대히 진행 ▶ 우리 나라와 이란 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테헤란에서)

1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군중대회에서 수령님께서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심, 17일 수령님께서 대표단을 바래우심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칠레사회당 창건 40돐에 즈음하여 이 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 녀맹중앙위원회 제4기 제4차전원회의 20일까지 진행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및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사리원시군중대회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및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대표단성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훈장을 수여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발표 열돐기념보고회와 전국대학교원과학토론회

18일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열네돐 평양시기념보고회 ▶남북적십자회담에 우리측자문위원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부의장과 재일본조선기자단을 환영하는 함흥시군중대회

19일 군사정전위원회 제412차 비서장회의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련속적으로 벌려대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서 긴장성을 더욱더 조성하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항의 규탄 ▶ 조쏘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회 제9차회의 진행(모스크바에서)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방직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공훈인쇄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정령을 발표하심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소장으로부터 보내여온 선물 전달모임

21일 우리 나라 정부와 쏘련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73년도문화교류계획서 조인(평양에서)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및 공화림시혁명정부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식친선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평양에서)

23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간사회의 판문점 서울측지역에서 진행 ▶ 군사정전위원회 제339차회의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며 긴장성을 격화시키면서 새 전쟁도발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전적으로 폭로규탄하고 모든 침략무력과 이른바 《련락사절단》을 걷어가지고 지체없이 남조선에서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 ▶ 만수대예술단조사단과 아사히신문사 및 일조문화교류협회 사이에 만수대예술단의 일본방문공연에 대한 합의서 조인 ▶우리 나라정부와 쏘련정부사이에, 우리 나라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정부 사이에 1973년도상품호상공급에 관한 의정서 조인(평양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사이에 1973년도통상협정 조인(평양에서)

24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마흔한돐을 맞이하여 기념강연회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키스탄예술단의 공연을 보심, 파키스탄예술단성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과 메달을 수여

26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수리아아랍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 ▶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끼쁘로스정부대표단이 회담(니코시아에서)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

28일 우리 나라가 국제의회동맹에 가입

3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양뜨락또르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신 축하문과 뜨락또르생산자 및 건설자들에게 보내시는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성대히 진행, 수령님께서 승리자동차종합공장과 9.25 뜨락또르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신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연구를 위한 사회과학토론회

5 월

1일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경축하는 평양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성대한 야회▶ 라오스애국전선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4일 림진강반에 일떠선 만년대계의 1월 11일 양수장룡수식 성대히 진행 ▶외교부대변인이 일본정부당국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비우호적태도를 날로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우리공화국의 국제적권위가 높아가고있는것을 가로 막아보려고 부질없이 책동하는것을 규탄하여 담화 발표 ▶ 우리 나라 정부와 민주독일정부 사이의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73~1974년도사업계획서 조인(평양에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우편 및 전기송신 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조인(평양에서) ▶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이라크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

7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련방의회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9일 남북적십자 제6차회의 (서울에서 10일까지) ▶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우간다공화국 정부대표단과 회담(캄팔라에서)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천철도국 신안주청년역과 함흥철도국 석탕온천역에 철도근위3급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결정을 공포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하신 연설 다섯돐기념강연보고회

11일 남북적십자회담 제6차회의가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표단 단장이 내외기자들과 만남

12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부룬디정부대표단이 회담,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의 부룬디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부줌부라에서)

14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루안다정부대표단이 회담(끼갈리에서)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성원들에게 수여하도록 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훈장을 대표단성원들에게 수여 ▶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주둔부대군중집회

16일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집회

17일 세계보건기구 제26차총회결정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보건기구에 가입

18일 제9차조국방문단 평양에 옴

19일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에서 5월 21～25일까지의 기간을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주간》으로 설정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열여덟돐기념 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이 평양에 옴

20일 외교부대변인이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인 폭격만행과 전쟁확대행위를 치솟는 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하여 성명 ▶ 《일조우호무역촉진일본해연안도시회의》대표들을 환영하는 집회 ▶ 강계시에서 배움의천리길학생소년궁전개관식 성대히 진행

23일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간사회의 판문점 우리측지역에서 진행, 회의에서 공동보도 발표 ▶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 서른네돐 량강도 기념보고회 진행 ▶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집회

24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결성열여덟돐기념 평양시보고회 ▶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조선수단친선협회에서는 5월 25일 수단인민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조선수단친선주간》으로 설정 ▶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오지리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발표 ▶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인도네시아정부대표단이 회담(쟈까르따에서)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체지공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발표하심

28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스위스로동당정치국대표단 사이의 회담, 31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스위스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발표

30일 로므니아의회그루빠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6 월

1일 6.1국제아동절 스물세돐을 기념하는 평양시유치원어린이들의 체육경기대회 ▶ 우리 나라와 아르헨띠나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 우리 나라와 핀란드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헬싱키에서)

2일 남조선청년학생들의 6.3봉기 아홉돐기념 평양시청년학생보고회 ▶ 뿔스까 당및쎄임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집회

4일 량강도에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여섯돐을 기념하여 경축보고회와 소년단원들의 련합단체대회,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체육경기, 예술소조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 보천보전투승리 서른여섯돐기념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 시작

6일 조선소년단 창립 스물일곱돐을 맞이하여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을 표창하여 《김일성소년영예상》수여

7일 우리 나라 보건부와 웰남민주공화국 보건부 사이의 1973～1974년도 보건협조계획서 조인(평양에서)

8일 조선로동당대표단의 벨지끄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발표

12일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음(13일까지), 14일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회의가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우리측공동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총리가 내외기자들과 만남

14일 우리 나라와 파키스탄 사이에 문화 및 과학 분야에서 련계와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화협정조인(이슬라마바드에서)

15일 재일조선인총련합회결성 열여덟돐기념 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과 제9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16일 우리 나라정부와 몽골정부사이의 1972～1973년도 문화교류계획서에 대한 보충의정서 조인(울란 바따르에서)

17일 외교부대변인은 일본반동들의 직접적인 부추김밑에 일본불량학생들이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집단폭행을 련이어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성명

18일 우리 나라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과 의정서조인(베이징에서)

2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스따브 후싸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 대표단을 맞이하심, 수령님께서 환영연회를 베푸시고 연설하심, 구스따브 후싸끄동지가 수령님을 의례방문

21일 수령님께서 구스따브 후싸끄동지를 답례방문하심, 22일 함흥시민들 수십리연도에서 수령님께서 동행한 체스꼬슬로벤스꼬 당및정부대표단을 열렬히 환영, 23일 수령님의 참석밑에 구스따브 후싸끄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군중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력사적인 연설하심, 24일 수령님께서 대표단성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훈장을 수여, 수령님께서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훈장을 받으심, 수령님께서 대표단을 바래우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결과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 범죄적《한일협정》체결후 더욱 로골화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폭로규탄하는 평양시청년학생집회

22일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압록강관개건설종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은 만풍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압록강관개공사를 완공▶만풍호반에서 압록강관개준공식 성대히 진행, 준공식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축하문 전달 ▶ 우리 나라와 노르웨이왕국 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25일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신천땅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규탄하는 전국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성토모임

27일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웰남로동당 및 웰남민주공화국정부 대표단사이 회담 ▶ 함흥시안의 20여만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열여덟돐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을 열렬히 환영

28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40차회의, 미제침략자들이 또다시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범죄적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갈것을 항의규탄

29일 범문동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웰남로동당 및 웰남민주공화국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사리원시군중대회, 30일 본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

대회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에 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자까르따에서)

7 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웰남민주공화국에 경제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사이의 협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웰남민주공화국 정부사이의 1974년도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조인 ▶조선로동당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웰남로동당 및 웰남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사이의 공동콤뮤니케 발표(평양에서)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환영하여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중집회들이 각지에서 광범히 벌어짐(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과학원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과학원사이의 1973～1975년도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인(평양에서) ▶조선오지리친선협회결성모임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새 기술혁신의 봉화상》을 제정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발표▶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6월 23일 연설에 대한 전국사회과학자들의 연구발표회

7일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우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이 떠남 ▶남북적십자회담에 우리측 자문위원으로 참가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재일조선인기자단, 조국방문재일조선상사 대표단이 평양에 옴

8일 외교부대변인은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와 아세아나라들을 반대하는 각종 침략책동과 함께 《극동방송국》과 같은 침략기구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모략선전을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개의 군에 모범교육군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채택

11일 남북적십자회담 제7차회의 평양에서 열림(12일끝남)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7월 26일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스무돐에 즈음하여 공동성명 발표 ▶김일성종합대학 축구선수단과 소말리아축구종합선수단 사이에 경기 진행

13일 일본정부의 파쑈적인 《출입국법》조작 책동을 규탄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집회에서 항의문채택

14일 군사정전위원회 제415차비서장회의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과 공동경비구역 가까이에서 긴장성을 조성하고있는 미제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항의규탄.

16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을 기념하는 전국청년학생웅변대회 ▶우리 나라와 웰남 사이에 과학기술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의정서와 계획서 조인(하노이에서)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단마르크왕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협정 조인(페뻰하븐에서)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말가슈독립대회당 제7차대회에 축전 ▶조국사창립 열돐기념모임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 부인을 맞이하심, 수령님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아프리카 및 구라파 방문성과를 축하하여 연회를 베푸시고 연설을 하심, 23일 수령님께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 부인의 숙소를 방문하심, 수령님께서 친왕과 함께 우리 나라 기록영화와 우리 나라 시보영화를 보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을 기념하여 미제의 만행을 폭로규탄하는 녀성성토회

22일 외교부대변인이 일본당국자들이 총련조직과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폭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24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59차확대회의, 수령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며 대민족회의를 조속히 실현할데 대하여 토의, 남조선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외교부대변인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수급사환군 로저스란놈을 남조선에까지 파견하여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3,750톤짜리 대형선미트랄선 《정방산》호를 무어 바다에 띄움

25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41차회의에서 새 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날뛰면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책동을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폭로규탄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이 즉시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새로 건설된 자동화된 대규모의 금성뜨락또르공장 조업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마다 7월 27일을 《농촌기술혁명지원의 날》로 정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발표하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기념사회과학토론회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금성뜨락또르공장건설과 설비제작에 참가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축하문과 그이의 선물을 전달▶우리 나라와 이슬란드공화국사이의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녀자배구경기대회 개막, 8월 2일 페막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로씨야사회민주당 제2차대회 70돐에 즈음하여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축하를 보냄 ▶남녀평등권법령발포 스물일곱돐기념 중앙보고회

30일 조선혁명박물관 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를 따라 배우는 사업에서 얻은 경험들을 나누는 평양시녀성들의 모임 ▶우리 나라 정부와 수리아정부사이의 1974년도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조인(디마스크에서)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음악무용서사시극 《고난의 행군》에 인민상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인민무력부에서 중국인민해방군창건 마흔여섯돐을 기념하는 군인모임

8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는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맞이하심, 수령님께서 환영연회를 베푸시고 연설하심, 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과 함께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참관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사이에 회담, 3일 수령님의 참석밑에 마리엔 느구아비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수령님께서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이 차린 연회에 참석하심, 연회에서 연설하심, 4일 우리 나라 정부가 꽁고인민공화국 정부에 경제 및 기술, 문화적 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꽁고인민공화국정부의 합의서조인, 수령님께서 본대표단

을 바래우심, 꽁고인민공화국 당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결과에 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2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콜롬비아공산당대표단 사이에 회담(평양에서)

4일 외교부대변인은 웰남과 인도지나의 평화를 위협하고있는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도당의 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여 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이 열림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상사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5일 재일본조선교육일군 조국방문단과 조선대학교음악체육소조조국방문단이 평양에 옴

6일 우리 나라 정부와 벌가리아정부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5차회의 진행(9일까지)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전국농업부문열성자대회 열림(9일까지), 수령님께서 강령적교시를 주심▶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및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동지서거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대사관을 방문하시고 조의를 표시하심

8일 재일본조선대학교 음악체육소조 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청년학생집회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함께 평양시예술인들과 노로돔 시하모니친왕이 출연하는 친선공연을 보심, 11일 수령님께서 친왕과 함께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참관하심, 12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인과 함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그 부인이 차린 연회에 참가하심, 수령님께서 연설하심, 14일 수령님께서 본 대표단을 바래우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특무를 파견하여 일본에 머무르고있던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대낮에 랍치한 박정희도당의 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조국에 온 재일본조선대학 음악소조원들이 구성시 《조국의 영예를 빛내여 가리라》를 공연▶재일본조선대학교 축구소조와 평양철도대학 축구소조사이의 경기

10일 외교부대변인이 특무를 파견하여 일본에 머무르고있던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한 남조선파쑈악당들의 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주장한 남조선민주인사를 일본땅에까지 쫓아가서 불법랍치한 남조선파쑈악당들의 죄행을 규탄하여 성명 ▶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교육일군집회

11일 우리 나라 12개 사회단체들은 남조선 《중앙정보부》가 파견한 특무들이 일본에 망명중인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백주에 랍치한 극악무도한 깡패행위를 감행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여 공동성명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학생체육협회는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 남조선선수단과 함께 참가하게 되는 경우 《두개조선》조작음모의 불순한 정치적모략책동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우리의 체육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것과 관련하여 성명

1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박정희괴뢰도당이 일본당국자들과 공모결탁하여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하여 서울에 끌어다 놓고 새로운 파쑈적탄압음모를 꾸미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16일 제10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과 재일본조선인기자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17일 조선과 뽈스까 두 나라 정부사이의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2차회의 의정서조인(평양에서, 로동신문)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중앙위원회는 8월 3일 불의의 조난을 당하여 일본에 표착한 우리 나라 선원들을 지체없이 석방하고 그들을 자기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즉시 돌려보낼것을 일본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여 성명

23일 애급아랍공화국 인민회의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군사정전위원회 제342차회의에서 미제의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소동과 악랄한 적대행위를 강력히 규탄

24일 애급아랍공화국 인민회의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25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남조선군사파쑈집단이 민주인사 김대중을 일본에서 랍치해온후 그에게 모진 박해를 가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담화발표

27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민주인사 김대중과 그의 가족들에게 가하고있는 남조선파쑈무리들의 인권유린행위와 인신박해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28일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공동위원장이 진실로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하자면 현 남북조절위원회를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충실히 꾸려야 한다는 성명발표

29일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중앙강연회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 제10차대회가 전투적단결의 분위기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을 축하하여 중국공산당 국방위원회에 전문을 보냄▶군사정전위원회 제416차비서장회의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서 감행한 미제의 범죄적행위를 강력히 항의규탄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는 황해북도, 함경북도, 량강도의 일부 행정구역을 고칠데 대한 정령공포

9 월

1일 1973년—74학년도 새 학기 시작, 22개의 시(구역), 군들에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3년 앞당겨 전면적으로 실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를 위한 전국사회과학토론회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 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 광업복무영예훈장을 제정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공포하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출판보도부문 연구토론회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 (17일까지, 8~10일휴회)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평양지하철도개통식이 성대히 진행

6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43차회의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모든 침략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것을 강력히 요구 ▶군사정전위원회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측 수석위원 조선인민군소장이 미제침략자들을 범죄적인 무력증강행위와 군사연습소동을 당장 중지하고 모든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갈것을 요구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편지를 보냄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중앙경축보고대회, 수령님께서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중앙경축보고대회에 참가한 외국손님들을 만나심▶평양해운사업소에서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맞이하여 려객선 《만경봉》호를 무어 대동강에 띄움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경축연회를 베푸심, 연회에서 수령님께서 연설하

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평안남도경축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수령님께서 당과 정부지도간부들 및 외국손님들과 함께 평남도학생청소년들이 출연한 집단체조 《은혜로운 해빛아래 꽃피는 평남도》를 보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로력적위훈을 세운 평안남도내 근로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냄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재일조선인축하단과 제11차, 제12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11일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재일조선인축하단 녀성대표들과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녀성들을 환영하는 중앙녀성집회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과 수리아아랍공화국 인민회의대표단 사이의 공동보도 발표(평양에서)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여하도록 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우간다공화국 정부군사대표단 성원들에게 수여

15일 우리 나라 13개 사회단체들에서 9월 11일 미제와 그와 결탁한 반동세력들이 칠레공화국 대통령 쌀바도르 알엔데를 살해하고 칠레의 합법적정부를 전복하는 파쑈적군사정변을 일으킨것과 관련하여 공동성명발표 ▶조선로동당대표단과 꼬스따 리까 인민전위당대표단사이의 회담(평양에서)

16일 외교부대변인은 전세계 인민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있는 때에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전쟁모의를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을 환영하는 함흥시군중 집회

17일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애급아랍공화국정부대표단사이 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이 돌아감

18일 애급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함흥시 10만명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연도에서 열렬히 환영▶외교부는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이 최근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더욱 빈번히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중동지역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있는것을 단호히 규탄하여 성명▶외교부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칠레의 반동적군사정권과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을데 대하여 성명▶우리 나라 정부와 이란제국정부사이에 무역협정 및 지불협정 체결(테헤란에서)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출판물보급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발표하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9월 11일 미제의 사촉밑에 칠레의 군사불한당들이 쌀바도르 알엔데대통령을 살해하고 그를 수반으로 하는 합법적인민통일정부를 전복하는 파쑈적군사정변을 일으킨 가슴아픈 소식에 접하여 칠레공산당 및 칠레사회당 중앙위원회에 편지

20일 애급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수령님께서 수여하도록 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애급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성원들에게 수여 ▶칠레인민과 녀성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중앙녀성집회

21일 애급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22일 우리 나라와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사이의 1973~1974년도 보건협조에 관한 집행계획서 조인(평양에서)

23일 학생절 열한돐기념 전국학생체육축전이 열림(30일까지)

2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 제16차대회앞으로 축전 보냄

26일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의정에 조선문제가 상정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 발표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중국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성원들에게 수여하심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네민주당 제10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여 축전을 보냄 ▶평양학생소년궁전 창립 열돐기념보고회

30일 신천—은률사이의 새 철길공사 완공, 개통식 현지에서 성대히 진행

10월

1일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을 조선문제토의시에 초청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우리 나라 정부와 알제리정부사이의 1974년도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 조인

3일 조선소년단 제2차열성자대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한 남조선당국자들이 자기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할 대신 미일반동들과의 결탁밑에 사건의 진상을 감추며 남조선인민들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음모에 매달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4일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집회에서 남조선동포형제자매들과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재일조선인과학자협회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4차인민체육대회가 열림

7일 학생절 열한돐기념 중앙보고회 ▶각 도소재지들에서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군중집회 ▶우리 나라 정부와 쏘련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과학기술협조상설분과위원회 제7차회의 의정서 조인(평양에서)

8일 우리 나라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남조선당계 민주인사 김대중에 대한 남조선파쑈악당의 탄압이 더욱 강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냄 ▶조선학생위원회는 민주주의와 평화적통일을 요구하여 구국투쟁에 일떠선 청년학생들에 대한 남조선파쑈도당의 야만적탄압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조선, 뽈스까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2차회의 의정서 조인(평양에서)

9일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여덟돐을 맞이하여 중앙강연회

10일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는 미제의 직접적조종밑에 반동적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수많은 진보적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칠레의 파쑈교형리들이 칠레공산당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동지를 체포구금하고 그를 군사재판에 넘겨 처형하려는 범죄적음모를 꾸미고 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주석이시며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지도하시고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화하자》에 대하여 연설하심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오래동안 아랍땅을 부당하게 강점하고 아랍인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해온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또다시 애급아랍공화국과 수리아아랍공화국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는것을 규탄하며 아랍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아랍사회주의동맹 중앙위원회, 아랍사회부흥당 민족지도부앞으로 편지를 보냄

▶조선로동당 대표단과 일본사회당 대표단 사이 회담(평양에서) ▶북반부의 언론인들이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새로운 도전에 부닥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언론인들에게 편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애급과 수리아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평양시군중집회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마다 10월 15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직공업절로 제정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공포하심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는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애급아랍공화국과 수리아아랍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해나선것을 규탄하며 애급과 수리아인민들의 정의의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 부인 마리엠 다다흐녀사를 맞이하시고 그를 환영하여 연회를 베푸심

15일 공화국북반부문화인들은 남조선파쑈통치배들이 민주인사 김대중을 불법랍치하여 감금하고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총칼로 탄압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문화인들에게 편지 ▶외교부대변인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일본사회당대표단 사이의 합의서 조인

16일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마흔일곱돐을 맞이하여 기념강연회 ▶일본사회당청년활동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청년학생집회

18일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대통령부인 마리엠 다다흐녀사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심▶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모리따니회교공화국대통령부인 마리엠 다다흐녀사에게 보내는 선물전달식, 수령님께서와 부인이 대통령부인을 바래우심 ▶재일조선상공인생산품전시회참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일본당국이 우리 나라 선원들을 부당하게 억류하고 온갖 박해와 탄압을 가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조중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4차회의, 11월 6일 의정서조인(평양에서)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대학생들의 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심▶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쟁참전 스물세돐과 중국인민지원군철거 열다섯돐을 맞이하여 평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묘에 화환을 보내심▶우리 나라 정부대표단과 감비아정부대표단사이 회담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또도르 쉽꼬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맞이하심, 수령님께서 대표단을 환영하여 연회를 베푸심, 24~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또도르 쉽꼬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사이 회담, 수령님께서 본대표단과 함께 혁명가극《꽃파는 처녀》를 보심, 26일 수령님의 참석밑에 벌가리아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함흥시군중대회, 28일 수령님의 참석밑에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성대히 진행, 군중대회에서 수령님께서 연설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도르 쉽꼬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차린 연회에 참석하시여 연설하심, 또도르 쉽꼬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대표단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과 메달을 수여,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의 최고훈장을 받으심, 수령님께서 본대표단과 함께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시고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심, 29일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대표단을 바래우심,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25일 군사정전위원회 제418차 비서장회의에서 미제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규탄

26일 외교부대변인은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새로운 군사적모험의길로 나가고 있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29일 감비아공화국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조선로동당대표단과 이딸리아공산당대표단사이 회담(평양에서)

30일 감비아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한 공동콤뮤니케 발표

11 월

1일 재일본조선인 교직원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로동자집회

2일 광주학생운동 마흔네돐기념 평양시청년학생보고회▶우리 나라 정부와 체스꼬슬로벤스꼬 정부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과 이 위원회 제1차회의의 의정서조인(쁘라하에서)

3일 사회안전부에서 일본선박《신류마루》가 우리 나라 령해깊이 불법침입한것을 규탄하여 보도발표

5일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쉰여섯돐 평양시기념회 ▶조쏘 두나라 과학원사이의 1974~1975년도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조인 (평양에서) ▶우리 나라와 벌가리아 사이의 1974년도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조인(평양에서) ▶이딸리아공산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발표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5호담당선전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5호담당선전원들의 경험교환회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학생소년궁전창립열돐에 즈음하여 궁전을 찾으시고 평양학생소년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심, 궁전일군들이 이룩한 성과를 치하하시고 과외교양에서 지침으로 될 중요한 교시를 주심 ▶제13차, 제 14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 제1차재일동포녀성조국방문단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 옴

9일 1973년도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력기경기대회 평양에서 13일까지 열림 ▶우리 나라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조인(베를린에서)

11일 남조선청년학생들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평양시청년학생집회, 집회에서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채택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메히꼬공산당 제16차대회에 축전보냄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에꽈도르공산당 제6차대회앞으로 축전보냄 ▶평양시남녀롱구 선수들과 중국남녀롱구선수단사이 친선경기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일본공산당 제12차대회에 축전 ▶제2차 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16일 조선로동당,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은 민족앞에 닥쳐온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통일혁명당에 민족회의를 열것을 제의하여 편지를 보냄 ▶외교부는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로운 전쟁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여 성명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부위원장이 서울측 부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냄 ▶군사정전위원회 제419

차 비서장회의에서 적들의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

17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서 희랍공산당창건 쉰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당에 축전을 보냄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대탄광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신 축하문 전달 모임 ▶우리 나라와 로므니아 정부사이의 경제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4차회의 의정서 조인 (평양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로므니아정부사이의 1974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조인(평양에서) ▶우리 나라 농업과학원과 벌가리아농업과학원사이의 1974~1975년도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계획서조인(평양에서) ▶조선국제려행사와 쏘련국제려행사 사이의 관광교류에 관한 의정서 조인(평양에서) ▶청진조선소에서 3,750톤급 선미트랄선—《천마산》호 진수식 성대히 진행

20일 우리 나라 정부와 자이르공화국 전국집행리사회 사이의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조인 (평양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자이르공화국 전국집행리사회 사이의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조인 ▶ 조선로동당 대표단과 독일사회통일당대표단 사이의 회담 (평양에서)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판문점련락대표부 책임련락대표와 남조선적십자사 판문점 련락사무소 책임자사이의 접촉 ▶독일사회통일당대표단을 환영하는 함경남도 함흥시근로자들의 군중집회

2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창건 쉰다섯돐에 즈음하여 이당 중앙위원회에 축전 ▶외교부에서 제28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가 끝난것과 관련하여 성명

24일 사리원제1사범대학 창립과 강계제2사범대학창립 스무돐, 사리원제2사범대학 창립 10돐기념보고회▶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발표

26일 제13차, 제14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 우리 나라 정부와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정부사이의 1974년도 상품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조인 (평양에서)

27일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부위원장이 서울측 부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련락원이 서울측 련락원에게 넘겨줌

28일 남북적십자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대표단 대표와 남조선적십자사대표단 대표가 접촉

29일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 두 나라 과학원사이의 1974~1975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인(부다페슈뜨에서)

12월

1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남조선에서 보도활동의 초보적인 자유마저 박탈당한 기자, 언론인들이 파쑈도당의 류례없는 폭압을 박차고 정의의 투쟁에 단호히 떨쳐나서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군사정전위원회 제346차회의에서 적들이 우리측 연해를 계속 침범하는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엄중히 경고 ▶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평양시 청년학생성토대회, 대회에서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채택▶ 우리 나라와 아르헨띠나사이에 통상협정체결(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5일 조선로동당대표단과 꾸바공산당대표단사이 회담(평양에서)

6일 제1차재일동포녀성조국방문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녀성집회 ▶우리 나라 정부와 꾸바혁명정부사이에 1974년도 통상의정서조인(아바나에서)

8일 전국채취공업부문 당선진선동일군들의 협의회,

7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과학원사이의 1974—1976년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조인(베를린에서)

9일 꾸바공산당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근로자들의 군중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및 외교대표 교환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쟈까르따에서)

10일 우리 나라와 인도공화국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보도▶우리 나라와 리베리아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설정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발표(평양에서)

12일 외교부대변인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도당이 웰남에 관한 빠리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공화국국적발표 열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감사드리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평양에 옴 ▶우리 나라와 웽그리아사이의 과학기술협조분과위원회 제2차회의 의정서 조인(평양에서)

13일 군사정전위원회 제420차 비서장회의에서 적들의 범죄행위를 규탄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뽈스까공산당창건 쉰다섯돐과 뽈스까통일로동당창건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이 당에 축전을 보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새날소년동맹창립 마흔돐기념강연회

17일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미제와 그의 부추김밑에 남조선호전분자들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파괴하며 7.4남북공동성명을 무시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한 범죄적행위를 벌려고있는것을 준렬히 규탄하여 성명

19일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들이 접촉

20일 외교부대변인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른바 《중동정책전환》에 대하여 떠들어 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 ▶직총중앙위원회에서 동해지구수산부문기업소들의 천리마작업반운동열성자회의

21일 우리 나라 과학원과 체스꼬슬로벤스꼬 과학원사이의 1974—1975년 과학협조에 관한 사업계획서 조인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마다 12월 27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로 제정하며 농업공로메달을 제정함에 대한 중앙위원회 정령을 공포하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공화국국적법발표 열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드리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박정희파쑈도당이 《간첩단사건》이라는 것을 꾸며내고 남조선지식인들과 인민들을 체포투옥하고있는것을 폭로규탄하여 성명 ▶군사정전위원회 제347차회의에서 미제의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강력히 항의규탄

25일 조선중앙통신사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매국도당이 《한일각료회의》를 벌리려는 위험한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규탄하여 성명 ▶조선학생위원회에서 박정희파쑈악당이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고문,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프가니스탄공화국사이의 대사급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보도발표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신 첫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프랑꼬파쑈도당이 로동자위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애국자들을 체포투옥하고 그들에게 장기구형을 들씌우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에스빠냐공산당중앙위원회에 편지 보냄 ▶중앙통신사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계속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폭압을 가한다면 그들은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책임질데 대하여 성명 ▶우리 나라가 남부웰남공화국에 무상으로 경제원조를 줄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남부웰남공화국 림시혁명정부사이의 협정조인(평양에서)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독일공산당창건 쉰다섯돐에 즈음하여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와 독일의 공산당 지도위원회에 축전을 보냄

30일 외교부대변인은 일본당국이 재일조선공민들과 총련조직에 대한 박해와 탄압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꾸바혁명승리 열다섯돐 평양시기념회▶중조우호협회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집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수행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각도(직할시)당대표회들이 성과적으로 진행 (로동신문)

3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평양시학생소년들의 즐거운 설맞이 모임

남조선 주요일지

(1973년 1—12월)

1 월

1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새해를 맞이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축하문과 《충성의 송가》를 올림 ▶《통일혁명당목소리》방송, 새해를 맞이하여 론설《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자》를 발표▶박정희역도 《유신과업》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인》은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떠벌임 ▶박정희군사악당, 거제도일대에서 상륙작전과 함포사격훈련을, 중동부전선일대에서는 괴뢰군 5개전투단과 공수부대, 유격부대 등 특수부대들을 내몰아 《동기대기동훈련》이란 새 전쟁 도발소동을 벌림

3일 애국적인민들이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치안경비전화선 360여메터를 끊어 수원—안성사이, 평택—경기도경찰국 사이에 전화통화를 못하게 하는 혼란을 줌

5일 일본을 오가던 화물선 제3백영호가 침몰되여 선원가족 40여명이 기업소에 몰려가 구조대책을 세우라고 투쟁을 벌림

7일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의 한 당조직산하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김일성주의원리》에 대한 연구모임을 가짐

11일 전라남도 려수시안의 음식점업자들이 일주일에 5일간은 《무미일》(쌀을 먹지 않는날)로 하라는 괴뢰당국의 시책에 반발하여 나섬

13일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전역 32개 도시의 주민들과 그리고 13개 항만 선박들을 총동원하여 《민방공훈련》을 벌리면서 전쟁분위기 조성에 날뜀

19일 박정희도당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사법관계5법 (형사소송법, 재판소조직법, 검찰청법, 재판관징계법, 변호사법)을 더욱 파쑈적으로 개악 (20일공포)

22일 전라북도 김제군내 한 마을 농민들이 《향토회》를 뭇고 성원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민족의 태양 김일성주석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3일 극악무도한 박정희역적놈이 괴뢰 《법무부년두순시》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더욱 파쑈적으로 개악할것을 지시

25일 박정희매국도당이 일본군국주의침략자들과 매국적인 《공업소유권협정》을 맺음

2 월

1일 괴뢰 해군부대들 동해와 남해일대에서 해상훈련(4일까지)과 함포사격훈련 (3월 2일까지)을 벌리면서 새 전쟁 도발준비에 날뜀

4일 박정희역도가 《비상국무회의》에서 파쑈독재를 강화할 목적밑에 《국회법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 ▶박정희매국역적놈이 나라의 자원을 일본군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떠넘겨주기 위한 매국배족적인 《대륙붕개발협정》을 체결

5일 남조선의 《한국기자협회》에서 《동아방송》기자를 잡아가둔데 반발하여 성명 발표

6일 박정희괴뢰도당이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개정법률안》,《산림법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9개의 악법을 날조해냄

7일 남조선강점 미8군 서해에서 《유도탄사격 훈련》을 감행(13일까지)

8일 《한진공사》(특수공예품제조회사)의 공예품납품계약자 200여명이 《공사》사무실을 점거하고 밀린 배당금 지불을 요구하여 농성투쟁

9일 박정희 괴뢰반역도당이 초보적인 언론의 자유마저 유린하기 위해 《비상국무회의》에서 《방송법》을 파쑈적으로 개악

13일 경상남도 동래군 기장면 죽성리에 있는 《시은합성》의 200여명의 로동자들이 밀린임금지불과 로임인상 등 6개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투쟁

16일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주민 10여명이 마을 부녀자를 희롱하는 괴뢰《전투경찰부대》놈들 8명과 맞서 투석전을 벌려 4명을 까눕힘 ▶전쟁연습에 돌아치던 미제전투기 《에프 4—디 팬톰》1대가 오산주변 상공에서 떨어져 미군 두놈이 즉사

19일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조일견직종업원들이 괴뢰《로동청》 근무감독관놈의 사무실에 몰려가 밀린로임 490여만원의 지불을 요구하여 투쟁

20일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이 미상원외교위원회가 발표한 남조선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에서 박정희도당의 통일지연책동과 독재정치를 강력히 비판하는 글들을 실은 일본신문들의 배포를 전면적으로 금지

21일 서울시 중구 대경해운소속 《하성호》선원들이 밀린로임 600여만원을 내줄것을 요구하여 바다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버티기투쟁을 벌림

22일 관광객으로 가장한 왜놈 나가오야 스즈구란놈이 고서적, 족자 등 58점의 문화재를 숨겨가지고 도망치려다 발각됨

25일 서울시 룡산구 모처에서 로동자들이 《민권옹호로동자회》를 결성

26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300여개 점포 상인들 점포임대료 인상에 항거하여 상점문을 일제히 닫음

27일 박정희역적놈이 이른바 《유신국회》선거놀음을 감행 ▶남조선의 야당인 《신민당》대변인 《유신국회》선거의 무효를 성명

28일 통일혁명당대변인 박정희역적놈들의 《유신국회의원》선거놀음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산하 《애국혁명동지회》에서 3.1인민봉기 54돐 기념모임을 가짐▶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에서 박정희역적놈들이 《유신국회》선거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대책을 토의, 선거의 반동성, 추악한 부정행위, 《10월유신》을 비롯한 박정희놈의 매국배족행위를 폭로하는 선전활동을 강화하며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벌릴것을 결정

29일 서울시 중구 대경해운소속 《장승》호 선원들이 밀린임금 720만원을 내줄것을 요구하여 부산외항에서 바다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버티기투쟁을 벌림

3 월

5일 괴뢰해군에서 전쟁연습을 위한 《해상사격 훈련》을 감행(31일까지)

6일 서울에서 남조선에 대한 일본독점의 침투를 모의하는 《제5차한일민간경제합동위원회》가 열림

7일 박정희매국역적놈들이 일본군국주의 상전놈들에게 나라의 지하자원을 송두리채 떠넘기기 위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맺음

8일 남조선강점미군놈들이 《유도탄사격훈련》을 감행 (5월 31일까지)

9일 괴뢰 《국군》 사병 두명이 괴뢰군살이를 반대하여 실탄 880발, 수류탄 4개 등 무기를 가지고 병영을 뛰쳐나옴

12일 박정희반역도당이 《비상국무회의》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억누르기 위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조작 발표

15일 박정희괴뢰도당이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전역 32개 도시와 항만들에서 《민방공훈련》이라는 전쟁도발소동을 일제히 벌림

20일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책동으로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밑에 206명의 남조선녀성들이 일본에 팔려감

23일 신민당출신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이 일본 도꾜에서 기자회견, 《박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독재정권인데 미국은 군사력으로써 일본은 돈으로써 그것을 도와주고있다》고 비난

24일 박정희역도가 괴뢰《대법원》판사 9명을 파면하고 모든 《재판소장》을 제놈의 심복들로 갈아채움 ▶박정희도당이 《학생의 날》(11월 3일)을 폐지

27일 박정희괴뢰악당이 일반《판사》 41명을 파면하고 382명을 심복들로 갈아채우거나 새로 임명함 ▶철도, 체신, 전매 등 남조선의 3개 기관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대우를 개선하라고 관계 당국에 들이댐

31일 괴뢰해군에서 북위 35°～36°, 동경 129°～130°사이에서《해상훈련》을 벌림 (4월 8일까지)

4 월

5일 괴뢰정부가 매국배족적이며 사대굴종으로 일관된 《행정백서》를 발표

11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가 채택한 결정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성명 발표

14일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그이께 삼가 축하 편지를 드림

1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리는 헌시 《만년축수의 노래》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통일혁명당 각 도, 시 위원회들과 남조선 각지의 혁명조직들에서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그이께 충성다할것을 맹세하여 축하편지를 드림

19일 통일혁명당 대변인 4.19인민봉기 13돐에 즈음하여 담화 발표, 박정희《정권》은 4.19정신의 교살자라고 락인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 대학들에서 4.19의거 13주년기념식을 가짐

22일 서울 남산야외음악당에서 애국적종교인들과 청년학생 인테리들이 반파쑈, 반독재, 반박 《정권》투쟁을 벌림

24일 페간당한 《한국경제일보사》 편집국 기자들이 전 사장과 리사진을 상대로 밀린로임의 청산을 요구하여 투쟁

25일 경상북도 대구시에 있는 지하혁명조직들이 박《정권》의 사대매국행위를 폭로규탄하는 삐라들을 시내 주택거리와 변두리지역들에 뿌림

27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급변하는 남조선정치정세에 대처하여 5월을 민중에 대한 《정치선전특별월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정치선전활동을 벌리기로 결정

28일 박정희괴뢰당국 각종 회의장안에서의 록음, 촬영, 중계방송 등을 금지하는 파쑈 조치를 취함

5 월

2일 국제의회동맹 제112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회원국으로 정식가입시킬것을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통일혁명당대변인 성명,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현시대의 발전법칙이라고 강조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에 있는 한도실업주식회사 로동자들이 밀린 로임의 지불을 요구하여 본사건물을 점거하고 버티기투쟁을 벌림

4일 경기도 리천군 부발면 신하리 건축공사장에서 로동자가 애매한 사람을 절도범으로 밀고한 현장감독을 처단

9일 조난당한 삼신해운소속 《신해동》호 선원가족들이 잃어진 선원의 수색 등을 요구하여 부산출장소에 몰려와 버팀 ▶ 괴뢰 《기획원장관》이란놈이 일본자본이라면 《공해산업》이라해도 환영한다고 줴침

10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에서 5.16 《군사정변》12돐과 관련하여 《박정희역도의 만고대죄에 관한 백서》를 발표 ▶박정희괴뢰도당이 전라북도내에서 발간되던 《전북일보》, 《전북매일》,《호남일보》 등 3개 신문을 페간시키고 《전북신문》이란 어용신문을 만들어냄

15일 광양만일대 물고기조개양식업자들 호남정유공장을 상대로 《공해》로 인한 5억 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박정희 파쑈악당이 일간신문 《대한일보》를 강제 페간

17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전체 남조선근로대중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싸워서 살길을 찾자》를 발표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세계보건기구 가입을 축하하여 통일혁명당대변인 성명 발표 ▶괴뢰국무총리 김종필이란놈이 《국회》본회의에서 이른바 《10월유신》이후의 《국정》전반을 보고, 1973년에 《한미공동방위체계확립》, 《한일협력관계강화》, 《유신질서의 토착화》를 위한 사대망국의 파쑈적 《사회정풍운동》을 벌릴것이라고 떠벌임 ▶박정희파쑈악당이 충청남도내에서 발간되던 《대전일보》, 《중도일보》 등을 강제로 통합시켜 어용적인 《충남일보》를 만들어냄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가 《학생의 날》을 《성인의 날》로 통합시킨것은 부당함으로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다시 정할것을 요구

20일 남조선기독교인들이 《지하운동선언문》을 발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온갖 형태의 국민적련대를 수립하자》고 호소

21일 19개 기독교단체들이 박《정권》의 《세금》탁발에 항거하여 《세무대책협의회》를 뭇고 괴뢰당국에 관계법규의 개정을 요구

25일 페간당한 《대한일보》사원 400여명, 《권익옹호대책위원회》를 내오고 퇴직금과 실업보상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철야롱성투쟁 벌림

26일 괴뢰북군상병 한명이 《기합》을 받은데 분개하여 장탄한 카빙총 1정과 탄띠 1개를 가지고 병영을 뛰쳐나와 《헌병》 두놈에게 총을 쏘아 중상을 입힌후 자취를 감춤

31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기관지 《혁명전선》 창간 (6월1일) 세돐을 기념하는 모임 진행

6 월

2일 통일혁명당대변인 박정희도당이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민족적대립과 반목을 고취하는 《반공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는 것을 규탄하여 성명

3일 경상남도 부산시 공흥산업소속 선원들이 심한 학대와 폭행을 하여온 선장놈을 마스트에 묶어놓고 집단적징벌을 줌 ▶전주시 《전북은행》종업원들이 민주주의적권리 옹호를 위하여 《금융로조 전북은행지부》를 결성

5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5월중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정치선전활동》

사업을 총화하고 금후 대책을 산하 당 조직들에 제시

6일 워싱톤에 있는 괴뢰 《홍보관》 관장이 박정희역도의 파쑈통치를 반대하여 미국당국에 정치적망명을 신청, 가족들과 함께 자취를 감춤

7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한 애국적주민이 보초근무중에 있는 미제야수놈의 권총을 빼앗아냄 ▶남조선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괴뢰군 병사 한명이 수류탄 4개와 카빙총에 탄알 200여발을 가지고 병영을 뛰쳐나옴

9일 경기도 인천시 《대림조선소》의 목공이 학대하는 감독놈을 처단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빵면집 소년 종업원이 구박과 학대하는 주인놈을 처단

14일 통일혁명당대변인 제3차남북조절위원회가 남조선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성과를 거두지 못한것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 ▶극악무도한 박정희살인악당들이 평화통일을 주장한 전 통일사회당 위원장 김철, 전 《국회의원》 김한수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에 대한 파쑈적인 재판놀음을 벌림 (15일 《반공법》위반이라는 죄명을 씌워 10년까지의 징역을 언도)

15일 남조선의 한 야당 당수가 남북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해 《범국민통일협의기구》를 새로 내올것을 주장

16일 박정희파쑈교형리들이 반파쑈애국투사이며 혁명가인 김춘배동지를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

19일 일본군국주의 대독점체들로 무어진 《대기업민간조사단》이 《합작투자가능성》여부를 타진한다는 구실밑에 서울에 기여듬

20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남조선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고하는 고발장 《전범자를 다시한번 고발한》을 발표하여 미제는 6.25전쟁의 도발자라는것을 폭로 규탄함

21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박정희역도들이 날조해낸 이른바 《학원침투간첩단사건》에 대한 첫삼인공판놀음을 벌림

22일 괴뢰《국무회의》에서 《로동조합》에 대한 제놈들의 《감독권한》을 강화한 《로동법》과 《로동쟁의조정법시행령개정령》을 조작 ▶강릉시 관동대학생300여명이 학생총회에서 선출한 학생 회장을 거부한 학장을 반대하여 무기한 등교하지 않기로 결정

23일 박정희역도놈이《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 남북분렬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로골적으로 드러냄 ▶서울대학교 출판부인쇄로동자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작업을 중단

24일 통일혁명당 대변인 성명 발표, 박정희역도의 《6.23특별성명》은 나라의 영구분렬을 획책한 또 하나의 매국배족적죄행이라고 규탄

2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월 23일에 하신 연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통일혁명당 전라남도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6.23 연설을 인민들속에 침투시키기 위한 선전활동 방침을 토의

26일 박정희괴뢰도당이 파쑈악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더욱 파쑈적으로 보강하고 《시행령개정안》을 꾸며냄 (7월 11일 공포)

29일 박정희역도들이 재일교포인 강호진, 양정석, 정송연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대학교수, 박사, 기자, 로동자, 기업체간부, 선주 등 10여명에게 《간첩단》이란 죄명을 씌워 《처형》하려고 책동

30일 박정희파쑈악당이 통일혁명당 충청남도위원회 산하에서 활동하던 김영건을 비롯한 7명의 혁명투사들을 잡아가두고 《간첩》이라는 죄명을 씌워 처형하려고 책동▶서울시 룡산구 원효로에 있는 통신기계공업주식회사 종업원들이 6개월간이나 밀려온 임금 7천여만원의 지불을 요구하여 회사사무실에서 앉아버티기 투쟁을 벌림 ▶ 남조선의 한 야당인 《통일사회당》을 박정희도당이 《개정정당법》에 걸어 강제해산시킴

7 월

1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유신체제》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모든 정치세력들을 총망라하는 반파쑈구국통일련합전선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할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국통일선언》을 발표 ▶미제침략군놈들이 제주도에 《아세아 방송국》을 차려놓고 숭미반공선전을 불어대기 시작

3일 괴뢰서울지방검찰청 교형리들이 《정부전복음모》라는 죄명을 씌워 기독교 장로회 목사 등 14명을 잡아가둠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이 《폭력교사》를 반대하여 수업을 거부하고 버티기투쟁을 벌림

4일 박정희매국역도 《한일실무자소위원회》에서 대륙붕공동개발이라는 명목밑에 대륙붕자원을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떠넘겨주는 매국문서 《공동개발 구역경계선측정조약》을 조작

7일 박정희도당에 의해 6월 30일 날자로 강제로 해산당한 《통일사회당》(가칭) 창립을 발기

8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수출전자주식회사》종업원이 5년동안이나 밀린 로임 150만원을 안주는 사장놈을 처단

9일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지도성원들 불굴의 혁명투사이며 저명한 문필활동가인 김종태동지 학살 4돐 추모회를 가짐

12일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외동저수지마을 농민들 저수지물을 먼곳으로 돌려빼는 《농지개량조합》농무계장놈에게 징벌을 안김

13일 《관광객》으로 가장하고 남조선에 기여들었던 야나기마쯔라는 왜놈이 고려청자기 등 110여점을 훔쳐가려다가 발각

18일 미국무장관 로저스를 비롯한 40여명의 미제고위 침략자놈들이 서울에 기여들어 박정희, 김종필 등 주구배들과 회담,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적극 부추김

19일 괴뢰륙군 일등병이 괴뢰군살이를 반대하여 보초근무중 카빙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병영을 뛰쳐나옴 ▶《관광객》이란 명목으로 남조선에 기여들었던 요시다라는 왜놈이 신라시대의 토기화로, 고려청자기 등 114종의 문화재를 훔쳐내여 《페리호》편으로 도망치려다 발각

23일 괴뢰《대검찰원》에서 파쑈적 《유신과업수행》에 《장애가 되는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 단속기간》개시(한달동안)▶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 투쟁에 질겁한 괴뢰문교부당국, 여름방학을 맞는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군사훈련》에 내몰음 (8월 13일까지)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5차 실행위원회에서 《국가내란예비음모》(괴뢰정부전복음모)라는 당치않은 죄로 잡혀간 《한국기독교장로회》소속 목사의 《구속내용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내오기로 결정

30일 통일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50차 확대회의 (7월 24일) 호소문을 열렬히 지지하여 성명 발표 ▶속초시내 수산물가공공장 미성년로동자들이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작업을 거부

8 월

3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1구 주민들 박정희괴뢰도당의 강제철거를 반대하여 시청에 몰려가 항의투쟁▶박정희악

당놈들이 괴뢰 《국무회의》에서 《반공법시행령》을 더한층 파쑈적으로 개악 ▶박정희역도놈들이 수해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하루저녁에 내린 비로 령남지방과 호남지방에 수해가 나 500여세대가 침수, 리재민 2천여명이 발생

4일 통일혁명당대변인 침략적인 미일공동성명 (8월 1일)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5일 지하조직인 《ㅅ대학교반독재민주수호학우회》가 서울의 모처에서 조직됨

6일 《대한의학협회》가 교수들의 학술연구발표를 괴뢰당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놈들의 《지시》에 항거하여 교수들의 활동은 대학당국과 학자적인 량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 ▶전라남도 곡성군 명산리에서 《예비군》이 부당한 작업을 강요하는 중대장놈에게 뭇매를 안김

8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깡패들이 도꾜에 머무르고있는 전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을 랍치한 범죄적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박정희역도의 《중앙정보부》깡패들이 일본 도꾜도 중심거리에 있는 《그랜드 팔레스호텔》에 뛰여들어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 ▶괴뢰당국이 석유13%, 종이 17.4%, 인견사 32.7% 값을 올림

9일 괴뢰 《국세청》하반년세금수탈목표를 2,706억 400만원(상반년수탈실적의 약 1.7배)으로 결정▶춘천시 소양로 《삼호식당》에 들어가 처먹을대로 처먹은 남조선강점 미군야수놈들이 음식값을 내라는 주인을 병으로 때리고 담배불로 지지는 등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

12일 새벽 4시 30분경 충청북도 영동역구내에서 전쟁물자를 실은 유조렬차 32차량중 24차량이 탈선하여 인명피해 53명, 가옥 25동을 불태우고 리재민 30여명과 농작물에 피해를 냄

16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박정희악당이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한것을 폭로규탄한 성명 발표▶파쑈악당놈들이 《민방공훈련》이란 도발적 전쟁연습소동을 벌림▶괴뢰 서울시당국놈들이 성북구 동소문동일대 살림집 41세대를 《무허가건물》이라는 딱지를 붙여 강제로 헐어치움

17일 박정희역도가 파쑈정권의 유지와 외세의존의 매국배족 《장기개발계획》(1973~1981)을 발표

18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일본본부결성 (8월 15일)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며 적극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여 성명 발표

19일 서울시 마포구 로구산동 제기상사세탁소 종업원이 밀린임금을 안주는데 격분하여 세탁소에 불을 지름

20일 통일혁명당 부산시 모지구 혁명조직성원들이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결성, 선언 및 강령 발표 4돐기념모임을 가지고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앞길에서 미제8군소속 승용차가 뻐스를 들이받아 승객 12명이 중경상

21일 경일려객회사 종업원 100여명이 밀린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 투쟁 ▶애국적인민들이 서울시 영등포구 오류동을 지나는 괴뢰경찰비상전화선 1천 200메터를 끊어 놈들에게 큰 혼란과 타격을 줌

23일 박정희괴뢰도당이 김대중랍치사건에 남조선괴뢰정부기관이 관련되여있다는 기사의 전문취소요구를 거부한 일본 《요미우리신붕》 서울지국을 강제 페쇄 ▶괴뢰 부산시당국 관리놈들이 《무허가건물》이란 구실밑에 판자집 229채를 마구 헐어치움

31일 《중앙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실습생 등 50명이 응급치료중에 있는 의사에게 괴뢰수사기관놈들이 집단폭행을 감행한데 대해 집단항의를 들이댐

9 월

1일 통일혁명당대변인이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공동위원장의 8월 28일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7일 전라남도 광주시 아세아자동차공장에서 해고당한 종업원들 76명이 해고처분을 걷어치우라고 앉아버티기 투쟁을 벌림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5돐을 맞이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축하편지를 드림

11일 광주시내 39개의 식당이 당국자놈들의 높은 유흥음식세부과에 반발하여 2개월간 휴업에 들어감

13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년례안보협의회》라는 침략적인 모의를 끝냄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 있는 《삼일식료품회사》종업원 1천여명이 임금인상, 근무시간 단축, 후생시설개선 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앉아 버티기 투쟁을 벌림

25일 광주지방 《법원》,《형사합의부》의 파쑈교형리들이 전남대학교 학생 15명에게 《불온삐라》를 뿌렸다는 《죄》를 씌워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걸어 징역 3년까지의 각종 《형》을 들씌움

26일 서울시 3천여개 상점이 박정희파쑈악당의 세금수탈에 항거하여 일제히 문을 닫음

28일 《한일협력위원회 제10차합동상임위원회》 열림, 일제상전과 졸개 박정희도당간에 매국배족적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결탁을 공모하고 29일 페막

10 월

1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파쑈교형리들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검은 10월단 사건》에 대한 첫 《공판》놀음을 벌림

2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생 300여명이 《4.19기념탑》앞에 모여 박《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랑독한후 시위에 들어감(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항쟁 개시) ▶서울 《ㅅ대학교반독재민주수호학우회》에서 결의문을 발표, 성스러운 민주항쟁에 전체 학생들은 총궐기하자고 호소

3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학생들이 반독재민주화투쟁의 봉화를 든것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서울민주수호학생회에서 전체 남조선언론인들에게 정의의 필봉을 들것을 호소하는 선언 발표

4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상과대학 학생들 각각 학교마당에 모여 박《정권》반대 투쟁에 궐기, 시위를 벌림

5일 통구대항경기를 끝내고 장충체육관을 나온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생들 5천여명이 반박《정권》시위로 넘어가 서울중심거리를 행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생들 학교마당에 모여 2일째 박《정권》반대 앉아버티기 투쟁, 동맹휴학에 들어가기로 결정 ▶전남반독재기독교청년회에서 박정희반역도당을 반대하는 《반독재선언문》을 발표

6일 축구시합을 끝낸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생 1만여명이 서울운동장을 나와 박정희파쑈정권을 반대하는 가두시위를 이틀째 벌림

7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생들 학교마당에 모여 박정희역도를 단죄하는 선언문을 랑독하고 시위를 벌림 ▶미제침략군놈 200여명이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에 몰려들어 수많은 건물들과 재물들을 닥치는대로 들부시고 략탈하며 500여명 주민들을 마을에서 내쫓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

8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과 법과

대학 학생들 박정희파쑈악당을 반대하여 각각 동맹휴학에 들어감

9일 연세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에 《민주학생에게 고함》이라는 격문이 뿌려짐, 격문에서는 《참담하게 위축되였던 10월이 다시 찾아 왔다》고하면서 박정희파쑈악당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호소 ▶ 서울 수도교통회사 뻐스차장들이 몸수색 등 인권 유린행위를 하지 말것 등을 요구하여 집단태업에 들어감

10일 서울 남성국민학교 어린이들 5천여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학우들의 위령제를 갖고 사고지점에 륙교를 세우라고 괴뢰서울시장놈에게 들이댐 ▶ 리화녀자대학교 강의실에 박정희 파쑈악당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는 《민주학생에게 고함》이라는 격문이 뿌려짐

11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면 죽곡리 농민들이 거짓 《불하》한 토지보상금을 내놓으라고 《청와대》와 건축당국자놈들에게 들이댐 ▶ 파쑈기구의 하나인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가 학생시위와 관련하여 97명의 학생들을 《처벌》하기로 결정

12일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에서 미제침략군놈 50여명이 민간 상점을 들이쳐 인명과 함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힘

15일 새 전쟁 도발 준비에 미쳐날뛰는 박정희군사집단이 남조선의 13개 항만을 포함한 35개 도시와 122개 읍, 면, 소재지들에서 수백만명의 주민들을 강제로 내몰아 《제22차민방공훈련》이란 전쟁도발소동을 벌림

17일 건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생들이 구속학생 석방, 학원의 자유보장을 요구하며 《중간고사》를 거부하여 투쟁

19일 서울 배성녀자상업전수학교 학생들이 월1천원씩 내고 받는 《보충수업》의 폐지 등 7개항목요구조건을 내걸고 27일까지 기한부동맹휴학에 들어감 ▶ 남산공업전수학교 야간부 학생들이 퇴학맞은 학생들을 다시학교에 나오게하라 등 6개항목요구 조건을 내걸고 버티기투쟁을 벌림

25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과 사범대학 학생들 반《정부》시위, 학생처벌에 항의하며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기한부동맹휴학에 들어감 ▶박정희매국도배들이 《재정차관》 구걸을 위한 《한국—서독경제회담》을 벌림(30일까지)

27일 명태잡이 선원들이 부산항만관리청놈들에게 물고기잡이수당 150만원을 내놓으라고 들이댐

29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 학생들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11월 3일까지 기한부 동맹휴학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0월 28일에 하신 연설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를 열렬히 지지환영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11 월

1일 경상남도 부산진구 룡호동주민 2천 500여명이 부산주공회사, 동국제강 가스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공해물질때문에 기관지염과 눈병에 걸려 고생하고있다고 괴뢰당국에 들이댐

4일 《대연각》화재로 숨진 종업원 가족들이 산업재해보상금지불을 요구하여 괴뢰정부와 《대연각》측을 걸어 소송

5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가 《우리 당은 통일의 장애물이며 민중의 원한이 사무친 박정희괴뢰정권을 혁명적방법으로 소탕하고 그 무덤우에 애국적인 각당, 각파 각계층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진보적민주련합정권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성명 발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생들 학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생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는 학칙개정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6일부터 무기한 동맹휴학에 들어가기로 결정 ▶문리과대학 학생들 긴급학생총회를 열고 구속학생석방 등을 요구하여 12일까지 또다시 기한부동맹휴학에 들어갈것을 결의 ▶대구의 경북대학교 학생들 성토대회를 열고 《반독재민주구국》이라는 선언문을 랑독한후 괴뢰 경북도청을 향해 가두시위를 벌림 ▶《민주수호협의회》에 망라된 언론인, 문화인, 종교인 등 각계 각층 민주인사들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

7일 구속학생의 즉시석방 등을 요구하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생들은 토론회를 가진 다음 대학구내에서 앉아버티기 투쟁 벌림 ▶상과대학생들은 무기한 동맹휴학에 들어감 ▶경상남도 금성려객주식회사 종업원들이 밀린임금과 퇴직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 투쟁을 벌림

8일 박《정권》반대하며 구속학생석방 등을 요구하여 서울대학교 교양학부 학생들이 총회를 열고 18일까지 기한부 동맹휴학을 결정, 가정대학 학생들은 토론회를 가지고 박《정권》을 반대하여 검은 댕기를 드리기로 결정 ▶《한국외국어대학》학생들은 15일까지 기한부 동맹휴학을 결정 ▶서울시 서대문구 《신천교통》의 녀차장들이 인권을 무시한 경영주놈의 몸수색을 반대하여 항의를 들이댐

9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학생들 교내에서 《편좌성토대회》를 가지고 언론자유보장, 구속학생 즉시 석방, 외환자본추방 등 5개항목 결의문을 채택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야생화》(《검은 10월단》)사건으로 잡혀간 학우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서명운동을 벌림, 즉석에서 3천명이 서명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과 한국신학대학 학생들 각각 기한부동맹휴학에 들어감, 기한부동맹휴학에 들어갔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생들 등교하자바람으로 구속학생 석방요구와 박《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는 《규탄집회》를 벌림, 앞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규탄집회》를 계속 벌리기로 결의

10일 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 투쟁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9일), 상과대학, 문리과대학, 사범대학, 치과대학, 가정대학, 농과대학, 교양과정부 당국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촉구하는 《공고문》을 내붙임

12일 리화녀자대학교 총학생회 학원의 자유와 구속학생석방 등 6개항목결의를 채택하고 결의가 관철될 때까지 《민주주의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검은 리봉을 달기로 결정 ▶학원의 민주화와 구속학생 석방을 요구하여 기한부동맹휴학에 들어갔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과 약학대학학생들이 또다시 기한부 동맹휴학에 들어감▶상전에게 나라의 수산자원을 송두리채 떠바치는 박정희매국도당과 미제간에 《한미어업협력실무자회의》를 벌림 (14일까지)

13일 《검은 10월단》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고려대학교 학생회 간부들 단식통성투쟁에 들어감, 감리교 신학대학학생회 1주일간 기한부동맹휴학을 결의, 리화녀자대학교 학생 4천명이 대학강당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적립헌정치》의 회복과 구속학생의 석방을 요구

14일 고려대학교 학생들 성토대회를 열고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대일굴욕외교의 중지, 언론자유보장, 구속학생석방, 학원사찰의 중지 등 5개항목의 요구조건을 내건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벌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생들과 법과대학생들은 단식투쟁에 들어감 ▶정경과대학과 상과대학 학생들 강의실에서 각각 통성투쟁을 벌림 ▶서울신학대학 학생들 1주일간 기한부동맹휴학에 들어감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모임에서는 학원탄압을 중지할데 대한 박정희군사악당의 성의있는 답변이 오는 17일까지 없을

때에는 8천여명의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갈것을 결의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비롯한 9명의 교수들이 박《정권》을 반대하는 무언의 항거로 머리를 깎아버림

15일 고려대학교 학생 2천여명이 비상학생 총회를 열고 학원의 자유보장, 구속학생의 즉시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후 시위로 넘어가 최루탄을 쏘며 달려드는 괴뢰기동경찰대놈들과 맞섬 ▶한국신학대학 학생들 90여명이 박《정권》을 반대하는 교수들의 투쟁에 합세하여 무언의 항거로 같이 머리를 깎아버림, 한편 40여명 학생들은 학교안의 례배당에서 무기한단식롱성투쟁 벌림 ▶인천시 부평동 주민들이 30배의 수도사용료를 받아내려는 시당국자놈들에게 항의를 들이댐

16일 연세대학교 학생 2천여명이 집회, 학원에 대한 간섭중지, 구속학생의 전면석방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학교마당에서 시위를 벌림 ▶숙명녀자대학교 학생 3천여명이 집회를 열고 박정희악당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규탄, 구속 학생들이 석방될 때까지 《상복투쟁》을 벌릴것을 결정 ▶박《정권》반대, 학원의 자유 보장, 구속학생석방을 요구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교 학생들이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의 《삭발투쟁》에 합세하여 머리채를 잘라버림 ▶상과대학 학생들은 교내시위를 벌리다가 학교밖으로 나와 괴뢰기동경찰대와 맞서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서강대학교 학생들 수업을 거부하고 롱성투쟁으로 들어감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학원의 자유》등 3개항목의 결의 채택 ▶대구시 경남공업전문학교 학생들 괴뢰 《경찰서》의 설치를 반대하여 투쟁 ▶서울시 성동구 《풍도실업》(세타보세가공공장)종업원들이 밀린로임 240여만원의 지불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투쟁에 들어감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판자촌 주민들 강제철거를 반대하여 버티기싸움을 벌림

17일 학원의 민주화와 구속학생석방을 요구하여 숙명녀자대학교 3천여명 학생들이 동맹휴학 ▶서강대학교 1천여명 학생들이 이틀째 롱성, 녀학생들은 《정의를 위하여 피흘린 벗들에게 조의를 표시》하여 검은 리봉을 달기로 결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연세대학교 법정대학, 치과대학과 의과대학 학생들은 기한부동맹휴학에 들어감

19일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과 구속학생석방을 요구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과 수도녀자사범대학 학생들이 각각 가두시위를 벌림▶《한국외국어대학》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간부들이 단식투쟁을 개시, 기타 학생들은 26일까지 기한부동맹휴학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구속학생석방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무기한 동맹휴학에 들어감▶남조선 강원도 춘천시 강원봉제주식회사 녀성종업원들이 경영주놈의 혹사를 반대하여 관계당국에 들이댐

20일 구속학생석방 등을 요구하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생들 학교안에서 시위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은 집회를 열고 시위로 넘어가 탄압에 미쳐 날뛰는 괴뢰경찰들과 맞섬 ▶박정희매국역도와 서독간에《재정원조에 관한 협정》을 맺음

21일 학원의 민주화와 구속학생석방을 요구하여 한국신학대학 학생들 모임을 가진후 학교문앞에서 앉아버티기 시위를 벌림▶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학생들 하기말시험을 전면거부하기로 결의

23일 인하공과대학 학생들 구속학생석방을 요구하여 학교에서 앉아버티기 시위를 벌림 ▶언론, 학계, 종교계 인사들로 조직된 《한국인권문제협의회》에서 인권에 관한 《토론회》 (24일까지)를 가지고 학원사찰중지와 구속학생석방, 《매춘관광》중지, 최저임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 확립, 언론의 자유보장 등 4개 항목의 《인권선언》을 채택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진로주조공업주식회사 림시 로동자 700여명이 집단해고를 반대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25일 《원유파동》으로 목이 읽힌 박정희매국도당은 서울시에서 택시의 8부제운행, 뻐스 20%감축운행, 식료품업체의 륜번제휴일제를 실시

26일 학원의 자유와 구속학생석방 등을 요구하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과 의과대학 학생들 각각 모임을 가지고 결의문 채택 ▶숭전대학교 학생들은 수업을 전면거부, 서울녀자대학과 성균관대학교의 법정대학, 서강대학, 경상대학 학생들은 하기말시험을 전면거부, 상경대학 학생들은 학교안에서 앉아버티기를 함 ▶《원유파동》으로 괴뢰《건설부》당국자놈들이 각종 승용차의 고속도로통행료를 20%올려 받음

27일 성균관대학교 학생들 모임을 갖고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 일본의 경제식민지화반대 등 5개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한후 가두시위를 전개, 탄압에 미쳐날뛰는 괴뢰기동경찰과 맞서 투석전을 벌림 ▶서강대학교 학생들 학원의 자유를 요구하여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학교운동장에서 시위, 100여명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감 ▶새문안교회 대학생회성원들이 구속학생석방, 교회사찰중지, 언론자유보장 등을 요구하여 교회정문앞에서 련좌기도회를 가진후 홰불시위를 벌림 ▶한국기독교회협의회는 《인권선언문》을 발표

28일 리화녀자대학교 학생 4천여명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민주주의체제의 확립, 《일한정기각료회의》의 취소를 요구하여 교문밖으로 나와 련좌롱성시위를 벌린 다음 학교로 돌아가 《철야기도회》를 가짐, 학생회 간부들은 12월 2일까지 기한부단식롱성투쟁에 들어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한국신학대학 학생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을 요구하여 무기한단식롱성투쟁에 들어감▶건국대학교 학생들과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학생들이 각각 시위와 련좌시위를 벌림▶동국대학교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보장하라고 성토대회를 가짐, 남조선의 6개 기독교단체의 지도성원 200여명이 모임을 갖고 모든 종교인들에게 의로운 구국투쟁에 합류해 나설것을 호소, 서울시 동대문종합시장의 《새마을소비조합》 관리인들이 전조합장놈이 받아먹은 보증금 3천 92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철야롱성투쟁에 들어감

29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구속학생석방을 요구하여 각각 성토대회를 가진후 시위, 최루탄을 쏴대면서 탄압에 날뛰는 괴뢰기동경찰놈들을 맞받아 투석전을 벌림, 계속하여 고려대학교 학생 400여명이 강당에 모여 단식투쟁에 들어감 ▶감리교신학대학 학생들이 신앙의 자유와 학원사찰의 중지를 요구하여 가두시위를 벌림▶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학생들 구속학생석방, 언론탄압의 중지 등을 요구하여 각각 성토대회와 비상총학생회의를 가진후 시위에 들어가 탄압에 나선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싸움을 벌림 ▶숙명녀자대학교 학생 800여명이 학원의 자유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무기한단식투쟁에 들어감, 한편 구속학생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침 ▶서강대학교 학생 비상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00시간 단식롱성투쟁을 결의 ▶ 《수도녀자사범대학》학생들 구속학생석방과 언론의 자유 등을 요구하여 하기말시험을 거부 ▶《한국기자협회》 언론에 대한 박정희파쑈악당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배격하는 결의문을 발표

30일 학원의 자유와 구속학생석방을 요구하여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서강

대학교와 홍익대학 학생들이 시위, 란암에 미쳐날뛰는 피뢰경찰놈들과 맞서 투석전을 벌림 ▶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질겁한 박정희파쑈악당들은 고려, 연세, 숙명녀자 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시안의 대부분 대학교들에 방학을 《공고》하고 등교학생들의 출입을 금함 ▶《중앙일보》와 그 산하 《동양라지오방송》기자, 편집원들이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여 파업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기자들이 각각 집회를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주장

12 월

1일 부산대학교 학생들 2천여명이 구속학생석방, 학원의 자유 보장, 언론의 자유보장 등을 요구하여 학교안에서 버티기투쟁과 가두시위를 벌림▶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구속학생석방을 웨치면서 시위, 최루탄을 쏴대는 피뢰경찰놈들을 맞받아 투석전을 벌림▶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상명녀자사범대학, 동덕고등녀학교 학생들이 롱성투쟁 ▶평남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마당에서 시위 ▶서울시 마포구 《경심운수》소속 운전수들이 회사측이 하루 《입금액》을 1천원으로 올린것을 반대하여 버티기투쟁을 벌림

2일 《대한감리교약수형제교회》의 신도들이 《교회사찰을 중지하라》는 휘장을 두르고 가두시위를 벌림

3일 학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며《부정부패 물러가라》,《학원사찰 중지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리화녀자대학교 1천여명 학생들이 교문밖에 모여 시위, 오후 1시 또다시 서울시청앞에 모여 가두시위를 벌림▶전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 학생들 가두시위, 피뢰 경찰놈들과 맞서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상과대학 학생들과 《국립항공대학》, 명지대학, 카톨릭의과대학, 국제대학야간부 학생들이 각각 단식롱성을 비롯한 각종 투쟁과 성토대회를 벌림 ▶《동아일보》 기자들이 집회를 열고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 ▶남조선 교회녀성련합회와 광주기독교련합회가 각각 구속학생의 석방 등을 요구하여 성명 발표 ▶춘천제사공장경영주놈이 《산업안전》이란 구실을 붙여 녀성종업원들의 머리채를 자르게 함 ▶박정희파쑈악당놈들이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계속되는 투쟁을 무마시켜보려고 기만적인 《내각개편》을 함

4일 효성녀자대학 (경북 대구), 평남신학대학 학생들이 구속학생석방과 학원의 정상화를 요구하여 각각 가두시위를 벌림▶《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가 구속학생석방을 요구하여 피뢰도당에 진정서를 들이댐

5일 전라남도 광주제1고등학교 학생들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자》고 웨치면서 가두시위를 벌림 ▶대구시내 가정부인들이 피뢰당국에서 련탄의 열량을 낮춘데 대해 항의를 들이댐 ▶남조선 군사파쑈악당들이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란것을 조작해놓고는 《상업》등 4개의 월간정기간행물을 강제 폐간시킴

6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음악대학 학생들이 학원의 자유와 구속학생석방을 요구하여 학기말시험을 거부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의 10개 부락주민들이 《황룡광산》에서 나오는 폐수로 물고기가 전멸되여가고있다고 피뢰당국에 항의를 들이댐

8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회 대의원들 《구속학생석방환영대회》를 갖고 《새로운 학생운동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선언, 《유신헌법》의 폐지, 국민의 기본권보장, 대일경제예속의 중지, 국민생활권보장 등을 강경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 ▶신일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기방학》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림 ▶부산지구 일대에 《중앙정보부를 즉각 해체하라!》, 《유신체제 뒤엎고 민주체제수립하자!》 등의 수많은 삐라들이 살포됨

1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상과대학 학생들이 각각 모임을 가지고 학원자유의 제도적보장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민주체제의 확립과 학원 및 언론의 자유보장을 요구하여 성명 발표

1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 《현행학칙을 전면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48시간 단식롱성투쟁에 들어감 ▶《한국도시산업선교회》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부당로동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성명 ▶《한국기독교회장로회》에서 목사들의 련이은 구속과 관련하여 《선교활동자유수호위원회》를 조직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가정부인들이 련탄대책을 세우라고 시위를 벌림

12일 서울시 성북구 《동방교통》소속 택시운전수들이 회사측에서 하루 《입금액》을 1천원으로 올린데 반발하여 버티기투쟁을 벌림

13일 서울시 성북구 해운교통회사 뻐스안내원들이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을 벌림▶《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서 시국 간담회를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3권분립체제를 재확립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16일 서울시안의 천주교도 400여명이 《대일예속 관계를 철폐하라》,《민주체제를 확립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내 중심거리에서 시위 ▶서울시안의 기독교 각 교파목사들이 단식기도회를 갖고 민주체제의 확립, 한일정기각료회담의 중지와 일제의 예속청산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 발표(17일) ▶기독교도들이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교회와 인권문제련합례배》를 갖고 권력과 금력 위주의 구조를 청산하고 민주체제를 수립할것을 주장 ▶전라남도 광주에서 청년들이 자기들을 《단속》하려고 달려드는 피뢰경찰놈에게 집단적인 징벌을 안김

17일 한국기독학생총련맹과 카톨릭학생련합회 공동으로 폭압정치를 중지하고 민주체제를 수립할것, 대일경제예속성을 청산하고 한일정기각료회담을 걷어치울것 등을 요구하는 피뢰 및 일본정부에 보내는 《진정서》와 학원에 보내는 《메쎄지》를 채택

18일 서울시안의 20개 교회청년들이 《교회청년련합회》를 결성, 《유신헌법》의 폐기, 대일경제예속정책과 한일정기각료회담의 즉시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후 가두시위를 벌림▶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있는 《향린교회》소속청년신도들이 《유신헌법》철폐 등 6개항목 결의를 채택하고 가두시위 ▶민주통일당대회대표들이 《박정권을 몰아내자》,《우리는 유신독재하에서 살수없다》고 웨치면서 가두시위

19일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이 김포공항입구에서 《매춘관광을 반대한다》는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삐라살포사건》에 관련되여 사형선고를 받은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

20일 남조선 외국기관에 고용되여 일하는 2만여명의 로동자들 임금을 30% 올릴것 등 요구관철을 위한 파업실시를 묻는 투표에서 95%이상이 찬성

22일 서울대학교 기독교학생회 회원들이 일본《대사관》현관복도에서 한일정기각료회담의 취소와 매춘관광의 금지 등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을 벌림

24일 남조선 언론계, 학계, 문화계, 종교계 인사들이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조직, 《유신헌법》개정을 요구하는 100만명서명운동을 벌림

26일 서울에서 시민, 학생 800여명 참가밑에 《한국문학의 밤》진행,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주장 ▶서울시 성동구 광진섬유공업주식회사 편직공들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작업을 거부

29일 《광신교통》소속 뻐스녀차장들 경영주측의 몸수색과 혹사에 항거하여 합숙을 빠져나와 남산중앙방송국앞에서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재일조선공민주요일지

(1973년 1~12월)

1 월

1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60만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께 새해를 맞이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이 삼가 축전을 드림 ▶한덕수의장이 재일동포들에게 새해 축하인사를 보냄, 여러 나라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냄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와 《신년사》그리고 수령님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보내신 새해축전에 대한 총련의 각 본부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의 학습모임이 일제히 진행

6일 평양고등경공업학교 축구대표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 중앙대회 도꾜에서 열림,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0일 1973년도 총련의 할일을 더 잘하기 위한 간또지방열성자대회 도꾜에서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1일 정준택동지의 서거에 제하여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조전을 보냄 ▶1973년도 총련의 할일을 더 잘하기 위한 각 지방본부열성자대회들이 있었음

12일 1973년도 애국과업을 더 잘하기 위한 깅끼지방동포상공인들의 모임 오사까에서 있었음,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마흔일곱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 도꾜에서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편지를 드림 ▶총련과 《민단》의 공동주최로 남북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교또부본부 관하의 마이즈루시 신단지역내의 동포상공인들의 새해공동모임 있었음, 도까이지방동포 과학자, 문화인들의 모임도 나고야에서 있었음

15일 총련에서 조선사람 찾는 운동을 벌려 학생대렬을 늘이기 위한 《50일간 통일행동》을 벌리기 시작(3월 5일까지)

16일 총련의 할일을 앞장서 잘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청년동맹 간또지방열성자대회 있었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를 채택 ▶재일본조은 에히메신용조합창립총회가 마쯔야마시에서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7일 한덕수의장이 나고야에서 기자회견, 일본정부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방해되는 모든 행위를 그만둘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담화 발표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인도에서 열리는 아세아직맹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도꾜를 출발(2월 5일 일본에 도착) ▶총련과 《민단》의 공동주최로 남북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도꾜도내의 다이또지역동포 상공인들의 새해공동모임 있었음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한덕수의장에게 보내신 새해축전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도꾜도본부활동가회의 있었음

2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신 새해축전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총련출판보도일군들의 모임이 도꾜에서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2일 평양고등경공업학교축구대표단을 환영하는 도꾜조선학생들의 모임이 있었음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새해축전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각 현본부와 지부전임일군들의 모임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편지를 드림

25일 총련과 《민단》의 공동주최로 남북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도꾜도내 동포들의 새해모임이 있었음

28일 평양고등경공업학교 축구선수단과 재일조선고급학교 선발축구선수단사이에 친선경기 있었음

30일 평양고등경공업학교 축구대표단을 환송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 월

2일 한덕수의장이 웰남전역에서 정화가 실현된것과 관련하여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냄

8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열림 ▶총련에히메현본부관하에 조은에히메 신용조합이 신설

10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마흔여덟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드림, 한덕수의장이 담화 발표

11일 수령님께서 마흔여덟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 도꾜에서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재일본조은 히로시마신용조합본점의 새건물준공축하모임 있었음,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12일 총련의 애국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쥬시고꾸, 큐슈지방동포상공인들의 모임이 있었음 ▶인민군창건스물다섯돐기념 재일본조선인 속도빙상경기 제6차대회 있었음

13일 한덕수의장이 3.1인민봉기쉰네돐을 공동으로 기념할데 대한 제의서를 《민단》에 보냄

15일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회의 도꾜에서 열림(17일 끝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1일 총련 시마네현본부와 일조우호촉진 시마네현 의회의원련맹의 공동주최로 시마네현조일우호촉진간담회가 마쯔에시에 있는 현의원회관에서 있었음

22일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다섯돐기념 재일본조선인스키경기 제6차대회 후꾸시마현 이나와시로스 경기장에서 있었음

24일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총련의 각 단일단체, 사업체들의 회의가 있었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들을 채택

3 월

1일 총련과 《민단》의 공동주최로 3.1운동 쉰네돐을 기념하며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합작의 실현을 위한 도꾜지방동포들의 대회가 있었음 ▶한덕수의장이 《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이 조인된것과 관련하여 라오스애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냄

2일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총련 각 지방본부 집행위원회들이 일제히 열림,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들을 채택

6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사로청창립스물일곱돐에 즈음하여 재일조청조직들과 조청원들에게 수여하여주신《김일성청년영예상》을 전달하는 모임 도꾜에서 있었음,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11일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창립 스물다섯돐기념 새교사준공축하모임이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16일 한덕수의장이 일본정부가 파쑈적인《출입국관리법안》을 국회에 또다시 상정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악법조작책동을 규탄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발표 ▶남북적십자회담에 참가할 우리측 자문위원과 재일본조선인기자단이 도꾜를 떠남(6월 6일 일본에 도착), 제8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도 함께 떠남(5월 18일 일본에 도착)

21일 167차로 조국에 돌아오는 재일동포들을 태울 귀국선《만경봉》호가 니이가다항에 도착

23일 한덕수의장이 캄보쟈국가원수인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에게 캄보쟈민족통일전선결성과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창건 세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냄 ▶167차 귀국선《만경봉》호 니이가다항을 떠남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과 조청조직생활에 모범을 보인 조선대학교 학생들에게 수여하여 주신《김일성청년영예상》을 전달하는 모임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한덕수의장이 일본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재일조선공민출신대의원들의 재입국허가를 하지 않는것을 규탄하여 담화를 발표 ▶조선대학교 제15회 졸업식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30일 평양만수대예술단 조사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있었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4 월

2일 파쑈적악법《출입국법안》을 반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있었음,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3일 총련중앙에서 재일동포들은 사상과 정견, 단체소속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으로 굳게 단결하여 악명높은《출입국법안》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것을《민단》에 제의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한돐기념 강연회 있었음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마흔아홉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수령님께 감사전문을 드림, 한덕수의장이 담화 발표

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한덕수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를 지지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발표

10일 조선대학교에서 1973～1974학년도 입학식이 있었음

1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한 결정을 지지하는 재일조선인중앙대회 있었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13일 기록영화《총련시보》100호제작기념모임 도꾜에서 있었음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축하전문을 드림 ▶수령님탄생 예순한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8일 4.19인민봉기 열세돐기념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도꾜에서 있었음,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예순한돐기념 재일조선인 축구대회 있었음

22일 60만 재일동포들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는 재일본조선회관 건립 열돐을 기념하는 축하연회가 있었음

24일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업비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조일수출입상사일군들의 모임이 있었음,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도꾜도지사를 초대하여 만찬회를 차림

29일 총련 와까야마조선초중급학교 새 교사준공축하모임이 있었음,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5 월

5일 재일본조선인통신교육협회창립열돐기념 모임 도꾜에서 있었음, 위대한 수령님께 편지를 드림

8일 파쑈적악법《출입국법안》을 반대하는 재일본조선인 중앙대회 있었음,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0일 제9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성원들이 요꼬하마항을 출발(7월 6일 일본에 도착)

12일 총련중앙 한덕수의장이 일본을 방문한 중일우호협회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차림

13일 조국의 기자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있었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5일 지꾸호조선초중급학교 새교사준공축하모임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8일 한덕수의장이 우리 나라의 세계보건기구가입과 관련하여 담화 발표 ▶총련결성열여덟돐기념 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이 도꾜를 떠남(7월 6일 일본에 도착)

23일 총련결성열여덟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있었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9일 한덕수의장이 남북공동성명 발표 한돐기념모임을 공동으로 가질것을《민단》에 제의

31일 시대사창립열돐기념 재일본조선출판보도일군들의 모임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6 월

1일 총련에서 공화국창건스물다섯돐기념《100일간운동》을 벌릴것을 결정

7일 파쑈적악법《출입국법안》을 반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있었음,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2일 《공화국창건스물다섯돐기념 100일간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총련 도꾜도본부열성자궐기모임 있었음 ▶남북적십자회담에 참가하였던 자문위원과 재일본조선인기자단의 보고모임 진행,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13일 168차로 귀국할 동포들을 태울 귀국선《만경봉》호 니이가다항에 도착

14일 한덕수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당국은 조선학생들에 대한 야만적인 폭행만행을 당장 중지하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할데 대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발표

15일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대표단이 부꾸레슈띠에서 열리는 국제교원직맹 제10차정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도꾜를 출발(7월 13일 일본에 돌아옴) ▶168차귀국선《만경봉》호 니이가다항을 떠남 ▶《민단》산하 6개단체대표들이 김종필의 대일예속외교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민단》산하 6개단체가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일본폭력학

생들의 집단적인 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9일 한덕수의장이 우리 나라의 세계보건기구가입과 관련하여 외교대표들을 위한 연회를 차림

2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력사적인 6월 23일연설《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쿄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7일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5차회의가 도쿄에서 열림(29일 끝남),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7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쿄에서 열림,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3일 7.4남북공동성명발표한돐에 즈음하여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하며 7.4공동성명의 성실한 리행을 강력히 요구하여 조청과 《한청》이 공동성명 발표

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여 수령님께 《민단》산하《민주주의민족통일위원회》로부터 전문 ▶ 총련과 《민단》의 공동주최로 7.4남북공동성명발표 한돐을 기념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도쿄지방동포들의 대회 있었음, 가나가와현 동포들의 대회도 있었음

5일 한덕수의장이 일본주재 중국대사를 의례방문 ▶남북적십자회담에 참가하는 우리측 자문위원과 재일본조선인기자단이 조국을 향하여 도쿄를 떠남(7월 19일 도쿄 도착), 재일조선인상사대표단도 함께 출발

8일 조선교육문화일군 직맹대표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있었음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5차회의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총련 각 현본부들의 집행위원회가 일제히 열림 ▶남북공동성명발표 한돐을 기념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오사까조청과 《한청》의 공동모임 있었음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6월 23일 연설에 대한 대중강연회가 총련의 강연구들에서 일제히 있었음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5차회의의 결정집행을 위한 산하 단체들의 회의 열림

12일 파쑈적악법《출입국법안》을 반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15일 제10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일본을 떠남(9월 27일 일본에 도착)

17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재일조선녀성중앙대회 도쿄에서 있었음, 그이께 드리는 편지 채택

19일 총련결성열여덟돐기념 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의 보고모임 있었음,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1일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도쿄를 떠남(8월 17일 일본에 도착)

2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쉰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한덕수의장이 담화 발표

25일 한덕수의장이 꾸바인민의 무장봉기 스무돐에 즈음하여 꾸바공화국 혁명정부 피델 까스뜨로 루쓰 총리에게 축전을 보냄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10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단성원들에게 보내신 축하문이 베를린에서 축하단성원들에게 전달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대민족회의소집의 실현을 위하여 남조선의 각계각층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 해외교포단체들과 해외교포들에게 보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27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쉰번에 걸쳐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스무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쿄에서 있었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31일 수령님께서 쉰번에 걸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과 조선대학교음악체육소조조국방문단이 도쿄를 떠남(9월 5일 도착) ▶평양만수대예술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를 도쿄에서 가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조선출판회관준공모임 있었음,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8월

9일 한덕수의장이 기자회견, 남조선의 야당계 민주인사 김대중이 도쿄에서 박정희군사깡패들에 의해 랍치당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견결히 규탄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발표

13일 8.15조국해방스물여덟돐을 기념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있었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4일 조선대학교통신학부 제9회 졸업식이 있었음

17일 어버이수령님께서 1972년 8월 18일 조국방문 도쿄조선중고급학교축구소조와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성원들에게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아갈 강령적교시를 주신 한돐기념 총련 일군들의 모임 있었음,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재일본조선 청년학생대표단성원들에게 주신 축하문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오사까에서 진행,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2일 《두개 조선》을 획책하며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감금한 박정희파쑈도당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있었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5일 《두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리기로 총련에서 결정

28일 벌가리아에서 열리는 세계과학자련맹 제10차총회에 참가할 재일본조선인과학자대표단이 떠남(10월 27일 도착)

29일 한덕수의장이 기자회견,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공동위원장이 8월 28일 발표한 성명을 지지찬동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발표

30일 제12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쿄를 떠남(10월 27일 일본에 도착)

31일 공화국창건스물다섯돐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 도쿄를 떠남(9월 19일 도착), 제11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도쿄를 떠남(11월 15일 일본에 도착)

9 월

1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쉰한번째로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그이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드림, 한덕수의장이 담화 발표

3일 한덕수의장이 제4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앞으로 전문을 보냄

8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공화국창건스물다섯돐을 맞

이하여 총련에서 축하문을 드림

9일 공화국창건스물다섯돐기념재일본조선인중앙경축대회가 도꾜에서 열림,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10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과 조선대학교음악체육소조대표단을 만나시고 재일청소년학생들속에서 주체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청열성자대회가 도꾜에서 진행,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11일 공화국창건스물다섯돐기념 재일조선사회과학자토론회 도꾜에서 있었음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과 예술인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도꾜에서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를 채택

15일 평양만수대예술단을 환송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있었음

17일 평양만수대예술단을 환송하는 모임이 도꾜조선문화회관앞과 니이가다중앙부두에서 있었음

21일 국제기자동맹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재일조선언론출판인대표들이 도꾜를 출발(10월 19일 일본에 도착)

22일 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을 축하하는 재일조선과학자 학술보고회 도꾜에서 있었음,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총련의 각급 학교들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도꾜에서 있었음, 공화국창건스물다섯돐 재일조선인축하단과 재일본조선교육일군 조국방문단 보고모임 있었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각각 채택 ▶일본방문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과 항결핵협회 대표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30일 오사까조선고급학교새교사와 오사까조선문화회관 준공축하모임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0 월

2일 조선대학교 조청원들이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성토모임을 가짐

3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와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중앙상임위원회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

4일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적투쟁을 열렬히 지지성원하며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파쑈적폭압을 견결히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진행,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5일 총련분회열성자제12차대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6일 조선대외과학기술교류협회 대표단을 환영하는 재일동포들의 모임이 도꾜에서 진행 ▶평양에서 진행되는 재일조선상공인 생산품전시회참가대표단이 도꾜를 떠남(11월 15일 일본에 도착)

9일 한덕수의장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유엔동시가입안을 견결히 반대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이스라엘침략자들이 미제의 사촉밑에 애급과 수리아에 대한 전면적무력침공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애급과 수리아대통령에게 각각 전문을 보냄

10일 조선로동당창건스물여덟돐기념 간부강연회 있었음

11일 공화국창건스물다섯돐기념 재일조선인중앙예술축전과 제4차재일조선인학생미술전람회 도꾜에서 열림 ▶조선통신사창립 스물다섯돐기념모임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7일 169차귀국선 《만경봉》호 니이가다항에 도착

19일 공화국창건스물다섯돐기념 재일본조선어머니 배구대회 있었음 ▶169차귀국선《만경봉》호 니이가다항을 떠남

20일 재일동포상공인 제2차조국방문단이 도꾜를 떠남(12월 8일 일본에 도착)

23일 한덕수의장이 유엔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되는것과 관련하여 유엔의 각국 대표부들에 전문을 보냄

24일 한덕수의장이 유엔28차총회의 의제로 조선문제가 상정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조선의 분렬을 고정화하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지할데 대한 내용의 담화 발표

27일 깅끼지방조선중고급학교와 도꾜조선중고급학교학생들의 제1차예술공연교환모임 오사까에서 있었음

29일 한덕수의장이 기자회견 가지고 남조선의 애국적인사들을 즉시 석방하며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성명 발표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10월 28일에 하신 력사적연설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를 지지환영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11 월

1일 총련에서 조선사람찾기운동을 힘차게 벌리며 조선학생대렬을 늘이기 위한 월간사업을 벌리기로 함

2일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정부당국이 김대중랍치사건을 정치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음흉한 기만적모략책동을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폭로규탄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발표

3일 유엔총회제28차회의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되는것과 관련하여 이 회의에 재일조선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재일조선인대표단단장이 일본정부당국이 대표단의 일본재입국허가를 거부한것과 관련하여 담화 발표 ▶광주학생운동마흔네돐을 기념하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반대규탄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 있었음 ▶제13차, 제14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과 제1차재일동포녀성조국방문단이 니이가다를 떠남(1974년 1월 14일 일본에 도착)

6일 5일 남조선의 언론, 문화, 종교 등 각계인사들이 회합을 가지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자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전체 남조선인민들이 궐기할것을 호소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인사들의 의로운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성명 발표

11일 박정희도당의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15일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6차회의가 열림(16일 끝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17일 조선로동당, 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이 남조선정당들에 대민족회의를 열데 대하여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19일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조선유엔동시가입책동을 반대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있었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3일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6차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총련의 각 단일단체회의 진행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창립스무돐기념 모임이 도꾜에서 있었음

26일 재일조선상공인생산품전시회참가 대표단의 보고모임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7일 한덕수의장이 자이르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이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냄 ▶한덕수의장이 알바니아인민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알바니아 내각총리에게 축전을 보냄

28일 한덕수의장이 유고슬라비아 인민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이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냄 ▶총련중앙위원회 제9기 제6차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총련산하 각 본부 집행위원회들이 진행됨

12 월

1일 재일조선인미술전람회 도꾜에서 열림

2일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있었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5일 박정희악당의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들의 대회가 열림

6일 남조선언론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대회를 가짐,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8일 공화국국적법발표열돐에 즈음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도꾜를 떠남(1974년 2월 15일 일본에 도착)

14일 재일본조선학생 제18차 학과별 연구토론회 도꾜에서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과학자대표단에게 주신 교시 한돐기념모임이 도꾜에서 있었음

20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이 일본주재 중국대사를 만남 ▶한덕수의장이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창건 열세돐에 즈음하여 남부웰남 민족해방전선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원우수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냄

22일 《한일각료회의》를 강행하려는 일본정부와 박정희매국역적의 범죄적 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발표 한돐기념 총련일군 강연회 있었음 ▶어버이수령님께서 쉰두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재일조선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이 도꾜에서 있었음, 그이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발표 한돐을 기념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8일 한덕수의장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쉰두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담화 발표

(696페지 국제주요일지계속)

지지하는 편지 채택, 세계민청뷰로가 성명 발표 ▶볼리비아의 20개 정치 및 로조단체들과 기타 대중단체들이 비법적으로 체포된 애국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성명

14일 벨지끄공산당 제21차대회 진행(16일까지)

15일 칠레인민통일련합에 들어있는 정당들과 칠레종합대학 련맹지도부가 파쑈독재정권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칠레인민의 결의를 강조한 성명발표, 전세계학생들에게 칠레애국자들의 투쟁을 지지할것을 호소

17일 핀란드가 칠레군사파쑈도당에 대한 원조를 끊기로 결정 ▶웰남의 하노이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남조선 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모임 진행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말리국가수반 무싸 뜨라오레에게 보내시는 선물전달식 바마코에서 진행 ▶이딸리아 롬바르디주에서 300여만명 근로자들이 로동조건의 개선과 임금인상, 물건값을 낮출것을 요구하여 총파업에 들어감. ▶쏘련에서 사람을 태운 우주비행선 《쏘유즈—13》호를 쏴올림

19일 쏘련에서 8개의 인공지구위성을 한꺼번에 쏴올림

20일 국제학생동맹서기국이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21일 이라크가 뽀르투갈식민주의자들의 원유회사 주권을 국유화

22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30여개나라 대표들과 투쟁단체 대표들의 참가하에 알제에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영화인회의 진행 ▶일본의 각정당, 로조단체, 민주단체로 무어진 《요꼬스까의 미항공모함모항화반대요꼬스까시민협회》가 미제해적선 항공모함《미드웨이》호가 일본 요꼬스까미해군기지에 기여든것을 강력히 규탄

25일 일본녀성단체들이 남조선녀성들을 롱락물로 삼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기생관광을 반대하여 시위투쟁

29일 핀란드의 《사난며에》출판사에서 《주체사상의 승리》라는 책을 핀란드어로 번역하여 단행본으로 출판

국제주요일지

(1973년 1—12월)

1 월

1일 새해에 즈음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정부 지도자들이 년하장을 보냄 ▶멕히꼬정부가 미제국주의자들의 배들이 자기 나라 령해에 들어와 고기잡이하는것을 금지

3일 오스트랄리아항만로조가 북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항의하여 미국놈의 배들에 짐을 싣고부리우는것을 거부 ▶이딸리아금속로동자 120만명이 독점자본의 전횡에 항의하여 총파업

4일 니제르가 이스라엘침략자들과 외교관계를 끊음 ▶40개의 쁠럭불가담국가가 뉴욕에서 미제의 웰남침략에 항의하여 성명 발표

5일 말리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음 ▶우간다에서 500여개의 영국회사를 국유화

6일 파키스탄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인민은 수령을 노래합니다》가 대성황리에 진행 ▶에꽈도르정부 제국주의자들의 유전 350만헥터를 장악 ▶팔레스티나 민족리사회 제11차회의에서 팔레스티나의 모든 항쟁조직과 전투력있는 무장부대들을 대표하는 최고군사리사회와 팔레스티나인들이 활동하고있는 각이한 지대들에 군사지휘부를 설치하기로 결정

7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반동정부의 인종차별정책에 격분한 흑인들이 반동경찰들과 총격전을 진행

8일 아프리카통일기구 해방위원회 제21차 정기회의에서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여 해방투쟁을 보다 적극화할데 대하여 토의 ▶이스라엘침략자들 수리아령공깊이 침입하여 무차별폭격 ▶빠나마대학생들 미제대사관 기발을 불태우면서 반미시위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주예멘에 보내신 선물전달모임 아덴에서 성대히 진행 ▶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이 잠비아와의 국경을 폐쇄하는 도발책동 감행 ▶오스트랄리아정부가 캄보쟈의 론놀도당에게 주던 《군사원조》를 끊기로 결정

10일 로므니아국가쏘베트 위원장이 파키스탄과 이란을 방문(13일까지) ▶자이르대통령 중국을 방문

11일 단마르크에서 우리 나라와의 외교관계설정을 촉진하기 위한 《단마르크조선사이의 협조관계촉진위원회》 결성 ▶중국에 일본대사관 개설 ▶다오메가 중국과 외교관계 회복 ▶프랑스대통령 쏘련을 방문(12일까지)

13일 중국이 캄보쟈왕국에 군사및경제원조를 제공할데 관한 협정 조인

14일 단마르크공산당 제24차대회 진행(14일까지)

15일 사회주의나라외교부장회의 진행(16일까지)

17일 말따정부 왈레따지역에 있는 영국침략군의 해군기지의 일부를 자기의 통제하에 넣음

18일 기네—비싸우에서 첫국가주권기관인 전국인민회의 선거 진행

19일 단마르크청년리사회집행위원회에서 우리 나라와의 외교관계설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정부와 국회에 보냄 ▶모리따니대통령 리비아방문 ▶뻬루해군이 2일간에 자기령해에서 17척의 미국어선을 나포

20일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총비서 까브랄이 기네 수도에서 뽀르뚜갈에 매수된 악당들에게 살해 ▶자이르대통령 버마방문

23일 아세아교원직맹로론회 인도의 캘커타에서 진행

24일 민주예멘 수도 아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회관이 개설 ▶아이띠의 애국적무장력이 아이띠에서 정탐파괴행위를 일삼고있는 미제대사놈과 총령사놈을 사로잡음

25일 핀란드평화옹호위원회중앙위원회와 핀란드인민민주련맹중앙위원회 제 10차회의(26일)에서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한 결의안 채택 ▶파키스탄이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

26일 뽈스까 당 및 정부대표단 체스꼬슬로벤스꼬 방문

27일 일본 도꾜에서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의 주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하여》의 연구회 진행 ▶《웰남에서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회복할데 관한 협정》이 빠리에서 조인되고 28일 웰남전역에 정화실시 ▶까히라에서 진행된 아랍국가합동국방리사회 비상회의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랍국가들이 공동행동을 취할데 대한 결정 채택

30일 캄보쟈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민주웰남을 방문 ▶인도에서 전인도로동조합 콩그레스 29차대회 진행, 조선근로자들 및 인민과의 련대성에 관한 결의 채택

2 월

1일 자이르대통령 소말리아 방문, 아프리카해방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

2일 적도기네정부 자기나라에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무장침략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적도기네 수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군중집회와 시위 진행

4일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나이제리아 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 연구소조》성원들이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25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인민군창건스무돐을 맞이하여》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가짐 ▶벨지끄 수도 브류쎌에서 25만명근로자들이 반미시위

5일 이딸리아국회의원 그루빠들이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한 투쟁위원회를 조직▶아프리카통일기구 각료리사회 제20차회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진행 ▶캄보쟈의 프놈 펜에서 로동자들 4만명이 임금인상과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파업, 프놈 펜의 주요공장들 페쇄

6일 조선인민군창건 25돐에 즈음하여 중국국방부에서 기념모임, 모스크바에서 사회계의 경축모임 진행 ▶아아경제협조기구리사회 제12차회의 까히라에서 진행 ▶일본사회당 제36차대회 진행(8일까지)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레바논 신문 《알읍》이 특집 조직 ▶루안다에서 소수민족인 바루치족학생들과 다수민족인 바후투족학생들간에 류혈적인 충돌이 벌어져 대량적인 학살사건이 일어남

8일 레바논정부 제국주의원유독점체인 《이라크석유회사》의 송유관을 징벌하기로 결정

9일 민주독일이 프랑스, 영국과 외교관계 설정 ▶뿌에르또 리꼬국회가 자기 나라에서 미제해적선을 몰아내기로 결정

10일 일본에서 32개로조가 합세한 230만 로동자들이 파업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일제히 파업, 1천 700여개 도시들에서 국영기업소들이 문을 닫고 교통이 마비 ▶미국대통령보좌관 키신저 민주웰남(13일까지), 중국(15—19일)방문

11일 일본 도꾜에서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의 주최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강연회 진행

12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의 아우탈, 로메아스와 콤퐁톰지역에《비52》비행기로 발광적인 폭격을 감행 ▶일본의 미야끼현에서 일본과 조선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를 무음

13일 핀란드민주청년동맹이 자기 나라정부에 우리 나라를 승인할것을 요구

14일 상부볼따 대통령 세네갈 방문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일조협회 사이다마현 오가와지부에서 연회를 차림 ▶레바논대통령 애급방문 ▶말리철학가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연구토론모임을 가짐

16일 범미법률가위원회에서 해상국들의 200마일 령해권과 자주권을 주장하는 해상법안 채택

17일 레바논의《다르 탈리아》출판사에서《김일성저작선집》제1권을 아랍어로 출판(로동신문)

18일 아르헨띠나유격대가 반동정부군 통신대대 병영을 습격하여 반동정부군놈 90명을 투항케함

19일 챠드대통령 애급방문(23일까지) ▶미제가 일본의 요꼬스까항을 핵항공모함기지로 리용하는것을 반대하여 요꼬스까주민들이 투쟁위원회를 무음

20일 알바니아가 꼬스따 리까와, 탄자니아가 메히꼬와 각각 외교관계 설정

21일 라오스애국력량측과《비엔티안정부측》간에《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을 맺음

22일 라오스전역에서 정화실시 ▶이스라엘침략군 공군기 시나이반도에서 리비아려객기를 격추하여 93명의 사망자를 내는 만행 감행

24일 일본 도꾜에서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제4차 연구모임 진행. 연구모임에서는《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도있게 연구해나가자》고 호소 ▶아. 아인민단결기구 집행위원회 제12차회의 아덴에서 진행, 조선에 관한 특별결의 채택(27일)

25일 팔레스티나유격대가 사해남쪽의 쑴하아구르 알 우아르둔지역에서 이스라엘군용화물차를 폭파

26일 웰남에 관한 국제회의 빠리에서 진행, 3월 2일《웰남에 관한 국제회의 결의를 채택하고 페막 ▶모리따니대통령 알제리를 방문 ▶북아일랜드인민들 벨파스트와 런던데리에서 영제국주의자들의 탄압책동에 항의하여 시위투쟁 ▶오스트랄리아 멜보른시민들 미제침략군기지철거를 요구하여 시위투쟁 ▶챠드대통령 레바논 방문

27일 미국의 남다코타주에 있는 운디드니지방에서 원주민들이 인종차별에 항의하여 무장폭동

28일 사회주의나라 국회의원단들의 회의 페막 ▶중국 베이징에서 대만성인민들의 2월 28일 봉기 26돐 기념집회 진행 ▶다오메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정변음모를 짓부셨다고 발표

3 월

1일 말리에서 공부하고있는 아프리카류학생들이 바마코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에 대한 연구토론회 진행 ▶이라크에서 제국주의석유독점체회사를 완전히 국유화 ▶제11차 타라블스국제시장 열림(20일까지)

2일 노르웨이사회인민당 제8차전국대회 진행▶벌가리아의 쏘피아에서 있은 국제학생동맹 집행위원회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조선에 관한 결의》를 채택 ▶나이제리아련방군사정부 수반 말리 방문

5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전기《김일성전》제2부를 파키스탄의 민족출판사가 우르두어와 영어로 출판(로동신문) ▶일본로동조합총평의회가 일본정부의《출입국법》조작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6일 아. 아인민단결기구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일본 도꾜에서 일본녀성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강연회를 진행

11일 민주독일 라이프찌히에서 봄철국제시장 개막 ▶아르헨띠나에서 10년만에 총선거가 진행되여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선출, 정의해방전선의 립후보가 승리 ▶프랑스에서 국민의회총선거 진행

12일 말레이시아가 미제의 아세아침략기구《아스파크》에서 탈퇴 ▶수리아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새헌법을 채택

13일 핀란드평화옹호위원회가 우리 나라 외교부대변인의 3월 8일부성명을 지지

15일《공산당선언》발표 125돐에 즈음하여 베를린에서 국제과학토론회 진행(16일까지)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런던에서 첫공연 ▶트리니다드 토바고정부 외래독점체소유의 곡물회사와 큰 사료공장 몰수 ▶빠나마에서 유엔안보리사회 특별회의 진행, 회의에서 빠나마운하지대를 강점하고있는 미제를 일치하게 규탄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에라 레온인민에게 보내시는 선물전달식 프리타운에서 성대히 진행

17일 캄보쟈괴뢰공군장교가 론놀도당의《대통령궁전》을 폭격

21일 뻬루정부 미국석유독점체산하의 원유정제공장을 장악 ▶메히꼬에서 외래독점자본가들의 투자를 통제하기 위한 새법을 제정

22일 중국외교부가 미국석유독점체들이 남조선당국과 공모하여 우리 나라 서해와 중국연해의 석유자원을 로략질하려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이란국영석유회사가 서방석유회사들로부터 석유생산의 완전한 통제권을 인수 ▶애급정부 이스라엘침략자들에 대한 미제의 새공격용무기공급을 규탄하여 각서를 발표 ▶세계직련이 미제와 남조선당국의 새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로동신문)

23일 서독 본에서 8만여명의 근로자들이 미제의 군사기지화책동을 반대배격하는 항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벌림

24일 룩셈부르그공산당 제21차 대회 진행(25일까지) ▶도꾜에서 공산당, 사회당, 총평을 비롯한 19개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미제가 요꼬스까항을 핵항공모함기지로 리용하는것을 반대배격하여 반미군중집회 진행

25일 까메룬대통령 중국방문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대변인이 미제와 론놀괴뢰도당의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6일 오스트랄리아가 미제의 침략적군사시설건설계획을 배격

27일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무용단 이딸리아 로마에서 첫공연 ▶일본 각계인사들 일본에서 공연하게될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조사단을 환영하는 모임 진행 ▶아. 아법률가회의 상설서기국이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29일 북구라파 5개국외교부장회의에서 우리 나라를 외교적으로 승인할데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 ▶세계평화리사회가 남조선에서 일체 미제침략군이 물러갈것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30일 웰남민주공화국정부와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4월 1일)웰남에 관한 빠리협정리행정형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4 월

2일 체스꼬슬로벤스꼬 당및정부대표단 꾸바를 방문(7일까지)

3일 부꾸레슈띠에서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결성 모임 진행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최고혁명리사회 위원장에게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모가디쇼에서 성대히 진행 ▶미주국가기구 년차회의 워싱톤에서 진행, 회의에서 미국—라틴아메리카나라들간의 《구조상의 전면적개혁》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

5일 에꽈도르정부 연해에서 활동하는 일체 선박들을 국가가 통제할데 대한 법령 발표

6일 메히꼬에서 미제의 문화적침투를 막기 위한 법령을 발표

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도꾜에서 일본각지의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성원들의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연구토론모임》 성대히 진행

9일 웰남외교부대변인 남조선에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소동을 벌리려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이스라엘침략자들 함선과 헬리꼽터의 지원하에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와 항구도시 시돈에 있는 팔레스티나유격대지휘부 사무소와 지도자들의 주택, 피난민수용소 등을 불의에 습격하는 만행감행

10일 가나가 령해권을 30마일로 선포

11일 영국신문 《타임스》가 《천리마조선》이라는 총제목을 달고 우리 나라의 발전면모를 소개하는 특간호를 발간

13일 중국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전문을 실음. ▶아프리카로조통일기구 창립

14일 도꾜에서 있은 에카페(유엔아세아극동경제위원회) 제29차회의에서 중국, 쏘련,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이 기구에 가입시킬것을 요구

1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까메룬신문 《프레스 디 까메룬》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 15일 탄생 예순한돐을 맞으셨다》라는 표제밑에 특집발간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자르평원—히엥쾅지역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폭격을 규탄하여 성명 ▶상아해안의 수도 아비쟝에서 상아해안, 상부볼따, 말리, 모리따니, 니제르, 쎄네갈 등 6개나라 수반들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를 창설하는 협정에 조인 ▶일본사회당이 《일조우호국교정상화국민회의》의 결성을 일본의 각 정당, 사회단체, 로조단체들과 각계인사들에게 호소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가 캄보쟈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고있는 미제의 새로운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9일 모리셔스신문 《락시옹》이 《조선인민의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요람 만경대》라는 제목으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 ▶불멸의 기념비적명작 우리 나라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 홍콩에서 대성황리에 상영 ▶스웨리예공산주의청년동맹 제30차대회에서 《조선에 관한 결의》채택 결의에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군사도발책동을 규탄 ▶메히꼬대통령 중국을 방문

20일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로므니아대민족회의 대외정책위원회가 성명 발표

21일 말리대통령 리비아를 방문(25일까지)

22일 12개 까리브해연안국가들의 수뇌자회의에서 까리브해연안공동체 및 공동시장 창설을 결정

23일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조사단과 일본 아사히신붕사 및 일조문화교류협회 사이에 만수대예술단의 일본방문공연에 대한 합의서 조인

24일 상아해안의 수도 아비쟝에서 국제의회동맹 112차회의 73개국대표들의 참가밑에 진행, 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가입을 결정

25일 아르헨띠나에서 미국놈의 《국제전신전화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금기로 결정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룬디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부좀부라에서 진행

29일 세계평화리사회 서기국과 핀란드평화옹호위원회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세계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성명 발표

30일 제3세계와의 파키스탄청년련대성위원회,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파키스탄조선녀성친선협회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공동성명 발표

5 월

1일 중미나라 근로자들 테로와 폭압을 박차고 대중적투쟁으로 5.1절을 맞음 ▶도미니까 수도 근로자들이 미국놈기발을 태워버리면서 반미시위 ▶일본에서 700만로동자들이 전국의 850개소에서 5.1절 집회와 시위 진행

4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일본에서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서술한 책《령도의 예술가 김일성》을 출판 ▶아. 아인민단결기구 꾸바상주 미국인련맹이 조선의 평화적통일방안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8일 캄보쟈국가원수 시하누크친왕이 로므니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알제리, 꽁고, 모리따니, 기네,말리, 세네갈을 방문하기 위하여 베이징을 출발

9일 메히꼬와 프랑스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전》제3부를 에스빠냐어와 아랍어로 번역 출판(로동신문)

11일 알제리, 모리따니, 말리, 니제르 수반들이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12일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의 주최로 《주체사상의 세계사적의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에 이어 주체사상연구모임 진행

13일 중국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고전적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를 단행본으로 출판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가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그만둘것을 요구하여 미제두목 닉슨에게 항의편지를 보냄

15일 일본과 민주독일이 외교관계 설정 ▶베네수엘라 수도 까라까스에서 반미시위를 벌리고 미국놈의 기발을 불태워버림

17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전기 《김일성전》제1부를 파키스탄민족출판사(영어)와 전인도조선친선협회(힌디어)가, 《김일성전》 제2권과 제3권을 이딸리아의 《깔렌다리오 델 뽀뽈로》출판사가 각

각 단행본으로 출판(로동신문) ▶세계보건기구 제26차총회에서 우리 나라 가입을 결정 ▶일본야당인사들이 세계보건기구26차총회에서 우리 나라의 즉시 가입 결의안이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것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조선적대시정책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일제히 담화 발표

18일 스웨리예정부 남조선괴뢰대사를 추방 ▶쏘련공산당 총비서 브레쥬네브 서독을 방문

19일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베이징에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공연을 시작

20일 스웨리예공산주의청년동맹 제30차대회에서 조선에 관한 결의 채택

22일 기네공화국정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성명 발표

23일 아세아의 안전과 협조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방글라데슈의 다카에서 진행 ▶영제국주의자들 여러척의 군함과 직승기를 동원하여 이슬란드어로수역을 지키는 이슬란드경비정을 공격하는 도발책동 감행

24일 아프리카통일기구 각료리사회 제21차회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폐막 ▶일본 도꾜에서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가 세계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와 관련한 《최근조선문제강연회》를 진행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원하는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호소문》을 채택

27일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 후아리 부메디엔 애급을 방문 ▶제10차 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및정부 수뇌자회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진행(29일까지) ▶아르헨띠나정부에서 친미군사독재정권이 실시해온 《탄압법》을 없애버릴데 대한 결정 채택

30일 국제화학및석유공업로동자직맹 행정위원회 제23차회의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조선화학공업로동자직맹에 보내는 편지 채택

6 월

2일 잠비아신문 《데일리 메일》이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36돐에 즈음하여 특집

4일 그레네이더 독립을 선포 ▶웰남당및정부대표단 중국 방문(11일까지)

5일 국제학생동맹 서기국이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서한 발표

6일 중동문제에 관한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아랍나라들과 아프리카나라 대표들이 이스라엘침략군이 《즉시무조건적으로 점령지역으로부터 철수할것》을 요구

7일 이슬란드포함이 자기 나라령해에 기여든 영국구축함을 격파

8일 중국이 웰남에 경제및군사원조를 무상으로 줄데 관한 협정 조인 ▶오지리의 윈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촉진협회》 창설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묶은 문헌집 《조선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메히꼬에서 에스빠냐어로 출판(로동신문)

11일 리비아혁명지도리사회 미국석유회사를 국유화 ▶상부볼따대통령이 로므니아를 방문(15일까지)

12일 이슬란드정부가 자기 나라에 있는 미제침략기구 《나토》의 군사기지 철폐를 요구하여 미제대사놈에게 각서를 보냄

13일 국제학생동맹 서기국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련대성운동과 조치들을 취할것을 산하단체들과 세계진보적학생들에게 호소 ▶프랑스대통령 중국을 방문

14일 알바니아녀성동맹 제7차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 채택 ▶뻬루정부가 미국놈 동광회사에 대한 《특허권》을 철회하는 정령을 발표 ▶프랑스가 미제의 아세아 침략도구 《세아토》의 운영비분담금지불을 중지키로 결정(로동신문) ▶단마르크에서 《나토》반대 투쟁위원회 결성

15일 일본 도꾜에서 《일조우호국교정상화국민회의》호소인들의 회의에서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가 세계각국국회와 정부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할데 대한 호소문 채택 ▶아르헨띠나정부가 자기 나라의 7개은행들에 가지고있는 미제를 우두머리로하는 제국주의금융독점체들의 주권을 징수할데 대하여 명령 ▶모리따니에서 민족화폐에 관한 법령채택 ▶인도총리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17일까지)

18일 민주예멘에서 시정조치 4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예멘친선주간》개막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오니드 브레쥬네브 미국방문(25일까지) ▶미제침략군의 핵잠수함이 요꼬스까항에 기여듬

20일 세계민주청년련맹뷰로와 아.아법률가회의 상설서기국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5대강령을 지지하여 성명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호소문 발표 ▶말리국가수반 중국을 방문

22일 웰남민주공화국당및정부대표단 몽골을 방문

24일 중국 정부와 인민은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중국국무원 주은래총리가 언명

25일 쏘련 공산당과 정부는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한다고 쏘련내각총리 꼬씌긴이 언명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모스크바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개막, 수리아수도 디마스끄에서 군중집회, 아.아인민단결기구 서기장 성명 발표, 알제리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 단마르크에서 우리 나라 영화 상영주간 개막

26일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기관지 《루데 쁘라보》가 수령님의 력사적인 6월 23일 연설전문을 실음 ▶로므니아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스꾸 서독을 방문(30일까지)

27일 이라크대통령 뽈스까를 방문 ▶일본경찰들이 총련현본부와 재일조선동포집을 불법침범하는 만행 감행 ▶중국에서 수소탄시험 진행

28일 꾸바 아바나에서 제14차사회주의나라 보건부장회의 진행(로동신문) ▶노르웨이공산주의청년동맹 제4차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여 조선에 관한 결의 채택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남부웰남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6개항목의 제안을 내놓음

30일 이라크에서 국방부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반역자들의 일당을 체포

7 월

1일 콜롬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결의 《조선내정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반대하여》를 채택

2일 유고슬라비아가 남부웰남공화예무상원조를 줄데 관한 협정 조인 ▶까메룬과 챠드가 아프리카말가슈합동기구에서 탈퇴

3일 구라파안전 및 협조에 관한 회의 헬싱키에서 진행 ▶세네갈이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

4일 까리브해나라들이 까리브공동체와 공동시장 설치

5일 루안다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나 까이방다정권이 전복되고 군사정권수립 ▶평화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

앙아프리카나라들의 제1차대회가《조선에 관한 련대성결의》채택 ▶단마르크법률가협회가 일본반동들의 파쑈적《출입국법》조작책동을 규탄하는 항의문을 일본정부와 단마르크주재 일본대사관에 들이댐

6일 잠비아가 캄보쟈민족련합정부를 승인

8일 가봉대통령 수단을 방문 ▶이딸리아에서 47만명 농업근로자들이 로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파업 ▶일본 도꾜도의회 선거에서 공산당을 비롯한 민주주의정당들이 승리

9일 리베리아대통령 탄자니아방문

10일 바하마제도 독립 선포 ▶오스트랄리아가 세아토합동해군연습에 참가하지않겠다고 발표 ▶일본어부들이 공해를 반대하여 두개의 항구를 봉쇄

11일 국제학생동맹서기국이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오니드 브레쥬네브에게 국제레닌상을 수여 ▶이스라엘침략군공중비적들과 해적선이 레바논의 수도와 령해를 침범 ▶리비아에서 미제 석유회사를 국유화

12일 일본의 저명한 각계인사 26명의 발기에 의하여 도꾜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모임 진행

13일 모잠비끄해방전선이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이 모잠비끄의 비리얌촌에서 감행한 대학살만행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쿠웨이트에서 외국석유회사들의 원유저장사업을 국가가 통제하기로 결정

15일 제1차범아프리카청년축전 튜니지에서 진행(22일까지)

16일 쏘련과 중국이 모스크바—베이징항공로를 개설할데 대한 협정체결 ▶감비아가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를 승인(로동신문)

1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나 군주제도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선포 ▶국제아랍로조련맹 총서기국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꾸바에서 우리 나라 도서전람회 진행

18일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 아프리카독립당 제2차대회 진행

19일 캄보쟈의 해방지역에서 캄보쟈민족해방전선의 지도하에 캄보쟈국민대회 진행 ▶중국이 남부웰남공화에 비상경제원조를 줄데 관한 협정 베이징에서 조인 ▶말가슈독립대회당 제7차대회 진행

20일 일본《아사히신붕》이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방문공연을 환영하여 옹근 3면에 걸쳐 특집 ▶리마에서 진행된《미주국가기구》개편 특별준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라틴미주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의 평등권을 주장하였으며 미제가 조작한《미주국가기구》를 반대하는 결의채택 ▶라오스에서 우익반동들이 수반나 푸마를 전복하기 위한 정변을 일으켰다가 진압됨

21일 남태평양에서 프랑스가 핵시험 진행

22일 중국이 라틴미주에서 핵무기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에 조인 ▶노로돔 시하누크 로므니아를 방문

23일 뻬루가 남태평양에서의 핵시험에 항의하여 프랑스와의 외교관계를 끊음

24일 유엔무역 및 개발회의가 우리나라의 가입을 승인

25일 제20차수리아디마스끄국제시장 진행(8월 20일까지)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대통령이 라틴미주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경제적침략을 규탄

26일 유엔의 68개쁠럭불가담국가대표단들의 회의에서 미제의 캄보쟈폭격을 규탄하고 그것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27일 일본도꾜에서 17개정당,사회단체대표들의 참가하에《7월 27일 조선정전협정조인 20주년기념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강화 각계대표자회의》진행

28일 꽁고대통령 느구아비 중국방문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 베를린에서 개막(8월 5일까지)

29일 마로끄에서 토지를 국유화 ▶웰남민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로므니아방문(8월 1일까지)

30일 구라파사회주의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 지도자들의 회합 크림에서 진행 ▶민주독일이 팔레스티나 해방조직을 승인하고 이 조직이 동부베를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데 동의

31일 이란에서 석유공업을 국유화하는 법률 발표, 세계최대의 아바단종합정유소를 서방석유회사들의 국제차관단으로부터 인수 ▶애급인민회의가 상설위원회 비상회의를 열고 중동문제에 관한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미제가 쁠럭불가담국가들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8 월

1일 제19차원수폭금지세계대회 개막 ▶싱가포르가 북부웰남, 남부웰남과 대사급외교관계 수립 ▶안데스조약국 외교부장회의 리마에서 진행(14일까지), 라틴미주나라들의 경제적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토의 ▶민주독일 국가쏘베트 위원장 울브리히트 사망 ▶까리브해지역나라들의 자주권과 민족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까리브해공동체와 공동시장 발족

2일 카나다의 오타와에서 제19차영련방수뇌자회의 진행(10일까지) ▶아르헨띠나 하원이 외국의 투자를 제한할데 대한 법안을 승인 ▶베네수엘라가 민주독일과 외교관계 수립

3일 제10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조선전쟁참전국 청년학생대표들이 미제침략군과 조선전쟁참전국군사인원들을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철수시킬것을 자기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4일 말가슈가 아프리카말가슈합동기구에서 탈퇴

6일 애급과 리비아간에 두나라의 통합에 관한 선언문초안에 합의

8일 스웨리예 수도 스톡홀름시민들 캄보쟈해방지역에 대한 미제의 야만적폭격만행을 규탄하여 시위

10일 이스라엘침략자들 군용비행기 2대를 레바논령공에 공공연히 침입시켜 레바논민용려객기 1대를 이스라엘 군용비행장에 강제착륙케하는 강도행위를 감행

12일 일본도꾜에서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의 공연 시작

13일 온두라스조선친선협회 온두라스의 떼구시갈빠에서 창설

14일 일본의 각계인사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이 일본당국자들과 공모결탁하여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하여 서울에 끌어간 사건을 규명할것을 요구하여《김대중사건을 규명하는 회》결성

15일 미제국주의자들 캄보쟈에서 패배에 직면하자 캄보쟈에 대한 폭격을 중지한다고 발표

20일 카나다가 웰남과 대사급외교관계 설정 ▶아르헨띠나공산당 제14차대회 진행(24일까지)

21일 라틴아메리카핵무기사용금지기구 제3차대회 메히꼬에서 진행 ▶유엔무역개발회의 13차 정기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성원국으로 받아들임

22일 디마스끄에서 진행된 아랍로조련맹 제1차회의에서 강점된 아랍땅을 해방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이라고 강조 ▶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평화조약을 맺기로 합의 ▶라틴아메리카 특별조절위원회 제16차회의에서 통상 해상수송 및 기타 문제들에 대하여 라틴미주나라들이 공통적인 립장을 취할데 대하여 토의

24일 중국공산당 제10차대회 진행(28일까지),30일 10기 1차 전원회의에서 모택동동지를 중앙위원회 주석으로 추대 ▶탄자니아대통령이 령해권을 50마일로 선포 ▶국제아랍무역로조 중

앙위원회 미제의 상품배척투쟁을 호소

25일 일본도꾜에서 각계층의《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12개 조직대표의 참가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김일성주석저작연구도꾜집회》진행 ▶일본신문로동조합련합회가 《요미우리신붕》서울지국을 폐쇄한 남조선당국자들의 폭압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26일 《나미비아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나미비아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27일 중국이 세네갈에 알곡 5천톤을 기증하는 의식 다까르에서 진행

28일 메히꼬에서 지진이 일어나 700명의 사망자와 수천명의 부상자를 냄

30일 수리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한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자립적건설의 길로 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큰 표제밑에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의 빛나는 혁명력사, 령도의 현명성을 소개하는 책을 발간(로동신문)

9 월

1일 애급과 리비아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데 합의

4일 라틴아메리카나라군대사령관들의 제10차년차회의에서 미제의 도구인 《범미군》체계를 없애치울것을 요구

5일 알제에서 세계 80여개나라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들을 포함한 100여개 나라 대표단들의 참가밑에 제4차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 진행▶가을철 라이프찌히시장 진행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옵써버 대표부 정식사업시작

6일 노르웨이에서 총선거 진행

7일 세계평화리사회 서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5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미제와 남조선 당국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강력히 규탄

8일 일조국교정상화국민회의 결성

9일 꾸바와 이스라엘이 외교관계 단절 ▶중국에서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단행본으로 출판

10일 일본 도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다섯돐기념 김일성주석저작연구집회》 20여개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들과 수령님의 로작을 연구하고있는 개별적인사들 150여명의 참가하에 성대히 진행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영광찬란한 전기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의 출판기념회 도꾜에서 진행 ▶미제의 사촉밑에 칠레의 친미극우익반동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합법적인 알옌데정부를 뒤집어 엎고 국가권력을 가로챔▶프랑스대통령 중국방문(17일까지)

12일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포 25돐기념 사진전람회 진행 ▶나토침략군 서독에서 대규모군사연습소동을 벌림

13일 꾸바와 칠레반동정권간에 외교관계 단절 ▶이스라엘군용비행기 64대 수리아의 따르뚜스항을 공습 ▶칠레의 진보적력량이 《칠레항전애국전선》을 조직

14일 라오스애국력량측과 비엔티안측이 《라오스에서 평화를 회복하며 민족적화목을 이룩할데 관한 협정의정서》를 조인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5돐을 기념하여 일본의 이름난 출판사 《산세이도》가 일본 청소년들을 위하여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전기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을 출판(로동신문) ▶상부볼따와 중국이 외교관계 수립 ▶메히꼬에서 5만명의 군중들 칠레에서의 반동적군사정변에 항의하여 시위 ▶석유수출국기구 특별총회에서 원유판매에 관하여 국제석유독점체들과 맺은 이전의 협정들을 수정하기 위하여 국제석유독점체들과 담판하기로 결정

17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 자문리사회 위원장 윈우수가 인솔하는 남부웰남대표단이 세네갈,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18일 우리 나라 상임옵써버 대표의 참가하에 유엔총회 제28차회의 개막(12월 18일) ▶아세아경기련맹 집행위원회에서 중국을 받아들이고 장개석도당을 축출

21일 또고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단절 ▶유엔총회 전원회의 조선문제를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의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북부웰남—일본 외교관계 설정

22일 로므니아 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에 챠우쉐스꾸가 꾸바, 꼬스따리까, 베네수엘라, 꼴롬비아, 에꽈도르, 뻬루를 방문하고 귀국

23일 기네—비싸우 애국자들이 자주적독립국가인 기네—비싸우 공화국을 선포 ▶벌가리아가 칠레 군사정권과 외교관계 단절

24일 기네—비싸우 전국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국가선언을 채택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 제16차대회 진행

25일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가 펀란드방문(28일까지)

26일 남부웰남공화림시혁명정부와 웽그리아정부가 칠레군사정권과 외교관계 단절

27일 이슬란드정부가 영제국주의자들이 이슬란드연해에 들이민 군함들을 철수하지 않으면 외교관계를 끊겠다고 선포

28일 기네민주당 제10차대회 진행

29일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대중을 랍치한 남조선당국자들을 규탄하여 3대륙인민단결기구 성명발표, 국제기자동맹 남조선당국에 항의문을 보냄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의 주최로 조선문제에 대한 일본사회과학자들의 토론회 도꾜에서 진행 ▶스톡홀름에서 21개 구라파자본주의나라 공산당대표들의 협상회의 진행 ▶뉴질랜드가 북부웰남을 정식 승인 ▶아르헨띠나 륙군사령부가 미제의 《군사사절단》을 철수시킬것을 요구(로동신문) ▶펀란드사회민주청년동맹이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성명

30일 단마르크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를 단행본으로 출판

10 월

2일 웰남민주공화국당및정부대표단 라오스해방지역을 공식방문 ▶노르웨이공산당 제14차대회 진행(4일까지)

4일 꼬스따 리까사회당의 주최로 싼호쎄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 진행 ▶이딸리아공산주의청년동맹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로동신문) ▶자이르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음

5일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대표단을 인정하지 않을데 대한 제안이 절대다수나라 대표들의 찬성으로 통과

6일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애급과 수리아에 대한 대규모의 무력침공을 개시

7일 일본총리 다나까가 쏘련을 방문 10일 공동콤뮤니케 발표

8일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제2차대회 진행

9일 이라크에서 2개의 미국석유회사를 국유화

10일 쏘련이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

부를 캄보쟈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 ▶이라크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수리아전선에 군대와 전투기, 땅크를 보냄 ▶독일민주주의공화국당및정부대표단이 몽골을 방문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 살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 개관식 진행 ▶다오메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끊음 ▶미제의 우두머리의 한놈인 애그뉴놈이 뇌물을 받아먹은 부정부패사건으로 부대통령자리에서 쫓겨남

11일 스웨리예평화옹호위원회와 단마르크민주법률가협회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 ▶일본당국이 우리 나라 조난선원들에게 이른바 《출입국관리령위반》이라는 죄명을 들씌워 《공판》놀음을 벌림 ▶상부볼따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음 ▶주택문제에 관한 제4차 범미주나라들의 회의 진행

12일 에티오피아에서 미제의 침략기지를 폐쇄 ▶아르헨띠나에서 뻬론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 ▶타이에서 수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10만명학생들이 반정부시위를 단행, 15일 방코크에서 수만명이 반정부폭동

13일 중국적십자회가 에티오피아 재해지역인민들에게 밀 1만톤을 기증 ▶알제리와 뜌니지가 요르단과 외교관계를 끊음

14일 타이에서 학생들의 투쟁으로 친미독재자 타놈을 몰아내고 군사정부를 뒤집어엎음, 16일 새로운 민간정부 수립, 17일 폭동참가자들에 대한 대사실시

15일 제8차 세계직련대회 와르나에서 진행(22일까지)

16일 구라파자본주의나라 공산당대표들의 회합 꾀뻰하븐에서 진행(17일) ▶아랍석유생산국들 석유가격을 자신들이 직접 정하기로 결정하고 원유상업가격을 바렐당 17% 올리기로 결정 ▶꽁고가 프랑스공동체로부터 탈퇴하며 프랑스와의 협조협정을 페기한다고 통고

17일 아랍석유기구 10개국석유부장회의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지원국들에 대한 석유공급량을 월간 5% 삭감하기로 결정 ▶이라크평화및련대성민족리사회 총서기 알제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제기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지지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캄보쟈왕국 대표권문제를 토의하기로 결정

18일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김대중을 랍치한 남조선당국자들의 흉악한 만행을 단죄하여 성명

19일 프랑스 《노르망 베룬》출판사가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단행본으로 출판(로동신문) ▶탄자니아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음 ▶리비아가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을 정지하기로 결정 ▶단마르크주재 우리 나라 공보부 대사관으로 승격 ▶스웨리예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및 공예품 전람회 개막

20일 바레인이 미해군함정에 바레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는것을 허용한 협정을 페기하기로 결정 ▶파예말라수도주민들이 반독재군중집회와 시위 진행 ▶일본 총평이 통화팽창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정 ▶적도기네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음

21일 일본전국 200여개소에서 《10월21일 전국통일행동》을 위한 130여만군중들의 집회와 시위 진행,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철폐, 미일안보조약페기를 요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음

22일 애급과 이스라엘이 중동정화를 호소하는 유엔결의를 수락하기로 결정 ▶뽈스까통일로동당 제1차전국대표자회의 진행(23일까지)

23일 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25일 평화력량들의 세계대회 모스크바에서 진행(31일까지), 조선문제에 관한 성명 발표 ▶감비아,나이제리아, 가나, 시에라 레온, 가봉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음

27일 민주예멘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끊음 ▶로므니아가 남부웰남공화에 경제적원조를 줄데 관한 협정 조인

28일 아르헨띠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국제대학생토론회 진행

29일 벌가리아당및정부대표단 몽골을 방문(11월 2일까지) ▶사우디 아라비아가 화란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지하기로 결정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해지역나라 동력 및 석유부장들의 제3차협의회에서 라틴미주동력기구를 창설 ▶말따정부 영국선박회사를 국유화

30일 탄자니아정부가 인도양에 대한 미제의 군사력증강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리비아가 화란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지

31일 모잠비끄의 마니카주와 소팔라주에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군대편에서 싸우던 아프리카인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해방전선부대에 합류 ▶보쯔와나가 기네－비싸우공화국을 승인 ▶베오그라드에서 제18차국제시장 열림

11월

1일 카나다정부 미국에 대한 원유수출을 제한 ▶또고대통령 리비아를 방문(2일 공동콤뮤니케 발표) ▶케니아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음

2일 독일의공산당대회 함부르그에서 개막 ▶노르웨이공산당 제14차대회 진행(4일까지) ▶뻬루공산당 제6차전국대회 진행(6일까지),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에 관한 결의 채택 ▶유엔총회에서 기네－비싸우를 독립한 주권국가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채택, 리비아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끊음 ▶탄자니아가 남부웰남에 주는 원호금 전달의식 진행

3일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새헌법초안을 발표 ▶노르웨이대학생협회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를 가지고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리따니대통령과 세네갈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누악쇼뜨와 다까르에서 성대히 진행 ▶영국의 30만 기계제작공업부문 로동자들 히스도당의 반동적로조법을 반대하여 전국적인 총파업 단행

6일 바레인이 화란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지하기로 결정

7일 파키스탄이 동남아세아조약기구에서 정식 탈퇴

9일 1973년도 사회주의나라청소년친선국제력기경기대회 평양에서 진행 ▶세계민청뷰로가 유엔총회에 편지를 보내여 유엔총회가 조선문제에 관한 낡은 《결의》를 걷어치우고 조선의 통일에 이바지할 새로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조(로동신문) ▶베이징에 있는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가 여러 부들을 국내에로 소환하기로 결정 ▶영국공산당 제33차대회 진행(12일까지) ▶세계직련이 칠레군사도당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재정적《원조》를 규탄 ▶국제아랍로동자련맹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지원하고있는 미제와 화란의 상품을 아랍나라들에 부리는것을 반대하기로 결정

11일 애급과 이스라엘이 정전협정에 조인

12일 벌가리아당및정부대표단 뽈스까 방문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 후아리 부메디엔이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의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도록 제4차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 의장의 명의로 쁠럭불가담국가 수반들에게 전문을 보냄

13일 메히꼬공산당 제16차대회 진행 ▶흑아프리카 10개국 수뇌자회의 빠리

에서 진행

14일 제28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조선문제토의(21일까지) ▶일본공산당 제12차대회 진행(21일까지)

15일 필리핀에서 미제침략군 군사기지에 대한 원유제품공급을 중지

16일 알제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 진행 ▶에꽈도르공산당 제6차대회 진행 ▶아세아경기련맹 리사회에서 장개석도당의 이른바 전국체육조직을 내쫓고 중화전국체육총회의 합법적권리를 확인하는 결정 채택

17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련대성회의 헬싱키에서 진행 ▶니까라과사회주의당 제10차전국대회 진행 ▶에꽈도르공산당 제19차대회 진행 ▶필리핀이 벌가리아와 외교관계를 맺음 ▶핀란드 헬싱키에서 우리 나라 도서사진전시회 진행

18일 남부웰남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원우수 중국을 방문(24일까지)

19일 중근동및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쇼에서 진행 ▶캄보쟈피뢰공군 장교가 론놀놈이 도사리고있는 대통령궁전을 폭격하고 비행기를 가지고 해방지역에 넘어감 ▶제8차 아프리카통일기구 성원국 외교부장들의 비상회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진행 ▶우간다대통령 기네를 방문(23일까지) ▶기네—비싸우공화국이 아프리카통일기구의 정식성원국으로 됨 ▶기네—비싸우 당및국가대표단이 쏘련을 방문(24일까지)

21일 유엔총회 제28차회의 제1위원회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로 결정 ▶아프리카통일기구 긴급외교부장회의에서 남아프리카, 로데시아, 뽀르뚜갈에 대한 석유수출금지를 호소하는 결의와 정책선언을 채택

23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간 일본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대표단의 보고모임 도쿄에서 진행

25일 희랍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나 새 군사정권수립 ▶인도지나에 관한 스톡홀름회의 집행위원회 뷰로회의 유엔에서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나설것을 세계 모든 진보적력량에 호소

26일 제6차 아랍국가수뇌자회의 알제에서 진행(28일까지) ▶쏘련공산당 총비서 레오니드 브레쥬네브 인도를 방문(30일까지)

28일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재확인하고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을 표결없이 전원일치로 채택

29일 제1차 라틴아메리카진보청년회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을 보다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로동신문)

30일 웰남민주공화국 외교부 유엔총회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가 끝난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우리 나라 외교부의 11월 23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 ▶자이르대통령 농산부문의 모든 외국인회사들의 국유화를 발표 ▶탄자니아대통령 제국주의침략에 대처하여 국방력을 강화할것을 장병들에게 호소 ▶동부 및 중부아프리카 친선국가 외교부장회의 다르 에스 살람에서 진행, 회의에서 인종주의, 식민주의, 유태복고주의를 규탄

12 월

1일 파푸아 뉴기니아가 자치국으로 선포 ▶우루과이 친미반동정권이 《포고》를 발표하여 우루과이공산당과 사회당을 비롯한 여러개의 진보적단체들을 비법화, 진보적신문들을 폐간

2일 로므니아국가쏘베트 위원장 니꼴라예 챠우쉐쓰꾸 알제리를 방문

3일 메히꼬대통령이 나라의자주권과 200마일령해권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 싸울것이라고 언명 ▶방코크에서 진행된 《제1차국제학생회의》에 참가한 대표들 타이주재 남조선괴뢰대사관에 몰려가 체포구금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석방할것을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요구하는 항의문을 들이댐

4일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가 성과적으로 끝난것과 관련하여 3대륙 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이 호소문을 발표 ▶라오스애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과 캄보쟈왕국민족련합정부 외교부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이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대승리를 거둔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6일 세계직련에서 우루과이공산당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를 당장 내놓을것을 요구하여 성명

7일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티나와 아랍인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의 탄압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들을 채택 ▶국제기자동맹 서기국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가 성과적으로 끝난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8일 캄보쟈에 관한 국제회의 빠리에서 진행

9일 9개국 아랍석유수출국가기구 성원국회의에서 미국, 화란, 뽀르뚜갈,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에 대한 원유봉쇄정책을 계속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 ▶에꽈도르해군 총사령관 200마일령해권을 지킬것을 선포

10일 또고 수도 로메에서 15개 서아프리카나라 각료회의 진행

12일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을 나미비아인민의 진정한 대표로 인정하는 결의안 채택 ▶스웨리예 정부가 칠레와의 금융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무효로 선포 ▶벌가리아공산당 제1비서 또도르 쥡꼬브를 단장으로하는 벌가리아 당 및 정부대표단이 웽그리아를 방문

13일 국제학생동맹 서기국과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청년동맹이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견결히

(688페지에 계속)

조 선 중 앙 년 감 (1974년)

발 행 소 조선중앙통신사 평양시 외성구역 오탄동
인 쇄 소 평양종합인쇄공장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 쇄 1974년 11월 30일 발 행 1974년 12월 5일

ㄱ—44842 값 5원 50전